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精選

정선  
한국고승비문  
韓國高僧碑文

12



대한불교조계종 韓國傳統思想書 刊行委員會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12

精選韓國高僧碑文정선훈국고승비문 · 譯註역주  
*The selected 12 epitaphs*  
*from a collection of eminent monk's inscriptions*

역주 ▣ 가산지관

엮은곳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전화 · 팩스 ▣ 02)725-0364 · 02)725-0365

펴낸이 ▣ 대한불교조계종  
펴낸곳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출판부  
등록번호 제 300-2009-5호(2009.1.22)

인쇄일 2011년 3월 21일  
발행일 2011년 3월 31일

편집 · 디자인 ▣ 아르떼203  
인쇄 · 제책 ▣ 동화인쇄공사 · (주)가원

ISBN 978-89-94117-03-4 94220

ISBN 978-89-962509-0-6 (세트)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 홈페이지(<http://www.nl.go.kr/cip.php>)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 2010003258

© 2011 by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Buddhist Thought,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이 “한국전통사상총서” 간행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精選

韓國高僧碑文

정선  
한국고승비문

12

역주... 가산지관 伽山智冠



## 刊行辭 간행사

2000년이 시작되던 몇 년 전, 인류는 21세기를 새 천년 즉 밀레니엄이라 부르며 희망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육이 자행되는 분쟁지역의 비극과 경제위기 등 지구촌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미 세계는 늘 불안정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엄연한 고통의 바다라고 확인시키고 있으니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의 가르침입니다.

이 불안정한 생명의 바다에, 탐욕과 분노와 사건 즉 삼독이 파도치면, 무한으로 연결된 중생계의 고통은 더없이 가중될 것이며, 이에 반하여 탐욕을 치유하는 인내와 절제의 계학(戒學), 분노를 진정시키는 정학(定學), 사건을 정화하는 혜학(慧學) 등 삼학의 활동이 점차 증장될 수 있다면, 인류는 온 생명계를 요약케 하는 제일류(第一流)의 유정(有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5세기 이후 이미 불교공동체인 승가전통과 대승교학의 수승한 요체를 토착화한 이후 선문(禪門)의 정화를 거쳐 현재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수행승가를 통해 정법유산(正法遺產)을 단절 없이 전승하고 있는 귀중한 불연토(佛緣土)입니다.

자원과 영토 그리고 탐욕의 자본과 사건으로 얼룩진 종교분쟁 등, 삼독의







화염이 치연한 지구촌 그 한가운데서, 무명(無明)의 파도를 진정시킬 정  
법유산을 전승하고 또 널리 유통하는 일은 실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중을 애호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광대무변한 불법의 교설을 철약한  
'중요'로서 남긴 원효스님의 대자대비행으로부터, 대승의 광장설과 그 실  
천규범 등을 널리 유통키 위해 주석 등의 유산을 남긴 동아시아에 빛나는  
지성 원측스님과 대각국사 그 외 수많은 선지식들의 활동, 그리고 선문  
(禪門)을 중흥시켜, 경계 없는 마음의 영토를 계발시켜준 선사들의 어록  
과 행장 등, 우리불교의 전통으로 전승된 귀중한 유산들은 실로 우리 국  
민 나아가 인류공익의 위대한 유산들입니다.

이미 수집 출간된 『한국불교전서』 총14책에는 현재 한국고승 등 150여  
인에 의해 찬술된 320여 종의 문집이 고전 한문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습  
니다. 금번 문집간행불사의 1차 사업은 그 중 대표적인 고승문집 90여 종  
을 선별, 국역과 영역을 거쳐 각각 13책씩 총26책으로 출간하여 널리 유통  
하는 대작불사입니다.

근대 이후 우리사회는 서세동점에 급속히 포획되어, 전통의 단절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과 대중





들에게 전통의 위대한 유산들은 열리지 않는 보물창고로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은 어떤 생명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모든 생명은 오래된 과거의 기억들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며, 누적된 성찰과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로 이어지는 무한한 연속성을 감득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 기억의 상실은 세계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독해하기 어려운 고전한문의 높은 담 안에 갇혀 있는 정법의 유산들을 대중에게 회향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 빛을 감추어 머금고 있는 한국불교의 전통유산은 한국사회에서만 아니라, 세계인류에게 있어서도 생명계의 의내명주(衣內明珠)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구슬을 꺼내 갖고 닦아 빛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번역간행불사입니다. 위대한 유산의 전승은 그 인과(因果)를 아울러 수행할 때 원만히 성취될 수 있습니다. 체용(體用)이 상응하고 성상(性相)이 불유(不謬)해야 명실상부할 수 있으니, 모양은 그 쓰임의 결과로 빛나고 쓰임은 모양을 빌어 비로소 충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금번 번역사업은 불교문헌번역의 오래된 전범인 다자번역전통(多者翻譯傳統)을 원칙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삼장전승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삼장은 처음부터 합송(合誦)으로 결집(結集)되고 역장설치(譯場設置)를 통해 번역되는 등 다자가 참여하는 공동작업에 의해 전승되었습니다. 범어삼장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역장에는 범어를 이해하는 자와 한문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외의 역할을 달리하여 협력한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9인의 역관(譯官)으로 구성된





역장에는 범본삼장을 읽고 풀이하는 역주(譯主), 역주의 좌측에서 역주와 함께 그 뜻을 꼼꼼히 살피는 증의(證義), 역주의 우측에 자리하여 문장의 정밀함을 살피는 증문(證文), 출발어인 범문을 자세히 살피는 범학승(梵學僧), 현지어로 받아쓰는 필수(筆受), 번역된 글을 한자문법에 맞게 구문을 구성하는 철문(綴文), 범문과 한문을 대조하여 오류가 없도록 참교(參校)하는 참역(參譯), 산만한 문장을 다듬고 정리하는 간정(刊定), 역주와 마주하여 번역된 문장을 다듬어 아름답게 하는 윤문(潤文) 등이 협력하여 번역하였습니다. 다자들의 합송에 의한 결집으로 전승된 삼장은 다시 이렇듯 다자에 의한 협동으로 번역되어 전승되었고, 한국승가의 강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논강(論講) 또한 이러한 전통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독해와 전통이해 그리고 다양한 불교술어를 번역할 수 있는 연구자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고, 국고지원이 갖는 시간적 한계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한 불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전통의 다자번역 전통이라는 의미 있는 작업까지 아우르는 고난도 작업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간행위 여러분들과 국내외 번역자들 그리고 간행위 사무처 관계자 등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 불사의 원만회향을 부처님께 기원드리며 간행사에 대신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0월 10일

제32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위원장

가산지관 적음





## 完刊辭 완간사

한국전통사상총서 불교편 한글 완간본(完刊本)을 모든 불자들과 함께 삼보전(三寶前)에 봉정(奉呈)하옵니다.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시며,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가산지관(伽山智冠) 큰스님의 크신 원력(願力)이 한글역 완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글역과 함께 영역본도 간행위원분들과 영역, 교정, 편집을 담당하신 분들의 노고에 의해 간행됩니다.

이번에 13책으로 완간하게 된 한국전통사상총서 불교편은 삼국시대 이후 한국에서 꽃피운 1700년 불교역사의 정수(精髓)이자, 한국사상의 토대와 대들보입니다. 화쟁국사(和諍國師) 원효(元曉) 스님의 사상, 교육을 통한 후학 양성의 모범을 보이신 화엄(華嚴)의 대가 의상(義湘) 스님, 청렴한 결사운동(結社運動)으로 한국 선불교(禪佛敎)를 중천(重闡)하신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스님, 어려운 국난을 이겨내시고 한국불교 교육과 수행 전통을 정비하신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 스님을 축으로 하여, 삼국, 고려, 조선으로 면면히 이어진 한국불교의 핵심 사상을 이번에 완간한 전통사상총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사상총서 불교편에는 화엄(華嚴), 유식(唯識), 정토(淨土), 대승계(大乘戒), 선





불교(禪佛敎), 구도여행기, 삼국유사의 불교문화, 고승의 비문(碑文)이 정선(精選)되어 자세한 학술적인 역주와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통사상총서 완간의 의미를 1700년 한국불교의 사상과 수행 전통을 오늘날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의 등불로 삼아가는 중요한 노력의 한 결실이라고 봅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아시아의 한반도에 전해져 무수한 중생의 삶을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지혜(智慧)와 자비(慈悲)가 한반도에서 실현된 결실의 일부가 이 전통사상총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전통사상총서 속에서 우리는 바로 조계종단 집행부의 원력을 확인하고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소통(疏通)과 화합(和合)으로 함께하는 불교의 모습을 원효스님, 의상스님, 지눌스님, 휴정스님 등의 사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수행종풍(修行宗風) 선양,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은 바로 선현(先賢)들의 지혜와 자비가 담긴 고전(古典)을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는 역경(譯經) 불사(佛事)에서 비롯됩니다. 번역된 우리말 경전을 교육과 포교에 활용한다면 사회적 소통과 공동선(共同善) 실현을 위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전통사상총서는 영역(英譯)으로도 13책이 간행됩니다. 세계의 한국 불교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를 맡아 한글역을 대조해가면서 영역을 담당하였습니다. 한국불교의 고전이 영어로 단편적으로 소개된 예는 몇 차례 있었지만, 이와 같이 한국불교 사상의 정수를 모아서 영역되는 것은 처음이며, 한글역자와 영역자간의 다자간(多者間) 상호 검증체계를 통한 번역의 엄밀성을 시도한 것도 처음입니다.

영역된 한국전통사상총서는 분명히 이제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불교교학전통과 수행전통의 진면목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포교 네트워크화와 한국전통사찰체험, 템플스테이를 통한 한국불교 국제화의 기초자료이자 사상적, 실천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전통사상총서는 한글본 영역본 모두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도록 전자출판 형태로 공개합니다. 보시 가운데 가장 수승한 법보시(法布施)를 통해 한국불교의 지혜와 자비,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온 세계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불교는 지금까지 중흥의 기틀을 다져왔고 이제 웅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완간되는 전통사상총서는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의 나아갈 방향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번역과 교정 그리고 제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간행위원, 연구원, 영역자, 교정자, 편집자, 제작자 그리고 사무처의 모든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가산 지관 큰스님의 간행 원력에 수희(隨喜)찬탄(讚嘆)합니다.

이 대작불사(大作佛事)의 공덕(功德)을 제불보살(諸佛菩薩)님과 무량중생(無量衆生)에게 회향(回向)하며 완간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불기 2554(2010)년 1월 20일

제33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위원장

해봉 자승(海峰 慈乘)





신라국무주가지산보림사시보조선사영탑비  
新羅國武州迦智山寶林寺謚普照禪師靈塔碑



탑과 비[보물 제157·158호 장흥보림사 소재]



이수부 제액탁본



비문탁본







유당신라국고지리산쌍계사교시진감선사비  
有唐新羅國故知異山雙谿寺教誼眞鑑禪師碑



탐비[국보 제47호 하동쌍계사 소재]



비문탁본





유당신라국고양조국사교시대낭혜화상백월보광지탑비  
有唐新羅國故兩朝國師教誨大朗慧和尚白月葆光之塔碑



탑비[국보 제8호 남포성주사지 소재]



비문탁본





고려중원부고개천산정토사교시법경대사자등지탑비  
高麗中原府故開天山淨土寺教誡法鏡大師慈燈之塔碑



탑비[보물 제17호 충주정토사지 소재]



비문탁본





고려국광주혜목산고달원고국사제증시원종대사혜진지탑비  
高麗國廣州慧目山高達院故國師制贈諡元宗大師慧眞之塔碑



탑과 이수·귀부[보물 제7호·보물 제6호 여주고달사지 소재]



비문탁본



지액탁본





고려국운주가야산보원사고국사제증시법인삼중대사보승지탑비  
高麗國運州迦耶山普願寺故國師制贈諡法印三重大師寶乘之塔碑



탑비와 탑[보물 제106호·보물 제105호 서산보원사지 소재]



비문탁본



제액탁본







고려국원주법천사강진흥도명료돈오계정고묘응각탐현도원통  
제연오법동구행료성도수웅소량철증시지광국사현묘지탑비  
高麗國原州法泉寺講眞弘道明了頓悟戒正高妙應覺探玄道源通  
濟淵奧法棟具行了性導首融炤朗徹贈諡智光國師玄妙之塔碑



탑비와 탑[국보 59호·국보 101호·경복궁 소재]



비문탁본



제액탁본





고려국오관산대화엄영통사증시대각국사비  
高麗國五冠山大華嚴靈通寺贈諡大覺國師碑



탑비[개성영통사 소재]



비측면 봉황문양 탁본





승평부조계산송광사불일보조국사비  
昇平府曹溪山松廣寺佛日普照國師碑



탑과 비[시도유형문화재 제256호·제91호 순천송광사 소재]



비문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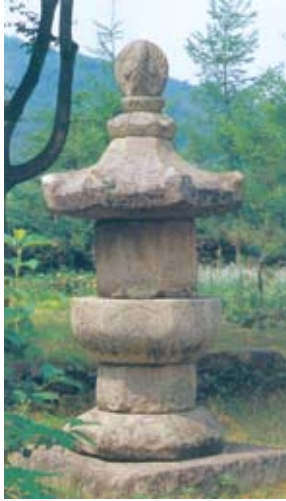
제액탁본







고려국화산조계종인각사가지산하보각국존비  
高麗國華山曹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



탑과 비편[보물 제428호 군위인각사 소재]



제액탁본



비문탁본





고려국국사대조계사조전불심인행해묘엄비지원웅찬리왕화부  
중수교대원보제일국대종사마가실다라이웅존자사원증탑비  
高麗國國師大曹溪嗣祖傳佛心印行解妙嚴悲智圓融贊理王化扶  
宗樹教大願普濟一國大宗師摩訶悉多羅利雄尊者諡圓證塔碑



탑비[보물 제611호 양주태고사 소재]



비문탁본





유명조선국사국일도대선사선교도총섭부종수교보제등계존자서산청허당휴정대사비  
有明朝鮮國賜國一都大禪師禪敎都摠攝扶宗樹敎普濟登階尊者西山淸虛堂休靜大師碑



탑비와 탑[회양표훈사백화암 소재]





## 凡例 일러두기

1. 이 책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한국불교 전통사상의 선양·유통을 위하여 기획한 한국전통사상총서 제12권 [정선 한국고승비문]이다.
2. 이 책의 번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의 번역 지침에 따랐다.
3. 여기에 실린 고승들의 [비문] 12편은 본 역주자의 『교감역주역대고승비문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제1권~제6권에 실린 총96기 중에서 발췌하였으며, ‘부록편’의 비문 3기는 『한국고승비문총집韓國高僧碑文叢集』 「조선조·근현대편」 총332편 중에서 발췌·번역하여 엮은 것이다.
4. 이미 교감·역주·출간되었던 12편의 비문은 본 총서의 출간목적과 편제에 맞게 교정·재편집 하였다.
5. 각 편의 「비문」마다의 저본은 각 비편 말미에 밝혀 두었으며, 여러 편의 저본을 참고한 경우, 교감 후 정자(正字)나 고자(古字)를 취하여 원문에 게재 하였다.
6. 저본이 된 『朝鮮金石總覽』은 [總覽]으로, 『海東金石苑』은 [苑]으로, 『韓國金





石全文』은 [全文]으로, 『拓本』은 [拓本]으로, 『朝鮮佛教通史』는 [通史]로 그 외의 저본의 약명은 각 편 도입부에서 별도로 밝혔다.

7. 각주의 표제어는 번역문의 한글과 원문의 한자를 병기하고 번역과 주석에 근거가 되는 교감내용을 함께 번역각주에 서술하였으며, 역주내용이 없거나 별도의 교감이 필요한 원문교감의 경우에는 원문에 각주하였다.
8. 본서의 역주자 작업본이며 본작업의 토대가 된,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간행본 『교감역주역대고승비문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신라편은 [신라편]으로, 『교감역주역대고승비문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고려편1~조선편1까지 총5권의 경우, [고려편1], [고려편2], [고려편3], [고려편4], [조선편1]로 표기하였다.
9.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教全書)는 ‘한불전’으로, 만속장경(卍續藏經)은 ‘근속장’으로,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은 ‘대정장’으로 표기하였다.
10. 산스크리트어는 ㉔, 팔리어는 ㉕, 티베트어는 ㉖로 표시하였다.







# 解題 해제







## 한국전통사상총서 고승비문 총설

1,700여년의 한국불교에는 불타의 혜명(慧命)을 계승하여 중생의 등불이 되고, 정법전승(正法傳承)의 주체로서 교단을 지도해 온 수많은 고승(高僧)들의 행장(行狀)이 돌에 새겨져 곳곳의 산문(山門)에 전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성사(聖史)요 문화사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이들 탑비석(塔碑石)에는 불교사의 중심에서 활동한 고승들의 위적(偉蹟)은 물론 시대를 압축하는 의미있는 문화유산(文化遺産)이 더불어 아름답고 견고하게 아로새겨져 전한다.<sup>1)</sup>

불교의 역사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교학(敎學)의 연찬과 유통의 주체인 승가(僧伽)의 활약, 대내외적인 국가와의 교섭사, 그리고 문화사전반에 걸친 폭넓은 상호영향 등 종합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교단의 핵심주체인 승가구성원들을 이해하기 위한 승사(僧史)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오랫동안 고승전(高僧傳)과 같은 특별한 양식으로 결집되어 전승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비명(碑銘)」의 형식으로 전승된 동아시아에서의 승전(僧傳) 기록은 법맥상승(法脈相承)이라는 선종(禪宗)의 각별한 의도와 전통 그리고 기록장르에서 독특한 가치를 지닌 금석문화(金石文化)와 연계되어 교단사(敎團史)를 포함한 문화사전반에 걸쳐 중요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고승의 생애를 담아 전하는 비석은 일차기록자료로서의 의의를 갖는 동시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종합조형물로서의 예술적 의미도 포함한다. 대

---

1) 이지관, 『한국고승비문총집』조선조·근현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자서(自序).

부분 입적(入寂) 시점에서 얼마 멀지 않은 당대에 건립되는 탑비석(塔碑石)은 옥외(屋外)에 설치되어 대중(大衆)에게 공개된다. 여타의 전적류(典籍類)와는 달리 비문은 매우 개방적이고 공적인 유산이다. 당대를 대표하는 문사(文士)가 글을 짓고, 그 시대를 풍미한 서가(書家)가 글씨를 쓰며, 그 시절을 이끄는 예술가에 의해 조각되는 등 복수의 장르들이 참여하여 조성되는 탑과 비석이야말로 당대의 문화수준과 교단의 역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신라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왕사(王師)나 국사(國師)를 지낸 고승탑비의 경우, 각계각층의 사부대중(四部大衆)이 건립 주체가 되어 진행된다. 왕실의 지원은 물론 유력한 단월(檀越)들의 동참으로 마련된 재원(財源)이 토대가 되고, 임금의 전교로 선발되는 당대 문사와 서가들의 참여는 물론 조형(造型), 각자(刻字) 등 당대 최고의 공예예술과 건축기술이 총동원된다. 이 인연 위에 신명(身命)을 다하여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이어온 고승들의 행장이 새겨지게 된다. 이렇듯 일천 여 년간 꾸준히 찬술·제작된 고승비문은 한국불교사는 물론 지성사(知性史)와 문화사(文化史)를 아울러 조감(鳥瞰)하는 주요한 자료가 되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교계의 역사적 의미를 추적할 수 있는 전기적(傳記的) 일차자료라는 점이다. 비문은 본래 주인공의 덕화(德化)를 찬미하기 위해 작성된다. 출가동기와 승계의 획득, 구도행각, 법계전승, 그리고 문도인연 등 주인공인 1인의 상세한 행적(行蹟)뿐만 아니라, 교단내적으로는 사자(師資)나 교유관계 등은 물론 사원의 기능과 조직운영 및 승정체계 등 당대불교계의 동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편 국가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고승들의 행적인 경우 당대 불교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면모도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외에도 공적인 장에서 활동한 고승들의 비문이

찾는 중층(重層)의 서사(敍事) 구조상, 의미 있는 많은 정보들이 함축되어 전한다.

그동안 이러한 고승비문류를 포함한 비문자료들이 수집되었는데, 조선 후기의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을 비롯하여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한국금석문추보韓國金石文追補』, 『한국금석유문韓國金石遺文』, 『한국금석전문韓國金石全文』, 『한국금석문대계韓國金石文大系』 등이 간행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수려한 문장과 절약(撮略)한 내용의 한문으로 된 금석문은 역사연구의 일차자료로서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상, 역사, 교리, 철학, 민속, 문학, 서예, 미술 등 그 시대를 풍미했던 다양한 가치들이 어우러진 종합의 문학임에도, 미술과 실측분야 등은 그런대로 연구되어 왔으나, 번역과 사상연구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조감(鳥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쓰라기 마쓰기(葛城末治)의 『조선금석고朝鮮金石考』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全無)한 상태라 할 수 있었던 1990년, 필자는 원력사업을 위해 개원한 가산불교문화연구원(伽山佛教文化研究院)에 ‘한국불교금석문(韓國佛教金石文)’이라는 강설마당을 개설하였고, 10여년간 고승(高僧)들의 비문을 모아 구절을 띄고 체재를 정비한 후, 원문을 교감(校勘)·역주(譯註)하여, 한국불교금석교감역주총서(韓國佛教金石文校勘譯註叢書)인 『교감역주역대고승비문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통권 6책을 연속 간행하게 되었다.

신라와 고려시대의 고승비문은 모두 역주하였고, 조선시대의 비문은 일부 작업하였다.<sup>2)</sup> 그 결과 신라시대의 고승비문 11편, 고려시대의 고승비문과 묘지명 83편, 조선시대의 고승비문 23편 등 모두 117기의 고승비문에 대한 상세한 역주작업을 마쳤으며, 아울러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수많은

2) 이지관, 『교감역주역대고승비문』신라편, 고려편 1·2·3·4, 조선편 1,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3·1994·1995·1996·1997·1998.

조선시대 고승들의 비문은 제방의 자료들을 조사하고 수집·채록·정리하여 『한국고승비문총집韓國高僧碑文總集』 조선조·근현대편으로 묶어 2000년에 간행하였다.<sup>3)</sup> 이 총집에는 332편의 고승비문이 수록되었으며, 이중에 1910년 이전에 입적한 전통시대 고승들의 비문이 207편에 이른다.

비가 건립되어 비문을 남기게 된 스님들의 위상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신라시대에 비가 세워진 고승들의 위상을 명확히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교단내외의 지도자급 고승들임에 틀림없다. 고려시대의 경우는 국사(國師), 국존(國尊) 또는 왕사(王師) 등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던 고승의 경우 거의 모두 비문이 제작 건립되었다. 반면에 고려 중기에는 국사는 아니지만 대중에게 영향력이 컸던 스님들의 비석이 집중 건립되거나, 묘지명(墓誌銘)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스님들의 위상이나 건립주체들의 공력(功力)에 따라 기념물에도 차이가 있게 된다. 특히 신라나 고려시대의 경우 대부분은 고승이 입적하면 재가·출가의 제자들이 국왕에게 시호(諡號)를 주청하고, 이에 왕이 조칙을 내려 시호(諡號)와 탑호(塔號)를 하사하며, 근신(近臣)에게 비문을 짓도록 하는 것이 상례였다.<sup>4)</sup> 불교가 국가적 지도 이념이었던 고려시대와 달리 교세가 크게 제약받았던 조선시대에는 입적 후 출가 문도들이 행장(行狀)의 초를 만들고 이를 인연 있는 문사에게 청탁하여 비문을 짓게 하고, 문도와 단월들이 중심이 되어 비를 건립하였다. 이렇듯 조선시대에는 후세 문도들의 정성과 단월들의 원력에 따라 탑비의 규모나 형태, 비문의 분량 등에 있어서 각별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대 권세가였던 재가자와 역동적인 문도들로 구성된 건립주체들이 왕실의 적극적 후원을 받아가며 건립하였던 고려시대 국사급 고승들의 비석과는 비교할 수는 없

3) 이지관, 『한국고승비문총집』 조선조·근현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4) 정병삼, 「고려 고승 비문 역주의 과제와 방향」 『고려시대연구』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p.12.

지만, 조선조 불교계도 문도들의 정성과 힘을 다한 결과 200여 편이 넘는 고승들의 행장을 남기게 되었다.

한국전통사상총서의 총론격인 본서에서는 신라시대에서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는 한국불교의 상징적인 고승들의 비문 12편을 선정·게재하였다. 신라시대의 「장흥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문長興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文」, 「하동쌍계사진감국사대공영탑비문河東雙溪寺眞鑑國師大空靈塔碑文」, 「남포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藍浦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文」과, 고려시대의 「충주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문忠州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文」, 「여주고달원원종대사혜진탑비문驪州高達院元宗大師慧眞塔碑文」, 「해미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비문海美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文」, 「원주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문原州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文」, 「개성영통사대각국사비문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文」, 「순천송광사불일보조국사비문順天松廣寺佛日普照國師碑文」, 「군위인각사보각국존정조탑비문軍威麟角寺普覺國尊靜照塔碑文」, 「양주태고사원증국사탑비문楊州太古寺圓證國師塔碑文」과, 조선시대의 「회양표훈사백화암청허당휴정대사비문淮陽表訓寺白華庵淸虛堂休靜大師碑文」의 12편이다.

비문들의 형식은 공통적으로 운문(韻文)의 명(銘)을 중심으로 삼고, 이에 대한 산문(散文)형식의 서문(序文)으로 실제생애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비문의 표제(標題)는 ‘○○대사비명병서(○○大師碑銘并序)’ 곧 명(銘)과 그에 대한 서(序)로 구성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서문(序文)이 끝남과 동시에 ‘명운(銘云)’ 혹은 ‘사왈(詞曰)’로 시작되는 명문(銘文)은 산문인 서의 내용을 다시 운문인 중송(重頌)으로 읊은 것이다. 이면(裏面) 즉 「음기陰記」에는 건립주체들인 문도질(門徒秩)과 단월질 등 동참한 대중명단이 새겨진다.

특히 나말려초 고승비문 행장(行狀)들은 일정한 유형을 보인다(표1). 유

덕(有德)하고 훌륭한 가계(家系)에서 신이(神異)한 출생담을 인연하여 태어나며, 남다른 생장(生長)과정을 거쳐 발심(發心)하게 되며, 선지식을 찾아 불문(佛門)에 출가한다. 수승한 법연(法緣)을 이어 수행하다 깨달음을 얻고, 대중들에게 폭넓은 교화를 행하다가 입적하니, 그를 기리는 이들이 많았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중국에 유학하여 법맥을 전승해 온 고승의 경우 입당구법(入唐求法)의 여정이 추가된다.

산문형식의 서문(序文)이 시작되는 행장 도입부 전반부에는 주인공의 사상적 특징에 근거한 종지(宗旨)나 불교에 대한 일반적 개요를 서술하게 되는데, 선사(禪師)의 경우는 선지(禪旨)를 활약하게 서술한 후 행장서술에 들어간다. 비문찬술의 인연담은 건립경위들과 함께 서문 후반부에 대개 쓰여지지만, 간혹 도입부에서 밝히기도 한다.

본서에서 선정하여 재제한 비문의 주인공인 고승 12인은 신라시대 선종 도입기의 대표적인 선사들과 고려초기의 선교(禪敎)에 아울러 출중하고 교단 안팎에서 중심역할을 하던 고승들, 고려중후기에는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고 교단을 이끌었던 고승들과 조선후기 불교계의 태두로 꼽히는 고승 등 모두 당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고승들이다.

行狀主	01 普照禪師	02 眞鑑禪師	03 朗慧和尚	04 法鏡大師	05 元宗大師	06 法印國師
생몰년	804-880	784-850	800-888	879-921	869-958	900-975
건립년	884년	887년	890년이후	943년	975년	978년
비문분량	34행	39행	58행	41행	42행	46행
題額撰書者	1-2	1-2	1-2	1-3	1-2	1-2
【序】	【3-28】	【3-29】	【3-52】	【4-38】	【3-40】	【3-43】
序	3- 7	3- 7	3- 9	3-10	3- 4	3- 4
家系出生生長	7-95	7-11	9-16	11-13	4- 6	4- 5
出家修行	9-13	11	16-18	13-19	7-10	5-11
留學	13-14	11-15	18-24	19-23	10-14	11-33
教化	14-22	15-23	24-43	23-32	14-29	33-43
入寂塔碑建立	22-28	23-25	43-48	32-36	29-36	
追慕景行		26-35	48-52	36-38	36-40	

銘	29-32	36-38	53-57	39-40	41-42	44-46
建立日刻書者	33-34	39	58	41	42	46
陰記				○	○	
撰者	金穎	崔致遠	崔致遠	崔彦搆	金廷彦	金廷彦
書者	金蓮 外	崔致遠	崔仁浼	具足達	張端說	韓允

行狀主	07 智光國師	08 大覺國師	09 普照國師	10 普覺國尊	11 圓證國師	12 清虛大師
생몰년	984-1070	1055-1101	1158-1210	1206-1289	1301-1382	1632년
건립년	1085년	1125년	1213년	1295년	1385년	1632년
비문분량	43행	51행	36행	35행	31행	26행
題額撰書者	1-3	1-3	1-4	1-2	1-3	1-3
【序】	【4-39】	【4-46】	【5-32】	【3-31】	【4-28】	【4-46】
序	4- 6	4- 6	5- 7	3- 4	4- 5	4- 8
家系出生生長	6-11	6- 7	7- 8	4- 6	5- 6	8-11
出家修行	11-15	7-12	8-15	6- 9	6- 9	11-13
留學		12-25			9-13	
教化	15-34	26-33	15-22	9-18	13-33	13-17
入寂塔碑建立	34-39	33-35	22-26	18-25	23-26	17-19
追慕景行		35-46	26-32	26-31	26-28	19-22
銘	40-43	47-51	33-35	32-35	29-30	23-25
建立日刻書者	43		36	35	31	26
陰記	○	○	○	○	○	○
撰者	鄭惟產	金富軾	金君綏	閔漬	李穡	李廷龜
書者	安民厚	吳彦侯	柳伸	集王羲之	權鑄	申翊聖

본서에 수록된 12편 비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01) 「장흥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문長興寶林寺普照禪師章聖塔碑文」

- 제원 | 신라 헌강왕 10년(884) 건립, ►보물 제158호, ►크기: 총 높이 3.46m, ►소재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보림사, ►찬자(撰者): 김영(金穎), ►서자: 김원(金蓮)의 해서(解書), 김언경(金彦卿)의 행서(行書), ►각자: 현창(賢暢).

장흥 보림사에 보조선사창성탑과 나란히 건립된 보조선사 체징(體澄)의 비이다. 귀부(龜部)와 이수(虯首) 그리고 이수에 제액(題額)을 제대로 갖춘

전형적인 비석형태를 보여준다. 현재도 많은 글자를 판독할 수 있을 만큼 비면 상태가 양호하다. 보조선사는 웅진 출신의 김씨로 804년(애장왕 5)에 태어나 권(勸)법사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24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설악산 역성사에서 염거(廉居)화상에게서 수학하여 법인(法印)을 전해 받고 837년 중국에 유학하여 840년에 귀국한 후 교화활동을 펴다가 858년에는 무주 황학난야(黃壑蘭若)에 주석하였으며, 국왕의 청으로 가지산사(迦智山寺, 입적 후 寶林寺로 사액)로 옮겨 수행하였다. 858년에는 김수종과 현안왕 등의 시주로 보림사에 철조비로자나불을 조성 봉안하였으며, 880년(현강왕 6)에 77세로 입적하였다. 선종 구산문의 하나인 가지산문(迦智山門)의 개창조(開倉祖)로 추앙되었으며, 특히 법맥이 보조선사 → 염거 → 도의(道義)로 거슬러 올라가 남종선(南宗禪)을 처음으로 도입한 도의선사(道義禪師)의 위상에 따라 선문종가(禪門宗家)로까지 추앙받았다. 비문에서도 보조선사를 우리나라 선종의 제3조로 기술하였다. 입적한 지 4년만인 884년(현강왕 10)에 건립된 비는 이 시기 선배 스님들보다 건립 연대가 빠르다. 비문을 김원(金遠)과 김언경(金彦卿) 두 사람이 나누어 쓴 것이 특징으로, 한 비면에 다른 글씨체가 나란히 새겨져 있다. 가지산문의 개창과 조종(祖宗) 계승 의식 그리고 신라 하대 선종의 형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02) 「하동쌍계사진감국사대공영탑비문河東雙溪寺眞鑑國師大空靈塔碑文」

- 제원 | 신라 진성왕 원년(887년) 건립, ▶국보 제47호, ▶크기: 총 높이 3.63m, 비신 높이 2.13m, 너비 1.03m, ▶소재지: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찬자: 최치원(崔致遠), ▶서자: 최치원(崔致遠) 해서, ▶각자: 환영(樊榮).

하동 쌍계사에 건립된 진감선사 혜소(慧昭)의 비로서, 진감선사탑은 거



리가 조금 떨어진 인근에 세워져 있다. 귀부에 이수를 갖추었으며 남아 있는 비면의 글씨는 선명하게 보존되었으나 일부분 훼손되었고 크게 세 부분으로 파손되어 철제틀로 보호받고 있다. 진감선사는 금마 출신의 최씨로 774년(혜공왕 10)에 태어나 젊어서는 생선장사를 하여 부모를 봉양하였다. 804년에 중국에 유학하여 신감대사(神鑑大師)에게 인가를 받고 810년에 소림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도의를 만나 함께 수도하다가 종남산으로 옮겨 수행한 후 830년에 귀국하여 상주 장백사(長栢寺)에서 교화하다가 지리산 화개곡으로 옮겨 교화를 펼쳤다. 838년에 민애왕이 혜소라는 호를 내리고 다시 옥천사(玉泉寺, 입적 후 ‘쌍계사’ 제액을 내림)를 창건하여 주석하였다. 850년(문성왕 12)에 77세로 입적하였다. 진감선사는 선사(禪師)로서의 가풍외에도 범패(梵唄)에도 뛰어난 면모를 보였다. 진감선사가 활동한 쌍계사는 구산선문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신라말에 희양산문의 공양(兢讓)이 자신이 혜소의 증손제자(曾孫弟子)라 칭하여 산문의 법맥을 계승하였음을 표방하였다. 최치원이 짓고 구양순체의 수려한 문체로 직접 쓴 유일한 비로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 03) 「남포성주사낭혜화상백일보광탑비문 藍浦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文」

■제원 | 신라 진성여왕 4년(890) 이후 건립, ▶국보 제8호, ▶크기: 총높이 4.55m 비신높이 2.51m 폭 1.48m, ▶소재지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성주사지, ▶찬자: 최치원(崔致遠), ▶서자: 최인연(崔仁澆) 해서, ▶각자 미상.

보령 성주사터에 있는 낭혜화상 무염(無染)의 비로서, 낭혜화상탑은 남아 있지 않다. 귀부와 이수를 갖춘 거대한 비인데 비문에 담긴 내용이 5,120자에 달하여 역대 비문 중 가장 긴 편에 속하는 거비(巨碑)이다. 일부 마모

된 글자를 제외하고는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낭혜 화상은 김씨로 무열왕(武烈王)의 8대손이다. 특히 부친이 진골에서 6두품으로 신분이 강등되었음을 비문에 전하고 있어 신분제 상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800년(애장왕 1)에 출생하여 13세에 오색석사(五色石寺)로 출가하여 법성(法性)선사에게 수학한 후 부석사에서 화엄을 배우다 821년 경(헌덕왕 13) 중국에 유학하여 불광사 여만(如滿)에게 도를 묻고 마곡보철(麻谷寶徹)을 만나 인가를 받았다. 845년(문성왕 7)에 귀국하여 847년 경에 성주사를 짓고 교화하였다. 경문왕이 871년에 궁궐로 초빙하여 스승으로 삼고 상주 심묘사(深妙寺)에 머물도록 하였다. 성주사에 주석하며 험강왕의 명으로 다시 궁궐로 나와 법석(法席)을 폈다. 888년(진성여왕 2)에 89세로 입적하였고, 입적한 지 2년만에 비를 세웠다. 비문은 최치원이 지었는데 비문 중에 고려 왕의 피휘(避諱) 글자가 보여 어떤 연유에서인지 고려에 들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문에서는 낭혜화상의 비가 성주사비 이외에 험강왕이 지은 심묘사(深妙寺)비도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 04) 「충주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문 忠州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文」

- 제원 | 고려 태조 26년(943) 건립, ▶보물 제17호, ▶크기: 총높이 3.22m 너비 1.50m 두께 31cm, ▶소재지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정토사지, ▶찬자: 최언위(崔彦爲), ▶서자: 구족달(仇足達) 해서, ▶각자: 승(僧) 광예(光義)·장초(壯超)·행총(幸聰)·행초(行超).

충주 정토사 터에 있는 법경대사 현휘(玄暉)의 비이다. 원래 비의 자리가 충주댐 건설로 수몰되어 인근으로 옮겨졌다. 귀부와 이수를 갖추었는데 비면에 총탄 자국이 많이 나있어 글자가 손상되었다. 법경대사는 879년(현강왕 5)에 남원에서 이씨로 태어나 영각산사의 심광(深光)대사에게 출가한 후 20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선수행을 하다 906년에 당에 건너가 구봉도건

(九峰道虔)의 법을 받고 제방(諸方)을 유력한 후 924년에 귀국하였다. 태조에 의해 국사 대우를 받고 정토사에서 교화 활동을 폈으며, 이 지역 호족인 유권열(劉權說)의 귀의를 받기도 하였다. 941년(태조 24)에 63세로 입적하였다. 비는 2년만에 세웠고 「음기」은 944년에 썼다. 법경대사는 선교(禪敎)를 아우르는 사상적 경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고려초 불교사상사에 있어서 중요하다. 「음기」에는 도속(道俗)의 많은 사람들이 수록되어 있어 고려 초기의 지방통치체제와 승관(僧官)과 삼강전(三綱典) 등 사직(寺職)의 연구자료로서도 활용된다.

#### 05) 「여주고달원원종대사혜진탑비문 驪州高達院元宗大師慧眞塔碑文」

- 제원 | 고려 광종 26년(975) 건립, ▶보물 제6호, ▶크기: 높이 2.79m 너비 1.60m 두께 33cm, 글자크기 2.1cm, ▶원소재지: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고달사지, ▶현소재지: 국립중앙박물관, ▶찬자: 김정언(金廷彦), ▶서자: 장단열(張端說) 해서, ▶각자: 이정순(李貞順).

여주 고달사 터에 있던 원종대사 찬유(璨幽)의 비이다. 거대한 형태에 수려한 조각의 귀부와 이수는 원터에 남아 있고, 비신은 8조각으로 파손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다. 파손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글자의 판독이 가능하다. 원종대사탑은 원비 자리에서 약간 떨어진 고달사터에 남아 있다. 원종대사는 하남 출신의 김씨로 869년(경문왕 9)에 태어나 삼랑사의 용제(融諦)선사에게 배우고, 용제의 권유로 해묵산의 심희(審希)에게 수학하였다. 22세에 구족계를 받고 스승을 따라 광주 송계선원에서 수행하였으며, 892년에 당에 건너가 투자대동(投子大同)의 법을 잇고 제방을 구도행각하다 921년에 귀국하였다. 태조를 만나 법연(法緣)을 맺고 해묵산에서 선풍을 진작하였다. 혜종과 정종으로부터도 귀의를 받았으며, 광종 때 국사로 책봉되어 활동하다 958년(광종 9)에 90세로 입적하였다. 대사가 입적

한 17년 뒤에 비가 건립되었으며, 2년 뒤인 977년(경종 2)에 「음기」를 기록하였다. 원종대사는 광종대를 중심으로한 고려초 불교사의 전개에 중심이 되는 고승이다. 「음기」에 고달원이 회양원, 도봉원과 함께 3대 부동사원(不動寺院)으로 중시되었음을 기록한 내용은 고려초 불교교단 이해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삼강전과 탐비 건립에 관련된 직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 06) 「해미보원사법인국사보승탐비문海美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文」

■제원 | 고려 경종 3년(978) 건립, ▶보물 제106호, ▶크기: 총높이 4.25m 비  
신높이 2.40m 폭 1.16m 두께 29cm, 글자크기 1.5cm, ▶소재지: 충  
남 서산시 운산면 웅현리 보원사지, ▶찬자: 김정언(金廷彦), ▶서자:  
한윤(韓允) 해서, ▶각자: 김승렴(金承廉).

서산 보원사 터에 있는 법인국사 탄문(坦文)의 비로서, 법인국사탑과 나란히 세워져 있다. 귀부와 이수를 잘 갖추고 승탑과도 짝을 이루어 서 있어 탑비의 전형을 보여준다. 법인국사는 900년(효공왕 4)에 태어나 장의사의 신엄(信嚴)에게 화엄을 배운 화엄종 고승이다. 15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921년에 태조가 시행한 승과를 주관하였고, 기도하여 광종을 낳게 하여 깊은 법연을 맺었다. 구룡산사에서 화엄을 강설하였고, 942년에 재해를 물리치고자 반야경을 강설하였다. 혜종은 스님을 스승으로 추대하였으며, 광종은 귀법사를 창건하여 주지하게 하고 말년에 국사로 책봉하였다. 법인국사는 보원사에 돌아가 975년(광종 26)에 76세로 입적하였다. 비는 국사 입적 후 3년 뒤인 978년(경종 3)에 세웠다. 고려초에 선종 위주에서 교종의 활동이 증대되는 불교계의 변화상을 화엄종을 중심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비제(碑題)에 삼종대사를 적어 넣는 등 승과시행이후 법계를 중시하던 당시 양상을 볼 수 있다.

07) 「원주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문原州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文」

■제원 | 고려 선종 2년(1085) 건립, ▶국보 제59호, ▶크기: 총높이 4.55m 비  
 신높이 2.95m 너비 1.40m 글자크기 2.1cm,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법천사지, ▶찬자: 정유산(鄭惟産), ▶서자: 안민후(安民  
 厚) 해서, ▶각자: 이영보(李英輔)·장자춘(張子春).

원주 법천사 터에 있는 지광국사 해린(海麟)의 비로서, 우수한 솜씨로 조  
 각한 귀부와 이수마저 갖추고 잘 보존되어 있다. 지광국사현묘탑은 방형  
 (方形)에 휘장을 드리운 특유의 형태로서 경복궁 안 국립고궁박물관 곁에  
 이진되어 있다. 지광국사는 원주 출신의 원씨로 984년(성종 3)에 태어나 법  
 천사의 관웅(寬雄)에게 배우다 해안사의 준광(俊光)에게 출가하여 수학하  
 였다. 16세에 구족계를 받고 21세에 승과에 급제하여 대덕의 법계를 받았  
 다. 1013년에 대사가 되고 약 10년 후에 중대사, 1031년 경에는 삼중대사  
 를 받았다. 궁궐에서 『법화경』을 강설하였으며 이자연의 아들 소현(韶顯)  
 을 제자로 두었다. 1054년에 문종이 현화사(玄化寺)에 주석하게 하였으며  
 1056년에 왕사, 1058년에 국사로 연이어 책봉하였다. 1070년(문종 24)에 87  
 세로 입적하였다. 비는 입적 후 15년이 지난 1085년(선종 2)에 세웠다. 지광  
 국사는 법상종(法相宗)의 고승으로 고려 교종교단의 활동을 대표하는 고  
 승이다. 비문의 내용에는 왕사로 책봉할 때의 과정과 승계가 올라갈 때마  
 다 가사를 하사받고 법호를 받았던 사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불교교  
 단운영의 실태를 알려주는 자료가 된다. 「음기」에는 문도를 수교계업자(受  
 敎繼業者), 수직가계자(隨職加階者), 모덕귀화자(慕德歸化者), 선후사이몰  
 세자(先後師而沒世者)로 구분하여 1400인에 이르는 대중질을 새겨넣은 것  
 이 특징이다.

## 08) 「개성영통사대각국사비문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文」

■제원 | 고려 인종 3년(1125) 건립, ▶크기: 총높이 4.32m 비신높이 2.92m 너비 1.58m 두께 18.2cm, 글자크기 1.8cm, ▶소재지: 황해북도 개성시 월고리 영통사지, ▶찬자: 김부식(金富軾), ▶서자: 오언후(吳彦侯) 해서, ▶각자: 미상.

북한 지역인 개성 영통사 터에 있는 대각국사 의천(義天)의 비로서 비 전면 하반부가 손상되기는 하였으나 귀부에 이수 대신 가침석의 상부가 잘 남아 있다. 대각국사는 1055년(문종 9)에 문종의 제4자로 태어나 11세에 영통사에서 화엄종의 경덕국사(景德國師) 문하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화엄을 비롯하여 대소승경전과 외전을 익혔다. 1067년에 승통이 되고, 1085년에 송에 가서 14개월 동안 50여 명의 고승들을 만나고 4천여권의 전적을 수집하여 돌아왔다. 홍왕사에서 교장(敎藏)을 간행하고 홍원사, 해인사, 홍왕사 등에서 활동하였다. 1097년에 국청사(國淸寺)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립하고 『원종문류圓宗文類』를 편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1101년(숙종 6)에 47세로 입적하였다. 입적 후 곧바로 윤관(尹瓘)이 쓴 비가 세워졌는데, 이 영통사비는 입적 24년이 지나 문도들의 의견 차이로 화엄종(華嚴宗) 문도들에 의해 새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7년 후에는 천태종(天台宗) 문도들에 의해 선봉사비가 건립되었고, 입적 후 만든 묘지명도 있어 세 종류의 기록이 남아 있다. 묘지와 비, 그리고 비의 건립 주체에 따라 내용이 어떻게 다른 지를 비견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음기」에는 탑을 세우는 과정에 동참한 인물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문도들을 본래 대각국사의 스승인 경덕국사의 문인이었던 대중과 대각국사의 제자를 구분하여 실었다.

# 09) 「순천송광사불일보조국사비문順天松廣寺佛日普照國師碑文」

- 제원 | 고려 강종 2년(1213) 건립, ▶조선 숙종 4년(1678) 중건, ▶크기: 전체  
높이 3.94m 비신높이 2.53m 너비 1.0m, ▶소재지: 전남 순천시 송광  
면 신평리 송광사, ▶찬자: 김군수(金君綏), ▶서자: 유신(柳伸) 해서,  
▶각자: 보창(寶昌).

순천 송광사에 있는 보조국사 지눌(知訥)의 비로서, 비는 본 절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부도전에 있고 보조국사탑은 송광사 경내에 있다. 보조국사는 동주(황해도 瑞興) 출신의 정씨로 1158년(의종 12)에 태어나 조계종의 종휘(宗徽)선사에게 출가하여 수학하다 25세에 승과에 급제하였다. 『육조단경(六祖壇經)』을 읽다가 깨침을 얻었고, 『화엄경합론(華嚴經合論)』을 보고 이치를 알았으며 지리산 상무주암(上無住庵)에서 『대혜어록(大慧語錄)』을 보고 다시 깨달음을 얻었다. 팔공산 거조사(居祖寺)에서 동료들과 정혜결사(定慧結社)를 결성하여 수행을 선도하고 상무주암을 거쳐 1200년에 송광산 길상사(조계산 수선사로 이름을 바꿈)로 옮겨 수백명의 입사자(入仕者)를 지도하며 정진하다가 1210년(희종 6)에 53세로 입적하였다. 입적한지 3년 후 1213년(강종 2)에 비가 세워졌으나 조선시대에 임란으로 비가 무너져 백암성충(栢庵性聰)이 원 비문을 다시 새겨 1678년(숙종 4)에 중건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비는 전면과 후면 전반에 걸쳐 원 비문을 다시 쓰고, 후면에는 중건 배경과 건립 참여자들을 수록하였다. 보조국사는 고려 후기 결사불교(結社佛教)를 선도하고 정혜쌍수(定慧雙修) 관점에서 선사상을 집대성한 최고의 사상가였다. 이 비문은 보조국사의 수행과정을 차례로 잘 묘사하였고 사상적 핵심도 산문으로 요약 제시하여 요점과 세밀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또한 비의 손상과 재건 사정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다.

# 10) 「군위인각사보각국존정조탑비문軍威麟角寺普覺國尊靜照塔碑文」

■제원 | 고려 충렬왕 21년(1295) 건립, ▶보물 제428호, ▶크기: 비신높이 1.80m 폭 1.01m 두께 15cm 추정, 글자크기 1.8cm, ▶소재지: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인각사, ▶찬자: 민지(閔漬), ▶서자: 왕희지체를 죽허(竹虛)가 집(集)했다. 행서, ▶각자: 미상.

군위 인각사에 있는 보각국사 일연(一然)의 비로서, 인각사 인근 산중에 있었으나 하부의 극히 일부만 남아 현재 인각사 경내에 옮겨 보존되고 있다. 보각국사는 경산 출신의 김씨로 1206년(희종 2)에 태어나 무량사(無量寺)에서 수학하고 1219년에 진전사(陳田寺) 대웅(大雄)에게 출가하여 1227년 승과에 급제하였다. 포산 보당암에서 수행하다 몽고 침공을 맞아 오랫동안 무주암 등의 포산에서 지냈다. 1249년에 남해 정림사 주지가 되고 1259년에 왕명으로 개경 선월사에 주석하였으며 오어사, 인홍사를 거쳐 1277년에 운문사(雲門寺) 주지가 되었다. 1283년에 국존(國尊)에 책봉되고 포산에 물러나 노모를 봉양하기도 하였다. 1284년에 인각사에 주석하다 1289년(충렬왕 15)에 84세로 입적하였다. 비는 입적한 지 6년만인 1295년(충렬왕 21)에 세웠다. 왕희지의 글씨를 집자한 비는 남아 있는 부분이 아주 적으나, 시점을 달리하는 20여 종의 탁본이 남아 있어 비 전체를 거의 복원할 수 있었다. 입적하기 전에 제자들과 선문답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 특이하다. 「음기」는 문인 산립(山立)이 지었는데 국사의 특별한 행적 몇 가지를 기록하고 문도들을 스님들과 재가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여기에 열거한 승계 가운데 대선(大選), 입선(入選), 참학(參學) 등 본래 고려 승계에는 없는 내용들이 주목되는 자료이며, 십 여인의 재상과 추신(樞臣)을 비롯한 40여 인의 재가신도 명단은 당시 불교계와 사회 관계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이다.



## 11) 「양주태고사원증국사탑비문楊州太古寺圓證國師塔碑文」

■제원 | 고려 우왕 11년(1385) 건립, ▶보물 제611호, ▶크기: 총높이 3.42m  
비신높이 2.27m 너비 1.07m 글자크기 2.7cm,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태고사, ▶찬자: 이색(李穡), ▶서자: 권주(權鑄) 해  
서, ▶각자: 미상.

북한산 태고사에 있는 원증국사 태고보우(太古普愚)의 비로서, 귀부에 운문(雲紋)과 연화문(蓮花紋)의 이수를 갖춘 모습으로 원증국사탑과 나란히 세워져 있다. 하부가 마모되었으나 나머지 비면은 글씨를 대체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원증국사는 홍주 출신의 홍씨로 1301년(충렬왕 27)에 태어나 회암사 광지(廣智)선사에게 출가하여, 만법귀일(萬法歸一) 조주무자(趙州無字) 등의 화두를 참구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1341년에 중흥사(重興寺)에 주석하며 『태고암가太古庵歌』를 짓고 1346년에 원에 유학하여 임제의 18대손인 석옥청공(石屋淸琇)의 법을 이었다. 1348년에 귀국하여 소설산에 들어가 부모를 봉양하였고, 1356년에 개성 봉은사 법회를 주관하여 왕사에 책봉되고 원융부를 중심으로 구산(九山) 통합 운동을 펼쳤다. 신돈에 의해 속리산에 금고당하기도 하였으나 신돈 실각 후 다시 왕의 존숭을 받았고, 1381년에 국사에 책봉되었으며 1382년(우왕 8)에 82세로 입적하였다. 비는 입적 3년 후인 1385년(우왕 11년)에 세웠다. 원증국사의 기념물은 태고사 외에도 가은 양산사와 양평 사나사에 석종, 미원 소설암에 석탑이 세워졌는데, 사나사에 있는 비문은 내용이 매우 소략하여 이 태고사비와 비교가 된다. 「음기」에는 문도를 승계에 따라 열거하고 고관 중심의 재가신도가 수록되었다. 고려 말기에 교단의 중심을 이루었던 원증국사의 활동은 물론 신돈 등 당시 교단과 권력과의 관계를 추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12) 「회양표훈사백화암청허당휴정대사비문淮陽表訓寺白華庵淸虛堂  
休靜大師碑文」

■제원 | 조선 1632년(인조10년) 건립, ▶크기: 전체높이 5.41m 비신높이 2.76m 너비 1.05m 두께 43cm, ▶소재지: 강원도 금강면 내강리 연래동 백화암, ▶찬자: 이정구(李廷龜), ▶서자: 신익성(申翊聖) 해서, ▶각자: 미상.

금강산 백화암에 있는 청허대사의 비로서 귀부와 변형된 이수를 갖추었고, 비신이 정방형에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청허대사 휴정(休靜)은 안주 출신의 완산(完山) 최씨로 1520년(중종 15)에 태어나 지리산을 두루 돌아다니며 경전을 탐구하다 부용영관(芙蓉靈觀)의 법문을 듣고 발심하여 21세에 승인(崇仁)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30세에 선과(禪科)에 급제하여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를 지내다가 금강산에 은거하여 수행에 전념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명(四溟)대사 등 제자들과 함께 승군을 일으켜 평양성 탈환 등의 활약을 보였으나, 전쟁이 끝나자 승직을 버리고 지리산, 금강산, 묘향산 등을 왕래하며 수행하다가 묘향산에서 1604년(선조 37)에 85세로 입적하였다. 비는 입적한 지 26년만인 1630년에 세웠으나 2년 후인 1632년에 다시 세운 비가 현재 남아 있다. 청허대사의 탑은 보현사(普賢寺)와 안심사(安心寺)에도 세워졌고, 이후에도 여러 개가 더 세워졌으니 1647년에 대흥사비, 1742년에 밀양 표충사비, 1791년에 대흥사 표충사비 등이다. 청허대사는 선교일치(禪敎一致)의 사상을 정립하고 많은 문도를 양성하여 조선후기 불교의 태두로 평가되는 고승이다. 신라나 고려시대에 국가적 추앙을 받던 고승들의 탑비 규모와 비교되는 간략한 생애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건립되었다.

【부록】에 실은 3편의 비문은 『한국고승비문총집』조선조·근현대편에 실

린 비문 332편 중에서 1910년 이전을 경계로 생존했던 비구니스님들의 부도비명(浮屠碑銘) 3편이다. 고승의 반열에 든 스님들은 아니지만 전통시대 일천년간에 제작·전승된 고승비문 300여 편 중 유독 남아 전하는 비구니 비문이다. 현재 한국불교계의 비구니승가 위상은 여타의 불교권, 특히 비구니승가가 단절된 남방불교권 등에 비교해 유수하게 현전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한국불교의 전통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전통사상총서의 편찬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에 부록으로 실는다.

01) 「고성신계사비구니낙암당사신비문高城神溪寺比丘尼洛庵堂思信碑文」

1767년 건립된 사신비구니(思信比丘尼)의 부도비문이다. 경성사람으로 서울 미타암으로 출가하여 법찬비구니를 은사로 득도하였고, 금강산 신계사로 옮겨 수행하다 1765년 열반하였기에, 부도는 금강산 신계사에 있다. 비명은 매우 간략하고 찬자 또한 알수 없지만, 은사(恩師)·도제(徒弟) 등의 범명을 전하고 있어, 독립된 비구니승가의 법계전승이 잘 되고 있었던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02) 「영변보현사비구니정유여대사비문寧邊普賢寺比丘尼定有女大師碑文」

1717년 평양에서 출생하여 1782년 입적한 정유대사(定有大師)의 비명이다. 조선조 채제공(蔡濟恭)이 비문을 써 『변암집樊巖集』에 실려있고, 묘향산 보현사 칠성암에 건립되어 많이 알려졌다. 평양출신으로 재가에 있으면서 기도정진하다가 60세에 늦게 장단 화장사(華藏寺)로 출가하였다. 출가 6년 후 입적한 정유대사의 비는 묘향산 보현사에 세워졌다. 채제공의 불교에 대한 상념(想念)을 엿볼 수 있다.

03) 「정읍내장사비구니세만공덕기념비문井邑內藏寺比丘尼世萬功德記念碑文」

한강이남에 드물게 전하는 전통시대 비구니비문이다. 세만(世萬)비구니스님의 내장사·영은암 중창불사의 공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찬자 또한 근대고승인 석전정호(石顚鼎鎬)스님이다. 그의 문집인 『석전문초石顚文鈔』에 남아있으며, 기념비도 내장사 비림(碑林)에 남아 전한다. 찬자는 육조혜능스님의 남종선풍(南宗禪風) 선양도량인 보림사(寶林寺) 중창의 원력을 다한 중국의 무진장비구니(無盡藏比丘尼)의 일화를 옮겨와 세만스님의 공덕을 찬하고 있다.

위 3편의 비구니비명은 일찍이 내면의 수행을 정갈히 하여 출가하고, 비구니승가의 독립된 도제전통에 귀속되어, 불사에 조력하는 등의 수행상을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지만, 출생지, 출가사찰, 득도시 은사(恩師)와 수계법사(授戒法師), 출가 후 수행처와 제자, 열반을 맞은 마지막 인연처 등 비구니수행자들의 각기 차별한 행적을 통해 당대 비구니승가의 면면을 여러모로 살펴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劉燕庭, 『海東金石苑』, 1831(1922 補遺).
-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1919.
- 李蘭暎, 『韓國金石文追補』, 1968, 아세아문화사.
-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1976, 일지사.
-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1984, 아세아문화사.
- 趙東元, 『韓國金石文大系』1~7, 1979~1998, 원광대학교출판부.
-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新羅篇, 1993, 伽山佛教文化研究院.
-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1, 1994, 伽山佛教文化研究院.
-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2, 1995, 伽山佛教文化研究院.
-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3, 1996, 伽山佛教文化研究院.
-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4, 1997, 伽山佛教文化研究院.
-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朝鮮篇1, 1998, 伽山佛教文化研究院.
- 李智冠, 『韓國高僧碑文總集』朝鮮朝·近現代, 2000, 伽山佛教文化研究院.
- 정병삼, 「高麗 高僧 碑文 譯註의 과제와 방향」 『고려시대연구』1, 200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병삼, 「일연선사비의 복원과 고려승려비문의 문도구성」 『韓國史研究』133, 2006, 한국사연구회.



# 목차

• 간행사 .....	004
• 완간사 .....	008
• 화보 .....	012
• 일러두기 .....	024
• 해제 .....	027

01. 【長興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文장흥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문】	053
02. 【河東雙谿寺眞鑒國師大空靈塔碑文하동쌍계사진감국사대공영탑비문】	079
03. 【藍浦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文남포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 비문】	113
04. 【忠州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文충주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문】	185
05. 【驪州高達院元宗大師惠眞塔碑文여주고달원원종대사혜진탑비문】	235
06. 【海美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文해미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비문】	291
07. 【原州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文원주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문】	353
08.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文개성영통사대각국사비문】	425





09. 【順天松廣寺佛日普照國師碑文순천송광사불일보조국사비문】	505
10. 【軍威麟角寺普覺國尊靜照塔碑文군위인각사보각국존정조탑비문】	543
11. 【楊州太古寺圓證國師塔碑文양주태고사원증국사탑비문】	633
12. 【淮陽表訓寺白華庵清虛堂休靜大師碑文회양표훈사백화암청허당휴정 대사비문】	667

## 부록

01. 「高城神溪寺比丘尼洛庵堂思信碑文고성신계사비구니낙암당사신비문」	711
02. 「寧邊普賢寺比丘尼定有女大師碑文영변보현사비구니정유여대사비문」	715
03. 「井邑內藏寺比丘尼世萬功德記念碑文정읍내장사비구니세만공덕기념비문」	721

● 찾아보기 .....	729
● 역주자 .....	771
●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	773
● 한국전통사상총서 .....	775









長興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文

◀01.장흥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문▶





## 01. 장흥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문<sup>1)</sup>

長興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文

있는 곳 :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보림사

세운 때 : 신라 헌강왕 10년 갑진(884)

所在 : 全羅南道 長興郡 有治面 鳳德里 寶林寺

年時 : 新羅 憲康王 10年 甲辰(884)

신라국(新羅國) 무주<sup>2)</sup> 가지산<sup>3)</sup> 보림사<sup>4)</sup> 시보조선사(諡普照禪師) 영탑비

- 1) 본비(本碑) : 신라 헌강왕 10년(884)에 세웠다. 번역문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종찬, 「신라보림사보조선사영탑비명新羅寶林寺普照禪師靈塔碑銘」, 동국대박물관, 1985, pp.136~141.  
홍순석, 「한국의 고비명 탐방-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비」 『동양학간보』10,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0.4, pp.48~53.
- 2) 무주(武州) : 지금의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 일대 지역이다. “무주는 본래 백제의 땅으로 신문왕 6년(686) 무진주(武珍州)라 하였다가 경덕왕 때 무주로 고쳤으니 지금의 광주(光州)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권36 「잡지雜志」5 지리地理.
- 3) 가지산(迦智山) :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에 위치한 산으로, 보조체징선사(普照體澄禪師)가 이곳 보림사(寶林寺)에서 도의국사(道義國師)를 종조(宗祖)로 삼아 선종구산문(禪宗九山門)의 하나인 가지산파(迦智山派)를 열었다.
- 4) 보림사(寶林寺) : 조선 세조 3년(1457)~9년(1463) 무렵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신라국무주가지산보림사사적기新羅國武州迦智山寶林寺事蹟記」 『고고미술』84,

명(靈塔碑銘)과 서(序)

新羅國, 武州, 迦智山, 寶林寺, 諡普照禪師, 靈塔碑銘并序.

조청랑<sup>5)</sup>수정변부사마(守定邊府司馬) 사비어대<sup>6)</sup>신(賜緋魚袋臣) 김영<sup>7)</sup>이  
왕명을 받들어 찬(撰)하고 유림랑<sup>8)</sup> 수무주곤미현<sup>9)</sup>령(守武州昆湄縣令) 김

한국미술사학회, 1967.3에 따르면, “원표대덕선사(元表大德禪師)가 월지국(月氏國)에 있을 때 한 선아(仙娥)의 원(願)에 따라 창건했는데, 가람은 동시에 법당을 만들어 불좌를 그 상면에 모시고, 계속하여 천자각(天子閣)·불자각(佛子閣)·운자각(雲子閣)을 배치했으며 양 법당 좌우에 요사(寮舍)·낭상(廊廂)·누문(樓門)·문당(門堂)을 세워, 서역·중국의 보림사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지금의 보림사는 6·25동란 때 전소(全燒)된 것을 다시 세운 것으로 원표대덕의 초창지(草創地)는 그 북쪽에 있다. 유물로는 「보조선사창성탑비普照禪師彰聖塔碑」를 비롯한 「재명철불좌상在銘鐵佛坐像」, 삼층석탑 2기, 석등, 동·서부도 등이 있다.

- 5) 조청랑(朝請郎): 당(唐)·송대(宋代) 정7품상(正七品上)의 문산관위(文散官位)이다.
- 6) 비어대(緋魚袋): 당나라 관리들은 관품(官品)의 고하에 따라 관복의 색깔과 허리에 차고 다니던 어대의 종류가 달랐다. 3품 이상은 자색(紫色)에 금어대(金魚袋), 4·5품은 비색(緋色)과 은어대(銀魚袋), 6·7품은 청색(青色)과 동어대(銅魚袋), 8품 이하는 황색(黃色)의 관복을 입고 철어대(鐵魚袋)를 찼다.
- 7) 김영(金穎): 진성여왕 4년(890) 조청랑수금성군태수(朝請郎守錦城郡太守)로서 왕의 교지를 받들어 「원랑선사대보선광탑비문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文」 [신라편]을 찬술하기도 했다. 정변부사마(定邊府司馬)는 당대의 관직으로 풀이되고 있어 당(唐) 빈공과(賓貢科) 출신으로 보인다. 이후 897년 무렵 수창부시랑(守倉部侍郎) 급찬(級漣)으로서 하정사(賀正使)에 선발되었으며, 그 찬술 연대와 찬술자가 분명하지 않은 「운봉심원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雲峰深源寺秀澈和尚楞伽寶月塔碑」를 찬술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기동, 「나말려초 근시기구와 문한기구의 확장」 『역사학보』 77, 1978 ;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p.262.
- 8) 유림랑(儒林郎): 수(隋)·당(唐)·송대(宋代) 문관(文官) 정9품상(正九品上)의 관위이다.
- 9) 곤미현(昆湄縣): 지금의 전라남도 영암군(靈巖郡) 미암면(美巖面) 일대로 당시에는 무주 반남군(潘南郡)에 속해 있었다. “본래 백제의 고미현(古彌縣)으로 경덕왕 때 이 이름으로 고쳤는데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삼국사기』 권36「잡지」5 지리.

원(金蓮)이 왕명을 받들어 비문을 쓰다.

朝請郎, 守定邊府司馬, 賜緋魚袋, 臣, 金顗, 奉教, 撰,  
儒林郎, 守武州昆湄縣令, 金蓮, 奉教, 書.

무릇 선의 경지는 그윽하고 고요하며 바른 깨달음은 깊고 오묘하여<sup>10)</sup>  
헤아려 알기 어려우니 허공과도 같고 바다와도 같다. 그러므로 용수<sup>11)</sup>와  
사자존자<sup>12)</sup>는 서천<sup>13)</sup>에서 파초<sup>14)</sup>에 비유하여 중생을 깨우쳤고, 홍인<sup>15)</sup>과

- 
- 10) 희이(希夷): 불교에서 이르는 언어도단(言語道斷)하고 심행처멸(心行處滅)의 경지와 상통하는 의미로서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상上」에 “視之不見 名曰夷 聽之不聞 名曰希 搏之不得 名曰微 此三者 不可致詰 故混而爲一 其上不皦 其下不昧 繩繩兮不可名”이라 하였으니, 도(道)란 형체가 없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므로 견문(見聞)으로서는 터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성왈희 無聲曰希 무색왈이 無色曰夷”라고 했다.
- 11) 용수(龍樹): ㉔Nāgārjuna. 불멸(佛滅) 후 600~700년 무렵(B.C. 2~3세기)의 남인도(또는 서인도) 사람으로 대승불교를 크게 중흥시켜 제2의 석가, 팔종(八宗)의 조사(祖師)라고 일컬어진다.
- 12) 사자존자(師子尊者): ㉔Āryasīṃha, 인도의 28조 중 제24조이며, 3세기 무렵의 중인도 사람으로 학록나존자(鶴勒那尊者)에게 법을 받았다. 계빈국(闍賓國)을 교화하고 바사사다(婆舍斯多 ㉔Basāsita)에게 법을 전수하였으며, 그 후 문도들이 외도들에게 몰살당했다.
- 13) 서천(西天): 서역(西域), 곧 인도를 일컫는 말이다.
- 14) 파초(芭蕉): ㉔kadali. 속이 없이 큰 잎으로 겹겹이 채워진 나무. 나뭇잎의 겹겹질을 끝까지 벗겨도 씨앗 등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비유함이니 사물의 실체가 없음을 비유한다.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권16(대정장30, p.363b21). 또한 허망하여 깨어지기 쉬운 이 세상을 파초포말(芭蕉泡末)의 세상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잡아함경雜阿含經』권10(대정장2, p.69a19), 『오음비유경五陰譬喻經』(대정장2, p.501b19).
- 15) 홍인(弘忍): 602~675. 당나라 황매현(黃梅縣) 사람으로 중국 선종의 제5조이며 4조 도신(道信)에게서 심인(心印)을 받고 671년 6조 혜능(慧能)에게 법을 전하였다. 대종(代宗)이 대만선사(大滿禪師)란 시호를 내리고 황매산 동산에 탑을 세웠다.

혜능조사<sup>16)</sup>는 진단<sup>17)</sup>에서 제호<sup>18)</sup>를 설명하였다. 대개 인과(因果)의 자취를  
쓸어버리고 색상(色相)의 세계를 떠나 대승(大乘)의 수레를 타고<sup>19)</sup> 망상의  
경지<sup>20)</sup>에 들어감으로써 지혜의 빛을 멀리 비추고 은혜로운 덕택을 널리  
입히며 불법(佛法)의 비를 미혹의 세계에 뿌리고 자애스러운 구름을 깨달  
음의 길에 베푸는 것이다.

聞夫禪境玄寂，正覺希夷，難測難知，如空如海。故龍樹師子之  
尊者，喻芭蕉於西天，弘忍惠能之祖師，譚醍醐於震旦。蓋掃因  
果之跡，離色相之鄉，登大牛之車，入罔象之域，是以，智光遠  
照，惠澤遐流，灑法雨於昏衢，布慈雲於覺路。

공(空)을 깨달은 사람은 한숨에 저 사산(邪山)을 넘지만 현상(現象)에  
얽매이면 영겁토록 어두운 업에 머무르게 된다. 하물며 말법의 세상<sup>21)</sup>에

- 
- 16) 혜능(慧能): 638~713. 당나라 선승으로서 중국 선종의 제6조이다. 5조 홍인에게서 심인을 전수받고 676년 남방으로 가서 교화하다가 조계산(曹溪山)에 들어가 보림사를 세워 불법을 폈다.
- 17) 진단(震旦): 인도에서 중국을 가리키는 말로 진단(眞丹) 또는 진단(振旦)이라고도 한다. 곧 진(震)은 팔괘(八卦) 중에 동방을 상징하며 해가 뜨는 쪽을 일컫는다.
- 18) 제호(醍醐): ㉠manḍa. 우유를 정제한 정도에 따라 오미(五味) 즉 유(乳)·낙(酪)·생소(生酥)·숙소(熟酥)·제호(醍醐)로 나누니 그 중 최고의 유제품을 일컫는다. 불성(佛性), 진실의(眞實義) 또는 열반(涅槃)의 경지를 비유함이다. 『벽암록碧巖錄』권1(대정장48, p.142b1), 『관약왕약상이보살경觀藥王藥上二菩薩經』(대정장20, p.665b21), 『나선비구경那先比丘經』(대정장33, p.698b18·p.709a3).
- 19) 대우지거(大牛之車): 대승(大乘)의 수레란 뜻이니 이타정신(利他精神)의 심도에 따라 소승(小乘)을 양거(羊車), 중승(中乘)을 녹거(鹿車), 대승을 우거(牛車), 일승(一乘)을 백우거(白牛車)라 한다.
- 20) 망상지역(罔象之域): 정각(正覺)의 경지를 이른다.
- 21) 말법지세(末法之世): ㉠saddharma-vipralopa, 불법이 쇠락하는 시기. 삼시(三時) 곧 정법시(正法時)·상법시(像法時)·말법시(末法時) 중 한 시기. 부처님께서 열

상교<sup>22)</sup>가 어지러워 진종<sup>23)</sup>의 부합함에 드물며 서로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 마치 물을 쳐서 물 속에 비친 달을 구하고 줄을 꼬아 바람을 묶어 두려는 것처럼 한갓 육정<sup>24)</sup>을 수고롭게 할 뿐이거늘 어찌 그 지극한 이치를 얻을 수 있겠는가.

見空者，一息而越彼邪山，有爲則永劫而滯于黑業。矧乎末法之世，像教紛紜，罕契眞宗，互持偏見，如擘水求月，若搓繩繫風，徒有勞於六情，豈可得其至理。

중생(衆生)이 노사나불[舍那]이 되고 노사나불이 중생이 되는 것인데도, 중생은 노사나불의 법계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고 중황으로 업을 지으며, 노사나불 또한 중생을 그 속에 품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잠잠히 항상 고요하게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라. 이 미혹함을 아는 사람은 크게 미혹한 것이 아니라. 그 미혹함을 아는 사람은 오직 우리 선사뿐이로다. 어떤 이는 한갓 헛된 이야기라고 하니, 슬프도다. 『도덕경道德經』에 “상사(上士)는 도를 들으면 숭상하여 받들고, 중사(中士)는 도를 들으면

---

반하신 때로부터 1,000년까지를 정법시대(正法時代), 이후 1,000년 동안을 상법시대(像法時代), 또 그 이후 10,000년 동안을 말법시대(末法時代)로 구분한다. 이 말법기는 교법(教法)이 쇠퇴한 시기로서 교법만 있고 수행 또는 증과(證果)하는 자가 없는 시대라고 말한다.

- 22) 상교(像敎) : ①saddharma-pratirūpaka, 상법시대의 불교를 말함이니, 불멸 후 1,000년으로부터 2,000년까지의 1,000년 동안을 상법시대라고 한다.
- 23) 진종(眞宗) : 참된 종지(宗旨). 본래 불성(佛性) 또는 일여(一如)한 법계의 이치를 밝히는 정법(定法)을 말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선종을 가리킨다.
- 24) 육정(六情) : 육근(六根)이라고도 한다. 육식(六識)이 육경(六境)을 인식하는 경우 그 소의(所依)가 되는 여섯 개의 뿌리, 곧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근(意根)을 이른다. 근(根)에 정식(情識)이 있는 까닭에 구역(舊譯) 경·론에서는 육정(六情)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보존한 듯 잃은 듯하며, 하사(下士)는 도를 들으면 손바닥을 문지르며 웃으니, 웃지도 아니하면 죽히 도라 여길 수 없다”<sup>25)</sup>라 한 것은 이를 말한다.

其於衆生爲舍那，舍那爲衆生，衆生不知在舍那法界之中，縱橫造業，舍那亦不知衆生在苞舍之内，湛然常寂，豈非迷耶。知此迷者，大不迷矣，知其迷者，惟我禪師乎。或謂此說爲濩落之言，吁。道經云，“上士，聞道崇而奉之，中士，聞道如存若亡，下士，聞道撫掌而笑，不笑不足以爲道也。”此之謂矣。

선사의 이름은 체징(體澄)이요 종성(宗姓)은 김씨(金氏)이며 웅진<sup>26)</sup>사람이다. 집안은 대대로 명망과 어진 가풍을 이어왔다. 이로써 즐거운 일이 하늘로부터 모이고 덕이 큰 산으로부터 내려와, 효의가 향리에 기려졌고 벼슬에 나아가서는 예악이 뛰어났다.<sup>27)</sup>

禪師，諱體澄，宗姓金，熊津人也。家承令望，門襲仁風。是以，慶自天鍾，德從嶽降，孝義旌表於鄉里，禮樂冠蓋於軒裳者也。

선사를 잉태하던 해 어머니의 꿈에, 둥근 해가 공중에 떠서 빛을 내려

25) 상사(上士) … 부족이위도(不足以爲道): 『도덕경』「하下」에 “上士聞道 勤而行之 中士聞道 若存若亡 下士聞道 大笑之 不笑不足以爲道 建言之 明道若昧 進道若退 夷道若類 上德若谷 大白若辱 廣德若不足 建德若偷 質眞若渝 大方無隅 大器晚成 大音希聲 大象無形 道隱無名 夫唯道善貸且成”이라고 하였으니, 곧 대기만성(大器晚成)을 뜻한다.

26) 웅진(熊津):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지방이다. “본래 백제의 옛 도읍으로 당나라 고종(高宗)이 소정방(蘇定方)을 보내어 이를 평정하고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두었는데 신라文武왕(文武王)이 그 지역을 취하여 소유하였고 신문왕(神文王)이 웅천주(熊川州)로 고쳐 도독(都督)을 두었다.景德王(景德王) 16년에 다시 이를 웅주(熊州)로 고쳤으니 지금의 공주(公州)이다.” 『삼국사기』권36「잡지」5 지리.

27) 헌상(軒裳): 사대부(士大夫)의 복장을 일컫는 말로서 귀한 지위를 뜻한다.



배를 뚫고 지나갔다. 이 때문에 놀라 깨어 문득 임신하였음을 깨달았다. 달이 차도 태어나지 않으니, 어머니가 상서로운 꿈을 미루어 살펴 좋은 인연이 이루어지도록 빌고, 식사에 고기를 멀리하며 술을 금하고 계율로써 태교하면서 복전<sup>28)</sup>을 섬겼다. 이로 말미암아 해산의 괴로움을 이기고<sup>29)</sup> 아들을 낳는 경사를<sup>30)</sup> 맛았다.

禪師託體之年，尊夫人夢，日輪駕空，垂光貫腹。因之驚寤，便覺有懷。及逾朞月，不之誕生，尊夫人追尋瑞夢，誓禱良因，膳徹服脩，飲斷醪醴，胎訓淨戒，鶯<sup>31)</sup>事福田。由是克解分蓐之憂，允叶弄璋之慶。

선사는 체모가 커서 산이 우뚝 선 듯하고 기색이 윤택하여 하백(河伯)과 같았으며, 치아가 고르고 금발이 특이하여 마을 사람들이 찬탄하고 친척들이 모두 놀라와 했다. 갓난아이 때부터 세속을 떠나고자 하는 뜻이 뚜렷했고 7, 8세<sup>32)</sup>가 되어서는 길이 세속을 버리려는 반연(攀緣)을 품으니, 양친이 부귀로써 붙잡아 두기 어렵고 재색으로써도 엮을 수 없음을 알아 출가하여 유학할 것을 허락했다.

禪師貌雄岳<sup>33)</sup>立，氣潤河靈，輪齒自然，金髮特異，閭里聲歎，

28) 복전(福田): 불법을 장양하는 터전으로서의 삼보(三寶)를 말한다.

29) 분육지우(分蓐之憂): 육(蓐)은 해산할 때 까는 자리이니, 난산(難産)의 고통을 뜻한다.

30) 농장지경(弄璋之慶): 아들을 낳은 기쁨을 농장지경이라 하고, 딸을 낳으면 농와지사(弄瓦之事)라고 한다.

31) [全文] [總覽]의 鶯자가 옳으며 [苑]의 鶯는 오자임.

32) 초춘지세(齔齔之歲): 남자아이는 생후 8개월만에 이가 나서 여덟살 때 이를 갈고 여자아이는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이가 나서 일곱살 때 이를 간다 하여 7~8세의 어린 때를 말한다.

親<sup>34)</sup>戚戚驚。從襁褓之年，宛有出塵之趣，登韶皦之歲，永懷捨俗之緣，二親知其富貴難留，財色莫繫，許其出家遊學。

(이에) 지팡이를 짚고 스승을 찾아 나서 화산<sup>35)</sup> 권법사의 문하에 들어갔다. 경을 듣는 것으로 일을 삼고 옷을 여미어<sup>36)</sup> 법문을 청하여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정진하였으며, 한번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한번 들은 것은 반드시 기억했다. 항상 마음의 때를 씻고 닦으며 스님로서의 몸가짐을 익히고, 어질고 순함을 쌓아 번뇌를 없애며 항상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하여神通妙用(神通妙用)하니, 초연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고 우뚝함이 건줄 사람이 없었다. 그 후 태화 정미년<sup>37)</sup>에 가양협산 보원사<sup>38)</sup>에 이르러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때 한번은 계단장(戒壇場)에 들어가 7일동안 도를 닦는데, 문득 어떤 이상한 꿩이 갑자기 순하게 날아들었다. 어떤 옛일을 잘 아는 사람이 “옛날에는 진창<sup>39)</sup>에서 패왕의 도<sup>40)</sup>를 드러냈는데, 오늘은 절

33) [全文]의 악(嶽)과 [苑]의 악(岳)은 서로 통함.

34) [全文]의 戚은 親의 오자임.

35) 화산(花山): 7세기 건립된 인각사(麟角寺)가 소재한 경북 군위군 고로면의 화산이 아닌가 한다.

36) 구의(攬衣): 옷을 여미고 경예(敬禮)한다는 뜻이니 불교의 편단우견(偏袒右肩)과 같은 뜻이다.

37) 태화정미년(太和丁未年): 827, 흥덕왕(興德王) 2년

38) 보원사(普願寺):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성왕산에 있던 절로 신라말 고려초기에 활약했던 법인국사(法印國師) 탄문(坦文: 900~975)의 비(碑)가 있다.

39) 진창(陳倉): 중국 춘추시대의 진(秦)나라가 설치했던 현(縣)의 이름으로 한(漢)·위(魏)·진(晉) 때까지 있었으나 북주(北周) 때에 폐지했다. 수(隋)나라 때에 다시 설치했으며 당(唐) 지덕(至德) 2년(757) 진문왕(秦文王)의 고사(故事)에 따라 보계현(寶鷄縣)으로 고쳤으니 오늘날의 섬서성(陝西省) 보계시(寶鷄市)이다.

40) 패왕지도(霸王之道): 『사기(史記)』권28「봉선서(封禪書)」에 “B.C. 754년 진문공(秦文公)이 야석(若石)을 얻어 진창북관성(陳倉北阪城)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신

에 날아드니 장차 불법을 일으킬 큰스님이 나타날 징조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策杖尋師，投花山勸法師座下。聽經爲業，摳衣請益，夙夜精勤，觸目無遺，歷耳必記。常以陶冶麤鄙，藻練僧儀，積仁順而煩惱<sup>41)</sup>蠲除，習虛靜而神通妙用，超然出衆，卓爾不群。後以大和丁未歲，至加良峽山普願寺，受具戒，<sup>42)</sup>一入壇場，七宵行道，俄有異雉，忽爾馴飛。有<sup>43)</sup>稽古者曰，“昔向陳倉，用顯霸王之道，今來寶地，將興法主之徵者焉。”

처음 도의선사<sup>44)</sup>가 서당<sup>45)</sup>에게서 심인(心印)을 전수받고 후일 우리나라

(神)이 어느 해에는 오지 않고 또 어느 해에는 자주 왔다. 항상 밤에만 빛을 뿌리면서 유성(流星)처럼 동남쪽으로부터 사성(祠城)에 모여들었다. 그 오는 소리가 수탉처럼 우렁차니, 문공(文公)이 뇌(牢)로써 제사하고 진보(陳寶)라 일컬었다”라고 전한다. 사마정(司馬貞)이 『열이전列異傳』을 인용하여, “진창 사람이 기이한 물건을 얻어 이를 바치러 가다가 두 동자를 만났다. 두 동자가 ‘이 물건의 이름은 위(媿)인데 땅 속에서 죽은 사람의 뇌(腦)를 먹는다’라고 일렀다. 이에 위가 ‘저 두 동자의 이름은 진보인데 수컷을 잡은 사람은 왕(王)이 될 것이며, 암컷을 잡은 사람은 백(伯)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동자들을 쫓으니 꿩으로 변하여 날아갔다. 진목공(秦穆公)이 사냥하러 갔다가 그 까투리를 잡아 사(祠)를 세우고 제사를 지냈더니, 어떤 빛이 우뢰 소리를 내더니만 장기가 10여장의 붉은 빛을 내며 남양(南陽)에 이르러 진창의 사(祠)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색은(索隱)하였다.

- 41) [全文]에는 惱, [苑][總覽][拓本](동대박물관, 1985)에는 慄이니, 이는 惱字의 오자인 듯하다.
- 42) [全文]에는 戒, [苑]의 戒과 [總覽]의 戒은 戒의 오자임.
- 43) [全文]에는 有, [苑][總覽]의 有는 有의 古字임.
- 44) 도의선사(道儀禪師): 『조당집祖堂集』 「진전사원적선사전陳田寺元寂禪師傳」에 따르면, 도의선사는 북한군(北漢郡) 사람으로 호(號)는 명적(明寂)이다. 784년 당나라에 건너가 오대산(五臺山) 광부(廣府)의 보단사(寶檀寺)에서 비구계를 받

에 돌아와 그 선(禪)의 이치를 가르쳤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경의 가르침과 관법을 익혀 정신을 보존하는 법<sup>46)</sup>만을 숭상하여 무위임운의 종<sup>47)</sup>에 모이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으로 여겨 높이어 중히 여기지 않았으니, 마치 달마조사가 양 무제를 만났음에도 뜻이 통하지 못한 것<sup>48)</sup>과 같았다. 이로 말미암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을 알고 산림에 은거하여 법을 염거선사<sup>49)</sup>에게 부촉했다.

初道儀大師者，受心印於西堂，後歸我國，說其禪<sup>50)</sup>理。時人雅尚經教，與習觀存神之法，未臻其爲任運之宗，以爲虛誕，不之崇重，有若達摩不遇梁武也。由是知時未集，隱於山林，付法於廉居禪師。

고, 조계산 육조(六祖)의 영당에 참배했다. 강서 홍주 개원사(開元寺)에서 서당(西堂) 지장선사(智藏禪師)에게 법을 전수받고 821년 귀국하였으나, 아직 때가 아님을 알아 설악산 진전사(陳田寺)에서 40년을 수도하다가 염거(廉居)에게 법을 전하고 입적했다. 염거의 제자 체징(體澄)이 크게 종풍(宗風)을 떨침으로써 가지산파의 제1조로 숭앙되었다.

45) 서당(西堂) : 지장선사(智藏禪師 735~814)를 가리키는데, 그는 마조도일(馬祖道一)의 수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강서 홍주 개원사에 머물렀다. 신라스님 가운데 도의를 비롯하여 혜철(惠哲)·홍척(洪陟) 등이 그의 심인을 받고 귀국하여 선문(禪門)을 개창했다. 최병현, 「신라 하대 선종구산파의 성립」 『한국사연구』 7, 1972.

46) 존신지법(存神之法) : 교종(敎宗)을 가리킨다.

47) 무위임운지종(無爲任運之宗) : 선종(禪宗)을 가리킨다.

48) 달마불우양무(達摩不遇梁武) : 달마대사가 양나라 보통(普通) 1년(520) 10월 광주자사 소양의 소개로 금릉(金陵)에 가서 무제(武帝)와 문답하다가 기연이 맞지 않음을 깨닫고 돌아선 고사를 이른다.

49) 염거선사(廉居禪師) : 도의의 법을 이은 가지산파의 제2조로서 문성왕 6년(844)에 입적했다. 탑은 원주 흥법사지(興法寺址)에 있었는데 탑지(塔誌)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50) [全文] [苑]에는 禪. [總覽]의 裨는 禪의 오자임.

이에 염거선사가 설산<sup>51)</sup>·억성사<sup>52)</sup>에 머물면서 조사의 마음을 전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여니, 체징선사가 가서 그를 섬겼다. 선사가 맑게 일심을 닦고 삼계<sup>53)</sup>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여 목숨을 자기의 목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몸을 자기의 몸으로 여기지 않았다. 염거선사가 그 뜻과 기개에 짝할 만한 이가 없고 그 타고난 바탕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 현주(玄珠)를 부촉하고 법인(法印)을 전해 주었다.

居雪山億聖寺, 傳祖心, 關師教, 我禪師往而事焉. 淨修一心, 求出三界, 以命非命, 以軀非軀. 禪師察志氣非偶, 素槩殊常, 付玄珠, 授法印.

개성 2년<sup>54)</sup> 정사에 동학인 정육(貞育)·허회(虛懷) 등과 함께 바닷길로 서쪽 중국에 들어갔다. 선지식을 찾아 삼오주<sup>55)</sup>를 편력하면서 온누리가

51) 설산(雪山): 설악산을 이른다.

52) 억성사(億聖寺): 지금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본비가 세워져 있었던 강원도(江原道) 양양군(襄陽郡) 서면(西面) 황이리(黃耳里)의 이른바 사림사지(沙林寺址) 혹은 선림원지(禪林院址)를 억성사지(億聖寺址)로 추정한 견해가 있다. 권덕영, 「홍각선사비문의 복원 시도」, 『역사학회 월례발표회 요지』, 1992.4.11.

53) 삼계(三界): 끊임 없이 생사유전(生死流轉)하는 중생미계(衆生迷界)를 세 갈래로 나누어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라 이른다. 이 삼계를 다시 6도(途)·25유(有)·9지(地)로 나누기도 한다.

54) 개성(開成) 2년: 회강왕(僖康王) 2년(837).

55) 삼오주(三五州): 『신당서新唐書』권37「지志」27지리(地理)1에 따르면, 당나라가 일어나면서 고조(高祖)가 군(郡)을 주(州)로, 태수(太守)를 자사(刺史)로 고치고 도독부(都督府)를 설치하여 전국을 다스렸다. 그 후 태종원년(627)에 전국을 10도(道)로 나누었으며, 경운(景雲) 2년(711)에 천하를 군현(郡縣)으로 나누고, 24도독부를 설치했다. 개원(開元) 21년(733)에는 전국을 다시 15도로 나누고 각 도에 채방사(採訪使)를 두었으며 건원년간(乾元年間 758~759) 이후에 각지에서 병란이 일어나자 이를 폐지하고 방어사(防禦使)를 두었다. 본 비문에서 체징이 편

좋아하고 하고자 함이 같으며 성상(性相)이 다르지 않음을 알았다. 이에 “우리 조사께서 말씀하신 바에 더할 것이 없는데 어찌 수고로이 멀리 가겠는가”라고 이르며, (구법의) 발길을 멈추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至開成二年丁巳，與同學貞<sup>56)</sup>育虛懷等，路出滄波，西入華夏。叅善知識，歷三五州，知其法界，嗜欲共同，性相無異。乃曰，“我祖師所說，無以爲加，何勞遠適。”止足意興。

5년<sup>57)</sup> 봄 2월에 평노사(平盧使)를 따라 신라에 돌아와 고향을 교화했다. 이에 단월들이 마음을 불교에 기울여 발길을 잇는 것이, 수백의 내가 오학<sup>58)</sup>에 모이듯 수많은 계곡과 산들이 영취산을 우러르듯 했다고 이르더라. 도 충분한 비유가 아니될 정도였다. 드디어 무주 황학(黃壑)의 난야(蘭若)에 머무르니 때는 대중 13년<sup>59)</sup> 용이 석목의 진<sup>60)</sup>에 모인 무인년 현안대왕

---

력했다는 삼오주란 중국전역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라의 '9주'와 같은 의미의 '15도'를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56) [全文]의 眞은 眞의 오자임.

57) 개성 5년: 문성왕(文聖王) 2년(840).

58) 오학(龍壑): 오산(龍山)과 같은 말. 큰 바다 거북이 떠받치고 있는 바다 가운데의 산으로 신선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인데, 『열자列子』 「탕문湯問」에 “발해(渤海)의 동쪽에 대학(大壑)이 있어 그 가운데 오산(五山)이 있다. 오산의 밑둥지는 서로 연결되어 지탱하는 곳이 없는 까닭에 파도에 따라 오르내리는데, 천제(天帝)가 서쪽 끝으로 떠내려 갈 것을 염려하여 15마리의 큰 거북으로 이를 떠받치게 했다. 渤海之東不知幾億萬里 有大壑焉 … 其中有五山焉 … 而五山之根 無所連著 常隨潮波上下往還 不得暫峙焉 仙聖毒之 訴之於帝 帝恐流於西極 失羣聖之居 乃命禹疆使 巨鼇十五舉首而戴之”고 이르고 있어, 오산 아래의 대학을 가리키는 듯하다.

59) 대중(大中) 13년: 현안왕(憲安王) 2년(858).

60) 석목지진(析木之津): 황도십이궁(黃道十二宮)의 인마궁(人馬宮), 곧 미수(尾宿)를 가리키며 12지(支)의 인(寅)에 해당한다. 이는 동궁(東宮) 곧 창룡(蒼龍)에 속하는

즉위 이듬해였다.

五年春二月，隨平盧<sup>61)</sup>使，歸舊國，化故鄉。於是檀越，傾心釋教，繼踵百川之朝，鼇壑群嶺之宗，鷲山未足爲喻也。遂次武州黃壑蘭若，時大中十三稷，龍集于析<sup>62)</sup>木之津，憲安大王卽位之後年也。

대왕이 소문을 듣고 도를 우러러 꿈속에서조차 사모하여, 선문을 열고 자 선사에게 서울로 들어오기를 청했다. 여름 6월에 장사현<sup>63)</sup> 부수 김언경<sup>64)</sup>을 보내어 차와 약을 가지고 가서 맞이하게 했다. 선사는 구름과 바위를 벗삼아 지내는 것을 편안히 여겼고, 또 결계의 달<sup>65)</sup>이었으므로 정명의

별자리인 까닭에 ‘웅이 이에 모였다’함은 인의 세(歲)임을 말한다. 특히 석목지진이라 이른 것은 『춘주좌전春秋左傳』「소공昭公」‘금채석목지진今在析木之津’의 주석 ‘箕(龍尾)斗(南斗)之間有天漢 故謂之析木之津’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61) [全文]의 廬는 盧의 오자임.

62) [全文] [苑]의 析는 析의 오자임

63) 장사현(長沙縣): 오늘날의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茂長) 일대이며, “본래 백제의 상노현(上老縣)으로 경덕왕 때 이 이름으로 고쳐 무령군(武靈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삼국사기』권36「잡지」5 지리3「무령군武靈郡」.

64) 김언경(金彦卿): 현덕왕 13년(821) 신라인으로서 최초로 당의 빈공과에 합격한 김운경(金雲卿)과 같은 사람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신형식, 「숙위학생고」 『역사교육』11·12, 1969, pp.70~72. 한편 문성왕 3년(841) 당 무종(唐 武宗)의 칙사로 귀국한 김운경의 경우 중국의 치주장사(潯州長史)란 관직에 있었고 본비를 건립한 헌강왕 10년(884) 김운경의 나이가 이미 80여 세를 넘었을 것이라 생각하여, 오히려 「동보림사석탑지(북)」와 「동비로자나불조상기」 명문의 김수종(金遂宗)과 동일인이거나 아니면 김수종의 후임으로 장사현령(長沙縣令)에 부임하여 건탑에 참여한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이기동, 「나팔려조 근시기구와 문한기구의 확장」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p.258; 「신라금입택고」 『진단학보』 45, 1978: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pp.188~190.

65) 결계지월(結戒之月): 계율을 결성하고 수행하는 하안거(夏安居)의 기간을 가리

병<sup>66)</sup>을 핑계대고 육조(六祖)처럼 사양했다.<sup>67)</sup> 겨울 10월에 왕이 다시 명을 내려 스님과 속인 사신인 영암군 승정 연훈법사<sup>68)</sup>와 교지(宸)를 받은 풍선(馮瑄) 등을 보내어 왕의 뜻을 전해 가지산사(迦智山寺)로 옮겨 거처할 것을 청했다. 드디어 마지못해 석장을 날려 가지산문(迦智山門)으로 옮겨 들어가니, 그 산은 곧 원표대덕<sup>69)</sup>이 옛날에 거처하던 곳이었다. 원표대덕은 법력으로써 정사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건원 2년<sup>70)</sup> 왕이 특별히 명하여 장생표<sup>71)</sup> 기둥을 세우도록 하였는데 그 표주(標柱)가 오늘날까지 남아

킨다. 매년 4월 16일부터 7월 15일에 이르는 대중수행 기간을 말한다. 인도의 우기(雨期)에 당하여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 정진하던 기간에서 유래했다. 경계를 정하여 출입을 자제하고 공동의 규범을 준수하는 기간으로 결계(結界)라고도 한다.

- 66) 정명지병(淨名之病) : 유마거사(維摩居士)는 인도 비야리성에 살았던 장자(長者)로서 재가에 있으면서 보살행을 닦았다. ‘정명淨名’이란 유마힐(維摩詰 ㄱ Vimalakīrti)을 의역한 이름이다. 그는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 불법을 가르칠 방편(方便)으로 거짓으로 병을 앓으며 문병차 온 사람들을 상대로 설법하였으니, ‘정명의 병’은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 67) 육조지사(六祖之辭) : 당나라 무태후가 효화황제의 글을 보내어 육조혜능을 초청했으나 혜능이 병을 핑계로 사양한 고사이다.
- 68) 연훈법사(連訓法師) : 「황룡사구층탑찰주본기黃龍寺九層塔刹柱本記」, 「도감전도監典」에 보이는 황룡사 상좌승(上座僧) 연훈(然訓)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한다.
- 69) 원표대덕(元表大德) : 『송고승전宋高僧傳』권30 「당고려국원표전唐高麗國元表傳」(대정장50, p.895b5)에 따르면, 그는 본래 삼한인(三韓人)으로 천보년간(天寶年間 742~756)에 당나라에 들어갔다가 인도를 순례하고 『화엄경』80권을 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 회창년간(會昌年間 : 841~846)의 훼손(毀佛) 때까지 중국에서 활동한 것처럼 나타나 있어 그 내용이 자못 의심스러우며, 본 비에 보이는 원표(元表)의 행적은 759년 경에 신라에서 활동하였음을 말해준다.
- 70) 건원(乾元) 2년 : 경덕왕(景德王) 18년(759).
- 71) 장생표(長生標) : 사격(寺格)을 정하거나 사령(寺領)의 사계(四界)를 표지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보림사의 장생표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고려 시대 사원의 장생고(長生庫)에 딸린 사전(寺田)의 표지를 이른다. 김삼수, 「삼국



있다.<sup>72)</sup>

大王聆風<sup>73)</sup>仰道, 勞于夢魂, 願闢禪扉, 請入京轂. 夏六月, 敎遣長沙縣副守金彥卿, 費茶藥迎之. 師以處雲巖之安, 兼屬結戒之月, 託淨名之病, 陳六祖之辭. 冬十月, 敎又遣道俗使, 靈巖郡僧正連訓法師, 奉宸馮瑄等, 宣諭<sup>74)</sup>綸旨, 請移居迦智山寺, 遂飛金錫, 遷入山門. 其山則元表大德之舊居也. 表德以法力, 施于有政, 是以, 乾元二年, 特敎植長生標柱, 至今存焉.

선제 14년<sup>75)</sup> 2월에 부수 김언경이 일찍이 제자의 예를 표하며 선사의 문하에 들어갔는데, 청봉(淸奉)을 덜고 개인의 재산을 내어 철 2,500근을 사서 노사나불 1구를 주조하여 선사가 거처하는 절을 장엄했다. 또 왕이 망수택·이남택<sup>76)</sup> 등에게 금 160분, 조 2,000곡을 내게 하여 절을 장식하는 공덕의 비용에 충당토록 하고 사찰을 선교성<sup>77)</sup>에 예속시켰다. 함통 신사

유사에 나타난 소유권 사례에 관한 고찰』『숙명여대논문집』19, 1979, p. 68.

72) 지금존언(至今存焉): 6·25 동안 때 보림사가 전소하였으니 이 장생표(長生標)도 함께 타 사라졌다.

73) [全文]의 龍은 風의 오자임.

74) [苑]의 諭와 [全文][總覽]의 諭는 같은 자임.

75) 선제(宣帝) 14년: 헌안왕(憲安王) 4년(860).

76) 망수택·이남택(望水宅里南宅) 『삼국유사三國遺事』권1「기이紀異」진한(辰韓)에 보이는 35금입택(金入宅) 가운데 수망택(水望宅)·이남택(里南宅)이 본비의 망수택·이남택이며, 두 금입택에서 기부한 조곡(租穀) 2,000곡(斛)은 답(畓) 1,333결(結)에 해당하며 특히 불사(佛事)의 기용(器用)을 만드는데 금은(金銀) 사용을 금지한 애장왕(哀莊王) 7년(806) 이후에 두 금입택에서 금 160분(分)을 기부한 사실이 주목거리라고 한다. 이기동, 「신라금입택고」『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pp. 203~204.

77) 선교성(宣敎省): 「지증대사적조탑비智證大師寂照塔碑」[신라편]에도 선교성이 보이는데, 국왕의 교서(敎書; 詔書)를 선포하는 국왕 직속의 관부로서 발해(渤

년<sup>78)</sup>에는 시방에서 시주한 재물로써 절을 넓히고 그 낙성일에 선사가 사찰에 이르니, 암수무지개가 법당 안으로 뚫고 들어와 갈라진 빛이 방안을 비추고 반짝이는 빛이 사람을 비추었다. 이는 견뢰<sup>79)</sup>와 사가<sup>80)</sup>가 상서로움을 알려 표하는 것이었다.

宣帝十四年仲春，副守金彦卿，夙陳<sup>81)</sup>弟子之禮，嘗爲入室之賓，減清俸，出私財，市鐵二千五百斤鑄廬<sup>82)</sup>舍那佛一軀，以莊禪師所居梵宇。教下望水里南等宅，共<sup>83)</sup>出金一百六十分，租二千斛，助充裝饒<sup>84)</sup>功德，寺隸宣教省。咸通辛巳歲，以十方施資，廣其禪宇，慶畢功日，禪師蒞焉，虹之與蜺，貫徹堂內，分輝耀室，渥彩燭人。此乃堅牢告祥，娑迦表瑞也。

광명 원년<sup>85)</sup> 3월 9일 여러 제자들에 “나는 현생의 보업(報業)이 다하여

---

海)의 선조성(宣詔省)이나 당(唐)의 문하성(門下省)에 상당한 기구로 추정된다. 또한 신라하대 집사성(執事省)의 장관인 시중(侍中)이 상대등(上大等)과 동질화되는 경향과 관련하여 중사성(中事省)과 함께 나타난 기구로서, 이러한 중사성·선교성의 성격은 태봉·고려초의 내봉성(內奉省)으로 계승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기동, 「나말려초 근시기구와 문한기구의 확장」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pp.240~246.

78) 함통 신사년(咸通辛巳年) : 경문왕(景文王) 1년(861).

79) 견뢰(堅牢) : 낙가라 곧 견뢰지신(堅牢地神)으로 대지(大地)를 담당하는 신(神)을 이른다. 이 신은 능히 대지를 견고하게 하므로 이와 같이 일컬으며, 항상 교법이 유포되는 곳에 나아가 법좌 아래에서 설법하는 이를 호위한다.

80) 사가(娑迦) : 사가라(娑迦羅 Sāgara) 용왕을 가리키니, 사가라는 큰 바다란 뜻으로 바다의 용왕을 이른다.

81) [全文]의 棟은 陳의 오자임.

82) [全文]의 廬는 盧의 오자임.

83) [全文]의 共는 共의 오자임.

84) [全文]의 飾과 [苑] [總覽]의 飭은 모두 서로 통합.

나무가 재가 되듯 사라지려니, 너희들은 마땅히 불법을 잘 지키고 게으르지 말라”고 일렀다. 4월 12일 유시(酉時)부터 술시(戌時)까지 천둥·번개가 온 산을 울렸다. 13일 한밤중에 상방(上房)의 땅이 진동하더니 날이 썰 무렵 오른쪽으로 누운 채로 임종했다. 향년 77세로 승랍 52세였다. 이에 제자 영혜(英惠)·청환(淸奩) 등 800여인은 의리가 어버이를 잃은 듯 곱고 정이 하늘과 땅에 사무쳐 추모하여 울부짖으니 그 소리가 계곡을 울렸다. 그 달 14일에 왕산송대(王山松臺)에 장사지내고 탑을 쌓아 안치했다.

廣明元年三月九日，告諸依止曰，“吾今生報業盡，就木乖成，汝等，當善護持，無至墮怠。”至孟夏仲旬二日，雷電一山，自酉至戌。十三日子夜，上方地震，及天曉，右脇臥終。享齡七十有七，僧臘五十二。於是，弟子英惠，淸奩等，八百餘人，義深考妣，情感乾坤，追慕攀號，聲動溪谷。以其月十四日，葬於王山松臺，壘塔安厝。

오호라, 선사의 이름은 여기에 남아 있건만 혼백은 어느 곳으로 가 태어났는가. 5탁<sup>86)</sup>을 떠나고 18공<sup>87)</sup>을 뛰어넘어서, 적멸(寂滅)을 기꺼워하여 돌

85) 광명 원년(廣明元年): 헌강왕(憲康王) 6년(880).

86) 오탁(五濁): 말세(末世)에 일어나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정신적·생리적인 다섯가지 혼탁함으로 전쟁·질병·기아 등으로 물든 겁탁(劫濁), 사상(思想)의 혼란기인 견탁(見濁), 신체가 허약하고 번뇌가 많아 인간의 자성이 흐려지는 번뇌탁(煩惱濁), 중생(衆生)의 수명이 짧아지는 중생탁(衆生濁), 탐·진·치가 치성하고 악덕이 판을 치는 명탁(命濁) 등이니, 오재(五滓)라고도 한다.

87) 십팔공(十八空): 공(空)을 바탕[體]과 작용[用]으로 관찰하여 구분한 것으로, 내공(內空)·외공(外空)·내외공(内外空)·공공(空空)·대공(大空)·제일의공(第一義空)·유위공(有爲空)·무위공(無爲空)·필경공(畢竟空)·무시공(無始空)·산공(散空)·성공(性空)·자상공(自相空)·제법공(諸法空)·불가득공(不可得空)·무법공(無法空)·유법공(有法空)·무법유법공(無法有法空)을 이른다. 『대지도론大智』

아오지 않고 법림(法林)을 남겨 길이 빼어났으니, 어찌 오로지 법계에서 생령을 구제했을 뿐이었겠는가. 실로 또한 삼한에서 임금의 교화를 도왔도다. 『예기禮記』에서 “별자(別子)가 조(祖)가 된다”라고 하였는데, 강성<sup>88)</sup>이 주를 달아 “네가 만일 처음으로 이 나라에 왔다면 후세에 조라 여길 것이다”<sup>89)</sup>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달마는 당나라의 제1조이며, 우리 신라에서는 도의대사(道儀大師)가 제1조, 염거선사(廉居禪師)가 제2조, 우리 보조체징선사가 제3조이다.

嗚乎，禪師名留於此。魂魄何之生，離五濁，超十八空，樂寂滅而不歸，遺法林而永秀，豈唯濟生靈於沙界。實亦裨聖化於三韓。禮云，“別子爲祖。”康成注云，“子若始來在此國者，後世以爲祖。”是以，達摩爲唐第一祖，我國則以儀大師，爲第一祖，居禪師爲第二祖，我師第三祖矣。

중화 3년<sup>90)</sup> 봄 3월 15일에 문인 의거(義車) 등이 행장을 엮어 멀리 왕경에 나아가 비명을 세워 빛나게 할 것을 청했다. 임금이 진종(眞宗)의 이치를 흠모하고 스승을 높이는 마음을 가늠히 여겼다. 이에 담당 관사에 명하여 시호를 정하여 보조(普照), 탑호를 창성(彰聖), 절이름을 보림(寶林)이라 하니, 이는 그 선종을 포상하는 예에서이다. 다음날에 또 미친한 신에게 비문을 지어 뒷날의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명하니, 신이 삼가 두려이 왕

度論』권31(대정장25, p.285b1).

88) 강성(康成): 후한(後漢)의 대표적인 고문학자인 정현(鄭玄: 127~200)의 자(字)이다. 북해(北海) 고밀현(高密縣) 사람으로 장공조(張恭祖), 마융(馬融) 등에게 수학하였으며, 『모시毛詩』 『삼예三禮』 『주역周易』 『상서尙書』 『논어論語』 『효경孝經』 등을 주석하고 『육예론六藝論』 등을 찬술했다.

89) “자약子若 … 위조爲祖”: 『예기禮記』 「대전大傳」10.

90) 중화(中和) 3년: 헌강왕 9년(883).

명을 받들어 사실대로 글을 짓는다. 다만 왕의 충정을 공손히 받들 뿐이니  
문사들의 비웃음을 감히 피할 수 있겠는가. 송사(頌詞)에 이르되,

中和三年, 春三月十五日, 門人義車等, 纂輯行狀, 遠詣王居,  
請建碑銘. 用光佛道, 聖上慕眞宗之理, 憫嚴師之心. 教所司  
定, 謚曰 普照, 塔號彰聖, 寺額寶林, 褒其禪宗禮也. 翌日, 又  
詔微臣, 修撰碑讚, 垂裕後人, 臣兢惶承命, 直筆爲詞. 但以<sup>91)</sup>  
供奉, 宸衷敢避文林嗤哂. 詞曰,

신의 마음은 정해짐이 없음이여! 지극한 이치가 공에 돌아감이여.  
살아 있는 동안이 유리와 같음이여! 유와 무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신이함이 두루 통하여 비추지 않음이 없음이여! 귀신인들 감히 부딪치  
라!

지킴에 부족함이 없음이여! 배푸심이 끝이 없도다.

항하사겁<sup>92)</sup>을 다함이여! 묘용의 다함이 없도다.

禪心不定兮, 至理歸空.  
如活瑠璃兮, 在有無中.  
神莫通照兮, 鬼其敢衡.  
守無不足兮, 施之無窮.  
劫盡恒沙兮, 妙用靡終.[其一]

91) [全文]의 下는 以의 오자임.

92) 항하사겁(恒河沙劫) : ᄃgaṅgā-nadī-vāluka-kalpa, 항하사(恒河沙 ᄃgaṅgā-nadī-vāluka)란 보통 항사(恒沙)라고 이르는데 인도 갠지스강의 모래란 뜻으로, 곧 갠지스강의 모래처럼 많은 수량을 비유하여 무수무량(無數無量)의 대수(大數)를 일컫는 것이고, 겁(劫 ᄃkalpa)이란 또한 무한(無限)의 시간, 영원(永遠)의 시간을 이름이니 끝이 없는 세월을 말한다.

넓고 넓어 한이 없는 노사나(盧舍那)여! 만물을 감싸 기르며,  
 꿈틀거리는 중생이여! 노사나의 율동(律動)을 어김이로다.  
 두 몸이 이미 한 몸이거늘, 다시 누구를 부처라 하랴!  
 미혹하고 또 미혹함이여! 도가 이에 마침이로다.

寥廓舍那，苞育萬物，  
 蠢蠢衆生，違舍那律。  
 二既同體，復誰是佛。  
 迷之又迷，道乃斯畢.[其二]

위대하신 선사여! 신라에 태어났도다.  
 능히 보리를 익힘이여! 지혜의 덕을 힘써 닦았도다.  
 공을 관하여 공을 초월했음이여! 형상[色]을 보되 모양[色]이 아니며,  
 억지로 인(印)이라 일컬으나, 얻은 바를 이름하기 어렵도다.

大哉禪師，生乎海域。  
 克鍊菩提，精修惠德。  
 觀空離空，見色非色，  
 強稱爲印，難名所得.[其三]

엷매인 유위(有爲)의 세계여! 무수한 인연이로다.  
 밖으로 경계가 닳치니 정신이 움직이며, 바람이 일어나니 파도가 일렁  
 거리도다.  
 말처럼 달리는 의식<sup>93)</sup>을 다스려야 함이여! 원숭이 같은 마음<sup>94)</sup>을 조복

93) 의마(意馬): 외경(外境)을 쫓아 일정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는 인간의 의식을 날  
 뛰는 말에 비유하였으니, 『조주록유표趙州錄遺表』에 “심원(心猿)은 뛰기를 그  
 치고, 의마(意馬)는 날뛰는 것을 쉬어라”고 하였다.

시켰으니,

이 선법으로써 보배 삼아 후세의 어진 이에게 배품이로다.

有爲世界, 無數因緣.

境來神動, 風起波翻.

須調意馬, 勤伏心猿,

以斯爲寶, 施于後賢.[其四]

반야<sup>95)</sup>의 배를 잡아타고, 애욕의 강물을 건넌으며,

피안에 이미 오름이여! 부처님만이 헤아릴 수 있음이로다.

대승의 경지에 도달함이여! 불난 집<sup>96)</sup>이 타는 것을 내버려 두었으며,

법상은 비록 남아 있으나, 스님은 이미 떠나셨도다.

乘波若舟, 涉愛河水,

彼岸旣登, 唯佛是擬.

牛車已到, 火宅任燬,

法相雖存, 哲人其萎.[其五]

총림(叢林)에 주인이 없음이여! 산문이 빈 듯하고,

석장(錫丈)으로 못 호랑이를 내쫓음이여! 발우(鉢盂)로 못 용(龍)을 향

---

94) 심원(心猿): 하염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분주하게 움직이는 원숭이에 비유한 말로써,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권8에 “마음이 원숭이와 같아서 오욕(五欲)의 나무에 놀면서 잠시도 쉬지 않는다”라 한 것이 그것이다.

95) 반야(般若): [prajñā, 사물(事物)과 우주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깊은 지혜를 일컫는다.

96) 화택(火宅): [ādipta-agāra, 『법화경法華經』「비유품譬喻品」에서 이르는 일곱가지 비유 가운데 번뇌와 고통의 세상을 ‘불타고 있는 집’에 비유한 것이다. 삼독(三毒)의 화염에 싸인 미혹의 세계를 일컫는다.

복받음이로다.<sup>97)</sup>

오직 남은 향불로 선사의 소리와 모습을 그릴 뿐이니,  
이 정석<sup>98)</sup>을 새김이여! 불법이 장차 웅장하도록 기원함이로다.

叢林無主, 山門若空,  
錫放衆虎, 鉢遣<sup>99)</sup>群龍.  
唯<sup>100)</sup>餘香火, 追想音容,  
刊此貞石, 紀<sup>101)</sup>法將雄.[其六]

중화 4년<sup>102)</sup> 갑진(甲辰) 가을 9월 무오(戊午) 19일 병자(丙子)에 세우다.  
제7행 ‘선’자 이하는 제자 전병부시랑(前兵部侍郎) 입조사(入朝使) 전중  
대감(殿中大監)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은 김언경이 글을 쓰고, 흥륜  
사<sup>103)</sup> 승 석현창(釋賢暢)이 글을 새기다.

中和四年, 歲次甲辰季秋九月戊午朔, 旬有九日丙子建. 從頭  
第七行禪字已下, 弟子前兵部侍郎, 入朝使, 殿中大監, 賜紫金  
魚袋, 金彦卿書, 興輪寺僧, 釋賢暢, 刻字.

97) 발견군룡(鉢遣群龍): 부처님께서 조로아스터교, 즉 배화교도(拜火教徒)의 신앙 대상인 독룡(毒龍)을 항복(降伏)시킨 고사. 이후 배화교도인 우루빈라가섭(優婁頻螺迦葉)·나제가섭(那提迦葉)·가야가섭(伽耶迦葉) 등 삼형제와 그들의 제자 일천명이 모두 불타(佛陀)에게 귀의하였다.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권41「가섭삼형제품迦葉三兄弟品」(대장장3, p.843a5).

98) 정석(貞石): 비석(碑石)의 미칭(美稱).

99) [全文]의遣는遣의 오자임.

100) [全文]의惟는唯의 오자임.

101) [全文]의祀은紀의 오자임.

102) 중화(中和) 4년: 헌강왕(憲康王) 10년(884).

103) 흥륜사(興輪寺): 신라 칠처가람(七處伽藍)터 가운데 하나인 천경림(天鏡林)을 베어내고 진흥왕 5년(544)에 창건했다고 하는데 경주에 있었던 절이다.



[비신(碑身)의 높이(高)는 8척2촌(八尺二寸), 폭(幅)은 4척5촌(四尺五寸), 글자의 간격은 8분(八分), 1항부터 7항의 선(禪)자까지는 해서(楷書)이며, 그 이하는 행서(行書)이다. 이수(螭首)와 제액(題額)은 누멸(泐滅)되었다.]

[揭載]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 上, pp.95~105.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上, pp.60~64.

『한국금석전문韓國金石全文』 古代, pp.198~202.





河東雙谿寺眞鑒國師大空靈塔碑文

【02.하동쌍계사진감국사대공영탑비문】





## 02. 하동쌍계사진감국사대공영탑비문

河東雙谿寺眞鑑國師大空靈塔碑文

있는 곳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세운 때 : 신라 정강왕 2년 정미(887)

所在 : 慶尙南道 河東郡 花開面 雲樹里 雙谿寺

年時 : 新羅 定康王 2年 丁未(887)

당해동(駢海東) 고(故) 진감선사비문(眞鑑禪師碑文)

당(唐) 신라국(新羅國) 고(故) 지리산(智異山) 쌍계사(雙谿寺) 교시(教  
諡) 진감선사비명(眞鑑禪師碑銘)과 서(序)

駢<sup>1)</sup>海東, 故眞鑑禪師碑[題額]

有唐新羅國, 故知異山, 雙谿寺, 教諡眞鑑禪師碑銘, 并序.

전(前) 서국(西國)<sup>2)</sup> 도통순관 승무랑 시어사 내공봉으로 자금어대<sup>3)</sup>를

---

1) [全文]의 駢과 [總覽]의 駢은 모두 당(唐)의 고자(古字)임.

2) 서국(西國) : 당나라(唐)를 가리킨다.

3) 도통순관승무랑시어사내공봉사자금어대(都統巡官承務郎侍御史內供奉賜紫金魚袋) : 최치원이 당나라 말엽 황소의 난 때에 진압 책임자인 도통(都統) 고병(高駢)의 종사관으로 재임 중, 고도통의 추천(奏薦)에 의해 당의 희종으로부터 특

하사받은 신 최치원<sup>4)</sup>이 왕명을 받들어 찬하고 아울러 전자(篆字)로 제액(題額)을 쓰다.

前西國都統巡官, 承務郎侍御史內供奉, 賜紫金魚袋, 臣,  
崔致遠, 奉教, 撰, 并書篆額.

무릇 도(道)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요,<sup>5)</sup> 사람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異國)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의 자제들이 스님도 되고 유학자도 되어 서쪽으로 큰 바다를 건너가 이중의 통역을 거쳐 학문에 종사하려 함에는 목숨은 배<sup>6)</sup>에 맡기었지만, 마음은 중국으로 향하

별히 받은 것이다. 정식 호칭은 도통순관승무랑전중시어사내공봉사자금어대(都統巡官承務郎殿中侍御史內供奉賜紫金魚袋)이다.

- 4) 최치원(崔致遠): 신라말의 유학자이며 대문호이다. 문성왕 19년(857)에 왕경(王京: 경주)의 사랑부(沙梁部)에서 태어나 12세에 중국(당)에 들어가 18세인 874년에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하였다. 그 후 전주(宣州) 표수현위(漂水縣尉)를 거쳐 고병(高駢)의 종사관으로 있다가 885년에 신라로 돌아와 헌강왕으로부터 '시독겸한림학사수병부시랑지서서감사(侍讀兼翰林學士守兵部侍郎知瑞書監事)'를 제수받았다. 이후 신라의 문병(文柄)을 장악하면서 많은 저술을 남겨 놓았다. 『계원필경(桂苑筆耕)』 등은 당에서 지은 시문(詩文)이고, 「사산비명(四山碑銘)」, 「법장화상진법藏和尚傳」, 「지엄화상보은사회원문智嚴和尚報恩社會願文」, 시(詩)·표(表)·장(狀)·계(啓)·기(記)·원문(願文) 등은 신라로 돌아온 후에 지은 불교 관계 저술과 외교 문서들이다. 최치원은 얼마 후 중앙에서 물러나 태산군(太山郡: 전북 태인)·천령군(天嶺郡: 경남 함양)·부성군(富城郡: 충남 서산) 등의 태수(太守)를 지냈다. 진성왕 8년(894) 2월에 시무10여조(時務十餘條)의 정치 개선안을 올렸으나 아찬(阿飡)에 제수되는데 그치자, 42세 때인 898년경에 해인사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그는 이곳에 머물면서 해인사 관계 저술을 여러 편 남겨 신라말의 상황을 알려 주고 있다. 이 「진감선사비명(眞鑑禪師碑銘)」은 사산비명의 하나로 왕명(王命)에 의해 찬술한 것이다.

- 5) 도불원인(道不遠人): 『중용(中庸)』13장에 “曰 仁者 道不遠人 人之爲道而遠人 不可以爲道”라 하였고 야운비구(野雲比丘)의 「자경문(自警文)」에는 “古曰 道不遠人 人自遠矣”라고 하였다.

였다. 빈 채로 갔다가 채워서 돌아오고 고생한 후에 얻었으니,<sup>7)</sup> 마치 옥을 캐는 사람이 곤륜산의 높음<sup>8)</sup>을 꺼리지 않고, 구슬을 찾는 자가 여룡이 있는 바다의 깊음<sup>9)</sup>을 마다하지 않는 것과 같다.

夫道不遠人, 人無異國. 是以, 東人之子, 爲釋爲儒, 必<sup>10)</sup>也<sup>11)</sup>西  
浮大洋, 重譯從學, 命寄剡木, 心懸寶洲. 虛往實歸, 先難後獲,  
亦猶采玉者, 不憚崑丘之峻, 探珠者, 不辭驪壑之深.

드디어 지혜의 햇불을 얻으니 오승<sup>12)</sup>을 두루 비추었고, 좋은 음식(嘉肴)으로 비유해 말한 즉 맛이 6적<sup>13)</sup>을 깊이 맛보았다. 다투어 천문(千門) 만호(萬戶)로 하여금 선(善)에 들게 하고, 한 나라로 하여금 인(仁)을 행하도록 하였다.

- 
- 6) 고목(剡木): 배를 일컫는다. 『주역周易』「계사繫辭」하, “剡木爲舟”.
  - 7) 선난후획(先難後獲): 『논어論語』「옹야雍也」, “問仁 子曰 先難而後獲 可謂仁矣”.
  - 8) 곤구(崑丘): 『치수경治水經』에 나오는 높이 5만 리의 곤륜산으로 옥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 9) 여학(驪壑): 검은 용(驪龍)이 있는 깊은 바다.
  - 10)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拓本]에는 必임.
  - 11)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拓本]에는 也임.
  - 12) 오승(五乘): 각각의 근기에 따라 사람을 각 과지(果地)에 이르게 하는 교법(教法)을 승(乘)이라 하며, 1승에서 5승까지의 구분이 있다. 5계(戒)·10선(善)·4제(諦)·12인연(因緣)·6도(度)의 소승법(所乘法)으로, 인간에 나는 인승(人乘), 천상에 나는 천승(天乘), 아라한과(阿羅漢果)에 이르는 성문승(聲聞乘), 벽지불과(辟支佛果)에 이르는 연각승(緣覺乘), 불과(佛果)에 오르는 보살승(菩薩乘) 등으로 구분하나 종파(宗派)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 13) 육적(六籍): 육종경(六種經)을 가리킴이니 당대 선종의 소의(所依)가 되는 『대반야경大般若經』·『금강경金剛經』·『유마경維摩經』·『능가경楞伽經』·『원각경圓覺經』·『능엄경楞嚴經』으로 본다. 유교의 6경(經)인 시(詩)·서(書)·예(禮)·역(易)·악(樂)·춘추(春秋) 등이라는 주장도 있다.

遂得慧炬，則光融五乘，嘉肴則味飮六籍。競使千門入善，能令一國<sup>14)</sup>興<sup>15)</sup>仁。

배우는 사람 중에 어떤 이는 “석가[身毒]<sup>16)</sup>와 공자[闕里]<sup>17)</sup>가 가르침을 베풀에 그 흐름이 나뉘고 체(體)가 다르니 동그란 구멍을 네모난 마개로 막는 것과 같아서<sup>18)</sup> 서로 어긋나서 한쪽만을 잡아서 고집한다”고 하였다. 시험삼아 논해 본다면, 시를 논하는 사람이 글자로써 말을 해쳐서는 안되고, 말로써 뜻을 해쳐서도 안되는 것이다.<sup>19)</sup> 『예기禮記』에 이른바 “말이 어찌 한 갈래뿐이겠는가. 각각 타당한 바가 있다”<sup>20)</sup>고도 하였다.

而學者，或謂，“身毒與闕里之設教也，分流異體，圓鑿<sup>21)</sup>方柄，<sup>22)</sup>互相矛盾，守滯一隅。”嘗試論之，說詩者，不以文害辭，不以辭害志。禮所謂，“言豈一端而已，夫各有所當。”

14)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拓本]에는 國임.

15)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拓本]에는 興임.

16) 신독(身毒): 신독(身篤)으로도 음사하며 인도의 옛 이름인 천축(天竺)을 일컫는다. 때로는 석가(釋迦)를 일컫는다.

17) 결리(闕里): 중국 산둥성 곡부현(曲阜縣)에 있는 공자(孔子)의 탄생지로 여기서는 공자를 지칭한다.

18) 환조방예(圓鑿方柄): 네모진 자루를 둥근 구멍에 끼우면 맞지 않는다는 ‘조예불상용鑿柄不相容’의 뜻으로, 송옥(宋玉)이 지은 『초사楚辭』 「구변九辯」의 “환조이방예혜圓鑿而方柄兮”란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

19) 이사해지(以辭害志): 『맹자孟子』 「만장萬章」 「상」, “說詩者不以文害辭 不以辭害志”.

20) 각유소당(各有所當): 『예기禮記』 「제의祭義」.

21) 조(鑿): ‘뚫다’ ‘깎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작’으로 발음하고, ‘구멍’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조’로 발음한다.

22) [總覽] [拓本]에는 柄. [全文]에는 柄이나 柄의 오자임.



그러므로 여산(廬山)의 혜원(慧遠)<sup>23)</sup>이 논<sup>24)</sup>을 지어 말하기를 “여래가 주공·공자와 더불어 드러낸 이치는 비록 다르지만, 돌아가는 바는 한 길이다. 각각 자교(自敎)에 국집(局執)하여 겸응(兼應)하지 못하는 자는 만물을 능히 전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故廬峯慧遠，著論<sup>25)</sup>謂，<sup>26)</sup> “如<sup>27)</sup>來之與周孔，發致雖殊，所歸一揆，體極不兼應者，物不能兼受故也。”

심약<sup>28)</sup>은 “공자는 그 실마리[四端]를 논했고 석가모니는 그 극치를 다

23) 여산혜원(廬山慧遠): 335~417. 중국 동진(東晉) 때의 스님. 여산 동림사(東林寺)에 주석(住錫)하였으므로 여봉혜원(廬峰慧遠)이라고도 한다. 13세에 이미 6경을 연구하고 그 후 노장학에도 정통하였는데, 21세에 도안(道安) 문하에 들어가 수행하였다. 381년 제자 수십인과 함께 여산에 들어가 동림사를 짓고, 그의 덕을 사모하여 모여든 123인과 함께 백련사(白蓮社)를 창설하고 염불수행하였다. 30여 년간을 여산에 있으면서 법정(法淨)·법령(法領) 등을 멀리 서역에 보내어 법본(梵本) 불경을 구하고, 승가파제(僧伽婆提)에게 청하여 『아비담심론阿毘曇心論』과 『삼법도론三法度論』을 담마류지(曇摩流支)에게 청하여 『십송율十誦律』을 번역하는 등 불교학계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에 당의 선종(宣宗)은 변각대사(辨覺大師)로, 송 태종(太宗)은 원오대사(圓悟大師)로 추시(追諡)하였다. 저서로는 『대지도론요약大智度論要約』20권,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 『법성론法性論』2권, 『사문단복론沙門袒服論』1권이 있다. 불교의 혜원(慧遠), 유교의 도연명(陶淵明), 도가(道家)의 육수정(陸修靜)과의 인연으로 전하는 호계삼소(虎溪三笑)에 대한 고사(故事)는 유명하다.

24) 논(論): 『사문불경왕자론』으로, 여래(如來) 이하의 내용은 「체극불겸응體極不兼應」제4에 있다. 세속의 왕에게 사문(沙門)이 예경하지 않는 것을 비리(非理)라 하여 임금을 공경하라고 명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다음 원흥(元興) 2년(403) 재상 환현(桓玄)이 다시 명을 내리자 혜원은 원흥 3년(404)에 이 논을 지어 반박하였다.

25)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拓本]에는 論임.

26)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拓本]에는 謂임.

27)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拓本]에는 如임.

하였다”고 말하였으니, 참으로 그 큰 뜻을 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로소 함께 지극한 도를 말할 만하다. 부처님께서 심법<sup>29)</sup>을 말씀하신 데에 이르러서는 심오하고 또 심오해서 이름하고자 하나 이름을 붙일 수 없으며 설명하고자 해도 설명을 할 수 없다. 비록 달을 보았다고 하나, (달은 물론) 달을 가리킨 손가락까지도 곧 잊어버려서 마침내 바람을 엮어 매고 그림자를 잡기 어려운 것과 같다. 그러나 멀리 높은 데를 오르자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하나니 비유를 취한들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沈約有云, “孔發其端, 釋窮其致.” 眞可謂識其大者, 始可與言至道矣. 至若佛語心法, 玄之又玄, 名不可名, 說無可<sup>30)</sup>說.<sup>31)</sup> 雖云得月, 指或坐忘, 終類係風, 影難行捕. 然陟遐自迩, 取譬何傷.

또한 공자가 제자들에게 “나는 말 없고자 한다. 하늘이 무슨 말이 있는가”<sup>32)</sup>라고 말하였으니, 저 유마거사(維摩居士)가 묵묵히 문수를 대한 것<sup>33)</sup>

28) 심약(沈約): 441~513. 양(梁)나라 시인이며 음운학자(音韻學者)였던 정치가. 자는 휴문(休文)이고 오흥무강(吳興茂康: 지금의 浙江德清) 사람으로 육조시대의 굴지의 학자이며 양무제 때 상서령(尙書令)까지 오른 정치가이다. 4성(聲)의 구별을 세우고 시(詩)의 8병(病)을 들은 것으로 유명하며, 불교에도 통하여 범문 음악인 싯담음악(悉曇音樂)에 의하여 깊이 성운(聲韻)을 연구하였다. 저서로는 『진서晉書』 111권·『사성보四聲譜』·『송서宋書』·『제기齊記』·『양무기梁武記』·『심휴문집沈休文集』 등이 있다.

29) 불어심법(佛語心法): 『능가아발다라보경楞伽阿跋多羅寶經』 권1 「일체불어심품一切佛語心品」(대정장16, p.480a16 참조).

30)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拓本]에는可見.

31)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拓本]에는說임.

32) 여욕무언 천하언재(予欲無言 天何言哉): 『논어論語』 「양화陽貨」, “子曰 予欲無言 子貢曰 子如不言 則小子何述焉 子曰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 즉 말을 떠나서 통하는 자리로 공자와 온백설자(溫伯雪子)의 ‘목격이도존目擊而道

과 부처님<sup>34)</sup>께서 가섭(迦葉)에게 가만히 전한 것<sup>35)</sup>과 같이, 수고로이 혀를 움직이지 않고 능히 통해서 마음에 새기게 함인 것이다. 하늘이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을 버리고 어디에 가서 얻을 수 있겠는가. 멀리서 묘한 도를 전해 와서 널리 우리나라를 빛나게 한 것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선사가 바로 그 분이다.

且尼父謂門弟子曰, “予欲無言, 天何言哉.” 則彼淨名之默對文殊, 善逝之密傳迦葉, 不勞鼓舌, 能印心. 言天不言,<sup>36)</sup> 捨<sup>37)</sup>此奚適而得. 遠傳妙道, 廣耀吾鄉, 豈異人乎. 禪師是也.

선사의 법휘(法諱)는 혜소(慧昭)이며, 속성(俗姓)은 최씨(崔氏)이다. 그 선조는 한족(漢族)으로 산둥지방의 벌족(閩族)이었다.<sup>38)</sup> 수(隋)나라 군사

存'의 해후와 에머슨과 카알라일의 무언(無言)의 해후와 모두 같은 의미이다.

- 33) 정명(淨名): 정명은 유마거사(維摩居士 ㉔ Vimalakīrti)의 별칭이다. 법자재보살(法自在菩薩)과 문수보살(文殊菩薩)이 법문(法門)함에 유언(有言)으로 논의할 때 유마거사는 무언(無言)으로 상대(相對)하였다. 문수가 이를 칭찬하니 문자와 언어의 길이 끊어진 자리로서 참다운 불이법문(不二法門)이라 하였다.
- 34) 선서(善逝): ㉔ sugata, 불타(佛陀) 즉 여래(如來)를 부르는 10호(號)의 하나로 수가타(須伽陀)라 음사(音寫)하기도 한다. 여래·응공(應供)·정변지(正遍知)·명행족(明行足)·선서(善逝)·세간해(世間解)·무상사(無上士)·조어장부(調御丈夫)·천인사(天人師)·불세존(佛世尊)의 10가지 명칭 가운데, 부처님은 여실히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러 다시 생사해(生死海)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 35) 밀전가섭(密傳迦葉): 석가세존이 가섭에게 은밀히 마음을 전한 세 번의 고사인 삼처전심(三處傳心). 그 중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염화시중(拈華示衆)을 본 가섭이 파안미소(破顏微笑)함으로써 법이 전해졌으니, 이심전심(以心傳心) 고사(故事)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 36)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拓本]에는言임.
- 37)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拓本]에는捨임.
- 38) 관개산동(冠蓋山東): 산둥지방의 명문가를 일컫는다. 관개는 옛날 귀족이나 높

가 요동 정벌에 여맥(고구려)에서 많이 몰살당하였는데<sup>39)</sup> 항복하여 백성이 되었다. 그러다가 당나라가 전부 뭉쳐서 사군(四郡)을 통괄하였을 때<sup>40)</sup> 금마<sup>41)</sup>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창원(昌元)으로 재가(在家)신도이면 서도 출가한 스님과 같이 수행하였다. 어머니<sup>42)</sup> 고씨(顧氏)가 어느 날 잠깐 낮잠이 들었는데, 꿈에 한 범승(梵僧)이 나타나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르고 나서 유리항아리를 주었다. 그 후 얼마 안되어 선사를 임신하였다.

禪師法諱，慧昭，俗姓崔氏。其先漢族，冠蓋山東。隋師征遼，多沒驪貊，有降志而爲遐眈者。爰及聖唐，囊括四郡，今爲全

은 관리가 타던 네필의 말이 끄는 수레인데 명문을 가리키기도 한다. 사신 왕래가 끊어질 사이 없이 이어질만큼 변성하다는 말. 『전국책戰國策』『위책魏策』, “魏使人 求救于秦 冠蓋相望 秦救不出”.

- 39) 다몰려맥(多沒驪貊): 612년 수나라는 제2차 고구려전에 113만 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공격하였는데, 요동성공격에 시일을 많이 소모하자 우중문(字仲文)과 우문술(字文述)에게 따로 30만명의 군사를 주어 평양을 직공(直攻)하게 하였다. 이때 을지문덕은 종심방어전략(縱深防禦戰略)을 구사하여 칠전칠패(七戰七敗)로 적군을 평양으로 끌어 들인 후 그들의 양식이 동이 난 것을 알고 지구전(持久戰)으로 적군의 공격역량을 소모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후퇴하는 수나라군을 살수(薩水)에서 공격하여 거의 전멸시킨 사실을 말한다. 수나라는 이 전역(戰役)으로 결국 쇠망하게 되었다.
- 40) 낭괄(囊括): 자루에 넣고 주둥이를 동여 매는 것으로 전체를 차지한 것을 말하는데,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당과 외교 관계가 재개되면서 당의 주민국으로서의 신라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 41) 금마(金馬): 지금의 전라북도(全羅北道) 익산(益山)으로, 신라 문무왕 10년(670)에 고구려 보장왕(寶藏王)의 서자(庶子) 안승(安勝)이 4천여 호를 이끌고 신라에 투항하자, 신라는 이를 받아들여 그들을 금마저(金馬渚: 익산)에 있게 하였다. 이로 볼 때 진감전사의 선조가 이 때 안승과 함께 금마로 와서 살았던 한족(漢族)으로 생각된다.
- 42) 아미(阿彌): 어머니. 초(楚)와 제인(齊人)은 모(母)를 미(嚳)라 하고, 강남인(江南人)은 아구(阿區)라 한다고 한다. 어미 또는 어머니란 말이 여기에서 온 것 같다.

州<sup>43)</sup>金<sup>44)</sup>馬人也. 父曰昌元, 在家有出家之行. 母顧氏, 嘗晝假寐, 夢一梵僧, 謂之曰, “吾願爲阿嬈[方言謂<sup>45)</sup>母]之子.” 因以瑠璃甕爲寄. 未幾娠禪師焉.

태어나면서부터<sup>46)</sup> 울지 않았으니, 곧 일찍부터 빼어나 소리를 녹이고 말이 없는 도의 싹을 드러낸 것이다. 7, 8세가 되어<sup>47)</sup> 밖에 나가 아이들과 놀 때에는 반드시 나뭇잎을 사루어 향을 삼고 꽃을 따서 공양을 올리었다. 때로는 서쪽을 향해 꿇어앉아 해가 저물어도 움직이는 기색조차 없었다. 이에 선의 뿌리가 진실로 백천겁 전에 심어진 바여서, 발돋움을 하여도 따라갈 수 없음을 알겠다.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효도의 뜻이 간절하여 잠시도<sup>48)</sup> 잊지 못하였다. 그러나 집에는 한말의 곡식도 없었고, 또한 한 자의 땅도 없었다. 천시<sup>49)</sup>를 이용하여 가족을 봉양하니 오직 힘닿는 대로 노력을 다 하였다.<sup>50)</sup> 이에 생선<sup>51)</sup> 장사를 하여 부모에게 봉양할 좋은 음

43)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拓本]에는 州임.

44)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拓本]에는 金임.

45)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拓本]에는 謂임.

46) 생년(生年): 대중(大中) 4년(850)에 입적했을 때 나이가 77세였으므로 진감선사는 774년에 출생하였다.

47) 기춘(既畛): 남녀아동(男女兒童)들이 7·8세에 이를 갈므로 비유하여 어릴 때를 가리킨다.

48) 규보(跬步): 1거족(舉足)을 규(跬), 2거족을 보(步)라 하므로 규보란 즉 한 발자국(반걸음)을 뜻한다.

49) 천시(天時): 자연의 순리를 뜻하며 천시를 흠뻑했다는 것은 인간이 천시를 잘 알아 지혜롭게 삶을 영위함을 말한다.

50) 유력시시(惟力是視): 『춘추좌전春秋左傳』「희공僖公」24년의 “除君之惡 唯力是視”에서 따온 말이다.

51) 취우(娶隅): 청어(靑魚) 또는 물고기의 이칭(異稱).

식<sup>52)</sup>을 넉넉히 마련할 수 있었다. 손으로 수고로이 그물을 짜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통발을 잇은 것에 부합하였다.<sup>53)</sup> 콩죽을 끓여 먹어도 부모의 기쁨을 다할 수 있었고,<sup>54)</sup> 진실로 난초를 캔다는 시를 읊으며<sup>55)</sup> 아버이를 화하게 하였다.<sup>56)</sup> 이미 부모가 돌아가시자<sup>57)</sup> 흠을 저다 무덤을 만들고는 “길러주신 은혜를 오로지 힘으로써 보답하였으니, (이제) 도의 뜻<sup>58)</sup>을 어찌 마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랴. 내가 어찌 매달려 있는 박과 같이<sup>59)</sup> 나이가 들도록 지나온 자취에만 머물러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生而不啼，迺挺銷聲，息言之勝牙也。旣訖從戲，必爇葉爲

52) 활감(滑甘): 부모에게 봉양하는 매끄럽고 맛있는 음식.

53) 심이계어망진(心已契於忘筌): 마음은 이미 통발을 잇은 것에 합하였다 하였으니,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이미 잇음에 비유함이다. 선리(禪理)를 깨달았음에 비유하는 말이나, 여기서는 일상을 영위함에 작위함이 없이 여여하였음을 뜻한다. 『장자莊子』「외물外物」, “筌者所以在魚 得魚而忘筌 蹄者所以在兔 得兔而忘蹄 言者所以在意 得意而忘言”.

54) 철숙지자(啜菽之資): 콩죽을 끓여 먹어도 그 즐거움이 다하게 하는 것으로 효도를 뜻한다. 『예기』「단궁檀弓」하, “孔子曰 啜菽飲水 盡其歡 斯之謂孝 斂手足形還葬 而無槨 稱其財 斯之謂禮”.

55) 채란(采蘭): 효자가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문선文選』「보망시補亡詩」‘남해南陔’에 “循彼南陔 言采其蘭 眷戀庭闈 心不遑安”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선(李善)이 “采蘭 以自芬香也 循陔以采香草者 將以供養其父母 喻人求珍異以歸”라고 주해하였다.

56) 윤협(允叶): 윤협(允協)과 같은 말로, 뜻에 잘 맞추어 편안케 함이다.

57) 간극(黽棘): 부모의 상(喪)을 말한다. ‘黽’은 ‘艱’의 古字이다.

58) 희미(希微): 『노자도덕경老子道德經』14장, “視之不見 名曰夷 聽之不聞 名曰希 搏之不得 名曰微 此三者不可致詰 故混而爲一”이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가히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최상승(最上乘)의 선리(禪理)를 뜻한다.

59) 오기포과(吾豈匏瓜): 『논어』「양화」의 “吾豈匏瓜也哉 焉能繫而不食”에서 온 말이니 좁은 곳에 매어 있지 않고 중국(中國)으로 유학(遊學)하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香, 采花爲<sup>60)</sup>供. 或西嚮危坐, 移晷未<sup>61)</sup>嘗動容. 是知善本, 固百千劫前所栽植, 非可跂而及者. 自卅泉<sup>62)</sup>弁, 志切反哺, 跬步不忘. 而家無斗儲, 又無尺壤<sup>63)</sup>. 可盜天時者, 口腹之養, 惟力是視. 乃裨販姬隅, 爲膳<sup>64)</sup>滑甘之業. 手非勞於結網. 心已契於忘筌. 能豐啜菽之資, 允叶采蘭之詠. 暨鍾蘿棘, 負土成墳, 迺曰, “鞠育之恩, 聊將力報希微之旨, 盍以心求, 吾豈匏瓜, 壯齡滯跡.”

드디어 정원 20년<sup>65)</sup>에 세공사(歲貢使)에게 가서 뱃사공이 되기를 청하여 배를 타고 서쪽으로 향해하였다. 비루한 일에 너그럽고 험한 것 보기를 평이(平夷)한 것 보듯이 하여, 자비의 배를 노저어 고통의 바다를 건넜다. 중국에 이르러 국사(國使)에게 고하여 “사람마다 각각 뜻이 있는 것이니, 여기서 서로 헤어지기를 청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목적의 길을 떠나 창주(滄州)에 이르러 신감대사<sup>66)</sup>를 뵈었다. 몸을 던져 절하고<sup>67)</sup> 반쯤 일어서려는 순간 대사가 기꺼워하면서 “반갑다.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쁘게 다시 서로 만났구나”라고 하고는 곧바로 머리를 꺾고 승복을

60)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拓本]에는 爲임.

61) [拓本]에는 未, [總覽] [全文]에는 末이나 未의 오자임.

62) [全文]의 角은 泉의 오자임.

63) [全文] [拓本]에는 壤, [總覽]의 壤는 壤의 오자임.

64) [全文]의 瞻은 膳의 오자임.

65) 정원(貞元) 20년 : 애장왕(哀莊王) 5년(804).

66) 신감대사(神鑑大師): ?~844. 당대(唐代)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의 선맥을 이은 선승.

67) 투체(投體): 오체투지(五體投地)의 줄인 말. 두 다리와 두 팔, 머리의 오체를 땅에 대고 절하는 것을 말한다.

입게 하였다.<sup>68)</sup> 갑작스레 인가를 받으니 마치 불을 마른 켓에 대는 듯, 물을 낮은 데로 쏟아 붓는 듯하였다. 이때 제자들도 서로 “동방의 성인을 여가서 다시 뵈게 되었구나”라고 하였다.

遂於貞元廿年，詣歲貢使，求爲榜人，寓足西泛。多能鄙事，視險如夷，揮楫慈航，超截苦海。及達彼岸，告國使曰，“人各有志，請從此辭。”遂行至滄州，謁神鑒大師。投體方半，大師怡然曰，“戲別匪遙，喜再相遇。”遽令削染。頓受印契，若火沾燥艾，水注卑遠。<sup>69)</sup>然徒中相謂曰，“東方聖人，於此復見。”

선사는 얼굴이 검어서 대중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지목하여 흑두타(黑頭陀)라고 하였다. 이는 곧 진리를 찾고 묵묵(默默)한 것에 처함이 참으로 칠도인<sup>70)</sup>의 후신이기도 한 때문이니, 어찌 읍중(邑中)의 검은 사람인 자한(子罕)이 못사람의 마음을 위로한 데에 비할 수 있겠는가.<sup>71)</sup> 길이 불

68) 삭염(削染): 삭발(削髮)과 염의(染衣)의 줄인 말로 출가하여 스님이 된다는 말이다.

69) [總覽]에는 遽, [全文]에는 遽, [苑] [拓本]에는 遽이니, 遽는 遽의 고자(古字)임.

70) 흑두타(黑頭陀): 동진(東晉)의 도안법사(道安法師: 314~385)로 12세에 출가하였는데 얼굴이 검고 너무 못생겨서 그때 사람들이 그를 흑두타(黑頭陀) 또는 칠도인이라고 하였다. 그는 불도경(佛圖澄)을 스승으로 섬기고 법제(法濟)·지담(支曇) 등에게 배웠다. 이후 불법을 선양하기 위해 문인들을 양주(涼州)·촉(蜀)·나부산(羅浮山) 등지에 보내고 그는 혜원 등 40인을 거느리고 양양(襄陽)에서 포교하였다. 여러 불전 가운데 잘못된 곳의 문구를 비교하여 밝히고, 모든 경전의 역자와 번역, 연대가 미상인 것을 상고하여 경록(經錄)을 작성하였다. 또한 경전 해석에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의 삼과목(三科目)을 창설하고, 승가생활의 규범 및 석씨(釋氏)를 스님들의 성(姓)으로 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으니, 그로부터 중국인에 의한 중국불교가 발흥하는 계기가 되었다.

71) 위중심(慰衆心): 춘추(春秋)시대 송자한(宋子罕)이 평공(平公)의 별장을 농한기로 미루어 지으려 하자 임금의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인부들이 “택문(澤門)의



은 수염의 불타야사<sup>72)</sup>나 푸른 눈의 달마<sup>73)</sup>와 더불어 색상(色相)으로서 나타나 보인 것이다.

禪師形貌黯然，衆不名，而目爲黑頭陀。斯則探玄處默，眞爲漆道人後身，豈比夫邑中之黔，能慰衆心而已哉。永可與<sup>74)</sup>赤頰青眼，以色相顯示矣。

원화 5년<sup>75)</sup>에 숭산(嵩山) 소림사의 유리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니,<sup>76)</sup> 어머니<sup>77)</sup>가 전에 꾸 꿈과 완전히 부합하였다. 계를 받고나서 다시 학사<sup>78)</sup>로 돌아가 경을 배웠는데,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니, 꼭두서니보다 밝고 남빛보다 푸르러<sup>79)</sup> 가르쳐 준 스승보다 나왔다.

元和五年，受具於嵩山少林寺瑠璃壇，則聖善前夢。宛若合符，旣瑩戒珠，復歸橫海，聞一知十，茜絳藍青。

흰사람은 실로 우리를 부리고, 읍중(邑中)의 검은이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한다 “宋皇國父爲大宰 爲平公築臺 妨於農收 子罕請俟農功之畢 公弗許 築者諷曰 澤門之皙 實興我役 邑中之黔 實慰我心”고 한 『춘추좌전』 「양공襄公」 17년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72) 적자(赤髭): 북천축(北天竺)의 계빈국(闕賓國) 사문(沙門) 불타야사(佛陀耶舍 ㉔ Buddhayaśas)는 수염이 붉어 적자라고 불렸다.

73) 청안(靑眼): 중국 선종(禪宗)의 초조(初祖)인 달마(達磨)의 눈이 파란 것에 비유한 말이니 벽안(碧眼)이라고도 한다.

74) [苑] [拓本]에는 與, [全文] [總覽]에는 興이나 與의 오자임.

75) 원화오년(元和五年): 헌덕왕(憲德王) 2년(810).

76) 수구(受具): 비구계인 250계(具足戒)를 받은 것을 말한다.

77) 성선(聖善): 어머니. 『시경詩經』 「패풍邶風」 ‘개풍凱風’, “母氏聖善.”

78) 횡해(橫海): 橫은 疊과 通함. 학사(學舍)란 뜻이다.

79) 천강람청(茜絳藍靑): 붉은 빛은 꼭두서니에서 취하는 것이나 꼭두서니보다 더 밝고, 푸른 빛은 남초에서 얻지만 남초보다 더 푸르다는 말로,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남을 비유한 말이다.

비록 고요한 물처럼 마음이 맑았지만 조각구름(斷雲)과 같이 찾아 다니면서 묻고 배웠다. 그때 마침 우리나라의 스님인 도의<sup>80)</sup>가 먼저 중국에 와서 도를 구하던 중이었는데 우연히 만나 반가워 하니 서와 남에서 친구를 얻은 것이다.<sup>81)</sup> 서방으로 찾아 다니면서 부처님의 지견<sup>82)</sup>을 증득하였다. 의공(義公)이 먼저 고국으로 돌아오고<sup>83)</sup>, 선사는 곧 종남산(終南山)으로 들어가 높은 봉우리에 올라, 소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선정과 지혜[止觀]를 닦으며 고요히 있기를 3년 동안 하였다. 그 후 자각<sup>84)</sup>으로 나와서 네거리 길에서 켜신을 삼아 널리 보시하며 왔다갔다 하기를 또 3년 동안 하였다. 이에 이미 고행(苦行)도 닦았고 타국의 지방도 다 유람하였으니, 비록 공(空)을 관(觀)한다고 하지만, 어찌 본국을 잊을 수 있겠는가.

雖止水澄心，而斷雲浪跡。粵有鄉僧道義，先訪道於華夏，邂逅適願，西南得朋。四遠叅尋，證佛知見。義公前歸故國，禪師卽入終南，登萬仞之峯，餌松實而止觀，寂寂者三年。後出紫閣，當四達之道，織芒屨而廣施，憧憧者又三年。於是，苦行旣已

80) 도의(道義): 신라에 선종을 최초로 전한 선승(禪僧). 신라 선덕왕(宣德王) 5년(784)에 입당(入唐)하여 서당지장선사(西堂智藏禪師)의 심인(心印)을 전수받고, 헌덕왕(憲德王) 13년(821)에 귀국하였다. 선리(禪理)가 아직 미개한 신라에서 ‘마어(魔語)’를 한다고 비난하자 설악산 진전사(陳田寺)에 은거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심인은 염거(廉居)를 거쳐 보조선사(普照禪師) 체징(體澄)에게 이어졌고 그는 선종 9산문(禪宗 九山門)의 하나인 가지산파(迦智山派)의 개조(開祖)로 추앙되었다. 『조당집祖堂集』17에는 그의 탐비로 여겨지는 「설악산진전사원적선사비문雪岳山陳田寺元寂禪師碑文」이 인용되어 여러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81) 서남득봉(西南得朋): 동류(同類)와 같이 간다는 뜻이다. 『주역』 「곤坤」, “西南得朋 乃與類行.”

82) 지견(知見): ㉠jñāna-darśana. 제법(諸法)의 실상(實相)을 남김 없이 깨달아 조건(照見)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말한다.

83) 821년에 돌아왔다.

84) 자각(紫閣): 중국 하남성 북서쪽에 있는 함곡관(函谷關) 밖의 지명이다.

修, 他方亦已遊, 雖曰觀空, 豈能忘本.

이에 태화 4년<sup>85)</sup>에 귀국하여<sup>86)</sup> 불교의 최상승(最上乘) 도리로 우리나라를 비추었다. 흥덕대왕이 편지를 보내 환영하고 위로하며 “도의선사가 전 날에 이미 돌아왔고, 스님께서 이어 돌아오시니 두 보살이 되었도다. 옛적에는 흑의이걸<sup>87)</sup>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누더기 입을 뛰어난 스님을 친견하니, 하늘에까지 이름이 가득하고<sup>88)</sup> 자비스런 위엄이 있어 온 나라가 기쁘게 기대는구나. 내가 장차 동쪽 계림 땅에 상서로운 곳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乃於大和四年來歸, 大覺上乘, 照我仁域. 興德大王, 飛鳳筆迎勞曰, “道義禪師, 邇已歸止, 上人繼至, 爲二菩薩. 昔聞黑衣之傑, 今見縷褐之英, 彌天慈威, 舉國欣賴. 寡人行當以東雞林之境, 成吉祥之宅也.”

비로소 상주의 노악산(露嶽山) 장백사<sup>89)</sup>에 주석하였다. 의원의 문에 병자가 많듯이 오는 자가 구름과 같아, 방장(方丈)은 비록 넓었으나 형편이

85) 태화(太和) 4년 : 흥덕왕(興德王) 5년(830).

86) 대화사년래귀(大和四年來歸) : 진감(眞鑑)은 804년에 중국에 들어갔으므로 26년간 머물다가 귀국한 셈이다.

87) 흑의이걸(黑衣二傑) : 중국 남조 제(齊)의 무제(武帝)가 현창(玄暢)·법헌(法獻) 두 법사를 승주(僧主)로 삼아서 강남과 강북의 일을 나누어 맡기었으므로 당시인들이 흑의이걸이라 불렀다. 『불조통기佛祖統紀』권36(대정장49, p.347a1).

88) 미천(彌天) : 도안이 중국 양양에 있을 때 재사(才士) 습착치(習鑿齒)가 와서 “나는 사해습착치(四海習鑿齒)요”하니, 도안은 “나는 미천석도안(彌天釋道安)이요”라고 응대하였다. 『고승전高僧傳』권5「석도안전釋道安傳」(대정장50, p.352c5 참조).

89) 장백사(長栢寺) : 지금 상주 노음산(露陰山)의 남장사(南長寺).

어려워 드디어 보행으로 진주<sup>90)</sup>의 지리산에 이르렀다. 호랑이<sup>91)</sup> 몇 마리가 포효하면서 앞을 인도하여 위태로운 곳을 피해 평탄한 곳으로 가게 하니 앞에서 이끄는 기병<sup>92)</sup>과 다름이 없었다. 따라가는 사람도 두려워하는 바가 없어 집에서 기르는 개와 같았다. 그러한 즉 선무외삼장<sup>93)</sup>이 영산(靈山)에서 여름결제<sup>94)</sup>를 할 때 맹수가 길을 인도하여 깊은 산 속의 굴로 들어가 석가모니의 입상을 보았다는 사적과 꼭 같았다. 또 저 축담유<sup>95)</sup>가 조는 호랑이의 머리를 쳐서 경을 듣게 하였는데, 또한 그것만이 오로지 승사(僧史)에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이에 화개곡<sup>96)</sup>의 고 삼법화상<sup>97)</sup>이 남긴 절

90) 강주(康州): 『삼국사기』권34「잡지」3 지리, “신문왕(神文王) 5년(685)에 거타주(居陀州)에서 분리되어 청주(靑州)가 되었다가景德왕(景德王) 6년(747)에 강주(康州)로 고쳤으니, 지금의 진주(晉州)이다.”

91) 어토(於菟): 호랑이의 별칭(別稱)이다.

92) 유기(兪騎): 유아기(兪兒騎)의 줄임말. 황제가 출행할 때, 의장대(儀仗隊)를 선도하는 기병(騎兵)이다.

93) 선무외삼장(善無畏三藏): ㉔Subhakarasiṃha, 637~735. 중국에서 밀교를 조직적으로 해석한 인도스님. 인도 마갈타국의 불수왕(佛手王)을 이어 13세에 왕이 됐으나, 형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출가하여 나란다사의 달마국사를 스승으로 하여 밀교의 법등(法燈)을 이었다. 뒤에 중국으로 들어와(716) 현종의 보살핌 속에 역경(譯經)에 힘쓰고 금강지삼장(金剛智三藏)과 함께 밀교 전파에 노력하였다. 밀교의 근본경전인 『대일경大日經』7권 등을 번역하고(725), 그 요지를 보강하여 부족한 것을 보충한 『대일경소大日經疏』가 일행(一行: 673~727)에 의해 편찬되었다. 홍려경(鴻臚卿)에 추증되었다.

94) 결하(結夏): 삼하안거(三夏安居)로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3개월간의 우기(雨期)에 대중이 한 곳에 모여 수행하는 행사. 결제(結制)라고도 한다.

95) 축담유(竺曇猷): 진(晉)나라 때 강거국(康居國)에서 온 스님. 일명 법헌(法憲)이라고도 한다.

96) 화개곡(花開谷):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읍 운수동 쌍계사가 있는 곳.

97) 삼법화상(三法和尙): 신라시대의 스님. 「지리산쌍계사지기異山雙谿寺記」에 의하면 육조정상(六祖頂上)을 김대비(金大悲)와 함께 흠쳐 지리산 화개곡에 육조정상탑(六祖頂上塔)을 세우고 오직 선정(禪定)에 침잠했던 내용을 전하고 있다.

터에 절<sup>98)</sup>을 지으니 마치 꿈속의 궁전[化城]처럼 장엄하게 이루어졌다.

始憩錫於尙州露岳長栢寺. 鑿門多病, 來者如雲, 方丈雖寬, 物情自隘, 遂步至康州知異山. 有數於菟, 哮吼前導, 避危從坦, 不殊僉騎. 從者無所怖畏, 豢犬如也. 則與善无畏三藏, 結夏靈山, 猛獸前路, 深入山穴, 見牟尼立像, 宛同事跡. 彼竺<sup>99)</sup>曇猷之扣睡虎頭, 令聽經, 亦未專燉於僧史也. 因於花開谷, 故三法和尙蘭若遺基, 纂<sup>100)</sup>修堂宇, 儼若化成.

개성 3년<sup>101)</sup>에 이르러 민애대왕<sup>102)</sup>이 갑자기 임금의 자리에 올라 깊이 불교<sup>103)</sup>에 의탁하였다. 명령을 내려 재(齎)의 비용을 준비하고 따로 친견하기를 구하였다. 선사가 “부지런히 선정(善政)에 힘쓰는데 있는 것이지, 어찌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사자(使者)가 왕에게 복명하자 왕이 듣고 부끄러워하며 깨닫고, 선사는 색과 공을 다 초월하고 선정과 지혜를 함께 원만히 갖추었다고 하여 사신을 보내어 호를 내려 혜소(慧昭)라 하였는데, 소(昭)자는 성조<sup>104)</sup>의 묘휘(廟諱)를 피해서 바꾼 것이다. 이에 승적을 대황룡사<sup>105)</sup>에 올리고 서울로 나아오도록 청하였다. 사신들이 오

98) 난야(蘭若) : āraṇyaka, 적정처(寂靜處)라고도 번역. 조용하고 자그마한 수도처로 절을 일컫는다.

99) [全文]에는 竺. [總覽] [苑] [拓本]에는 竺이니, 竺과 竺은 同字임.

100) [拓本]에는 纂. [全文] [總覽]에는 纂이나 纂의 오자임.

101) 개성(開成) 3년 : 민애왕(閔哀王) 원년(838).

102) 민애대왕(愍哀大王) : 신라 44대 왕으로 838년부터 839년까지 재위하였다. 휘(諱)는 명(明), 시중(侍中) 이홍(利弘)과 함께 희강왕(僖康王)을 꾀박하여 자살케 하고 왕위에 올랐으나, 김우징(金祐徵) 일파인 김양(金陽)에게 살해되었다. 민애왕(敏哀王) 또는 민애왕(閔哀王)으로도 쓴다.

103) 현자(玄慈) : 깊고 그윽하며 자애로운 불교의 교리.

104) 성조(聖祖) : 39대 소성대왕(昭聖大王).

고 가고 해서 말고빠가 길에서 엉길 정도였으나 산처럼 우뚝 서서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옛날에 승조법사<sup>106)</sup>가 원위<sup>107)</sup>의 세 번 부름을 거역하며 “산에 있으면서 도를 행하여 크게 통하는데 어긋나지 않으려 한다”고 하였으니, 깊은 산에 있으면서 높은 뜻을 기르려는 것이 시대는 다르지만 뜻은 같다고 하겠다.

洎開成三年，愍哀大王，驟登寶位，深託玄慈。降璽書餽齋費，而別求見願。禪師曰，“在勤修善政，何用願爲。”使復于王，聞之愧悟，以禪師色空雙泯，定惠俱圓，降使賜號爲慧昭，昭字避聖祖廟諱易之也。仍貫籍于大皇龍寺，徵詣京邑。星使往復者，交轡于路，而岳立不移其志。昔僧稠拒元魏之三召云，“在山行道，不爽大通。”棲幽養高，異代同趣。

그 곳에서 여러 해를 머무니 법문 듣기를 청하는 이가 벼(稻)와 삼대(麻)처럼 줄을 지어 거의 송곳 꽃을 곳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드디어 좋

105) 대황룡사(大皇龍寺) : 경주시 구황동에 사지(寺址)가 남아 있으며, 진흥왕 14년(553)에 공사를 시작하여 17년만인 같은 왕 30년(569)에 완성하였다. 신라 삼보(三寶) 가운데 장육상(丈六像)과 9층탑인 이보(二寶)가 있던 호국 사찰로, 신라 하대의 보수 기록인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가 발견되어 창건연기(創建緣起)와 황룡사성전(皇龍寺成典)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기백, 「황룡사와 그 창건」 『신라시대의 국가불교와 유교』, 1978.

106) 승조법사(僧稠法師) : 480~560. 북제(北齊)의 고승으로 경사(經史)에 통하여 태학박사(太學博士)가 되었다. 후에 출가해서 선정을 얻고 위 효문제(魏 孝明帝)의 존숭을 받았다. 천보(天保: 550~559) 중에 운문사(雲門寺)에 주석하다가 건명(乾明) 원년에 입적하였다. 『속고승전(續高僧傳)』 권16(대정장50, pp.553~555).

107) 원위(元魏) : 북위(北魏)의 효문제(孝文帝: 467~499)가 낙양(洛陽)으로 천도하면서 본래의 성(姓)인 탁발(拓跋)을 원(元)으로 고쳤다. 그래서 원위라고도 부른다. 다시 말해 별칭으로 효명제를 가리킨 것.

은 경계를 돌아다니며 찾아 남령의 산기슭을 얻으니, 상쾌하고 앞이 탁 트여서 거처하기에 으뜸이었다. 이에 선려(禪廬)를 지으니<sup>108)</sup> 뒤로는 안개 낀 높은 봉우리를 의지하였고, 앞으로 내려다보면 구름 덮인 시내를 누르고 있었다. 눈을 맑게 하는 것은 강 건너 먼 산이요, 귀를 상쾌하게 하는 것은 돌에서 솟는 흐르는 여울물 소리였다. 봄 시내에 피는 꽃, 여름 길가에 있는 소나무, 가을 산골에 비치는 달, 겨울 산등에 덮여 있는 눈의 경치로 사철마다 모습이 변하고 만상(萬象)이 빛을 바꾸니 온갖 소리가 화음을 이루며 수많은 바위들은 다투어 빼어났다. 일찍이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곳에 이르러서는 모두 깜짝 놀라면서 보고 “혜원공(慧遠公)의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sup>109)</sup> 경치를 바다 밖 신라에 옮겨 왔도다. 연화장 세계는 범부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지만, 항아리 속에 별천지(別天地)가 있다고 한 것은 정말인가 한다”라고 하였다. 대나무통을 거쳐 물을 끌어와 집 둘레사방으로 물을 대고 나서 비로소 옥천(玉泉)으로써 현관의 제목으로 삼았다.

居數年，請益者，稻麻成列，殆無錐地。遂歷銓奇境，得南嶺之麓，爽塏居寂。經始禪廬，却倚霞岑，俯壓雲澗。清眼界者，隔江遠岳，爽耳根者，迸石飛湍。至如春谿花，夏徑松，秋壑月，冬嶠雪，四時變態，萬象交光，百籟和吟，千巖競秀。嘗遊西土者，至止咸愕，視謂，“遠公東林，移歸海表，蓮花世界，非凡想可擬，壺中別有天地則信也。”架竹引流，環階四注，始用玉泉爲勝。

법손(法孫)을 손꼽아 헤아려 보니 선사는 조계<sup>110)</sup>의 현손(玄孫)이었다.

108) 경시(經始): 절(禪廬)을 짓기 시작하는 것.

109) 원공동림(遠公東林): 혜원(慧遠)이 머물던 여산(廬山)의 동림사(東林寺)를 가리킨다.

이에 육조혜능(六祖慧能)의 영당(影堂)을 세우고, 채색 단청하여 널리 중생제도에 이바지하였으니 경<sup>111)</sup>에 이른바 “중생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비단에 여러 상을 섞어 그린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屈指法胤則，禪師乃曹溪之玄孫。是用建六祖影堂，彩飾紛墉，廣資導誘，經所謂，“爲悅衆生故，綺錯繪衆像者也。”

대중 4년<sup>112)</sup> 정월 9일 이른 아침 문인에게 “만법(萬法)이 모두 공(空)하니 내가 장차 가려 한다. 일심(一心)으로 근본을 삼아 너희들은 힘써 노력하라. 탑을 만들어 형상을 보존하지 말고 명(銘)으로써 행적을 기록하지도 말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 앉아서 엄연(奄然)히 입적(入寂)하니 금생의 나이 77세이고 법랍<sup>113)</sup>이 41세였다. 이때 하늘에는 잔구름도 없는데 바람과 천둥소리가 갑자기 일어나고 호랑이와 이리가 울부짖었으며, 삼나무와 향나무도 변하여 시들어졌다. 조금 뒤에 자주빛 구름이 하늘을 가리더니 공중에서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났는데, 장례에 모인 이들의 귀에 들리지 않음이 없었다. 곧 『양사(梁史)』<sup>114)</sup>에 “시중 저상<sup>115)</sup>이 일찍이 사문(沙

110) 조계(曹溪): 육조혜능(六祖慧能)은 중국 광둥성 곡강현(曲江縣) 소주(韶州)의 동남쪽 계곡인 조계산에 있던 보림사에서 불법(佛法)을 크게 선양하였다. 이로 인해 붙여진 육조혜능의 별칭.

111) 경(經): 『불상조성경(佛像造成經)』을 가리킨다.

112) 대중(大中) 4년: 문성왕년(文聖王) 12년(850).

113) 적하(積夏):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해로부터 세는 법(法)의 나이. 하안거(夏安居)의 횃수에 의거하여 수를 세는데 법랍(法臘)이라고도 한다.

114) 『양사(梁史)』: 당 태종 때 요사염(姚思廉)과 위징(魏徵)이 칙명(勅命)으로 남조(南朝) 양(梁)의 4대의 역사를 기록한 정사(正史). 전 56권.

115) 저상(褚翔): 505~548. 시중인 저상(褚翔)은 양나라 사람으로 자(字)는 세거(世舉)이며 의여태수(義興太守), 이부랑(吏部郎), 시중(侍中),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냈는데 공정하고 청렴하며 혜정(惠政)이 많았다. 어머니상을 당하여 피곤해



門)을 청하여 어머니의 병을 위해 기도하다가 공중에서 손가락 튕기는 소리를 들었다”고 실려 있는데 성스러운 감응이 그윽히 나타난 것이니 어찌 거짓이겠는가. 무릇 불도에 뜻을 둔 사람들은 부음을 듣고 서로 조의를 표하였으며 정을 잊지 못한 이들은 슬픔을 머금고 울었으니, 하늘과 사람들이 비통하게 애도한 것을 단연코 알 수 있다. 널리 무덤길을 미리 갖추어 준비하였으니 제자 법량(法諒) 등이 울면서 시신을 받들어 날을 넘기지 않고 동쪽 봉우리 언덕에 하관하여 유언을 따랐다.

大中四年正月九日詰旦，告門人曰，“萬法皆空，吾將行矣，一心爲本，汝等勉之，無以塔藏形，無以銘紀跡。”言竟坐滅，報年七十七，積夏四十一。于時，天無纖雲，風雷歛起，虎狼號咷，杉栝變衰。俄而紫雲翳空，空中有彈指聲，會葬者無不入耳。則梁史載，“褚侍中翔，嘗請沙門，爲母疾祈福，聞空中彈指。”聖感冥應，豈誣也哉。凡志於道者，寄聲相弔，<sup>116)</sup>未亡情者，銜悲以泣，天人痛悼，斷可知矣。靈函幽隧，預使備具，弟子法諒等，號奉色身，不踰日而窆于東峰之冢，遵遺命也。

선사는 성품이 꾸밈이 없고 말을 꾸며하지 않았으며 옷은 삼베라도 따뜻하게 여겼고 음식은 겨와 싸라기라도 달게 여겼다. 도토리과 콩을 섞은 밥에 채소 반찬은 항상 두 가지가 없었다. 귀인들이 때때로 이르러도 일찍이 다른 반찬이 없었다. 문인들이 거친 음식을 가져다 드리기 어려워 하니, 선사께서 “마음이 있어 여기에 왔으니 비록 거친 밥인들 무엇이 해롭겠는가”라고 하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나이 많은 이나 어린애를

하다가 마침내 사망하였다 한다. 『양서梁書』권 47 「효행孝行」.

116) [拓本]의 弔는 弔와 同字임.

접대함이 한결같았다.

禪師性不散樸，言不由機，服煖縕麡，食甘糠粃。<sup>117)</sup> 茅菽雜糲，蔬佐無二。貴達時至，曾不異饌。門人以瘡腹進難，則曰，“有心至此，雖糲何害。”尊卑耄耋，接之如一。

사자가 말을 타고 임금의 명을 전하여 멀리서 법력(法力)을 구할 때마다 “무릇 왕토<sup>118)</sup>에 거주하면서 불일(佛日)을 이고 있는 자로서 누군들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을 다해서 임금을 위해 복을 빌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찌 멀리서 마르고 썩은 나무<sup>119)</sup>에 윤언<sup>120)</sup>을 더럽히려 하십니까. 전하고 이르는 무리들이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목말라도 마시지 못함이 걱정입니다”고 하였다. 혹시라도 외국 향을 가져다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곧 절그릇에 잿불을 담아 환을 만들지 않고 태우면서 “나는 이것이 무슨 냄새인지 알지 못하겠다. 다만 마음을 정성스럽게 할 뿐이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차를 공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솥에 쑤으로 불을 지피 가루로 만들지 않고 끓이면서 “나는 이것이 무슨 맛인지 알지 못하겠다. 배를 적실 뿐이다”고 하였다. 진(眞)을 지키고 속(俗)을 거스리는 것이 모두 이러하였다.

每有王人，乘駟傳命，遙祈法力，則曰，“凡居王土而戴佛日者，

117) [全文]의 麡는 粃의 오자임.

118) 왕토(王土): 『시경』「소아小雅」‘북산北山’, “溥天之下 莫非王土”의 개념으로, 이와 같은 구절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의 고대(古代)에 사전(私田)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의제적(擬制的)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우성, 「신라시대의 왕토사상과 공전」 『조명기화갑기념 불교사학논총』, 1965.

119) 고목후주(枯木朽株): 진감선사 자신을 겸하(謙下)하여 마르고 썩은 고목에 비유한 말.

120) 윤언(綸言): 임금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말이다. 『예기禮記』「치의緇衣」, “王言如絲，其出如綸 王言如綸，其出如紉”.

孰不傾心護念，爲君貯福。亦何必遠污綸言於枯木朽株。傳乘之，飢不得齧，渴不得飲，吁可念也。”或有以胡香爲贈者，則以瓦載燵灰，不爲丸而燐<sup>121)</sup>之曰，“吾不識是何臭，虔心而已。”復有以漢茗爲供者，則以薪爇石釜，不爲屑而煮<sup>122)</sup>之，曰，“吾不識是何味，濡腹而已。”守真忤俗，皆此類也。

평소 선사는 범패<sup>123)</sup>를 잘하여 그 소리가 금옥 같았다. 구르는 곡조와 날리는 소리가 상쾌하면서도 슬프고 우아하여 모든 천상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하였고, 길이 멀리까지 전해지니 배우려는 자가 당에 가득 찼으나 가르치는 것을 권태로워하지 않았다. 지금 신라에서는 어산<sup>124)</sup>의 묘음을 익히려는 사람들이 다투어 콧소리를 내는 것<sup>125)</sup>처럼 옥천의 남긴 음향을 본뜨려 하니, 어찌 소리로써 제도하는 교화가 아니겠는가.

雅善梵唄，金玉其音。側調飛聲，爽快哀婉，能使諸天歡喜，永

121) [全文] [總覽]의 燐은 燐의 오자임.

122) [全文]의 燐은 煮의 오자임.

123) 범패(梵唄): 사법요(四法要)의 하나로 범회를 시작할 때 여래묘색신(如來妙色身)의 계송(偈頌)을 읊으며 부처님의 큰 덕을 찬양한 것인데, 보통 불교음악을 지칭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진감선사(眞鑑禪師)에 의해 널리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4) 어산(魚山): 중국 위(魏)나라 조자건(曹子建: 192~232)이 어산(魚山)에 가서 놀다가 바위 골짜기에서 송경(誦經) 소리가 맑게 흘러 나오는 것을 듣고 감동되어 그 곡조에 따라 지은 범패를 말한다. 『범원주법사苑珠林』권49(대정장53, p.576a03), “陳思王曹植賞遊魚山 忽聞空中梵天之響 清雅哀婉 其聲動心 獨聽良久 … 乃摹其聲節 寫爲梵唄 撰文製音 傳爲後式 梵聲顯世 始於此焉.”

125) 비성(鼻聲): 중국 동진(東晉)의 사안(謝安: 320~385)이 낙하서생영(洛下書生詠)이라는 가곡을 즐겨 부른 탓으로 코병이 생겨 코먹은 소리를 하게 되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 음성을 모방하느라고 손으로 코를 쥐고 코먹은 소리를 한 데서 나온 고사이다. 『진서晉書』권79「사안전謝安傳」.

於遠地流傳，學者滿堂，誨之不倦。至今東國，習魚山之妙者，競如掩鼻，效玉泉餘響，豈非以聲聞度之之化乎。

선사께서 열반하신 것은 문성대왕 때였는데, 임금이 진정으로 슬퍼하며 청정한 시호를 내리려다 남기신 훈성[遺戒]을 듣고서 부끄러워 그만두었다. 36년<sup>126)</sup>이 지난 뒤에 문인들이 언덕이 골짜기로 변할 것을 걱정하여 법을 사모하는 제자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방법을 물으니, 내공봉 일길간<sup>127)</sup>인 양진방(楊晉方)과 숭문대<sup>128)</sup> 정순일(鄭詢一)이 쇠를 굄을 정도의 하나 된 마음<sup>129)</sup>으로 돌에 새길 것을 청하였다. 헌강대왕이 지극한 덕화를 넓히고 불교를 우러러 받들어, 시호를 진감선사(眞鑑禪師), 탑호를 대공영탑(大空靈塔)이라 추증하고, 이에 새김(刻)을 허락하니 길이 영예가 오래도록 하였다.

禪師泥洹，當文聖大王之朝，上惻僊襟，將寵淨諡，及聞遺戒，愧而寢之。越三紀，門人以陵谷爲慮，扣不朽之緣於慕法弟子，內供奉一吉干楊晉方，崇文臺鄭詢一，斷金爲心，勒石是請。獻康大王恢弘至化，欽仰眞宗，追諡眞鑒禪師大空靈塔，仍許篆刻，以永終譽。

126) 삼기(三紀) : 일기(一紀)가 12년이므로 삼기는 36년이다.

127) 일길간(一吉干) : 신라 17관등(官等)의 하나인 제7관등으로 일길찬(一吉澣)이라고도 쓴다.

128) 숭문대(崇文臺) : 신라 하대 문한기구(文翰機構)의 하나로 낭(郎) 2인, 리(吏) 4인, 종사지(從舍知) 2인을 두었는데 낭 2인은 학사(學士)와 직학사(直學士) 2인으로 보이며, 당제(唐制)의 예로 보아 동궁 직속의 문한기구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기동, 「나말려초 근시기구와 문한기구의 확장」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1980.

129) 『주역』 「계사」 「상」, “二人同心 其利斷金”.

아름답구나, 해가 동쪽에서 나오니<sup>130)</sup> 어느 어두운 곳에 비추지 않음이 없고, 바닷가에 향나무를 심으니 오래도록 더욱 꽃답다. 어떤 사람이 “선사께서 명도 하지 말고 답도 하지 말라는 훈계를 내렸는데 후대에 내려와 우리 제자<sup>131)</sup>들에 이르러서는 확실히 선사의 뜻을 받들지 못했으니 그대들이 구하였는가, 아니면 왕이 하라고 명하였는가. 바로 백옥의 티<sup>132)</sup>라 할 만하다”고 하니, 아! 그러다고 하는 사람도 또한 그러다. 명예를 가까이 하지 않아도 이름이 드러나니 수행<sup>133)</sup>의 남은 보답이다. 재처럼 없어지고 번개처럼 끊어지는 것보다는 할 때에 할 만한 일을 하여 명성을 대천세계(大千世界)에 떨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나 귀부(龜趺)가 비신(碑身)을 짊어지기도 전에 임금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새 임금(定康王)이 이어 즉위하시니, 질나발(塤)과 저(麤)가 서로 옹하듯이<sup>134)</sup> 의리로 부촉한 것에 화합하여 좋은 것은 좇아 하시었다. 이웃 산의 절<sup>135)</sup>도 옥천(玉泉)이라 일컬었으므로 이름이 겹쳐져서 백성들의 귀를 미혹하게 할까 염려하였다. 같은 이름을 버리고 달리하려 한 즉 마땅히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좇아야 하는데, 그 절이 자리잡은 곳을 살펴보게 하니 동구(洞口)에 두 시냇물이 마주 대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제액(題額)을 내려 쌍계사라고 하였다.

130) 양곡(陽谷): 해돋는 곳. 『서경書經』「요전堯典」, “宅嵎夷 曰暘谷”.

131) 서하지도(西河之徒):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132) 백규지점(白珪之玷): 흰구슬의 흠결. 『시경』「대아大雅」‘억抑’, “白圭之玷 尚可磨也 斯言之玷 不可爲也”.

133) 정력(定力): 수도하는 사람이 선정(禪定)을 닦아서 얻은 법력(法力)을 말한다.

134) 혼지(塤麤): 고대의 악기이름으로 질나발(塤)과 저(麤)를 가리킨다. ‘塤麤’또는 ‘塤篴’라고도 쓴다. 혼지상응(塤麤相應)은 형제가 서로 화목함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시경』「소아」‘하인사何人斯’, “伯氏吹塤仲氏吹篴”.

135) 초제(招提): 초투제사(招鬪提舍)의 약칭. 사방(四方)이라 번역하여 사방승(四方僧)이 거주하는 곳을 초제승방(招提僧坊)이라 한다. 위 태무제(魏太武帝)가 가람(伽藍)을 지어 초제사(招提寺)라 이름한 후 사원의 이칭(異稱)이 되었다.

懿乎, 日出暘谷, 無幽不燭, 海岸植香, 久而彌<sup>136)</sup>芳. 或曰, “禪師, 垂不銘不塔之戒, 而降及西河之徒, 不能確奉先志, 求之歟,<sup>137)</sup> 抑與之歟, 適足爲白珪之玷.” 嘻, 非之者, 亦非也. 不近名而名彰, 蓋定力之餘報. 與其灰滅電絕, 曷若爲可爲, 於可爲之時, 使聲震大千之界. 而龜未戴石, 龍遽昇天, 今上繼興, 塤<sup>138)</sup>簾<sup>139)</sup>相應, 義諧付囑, 善者從之. 以隣岳招提, 有玉泉之號, 爲名所累, 衆耳致惑. 將俾<sup>140)</sup>弃<sup>140)</sup>同卽異, 則宜捨舊從新, 使眎<sup>141)</sup>其寺之所枕倚, 則以門臨複澗爲對, 乃錫題爲雙溪焉.

다시 신에게 명을 내려 “전사는 수행으로써 드러났고 그대는 문장(文章)으로 이름을 떨쳤으니 마땅히 비명(碑銘)을 지으라”고 하셨다. 신이 절을 하며 “예 예” 하고는 물러 나와 생각하니,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름을 얻었고 책 속에 기름지고 살찐 것을 맛보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성인의 경전<sup>142)</sup>에까지 흠뻑 취하지 못하였고 오직 깊이 우물에 빠져 헤어나지 못함이 부끄러울 뿐인데, 하물며 불법은 문자를 떠났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임에 있어서라. 굳이 혹 말하게 되면 수레를 복으로 향하면서 남방인 영

136) [苑] [拓本]에는 彌. [總覽] [全文]의 爾는 彌의 오자임.

13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拓本]은 歟임.

138)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拓本]은 塤임.

139)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拓本]은 簾임.

140) [苑] [全文] [拓本]의 弃은 棄의 古字임.

141) [苑] [全文] [拓本]의 眎는 視의 古字임.

142) 구준(衢樽): 길거리에 개방되어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술항아리. ‘衢尊’이라고도 쓴다. 선인(善人)이면 누구나 탐독(耽讀)할 수 있는 성인의 도(道), 즉 성인의 경전을 비유한 것. 『회남자淮南子』, 「무칭훈繆稱訓」, “聖人之道 猶中衢而致尊邪 過者斟酌 多少不同 各得其所宜 是故得一人 所以得百人也”.

나라로 가려는 것과 같다.<sup>143)</sup> 다만 임금의 보살핌과 문인들의 큰 바램으로 문자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밝게 보여 줄 수가 없어서, 드디어 감히 몸으로는 유교와 불교를 겸하고<sup>144)</sup> 힘으로는 오능<sup>145)</sup>을 본받으려 하니 비록 돌에 의탁한다 할지라도 부끄럽고 두렵다. 그러나 도는 억지로 붙인 이름이니<sup>146)</sup>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겠는가! 석각으로 새길 만한 글인 즉 신이 어찌 감당하리오마는 거듭 명령하신 임금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삼가 아래와 같이 명을 짓는다.

申命下臣曰, “師<sup>147)</sup>以<sup>148)</sup>行<sup>149)</sup>顯, 汝以文進, 宜爲銘.” 致遠拜手曰, “唯唯.” 退而思之, 頃捕名中州, 嚼腴咀雋于章句間, 未能盡辭衡鑄, 唯愧深跼泥甃, 況法離文字, 無地措言, 苟或言之, 北轅適郢. 第以國主之外護<sup>150)</sup>, 門<sup>151)</sup>人<sup>152)</sup>之<sup>153)</sup>大<sup>154)</sup>願, 非文字,

143) 북원적영(北轅適郢): 남쪽 초(楚)나라의 도읍인 영(郢)으로 가려고 하면서 수레는 북쪽을 향하였으니, 본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144) 양역(兩役): 최치원이 유학자이면서 불승(佛僧)의 비명(碑銘)을 짓는 것을 말한다.

145) 오능(五能): 날다람쥐인 오서(鼯鼠)는 오능과 오불능(五不能)이 있는데, 최치원은 이 가운데 오능을 본받아 유학자이지만, 불승(佛僧)의 비명을 지으므로 글을 짓기는 하여도 깊은 뜻은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다. 『설문해자說文解字』서부鼠部, “鼯 五技鼠也 能飛 不能過屋 能緣 不能窮木 能游 不能渡谷 能穴 不能掩身 能走 不能先人”.

146) 도강명야(道強名也): 도(道)라는 이름도 부득이하여 억지로 붙인 이름이라는 뜻이다. 『도덕경』제25장, “吾不知其名 字之曰道 強爲之名曰大”.

14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拓本]은 師임.

148)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拓本]은 以임.

149)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拓本]은 行임.

150)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拓本]은 護임.

151)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拓本]은 門임.

152)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拓本]은 人임.

不能昭昭乎群目，遂敢身從兩役，力效五能，雖石或憑焉，可慙  
可懼。而道強名也，何是何非，掘筆藏鋒，則臣豈敢重宣前義，  
謹札<sup>155)</sup>銘云。

입을 다물고 선정을 닦았으며,  
마음은 불타에 귀의했도다.  
근기가 익은 보살이라,  
넓힘이 다른 것이 아니로다.

杜口禪那，  
歸<sup>156)</sup>心<sup>157)</sup>佛<sup>158)</sup>陀<sup>159)</sup>．  
根<sup>160)</sup>熟<sup>161)</sup>菩<sup>162)</sup>薩，  
弘之靡它。

용맹스럽게 호랑이굴을 찾아,  
멀리 바다를 건넜도다.  
가서는 정법안장(正法眼藏)인 비인(秘印)을 전해 받았고,

153)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拓本]은 之임.

154)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拓本]은 大임.

155) [全文]의 札은 札의 오자임.

156)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拓本]은 歸임.

15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拓本]은 心임.

158)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拓本]은 佛임.

159)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拓本]은 隨임. 그러나 ‘불타’는 ‘佛陀’라고 쓰는  
것이 옳다.

160)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拓本]은 根임.

161)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拓本]은 熟임.

162)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拓本]은 菩임.



와서는 고국인 신라를 교화했도다.

猛探虎窟,

遠泛鯨波.

去傳秘印,

來化斯羅.

그윽한 곳을 찾고 좋은 곳을 가려서,  
바위등성이에 터를 잡아 절을 지었도다.

물에 비치는 달이 마음을 맑게 했고,

구름과 도랑물이 흥을 붙였도다.

尋幽選勝,

卜築巖磴.

水月澄懷,

雲泉寄興.

산은 성(性)과 더불어 고요하였고,  
골짜기는 범패와 더불어 응하였도다.

달는 대상마다 걸림이 없으니,

삿[邪]된 마음을 끊은 것이 이를 증명함이라.

山與性寂,

谷與梵應.

觸境無礙,

息機是證.

도는 오조<sup>163)</sup>의 찬양을 받고,

위엄은 못 요망함을 다 꺾었도다.  
 묵묵히 자비한 음덕을 드리웠고,  
 아름다운 초청을 거역하였도다.

道贊五朝,  
 威摧衆妖.  
 默垂慈<sup>164)</sup>蔭,  
 顯拒嘉招.

바다는 스스로 움직일지언정,  
 산이야 어찌 움직이겠는가.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으며,  
 깎는 것도 없고 새기는 것도 없었도다.

海自飄蕩,  
 山何動搖.  
 無思無慮,  
 匪斲匪雕.

음식에는 맛을 겸(兼)함이 없고,  
 옷은 갖추어 입지 않았도다.  
 바람과 비가 그믐밤<sup>165)</sup>과 같아서,

163) 오조(五朝) : 진감선사(眞鑑禪師)를 존숭하고 의지한 다섯 임금. 즉 흥덕왕, 희강왕, 민애왕, 신무왕, 문성왕이다.

164) [拓本][全文]에는 수자(垂字) 이하에 “慈蔭 顯拒嘉招 海自飄蕩 山何動搖 無思無慮 匪斲匪雕 食不兼味”인 26자(字)가 있으나 [總覽]에는 이 26자가 모두 결락되었고, [苑]에는 “無慮 匪斲匪雕 食不兼味”인 10자가 결락되었음.

처음과 끝이 한결같았도다.

食不兼味,  
服不必備.  
風雨如晦,  
始終一致.

지혜의 가지가 바야흐로 빼어나려는데,  
법의 기둥이 문득 무너졌도다.  
깊은 골짜기는 처량하고,  
연기와 칙덩굴이 초췌함이로다.

慧柯方秀,  
法棟俄墜.  
洞壑淒涼,  
煙蘿憔悴.

사람은 갔으나 도는 남아 있으니,  
끝내 잊을 수가 없도다.  
상사(上士)가 소망을 펴니,  
임금이 은혜를 내리셨도다.

人亡道存,  
終不可諼.  
上士陳願,

- 
- 165) 풍우여晦(風雨如晦):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는 캄캄한 그믐밤일지라도 닭은  
때를 어기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운다는 말이니 시종(始終)이 여일(如  
一)함을 뜻한다. 『시경』 「정풍鄭風」 ‘풍우風雨’, “風雨如晦 雞鳴不已”.

大君流恩.

법등(法燈)은 신라에 전해지고,

탑은 산 속에 우뚝하도다.

천의(天衣)에 의해 반석(盤石)이 다 닳도록,<sup>166)</sup>

영원토록 불문(佛門)에 빛나기 바라노라.

燈傳海衣,

塔聳雲根.

天衣佛石,

永耀松門.

광계(光啓) 3년(887) 7월일에 세우고 환영(奘榮)스님이 글자를 새기다.

光<sup>167)</sup>啓三年,七月日,建,僧,奘榮,刻字.

[비신(碑身)의 높이(高)는 6척7촌(六尺七寸), 폭(幅)은 3척3촌(三尺三寸), 글자의 간격은 7분(七分)이며 해서(楷書)이다. 제액(題額)의 글자 간격은 3촌2분(三寸二分)이며 전서(篆書)이다.]

[揭載]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上 pp.105~119.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上, pp.66~72.

『한국금석전문韓國金石全文』古代, pp.204~211.

166) 천의불석(天衣拂石): 불교의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 오랜 세월을 뜻한다. 소겁(小劫)·중겁(中劫)·대겁(大劫)·대아승기겁(大阿僧祇劫)의 개념과 반석겁(盤石劫)·개자겁(芥子劫) 등의 개념이 있다. 반석겁은 넓이와 높이가 각 40리씩 되는 큰바위를 천인(天人)이 100년마다 한 번씩 지나가면서 가벼운 옷자락으로 스쳐 이 바위가 닳아 없어지는 동안의 긴 세월을 말한다.

167) 光啓三年七月日建이란 8자가 [拓本] [全文]에는 있으나 [總覽]에는 결락되었음.



藍浦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文

◀03. 남포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





### 03. 남포성 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

藍浦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文

있는 곳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성주사지

세운 때 : 추정 신라 진성왕 4년 경술(890)

所在 : 忠淸南道 保寧市 聖住面 聖住里 聖住寺址

年時 : 推定 新羅 眞聖王 4年 庚戌(890)

당(唐) 신라국(新羅國) 고(故) 양조국사<sup>1)</sup> 교시대낭혜화상(敎諡大朗慧和尚) 백월보광지탑비명(白月葆光之塔碑銘)과 서(序)

有唐新羅國, 故兩朝國師, 敎諡大朗慧和尚, 白月葆光之塔碑銘, 并序.

회남(淮南)에서 본국(本國)에 들어올 때 국신과 조서 등<sup>2)</sup>을 보내 온 전 동면도통순관(前東面都統巡官) 승무랑(承務郎) 시어사(侍御史) 내공봉(內

- 
- 1) 양조국사(兩朝國師) : 양조(兩朝)는 신라의 두 임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의 양조는 제48대 경문왕(景文王)과 제49대 헌강왕(憲康王)을 말하는데, 무염(無染)스님이 이 두 임금대에 국사(國師)를 지냈기 때문이다.
  - 2) 송국신조서등사(送國信詔書等使) : 당(唐) 희종(僖宗)이 신라 헌강왕에게 보내는 예물과 조서를 가지고 온 사신이 최치원(崔致遠)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호칭이다.

供奉)으로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은 신(臣) 최치원(崔致遠)이 왕명을 받들어 찬하다.<sup>3)</sup>

淮南入本國，送國信詔書等使，前東面都統巡官，承務郎，侍御史，內供奉，賜紫金魚袋，臣，崔致遠，奉教，撰。

당나라가 황소(黃巢)의 난(亂)을 무력(武力)으로 평정하고<sup>4)</sup> 연호(年號)를 바꾸어<sup>5)</sup> 문덕(文德)으로 한 그 해(888) 11월<sup>6)</sup> 22일<sup>7)</sup> 오후 4시 경<sup>8)</sup>에 신라의 양조국사(兩朝國師)를 지낸 선화상(禪和尚)이 목욕재계한 뒤<sup>9)</sup> 가부

3) 최치원(崔致遠) : 「진감국사대공영탑비문眞鑑國師大空靈塔碑文」주4) 최치원崔致遠 본서(本書) p.82에 그의 생애가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그가 왕명으로 쓴 4개의 비문에는 각기 다른 직함으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는 그가 조서를 가지고 돌아오는 사신의 직함을 띠고 있으므로 그의 귀국경로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84년 당을 출발한 최치원은 풍랑으로 이듬해인 885년 3월에 신라로 오게 되는데, 장안(長安)을 출발한 그는 회남원주(淮南沅州)를 거쳐서 태주영파부(台州寧波府) 정해현(定海縣)에서 배를 타고 가가(可佳), 홍의(紅衣), 흑산(黑山)을 거쳐 영암(靈巖)에서 묵은 후 신라의 수도로 돌아오고 있다.

4) 제당전란(帝唐崩亂) : 당 나라 말기인 제18대 희종(僖宗)대에 일어났던 황소(黃巢)의 난(875~884)이 평정된 것을 말한다.

5) 역원이문덕지년(易元以文德之年) : 역원(易元)은 원년(元年)을 바꾸었다는 말로, 연호를 광계(光啓)에서 문덕(文德)으로 개원(改元)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888년이다. 그 해 희종(僖宗)이 죽고, 소종(昭宗)이 즉위하여 계속 문덕의 연호를 사용하다가 이듬해(889) 연호를 용기(龍紀)로 바꾸었다.

6) 창월(暢月) : 음력 11월을 말한다. 창은 충(充)의 뜻이니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仲冬之月 … 地氣沮泄 是謂發天地之房 諸蟄則死 民必疾疫 又隨以喪 命之曰暢月”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공영달(孔穎達)의 소(疏)에는 “言名此月爲充實之月 當使萬物充實 不發動故也”라고 하였다. 『여씨춘추呂氏春秋』 「중동기仲冬記」에도 “仲冬之月 日在斗 昏東壁中 旦軫中 … 又隨以喪 命之曰暢月”이라 하였다.

7) 월결지칠일(月缺之七日) : 달이 기우는 15일부터 7일 후인 22일로 보나, 달이 이지러지기 시작한 뒤 바로 오는 7일인 17일로 보기도 한다. 『동사열전東師列傳』 권1. 27일로 보는 기록도 있다. 『조당집祖堂集』 권17 「성주무염국사비聖住無染國師碑」.



좌<sup>10)</sup>한 채 입멸<sup>11)</sup>하였다. 온 나라 사람들이 마치 두 눈을 다 잃은 것 같았는데 하물며 그 문하의 여러 제자들이야 오죽했겠는가. 슬프도다. (대사가) 신라에 태어난 지<sup>12)</sup> 89년이요, 구족계를 받은 지<sup>13)</sup> 65년<sup>14)</sup>이었다. 세상을 떠난 지 3일이 됐는데도 자리<sup>15)</sup>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엄연(儼然)하여 얼굴빛이 살아 있는 듯하였다. 문인인 순예(詢父) 등이 울부짖으며 유체를 받들어 임시로 선실(禪室)에 빈소(殯所)를 정하였다.<sup>16)</sup> 임금<sup>17)</sup>께서 부음을 듣고 몹시 슬퍼하며 사신을 보내 글로써 조문하고 곡식으로 부의하니, 청정한 공양<sup>18)</sup>을 마련하여 명복<sup>19)</sup>을 빌고자 함이었다.

- 
- 8) 일잠함지시(日蘸咸池時): 일출(日出)을 양곡(陽谷)이라 하고 일몰(日沒)을 함지(咸池)라 하므로 음력 11월에 해질 무렵인 오후 4~5시인 신시(申時)경을 말한다. 『회남자淮南子』 「천문훈天文訓」, “日出于陽谷 浴于咸池”.
- 9) 관욕(盥浴): 손을 씻고 목욕함을 말한다.
- 10) 부좌(跏坐): 결가부좌(結跏趺坐)했다는 뜻인데, 오른쪽 다리를 아래에 두고 왼쪽다리를 위로 올려 포개서 앉는 방법으로 입선(入禪)할 때의 자세로서 좌불(坐佛)의 앉아 있는 다리의 모습이 그것이다.
- 11) 시멸(示滅): 열반을 보였다는 말로, 스님의 죽음을 의미한다.
- 12) 동신(東身): 동토(東土)인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세속의 몸을 말한다.
- 13) 복서계(服西戒): 서계(西戒)는 불교의 계율을 말하므로, 비구계(比丘戒)를 받음을 말한다.
- 14) 하(夏): 스님들은 여름결제(夏安居: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안거)를 끝내야 1년의 법랍으로 해아러지는 데서 해(年)를 의미하는 말로 쓰인 것이다.
- 15) 승좌(繩座): 스님들이 거처하는 방에는 목상(木床)이나 승상(繩床)을 사용하는 데, 승좌는 자리에서 상榻(床榻)을 기대고 앉는다는 뜻으로, 윗부분을 노끈으로 엮어 매어 승좌라 한다.
- 16) 가사(假肆): 임시로 영구(靈柩)를 모셔 두는 것으로, 임시로 치루는 장례절차이다. 대중이 수행정진하는 결제 중에 입적할 경우는 해제할 때까지 임시로 가장례(假葬禮)를 한다는 말로, 가빈(假殯)과 같은 뜻이다.
- 17) 상(上): 이 때가 888년(진성여왕 2년)이므로, 상은 진성여왕을 가리킨 것이다.
- 18) 정공(淨供): 청정한 공양이니 대중공양, 또는 불공을 말한다.

帝唐揃亂以武功, 易元以文德之年, 暢月月<sup>20)</sup>之七日, 日蘸咸池時, 海東兩朝國師禪和尚, 盥浴已, 趺坐示滅. 國中人, 如喪左右目, 矧門下諸弟子乎. 嗚呼. 應東身者, 八十九春, 服西戒者, 六十五夏. 去世三日, 倚繩座儼然, 面如生. 門人詢乂等, 號奉遺軀, 假肄禪室中. 上聞之震悼, 使駢弔以書, 賻以穀, 所以資淨供而贍<sup>21)</sup>玄福.

2년 후에 돌을 다듬어 탑을 세우게 되니<sup>22)</sup> 소문이 서울에까지 들렸다. 보살계<sup>23)</sup>를 받은 제자인 무주도독<sup>24)</sup> 소판<sup>25)</sup> 김일(金鎰)과 집사시랑<sup>26)</sup> 김관유(金寬柔), 패강도호<sup>27)</sup> 김함웅, 전주<sup>28)</sup> 별가<sup>29)</sup> 김영웅(金英雄)은 모두 왕손

19) 현복(玄福): 죽은 뒤의 명복을 말한다.

20) [全文][總覽][苑]의 蘸자는 缺의 本字임.

21) [全文]의 贍은 贍의 오자임.

22) 층층(層層): 조사(祖師)의 부도(浮屠)를 말한다. 탑(塔)은 불사리(佛舍利)를 봉안한 것이고, 부도는 조사의 사리를 안치한 것이다.

23) 보살계(菩薩戒): 4부대중(四部大衆; 比丘, 比丘尼, 清信士, 清信女)인 불자는 누구나 다 받는 대승계로서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 등을 계목(戒目)으로 한다.

24) 무주도독(武州都督): 신라 9주의 하나인 무주(武州: 지금의 광주)의 장관(長官)을 말한다. 도독은 군주(軍主)에서 총관(總管)을 거쳐 도독으로 변한 명칭으로, 급찬(級漣)부터 이찬(伊漣)의 관등에 있는 이가 임명되었는데, 신라 원성왕 이후의 호칭이다. 『삼국사기』권40「잡지雜志」9 직관지職官志「외관外官」 참조.

25) 소판(蘇判): 신라 17관등(官等)의 제3관등인 잡찬의 별칭이다. 『삼국사기』권38「잡지」7 직관지상

26) 집사시랑(執事侍郎): 신라 집사성(執事省)의 차관직으로, 전대등(典大等, 진흥왕 16년)에서 시랑(侍郎, 경덕왕 6년)으로 바뀌었는데, 나마(奈麻)부터 아찬(阿漣)까지의 위계(位階)에 있는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삼국사기』권38「잡지」7 직관지「집사성執事省」 참조.

27) 패강도호(溟江都護): 신라 패강진(溟江鎭)의 두상대감(頭上大監)을 가리킨

이다. (이들은) 왕족으로서<sup>30)</sup> 임금의 덕을 보좌하고, 험난한 지경에서는 대사의 은혜를 입었거늘, 어찌 반드시 출가한 연후라야 입실제자라고<sup>31)</sup> 하겠는가. 드디어 문인 소현<sup>32)</sup> 대덕<sup>33)</sup> 석<sup>34)</sup>통현과 사천왕사<sup>35)</sup> 상좌<sup>36)</sup> 석신부

다. 신라의 북방진출 변경개척사업의 한 성과로서 패강진을 개척하여 선덕왕 3년(782)에는 패강진 장관 이하 각급 장관의 직제를 제정하였다. 이기동,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과 정치과정」 『신라 골품제 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pp.148~149. 그런데 선덕왕 때 제정된 두상대감은 본비를 비롯한 9세기 무렵의 금석문에는 도호(都護)로 나타나고 있어 신라가 어느 시기에 가서 당제(唐制)를 모방하여 이름을 고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에 임명된 인물들의 행적으로 보아, 패강진 도호직은 6두품이 임명될 수 있는 외관(外官)의 최고직으로서 중앙의 집사시랑에 대응하는 직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기동, 「신라 하대의 패강진」, 앞의 책, pp.217~225.

- 28) 전주(全州): 신라 9주(州) 하나로, 본래 백제의 완산(完山)이었던 것이 신라 신문왕 5년에 완산주로 되었다가 경덕왕 16년에 전주로 되었다. 『삼국사기』권36 「잡지」6 지리地理3 참조.
- 29) 별가(別駕): 각주(各州)의 도독을 보좌하는 주보(州輔) 혹은 주조(州助)의 다른 이름으로 당나라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이 이름은 문성왕 17년(855)에 만들어진 「창림사무구정답원기」에 최초로 보이는데, 일찍이 쓰에마쓰 카즈요시(末松保和)는 주조(州助)의 다른 이름으로 추정하였다(「창림사무구정답원기昌林寺無垢淨塔願記」 『新羅史の諸問題』, 1954, p.472). 이와는 달리 후지다 료사쿠(藤田亮策)는 주조 아래의 장사(長史)가 아닐까 하고 추측하였지만(「신라구오경고新羅九州五京考」 『조선학보』5, 1953; 『조선학논고』, 1963, p.362), 「창림사무구정답원기」에 명주별가(溟州別駕)와 나란히 무주장사(武州長史)가 보이고 있어 후지다의 견해는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기동, 「신라 하대의 패강진」, 앞의 책, p.219.
- 30) 유성(維城): 태자나 왕족을 이른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懷德維寧 宗子維城”.
- 31) 입실(入室): 스승에게서 오의(奧義)를 전수받을 수 있을 만한 경지에 이른 것을 말한다.
- 32) 소현(昭玄): 소현서(昭玄署)를 말하는 것으로 소현정서(昭玄精署)라고도 하니 후위(後魏) 소현시(昭玄寺)에서 비롯된 승니(僧尼)의 총관소이다. 『수서隋書』 「백관지百官志」.
- 33) 대덕(大德): 신라의 대덕은 공(功)이 있을 때 왕이 임명하는 것으로, 신라 최초

(釋慎符)와 의논하기를 “스님께서 돌아가시매 임금께서도 슬퍼하거늘 어찌 우리들이 차마 무심하게<sup>37)</sup> 입을 다물고 스님에게 은혜를<sup>38)</sup> 갚기 위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승·속<sup>39)</sup>이 서로 호응하여 시호를 내려 줄 것과 탑비에 새길 글을 청하니 교지(敎旨)를 내려 ‘허락한다’고 하였다.

越二年, 攻石封層冢, 聲聞王<sup>40)</sup>京. 菩薩戒弟子武州都督蘇判

의 대덕은 지명(智明)이었다는 설(『삼국사기』권4「신라본기新羅本紀」4 진평왕眞平王)과 선덕왕대에 지영(智穎)·승고(乘固)를 최초의 대덕으로 발탁하였다는 설(최치원, 「신라가야산해인사선안주원벽기新羅迦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동문선東文選』권64)이 있다. 최치원에 의하면 대덕의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7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노성한 덕을 지닌 사람을 별대덕(別大德)으로 하였고, 법상종(法相宗)과 화엄종(華嚴宗)에서 배출되었다고 한다.

- 34) 석(釋) : 석씨(釋氏)는 스님들이 출가 이후 속성(俗姓)을 버리고 석가모니(釋迦牟尼) 부처님의 성(姓)을 따라 쓴 성씨로, 중국의 석도안(釋道安)이 스님의 성을 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쓰여져 왔다.
- 35) 사천왕사(四天王寺) : 신라 문무왕 19년(679)에 창건한 사찰로, 사천왕사성전(四天王寺成典)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성전은 신라 중대의 7개의 사원성전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성전으로 되어 있어 이 시기 사천왕사의 위상과 사격(寺格)을 알려 주고 있다. 『삼국사기』권38「잡지」7직관지상 ‘사천왕사성전四天王寺成典’ 참조. 경주시 배반동(排盤洞)에 그 사지(寺址)가 남아 있다.
- 36) 상좌(上座) : 스님들의 직책의 하나로, 삼강(三綱 : 상좌, 寺主, 都維那)의 하나이다.
- 37) 회심목설(灰心木舌) : 회심은 무관심한 마음을, 목설은 입을 다물고 말이 없는 것을 말한다.
- 38) 재삼지의(在參之義) : 재삼지절(在三之節)의 뜻으로 군(君)·사(師)·부(父)에게 은혜를 갚는 것을 말한다. 『문선文選』환온桓溫의 ‘천초원언표薦焦元彦表’, “亦有秉心矯跡 以敦在三之節”.
- 39) 백흑(白黑) : 백(白)은 백의(白衣)를 입은 사람이니 속인(俗人)인 신도(信徒)를 말하고, 흑(黑)은 치의(緇衣)를 입는 자이니 승가(僧伽)를 뜻한다. 흔히 치백(緇白)으로 표현하며, 승(僧)과 속(俗)을 말한다.
- 40) [全文] [苑]의 玉은 王의 오자임.

鎰, 執事侍郎寬柔, 貝江都護咸雄, 全州別駕英雄, 皆王孫也. 維城輔君德, 險道賴師恩, 何必出家, 然後入室. 遂與門人, 昭玄大德釋通賢, 四天王寺上座釋慎符, 議曰, “師云亡, 君爲慟, 奈何吾儕, 忍灰心木舌, 黻緣飾在式<sup>41)</sup>之義乎.” 迺白黑相應, 請贈諡暨銘塔, 教曰, “可.”

곧 왕손 병부시랑<sup>42)</sup> 김우규(金禹珪)에게 명하여 계원행인<sup>43)</sup> 시어사(侍御史) 최치원을 부르게 하였다. (최치원이) 봉래궁<sup>44)</sup>에 이르러 기수<sup>45)</sup>와 나란히 섬돌<sup>46)</sup>에 올라 꿇어 앉아 주렴 밖에서 명령을 기다렸다. 임금께서 “돌아가신 성주대사(聖住大師)는 진실로 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것이다. 옛날에 돌아가신 부왕[경문왕]과 헌강왕<sup>47)</sup>이 모두 스승으로 섬겨 나라를 복되게 한 것이 오래되었도다. 내가 처음 왕위를 이어 선대의 뜻을 그대로 계승코자 원하였으나, 하늘이 어진 인물을 오랫동안 남겨 두지 않으

41) [全文]의 參, [苑]의 式, [總覽]의 三 모두 무방하나 碑에는 式임.

42) 하관이경(夏官二卿): 『설문해자說文解字』묘부卯部‘경卿’에 “六卿 天官冢宰 地官司徒 春官宗伯 夏官司馬 秋官司寇 冬官司空”이라 하였다. 천관(天官)은 현재의 이부(吏部), 지관(地官)은 호부(戶部), 춘관(春官)은 예부(禮部), 하관(夏官)은 병부(兵部), 추관(秋官)은 형부(刑部), 동관(冬官)은 공부(工部)이다. 하관은 『주례周禮』 육관(六官) 중에 대사마(大司馬)에 속하며 군정병마(軍政兵馬)의 임무를 맡았다. 이경(二卿)은 아경(亞卿)으로 차관(次官)을 말하므로 병림원(兵林苑)을 가리킨다.

43) 계원행인(桂苑行人): 계원은 학자나 문인이 모인 곳을 이르는데 한림원(翰林苑)을 말하며, 행인은 통사사인(通事舍人)으로 사자(使者)를 의미한다.

44) 봉래궁(蓬萊宮): 진성여왕 당시 궁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건물.

45) 기수(琪樹): 옥같이 아름다운 나무. 전(轉)하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46) 요지(瑤墀): 옥같이 아름다운 섬돌.

47) 문고강왕(文考康王): 문고는 망부(亡父)의 존칭으로 신라 진성여왕의 아버지인 제48대 경문왕을 말하며, 강왕은 헌강왕을 가리킨다.

나<sup>48)</sup> 나의 마음을 더욱 애석하게 하는도다. 나는 큰 덕행이 있는 사람에게 큰 이름을 주는 것이므로, 시호를 추증하여 대낭혜<sup>49)</sup>라 하고 탑은 백월보광<sup>50)</sup>이라 한다. 그대는 일찍이 중국에서 벼슬하여<sup>51)</sup> 금의환향<sup>52)</sup> 하였도다. 돌이켜 보건대 돌아가신 부왕께서 국자(國子)로 선발하여 배우도록 명하고,<sup>53)</sup> 헌강왕은 국사<sup>54)</sup>로서 예우하였으니 그대는 마땅히 국사의 비문을 지어 이에 보답토록 하라”고 하였다.

旋命王<sup>55)</sup>孫夏官二卿禹珪, 召桂苑行人侍御史崔致遠. 至蓬萊宮, 因得竝琪樹上瑤墀, 跽竣命珠箔外. 上曰, “故聖住大師, 眞

48) 정유(愍遺): 억지로 남겨 둠. 『시경』 「소아小雅」 ‘시월지교十月之交’, “不愍遺一老俾守我王”.

49) 대낭혜(大朗慧): 크게 밝은 지혜를 의미한다.

50) 백월보광(白月葆光): 밝은 달이 그 빛을 크게 비춘다는 뜻이다.

51) 서환(西宦): 서는 중국으로, 중국에서 벼슬한 것을 말한다.

52) 사염금귀(絲染錦歸): 벼슬 없는 백의로 중국에 들어갔으나,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 것을 말한다.

53) 문고선국자명학지(文考選國子命學之): 국자(國子)는 본래 공경대부(公卿大夫)의 자제라는 뜻이다. 본비에서 “돌아가신 부왕(父王: 경문왕)께서는 국자로 선발하여 배우도록 명하였다”라고 한 말은, 최치원이 경문왕대에 공경대부의 자제로 뽑혀 배움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은 바로 최치원이 12세 때인 경문왕 8년(868)에 당으로 유학을 떠났던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까지 최치원을 사비유학생으로 이해하여 온 것과는 달리 국비유학생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54) 강왕시국사에대지(康王視國土禮待之): 국사(國土)는 본래 국중(國中)에서 가장 뛰어난 선비를 뜻한다. 최치원은 28세 때인 헌강왕 11년(885)에 귀국하여 ‘시독겸한림학사수병부랑지서서감(侍讀兼翰林學士守兵部郎知瑞書監)’에 임명되었는데 본비에서 “헌강왕은 (최치원을) 국사로서 예우하였다”는 말은 바로 이 때의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55) [全文]의 土는 王의 오자임.

一佛出世, 昔文考康王, 咸師事, 福國家爲日久. 余始克續<sup>56)</sup>承, 願繼餘先志, 而天不憖<sup>57)</sup>遺, 益用悼厥心. 余以有大行者, 授大名故追諡曰大朗慧, 塔曰白月葆光. 乃嘗西宦絲染錦歸. 顧文考選國子命學之, 康王視國士禮待之, 若宜銘國師以報之.”

(최치원이) 사양하여 “황공하옵니<sup>58)</sup>만 전하께서 보잘 것 없는 사람<sup>59)</sup>을 보살피 주셔서 중국에서 배운 문장의 남은 향기<sup>60)</sup>로 저로 하여금 글로써 임금의 덕을 갚게 하시니 진실로 매우 천행이옵니다. 다만 대사는 유위의 말세<sup>61)</sup>에 무위의 신비한 종지<sup>62)</sup>를 가르치셨으니, 소신의 유한하고 잔재주<sup>63)</sup>로 스님의 무한하고 큰 덕행<sup>64)</sup>을 기록하는 것은 약한 수레에 무거운 짐을 싣고 짧은 줄의 두레박으로 깊은 우물물을 퍼 내려는 것<sup>65)</sup>과

56) [全文] [總覽]의 續은 續의 속자임.

57) [全文]은 憖, [苑]은 憖, [總覽]은 憖. 憖과 憖은 憖의 오자임.

58) 주신(主臣):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 때 쓰는 황공하다는 발어사(發語辭).

59) 속요부비(粟饒浮比): 벼에 빈 쪽정이가 많다는 뜻으로, 실속이 없고 겉치레만 한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60) 계포여형(桂飽餘馨): 계수나무에 남은 향기가 가득하다는 것으로, 최치원이 중국에서 활약하던 문사로서의 명성이 그대로라는 뜻이다.

61) 유위요세(有爲堯世): 생멸변화(生滅變化)하며 부침하는 세간(世間)이라는 뜻으로, 무위비종(無爲秘宗)의 대구(對句)로 쓰였다.

62) 무위비종(無爲秘宗): 생주이멸(生住異滅)의 경계를 벗어난 선종(禪宗)종지를 말한 것이다. 무위(無爲)는 “본무행위(本無行爲)”의 준말이니 유위(有爲)에 대한 상대어이다.

63) 유한마재(有限馬才): 한계가 있는 하찮은 재주를 말한다.

64) 무한경행(無限景行): 끝이 없는 훌륭한 덕행을 말한다. 『시경』「소아」‘거할車輦’, “高山仰止 景行行止”.

65) 단경급심(短絆汲深): 재주가 적어 큰일을 감당해 내기 어렵다는 뜻. 『장자莊子』「지락至樂」, “楮小者不可以懷大 絆短者不可以汲深”, 『순자荀子』「영욕榮辱」, “絆

같습니다. 만일 돌(비석)이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sup>66)</sup> 거북이가 돌아다 보는 선고<sup>67)</sup>가 없게 된다면 결코 산을 빛나게 하고 냇물을 아름답게<sup>68)</sup> 할 수 없으니 도리어 숲과 시내에 부끄러움만 당하게 될 것이니,<sup>69)</sup> 청컨대 비문 글짓는 것<sup>70)</sup>을 사양합니다”고 말하였다.

謝曰, “主臣, 殿下恕粟饒浮秕, 桂飽餘馨, 俾報德以文, 固多天幸. 第大師於有爲澆世, 演無爲秘宗, 小臣以有限麼才, 紀無限景行, 弱輶載重, 短綆汲深. 其或石有異言, 龜無善顧, 決臣使山輝川媚, 反羸<sup>71)</sup>得林慙澗愧, 請筆<sup>72)</sup>路斯避.”

短者不可以汲深井之泉 知不機者不可與及聖人之言”, 『회남자』「설림훈說林訓」, “短綆不加以汲深 器小不可以盛大 非其任也”.

- 66) 석유이언(石有異言): 돌이 이상한 말을 한다 하여 진후(晉侯)가 물으니, 궁실 짓는데 민원(民怨)이 많자, 돌이 스스로 말한다는 것에 빙자하여 경계하는 뜻이라 하였다. 『춘추좌전春秋左傳』「소공昭公」8년, “八年春 石言于晉魏榆 晉侯問於師曠曰 石何故言 對曰 石不能言 或馮焉 不然 民聽濫也 抑臣又聞之曰 作事不時 怨讟動于民 則有非言之物而言 今宮室崇侈 民力彫盡 怨讟並作 莫保其性 石言 不亦宜乎”.
- 67) 구무선고(龜無善顧): 거북이가 돌아본다는 말이니, 거북 등위에 새겨진 비문을 돌로 된 거북이 돌아다 본다는 뜻이니, 비문에 감격한 귀부(龜趺)의 신조(神助)함을 뜻한다.
- 68) 산휘천미(山輝川媚): 돌이 옥(玉)을 감추고 물이 구슬을 품고 있으면 산이 빛나고 시내가 아름답다는 말로, 학덕을 갖춘 이는 저절로 밖에 드러나 문장을 이룬다는 뜻이다. 『문선文選』「논문論文」‘문부文賦’, “石韞玉而山暉 水懷珠而川媚”.
- 69) 임참간괴(林慙澗愧): 절조가 없는 사람이 은사(隱士)로 위장하고 산 속에 있으면 숲이나 시내가 모두 수치로 여긴다는 말로, 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는 척 가장하여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뜻이다. 『문선』「서하書下」‘북산이문北山移文’, “其林慙無盡 澗愧不歇”.
- 70) 필로(筆路): 글을 짓는 필법(筆法). 『옥해玉海』, “爲文之法 有筆力有筆路”.
- 71) [全文][總覽]에는羸, [苑]의羸은羸의 오자임.
- 72) [全文]의筆은[苑][總覽]의筆과 같은 글자임.



임금이 “사양하기를 좋아 하는 것<sup>73)</sup>은 대개 우리나라의 풍습으로 좋기는 하지만 진실로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급제한 것<sup>74)</sup>을 어디에 쓰겠는가. 그대는 힘쓰도록 하라” 하고는 문득 한편의 두루마리를 꺼내니 마치 크기가 나무토막만 하였다. 내시<sup>75)</sup>로 하여금 주게 하니 이는 문하의 제자들이 바친 행장 줄거리였다.

上曰, “好讓也, 蓋吾國風, 善則善已, 然苟不能是, 惡用黃金榜爲, 爾勉之.” 遽出書一編, 大如椀<sup>76)</sup>者. 俾中涓授受, 乃門弟子所獻狀也.

다시 생각해 보건대, 중국에 들어가 배운 것<sup>77)</sup>은 대사나 나나 다 같이 하였는데 스승이 되어 찬양을 받는 이는 누구이며 부림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찌 심학자<sup>78)</sup>는 높고 구학자<sup>79)</sup>는 수고로움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옛날의 군자는 배우는 바를 삼가하였다. 그러나 심학자는 덕을 세우고 구학자는 말을 세운 것인 즉 저 덕도 말을 의지하고서야 일

73) 호양(好讓): 사양하기를 좋아함이니 신라인의 성품을 가리킨 말. 『산해경山海經』, “君子國 在其北 衣冠帶劍 食獸 使二大虎在旁 其人好讓不爭”.

74) 황금방(黃金榜): 과거 시험 때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내거는 패로, 문과는 금방, 무과는 은방을 사용하므로, 문과에 급제한 것을 의미한다.

75) 중연(中涓): 본래 천자(天子)를 측근에서 모시는 사람을 뜻하는데, 본비에서는 국왕이나 왕태자를 시종(侍從)하면서 조고(詔誥)를 전장(專掌)하는 중사성(中事省) 소속의 국왕 근시직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들은 신라 하대 금석문 등에 ‘내양(內養)’ ‘중사인(中舍人)’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기동, 「나말려초 근시기구와 문한기구의 확장」, 앞의 책, pp.236~240.

76) [全文]의 椀은 椀의 오자임.

77) 서학(西學): 중국에 유학가서 공부한 것이다.

78) 심학(心學): 불교를 비유한 말이다.

79) 구학(口學): 유학을 비유한 말이다.

컬어질 수 있으며, 이 말은 또한 덕에 의지하여야 없어지지 않는다. 일컬어질 수 있어야 마음을 멀리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고, 없어지지 않아야 말도 옛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할만한 일은 할 수 있을 때에 하는 것이니, 다시 어찌 감히 비문 짓기를<sup>80)</sup> 굳이 사양하기만 하겠는가.<sup>81)</sup>

復惟之，西學也彼此俱爲之，而爲師者何人，爲役<sup>82)</sup>者何人。豈心學者高，口學者勞耶。故古之君子，慎所學。抑心學者立德，口學者立言，則彼德也，或憑言而可稱，是言也，或倚惠<sup>83)</sup>而不朽。可稱則心能遠示乎來者，不朽則口亦無慙乎昔人。爲可爲於可爲之時，復焉敢膠讓乎篆刻。

비로소 나무토막같은 행장을 풀어 보니 대사가 중국에 유학하고 신라에 돌아온 해, 구족계<sup>84)</sup>를 받고 선리(禪理)를 깨달은 인연,<sup>85)</sup> 공경(公卿)과 관리<sup>86)</sup>들이 귀의하여 우러르던 일, 불전<sup>87)</sup>과 영당<sup>88)</sup>을 창건한 일 등은 고한립랑<sup>89)</sup> 김입지<sup>90)</sup>가 찬술한 성주사비<sup>91)</sup>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부처

80) 전각(篆刻): 전서(篆書)로 새긴다는 뜻. 또는 비문의 전액(篆額)이란 뜻이니, 즉 비문 찬술을 가리킨다. 본 비문의 경우 비석의 머릿돌인 이수(螭首)의 비제(碑題)를 비문찬자인 최치원이 썼다.

81) 교양(膠讓): 아교처럼 굳이 사양하는 것을 말한다. 『시경』 「소아」 「습상(濕桑)」, “既見君子 德音孔膠”에서 그 주에 이르기를 “膠固也”라 하였다.

82) [全文] [苑]에 모두 役이고 [總覽]에는 役이나 같은 글자임.

83) [全文]의 德은 惠과 같은 글자임.

84) 품계(稟戒): 계(戒)는 비구계(比丘戒)이니 즉 비구계를 받는다는 말이다.

85) 오선(悟禪): 선(禪)의 요지를 깨달은 것이다.

86) 수재(守宰): 태수(太守)와 재상(宰相)이니 관리를 가리킨다.

87) 상전(像殿): 불상을 봉안한 불전(佛殿)을 말한다.

88) 영당(影堂): 조사(祖師)의 영정을 모신 당(堂)을 말한다.

님을 받들고 법손을 위하여 편 덕화와 임금을 돕고 스승을 위했던 명성,<sup>92)</sup> 세속을 진정시키고 마구니를 항복시킨 위력, 봉새처럼 떠나고<sup>93)</sup> 학처럼 돌아온<sup>94)</sup> 자취 등은 태부<sup>95)</sup> 현강왕<sup>96)</sup>이 친히 지은 심묘사비<sup>97)</sup>에 갖추어 기록

- 
- 89) 한림랑(翰林郎): 신라 하대 근시기구인 한림원의 학사이다. 『삼국사기』권39「잡지」8 직관지중에 따르면, 상문사(詳文師)를 성덕왕 13년(714)에 통문박사(通文博士)로 바꾸었다가 경덕왕 때 다시 한림(翰林)으로 고쳤으며, 다시 학사(學士)를 두었다고 한다. 경덕왕대의 한림기구는 당나라 제도를 모방한 관부였지만, 당나라의 경우 한림원학사직이 특정한 품질(品秩)이 없는 영외관(令外官)이었던 데 비해, 신라에서는 일정한 관등을 부여하고 있어 골품제 사회의 성격을 드러낸다. 한림대(翰林臺)는 880년 무렵에 서서원(瑞書院)으로 이름을 고쳐 학사·직학사제를 설치함으로써 신라 말기 문한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기동, 「나말려초 근시기구와 문한기구의 확장」, 앞의 책, pp.247~255.
- 90) 김입지(金立之): 현덕왕 17년(825) 입당사(入唐使) 김흔(金昕)을 따라 당나라에 들어간 12명의 숙위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당 빈공과에 합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신라에 귀국하여 855년에 한림랑으로서 추성군 태수에 임명되었고, 9세기 중엽 문한 계통에서 크게 활약하였는데, 「창림사무구정답원기」와 「성주사비문」을 제찬한 것으로 이름이 높다. 이기동, 「나말려초 근시기구와 문한기구의 확장」, 앞의 책, p.250.
- 91) 성주사비(聖住寺碑): 김입지가 찬(撰)한 무염화상(無染和尚)의 비(碑)로,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사지에 얼마간의 비편(碑片)만이 잔존하고 있다(황수영, 『한국금석유문』, pp.86~91; [全文]고대편, p.263).
- 92) 성가(聲價): 좋은 평판 또는 명성을 말한다.
- 93) 봉현(鵬顯): 청운(靑雲)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떠난다는 뜻으로, 『장자』莊子, 「내편」內篇, 「소요유逍遙遊」에 “北冥有魚 其名爲鯢 鯢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에서 따온 말이다. 무염화상이 당으로 유학 떠난 것을 비유한 것이다.
- 94) 학귀(鶴歸): 학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한대(漢代)의 요동인(遼東人) 정령위(丁令威)가 선술(仙術)을 배워 학이 되어 승천(昇天)한 고사(故事)에서 따온 말로, 『수신후기搜神後記』에 “丁令威 本遼東人 學道于靈虛山 後化鶴歸遼 集城門華表柱 時有少年 舉弓欲射之 鶴乃飛 徘徊空中而言曰 有鳥有鳥 丁令威 去家千年 今始歸 城郭如故 人民非 何不學仙 塚壘壘 遂高上衝天 今遼東諸丁云 其

되어 있다. 돌아보건대 내가<sup>98)</sup> 이제 갖는 것은 다만 우리 스님께서 열반<sup>99)</sup>에 드신 시기와 임금께서 탑<sup>100)</sup>호를 내리신 것을 나타내는 데 그칠 뿐이다.

始繹如椽<sup>101)</sup>狀，則見大師西遊，東返之歲年，稟戒悟禪之因緣，公卿守宰之歸仰，像殿影堂之開剎，故翰林郎金立之所撰，聖住寺碑，叙之詳矣。爲佛爲孫之德化，爲君爲師之聲價，鎮俗降魔之威力，鵬顯鶴歸之動息，贈太傅獻康大王親製深妙寺碑，錄之備矣。顧腐儒之今作也，止宜標，我師就般涅槃之期，與吾君崇宰堵婆之號而已。

생각에 따라서 스스로의 뜻대로 글을 쓰고자 하였는데<sup>102)</sup> 마침 제자<sup>103)</sup>

先世有升仙者 但不知名字耳”라 되어 있다. 무염화상이 당 유학을 마치고 신라에 돌아왔다는 뜻이다.

- 95) 태부(太傅): 『삼국사기』권11「신라본기」11 진성왕즉위년眞聖王卽位年에 인용된 『최치원문집崔致遠文集』권2「사추증표謝追贈表」에는“臣坦言伏奉制旨 追贈亡臣臣擬爲太師 亡臣臣最爲太傅…”라고 하여 태부는 진성여왕(坦) 때에 당나라에서 정(叢), 즉 헌강왕에게 추증한 시호임을 알 수 있다.
- 96) 헌강대왕(獻康大王): 신라 49대 임금으로 875년에서 886년 사이에 재위한 경문왕의 아들이다. 휘는 정(叢)이고 헌강왕이라고도 쓴다.
- 97) 심묘사비(深妙寺碑): 경상북도 상주 심묘사에 있던 무염화상의 비로, 헌강왕이 직접 찬술한 것인데, 최치원의 이 기록으로 무염화상의 비가 3기(基)였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 98) 부유(腐儒): 썩은 선비라는 뜻이니, 필자 자신을 겸사(謙辭)한 말이다.
- 99) 반열반(般涅槃): 『parinirvāṇa』의 음사어. 완전한 열반을 뜻하며, 열반에 들어간다는 말이다.
- 100) 솔도파(窣堵婆): 『stūpa』의 음사어로 탑을 말한다.
- 101) [全文]의 椽은 椽의 오자임.
- 102) 자적기적(自適其適): 자기의 뜻에 맞는 바를 즐김. 『장자莊子』「대종사大宗師」, “適人之適 而不自適 其適者也”.
- 103) 상족(上足): 제자. 신족(神足), 고족(高足)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제자를 지칭한

인 비구<sup>104)</sup>가 와서 좋은 글<sup>105)</sup>을 부탁하였다. 그의 말과 뜻은 이러한 뜻에  
까지 미치었다. 곧 말하기를 “김입지(金立之)가 찬한 비는 세운 지 오래되  
어 오히려 그 후 수십년간 남기신 아름다운 행적이 빠져 있고,<sup>106)</sup> 태부왕  
이 신필(神筆)로 기록한 것은 대개 각별히 대우했음을 드러내 보였을 뿐  
입니다. 선생<sup>107)</sup>은 입으로 옛 현인들의 책을 맛보았고 면전(面前)에서 금  
상(今上)의 명도 받았으며 귀로는 국사의 행적을 실컷 들었고 눈은 문생

말이다.

104) 필추(苾芻): 비구. 복인도 쪽의 ㉠bhikṣu의 음사어로, 비구는 남인도 쪽의 말이  
다. 출가하여 불제자로 구족계를 받은 자의 이름으로, 스스로 경영하는 것이 없  
고 대중의 신시(信施)를 빌어 청정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사(乞士)라고도 하며  
성도(聖道)를 닦아 번뇌를 파하므로 파번뇌(破煩惱)라 하기도 한다.

105) 제구(蠶臼): 사(辭)자의 은어(隱語)로 절묘호사(絶妙好辭), 즉 뛰어난 명문(名文)  
을 가리킨다. 『후한서後漢書』 「열녀전烈女傳」 「효녀조아孝女曹娥」에 의하면 조  
아의 아버지는 소경으로 현가(絃歌)를 부르면서 무당노릇을 하였는데, 143년 5  
월 5일 강물을 거슬러 오르면서 파신(波神)을 부르다가 익사(溺死)하였다. 시신  
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를 지켜본 14살의 딸 조아는 물가에서 17일 동안 울다  
가 마침내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이에 관에서는 조아의 장례를 치러주고 열  
녀비(烈女碑)를 세웠다. 채옹(蔡邕)이 이 조아의 열녀비를 보고 ‘黃絹幼婦外孫蠶  
臼’라 찬제(讚題)하였다고 한다. “孝女曹娥者 會稽上虞人也 父盱 … 溺死 不得  
屍骸 娥年十四 乃沿江號哭 晝夜不絕聲 旬有七日 遂投江而死” 『세설신어世說新  
語』 「첨오捷悟」에 ‘황견(黃絹)은 색깔 있는 실(色絲)이니 절(絶; 色+絲)자가 되고,  
유부(幼婦)는 소녀(少女)의 뜻이니, 묘(妙; 少+女)자가 된다. 외손(外孫)은 여자  
(女子)를 가리키니, 호(好; 女+子)자가 되고, 제구(蠶臼)는 매운 음식을 담는 그  
릇(受辛)이니, 사(辭; 受+辛)자가 된다. 바로 “絶妙好辭”이다 라고 ‘黃絹幼婦外孫  
蠶臼’ 여덟 글자의 뜻을 풀이하고 있다. “魏武嘗過曹娥碑下 楊脩從 碑背上見題  
作‘黃絹幼婦外孫蠶臼’八字 魏武謂脩曰 解不 … 脩曰 黃絹 色絲也 於字爲絶 幼  
婦 少女也 於字爲妙 外孫 女子也 於字爲好 蠶臼 受辛也 於字爲辭 所謂‘絶妙好  
辭’也”. 여기에서 辭와 辭는 동자이고, 蠶는 齋와 동자이다.

106) 성주사 비편이 남아 있다.

107) 오자(吾子): 서로 친한 남자끼리 부르는 말로 그대 혹은 너의 뜻이다.

(門生)들이 지은 행장에 취할 정도입니다. 널리 기록하고 갖추어 서술하여 장차 후생에게 전해 주어<sup>108)</sup>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알게 해야 합니다.<sup>109)</sup> 만일 선사를 선망하는 자가 이를 간직해 두었다가 중국인의 비웃음을 면한다면<sup>110)</sup> 매우 다행이니 내가 감히 더 이상을 구하겠습니까. 선생은 번거로움을 꺼리지 말고 엄광(嚴光)과 같은 태도로 사실대로 써 주시오<sup>111)</sup>라 하였다. (치원이) 이에 얼른 대답하여 “나는 이영을 엮는 자<sup>112)</sup>처럼 간결한 것이 좋은데, 스님은 채소 파는 사람과 같이<sup>113)</sup> 많고 적음을 따

108) 가외(可畏): 『논어論語』「자한子罕」의 “후생가외後生可畏”에서 나온 말로 후생이 두려워 진실대로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같은 표현으로 “식법자구(識法者懼)”라는 말을 쓴다.

109) 원시요종(原始要終):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핀다는 뜻으로, 『주역周易』「계사繫辭」‘상’에는 “原始反終”으로 되어 있다. 의광기(宜廣記)부터 원시요종(原始要終)까지는 두예(杜預)가 『춘추좌전』「서序」에서 한 말이다. “必廣記而備言之其文緩 其旨狹 將令學者 原始要終”.

110) 탈소자(脫西笑者): 도를 닦은 것을 이름. 입당구법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111) 광노태여(狂奴態餘): “광노고태(狂奴故態)”의 고사에서 비롯된 말. 광노는 엄광(嚴光; 자는 子陵)의 어릴 때의 이름으로, 『후한서後漢書』「일민전逸民傳」‘엄광嚴光’에 의하면 후한의 세조 광무제(光武帝; 劉秀)가 즉위 후 성명을 바꾸고 숨어 지내던 옛친구 엄광에게 세 번이나 사인(使人)을 보내 조정에 나오도록 청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자 웃으면서 “광노의 옛모습”이라고 말하고는 그날로 친히 그를 찾아가 나오게 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광노태여는 엄광과 같이 꾸밈이 없는 태도를 말한다. “司徒侯霸與光素舊 遣使奉書 使人因謂光曰 公聞先生至 區區欲即詣造 迫於典司 是以不獲 願因日暮 自屈語言 光不答 乃投札與之 口授曰 君房足下 位至鼎足 甚善 懷仁輔義天下悅 阿諛順旨要領絕 霸得書 封奏之 帝笑曰 狂奴故態也”.

112) 편집(編纂): 지붕을 튼튼히 하기 위해 새끼로 졸라 매듯이 글도 줄여서 간단히 지으려 한다는 약술(略述)의 의미이다.

113) 매채(買采): 앞의 ‘광노태여(狂奴態餘)’와 같은 고사에서 비롯된 말로, 채소 파는 사람이 이익의 많고 적음을 따지듯이 글의 분량을 따지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즉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채소를 사고 팔 때나 하는 것이지 글을 쓸 때에

지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口將手議, 役<sup>114)</sup>將自適其適, 這有上足苾芻, 來趣壺白語及斯意. 則曰, “立之碑, 立之久矣, 尚闕數十年遺美, 太傅王神筆所紀, 蓋顯示殊遇云爾. 吾子, 口嚼古賢書, 面飲今君命, 耳<sup>115)</sup>飲<sup>116)</sup>國師行, 目醉門生狀. 宜廣記而備言之, 殆貽厥可畏, 俾原始要終. 脫西笑者, 或袖之脫西人笑則幸, 甚吾敢求益, 子無憚煩, 狂奴態餘.” 率爾應曰, “僕編苦者, 師買采乎.”

마침내 산란한 마음<sup>117)</sup>을 붙잡고 억지로 붓<sup>118)</sup>을 움직이는데 『서한서西漢書』<sup>119)</sup> 유후전<sup>120)</sup> 말미(末尾)의 “장량이 임금과 더불어 조용하게 천하의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 상대방이 엄광의 고사를 인용하여 의견을 표시하자 최치원도 엄광의 말로써 자신의 심정을 대답한 것이다. 황보밀(皇甫謐), 『고사전高士傳』「엄광」, “嚴光字子陵 會稽餘姚人也 少有高名 同光武遊學 及帝即位 光乃變易姓名 隱逝不見 帝思其賢 … 光曰 卿言不癡是非癡語也 天子徵我三乃來人主尚不見當見人臣乎子道求報 光曰 我手不能書 乃口授之 使者嫌少 可更足 光曰 買菜乎 求益也”. 여기서 采와 菜는 통한다.

114) [全文]의 役은 [總覽]의 役과 같음.

115) [全文]의 再는 耳의 오자임.

116) [全文]의 飯은 飫의 오자임.

117) 원심(猿心): 산란(散亂)한 마음을 원숭이의 부산한 움직임에 비유한 말이다.

118) 토한(兔翰): 붓의 다른 이름. 조식(曹植), 『고낙원古樂苑』 ‘악부樂府’, “墨出青松煙 筆出狡兔翰”.

119) 서한서(西漢書): 반고(班固)의 『한서漢書』를 말한다. 서한이란 전한(前漢: BC206~A.D.8)의 별칭으로 이 시기의 내용을 썼기 때문에 서한서로 명칭이 붙여졌는데, 전한 12세의 230년을 기전체(紀傳體)로 서술한 총 100권의 역사서이다. 후한의 반표(班彪)가 착수한 것을 그 아들 반고(班固)가 대성시켰으며, 미완의 부분은 반고의 누이동생인 반소(班昭)가 보충하였다. 『사기史記』·『후한서』·『삼국지』와 함께 전4사(前四史)로 일컬어진다.

일을 말한 것이 매우 많았으나 천하의 존망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쓰지 않는다”<sup>121)</sup>는 귀절이 떠올랐다. 그러한 즉 대사께서 왔다 가신 사이<sup>122)</sup>의 사적 중에 뛰어난 것이 별처럼 많지만<sup>123)</sup> 후학들에게 경계할 바가 아닌 바가 아닌 것은 또한 쓰지 않는다. 스스로 반고 『한서漢書』<sup>124)</sup>의 일부를 엮었다고 자부하면서 이에 관견(管見)으로 기술한다. 빛이 왕성하고 충실하여 천하<sup>125)</sup>를 비추는 바탕이 있는 것으로 새책해보다 고른 것이 없고, 기가 온화하고 융섭하여 만물을 기르는 공효에 미더움이 있는 것으로 봄

- 
- 120) 유후전(留侯傳): 유후는 한(漢) 장량(張良)의 봉작(封爵)이다. 즉 유후전은 장양전(張良傳)을 말한다. 『사기史記』권55「유후세가留侯世家」, “高帝曰 運籌策帷帳中 決勝千里外 子房功也 自擇齊三萬戶 良曰 始臣起下邳 與上會留 此天以臣授陛下 陛下用臣計 幸而時中 臣願封留足矣 不敢當三萬戶 乃封張良爲留侯 與蕭何等俱封”.
- 121) 『한서』권40「장진왕주전張陳王周傳」, “良從上擊代 出奇計下馬邑 及立蕭相國 所與從容言天下事甚衆 非天下所以存亡 故不著 良乃稱曰 家世相韓 及韓滅 不愛萬金之資 爲韓報仇彊秦 天下震動 今以三寸舌爲帝者師 封萬戶 位列侯 此布衣之極於良足矣 願棄人間事 欲從赤松子游耳 乃學道 欲輕舉 高帝崩 呂后德良 乃彊食之曰 人生一世間 如白駒之過隙 何自苦如此 良不得已 彊聽食 後六歲薨 諡曰文成侯”.
- 122) 시순(時順): 적절한 때에 태어나서 할일을 다하고 천명대로 살다가 떠나는 것. 『장자莊子』『양생주』『養生主』, “適來 夫子時也 適去 夫子順也 安時而處順 哀樂不能入也 古者謂是帝之懸解”.
- 123) 낙낙(樂樂): 뛰어나고 밝은 모양. 한유(韓愈), 「대장적여이절동서代張籍與李浙東書」, “惟閣下心事樂樂 與俗輩不同”.
- 124) 반사(班史): 반고가 저술한 『한서』를 가리킨다.
- 125) 팔괘(八紘): 온누리. 동서남북의 사방(四方)과 사간방(四間方)을 합한 팔방(八方)을 말함. 괘는 유(維)의 뜻으로 천지(天地)를 엮는 강기(綱紀)이니, 동북(東北)의 괘를 황토(荒土), 동방(東方)의 괘를 상야(桑野), 동남(東南)의 괘를 중녀(衆女), 남방(南方)의 괘를 반호(反戶), 서남(西南)의 괘를 염토(炎土), 서방(西方)의 괘를 옥야(沃野), 서북(西北)의 괘를 사소(沙所), 북방(北方)의 괘를 위우(委羽)라고 하니, 전세계(全世界)를 뜻하는 것으로 쓴다.



바람보다 더 넓은 것이 없다. 큰바람과 아침해는 모두 동방으로부터 스스로 나온 것이니, 즉 하늘이 이 두가지 남은 경사<sup>126)</sup>를 모으고 산악이 한 영특한 정기를 내려 군자국<sup>127)</sup>에 태어나게 하여 불교<sup>128)</sup>에 우뚝 선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스님이시다.

遂絳猿心，强搖兔翰，憶得，西漢書留侯傳□云，“良所與上從容言，天下事甚衆，非天下所以存亡，故不著。”則大師時順間事蹟，瑩瑩者星繁，非所以警後學，亦不書。自許窺一班於班史，然於是乎管述曰，光盛且實，而有暉八紘之質者，莫均乎曉日，氣和且融，而有孚萬物之功者，莫溥乎春風。惟□風與旭日，俱東方自出也，則天鍾斯二餘慶，嶽降于一<sup>129)</sup>靈性，俾挺生君子國，特立梵王家者，我大師其人也。

대사는 범호가 무염(無染)이며 원각조사<sup>130)</sup>인 달마(達磨)의 10세손<sup>131)</sup>이

126) 여경(餘慶): 적선여경(積善餘慶)의 준말. 선조의 유덕(遺德)이 자손에게 미치는 경사. 『주역』 ‘곤괘 坤卦’,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 臣弑其君 子弑其父 非一朝一夕之故 其所由來者漸矣 由辯之不早辯也”.

127) 군자국(君子國): 신라를 지칭한다.

128) 범왕가(梵王家): 범왕은 석가모니를 비유한 말로 사찰 즉, 불교계를 말한다.

129) [全文]의 二는 一의 오자임.

130) 원각조사(圓覺祖師): 중국 선종(禪宗)의 개조(開祖)인 달마대사(達磨大師)를 말한다. 달마는 원래 남천축(南天竺) 향지국(香至國)의 제3왕자로서 양(梁) 무제(武帝) 때 금릉(金陵)에 갔다가 뒤에 송산(崇山)의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면벽(面壁) 좌선(坐禪)한 끝에 오도(悟道)하여 선종을 열었는데 뒤에 당의 대종(代宗)이 ‘원각’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고 탐명은 공관(空觀)이라 하였다.

131) 십세손(十世孫): 무염화상은 달마로부터 법계(法系)로 10세의 범손인데 그 법계를 보면, 달마 → 혜가(慧可) → 승찬(僧璨) → 도신(道信) → 홍인(弘忍) → 혜능(慧能) → 남악회양(南嶽懷讓) → 마조도일(馬祖道一) → 마곡보철(麻谷寶徹) → 성주무염(聖住無染)의 계보가 된다.

다. 속성(俗性)은 김씨로 무열왕이 8대조<sup>132)</sup>가 된다. 할아버지<sup>133)</sup> 주천(周川)은 품은 진골<sup>134)</sup>이고 위(位)는 한찬<sup>135)</sup>이다. 고조와 증조가 모두 안팎으로 장수와 재상을 역임하여 집집마다 이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sup>136)</sup> 아버지 김범청<sup>137)</sup>은 그 족보(族譜)가 진골에서 한등급 떨어져<sup>138)</sup> 득난<sup>139)</sup>이 되었다. [나라에 5품이 있는데 ‘성보(聖譜)’라 하고 ‘진골(眞骨)’이라 하며 ‘득난’이라 하니 (득난은) 귀성(貴姓)얻기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문부文賦』에 “혹 구하기는 쉬워도 얻기는 어렵다”고 하였는데, 따라서 6두품을 말하는 것이다. 수가 많은

132) 팔대조(八代祖): 무염화상의 8대의 선조로,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으로부터 그 제3왕자인 문왕(文王)의 계파이다.

133) 대부(大父): 조부(祖父).

134) 진골(眞骨): 신라의 골품제는 왕족의 골제(骨制)와 6두품에서 1두품에 이르는 두품제(頭品制)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진골은 『신당서』 권 220 「동이열 전東夷列傳」의 “其建官 以親屬爲上其族名第一骨·第二骨爲自別 兄弟女姑姨從姊妹 皆聘爲妻 王族爲第一骨 妻亦其族 生子皆爲第一骨 不娶第二骨女 雖娶 常爲妾媵”의 제1골에 해당하는 왕족으로서 혼인에 있어서도 다른 신분과 구별하였다. 또 대아찬 이상의 관직에 올라 중앙관서와 지방행정구역의 장관이나 장군 등의 관직을 독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색복(色服)·거기(車騎)·기용(器用)·옥사(屋舍)에 이르기까지 다른 두품 신분층과 구별되는 사회적 특권을 누렸다. 『삼국사기』권33「잡지」2.

135) 한찬(韓縵): 신라 제5관등인 대아찬(大阿飡)으로, 진골만이 이 등급에 제수될 수 있다.

136) 호지지(戶知之): 너무나 유명하여 집집마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137) 김범청(金範淸): 『최문창후전집崔文昌侯全集』의 주석에서는 그가 만년에 검술을 좋아하였는데 헌장공(憲章公)이 모반으로 주살되는 것을 보고 곧 머리를 깎고 불도에 들어가자 칙명으로 골품대덕(骨品大德)의 호를 주고 한주승통(漢州僧統)을 맡겼다 한다.

138) 족강진골일등(族降眞骨一等): 골품관계의 내용을 알려 주는 사료로 신라 하대의 진골족이 포화상태에서 자기도태를 하고 있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39) 득난(得難): 신라 시대의 골품제도의 하나인 6두품의 이칭(異稱)이다. 성골·진골에 이어 그 위(位)를 차지하였으므로 득난이라 하였다.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은 마치 일명(一命)에서 구명(九命)에 이르는 것과 같다. 그 4, 5두품은 죽히 말할 바가 못된다.] 만년(晩年)에는 검술<sup>140)</sup>을 즐겼다. 어머니 화씨(華氏)가 꿈속에서<sup>141)</sup> 긴 팔을 지닌 호법천<sup>142)</sup>인이 연꽃을 내려 주는 것을 보고 임신하였다. 얼마를 지난 뒤 자칭 법장<sup>143)</sup>이라고 하는 스님이 거듭 꿈에 나타나 열 가지 호지법을 일러주었으니 충실히 이를 태교<sup>144)</sup>로 삼았다. 그로부터 12달이 지나 대사가 태어났다.<sup>145)</sup>

法號<sup>146)</sup>無<sup>147)</sup>染, 於圓覺祖師爲十世孫. 俗姓金氏, 以武烈大王爲八代祖. 大父周川, 品眞骨, 位韓掾. 高曾出入皆將相, 戶知之. 父範清, 族降眞骨一等, 曰得難[國有五品, 曰聖而曰眞骨曰得難,<sup>148)</sup> 言貴姓之難得. 文賦云, 或<sup>149)</sup>‘求易而得難,’從

- 
- 140) 조문업(趙文業): 조(趙)나라 문왕(文王)이 칼쓰기를 좋아한 고사를 인용한 것. 『장자』「설검설劍」, “趙文王喜劍 劍士夾門而客三千餘人”.
- 141) 혼교(魂交): 잠을 잔다는 것으로, 『장자』「제물론齊物論」, “其寐也魂交 其覺也形開”.
- 142) 수비천(脩臂天): 삼두(三頭)와 육비(六臂)를 가진 호법천(護法天). 『조당집』권17 「성주무염국사」, “脩臂天人垂授藕花”.
- 143) 법장(法藏): ㉔ Dharmākara로 담마가류, 담마가라의 번역. 아미타불이 부처가 되기 전 보살 때의 명칭이다. 아미타불은 본래 국왕으로서 발심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 법장이라 하였다.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에게 48원을 세우고 조제영검의 수행을 성취하였으며 드디어 현재의 아미타불이 되어 지금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며 항상 법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
- 144) 수십호(授十護): 꿈에 나타난 자칭 법장(法藏)이라는 스님이 10가지 태교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말이다.
- 145) 과기이탄대사(過基而誕大師): 기(基)는 1년이므로 12개월 만에 대사가 탄생하였다는 말로, 애장왕(哀莊王) 2년인 801년에 탄생한 것을 말한다.
- 146) [全文]의 天은 號의 오자임.
- 147) [全文]의 鍾은 無의 오자임.
- 148) [全文]은 曰眞骨 曰得難 曰聖而라 하고, [總覽]은 曰聖而 曰眞骨 曰得難 言貴姓之難得으로 되었으니 [總覽]이 옳음.

言六頭品. 數多爲貴, 猶一命至九, 其四五品不足言]. 晚節, 追蹤趙文業. 母華氏, 魂交, 觀脩臂天垂授<sup>150)</sup>花, 因有娠. 幾踰時, 申夢胡道人自稱法藏授十護, 充胎教. 過朞而誕大師.

어려서부터 다니거나 앓을 때 반드시 합장하거나 가부좌를 하고 대하였 으며 여러 아이들과 더불어 놀면서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모래를 쌓을 때에는 반드시 불상이나 탑의 모양을 본떴지만, 하루도 부모의 슬하를 떠나지 않았다. 9세에 비로소 공부하기 시작하였는데 눈으로 한번 본 것은 반드시 입으로 외웠으므로 사람들이 해동(海東)의 신동(神童)이라고 칭송하였다. 12세를 넘어서는<sup>151)</sup> 9류<sup>152)</sup>가 비좁다고 하면서 뜻을 불교에 입문(入門)하는 데 두었다. 먼저 어머니께 여쭙니 어머니는 이미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울면서 “허락한다”<sup>153)</sup>고 하였다. 뒤에 아버지를 뵈오니 아버지는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을 깨닫고는 기꺼이 허락하였다.

阿孩時,[方言謂兒與華无<sup>154)</sup>異] 行坐必掌合趺對, 至與群兒戲,

149) [全文] [苑]의 或이고, [總覽]에는 결락임.

150) [全文] [苑]에는 殿, [總覽]에는 敵으로 되어 있다. 蓮자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상세하지 않다.

151) 과일성종(跨一星終): 1성종은 세성(歲星)이 한차례 끝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간이 12년이 걸리므로, 12세를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

152) 구류(九流): 중국 한대(漢代) 학문의 9개의 유파(流派). 『한서』「예문지藝文志」의 내용에 따르면, 공자가 죽은 후 그 제자들이 흩어져 각각의 일파를 이루는데, 「예문지」는 이를 크게 아홉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1. 유가류(儒家流), 2. 도가류(道家流), 3. 음양가류(陰陽家流), 4. 법가류(法家流), 5. 명가류(名家流), 6. 묵가류(墨家流), 7. 중횡가류(縱橫家流), 8. 잡가류(雜家流), 9. 농가류(農家流)

153) 혜(詒): 방언이니 허락한다는 뜻. 허락할 혜자(字).

154) [全文] [苑] [總覽]의 无는 無의 고자(古字)임.

畫塲聚沙，必模樣像塔，而不忍一日違膝下。九歲始鼓篋，目所覽，口必誦，人稱曰海東神童。跨一星終，有隘九流，意入道。先白母，母念已前夢，泣曰，訖。<sup>155)</sup> [方言許諾] 後謁父，父悔已晚悟，喜曰轟。<sup>156)</sup>

드디어 오색석사(五色石寺)에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sup>157)</sup> 경을 읽어 뜻을 잘 이해하였고,<sup>158)</sup> 진여의 마음을 회복하고자 힘썼다. 법성선사가 있었는데 일찍이 중국에서 능가문<sup>159)</sup>을 배웠던 분이다. 무염대사가 스승으로 수년간 모시면서 남김없이<sup>160)</sup> 다 배웠다. 법성선사가 찬탄하여 “빠른 걸음으로 달리면 뒤에 출발해도 먼저 이른다고 한 것을 내가 그대에게서 경험하였다. 나는 생각하니 그대에게 가르칠 만한 더 이상의 것이 없다. 그대와 같은 사람은 마땅히 중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사가 “예” 하고 대답하였다. 밤의 새끼줄은 뱀으로 속기 쉽고<sup>161)</sup> 허공의 실오라기는 분간하기 어렵다.<sup>162)</sup> 또한 물고기는 나무로 인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sup>163)</sup> 토끼는 그루터기만 지킨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sup>164)</sup> 그러므로

155) [全文]의 訖은 訖의 오자임.

156) [全文] [苑] [總覽] 모두 轟이니 善의 古字임.

157) 영염(零染): 삭발(削髮)과 염의(染衣)라는 말로, 출가했다는 뜻이다.

158) 구정상약(口精嘗藥): 경(經)의 뜻을 잘 이해한다는 뜻으로, 신농씨(神農氏)가 일찍이 백초의 맛을 보고 그 독성을 알아본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159) 능가문(駭伽門): 중국 초기선종의 능가선을 말한다.

160) 혈유(孑遺): 약간의 나머지. 조금의 남김. 『시경』 「대아」 ‘운한雲漢’, “周餘黎民 靡有孑遺”.

161) 야승이혹(夜繩易惑): 밤의 새끼줄은 뱀으로 속기 쉽다는 말로, 소승법은 비근하여 이해가 빠르다는 뜻이다.

162) 공루난분(空縲難分): 허공과 실은 분간하기 어렵다는 말로 대승법은 그 이치나 경지가 고상 심원하여 체득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스승께서 가르친 바와 내가 깨달은 바에는 서로 증장하는 바가 있다. 진실로 구슬이나 불을 얻었다면 조개나 부싯돌을 버릴 수 있으니,<sup>165)</sup> 무릇 도에 뜻을 둔 사람에게 어찌 일정한 스승이 있겠는가<sup>166)</sup> 생각하였다.

遂零染, 雪山五色石寺. 口精嘗藥, 力銳補天. 有法性禪師, 嘗扣駿伽門于中夏者. 大師師事數季,<sup>167)</sup> 擇索無孑遺. 性歎曰, “迅足駿駿, 後發前至, 吾於子驗之. 吾快矣, 無餘勇可賈於子矣, 如子者, 宜西也.” 大師曰, “惟.” 夜繩易惑, 空縷難分. 魚非緣木可求, 兔非守株可待. 故師所教, 己所悟, 互有所長. 苟珠火斯來, 則蜺<sup>168)</sup>燧可弃, 凡志於道者, 何常師之有.

이윽고 그 곳을 떠나 부석산의 석등대덕<sup>169)</sup>에게 화엄<sup>170)</sup>을 배웠는데 하

- 
- 163) 어비연목가구(魚非緣木可求): 『맹자』「양혜왕梁惠王」상, “緣木求魚 雖不得魚 無後災 以若所爲 求若所欲 盡心力而爲之 後必有災 曰可得聞與”.
- 164) 토비수주가득(兔非守株可得): 『한비자韓非子』「오두五蠹」, “宋人有耕田者 田中有株 兔走 觸株折頸而死 因釋其耒而守株 冀復得免 兔不可復得 而身爲宋國笑”.
- 165) 구주화사래 즉방수가기(苟珠火斯來 則蚌燧可弃): 방(蚌)은 조개이니, 진주를 얻으면 조개를 버리는 것이고, 불을 받으면 부싯돌을 버린다는 뜻이니, 범성선사에게 수학할 것을 다했으면 굳이 있어도 이익이 없으므로 떠나야 한다는 말이다.
- 166) 상사(常師): 한 스승만 영원히 모신다는 말이다.
- 167) [總覽]의 季은 季의 오자이니 年의 古字임.
- 168) [全文]의 蜺은 오자이고, [苑] [總覽]의 蜺은 蚌과 같은 글자임.
- 169) 석등(釋燈): [總覽]에는 석등(釋燈)으로, 『최고운문집崔孤雲文集』에는 석징(釋澄)으로 되어 있는데, 석등(釋燈)이 옳다.
- 170) 표하건나(驃訶健拏): 『화엄경華嚴經』에 대한 범음(梵音)인 마하비불략발타건나 표하수다라(摩訶毘佛略勃陀健拏驃訶修多羅 ㉟ mahāvaiṣṭya-buddha-gaṇḍa-vyūha-sūtra; 대방광각자잡화엄식경大方廣覺者雜華嚴飾經)를 한역(漢譯)한 것인데, 마하비불략(摩訶毘佛略 ㉟ mahāvaiṣṭya)은 대방광(大方廣)으로, 발타건나(勃陀建拏

루에 서른 사람의 몫을 감당할 재주가 있었으니, 남초(藍草)와 천초(茜草)가 본래의 빛깔을 잃은 것 같았다.<sup>171)</sup> 요당과 배수의 비유를 돌이켜 보고<sup>172)</sup> “동쪽만 바라보면 서쪽은 보지 못할 것이다. 저 건너 중국이 멀지 않은데 어찌 고토(故土)만 생각할 것인가”<sup>173)</sup>라 하고는 급히 산을 나와 바다에 이르러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마침 국사(國使)가 서절<sup>174)</sup>을 지니고 천자에게 바칠 일이 있었으므로<sup>175)</sup> 그 배에 함께 타고 서쪽으로 향하니 대양의 복판에 이르러 풍랑이 성난 듯 일면서 뒤집혀 큰

㉠buddha-gaṇḍa)는 불 잡화(佛 雜華)로, 표하(驃訶 ㉡vyūha)는 엄식(嚴飾)으로, 수다라(修多羅 ㉢sūtra)는 경(經)으로 번역되므로, ‘표하’는 엄식이고 ‘건나’는 잡화의 뜻이 된다. 따라서 표하건나란 엄식잡화라 번역되므로 찬자가 (잡)화엄(식)인 건나표하의 순서를 바꿔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171) 남천저본색(藍茜沮本色): 푸른 물감은 쪽풀(藍草)에서 나왔지만 남초보다 더 푸르고, 붉은 물감은 쪽두서니(茜草)에서 빼냈지만 천초보다 더 붉다는 말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났다는 뜻이다. 『순자』 「권학편勸學篇」, “學不可以已 青取之於藍而青於藍 冰水爲之而寒於水”.
- 172) 고요배지비(顧坳盃之譬): 잔의 물을 당(堂) 가운데 움푹 패인 곳에 부으면 겨자는 배가 되어 뜨지만, 거기에 잔을 놓으면 땅에 닿고 만다는 뜻이니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뜻을 이룰 수 없다는 비유, 곧 좁은 곳에 있지 않고 넓은 중국으로 유학갈 계획을 세운다는 비유이다. 『장자』 「소요유逍遙遊」, “覆盃水於坳堂之上 則芥爲之舟 置杯焉則膠 水淺而舟大也”.
- 173) 피안불요 하필회토(彼岸不遙 何必懷土): 피안은 중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회토는 살고 있는 곳을 말한다. 중국이 그리 멀지 않은데 어찌 고토인 좁은 본국에만 얽매이는가의 뜻. 『논어』 「이인里仁」, “君子懷德 小人懷土”.
- 174) 회국사귀서절(會國使歸瑞節): 당나라 목종의 생일에 축하차 보내는 신라의 사신을 만났다는 말로, 무염화상이 그 배를 동승할 기회를 얻는 것을 말함. 서절은 옥(玉)으로 만든 부절(符節)인데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 신표로 주는 것으로 제후가 천자를 직접 조회하거나 사신을 통해 알현할 때는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 175) 상위(象魏): 천자의 궁궐을 말하는 것으로, 교지(教旨)를 상위(魏門)에 걸었던 고사에서 유래함. 『춘추좌전』 「애공哀公」 3년, “季桓子至 御公立於象魏之外 命教火者 傷人則止 財可爲也 命藏象魏曰 舊章不可亡也”.

배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시 펼쳐나가지 못하였다. 대사는 심우(心友)인 도량(道亮)과 함께 쪽 널판지를 겹터 타고 업보(業報)의 바람에 모두 맡겼다. 밤낮없이<sup>176)</sup> 약 15일 동안 표류하여 김산도<sup>177)</sup>에 도착하였다. 무릎걸음으로 굽어진 언덕에 올라 실의에 빠져 “물고기 배속에서는 다행이 몸을 벗어났으나, 용의 턱 밑에 거의 손을 잡힐 뻔하였다. 내 마음이 돌이 아니거늘<sup>178)</sup> 어찌 물러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尋遄<sup>179)</sup>去, 問驃訶健拏于浮石山釋燈<sup>180)</sup>大德, 日<sup>181)</sup>敵三十夫, 藍茜沮本色. 顧坳盃之譬曰, “東面而望, 不見西墻, 彼岸不遙, 何必懷土.” 遽出山並海, 視西泛之緣. 會國使歸瑞節象魏, 下托足而西, 及大洋中, 風濤欬歎怒巨編歎<sup>182)</sup>人不可復振. 大師與心友道亮, 跨隻板, 恣業風. 通星半月餘, 飄至劔山島. 𪚩<sup>183)</sup>行之碕<sup>184)</sup>上, 悵然甚久曰, “魚腹中幸得脫身, 龍頷下<sup>185)</sup>庶幾攬<sup>186)</sup>手, 我心匪石, 其退轉乎.”

176) 통성(通星): 주야(晝夜)이니 밤낮으로 계속 항해한다는 뜻이다.

177) 김산도(劔山島): 흑산도(黑山島)이니 섬의 모양이 칼과 같이 생겼으므로 김산도라고도 한다.

178) 아심비석(我心匪石): 내 마음은 돌이 아니라는 말로, 마음이 돌과 같이 구르지 않고 결심이 굳은 것을 말한다. 『시경』 「패풍邶風」 「백주柏舟」, “我心匪石 不可轉也”.

179) [全文] [苑] [總覽]의 遄는 移와 같은 글자임.

180) [全文] [苑]에는 燈, [總覽]의 登은 燈의 오자임.

181) [全文] [苑] [總覽]의 日은 日의 오자임.

182) [全文] [苑]의 歎은 歎의 오자이니 歎는 壞와 같은 글자임.

183) [全文] [苑]은 𪚩이니 [總覽]의 𪚩은 오자임.

184) [全文] [苑] [總覽]의 碕는 埼와 같음.

185) [總覽]의 下頷는 頷下的 倒置임.

186) [全文]의 搨은 攬의 오자임.



장경 2년(822)에 이르러 조정사<sup>187)</sup> 왕자 혼<sup>188)</sup>이 당은포<sup>189)</sup>에 배를 뒀다. 함께 태워 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미 산동의 지부산<sup>190)</sup> 기슭에 도달하고 나서 지난번의 어려웠던 것과 나중의 쉬움을 돌아보고 해신<sup>191)</sup>에게 합장하고는 “큰 파도 속에서 몸을 잘 보존했고 풍마와 잘 싸워 이겨냈다”고 말하였다. 이어 대흥성 남산 지상사<sup>192)</sup>에 이르러 화엄경<sup>193)</sup> 강설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부석사(浮石寺)에 있을 때와 같았다. 얼굴이 검은 한 노인을 만났는데 대사에게 말하길 “멀리 모든 물건(諸物)에서 취(取)하려 하니 어찌 불(佛)을 알 수 있으랴.”하였고, 대사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크게

- 
- 187) 조정(朝正): 고대에 제후와 신하들이 정월에 천자를 알현하는 것. 새해 인사를 보내는 사신을 조정사(朝正使)라고 한다.
- 188) 왕자 혼(王子 昕): 김흔(金昕 803~849)을 가리킨다. 당시의 조공사나 숙위학생 가운데 왕자로 치칭된 인물들이 반드시 왕자가 아닌 경우가 많았는데, 김흔도 이와 마찬가지로 왕자가 아닌 무열왕 9세손으로 김양(金陽)의 종부형(從父兄)이었다. 그는 장경(長慶) 2년(822)에 조공사로 당나라에 들어가 숙위하였다. 귀국하여 남원태수(南原太守)·강주대도독(康州大都督) 등을 역임하였고, 마침내 이찬이 되어 상국(相國)에 보임되었다. 개성(開城) 4년(839) 대장군이 되어 청해진의 군대를 대구에서 방어하다가 패함으로써 치사(致仕)하여 소백산(小白山)에 들어가 은거하다가 대중(大中) 3년(849) 47세의 나이로 죽었다. 『삼국사기』 권44「김양전金陽傳」부(附) 김흔(金昕); 이기동,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과 정치과정」, 앞의 책, p.159.
- 189) 당은포(唐恩浦):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에 있던 포구이다. 『삼국사기』 권35「잡지」4 지리2, “唐恩郡 本高句麗唐城郡 景德王改名 今復故”.
- 190) 지부산(之罘山): 산둥성(山東省) 복산현(福山縣) 동북부에 있는 산. 지부산 또는 속칭(俗稱) 지부도(芝罘島)라고도 한다.
- 191) 해약(海若): 바다신의 이름. 하백(河伯), 영이(永夷)와 같은 류이다. 『초사楚辭』 「원유遠遊」, “使湘靈鼓瑟兮 今海若舞馮夷”.
- 192) 지상사(至相寺): 중국 섬서성 장안의 종남산에 있는 화엄종 사찰. 중국 화엄종의 제2조인 지엄(智儼 600~668)이 이 절에 주석한 까닭에 그를 지상이라고도 한다.
- 193) 잡화(雜華): 『화엄경』을 말한다.

깨우쳤다. 이로부터 필묵을 놓고 돌아다니다가 불광사<sup>194)</sup>에서 여만(如滿)에게 도를 물었다. 여만은 강서(江西) 마조(馬祖)에게 심인(心印)을 받았으며<sup>195)</sup> 향산거사(香山居士) 상서 백락천<sup>196)</sup>과 속가의 벗이었는데, 응대하면서 부끄러운 빛을 띠고 “내가 사람을 많이 보았지만 이 신라인과 같은 이는 드물었다. 뒷날 중국이 선(禪)을 잃는다면 장차 동이(東夷)에게 묻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泊長慶初，朝正王子昕，艤舟唐恩浦。請寓載，許焉。既達之罍山麓，<sup>197)</sup>顧先難後易，土揖海若曰，“珍重鯨波，好戰風魔。”行至大興城南山至相寺，遇說雜花者，猶在浮石。時有一髻顏耆年，言提之曰，“遠欲取諸物，孰與認而佛。”大師舌底，大悟。自是，置翰墨，遊歷佛光寺，問道如滿。滿佩江西印，爲香山白尚書樂天，空門友者，而應對有慙色曰，“吾閱人多矣，罕有如是新羅子，他日中國失禪，將問之東夷耶。”

길을 떠나 마곡사(麻谷寺)의 보철화상<sup>198)</sup>을 뵈었다. 일을 가리지 않고

194) 불광사(佛光寺) : 낙양(洛陽)에 있던 사찰로, 『조당집』권17에서는 불상사(佛爽寺)라 한다.

195) 패강서인(佩江西印) : 인(印)은 심인(心印)을 말하고, 강서(江西)는 마조도일을 가리킴. 남악회양에게서 심인을 인가받고, 강서에서 교화에 종사하여 강서의 마조라 하였으므로, 패강서인은 마조에게 심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96) 백상서낙천(白尚書樂天) : 중당(中唐)의 시인 백거이(白居易 772~846). 자(字)는 낙천(樂天), 호(號)는 향산거사(香山居士)로 벼슬이 형부상서(刑部尙書)를 지냈으므로 백상서라 한 것이다. 「장한가長恨歌」와 「비파행琵琶行」의 대표작이 있으며, 『백씨장경집白氏長慶集』 75권중 71권이 전한다.

197) [全文] [苑] [總覽] 모두 같으니麓과 같음.

198) 마곡보철화상(麻谷寶澈和尚) : 마조도일의 제자로 소주(蕭州)의 마곡사(麻谷寺)에 주석하고 있었던 데서 나온 명칭. 『조당집』권15.

부지런히 힘쓰며,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바를 스스로 쉽다고 하니, 대중들이 지목해서 “선문(禪門)의 유검루(庾黔婁)라 할 만큼 남달리 실천하는 사람이다<sup>199)</sup>”고 말하였다. 보철스님이 대사의 고생스러운 수행을 가늠하게 여기고 일찍이 어느 날 대사에게 일러 “옛날 나의 스승 마조화상이 나에게 결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봄꽃만 번성하고 가을 열매가 적은 것은 보리수에 오르려는 자들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바이다. 이제 너에게 심인(心印)을 주니<sup>200)</sup> 훗날 대중 가운데 뛰어난 공로가 있어 봉할 만한 자를 봉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다. 다시 또 ‘대법(大法)이 동(東)으로 흐른다는 말<sup>201)</sup>은 대개 예언<sup>202)</sup>에서 나왔은 즉 저 해뜨는 곳 신라의 선남자들

199) 유이행(庾異行) : 유검루(庾黔婁)의 남달리 지극한 효행(孝行)을 말한다. 남제(南齊)와 양(梁)에 출사(出仕)한 이로 역(易)의 아들인데, 자(字)는 자경(子貞)이다. 유검루가 잔릉령(孱陵令)에 재직할 때, 그의 아버지가 병을 앓게 되자, 천륜(天倫)의 감득인지 유검루는 마음이 뛰고 온몸에 땀이 흘렀다. 그는 그날로 관직을 사임하고 귀가하여 보니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였다. 몸소 간호하면서 “똥맛이 달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의원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분(糞)을 받아 단지 쓴지 맛을 보며 향을 사르고 하늘에 기도하였지만 오래지 않아 아버지 ‘역’은 죽었다. 유검루는 장례후 3년상을 지켰다. 무염화상의 수행을 유검루에 비견하여 칭찬한 것이다. 『양서(梁書)』권47 「효행전(孝行傳)」 ‘유검루(庾黔婁)’.

200) 금수약인(金授若印) : 약(若)은 너로, 이제 너에게 조사심인(祖師心印)을 준다는 말이다.

201) 동류지설(東流之說) : 부처님의 교법이 동쪽으로 흐른다고 한 육조혜능의 예언을 지적한 것으로,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혜능(惠能)」에 의하면 혜능은 입적하기 전에 두 가지 예언을 남긴 것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사후 5, 6년이 지나 “만(滿)”이라는 이름을 지닌 이가 자기의 두팔을 훔쳐 가리라는 것과, 또 하나는 70년이 지나면 동방에서 두 보살이 와서 자기의 법통을 이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첫번째 예언은 김대비(金大悲)라는 도당유학생(渡唐留學生)이 722년 홍주(洪州) 개원사(開元寺)에서 역사(力士) 장정만(張淨滿)에게 돈 2천냥을 주고 조계사 육조탑에서 육조의 두팔을 훔쳐내게 한 뒤 이를 가지고 신라로 돌아와 쌍계사의 육조정상탑에 안치함으로써 회자가 되고 있고(『조당집』권18 「양산(仰山)」), 두 번째 예언은 무염화상과 범일화상이 850년 경에 그의 법통을 잇고 있

의 근기가 거의 무르익은 듯하니, 네가 만약 동방 사람으로서 마음으로 통할 만한 자를 얻으면<sup>203)</sup> 잘 지도하라. 지혜의 물이 바다 건너 구석진 곳에까지 크게 뒤덮도록 한다면 덕이 얹지 않을 것이다'라고 당부하였다. 스승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니 나는 네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인가하여 너로 하여금 신라에서 선사로 으뜸가게 할 것이니 가서 공경히 하라. 그러면 즉 나는 지금 강서 마조의 대아(大兒)이지만 뒷날에는 해동(海東)의 대부(大父)가 될 것이니 스승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으라"고 말하였다. 머무른 지 얼마 안되어 스승이 열반에 드셨다. 검은 수건을 머리에서 벗고 "뗏목을 이미 버렸는데 배를 어디에다 매려 하는가<sup>204)</sup>"라고 말하였다.

으므로 그의 예언은 대개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 202) 구참(鉤讖): 원래 구참이란 현기(懸記), 참기(讖記)와 같은 뜻으로 장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예언한 것을 일컫는다. 신라의 구참설은, 석가모니불이 마하가섭에게 부촉한 정법안장(正法眼藏)이 서천(西天) 28조(祖), 동토(東土) 6조를 거쳐 신라에 들어옴으로써 석가불 정법(正法)의 주처(住處)를 회복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본 낭혜화상비의 구참설은, 신라 선종의 입장에서 불법동류의 역할을 담당한 무염의 출현과 활약을 조사선(祖師禪)의 조인 마조의 권위를 빌려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마곡보철을 중개시켜 마조의 유훈(遺訓)으로서의 구참설로 불법동류(佛法東流)의 사실을 설하려는 기법을 흡사 『동림전(東林傳)』이 반야다라의 참계(讖偈)로써 마조계의 정법의 유래와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본 비문에 보이는 불법동류의 구참설은 무염을 중심으로 한 신라 선종의 새로운 움직임을 전하는 것으로서 신라 선종의 주장이었으며, 『보림전(寶林傳)』의 여러 참계에 의한 정법상승적 편성을 참조한 기상의 참기를 마조의 입을 통하여 구참설로써 그 근거를 설정하여 불법동류를 뒷받침하고자 한 의도로 창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성본, 「신라 선종과 구참설」 『석산한중만박사화갑기념 한국사상사』, 1991.
- 203) 약약득동인 가목어자(若若得東人 可目語者): “네가 만약 눈으로 보기만 하고, 말을 얹더라도 이심전심할 수 있는 근기를 가진 자를 얻으면”이라는 뜻이다.
- 204) 별기사의 주하계연(旣捨捨矣 舟何繫焉): 스승이 이미 죽었는데 배가 어찌 항상 매여서만 있겠는가 뜻이다.

去謁麻谷寶澈和尚。服勤無所擇，人所難，己心<sup>205)</sup>易，衆目曰，“禪門庾異行。”澈公賢苦節，嘗一日告之曰，“昔吾師馬和尚，訣我曰，‘春藹繁，秋實寡，攀道樹者所悲吒，今授若印，異日徒中，有奇功可封者，封之無使刊。’復云，‘東流之說，盖出鉤識，則彼日出處，善男子根殆熟矣，若若得東人，可目語者，畎道之，俾惠水，丕冒於海隅，爲德非淺。’師言在耳，吾喜若徕。<sup>206)</sup>今印焉，俾冠禪侯于東土，往欽哉。則我當年，作江西大兒，後世爲海東大父，其無慙先師矣乎。”<sup>207)</sup>無何，□師化去。墨巾離首，乃曰，“筏旣捨矣，舟何繫焉。”

이로부터 유랑함을 바람에 나부끼듯이 하였는데 그 기세를 막을 수 없었으며 그 뜻은 뺏을 수 없었다. 분수<sup>208)</sup>를 건너고 관산<sup>209)</sup>을 오름에 있어 옛 자취는 반드시 찾아보고 진실한 스님은 반드시 만나 보았다. 무릇 머무른 곳은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마음의 위태로움을 편안히 여기고 고생을 달게 여기는 것이었으니 사체<sup>210)</sup> 부리는 것을 종처럼 하였으나 마음은 임금처럼 받들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로지 위독한 병자를 돌보며 고아(孤)와 자식 없는 늙은이(獨)를 구휼하는 것을 스스로의 임무로 삼았다. 지독한 추위나 혹심한 더위가 닥치고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손이 트고 발에 얼음이 박히더라도 일찍이 게으른 기색

205) [全文] [苑]에는 心이고 [總覽]에는 必이니, 뜻으로는 心과 必이 모두 통한다.

206) [全文] [苑] [總覽]의 徕는 還의 뜻이니, 인연이 되어 돌아왔다는 뜻. 徕와 來는 同字이다.

207) [全文]의 屨는 居의 고자(古字)임.

208) 분수(汾水): 중국 산서성(山西省)에서 나와 황하(黃河)로 들어 가는 강이다.

209) 관산(崑山): 중국 산서성 관현 서남에 있는 산이다.

210) 사체(四體): 두 팔과 두 다리를 말한다.

이 없었으니, 이름을 듣는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서 예경을 표하며 떠들썩하게 동방의 대보살(東方大菩薩)이라고 칭송하였다. 그가 30여년 동안 한 일은 이와 같았다.

自爾浪遊, 飄飄然, 勢不可遏, 志不可奪. 於渡汾<sup>211)</sup>水, 登崢山, 跡之古必尋, 僧之眞必詣. 凡所止舍, 遠人煙火,<sup>212)</sup> 要在安其危, 甘其苦.<sup>213)</sup> 役<sup>214)</sup>四體爲奴虜, 奉一心爲君主. 就是中, 顓以視篤癰, 恤孤獨, 爲己任. 至祁<sup>215)</sup>寒酷暑, 且煩渴, 或輒瘡侵, 曾無勸<sup>216)</sup>容, 耳名者, 不覺遙禮, 囁作東方大菩薩. 其三十餘年行事也, 其如是.

회창 5년(845)에 귀국하니 당제(唐帝)의 명에 의한 것이었다.<sup>217)</sup> 나라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며 “연성의 벽옥(璧玉)<sup>218)</sup>이 다시 돌아오니 실로 하늘

211) [全文]의冷은汾의오자임.

212) [全文] [苑]은火. [總覽]의大는火의오자임.

213) [全文]의若은苦의오자임.

214) [全文]의役은役과같은글자임.

215) [全文] [苑]은祁이니 [總覽]의祈는오자임.

216) [全文]의勸은勸의오자임.

217) 회창오년래귀제명야(會昌五年來歸帝命也): 회창은 당 무종(武宗)의 연호(841~846)로, 회창 5년인 845년에 도교의 도사(道士) 조귀진(趙歸眞)이 당시의 국가 재정난이 불교 탓이라고 무종을 설득하여 불교와 유교를 탄압한 회창폐불(會昌廢佛)을 단행하였다. 이에 사찰 4만여 개를 파괴하고, 승尼 26만명을 환속시켰으며, 외국 스님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황제의 명이 내려진 사실을 말한다.

218) 연성벽(連城璧): 화씨옥(和氏玉), 형산옥(荊山玉)이라고도 한다. 『한비자』 「화씨(和氏)에 나오는 유명한 고사이다. 초나라(楚) 사람 변화가 초의 산중에서 박옥(璞玉)을 얻어 초의 려왕(厲王)에게 바쳤다. 왕이 옥인(玉人)에게 감정을 시켰더니 돌이라 판정하므로 왕은 그가 거짓말을 한다 하여 그의 왼쪽 다리를 끊었다.

이 한 일로 이 땅의 행복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범문을 청하는 이가 이르는 곳마다 가득하였다. 왕성(경주)에 들어가 어머니를 뵈오니 크게 기뻐하며 “내가 전일에 꿈을 꾸는 것을 돌이켜 보면 곧 우담화<sup>219)</sup>가 한번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내세(來世)를 제도해 주기를 원하며 나는 다시는 문에 기대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미의 정<sup>220)</sup>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會昌五年來歸，帝命也。國人相慶曰，連城璧復還，天實爲之，地有幸也。自是，請益者，所至稻麻矣。入王城，省母社，大歡喜曰，“願吾嚙昔夢，乃非優曇之一顯耶。願度來世，吾不復倚門之念也。”已矣。

이에 북쪽으로 가서 몸을 마치도록 있을 곳을 눈여겨 골랐다. 마침 왕자(王子) 흔(昕)이 벼슬을 그만두고<sup>221)</sup> 산중의 재상<sup>222)</sup>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무왕이 등극하자 변화는 다시 바쳤으나 또다시 거짓이라 하여 그의 오른쪽 다리마저 끊어버렸다. 문왕이 즉위함을 들은 변화는 옥을 안고 초의 산 밑에서 3일간 밤낮으로 통곡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물으니 그는 “나는 양쪽다리를 베인 것이 아까워 우는 것이 아니라 보옥을 돌이라 하고, 정사(貞士)를 광자(誑者)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 슬피운다”고 말하자, 왕이 그 옥을 세밀히 감청하여 보옥인 것을 알아내어 화씨벽이라 이름하였다. 그 뒤 이 옥이 조나라 혜왕의 소유가 되었는데, 진나라 소왕이 15성과 바꾸자고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연성벽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219) 우담(優曇): 우담발라화(優曇跋羅華)로, 인도 전설의 꽃. 삼천년에 한번 피며, 이 꽃이 필 때 금륜명왕(金輪明王)이 나타난다고 한다.

220) 의문지념(倚門之念): 어머니가 문에 기대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전국책戰國策』권13 「제책齊策」, “王孫賈年十五事閔王 王出走 失王之處 其母曰 女朝出而晚來 則吾倚門而望 女暮出而不還 則吾倚閭而望 女今事王 王出走 女不知其處 女尚何歸”.

221) 현거(懸車): 치사(致仕), 벼슬을 그만두는 것. 『한서』 「설광덕전薛廣德傳」에 한

우연히 만나 바라는 바가 합치되었다. 왕자 혼은 “선사와 나는 같이 용수  
을찬<sup>223)</sup>을 조상으로 하는데 선사는 안팎으로 용수의 후손이 되시니<sup>224)</sup> 참  
으로 놀라와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푸른 바다 밖에서 소상의 고사<sup>225)</sup>  
를 이루었으니 친구의 인연이 참으로 얹지 않을 것입니다. 한 절이 웅천주  
서남쪽 모퉁이<sup>226)</sup>에 있는데 그 곳은 나의 선조 임해공<sup>227)</sup>[조(祖)의 휘는 인  
문(仁問)인데 당이 예맥을 정벌한 공의 대가로 봉하여 임해군공으로 봉하였다]  
이 봉지(封地)로 받은 곳입니다. 중간에 재해를 입어 절이 반쯤 재가 되었

의 설광덕이 관직을 사퇴하고 은거한 이후 패(沛)에 돌아가 임금이 하사한 안거  
(安車)를 매달아 놓고, 자손에게 전하여 광영을 보인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 222) 산중재상(山中宰相): 산중에 은거하면서 국정의 자문에 응하는 현사(賢士). 『양  
서』, 『남사南史』권76 「도홍경전陶弘景傳」에 의하면 양나라의 도홍경이 구곡산  
(句曲山)에 은거하면서 여러번의 초빙에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양무제가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아가 물었으므로 당시 그를 산중재상이라 한 고사  
에서 나온 말이다.
- 223) 용수을찬(龍樹乙粲): 용수는 신라 진지왕(眞智王 576~579)의 아들 용춘(龍春)이  
고, 을찬은 이찬(伊漣)이다. 진지왕이 왕위에 오른 지 4년만에 폐위되어 그는 왕  
위에 오르지 못하였으나, 이찬으로 많은 공을 세우고 뒤에 문흥대왕(文興大王)  
으로 추봉되었다.
- 224) 사내외위용수령손(師內外爲龍樹令孫): 무염화상이 용춘인 용수의 10세손인 동  
시에, 용수보살의 후손이므로 내외에 다 용수의 후손이 됨을 이르는 말이다.
- 225) 소상고사(蕭湘故事): 중국에서 소상강을 구경하면서 우연히 만난 것을 말한다.  
상수(湘水)와 소수(蕭水) 근처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서 소상팔경(蕭湘八景)이  
다. 남조(南朝) 양(梁)의 유운(柳惔)의 『강남곡江南曲』에 “洞庭有歸客 蕭湘逢故  
人”의 구절이 있다.
- 226) 웅천주곤우(熊川州坤隅): 웅천은 공주(公州)로, 공주 서남쪽지방이라는 뜻.
- 227) 임해공(臨海公):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의 제2자인 김인문(金仁問)의 봉호(封  
號). 신라와 당을 잇는 외교로 삼국통일에 큰공을 세워 태대각간(太대角干)이 되  
었는데, 신라와 당과의 전쟁이 벌어지자 문무왕 대신 신라왕에 봉해졌으나, 신  
라의 사죄로 곧 취소되었다. 『삼국사기』권1 「신라본기」1 ‘태종춘추공太宗春秋  
公’에 의하면 신라에 돌아와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으니<sup>228)</sup> 어질고 명철한 분이 아니라면 누가 능히 없어져 버린 것을 일으키고 끊어진 것을 이어지게 하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이 늙은이<sup>229)</sup>를 위해 머물러 주십시오”하고 청하니, 대사가 “인연이 있으면 머물게 되겠지요”라고 대답하였다.

廼北行，擬目選終焉之所。會王子昕，懸車爲山中宰相，邂逅適願，謂曰，“師與吾俱祖龍樹乙粲，則師內外爲龍樹令孫，眞瞠若不可及者。而滄海外躡蕭湘故事，則親舊緣，固不淺。有一寺，在熊川州坤隅，是吾祖臨海公〔祖諱仁問唐麟伐獺貍<sup>230)</sup>功封爲臨海郡公〕，受封之所。間劫燼<sup>231)</sup>流<sup>232)</sup>菑，金田半灰，匪慈哲，孰能興滅繼絕，可強爲朽夫住持乎。”大師答曰，有緣則住。

대중년초<sup>233)</sup>에 처음으로 나아가 거처하면서 말끔히 정제(整齊)하고 꾸미니, 얼마 안되어 도가 널리 행해지고 절이 크게 이루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진리를 묻는 사람들이 천 리를 반걸음으로 여기고 찾아오니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문도(門徒)들이 번성하였다. 대사는 종(鍾)이 두드림을 기다린 것처럼 하고, 거울이 고달픈 줄 모르는 것과 같

228) 겁신류치금전반회(劫燼流菑金田半灰): 화재가 일어나 사원이 반이나 소실되었다는 뜻. 겁신은 피겁때의 불이니 화재를 뜻하고, 유치(流菑)란 재앙이 흐른다는 뜻이며, 금전(金田)은 수달장자가 금을 땅바닥에 깔아 기타태자(祇陀太子)의 공원을 매입하여 기원정사(祇園精舍)를 지은 데서 따온 말로 사원을 말한다.

229) 오부(朽夫): 나이들어 쓸모없는 사람.

230) [全文]의 貌은 貍의 오자임.

231) [苑]의 燼은 燼과 같음.

232) [全文]의 坏은 流의 古字임.

233) 대중초(大初中): 대중은 당나라 선종(宣宗)의 연호(847~859)로, 대중 초는 847년 경으로 신라 문성왕 9년 무렵이다.

이 하였으니,<sup>234)</sup> 찾아오는 자는 지혜로 그 눈을 뜨게 하고, 법열[法喜]로 그 배를 채워 주었으며, 뜻을 정하지 못한 무리들<sup>235)</sup>을 깨우쳐 주고, 무지한 습속<sup>236)</sup>을 변화시키지 않음이 없었다.

大中初始就居, 且盼<sup>237)</sup>飭之, 俄而道大行, 寺大成. 繇是<sup>238)</sup>四遠問津輩, 視千里猶跬步, 其數不億, 寔繁有徒. 大師, 猶鍾待扣而鏡忘罷, 至者, 靡不以慧炤導其目, 法喜娛其腹, 誘憧憧之躅, 變蚩蚩之俗.

문성대왕(文聖大王)이 그 교화함을 듣고, 임금의 덕화를 돕지 않음이 없다고 하면서, 매우 본받을 만하다는 편지를 보내 크게 위로하였다. 대사가 산중재상에게 답한 네 마디<sup>239)</sup>를 아름답게 여겨 사찰의 이름을 바꿔<sup>240)</sup> 성주(聖住)라 하고, 대흥륜사(大興輪寺)에 예속시켰다. 대사가 사자(使者)에게 대답하되 “절을 성주로 이름한 것은 사원으로서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234) 유종대구가경망파(猶鍾待扣而鏡忘罷): 무염화상이 마치 범종이 크게 치면 크게 울리고, 작게 치면 작게 울리듯이 하였으며, 『예기』「학기學記」의 “善待問者如撞鐘 叩之以小者則小鳴 叩之以大者則大鳴”같이, 거울이 만물(萬物)이 와닿는대로 비추듯 법문을 묻는대로 척척 대답하였다는 뜻이다.

235) 동동지촉(憧憧之躅): 동동은 뜻이 바로 잡히지 않아 머뭇거리고 방황하는 모양. 『주역周易』「합괘咸卦」의 “憧憧往來 朋從爾思”에 대해 『석문釋文』은 “뜻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意未定也”라고 하였다. 또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무리들의 끊임없는 발자취.

236) 치치지속(蚩蚩之俗): 어리석고 저속한 풍속을 이른다.

237) [苑]에는 盼, [全文]에는 盼이나 盼의 오자임.

238) [全文]은 是以四遠으로 되었는데 이(以)는 없어야 함.

239) 산상지사언(山相之四言): 유연즉주(有緣則住)란 네글자를 말한다.

240) 역사방(易寺榜): 본래 오합사(烏合寺)였던 옛이름을 성주사로 사액(寺額)을 고쳤다는 말이다.

지극한 총애가 될 것입니다. 용렬한 소승이 재능도 없으면서 높은 자리에 있으니,<sup>241)</sup> 이는 바람을 피한 새가 안개 속에 숨어 있는 것과 같이 부끄러울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文聖大王, 聆其運爲, 莫非禪王化, 甚恕之. 飛手教, 優勞且多, 大師答山相之四言, 易寺勝爲聖住, 仍編錄大興輪寺. 大師驛使者曰, “寺以聖住爲名, 招提固所爲榮, 至寵. 膚僧濫吹高藉, 寔避風斯嬾<sup>242)</sup>而隱霧, 可慙矣.”

그 때 헌안대왕<sup>243)</sup>이 단월<sup>244)</sup>이며 동생인 서발한<sup>245)</sup> 위흔<sup>246)</sup>과 더불어 남

241) 부승람취고자(膚僧濫吹高藉) : 못난 승이 외람되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였다는 말.

242) [全文]의 嬾은 嬾의 오자임.

243) 헌안대왕(憲安大王) : 신라 제47대 임금(857~860)으로 휘(諱)는 의정(諡靖 : 祐靖)이다. 전왕(前王)인 문성왕이 숙부로 신무왕(神武王)의 이모제(異母弟)인데, 문성왕의 유조(遺詔)로 왕위에 올랐으나, 재위 5년만에 사위인 옹립[景文王]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병사(病死)하였다. 『삼국사기』권11「신라본기」11 ‘헌안왕憲安王’.

244) 단월(檀越) : 김흔을 가리킨다. 김양의 종부형(從父兄)이다. 『삼국사기』권44「김양전」부 김흔, 주 188) 참조.

245) 서발한(舒發韓) : 신라 17관등의 최상위관등인 이벌찬(伊伐漣)의 다른 명칭. 주다(酒多)에서 유래되어 각우(角于), 이벌찬(伊伐漣), 우벌찬(于伐漣), 각찬(角餐), 서벌감(舒伐邯) 등으로도 쓰인다.

246) 위흔(魏昕) : 김양(金陽 808~857)의 자(字)이다. 그는 무열왕 9세손으로서 증조(曾祖)는 주원(周元), 조(祖)는 종기(宗基), 부(父)는 정여(貞茹)이다. 흥덕왕 3년(828) 고성군(固城郡) 태수(太守)에 부임한 이래로 중원대윤(中原大尹), 무주도독(武州都督) 등을 역임하였다. 개성 원년(836) 흥덕왕이 죽자 그 후사를 놓고 왕의 당제 균정(均貞)과 당제의 아들 제룡(梯隆)이 다투게 되었는데, 김양은 균정의 아들 우징(祐徵)과 균정의 매서(妹壻) 서징(舒徵)과 함께 균정을 옹립코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마침내 개성 4년(839)에는 청해진 장보고의 도움으로 우징(신무왕)을 옹립하였으며, 신무왕의 태자 문성왕이 왕위를 이으면서 소판(蘇

북상<sup>247)</sup>이 되었다[각기 그 관직을 두는데 좌·우상이 있는 것과 같다]. 멀리서 제자의 예<sup>248)</sup>를 행하고 차와 향<sup>249)</sup>을 가지고 매달 찾아보니<sup>250)</sup> 명성이 동국(東國)에 자자하게 퍼지자, 사류(士類)들이 대사의 선문(禪門)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일세의 수치로 여겼다. 선사를 뵈은 자는 물러 나오면 반드시 탄식하면서 “직접 뵈는 것이 귀로 듣는 것보다 백 배나 낫다. 입에서 말씀이 나오기도 전에 마음에 이미 와 닿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원숭이같이 교활하고 호랑이같은 사나운 성질을 가진 사람<sup>251)</sup>이라도 그 조급함을 멈추었고 사나움을 고치어 마침내 착한 길로 다투어 나아갔다.

時，憲安大王，與檀越李舒發韓魏昕，爲南北相[各居其官猶左右相]。遙展攝齋禮，贊以茗薛，使無虛月，至使名震東國，士流，不識大<sup>252)</sup>師門，爲一世羞。得禮足者，侵<sup>253)</sup>必喟曰，“面謁倍百

判)이 되어 병부령(兵部令)·시중(侍中) 등을 역임하였고, 대중(大中) 11년(857) 50세의 나이로 죽자 서발한(舒發韓)에 추증되었다. 『삼국사기』권44「김양전」.

247) 남북상(南北相) : 구체적으로 어떤 관직을 가리키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위흔(魏昕 : 金陽)이 소관겸병부령을 거쳐 847~848년간 시중을 역임하였던 것으로 보아 현안왕은 적어도 위흔과 대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관직 아마도 병부령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성왕 11년(849) 상대등이 된 이찬 의정(義正)은 환정(諡靖 : 현안왕)과 동일 인물로 판단되어, 여기에서의 남북상이란 상대등과 시중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이기동, 「신라하대의 왕위계승과 정치과정」, 앞의 책, pp.170~171.

248) 섭재(攝齋) : 제자가 스승 앞에서 공손히 하는 태도로, 『논어』「향당鄉黨」에 “攝齋升堂鞠躬如也”라 한다.

249) 명발(茗薛) : 차와 향을 말한다.

250) 사무허월(使無虛月) : 빈 달이 없이 매월 끊이지 않고 계속 찾아온다는 뜻이다.

251) 후호이관자(猴虎而冠者) : 원숭이같이 교활하고, 호랑이같이 사나운 성질을 가진 이라는 뜻이다. 『사기』「항우본기項羽本紀」, “楚人沐猴而冠耳”.

252) [全文]에는 大師門이라는 三字가 탈락됨.

253) [全文]의 侵, [苑] [總覽]의 侵이니 어느 것이 옳은지 未詳함.

乎耳聞，口未出而心已入。”抑有猴虎而冠者，亦熄其趨諱，<sup>254)</sup>  
其競而僥彝馳善道。

현안왕이 왕위를 계승하고 교서를 내려 도읍의 말씀을 청하니, 대사가  
답하여 “주풍(周豐)이 노공(魯公)에 대하여 한 말<sup>255)</sup>에 뜻이 담겨 있습니  
다. 『예기』에 드러나 있으니, 청컨대 좌우명을 삼으소서”라고 하였다. 태  
사(太師)에 추증된 선대왕<sup>256)</sup>이 즉위함에 공경하고 존중함이 선조<sup>257)</sup>의 뜻  
과 같으면서도 날로 더욱 두터워서 무릇 시행할 것은 반드시 달려가 물은  
후에 거행하곤 했다. 함통 12년<sup>258)</sup> 가을에 교서를 보내어<sup>259)</sup> 전령으로 부르  
며 “산림(山林)은 어찌 가까이 여기시며 성읍은 왜 소원한가”라고 하였다.  
대사가 생도(生徒)에게 일러 “급히 백종(伯宗)을 부르듯 하시니<sup>260)</sup> 깊이 헤

254) [全文]의 諱는 諱의 오자임.

255) 주풍대노공지어(周豐對魯公之語): 주풍은 노나라 애공(哀公) 때의 은사(隱士)인  
데, 임금에게 예의(禮義)와 충신(忠信), 성실(誠實)이 있어야 백성이 믿고 따른  
다고 대답한 말을 뜻한다. 『예기』「단궁(檀弓)·하’, “魯人有周豐也者 哀公執摯請  
見之 而曰 不可 公曰 我其已夫 使人問焉 曰 有虞氏未施信於民而民信之 憂后氏  
未施敬於民而民敬之 何施而得斯於民也 對曰 墟墓之間 未施哀於民而民哀 社稷  
宗廟之中 未施敬於民而民敬 殷人作誓而民始畔 周人作會而民始疑 苟無禮義忠  
信誠懇之心以泣之 雖固結之 民其不解乎”.

256) 증태사선대왕(贈太師先大王): 신라 제48대 경문왕으로, 증태사는 당이 경문왕  
사후(死後)에 내린 시호(諡號)이고, 진성왕(眞聖王)의 부왕(父王)이다.

257) 선조(先朝): 문성왕과 현안왕.

258) 함통 십이년(咸通十二年): 함통은 당나라 의종(懿宗)의 연호(860~873)로, 함통  
12년은 신라 경문왕 11년(871)이다.

259) 곡두서(鵠頭書): 왕의 교서(敎書)이다. 천자(天子)의 조서(詔書)는 자니색지(紫  
泥色紙)로써 봉(封)하여 단봉두(丹鳳頭)를 그린 다음 오색사(五色絲)로 묶고, 왕  
의 조서는 황니색지(黃泥色紙)로써 봉하여 황곡두(黃鵠頭)를 그린 다음 채사(綵  
絲)로 묶었던 데서 나온 고사이다.

260) 거명백종(遽命伯宗): 급히 진후(晉侯)가 백종(伯宗)을 부르듯하였다는 말로,

원공(慧遠公)에게 매우 부끄럽도다.<sup>261)</sup> 그러나 도가 장차 행해지려 하는데 때를 잃을 수 없으니 (부처님의) 부촉<sup>262)</sup>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가리라” 하였다. 홀연히 서을<sup>263)</sup>에 이르러 배알하니 선대왕(先大王)이 면복<sup>264)</sup>차림으로 절하고 스승으로 삼았다. 군부인(君夫人 : 왕비), 세자(世子) 및 태제상국(太弟相國)<sup>265)</sup>[추존하여 혜성대왕], 여러 공자(公子), 공손(公孫)들이 둘러싸고 우러르는 것이 한결같았다. 하나 같이 옛사찰의 벽에 서방(西方)의 여러 국장(國長)들이 부처님<sup>266)</sup>을 모신 모습을 그려 수놓은 것 같이 하였다.

『춘추좌전』「성공(成公) 5년에 양산(梁山)이 무너지자 진후가 백중을 불러 일을 수습하려 한 사실을 인용한 것이다. “梁山崩 晉侯以傳召伯宗 伯宗辟重 曰 辟傳重人曰 待我 不如捷之速也 問其所 曰 絳人也 問絳事焉 曰 梁山崩 將召伯宗謀之 問將若之何 曰 山有朽壤而崩 可若何 國主山川 故山崩川竭 君爲之不舉降服乘縵 徹樂出次 祝幣 史辭以禮焉 其如此而已 雖伯宗 其若之何 伯宗請見之 不可 遂以告 而從之”.

- 261) 심참원공(深慙遠公) : 무염 자신이 왕의 부름에 나아간 것이 비록 국가(國家)와 불법(佛法)을 위한 것이지만, 혜원법사(慧遠法師)가 세 번이나 천자의 소명(召命)을 받고도 30년간 여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것에 비해 심히 부끄럽다는 뜻으로 쓰인 말로 “慧遠卜居廬阜影不出山 迹不入俗”이라는 말로도 쓰인다. 『양고승전(梁高僧傳)』권6「석혜원전(釋慧遠傳)」(대정장50, p.357c23) ;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권7(대정장49, p.526a23).
- 262) 부촉(付囑) : 부처님의 설법 후에 청중 가운데 어떤 이를 가려내어 그 법의 유통(流通)을 촉탁하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것을 부촉, 촉루(囑累), 누교(累敎)라 하며, 경(經)에 부촉을 말한 부분을 촉루품(囑累品) 또는 촉단(囑段)이라 한다. 부촉의 대의(大意)는 중생 또는 세간 교화이다.
- 263) 곡하(轂下) : 임금의 슬하라는 말로 수레가 많이 다니는 왕도(王都)를 말한다.
- 264) 면복(冕服) : 면류관과 예복을 말한다.
- 265) 태제상국(太弟相國) : 경문왕의 아우로 재상을 지낸 김위홍(金魏弘 : ?~888)을 말하는데, 죽은 후에 혜성대왕(惠成大王)으로 추증되었다.
- 266) 발타(勃陀) : ①buddha, 한역(漢譯)하여 부타(浮陀), 부도(浮圖), 발타(勃陀), 부타(部陀), 발태(跋駄) 등으로 음사(音寫)되는데 각자(覺者)로 번역되며 부처님을 말한다.

暨, 憲王嗣立, 賜書乞言, 大師會<sup>267)</sup>曰, “周豐對魯公之語, 有旨哉. 著在禮經, 請銘座側.” 逮贈太師先大王卽位, 欽重如, 先朝志, 而日加厚焉, 叡所施爲, 必馳問然後舉. 咸通十二年秋, 飛鵠頭書, 以傳召曰, “山<sup>268)</sup>林何親, 城邑何疎.” 大師謂生徒曰, “遽命伯宗, 深慙遠公. 然道之將行也, 時乎不可失, 念付囑故, 吾其往矣.” 欵爾至轂下, 及見, 先大王, 冕服拜爲師. 君夫人, 世子, 旣太弟相國[追奉尊諡惠成大王], 群公<sup>269)</sup>子公孫, 環仰如一. 一如古伽藍, 續壁面, 寫出西方諸國長, 侍勃陁樣式.

임금이 “제자는 재주가 없지만, 글짓는 것을 조금 좋아하였습니다. 일찍이 유협<sup>270)</sup>의 『문심조룡文心雕龍』<sup>271)</sup>을 보니 ‘유(有)에만 머물거나 무(無)만을 지키면 한갓 편벽된 견해에만 치우치게 된다. 진리의 본원(本源)에 나아가고자 하면 그것은 반야(般若)의 끊어진 경지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경지가 끊어졌다(絶境)는 것을 혹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대사가 대답하되 “경지가 이미 끊어졌으면 진리(眞理)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인(心印)이니 묵묵히 행할 뿐입니다”고 말하였다. 임금이 “과

267) [全文]에는 答, 會은 答의 고자(古字)임.

268) [全文]의 琦는 山의 오자임.

269) [全文]에는 群公의 公字 다음에 公자가 하나 더 있으니 이는 없애야 함.

270) 유협(劉鋹): 465~520. 양나라 거현(莒縣: 지금의 산둥성 일주시) 출신으로 자(字)는 언화(彦和)이다. 일찍 부모를 잃고 집이 가난하여 사문(沙門)에 의해 의식(衣食)을 해결하였고, 널리 경론에 통달하였다. 천감년간(天監年間: 502~519)에 보병교위(步兵校尉)의 벼슬을 지냈다. 혜진(慧震)과 함께 정림사(定林寺)에서 경을 연구하다가 후에 출가하여 혜지(慧地)라는 법명을 받았다. 저서는 문집 이외에 『문심조룡文心雕龍』이 있다. 『양서』권50, 『남사南史』권72.

271) 문심(文心): 유협의 『문심조룡』이니 10권으로 된 문학이론서이다.

인이 진실로 조금 더 나아가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니, 이에 문도 중 쟁쟁한 이에게 명하여 교대로 설법하도록 하여<sup>272)</sup> 조용히 법문을 다하니<sup>273)</sup> 막힌 것을 뚫고, 번거로운 것은 사라져, 마치 가을 바람이 음애(陰霏)한 구름을 보내듯 하였다. 이에 임금이 크게 기뻐서 대사를 늦게 보게 된 것을 한 하면서 “몸을 공손히 남면(南面)한 이에게 선종(禪宗)을 가르쳐 주시니,<sup>274)</sup> 순(舜)은 어떤 사람이고, 또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sup>275)</sup>라고 말하였다.

上曰, “弟子不佞, 小好屬文. 嘗覽劉勰文心, 有語云, ‘滯有守無, 徒銳偏解. 欲詣真源, 其般若之絕境.’ 則境之絕者, 或可聞乎.” 大師對曰, “境既絕矣, 理無矣, 斯印也, 默行爾.” 上曰, “寡人, 固請少進.” 爰命徒中錚錚者, 更手撞擊, 春<sup>276)</sup>容盡聲, 剖滯祛煩, 若商飆之劃陰靄然. 於是上大喜, 懊見大師晚曰, “恭已南面, 司南南宗, 舜何人哉, 余何人也.”

물러나온 후 경상(卿相)들이 맞이하여 더불어 이야기 하느라 겨를이 없

272) 경수당격(更手撞擊): 왕이 무염대사에게 법문을 청하니, 그는 제자 가운데 쟁쟁(錚錚)한 자에게 미루어 법문(法門)하게 하자, 제자가 왕이 묻는대로 척척 대답하여 마치 번갈아 종을 치듯 설법해 주었다는 말이다.

273) 용용진성(春容盡聲): 용용은 종을 계속 거듭친다는 뜻으로 설법한다는 말이다. 『예기』「학기學記」에 “善學者師逸而功倍 又從而庸之 不善學者師勤而功半 又從而怨之 善問者如攻堅木 先其易者 後其節目 及其久也 相說以解 不善問者反此 善待問者如撞鐘 叩之以小者則小鳴 叩之以大者則大鳴 待其從容 然後盡其聲 不善答問者反此 此皆進學之道也”라 하였다.

274) 사남남종(司南南宗): 육조혜능을 이은 남종선의 종지를 가르쳐 준다는 말이다.

275) 순하인재여하인야(舜何人哉余何人也): 누구라도 순과 같은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 『맹자』「등문공滕文公」상에 “成甌謂齊景公曰 彼丈夫也 我丈夫也 吾何畏彼哉 顏淵曰 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公明儀曰 文王我師也 周公豈欺我哉”라한 안연(顏淵)의 말이다.

276) [全文]의 春은 春의 오자임.



있고, 사인(士人)과 서인(庶人)들이 마음을 기울여 받드니 떠나려 하나 갈 수 없었다. 이로부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옷 속의 구슬(衣珠)을 알았고, 이 옷의 노인도 처마 밑의 보배를 엿보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다.<sup>277)</sup> 조금 있다가 새장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껴<sup>278)</sup> 곧 도망하듯 가버렸다. 임금이 억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이에 교서<sup>279)</sup>를 내리니 상주(尙州)의 심묘사(深妙寺)가 서울에서 멀지 않으므로 선나별관(禪那別館)으로 할 것을 청하였다. 스님은 굳게 사양했으나 할 수 없어 그 곳으로 가서 머물게 되었다. 하루를 머물더라도 받드시 수리하였으니, 엄연하게 훌륭한 절이 되었다.

旣出卿相延迓，與謀不暇，士庶趨承，欲去不能。自是，國人皆認衣珠，隣叟罷窺廡玉焉。俄苦樊<sup>280)</sup>箴中，卽亡去。上知不可強，迺降芝檢，以尙州深妙寺，不遠京，請禪那<sup>281)</sup>別館。辭不獲，

277) 인수괴구무옥(隣叟罷窺廡玉) : 사랑채 마루밑에 방치된 귀중한 보옥(寶玉)을 아무도 몰랐는데, 이웃사람이 알아냈다는 뜻으로, 중생들이 자성(自性)의 진보(眞寶)를 알지 못하였는데 무염화상이 깨우쳐 주어 알게 되었으므로, 이웃집 노인이 알려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윤문자尹文子』 「대도大道」, “魏田父有耕於野者 得寶玉徑尺 弗知其玉也 以告隣人 隣人陰欲圖之 謂之曰 怪石也 畜之弗利其家 弗如一復之 田父雖疑 猶錄以歸置於廡下 其夜玉明 光照一室 田父稱家大怖 復以告隣人 曰 此怪之徵 過棄殃可銷 於是遽而棄於遠野 隣人無何 盜之以獻魏王 魏王召玉工相之 玉工望之 再拜而立 敢賀曰 王得此天下之寶 臣未嘗見王問價 玉工曰 此玉無價以當之 五城之都 僅可一觀 魏王立賜獻玉者千金 長食上大夫祿”.

278) 아고번노중(俄苦樊箴中) : 번노는 새 기르는 도구로서, 무염화상이 비록 왕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 궁중에 주석하고 있었지만, 마치 새장에 갇힌 것과 같다는 말이다.

279) 지검(芝檢) : 왕의 친서이니, 수결(手結)과 같은 것이다. 『서명기瑞命記』, “王者德仁 則芝草生 故王之手書 謂芝檢”.

280) [全文]의 樊은樊의 오자임.

往屋之. 一日必葺,<sup>282)</sup> 儼若化城.

건부 3년<sup>283)</sup> 봄에 선대왕이 몸이 편치 않아 근시(近侍)에게 명하기를 “빨리 우리 대의왕(大醫王)을 모셔 오라”<sup>284)</sup>고 하였다. 사자(使者)가 심묘사(深妙寺)에 이르니 대사가 “산승(山僧)의 발이 대궐에 닿는 것이 한번도 지나치다 할 것인데,<sup>285)</sup> 나를 아는 자는 성주(聖住)가 무주(無住)로 바뀌었다 할 것이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염(無染)이 유염(有染)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우리 임금과 더불어 향화인연<sup>286)</sup>이 있는데 세상 떠날 날<sup>287)</sup>이 기억되어 있으니, 어찌 나아가 한번 작별하지 않으랴”고 말하고는, 다시 궁궐에 이르렀다. 약언(藥言)인 법문과 잠계<sup>288)</sup>를 베푸니 곧 병이 나았으므로 온 나라가 신비하게 여겼다. 그러나 달을 넘겨(임금이 죽으니)<sup>289)</sup> 헌강대왕(獻康大王)이 익실(翊室)에 거하게 되었다.<sup>290)</sup> 을

281) [全文] [苑] [總覽]의 郝은 那의 오자임.

282) [全文]의 葺과 [苑] [總覽]의 葺는 葺의 오자임.

283) 건부삼년(乾符三年): 건부는 당나라 희종(僖宗)의 연호(874~879)로, 건부 3년은 신라 헌강왕 2년인 876년이다.

284) 영아대의왕래(迎我大醫王來): 왕이 아파 누워서 우리 대의왕이신 무염화상을 빨리 모셔오라는 뜻이다.

285) 일지위심(一之謂甚): 왕의 청(請)으로 왕성(王城)에 한번 나가는 것도 본의가 아니었는데, 또 어찌 나가겠느냐는 뜻이다.

286) 향화인연(香火因緣): 불교와 관련한 인연을 말한다.

287) 도리지행(勿利之行): 여기서는 임금의 죽음을 말하는데, 도리(勿利)는 육계육천의 두 번째 하늘인 도리천(勿利天)이다. 승천(昇天) 또는 빈천(賓天)이라고도 한다.

288) 잠계(箴戒): 국정(國政)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자문해 주는 것이다.

289) 『삼국사기』권11「신라본기」11 경문왕景文王에는 경문왕의 죽음을 건부 2년 7월 8일이라 하니 앞의 건부 3년과 1년의 차이가 있다.

290) 거익실(居翊室): 경문왕이 돌아가시자 헌강왕이 상주(喪主)로 결방에 거하게 된

면서 왕손 훈영<sup>291)</sup>에게 명하여 뜻을 알리되 “내가 어려서 부친상<sup>292)</sup>을 만나 정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임금이 되어 부처님을 받들어 널리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홀로 자기 몸만을 착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대사는 멀리 가지 마시고 거처할 곳을 마음대로 택하십시오” 하였다. (대사가) 대답하여 “옛날의 스승으로 6경<sup>293)</sup>이 있고 지금 보필하는 신하로는 3경(卿)이 있습니다. 늙은 산승이 무어라고 앉아서 누리와 쯔벌레처럼 땀나무와 좋은 음식을 쯔먹겠습니까.<sup>294)</sup> 세 마디가 있사오니,<sup>295)</sup> 어찌 더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능관인<sup>296)</sup>입니다’라고 하였다.

것을 말한다.

291) 훈영(勛榮): 훈영(勳榮)으로도 쓴다. 「창림사무구정답원기昌林寺無垢淨塔願記」, “監修造使從叔新授康州泗受縣令金勳榮”.

292) 민흥(閔凶): 현강왕이 어려서 부모의 상을 당하였다는 뜻이다.

293) 육적(六籍): ① 유교의 육경(六經)은 『시경』, 『서경書經』, 『역경易經』, 『예기禮記』, 『춘추春秋』, 『악경樂經』이고, ② 불교의 육종경(六種經)은 『대반야경大般若經』, 『금강경金剛經』, 『유마경維摩經』, 『능가경楞伽經』, 『원각경圓覺經』, 『능엄경楞嚴經』이다.

294) 황두계옥(蝗蠹桂玉): 황(蝗)은 곡식의 싹을 먹는 벌레이고, 두(蠹)는 쯔벌레이며, 계옥(桂玉)은 땀나무와 식량을 말한다. 『전국책戰國策』 「초책楚策」, “蘇秦之楚 三日乃得見乎王 談卒 辭而行 楚王曰 寡人聞先生若聞古人 今先生乃不遠千里而臨寡人 曾不肯留 願聞其說 對曰 楚國之食貴於玉 薪貴於桂 謁者難得見如鬼王難得見如天帝 今令臣食玉炊桂 因鬼見帝 王曰 先生就舍 寡人聞命矣”.

295) 기유삼언(既有三言): 부왕이 자신에게 정치는 능관인(能官人)이라는 삼자(三字), 즉 정치는 정치에 능한 사람에게 맡기라는 유훈(遺訓)을 남겼다는 말이다.

296) 능관인(能官人): “능력있는 관리”, 즉 “능력있는 이를 관리로 등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유학적인 능력과 실무적인 행정능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은 신분과는 거리가 먼 요소들이다. 따라서 6두품 출신인 낭해는 신분에 의하여 모든 특권과 제약이 가해지던 신라의 골품체제 아래에서 신분보다는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미희, 「신라 경문왕·현강왕대의 ‘능관인’ 등용정책과 국학」 『동아연구』 17, 1989.

乾符三年春, 先大王不預, 命近侍曰, “亟迎我大醫王來.” 使至, 大師曰, “山僧足及王門, 一之謂甚, 知我者, 謂聖住爲無住, 不知我者, 謂无染爲有染乎, 然顧與吾君, 有香火因緣, 忉利之行, 有期矣, 盍就一訣.” 復步至王屋. 設藥言施箴戒, 覺中愈, 舉國異之. 旣踰月, 獻康大王, 居翌室. 泣命王孫勛榮, 諭旨曰, “孤, 幼遭閔凶, 未能知政, 致君奉佛, 誦濟海人, 與獨善其身, 不同言也, 幸, 大師, 無遠適, 所居唯所擇.” 對曰, “古之師則六籍在, 今之輔則三卿在. 老山僧, 何爲者, 坐蝗蠹桂玉哉. 旣<sup>297)</sup>有三言, 庸可留獻. 曰, ‘能官人’.”

이튿날 (대사는) 산으로 가는 행장을 꾸리어 새처럼 가버렸다. 이로부터 역마가 소식을 전하느라 그림자가 산중에 줄을 이었다. 역졸들은 가는 곳이 성주사인 것을 알면 모두 떨듯이 기뻐하며 손을 모아 말고삐를 고쳐 잡고 왕사(王事)를 위한 노정이 조금이라도 막힐까 염려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기상시<sup>298)</sup>의 무리들은 임금의 급한 명령을 받아 쉽게 거행하였다. 당 희종(僖宗)이 (현강왕을) 책봉하던 해<sup>299)</sup>에 국내에서 도를 말할 수 있는 자에게 이로움을 늘리고 해로움을 없앨 방책(方策)을 바치도록 하고, 특별히 만전<sup>300)</sup>에 글을 써보내니 “하늘의 충애를 입었음은 그럴 만한 까닭이

297) [全文]의 就는 旣의 오자임.

298) 기상시(騎常侍): 임금을 시종(侍從)하는 관명(官名)으로 선전관(宣傳官)과 같은 직책의 관. 『통전通典』「직관지職官志」.

299) 건부제석명지세(乾符帝錫命之歲): 건부 5년인 현강왕 4년에 당 희종이 현강왕을 ‘사지절개부의동삼사검교대위대도독계림주제군사신라왕(使持節開府儀同三司檢校大尉大都督鷲林州諸軍事新羅王)’에 책봉한 사실이 있었던 해인 878년을 말한다.

300) 만전(蠻牋): 고구려에서 생산되던 종이인 소지(蕭紙)로 우리 나라 종이를 일컫

있어서이다.” 나라에 도움이 되는 물음을 내린데 대해 대사는 하상지<sup>301)</sup>가 송문제(宋文帝)에게 좋은 일을 하도록 권하고, 나쁜일은 하지 않도록 간하던<sup>302)</sup> 말<sup>303)</sup>을 인용하여 대답하였다. 태부왕<sup>304)</sup>이 이를 보고 동생인<sup>305)</sup> 남궁상<sup>306)</sup>에게 이르기를 “삼외<sup>307)</sup>는 삼귀의<sup>308)</sup>에 비견되며, 오상<sup>309)</sup>은 오계<sup>310)</sup>와 같다. 능히 왕도를 실천하는 일, 이는 바로 불심(佛心)에 부합된다. 대사의 말씀이 지극하시니, 나와 너는 마땅히 삼가하여 노력하도록 하지<sup>311)</sup>”고 하

는다.

- 301) 하상지(何尚之): 남조(南朝) 송인(宋人). 자(字)는 언덕(彦德)이고 시(諡)는 간목(簡穆)으로 상서령좌광록개부의동삼사(尚書令左光祿開府儀同三司)에 이르렀다. 『송서宋書』권66; 『남사南史』권30.
- 302) 헌제(獻替): 헌가체부(獻可替否)의 준말. 신하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왕에게 상소하면, 왕은 이를 받아 옳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고,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버린다는 말. 『후한서』권44「호광胡廣」, “廣復與敞度上書駁之曰 臣聞君以兼覽博照爲德 臣以獻可替否爲忠”.
- 303) 심성(心聲): 언어란 마음의 소리이라고 한 양자(揚子)의 말에서 나온 용어이다. 『법언法言』「문신問神」, “言心聲也 書心書也”.
- 304) 태부왕(太傅王): 현강왕이 태부에 추증된 데서 붙여진 명칭이다. 최치원, 「사추증표謝追贈表」, “臣坦言 伏奉制旨 追贈亡父臣凝爲太師 亡兄臣最爲太傅”; 『삼국사기』권11「신라본기」11 진성왕즉위.
- 305) 개제(介弟): 동생 중에 큰 동생을 말한다.
- 306) 남궁상(南宮相): 예부령(禮部令).
- 307) 삼외(三畏): 군자가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세 가지로 천명(天命), 대인(大人), 성인(聖人)의 말씀을 지칭한다. 『논어』「계씨季氏」, “君子有三畏 畏天命 畏大人 畏聖人之言”.
- 308) 삼귀의(三歸依): 삼보(三寶)인 불보(佛寶)·법보(法寶)·승보(僧寶)에 귀의(歸依)한다는 말로, 귀의불(歸依佛), 귀의법(歸依法), 귀의승(歸依僧)이다.
- 309) 오상(五常): 유교(儒敎)의 덕목인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을 말한다.
- 310) 오계(五戒): 불교의 계율로 불살생(不殺生)·불투도(不偷盜)·불사음(不邪淫)·불망어(不妄語)·불음주(不飲酒)이다.

였다.

翌日, 挈山裝鳥逝. 自爾, 騎置傳訊, 影綴巖溪. 遽人, 知往抵聖住, 卽皆雀躍, 叢手易轡, 慮滯王程尺寸地. 由是騎常侍倫伍, 得急宣, 爲輕舉. 乾符帝錫命之歲, 令國內舌杪有可道者, 貢興利, 除害策, 別用蠻牋書言, “荷天寵, 有所自因.” 垂益國之間, 大師, 引出何尚之, 獻替宋文帝心聲爲對. 太傅王覽, 謂介弟南宮相曰, “三畏比三歸, 五常均五戒. 能踐王道, 是符佛心. 大師之言, 至矣哉, 吾與汝, 宜惓惓.

중화연간 황소의 난으로 인해 천자가 서쪽으로 몽진하던 해(881) 가을<sup>312)</sup>에 임금이 시자에게 “나라에 큰 보배가 있으니, 죽을 때까지 껍 속에 감추어 두는 것이 옳은가” 하고 물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한번 나와서 많은 이의 눈을 뜨게 하며, 사방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고 하였다. (임금이) “나에게 여의주<sup>313)</sup>가 있으니, 빛을 숨기고 숨엄산<sup>314)</sup>에 있다. 만약 비장(秘藏)을 연다면 마땅히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비추어 뚫을 것이니, 어찌 12승<sup>315)</sup>으로써 족히 말할 수

311) 권권(惓惓): 조심하며 정성스러운 태도로 진심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데, 충근(忠謹)이라고도 한다.

312) 중화서수지년추(中和西狩之年秋): 881년 가을에 황소가 당의 장안(長安)을 점거하므로 희종(僖宗)이 촉(蜀)으로 피난하였던 때로, 신라 헌강왕 7년을 말한다(‘황소의 난’, 875~884).

313) 말니(末尼): 마니(摩尼)와 같은 말로 여의주(如意珠)라 번역한다.

314) 김입지 찬(撰) 「사적비평」에는 암(巖)으로 되어 있다.

315) 십이승(十二乘): 직경이 일촌(一寸)인 큰 구슬이 전차(戰車) 12승(乘)을 비추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사기』 「전경중완세가田敬仲完世家」, “尙有徑寸之珠 照車前後各十二乘者十枚”.

있겠는가. 돌아가신 선친 경문왕께서 간절히 맞아들여 일찍이 두 번 드러내었다. 옛날에 찬후<sup>316)</sup>가 한왕(漢王)이 대장(大將)을 임명하는데 어린아이 부르는 것 같이 한 것을 나무랐는데, (한왕이) 상산의 사노인<sup>317)</sup>을 불러 내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지금 들으니 천자가 몽진<sup>318)</sup>을 했다고 하므로, 재촉하여 달려가 관리들을 위문해야 하나<sup>319)</sup> 천자를 섬기는데 가장 돈독히 할 것은 부처님께 귀의함을 먼저 할 일이다. 장차 대사를 맞는데 반드시 공론에 부합하고자 하니, 내가 어찌 감히 권력 하나만을 의지하고 그 나이와 덕망인 둘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sup>320)</sup>”라고 하였다.

中和西狩之年秋，上謂侍人曰，“國有大寶珠，畢世<sup>321)</sup>而藏之，其可耶。”<sup>322)</sup> 曰，“不可，不若時一出，俾醒萬戶眼，醉四隣心。” 曰，“我有末尼<sup>323)</sup>上珍，匿曜在嵩巖山，脫關秘藏，宜照透三千界，何十二乘，足之道哉。我文考懇迎，當再顯矣。昔鄴侯，譏

316) 찬후(鄺侯) : 한(漢)의 소하(蕭何 ?~B.C. 193)로 한의 개국공신(開國功臣)인 찬후(鄺侯)에 봉해졌다. 『사기』「소상국세가蕭相國世家」.

317) 상어사노인(商於四老人) : 진(秦)나라 말에 세란(世亂)을 피하여 상산(商山)에 숨어 살았던 4명의 노인인 동원공(東園公), 하황공(夏黃公), 녹리선생(甬里先生), 기리계(綺里季) 등으로 모두 눈썹과 머리카락이 희었으므로 상산사호(商山四皓)라 하였다. 『사기』「유후세가留侯世家」.

318) 천자몽진(天子蒙塵) : 황소의 난으로 당 회종이 축으로 피난간 것을 말한다.

319) 분문관수(奔問官守) : 달려가 천자의 관리들을 위문하는 것을 말한다. 『춘추좌전』「회공僖公」24년.

320) 의기일만기이재(倚其一慢其二哉) : 기일(其一)은 벼슬인 작(爵)이고, 기이(其二)는 치(齒)와 덕(德)이니, 작을 가진 왕이 나이와 덕망을 지닌 무염화상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맹자』「공손추公孫丑」하, “天下有達尊三 爵一齒一德一 朝廷莫如爵 鄉黨莫如齒 輔世長民莫如德 惡得有其一以慢二哉”.

321) [全文]의 邇과 [苑] [總覽]의 邇는 邇의 오자임.

322) [全文]의 乎는 耶의 오자임.

323) [全文] [苑] [總覽]의 尼는 尼자임.

漢王拜大將，召小兒，不能致商於四老人，以此。今聞，天子蒙塵，趣令奔問官守，勤王加厚，歸佛居先。將邀大師，必叶外議，吾豈敢倚其一，慢<sup>324)</sup>其二哉。”

이에 그 사신을 정중하게 부르고 말을 겸손히 하여 불렀다. 대사가 “외로운 구름이 산의 암굴(岩窟)에서 나오는 것이 어찌 마음이 있어서이겠는가, 대왕의 덕풍(德風)에 인연이 있으니 고집하지 않는 것<sup>325)</sup>이 곧 상사(上士)의 도일 것이다”고 말하고 드디어 가서 뵈었다. (임금이) 인견(引見)하기를 선조(先朝) 때의 의례(儀禮)와 같이 하였으나, 예는 더욱 빛났다. 손꼽을 만한 것으로는, 대면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 하나요, 직접 향을 전한 것이 둘째요, 삼례(三禮)를 세 번 한 것이 셋째요, 작미향로(鵲尾香爐)를 들고 세세생생(世世生生) 동안 인연을 맺은 것이 넷째요, 법명(法名)을 인(印)하여 광종(廣宗)이라 한 것이 다섯째요, 이튿날 어진 이들<sup>326)</sup>에게 궁궐의 스님 계신 곳에 나아가 기러기처럼 열을 지어 하례(賀禮)토록 명한 것이 여섯째요, 나라 안의 시<sup>327)</sup>를 잘 짓는<sup>328)</sup> 사람에게 귀산(歸山)을 전

324) [全文] [苑]의 慢은 慢의 오자임.

325) 무고(無固): 공자절사(孔子絕四) 중의 하나이니, 무의(無意: 자의가 없고), 무필(無必: 기필이 없고), 무고(無固: 고집이 없고), 무아(無我: 독존이 없다). 무고란 고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논어』「자한」. “子絕四 毋意 毋必 毋固 毋我”.

326) 진로(振鷺): 해오라기가 떼로 나는 것으로 결백한 어진이를 말한다. 『시경』「주송周頌」‘진로振鷺’, “振鷺于飛 于彼西雝”.

327) 육의(六義): 중국 고대의 시론(詩論)으로 풍(風), 아(雅), 송(頌), 부(賦), 비(比), 흥(興)인데, 주례(周禮)의 춘관(春官)인 종백(宗伯)과 시전(詩典)의 대서(大序)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모시毛詩』의 「대서大序」에 “先王 以是經夫婦 成孝敬 厚人倫 美教化 移風俗 故詩有六義焉 一曰風 二曰賦 三曰比 四曰興 五曰雅 六曰頌”이라고 하였다.

328) 차마(磋磨): 절차탁마(切磋琢磨)로 갈고 닦는다는 뜻이다. 『시경詩經』「위풍衛



송하는 시를 짓게 하였는데, 재가제자(在家弟子) 왕손(王孫)인 소판(蘇判) 억영(嶷榮)이 먼저 지어 읊고 시를 모아 두루마리를 만들었으며 시독겸 한림(侍讀兼翰林)으로서 재주가 뛰어난 박옹(朴邕)이 서<sup>329)</sup>를 지어, 돌아가는 길에 증정한 것이 일곱째이며, 거듭 장차<sup>330)</sup>에게 명하여 정결한 방을 마련하고 작별을 나눈 것이 여덟째다.

乃重其使，卑其辭微之。大師云，“孤雲出岫，寧有心哉，有緣乎大王之風，無固，乃上士之道。”遂來見。見如先朝禮，禮之加焯然。可屈指者，面供饌，一也，手傳香，二也，三禮者三，三也，秉鵲尾爐，締生生世世緣，四也，加法稱曰廣宗，五也，翌日，命振鷺趨鳳樹鴈列賀，六也，教國中磋磨六義者，賦送歸之什，在家弟子王孫蘇判嶷榮，首唱，斂成軸，侍讀翰林才子朴邕，爲引而贈行，七也，申命掌次，張淨室，要叙別，八也。

고별에 다달아 묘한 말씀을 구하니 (대사가) 이에 따라온 제자들에게 눈짓을 하여 요긴한 법문을 베풀게 하니 순예(詢父), 원장(圓藏), 허원(虛源), 현영(玄影) 등인 네 사람은 모두 사선중(四禪中)에서 청정함을 얻은 자로, 그 지혜를 복실처럼 뽑아 섬세한 뜻을 나타내었으며, 마음을 다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니 왕의 마음을 깨우치고도 남음이 있었다. 임금이 매우 기뻐하며 읊하여 절하면서<sup>331)</sup> “옛날에 선친께서는 비파를 버린 현인<sup>332)</sup>이었지

風」기오淇輿，“有斐君子 如切如磋 如琢如磨 瑟兮僴兮 赫兮喧兮 有斐君子 終不可諼兮”라 하였고, 『대학』에서는 이에 대해 “如切如磋者 道學也 如琢如磨者 自修也”라고 설명하였다.

329) 위인(爲引): 인(引)은 서(序)와 같은 뜻으로 위인은 서문을 삼았다는 뜻이다.

330) 장차(掌次): 왕실에 관계된 일을 맡아 하는 관청. 『주례周禮』「왕환王宦」장차掌次.

만, 지금 과인은 자리를 피하던 아들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sup>333)</sup> 왕위를 이어 도를 물었고<sup>334)</sup> 이를 마음에 새겨서 혼돈의 근원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저 위수(魏水)의 노인<sup>335)</sup>은 참으로 명예를 구한 사람이고 이상의 유자<sup>336)</sup>는 대개 전인(前人)의 자취를 밟았을 뿐이므로 비록 왕자(王者)의 스승이 되었다 하나 한갓 세 치의 혀만 놀린 것이니, 어찌 우리 스님께서 가만히 일편심(一片心)을 전한 것과 같겠습니까. 받들어 모든 행동에서 감히 실추시키지 않겠습니까”고 하였다. 태부왕은 본래 중국말<sup>337)</sup>을 잘해서 그 소리가 금옥(金玉) 같았는데, 많은 사람이 떠드는 것을 개의치 않고 말을 하기

331) 대배(擡拜): 손을 읍하여 절을 하는 것으로 예배(禮拜)의 지극함을 나타낸 것이다.

332) 사슬지현(捨瑟之賢): 슬(瑟)은 금슬(琴瑟)이니 처(妻)를 뜻하므로 나라를 위해 처를 버릴 수 있는 지사(志士)라는 뜻이다.

333) 첨피석지자(忝避席之子): 피석(避席)은 증자(曾子)가 공자(孔子)에게 고(告)할 때 피석하는 태도로써 하였다는 것에서 나온 말로 스승에 대한 지극함을 가리킨 것인데, 임금은 자신이 이를 욕되게 한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334) 공동지청(崆峒之請): 공동은 산의 이름이니, 황제(黃帝)가 광성자(廣成子)로부터 도(道)를 물었던 장소인 전설의 산인데,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공동(空同)과 통한다. 『장자』「재유在宥」, “黃帝聞廣成子 在於空同之上 故往見之”; 「지증대사적조답비문智證大師寂照塔碑文」 주408)공동지미崆峒之美 [신라편] p.336참조.

335) 위빈노옹(渭濱老翁): 위수(渭水)에서 항상 낚시를 드리우고 세월을 보냈던 강태공(姜太公)을 말한다. 『사기』「제태공세가齊太公世家」.

336) 이상유자(垺上儒子): 다리위의 선비라는 말로써 장량(張良)을 가리킨다. “다리위의 만남(垺上之會)”이라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장량이 젊었을 때, 하비(下邳; 江蘇省 북부에 위치한 邳州의 옛 이름) 땅의 다리 위에서 도사(道士) 황석공(黃石公)을 만나 『태공병법太公兵法』을 전해 받고, 이 책을 익힘으로써 유방을 도와 한(漢)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일을 말한다. 『사기』「유후세가留侯世家」.

337) 화언(華言): 화려한 말 또는 중국말의 뜻인데, 여기서는 중국말의 뜻. 『고운최선생문집孤雲崔先生文集』「사사조서양함표謝賜詔書兩函表」에 ‘아선진언雅善秦言’이란 말이 있다.

만 하면 변려체(駢麗體)의 문장이 되어 마치 미리 문장을 지어 놓고 말하는 것과 같을 정도였다.

臨告別，求妙訣，乃昀從者，舉真要，有若詢乂，圓藏，虛源，玄影，四禪中，得清淨者，緒抽其慧，表纖旨，注意無怠，沃<sup>338)</sup>心有餘。上甚悅，擡拜曰，“昔文考爲捨瑟之賢，今寡人，忝避席之子。繼體得崆峒之請，服膺開混沌之源。則彼渭濱老翁，真釣名者，圯上孺子，蓋履迹焉，雖爲王者師，徒弄三寸舌也，曷若吾師語密，傳一片心乎。奉以周旋，不敢失墜。”太傅王，雅善華言，金玉音，不患衆咻<sup>339)</sup>聒，而能出口，成儷語，如宿構云。

대사가 물러나오면서 왕손인 소판 일(鎰)을 만나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고는 곧 감탄하여, “옛날의 임금들 중에는 법통은 있었지만 그 정신을 잇지는 못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임금은 이 둘을 다 갖추었고, 신하들이 공재<sup>340)</sup>는 있지만 공망(公望)이 없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당신은 모두 갖추었으니 나라가 잘 될 것 같다. 마땅히 덕을 숭상하고 스스로 사랑하라”하고는 하직하고 돌아갔다.

大師旣退且往，應王孫蘇判鎰，共言數返，卽歎曰，“昔人主有遠軀而無遠神者，而吾君備，人臣有<sup>341)</sup>有公才而無公望者，而吾全，國其庶乎。宜好德自烝。”<sup>342)</sup>及歸謝絕。

338) [全文] [苑]의 沃은 沃의 오자임.

339) [全文] [總覽]의 咻는 咻의 오자임.

340) 공재(公才): 재상이 될 만한 재주.

341) [全文]의 有公有才是 有有公才의 오식(誤植)임.

342) [全文]에는 爰, [苑]의 烝은 爰의 고자(古字)임.

이에 사자(使者)를 보내 방생장계(放生場界)를 표하니<sup>343)</sup> 새와 짐승들이 기뻐하였고, 은구<sup>344)</sup>를 얹어 성주사라는 제액(題額)을 썼는데 용과 뱀이 살아 있는 듯하였다.<sup>345)</sup> 훌륭한 일을 마치고 (현강)왕이 홀연히 돌아가셨다.<sup>346)</sup> 정강대왕이 왕위를 계승하여서도 양조<sup>347)</sup>에 은총을 입었던 것을 본떠서 행하였다. 스님(緇)과 신도(素), 그리고 중사(重使)로 하여금 모셔오게 하였으나 (대사께서)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사양하였다.

於是，遣<sup>348)</sup>輜軒標<sup>349)</sup>放生場界，則鳥獸悅。紐銀鉤札<sup>350)</sup>聖住寺題，則龍蛇活。盛事畢矣，昌期忽兮。<sup>351)</sup>定康大王莅阼，兩朝寵遇師<sup>352)</sup>而行之。使緇素重使迎之，辭以老且病。

태위대왕<sup>353)</sup>이 은혜를 내림이 바다와 같았으며, 덕을 우리르는 것이 높

343) 표방생장계(標放生場界) : 국가에서 유명한 사찰에 대해 주위 사방(四方)에 경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는 살생(殺生) 즉 사냥 등을 금하는 계시판과 같은 표시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장생석표(長生石標)와도 같다.

344) 은구(銀鉤) : 은(銀)으로 만든 갈퀴리 또는 은제의 발고리(簾鉤)로, 여기서는 공교한 필적(筆跡)의 뜻이니 은자(銀字)로 하사(下賜)한 성주사(聖住寺)라는 편액(扁額)을 말한다.

345) 용사활(龍蛇活) : 성주사라고 쓴 어필편액(御筆扁額)의 글자획이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용과 뱀같다는 말이다.

346) 창기(昌期) : 성한 시기로, 현강왕의 치세(治世)를 뜻한다.

347) 양조(兩朝) : 신라의 제48대 경문왕과 제49대 헌강왕.

348) [全文] [總覽]의遣는遣의오자임.

349) [苑]의標는標의오자임.

350) [苑] [全文] [總覽]의扎은札의오자임.

351) [全文]의焉은兮의오자임.

352) [全文] [總覽]의帥는師의오자임.

353) 태위대왕(太尉大王) : 태위(太尉)는 진대(秦代)에 대사마(大司馬)를 고쳐 설치한 관직이다. 본래는 무사(武事)를 담당한 관(官)이었지만 3공(公)의 하나로서 대

은 산과 같았는데, 왕위를 이은 지 90일 동안 서신을 보낸 것만도 무려 열 번이었다.<sup>354)</sup> 얼마 후 허리가 아프다는<sup>355)</sup> 소식을 듣고 급히 국의(國醫)에게 가서 치료하도록 명령하였다. 국의가 이르러 괴로운 상태를 물으니<sup>356)</sup> 대사가 빙그레 웃으며 “노병(老病)일 뿐이니 번거로이 치료하지 말라”고 하였다. 죽과 밥의 두끼를 먹는데<sup>357)</sup> 반드시 공양 종소리를 들은 후에 올렸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력이 약해질까 걱정하여서 북을 치는 공양주에게 가만히 부탁해서 거짓으로 시간 전에 치게 하였다. 이에 (대사가) 들창 밖을 내다보고 점심시간이 안되었으니 거둘 것을 명하였다.<sup>358)</sup>

太尉大王，流恩表海，仰德高山，嗣位九旬，馳訊十返。俄聞  
 腎<sup>359)</sup>腰之苦，遽命國醫往爲之。至則請苦狀，大師微破顏曰，

사도(大司徒：丞相)를 보좌하였다. 한대(漢代)에도 이 제도를 답습하였는데 무제(武帝) 때 대사마로 이름을 고쳤으며,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 다시 태위의 이름을 회복하였다. 그 지위는 3공의 으뜸이었는데 후일 그 실권을 잃었다고 하지만 3공의 하나로써 명초(明初)에 폐지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구당서』 「신라」에는 중·하대 무렵 신라 국왕들이 당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을 때에 ‘검교태위(檢校太尉)’의 관직을 아울러 제수받았던 사례를 많이 보여준다. 본비에서 태위대왕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문맥상 무염이 입적할 때의 신라 국왕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성여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354) 사위구순 치신십반(嗣位九旬馳訊十返)：정강왕이 즉위한 지 3개월 동안에 무염 화상에게 문안편지를 보낸 것이 열 번이라는 뜻이다.

355) 개요지고(腎腰之苦)：허리 아픈 병인 요통(腰痛)을 말한다.

356) 청고상(請苦狀)：의사가 환자에게 병고(病苦)의 증상을 묻는 것이다.

357) 미손이시(糜殮二時)：불교의 식사 규정이니 아침에는 죽을, 점심에는 밥을 먹고 오후 불식으로 저녁은 먹지 않으므로 미손이시라 말한다.

358) 음계장포자양밀격내목용이명철(陰戒掌枹者陽密擊乃目牖而命撤)：무염 화상이 공양시간을 알리는 운집종과 북을 친 연후에야 공양을 받으므로 제자들이 북을 치는 사람에게 비밀히 미리 치게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스님은 문 틈으로 내다보고 대중들의 공양시간이 될 때까지 수공(受供)을 거부한 것을 말한다.

359) [全文]의 腎는 腎의 오자임.

“老病耳，無煩治。”糜殮二時，必聞鍾後進。其徒憂食力虧，陰戒掌枹者，陽密擊。乃目牖而命撤。

장차 열반(涅槃)에 들려고 할 때 시자(侍者)에게 명하여 유훈(遺訓)을 대중<sup>360)</sup>에게 내려 경계하기를 “이미 여든 살이 넘었으니<sup>361)</sup> 죽음을 피하기 어렵다.<sup>362)</sup> 나는 멀리 가려 하니<sup>363)</sup> 너희들은 잘 있거라. 강(講)하기를 한결 같이 하며, 잘 지켜 잃지 않도록 하라. 옛날 관리들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으니, 오늘의 선승들도 마땅히 힘쓰도록 하라”고 당부하는 마지막 말씀을 하고는<sup>364)</sup> 꿈쩍하지 않고<sup>365)</sup> 입적하였다.

將化往，命旁侍，警遺訓于介衆曰，“已過中壽，難逃大期。我儂遠遊，爾曹好住。講若畫一，守而勿失。古之吏，尚如是，今之禪，宜勉旃。”告訣裁罷，慙<sup>366)</sup>然而化。

대사는 성품이 공손하고 삼가하며 말로써 화합의 기운을 상하게 하지 않았으니, 『예기禮記』에 “사람과 상대할 때는 몸을 겸손하게 하고, 말은 삼

360) 개중(介衆): 개는 대(大)의 뜻이므로 대중이라는 뜻이다.

361) 이과중수(已過中壽): 상수(上壽)는 100세, 중수(中壽)는 80세, 하수(下壽)는 60세인데 『장자』 「도척盜跖」, 무염스님은 88세를 살았으므로 이미 중수를 지났다고 표현한 것이다.

362) 난도대기(難逃大期): 태어남이 있는 자는 누구나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말로 생자필멸(生者必滅)과 같은 뜻이다.

363) 아농원유(我儂遠遊): 아농은 나란 뜻으로, 곧 이세상을 떠나 멀리 간다는 것으로 열반에 들겠다는 뜻이다.

364) 고결재과(告訣裁罷): 마지막 임종 때 후사를 당부하는 유언을 끝내자마자라는 의미이다.

365) 집연(慙然): 안정된 모습.

366) [全文]의 熱은 慙의 오자임.

가하였다<sup>367)</sup>”고 이른 사람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배우는 동료들이 반드시 그를 ‘선사(禪師)’로 지목하였다. 빈객(賓客)을 대함에는 일찍이 존비(尊卑)의 차별을 두지 않은 까닭에, 방에는 가득이 자비가 넘쳤으며 훈도<sup>368)</sup>들이 즐거이 따랐다. 5일을 기한으로 삼아서 법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질의하게 하였다.

大師性恭謹，語不傷和氣，禮所云，“中退然，言訥訥然者乎。”  
 黷侶必目以禪師。接賓客，未嘗殊敬乎尊卑，故滿室慈悲，烝徒  
 悅隨。五日爲期，俾來求者質疑。

생도를 가르침에 있어서는 “마음이 비록 몸의 주인이지만, 몸이 마음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근심할 것이지, 어찌 도가 너희를 멀리 하겠는가. 설사 농부<sup>369)</sup>들일지라도 속세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가면 반드시 마음도 따라 오니, 도사(道師)와 교부(敎父)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어찌 중자가 따로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또 “저 사람이 마신 것으로 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고, 저 사람이 먹은 밥으로는 나의 굶주림을 구하지 못한다. 어찌 노력하여 스스로 마시고 먹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교(敎)와 선(禪)이 같지 않다고 하나, 나는 그러한 중지(宗旨)를 보지 못하였다. 말은 본래 많은 것이라 내가 알 바 아니다. 대략 같다 해도 허여할 만한 것이 아니요, 다르다 해도 그른 것은 아

367) 중퇴연언눌눌연(中退然言訥訥然): 모든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하며, 말은 과묵하게 한다는 말. 『예기』「단궁」‘하’. “文子其中退然如不勝衣 其言訥訥然如不出其口”.

368) 증도(烝徒): 무염화상으로부터 훈습(薰習) 즉 지도를 받은 도중(徒衆)이라는 뜻이다.

369) 전사아(田舍兒): 전사 즉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

니다. 이 고요히 앉아 참선하여 마음의 근본을 쉬는 것이 성인(聖人)에 가까울진저<sup>370)</sup>”라고 하였다. 그 말씀은 분명하고 순하였으며 그 뜻은 심오하고 믿음직하여 상(相)을 찾는 이로 하여금 상이 없음을 알게 하였으니, 길을 가는 사람이 부지런히 나아감에 갈래길 속에 갈래길이 있음을 보지 않는 것과 같았다.

諭生徒則曰, “心雖是身主, 身要作心師. 患不爾思道, 豈遠. 而設是田舍兒, 能擺脫塵羈. 我馳則必馳矣, 道師, 教父, 寧有種乎.” 又曰, “彼所啜, 不濟我渴, 彼所嗽, 不救我餒. 盍努力自飲且食.” 或謂, “教禪爲無同, 吾未見其宗. 語本夥頤, 非吾所知. 大較同弗<sup>371)</sup>與異弗. 非晏坐息機, 斯近縷褐被者歟.” 其言顯而順, 其旨奧而信, 故能使尋相爲無相, 道者勤而行之, 不見有岐<sup>372)</sup>中之歧.

장년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낮추는 것을 생활의 기틀로 삼았고, 밥먹을 때는 양식을 달리 하지 않았으며, 옷도 반드시 똑같이 입었다. 절을 짓거나 고칠 때에는 대중에 앞서 하면서 항상 “불조(佛祖)께서도 일찍이 진흙을 밟으셨는데<sup>373)</sup> 내가 어찌 잠깐이라도 편히 설 수 있으랴”고 말하였으며, 물을 길고 땀나무를 나르는 일까지도 때로는 몸소 친히 하였다. 또한 “산이 나를 위해 흙이 되어 주리니<sup>374)</sup> 내가 어찌 편안하게 지

370) 누갈피자(縷褐被者): 피갈회옥(被褐懷玉)에서 나온 말로, 외모는 천인(賤人)의 옷을 입었지만, 내면은 옥을 품은 것을 말한다. 『노자도덕경』제70장, “是以聖人被褐懷玉”.

371) [全文]의 不은 弗의 오자임.

372) [全文]의 政은 岐의 오자임.

373) 조사상담니(祖師嘗踏泥): 기원정사(祇園精舍)를 지을 때, 부처님께서 사리불(舍利弗)과 가섭(迦葉) 등과 함께 진흙을 밟아 이겼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내리요”라고 말하였다. 그 자기의 사심(私心)을 극복하고 남을 격려한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始壯及衰，自貶爲基，食不異糧，衣必均服。凡所營葺，役<sup>375)</sup>先衆人，每言，“祖師嘗踏泥，吾豈暫安栖。”至撻水負薪，或躬親。且曰，“山爲我爲塵，安我得安身。”其剋己勵物，皆是類。

대사가 어릴 때 유가(儒家)의 글을 읽었는데, 남은 맛이 입에 남아 있어 응대할 때에 운어(韻語)가 많았다. 이름을 들 만한 문하 제자가 2천명에 달하였고, 자리를 잡아 도량을 열었다고 일컬음을 받은 제자로는 승량(僧亮), 보신(普愼), 순예(詢父), 심광(心光) 등을 들 수 있다. 손상좌(孫上座)도 많았는데 그 무리들도 모두 위의를 갖추었다.<sup>376)</sup> 실로 마조가 용의 새끼를 길러 신라가 중국을 뒤덮었다<sup>377)</sup>고 이를 만하다.

大師少讀儒家書，餘味在脣吻，故疇對多韻<sup>378)</sup>語。門弟子名可名者，厯<sup>379)</sup>二千人，索居而稱坐道場者，曰僧亮，曰<sup>380)</sup>普愼，曰

374) 산위아위진(山爲我爲塵) : 산이 나를 위해 먼지가 되어 준다는 것은 내가 죽으면 흙이 된다는 말로 명산이지만 내가 그 산중에 삶으로써 오염시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375) [全文]의 役은 役과 같은 글자임.

376) 궐중제제(厥衆濟濟) : 그 무리들이 위의를(威儀)를 갖추었다는 말로, 제제(濟濟)는 『시경』「대아」문왕(文王)에 “濟濟多士 文王以寧”이라 하고, ‘전傳’에 “濟濟 多威儀也”라 하였다.

377) 동해엄서하(東海掩西河) : 자공(子貢)의 제자인 전자방(田子方)이 서하(西河)에서 제자를 교육하였는데, 학인(學人)이 무려 수천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무염전사도 제자 가운데 이름을 헤아릴 만한 자가 2,000여명에 달하였으므로 이를 비유하여 쓴 말이다.

378) [全文]의 韻은 韻과 같은 글자임.

379) [全文]의 僅은 厯과 같은 글자임.

詢父, 曰心光. 諸孫誥<sup>381)</sup>說, 厥衆濟實. 可謂, ‘馬祖毓龍子, 東海淹西河焉.’

평하노니, 『춘추春秋』<sup>382)</sup>에 이르지 않았는가. “공후(公侯)의 자손은 반드시 처음으로 복귀한다.”<sup>383)</sup>고 하였으니, 옛날 무열대왕<sup>384)</sup>이 을찬<sup>385)</sup>이었을 때 예맥(獺狨)을 치기 위해 군사를 빌릴 계책으로 진덕여왕의 명을 받고 소릉황제<sup>386)</sup>를 뵈었다. 대면하여 이야기하면서 정삭(正朔)을 받고 복장을 바꿀 것을 진술하니, 천자가 기꺼이 허락하고 뜰에서 중국 의복을 하사하고 특진(特進)의 위계(位階)를 주었다.<sup>387)</sup> 천자가 어느 날 여러 번국(蕃國)의 왕자<sup>388)</sup>를 불러 연회를 베풀 때에 많은 술과 보화를 쌓아 놓고, 갖고 싶은대로 마음껏 가지게 하였다. 왕은 이에 술을 마시는 것은 예절을 지키

380) [全文]은 曰이 탈락(脫落).

381) [全文]의 諸孫濟濟 厥衆誥說은 諸孫誥說 厥衆濟實의 오식(誤植)임.

382) 인사(麟史): 인사는 『춘추』를 가리킨다.

383) 『춘추좌전』 민공 원년조.

384) 무열대왕(武烈大王): 태종 무열왕인 김춘추(金春秋)를 말한다.

385) 을찬(乙粦): 신라 17관등의 두 번째인 이찬(伊漣)의 별칭이다.

386) 소릉황제(昭陵皇帝): 당 태종으로, 김춘추가 이찬 당시 진덕여왕의 명을 받아 당에 사신으로 가서 당태종을 배알한 사실을 가리킨다. 『삼국사기』권5「신라본기」5 진덕왕眞德王2년; 『구당서舊唐書』권199「동이열전東夷列傳」‘신라’.

387) 천자가허 정사화장 수위특진(天子嘉許 庭賜華裝 受位特進): 진덕여왕이 즉위 후 김춘추는 당에 가서 태종에게 군사를 빌려줄 것을 청하였는데, 태종이 동감하여 군사를 내줄 것을 승낙하였다. 또한 김춘추가 관리들의 복식을 고쳐서 중국의 제도를 따르겠다고 청하자, 당태종은 진귀한 복장을 내다가 김춘추 등에게 주고 김춘추를 삼공의 아래인 특진으로 삼고 그의 아들 문왕(文王)을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으로 삼은 사실을 말한 것으로, 『삼국사기』권5「신라본기」5 진덕왕2년에 자세히 나와 있다.

388) 제번왕자(諸蕃王子): 천자의 산하에 있는 외방(外邦)의 제후 왕자를 말한다.

어지러움을 막았고,<sup>389)</sup> 비단은 지혜롭게 많이 얻었다. 하직하고 물러 나오는데 문황<sup>390)</sup>이 멀리 갈 때까지 바라보며 “나라를 맡을 만한 그릇이로다”라고 탄복하였다. 떠날 때에 임금이 짓고 쓴 온탕비와 진사비의 두 비문<sup>391)</sup>과 직접 찬술한 『진서晉書』<sup>392)</sup>를 한 질 하사하였다. 이 때 봉각<sup>393)</sup>에서 이 글을 베껴서 두 본으로 만들어 올리니 하나는 저군<sup>394)</sup>에게 하사하고, 하나는 우리에게 주었다. 다시 화자관<sup>395)</sup>에게 명하여 청문(靑門) 밖에서 전송하게 하였는데, 넘치는 총애의 우대함과 예의의 후덕함에 설혹 무지몽매한 이<sup>396)</sup>까지도 눈과 귀가 놀랄 정도였다. 이로부터 우리나라가 일변하여 노나라와 같은 예의국이 되었다.<sup>397)</sup> 그로부터 8세대가 지난 후에 대사가 중국에 유학하고 귀국하여서는 나라를 교화시켜 또 한번 변화시킴으로써

- 
- 389) 왕내배상즉례이방난(王乃杯觴則禮以防亂): 황제가 술을 권함에 한잔에 백배(百拜)를 하여 중일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일지록日知錄』 「잡사雜事」 ‘주금(酒禁)’, “一獻之禮 賓主百拜 終日飲酒 而不得醉焉”.
- 390) 문황(文皇): 당 태종으로, 당 고조(高祖)의 둘째 아들인 이세민(李世民)을 말하는데, 문황은 그의 시호(諡號)이다.
- 391) 어제병서온탕진사비(御製并書溫湯晉祠二碑): 당의 고조가 여산(驪山) 온천에 가서 세운 온탕비(溫湯碑)와 당태종이 정관(貞觀) 2년(628~)에 산서성(山西省) 태원현(太原縣)에 있는 사당(祠堂)에 가서 세운 진사비(晉祠碑)를 말한다.
- 392) 『진서晉書』: 당 태종이 방현령(房玄齡), 이연수(李延壽) 등에 명하여 편찬하게 한 사서(史書)로 서진과 동진의 역사를 기록한 130권의 기전체(紀傳體) 사서이다.
- 393) 봉각(蓬閣): 국가의 귀중문서와 도서(圖書)를 보관하는 관서(官署)로 비서감(秘書監) 혹은 비서성(秘書省)을 말한다. 봉래각(蓬萊閣)이라고도 한다.
- 394) 저군(儲君): 황태자.
- 395) 화자관(華資官):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벼슬아치.
- 396) 농맹호지자(瞽盲乎智者): 지혜에 귀먹고 눈먼 사람이란 뜻이니, 무지몽매한 사람을 말한다.
- 397) 오토일변지어노(吾土一變至於魯): 신라가 한번 변하여 예교(禮敎)있는 노나라와 같이 되었다는 말. 『논어』 「옹야雍也」, “子曰 齊一變 至於魯 魯一變 至於道”.

도에 이르렀으니, 이보다 더 비교할 만한 것이 없으니<sup>398)</sup> 우리 이외에 누구를 위대하다고 할 것인가.

論曰, 麟史不云乎. “公侯之子孫, 必復其始, 則昔武烈大王, 爲乙粲時, 爲屠獫狁乞師, 計將, 眞德女君命陞觀昭陵皇帝. 面陳, 願奉正朔, 易服章, 天子嘉許庭, 賜華裝受位特進. 一日, 召諸蕃王子宴, 大置酒, 堆寶貨, 俾恣滿所欲.” 王乃杯觴則禮以防亂, 繒綵則智以獲多. 泉<sup>399)</sup>辭出, 文皇目送而歎曰, “國器.” 及其行也, 以御製并書溫湯晉祠二碑, 暨御撰晉書一部. 賚之時, 蓬閣寫是書, 裁竟二本, 上一錫儲君, 一爲我賜. 復命華資官, 祖道青門外, 則寵之優, 禮之厚, 設聾盲乎智者, 足亦<sup>400)</sup>駭耳目. 自茲, 吾土一變至於魯. 八世之後, 大師西學而東化, 加一變至於道, 則莫之與京, 捨我誰謂傳矣哉哉.<sup>401)</sup>

선조<sup>402)</sup>는 두 적국을 평정하고<sup>403)</sup> 백성으로 하여금 복식을 변하게 하였는데<sup>404)</sup> 대사는 육마적<sup>405)</sup>을 항복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덕을 닦게 하였다. 그러므로 임금<sup>406)</sup>은 양조(兩朝)에 걸쳐 존경하였으니, 사랑방

398) 막지여경(莫之與京):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399) [全文]의 泉은 泉의 오자임. 泉은 暨의 고자(古字)임.

400) [全文] [苑]의 足亦과 [總覽]의 亦足 중 足亦이 옳은 것 같음.

401) [全文]의 或은 哉의 오자임.

402) 선조(先祖): 태종무열왕

403) 평이적국(平二敵國):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했다는 말이다.

404) 비인변외식(俾人變外飾): 국민들로 하여금 외식(外飾)인 복장을 중국식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말한다.

405) 육마적(六魔賊): 육근(六根: 안眼 이耳 비卑 설舌 신身 의意)의 대상인 육경(六境) 즉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 육근이 육경을 만나 육식(六識)을 일으키니 허공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이 번뇌의 구름이 일어난다.

의 백성들도 멀리서 분주히 쫓아왔는데, 움직이면 반드시 자기의 턱을 움직이는 것 같이 쉬웠고,<sup>407)</sup> 가만히 있어도 속으로 그르다고 하는 이가 없었다.<sup>408)</sup> 어찌 후후(後後) 오백년만인 말세에 삼천대천세계에 몸을 나타내신 이가 아니겠으며, 그 처음으로 복귀한다는 말도 참으로 옳다고 하겠다.<sup>409)</sup> 저 문성후(文成侯)<sup>410)</sup>가 한고조부의 스승이 되어 크게 만호(萬戶)에 봉해지고, 제후의 반열에 들어서서 한(韓)나라 재상의 자손의 극치<sup>411)</sup>를 과시하였으나 보잘 것 없는 일이라 하겠다. 가령 선(仙)을 배우는 것에도 처음과 끝이 있으니, 과연 대낮에 하늘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중도에 그만두면 한 날 덧없는 몸일 뿐이다.<sup>412)</sup> 또한 어찌 우리 대사가 처음에는 세속을 벗어나고, 중간에는 중생을 구제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몸을 깨끗이 한 것과 견줄 수 있겠는가. 훌륭한 덕을 지닌 모습을 찬미하는 것은 옛날부터 송(頌)

406) 천승주(千乘主): 제후 즉 왕을 말하는 것으로, 주(周)나라 제도에 천자의 경우는 기내(畿內)의 사방천리의 영토에서 전쟁을 할 때, 병거만승(兵車萬乘)을 출동시켜야 했고 제후는 병거천승(兵車千乘)을 동원하였다. 이 때문에 왕을 천승주라고도 하였다. 일승(一乘)에는 갑사(甲士) 3인, 보졸(步卒) 72인, 거사(車士) 25인이 속하게 되어 있다.

407) 이사지(頤使之):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의 턱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쉽게 순종한다는 말로, 활동함에 모든 조건이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408) 정무복비자(靜無拂非者): 고요한 가운데에서 수도 정진하므로써 마음에 전혀 걸리는 것이 없고 편안하다는 뜻이다.

409) 하겸호재(何慊乎哉):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겠는가라는 말로, 『맹자』「공손추」‘하’, “吾何以慊乎哉”.

410) 문성후(文成侯): 장량(張良)을 말하는데 자(字)는 자방(子房)이고 문성은 시호이다.

411) 한상자손지극(韓相子孫之極): 장량(張良)의 조상이 한(韓)나라에서 오대(五代)에 걸쳐 승상(丞相)을 역임하였으므로, 한상자손의 극이라 한 것이다.

412) 지득위학배상(止得爲鶴背上): 장량(張良)이 하비(下邳)에서 도사(道士) 황석공(黃石公)을 만나 신선술(神仙術)을 배웠으나, 환구(幻軀)인 육신(肉身)은 영원히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이다.

으로 하였으니, 곧 계송(偈頌)과 같은 것이다. 고요함을 두드려 명을 지으니 그 찬사(讚詞)에 말하기를,

先祖，平二敵國，俾人變外飭<sup>413)</sup>，大師降六魔賊，俾人修內德。故得千乘主，兩朝拜起四方民，萬里奔趨，動必頤使之，靜無腹非者。庸詎非應半，千而顯大千者歟，復其始之說，亦何慊乎哉。彼文成侯爲師漢祖，大誇封萬戶位列侯，爲韓相子孫之極則拙矣。假學仙有終始，果能白日上昇去，於中止得爲鶴背上，一幻軀爾。又焉玃，我大師，拔俗於始，濟衆於中，潔己於終矣乎，美盛德之形容，古尚乎頌，偈頌類也。扣寂爲銘，其詞曰，

도(道)라 할만 하여도 상도(常道)되기는 풀 위의 이슬을 꺾는 것<sup>414)</sup>과 같고,

불도(佛道)에 나아가도 진불(眞佛)이 되기는 물속에 비친 달을 잡는 것<sup>415)</sup>과 같다.

상도와 부처님의 진리를 얻은 이는, 해동(海東)에 있는 김씨(金氏) 큰스님이니,<sup>416)</sup>

본가계(本家系)는 성골(聖骨)에 뿌리하였고, 상서로운 연꽃<sup>417)</sup>의 징조가 보신(報身)을 도왔음이라.

오백년 만에 이 땅을 가려<sup>418)</sup> 열 세살에 속세를 떠났으니,

413) [全文]의 飭과 [苑]의 飭은 같은 뜻. [總覽]에는 飭이나 飾의 오자임.

414) 천초상로(穿草上露): 풀잎 위에 맺힌 이슬.

415) 남수중월(攬水中月): 물속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416) 해동금상인(海東金上人): 상인은 큰스님의 뜻으로, 신라의 김씨스님이라는 말이니 무염스님을 지칭한다.

417) 서련(瑞蓮): 무염화상의 어머니 화씨(華氏)의 태몽에 수비천(修臂天)으로부터 연꽃을 받은 사실을 말한다.

화엄경을 배우다가 조상의 덕으로 봉새의 길을 인도받아, 배를 타고 큰 바다를 건넜다.<sup>419)</sup>

可道爲常道, 如穿草上露,  
 卽佛爲眞佛, 如攪水中月.  
 道常得佛眞, 海東金上人,  
 本枝根聖骨, 瑞蓮資報身.  
 五百年擇地, 十三歲離塵,  
 雜花引鵬路, 竅木浮鯨津.[其一]

중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sup>420)</sup> 큰 스승들을 다 찾아다녔으니,<sup>421)</sup>  
 선배들이 모두 찬탄하였고, 고행(苦行)으로도 미칠 자가 없었다.<sup>422)</sup>  
 법란(法亂)이 일고 또 일어나<sup>423)</sup> 동쪽인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던 것  
 은 하늘의 도움이요,  
 마음의 구슬은 마곡(麻谷)을 빚냈고, 혜안(慧眼)의 거울은 신라<sup>424)</sup>를 밝

- 
- 418) 오백년택지(五百年擇地): 무염화상과 같은 위인(偉人)은 500년만에 한 사람 정도 출현한다는 말이다.
- 419) 관목부경진(竅木浮鯨津): 입당 유학을 위해 조각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경진(鯨津)인 흑산도에 표류하였다는 말이다.
- 420) 관광요일하(觀光堯日下): 중국 땅을 돌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 421) 거벌실능사(巨筏悉能捨): 마곡보철(麻谷寶徹) 회하에서 수도하다가 그가 입적하자, 그 곳을 떠나 유행(遊行)하였다는 말이다.
- 422) 고행무급자(苦行無及者): 무염화상이 마곡회상(麻谷會上)에 있을 때 그곳 일을 도맡아 하였으므로, 대중들이 선문(禪門)의 유검루(庾黔婁)라 칭찬한 일을 말한다. 본비문주199)유이행庾異行 p.143.
- 423) 사지부태지(沙之復汰之): 당의 무종 회창 5년(844)의 불교 사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외국 스님은 모두 본국으로 축출되었으므로, 사태(沙汰)에 사태가 더해진 것으로 표현하였다.

혔도다.

觀光堯日下, 巨筏悉能捨,  
先達皆歎云, 苦行無及者.  
沙之復汰之, 東流是天假.  
心珠瑩麻谷, 目鏡燭桃野.[其二]

이미 봉황이 돌아오니 많은 새들이 다투어 따르고,  
시험 삼아 용의 변화를 보였으나, 범부의 생각으로 어찌 헤아려 감당할  
수 있으랴!

온 나라에 방편으로 보이시며, 왕명으로 성주사에 머무시니,  
송문(松門)에는 육환장이 나란히 걸려 있고, 산길엔 사람이 많아 발디  
덜 틈조차 없도다.

旣得鳳來儀, 衆翼爭追隨,  
試觀龍變化, 凡情那<sup>425)</sup>測知.  
仁方示方便, 聖住强住持,  
松門遍掛錫, 巖徑難容錐.[其三]

우리 스님은 삼고(三顧)를 기다리지 않았으며<sup>426)</sup> 또한 칠보(七步)로 걸  
어 나가 왕을 맞이하지도 않았으니,<sup>427)</sup>

424) 도야(桃野): 동국(東國)인 신라를 가리킨다. 『고수본기高受本記』, “東海桃索山  
根盤五千里 東西南北枝 長各三千里 是以 東土謂之桃也”.

425) [全文] [總覽]의 郝과 [苑]의 郝는 那임.

426) 아비대삼고(我非待三顧): 나는 삼고초려(三顧草廬)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세  
번이나 궁중으로 갔다는 것으로, 삼청(三請)을 거절하지도 않았다는 말이다.

427) 아비영칠보(我非迎七步): 왕이 찾아옴을 영접하기 위하여 일곱 걸음을 걸어 나  
갔다는 말이니, 세 번이나 왕궁에 갔었지만, 이는 오로지 국민과 불교를 위한



때가 도를 행할만한 즉 나간 것이니, 부촉을 인연한 까닭이다.

두 임금이 스님의 도풍(道風)에 절하였고, 온 나라가 은혜로운 감로(甘露)에 젖었으니,

학이 동천(洞天) 가을에 나왔음이요, 구름은 바다와 산이 저쪽에 돌아왔음이로다.

我非待三顧，我非迎七步，  
時行則且行，爲緣付囑故。  
二王拜下風，一國滋甘露，  
鶴出洞天秋，雲歸海山暮。[其四]

나와서는 엽용(葉龍)보다 귀하였고, 돌아가서는 봉새보다 높았으며,  
물을 건너서는 소부(巢父)를 협소(狹小)하게 만들었고<sup>428)</sup> 골에 들어옴에  
는 낭공(朗公)보다 빼어났도다.<sup>429)</sup>

신라에 돌아온<sup>430)</sup> 이후 세 번이나 궁중에 들었으니,<sup>431)</sup>

---

것이지, 결코 왕에게 아첨한 것은 아니라는 말. 『불조역대통제』권9(대정장49, p.533b11), “及宣帝即位 謁稠 稠床坐不迎其徒有勸迎者 稠曰 昔賓頭盧尊者 迎阿育王 起行七步 致王失國七年 貧道 雖寡德 冀帝獲福耳”.

428) 도수협소부(渡水隈巢父): 스님이 왕의 청에 나아간 것은 소부(巢父)의 정신에 건주어 보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이는 요임금이 왕위를 허유(許由)에게 전하러 하였을 때, 허유는 이를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도리어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영수(潁水)에 귀를 씻었는데, 소부는 자기의 소가 이 물을 먹자 더러운 귀를 씻은 물이라 하여 물먹이던 것을 중지시킨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429) 입국초낭공(入谷超朗公): 무염화상이 왕궁에서 물러나와 산곡(山谷)에 들어간 것은 항상 장안(長安) 부근에서만 걸식하고 다니던 승랑법사에 비하면 훨씬 초월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뜻이다. “釋僧朗 常在京洛 乞飯餽 未嘗入山 今師則還山故超也”.

430) 귀도외(歸島外): 무염화상이 중국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부터 해외인 신라에 돌아왔다는 말이다.

중생들은 부질없이 옳으니 그르니 하나, 극치(極致)에 이르면 무엇이  
다르고 같으리요.

來貴乎葉龍, 去高乎冥鴻,  
渡水陞巢父, 入谷超朗公,  
一從歸島外, 三返遊壺中,  
群迷漫臧<sup>432)</sup> 否, 至極何異同.[其五]

이 도는 담담해서 맛이 없으나, 모름지기 억지로라도 마시고 먹어야 하니,  
다른 이가 마시는 술은 나를 취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먹는 밥  
이 내 배를 부르게 할 수 없음이라.

대중에게 경계하되 마음에서 물리치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sup>433)</sup> 명예를 거  
쳐럼 이익을 쫓정리와 같이 여기라 하셨으며,

중생들에게 몸가짐을 갖추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인(仁)을 갑옷으로  
하고 의(義)를 투구로 삼으라 하셨도다.<sup>434)</sup>

是道澹無味, 然須強飲食,  
他酌不吾醉, 他飧不吾飽.  
誠衆黜心何, 糠名復粃利,  
勸俗飾<sup>435)</sup> 身何, 甲仁復冑義.[其六]

431) 삼반유호중(三返遊壺中): 세 번이나 호중인 궁중에 왕의 청을 받아 잤었다는 말  
이다.

432) [全文]의 藏은 臧의 오자임.

433) 권속식신하(勸俗飾身何): 세상 사람들에게 수신제가함을 어떻게 권하는가의 뜻  
이다.

434) 갑인복주의(甲仁復冑義): 인(仁)을 갑옷으로 한 위에, 의리(義理)를 투구로 삼아  
불의(不義)와 싸워야 한다는 말. 최사현정(摧邪現正)과 같은 뜻이다.

435) [總覽]의 飭은 飾의 오자임.

(중생을) 교화하는데 남김이 없으셨으니 하늘과 인간세상의 스승이로다.  
 옛날 생존해 계실 때에는 온 나라가 유리같이 환하였더니,  
 열반에 드신 후부터는 간 곳마다 가시덩쿨만 가득하구나.  
 열반이 어찌 그리 빠르신가라 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모두 슬퍼하도다.

汲引無弃遺<sup>436)</sup>, 其實天人師.  
 昔在世間時, 舉國成瑠璃,  
 自寂滅歸後, 觸地生蒺藜,  
 泥洹一何早, 今古所共悲.[其七]

탑을 세우고 또 비문을 새기니, 모습은 감추었지만 자취는 드러났도다.  
 높은 탑<sup>437)</sup>은 푸른 산에 우뚝하고 구비<sup>438)</sup>는 푸른 벽에 버티고 있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어찌 한갓 헛된 문자로 보일 수 있으리요.  
 후인에게 지금의 사실을 알리고자 하니, 지금 사람들이 옛일을 보는 것  
 과 같게 함이로다.

梵石復刊石, 藏形且顯跡,  
 鵠塔點青山, 龜碑撐翠壁.  
 是豈向來心, 徒勞文字覩,  
 欲使後知今, 猶如今示昔.[其八]

임금의 은혜는 천년에 깊고, 스승의 교화는 만대에 흠모되리니,  
 누가 자루 있는 도끼를 가질 것이며, 어떤 사람이 줄 없는 거문고에 화  
 답(和答)하겠는가.<sup>439)</sup>

436) [全文]의 遺은 遺의 오자임.

437) 곡탑(鵠塔): 사리탑(舍利塔)을 말한다.

438) 구비(龜碑): 비석(碑石)을 말한다.

선경(禪境)은 비록 지킬 것이 없다하나, 번뇌가 침노함을 어찌 용납하리오.

계족산(雞足山) 봉우리에서 미륵불을 기다리니, 장차 동방의 계족산이 바로 이곳이로다.

君恩千載深, 師化萬代欽,  
誰持有柯斧, 誰倚無絃琴.  
禪境雖沒守, 客塵寧許侵,  
鷄峯待彌勒, 將在東鷄林.[其九]

중제 조청대부 전수집사시랑이며 자금어대를 하사받은 신 최인연이 교지를 받들어 쓰다.

從弟朝請大夫, 前守執事侍郎, 賜紫金魚袋, 臣, 崔仁浺<sup>440</sup>, 奉教, 書.

[비신(碑身)의 높이(高)는 8척3촌(八尺三寸), 폭(幅)은 4척9촌5분(四尺九寸五分), 글자의 간격은 5분(五分)이며 해서(楷書)이다. 제액(題額)은 누멸(泐滅)되었다.]

[揭載]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 上, pp.123~151.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上, pp.72~83.

『한국금석전문韓國金石全文』 古代, pp.212~223.

439) 수지유가부 수의무현금(誰持有柯斧 誰倚無絃琴): 누가 이 사람의 학덕을 자로 잴 수 있으며, 어떤 이가 이 스님의 마음에 통하겠는가 의 뜻으로, 무염화상의 무생설법(無生說法) 무언설법(無言說法) 무애설법(無礙說法) 등이 구름이나 비와 같이 자재함을 비유한 말이다.

440) [苑] [全文] [總覽]의 浺는 浺의 오자임.



忠州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文

【04.충주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문】





## 04. 충주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문

忠州淨土寺法鏡大師慈燈<sup>1)</sup>塔碑文

소재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정토사지

연대 : 고려 태조 26년(943)

所在 : 忠清北道 忠州市 東良面 荷川里 淨土寺址

年代 : 高麗 太祖 26年 癸卯(943)

진<sup>2)</sup> 고려(高麗) 중원부(中原府) 고개천산<sup>3)</sup> 정토사(淨土寺) 교시법경대

- 1) [苑]에서는 鑑이고, [全文]과 [總覽]에서는 燈이나, 鑑은 燈의 고자임.
- 2) 진(晉) : 중국 오대(五代)의 하나, 고조(高祖)인 석경당(石敬瑭)은 사타(沙陀) 사람. 하동절도사(河東節度使)가 되었는데, 후당(後唐)의 말제(末帝)인 이종가(李從珂)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 하였으나, 거란(契丹) 태종(太宗)의 후원(後援)을 얻어 후당을 멸하고, 제위(帝位)에 올라 변(汴)에 도읍을 정하고 후진(後晉)이라 하였다. 그 후 거란에 대하여 신례(臣禮)를 행하여 오다가 2세인 출제(出帝; 重貴) 때 누누이 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거란의 태종에게 2세 11년 만에 멸망을 당했다. 2세란 상조경당(商祖敬瑭)과 2세 경유(敬儒; 出帝)이니, 936년부터 946년까지 유지되었다.
- 3) 개천산(開天山)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정토사가 있는 산이니, 정토사는 일명(一名) 개천사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40 「충주목忠州牧」 「산천山川」에 정토산(淨土山)은 일명 개천산이라고 하였다. 이에 미루어 보면 산명(山名)과 사명(寺名)을 통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권8 「죽산현竹山縣」 「불우佛宇」에 의하면 고려 우왕(禪王) 9년

사(敎諡法鏡大師) 자등지탑비명(慈燈之塔碑銘)과 서문(序文).

有晉, 高麗<sup>4)</sup>國<sup>5)</sup>, 中原府, 故開天山, 淨土寺, 敎諡法鏡大師,  
慈燈之塔碑銘, 并序.

태상<sup>6)</sup> 검교<sup>7)</sup> 상서<sup>8)</sup> 좌복야<sup>9)</sup> 전수병부시랑<sup>10)</sup> 지한림원사<sup>11)</sup> 신 최언위<sup>12)</sup>

(1383)에 왜구(倭寇)가 난입(亂入)하므로 충주 개천사에 소장하였던 사적(史籍)을 이곳 칠장사(七長寺)로 옮겼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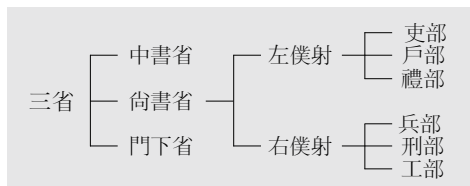
4)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麗임

5) [苑], [總覽]은 결락, [全文]에는 결락표시도 없다. [苑] [總覽]은 결락표시이긴 하나, 國字가 아닌가 한다.

6) 태상(太相): 태봉(泰封)의 9품관등(九品官等) 중 제3관등으로서 고려 성종 때 향직(鄉職) 제4품으로 개편되었다. 여기에서는 고려 초기의 관제가 태봉의 관제를 계승한데서 비롯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7) 검교(檢校): 고려에서 조선까지 정원(定員)이상으로 벼슬자리를 임시로 늘리거나 공사(公事)를 맡기지 않고 이름만 갖게 할 경우,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던 말이다. 「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문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文」 주2)검교檢校 [고려편1] p.19 참조.

8) 상서(尙書): 고려의 관직.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조(工曹) 등 6부(部)에 두었던 정3품 관직으로서 이 상서 위에 종1품인 판사(判事)의 관직이 있어 재신(宰臣)이 겸임하였으나 실무를 맡는 것은 아니고, 다만 횡적인 연락과 감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서가 실제 일을 맡아보는 장관이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판서(判書)·전서(典書) 등으로 이름이 자주 바뀌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당(唐)나라 관직 제도를 그대로 도입 사용한 것이다. 『고려사高麗史』 참조.



9) 복야(僕射): 관명(官名)이니 좌우복야가 있는데 정2품 벼슬로 상서령(尙書令)의 다음이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선발하여 이 자리에 임용하기도 했고, 항상 왕의



가 왕명(王命)을 받들어 찬하고,

사찬<sup>13)</sup> 전수홍문감경<sup>14)</sup>비은어대를 하사받은<sup>15)</sup> 신 구족달<sup>16)</sup>이 왕명에 의

좌우에 있었으므로 경호실장과 같은 소임이었으나 당송이후에는 재상의 직으로서 천자를 보좌하여 국정(國政)을 의논하는 주재자(主宰者)였다. 「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문」 주4)복야僕射 [고려편1] p.19 참조.

- 10) 병부시랑(兵部侍郎): 고려시대의 병부는 태조원년(太祖元年)에 설치되어 영(令), 경(卿), 낭중(郎中)의 관직체계를 이루었는데, 그 뒤 병부를 병관(兵官)으로 고치면서 어사(御事) 다음의 벼슬로 시랑(侍郎)을 두었다. 여기에서 병부시랑이란 관직은 신라의 관제를 계승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8「잡지雜志」7 직관지職官志상에는 병부의 차관(次官)인 대감(大監)을 경덕왕(景德王) 때 시랑으로 고쳤다가 혜공왕(惠恭王) 때 다시 대감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 11) 한림원(翰林院): 신라의 한림대(翰林臺)에 소속한 관직으로 후에 학사(學士)로 개칭되었는데, 대조서생(待詔書生) 등과 함께 외교문서를 관장하였다. 「적인선사조운정정탑비문寂忍禪師照輪清淨塔碑文」 주6)한림랑翰林郎 [신라편] p.79 참조
- 12) 최언위(崔彦撫): 최인연(崔仁澆)의 옛 이름.
- 13) 사찬(沙餐): 신라 17관등 중 제8관등으로서 고려 초기까지 이를 사용한 듯하다.
- 14) 홍문감경(興文監卿): 『삼국사기』 권40「잡지」 직관지하에는 신라의 미상관명(未詳官名)으로 보이나, 신라 말부터 설치되었던 문한기구(文翰機構)에 속한 관직으로 추측되고 있다.
- 15) 비은어대(緋銀魚袋): 당(唐)나라의 관리들은 관품의 고하(高下)에 따라 관복의 색깔과 허리띠에 차고 다니는 어대(魚袋)의 종류가 달랐다. 3품 이상은 자색(紫色) 관복과 금어대(金魚袋), 4·5품은 비색(緋色) 관복과 은어대(銀魚袋), 6·7품은 청색(靑色) 관복과 동어대(銅魚袋), 그리고 8품 이하는 황색(黃色)의 관복과 철어대(鐵魚袋)로 규정되어 있었다. 「진경대사보월능공지탑비문眞鏡大師寶月凌空之塔碑文」 주4)자금어대紫金魚袋 [신라편] p.347.
- 16) 구족달(具足達): 생물년 및 전기미상. 고려시대 초의 서예가. 한윤(韓允)·민상제(閔賞濟) 등과 함께 신라말·고려초 구법(歐法: 구양순체(歐陽詢體)를 말한다)의 대가로 평가된다. 본관은 창원(昌原)이며, 그 시호는 구성길(具成吉)이고, 자(字)는 완지(完之)이다. 원래는 송나라에서 대부(大夫)를 지냈던 구목(仇牧)의 후예인데,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는 상고할 수 없다. 구성길은 고려조의 공신(功臣)으로서 벼슬이 찬성사(贊成事)에 이르고, 의창(義昌: 창원)군에 봉해

하여 쓰다.

太相檢校尙書, 左僕射, 前守兵部侍郎, 知翰林院事, 臣, 崔彥  
擣, 奉教, 撰,

沙槩, 前守興文監卿, 賜緋銀魚袋, 臣, 具足達<sup>17)</sup>, 奉教, 書.

대저 새벽달은 높이 떠올라 사방(四方)의 밖에 있는 눈까지 비추고, 봄  
바람은 멀리 불어 먼지를 천령(千嶺)의 끝까지 쓸어버린다. 그러므로 목  
성(木星)이 밝게 나타나서 일어나는 현무<sup>18)</sup>를 흠어 버리고, 청훈<sup>19)</sup>은 멀리  
까지 비추어 방서<sup>20)</sup>의 법운(法雲)을 일으키니, 혹은 물색(物色)을 얻게 하  
고, 때로는 따뜻한 햇빛으로 녹여 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태평세계(太平世  
界)의 아름다움을 모아 리왈<sup>21)</sup>의 빛을 격발함일세. 그런 까닭에 이기<sup>22)</sup>가

짐으로써 그의 후손들이 창원을 본관으로 하게 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까지 후  
손들이 계속 구성(仇姓)을 써 왔으나, 정조(正祖) 때 왕으로부터 구성(具姓)을  
하사 받은 후 시조인 성길에 이르기까지 소급하여 구씨(具氏)로 개성(改姓)하게  
되었다. 「법경대사자등탑비法鏡大師慈燈塔碑」와 강릉 보현사의 「낭원대사오  
진탑비朗圓大師悟眞塔碑」의 글씨를 썼는데, 「낭원대사오진탑비」에서는 구족  
달(仇足達)이라고 쓰고 있다. 「낭원대사오진탑비문朗圓大師悟眞塔碑文」 주5)  
구족달具足達 [고려편1] pp.115~116 참조.

17) 「낭원대사오진탑비문」을 쓴 구족달(仇足達)과 같은 사람임.

18) 현무(玄霧): 검은 안개이니, 곧 상서롭지 못한 징조를 나타내는 검고 어두운 안개.

19) 청훈(靑暈): 태양 주변에 푸른색 해무리. 곧 길상(吉祥)의 징조를 나타내는 상징  
(日月傍氣).

20) 방서(芳序): 만화(萬花)가 방창(芳暢)하는 좋은 계절이란 말이니, 곧 만물이 약  
동하는 봄철을 가리킴. 경괄(敬括), 「화악루부花萼樓賦」, “參歲賦兮徒延佇 懷明  
君兮變芳序”.

21) 리왈(離曰): ㉠revata. 나한(羅漢)의 이름이니, 부처님 제자 중 좌선제일(坐禪第  
一)로 일컬어진다. 리바다(離婆多), 리월(離越) 등으로 일컫는데, 성수(星宿) 또  
는 실수(室宿) 등이라 번역된다. 이십팔수중(二十八宿中) 두우녀허위실벽(斗牛  
女虛危室壁)인 실성(室星)에 해당된다. 그의 부모가 이 별에 기도하여 낳았다고

서로 돕고 삼광<sup>23)</sup>이 함께 조화(助化)하니, 가히 하늘에 달린 일광<sup>24)</sup>은 모든 것들의 의지(依止)와 선망(羨望)이 된다. 진리(眞理)를 넓히는 것은 언어문자(言語文字)에 있으니, 언어문자로써 실상(實相)을 찾아야 한다. 그저 시험 삼아 말하자면 큰 보배 덩어리만이 보배가 아니요,<sup>25)</sup> 기로(岐路)에서 방황하는 사람에게에는<sup>26)</sup> 오직 촌음(寸陰)의 시간도 귀하기 그지없다. 아무도 찾지 못하는 황제(黃帝)의 광주(宏珠)를 눈먼 소경인 망상<sup>27)</sup>이 추로(秋

하여 이름한 것이다. 『법화문구法華文句』권2(대정장34, p.16b29), “離婆多 亦云離越 此翻星宿 或室宿.”

22) 이기(二氣): 음(陰)과 양(陽)이다. 『회남자淮南子』「설산훈說山訓」, “天二氣則成虹 地二氣則泄藏 人二氣則成病”.

23) 삼광(三光): 일, 월(月), 성(星) 삼광이니, 『장자莊子』「설검說劍」에 “上法圓天 以順三光(日月星光)”이라 한다.

24) 리천지영(麗天之影): 여(麗)는 음(音)이 리니, 걸릴 리字. 즉 하늘에 걸려 있는 해와 달과 별의 광명(光明). 청량징관(淸涼澄觀), 『화엄경소華嚴經疏』「화엄경왕복서華嚴經往復序」(대정장35, p.503b10)에 “尋斯玄旨 却覽餘經 其猶杲日麗天 奪衆景之耀 須彌橫海 落群峯之高”라 하였다.

25) 척벽(尺璧): 불귀척벽중촌음(不貴尺璧重寸陰)의 준말. 척벽이란 직경일척(直徑一尺)이나 되는 큰 보옥(寶玉). 『회남자』「원도론原道論」에 “聖人不貴尺之璧 而重寸之陰 時難得而易失也”라 하였고, 『천자문千字文』에서는 “尺璧非寶 寸陰是競”이라 하였다.

26) 망양(亡羊): 다기망양(多岐亡羊)의 준말. 달아난 양을 찾으려 할 때 갈림길이 많아 이리저리 찾아 헤맨다는 뜻이다.

27) 망상(罔象): 눈먼 소경의 이름. 『장자』「천지天地」에 나오는 말이다. 황제가 적수를 구경하다가 구슬을 잃었는데 아는 것이 많은 지(知), 눈이 밝은 이주(離朱), 말 솜씨가 좋은 깃후(喫訖) 등을 시켜 찾게 했으나 찾지 못하였고, 장님인 상망이 이를 찾았다는 고사이다. “黃帝遊乎赤水之北 登乎崑崙之丘而南望 還歸 遺其玄珠 使知索之而不得 使離朱索之而不得 使喫訖索之而不得也 乃使象罔 象罔得之 黃帝曰 異哉 象罔乃可以得之乎”. 말 없는 가운데의 말과 법 없는 가운데의 법은 현묘하여 언어문자와 사량계교(思量計較)인 세상의 총명으로는 터득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적인선사조륜청정답비문』 주43)득적수소유(得赤水所遺) [신라 편] p.86 ; 『진공대사보법답비문眞空大師寶法塔碑文』 주69)적수탐주(赤水探珠)

露)에서 찾아냈다.

原夫，曉月遐昇，照雪於四方之外，春風廣被，揚塵於千嶺之旁。然則木星著明，散發生之玄霧，青暈迴耀，浮芳序之法雲，或沍色凝寒，或陽和解凍。聚此太平之美，<sup>28)</sup> 激<sup>29)</sup> 于離日<sup>30)</sup> 之暉，所以，二氣相承，三光助化，可謂麗天之影，瞻<sup>31)</sup> 望所宗，此則弘之在言，拾此於實，嘗試論之，尺璧非寶，亡羊則唯貴寸陰。玄珠是珍，罔象則眞探秋露。

그러므로 유교(儒敎)의 골풍(骨風)은 오직 삼백여 수의 시 속에 담겨 있고, 노교(老敎)는 오천여 언의 『도덕경道德經』에 실려 있다. 공자는 인의(仁義)의 근원을 말하였고, 노담(老聃)은 현허<sup>32)</sup>의 이치를 풀이하였다. 비록 망(忘) [결락]을 염(念)하기는 하나, 감히 진리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즉 세계인 성중(城中)의 모든 종교<sup>33)</sup>와 방내(方內)의 모든 담론<sup>34)</sup>이 어찌 정각(正覺)의 도를 이루고 일심(一心)을 알고서야 가히 얻어지는 것과 같으며,<sup>35)</sup> 진여(眞如)의 성(性)이 청정하여 과거, 현재, 그리

[고려편1] p.97 등 참조.

28)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은 美임.

29)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은 激임.

30) [苑] [全文] [總覽]의 日은 曰의 오자임.

31) [苑] [總覽]은 瞻. [全文]에는 明이나 瞻의 오자임.

32) 현허(玄虛) : 현(玄)하고 허(虛)한 진리(眞理)를 형용하는 말. 심히 오묘하여 엿볼 수 없으며, 따라서 허무(虛無)하고 무위(無爲)하다는 노자(老子)의 도(道)와 장자(莊子)의 설(說)을 지칭함. 『한비자韓非子』「해로解老」, “聖人 觀其玄虛 用其周行 強字之曰道”라 하다.

33) 역중지교(域中之敎) : 역중. 즉 세계속의 모든 종교를 망라하여 지칭하는 말.

34) 방내지담(方內之譚) : 사방(四方). 즉 국내의 모든 학설을 총칭하는 말.

35) 정각운운(正覺云云) : 불교의 교리가 가장 심오하다는 말.

고 미래인 삼제(三際)에 걸쳐 있으나 다르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  
리요.<sup>36)</sup> 맑은 지혜로 얻어진 육종신통(六種神通)은 불생불멸(不生不滅)하  
고, 오릇한 삼매(三昧)는 취할 것도 행함도 없는 경지인 것이다. 대개 방편  
(方便)의 문을 연유하는 것이 마치 비밀(秘微)의 뜻을 알게 하는 것과 같  
으니, 모든 사물의 뜻을 잘 가리켜 마음 속에 진리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이다.

故知儒風則詩惟三百，老教則經乃五千。孔譚仁義之源，聃<sup>37)</sup>  
演玄虛之理。然而雖念忘□，<sup>38)</sup>敢言得理。此則域中之教，方內  
之譚，曷若正覺道成，知一心之可得，真如性淨，在三際之非  
殊。故知深慧六通，不生不滅，凝情三昧，無取無行，蓋因方便  
之門，猶認秘微之義，事惟善誘，心在真宗。

그러나 지극(至極)의 도는 희하고 이하여,<sup>39)</sup> 말과 생각으로서는 능히 알  
수 없으며, 현종<sup>40)</sup>의 이치는 멀고도 아득하여<sup>41)</sup> 명언(名言)으로는 능히 터

36) 삼제지비수(三際之非殊) : 과거(過去) · 현재(現在) · 미래(未來)인 삼제(三際)가  
시간적으로 전후(前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同時)라는 말, 유식종  
(唯識宗)에서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인 사상(四相)이 시간적으로 생(生)은 과거,  
주(住)와 이(異)는 현재, 멸은 미래로 보지만, 성종(性宗)에서는 사상이 전후차  
별(前後差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과거와 미래가 동시(同時)라고 본다. 고로  
'生即死 死即生'이라 하며, 또한 '과거무량겁(過去無量劫)을 안치미래겁(安置未  
來劫)'이라고 하였다.

37) [苑]에는 聃. [全文]에는 聃이나 聃의 오자임.

38) [苑] [全文] [總覽] 모두 결락임.

39) 희이(希夷) : 「보조선사창성답비문 普照禪師彰聖塔碑文」 주10) 희이希夷 본서  
p.57 참조.

40) 현종(玄宗) : 선종을 가리킴.

41) 묘막(杳邇) : 진리는 넓고 깊으며, 또한 아득하고 멀어서 터득하기 어렵다는 말.

득할 수가 없다.<sup>42)</sup> 이런 까닭에 공자(孔子)·노자(老子)·장자(莊子)가 각기 자신의 교(敎)인 일방(一方)에만 집착하니 마침내 삼교(三敎)가 서로 통해서 돌아오지 못한다.<sup>43)</sup> 언어문자 밖에서 혜업(慧業)을 닦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sup>44)</sup>를 쫓다가 맑은 연못가에 다다르게 되며, 바다 속에 놀던 거북이가 물 위에 뜬 나무 조각을 만나는 것과 같다 하겠다. 법(法)의 본체(本體)는 본래 생(生)하는 것이 아닌데 망견(妄見)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가히 취할 대상을 보게 되는 줄을 깨달으면, 뗏목하고 여여하고 시원한 법우(法雨)를 만나게 되고, 문득 뜨거운 번뇌가 사라지게 되니, 기꺼이 미진(微塵)과 같은 많은 대중을 만나서 미혹한 고행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다.

然而至道希夷，匪稱謂之能鑒，玄宗杳邈，非名言之所鈐。於是，各守一隅，難通三返。筌蹄<sup>45)</sup>之外，慧業所資，而又雖渴鹿趣炎，謂至清池之畔，盲龜游沼，猶逢浮木之中。則知法本不生，因生起見，見其可取法，則常如然，則淨零法雨之滋，便清熱惱，虔謁微塵之衆，俄濟迷流。

보리(菩提)와 열반과 법성(法性)은 상주(常住)하는 불멸의 법이니, 이것으로써 불토(佛土)를 장엄하고 중생을 깨닫게 하며, 천상과 인간을 모두 제도하고 대승보살을 교화할 때에 비로소 묘용(妙用)이 자재(自在)함을

42) 소검(所鈐): 검(鈐)은 잡아당겨 붙잡는다는 뜻. 또는 터득한다는 뜻.

43) 각수일우난통삼반(各守一隅難通三返): 공자와 노자 및 장자가 각기 자신의 교(敎)인 일방(一方)에만 집착하여 삼교(三敎)가 서로 통해 돌아볼 수가 없다는 뜻.

44) 취염(趣炎): 염(炎)은 양염(陽炎)의 준말이니, 봄철에 아롱거리는 아지랑이. 즉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인 줄로 알고 그 곳으로 찾아간다는 뜻.

45) [苑] [總覽]은蹄. [全文]에는 蹏이니蹄의 고자(古字)임.

생각할 수 있으며, 가히 만행을 두루 정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46)</sup> 그러므로 옛날 여래(如來)께서 5비구를 위하여 3승의 교리를 말씀하심으로부터 45년 동안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교화의 인연(因緣)이 끝남으로써 대중을 모아놓고 내외의 호법(護法)을 당부하고 열반에 들고자 할 때,<sup>47)</sup> 무상(無上)의 법인(法印)을 비밀리 가섭(迦葉)에게 전하면서 널리 세간에 유포토록 하라 하시고, 이어서 호념(護念)하고 근수(勤修)하여 법인인 혜명(慧命)을 영원히 상속하여 단절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菩提涅槃，法性常住，用此莊嚴佛土，成就衆生，度天人，教菩薩<sup>48)</sup>，方思妙用，可謂周勤。然則昔者，如來爲五比丘，說三乘教，化緣已畢，尋以遷儀，臨涅槃之時，以無上法寶，密傳迦葉，流布世間曰，護念勤修，無令斷絕，自<sup>49)</sup>大。<sup>50)</sup>

가섭존자가 법안(法眼)을 전해 받고는 다시 아난(阿難)에게 전해 주었다. 이로부터 조조(祖祖)가 서로 전하며 심심(心心)이 함께 보전되어 왔다. 그 중에 응진보살(應眞菩薩)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원각대사<sup>51)</sup>인 달마스님이다. 그는 동토(東土)인 중국으로 건너와서 선법(禪法)을 전파하려 하

46) 주근(周勤): 해야할 일(萬行)에 최선을 다하여 두루 부지런히 정진함. 즉 중생을 제도하는 일에 전력(全力)하였다는 말. 예컨대 나라를 위해 일편단심(一片丹心)으로 근무하는 것을 근왕(勤王)이라 한다.

47) 천의(遷儀): 천화(遷化: 入寂)하는 거동. 즉 모습.

48)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菩임.

49)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自임.

50)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大임.

51) 원각대사(圓覺大師): 달마대사(達磨大師)의 시호(諡號)이니, 당나라 대종(代宗) 임금이 추증한 시호이다. 「낭혜화상백월보광답비문」 주130) 원각조사圓覺祖師 본서(本書) p.133; 「진공대사보법답비문」 주17) 원각대사 [고려편1] p.92 참조.

였으나, 그 기틀에 맞는 근기(根機)를 만나지 못하여 법을 전하지 못하다가 혜가(慧可)를 만나서야 비로소 정법안장(正法眼藏)과 신의(信衣)를 전해 주었다. 당나라 때 이르러 정통으로 승습(承襲)한 자가 여섯이니, 달마는 혜가에게,<sup>52)</sup> 혜가는 승찬(僧璨)에게, 승찬은 도신(道信)에게, 도신은 홍인(弘忍)에게, 홍인은 혜능(慧能)에게로 전승하였다. 혜능 이후에 양계(兩系)로 나누어졌으니, 하나는 남악회양(南嶽懷讓)의 계파요, 다른 하나는 청원행사(靑原行思)의 계통이다.

迦葉，得其法眼，付屬阿難。祖祖相傳，心心共保。爰有應真菩薩，圓<sup>53)</sup>覺大師。東<sup>54)</sup>□中□，非人不授。至唐承襲者，竊惟六人，摩傳可，可傳璨，璨傳信，信傳忍，忍傳能。能其後分而爲二，其一曰讓，其一曰思。

이 양계의 밑으로 전승의 계보가 소소(昭昭)하니 어찌 다 말할 수 없리오. 상법(像法)과 말법시대<sup>55)</sup>에 이르러서는 세상이 경박하고 거짓되어<sup>56)</sup> 대도(大道)는 자취를 감추고 미언(微言)은 단절되었으니, 이러한 시대에

52) 마전가운운(摩傳可云云): 달마(達磨: ?~528)는 2조혜가(二祖慧可: 487~593)에게 전법(傳法)하였고, 혜가는 3조승찬(三祖僧璨: ?~606)에게 전하였으며, 승찬은 4조도신(四祖道信: 580~651)에게, 도신은 5조홍인(五祖弘忍: 602~675)에게, 홍인은 6조혜능(六祖慧能: 638~713)에게 전법하였다. 혜능의 족하(足下)에 2대산맥(二大山脈)으로 나누어졌으니, 하나는 남악회양(南嶽懷讓: 677~744)이요, 다른 하나는 청원행사(靑原行思: ?~740)이다.

53) [總覽]에는 圓. [苑] [全文]의 同은 圓의 오자임.

54) [全文] [總覽]에는 東. [苑]의 惠는 東의 오자임.

55) 상말(像末): 불법(佛法)의 삼기중(三期中)에 상법(像法)과 말법시대(末法時代)를 지칭함.

56) 요와(澆訛): 인심(人心)이 경박(輕薄)하여 순박(醇朴)함이 없다라는 뜻. 백거이(白居易)의 「요박시澆朴詩」에 “人漸澆訛 不反質樸”이라 하다.



기묘함을 탐색하는 상근기(上根機)와 진리에 계합한 진인(眞人)이 아니면 어찌 퇴폐한 풍속을 바로잡고 다시 법륜(法輪)을 중흥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진리의 세계로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고 마음을 고요한 곳에 두고 정진하는 출중한 사람이 때때로 출세(出世)하여 그 시대에 있게 되는 것이다.

其下昭昭，此則何述焉。泊于像末，逾<sup>57)</sup>益澆訛，大道云喪，微言且絕，則非探奇上士，契理眞人，何以一匡頽俗，再□法輪。必有涉進玄<sup>58)</sup>鄉，心行靜處，時時間出代。

여기에 그러한 스님이 있으니, 법휘는 현휘(玄暉)이고, 속성은 이씨(李氏)다. 그의 선조는 주조<sup>59)</sup> 때 비덕인 주하사<sup>60)</sup> 벼슬을 지낸 노자(老子)의 후손(後孫)이었다. 영고현(榮苦縣)을 도망쳐 나왔는데,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하니, 마치 맹자<sup>61)</sup>가 태어난 추향(鄒鄉)과 같았다.<sup>62)</sup> 하늘은 좋은 임금이 나타나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함을 탄식한다고 하였으니,<sup>63)</sup> 공자<sup>64)</sup>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를 알 수가 있겠는가. 성당(聖唐)이 요동(遼

5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逾임.

58) [苑] [總覽]에는 玄, [全文]의 元은 玄의 오자임.

59) 주조(周朝): 주나라 조정(朝廷)이니, 주나라 시대란 뜻이다.

60) 비덕주사(閼德柱史): 주하사(柱下史)의 준말이니, 노자(老子)를 가리킴. 노자가 젊었을 때 주하사직을 맡았기 때문이다.

61) 용지성(龍之聖): 맹자를 가리킴인 듯하다.

62) 추향(鄒鄉): 맹자가 태어난 곳을 가리킴이니, 전국(戰國) 때 노(魯)나라의 지명(地名)이다.

63) 탄봉(歎鳳): 훌륭한 왕자가 나오지 않아 세상이 잘 다스려지지 못함을 탄식하는 말. 『논어』「자한자罕」에 “鳳鳥不至 河不出圖 吾已矣夫”라 하다.

64) 노사구(魯司寇): 사구는 중국 고대 6경 중 하나로서 형벌(刑罰)과 경찰(警察)을 맡아보던 관직이다. 공자(孔子)가 젊어서 이 벼슬을 역임하였으므로 공자를 가

東)을 원정할 때 먼 조상(祖上)이 종군하여 여기까지 왔다가 고역(苦役)에 얽혀 되돌아가지 못하고 정착하였으니, 지금의 전주(全州) 남원(南原)이다. 아버지이 휘는 덕순(德順)이니 특히 『노자』와 『주역』<sup>65)</sup>에 정통하였고, 거문고와 시를 좋아하였다. 백구(白駒)가 쓸쓸한 공곡(空谷)에 있는 것처럼 미처 재질이 알려지지 않아 조정의 부름을 받지 못하던 야인시절<sup>66)</sup>을 보냈으나, 학(鶴)이 울면 새끼는 보이지 않는 알 속에서 화명(和鳴)하여 부화할 때와 같이 명성이 세상에 알려졌어도<sup>67)</sup>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더욱 고상하게 살았다.

有其人者焉，大師法諱<sup>68)</sup>玄暉，俗姓，李氏。其先周朝，闕德柱史。逃榮苦縣，地靈知<sup>69)</sup>有，猶龍之聖鄒<sup>70)</sup>鄉。天寶，昔聞歎鳳之君，故言匪魯司寇，無以知之者也。遠祖，初自聖唐，遠征<sup>71)</sup>遼左，從軍到此，苦役忘歸，今爲全州南原人也。父諱德順，尤

리킴. 최치원이 지은 「난랑비서문驚郎碑序文」에 “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라 하다.

65) 노역(老易): 『노자도덕경老子道德經』과 『주역周易』.

66) 백구서곡(白駒棲谷): 백구공곡(白駒空谷)과 같은 말. 백구는 흰빛 털을 가진 작은 말. 서곡이란 쓸쓸한 공곡에서 놀고 있다는 뜻이니, 재질(材質)을 인정받아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고 초야(草野)에 묻혀 있는 것을 비유하는 뜻. 『시경詩經』 「백구白駒」에 “皎皎白駒 在彼空谷”이라 하다.

67) 명학재음(鳴鶴在陰): 명학재음 기자화지(鳴鶴在陰 其子和之)의 준말. 어미 학(鶴)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면 새끼 학이 이에 화답(和答)하며 부화하여 나온다는 말이니, 덕(德)이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저절로 드러나 많은 사람을 감화(感化)시킨다는 비유. 『주역』 「중부中孚」에 “鳴鶴在陰 其子和之 我有好爵 吾與爾靡之”라 하다.

68)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은諱임.

69) [苑] [總覽]에는知, [全文]의如是知의오자임.

70) [總覽]에는鄒. [苑]의鄒, [全文]의郡은鄒의오자임.

71)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은征임.

明老易，雅好琴詩。當白駒接谷之時，是鳴鶴在陰之處，高尚其事，素無宦情。

어머니<sup>72)</sup>는 부씨(傅氏)니 잠깐 낮잠을 자며 꿈을 꾸었는데, 어미(阿彌)가 아들을 위하여 보시(布施)하는 것은 구마라타<sup>73)</sup>가 감득(感得)한 상서<sup>74)</sup>를 증명하는 것이고, 어머니에게 아들이 되게 모자의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72) 아미(阿彌) : 어머니 또는 유모(乳母)의 뜻임.

73) 구마라타(鳩摩羅駄) : ㉠ Kumāralāta, 구마라타(鳩摩羅陀) 또는 구마라다(鳩摩羅多)라고도 하니, 서천(西天) 28조 중 제19조이다. 인도 대월지국(大月氏國)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났다. 과거 자재천인(自在天人)이었으나, 보살의 화려한 화만영락(華鬘嬰珞)을 보고 문득 애착심을 일으킨 탓으로 도리천(初利天)으로 타락(墮落)하였다. 제석천왕(帝釋天王)의 『반야경』 설법함을 들은 공덕으로 범천(梵天)으로 올라갔다가 그 후 중천국(中天國)으로 가서 사야다(闇夜多)를 만나 그에게 전법하고 제자로 삼았으니, 그가 바로 제20조인 사야다존자(闇夜多尊者)이다. 『경덕전등록』권2「구마라다전鳩摩羅多傳」(대정장51, p212c20).

74) 증구마라타지상(證鳩摩羅駄之祥) : 구마라타가 감득한 상서(祥瑞)를 증명한다는 뜻이니, 범경대사(法鏡大師) 현휘(玄暉)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태몽에 나타나던 일이 마치 구마라타가 입태(入胎)할 때의 태몽과 같았음을 증명한다는 뜻이나, 구마라타의 전기에는 그럴만한 내용이 없고, 제18조인 가야사다(伽倻舍多)의 전장(傳狀)에 이와 비교할 수 있는 태몽설이 있으니, 혹시 비문(碑文) 찬자(撰者)나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가야사다를 구마라타(鳩摩羅駄)로 혼돈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면 가야사다의 전기에 따르면 그는 마갈제국(摩竭提國) 사람으로 성(姓)은 울두람(蔚頭藍), 아버지는 천람(天藍), 어머니는 방성(方聖)이다. 어느 날 어머니의 꿈에 대신(大神)이 거울을 건네주는 꿈을 꾸고 임신한 지 7일만에 탄생하였다. 피부가 마치 유리와 같아서 목욕하지 않아도 저절로 향기롭게 깨끗하였다. 어릴 때부터 한정(閑靜)함을 좋아하여 말하는 것이 보통 아이들과 달랐다. 어느 날 거울을 가지고 밖에 나가 놀다가 우연히 제17조인 승가난제(僧伽難提)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어 수행 끝에 대존자(大尊者)가 되었다. 그 후 대월지국으로 가서 구마라타를 만나 그를 발심(發心)케 하여 제자로 삼아 전법하였으니 그가 바로 제19조인 구마라타이다.

간청한 것은 마치 학륵나존자(鶴勒那尊者)<sup>75)</sup>에게 나타내 보인 서상(瑞祥)과 같았으니, 이미 돌아간 현인(賢人)들의 상서가 모두 그러하였듯이 나 또한 그러하리라 하였다. 13개월 동안 모태 중에 있다가 건부 6년<sup>76)</sup> 1월<sup>77)</sup> 1일 오시에 탄생하였다. 스님은 선천적으로 성자(聖姿)를 지니고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하는 장난은 하지 않았다. 불상이나 어른을 보면 합장하고, 앉을 때는 가부좌(跏趺坐)를 맺고 앉으며, 땅과 담벽 등에는 불상(佛像)과 탑형(塔形)을 그렸다. 고기에게 물을 먹여 살리고 벌레들에게는 먹이를 주어 구제하기도 하였다. 속가(俗家)에 살고 있는 것이 마치 소 발자국에 고인 적은 물에 사는 고기와 같아서 답답함을 느꼈으니,<sup>78)</sup> 넓고 깊은 망망대해에 놓고자 하여<sup>79)</sup> 진세(塵世)인 속가를 버리고 입산할 것

75) 학륵야나(鶴勒夜那) : 圖Haklenayaśas, 학륵나(鶴勒那)라고도 하니, 서천 28조 중 제23조. 스님은 대월지국 사람. 바라문종성, 아버지는 천승(千勝), 어머니는 금광(金光)이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늦게까지 아들이 없어 칠불(七佛)에 기도를 하던 중, 어머니의 꿈에 수미산정(須彌山頂)에 있다는 한 신동(神童)이 금반지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제가 가지고 온 것이니 받아 주십시오’라는 태몽을 꾸고 잉태하여 태어났다. 그 후 22세 때 출가(出家)하였고, 30세 때에 이르러 제22조인 마나라존자(摩拏羅尊者)를 만나 그로부터 정법안장(正法眼藏)을 전해 받고 제자가 되었으니, 그가 바로 제23조 학륵나존자(鶴勒那尊者)이다. 『경덕전등록』 권2「학륵나전」(대정장51, p.214a29).

76) 건부육년(乾符六年) : 당의 희종(僖宗) 연호(年號). 신라 제49대 헌강왕(憲康王) 5년(879)이다.

77) 맹추(孟陬) : 음력 1월의 별칭(別稱)이다.

78) 우잠(牛潒) : 우적지잠 무척지리(牛跡之潒 無尺之鯉)의 준말이니, 소 발자국에 고인 작은 물에는 대어(大魚)가 살 수 없듯이, 협소한 곳에는 대기(大器)가 나지 못한다는 비유. 『회남자』「숙진훈(倣眞訓)」에 “夫牛跡之潒 無尺之鯉 塊阜之山 無丈之材 所以然者 皆其營宇狹小 而不能容巨大也 同汜論訓 牛跡之潒 不能生鱸鮓 而蜂房不容鵠卵”이라 하다.

79) 오학(鰲壑) : 오산(鰲山)이라고도 함. 큰 바다를 가리킴이니, 『열자(列子)』「탕문(湯問)」에 보인다. 이 오산 아래의 대학(大壑)을 지칭한다. 「보조선사창성탑비문」

을 결심한 다음 부모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다. 아버이는 창자를 자르는 듯한 아픔을 참고서 말하기를 “전일(前日)의 꿈을 생각하니 참으로 부처님과 인연이 부합하는구나. 이미 속세(宿世)부터 깊은 인연이었다고 생각하며 전세(前世)의 불연(佛緣)으로 나 또한 제도될 터이니, 갈 길을 너에게 맡기나 속히 불위(佛位)에 올라 삼계(三界)의 도사(導師)와 사생(四生)의 자부(慈父)되도록 하라”고 하였다.

母傳<sup>80)</sup>氏, 假寐<sup>81)</sup>之時, 須臾得夢, 阿彌<sup>82)</sup>布施, 證鳩摩羅馱之祥, 聖善因緣, 呈鶴勒夜那之瑞, 歿賢曾<sup>83)</sup>爾, 唯我亦然. 況又在孕之時, 十有三月, 免懷之際, 元正伍時, 以乾符六年, 孟陬之朔, 誕生. 大師生有聖姿, 幼無兒戲. 行惟合掌, 坐乃趺跏, 畫塹<sup>84)</sup>堆砂, 必模像塔. 分飡汲水, 須給虫魚. 然則因覩牛涔<sup>85)</sup>, 冀游鰲壑, 潛辭塵世, 實欲出家, 聞於二<sup>86)</sup>親, 志切且<sup>87)</sup>慊. 父母謂曰, “今思前夢, 宛若同符, 始覺囊因, 猶如合契, 汝前佛所度, 汝亦度之, 任你<sup>88)</sup>東西, 早登佛位, 導師慈父.”

그리하여 스님은 영원히 진세를 떠나 산을 찾고 고개를 넘어 동으로 길

주58)오학鼇壑 본서(本書) p.66참조.

80) [全文] [苑]에는 傳. [總覽]의 傳는 傳의 오자임.

81) [全文]에는 寐. [苑] [總覽]의 寐는 寐와 同字임.

82) [苑] [總覽]에는 彌. [全文]의 姿는 彌의 오자임.

83)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曾임.

84) [苑] [全文] [總覽]의 塹은 [拓本]인 [大系]에는 마멸(磨滅)되어 판독할 수 없음.

85) [苑] [總覽]에는 涔. [全文]의 涔은 涔의 오자임.

86)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은 二임.

8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은 且임.

88) [苑] [總覽]에는 你. [全文]의 徐는 你的 오자임.

을 가다가 영각산사<sup>89)</sup>에 이르게 되었다. 심광대사<sup>90)</sup>를 찾아 법문을 듣고 마음에 크게 얻은 바가 있었다.<sup>91)</sup> 심광대사가 말하되 “미루어 5조인 동산(東山)의 법통을 생각하고<sup>92)</sup> 마치 5조와 6조를 만나서 더욱 환희(歡喜)하였으니, 어찌 주야<sup>93)</sup>를 분간할 수 있었겠는가”라 말하고는, “앞으로 나의 도를 천양(闡揚)함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에게 있다”고 하였다.

便是其人，所以永遂離塵，尋山陟嶺東去，獲投靈覺山寺。謁深光大師，傾蓋如新，忻然自得。 “追念東山之法，實謂得人，倍切歡娛，寧知昏旭，闡揚吾道，不在他人。”

조종(祖宗)을 살펴보니 승엄<sup>94)</sup>의 적자(嫡子)이며, 또한 마곡<sup>95)</sup>의 법손(法孫)으로서 죽히 성도(聖道)를 알았으니, 그의 전한 바는 조계(曹溪) 6조를 존조(尊祖)로 하여 대대로 서로 마음이 계합하여 법경대사(法鏡大師)까지 이르렀다. 강서(江西)의 법통(法統)이 동국(東國)의 해우<sup>96)</sup>까지 전파하여

89) 영각산사(靈覺山寺): 충청북도 영동군(永同郡) 남쪽에 있었던 절.

90) 심광대사(深光大師): 무염국사의 제자이고 대경대사(大鏡大師) 여엄(麗嚴)의 사형(師兄)이다.

91) 경개(傾蓋): 길을 가다가 우연히 서로 선망하던 사람을 만나 거개(車蓋)를 기울이고 가까이하여 상담(相談)하는 것을 말한다.

92) 동산지법(東山之法): 동산은 중국 근주(荊州)에 있는데, 4조도신과 5조홍인이 주석하던 산이므로 그들의 법통(法統)을 동산지법 또는 동산지지(東山之旨)라고 한다. 「진경대사보월능공담비문」 주83) 동산東山 [신라편] p.357; 「진철대사보월능공담비문」 주74) 동산지지東山之旨 [고려편1] p.25 참조.

93) 혼옥(昏旭): 혼(昏)은 석양에 지는 해(夜), 옥(旭)은 동산에 뜨는 해(晝)이니, 주야(晝夜)를 가리킨다.

94) 승엄(崇嚴): 승령(崇巔)과 같은 뜻이니, 숭산(崇山) 소림굴(小林窟)에 있었던 달마대사를 지칭한다. 「진경대사보월능공담비문」, “曹溪之冢子是崇巔之玄孫”.

95) 마곡(麻谷): 마조도일의 제자. 호는 마곡, 휘는 보철(寶徹)이다.

옴에 성주사(聖住寺) 무염회상(無染會上)은 천하에 비길 바가 없었다. 이에 그의 회하(會下)에서 진리를 탐구하도록 허락받았다. 그 후 부지런히 불교를 연마하여 사문(寺門)<sup>97)</sup> 밖으로 외출하지 않았으며 항상 초당(草堂)에 머물렀다. 심광대사(深光大師)께서는 나에게 실천(實踐)을 강조하시고 분별하는 의논(議論)은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sup>98)</sup> 실로 후생가외(後生可畏)라고 이를만 함이로다.

所以仰惟祖宗，仍是崇嚴之子，猶認先系，亦爲麻谷之孫也，足見聖道，所傳曹溪爲祖，代代相契，至于大師，所以來自江西，派於海左海隅，聖住，天下無雙，於是，許其探玄，殷勤學佛，不出蓮宇，常住草堂，大師實勞我心，談不容口，後生可畏。

그 후로부터 스님의 덕은 날로 새로워지니 숙세(宿世)부터 선근(善根)을 심고 선천적으로 영성(靈性)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sup>99)</sup> 그 누가 능히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으리오. 건녕 5년<sup>100)</sup> 가야산사<sup>101)</sup>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고부터는 계주(戒珠)가 다시 청정하였고 위의(威儀)가 더욱 엄전하였다.<sup>102)</sup> 선사<sup>103)</sup>의 선(禪)을 닦되 항상 마음<sup>104)</sup>에 화두(話頭)를 놓지

96) 해좌해우(海左海隅): 해좌는 동해인 좌측(左側), 해우는 동해의 모퉁이란 뜻이니, 모두 해동(海東) 즉 신라를 가리킨다.

97) 연우(蓮宇): 사원(寺院)을 가리킨다.

98) 실노아심(實勞我心): 수행을 지도하는데 있어 몸소 실천 수행함을 강조한다는 말이다.

99) 생지(生知): 날 때부터 잘 아는 생이지지(生而知之)를 말한다.

100) 건녕오년(乾寧五年): 당의 소종(昭宗) 연호. 신라 제52대 효공왕(孝恭王) 2년(898)이다.

101) 가야산사(伽倻山寺): 가야산 해인사를 지칭한다.

102) 유발미견(油盞彌堅): 발(盞)은 발(鉢)과 같은 자(字). 계율(戒律)을 굳게 지키며 위의(威儀)가 점잖다는 말이니, 『부법장인연전付法藏因緣傳』권3에 기름을

아니하고, 문수(文殊)의 지혜에 계합(契合)하여 경계를 비추되 항상 함이 없는 경지에 있었으며, 삼장(三藏)의 문구를 연설하되, 해(解)와 행(行)이 상응(相應)하고, 사분(四分)의 율장<sup>105)</sup>을 천양하되 부지런히 신과 행<sup>106)</sup>을 함께 닦게 하였다. 그러므로 분별의 문답과 시조(詩調)의 음영(吟詠) 등을 끊고, 하는 말마다 도를 높히며, 말마다 속(俗)된 말은 뱉지 아니하니, 몸은 마치 진리를 쌓아 놓은 무더기와 같았다. 삼장 속에 내재(內在)한 교리를 궁구하면서도<sup>107)</sup> 진리의 당체는 일리(一理) 중에 있으며,<sup>108)</sup> 반드시 인을 일으켜 태평성세(太平聖世)를 만들어 중생을 구제하여야 함이니,<sup>109)</sup> 태조(太祖)가 충암 절벽의 벼랑에 떨어지기 직전에<sup>110)</sup> 비록 성성장구의 운을

---

가득히 담은 바리때를 문짝 뒤에 달아 놓고 출입(出入)하는 비구(比丘)의 안상(安詳)과 위의를 시험한 데서 온 말이니, 계율을 지킴이 더욱 견고하다는 말이다. 「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문」 주56) 유발무경油鉢無傾 [고려편1] p.24 ; 「진공대사보법탑비문」 주60) 만유지발滿油之鉢(대정장50, p.306a) 참조.

- 103) 선서(善逝) : 圖sugatha, 불타(佛陀)의 십호(十號) 중 하나이다.
- 104) 영대(靈臺) : 마음이 있는 곳. 즉 마음을 가리킨다.
- 105) 사분지율(四分之律) : 사분율이란 오부율(五部律) 중의 하나. 사분은 다음과 같다. 제1분(第一分)은 비구의 250 계(戒)와 비구니(比丘尼)의 348 계에 따른 연기(緣起) 및 계상(戒相)을 설(說)한 부분, 제2분은 수계건도(受戒健度) 및 설계건도(說戒健度), 제3분은 안거건(安居健) 법제도(法第度), 제4분은 방사건도(房舍健度)에서 비니증일건도(毗尼增一健度)까지다. 이지관, 『남북전육부율장비교연구 南北傳六部律藏比較研究』, p.49 참조.
- 106) 양존(兩存) : 신(信)과 행(行) 또는 발심(發心)과 수행을 말한다.
- 107) 궁리재삼(窮理在三) : 불교를 연구함에는 삼장(三藏)에 있으니, 경(經)·율(律)·논(論) 삼장에 정통하였다는 말이다.
- 108) 체원함일(體元含一) : 체는 원래 하나 뿐이란 뜻이니, 심체(心體)는 유일(唯一)이란 말.
- 109) 수역(壽域) : 잘 다스려지는 세상. 즉 태평성세를 말한다. 두보(杜甫), “八荒開壽域 一氣轉洪鈞”.
- 110) 점위(點危) : 충암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극히 위험한 상태를 말한다.



났으나,<sup>111)</sup> 일양시생(一陽始生)하는 백육양구(百六陽九)의 위난(危難)을 겪게 되었으니<sup>112)</sup> 화진(火辰)이 땅을 비추며<sup>113)</sup> 금호<sup>114)</sup>인 소인배들이 관직을 맡아 세상을 어지럽게 하였다.<sup>115)</sup>

其德惟新，自非宿植善芽，生知靈性，其孰能至於此。乾寧五年，受具於伽倻山寺，旣而戒珠更淨，油盞<sup>116)</sup>彌堅。修善逝之禪，靈臺不動，契文殊之慧，照境無爲，演三藏之文，解行相應，開四分之律，勤修兩存。所以，問<sup>117)</sup>詰<sup>18)</sup>絕吟，<sup>119)</sup>吐言導道，口

『한서漢書』「식화지食貨志」, “安有爲天下阡危者 若是而上不驚者 世之有饑饉 天之行也”.

- 111) 성운삼천(聖運三千): 성군(太祖)의 운이 삼천이라는 뜻. 삼천이란 성성장구(盛盛長久)하다는 말. 또는 많다는 뜻이니, 고려 태조가 신라와 후고구려(弓裔) 및 후백제(甄萱)를 멸망시키고 통일하여 국운이 옥일승천(旭日昇天)으로 성성장구하다는 말이다.
- 112) 백육(百六): 백과 육이니, 1년 24절기 중에 한식절(寒食節)을 가리킴. 동지(冬至)로부터 한식까지는 105일, 또는 106일간인데, 동지로부터 일양(一陽)이 시생(始生)하므로 이를 백육양구(百六陽九)라 한다. 양구는 액(厄)을 뜻하므로, 이 날에는 질병(疾風)과 폭우(暴雨)가 있는 날이니, 다시 궁예(弓裔), 견훤(甄萱), 왕건(王建) 등이 정립(鼎立)하여 전쟁이 계속되었으므로, 그 때의 전쟁상황(戰爭狀況)을 표현한 것. 원진(元稹), 「연창궁사連昌宮詞」, “初過寒食一百六 店舍無煙宮樹綠”.
- 113) 화진(火辰): 별의 이름이니 화성(火星)이라고도 한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오혹(五惑) 중의 하나. 오행(五行)에 대비하면 화(火)에 속하는 별이므로 국민들의 마음이 모두 전쟁과 기근, 질병의 공포에 싸여 있음을 화진조지(火辰照地)라고 하였다.
- 114) 금호(金虎): 언행이 진실하지 못하여 군자(君子)를 모함하는 소인배(小人輩)를 비유하는 말. 또는 그러한 악행(惡行)을 가리킨다.
- 115) 금호사방(金虎司方): 금호와 같은 소인배들이 지방을 다스리는 관직을 맡고 있다는 뜻이다.
- 116) [苑] [總覽]에는 盞. [全文]의 盞은 盞의 오자임.
- 117) [總覽]은 詰라거나 [苑] [全文]은 問임.

不談俗，身猶蘊眞。然則窮理在三，體元含式，<sup>120)</sup> 必能興仁，壽域拯物，阡危此時，雖聖運三千而艱期百六，火辰照地，金虎司方，此際風聞。

이러한 때 남쪽 무주<sup>121)</sup>가 안전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곳에 가서 피난하여 수도하면서 여생을 보내리라고 결심한 대사는 동려(同侶) 11인과 함께 망망한 먼 길을 따라 그 곳에 도착하니, 과연 많은 사람들이 모여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sup>122)</sup> 얼마 지난 후 남해지방(南海地方)에 많은 사찰이 있다가 다시 그곳으로 가서 마땅한 정처를 구하러 다니다가 홀연히 도적<sup>123)</sup>의 소굴을 만나게 되었다. 물건을 강탈한<sup>124)</sup> 후 방으로 끌고 가서 차례로 죽이고 스님의 차례가 되어 칼로 목을 치려하였으나, 스님은 신색(神色)이 태연할 뿐만 아니라, 청운(靑雲)의 눈빛은 더욱 빛나서 전혀 두려워하는

118) [苑] [全文]에는 詰, [總覽]에는 詰로 어느 字가 맞는지 미상(未詳).

119) [苑] [總覽]에는 吟, [全文]의 命은 吟의 오자임.

120) [總覽]에는 一, [苑]에는 戈, [全文]에는 弑. 戈은 弑의 오자이고, 弑은 一의 古字이다.

121) 무주(武州): 백제 때 무진주(武珍州)이며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무주로 고쳤다. 「적인선사비문寂忍禪師碑文」 주1)무주武州 [신라편] p.79.

122) 군려(群黎): 백성(百姓), 만민(萬民), 검수(黔首) 등과 같은 뜻이니, 많은 사람을 지칭한다.

123) 홀우녹림(忽遇綠林): 녹자(綠字)가 [苑]과 [全文]에는 연자(緣字)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자임. 녹림(綠林)이란 도적의 별명이니, 왕망(王莽) 때 신시(新市)의 사람인 왕광(王匡)과 왕봉(王鳳) 등 무뢰한의 도당 수백명이 깊은 산에 숨어 강도가 되었으므로 도적을 일컬어 녹림이라한다. 『후한서』「유현劉玄」에 “王莽末 南方饑饉 人庶群入野澤 掘毚茹而食之 更相侵奪 新市人王匡 王鳳 爲平理諍訟 遂推爲渠帥 衆數百人 於是諸亡命 馬武王常成丹等 往從之 共功離鄉 聚藏於綠林中 數月間 至七八千人”이라 하다.

124) 각박(却剝): 결박하거나 죽이는 것.

기색이 없이 태연자약(泰然自若)하였다.

南在武州, 此中安處, 可能避<sup>125)</sup>難, 修保殘生, 所以, 大師與同侶十一<sup>126)</sup>人, 行道茫茫, 至于其所, 果然群黎翕集, 所在康寧, 然則竊承南海, 多有昭隄, 實堪駐足, 不久往於彼處, 謂云何以棲遲者焉居無何, 忽遇綠林, 潛侵玄<sup>127)</sup>室, 便爲却<sup>128)</sup>剝, 俱然<sup>129)</sup>同行訖, 次至大師, 大師臨白<sup>130)</sup>刃而<sup>131)</sup>神色怙<sup>132)</sup>然,<sup>133)</sup>志青雲而目光瑩<sup>134)</sup>爾, 唯無悚懼, 自若從容.

그들의 우두머리는 스님의 풍도(風度)가 늠름하며 말소리 또한 절절(切切)함을 보고는 크게 감격하여 칼을 버리고 함께 절을 하고는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간청하였다. 승냥이와 이리<sup>135)</sup>같은 잔혹한 마음을 고치고 예의(禮義)를 알게 하였으니, 마치 현장법사(玄奘法師)가 서역(西域)의 구법 도중 국경을 무단 침범한 죄로 죽게 되었을 때 도리어 그들을 교화한 것<sup>136)</sup>

125)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避임.

126)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一임.

127) [全文]의 元은 [苑] [總覽]의 玄의 오자임.

128) [總覽]의 却는 [苑]의 却과 [全文]의 卻의 오자임.

129) [全文]의 然은 然의 오자임.

130)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白임.

131)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而임.

132) [苑]과 [總覽]에는 怙. [全文]의 怙는 怙의 오자임.

133)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然임.

134) [全文]의 瑩은 瑩의 오자임.

135) 시랑(豺狼): 승냥이와 이리이니, 인간들 중에 탐욕(貪慾), 무자비(無慈悲), 포악(暴惡), 잔혹(殘酷)한 자를 비유하는 말. 『맹자』「이루離婁」상'에 “嫂溺不援 是豺狼也”라 하다.

136) 현장삼장포서역지위생(玄奘三藏拋西域之爲牲): 현장(玄奘)스님이 구법(求法)

과, 남양 혜충국사(慧忠國師)가 남양(南陽)으로 가다가 도적의 소굴을 만났을 때 동행(同行)은 빨리 피하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도적이 칼을 목에 들이댔음에도 저들을 제자로 교화한 것과 같다고 하겠다.<sup>137)</sup> 대개 선성(先聖)들이 어려움을 만난 것이 이와 같아서 만리(萬里)가 동풍(同風)이듯이 대사의 악인교화(惡人教化)도 피차 같은 것이라 하겠다.

魁首，觀其風度怡怡，語聲切切，投劒羅拜，<sup>138)</sup> 請師事焉，至於豺狼革心，寇賊知禮，譬如玄奘三藏，拋西域之爲牲，慧忠大師，免南陽之遇禍。夫先聖之遭難也，如彼，我大師之化人也，若斯，萬里同風，其歸一揆。

그 후 스님은 “내가 여기에 머물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혀 버리리라”하시고, 천우 3년<sup>139)</sup> 해안(海岸)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우연히 당(唐)나라로 가는 배를 만나 편승(便乘)을 간청하여 허락을 받았다.<sup>140)</sup> 목적지인 피안에 도달하여 이리 저리 서상(西上)하다가, 길을 동양(東陽)으로 돌

---

할 때에 인도의 어느 국경(國境)에서 혼자 지나면 국법(國法)으로 사형에 처하는 법을 범(犯)하고 죽게 되었는데, 태연자약(泰然自若)하여 그들을 교화시킨 사실을 말한다. 『대당고삼장현장법사행장大唐故三藏玄奘法師行狀』(대정장50, p.215).

137) 혜충대사면남양지우화(慧忠大師免南陽之遇禍) : 대력(大曆) 8년(773)에 혜충이 남양으로 가다가 적경(賊境)에 빠졌을 때 동행(同行)이 빨리 피하자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마침내 도적이 칼을 목에 들이댔으나, 스님의 태연자약함을 본 괴수(魁首)는 칼을 던지고 공손히 절하고 제자가 되었다. 『송고승전宋高僧傳』권 9(대정장50, p.763a24).

138) [苑]의 捧는 拜의 오자임.

139) 천우삼년(天祐三年) : 당의 애제(哀帝) 연호. 신라 제52대 효공왕(孝恭王) 10년(906).

140) 청이구서(請以俱西) : 함께 서쪽인 당나라까지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말이다.

려 팽택(彭澤)을 지나 드디어 구봉산(九峯山)에 이르러 경건한 마음으로 도건<sup>141)</sup>대사를 친견하게 되었다. 마침 대사가 뜰에 서 있었으니<sup>142)</sup> 절을 하고 엎드려 미처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sup>143)</sup> 대사가 스님을 보고 “사리(闍梨)는 머리가 희구려”하거늘, 스님이 대답하되 “현휘(玄暉)는 아무리 보아도 저 자신을 알 수 없나이다”하니, 다시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말인가”하였다.<sup>144)</sup> 대답하되 “저의 머리가 희다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라고 하였다. 대사는 “추억을 더듬어보니 너와 이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하였다. 기꺼운 바는 승당(昇堂)하여 대사의 오묘한 경지를 보고 입실해서 참선(參禪)토록 하였는데, 겨우 10일이 되자마자 심요(心要)를 전해 받아 묵묵히 서로 계합(契合)하였다. 마치 병의 물을 다른 병에 옮겨 부은 것과 같아서, 중화<sup>145)</sup>를 갖추어 평이평

141) 도건(道乾): 복건성(福建省) 출신(出身), 속성(俗姓)은 유씨(劉氏), 석상경저(石霜慶諸 807~888)의 제자. 도건(道虔)이라고도 함. 구봉산(九峯山)에 오랫동안 주석하였으므로 호(號)는 구봉(九峯), 시호는 대각선사(大覺禪師)이다. 『경덕전등록』권16(대정장51, p.329a13).

142) 망진(望塵): 거리에 사람과 수레가 왕래하느라 먼지가 일어나는 길을 바라본다는 말이니, 귀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먼지 날리는 길가를 바라본다는 뜻. 『진서晉書』「석송石崇」에 “石崇與潘岳 諸事賈謐 廣成君每出 崇降車路左 望塵而拜”라 하다.

143) 막배방반(膜拜方半): 두 손을 들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 또는 장궤(長跪)하고 절하는 것. 나무(南無 ㉠namo/namas)는 나모(南謨), 나막(南膜), 나모(南牟), 나모(那謨), 나모(娜母), 남막(納幕) 등 여러 가지로 음사되는데, 귀명(歸命), 경례(敬禮) 등으로 번역한다. 방반(方半)이란 절을 하려고 엎드려 미처 일어나지 않고 반쯤만 한 상태이다.

144) 습물(什物): 습마(什摩), 또는 심마(甚摩), 즈마(怎麼) 등과 같은 뜻이니, ‘무엇’이란 말이다. [總覽]과 [全文]에 습물(什勿)로 되었으나, 이는 습물(什物)의 오자임.

145) 중화(中和): 과(過)와 불급(不及)이 없다. 중정(中正)의 도(道)를 말한다. 『중용中庸』에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 致中和天地位焉 萬物育焉”이라 하다.

직(平易平直)한 마음으로<sup>146)</sup> 승강(昇降)을 지켰다. 주선(周旋)하는 절조(節操)가 있었으나, 의리(義理)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사람 노릇을 함에 있어서는 반쪽 밖에 되지 못하였다. 세간(世間)과 출세간(出世間)을 살펴보니 모두 불성(佛性)으로 돌아가 그 본체는 차별이 없어서 함께 일승(一乘)으로 회통(會通)하는 것이다.

大師其後謂曰, “終居此地, 必滯前程”, 天祐三年, 獨行汾海, 尋遇乘槎之者, 請以俱西, 以此寓載凌洋. 達于彼岸, 邈迤西上, 行道遲遲, 路出東陽, 經過彭澤, 遂至九峯山下, 虔謁道乾大師. 大師廣庭望塵,<sup>147)</sup> 膜拜方半, 大師問曰, “闍梨頭白”, 對曰, “玄暉, 目不知闍梨自己”, “爲什勿<sup>148)</sup> 不知”, 對曰, “自己頭不白.” “追思別汝, 稍似無多, 寧期此中, 更以相遇.” 所喜昇堂觀奧, 入室叅禪, 纔留一句, 密付心要, 受茲玄契. 如瀉德餅, 若備中和, 易直之心, 而無升降. 周旋之節, 於義爲非義, 於人爲半人. 恭惟世間出世間, 皆歸佛性, 體無分別, 俱會一乘.

그러므로 한 번 송문에 의탁한 지<sup>149)</sup> 어언 십경괴율이 경과한<sup>150)</sup> 지금 홀

146) 이직(易直): 평이평직(平易平直)의 준말. 『주례周禮』「동관冬官」「륜인輪人」에 “無所取之 取諸易直也”라 하니, 취(取)하는 바가 없으면서 모든 이직(易直)을 취한다는 말이다. 『금강경金剛經』, “應無所住而生其心”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147) [總覽]에는 塵. [全文]의 座는 塵의 오자임.

148) [全文] [總覽]에는 什勿이니, 이는 什摩物(무슨 물건)의 준말임.

149) 일탁송문(一託松門): 『全文』에 托으로 된 것은 오자임. 한 번 송문에 의탁하라는 뜻.

150) 십경괴율(十經槐律): 10년을 경과했다는 말이니, 괴율이란 괴추(槐秋), 또는 성율(星律)과 같은 뜻. 괴추는 7월이고, 성율은 연월(年月)의 뜻이니, 성상(星霜)과 같이 1년에 태세성(太歲星)과 괴추가 한 번 있었으므로 괴율이란 1년을 뜻한다.

로 병(餅)과 육환장(六環杖)을 지니고 사방으로 순례(巡禮)하여 선지식을  
 친견하면서<sup>151)</sup> 이름난 승경(勝境)은 모두 순례하고 수려한 명산에선 한 철  
 씩 지내곤 하였다. 천태산(天台山)의 이적(異跡)을 앙모하여 곳곳마다의  
 풍속을 보면서 영외(嶺外)로 행각(行脚)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천태조사  
 (天台祖師)의 탑에 참배하고는 호남(湖南)으로 발길을 돌려 이름난 선백  
 (禪伯)들을 친견하였다. 그리고 다시 북으로 유연(幽燕)을 거쳐 서쪽으로  
 공촉(邛蜀)을 둘러보았으며, 혹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국경을 넘나들  
 기도<sup>152)</sup> 하였다. 많은 성을 몰래 넘기도 하면서 사명(四明)에 당도하여 홀  
 연히 [결락] 조(鳥)를 만났는데, 동방으로부터 전하는 소식, 지금 본국에  
 는 전쟁의 안개가 걷히고 바다에는 점차 파도가 사라져서<sup>153)</sup> 외난(外難)은  
 모두 소멸되고 다시 중흥을 이루었다는 것이었다. 동광 2년(924)에 본국에  
 돌아오자 모든 국민이 서로 경하(慶賀)하여 환영하는 함성이 천지를 진동  
 하였으니, 마치 교지군(交趾郡)으로 달아났던 구슬이 다시 합포(合浦)로  
 돌아오고,<sup>154)</sup> 진(秦)나라로 팔려갔던 보벽(寶璧)이 무사히 조(趙)나라로 되

151) 사원참척(四遠參覈): 사방으로 다니면서 참방(參訪)하였다는 말. 척(覈)은 팔뚝  
 척字이니, 혜가단비(慧可斷臂)와 같은 뜻이다. 『대경대사현기탑비문大鏡大師玄  
 機塔碑文』 주14) 경성설립척이전심傾誠雪立<sup>覈</sup>以傳心 [고려편1] p.71 참조.

152) 허가도제도(或假途諸道): 가도(假途)란 타국(他國)의 길을 빌리는 것이다. 『사  
 기』 「노중련魯仲連」, “將之薛 假途於鄒”.

153) 점해파식(漸海波息): 바다에는 파도가 점점 사라졌다는 뜻이다.

154) 교지주환(交趾珠還): 합포주환(合浦珠還)이라고도 하니, 잃었던 물건을 다시 얻  
 었다는 비유. 교지와 합포는 연결해 있는 지명(地名). 합포태수(合浦太守)는 곡  
 물을 생산하지 않고 해중(海中)의 주보(珠寶)를 캐서 이웃 교지군과 통상무역  
 으로 식량과 교환하였다. 어느 때 태수가 욕심이 많아 마구 채굴하여 사욕(私  
 慾)을 채웠다. 그리하여 주보가 모두 이웃 교지군으로 옮겨갔는데, 후한(後漢)  
 때 맹상(孟嘗)이 태수가 되어 청렴(清廉)한 정치를 함으로써 다시 그 주보가 모  
 두 합포로 되돌아 왔다는 고사이다. 『후한서後漢書』 「순리맹상循吏孟嘗」에 “孟  
 嘗字 伯周 … 遷合浦太守 郡不產穀實 而海出珠寶 … 先時宰守 並多貪穢 詭人採

돌아온 것과 같이 하였다.<sup>155)</sup> 이는 오직 우담발화가 한 번 나타나고, 마루금<sup>156)</sup>이 중중(重重)히 비추는 것과 같았다.

求, 不知紀極 珠遂漸徙於交趾郡界 … 嘗到官 革易前幣 求民病利 曾未踰歲 去珠復還”이라 하다.

- 155) 조방벽반(趙邦璧返) : 완벽이환(完璧而還)이라고도 함. 초(楚)나라의 변화(卞和)가 산중(山中)에서 옥박(玉璞)을 얻어 이를 초의 려왕(厲王)에게 바쳤다. 왕이 옥인(玉人)에게 감정을 시켜보니 돌이라 판정(判定)하므로, 왕은 변화가 왕을 속였다고하여 그의 왼쪽 다리를 끊었다. 려왕이 죽은 뒤에 또 무왕(武王)에게 바쳤더니 무왕도 역시 옥인을 불러 감정한 결과 돌이라 판정함에 왕은 대노(大怒)하여 선왕(先王)을 속이고 나까지 속인다고하여 변화의 오른쪽 다리마저 끊어 버렸다. 무왕이 죽고 문왕(文王)이 즉위함에 변화는 그 옥박을 안고 산하(山下)에서 삼일삼야(三日三夜)를 통곡하였다. 왕이 울음소리를 듣고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 대답하기를 나는 양쪽 다리가 베인 것이 아까워 우는 것이 아니라 보옥(寶玉)을 돌이라 하고, 정사(貞士)를 광자(誣者)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 슬피 운다고 하였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다시 옥인을 시켜 세밀하게 감정한 결과 귀중한 보옥이라 하므로 이 옥을 화씨지벽(和氏之璧)이라 명명(命名)하였다. 그 후 이 보옥이 조(趙)나라 혜왕(惠王)의 소유(所有)가 되었다. 이 천하제일(天下第一)의 보옥의 소문을 들은 진(秦)나라 소왕(昭王)이 욕심(慾心)을 내어 15성(城)을 줄 터이니 교환하자고 요구했다. 이 때 조나라 외교관(外交官)인 인상여(蔣相如)는 옥을 가지고 진나라에 가서 소왕에게 보였다. 왕은 15성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우물쭈물 그냥 차지하려고 궁인남녀(宮人男女)를 모아 놓고 이 남자(男子) 저 여자(女子)들이 서로 탐애(貪愛)하게 하였다. 영특한 인상여는 그 옥이 보기에는 좋지만 옥티(瑕疵)가 있다고 했다. 이 때 왕신(王臣)은 잠깐 놀라 옥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옥을 되돌려 받은 인상여는 옥을 들고 기둥에 매치려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唯一)한 보물(寶物)인데 당신들은 남녀가 함부로 불결(不潔)하게 만지니 참을 수가 없다”하며, “내가 이 옥을 가지고 올 때는 3일간(日間) 목욕재계를 하고 왔으니, 이를 받으려면 당신들도 3일간 목욕재계를 할 것이며 그 후에 건네주겠다”하였다. 그리고는 비밀리 수행원(隨行員)에게 주어 본국(本國)으로 빼돌려 보냈다. 이를 완벽이환 또는 조방벽반이라고 한다(『사기史記』권81).

- 156) 마루(摩勒) : 가장 아름다운 금(金). 『남사南史』「이맥夷貊」에 “天竺迦毗黎國 元嘉五年 國王 遣使奉表獻金剛指環 摩勒金環諸寶物”이라 하였고, 「송쇄어宋瑣語」에 마루는 “金之至美者也 卽紫磨金”이라 하다.



所以, 一託松門,<sup>157)</sup> 十經槐律, 獨提鉞<sup>158)</sup>錫, 四遠叅<sup>159)</sup>旻, 境之幽兮, 往遊, 山之秀兮, 留駐. 所以, 天台仰異, 地境觀風, 嶺外擔登, 虔禮祖師之塔, 湖南負笈, 遠投禪伯之居. 其後沉復, 北抵幽燕, 西臻叩蜀, 或假途<sup>160)</sup>諸道, 或偷路百城. 以此, 隅<sup>161)</sup>到四明, 忽逢□<sup>162)</sup>鳥, 只費音信, 至自東方, 竊承本國, 祁山霧收, 漸<sup>163)</sup>海波息, 皆鎖外難, 再致中興. 迺於同光二年, 來歸舊國, 國人相慶, 歡響動天, 可謂<sup>164)</sup>交<sup>165)</sup>趾珠還, 趙邦璧返. 唯知優曇一現, 摩勒重榮.

태조 임금이 특사를 보내어 교외(郊外)에서 영접하게 하였으니, 융성한 총애의 영광이 당시로는 으뜸이었다. 다음날 구중<sup>166)</sup>으로 맞아들여 3등의 품계<sup>167)</sup>를 내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찬양하여 국사(國師)로서 우대하였다.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에 덮힌 안개를 흩어주는 설법을 할 때에는<sup>168)</sup> 자주 불자<sup>169)</sup>를 흔들었고, 임금은 스님의 도풍(道風)을 흠망하여 희색이 만만

157) [全文]에는 松字 다음에 鉞이 더 있으나, 이는 삭제되어야 함.

158) [全文]에는 提錫인 兩字 중간에 鉞字가 탈락됨.

159) [苑] [總覽]에는 旻. [全文]의 旻는 旻의 오자임.

160) [總覽]에는 途. [苑] [全文]에는 辻이니, 途가 옳음.

161) [苑] [總覽]에는 隅. [全文]의 隅는 隅의 오자임.

162)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三임.

163) [總覽]에는 漸. [苑] [全文]의 漸은 漸의 오자임.

164)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謂임.

165)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交임.

166) 구중(九重): 구중궁궐(九重宮闕)의 준말이니, 왕궁(王宮)을 지칭한다.

167) 삼등(三等): 삼등급(三等級)의 법계(法階)이니, 삼중대사(三重大師)이다.

168) 피무지시(披霧之時): 청법하는 대중의 마음에 덮힌 무명(無明)의 운무(雲霧)를 헤쳐준다는 뜻이니, 설법하는 때를 가리킨다.

(滿滿)하였다. 스님은 어로(語路)가 풍류(風流)로우며, 언천<sup>170)</sup>이 경절(境絶)하여 아직까지 얻지 못하였던 것을 얻게 하였으며, 현묘(玄妙)하고 또 현묘하여 홀연히 현현(玄玄)한 법담(法譚)을 듣게 하였으니, 마음에 가득한 번뇌를 모두 제거하고 우아한 경지를 얻어서 마침내 거울 같이 밝고 맑은 마음을 품게 하였다.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길 “모든 인연이란 그 실체가 없고 중법(衆法)은 마침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니, 마치 영약<sup>171)</sup>과 독초<sup>172)</sup>가 함께 숲 속에 공존하고, 감로(甘露)의 샘물<sup>173)</sup>과 수령의 탁한 물이<sup>174)</sup> 땅 속에서 같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으므로 이 이치를 잘 분별하여 미혹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임금의 불심은 더욱 돈독해지고 스님을 자주 친견하려는 마음이 깊고 간절하여 가까운 곳인 중주(中州) 정토난야(淨土蘭若)에 주지(住持)토록 청하였다.

上乃特遣使<sup>175)</sup>臣, 奉迎郊外, 寵榮之盛, 冠絕當時. 翌日延入九重, 降於三等, 虔心鑽仰, 待以國師. 大師披霧之時, 頻搖塵<sup>176)</sup>尾, 上乃望風之際, 甚悅龍顏. 所以大師, 語路風流, 言泉境絶, 得所無得, 玄之又玄, 忽聽玄譚, 盡去煩襟之悶, 仍承雅況, 終懷荃慮之規. 然則大師曰, “群緣體無, 衆法歸一, 若靈藥毒草,

169) 주미(塵尾): 설법할 때를 가리킨다.

170) 언천(言泉): 말의 원천(源泉). 곧 말할 때의 의식(意識)을 말한다.

171) 영약(靈藥): 신비한 영약이니, 청정(淸淨)한 불성(佛性)을 가리키며, 모든 부처(諸佛)를 말한다.

172) 독초(毒草): 지독한 질병이니, 오염(汚染)된 불성을 가리키며, 번뇌 중생(衆生)을 말한다.

173) 감천(甘泉): 감로수의 청정한 약수(藥水)이니, 부처님의 지혜를 말한다.

174) 어니(淤泥): 진흙탕의 더러운 오수(惡水)이니, 번뇌의 중생계를 말한다. 감천어니(甘泉淤泥)는 “故諸佛衆生同一根 煩惱涅槃無二際”를 말한다.

175) [苑] [總覽]에는 使, [全文]의 便是 使의 오자임.

176) [苑] [總覽]에는 塵, [全文]의 塵은 塵의 오자임.

同在林中，甘泉淤泥，共生泉下，能令分別，不有迷之。”上，事佛精勤，深<sup>177)</sup>求親近，仍于<sup>178)</sup>中州淨土蘭若，請以住持。

스님은 스스로 생각하되 “방금 입당유학(入唐遊學)을 마치고 창명(滄溟)을 헤쳐 귀국하여 항상 주석할 만한 유곡(幽谷)을 생각하던 터이라 이를 버리고 다시 어디로 가리요”하고는 문득 행장(行裝)을 정돈하였다. 한광(漢廣)을 건너고 유유히 산을 넘어 그곳에 가서 주석하니, 주변이 매우 아름답고 산천이 수려하였다. 중주에서 소문을 듣고 기꺼운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백천이나 되었다. 스님이 자리를 정하고 선탑(禪榻)을 펴자마자 사방으로부터 오는 대중이 모당(茅堂)을 가득히 채웠으며, 마치고마죽위(稻麻竹葦)와 같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으나, 스님은 가르침에 있어서는 조금도 권태를 느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뒤에는 얻어가지게 되어 마치 안개처럼 모였다가 구름같이 돌아갔으며, 스님의 지도 또한 학류(學流)를 유인(誘引)한 다음 중지를 일러 주었으니, 진리는 깊고 미묘(微妙)하나 말씀은 간결하며,<sup>179)</sup> 관찰력은 예리하고, 뜻이 깊어 육도(六度)의 모범이며 인천의 으뜸이었다.

大師，自此，“纔涉滄溟，每思幽谷，捨茲奚適，適我願兮。”於是，便挈山裝。尋凌漢廣，悠悠騫嶺，往以居之，境地偏佳，山泉甚美。當州聞風而悅，詣者百千，大師暫駐慈軒，尋鋪禪榻，四方來者，皆滿茅堂，森若稻麻，誨之不倦。所以先難後獲，霧集雲歸，大師誘引學流，敷陳宗旨，理妙詞簡，機深義精，六度之龜麟，人天之海嶽也。

17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深임.

178)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에는 于임.

179) 이묘사간(理妙詞簡): 진리는 묘하고, 말씀은 간결하다는 뜻이다.

이 때 좌승(佐丞)인 유권열(劉權說)이란 신하(臣下)가 있었는데, 이는 마치 은(殷)나라 고종(高宗)의 재상(宰相)인 부열<sup>180)</sup>과 같았다. 나라의 충신이며 재가의 제자였다. 니부<sup>181)</sup>인 공자(孔子)를 찬양하는 선비이니, 마치 안연(顔淵)의 무리와 같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신봉하였으니, 아울러 아난(阿難)과 같은 유라 하겠다. 특히 선경(禪境)에 이르러<sup>182)</sup> 스님을 친견하고 문득 피석(避席)의 의례(儀禮)를 뵈었으며, 깊이 구의<sup>183)</sup>의 정성을 오롯하게 하였다.

爰有佐丞劉權說者，殷傳說之流也。於國忠臣，在家弟子。鑽仰尼父，必同顏氏之徒，服膺釋迦，須並阿難之類。<sup>184)</sup> 特趨<sup>185)</sup>禪境，敬禮慈顏，便申避席之儀，深展摠衣之懇。

그 후 하국<sup>186)</sup>의 어진 군자들이 인(仁)을 구하러 모이고, 중원(中原) 지방의 선비들이 스님의 덕을 흠모하여 무리를 이루어 찾아와서 공경히 스

180) 부열(傅說): 은(殷:商)나라 제22대 왕인 고종(高宗)의 재상(宰相). 고종이 은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하였으나, 보좌(輔佐)의 현인(賢人)을 얻지 못하여 3년간 스스로 정령(政令)을 선포(宣布)하지 않았으며, 정사(政事)는 모두 재상에게 위임하고 스스로 국풍(國風)을 관찰하였다. 어느 날 꿈에 성인(聖人)을 보고 그 모습을 그려서 백방(百方)으로 찾았더니, 부암중(傅岩中)에 은거하면서 파괴된 도로(道路)를 수축하고 있는 자를 보고는 불러 재상에 임명(任命)하니, 나라를 크게 부흥케 한 인물이 되었다. 『사기』권3.

181) 니부(尼父): 공자를 존칭하는 말이다.

182) 특추선경(特趨禪境): 교종(敎宗)으로부터 선종(禪宗)으로 옮겼다는 뜻.

183) 구의(摠衣): 옷 뒷자락(裾)을 약간 끌어올리는 것으로, 공손히 예배(禮拜)한다는 말. 「석문釋文」에 “摠 提也，衣 裳也 既不踏席 當兩手提裳之前 徐徐向席之下角 從下而升 當已位而就坐也”라 하다.

184) [苑] [總覽]에는 類, [全文]의 類은 類의 오자임.

185) [苑] [總覽]에는 趨, [全文]의 趁은 趨의 오자임.

186) 하국(下國): 제후(諸侯)의 나라를 가리킨다.

님을 친견하였으니, 마치 백련(白蓮)이 안계(眼界)에서 핀 것과 같았고, 공손히 법문을 듣는 이에게는 감로수가 심원(心源)에 내리는 것과 같았다. 그러므로 스님은 스님 중의 스님이라고 할 만하였다. 천군이라는 법형(法兄)이 말하되 “스님은 선림(禪林)에서 대중을 거느리고 길을 열어 주었고, 천자의 관헌(官軒)에서는 보수(寶樹)가 우뚝 솟은 것과 같았으나, 요부(澆浮)한 말법시대(末法時代)에 법왕(法王)의 교화를 펴신 분이 다”라고 이르기에도 했다. 그러나 상법(上法)을 알기는 쉬우나 상법을 행하기는 어려우며, 상법을 닦기는 쉬우나 상법을 깨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其後，下國之賢，求仁所聚，中原之士，慕德成群，祇<sup>187)</sup>奉儀形者，白蓮開於眼界，敬聞言說者，甘露降於心源。然則可謂主僧子。天君法兄曰，“禪林御衆，開道人，<sup>188)</sup>天<sup>189)</sup>子之軒，寶樹居尊，施澆季法王之化者也。”而又知上法易，行上法難，修上法易，證上法難。

어떤 사람이 물기를 “만행개공(萬行皆空)”이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수행을 주장하는가”라고 하니, 대답하되 “본래(本來) 고락(苦樂)이 없건만 망습(妄習)이 그 원인이 되어 고통을 받게 되므로 중생들의 망심(妄心)이 없어지면 나의 고통(苦痛)도 따라서 사라지니, 다시 어느 곳에서 아직도 보리(菩提)를 찾고자 하는가”라고 하였다. 그 후 조정(朝廷)의 사류(士流)들이 왕명(王命)을 받들고 왕래하되, 중부(中府)인 중원(中原)의 길을 밟는 사람이 수천명에 달했으며, 사류 중에는 만에 하나라도 왕사(王事)에 분

187) [總覽]에는 祇. [全文]의 祇와 [苑]의 祇은 祇의 오자임.

188) [苑] [總覽]에는 人. [全文]의 入은 人의 오자임.

189) [總覽]은 結략이나 [苑] [全文]에는 天임.

망하여 스님이 계시는 문턱을 밟지 못한 것을 큰 수치로 여기기도 하였다.

或問,<sup>190)</sup> “‘萬行皆空’, 云何故行.” 對曰, “本無苦樂, 妄習爲因, 衆生妄除, 我苦隨盡, 更於何處, 猶覓<sup>191)</sup>菩提.” 然則朝廷士流, 銜命來往, 路出中府, 終季幾千, 萬一<sup>192)</sup>之流, 忙於王事, 不踐門闕,<sup>193)</sup> 以爲大羞.

만약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선사를 배알하고 일심(一心)으로 양모하여 항상 가르침을 들으니, 마치 긴 밤을 지내고도 아침의 시장함을 씻은 듯이 잊은 듯하였다.<sup>194)</sup> 법설(法說)을 위해 운집 중을 크게 친 다음에는 바다에 들어감에 그 맛이 한가지(同味)이며, 법을 관해보니 체가 없음(無本)이요, 마음을 관하니 본래 불생(不生)임을 알게 되었다. 오직 최상승만이 중도의 이치에 머무니, 마치 싸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옴에 백 가지 과실이 모두 영그는 것과 같았다. “너희들이 부처님의 법을 능히 총지(摠持)하면 나도 또한 따라 기꺼워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위없는 깨달음의 수행 방법이 분파(分派)되어 선종(禪宗)이 성립되었다.

若乃<sup>195)</sup> 虔謁禪關, 仰承一眄<sup>196)</sup>, 每聞曉誨, 如洗朝飢. 及其撞鍾大鳴, 入海同味, 觀法無本, 觀心不生. 惟最上乘, 止於中道, 涼風旣至, 百實皆成. 汝能摠<sup>197)</sup>持, 吾亦隨喜, 由是, 無上覺路,

190) [苑] [總覽]에는 問, [全文]의 問은 問의 오자임.

191) [全文]은 覓, [總覽] [苑]의 覓은 覓의 약자(略字)임.

192) [苑] [全文]은 弌, [總覽]은 一, 弌은 一의 古字임.

193) [苑] [總覽]에는 闕, [全文]의 闕은 闕의 오자임.

194) 조기(朝飢): 조기(調飢)라고도 함. 아침 먹기 이전의 배고픔을 말한다. 『신서新書』에 “諡誠 募人朝飢時 酒二酉重裘而立”이라 하다.

195) [苑] [總覽]의 乃와 [全文]의 及은 뜻으로는 무방함.

196) [全文] [總覽]에는 眄, [苑]의 眄은 眄의 오자임.

分爲此宗.

대사가 대중에 이르시되 “일찍이 내가 임금과 향화(香火)의 인연을 맺었으니, 마땅히 최후에 대왕전하(大王殿下)를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부촉(付囑)하신 당부를 정성껏 왕신(王臣)에게 부탁하리라”하시고, 노구(老軀)를 무릅쓰고 병고(病苦)를 참으면서 바람처럼 달려가되 급한 걸음으로 나아가 여러 날만에 상도(上都)에 당도하였다.<sup>198)</sup> 당부의 한 가지만 바랄 뿐 다른 청은 전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임금을 만나 간절히 원하는 바를 여쭙자 임금이 답하되, “불법(佛法)이 국왕(國王)으로 말미암아 흥왕(興旺)된다는 말이 진실로 빈 말이 아님을 알았으니,<sup>199)</sup> 원컨대 스님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도하시어 오래도록 생령(生靈)을 보호해 주십시오”하였다. 그 반면에 제자는 “진리의 강역에 튼튼한 담장과 요새같은 외호(外護)가 되리니,<sup>200)</sup> 사찰(寺刹)을 금성(金城)과 탕벽(湯壁)처럼 수호(守護)하겠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sup>201)</sup> 스님이 답하되 “보살임금의 큰 서원은 대승심(大乘心)을 발(發)하며, 호법(護法)을 마음에 새기고 자비(慈悲)를 널리 베푸는 것을 의무로 하리니, 바로 이와 같이 하기 위해 지금 성

197) [總覽]에는 摠, [苑] [全文]의 惣은 摠의 오자임.

198) 상도(上都) : 송도(松都)인 개성(開城)을 가리킴.

199) 범유국흥(懷由國興) : 범(懷)은 법(法)의 고자(古字). 불법(佛法)이 국왕(國王)의 관심에 따라 흥왕하여진다는 말이다.

200) 장참법성(牆湮法城) : 불법(佛法)에 대한 튼튼한 원장(垣牆)과 참갱(塹坑)이란 뜻이다. 「진철대사보월승공답비문」 주202) 범성지장참法城之牆湮 [고려편1] p.37 ; 「진공대사보법답비문」 주110) 범성法城 [고려편1] p.100 참조.

201) 금탕기수(金湯祇樹) : 금탕은 금성탕지(金城湯池)의 준말이다. 「진철대사보월승공답비문」 주201) 인국지금탕仁國之金湯 [고려편1] p.37 ; 「진공대사보법답비문」 주109) 금탕金湯 [고려편1] p.100 참조.

조(聖朝)를 찾아뵙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大師謂大衆曰，曾修香火之因，於大王殿下，永言付囑，虔託王臣，所以老僧，忍<sup>202)</sup>病趨風，貪程就日，冀於一訣，不在它求，以此即到上都。親申誠懇，上答曰，“灋由國興，誠不虛語，實願大師，安心道念，久護生靈。弟子，牆塹法城，金湯祇樹。”大師對曰，“菩薩弘誓，上乘發言，護法爲心，流慈是務，正應如是，今窺聖朝。”

또 문기를 “수행의 공용(功用)이 원근(遠近)의 차이가 있습니까”하니, 답하되 “한 방울의 물이라도 바위에 떨어지면 곧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음을 아십시오”라고 하였다. 또 문기를 “말을 알아듣고 서로 믿으면 먼저 아는 사람과 다를 바 없으니, 어린 동몽(童蒙)이 어떻게 관물발심(觀物發心)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대답하되 “어린아이가 먹기를 거부하고 입을 다물면 유모인들 그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대저 금이 산중에 감추어져 있으면 그 산을 보악(寶嶽)이다 일컫고, 구슬이 물속에 숨어 있으면 그 물을 진천(珍川)이라 하니, 진리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어서 이러한 뜻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 하였다.

又問，“修行功用，遠近當殊。”答曰，“滴水不巖，即知朝海。”  
又問，“了言相信，先會暗同，爭奈童蒙，如何勸發。”曰，“兒喉既閉，<sup>203)</sup>乳母奚爲。”“夫金韞於山，則山<sup>204)</sup>稱寶嶽，珠藏於水，則水號珍川，其道念茲，亦同於此，此情何已，俱在前言。”

202) [全文]의 忽은 [苑] [總覽]의 忍의 오자임.

203) [全文]에는 閉. [苑] [總覽]의 閉는 閉의 俗글자임.

204) [總覽]은 硯이나 [苑] [全文]에는 山임.



이 때 스님이 선상<sup>205)</sup>에 연좌(宴坐)하고 혜원에<sup>206)</sup> 경행(經行)하면서 심법(心法)을 연설한 오묘한 말씀은 신근(信根)을 논(論)한 절절(切切)한 법담(法譚)이었다. 그러한즉 진공(眞空)은 상(象)이 없고 실제(實際)는 언어를 초월하였거늘, 어찌 혜일(慧日)의 광명(光明)이 침몰(沈沒)하고야 비로소 스님의 열반이 빠른 줄 알았겠는가. 자비의 구름 빛이 사라졌으니, 홀연히 스님의 열반에 대한 슬픔으로 끌어 오르도다.

此際，宴坐禪牀，經行慧苑，演心法玄玄<sup>207)</sup>之話，論信<sup>208)</sup>根切切之譚，然則眞空無象，實際絕言，豈惟慧日光沉，方感泥洹之早，慈雲色斂，忽牽滅度之悲而已矣哉。

천복 6년 11월 26일 이른 아침에 문인을 모아 놓고 이르되 “가고 머무는 것은 때가 있으나, 오고 감은 주(住)함이 없도다”하시고, 조용히 입적하니, 주변은 변함이 없었다. “너희는 힘써 유계(遺誡)를 봉행하여 종지를 무너뜨리지 않으므로써 나의 은혜를 갚으라”하였다. 열반에 들기 전날 저녁에 제자가 묻기를 “화상께서 세상을 떠나시려는 마당에 법등(法燈)을 누구에게 부촉하시렵니까”하니, 스님이 말씀하시길 “등등마다 스스로 동자가 있어 점화(點火)한다”하고 하였다. 다시 묻되 “저 동자는 어떻게 퍼 보입니까”하니, 답하시되 “별이 청천(靑天)에 가득 포열(布列)되어 있으니,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라 하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단정히 앉아 열반에 드시니, 속년(俗年)은 63세요, 승랍(僧臘)은 41이었다.

205) 선상(禪牀) : 참선한다는 뜻이다.

206) 혜원(慧苑) : 강원(講院)에서 경전을 연구한다는 뜻. 「낭원대사오진탑비문朗圓大師悟眞塔碑文」 주160)혜원 [고려편1] p.128 참조.

207) [苑] [總覽]에는 玄玄, [全文]의 元元은 玄玄의 오자임.

208) [苑] [總覽]에는 信, [全文]의 性是 信的 오자임.

天福六年十一月二十六日, 詰旦, 告門人曰, “去留有期, 來往無住.” 於焉示化, 所在如然. “汝勉旃奉行遺誠, 不墮宗旨, 以報吾恩也.” 未示滅之前夕, 弟子問, “和尚欲去, 付囑何人.” 師曰, “燈燈自有童子點.” 問, “彼童子如何示展.” 曰, “星布青天裏, 於中那得知.” 言竟坐滅, 俗年六十有三, 僧臘四十有一.

이 때 구름과 해는 처참하고, 바람과 샘물은 오열하며 산천이 진동하고, 새와 짐승들은 슬피 울며, 제천(諸天)이 창언(唱言)하되 사람마다 눈이 없어졌다고 주변 열군(列郡)들의 군민은 한을 머금고 울먹였다. 세상은 공허하여 천인들마저 슬퍼하는 상심을 가히 알 만하였다. 성감(聖感)과 영응(靈應)이 어찌 거짓이겠는가. 제자 활행(闢行) 등 300여인이 울면서 유해를 받들고 3일 만인 그 달 28일 개천산(開天山) 북봉(北峰) 남쪽 기슭에 하관하였으니, 이는 상교를 준수한 것<sup>209)</sup>이다.

于時, 雲日慘淒, 風泉鳴<sup>210)</sup>咽, 山川震動, 鳥獸悲啼, 諸天唱言, 人無眼目, 列郡含恨.<sup>211)</sup> 世且空虛, 天人感傷, 斷可知矣. 聖感靈應, 豈誣也哉. 弟子闢行等三百餘人, 號奉, 以其月二十八日, 窆于北峯之陽, 遵像教也.

임종하시기 직전 왕에게 표(表)를 만들어 고하니, “노승(老僧)이 뜻하였던 바를 이룩하지 못하고 영원히 성상(聖上)을 하직하려 하여 인사에 대신한다”고 하였다. 임금이 표장(表狀)을 펼쳐 보시고 크게 애도하면서 시호(諡號)를 법경대사(法鏡大師), 탑명(塔名)을 자등지탑(慈燈之塔)이라고

209) 상교(像敎): 밖으로 보이는 외상(外相). 즉, 의전(儀典)을 준수했다는 뜻이다.

210) [苑] [總覽]에는 鳴. [全文]의 鳴은 鳴의 오자임.

211) [苑] [總覽]에는 恨. [全文]의 憾은 恨의 오자임.

추증(追贈)하였다. 임금으로서 스님을 존중함이 작연<sup>212)</sup>하면서도 멀리서나마 깊이 추모하는 예의를 갖추었음을 알겠다.<sup>213)</sup> 이제 다시는 서울에서 함께 할 수가 없음을 한탄하였다.

臨終之際，奉表告辭云，“老僧不遂素懷，永辭聖代矣。”上乃披覽，皇情悼焉，乃贈諡曰，法鏡大師，塔名慈燈之塔。則知尊師之道，焯然，追遠之儀，賅矣。於是乎在莫之與京。

스님은 오직 영악(靈岳)이 낳은 인물이었으며, 철인(哲人)으로 세상에 나타나서 석교(釋敎)를 부양(敷揚)하고 선종(禪宗)을 천양하였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세상에 현생(現生)하였고, 사람들의 고통을 근심하여 홍도(弘道)하였으니, 그의 모습은 온화하고 말씨는 과묵(寡默)하였다. 굶주린 배로 찾아와서는 가득히 채워 돌아갔으니, 심수(心樹)의 꽃은 선명하고, 법류(法流)의 물은 청정하며, 달이 밝으니 강이 더욱 넓어 보이고, 나뭇잎이 떨어지니 산이 한 층 더 높게 보임이라.

惟大師，惟岳降靈，哲人生世，敷揚釋敎，闡示禪宗。然則爲物現生，憂人弘道，貌和言寡。飢至飽歸，所以，心樹花鮮，法流水淨，月明江闊，木落山高。

그러므로 침복(簪蔔)이 신비로운 향내를 풍기고 제호(醍醐)의 승미(勝味)지닌 것과 같았다. 정도에는 본래 말이 없으나,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에는 언설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사방(四方)으로부터 시주하는 신도들의 인연이 대중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재물이 있는 이나 없

212) 작연(焯然): 작작(焯焯) 또는 작삭(焯鑠)과 같은 뜻. [苑]에는 然字가 焉으로 되었는데, 뜻으로는 양자(兩子)가 모두 무방하다.

213) 해의(賅矣): 해(賅)는 갖추 해字.

는 사람들이 모두 스님 회상(會上)의 대중수도에 심요(心要)한 사사공양(四事供養)을 마음으로나 물질로 넉넉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도는 능가<sup>214)</sup>인 선종에서 묻고, 스승은 멀리 인도에서 찾아 심심(甚深)한 미묘법(微妙法)을 얻어 듣고자 하였으며, 팔을 끊어 바쳐 위법망구(爲法妄驅)하였듯이 전심전법(傳心傳法)에 간절하였다.

故能馨蔔神香，醍醐勝味。正道無說，權機有言。由是四方，施捨之緣，歸於大衆。一世有無之屬，瞻<sup>215)</sup>彼窮人。然則可謂問道楞伽，尋師印度，求深斷臂，志切傳心。

드디어 일국(一國)으로 하여금 인(仁)으로 돌아가도록 실조(實助)하였으니, 제왕(帝王)의 덕화(德化)가 하는 일마다 천문입선(千門入善)하되 치우치지 않았고, 아울러 각계각층의 백성들의 마음<sup>216)</sup>을 촌촌이 적서 주었다. 하신(下臣)인 제가 홀연히 스님의 비문을 지으라는 성상의 교지<sup>217)</sup>를 받들었으나,<sup>218)</sup> 신은 재주가 봉황을 삼킨 양웅(楊雄)에 미치지 못하고<sup>219)</sup>

214) 능가(楞伽) : 『능가경楞伽經』을 소의(所依)로 하는 선종을 가리킨다.

215) [苑] [總覽]에는瞻, [全文]의瞻은瞻의오자임.

216) 여서(黎庶) : 서려(庶黎) 또는 여민(黎民)과 같은 뜻이니, 각계 각층의 백성. 즉 군민이라는 뜻이다.

217) 지니(芝泥) : 인육(印肉), 인(印), 자분(紫粉) 등의 뜻이니, 임금의 교지(教旨)를 가리킨다. 유신(庾信)의 「한무제취서찬漢武帝聚書贊」에 “芝泥印上 玉匣封來”라 하였고, 양신(楊慎)의 『외집外集』에는 “今之紫粉 古謂之芝泥 今之紫砂 古謂之丹腹 皆濡印染籀之具也”라 하였다.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文」 주279)지검芝檢 본서(本書) p.157 참조.

218) 영수제구(令修鑿臼) : 제구(鑿臼)란 ‘황견유부의손제구(黃絹幼婦外孫鑿臼)’에서 나온 말로, 뛰어난 명문을 가리킨다.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文」 주105)제구鑿臼 본서 p.129; 「진궁대사보법탑비문」 주111)제구鑿臼 [고려편1] p.152 참조.

학문은 형설(螢雪)의 공(功)을 쌓지 못하였건만,<sup>220)</sup> 억지로 무딘 언사(言詞)를 나열하여 스님의 높은 선덕(禪德)을 고양(高揚)하노니<sup>221)</sup>, 바라는 바는 영원히 켜지 아니하여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도록 길이 길이 보여주길 바라는 바이다.

遂使一國，歸仁實助，帝王之化，千門入善，偏霑黎庶之心。下臣，忽捧芝泥，令修麓<sup>222)</sup>白，臣才非吞鳥，學謝聚螢，強措菲詞，式揚禪德，所冀，垂于不朽，永示無窮。

국주(國主)가 추모하여 전액(篆額)을 써서<sup>223)</sup> 돌아가신 스님에 대한 애통함을 나타내었다. 문인이 귀문<sup>224)</sup>에 대해 감모(感慕)하되, 절학(絶學)의 슬픔을 표하는 바이다.

명하여 가로되,

國主追哀<sup>225)</sup>鳳篆<sup>226)</sup>，彰亡師之慟。門人，感慕龜文，表絶學之

219) 탄조(吞鳥) : 탄봉(吞鳳) 또는 토봉(吐鳳)이라고도 함. 봉황을 삼켰다는 말이니, 문장(文章)의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이름. 한(漢)나라 때 양웅(楊雄)이 백봉(白鳳)을 삼키는 꿈을 꾸고 『태현경太玄經』을 지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

220) 취형(聚螢) : 가난한 사람이 등을 켜 만한 기름이 없어 반딧불을 모아 등화(燈火)를 대신하였음을 뜻함이니, 각고(刻苦)의 학문 탐구를 비유하는 말. 『안씨가훈顔氏家訓』 「면학勉學」에 “照雪聚螢”이라 하고 『북사北史』 「최랑전崔廊傳」에는 “聚螢映雪 懸頭刺股”라 하다.

221) 식양선덕(式揚禪德) : 스님의 선덕을 비문에 담아 법답게 선양(宣揚)하려 한다는 말이다. 「진철대사보월승공답비문」 주205) 식양고축式揚高躅 [고려편1] p.38 참조.

222) [苑] [總覽]에는麓, [全文]의苞는麓의 오자임.

223) 국주추□봉전(國主追□鳳篆) : 봉전(鳳篆)은 어필(御筆)을 가리킴이니, 임금의 추모하는 뜻에서 비(碑)의 전액(篆額)을 쓴다는 말. [全文]에는 봉탁(鳳啄)으로 되었으니, 이는 봉전(鳳篆)의 오자임.

224) 귀문(龜文) : 비문(碑文)을 가리킴.

225) [苑] [總覽]은 결락이고 [全文]에는哀이나, 未詳함.

悲, 銘曰,

위대하심이여 크게 깨달은 우리스님!  
우리들의 우매함을 불쌍히 여기시도다.  
아지랑이를 물로 여기지 말며,<sup>227)</sup>  
화성(化城)인 방편(方便)에 머물지 말라.

懿歟大覺,  
愍我群生.  
休飲炎水,  
莫趨<sup>228)</sup>化城

눈에 보이는 물색(物色)에 착(着)하지 말 것이니,  
일체(一切)의 명상(名相)은 오직 가명(假名) 뿐 일세.  
오직 그 진실(眞實)만을 알아야 하니,  
시험 삼아 혜명(慧明)을 찾아볼지어다.

色則非色,  
名惟假名.  
知惟眞實,  
試是慧明.

크신지라, 개천산(開天山) 법경대사(法鏡大師)여!<sup>229)</sup>

---

226) [苑] [總覽]에는 篆. [全文]의 喙는 篆의 오자임.

227) 염수(炎水): 따뜻한 봄철에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보고 물인 줄 알고 마시려고 쫓아간다는 비유. 본비문 주44) 취염趣炎 p.194 참조.

228) [苑] [總覽]에는 趨 [全文]에는 越이니, 뜻으로는 무방함.

마조(馬祖)의 법을 이은 보철(寶徹)의 손자이다.

체(體)를 갖춘 것이 두루 원만함은

마치 공자의 제자 안씨(顔氏)와 같도다.

倬<sup>230)</sup>哉至人,  
麻谷孫子.  
具體則圓,  
猶如顏氏.

도덕은 비둘기를 살린 것보다 높고,<sup>231)</sup>

자비는 개미의 무리를 구제함보다 뛰어났도다.<sup>232)</sup>

불법(佛法)의 진종(眞宗)을 깊이 깨달았고,

도건(道乾)의 법통을 전해 받았네.<sup>233)</sup>

道冠憐鷹,  
慈超救蟻.  
□悟眞宗,  
潛傳闕<sup>234)</sup>旨.

229) 탁제지인(倬哉至人): 탁월하고 위대한 지인이란 말.

230) [苑] [全文]은 倬, [總覽]과 [拓本]에는 倬이니 이는 倬字가 뜻으로 더 좋음.

231) 연웅(憐鷹): 부처님께서 과거인행시(過去因行時) 산중에서 수도하고 있을 때, 새매에게 쫓긴 비둘기를 감추어 주었다. “새매가 같은 생명(生命)이거늘 어찌 나의 배가 고파 죽는 것은 망치하느냐”고 원망하므로, 부처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시하여 먹게 하였다. 이 본생담(本生譚)에서 근거한 것으로서 스님의 자비가 그 보다 높고 넓다는 말.

232) 구의(救蟻): 물에 떠내려가는 많은 개미를 구제하였다는 말. 「자적선사능운탑비문 慈寂禪師凌雲塔碑文」 주76) 구의 [고려편1] p.171 참조.

233) 비지(闕旨): 깊이 단혀 있는 심오(深奧)한 종지(宗旨). 즉, 서래밀지(西來密旨)를 가리킴.

해동(海東)에 전파하여 소룡(紹隆)하였고,  
 사방(四方)에서 모여드는 납자(衲子)를 제접하되,  
 깊고도 오묘한 밀지(密旨)로써 실어 나르고,  
 神通한 묘용(妙用)으로 모든 기(機)를 쉬게 하시네.

紹隆三<sup>235)</sup>寶,  
 桓<sup>236)</sup>接四依,  
 玄情乘運,  
 妙用息機.

지혜의 흐르는 물은 빠르고 상쾌하며  
 마음의 길 돌아갈 곳 알았네.  
 아직까지 듣지 못한 것 모두 들었고,  
 여지껏 얻지 못했던 법 두루 얻었도다.

智流激爽,  
 心路知歸,  
 聞所未聞,  
 得其無得.

법체(法體)는 본래 오고 감이 없으나,  
 종지(宗旨)로는 남북종(南北宗)으로 나누어졌네.  
 성스러운 불심(佛心)을 깨치지 못하였다면,  
 그 누가 선덕(禪德)이라 존숭(尊崇)하리요.

234) [苑] [總覽]에는 闕. [全文]의 闕은 闕의 오자임.

235) [總覽]은 結략이나 [苑] [全文]에는 三임.

236) [苑] [總覽]에는 桓. [全文]의 桓은 桓의 오자임.



法無去來,  
宗判南北.  
靡見聖心,  
誰尊禪德.

계행(戒行)은 청정(淸淨)하게 항상 지켰고,  
말씀은 언제나 한결 같았네.  
마음으론 영기(靈器)를 전해 받았고,  
도덕으론 항상 성조(聖朝)를 도왔도다.

佛戒<sup>237)</sup> 恒行,  
師言不忒,  
心傳靈器,  
道贊聖朝.

교화는 모든 중생(衆生)에게 널리 입혔고,  
위력(威力)은 못 요망(妖妄)함을 꺾었으며,  
처음 산중에서 연좌(宴坐)할 그 때부터,  
여러 차례 임금의 초빙을 받았도다.

化被群惑,  
威摧衆妖,  
初從宴坐,  
屢赴嘉招.

---

237) [苑] [全文]에는 戒. [總覽]의 戒은 戒의 오자임.

생각은 깊고 깊어 과묵(寡默)하시고,  
 생활은 검소하여 사치함이 없도다.<sup>238)</sup>  
 의복(衣服)은 언제나 굵은 삼베 뿐이었고<sup>239)</sup>  
 음식은 법희선열(法喜禪悅)로 수용하였다.

惟思惟慮,  
 匪斷<sup>240)</sup> 匪雕.  
 服煖<sup>241)</sup> 緼<sup>242)</sup> 黻<sup>243)</sup>,  
 食甘禪悅.

열반 소식 전해지자 임금이 슬퍼했고,  
 법문을 듣고자 목말라 하였네.  
 오직 학인 지도하기를 좋아하여서,  
 중도(中途)에서 그치는 일은 전혀 없었네.

大君感傷,  
 眞宰思渴.  
 唯喜學人,  
 並無中輟.

238) 비착비조(匪斷匪彫) : 스님의 바탕은 천진소박(天真素朴)하여 깎고 다듬는 수식  
 이 없다는 말.

239) 복난온분(服煖緼黻) : 온분(緼黻)이란 온저(緼著)와 같은 뜻으로, 빈천(貧賤)한  
 사람들이 입는 조악(粗惡)한 옷. 『열자列子』 「양주楊朱」에 “昔者 宋國有田夫 常  
 衣 蘊黻 僅以過冬”이라 하고, 그 주에 온분(緼黻)은 “謂入弊麻衣也”라 하다.

240) [苑] [總覽]에는 斷. [全文]의 斯는 斷의 오자임.

241) [苑] [總覽]에는 煖. [全文]의 煖은 煖의 오자임.

242) [總覽]에는 緼. [苑] [全文]의 緼는 緼의 오자임.

243) [苑] [全文] [總覽]의 廣은 黻의 오자임.

천복 8년<sup>244)</sup> 세차계묘(歲次癸卯) 유월(六月) 정미삭(丁未朔) 오일(五日)  
신해(辛亥)에 세우다.

天福八年，歲次癸卯，六月丁未朔，<sup>245)</sup> 五日辛亥，立。

전자승(鑄字僧)은 광예(光乂), 장초(壯超), 행충(幸聰), 행초(行超) 등이다.

鑄字僧：光乂，壯超，幸聰，行超。<sup>246)</sup>

### 【음기陰記】\*

#### 개천산

유천복구년, 세차갑진, 육월일일신축, 임비기사.

원유중원부, 도속이관, 공경부로, 려인사서, 공

시귀양, 건위대사제자, □재차비, 약제명자.

#### 開天山

維天福九季，歲次甲辰，六月一日辛丑，

立碑記事。

爰有中原府，道俗二官，公卿夫老，黎

人士庶，共是歸仰，虔爲大師弟子，□

載此碑，略題名字。

244) 천복팔년(天福八年) : 후진(後晉)의 출제(出帝)의 연호. 고려 태조 26년(943).

245) [苑] [總覽]에는朔, [全文]의 胸은朔의 오자임.

246) [苑]은 결락이나 [全文] [總覽]에는超임.

\*이 陰記는 『한국금석전문韓國金石全文』에 의해 추보(追補)하였음.

홍립대덕	경부대순	범예대통
담홍대덕	엄신화상	석방화상
제홍화상	훈예화상	능주의낭
권열좌승	견서좌승	준양원보
필량원보	용희원윤	박겸원윤
서공원윤	최율원윤	의정좌윤
공용좌윤	준홍좌윤	장희아찬
봉희아찬	훤직아찬	최유아찬
신성아찬	최충나	춘일나
최정나	국봉나	인경나
예봉나	관훈시랑	용간시랑
견훈시랑	봉립시랑	김간시랑
인왕시랑	형유시랑	언유시랑
총명시랑	직봉시랑	형봉경
□보경	최양경	거울경
문간경	유신경	필봉경
청양경	신흥경	한달내경
김달경	집사랑중	□□□□ 현위
사수정	병부경	충식경
□□경	창부경	언서경
공율경	행규	

弘琳大德	景孚大純	法譽大統
談弘大德	嚴信和尚	釋訪和尚
帝弘和尚	訓乂和尚	能珠儀娘

權說佐丞	堅書佐丞	遵讓元輔
弼良元輔	龍希元尹	朴謙元尹
舒兢元尹	崔律元尹	義貞佐尹
孔融佐尹	俊弘佐尹	張希阿絜
奉希阿絜	萱直阿絜	崔濡阿絜
新城阿絜	崔忠柰	春一柰
崔貞柰	國奉柰	仁鏡柰,
乂奉柰	官訓侍郎	龍侶侍郎
堅訓侍郎	奉立侍郎	金侶侍郎
仁往侍郎	儒侍郎	彦猶侍郎
聰明侍郎	直奉侍郎	夏奉卿
□寶卿	崔讓卿	居律卿
門侶卿	由信卿	必奉卿
聽讓卿	信興卿	漢乃達卿
金達卿	執事郎中	□□□□玄魏
史秀貞	兵部卿	忠式卿
□□卿	倉部卿	彦書卿
孔律卿	幸規	

대사문하승 충예, 활행, 충신, 정유, 인일, 경수,

법언, □오, 법랑등, 삼백여인.

원주승 행주.

전 좌 석오.

사 승 행유.

직세승 효행.

도유나승 행린.

유덕산인 청주, 석희시랑.

원주인인원외.

당성 행린경.

목죽현 충예촌주.

大師門下僧 聰芮, 闍行, 聰信, 貞裕, 仁一, 慶修,

法言, □悟, 法郎等, 三百餘人.

院主僧 行周.

典座 釋悟.

史僧 行裕.

直歲僧 孝行.

都維那僧 行璘.

諡德山人 青州, 釋希侍郎.

元州仁人員外.

當城 幸璘卿.

目竹縣 聰乂村主.

[비신(碑身)의 높이(高)는 10척4촌(十尺四寸), 폭(幅)은 4척8촌5분(四尺八寸五分), 글자의 간격은 8분(八分)이며, 해서(楷書)이다. 제액(題額)은 누멸(泐滅)되었다.]

[揭載]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上, pp.251~268.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上, pp.149~157.

『한국금석전문韓國金石全文』中世 上, pp.318~328.



驪州高達院元宗大師惠眞塔碑文

【05.여주고달원원종대사혜진탑비문】







## 05.여주고달원<sup>1)</sup> 원종대사혜진탑비문<sup>2)</sup>

驪州高達院元宗大師慧<sup>3)</sup>眞塔碑文

있는 곳 :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고달사 유지로부  
터 이전)

세운 때 : 고려 광종 26년 을해 (975)

所在 : 國立中央博物館(北內面 上橋里 高達院址로부터 移轉)

年代 : 高麗 光宗 26年 乙亥 (975)

- 
- 1) 고달원(高達院) : 이 절의 초창(初創)은 764년(신라 경덕왕 23)이다. 그 후 고려조에 접어들어 특히 광종(949~975)이 매우 소중히 여겼던 사원(寺院)이었다. 그러므로 971년에 광종이 원화전(元和殿)에서 대장경(大藏經)을 개독(開讀)할 때 고달원, 회양원(曦陽院), 도봉원(道峰院) 등 삼원(三院)의 주지(住持)는 반드시 각기 그의 문하제자(門下弟子)가 상속주지(相續住持)토록 하라고 교지(教旨)를 내린 바 있다.
- 2) 비(碑)의 보존연혁(保存沿革) : 이 비석은 975년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北內面) 상교리(上橋里) 고달원에 세워졌다. 그 후 이 절의 폐사연대(廢寺年代)는 확실하지 않다. 그 유지(遺址)에는 이수(螭首)를 이고 귀부(龜趺)만이 남아 있다. 오랫동안 풍마우세(風磨雨洗)를 겪어 오다가 1916년 마침내 도괴(倒壞)되면서 비신(碑身)이 양단(兩斷)되었는데, 이를 여주군청(驪州郡廳)으로 옮겨 보관하다가, 다시 일제치하(日帝治下)에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 : 경복궁)으로 옮겨 복원(復元)하였으나, 약간의 하흔(瑕痕)이 남아 있음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 3) [拓本][全文]에는 혜이고 [總覽]에는 혜이니, 상통한다.

혜목산(慧目山) 고달선원(高達禪院) 국사(國師) 원종대사지비(元宗大師之碑) [제액]

고려국(高麗國) 광주(廣州) 혜목산(慧目山) 고달원(高達院) 고국사(故國師)이며, 왕이 원종대사(元宗大師)라고 시호를 추증(追贈)한 혜진탑비명(惠眞塔碑銘)과 아울러 서(序)

慧目山, 高達禪院, 國師元宗大師之碑, [題額]

高麗國, 廣州慧目山, 高達院, 故國師, 制贈諡元宗大師, 慧眞之塔碑銘, 并序.

광록대부<sup>4)</sup> 태승<sup>5)</sup> 한림학사<sup>6)</sup> 내봉령<sup>7)</sup> 전예부사<sup>8)</sup> 참지정사<sup>9)</sup> 감수국사인<sup>10)</sup> 신 김정언<sup>11)</sup>이 왕명을 받들어 짓고, 봉의랑좌윤<sup>12)</sup> 전군부경<sup>13)</sup> 겸내의승지

4) 광록대부(光祿大夫): 고려 문산계(文散階) 관계(官階) 중의 하나. 종3품(從三品)으로 문종(文宗) 때 제정. 1275년(충렬왕 1)부터 이 칭호가 없어졌다가 1356년(공민왕 5) 환원되어 종2품상(從二品上)으로 되었으며, 1362년(공민왕 11)에 폐지되고, 1369년(공민왕 18)에 정2품상(正二品上)으로 정하였다.

5) 태승(太丞): 승상(丞相) 곧 최고의 관직을 가리킨다.

6) 한림학사(翰林學士):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 왕의壽命 받아 문서를 꾸미는 일을 맡아 보던 관청)에 소속된 정4품(正四品) 관직. 정원은 2명.

7) 내봉령(內奉令): 내봉성(內奉省)의 장관. 내봉성은 고려 초기의 관청으로 백관(百官)을 지휘하는 관부.

8) 예부(禮部): 의례(儀禮)를 맡아보던 관청(官廳). 제향(祭享), 조회(朝會), 학교(學校), 교빙(交聘), 과거(科擧)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9) 참지정사(參知政事):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국가 행정을 총괄하던 관청)의 종2품 벼슬. 뒤에 첨의평리(僉議評理)로 개칭하였다.

10) 감수국사(監修國史): 고려 춘추관(春秋館)의 최고 관직. 시중(侍中: 從一品)이 겸임하도록 하여 따로 임명하지 않았다. 1325년(충숙왕 12)에 이르러 영관사(領館事)·감관사(監館事)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나, 역시 수상(首相)인 시중이 이를 겸하였다.

11) 김정언(金廷彦): 고려 전기의 문신·학자. 생물년 미상. 정사(正史)에는 이름이

사인<sup>14)</sup> 신 장단열<sup>15)</sup>이 왕의 칙서(봉제)<sup>16)</sup>를 받들어 비문(碑文)과 전액(篆額)을 쓰다.

光祿大夫, 太丞, 翰林學士, 內奉令, 前禮部使, 叅知政事, 監修國史, 臣, 金廷彦, 奉制, 撰.

奉議郎, 佐尹, 前軍部卿, 兼內議承旨舍人, 臣, 張端說, 奉制,

보이지 않으나, 그가 지은 세 편의 비문을 통해 이력을 알 수 있다. 958년(광종 9) 통직랑 정위 한림학사(通直郎正衛翰林學士)가 되었고, 975년(경종 즉위년) 광록대부 대승 내봉령 전예부사 참지정사 감수국사(光祿大夫大丞內奉令前禮部使參知政事監修國史)를 지냈다. 「옥룡사통진대사보운탑비문玉龍寺洞眞大師寶雲塔碑文」을 958년(광종 9)에 지었고,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문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文」을 975년에 지었으며,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비문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文」을 978년(경종 3)에 지었다. 「통진대사보운탑비문洞眞大師寶雲塔碑文」 주5)김정언金廷彦 [고려편1] p.349 참조.

- 12) 봉의랑좌윤(奉議郎佐尹) : 봉의랑(奉議郎)은 고려 초기의 문산계(文散階)로, 문산계가 정비된 성종 14년 이전부터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등과 함께 사용되었다. 좌윤(佐尹)은 고려 초기의 관계(官階) 중 제6품 11등급에 해당한다.
- 13) 군부경(軍部卿) : 군사상(軍事上) 국방에 관한 사무와 군인 감독, 지휘 등을 관장(管掌)하였던 직책. 최고위직인 령(令)에 이은 차관직.
- 14) 내의승지사인(內議承旨舍人) : 내의란 내의성(內議省)을 말하는데, 고려 초기 삼성(三省)의 하나로 중앙행정(中央行政)의 최고기관의 하나이며, 조칙(詔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승지사인(承旨舍人)이란 승지방(承旨房)이라고도 하며, 크고 작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는데, 1298년(충렬왕 34)에 이르러 인신사(印信司)로 고쳤다. 관원은 사(使; 從三品) 2인, 부사(副使; 從四品) 2인, 판관(判官; 從六品) 2인을 두었다. 사인은 중 4품 관직이었다.
- 15) 장단열(張端說) : 생물년 미상. 일찍이 한림원 서학박사(書學博士)를 지내고 군부경(軍部卿)에 이르렀다. 구양순(歐陽詢)체를 익혀 당대(當代)의 명필가로 꼽혔다. 「문경봉암사정진대사원오탑비문聞慶鳳岩寺靜眞大師圓悟塔碑文」과 「고달원원종대사혜진탑비문高達院元宗大師慧眞塔碑文」을 썼다. 「정진대사원오탑비문靜眞大師圓悟塔碑文」 주6)장단열張端說 [고려편1] pp.388~389 참조.
- 16) 봉제(奉制) : 제(制)는 왕이 제가(制可), 즉 결재하였다는 뜻으로 조칙(詔勅)과 같은 말이다.

書, 并篆額.

관찰해 보건대, 태양이 부상<sup>17)</sup>으로부터 떠오름에 모든 사람의 우리름이 되고, 부처님께서 천축(天竺)에서 탄생하시니, 모든 인류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어 군자의 나라<sup>18)</sup>로 하여금 법왕(法王)의 도(道)를 배우게 하였다. 이른바 그 도란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부처님 또한 우리들 각자의 신중(身中)에 내재(內在)한 것이니, 도를 깨달음이 높고 깊으므로 도사(導師)가 되었고<sup>19)</sup> 덕이 두터우므로 사생(四生)의 자부(慈父)가 되셨다. 이에 그 위대한 자취로 말미암아 드디어 즉심즉불(卽心卽佛)의 이치를 개시(開示)하였으니, 그 광명(光明)은 마치 물 위에 나타난 연꽃 같고, 밝기는 별들 가운데 둥근 달과 같았으니 실로 대사(大師)가 바로 그분이다.

觀夫，日出扶桑，作人間之瞻仰，佛生天竺，<sup>20)</sup>爲世上之歸依，俾君子之邦，學法王之道。所謂道非心外，佛在身中，故得道之尊，爲導師，德之厚，爲慈父。爰因象跡，遂示它心，光如水上之蓮，皎若星中之月，實大師其人矣。

- 
- 17) 부상(扶桑): 동해(東海) 가운데 있는 신목(神木)으로 양수(兩樹)가 동근(同根)인데, 날 때부터 서로 의지하고 있으므로 부상(扶桑)이라고 한다. 동해(東海) 중에 있다고 하여 일출(日出)하는 곳을 지칭한다. 『산해경山海經』「해외동경海外東經」에 “湯谷之上 有扶桑 十日所浴 在黑齒北 居水中 有大木 九日居下枝 一日居上枝”라 하였다.
- 18) 군자지방(君子之邦): 풍격(風格)이 순량(醇良)하며 온후(溫厚)한 군자의 미풍(美風)이 있는 나라로서 동해 중에 있다고 전하는데, 신라(新羅)를 가리키니, 『당서唐書』「신라新羅」에 “新羅號君子國 知詩書”라 하였다. 일본(日本)에서는 일본국의 자칭(自稱)이라 한다.
- 19) 득도지존위도사(得道之尊爲導師): 도(道)를 깨달음이 높고 깊어 도사(導師)를 삼는다는 뜻.
- 20) [總覽]의 竺은 [全文]의 竺의 오자임.

대사의 존칭(尊稱)은 찬유(璨幽)요, 자는 도광(道光)이며, 속성(俗姓)은 김씨(金氏)이니, 계림(鷄林)의 하남(河南) 출신이다. 대대손손(代代孫孫) 명문호족(名門豪族)이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청규(淸規)이다. 종조(宗祖)를 공경한 효도와 나라에 대한 충성 등 아름다운 행적은 너무 많아서 기록하지 않으니, 특히 불교에 대한 신심이 돈독하였다. 아버지의 휘는 용(容)이니 백홍<sup>21)</sup>의 영기(英氣)와 단혈<sup>22)</sup>의 기자(奇姿)를 띠고 태어났다. 노을과 비단처럼 고상한 빛을 함유(含有)하였으며,<sup>23)</sup> 서리내리는 늦가을 새벽 범종(梵鐘)소리의 아운(雅韻)을 풍겼다.<sup>24)</sup> 드디어 출세하여 창부<sup>25)</sup>의 낭중<sup>26)</sup>이 되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sup>27)</sup> 곧 장사현<sup>28)</sup>의 현령이 되어 백리의

- 
- 21) 백홍(白虹): 백색(白色)의 무지개. 예부터 저침(祗綬), 즉 일관(日官)이 10가지로 태양(太陽)의 광기(光氣)를 관찰하여 길흉(吉凶)과 선악(善惡)을 판단(判斷)하였으니, 그 십휘(十輝; 輝는 量과 같은 뜻)란 『주례周禮』「춘관종백春官宗伯」지수(祗授)에 “掌十輝之灋 以觀妖祥 辨吉凶 一曰祲 二曰象 三曰鑠 四曰監 五曰闇 六曰瞢 七曰彌 八曰絃 九曰隤 十曰想”이라 하였다. 이 가운데 칠(七)의 미(彌)는 백홍미천(白虹彌天)의 뜻이니, 『예기禮記』「빙의聘義」에 “君子比德于玉焉 … 氣如白虹”이라 하였다.
- 22) 단혈(丹穴): 단사(丹沙)가 출토되는 구멍. 단혈의 금옥(金玉)과 같은 기특(奇特)한 자태(姿態)란 말. 『산해경山海經』「남산경南山經」에 “丹穴之山 其上多金玉 丹水出焉 而南流注於渤海”라 하였다.
- 23) 함하기지여광(含霞綺之餘光): 하기(霞綺)의 여광(餘光)을 함유한다는 뜻이니, 비단 같이 영롱한 노을의 빛처럼 고상하다는 말.
- 24) 진상종지아운(振霜鐘之雅韻): 상종의 아운을 떨친다는 뜻. 상종이란 겨울의 새벽에 울려퍼지는 우아한 종소리를 말한다. 이백(李白)의 「청탄금시聽彈琴詩」에 “客心洗流水 餘響入霜鐘”이라 하였다. 즉, 인품(人品)이 이른 새벽에 울려퍼지는 맑은 종소리처럼 청아(淸雅)하다는 말이다.
- 25) 창부(倉部): ①신라 때의 중앙관청. 최초에는 집사성(執事省)의 일부분이었으나 636년(선덕왕 5)에 독립되었는데, 재정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영(令; 大阿浪~大角干)이 2명, 경(卿; 阿浪)이 3명, 대사(大舍; 舍知~奈麻)가 2명, 조사지(租舍知; 舍知~大舍)가 1명, 사(史)가 30명으로 구성되었다. ② 고려 초 향리(鄉吏)의 한 직소(職所)였는데, 983년(성종 2) 사창(司倉)으로 개칭되었다.

관할 영내에 행춘(行春)의 덕화<sup>29)</sup>를 베풀었고, 화현<sup>30)</sup>을 만들어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였다.<sup>31)</sup> 구중향일(九重向日)하는 일편충심<sup>32)</sup>은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돌아가는 것과 같았다.<sup>33)</sup>

- 26) 낭중(郎中) : ① 신라의 관직. 집사성·병부(兵部)·창부(倉部)에 속한 관직으로 사지(舍知)로부터 나마(奈麻)가 이에 임명되었다. ② 고려 때 상서성(尙書省)·고공사(考功司)·도관(都官) 및 육조(六曹)에 속한 정5품 벼슬. ③ 고려 초기의 향직으로 983년(성종 2)에 호정(戶正)으로 개칭하였다.
- 27) 무하(無何) : 거무하(居無何)의 준말. 무기(無幾), 소시(少時) 또는 망하(亡何) 등과 같은 뜻이니, ‘얼마되지 않아서’라는 말. 『사기史記』 「조상국세가曹相國世家」, “蕭何卒 參聞之 告舍人 趣治行 吾將入相 居無何 使者果召參”이라 하였다.
- 28) 장사현(長沙縣) : 전라북도(全羅北道) 무장(茂長)의 옛 이름. 현재는 고창군(高敞郡)에 편입되었다.
- 29) 행춘지화(行春之花) : 봄철에 태수(太守)가 자기의 관할 현(縣)을 순행(巡行) 하면서 농상(農桑), 즉 농사와 누에를 권장(勸獎)하는 것을 말한다. 『후한서後漢書』 「정홍전鄭弘傳」에 “弘少爲鄉耆夫 太守第五倫行春 見而深奇之 召署督郵 舉孝廉”이라 하였다.
- 30) 화현(花縣) : 현(縣)의 전지역(全地域)이 꽃으로 아름답다는 뜻이니, 하양일현화(河陽一縣花)의 준말. 진(晉)나라 때 반악(潘岳)이 하양현령(河陽縣令)이 되어 현중(縣中)에 많은 도리(桃李)를 심게 하여 아름답게 한 데서 온 고사. 이백(李白)의 「증취추포시贈崔秋浦詩」에 “河陽花作縣 秋浦玉爲人”이라 하였으니, 현명한 현령이 현치(縣治)를 잘함을 칭송하는 말이다.
- 31) 등분(騰芬) : [總覽]과 [拓本]은 騰芬. [全文]은 勝芬. [全文]의 勝은 騰의 오자이나, 뜻으로는 모두 무방하다. 온 고을이 꽃나무로 심어져 봄이 되면 그 꽃의 향기가 널리 퍼진다(騰), 또는 왕성한(勝) 꽃냄새가 풍긴다는 뜻이다.
- 32) 구중향일지심(九重向日之心) : 신하(臣下)로서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의 충성을 가리킨다. 구중은 왕궁(王宮)이니, 천자(天子)를 이른다. 향일은 규경향일(葵傾向日)의 준말이니,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 돌 듯 충신(忠臣)이 왕을 향한 충성(忠誠)을 뜻한다.
- 33) 규원저미(葵園著美) : 향일규(向日葵) 또는 규경향일(葵傾向日)이라고도 하니, 해바라기 공원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는 뜻. 해바라기 꽃이 태양 쪽으로 향한다는 말이나, 전(轉)하여 군주(君主) 또는 어른을 존경(尊敬)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에 비유한 것. 태불화(泰不華)의 「배행서호시陪幸西湖詩」에 “葵傾惟向日 荷

大師, 尊稱璨幽, 字道光, 俗緣金氏, 鷄林河南人也. 孫孫著族, 代代名家. 尊祖清規. 敬宗芳蹟, 刪而不記, 遵釋宗矣. 考諱容, 白虹英氣, 丹穴奇姿. 含霞綺之餘光, 振霜鍾之雅韻. 遂起家爲 倉部郎中, 無何出爲長沙縣令, 百里行春之化, 花縣騰芬. 九重 向日之心, 葵園著美.

그리하여 조야(朝野)가 모두 그를 기둥처럼 의뢰(依賴)하였고, 지방 향려<sup>34)</sup>에서는 한결같이 우리러 의지하였다. 어머니는 이씨(李氏)이니, 부덕(婦德)을 두루 닦았고<sup>35)</sup> 모의(母儀)는 부유하여<sup>36)</sup> 그 우아함이 비길 만한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밤 꿈에 한 신인(神人)이 나타나 고하기를, “원컨대 어머니를 삼아 아들이 되어서 출가(出家)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자 하므로<sup>37)</sup> 묘연<sup>38)</sup>에 의탁하여 공경히 자비(慈悲)하신 교화를 퍼려 합시다.”라는 수승한 태몽을 꿈으로 인하여 임신하게 되었다. 삼가 조심함으로써 문왕(文王)과 같은 아들을 출생하려고<sup>39)</sup> 정성껏 태교<sup>40)</sup>를 봉행하였다.<sup>41)</sup>

假借風張”이라 하였다.

34) 향려(鄉閭): 시골, 촌리(村里).

35) 올수(聿修): 올(聿)은 발어사(發語辭). 부덕(婦德)을 이어 닦는다는 뜻.

36) 모의부유(母儀富有): 현모(賢母)의 몸가짐이 풍요롭고 후덕하였다는 뜻.

37) 원언위모위자 위불위손(願言爲母爲子 爲佛爲孫):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어 부처님을 따라 법손(法孫)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다.

38) 묘연(妙緣): 친연(親緣)과 불연(佛緣)을 말한다.

39) 신출신문(愼出身文): 삼가 근신함으로써 문왕(文王)과 같은 아들을 임신하여 출생하려 한다는 뜻. 출(出)은 출생(出生), 신(身)은 태임유신(太妊有身)의 준말이니, 임신을 가리킨다. 문(文)은 문왕이라는 뜻.

40) 태교(胎教): 태회(胎誨), 태육(胎育)이라고도 하니, 태아(胎兒)에게 베푸는 교육(教育). 부인(婦人)이 임신(妊娠) 중 앓고 섬을 단정히 하고, 정미(正味)를 먹으며, 정색(正色)을 보고, 정악(正樂)과 정사(正事)만을 들어 태아를 감화(感化)시

함통 10년<sup>42)</sup> 용집<sup>43)</sup> 기축 4월 4일에 대사를 탄생하였다. 선아(善芽)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숙하여<sup>44)</sup> 묘한 결과는 조금도 지지부진(遲遲不進)한 적이 없었다. 드디어 13살 때 아버님께 여쭙기를, “비록 혜가<sup>45)</sup>를 결핍하였으나 다만 각수(覺樹)를 기약하러 합니다.”<sup>46)</sup>라고 하였다. 이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록 섭동자<sup>47)</sup>이긴 하나 일찍 선근(善根)을 보았으니, 너는 마땅히 부지런히 배전(培前)의 용맹심으로 승과(勝果)를 닦으라.”하고 당부하였다.

朝野因而倚賴，鄉閭所以瞻依。妣李氏，婦德聿修，母儀富有。夢有一神人，告之曰，“願言爲母爲子，爲佛爲孫，故託妙緣，敬敷慈化。”以爲得殊夢，因有娠。慎出身文，奉行胎教。以咸通十年，龍集己丑，四月四日，誕生大師。善芽尚早，妙果不遲。

키는 것. 『신서新書』「태교胎教」에 “靑史氏之記曰 古者胎教之道 王后有身 七月而就蓂室 太師持銅而御戶左 大宰持斗而御戶右 大卜持蓍龜而御堂下 諸官皆以其職御於門內 比三月者 王后所求聲音非禮樂 則太師撫樂 而稱不習 所求滋味者非正味 則太宰荷斗 而不敢煎調而已 不敢待王太子”라 하였다.

- 41) 봉행태교(奉行胎敎): 만들어 태교를 행한다는 뜻.
- 42) 함통(咸通) 10년: 당 의종(懿宗) 때의 연호. 869년(경문왕 9).
- 43) 용집(龍集): 용은 별이름. 목성(木星)이니, 태세(太歲)를 말한다. 이 별은 1년에 하늘을 한 바퀴 돌므로 1년을 용집(龍集)이라 한다. 또는 기년(紀年)의 뜻으로도 쓰인다. 예컨대 용집 기축(己丑)이란 세차(歲次) 기축과 같다. 「법경대사보조혜 광담비문法鏡大師普照慧光塔碑文」 주114) 용집 [고려편1] p.228 참조.
- 44) 선아상조(善芽尙早): 선아는 훌륭한 싹. 곧 사람됨됨이의 바탕.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고 앞서서 조숙(早熟)하였다는 뜻이다.
- 45) 혜가(惠柯): 혜가(慧柯)와 같은 뜻. 지혜의 가지, 곧 지혜의 용(用)을 말한다.
- 46) 기기각수(祇期覺樹): 마침내 깨달음(覺樹)을 기약(期約)한다는 뜻.
- 47) 오종섭동(吾縱葉瞳): 내 비록 섭동이기는 하다는 뜻. 섭동이란 투명한 밝은 눈동자가 아니고 ‘폴잎을 붙여 놓은 것과 같은 눈’이라는 말. 속담(俗談)에 ‘눈에 명태 껍질을 붙인 눈’이란 말이 있다.



年甫十三，遂言於父曰，“雖乏惠柯，祇期覺樹。”父因謂曰，“吾縱葉瞳者，嘗見汝善根也，汝宜孜孜，培之修勝果而已。”

대사께서 소원(所願)을 허락받아 삭발하고 출가하여 상주 공산 삼랑사<sup>48)</sup>의 용제선사<sup>49)</sup>를 스승으로 복승(伏承)하면서, “현현(玄玄)한 도(道)를 논(論)하며 혁혁(赫赫)하게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오니, 원컨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다. 이때 선사가 이르기를, “너를 대하여<sup>50)</sup> 오늘 너의 모습을 보니 후일에 크게 중생(衆生)을 이익<sup>51)</sup>케 할 것 같다. 우리 선종(禪宗)에 ‘심희(審希)’라는 법호를 가진 큰스님이 계시니<sup>52)</sup> 참으로 진불(眞佛)이 출세하여 동국(東國)을 교화할 주인이시다. 현재 혜목산(慧目山)에 있으니 너는 마땅히 그곳에 가서 그를 스승으로 섬기면서 불법을 배우도록 하라.”고 이르시니, “나의 소원에 적합(適合)함이며! 그곳에 가서 깨달음을 얻은 후<sup>53)</sup>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을 때<sup>54)</sup> 비로소 떠나리라.” 하고

48) 상주 공산 삼랑사(尙州公山三郎寺) : 사적(事蹟) 미상.

49) 용제선사(融諦禪師) : 상주 공산 삼랑사 스님으로 고달선원(高達禪院) 원종대사(元宗大師) 찬유(璨幽)의 은사(恩師)스님.

50) 격여(格汝) : 너를 대하여(比對).

51) 이견(利見) : 보기에 좋다, 훌륭하게 보이다, 이롭게 보이다, 훌륭하게 나타나다 등의 뜻. 안연지(顔延之)의 「삼월삼일조연서지시三月三日詔宴西池詩」에 “河嶽曜圖 聖時利見”이라 하였다.

52) 오종선화상(吾宗禪和尚) : 나의 법사(法師)인 선화상이란 뜻이니, 진경대사(眞鏡大師) 심희(審希 : 玄曄의 제자)를 가리킨다.

53) 득불시연후행(得不時然後行) : ‘언제든지 깨달음(見性)을 얻은 연후에 행각(行脚)을 떠나라.’는 뜻. 불시란 미정(未定)의 시간. 언제든지, 갑자기, 뜻밖에, 임시(臨時) 등의 뜻이다. 소식(蘇軾)의 「후적벽부後赤壁賦」에 “婦曰 我有斗酒 藏之久矣 以待子不時之需”라 하였다.

54) 이유유왕(利有攸往) :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바가 있는 연후에 떠나라.’는 말이니, 하화중생(下化衆生)하는 이타(利他)의 뜻이다. 「통진대사보문탑

문득 혜목산<sup>55)</sup>으로 찾아가서 스님으로부터 복응(服膺)을 허락받고<sup>56)</sup> 학도(學道)할 마음을 증장(增長)하고 습선(習禪)의 뜻을 배려(倍勵)하였다.

大師，以邂逅適願，卽落髮出家，伏承尙州公山三郎寺，融諦禪師，“論道玄玄，化人赫赫，願爲弟子。”遂詣禪師，禪師若曰，“格汝，見今日之來儀，認他時之利見。吾宗禪和尚，法號‘審希’，眞一佛出世，爲東化主。見在慧目山，汝宜往師事之。”大師，“以是吾師也，適我願兮，得不時然後行，利有攸往。”便詣慧目，允叶服膺，增修學道之心，倍勵習禪之志。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묘리(妙理)를 연구하고 깊이 현기(玄機)를 깨달았다. 각로(覺路)를 수행하여 비록 진리를 통달하더라도 마땅히 먼저 율의(律儀)를 의지하여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22세 되던 해에 양주(楊州) 삼각산(三角山) 장의사(莊義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그로부터 인초<sup>57)</sup>가 싹을 내고 계주(戒珠)가 빛을 발하는 초기임에도 오히려 도를 배움에 피로(疲勞)를 잊고, 스승을 찾되 조금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본사<sup>58)</sup>인 진경대사(眞鏡大師)가 광주(光州) 송계선원(松溪

비문」주86)이유유왕利有攸往 [고려편1] p.356 참조.

55) 혜목산(慧目山)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에 위치.

56) 율협복응(允叶服膺) : 심희(審希)스님이 자기의 회하(會下)에서 시봉(侍奉)하면서 수도하도록 허락하였다는 말. 복응(服膺)은 받들어 모시는 것, 시봉하는 것을 뜻한다.

57) 인초(忍草) : 계생인초(戒生忍草)의 준말. 지계(持戒)는 인욕(忍辱)을 발생(發生)한다는 뜻이니, 인초란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권27(대정장12, p.525c)에 “雪山有草 名爲忍辱 牛若食者 則出醍醐”라 하였고 「정각선사비명淨覺禪師碑銘」에 “戒生忍草 定長禪枝”라 하였다.

58) 본사(本師) : 창원(昌原) 봉림사(鳳林寺)의 진경대사(眞鏡大師) 심희(審希)를 지칭한다.

禪院)으로 옮겨갔다. 대사도 행장(行裝)을 정돈하여 육환장(六環杖)을 짊고 송계선원으로 따라가서 예족(禮足)의 소충(素衷)을 나타내어 주안(鑄顔)의 현조(玄造)에 대하여 감사하였다.<sup>59)</sup> 진경스님께서 이르기를, “백운(白雲)이 천리나 만리에까지 덮혀 있더라도 모두가 똑같은 구름이며, 명월(明月)이 전후의 시냇물에 비추나 오직 달은 하나 뿐이다.”라고 했다. 이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에 있을 뿐이다. 대사가 생각하기를, “무릇 도에 뜻을 둔 자가 어찌 일정한 곳에 고정된 스승이 있으랴!” 하고, 스님에게 제방(諸方)으로 다니면서 심사문도(尋師問道)할 것을 고하였다.

未幾，精窮妙理，高悟玄機。行覺路以雖通，仗律儀而斯在，年二十二，受具於楊州三角山莊義寺。於是，忍草抽芽之後，戒珠瑩色之初，尚以問道忘疲，尋師靡懈。時本師遙住光州松溪禪院。大師，遠携筇杖，特詣松溪，申禮足之素衷，謝鑄顔之玄造。師謂曰，“白雲千里萬里，猶是同雲，明月前谿後溪，嘗無異月。”爰因識識，只在心心而已。大師，“以爲凡志於道者，何常師之有。”迺告以遠遊泛覽。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그 마음을 주저하지 말고<sup>60)</sup> 속히 떠나도록

59) 사주안지현조(謝鑄顔之玄造): 주안의 현조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뜻. 주안이란 철액동두(鐵額銅頭)와 같은 말이니, 곧 쇠로 만든 이마와 구리로 된 머리. 이는 어떤 물건으로도 타쇄(打碎)할 수 없는, 어떤 것에도 유혹(誘惑)되지 않는 지조가 굳은 수행자를 비유하는 말. 『몽창록夢窓錄』상에 “漫天網子百千重 鐵額銅頭跳不出”이라 하였다.

60) 타심막주(它心莫駐): “너의 그 원유행각(遠遊行脚)하려는 마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멈추지 말라.”는 뜻. 타(它)는 타(佗)와 같은 자(字)이니, ①좁어지다, 메다 ②더하다[加]의 뜻으로 쓰였다.

하라. 나는 자네에게 깊이 징험(徵驗)하였다.”면서 기꺼이 떠날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대사는 멀리 해외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산을 내려와 해변(海邊)으로 가서 중국으로 가는 선편(船便)을 찾았고,<sup>61)</sup> 드디어 경복 원년<sup>62)</sup> 봄 송나라로 들어가는 상선(商船)을 만나 편승(便乘)하여 중국에 도착하였다. 운수(雲水)를 바라보면서 마음내키는 대로 행각(行脚)하되 연하<sup>63)</sup>를 향하여 자취를 행하였다. 그리하여 큰스님이 있는 곳에는 빠짐없이 참방(參訪)하고, 이름있는 고적은 살살이 답사하였다.

師因謂曰, “它心莫駐, 迅足難留, 吾於子驗之.” 笑而聽去. 大師以道之云, 遠行之則是, 迺出山並海, 覓西汎之緣, 景福元年春, 適有商舶入漢者, 遂寄載而西. 卽以望雲水以從心, 指煙霞而抗<sup>64)</sup>跡. 僧之眞者, 必詣, 跡之古者, 必尋.

서주(舒州) 동성현(桐城縣) 적주산(寂住山)에 나아가 투자선화상<sup>65)</sup>을 친

- 
- 61) 사서범지연(視西汎之緣): 서쪽인 당나라로 가는 선편(船便)의 기회(機會; 緣)를 기다린다는 말. 사(視)는 기다릴 사.
- 62) 경복 원년(景福 元年): 경복은 당 소종(昭宗) 때의 연호. 경복 원년은 892년(진성 여왕 6).
- 63) 연하(煙霞): 연기와 안개. 또는 구름과 안개가 서로 자욱이 덮힌 경치. 곧 산수(山水)의 경치가 뛰어난 절경(絶景)을 말한다 「남악형산구정관비南岳衡山九真館碑」에 “簫鼓騰空 煙霞相接”이라 하였다.
- 64) [總覽]에는 抗. [全文]의 抗은 抗의 오자임.
- 65) 투자선화상(投子禪和尚): 819~914. 청원하(靑原下) 취미무학(翠微無學)의 제자. 서주(舒州, 安徽省) 회령(懷寧) 유씨(劉氏)의 아들. 어릴 때 출가(出家)하였고, 처음부터 『화엄경華嚴經』을 열람하다가 성해(性海)를 발명(發明)하고는 취미(翠微)를 참방(參訪)하여 현지(玄旨)를 깨달았다. 그후 제방(諸方)을 주유(周游)하다가 고토(故土)에 돌아와 투자산(投子山)에 은서(隱棲)하다가 동성현(桐城縣)에서 조주(趙州)를 만나 상량(商量)하였다. 다시 투자산에 돌아가 30여 년 동안 납자(衲子)의 제접(提接), 신사(信士)를 지도하다가 건화(乾化) 4년(914) 4월 6일

견하였으니, 그의 법호는 대동(大同)이며, 석두산<sup>66)</sup> 희천(希遷)의 법손(法孫)이고, 취미무학대사(翠微無學大師)의 적윤제자(嫡胤弟子)이다. 그는 대사의 연꽃같은 눈,<sup>67)</sup> 특수한 자태(姿態), 미간백호(眉間白毫)와 같은 특이한 상모(相貌)를 보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인도로부터 동류(東流)하여 설법한 자와 동국(東國)에서 중국에 와서 구학(求學)하는 자가 매우 많았으나, 가히 더불어 도담(道談)을 나눌 만한 이는 오직 그대 뿐이다.”하고 기뻐하였다.

遂往舒州桐城縣寂住山，謁投子禪<sup>68)</sup>和尚，法號大同，是石頭山法孫，翠微無學大師之嫡胤也。見大師，蓮目殊姿，玉毫異相，乃曰，“其有東流之說，西學之求者，則可以與言道者，唯子矣。”

대사는 이때 미언(微言)을 투자(投子)의 혀끝에서 깨닫고 진불(眞佛)이 바로 자신의 신(身)중에 있음을 알았으니, 어찌 선서(善逝)<sup>69)</sup>가 가섭(迦葉)에게 밀전(密傳)을 계승하며, 정명(淨名)이 문수(文殊)와 묵대(默對)함을 받들 뿐이겠는가! 대사가 투자화상에게 하직인사를 하니, 화상이 이르

세수(世壽) 96세를 일기(一期)로 입적하였다. 『조당집』권6「투자화상전投子和尚傳」; 『경덕전등록』권15 등 참조.

66) 석두산(石頭山): 석두산희천선사(石頭山希遷禪師)이니, 그 법계(法系)는 다음과 같다. 청원행사(靑原行思) → 석두희천(石頭希遷) → 단하천연(丹霞天然) → 취미무학(翠微無學) → 투자대동(投子大同) → 신라(新羅) 원종찬유(元宗璨幽).

67) 연목(蓮目): 청련화목(靑蓮華目)의 준말.

68) [總覽]에는 禪. [全文]의 祥은 오자임.

69) 선서(善逝): ① sugata. 부처님 또는 여래(如來) 십호(十號) 중의 하나이니, 여래의 십호란 ①여래 ②응공(應供) ③정편지(正遍知) ④명행족(明行足) ⑤선서(善逝) ⑥세간해(世間解) ⑦무상사(無上士) ⑧조어장부(調御丈夫) ⑨천인사(天人師) ⑩불세존(佛世尊)이다.

기를, “너무 먼 곳으로 가지 말고 또한 너무 가까운 곳에 있지 말라.”하니, 대사가 대답하기를, “비록 스님의 말씀처럼 원근양처(遠近兩處)가 아닌 곳에도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화상이 이르기를, “네가 이미 마음으로 전하는 이치를 체험했으니, 어찌 상대하여 서로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하였다. 그후 걸으로는 훌륭한 도반(道伴)을 찾아 순례하면서 고명한 선지식을 참방(叅訪)하되, 때로는 천태산(天台山)에 들어가 은거(隱居)할 만한 곳을 찾으며,<sup>70)</sup> 혹은 강좌<sup>71)</sup>지방에서 현리(玄理)를 탐구하여 진여(眞如)의 성해(性海)에 들어가서 마니(摩尼)의 보주(寶珠)를 얻기도 하였다. 이에 큰 봉새는 천지<sup>72)</sup>에서 변화하고 학(鶴)은 마침내 요해<sup>73)</sup>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시작도 있고 끝이 있는 것이니, 이를 생각하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다.

大師，於是，悟微言於舌底，認真佛於身中，豈止於承善逝之密傳，奉淨名之默對而已矣。大師，將辭投子和尚，因謂曰，“莫遠去，莫近<sup>74)</sup>去。”大師答云，“雖然非遠近，要且不停留。”和尚曰，“旣驗心傳，何須目語。”尙後，旁求勝友，歷謁高師，或索隱於天台，或探玄於江左，入眞如之性海，得摩尼之寶珠也。迺以鵬必變於天池，鶴須歸於遼海，有始有卒，念茲在茲。

70) 흑색은어천태(或索隱於天台) : 혹은 천태산중(天台山中)에 은서(隱棲)할 만한 곳을 찾았다는 말.

71) 강좌(江左) : 중국 장강(長江) 하류(下流)의 남안지대(南岸地帶). 현재 강소성(江蘇省) 지방.

72) 천지(天池) : 조물자(造物者)가 만들었다는 대지(大池). 바다를 말한다. 『장자莊子』「소유유逍遙遊」, “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

73) 요해(遼海) : 학(鶴)이 많이 서식하는 북쪽의 바다. 요하(遼河)라고도 한다.

74) [總覽]에는 近. [全文]의 遠이 오자임.

때마침 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만나 타고 정명 7년<sup>75)</sup> 가을 7월 강주<sup>76)</sup> 덕안포에 도달하였으며, 배에서 내리자 마자 곧바로 창원 봉림<sup>77)</sup>으로 가서 진경대사에게 귀국인사를 드렸다. 대사가 이르기를, “마침 오늘에야 만나게 되었구나!”하고, 상봉하게 됨을 크게 기뻐하면서 따로 선당(禪堂)을 꾸미고 대사를 법상(法床)에 오르게 하여 중국에서 보고 배운 법문<sup>78)</sup>을 듣는 한편 구법(求法)하고 무사히 귀국한데 대한 환영연도 겸하였다.<sup>79)</sup> 스님은 담좌<sup>80)</sup>에 앉아 종용(縱容)히 말하되, “사람에는 노소가 있으나 법에는 선후가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여래의 밀인(密印)을 가지고 가섭의 비중<sup>81)</sup>을 연설하기도 하였다. 그후 삼랑사(三郎寺)로 가서 선백<sup>82)</sup>이 되었다. 대사가 그곳에서<sup>83)</sup> 3년을 지내고 보니<sup>84)</sup> 참으로 낙도(樂道)의 청재(淸齋)이며, 또한 참선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느꼈다. 그러나 오히려 새들도 편안히 쉬려면 나무를 선택하거늘 내 어찌 포과<sup>85)</sup>에만 매달려 있겠는가.

75) 정명(貞明) 7년: 정명(貞明)은 후량(後梁) 말제(末帝)의 연호. 정명 7년은 921년(경명왕 5).

76) 강주(康州): 경상남도 진주의 옛 이름.

77) 봉림(鳳林):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에 위치한 봉림사를 지칭.

78) 서방지법(西訪之法): ‘중국에 가서 듣고 배운 불법(佛法)’이라는 말.

79) 동귀지묘연(東歸之妙緣): 원종대사(元宗大師)가 중국에 가서 불교를 배우고 다시 동국, 즉 신라로 돌아온 것이 묘한 인연(因緣)이라는 말이다.

80) 담좌(譚座): 법좌(法座) 또는 법상(法床)이란 뜻.

81) 가섭지비중(迦葉之秘宗): 선종을 지칭한다.

82) 선백(禪伯): 선덕(禪德)이 높은 선사(禪師). 백(伯)은 존칭으로, 후백(侯伯), 강백(講伯), 화백(畫伯)과 같은 뜻이다.

83) 응봉(應奉): 덕이 높은 스님을 받들어 모시면서 그의 회하(會下)에서 수도한다는 뜻.

84) 주경삼동(住更三冬): 융제대사(融諦大師)의 회하(會下)에 머문 지 이미 3년이 되었다는 말. 경(更)은 음이 경이니, 지날 경字이다.

85) 포과(包瓜): 포과(匏瓜)와 같은 말. 표주박이나 오이 따위가 꼭지에 매달려 있어

복문(伏聞)하니 태조신성대왕<sup>86)</sup>께서 큰 포부를 품고<sup>87)</sup> 응기<sup>88)</sup>하여 포를 잡아<sup>89)</sup> 성스러움을 보여주려 하니,<sup>90)</sup> 마치 하(夏)나라 순(舜)임금이 개혁할 때 고천의 명을 받아<sup>91)</sup> 주나라를 비롯하여 출일(出日)의 성스러운 나라를 이룩함과 같았다.<sup>92)</sup>

適值本國歸舟，因而東棹，貞明七年，秋七月，達康州德安浦，  
逕詣鳳林，歸覲眞鏡大師。師曰，“適當今日。”深喜相逢，別飭  
飭，<sup>93)</sup> 禪堂，俾昇譚座，聽<sup>94)</sup> 西訪之眞法，慶東歸之妙緣。縱<sup>95)</sup> 容

서 따거나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그 꼭지를 떠나지 못하고 붙어 있다는 뜻. 자  
그만한 고토(故土)에서 넓은 세계로 떠나지 못하고 있음을 비유하는 말. 『논어』  
「양화(陽貨)」, “吾豈匏瓜也哉 焉能繫而不食”. ; 「통진대사보운답비문」 주99) 오기  
포과吾豈匏瓜 [고려편1] p.357 참조.

86) 태조신성대왕(太祖神聖大王) : 신성은 고려 태조의 시호.

87) 회두(懷斗) : 마음에 큰 포부를 품는다는 뜻. 곧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마음.

88) 응기(膺期) : 자신이 어떤 중요한 기회를 만나는 것. 곧 천운(天運)이 다가와 그  
운을 이어받고 임금이 되는 것. 안수(晏殊), 「진양제삼관포단시표進兩制三館杜  
丹詩表」, “虞舜膺期 有皐陶之賡”.

89) 악포(握褒) : 순(舜)임금의 수중(手中 : 손바닥)에 포자(褒字)의 문양(文樣)이 있  
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니, 노고(勞苦)로부터 이룩한 포식(褒飾). 큰 길상(吉  
祥)을 성취함에 비유한 것이다.

90) 계성(啓聖) : 성스러움을 열어 보여주었다는 뜻. 곧 손바닥에 포자의 문양으로  
성스러움을 보여주었다는 말이다.

91) 혁하수고지명(革夏受顧之命) : 하(夏)나라를 혁신(革新)함에는 고천지명(顧天之  
命)을 받았다는 뜻.

92) 재주흥출일지방(載周興出日之邦) : 주(周)나라를 시작함에 출일(出日)의 방(邦)  
을 이룩하였다는 뜻.

93) [總覽]에는 飭. [全文]의 飭(닭을 칩)은 飭과 同字인 飾의 오자임. 식(飾)과 칩(飭)  
은 닭고 가꾼라는 뜻에서는 통합.

94) [總覽]에는 聽. [全文]의 聽은 聽의 오자임.



謂曰, “人有老少, 法無先後.” 余其佩如來之密印, 演迦葉之秘宗. 宜住三郎寺, 爲禪伯矣. 大師應奉而住更三冬, 迺以爲當寺誠樂道之清齋, 乃安禪之勝踐. 尙以鳥則擇木, 吾豈包<sup>96)</sup>瓜. 伏聞,<sup>97)</sup> 我太祖神聖大王, 懷斗曆期, 握褒啓聖革<sup>98)</sup>夏, 受顧天之命, 載周興出日之邦.

이즈음 대사는 마치 조각달이 허공에 떠있듯이 고운(孤雲)이 산정(山頂)의 바위 사이를 오가듯 고상하였다. 푸른 용(龍)이 창랑(滄浪)을 건널 때 뗏목에 의지할 마음이 없다 하나, 봉새가 허공을 날면서도 오히려 오동(梧桐)나무 가지에 서식할 뜻이 없지 않은 것과 같았으니, 스님은 청려장<sup>99)</sup>을 짚고 곧바로 옥경<sup>100)</sup>으로 나아가 궁중에 들어가서 태조대왕(太祖大王)을 근알(覲謁)하였다. 대왕은 대사의 도덕이 고매하고 법신(法身)이 원현(圓現)하신 분이라고 존경하면서 광주(廣州) 천왕사(天王寺)에 주지(住持)하도록 청하므로<sup>101)</sup> 스님은 왕청(王請)에 따라 주지하면서 사부대중(四部大衆)을 크게 교화하였다. 그러나 항상 광주 혜목산은 고운 노을이 덮여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써 연좌(宴坐)하기에 가장 적합하며, 구름 덮인 계곡은 선

95) [全文]의 從과 [總覽]의 縱은 相通하는 字이다.

96) [全文]에는 탈락되었고, [總覽]에는 包이다.

97) [全文]에는 聞과 我 兩字 사이에 褒字가 더 있으니, 이는 삭제되어야 한다.

98) [總覽]에는 革. [全文]의 華는 革의 오자임.

99) 청려(靑藜) : 명아주 대공을 말려 만든 지팡이. 옛부터 신선이 짚는 지팡이라고 한다. 이는 물에 띄우면 가로로 뜨지 않고 세로로 반듯하게 선다고 한다. 『삼보 황도三輔黃圖』 「각閣」에 “夜有老人 著黃衣植靑藜杖 叩閣而進”이라 하였다.

100) 옥경(玉京) : 도교(道敎)에서 천제(天帝)가 거(居)하는 곳을 가리킨 것이나, 전(轉)하여 황도(皇都), 곧 서울을 지칭한다.

101) 잉청(荊請) : 인하여 청(請)하다. 잉(荊)은 잉(荇)과 같은 뜻이니, 내(乃)와 같은 말이다.

거(禪居)에 가장 좋은 곳이라 여겨 오던 차 다시 그곳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사망 먼 곳에서 법문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이 천리를 마치 규보<sup>102)</sup>와 같이 가깝게 여겨 구름처럼 모여와 바다와 같은 해회(海會)를 이루었으며, 분주히 달려오는<sup>103)</sup> 불자(佛子)들에게 선도(善道)로써 끊임없이 지도하여 현문(玄門)에 문법대중(問法大衆)이 제제<sup>104)</sup>하였다.

遂乃片月遊空，孤雲出岫。彼蒼龍濟浪，本無憑筏之心，丹<sup>105)</sup>鳳冲虛，猶有栖梧之志，遠携藜<sup>106)</sup>杖，逕詣玉京，遂入<sup>107)</sup>觀太祖大王。大王，以大師，玄道周行，法身圓對，苐請住廣州天王寺，遂從之住焉，居則化矣。而以慧目山，乃霞嶠，偏宜於宴坐，雲溪，甚愜於禪居，迺而住焉。於是，四遠問津者，視千里猶跬步，如雲來者，似海納之，莫不犇馳，善道以憧憧，出入玄門而濟濟。

태조가 바야흐로 스님을 존경하여 사자(師資)의 인연(因緣)을 표하고

102) 규보(跬步) : 일거족(一舉足)을 규(跬), 이(二)거족을 보(步)라 하므로 규보란 한 발자국을 뜻한다. 『대대례大戴禮』 「권학勸學」에 “是故不積跬步 無以致千里”라 하였는데, 그 주(注)에서는 “跬 一舉足也”라 하였다. 『예기집설禮記集說』에서는 “君子須臾不離道 跬步不忘孝”라 하였다. 「진감국사대공영탑비문」 주48) 규보跬步 본서 p.89참조.

103) 동동(憧憧) : 노상(路上)에 행인(行人)의 왕래가 끊임없이 이어진 모양. 『역易』 「함咸」에 “憧憧往來 朋從爾思”라 하였다.

104) 제제(濟濟) : 제제다사(濟濟多士)의 준말. ①중다(衆多) ②중성지모(衆盛之貌). 『상서尙書』의 “誓于師曰 濟濟有衆 咸聽朕命”에 대해 그 「전傳」에서 “濟濟 衆盛之貌”라 하였고, 『한서』 「초원왕전楚元王傳」에 “濟濟多士 秉文之德”이라 하였다.

105) [總覽]에는 丹. [全文]의 舟는 丹의 오자임.

106) [總覽]에는 藜. [全文]의 藜은 藜의 오자임.

107) [全文]의 人과 [總覽]의 八은 모두 入의 오자임.

자<sup>108)</sup> 적색 비단으로 만든 하남의<sup>109)</sup>와 좌구(座具) 등을 송정(送呈)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태조가 승하하니<sup>110)</sup> 마치 해가<sup>111)</sup> 우천<sup>112)</sup>에 지는 것과 같이 천지가 캄캄하였다. 선시<sup>113)</sup>의 아름다운 인을 생각하며 식종(飮終)의

- 
- 108) 옥표인연(欲表因緣): 태조(太祖)가 불심(佛心)이 돈독할 뿐만 아니라 원종대사와 사자(師資)의 인연을 맺고자 하였다는 뜻.
- 109) 하남의(霞衲衣): 하의(霞衣)라고도 한다. ①노을과 같은 옷 ②아름다운 옷 ③신선(神仙)의 옷 ④미인(美人)의 옷 ⑤적색(赤色)의 옷 등의 뜻. 여기서는 적색 옷이라는 말이니, 태조가 적색(紅袈裟) 비단가사를 선사하였다는 뜻. 당 중종(中宗)의 『석종시石淙詩』에 “霞衣霞錦千般狀 雲峯雲岫百重生”이라 하였고, 왕정백(王貞白)의 『기천대섭존사시寄天台葉尊師詩』에 “採藥霞衣濕 煎芝古鼎焦”라 하였다.
- 110) 천붕(天崩): 천붕지탁(天崩地圯)의 준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터진다는 뜻. 『사기』「노중련전魯仲連傳」에 “周烈王崩 齊後往 周怒赴於齊曰 天崩地圯 天子下度 東蕃之臣 因齊後至 則斷”이라 하였다.
- 111) 기국(杞國): 기우(杞憂), 또는 기인우천(杞人憂天)이라고도 한다. 필요없는 걱정을 하여 지나친 심적(心的) 고통을 부른다는 데서 온 말. 기국(杞國)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몸을 둘 곳이 없지 않나 하고 염려하여 침식(寢食)을 폐(廢)하였다는 고사. 『열자列子』「천서天瑞」에 “杞國有人 憂天地崩墜 身亡無所寄 廢寢食者 又有憂彼之所憂者 因往曉之曰 天積氣耳 … 奈何憂崩墜乎 其人曰 天果積氣 日月星宿 不當墜邪 曉之者曰 日月星宿 亦積氣中之有光耀者 只使墜 亦不能有中傷 其人曰 奈地壞何 曉者曰 地積塊耳 … 奈何憂其壞 其人舍然大喜 曉之者亦舍然大喜”라 하였다. 천붕기국(天崩杞國)이란 태조가 자신이 죽은 뒤에 나라가 어찌될까 근심하는 것에 비유하는 말이다.
- 112) 우천(虞泉): 우연(虞淵)과 같은 뜻이니, 해가 지는 곳. 『태평어람太平御覽』「천일상天·日上」에 “淮南子曰 日薄於虞泉 是謂黃昏 淪於蒙谷 是謂定昏 日入崦嵫 經細柳 入虞泉之地 曙於蒙谷之蒲”라 하였다.
- 113) 선시(善始): 선시선종(善始善終)의 준말. 시작도 잘하고 끝도 잘한다는 것이니, 사는 생(生)이고, 종은 사(死)이다. 그러므로 수도인(修道人)의 활계(活計)는 생과 사를 모두 시인(是認)하여 대자연(大自然) 그대로 일임(一任)하여 임운자체(任運自在)하는 것. 『장자莊子』「대종사大宗師」에 “善夭善老 善始善終”이라 하였다.

현로,<sup>114)</sup> 즉 임종의 명복(冥福)을 장식하여 극락세계로 인도하였다. 이어 혜종대왕<sup>115)</sup>이 천조<sup>116)</sup>하여 공손한 생각으로 선왕(先王)을 받들어 추모하는 효심이 간절하였으며, 인(仁)을 권장하여 속(俗)을 교화하고, 부처님을 존중하고 스님들을 높이 받드는 한편, 차(茶)와 향(香), 무늬를 놓은 비단 법의<sup>117)</sup>를 정상(呈上)하였다. 대사 또한 불심으로 계도하여 부처님의神通 법력(神通法力)을 펴기도 하였다.

太祖，方當際會，欲表因緣，送霞衲衣并座具。未幾，太祖天崩  
 杞國，日入虞泉。念善始之芳因，<sup>118)</sup> 引<sup>119)</sup>飭終之玄路，惠宗大  
 王，踐阼思恭，奉先追孝，興仁化俗，重佛尊僧，贊以茗醪<sup>120)</sup>并  
 紋羅法衣。大師啓以佛心，陳之神力。

3년이 지난 후<sup>121)</sup> 공왕<sup>122)</sup>이 승하(昇遐)하고 정종<sup>123)</sup>대왕이 보업(寶業)을

114) 인식종지현로(引飭終之玄路) : 飭은 飾과 同字이다. 식종의 현로를 인도한다는 말. 즉, 임종의 명복(冥福)을 장식하여 정토(淨土)에 인도(引導)한다는 뜻이다. 식종이란 사자(死者)의 최후를 장식하는 것.

115) 혜종대왕(惠宗大王) : 고려 제2대 임금(943~945 재위).

116) 천조(踐阼) : 천자(天子)가 보위(寶位)에 오르는 것. 조(阼)란 동쪽의 계단. 처음으로 천자의 자리에 즉위한 임금이 종묘의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제사를 주관(主管)하므로 임금의 위(位)를 계승하는 것을 천조라 한다. 『예기』「곡례曲禮」 ‘하’에 “踐阼臨祭祀”라 하고, 그 「소疏」에 “踐 履也 阼 主人階也 天子祭祀 升阼階 … 履主階行 事故云踐阼”라 하였다.

117) 문라법의(紋羅法衣) : 무늬가 찬란한 비단으로 만든 가사(袈裟).

118) [全文]에는 因, [總覽]에는 回이니 回은 因의 속자(俗字)이다.

119) [總覽]에는 引, [全文]의 列은 오자임.

120) [總覽]에는 醪, [全文]의 醪은 오자임.

121) 월삼년(越三年) : 태조의 장자인 혜종이 승하한 945년.

122) 공왕(恭王) : 의공왕(義恭王)이니, 혜종의 시호이다.

123) 정종(定宗) : 고려의 제3대 임금(945~949 재위). 태조의 둘째 아들. 이름은 요(堯).

계승<sup>124)</sup>하여 스님의 진풍<sup>125)</sup>을 첨앙하였으니, 운납가사(雲衲袈裟)와 마납법의(磨衲法衣)를 송봉(送奉)하기도 하였다. 대사는 성조를 깊이 생각하고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위하여 불사공덕(佛事功德)의 기도를 봉행하였다. 어찌 갑작스럽게 궁거<sup>126)</sup>가 운궐<sup>127)</sup>을 떠나며,<sup>128)</sup> 홀연히 쥔신을 인간세상<sup>129)</sup>에서 벗어 버리는<sup>130)</sup> 때가 올 줄을 꿈엔들 알았겠는가.

越三年，恭王昇遐，定宗大王，統承實業，瞻仰眞風，送雲衲<sup>131)</sup>

자(字)는 의천(義天).

124) 통승보업(統承實業): 보업을 통승하였다는 말이니, 왕위(王位)에 올랐다는 뜻이다.

125) 진풍(眞風): 불교의 교리를 지칭한다.

126) 궁거(宮車): 안가(晏駕)의 뜻과 같다. 천자(天子)가 타는 수레. 안가란 천자가 붕어(崩御)함을 기피하여 다르게 표현하는 말. 안(晏)은 만(晩)이니, 영구차(靈柩車)가 해가 진 후 어두워서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발인(發引)한다는 뜻. 『전국戰國』 「진책秦策」에 “秦王老矣 一日晏駕 有子異人 不足以結秦”이라 하고, 「주注」에 “高誘曰 晏 晩也 日暮而駕 歸太陰也 謂死亡也 韋昭曰 凡初崩爲晏駕者 臣子之心 猶謂宮車 當駕而出也”라 하였다.

127) 운궐(雲闕): 높이 솟아 구름 속에 들어있는 궁궐. 곧 임금이 있는 궁중을 지칭한다. 포조(鮑照)의 「대군자유소사시대君子有所思詩」에 “西出登雀臺 東下望雲闕”이라 하였다.

128) 기오거궁거운운(豈悟遽宮車云云): 어찌 갑자기 궁거(宮車)가 운궐을 떠나며, 홀연히 쥔신을 인간 세상에서 벗어 던져버리는 시기가 올 줄 꿈엔들 알았으랴!

129) 인환(人寰): 인경(人境)과 같은 뜻이니, 사람이 사는 곳. 인간세상이란 말. 백居易(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에 “回顧下望人寰處 不見長安見塵霧”라 하였다.

130) 탈사(脫屣): ①쥔신을 벗는 것인데, 모든 것을 가벼이(輕視) 여겨 애착(愛着)함이 없이 던져버린다는 비유에서 온 말. 사망자(死亡者)가 모든 소유물(所有物)을 마치 흰 신짝처럼 미련없이 버리고 떠나갔음을 표현함. ②천자(天子)가 황위(皇位)에서 내려오는 것. 『한서』 「교사지郊祀志」에 “吾視妻子 如脫屣耳”라 하였고, 양(梁)나라 소명대자(昭明太子)의 『도정절집陶靖節集』 「서序」에 “唐堯四海之主 而有汾陽之心 子晉天下之儲 而有洛濱之志 輕之若脫屣 視之若鴻毛”라 하였다.

131)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에는 衲임.

袈裟. 磨衲法衣, 大師深喜, 聖朝聿興佛事. 豈悟遽宮車於雲  
闕, 俄脫屣於人寰.

지금의 임금(132)이 당벽(132)하여(133) 보기(寶基)에 올라 나라를 다스림에(134) 보  
경을 잡고 용방(龍邦)의 풍속을 비추며, (135) 지(簾)를 붙어 취령(鷲嶺)의 가  
풍(136)을 넓히고 더욱 성공(聖功)을 나타내어(137) 한층 더 불화(佛化)를 존숭  
(尊崇)하였다. 대사는 심왕의 묘결(138)을 연설하며, 각제(139)의 미언(微言)을

- 
- 132) 당벽(當壁): 구슬을 사직(社稷)에 제사(祭祀)하는 뜰에 묻어 놓고 무작위로 서게  
하여 그 구슬 바로 위에 서서 절하는 왕자를 선택(選擇)하여 왕위를 계사(繼嗣)  
하게 되었던 고사. 『좌전左傳』「소공昭公」13에 “初共王無冢適 有寵子五人 無適  
立焉 乃大有事于群望 而祈曰 請神擇於五人者 使主社稷 乃徧以璧 見於群望 曰當  
璧而拜者 神所立也 誰敢違之 既乃與巴姬密埋璧於大室之庭 使五人齋而長入拜  
康王跨之 靈王肘加焉 子干 子皙 皆遠之 平王弱 抱而入 再拜皆厭紐”라 하였다.  
「법민국사보승탑비문法印國師寶乘塔碑文」 주274)당벽當壁 [고려편] p.110 참조.
- 133) 금상당벽(今上當壁): 이제 임금(光宗)께서 구슬에 해당되었다는 뜻이니, 광종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말이다.
- 134) 수의(垂衣): 수의상이천하치(垂衣裳而天下治)의 준말. 옷소매를 드리우고 가만  
히 있어도 천하가 스스로 다스려진다는 뜻. 옛날의 제왕(帝王)은 무위(無爲)로써  
천하를 다스렸다는 말. 『역易』「계사繫辭」‘하’에 “黃帝堯舜 垂衣裳而天下治 蓋取  
諸乾坤”이라 하고, 그 「주註」에 “垂衣裳而辨貴賤 乾尊坤卑之義也”라 하였다.
- 135) 용방지속(龍邦之俗): 중국(中國)의 풍속(風俗)이니, 유교(儒敎)의 사상을 지칭  
한다.
- 136) 취령지풍(鷲嶺之風): 영취산(靈鷲山)의 가풍(家風)이니, 불교사상을 가리킨다.
- 137) 익현성공(益顯聖功): 더욱 왕의 성스러운 공을 나타낸다는 뜻.
- 138) 심왕지묘결(心王之妙訣): 심왕이란 종속인 심소(心所)에 대한 말이니, 불교에서  
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란 주창에 따라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성취(成就)되  
거나 파괴(破壞)된다고 한다. 이러한 진리를 설파(說破)한 것을 심왕지묘결이라  
한다.
- 139) 각제(覺帝): 각왕(覺王), 법왕(法王) 등의 뜻과 같은 말. 『성령집性靈集』7에 “奇  
哉 覺帝之德 異哉 經王之功”이라 하였다.

선양(宣揚)하되, 마치 거울이 항상 비춤에 피로함을 잊고, 범종(梵鐘)이 언제나 걸려 있어도 조금도 권태를 느끼지 않는 것과 같았다. 학법대중(學法大衆)은 도마(稻麻)처럼 열(列)을 짓고, 문법불자(問法佛子)의 왕래로 도리지혜(桃李之蹊)를 이루었다<sup>140)</sup>. 임금께서는 스님을 신향(信向)하는 마음이 깊고, 흠모하는 뜻 또한 지극하였다.

今上當壁承基,<sup>141)</sup>垂<sup>142)</sup>衣理國,握鏡炤龍邦之俗,吹簾,<sup>143)</sup>弘驚嶺之風,益顯聖功,增崇佛化.大師演心王之妙訣,宣覺帝之微言,朗鏡忘疲,洪鍾待扣.衆學有稻麻之列,朋來成桃李之蹊,上乃信向心深,欽承志至.

드디어 스님의 호를 증진대사(證眞大師)라 하고 도속(道俗)의 중사(重使)를 보내되 지검<sup>144)</sup>을 지참하여 금성으로 왕림(枉臨)하도록 초빙하였다.<sup>145)</sup> 대사는 불도를 흥행(興行)하려면 좋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뿐 아

140) 봉래성도리지혜(朋來成桃李之蹊): 도리나무의 공원(公園)에는 구경꾼을 일부러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길이 생겨난다는 말. 「대경대사현기탑비문大鏡大師玄機塔碑文」 주43) 도리성혜桃李成蹊 [고려편1] p.73; 「법경대사보조혜광탑비문法鏡大師普照慧光塔碑文」 주89) 도리성혜桃李成蹊 [고려편1] p.225.

141) [總覽]에는基이나 [全文]에는 탈락됨.

142) [總覽]에는垂이나 [全文]에는 탈락됨.

143) [全文]에는簾이고 [總覽]에는簾이니,簾는 속자(俗字)이다.

144) 지검(芝檢): 지니(芝泥), 인육(印肉), 인주(印朱), 자분(紫粉) 등과 같은 뜻이니, 지초의 즙으로 황토(黃土)를 반죽한 것. 유신(庾信)의 「한무제취서찬漢武帝聚書贊」에 “芝泥印上 玉匣封來”라 하였고, 『양신의집楊愔外集』에 “今之紫粉, 古謂之芝泥 今之石帛砂 古謂之丹牒 皆濡印染石帛之具也”라 하였다.

145) 징부금성(徵赴金城): 임금이 스님을 초빙하여 금성으로 오게 하였다는 뜻. 금성이란 견고한 성이니, 왕성(王城), 곧 서울을 가리킨다. 가의(賈誼)의 「과진론過秦論」에 “天下已定 始皇之心 自以爲關中之固 金城千里 子孫帝王萬世之業也”라

나라 부처님께서도 불법의 유통(流通)을 국왕에게 부촉(咐囑)하신 것을 생각하여 왕궁으로 가기를 결심하였으며, 드디어 호계<sup>146)</sup>를 나와 용궐<sup>147)</sup>로 나아갔다. 이 때 백설<sup>148)</sup>같은 청중(聽衆)과 조정대부(朝廷大夫)인 군영<sup>149)</sup>들이 스님의 법안(法眼)을 우러러 보되 마치 주련<sup>150)</sup>과 같았으며, 자안(慈顏)을 대하되 환앙<sup>151)</sup> 즉 마치 둥근 고리처럼 둘러서서 앙모(仰慕)하였다. 모시고 왕성에 있는 사나원<sup>152)</sup>에 이르렀다. 그 다음날 임금이 사나원(舍那院)으로 행행(幸行)하여 감사하되 제자가 동림<sup>153)</sup>을 바라보듯 존경하였으

하였다.

- 146) 호계(虎溪) : 호계란 혜원법사(慧遠法師)가 백련결사(白蓮結社)를 맺은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를 가리킨다. 경치가 절경(絶景)이었으므로 흔히 수도하는 명산(名山)의 대명사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원종대사가 주석하는 혜목산(慧目山)을 지칭한다.
- 147) 용궐(龍闕) : 왕궁을 지칭한다.
- 148) 설미(雪眉) : 연로(年老)하여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눈썹까지 백설(白雪)처럼 희다는 말. 「진공대사보법답비문」 주126) 설미雪眉 [고려편1] p.101 및 「정진대사원오답비문」 주224) 신설미이희가견伸雪眉而喜可見 [고려편1] p.411 등 참조.
- 149) 노서군영(鷺序群英) : ‘높은 관직을 가진 군영’이라는 말. 노서란 조정대신(朝廷大臣)들의 서열(序列)이니, 관료를 지칭한다. 그 관료들의 정연(整然)한 모습이 마치 갈매기들이 날으는 차서(次序)와 같음을 상징한 것. 『금경禽經』에 “寮案 鷺雛 鳩儀鷺序”라 하고, 그 「주注」에 “鷺 白鷺也 小不踰大 飛有次序 百官縉紳之象”이라 하였다. 요채(寮案)는 요채(僚案)라고도 한다.
- 150) 주련(珠聯) : 많은 아름다운 구슬이 연이어 달려(連聯)되어 빛나는 모양이니, 스님의 법안(法眼)을 앙瞻(仰瞻)하는 서로의 눈동자가 구슬을 이어 놓은 것과 같다는 말이다.
- 151) 환앙(環仰) : 주변에 있는 청중(聽衆)과 군영(群英)들이 스님의 자안(慈顏)을 대하는 것이 마치 고리처럼 둘러서서 우러러 본다는 말이다.
- 152) 사나원(舍那院) : 개성(開城)의 궁성 밖에 있던 절. 919년(太祖 2)에 창건하였다. 법왕사(法王寺), 자운사(慈雲寺), 왕륜사(王輪寺), 내제석원(內帝釋院), 사나사(舍那寺) 등은 모두 그 당시 대찰(大刹)이며 호국사찰이었다.
- 153) 동림(東林) : 여산 동림사의 혜원법사를 가리킨다. 스님이 이곳에서 승(僧)·유



며, 남간<sup>154)</sup>을 향하여 정성을 기울였다.

遂奉師號，爲證真大師，仍遣<sup>155)</sup>道俗重使，遽飛芝檢，徵赴金城。大師，以爲道之將行，時不可失，念付囑故，吾其往矣，遂出虎溪，特詣龍闕。於是，雪眉清衆，驚序群英，瞻法眼以珠聯，對慈顏以環仰。送至王城舍那院。翌日，上幸舍那院，謝曰，弟子，望東林以引領，向南澗以傾心。

스님께서 수기설법(隨機說法)함은 마치 깊은 골짜기에서 부는 회오리바람소리<sup>156)</sup>와 같고, 수연부감(隨緣赴感)하는 것은 맑은 못에 비치는 달그림자와 같았다. 귀의(歸依)하는 마음이 다시 간절하며 찬앙(讚仰)하는 향심 또한 더욱 깊었다. 3일을 지낸 후 궁내의 중광전(重光殿)에서 법회를 여니 금란가사(金欄袈裟)를 입고 자전(法床)에 올랐다. 임금이 스님의 과

(儒)·도(道)·속(俗) 등 123인과 함께 백련결사를 맺고 30여 년간 산문(山門) 밖을 나오지 아니하였다. 진왕(晉王)이 스님을 지극히 존경하였다는데서 온 말이다. 「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문」 주147) 의혜결동림지사疑惠結東林之社 [고려편1] p.32; 「진공대사보법탑비문」 주134) 여부廬阜 [고려편1] p.102; 「정효대사보인탑비문澄曉大師寶印塔碑文」 주84) 혜원거여부慧遠居廬阜 [고려편1] p.249 등 참조.

154) 남간(南澗): 남간사(南澗寺)를 이름이니, 항주부(杭州府, 浙江省) 전당현(錢塘縣)에 위치한다. 지봉(志逢)이 개창(開創)하고 오월왕(吳越王)이 중건(重建)하였는데, 일명(一名) 법우사(法雨寺) 또는 남간사라고도 한다. 송나라 때 지칭(智稱) 스님이 이 절에 있었는데, 당시 효무제(孝武帝 453~464)가 지극히 존숭(尊崇)하였다. 스님의 속성은 배씨(裴氏), 하동(河東) 문희(聞喜) 출신. 특히 율부(律部)에 정통(精通)하여 『십송율의기十誦律義記』 8권을 지었으며, 제(齊)나라 영원(永元) 2년(500) 72세로 입적하였다. 『양고승전梁高僧傳』 권11 「석지칭전釋智稱傳」 (대정장50, p.402b) 참조.

155) [全文]에는 遣. [總覽]의 遣은 遣의 오자임.

156) 표곡지성(麁谷之聲): 깊은 골짜기에 메아리치는 회오리바람 소리. 표(麁)는 회오리바람 표字.

순<sup>157)</sup>을 보고 선열(禪悅)에 잠겼으며 연안<sup>158)</sup>을 받들어 정성을 다하였다. 환구(環區)가 모두 피석(避席)의 예의를 폈으며 거국(擧國)이 함께 서신(書紳)의 뜻을 바쳤다. 삼귀의(三歸依)의 마음을 더욱 책려(策勵)하고 십선(十善)을 한층 더 닦게 되었다. 내지 개자겁이 다하고<sup>159)</sup> 반석겁이 다하더라도<sup>160)</sup> 반드시 부처님을 친견한 양인(良因)은 다하지 않으며, 또한 스님의 위대한 업적은 다할 때가 없을 것이라 염원하였다. 곧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는<sup>161)</sup> 스님을 받들어 국사로 모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향화(香火)의 인연을 맺었으니, 돈독한 정성으로<sup>162)</sup> 사자(師資)의 예

157) 상도과순(上觀菓脣) : 정종(定宗) 임금의 스님께서 설법함에 마치 붉은 과일과 같은 입술을 보았다는 뜻. 과순이란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의 성모(聖貌)를 찬양하는 『관음예문(觀音禮文)』에 “正法明王 聖觀自在 髮凝翠黛 唇艷朱紅 臉透丹霞 眉彎初月”이라 하였으니, 진염주홍(唇艷朱紅)이 곧 과순과 같은 말. 「정진대사원오답비문」 주340)과순菓脣 [고려편1] p.420 참조.

158) 연안(蓮眼) : 청련화목(靑蓮華目)의 준말. 부처님의 삼십이상(三十二相) 중 제29 안색여감청색(眼色如紺靑色 : 눈동자가 검푸르다)에서 온 말이다.

159) 개일성공(芥壺城空) : 일자(噫字)는 자(子)의 오자인 듯하다. 개자성공(芥子城空)이란 사방 40리(里)의 성중(城中)에 가득 채웠던 개자가 다 없어졌다는 말이니, 불교의 시간론(時間論)에 있어서 개자겁(芥子劫), 불석겁(拂石劫), 증감겁(增減劫) 등 3가지의 겁(劫)이 있는데, 개자겁이란 둘레 40리가 되는 성중에 개자를 가득 채워놓고 장수천(長壽天) 사람이 3년 마다 한 알씩 가지고 가서 그 개자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를 1겁이라 한다. 소겁(小劫), 중겁(中劫), 대겁(大劫)이 있는데, 이를 소겁이라 한다. 「통진대사보운답비문」 주222)개성芥城 [고려편1] p.368 참조.

160) 의마석진(衣磨石盡) : 앞의 주(註)에서 말한 불석겁(拂石劫, 또는 盤石劫)이니, 사방 40리가 되는 반석(盤石)을 천인(天人)이 무게 삼수(三銖)인 가볍고 얇은 천의(天衣)로 3년마다 한 번씩 스쳐 그 돌이 다 없어질 때까지의 기간을 1겁이라 한다.

161) 복면(服冕) : 임금의 정복(正服)이니 곤룡포와 면류관을 지칭한다.

162) 조조(槌槌) : 진실하며 독실한 모양. 『중용(中庸)』에 “言顧行 行顧言 君子胡不槌槌爾”라 하였다.

를 행하고는, 마납<sup>163)</sup>가사, 마납장삼<sup>164)</sup>과 좌구<sup>165)</sup>·은병(銀瓶)·은향로(銀香爐)·금구자발<sup>166)</sup>·수정염주(水精念珠) 등을 선물로 헌납하였다.

師尊隨機, 如颺<sup>167)</sup>谷之聲, 赴<sup>168)</sup>感似月潭之影. 瞻依更切, 鑽仰彌深. 越三日, 於重光殿, 開法筵, 及乎曳以金欄, 昇於紫殿. 上觀菓脣而禪悅, 奉蓮眼以精誠. 爲其環區,<sup>169)</sup>申避席之儀, 舉國展書紳之志. 三<sup>170)</sup>歸益勵,<sup>171)</sup>十善增修. 乃至, 芥子<sup>172)</sup>城空, 衣磨石盡, 必也, 見聖之良因不歇, 爲師之美道無窮. 卽以服冕, 奉爲國師, 虔虔<sup>173)</sup>結香火之緣, 慥慥結師資之禮, 仍獻踏<sup>174)</sup>納袈裟, 磨衲襖, 并座具, 銀瓶, 銀香爐, 金釵瓷鉢, 水精念珠.

대사는 물 속에 비친 달과 같이 맑으며 구름없는 산봉우리처럼 고고(孤高)하였다. 일심으로 묘각(妙覺: 부처님)의 교풍을 선양하며 천안<sup>175)</sup>으로

163) 답납(踏納): 답(踏)은 마(磨)의 오자(誤字)인 듯하다.

164) 마납오(磨衲襖): 마납비단으로 만든 장삼(長衫).

165) 좌구(座具): 좌복(坐復).

166) 금구자발(金鉤瓷鉢): 금으로 테를 두른 와발(瓦鉢).

167) [全文]에는 颺이고 [總覽]에는 颺이니, 颺는 颺의 속자(俗字)이다.

168) [全文]에는 赴와 感 兩字 사이에 颺字가 더 있으나, 이는 삭제되어야 한다.

169) [全文]에는 珠이고 [總覽]에는 區이니, 어느 자가 옳은지 未詳이다.

170) [全文]에는 三과 歸 兩字 사이에 區字가 더 있으나, 이는 삭제되어야 한다.

171) [全文]의 切과 [總覽]의 勵는 뜻으로 兩字 모두 무방하다.

172) [全文] [總覽] 모두 噯이나, 子字가 아닌가 추정한다.

173) [總覽]에는 虔虔. [全文]의 處處는 虔虔의 오자임.

174) [全文] [總覽] 모두 踏이나, 磨의 誤字가 아닌지 미상이다.

175) 천안(千眼): 천수천안(千手千眼)의 준말. 대자대비하심 관세음보살은 천수와 천안뿐만 아니라 8만 4천의 보목(寶目)과 8만 4천의 팔, 8만 4천의 손이 있어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대자(大慈: 관세음보살)의 교화를 보였다. 임금께서 크게 기꺼워하여 이르기, “제자가 깊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도를 깨달았으며 묘한 도리를 계승하여 미묘(微妙)한 법을 알았나이다. 앞으로 정성을 다하여<sup>176)</sup> 불법을 받들어 실추(失墜)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는 천덕전(天德殿)에서 크게 법회를 열고<sup>177)</sup> 큰 원심(願心)을 발하여 심향(心香)의 일주(一炷)를 태웠다. 대사가 법상(法床)에 앉아 불자(拂子)를 한 번 휘두르고<sup>178)</sup> 얼굴을 약간 움직였다.<sup>179)</sup>

大師, 潭心有月, 嶽頂無雲. 一心宣妙覺之風, 千眼示大慈之化. 上乃大喜曰, “弟子聽玄言而達道, 承妙旨以知微, 奉以周旋, 不敢失墜.” 迺於天德殿, 高敞法筵, 傾<sup>180)</sup>願海之千<sup>181)</sup>波,<sup>182)</sup> 焚<sup>183)</sup>心香之一炷. 大師纔麾塵尾, 乍動龍顏.

이 때 청법대중 가운데 어떤 스님이 묻기를, “향상일로<sup>184)</sup>란 어떤 것입

176) 주선(周旋): 일이 잘 되도록 이리저리 힘을 써서 변통해 주는 일. 『좌전』「양공襄公」31에 “進退可度 周旋可則 容止可觀”이라 하였다.

177) 고창법연(高敞法筵): 높이 법회(法會)를 연다는 뜻. 敞은 열 창字.

178) 재휘주미(纔麾塵尾): 겨우 주미(塵尾)인 불자(拂子)를 지동지서(指東指西)로 가리킨다는 뜻. 곧 설법한다는 말이다.

179) 용이(龍顏): 원종대사의 존안(尊顏).

180) [總覽]에는 傾. [全文]의 偕는 傾의 오자임.

181) [總覽]에는 千. [全文]의 天은 千의 오자임.

182) [全文]에는 千과 焚의 兩字 사이에 波字가 탈락되었다.

183) [全文]에는 焚心이란 兩字 사이에 茶字가 더 있으나, 이는 삭제되어야 한다.

184) 향상일로(向上一路): 위로 한층 더 나아감. 하근기(下根機)에 해당하는 문자언구(文字言句)를 벗어나 최상근기(最上根機)의 검추(鉗鎚)인 본분초료(本分草料)를 가리킨다. 『경덕전등록』권7(대정장51, p.253b), 「반산보적상盤山寶積狀」에 “師上堂示衆曰 心若無事 萬生不生 意絕玄機 纖塵何立 道本無體 因道而立 名 道本無名 因名而得號 若言卽心卽佛 今時未入玄微 若言非心非佛 猶是指蹤

니까?”하니, 대사가 이르기를, “일천 성인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라.”하였다. 또 묻기를, “천성(千聖)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가섭(迦葉)으로부터 조조(祖祖)가 서로 전하여 온 것은 무엇으로부터 있게 된 것입니까?”하니, 대사가 이르기를, “다만 천성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증득(證得)하는 것이므로 초조 가섭으로부터 서로 전해오는 것이니라.”하였다. 또 묻기를, “이러한즉<sup>185)</sup> 이조(二祖) 혜가(慧可)가 서천(西天)의 달마대사(達磨大師)를 바라보지 않았으며, 달마대사 또한 당토(唐土)에 오지 아니한 것입니까?”하니, 대사가 이르기를, “비록 천성(千聖)으로 좇아 얻은 것은 아니지만 달마가 부질없이 동토(東土)에 온 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문답할 때 인천(人天)이 모두 감응(感應)하였으며 현성(賢聖)도 함께 기꺼워하였다.

有僧問, “如何是向上一路.” 大師曰, “不從千聖得.” 又問, “既不從千聖得, 從上相傳, 從何而有.” 大師曰, “只爲不從千聖得, 所以, 從上相傳.” 又問, “與麼<sup>186)</sup> 卽二祖不望西天, 達摩不到唐土, 大師曰, 雖不從千聖得, 達摩不虛過來.” 於是, 人天感應, 賢聖喜歡.

之極則 向上一路 千聖不傳 學者勞形 如猿捉影 夫大道無中 復誰先後 長空絕際 何用稱量 空既如斯 道復何說 夫心月孤圓 光吞萬像 光非照境 境亦非存 光境俱亡 復是何物”이라 하였다.

185) 여마(與摩) : 여마(與麼)라고도 한다. 이몰(異沒), 이마(伊摩), 이마(伊麼) 등과 같은 뜻. 이렇다고 진술한 사물의 상태와 실현(實現)하고 있는 상태를 지적(指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저와 같이 또는 그렇다면 등의 뜻. 『조주록趙州錄』 중에 “與麼來從師接 不與麼來 師如何接”이라 하였고, 『무문관無門關』 23에 “不思議 不思議 正與麼時 那箇是明上座本來面目”이라 하였다.

186) [全文]에는 磨이고 [總覽]에는 摩이니, 모두 무방하나, 麼이어야 한다.

꽃비가 공중(空中)에 날고, 전단향(梅檀香)의 연기가 태양을 가리우는 상서가 나타났다.<sup>187)</sup> 마치 마등(摩騰)스님이 한(漢)나라에 오고,<sup>188)</sup> 강승희 대사(康僧會大師)가 오(吳)나라에 들어간<sup>189)</sup> 때와 같아서 부처님의 크신 공덕과 승가(僧伽)에 귀의하는 그 지극함이 이보다 더한 때가 없었다. 이른바 사방이 모두 존경하고<sup>190)</sup> 만세토록 모두가 영원히 의뢰하였다. 부처님의 혜일(慧日)이 다시 중흥하는 때를 당하였으니, 이는 인방<sup>191)</sup>이 크게 변혁할 때이다.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노승은 이제 나이 상유(桑榆)에 임박하고<sup>192)</sup> 몸은 포류(蒲柳)처럼 노쇠하였으므로<sup>193)</sup> 다만 송문(松門)에 가서

187) 단연폐일(檀煙蔽日): 전단향의 연기가 해를 가리웠다는 말. 곧 상서(祥瑞)가 나타남을 뜻한다.

188) 마등부한(摩騰赴漢): 중국 후한(後漢) 명제(明帝) 영평(永平) 10년에 서역(西域)의 마등스님 일행이 처음으로 한나라에 불교를 전래(傳來)한 사실이니, 「지증대사적조탑비문」 주21)한징폐일漢徵佩日 [신라편] p.296, 주38)섭등동입攝騰東入 [신라편] p.298; 「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문」 주116)마등선척한왕지전摩騰先陟漢王之殿 [고려편1] p.29; 「통진대사보운탑비문」 주10)마등부한 [고려편1] p.350 등 참조.

189) 승희유오(僧會遊吳): 강거국의 승희스님이 중국에 불교 전파를 위해 오(吳)나라에 가서 사리의 영험을 보여 손권(孫權)의 귀의(歸依)를 받아 비로소 오나라에 불교가 전파되었다는 데서 온 말. 「지증대사적조탑비문」 주40)강희남행康會南行 [신라편] p.298; 「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문」 주117)강거승희시승오주지거康居僧會始昇吳主之車 [고려편1] p.29; 「통진대사보운탑비문」 주9)승희유오 [고려편1] pp.349~350; 대정장50, p.325a 등 참조.

190) 사방합빈(四方咸賓): 사방(四方)에서 모두가 스님의 도덕을 흠복(欽服; 賓服)한다는 뜻.

191) 인방(仁方): 동방인 우리나라를 지칭한다.

192) 연박상유(年迫桑榆): 나이 상유(桑榆)에 임박하였다는 말. 일몰(日暮), 즉 석양(夕陽)에 해 그림자가 나무의 끝을 비추는 것.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뜻. 스님은 세수(歲壽) 89세로 입적(入寂)하였다. 상유란 해가 지는 곳을 가리킨다. 만년(晩年), 또는 열반(涅槃) 직전(直前)을 말한다.

193) 치쇠포류(齒衰蒲柳): 나이가 많아 이가 마치 포류처럼 쇠퇴하고 약해졌다는 뜻.

휴족(休足)하면서 궁중인 금궐(金闕)을 향하여 폐하(陛下)에게 귀심(歸心)하기를 원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花雨飛空，檀煙<sup>194)</sup>蔽日，彼摩騰赴漢，僧會遊吳，其奉佛之大功，歸僧之專懃，無以加也，所謂，四方咸賓，萬世永賴，當慧日再中之際，是仁方丕變之時，大師適言曰，老僧，年迫桑榆，齒衰蒲柳，但願往松門而休足，向金闕而歸心而已。

임금이 비록 스님의 자안(慈顏)을 연모하나 다만 현지(玄旨)를 준수할 뿐이다. 떠나는 스님이 탄 상헌<sup>195)</sup>을 바라보면서 전송하였고 안찰<sup>196)</sup>을 우러러 항상 마음을 그곳으로 기울였다. 그후 자주 성기<sup>197)</sup>를 보내어 뜻을 전하며 선한<sup>198)</sup>을 날려 보내어 정성을 피력하되, 다음과 같은 송덕시(頌德詩)를 지어 보냈다.

上，雖戀慈顏，祇遵玄旨。望象<sup>199)</sup>軒而目送，瞻鴈刹以心傾。 余

포류란 버드나무의 일종(一種). 곧 수양버들. 『이아爾雅』「석목釋木」에 “楊 蒲柳”라 하였고, 『본초本草』「수양水楊」에 “釋名 青楊 蒲柳 蒲楊 蒲移 藹柳 藹苻”라 하였다.

194) [全文]의 烟과 [總覽]의 煙은 같은 字이다.

195) 상헌(象軒): 용상대중(龍象大衆)이 탄 큰 수레이니, 대사(大師)가 타고가는 연(輦)이다.

196) 안찰(鴈刹): 사찰(寺刹)을 가리키니, 곳곳에 사찰이 많이 나열(羅列)되어 있는 것이 마치 기러기가 열(列)을 지어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뜻에서 온 말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권3「원종흥법原宗興法」에 “寺寺星張 塔塔雁行”이란 말이 있다.

197) 성기(星騎): 천자의 기마사(騎馬士)이니, 곧 천자의 사자(使者)를 이름. 채양(蔡襄)의 「조공사시詔貢士詩」에 “星騎翩翩鶴詔來 旋聞歡語沸春雷”라 하였다.

198) 선한(仙翰): 천자의 편지. 신한(宸翰)과 같은 뜻. 이교(李嶠)의 「봉교추부구성궁도중구호시奉敎追赴九成宮途中口號詩」에 “委質承仙翰 祇命過蓬萊”이라 하였다.

199) [全文]에는 象과 軒 兩字 사이에 祇字가 더 있으나, 이는 삭제되어야 한다.

後, 馳星騎以傳情, 飛仙<sup>200)</sup>翰而寫懃, 迺製誦<sup>201)</sup>德詩, 寄獻曰.

혜등(慧燈)을 높이 들어 해향<sup>202)</sup>을 비추시었고,  
진신(眞身)은 적적(寂寂)하나 화광<sup>203)</sup>을 나타냈도다.  
패엽경(貝葉經) 연설하여 중생(衆生)을 제도하시고,  
발우속 연꽃 피어 고요히 입정(入定)하셨네.

慧日高懸曜<sup>204)</sup>海鄉,  
眞身寂寂現和光.  
貝中演法開迷路,  
鉢裡生蓮入定場.

사자후(師子吼) 일음(一音)으로 무명(無明)을 흠어주시니,  
이문<sup>205)</sup>이 상(相)을 떠나 진로(塵勞)에서 벗어났도다.<sup>206)</sup>  
현관(玄關)은 깊고 깊어 산천(山川) 밖 저넘어 있어,  
그곳을 선망하나<sup>207)</sup> 친견할 길 전혀 없네.<sup>208)</sup>

200) [全文]에는 宸이고 [總覽]과 [拓本]에는 仙이니, 뜻으로는 相通한다.

201) [全文]에는 誦. [總覽][拓本]에는 講이니, 이는 [全文]의 誦이 옳은 듯하다.

202) 해향(海鄉): 해동(海東)인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203) 화광(和光):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준말. 화광동진은 빛을 부드럽게 하여 속세의 티끌에 동화한다는 뜻으로, 자기의 지덕(智德)과 재기(才氣)를 감추고 세속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 본색을 숨기고 인간계(人間界)에 나타남을 이르는 말이다.

204) [總覽]의 曜와 [全文]의 耀는 같은 뜻이다.

205) 이문(二門):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

206) 출진량(出塵涼): 복잡한 세간진로(世間塵勞)를 벗어나서 마음이 항상 청량(淸涼)과 같이 고요하다는 뜻이다.

207) 분파(奔波): 물이 흘러가듯 목적으로 쫓아간다는 뜻이다.



一唱<sup>209)</sup>成音收霧淨,  
 二門離相出塵涼.  
 玄關遠隔山川外,  
 恨不奔波謁上房.

이 송덕시와 아울러 오정<sup>210)</sup>·방천<sup>211)</sup>·단요<sup>212)</sup>·명향<sup>213)</sup> 등의 선물을 보내어 신심(信心)을 표하고 간절히 법력(法力)을 빌었다. 대사는 천궐<sup>214)</sup>에 도착하고 곧 운산(雲山)에 이르렀다. 구름과 칙녕쿨이 얹힌 산림은 깃들여 머물기에(栖遲) 적합하며, 수도하면서 바윗돌로 베개하고 흐르는 물로 양치질하기에 편의하여<sup>215)</sup> 마음으로 열반할 곳으로 삼으려 하였다.<sup>216)</sup>

208) 상방(上房): 사원(寺院)의 주지(住持)를 일컫는다. 주지가 거처(居處)하는 곳은 사중(寺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으므로 상방이라 하였는데, 전(轉)하여 주지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상기전象器箋』 5에 “道忠曰 上方 本稱山上佛寺 而今呼住持人 爲上方 其所居在寺最高深處 亦可稱上方也”라 하였다.

209) [總覽]에는 唱, [全文]의 喝은 唱의 오자임.

210) 오정(烏程): 오정은 방천(芳荈), 단요(丹徼), 명향(名香) 등과 함께 선물에 속하는 명칭이다. 형남(荊南)에는 오정이 있고, 예북(豫北)에는 죽엽(竹葉)이 있다 하였다. 장협(張協)의 『칠명七命』에 “乃有荊南烏程 豫北竹葉”이라 하였다. 여기서 오정과 죽엽은 모두 주명(酒名)이다. 오정인 술을 스님께 선사한 것으로 보아 이는 술이라기 보다 높은 분에게 드리는 일종의 보약(補藥)인 것 같다.

211) 방천(芳荈): 가을 늦게 딴 다료(茶料)의 일종이니, 방신(芳茵)과 같은 것. 곧 귀진(貴珍)한 차(茶)를 말한다.

212) 단요(丹徼): 붉고 누런 색실로 화려하게 수를 놓은 가리개, 즉 병풍을 가리킨다.

213) 명향(名香): 이름 그대로 유명(有名)한 향이니, 예컨대 전단향, 울금향, 침복향 등을 일컫는다.

214) 천궐(天闕): 천자나 임금이 있는 대궐(大闕), 즉 궁문(宮門)이나 여기서는 임금을 지칭한다.

215) 침수(枕漱): 침석수류(枕石漱流)의 준말이니, 깊은 산중에서 수도함에 있어 백운(白雲)과 청산(靑山)을 벗과 짐으로 삼아 돌로 베개를 삼고 흐르는 물로 양치

仍贊之以烏程，芳薺，丹微，名香，用表信心，遙祈法力。大師，  
自辭天闕，却到雲山。煙蘿更叶於栖遲，水石偏宜於枕漱，心無  
限矣，志有終焉。

이로부터 누더기를 입은 남자<sup>217)</sup>가 바람처럼 찾아오고, 대중공양을 올  
리기 위하여<sup>218)</sup> 오는 이가 구름과 같이 모여들었다.<sup>219)</sup> 대사는 색(色)과 공  
(空)을 모두 초월하여 선정(禪定)과 지혜가 함께 원만하였으며, 지극한 도  
(至道)를 산중에서 행하고 그윽한 공력(玄功)을 천하<sup>220)</sup>에 두루 베풀었으  
니, 신비하면서 중생을 교화하시니 어찌 불(佛)이나 각자(覺者)와 다르겠  
는가?

於是，擁毳者風趨，攝齋者雲萃。大師，色空雙泯，定惠俱圓，  
行至道於山中，施玄功於宇內，則何異佛者覺也，神而化之矣。

현덕 5년<sup>221)</sup> 세집<sup>222)</sup> 돈강<sup>223)</sup> 8월 월결 5일<sup>224)</sup> 대사께서 곧 열반에 들고자

---

질하면서 초연한 기개(氣概)로 수도하기에 가장 마땅한 곳이라는 뜻. 「통진대사  
보운답비문」 주102) 침수최의 枕漱最宜 [고려편1] p.358 참조.

216) 지유종언(志有終焉): 마음에 이곳을 종언지(終焉之地)인 열반할 곳으로 정하  
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뜻이다.

217) 옹취자(擁毳者): 누더기를 입은 스님이란 뜻.

218) 섭재자(攝齋者): 부처님께 불공(佛供)을 올리고, 대중(大衆) 스님들에게는 대중  
공양을 올리려는 신도(信徒)들을 지칭한다.

219) 운채(雲萃): 운집(雲集)과 같은 말이니, 구름과 같이 사방에서 많이 모여든다는  
뜻이다.

220) 우내(宇內): 국내 또는 천하(天下)라는 뜻이니, 스님의 덕화(德化)가 온 천하에  
널리 베풀어졌다는 말이다.

221) 현덕(顯德) 5년: 현덕은 후주(後周) 세종(世宗) 때의 연호. 현덕 5년은 무오(戊  
午), 958년(光宗 9).

하여 목욕한 다음 방 앞에 대중을 모으라고 명하였다. 대중이 모두 뜰 앞에 모였다. 대사가 유훈(遺訓)하여 가로이르기를, “만법(萬法)은 모두 공(空)한 것, 나는 곧 떠나려 하니 일심(一心)으로 근본을 삼아 너희들은 힘써 정진하라. 마음이 일어나면 곧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법도 따라서 멀하나니, 인심(仁心)이 곧 부처님이거늘 어찌 별다른 종류가 있겠는가? 여래(如來)의 정계(正戒)를 힘써 보호하라!” 유훈의 말씀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서 엄연(儼然)히 가부좌를 맺고 앉아 입적하였으니, 고달원(高達院) 선당(禪堂)이었다. 오호라!<sup>225)</sup> 동신(東身)에 옹한지는<sup>226)</sup> 90세이고, 서계(西戒)를 받은지는<sup>227)</sup> 69하이다. 호계<sup>228)</sup>는 소리내어 오열하고 학수<sup>229)</sup>의 빛은 우울함이 가득하였다. 문생들은 앞으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여 슬픔에 잠겼으며, 산중의 노스님들은 모두 자신의 노쇠함과 고위

222) 세집(歲集): 세차(歲次) 또는 태세(太歲)와 같은 말.

223) 돈장(敦詳): 고갑자(古甲子) 중 지지(地支)의 ‘오(午)’라는 뜻이니, 현덕 5년이 무오년이므로 마땅히 돈장 위에 천간(天干)의 무(戊)인 저옹(著雍)을 첨가하여 ‘저옹돈장(著雍敦詳)’이라 하여야 한다.

224) 월결(月缺) 5일: 달은 음력 16일부터 이지러지므로 달이 기울어지기 시작한지 5일째란 말이니, 20일이라는 뜻. 이지관, 『신행일감信行日鑑』, p.255 및 「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문」 주6)창월暢月; 주7)월결지칠일月缺之七日 본서 p.116 등 참조.

225) 어희(於戲): 오호라로 음독(音讀)하여야 한다. 슬퍼하는 모양. 호곡(號哭)하면서 서러워하는 것.

226) 응동신(應東身): 세속(世俗)의 나이, 곧 세수(世壽)라는 뜻이다.

227) 복서계(服西戒): 수계(受戒) 이후의 나이. 법랍(法臘) 곧 승랍(僧臘)이라는 뜻이다.

228) 호계(虎溪): 중국 여산 동림사의 입구에 있는 계천(溪川)을 뜻하나, 여기서는 원종대사가 열반한 곳인 혜목산(慧目山)을 가리킨다.

229) 학수(鶴樹):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구시나가라에 있던 사쌍팔척(四雙八隻)의 사라나무인데, 부처님의 열반을 애도(哀悼)하여 그 나무가 모두 백색(白色)으로 변하였으므로 이를 학수라고 한다.

(枯萎)함을 탄식하였다.<sup>230)</sup> 스님과 청신사(淸信士), 청신녀(淸信女)들이 함께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통곡하는 소리가<sup>231)</sup> 암곡을 진동하였다.

顯德五年，歲集敦牂，秋八月，月缺五日，大師將化往，盥浴訖，房前命衆。悉至于庭。迺遺訓曰，“萬法皆空，吾將往矣，一心爲本，汝等勉旃。心生法生，心滅法滅，仁心卽佛，寧有種乎。如來正戒，其護之勗之哉。”言畢入房，儼然趺坐，示滅於當院禪堂。於戲，應東身者，九十春，服西戒者，六十九夏。虎溪聲咽，鵲<sup>232)</sup>樹色憂。門生銜安仰之悲，山老<sup>233)</sup>起其萎之歎。緇<sup>234)</sup>白<sup>235)</sup>士女，擗踊慟哭，聲振巖<sup>236)</sup>谷。

다음날 신좌(神座)를 혜목산(慧目山)으로 옮겨 감실(龕室)을 열고 보니 안색(顔色)이 생전(生前)과 같았다. 터를 고르고<sup>237)</sup> 석호(石戶)를 시설하여 유골을 봉폐(封閉)하였다. 임금께서 부음(訃音)을 들으시고 선월(禪月)이 너무 일찍 빠짐을 개탄하며, 각화(覺花)가 먼저 떨어짐을 슬프다 하시

230) 산세기기위지탄(山世起其萎之歎): 산세의 세자(世子)가 [全文]에는 노(老)로 되어 있으니, 노자(老字)가 옳다. 산중의 노스님들은 모두 자신이 노쇠(老衰)하고 고위(枯萎)함을 탄식하였다는 뜻이다.

231) 벽용통곡(擗踊痛哭): 가슴을 치고 뛰면서 통곡한다는 뜻. 벽(擗)은 가슴두드릴 벽字, 벽용부심(擗踊拊心).

232) [全文]의 鵲과 [總覽][拓本]의 鵲은 뜻으로는 같다.

233) [全文]에는 老, [總覽][拓本]의 世는 老의 오자임.

234) [總覽]에는 緇, [全文]의 纒는 緇의 오자임.

235) [全文]에는 白과 土 兩字 사이에 世緇란 兩字가 더 있으나, 이는 삭제되어야 한다.

236) [全文]의 崑과 [總覽][拓本]의 巖은 같은 字이다.

237) 권(權): 담을 세울 장소에 기초를 다지는 것. 권시석호봉폐(權施石戶封閉)란 기초를 튼튼히 구축한 다음 그위에 석호, 즉 석함(石函)을 놓고 신좌(神座)를 넣고는 덮어서 봉폐한다는 것이니, 임시로 유해(遺骸)를 안장(安葬)하는 것을 말한다.

고, 성사<sup>238)</sup>를 보내 곡서<sup>239)</sup>로써 조의를 표하고 시호를 원종대사(元宗大師), 탑호를 혜진(慧眞)이라 추증하였다. 그리고 진영 일정<sup>240)</sup>을 조성하고, 국공(國工)으로 하여금 돌을 다듬어 층층(層冢)을 만들었다.<sup>241)</sup> 문인들이 호국하면서 색신(色身)을 받들어 해묵산 서북쪽 산기슭에 탑을 세웠으니 이는 상법(像法)을 준수한 것이다.

翌日, 奉遷神座於慧目山, 龕<sup>242)</sup>觀, 顏色如生. 權施石戶封閉. 上聞之, ‘慨禪月之早沉, 嗟覺花之先落.’ 降之星使, 吊以鵠書, 追諡元宗大師, 塔號<sup>243)</sup>惠眞. 敬造眞影一幀,<sup>244)</sup> 仍令國工, 攻石封層冢. 門人等, 號奉色身, 豎塔于慧目山西北崗, 遵像法也.

대사는 심등(心燈)이 강렬하며 정수(定水)는 파랑(波浪)이 없고,<sup>245)</sup> 지혜는 바다와 같이 원융하며 자비의 구름은 온 세계를 덮었다. 불법을 배우고 선을 깨달은 덕행과 마군에게 항복받고 세속을 진압한 위릉<sup>246)</sup>과 입송서

238) 성사(星使): 옛날 천문가(天文家)들이 말하기를, “천상(天上)에 사성(使星)이란 별이 있어서 인간천자(人間天子)의 사신(使臣)을 주관(主管)한다.”고 하였으므로 세상에서 천자의 사자를 성사라 하였다. 『후한서』「이합李郃」, “和帝分遣使者觀採風謠 使者二人 到益投郃候舍 郃因仰觀 問曰 二君發時 寧知朝廷遣二使耶 問何以知之 郃指星示云 有二使星 向益分野 故知之”.

239) 곡서(鵠書): 곡판(鵠板) 또는 곡두판(鵠頭板)과 같은 뜻이니, 임금의 명(命)인 조서(詔書)를 가리킨다. 곡두서체(鵠頭書體)로 썼기 때문에 곡두라 한다.

240) 진영일정(眞影一幀): 정성을 다하여 스님의 영정(影幀) 일위(一位)를 조성하였다는 뜻.

241) 석봉층층(石封層冢): 돌을 다듬어 층층(層冢)인 층탑(層塔)을 만들어 유해(遺骸)를 안치하고 봉폐(封閉)하였다는 뜻이다.

242) [總覽]에는 龕. [全文]의 顔은 龕의 오자임.

243) [全文]에는 號이고 [總覽]에는 号이니, 号는 號의 약자이다.

244) [全文] [總覽] 모두 幀이나, 幀이어야 한다.

245) 정수무파(定水無波): 삼매(三samādhi)의 힘이 깊고 번뇌가 없음.

학(入宋西學)한 혁혁하고 현현<sup>247)</sup>한 공적과 귀국동화(歸國東化)한 미묘(微妙)하고 외외<sup>248)</sup>한 법력은 반도<sup>249)</sup>로 하여금 윤색(潤色)케 하였으니, 마치 맑은 물이 광명을 발하는 것과 같았다. 그 성스러운 공덕은 가히 지해(知解)로써 알지 못하며, 그 신비한 덕화(德化)는 가히 지식(知識)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大師, 心燈有焰, 定水無波, 智慧海融, 慈悲雲覆. 學佛悟禪之德行, 降魔鎮俗之威稜, 西遊顯顯之功, 東化巍巍之法, 遂使盤桃潤色, 若木生光. 其聖功也, 不可以知<sup>250)</sup>知, 其神化也, 不可以識識.

그러나 오히려 법신(法身)은 무상(無像)한 것이지만 반드시 모양을 말미암아 공덕을 나타내며, 도체(道體)는 말이 없는 세계이나 반드시 말을 인하여야 교리를 보여줄 수 있으니, 어찌 묘유(妙有)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진공(眞空)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sup>251)</sup> 여기 스님의 큰 제자인 양가승통(兩街僧統) 삼중대사<sup>252)</sup> 혼홍(昕弘) 등이 있으니, 그들은 법원(法苑)에서

246) 위릉(威稜): 『한서』「이광李廣」, “是以名聲暴於夷貊 威稜膺乎鄰國”의 주에서 “李奇曰 神靈之威曰稜”이라고 하였다.

247) 현현(顯顯): 혁혁(赫赫)하고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나타난 위대한 업적. 『시경詩經』「대아大雅」가락假樂, “假樂君子 顯顯令德”.

248) 외외(巍巍): 외외연(巍巍焉), 외외호(巍巍乎), 외외연(巍巍然) 등과 같은 뜻이니, 높고 큰 모양. 『논어』“子曰 巍巍乎 惟天爲大”.

249) 반도(盤桃): 천도(天桃)라고도 하는데, 신선들이 먹는다는 상상적인 복숭아로, 색깔이 우아하고 매우 아름다워 누구나 먹으면 수천년(數千年)을 살게 된다고 한다. 이 복숭아는 동해(東海)의 섬에 있으므로 해동(海東)을 가리킨다.

250) [總覽]에는 智. [全文]은 知이니 뜻으로는 知이다.

251) 개인묘유이험진공(蓋因妙有以驗眞空): 어찌 묘유를 인하지 아니하고 진공을 체험할 수 있으리오! 드러난 세계(緣起)가 실상(實相; 空)의 구현임을 가리킨다.

의 경종<sup>253)</sup>이며 선문(禪門)의 귀경(龜鏡)이다. 자비의 집에서 널리 중생을 구제하였던 옛 대덕(大德)스님들의 자취를 밟았으며,<sup>254)</sup> 법광(法光)의 햇불을 들어 중생의 혼구(昏衢)를 비추어 군생(群生)을 교화하였던 옛 고승(高僧)들의 남긴 빛을 이어받았다.<sup>255)</sup>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탄식하기를,<sup>256)</sup> “비록 은밀히 명심경구(銘心警句)를 설하였더라도 만약 위대한 기적(奇跡)을 돌에 새겨두지 않으면 어찌 일진(一眞)의 법을 표하여 그대로 완전하게 남아 있게 할 수 있겠는가!”<sup>257)</sup>하였다. 그리하여 대사의 행장을 모아 임금께 주달(奏達)하여 유부(幼婦)의 문사<sup>258)</sup>를 지어 우리스님의 덕업(德

252) 삼중대사(三重大師): 고려 초부터 소위 구산(九山)인 선종과 오교(五敎)인 교종에서 각각 법계고시(法階考試)를 거쳐 그 합격에 따라 선교종(禪敎宗) 모두 법계가 승진(昇進)되었으니, 교종과 선종의 법계는 다음과 같았다.

└선종법계:大選→大德→大師→重大師→三重大師→禪師→大禪師

└교종법계:大選→大德→大師→重大師→三重大師→首座→僧統

대선을 법계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 허홍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p.327.

253) 경종(鯨鐘): 경음(鯨音)과 같은 뜻. 불교사원에는 대종(大鐘)과 소종(小鐘)이 있다. 대종은 범종(梵鐘) 또는 경종(鯨鐘)이라 하는데, 이는 새벽종(曉鐘)·재사의례종(齋鐘)·저녁종(昏鐘)·취침을 알리는 종(開枕鐘) 등 일정한 시간에 치고, 소종은 승당(僧堂)·법당(法堂)에 있어서 각종(各種)의 행사 때 친다.

254) 종자현지왕철(鍾慈軒之往轍): 자비의 집에서 널리 중생을 구제하였던 옛 대덕(大德)스님들의 자취를 밟았다는 뜻. 「통진대사보운답비문」 주105)종자현지왕철 [고려편1] p.358 참조.

255) 계법거지여휘(繼法炬之餘輝): 법보(法寶)의 햇불을 들어 중생(衆生)의 혼구(昏衢)를 비추어 군생(群生)을 제도하였던 옛 고승들의 여휘를 이어받았다는 뜻. 「통진대사보운답비문」 주106)계법거지여휘 [고려편1] p.358 참조. 여기서는 법거(法炬)이고, 통진비(洞眞碑)에는 지거(智炬)이나, 뜻으로는 같다.

256) 위연(喟然): 위언(喟焉) 또는 위이(喟爾)라고도 하니, 탄식하는 모양. 한숨쉬는 것. 『논어』「자한」, “顏淵喟然歎”.

257) 하이표일진지법진가유(何以表一眞之法盡可有矣): 무엇으로써 일진의 법을 표하여 모두 그대로 남아 있게 할 수 있으리오!

258) 유부지문사(幼婦之文辭): ‘세련되고 아름답게 다듬어진 명문(名文)’이라는 말. ‘황

業)을 비석에 기록(記錄)할 수 있도록 간청하였다. 임금께서 “가하다” 하시고, 한림학사(翰林學士)인 신 김정언<sup>259)</sup>에게 명하기를, “고국사(故國師) 혜목대사(慧目大師)는 덕행(德行)은 높아 구름 위에 있고 복덕(福德)은 넓어 모든 인간을 윤택하게 하였으니, 그대는 마땅히 훌륭한 문장<sup>260)</sup>으로 국사의 공훈(功勳)을 적어 비석에 그 무성한 업적을 기록하도록 하라”고 하였다.<sup>261)</sup>

然，猶法身無像，必因像而宣功，道體無言，必因言而示教，盍因妙有，以驗真空。厥有大弟子，兩街僧統，<sup>262)</sup>三重大師，旰弘等，法苑鯨鍾，禪門龜鏡。踵慈軒<sup>263)</sup>之往轍，<sup>264)</sup>繼法矩之餘輝。喟然歎曰，“雖然秘說銘心，若不奇蹤刻石，則何<sup>265)</sup>以表一眞之法，盡可有矣。”於是，狀大師行，覬大君恩，請幼婦之文辭，

견유부의손제구(黃綱幼婦外孫釐臼)'에서 따온 말.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文」 주105)제구釐臼 본서 p.129; 「승복사비문崇福寺碑文」 주269)혹해팔자或解八字 [신라편] p.272; 「진공대사보법탑비문」 주111)제구釐臼 [고려편1] p.152 등 참조.

259) 김정언(金廷彦): 고려 문신(文臣). 한림학사 내봉령 참지정사 감수국사(翰林學士 內奉令 參知政事 監修國史)를 지냈고, 「통진대사보운탑비문」 주5)김정언金廷彦 [고려편1] p.349와 본비문주11)김정언金廷彦 p.238 등 참조.

260) 홍필(鴻筆): ①훌륭하고 뛰어난 문장(文章)을 짓는 일. 또는 뛰어난 문장력(文章力) ②대필(大筆) 또는 연대지필(椽大之筆)의 뜻. 『논어』「수송須頌」, “古之帝王建鴻德者 必須鴻筆之臣 褒頌紀載 鴻德乃彰 萬世乃聞 問說書者 欽明文思以下 誰所言也 曰 篇家也 篇家誰也 孔子也 然則孔子鴻筆之人也”.

261) 현비기무(玄碑紀茂): 현묘한 비석에 스님의 무성(茂盛)한 위적(偉跡)을 기록한다는 뜻이다.

262) [全文]에는 統. [總覽][拓本]의 統은 統의 오자임.

263) [總覽]에는 軒. [全文]의 井은 軒의 오자임.

264) [全文]에는 轍. [總覽][拓本]의 徹은 轍의 오자임.

265) [總覽]에는 何. [全文]의 嘆은 何의 오자임.



紀吾師之德業. 制曰, “可.” 乃命翰林學士, 臣, 金廷彦 曰,  
 “故國師慧目大師, 行高雲外,<sup>266)</sup> 福潤人間, 汝宜鴻筆書勳, 玄  
 碑紀茂.”

신이 명을 받으니 땀이 온 몸에서 흘러내렸다.<sup>267)</sup> 임금께 계수례배하고  
 여쭙기를,<sup>268)</sup> “신은 학식이 천박하여 어두운 밤에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착  
 각하듯,<sup>269)</sup> 스님의 고매하신 그 경계(境界)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으며, 또  
 한 허공에 실을 드리우면 분간하기 어려운 것과 같이,<sup>270)</sup> 스님의 자재무애  
 (自在無礙)하며 신묘불사의(神妙不思議)한 경지는 필설(筆說)로써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천근(淺近)한 마재(麼才)로써 스님의 현미(玄微)하고 빛나는  
 위대한 행적<sup>271)</sup>을 기록하려는 것이 마치 섬궁<sup>272)</sup>의 달을 잡으며, 여룡(驪龍)  
 의 턱 밑에 있는 여의주(如意珠)를 탐색하려는<sup>273)</sup> 것과 같은 것이라 하겠나

266) [總覽]에는 外, [全文]의 水는 外의 오자임.

267) 단한사잡(檀汗四匝): 汗은 땀 단字. 곧 땀이 온 몸 사방에 흘러내린다는 뜻이다.

268) 배계수왈(拜稽首曰): 절을 하고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말하되란 뜻. 계수란 범  
 어(梵語)의 반담(伴談) 또는 반담(槃談 ㉠ vandana)을 번역한 말. 혹은 반제(伴題  
 ㉠ vandi)라고도 한다. 『행종기(行宗記)』「상」에 “頭至地爲稽首”라 하였다.

269) 야승이혹(夜繩易惑): 「낭해화상백월보광탑비문」주161)야승이혹夜繩易惑 본서  
 p.137 참조.

270) 공루난분(空縷難分): 「낭해화상백월보광탑비문」주162)공루난분空縷難分 본서  
 p.137 참조.

271) 경행(景行): 빛나고 위대한 행적(行跡). 「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문」주208)경행  
 景行 [고려편1] p.38; 「통진대사보운탑비문」주199)경행 [고려편1] p.365 등 참  
 조.

272) 섬궁(蟾宮): 달의 다른 이름. 월궁(月宮), 옥혼(玉魂), 옥륜(玉輪), 옥경(玉鏡), 옥  
 토(玉兔) 등이라고도 한다. 원교(袁郊), 「월시(月詩), “嫦娥竊藥出人間 藏在蟾宮  
 不肯還”.

273) 여해탐주(驪海探珠): 탐려획주(探驪獲珠)와 같은 말. 여룡(驪龍)의 턱 밑에 있는

이다. 설사 푸른 하늘이 내려앉아 절구통 위에 걸쳐져 있는<sup>274)</sup> 때와, 푸른 바닷물이 줄고 줄어 옷을 벗지 아니하고 바지만 건어올리고도 능히 건널 수 있는<sup>275)</sup> 때가 다가올 때까지 스님의 큰 공적도 길이 남아<sup>276)</sup> 묘한 행적(行跡)이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며, 이로 인하여 감히 성덕(盛德)의 형용(形容)을 아름답게 하며 또한 장래 승사(僧史)에 도움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sup>277)</sup> 하였다. 거듭 그 뜻을 펴고자 드디어 명(銘)하여 이르기를,

臣，軒汗四匝。拜稽首曰，“臣夜繩易惑，空縷難分，以淺近之  
 麼<sup>278)</sup>才，紀玄微之景行。其猶蟾宮攬月，驪海探珠矣。設使蒼天  
 倚杵之時，碧海褰裳之際，所望玄功可久，妙蹟猶存，因敢美盛  
 德之形容，庶有補於將來僧史。”重宣其義，遂爲銘云，

크고도 위가 없는 무상(無上)한 묘각경지(妙覺境地),  
 높고 멀고 또 깊어 심심미묘(甚深微妙) 그 진종(眞宗).

여의주(如意珠)를 더듬어 그 구슬을 얻는다는 뜻. 여룡이란 검은 용의 일종(一種)이다. 『장자莊子』「열여구列禦寇」, “河上有家貧 恃緯蕭而食者 其子沒於淵 得千金之珠 其父謂其子曰 云云 千金之珠 必在九重之淵 而驪龍含下 子能得珠者 必遭其睡也”.

274) 창천의저(蒼天倚杵): 푸른 하늘이 내려앉아 절구통 위에 걸쳐져 있다는 말이니, 결코 그러한 때는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275) 벽해건상(碧海褰裳): 바닷물이 줄고 또 줄어 그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얇아져서 옷을 벗지 않고 그냥 바지를 건어올리고도 능히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바닷물이 거의 마른 상태를 가리킨다. 마침내 그런 시기는 올 수 없다는 말.

276) 현공가구(玄功可久): 현공이 가히 오래간다는 뜻이니, 현공이란 심오한 공적(功蹟)이다.

277) 서유보어장래승사(庶有補於將來僧史): 스님의 현공이 가히 오래 가고, 묘적(妙蹟)은 영원히 존재하리니, 감히 미성(美盛)과 성덕(盛德)의 형용(形容)으로 인하여 장래의 승사(僧史)에 큰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278) [總覽]에는 麼. [全文]의 魔은 麼의 오자임.

현(玄)하고 또 현하여 찾을 길 전혀 없고,<sup>279)</sup>

오로지 이심전심(以心傳心) 목격(目擊)으로 통합일 뿐.

大哉妙覺,

邈矣眞宗.

玄玄示化,

默默宣風.

진유(眞有)의 그 세계는 유(有)이지만 유 아니고,

진공(眞空)의 그 이치는 공(空)이지만 공 아니다.

처염상정(處染常淨) 연꽃처럼 물방울이 묻지 않고,<sup>280)</sup>

수많은 별들 중엔 둥근 달이 으뜸이듯.<sup>281)</sup>

眞有非有,

眞空不空.

蓮開水上,

月出星中.

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고,<sup>282)</sup>

인천(人天)이 바라보고 모두가 기뻐하네.<sup>283)</sup>

---

279) 현현시화(玄玄示化) : 개시교화(開示敎化)의 준말. 현현한 진리를 보여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

280) 연개수상(蓮開水上) : 연꽃이 물 위에 핀 것과 같다는 뜻이니, 위의 비문(碑文) 중 ‘心光如水上之蓮’ 구(句)를 명(銘)한 것이다.

281) 월출성중(月出星中) : 둥근 달이 중성(衆星) 중에 우뚝 나타난 것과 같다는 뜻이니, 위의 비문 중 ‘皎若星中之月’ 구를 명한 것.

282) 부솔견지(溥率見之) : 넓고 진솔하게 본다는 뜻이다.

283) 양지(仰止) : 우러러 머문다는 뜻이다.

생각을 집중하여 현하(玄河)를 바라보고,<sup>284)</sup>

지극한 신심(信心)으로 불리(佛理)를 탐구하다.

溥率見之,

人天仰止.

注意玄河,

歸心佛理.

적정(寂靜)한 선열미(禪悅味)로 무아(無我)에 몰입(沒入)하고,

법희(法喜)에 배가 불러 태평가(太平歌)를 불렀도다.

허다(許多)한 고승대덕(高僧大德) 그 누가 이러한가,

고달산(高達山) 원종대사(元宗大師) 그 분 밖에 또 있을까?

味之禪悅,

飫以法喜.

誰其有之,

唯我師矣.

울울창창(蔚蔚蒼蒼) 고송(高松)처럼 중중(衆中)에 우뚝하니,

사부대중(四部大衆) 존경함이 부처님과 다름없다.

이심전심(以心傳心) 그 경지(境地)는 삼매중(三昧中)의 삼매(三昧)일세,

이르는 그곳마다 광명(光明)이 두루하다.<sup>285)</sup>

---

284) 현하(玄河) : 현은 현묘(玄妙)하고 심오한 진리를 가리킨다. 하는 형용사이니, 마치 하수(河水)처럼 자연스런 무작위(無作爲)의 진리세계.

285) 항적휘광(抗跡輝光) : 스님의 행적(行跡)이 휘광과 대적한다는 뜻이니, 대사의 행적 그 하나 하나가 모두 빛나는 광명(光明)과 같이 혁혁하다는 말이다. 「통진 대사보운답비문」 주154) 연하항적烟霞抗跡 [고려편1] p.361(대정장10, p.1095c) 후 항적연하지표或抗跡烟霞之表 참조.

蔚爲將聖,  
欽若空王.  
傳心寂住,  
抗<sup>286)</sup>跡輝光.

조각배 집어타고 바다를 건너가서,<sup>287)</sup>  
뗏목은 버려두고堂堂(堂堂)히 참방(參訪)했다.<sup>288)</sup>  
가섭(迦葉)의 정법안장(正法眼藏) 소중히 전해받고,<sup>289)</sup>  
선법(禪法)을 받은 다음 부상(扶桑)에 돌아왔네.<sup>290)</sup>

乘杯泛泛,  
捨筏堂堂.  
去傳迦葉,  
來化扶桑.

불일(佛日)을 중흥코자 곳곳에 전파하니,  
법운(法雲)은 몽게몽게 천지(天地)를 뒤덮었네.<sup>291)</sup>

286) [總覽]에는 抗, [全文]의 抗은 抗의 오자임.

287) 승배범범(乘杯泛泛): 892년에 무역상의 선편(船便)으로 당나라에 들어감을 가리킨다.

288) 사별당당(捨筏堂堂): 중국에 가서 선지식을 두루 찾아보고 수행하였다는 뜻이다.

289) 거전가섭(去傳迦葉): 당나라에 가서는 가섭의 심인(心印), 즉 선종(禪宗)의 법안(法眼)을 전해받았다는 뜻이다.

290) 내화부상(來化扶桑):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부상, 즉 동국(東國)을 교화하였다는 뜻이다.

291) 법운비모(法雲丕冒): 법의 구름을 크게 덮는다는 뜻이니, 부처님의 법을 시공(時空)을 통하여 널리 편다는 말이다.

나라위해 임금과는 사자연(師資緣)을 맺었으니,<sup>292)</sup>

군신(君臣)은 한자리에 우연히 만났다네.

佛日再中,

法雲丕冒.

邦國師資,

君臣邂逅.

가료(可料)타 불이법문(不二法門) 선정(禪庭)에서 함께 하니,<sup>293)</sup>

우연히 만난 인연(因緣) 지혜로서 엮혔네.<sup>294)</sup>

계족산(雞足山) 중턱에선 조용히 비추지만,<sup>295)</sup>

스님의 그 모습은 언제쯤 다시 보리.<sup>296)</sup>

可料禪庭,

俄頃惠構.

鷄足潛輝,

龍頤曷邁.

---

292) 방국사자(邦國師資): 정종(定宗) 임금이 스님을 국사로 봉(封)하고 사자의 인연을 맺었다는 뜻이다.

293) 가료선정(可料禪庭): 대사의 문하에 제자가 쟁쟁할 뿐만 아니라, 선정에까지 가득차음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는 뜻이다.

294) 아경혜구(俄頃惠構): 회하(會下)에 있는 제자들이 모두 정혜(定惠)를 구축하였다는 뜻이다.

295) 계족잠휘(雞足潛輝): 가섭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의발(衣鉢)을 전해받은 다음 계족산(雞足山)에서 열반에 들었다는 데서 온 말이니, 대사의 입적을 가리킨다.

296) 용이갈구(龍頤曷邁): “스님의 얼굴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겠는가.”라는 뜻. 용이란 위대한 사람의 얼굴을 존칭하는 말이다.

개보 8년<sup>297)</sup> 용집<sup>298)</sup> 연헌<sup>299)</sup> 10월에 세우고,

이정순(李貞順)은 글자를 새기다.

開寶八年, 龍集淵獻,<sup>300)</sup> 十月日, 立,

刻字, 李貞順.

## 【이면裏面】

새긴 때 : 고려 경종 2년 정축 (977)

年代 : 高麗 景宗 二年 丁丑 (977)

건덕(乾德) 9년<sup>301)</sup> 세차(歲次) 신미(辛未) 10월 21일 원화전(元和殿)<sup>302)</sup>에서 대장경(大藏經)을 개독(開讀)할 때 황제폐하께서 조칙을 내려 이르기를, “국내의 사원(寺院) 중에 오직 삼처(三處)<sup>303)</sup>만은 전통을 지켜 문하(門下)의 제자들이 상속(相續)으로 주지하여 대대(代代)로 단절되지 않도록 할 것이니, 이 규정을 꼭 지키도록 하라.”<sup>304)</sup>고 하였다. 그 삼처란 이른바

297) 개보팔년(開寶八年): 개보는 송 태조 때의 연호. 개보 8년은 975년(光宗 26).

298) 용집(龍集): 기원(紀元) 또는 태세(太歲)라는 뜻.

299) 연헌(淵獻): 대연헌(大淵獻)이니, 고갑자(古甲子)의 지지(地支) 중 해(亥)이다. 『이아爾雅』「석천釋天」에 “太歲在亥曰大淵獻”이라 하였다. 개보 8년은 975년 을해(乙亥)이므로, 고갑자로는 旃蒙(乙) 大淵獻(亥)이라고 하여야 한다.

300) [總覽]에는 獻. [全文]의 默은 獻의 오자임.

301) 건덕9년(乾德九年): 건덕은 송 태조 때의 연호. 건덕 9년은 971년(光宗 22).

302) 원화전(元和殿): 광종 때 궁중의 한 건물이었다.

303) 삼처(三處): 삼처란 삼사(三寺)를 말하니, 여주 고달원, 문경 봉암사, 양주 도봉사를 가리킨다.

304) 공결양인(共結良因): 광종대왕과 원종대사가 사자인연(師資因緣)을 맺었다는 것이다.

고달원(高達院)·희양원(曦陽院)·도봉원(道峰院) 등이다. 주지(住持) 삼보(三寶)는 모름지기 국주(國主)의 힘을 의지하여야 하나니, 그 까닭인즉 석가여래께서 출세(出世)하사 이르시기를, “불법의 외호(外護)를 국왕과 대신들에게 부촉(附屬)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신이 이로써 우리 황제 폐하께서도 지극하신 정의(情誼)로 깊이 석문(釋門)의 묘리(妙理)를 경중(敬重)하시고, 함께 양인(良因)을 맺어 이 규칙이 영원히 유통(流通)되도록 하였다.

乾德九年，歲次辛未，十月，二十一日，於元和殿，開讀大藏經時，皇帝陛下，詔曰，國內寺院，唯有(三處)，只留不動，門下弟子，相續住持，代代不絕，以此爲矩，所謂高達院，曦陽院，道峯院，住持三寶，須憑國主之力，所以，釋迦如來出世道，佛法付囑國王大臣，是以我皇帝陛下，情深敬重，釋門妙理，共結良因，軌矩恒流。

문하제자인 도(道)·속(俗) 등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중대사	동광,
중대사	행근,
대사	전인,
대덕	금경,
삼중대사	훈선,
중대사	준해,
대덕	승연,
대덕	의광,
대덕	전상,
대덕	승앵,



화상      행희,  
 화상      행해,  
 화상      행위,  
 승총      계정,  
 대통      담홍,  
 대덕      행길 등, 오백여인.

門下弟子, 道俗等, 姓名, 如後.

重大師    同光,  
 重大師    幸近,  
 大師      傳印,  
 大德      金鏡,  
 三重大師 訓善,  
 重大師    俊解,  
 大德      勝演,  
 大德      義光,  
 大師      全狀,  
 大德      僧翬,<sup>305)</sup>  
 和尚      幸希,  
 和尚      幸海,  
 和尚      幸位,  
 僧摠<sup>306)</sup>    戒定,

305) 승앵(僧翬) : 전기는 다른 자료에 보이지 않는다. [全文]의 翬과 [總覽]의 翬은 모두 翬(밝을 앵)字의 오자임. 『육서략六書略』에 “翬明也 一曰 六合皆清明”이라 하였다.

306) 승총(僧摠) : 승통(僧統)과 같은 말이니, 승관(僧官)의 이름.

大統<sup>307)</sup>      談弘,  
大德      幸吉 等, 五百餘人.

삼강전.

원주승      효안,  
전좌승      행승,  
직세승      범원,  
유나승      행은,  
문하각자승      행언, 경연, 종능, 광규,  
탐명사      대상 신보,  
부사 좌윤      영허,  
송장사      정보, 신강,  
부사 좌윤      규강,  
재사 원윤      수영,  
녹승사      영순,  
수비사 경      규응,  
직무      헌규,  
장지필연관      진서 좌직학생 이홍렴.  
석장      잉을희.

三剛典.<sup>308)</sup>

307) 대통(大統): 승관의 이름.

308) 삼강전(三剛典): 삼강전(三綱典). 절에서 대종을 통솔하여 규칙을 유지하는 세 직책이니, ①상좌(上座)·사주(寺主)·도유나(都維那). 상좌란 비구(比丘) 중에서 덕망이 있는 이. 사주란 사찰 운영의 책임자. 도유나란 총림의 규칙에 따라 대중의 수도와 일상생활(日常生活)의 모든 일을 지도하는 이 ②상좌·유나(維那)·전좌(典座) ③우리나라 사원(寺院)에서는 주지(住持)·수승(首僧)·서기(書記) ④

院主僧	孝安.
典座僧	幸崇.
直歲僧	法元.
維那僧	幸溫.
門下刻字僧	幸言, 慶然, 宗能, 廣規.
塔名使 <sup>309)</sup>	太相 神輔,
副使, 佐尹	令虛,
送葬使 <sup>310)</sup>	正輔 信康,
副使, 佐尹	圭康,
齋使 <sup>311)</sup> 元尹 <sup>312)</sup>	守英,
祿僧史 <sup>313)</sup>	英順,
修碑使 <sup>314)</sup> 卿	圭凝,
直務 <sup>315)</sup>	憲規,

서기·승통·삼보(三甫) 서기·승통·삼보(典座) ⑥삼보·수승(首僧)·직사(直使, 海印寺 梵雲大師碑) ⑦삼보·서기·직사(直使, 海印寺 曇華大師碑) ⑧삼보·서기·직세(直歲) 등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 309) 탑명사(塔名使): 왕이 추증한 시호와 탑호(塔號)를 전달하고, 동시에 조탑공사(造塔工事)의 지휘를 맡은 사신(使臣).
- 310) 송장사(送葬使): 왕 대신 조문(弔問)을 위해 보내온 사신.
- 311) 재사(齋使): 장례비와 49재를 지낼 조의금(弔儀金)과 물품(物品)을 가지고 온 사신.
- 312) 원윤(元尹): 고려 초기 관계(官階) 중 제6품 10등급.
- 313) 녹승사(祿僧使): 부의금 접수, 조문객의 방명록(芳名錄) 등 장의에 대한 사적(史的) 기록을 담당한 소임(所任). 녹(祿)은 녹(錄)의 오자(誤字)인 듯하다.
- 314) 수비사(修碑使): 탑비건립(塔碑建立)에 대한 감독과 후원을 담당하려고 온 사신.
- 315) 직무(直務): 탑비건립에 대한 일절(一切) 사무(事務)를 맡은 직책.

掌持筆硯官<sup>316)</sup> 眞書<sup>317)</sup> 左直學生 李弘廉,  
石匠<sup>318)</sup> 仍乙希.

병인년에 비탑공사를 시작하여<sup>319)</sup> 정축년<sup>320)</sup>에 준공하였다.<sup>321)</sup>

始丙寅年, 郢工碑塔, 終至丁丑年, 功畢也.

원주승 효안,

전좌승 행승,

유나승 행온,

직세승 법원,

院主僧 孝安.

典座僧 幸崇.

維那僧 幸溫.

直歲<sup>322)</sup>僧 法圓.<sup>323)</sup>

316) 장지필연관(掌持筆硯官): 장지란 책임을 맡는다는 뜻이니, 비문(碑文)을 쓰는 등 일절 기록(記錄)을 맡은 관리(官吏).

317) 진서(眞書):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장례식을 거행하는 동안 도량(道場)과 화장장 주위에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 등 진언(眞言)의 범서(梵書)를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18) 석장(石匠): 탑의 조성을 맡은 석공(石工), 즉 도편수(都片手).

319) 시병인년(始丙寅年): 건탑공사(建塔工事)를 966년(광종 17, 丙寅)에 시작하였다는 말이다.

320) 종지정축년(終至丁丑年): 정축년(丁丑年)은 977년(경종 2)이니, 공사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준공되었다는 말이다.

321) 영공(郢工): 석장(石匠)과 같은 뜻이니, 탑비 조각 총책임자.

322) 직세(直歲): 한 번 맡으면 1년씩 봉직하여야 하는 소임(所任)이니, 토공(土工), 목공(木工), 와공(瓦工) 등 가장 힘들고 험한 일을 하는 책임.

[비신(碑身)의 높이(高)는 9척3촌(九尺三寸), 폭(幅)은 5척3촌(五尺三寸), 두께(厚)는 1척1촌(一尺一寸), 글자의 간격은 7분(七分)이며, 해서(楷書)이다. 제액(題額)의 글자 간격은 2촌(二寸)이며 전서(篆書)이다. 비신은 1916년에 무너졌다[倒壞].]

[揭載]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上, pp.207~215.

『한국금석전문韓國金石全文』中世 上, pp.391~401.

---

323) [全文] [總覽] 모두 앞쪽에서는 직세승(直歲僧) 법원(法元)이라 하고 여기서는 직세승(直歲僧) 법원(法圓)이라 하여 원(元)과 원(圓)이 음은 비록 같으나 글자를 혼돈하고 있으니, 어느 자(字)가 옳은지 불확실하다.





海美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文

【06.해미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비문】







## 06.해미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비문

海<sup>1)</sup>美<sup>2)</sup>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文

있는 곳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보원사지

세운 때 : 고려 경종 3년 무인 (978)

所在 : 忠清南道 瑞山市 雲山面 龍賢里 普願寺址

年代 : 高麗 景宗 3年 戊寅 (978)

가야산(迦耶山) 보원사<sup>3)</sup> 고국사(故國師) 제증시법인(制贈諡法印) 삼중  
대사(三重大師)의 비(碑)[제액]

迦耶山, 普願寺, 故國師, 制贈諡法印, 三重大師之碑. [題額]

- 1) [全文]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에는  
瑞이지만, [總覽]과 『조선금석고朝鮮金石攷』에는 海이다.
- 2) [全文]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금석서』에는 山이지만, [總覽]과 『조선금석  
고』에는 美이다.
- 3) 보원사(普願寺) : 충청남도(忠清南道) 서산시(瑞山市) 운산면(雲山面) 용현리(龍  
賢里)에 위치하였다. 이 보원사를 일명 강당사(講堂寺)라고도 일컬었던 것 같다.  
보원사지(址)의 인근 주민들이 지금도 강당사라고 칭할 뿐 아니라, 『대동금석  
서』에도 ‘講堂寺法印大師寶乘塔碑’라 하였으니, 아마 가람(伽藍) 중에 장려(壯  
麗)한 대표적인 건물이라 할 수 있는 강당(講堂)이 있었기 때문에 속칭 강당사  
라 일컬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법장화상전法藏和尚傳」  
에 의하면 의상(義湘)의 전교사(傳敎寺)인 화엄십찰(華嚴十刹) 중의 하나로써  
‘熊州迦耶峽普願寺’라 하였다.

고려국(高麗國) 운주<sup>4)</sup> 가야산<sup>5)</sup> 보원사(普願寺) 고국사(故國師) 제증시  
 법인(制贈諡法印) 삼중대사<sup>6)</sup> 보승탑비명(寶勝塔碑銘)과 아울러 서문(序文)  
 광록대부<sup>7)</sup> 태승<sup>8)</sup> 한림학사<sup>9)</sup> 전내봉령<sup>10)</sup> 신 김정언<sup>11)</sup>이 왕명을 받들어  
 짓고, 유림랑<sup>12)</sup> 사천대<sup>13)</sup> 박사<sup>14)</sup> 신 한윤<sup>15)</sup>이 제지를 받들어 비문과 전액을

- 
- 4) 운주(運州): 보원사가 위치한 지명(地名). 지금의 홍성(洪城)인 홍주(洪州)의 다  
 른 이름. 최치원의 「법장화상전」에는 웅주(熊州: 지금의 公州), [總覽]에는 운주  
 (運州: 지금의 洪城), 갈성말치(葛城末治)의 『조선금석고』에는 해미(海美: 지금의  
 서산군 해미면)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 5) 가야산(迦耶山): 최치원의 「법장화상전」에는 가야협(迦耶峽)이라 하고, [總覽]에  
 는 가야산이라 하였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19 「서산군瑞  
 山郡」 ‘불우佛宇’에는 “普願寺 在象山”이라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530  
 년(중종 25)에 선성군(宣成君)과 노사신(盧思愼) 등이 함께 지은 것이니, 이로 미  
 루어 본다면 1530년 이전에 이미 상왕산(象王山)으로 개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
- 6) 삼중대사(三重大師): 고려시대 스님들의 7품(品)의 법계(法階) 중 제5품위(第五  
 品位)를 삼중대사라 하니, 곧 대선(大選) → 대덕(大德) → 대사(大師) → 중대사  
 (重大師) → 삼중대사, 그 위로 교종(敎宗)은 수좌(首座) → 승통(僧統), 선종(禪  
 宗)은 선사(禪師) → 대선사(大禪師)라 하였다. 「정진대사원오탑비문靜眞大師圓  
 悟塔碑文」 주490)삼도가호三度加號 [고려편1] p.425.
- 7) 광록대부(光祿大夫): 「원종대사혜진탑비문」 주4)광록대부光祿大夫 본서(本書)  
 p.238 참조.
- 8) 태승(太丞): 「원종대사혜진탑비문」 주5)태승太丞 본서(本書) p.238 참조.
- 9) 한림학사(翰林學士): 「원종대사혜진탑비문」 주6)한림학사翰林學士 본서(本書)  
 p.238 참조.
- 10) 내봉령(內奉令): 「원종대사혜진탑비문」 주7)내봉령內奉令 본서(本書) p.238 참조.
- 11) 김정언(金廷彦): 「원종대사혜진탑비문」 주11)김정언金廷彦 본서(本書) p.238  
 참조.
- 12) 유림랑(儒林郎): 고려 초기의 문산계(文散階)로 정9품상(正九品上)에 해당한다.  
 「보조선사창성탑비문」 주8)유림랑儒林郎 본서(本書) p.56 참조.
- 13) 사천대(司天臺): 천문대(天文臺)를 담당한 관청. 천문대관 일관(日官)이 천문을  
 관측하는 높은 대(臺)이니, 예컨대 경주의 첨성대(瞻星臺)와 같은 것이다.
- 14) 사천대박사(司天臺博士): 영대랑(靈臺郎)이라고도 하니, 음양요(陰陽寮)에 소

쓰다.

高麗國，運州，迦耶山，普願寺，故國師，制贈諡法印，三重大師，寶乘之塔碑銘，并序.

光祿大夫，太丞，翰林學士，前內奉令，臣，金廷彥，奉制，撰.

儒林郎，司天臺博士，臣，韓允，奉制，書并篆額.

공손히 생각건대, 각제<sup>16)</sup>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의 사라나 무<sup>17)</sup> 사이에서 열반하신 후, 저군<sup>18)</sup>인 미륵보살이 용화회상(龍華會上)에서 불위(佛位)를 계승하기까지,<sup>19)</sup> 대대로 인자(仁者)가 있어 모두의 마음이 부처님과 같을지니, 불(佛)이란 깨달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를 스승삼아 의행(依行)하는<sup>20)</sup> 까닭에 불교가 증조<sup>21)</sup> 해우,<sup>22)</sup> 즉 동해의 한 쪽

속된 관리로써 일월성신(日月星辰)의 변태(變態)와 풍운기색(風雲氣色)의 이상(異狀) 등 십휘(十輝)에 대한 천문과 천기(天氣)를 관측하고 분석하는 일을 관장하는 일관(日官)이다. 동시에 천문생(天文生)들에게 천문을 가르키는 일도 겸임(兼任)하였다.

- 15) 한윤(韓允): 전기는 알 수 없으나, 구양순체(歐陽詢體)로 법인국사(法印國師)의 비문을 쓴 명필(名筆)이었다.
- 16) 각제(覺帝): 각황(覺皇) 또는 법왕(法王)과 같은 뜻이니, 부처님을 지칭한다.
- 17) 곽수승하(鶴樹昇遐): 부처님께서 곽수(鶴樹) 즉 학수(鶴樹)인 사라쌍수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다는 말이다. 「원종대사혜진탑비문」 주229)학수鶴樹 본서 p.271 참조.
- 18) 저군(儲君): 부군(副君)이란 뜻과 같으니, 석가의 정(正)·상(像)·말법(末法)의 교화가 끝난 다음에 강탄하실 용화회상(龍華會上)의 미륵 부처님을 가리킨다. 즉 다음의 부처님 또는 기다리고 있는 미래불(未來佛), 후보불(候補佛)이란 뜻이다.
- 19) 저군미륵용화사위지전(儲君彌勒龍華嗣位之前): ‘미래불(未來佛)인 미륵이 다스릴 세계 즉 용화회상(龍華會上)의 위(位)를 얻기 전’이라는 뜻이다.
- 20) 사이행지(師而行之): 그를 스승삼아 따라가면서 신행(信行)한다는 말이다.
- 21) 증조(蒸棗): 증조율택(蒸棗栗擇)의 준말이니, ①대추는 먼지가 쉽게 붙으므로

모퉁이에 있는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고 구습(舊習)을 고쳐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널리 반도산<sup>23)</sup> 지역으로 넓혀 혜일(慧日)을 도와 거듭 빛나게 하였으니, 즉 도(道)가 높은 존사(尊師)를 왕의 스승으로 삼고 덕(德)이 두터운 큰스님을 중생의 아버지로 삼았다. 석씨(釋氏)의 삼장(三藏)에는 육의<sup>24)</sup>가 있는데, 내(內)로는 계정혜(戒定慧)이니 선(禪)의 근본(根本)이고, 외(外)로는 경율론(經律論)이니 교(敎)의 본원(本源)이 되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를 모두 갖추신 분이 있으니 실로 대사(大師)가 그분이라 하겠다.

恭惟，覺帝釋迦，鵠樹昇遐之後，儲君彌勒，龍華嗣位之前，代有其仁，心同彼佛，佛者覺耶。師而行之故，使蒸棗<sup>25)</sup>棗<sup>26)</sup>隅，引玄津而更。廣蟠桃山側，撫慧日以重光，卽以道之尊，爲王者師，德之厚，爲衆生父。況乃釋氏三藏，有六義，<sup>27)</sup>內<sup>28)</sup>爲<sup>29)</sup>戒<sup>30)</sup>

져서 말린 다음 자주 닦아야 윤기가 나서 새것처럼 보이고, 밤은 벌레가 쉽게 생기므로 언제든지 자주 골라 내야만 한다는 뜻이니,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항상 불법(佛法)을 거울로 삼아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야时时勤拂拭한다는 말이다. ②천하(天下)를 다스린다는 말이니, 불교로써 국민을 교화한다는 뜻이다. 『의례儀禮』「특생례식례特牲饋食禮」에 “邊巾以絡也 纁裏棗烝栗擇”이라 하였고, 그 「주註」에 “棗曰新之 栗曰撰之 棗易有塵埃 恒治拭之使新 栗蟲好食 宜數數揀 撰省視之”라 하였다. 「통진대사보운답비문洞眞大師寶雲塔碑文」 주79) 증조蒸棗 [고려편1] p.356.

22) 해우(槩隅): 동해(東海)의 한 쪽 모퉁이, 곧 해동(海東)인 고려를 지칭한다. 「통진대사보운답비문」 주78) 해우 [고려편1] p.356.

23) 반도산(蟠桃山): 반도산(盤桃山)이라고도 한다. 「통진대사보운답비문」 주77) 반도산 [고려편1] p.356.

24) 육의(六義): 계(戒)·정(定)·혜(慧)·경(經)·율(律)·논(論).

25) [全文]은 결락이나 [苑] [總覽]에는 棗임.

26) [全文]은 결락이나 [苑] [總覽]에는 槩이고 槩는 海와 同字임.

2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義임.

定<sup>31)</sup>慧,<sup>32)</sup>禪之根也, 外爲經論律, 教之門也. 誰其全之, 實大師矣.

대사의 법호(法號)는 탄문(坦文), 자는 대오(大悟), 속성은 고씨(高氏), 광주(廣州) 고봉(高澆) 출신이다. 조척<sup>33)</sup>으로부터 덕(德)을 쌓음이 한량없으므로 공(功)을 이름에 넉넉함이 있었다. 일찍이 일동(一同)이 될 만한 장과(長果)를 지었으며,<sup>34)</sup> 삼이(三異)의 방부(芳父)를 나타내었다.<sup>35)</sup> 아버

28)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內임.

29)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爲임.

30)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戒임.

31)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定임.

32)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慧임.

33) 조척(祖陟): 시조로부터 내려오는 대대(代代)의 조상(祖上)을 가리킨다.

34) 증작일동지장과(曾作一同之長果): 일찍이 일동의 장과를 지었다는 말이니, 선조(先祖)들이 제후(諸侯)가 될 만한 복(福)을 지었다는 뜻이다. 일동이란 사방(四方) 100리의 지대를 가리키니, 『회남자淮南子』「본경훈本經訓」에 “古者天子一畿 諸侯一同 各守其分 不得相侵”이라 하고, 『좌전左傳』「양공襄公」25에는 “晉人曰 何故侵小 對曰 先王之命 惟罪所在 各致其辟 且昔天子之地一圻 列國一同 自是以衰 今大國多數圻矣 若無侵小 何以至焉”이라 하였다.

35) 창삼이지방부(彰三異之芳父): 삼이의 방부를 나타낸다는 말이다. 삼이란 세 가지의 기이(奇異)한 일을 뜻하는데, ①충불범경(蟲不犯境)이니, 해충 즉 명충(螟蟲)이 농경(農境)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 ②화급조수(化及鳥獸)이니, 사나운 새나 짐승이 그 사람이 있는 군계(郡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③수자유인심(豎子有仁心)이니, 어린 아이가 인자(仁慈)한 마음이 생겨 곁에 앉아 있는 꿩을 잡지 않고 그냥 귀여워하는 것 등이다. 『후한서後漢書』「노공魯恭」, “拜中牟令 恭惠以德化爲理 不任刑罰云云 建初七年(82) 郡國螟傷稼 犬牙緣界 疑其不實 使仁恕掾肥親往廉之 恭隨行阡陌 俱坐桑下 有雉過止其傍 傍有童兒 親曰 兒何不捕之 兒言 雉方將雛 親瞿然而起 與恭訣曰 所以來者 欲察君之政迹耳 今蟲不犯境 此一異也 化及鳥獸 此二異也 豎子有仁心 此三異也 久留徒擾賢者耳 還府 具以狀白安 是歲嘉禾生 恭便廷中 安因上書言狀 帝異之”.

지는 능히 화현<sup>36)</sup>을 꾸민 훌륭한 군수(郡守)였고, 난정<sup>37)</sup>에 태어난 빛나는 가문이었다. 드디어 가풍(家風)의 경사를 이어 받아 울창하게 읍장(邑長)의 존령(尊令)이 되었다. 어머니는 백씨(白氏)이니 오직 성선<sup>38)</sup>의 도를 닦아 훌륭한 [결락] 아들 낳기를 희망하였으며, 부도(婦道)를 받들어 행(行)하고 삼가하여 모의<sup>39)</sup>를 지켰다. 어느 날 밤 꿈<sup>40)</sup>에 한 범승(梵僧)이 나타나 금빛 나는 기이한 과일(奇菓)을 건네주었다. 그로 인해 임신하고 만삭이 되어 태어날 무렵에,<sup>41)</sup> 아버지 또한 꿈을 꾸었으니,<sup>42)</sup> 범당<sup>43)</sup>이 뜰 가운데 세워져 있거늘, 범패<sup>44)</sup>가 그 위에 걸려 있어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나부꼈고,<sup>45)</sup>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모인 것이 마치 둥근 담장과 같았다.<sup>46)</sup>

36) 화현(花縣): 현령(縣令)이 자기의 관할 지역에 꽃나무를 심어 화현을 만드는 것. 「원종대사혜진담비문」 주30) 화현 본서(本書) p.242 참조.

37) 난정(蘭庭): ‘뜰 앞에 난초를 심고 사는 고상한 선비’라는 뜻이다. 위탄(韋誕), 「경복전부景福殿賦」, “步雕輦以逍遙 時容與於蘭庭”.

38) 성선(聖善): 어머니의 존칭이니, 『시경詩經』 「패풍鄘風」 ‘개풍凱風’, “凱風自南 吹彼棘薪 母氏聖善 我無令人”. 『서언고사書言故事』 「부모류父母類」, “稱人母曰聖善”.

39) 신수모의(愼守母儀): 삼가하여 모의를 지킨다는 뜻이니, 모의란 현모양처(賢母良妻)의 우아한 태도를 말한다. 「원종대사혜진담비문」 주36) 모의부유母儀富有 (本書) p.243 참조.

40) 혼교(魂交): ‘잠자는 것 또는 꿈’이라는 뜻이다.

41) 탄미결월(誕彌厥月): ‘탄생할 날을 다 채운 바로 그 달에’라는 뜻이니, 곧 태어날 무렵을 말한다.

42) 신몽(申夢): 꿈을 꾀다는 뜻이다.

43) 범당(法幢): 묘법(妙法)을 높이 찬양함이 마치 높은 깃대와 같으므로 범당이라고 한다. 『무량수경無量壽經』 ‘상’(대정장37, p.96b~c), “建法幢 … 震法雷”.

44) 범패(梵施): 범서(梵書)로 오방번(五方幡)이나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 등을 쓴 깃발을 가리킨다.

45) 편번(翩翻): 깃발이 허공을 가르면서 나부끼는 것을 가리킨다. 장형(張衡), 「서경부西京賦」, “衆鳥翩翻 群獸馬舌駭”.

大師法號，坦文，字大悟，俗緣高氏，廣州高槩人也。祖陟，鍾德無疆，成功有裕。曾作一同之長果，彰三異之芳父。能花縣名家，蘭庭茂族。遂襲家風之慶，蔚爲邑長之尊。母白<sup>47)</sup>氏，唯修聖善之心，<sup>48)</sup>願<sup>49)</sup>得<sup>50)</sup>神<sup>51)</sup>通<sup>52)</sup>之<sup>53)</sup>子，奉行婦道，慎守母儀。魂交，覩一梵僧，授金色奇菓。因有娠，誕彌厥月，父亦申夢，法幢豎于中庭，梵旆掛其上，隨風搖曳，映日翩翻，衆人集其下，觀者如堵。

건녕 7년<sup>54)</sup> 용집<sup>55)</sup> 군탄년<sup>56)</sup> 8월 14일 새벽 동틀 무렵에 탄생하였다. 대사는 태어날 때, 태(胎)가 목을 감아 드리운 것이 마치 방포<sup>57)</sup>를 입은 것과 같았다. 기이한 골격을 받아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sup>58)</sup> 불상인 금상(金像)을 보면 마음을 경건히 하였으며, 상문<sup>59)</sup>인 스님을

46) 관자여도(觀者如堵): 기이한 범패(梵旆)를 구경하기 위하여 모여든 관객이 마치 담처럼 둘러 섰다는 뜻이다.

47) [苑] [全文]에는 田이고, [總覽]과 『조선금석고』[拓本]에는 白이다.

48)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心임.

49)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願임.

50)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得임.

51)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神임.

52)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通임.

53)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之임.

54) 건영칠년(乾寧七年): 건영은 당(唐) 소종(昭宗) 때의 연호이나, 4년 동안 사용된 후 광화(光化)로 연호가 바뀌었다. 즉 건영 7년은 존재하지 않으며, 건영 7년에 해당되는 해는 광화 3년이다. 신라 효공왕(孝恭王) 4년(900)에 해당한다.

55) 용집(龍集): 태세(太歲) 또는 기원(紀元)이라는 뜻이다.

56) 군탄(涓灘): 건녕 7년(900)이 경신년(庚申年)이니, 고갑자(古甲子)의 경우 경(庚)은 상장(上章), 신(申)은 군탄(涓灘)이다. 여기에는 상장이 탈락되었다.

57) 방포(方袍): 사각모양의 가사(袈裟)를 지칭한다.

대하여는 반드시 합장하였으니, 그 근기(根機)가 자못 성숙함을 볼 수 있었다. 선근(善根)의 싹이 전세(前世)에 이미 자랐으므로 5살 때 벌써 출가하려는 마음이 돈독하여 뜻은 세간진로(世間塵勞)를 여의는데 있었으니 자취를 치문(緇門)에 의탁하고 마음을 금계<sup>60)</sup>에 의거할 것을 발원(發願)하였다.

乾寧七年，龍集涪灘，秋八月，十四日，天欲曙，誕生。大師，其胎遶頸而垂，如着方袍。生有奇骨，<sup>61)</sup> 弱<sup>62)</sup> 無<sup>63)</sup> 放<sup>64)</sup> 言，<sup>65)</sup> 觀<sup>66)</sup> 金像以虔心，對桑門而合掌，有以見其根殆熟。善芽尚早，年甫五歲，情敦出俗，志在離塵，願託跡於緇門，即寄心於金界。

그리하여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먼저 여쭙었더니, 어머니는 전일(前日)의 태몽을 생각하고는 울면서 허락하였으니,<sup>67)</sup> “내생(來生)에는 나를

58) 약무방언(弱無放言) : 약년(弱年)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59) 상문(桑門) : ①śramaṇa, 사문(沙門), 상문(喪門), 사문나(沙門那), 사라마나(舍囉摩拏) 등으로 음역되고, 식심(息心), 공로(功勞), 근식(勤息) 등으로 번역된다. 부지런히 닦고 악행(惡行)은 먼저 여윈 사람이란 뜻이니, 외도(外道)와 불도(佛徒)를 막론하고 출가수도하는 이의 총칭이다.

60) 금계(金界) : 금빛세계, 금강계(金剛界) 또는 금으로 바꾼 세계이니, 사찰을 지칭한다. 기원정사(祇園精舍 ⑤Jetavana-vihāra)를 짓기 위해 금고독장자(給孤獨長者 ⑤Anāthapiṇḍada)가 기타태자(祇陀太子 ⑤Jeta)의 소유인 공원(公園)을 매입할 때, 그 대금으로 땅에 흙이 보이지 않도록 금(金)을 깔아서 구입한 데서 온 말이다.

61)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骨임.

62)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弱임.

63)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無임.

64)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放임.

65)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言임.

66)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觀임.



제도해 줄 것을 원할 뿐 다시는 문(門)에 기대어 자식(子息)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sup>68)</sup>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어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니 흔쾌하게 허락하였다. 스님은 곧 삭발하고는 부모에게 하직하였으며, 마음을 닦아 성불(成佛)하고자 결심하여 향성산(鄕城山) 대사(大寺)의 대덕화상(大德和尚)을 찾아가 뵈었다. 화상이 스님을 보니 봉모<sup>69)</sup> 기상(奇相)이며 나계(螺髻)를 지닌 특수한 자태<sup>70)</sup>를 가졌으므로 경탄하여 말하기를, “바야흐로 동치<sup>71)</sup>의 나이에 해당하건만 이미 노성(老成)의 덕을 갖추었구나! 자네와 같은 자<sup>72)</sup>가 나를 스승으로 삼으면 이는 마치 수주대토<sup>73)</sup>

67) 읍왈예(泣曰語): 울면서 말씀하되 “허락한다”라고 하였다. 訥는 應 또는 應과 같은 뜻이다.

68) 의문지념(倚門之念): 대문에 기대어 서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말한다. 『전국책戰國策』「제책齊策」, “王孫賈年十五 事閔王 王出走 失王之處 其母曰 女朝出而晚來 則吾倚門而望 女暮出而不還 則吾倚閭而望”. 『진공대사보법탑비문眞空大師普法塔碑文』 주97)의문지망依門之望 [고려편 1] p.99.

69) 봉모(鳳毛): 봉황의 털. ①아들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못지 않는 소질(素質)을 지니고 있다는 말 ②풍채(風采)와 기백(氣魄)이 빼어남 ③문재(文才)가 뛰어난 사람을 지칭함, 즉 선비의 상(相).

70) 나계수자(螺髻殊姿): 나계(螺髻)는 부처님의 특상(特相)인 32상(相) 80종호(好) 중의 한 모양으로서 소라모양의 머리다발.

71) 동치(童稚): 아이, 어린이, 동유(童幼), 동아(童兒) 등과 같은 뜻이다.

72) 여자자(如子者): 자(子)는 남자(男子)의 미칭(美稱)으로 당신, 어른신네 등의 뜻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자네 또는 그대라는 하칭(下稱)이다. 곧 ‘그대와 같이 영특한 자’라는 말이다.

73) 수주대토(守株待兔): 토끼가 달아나다가 걸려 죽은 나무 그루터기에 다시 토끼가 걸려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니, 구풍(舊風)에 얽매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비자韓非子』「오두五蠹」, “宋人有耕田 田中有株 兔走觸株 折頸而死 因釋其耒而守株 冀復得兔 兔不可復得 而身爲宋國笑”.

하고 연목구어<sup>74)</sup>하는 것과 같다. 나는 네 스승이 될 자격이 없으니 마땅히 다른 큰스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先白母, 母念疇昔之夢, 泣曰訖, “願度來世, 吾不復撓倚門之念也.” 已後謁父, 父喜曰, “善.” 卽以落髮<sup>75)</sup>辭親, 脩心學佛, 去謁鄉山大<sup>76)</sup>寺<sup>77)</sup>大<sup>78)</sup>德<sup>79)</sup>和<sup>80)</sup>尚. 和尚見大師, 鳳毛奇相, 螺髻殊姿, 因謂曰, “方當童稚之年, 旣飽老成之德. 如子者, 以吾爲師, 是猶守株待兔, 緣木求魚. 吾非汝師, 可往勝處.”

대사가 ‘스님 중에 참된 선지식<sup>81)</sup>과 오래된 사적(事跡)을 빼놓지 않고 반드시 심방<sup>82)</sup>하리라.’ 하고, 떠나려 인사를 드리는데, 대덕화상이 말씀하기를, “옛 노인들 사이에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향성산 안에 절 터가 있는데 옛날 원효보살(元曉菩薩)과 의상대덕(義相大德)이 함께 머무르며 쉬던

74) 연목구어(緣木求魚): 연목구어 대산채주(緣木求魚 代山採株)의 준말. 물고기가 나무 막대기 위에 걸려 들기를 원한다는 뜻이니,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에 욕심을 내는 것에 비유한 말이다. 연은 인(因)의 뜻이다. 『맹자孟子』「양혜왕梁惠王」‘상’ “以若所爲 求若所欲 猶緣木而求魚也”.

75) [苑]의 髮과 [全文] [總覽]의 髮은 모두 髮과 同字임.

76)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大임.

7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寺임.

78)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大임.

79)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德임.

80)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和임.

81) 승지진자필방(僧之眞者必訪): 고승(高僧)과 진승(眞僧)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반드시 참방하였다는 뜻이다. 「통진대사보운답비문」 주80)승지진자필예(僧之眞者必詣 [고려편1] p.356.

82) 적지고자필심(跡之古者必尋): 고적(古蹟)과 승지(勝地)는 반드시 답사하였다는 뜻이다. 「통진대사보운답비문」 주81)경지절자필수(境之絶者必搜 [고려편1] p.356.

곳이라 한다.”하였다. 대사가 ‘이미 성적(聖跡)에 대하여 들었으니 내 어찌 그곳 현기<sup>82)</sup>에 나아가서 수도하지 않으랴.’하고, 마침내 그 구허(舊墟)에 풀집<sup>84)</sup>을 짓고, 원숭이 같은 마음은 우리 속에 가두어 놓고, 고삐없는 말과 다름없는 의식은 말뚝에 붙잡아 매어 놓고 있으니, 여기에 발길을 멈추고 마음을 가지런히 하여 수년을 지냈다. 당시 부근 사람들이 거룩한 사미(聖沙彌)라고 일컬었다.

大師，方欲‘僧之眞者必訪，跡之古者必尋.’會歸觀日，<sup>85)</sup>“古老相傳，鄉城山內，有佛寺之墟，昔元曉菩薩，義<sup>86)</sup>想<sup>87)</sup>大<sup>88)</sup>德<sup>89)</sup>俱<sup>90)</sup>曆<sup>91)</sup>居所憩。”大師，‘旣聞斯聖跡，盍詣彼玄基以習善.’遂芟于其舊墟，檻心猿，抑<sup>92)</sup>意馬，于以休足，于以齋心，經歷數年。時號之聖沙彌。

대사가 이에 ‘신엄대덕(信嚴大德)이 장의사<sup>93)</sup>에 주석하면서 잡화경<sup>94)</sup>을

83) 현기(玄基) : 수도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곳. 승지(勝地) 또는 명당(明堂)을 가리킨다.

84) 발(芟) : ‘풀밭에서 노숙하다’의 뜻이다.

85) [苑] [全文]에는 日. [總覽]의 日은 日의 오자임.

86)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義임.

8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想임.

88)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大임.

89)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德임.

90)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俱임.

91) [總覽]은 결락, [苑] [全文]은 歷. 歷은 曆과 同意字임.

92) [總覽]에는 抑. [苑]에는 抑. [全文]에는 柳. 抑과 柳는 柳의 오자임.

93) 장의사(莊義寺) : 장의사(莊義寺)라고도 한다. 경기도 양주(楊州)에 있었던 절이다.

94) 잡화(雜華) : 잡화경(雜華經)으로 『화엄경華嚴經』의 다른 이름.

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명공(名公)의 제자가 되어 진불(眞佛)의 법손(法孫)이 되기를 위하여 곧 그곳으로 찾아갔다. 겨우 시봉(侍奉)을 맡자마자 곧 바로 화엄경(華嚴經)을 수학하며 독송하였다. 스님은 1권을 하루에 다 외우면서도 조금도 혈유(遺)함이 없었다.<sup>95)</sup> 엄공(嚴公)이 법기(法器)라 여겨 크게 기꺼워 하면서 말하기를, “옛 스님<sup>96)</sup>이 이르기를, ‘각현(覺賢)이 하루에 외우는 분량은 30명의 분량과 맞먹었다.’고 하였으니,<sup>97)</sup> 뒤에 출발하여 먼저 이른다는 말<sup>98)</sup>이 장차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과연 그런 사실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정성껏 스님을 시봉하며<sup>99)</sup> 공부하여<sup>100)</sup> 그 진취(進趣)가 날마다 향상하였다. 용수<sup>101)</sup>가 사람을 교화하였다는 설화(說話)를 곧 마음으로 실감하였으며, 부처님<sup>102)</sup>께서 도를 논구(論

95) 무혈유(無遺): 남음이 없이 다하였다는 뜻이다.

96) 고사(古師): 각현삼장(覺賢三藏)인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 ㉮Buddhabhadra)의 종조부(從祖父)인 구파리존자(鳩婆利尊者)이다.

97) 현일일적삼십부(賢一日敵三十夫): 각현(覺賢)은 천재(天才)로서 다른 사람이 30일 외울 것을 하루에 외웠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가 사미 시절인 17살 때 동학(同學) 수인(數人)과 함께 경(經)을 습송(習誦)하는데, 다른 사람은 한 달이 걸려야 외울 수 있는 양을 각현은 하루에 송필(誦畢)하였다. 이를 본 그의 선생인 구파리(鳩婆利)는 감탄하여 “각현은 30명의 몫을 하루에 외워 마쳤다.”고 하였다. 『고승전高僧傳』권2「불타발타라」(대정장50, p.334c), “覺賢 度爲沙彌 至年十七 與同學數人 俱以習誦爲業 衆皆一月 賢一日誦畢 其師歎曰 賢一日敵三十夫也”.

98) 후발전지(後發前至): 뒤에 출발하였으나 먼저 도착한다는 뜻으로, 후배가 선배를 제치고 앞지른다는 말이다.

99) 권권복옹(拳拳服膺): 권권은 정성껏 봉지(奉持)하는 태도, 복옹은 심복(心服)하여 마음으로 깊이 신봉(信奉)하는 자세. 『예기』「중용中庸」, “得一善則拳拳服膺而弗失之矣”.

100) 사일(師逸): 스승 밑에서 일과를 같이하며 공부하는 것을 뜻한다.

101) 용수(龍樹): 용수보살(龍樹菩薩 ㉮Nāgārjuna)을 가리킨다.

102) 불화(佛華): 불(佛)의 꽃, 곧 부처님을 지칭한다.

迷)하신 이야기를 어찌 눈으로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는가. 비록 그와 같이 묘각(妙覺)하였지만 오히려 율의(律儀)에 치중하였다.

大師，迺聞，‘信嚴大德，住莊<sup>103)</sup>義山寺，說雜華者。’希作名公之弟子，願爲眞佛之法孫，特詣蓮扉。財執巾盥，<sup>104)</sup>乃嘗讀以雜華經，一卷<sup>105)</sup>一日誦無孑遺。嚴公器之，大喜曰，“古師所謂，‘賢一日，敵三十夫’，後發前至，將非是歟，果驗。”拳拳服膺，師逸功倍。龍樹化人之說，卽得心傳，佛華論道之譚，何勞目語。雖然妙覺，猶有律儀。

15세 때 드디어 장의산사(莊義山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게 되었다. 초율사(初律師)가 꿈에 한 신승(神僧)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새로 수계(受戒)하려는 사미(沙彌) 중에 ‘문(文)’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sup>106)</sup>가 있을텐데, 유독이 이 사미는 비상한 사람이다. 그는 법에 있어 화엄경의 대기(大器)이니, 어찌 몸을 수고롭게 하여 수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꿈에서 깨어 수계자의 명단을 찾아보니<sup>107)</sup> 대사의 이름이 바로 탄문(坦文)으로 문자(文字)가 바로 그것이다. 율사(律師)가 기이하게 여겨 앞에 꿈을 꾸 이야기를 하며 말하기를, “신인이 이미 경계하였으니 그렇다면 구족계를 품수(稟受)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年十五，遂受具於莊<sup>108)</sup>義山寺。初律師夢一神僧，謂之曰，“其

103) [總覽]에는 莊. [苑] [全文]의 莊은 莊의 속자임.

104) [總覽]에는 盥. [苑] [全文]의 盥은 盥의 오자임.

105) [苑] [全文]에는 卷. [總覽]의 行은 卷의 오자임.

106) 사미명문(沙彌名文): 문(文)은 법인국사의 사미 때 이름인 탄문(坦文)의 끝자를 말한다.

107) 각추지(覺推之): 초율사(初律師)가 꿈을 깨고서 문(文)자 이름을 가진 수계명단을 찾아 보았더니 바로 그가 법인국사인 탄문이었다.

有新受戒沙彌名文者，唯此沙彌，非常之人，於其法，花嚴大器，何必勞身受戒。”覺推之，迺大師名是也。律師奇之，乃說前夢，因謂曰，“神人警戒，其然何須稟具。”

대사가 말하기를, “저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닌데, 어찌 한 번 수계하려고 먹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sup>109)</sup> 원하옵건대 불타(佛陀)의 법손<sup>110)</sup>이 되려면 마땅히 보살계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계(戒)의 향기, 즉 계를 드디어 받고 나니,<sup>111)</sup> 행(行)의 잎, 즉 실천이 더욱 아름다웠다.<sup>112)</sup>

大師迺言曰, “我心匪石, 其退轉乎, 願言佛陀孫, 合受菩薩戒,” 戒香遂受, 行業彌芳.

이로 말미암아 구고<sup>113)</sup>까지 소리가 들리고 천리까지 응하였다. 그러므로 태조는 대사가 치문(縑門)의 발화(拔華)이고 각수(覺樹)의 혜가(慧柯)이므로 칙제(勅制)를 내려 이르기를, “이미 유년에 기이함을 보여 호를 성

108) [總覽]에는 莊. [施] [全文]의 疰은 莊의 속자임.

109) 아심비석 기퇴전호(我心匪石 其退轉乎): 내 마음이 돌이 아니니 어찌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곧 한번 수계(受戒)하려고 먹은 마음 그만 둘 수 없다는 뜻이다. 『시경』 「국풍國風」 「패풍邶風」, “我心匪石 不可轉也”.

110) 원언불타손(願言佛陀孫):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법손(法孫)이 되려고 합니다.”라는 뜻이다.

111) 계향수수(戒香遂受): 드디어 계향, 즉 계(戒)를 받은 다음.

112) 행엽미방(行業彌芳): 계를 굳게 지키는 것을 행엽이라고 하니, 그 결과가 더욱 빛나고 아름답다는 말이다.

113) 구고(九臯): 수택(水澤)의 으스스하고 깊은 곳. 깊고 먼 곳을 비유하는 말로, 몸은 비록 은둔하고 있으나 이름은 더욱 세상(世上)에 드러난다는 뜻이다. 『시경』 「소아小雅」 「학명鶴鳴」, “鶴鳴于九臯 聲聞于野”.

사미라 하였으니, 금일(今日)에는 그 신기함을 나타내어 별화상(別和尚)이라 일컫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이름을 감추지만 이름이 나를 따라 나타나고, 칭성(稱聲)을 피하지만 그 칭성이 나를 따라 더욱 퍼진다는 말이다.

由是，聲九臯應千里。故乃太祖，聞<sup>114)</sup>大師，緇林拔萃，覺樹慧柯，制曰，“旣幼年之表異，號聖沙彌，宜今日之標奇，稱別和尚。”是謂逃名，名我隨，避聲，聲我迫者也。

용덕 원년<sup>115)</sup>에 해회<sup>116)</sup>를 설치하여 승과(僧科)로 치도(緇徒)를 선발하였다. 이 때에도 왕이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장의사(莊義寺)에 별화상이 있는데 어찌 스님을 제쳐놓고 따로 뽑을 필요가 있겠는가.”하고 바야흐로 스님을 명승(名僧)으로 정하고 발탁(拔擢)하여 문법(問法)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맹주(盟主)로 삼았으니,<sup>117)</sup> 비유컨대 대종(大鐘)을 치자 웅웅하면서<sup>118)</sup> 크게 울리는 것과 같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동광기력 병술<sup>119)</sup>

114) [苑] [全文]에는 聞, [總覽]에는 師는 聞의 오자임.

115) 용덕원년(龍德元年): 용덕은 후량(後梁) 말제(末帝) 때의 연호. 용덕 원년은 신라 경명왕 5년(921).

116) 해회(海會): 중해운집(衆海雲集)의 무차대회(無遮大會).

117) 수탁위문자(遂擢爲問者): 용덕 1년(921)에 해회를 설치하고 치도(緇徒) 중에 고승대덕을 선발할 때, 장의사(莊義寺) 별화상(別和尚)이 발탁되었다. ‘문법(問法)하는 자를 위하여 드디어 맹주로 추천되어’라는 뜻이다.

118) 대명웅웅(大鳴春容): 대종(大鐘)을 크게 울려 종소리가 웅웅 울려 퍼지는 모양. 『예기』 「학기學記」에 “待其從容”이라 하고, 그 「소疏」에 “言鐘之爲體 必待其擊每一春而爲容 然後盡其聲 言善答者 亦待其一問 然後一答”이라 하였다. 즉 웅대하고 설법(說法)함에 막힘이 없이 활달자재(豁達自在)함을 말한다.

119) 동광기력병술(同光紀曆丙戌): 동광은 후당(後唐) 장종(莊宗)의 연호로 3년(923~925)까지만 있는데, 병술(丙戌)은 926년이니, 후당 명종(明宗)의 천성원년(天成元年)에 해당된다. 기력(紀曆)이란 세력(歲歷)을 기록한다는 뜻으로 기원

년<sup>120)</sup> 겨울 10월에 태조의 후궁인 신명순성왕태후 유씨<sup>121)</sup>가 임신을 기하여 좋은 태몽을 꾸었으므로 그 일편단심(一片丹心)을 바쳐<sup>122)</sup> 옥처럼 부유하고(玉裕) 아름다운 자태의 아기(英姿) 낳기를 발원하고는 드디어 대사를 청하여 법력을 빌도록 하였다. 이에 금향로에 향을 피우고 독경하면서 웅비(熊羆)의 길몽<sup>123)</sup>으로 달산(牽產)과 같이 순산하도록<sup>124)</sup> 기원하였다. 그러한 공덕으로 과연 일각(日角)을 가진 기자<sup>125)</sup>와 천안(天顏)과 같은 이 상<sup>126)</sup>을 가진 태자를 낳았다.

(紀元)에서부터 연수(年數)를 계산하여 기록하는 것. 도잠(陶潛), 「도화원기桃花源記」, “雖無紀曆誌 四時自成歲”.

- 120) 병술사년(丙戌司年): ‘태세(太歲)가 병술을 맡은 해’라는 뜻으로, 세차(歲次)와 같다.
- 121) 유왕후(劉王后): 고려 태조의 후궁(后宮)인 신명순성왕태후유씨(神明順聖王太后劉氏)로 제4대 광종·정종의 어머니이다. 『고려사高麗史』권2「세가世家」2「정종定宗」.
- 122) 조심지단(棗心之丹): 대추의 붉은 빛과 같은 일편단심(一片丹心)의 정성을 가리킨다.
- 123) 유웅지길(維熊之吉): 웅비입몽(熊羆入夢)이라고도 한다. 웅비는 산에 사는 짐승으로 양(陽)의 상서(祥瑞)를 지녔다고 생각되어, 태몽에 웅비꿈을 꾸면 아들을 낳는 상서로 전해온다. 『시경』「소아」‘사간斯干’, “吉夢維何 維熊維羆 維虺維蛇 大人占之 維熊維羆 男子之祥 維虺維蛇 女子之祥”. 그 「전箋」에 “大人占之 謂以聖人占夢之法 占之也 熊羆在山 陽之祥也 故生男 虺蛇穴處 陰之祥也 故爲生女也”라 하였고, 또 『좌전』「소공昭公」7에는 “今夢黃熊 入於寢門”이라 하였다.
- 124) 여달지탄생(如牽之誕生): 양[牽]이 해산할 때 난산(難產)없이 새끼를 낳듯, 순산(順產)하게 하여 달라는 뜻이다.
- 125) 일각기자(日角奇姿): 일각의 상(相)을 가진 훌륭한 관상. 일각이란 이마 중앙의 뼈가 마치 일형(日形)처럼 튀어나온 것으로 귀인상(貴人相)을 뜻한다. 『후한서後漢書』「광무기光武紀」에 “隆準日角”이라 하고, 그 「주註」에 “日角 謂中庭骨起狀如日”이라 하였다. 『남사南史』「양무기梁武紀」, “生而有異光 狀貌奇特 日角龍顏 帝王之表 河目龜文 公侯之相 額有龍犀入髮 左角日 右角日 王天下也”. 불타(佛陀)의 32상 중 미간백호상(眉間白毫相)에 비견할 수 있다.



龍德元年, 置海會, 選緇徒. 制曰, “莊<sup>127)</sup>義別和尚, 何必更爲居士,” 方作名僧, 遂擢爲問者, 譬如撞鐘, 大鳴春容. 於是乎, 在同光紀曆<sup>128)</sup>丙戌司<sup>129)</sup>年冬十月, 太祖, 以劉王后, 因有娠得殊夢, 爲其賴棗心之丹, 願誕玉裕之英姿, 遂請大師, 祈法力. 於是, 香焚金爐, 經開玉軸, 願維熊之吉夢, 叶如牽之誕生, 果驗日角奇姿, 天顏異相.

단정히 학금<sup>130)</sup>에 거하여 홍도<sup>131)</sup>를 이어받아 수호하였으니 그가 바로 대성대왕<sup>132)</sup>이다. 실로 대사는 부처님을 터득한 마음이 깊고 하늘을 받드는 힘이 돈후(頓厚)<sup>133)</sup>하였으니, 묘감(妙感)은 후세에 넉넉히 끼쳤으며, 현공(玄功)은 왕의 밝은 덕(德)을 이어가게 하였다.<sup>134)</sup> 그러므로 태조가 심히

126) 천안이상(天顏異相): 천안이란 천자(天子)의 얼굴로, 어안(御顏) 또는 용안(龍顏)이라고도 한다. 마치 천자의 얼굴과 같은 특이한 상을 타고 났다는 말이다.

127) [總覽]에는 莊. [苑] [全文]의 莊은 莊의 속자임.

128) [總覽]에는 曆. [苑] [全文]의 曆은 曆과 同意字임.

129)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司임.

130) 학금(鶴禁): 황태자(皇太子)의 궁궐을 일컫는다. 백학(白鶴)은 태자가 머무는 곳으로, 범인(凡人)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기에 학금이라고 한다. 이덕유(李德裕), 「술몽시述夢詩」, “椅梧連鶴禁 堦堦接龍輅”.

131) 홍도(鴻圖): 비도(丕圖), 대계(大計), 유모(猷謨), 홍유(鴻猷) 등과 같은 뜻으로, 황제가 다스릴 나라의 광대(廣大)한 판도(版圖)를 말한다. 고증(賈曾), 「효여제 만가孝如帝輓歌」, “新命千齡啓 鴻圖累廟餘”.

132) 대성대왕(大成大王): 고려 제4대 광종대왕(光宗大王)의 시호(諡號). 능호(陵號)는 헌릉(憲陵)이다.

133) 묘감기사어수유(妙感祈禪於垂裕): 신묘한 감응을 넉넉히 끼쳐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뜻이고, 수유는 도덕이 후세까지 넉넉히 드리운다는 뜻이다. 『서경書經』 “王懋昭大德 建中于民 以義制事 以禮制心 垂裕後昆”.

134) 현공천지어계명(玄功薦祉於繼明): 그윽한 공덕은 대를 이어 계명에 복되게 한

가상히 여겨<sup>135)</sup> 조칙을 보내어 노고(勞苦)에 우대하였다.<sup>136)</sup>

有以見端居鶴禁，嗣守鴻圖，是大成王也。實，大師，得<sup>137)</sup>佛  
心<sup>138)</sup>深，奉天力厚，妙感，祈禱於垂裕，玄功，薦祉於繼明矣。  
太祖，甚恕之，飛手詔優勞。

그 후 구룡산사(九龍山寺)로 옮겨 화엄경을 강설하였는데, 많은 새들이  
방 앞에 둘러 있고 호랑이<sup>139)</sup>가 뜰 밑에 엎드려 있었다. 문인들이 모두 떨  
면서 두려워하였으나,<sup>140)</sup> 대사는 편안한 얼굴로 침착하게 이르기를, “너희  
들은 조용히 하라.<sup>141)</sup> 이 진귀(珍貴)한 새와 기이(奇異)한 짐승들<sup>142)</sup>은 불  
법승(佛法僧) 삼보(三寶)에 귀의하려는<sup>143)</sup>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다  
음 해 봄<sup>144)</sup> 대사의 행(行)은 초계비구(草繫比丘)<sup>145)</sup>의 마음을 닦았고<sup>146)</sup> 덕

다는 뜻이니, 계명이란 임금의 명덕(明德)을 이어간다는 말이다. 『역易』「리離」,  
“象曰 明兩作離 大人以繼明 烈于四方”.

135) 심서지(甚恕之): [總覽] [全文] [苑]의 恕는 恕의 오자. 서지(恕之)란 법인국사에게  
서 직접 기도를 해 준데 대하여 아주 고맙고 가상하게 여겼다는 말이다.

136) 우로(優勞): 왕이 아주 고맙게 여겨 위로하는 것을 말한다. 『송사宋史』「허혁전  
許奕傳」, “行成還奏 帝優勞久之”.

137) [苑]은 결락이나 [全文] [總覽]에는 得임.

138) [苑]은 결락이나 [全文] [總覽]에는 心임.

139) 어토(於兎): 호랑이의 다른 이름.

140) 원시전율(圓視戰慄): 문인들이 모두 함께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였다는 말  
이다.

141) 약무화(若無譁): 너희들은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당부하는 말이다.

142) 진비기주(珍飛奇走): ‘진귀한 새와 기이한 짐승’이라는 말로, 상서로 나타난 것  
이다.

143) 귀법의승(歸法依僧): 불법(佛法)에 귀의하고, 스님들을 의지한다는 말이다.

144) 명년춘(明年春): 병술년(丙戌年) 이듬해인 정해년(丁亥年 927).

145) 초계비구(草繫比丘): 부처님 당시 어떤 비구(比丘)가 토굴에서 수도하고 있었던

(德)은 화엄종(華嚴宗)의 종장(宗匠)들 중에 수장<sup>147)</sup>이었으니, 스님을 발탁하여 별대덕(別大德)이란 법칭(法稱)을 바쳤다. 이 때 스님은 높은 도덕과 예리한 변재로 사부대중을 제접하였다.<sup>148)</sup> 이로부터 법문을 청하는<sup>149)</sup> 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sup>150)</sup> 문도 또한 번창하였다.<sup>151)</sup> 태조가 바야흐로 삼국(三國)을 규합하고<sup>152)</sup> 상교<sup>153)</sup>를 존송하였다.

데, 때마침 도적이 들어와서 물건을 빼앗고, 스님을 죽이기보다는 죄를 덜 짓기 위하여 풀에 묶어 두고 가버렸다. 스님은 풀을 다치게 하는 것도 살생(殺生)이라 여겨 7일간이나 그냥 묶여 있었는데, 때 마침 왕이 사냥을 나와 이를 보고 크게 감동하여 왕궁으로 모시고 가서 왕사(王師)로 모시게 되었다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범망경梵網經』「하」48 ‘경구계輕垢戒’ 중 제34 잠리보제심계(暫離菩提心戒)에 “若佛子 護持禁戒 行住坐臥 日夜六時 讀誦是戒 猶如金剛 如帶持浮囊 欲渡大海 如草繫比丘”라 하였고, 『열반경涅槃經』권26에는 “寧捨身命 不毀禁戒 如草繫比丘”라 하였다. 「낭원대사오진탑비문朗圓大師悟眞塔碑文」 주67초계草繫 [고려편1] p.120; 「진철대사비문眞澈大師碑文」 주60)초계현심草繫懸心 [고려편1] p.24; 「요오화상진원탑비문了悟和尚眞原塔碑文」 주20)행동결초行同結草 [고려편1] p.50 등 참고.

- 146) 행수초계지심(行修草繫之心): 초계비구(草繫比丘)와 같이 행(戒律)을 닦았다는 말로써 계덕(戒德)이 높다는 뜻이다.
- 147) 덕관화엄지수(德冠華嚴之首): 도덕이 화엄종(華嚴宗)에서 제일 높다는 뜻이다.
- 148) 순순연선유(循循然善誘): 순순이란 차례와 질서가 있다는 말로써 차곡차곡 질서 있게 잘 지도한다는 뜻이다. 유준(劉峻), 『변명론辨命論』, “循循善誘 服膺儒行”.
- 149) 청익(請益): 법문 듣기를 청하는 것, 곧 청법(請法).
- 150) 기려불억(其數不億):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으로, 數는 麗와 같아 數字와 통하고, 億은 헤아릴 억자로써 臆과 통한다. 『시경』「대아」문왕文王, “商之孫子 其麗不億”.
- 151) 식번유도(寔繁有徒): 이와 같이 그의 문도가 번창하였다는 말이다.
- 152) 규합용방(糺合龍邦): 왕건이 비로소 계림추엽(鷄林秋葉)인 신라, 그리고 궁예의 후고구려, 견훤의 후백제 등이 정립(鼎立)하였던 삼국(三國)을 하나로 규합, 통일하였다는 말이다.
- 153) 상교(象敎): 불교를 지칭한다.

爾後，逕住於九龍山寺，講花嚴，有群鳥，遶房前，於兔，伏階下者。門人等圍視<sup>154)</sup>戰慄，大師怡顏自若曰，“若無譁，唯此珍飛奇走歸法，依僧而已。”明年春，以大師行修草繫<sup>155)</sup>之心<sup>156)</sup>德<sup>157)</sup>冠結花嚴之首，擢授別大德。於是，循循然善誘，自是請益者，其獻<sup>158)</sup>不億，寔繁有徒。太祖，方欲糺合龍邦，欽崇象教。

청태년초<sup>159)</sup>에 서백산(西伯山) 신랑(神朗) 태대덕<sup>160)</sup>이 각현이 번역한 80권본 화엄경에 정통하여<sup>161)</sup> 대방광<sup>162)</sup>의 비종(秘宗)을 설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신랑 태대덕은 이미 나이가 상유(桑榆)에 임박하고,<sup>163)</sup> 모양은 마치 포류(蒲柳)와 같이 쇠잔하였다.<sup>164)</sup> 그러나 대사에게 청법하니 낭공대사(朗公大師)가 법상에 올라 앉아 옥병(玉柄)을 휘두르면서 금언(金言)을 설

154) [苑] [總覽]에는 視. [全文]의 祖는 視의 오자임.

155) [苑]에는 繫. [全文] [總覽]의 繁은 繫의 오자임.

156) [總覽]에는 결락이나 [苑]과 [全文]에는 心임.

15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德字가 있음.

158) [苑] [總覽]의 獻와 [全文]의 麗는 相通하는 字이다.

159) 청태(淸泰) : 후당 폐제(廢帝) 때의 연호(934~935).

160) 신랑태대덕(神朗太대德) : 전기를 알 수 없다.

161) 찬각현지여열(纂覺賢之餘烈) : 불타발타라(覺賢 卽 Buddhahadra)가 중국에 와서 한역(漢譯)한 경전이 『화엄경』을 비롯하여 무려 16부 177권이나 되는데, 그가 남긴 경전을 연구하였다는 뜻이다.

162) 대방광(大方廣) : 12부경(部經) 중에 비불략(毘佛略 卽 vaipulya), 즉 방등경(方等經)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대방광불화엄경』을 말한다.

163) 연박상유(年迫桑榆) : 뽕나무나 느릅나무 끝에 남아있는 저녁해의 그림자. 노년(老年) 또는 일몰(日暮). 죽음이 눈 앞에 임박하였다는 말이다. 「원종대사혜진탑비문」 주192) 연박상유年迫桑榆 본서(本書) p.266 참조.

164) 모쇠포류(貌衰蒲柳) : 나이가 많아 모양이 마치 포류(蒲柳)와 같이 쇠퇴하였다는 말이다. 「원종대사혜진탑비문」 주193) 치쇠포류齒衰蒲柳 본서(本書) p.266 참조.

하여 심법(心法)을 들려주고 있었다. 드디어 서백산(西伯山)으로 가서 삼본(三本) 화엄경의 강설을 듣고는 크게 감동하여 “어찌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밀전(密傳)하고, 유마거사가 문수보살과 묵대(默對)한 것과 다르겠는가!”라고 하였다. 낭공대사가 부끄러운 얼굴로 대답하기를, “옛날 유동(儒童)보살<sup>165)</sup>이요, 이른바 ‘나를 일으킨 자는 상(商)이다.’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sup>166)</sup> 화엄의 큰 가르침(華嚴大教)이 이때부터 크게 성행하였다.

清泰初，聞西伯山神朗太大德，纂覺賢之餘烈，演方廣之秘宗，今年迫桑榆，貌衰蒲柳。遂請大師，迨郎公，其<sup>167)</sup>麾玉柄，演金言，聞心<sup>168)</sup>法者。大師，遂往西伯，聽雜華三本則，何異，善逝，密傳於迦葉，淨名，默對於文殊者哉。朗公應對，有慙色曰，“昔儒童菩薩，所謂，起予者商。”故乃花嚴大教，於斯爲盛矣。

천복 7년<sup>169)</sup> 7월 염·백 2주<sup>170)</sup>에 연접된 경계에 해충인 황벌레<sup>171)</sup>가 농작물의 싹을 마구 뜯어 먹고 있었다. 그리하여 퇴충기도(退虫祈禱)를 위해

165) 유동보살(儒童菩薩): 석존께서 과거세 인행(因行)시 유동보살(Ṣ māṇavaka)의 신분으로 연등부처님(燃燈佛)께 공양하였다. 『수행본기경(修行本起經)』(대정장3, p.461c) 참조.

166) 기여자상(起予者商): 공자(孔子)가 그의 제자인 자하(子夏, 이름은 商)에게 이른 말로, 스승인 자신을 자극하여 분발하게 하는 제자에 대한 감탄을 담고 있다. 『논어(論語)』「팔일(八佾)」, “子夏問曰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 何謂也 子曰 繪事後素 曰禮後乎 子曰 起予者 商也 始可與言詩已矣”.

167) [總覽] [拓本]에는 其, [苑] [全文]의 具는 其의 오자이다.

168) [苑] [全文]에는 脫落되어 있지만, [總覽]에는 心字가 있다.

169) 천복칠년(天福七年): 천복은 후진(後晉) 고조(高祖) 때의 연호. 천복 7년은 942년(태조 25).

170) 염백이주(鹽白二州): 염은 염주(鹽州)로써 황해도 연안군(延安郡)의 옛 이름이고, 백은 백주군(白州郡)으로 황해도 연안군과 서쪽으로 연접된 지역을 말한다.

171) 명황(螟蝗): 곡식의 싹을 뜯어 먹는 식묘충(食苗蟲).

대사를 법주(法主)로 모시고 『대반야경(大般若經)』을 강설하기로 하였다. 스님이 여시아문운운(如是我聞云云)으로부터 일음(一音)으로 겨우 법을 연설하자마자 모든 해충들<sup>172)</sup>이 물러갔으며, 그 해에 풍년이 들어<sup>173)</sup> 태평을 이루었다.<sup>174)</sup>

天福七年, 秋七月, 塩<sup>175)</sup>白二州, 地界螟蝗害稼. 大師爲法主, 講大般若經. 一音纔演法, 百騰不爲災. 是歲卽致年豐, 翻成物泰.

혜종<sup>176)</sup>이 보위에 올라 3분 화엄경<sup>177)</sup>의 사경을 마치고<sup>178)</sup> 천성전(天成殿)에서 불상과 신중상(神衆像)을 모시고 법회(法會) 장소를 마련하고는,<sup>179)</sup> 대사를 초청하여 경을 강설하고 또한 열람<sup>180)</sup>하는 한편 사경에 대한 경찬(慶讚)을 위해 널리 보게(寶偈)를 선양하였다. 왕이 대사와 사자(師資)의 인연을 맺고는<sup>181)</sup> 대사에게 올리는 시주금(施主金)을 구룡산사(九

172) 백騰(百騰): 모든 해충. 곡식을 침식하는 온갖 벌레.騰(騰)은 박각시나방에벌레 특字.

173) 시세즉치년풍(是歲卽致年豐): 스님이 퇴충기도(退虫祈禱)를 한 공덕으로 그 해에 풍년이 들었다는 뜻이다.

174) 물태(物泰): 풍년이 들어 오곡은 풍부하고, 나라는 태평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175) [苑] [全文]의 塩과 [總覽]의 鹽은 같은 字이다.

176) 혜종(惠宗): 고려 제2대 임금(재위 934~945).

177) 화엄경삼본(華嚴經三本): 「정진대사원오탑비문」 주276)의 회본화엄경義熙本華嚴經 [고려편1] p.415.

178) 재경(裁竟): 『화엄경』을 사경(寫經)하여 재책(裁冊)해 마쳤다는 말이다.

179) 상설법연(像設法筵): 천성전(天成殿)에 불상과 팔부신장상(八部神將像) 등을 모시고 법회 장소를 설치하였다는 뜻이다.

180) 강람(講覽): 경(經)을 강설하는 한편 경을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181) 영세방연(永締芳緣): 혜종임금과 법인국사가 사자(師資)의 인연을 맺었다는 뜻이다.

龍山寺)로 보내고,<sup>182)</sup> 따로 법의(法衣)와 진귀(珍貴)한 찻감, 선향(仙香) 등을 송증하였다.<sup>183)</sup> 정종(定宗)이 즉위해서는<sup>184)</sup> 마침내 구룡산사에 법회를 열고<sup>185)</sup> 대사를 법주로 삼아 그의 법력에 의뢰하였으니, 군림에 따른 복이 되게 하려 했다. 대성대왕<sup>186)</sup>이 즉위하고서는 더욱 십선행(十善行)을 닦고 보다 삼귀의(三歸依)에 정성스러웠다. 우리러 소박한 충정을 펼치며 일편단심<sup>187)</sup>을 배증(倍增)하였다.

惠宗嗣位, 寫花嚴經三本裁竟, 卽於天成殿, 像設<sup>188)</sup>法筵, 請大師講覽, 兼申慶讚, 爲其弘宣寶偈. 永締芳緣, 附大師, 送納於九龍山寺, 別贈法衣, 贊之珍茗, 副以仙香. 定宗踐阼, 遂於九龍山寺, 置譚筵, 大師爲法主, □□賴之,<sup>189)</sup> 大<sup>190)</sup>□爲<sup>191)</sup>□<sup>192)</sup>君臨之多福. 及大成大王, 卽位, 增脩十善, 益勵三歸. 仰展素衷, 倍增丹愿.

- 
- 182) 송납어구룡산사(送納於九龍山寺): 납(納)은 납(納)과 같은 字로써 승복(僧服), 곧 납의(衲衣)를 뜻한다. 임금께서 납의를 구룡산사로 보냈다는 말이다.
- 183) 별증법의지진명명(別贈法衣贊之珍茗): 납의를 보낸 외에 따로 법의를 만들 수 있는 옷감과 진귀한 찻감을 보냈다는 말이다.
- 184) 천조(踐阼): 천자(天子)가 보위에 오른다는 말이다. 「원종대사혜진탑비문」 주 116)천조踐阼 본서(本書) p.256 참조.
- 185) 담연(譚筵): 마치 선담법회(禪譚法會)를 개설하였다는 말이다.
- 186) 대성대왕(大成大王): 광종의 시호. 본비문(本碑文) 주132)대성대왕大成大王 p.309 참조.
- 187) 단원(丹愿): 일편단심의 골똥한 정성을 말한다.
- 188) [苑] [總覽]에는 設. [全文]의 說은 設의 오자임.
- 189) [苑]은 결락이나 [全文] [總覽]에는 之임.
- 190) [苑]은 결락이나 [全文] [總覽]에는 大임.
- 191) [苑] [全文]에는 爲. [總覽]의 薦은 爲의 오자임.
- 192) [苑] [全文]은 결락이나 [總覽]에는 탈락(脫落)됨.

임금께서 항상 스님의 모습을 보되, 마치 부처님의 거룩하신 존안<sup>193)</sup>을  
 첨앙하는 것과 같이 하였다. 대사를 초청하여 법력을 빌었으니, 대사는 마  
 치 승천대사(僧泉大師)가 왕 앞에서 불자(拂子)를 흔들고<sup>194)</sup> 혜필선사(惠  
 弼禪師)가 왕이 초청한 법상에 앉아 용이(龍頤)를 움직인 것과 같았다.<sup>195)</sup>  
 왕이 즉위<sup>196)</sup>한 깊은 공덕을 선양하고 나라를 치화할 묘법을 강설한 탓으  
 로<sup>197)</sup> 시대는 강녕(康寧)하고 왕도(王道)는 태평스러워서 국가는 부강(富  
 強)하고 가정은 창성하였다.<sup>198)</sup>

每觀吾師之尊貌, 如瞻彼佛之睟<sup>199)</sup>容. 請大師祈法力, 大師, 僧  
 泉之麾塵尾, 惠弼之動龍頤. 宣莅阼之玄功, 講化邦之妙法, 故  
 乃時康道泰, 國阜家殷矣.

대사는 앞드려 대왕을 위하는 한편 부처님<sup>200)</sup>을 받들었다. 옥계(玉偈)를  
 선설(宣說)하여 법왕의 도를 흠송하였고, 군자의 나라<sup>201)</sup>를 빛나게 하려고

193) 수용(睟容): 청련화목(靑蓮華目)과 같은 눈을 가진 거룩한 얼굴. 온화하고 유백  
 이 있는 용모.

194) 승천지휘주미(僧泉之麾塵尾): 승천대사(僧泉大師)가 왕(王) 앞에서 주미 즉 불  
 자(拂子)를 흔들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인데, 승천대사의 전기는 알 수 없다.

195) 혜필지동용이(惠弼之動龍頤): 혜필선사(惠弼禪師)가 왕이 초청한 법상(法床)에  
 서 턱을 끄덕거리는 것으로 법문을 삼은 것을 뜻한다. 혜필선사의 전기는 알 수  
 없다.

196) 이조(莅阼): 이조(洩阼)와 같은 뜻으로 임금이 보위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천조  
 (踐阼)라고도 하는데,莅는 洩와 같은 字이다.

197) 강화방지묘법(講化邦之妙法): 나라를 교화하는 묘법을 강설한다는 뜻이므로,  
 호국삼부경(護國三部經) 등을 강설한다는 말이다.

198) 국부가은(國阜家殷): 국력이 커지고 가정이 융성하여진다는 말이다.

199) [苑]에는 睟. [全文] [總覽]의 睟은 睟의 오자임.

200) 금자(金恣): 금빛 자태. 부처님 또는 불교를 지칭한다.

201) 군자지방(君子之邦): 군자의 나라. 우리나라를 지칭한다.



석가(釋迦) 주불(主佛)과 좌우보처(左右補處) 등 삼존(三尊) 금불상<sup>202)</sup>을 조성하였다. 광종(光宗)이 임금(王)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sup>203)</sup> 봄에, 대사는 부처님 사리 3과를 얻어 유리 항아리에 담아 법당<sup>204)</sup>에 안치하였다. 그로부터 수일(數日)이 지난 후, 어느 날 밤 꿈에 일곱 분의 스님이 동방에서 왔다면서 말하기를, “이제 스님께서 묘한 원력(願力)이 함께 원만하고, 영자(靈姿)로 온 나라를 두루 교화하므로 찾아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꿈에서 깨어 항아리를 보니 사리가 빙빙 돌아서 셋으로 [결락] 변화하였다. 지(地) [결락] 금지찰(金之刹)에 보천(補天)하는 연석(鍊石)으로 탑감(塔龕)을 세웠으니,<sup>205)</sup> 그 까닭은 임금의 수명을 연장하고,<sup>206)</sup> 왕의 선정과 덕화를 부호(扶護)하려는<sup>207)</sup> 것이다.

□□□伏<sup>208)</sup> 爲大王, 奉金姿. 宣玉偈, 欽若法王之道, 煥乎君子之邦, 造釋迦三尊金像. 光宗御宇四年春, 大師, 得佛舍利三粒, 以瑠璃甕盛, 安置法宇. 數日後夜夢, 有七僧, 自東方來

202) 석가삼존금상(釋迦三尊金像): 삼존이란 주불(主佛)인 석가모니불, 좌보처(左補處)인 미륵보살, 우보처(右補處)인 제화가라보살(提華竭羅菩薩)을 가리킨다.

203) 광종어우사년(光宗御宇四年): 949년에 즉위한 광종이 왕이 된 지 4년째인 953년을 가리킨다.

204) 법우(法宇): 법(法)의 집이니 사원이나 법당.

205) 기보천연석지감(起補天鍊石之龕): 하늘을 돕는다는 연석으로 감실(龕室)을 만들었다는 뜻으로, 보천연석은 연석보천(鍊石補天)이라고도 하는데, 『회남자』 「남명훈覽冥訓」에 “女媧鍊石五色石以補蒼天”이라 하고, 그 주(注)에 “女媧帝佐堯敷治者也 三皇時 天不足西北 故補之”라 하였다. 천연(天然)의 조화(造化)가 부족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보충(補充)하는 것으로 세운(世運)을 만회하려는 것이다.

206) 연제령(延帝齡): 임금의 수명을 연장하여 오래 살도록 기원한다는 뜻으로,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와 같은 뜻이다.

207) 부성화(扶聖化): 임금의 선정(善政)과 덕화(德化)를 돕는다는 말이다.

208) [苑] [全文]에는 伏, [總覽]의 休는 伏의 오자임.

云,<sup>209)</sup> “今爲妙願俱圓, 靈姿遍化, 故來.” 覺見其薨, 舍利旋旋爲三 □□□□於置<sup>210)</sup>地□金之刹, 起補天練石之龕, 所以, 延帝齡, 扶聖化也.

현덕 2년<sup>211)</sup> 여름, 대사의 법체가 조화함이 어긋나고<sup>212)</sup> 질병을 보였다. 어느 날 밤 꿈에 거사 30여 명이 배를 몰고 와서 “대사를 배에 모시고 서방극락세계(西方極樂世界)로 가려고 왔습니다.”고 하였다. 대사가 이르기 를, “이것이 내가 타고 서방으로 갈 반야용선(般若龍船)이구나.”하고, 다시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나와 뜻을 도에 두고, 정성껏 천교<sup>213)</sup>를 펴서 널리<sup>214)</sup> 고해중생(苦海衆生)을 제도하려 하였으나, [결락] 세상을 떠나는 때가 어찌 이다지도 급히 다가왔는가.”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거사들이 다음 시기로 미루고 배를 되돌려 돌아갔다. 그 후 수명이 오래 연장되어 화엄종지를 더욱 왕성하게 폈으니,<sup>215)</sup> 이를 일러, ‘정신이 몽매(夢寐)에 통하고 영혼(靈魂)이 유명(幽明)을 경험하였다.’ 하였다.

顯德二年夏, 大師法體<sup>216)</sup>乖和, 嚔容示疾. 夜夢有居士三十餘人, 艤舟而來, “欲載大師西泛.” 大師, 方謂, “是吾乘仁舟, 而西逝矣.”

209) [苑] [總覽]에는 云, [全文]의 至는 云의 오자임.

210) [總覽]은 結락이나 [苑] [全文]에는 置임.

211) 현덕이년(顯德二年): 현덕은 후주(後周) 세종(世宗) 때의 연호. 현덕 2년은 955년(광종 6).

212) 빈용(嚔容): 몸이 불편하여 얼굴을 찡그린 표정.

213) 천교(天敎): 불교를 지칭한다.

214) 포(誦): 대(大) 또는 보(善)의 뜻이다.

215) 관화(貫花): 꽃을 꿰다는 말이니, 장엄(莊嚴)을 이룸. 즉 곧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는 말이며, 한편, 화엄(華嚴)의 종지를 선양함을 말한다.

216) [苑] [總覽]에는 體, [全文]의 禮는 體의 오자임.

乃言曰, “吾自出世, 志於道, 願欲敬數天教, 誦濟海□□□□□去世, 奈何急.” 其居士等, 聽之迴舟, 有後期而去矣. 爾後得年算之遐長, 致貫花之益誠, 是謂, ‘神通夢寐, 靈驗幽明矣.’

대사께서 문인들에게 이르기를, “성군(聖君)이 나를 스승이라 일컬으므로, 나는 부처님의 가호(加護)로 임금께 보답하려 하노라.”고 하며, 부처님을 존중한 공덕으로 옥황<sup>217)</sup>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삼존(三尊) 금불상(金佛像)을 조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성업(聖業)의 치적(治績)이 봉력<sup>218)</sup>에 실려 오직 홍도(鴻圖)를 새롭게 하려 하였다. 유혁건(有赫乾) [결락] 대내에 대장경 법회를 열고, 급히 지검(芝檢)<sup>219)</sup>을 보내어 주궁<sup>220)</sup>으로 초빙하였다. 대사는 산사(山寺)의 연비(蓮扉)를 떠나 경사(京師)의 금지(金地)<sup>221)</sup>에 도착하였다. 대왕이 높은 스님과 중신(重臣)의 사신을 보내서 내도량<sup>222)</sup>으로 영입(迎入)하여 융숭하게 대하는 예우(禮遇)가 더욱 돋보였으니, 공경함이 부처님과 같았다. 따로 마납가사<sup>223)</sup>와 아울러 백마노염주(白碼礪念珠)를 헌납하였다. 그리고 이 해 9월에 새로 귀법사(歸法寺)를 창건하니,<sup>224)</sup>

217) 옥황(玉皇): 광종 임금을 지칭한다.

218) 봉력(鳳曆): 달력. 봉황(鳳凰)은 능히 천시(天時)를 안다 하여, 봉자(鳳字)를 역자(曆字) 앞에 두었다. 유신(庾信), 「소하락素夏樂」, “龍圖華命 鳳曆歸昌”.

219) 지검(芝檢): 임금의 칙서(詔書). 「원종대사혜진탑비문」 주144) 지검芝檢 본서(本書) p.259 참조.

220) 주궁(珠宮): 구슬로 장식한 어전(御殿)이다. 전(轉)하여 도원(道院)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전을 가리킨다. 은요궁(殷堯恭), 「보허시步虛詩」, “玉洞花長發 珠宮月最明”.

221) 금지(金地): 절을 말한다.

222) 내도량(內道場): 궁안에 있는 내불당(內佛堂).

223) 마납가사(磨衲袈裟): 마납은 정교하게 짠 고려산 비단을 말한다. 「법경대사보조혜광탑비문法鏡大師普照慧光塔碑文」 주80) 마납摩衲 [고려편1] p.224.

물은 잔잔하게 구비구비 돌아 흐르고<sup>225)</sup> 산은 험준하여 청룡·백호가 병풍처럼 휘감았고 전망(前望)이 확 트였다.<sup>226)</sup> 불상을 모신 전당(殿堂)은 (결락) 이에 개사(開士)가 연거<sup>227)</sup> 하기에 알맞는 정경(淨境)이며, 진인(眞人)이 서식(栖息)할 만한 청재(淸齋)이므로 대사를 초빙하여 주지(住持)하도록 하였다. 대사가 이 절에 가서 거주하니 장엄(莊嚴)하기가 마치 화성(化城)과 같았다. 별도로 계금가사<sup>228)</sup>와 아울러 범의를 송정하였다.

大師告門人曰, “聖君, 致我稱師, 報君以佛.” 奉爲祝玉皇之萬壽, 鑄金像之三尊. 因得鳳曆, 惟新鴻圖. 有赫乾<sup>229)</sup>□□□□□, 大內, 置<sup>230)</sup>大藏經法會, 遽飛芝檢, 徵赴珠宮. 大師, 別山寺之蓮扉, 到京師之金地. 大王遣緇素重使, 迎入內道場, 禮之加焯然, 敬之如如來. 別獻磨衲袈裟, 并白碼磻<sup>231)</sup>念珠. 是歲秋九月, 以新剎歸法寺, 水潺湲而練遶, 山巘嶸而屏開. 像殿□□

224) 시세추구월이신창귀법사(是歲秋九月以新剎歸法寺): 귀법사는 963년(광종 14) 가을 9월에 경기도 개성 탄현문(炭峴門) 밖에 창건되었다.

225) 수완원이연요(水潺湲而練遶): 물이 잔잔히 흘러 구비구비 휘감아 흐른다는 뜻이다. 잔원이란 물이 흐르는 모양 또는 그 소리. 『초사楚辭』「구가九歌」상부인湘夫人, “荒忽兮遠望 觀流水兮潺湲”.

226) 산현악이병개(山巘嶸而屏開): 산은 높이 낭떠러지 절벽으로 솟아있고, 전망은 확 트였다는 뜻이다. 현악이란 층애(層崖) 또는 절벽. 이백(李白), 「명고가鳴皋歌」, “尋幽居兮越巘嶸”.

227) 연거(宴居): 연좌안거(宴坐安居)의 준말이니 참선하는 것을 말한다.

228) 계금가사(闕錦袈裟): 모직(毛織)이나 비단으로 만든 가사. 계는 ①고기 잡는 그물 계字. ②틀로 짠 모직이니, 현응(玄應)의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권1에 “織毛曰闕”라 하였다.

229) [總覽]에는 乾. [苑] [全文]의 乾은 乾의 속자임.

230)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置임.

231) [總覽]에는 磻. [苑]에는 磻. [全文]에는 璫. 璫는 磻의 오자이고, 璫는 磻과 同字이다.

□□□時<sup>232)</sup> 乃開士宴居之淨境, 寔真人栖息之清齋, 遂請大師  
住焉. 大師往居之, 儼若化城. 別<sup>233)</sup> 送屬錦袈裟, 并法衣.

저후<sup>234)</sup> 도 우리 스님을 신앙(信向)하였으니, 그 정성스러움이 부왕인 광  
종과 다름없었다. 저후도 역시 따로 법의와 아울러 한(漢)의 명차(茗茶),  
만(蠻)의 선향<sup>235)</sup> 등을 헌증하였다. 그리고 이 해 10월<sup>236)</sup>에 대왕이 대사를  
석문(釋門)의 종주(宗主)로 모시고, 험한 세상을 인도하는 스승<sup>237)</sup>으로 섬  
겼으며, 스님은 달람(怛纜)의 비종(秘宗)을 연설<sup>238)</sup>하고 부상(扶桑)의 생민

232)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時임.

233) [全文]에는 別과 送 두 字 사이에 別字가 더 있는데, 이는 삭제하여야 한다.

234) 저후(儲后): 저군(儲君), 황태자(皇太子), 동궁(東宮), 춘궁(春宮), 저궁(儲宮), 저  
이(儲貳) 등과 같은 뜻이다. 저는 후보란 뜻이고, 후는 군(君)이란 말이니, 곧 광  
종의 장남(長男)인 주(卣)를 지칭한다. 주(卣)는 광종을 이어 976년에 즉위하였  
으니 그가 바로 경종(景宗)이다. 이름은 주이고 자는 장민(長民). 어머니는 대목  
왕후(大穆王后) 황보씨(皇甫氏)이다.

235) 한명만향(漢茗蠻香): 한명은 중국산 다료(茶料). 만향은 인도나 주변국에서 생  
산되는 향료(香料).

236) 시세십월(是歲十月): 964년 10월.

237) 험도도사(險道道師): ‘험한 길의 도사’라는 말이다. 험도란 중생이 살고 있는 험악  
하고 위험한 삼계(三界)와 육도(六道)를 뜻함이고, 도사란 이와 같이 삼계(欲界·  
色界·無色界)화택(火宅)과 사생(胎生·卵生·濕生·化生)고해(苦海)의 험한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라는 뜻이다.

238) 연달람지비종(演怛纜之秘宗): 달람의 비종을 연창하였다는 것이니, 계경(契經)  
의 그윽한 요체를 연설하였다는 뜻이다. 달(怛) 또는 달(咀)이라고도 쓴다. 달람  
(怛纜)은 소달람(素怛纜)의 준말이니, 수다라(修多羅 Sūtra: 즉 경(經)이라 번역  
한다)를 오인도(五印度)의 차음(差音)에 따른 번역자 즉 역주(譯主)에 의하여 그  
음역(音譯)이 신구역(新舊譯)에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다. 구역에  
는 수단라(修單羅), 수투로(修妬路), 수다란(修多蘭) 등이고, 신역에는 소달람(素  
怛纜), 소달람(素咀纜), 소다라(蘇多羅), 소달라(蘇咀羅) 등이니, 계경(契經), 성경  
(聖經), 경(經) 등으로 번역된다.

(生民)을 교화하였다. 이에 왕이 스님의 도덕을 존중하고 깊은 대자비에 감득(感得)하여, 스님(緇)과 세간(素)의 중사를 보내 소(疏)를 만들어 왕사(王師)로 모시고자 간청하였다. 대사가 이에 사양하며 말하기를, “나는 아직 마음의 구슬이 밝지 못하고 눈의 거울이 비춤이 없어 왕사가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 소승이 어찌 감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스님을 높은 산처럼 앙모(仰慕)함이 어찌 하루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장차 혼돈(混沌)의 근원을 묻고자 하오니, 이는 공동(崆峒)의 초청<sup>239)</sup>에 간절한 마음입니다.”하였다.

儲后, 信向吾師, 誠如聖旨. 別獻法衣, 并漢茗蠻香等. 是歲冬十月, 大王, 以大師, 釋門宗主, 險道導師, 演呬<sup>240)</sup>纜之秘宗, 化扶桑之□□. 於是, 尊<sup>241)</sup>崇道德, 深感大慈, 迺遣緇素, 重使奉疏, 請爲王師. 大師迺讓曰, “心珠靡瑩, 目鏡無縣,<sup>242)</sup> 謬爲王師, 卽僧豈敢.” 大王乃言曰, “高山仰止, 何日忘之, 將開<sup>243)</sup>混沌之源, 寔切崆峒之請.”

대사가 말하기를, “소승은 오직 마음을 귀불(歸佛)에만 둘 뿐이요, 진실로 임금님을 돕는 데는 무력<sup>244)</sup> 하오나, 오히려 지나친 성은을 입어<sup>245)</sup> 더

239) 공동지청(崆峒之請): 광종 임금이 법인국사를 궁중으로 초청하여 치국지도(治國之道)를 듣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지증대사적조탑비문智證大師寂照塔碑文」 주408)공동지미崆峒之美 [신라편] p.336 ;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 주334)공동지청崆峒之請 본서 p.166 ; 「진공대사보법탑비문」 주124)공동지문崆峒之間 [고려편1] p.101 등 참조.

240) [苑] [全文] [總覽]의 組는 恒 또는 呬의 오자임.

241) [苑] [全文]에는 尊. [總覽]의 眞은 尊의 오자임.

242) [苑] [總覽]에는 懸이지만, [全文]에는 縣이다. [苑]과 [總覽]의 懸이 오자임.

243) [苑] [全文]에는 開. [總覽]의 問은 開의 오자임.

이상 굳게 사양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sup>246)</sup> 이에 태상(太相)인 김준암(金遵巖) 등으로 하여금 휘호<sup>247)</sup>를 만들게 하여 왕사 흥도삼중대사<sup>248)</sup>라 하고, 다음 날 대왕이 몸소 내도랑(內道場)에 나아가서 절하고 왕사로 삼았다. 이 때 “임금이 되어 나라를 경륜(經綸)하는 방법은 하늘을 법받아 항상 주의하고,<sup>249)</sup> 부처님께 귀의하여 사람을 교화하는 도에 의지하고, 바다와 같이 깊어 심불(心佛)을 관하여야<sup>250)</sup> 합니다.”라고 한 다음, 약언(藥言)으로써 드날려 잠계(箴諫)를 베풀었다. 그러한 까닭에, 스님의 법력을 우러러 의지하여 정심(精心)을 배나 더하였으며, 따로 계금가사와 더불어 황흑마노염주(黃黑碼惱念珠)를 헌납하기도 하였다.

大師<sup>251)</sup>乃言, “僧唯有心於歸佛, 苟無力於致君, 尚以過沐□<sup>252)</sup>  
□□末<sup>253)</sup>由<sup>254)</sup>膠<sup>255)</sup>讓<sup>256)</sup>.” 迺<sup>257)</sup>使太相金遵巖等, 奉徽號爲王  
師, 弘道三重大師, 翌日大王, 躬詣內道場, 拜爲師. 於是, “爲

- 244) 구무력여치군(苟無力於致君): 스님 자신이 진실로 임금의 치국(致國)을 도울 만한 능력이 없다고 겸손해하는 말이다.
- 245) 과목□□□(過沐□□□): 스님이 그동안 왕(王)의 은총을 지나치게 입었다고 감사하는 말이다.
- 246) 말유교양(末由膠讓): 강하게 사양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 247) 휘호(徽號): 스님의 아름다운 도덕을 찬양하기 위하여 임금이 내린 호.
- 248) 삼중대사(三重大師): 본비문 주6)삼중대사三重大師 p.294 참조.
- 249) 법천주의(法天注意): 하늘을 법받아 뜻을 오롯하게 치국안민(治國安民)에만 기울인다는 말이다.
- 250) 관해옥심(觀海沃心): 해옥과 같은 마음을 관한다는 뜻이니, 곧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심불(心佛)을 관한다는 말이다.
- 251) [苑] [全文]에는 師, [總覽]의 王은 師의 오자임.
- 252) [總覽]에는 過沐 뒤에 한 字가 탈락됨.
- 253)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末임.
- 254)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由임.
- 255)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膠임.

君經國之方，法天注意，依佛化人之道，觀海沃心。”遂乃颺以藥言，施之箴誡。所以，仰依法力，倍罄精心，別獻屬錦袞裳，并黃黑碼碯念珠。

개보 5년<sup>258)</sup> 대사는 특히 저후의 나이가 학수(鶴壽)와 같아<sup>259)</sup> 날마다 용루<sup>260)</sup>를 왕성하게 하며, 옥의<sup>261)</sup>를 붙들여 아름다운 덕을 쌓게 하며,<sup>262)</sup> 요도<sup>263)</sup>를 도와 항상 경사스러움을 연설하였다. 천불도량(千佛道場)에 들어가 향을 사르고 기도하던 중, 7일째 되는 날 밤<sup>264)</sup> 꿈에 5백 명의 스님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스님의 소원을 부처님께서 들어주셨음을 알려드리니, 화사(畵師)를 청하여 오백나한(五百羅漢)의 탕화를 그려 안선보국원(安禪報國院)에 모시도록 하십시오.”라고 권했다. 대사가 꿈에 이 같은 지시를 받고 말하기를, “옛날 내가 보원사(普願寺)에 있을 때, 삼본(三本) 화엄경(華嚴經)을 봉지(奉持)하고, 날마다 중야(中夜)에 불상을 모신 법당에서 경행(經行)하기를 몇 년을 계속하였다.

開寶五年，大師特爲儲后，年齊鶴算，日盛龍樓，扶玉宸以儲

256)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讓임.

25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迺임.

258) 개보오년(開寶五年): 개보는 송 태조 때의 연호. 개보 5년은 972년(광종 23).

259) 학산(鶴算): 장수(長壽)의 뜻이다.

260) 용루(龍樓): 한(漢)나라 때 태자 궁문의 이름이었으나, 전(轉)하여 태자의 궁전을 지칭한다. 『한서』「성제기(成帝紀)」, “帝爲太子 居桂宮 上嘗急召 太子 出龍門樓 不敢絕馳道”.

261) 옥의(玉宸): 임금이 남향(南向)하고 앉아 있는 자리.

262) 저휴(儲休): 아름다운 공덕을 쌓아 모운다는 뜻이니, 곧 태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덕을 저축한다는 말이다.

263) 요도(瑤圖): 왕실(王室)의 대통(大統)과 자손.

264) 분도경칠일(焚禱經七日): 향(香)을 사루면서 기도하여 7일이 경과된 날이다.



休, 佐瑤圖而演慶, 迺入千佛道場, 焚禱經七日夜夢, 有五百僧來曰, “師所願者, 佛之聽之, 故奏請畫師, 敬畫五百羅漢, 安置於安禪報國院.” 大師乃言之, “昔吾在普願寺, 奉持三本華嚴經, 每<sup>265)</sup>以中<sup>266)</sup>夜, 經行像殿, 不絕數年.

홀연히 어느날 밤 삼보전(三寶前) 객실(客室) 앞에 한 스님이 있기에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라고 물었다.<sup>267)</sup> 대답하기를, ‘성주원(聖住院)에 주지<sup>268)</sup>하는 오백승(五百僧)인데 인연따라 제각기 지나게 되어 이 곳을 경과하게 되었으니,<sup>269)</sup> 원컨대 여기에 머물도록 해주십시오.’하고 입방(入榜)을 요청하였다.<sup>270)</sup> ‘지객(知客)인 삼보<sup>271)</sup>에게로 가라’고 하였는데, 발을 씻고 내 방 쪽으로 가기에 내가 먼저 방으로 돌아가서 들어오라고 청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갑자기 폭우<sup>272)</sup>가 쏟아졌다.”<sup>273)</sup>고 하였다.

忽一夜三寶前, 有一僧問曰, ‘僧來奚自.’ 乃曰, ‘聖住院, 住持五百僧, 隨緣赴感, 經過此地, 遣僧起居.’ 乃 ‘往三寶’, 洗脚

265)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每임.

266)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中임.

267) 승래해자(僧來奚自): “스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라는 뜻이다.

268) 성주원주지(聖住院住持): 여기서 주지란 사원 주지의 직책이 아니고, 성주원(聖住院)에 거주(居住)한다는 뜻이다.

269) 수연부감(隨緣赴感): “인연에 따라 제각기 지낸다.”는 뜻이다.

270) 견승기거(遣僧起居): 스님네가 기거(起居)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즉 그 절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271) 삼보(三寶): 삼보(三輔) 또는 삼보(三甫)라고도 하니, 사원의 지객소임(知客所任)을 가리킨다.

272) 취우(驟雨): 집중적으로 퍼붓는 호우.

273) 방타(滂沱): 폭우가 내리는 모양. 沱는 沱와 같은 字이다.

訖, 向吾房而去, 吾先歸房, 請入不應而去, 驟雨忽滂沱.<sup>274)</sup>

다음 날 아침 사존<sup>275)</sup>에게 “어제 밤에 객스님이 온 적이 있었는가?”라고 물었더니, 사존은 “밤새도록 아무 스님도 온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다만 뜰에 가득 범의 발자국만 있을 뿐이므로 “내가 십만게(十萬偈)인 잡화경<sup>276)</sup>을 봉지하고 옥상<sup>277)</sup>에 귀의한 탓이며, 오백나한이 연궁<sup>278)</sup>에 강림한 까닭으로 영자<sup>279)</sup>를 감득하게 된 것이다.”하였다. 그 후 이 성스러운 나한의 덕을 갚기 위하여 해마다 춘추가절(春秋佳節)에 나한의 묘재(妙齋)를 베풀게 되었는데, 그 까닭이 참으로 할 만하여 그렇게 된 것이기에 제자들이 이를 항례(恒例)로 기록하였다.<sup>280)</sup>

詰旦, 向司存, 問, “夜有客僧來”曰, “終夜無僧來.”滿庭有虎跡, “迺<sup>281)</sup>驗爲吾持十萬雜華, 歸依玉像故, 五百羅漢, 光降蓮宮故, 爲感靈姿.” 疇, 聖德, 每春秋之佳節, 設羅漢之妙齋, 所以然而<sup>282)</sup>然<sup>283)</sup>也, 弟子識之.

274) [苑] [總覽]의 沱와 [全文]의 沱는 相通하는 字이다.

275) 사존(司存): 지객 소임을 맡은 스님을 말한다.

276) 십만잡화(十萬雜華): 10만 계송(偈頌)의 80권 『화엄경』을 가리킨다.

277) 옥상(玉像): 불상을 지칭한다.

278) 연궁(蓮宮): 사원을 가리킨다.

279) 영자(靈姿): 꿈에 나타난 나한(羅漢)을 일컫는다.

280) 제자지지(弟子識之): 스님의 제자가 이 사실을 듣고 그 날짜를 기록해 두고 매년(每年) 춘추가절(春秋佳節)에 나한재(羅漢齋)를 지내게 되었다. 識는 기록할 字이다.

281) [總覽]은 結략이나 [苑] [全文]에는 迺임.

282) [全文]에는 而字가 탈락됨.

283) [全文]에는 然字가 탈락됨.

개보 8년<sup>284)</sup> 정월에 스님은 쇠모(衰貌)에 당하여 고산(故山)에 돌아가기를 간청하였다. 그러나 대왕은 오히려 스님의 자애로운 모습(慈顏)과 이 별하는 것이 아쉬워<sup>285)</sup> 개성에 있는 귀법사(歸法寺)에 주석하도록 청하였으니, “말니<sup>286)</sup> 상진이 그 빛을 감추고 깊은 산중에 있는 것이 옳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인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셔서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환하게 비추어 주는 것이 제자의 소원입니다.”라 하였다. 대사가 말하기를, “소승의 몸이 벽동(碧洞)에서 지내지 아니하고 화려하고 복잡한 경도(京都)에서만 살고 있으니,<sup>287)</sup> 해마다 청산(靑山)이 눈 앞에 선 하며, 날마다 다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그러저러한 유위법(有爲法)에만 반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開寶八年，春正月，大師，以適當衰兒，請歸故山。大王，尚慊別慈顏，請住歸法寺，遂言曰，“末尼上<sup>288)</sup>珍，匿<sup>289)</sup>耀在深山，其可耶，請，見在人間，<sup>290)</sup>炤透三千界，弟子之願也。”大師乃言曰，“僧，不爲栖身碧洞以過，年年寓目靑山而閑，日日，但緣有始有卒，念茲在茲。”

284) 개보팔년(開寶八年): 개보는 송 태조 때의 연호. 개보 8년은 975년(광종 26).

285) 대왕상겸별자안(大王尙慊別慈顏): “대왕이 오히려 스님의 자비로운 모습과 이 별하는 것이 싫어서”라는 뜻이다.

286) 말니(末尼): 마니(摩尼 𑖀maṇi)와 같은 말이니, 주(珠), 보(寶), 여의(如意) 등으로 번역된다.

287) 승불위서신벽동이과(僧不爲栖身碧洞以過): 소승이 몸을 벽동에서 지내지 못한다는 뜻이니, 벽동이란 푸른 산 속의 동굴(洞窟)을 뜻하나, 도교(道教)의 도관(道觀)이라는 뜻도 있다.

288) [苑] [全文]에는 上, [總覽]의 土는 上의 오자임.

289)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匿임.

290) [苑] [全文]의 閑과 [總覽]의 間은 뜻으로는 相通하나, [總覽]의 間이 옳다.

대왕이 비록 옥호<sup>291)</sup>를 연모하나 보원사로 돌아가려는 발걸음을<sup>292)</sup> 멈추게 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대사를 위하여 구름과 더불어 동심(洞心) 속에 머물게(栖息) 하였으니, 마치 달과 함께 허공에 있는 것과 같았다. 그 지혜(智慧)는 일방(一方)을 교화하고 그 덕화는 사방으로 멀리 향기로왔으니, 군신이 찬양(鑽仰)하고 나라의 스승(師資)이 되기에 마땅하다 하겠다. 모두가 보월(寶月)의 광명(光明)을 품고 다 같이 자운(慈雲)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금생에 서로 만남이 다겁생(多劫生)의 인연이라 여겨 공경하는 태도는 겹겹<sup>293)</sup>하고 말과 생각은 간간<sup>294)</sup>하였다. 휘호(徽號)를 받들어 국사(國師)가 되어 달라고 청하였으나, 대사가 늙고 병 들었음을 핑계로 사양하였다.

大王雖戀玉毫，難留蓮步，乃以爲大師。身與雲栖洞心，齊月在空。慧化一方，德馨四遠，正宜君臣鑽仰，邦國師資<sup>295)</sup>□也。咸懷寶月之光，盡入慈雲之蔭，則是今生際會，多劫因緣，致敬謙謙，言懷懇懇。奉徽號，請爲國師，大師，辭以老且病。

그러나 대왕은 마음을 기울여서 다시 간청하였다. 대사가 말하기를, “소승은 도를 닦은 공이 미미하고, 스승이 될 만한 덕이 열음에도 불구하고

291) 옥호(玉毫) : 부처님의 특성인 32상(相) 중 미간백호(眉間白毫)이니, 부처님을 가리킨다.

292) 연보(蓮步) : 위대한 사람이나 미인(美人)이 우아하게 걷는 모양이지만, 여기서 는 법인국사가 보원사(普願寺)로 떠나는 걸음을 말한다.

293) 치경겹겹(致敬慊慊) : 아무리 존경을 해도 항상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을 뜻한다.

294) 연양간간(言懷懇懇) : 말함에 있어 항상 정성스러움을 간직한다는 뜻으로, 간간이란 지성(至誠)스러운 모양을 말한다.

295) [苑] [全文] [拓本]은 資이니, [總覽]의 範도 뜻으로는 상통(相通)한다.

성은을 입음이 적지 않았으므로 과분한 요청이지만 더 이상 사양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대왕이 몸소 도량(道場)에 나아가 조복(朝服)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는 대사에게 예배하고 피석(避席)의 의(儀)를 갖추어 서신(書紳)의 예(禮)를 편 다음, 도를 물어 말씀해 주기를 빌었다. 대사가 말하기를, “소승은 다만 금생의 인연이 포류(蒲柳)의 앞에 당하였고 쇠퇴함은 연라<sup>296)</sup>의 정경(淨境)에서 쉬고자 할 뿐입니다. 몸은 비록 소나무 밑에 있으나 마음은 항상 예궁<sup>297)</sup>에 있어 우러러 용안을 연모하여 오직 대왕의 봉조(鳳祚)를 빌고 있을 뿐입니다.”<sup>298)</sup>하였다.

大王，傾心請矣，稽首言之。大師言曰，“僧學道功微，爲師德薄，猶且荷聖之恩不淺，當仁之讓無由。”大王，躬詣道場，服冕拜爲國師□<sup>299)</sup>之以避席之儀，展之以書紳之禮，于以問道，于以乞言。大師言曰，“僧，但緣當蒲柳之先，衰憩煙蘿之淨境。身歸松徑，心在藥宮，仰戀龍顏，唯祈鳳祚而已。”

이 말을 들은 대왕은 감사하여 말하기를, “법운이 드리운 그늘에 감로(甘露)를 계속 뿌리니 제자도 법화를 입어 멀지 아니합니다.”라고 하며, 정성을 바침이 더욱 간절하였다. 이제 이별하게 되어<sup>300)</sup> 행장(行裝)을 갖추게 하고, 자라법의<sup>301)</sup>와 승가(僧伽)의 모자, 자색(紫色) 실로 삼은 신발,<sup>302)</sup>

296) 연라(煙蘿): 안개가 자욱히 덮힌 칙녕굴. 곧 고요한 난야(蘭若)를 뜻한다.

297) 예궁(藥宮): 천자(天子)의 궁전을 가리킨다. 향초(香草)가 아름답고 번창한 궁전이란 뜻으로, 예자(藥字)는 작(藥)·예(蕊)·예(蓴) 등과 모두 같은 字이니, 꽃술 예字(花心鬚)이다.

298) 유기봉조(唯祈鳳祚): ‘오직 임금의 복을 기원할 뿐’이라는 뜻이다.

299) [苑] [全文]에는 2字의 결락 표시가 있고, [總覽]에는 한 자의 결락 표시가 있음.

300) 방당별로(方當別路): ‘바야흐로 스님과 왕이 서로 이별하는 길을 당하여’라는 뜻이다.

운명차,<sup>303</sup> 천향,<sup>304</sup> 상겸,<sup>305</sup> 무곡<sup>306</sup> 등을 드리는 한편, 승유<sup>307</sup>인 석혜윤(釋惠允)과 원보(元補)인 채현(蔡玄) 등에게 명하여 호위 전송하도록 하고, 대왕은 백관을 인솔하고 동쪽 교외<sup>308</sup>의 조석<sup>309</sup>까지 행행하여 송별연(送別宴)을 베풀고 친히 다과를 올리는 등 성충(聖寵)을 극진히 하였다.

大王謝曰, “法雲聯蔭, 甘露繼垂, 弟子, 蒙法化以非遙.” 展精誠而益切. 方當別路, 爲備行裝, 贈以紫羅法衣, 僧伽帽, 紫結絲鞋, 雲茗天香, 霜縑霧縠等, 苐命僧維, 釋惠允, 元輔蔡玄等, 衛送, 大王, 率百官, 幸東郊祖席, 與儲后, 親獻茶菓, 仍寵許.

대사의 문하승(門下僧) 중에 명망이 있어 대사(大師)와 대덕(大德)이 될

301) 자라법의(紫羅法衣) : 자색 비단으로 만든 가사이니, 이는 율제(律制)에 따른 삼종괴색(三種壞色)에 의한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처음으로 법랑(法郎)스님 등에게 하사하였다.

302) 자결사혜(紫結絲鞋) : 자색 실로 삼은 신발.

303) 운명(雲茗) : 차(茶)의 이름. 곧 구름 같은 차.

304) 천향(天香) : 향(香)의 이름. 곧 하늘 같은 향.

305) 상겸(霜縑) : 서리와 같이 희고 고운 옷감.

306) 무곡(霧縠) : 안개와 같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옷감.

307) 승유(僧維) : 승직(僧職)이니, 승록(僧錄) 또는 소현승(昭玄僧)과 같다.

308) 동교(東郊) : 동방의 교외(郊外). 옛날 입춘일(立春日)에 동교의 들판에서 봄 제사(祭祀)를 지냈는데, 전하여 ‘봄날의 들녘’이라는 뜻이다. 『예기』「월령月令」, “立春之日 天子親帥三公九卿諸侯大夫 以迎春於東郊”.

309) 조석(祖席) : 조연지석(祖宴之席)의 준말. 조연(祖宴)·조연(祖筵)·조음(祖飮)·송별연(送別宴) 등과 같은 말로써, 길 떠나는 사람에게 금품(金品)을 선물하거나, 시가(詩歌)를 읊어 전별(餞別)하는 자리, 곧 송별연을 말한다. 조(祖)는 도신(道神)에게 제사지낼 조字이다(祭道神). 한유(韓愈), 「조석시祖席詩」, “祖席洛橋邊 親交共黯然”.

만한 이가 2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남쪽 들판의 토지 1,000경과 노비 50명을 베풀었는데, 국사가 감사하며 말하기를, “넉넉히 성택(聖澤)을 더하여 스님들에게 지극한 존경과 공양을 베풀었으니,<sup>310)</sup> 이는 천생 동안 받을 복이므로 헛되지 않을 것이며, 길이 만겁 동안 닦은 공덕이니 어찌 그 수승(殊勝)함을 이루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라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임금께서는 절을 하고 말하기를, “제자는 스님의 자비하신 위력(威力)에 의지하여 몸을 닦으며, 묘법(妙法)에 귀의하여 사람을 교화하겠으니, 간절히 스님께 바라옵건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되돌아가<sup>311)</sup> 다시 경읍(京邑)으로 오시어 길이 길이 자비하신 지도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大師門下僧，有名行者，可大師，大德，二十人。納南畝一千頃，佛奴五十人，國師謝曰，“優加聖澤，壯觀僧田，千生之福，不唐捐，万劫之功，何勝計矣。”上頂拜曰，“弟子，倚慈威而修已，歸妙法以化人，必望法體，復初它<sup>312)</sup>心如舊，再歸京邑，永示慈悲。”

대사가 말하기를, “전생(前生)에 맺은 인연으로<sup>313)</sup> 금생에 폐하의 국토에 태어나서<sup>314)</sup> 황왕(皇王)의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나 지중(至重)하여 창해(滄海)의 깊음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고산(故山)에 돌아가 만약 여천(餘喘)의 연장을 얻게 된다면<sup>315)</sup> 곧 바로 운궐<sup>316)</sup>로 돌아와서 다시

310) 장관승전(壯觀僧田): 왕이 스님들에게 융숭한 존경과 공양을 베풀었다는 말이다. 승전이란 공양 공경하면 복전(福田)이 되는 스님을 뜻한다.

311) 부초타심여구(復初它心如舊):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되돌아가다.”의 뜻이다.

312) [苑] [全文]에는 它, [總覽]의 宅은 它의 오자임.

313) 숙체인연(宿締因緣): ‘전생에 맺은 인연으로’라는 뜻이다.

314) 금생국토(今生國土): 금생에 임금의 나라에 태어났다는 말이다.

315) 득연여천(得延餘喘): 여천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뜻이다. 여천이란, 죽음에

천안<sup>317)</sup>을 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만, 만약 흘러가는 물을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처럼<sup>318)</sup> 남은 여생을 머물게 하지 못한다면, 바라건대 내생에는 다시 사문(沙門)이 되어 더욱 법연(法緣)을 증험하고, 우러러 왕화(王化)의 깊은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해가 이미 저물었습니다.”<sup>319)</sup>라 하고 절을 한 다음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하였다. 대왕은 스님의 상헌<sup>320)</sup>을 바라보면서 목송(目送)하고, 호석<sup>321)</sup>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스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후로도 임금이 탄 난가(鸞駕)를 스님이 계신 곳에 멈추거나<sup>322)</sup> 때로는 어거(御車)를 세우기도<sup>323)</sup> 하였으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러서 문안

가까운 사람의 천식(喘食)이 심하여 호흡이 끊어 질듯 말듯하는 상태. 곧 죽음에 가까운 사람의 명(命)을 말함이니, 남은 여생(餘生)이 있다면의 뜻이다. 소순흠(蘇舜欽)·소순원(蘇舜元), 「비이자연구비이子聯句」, “餘喘尙能鼓 老憤知已結”.

316) 운궐(雲闕): 구름과 같이 높이 솟은 궁궐. 포조(鮑照), 「대륙평원군자유소사행대 陸平原君子有所思行」, “西出登雀臺 東下望雲闕”.

317) 천안(天顔): 용안(龍顔)과 같은 뜻이니 천자의 어안(御顔)을 가리킨다. 『남제서 南齊書』 「예장왕역전 豫章王嶷傳」, “永侍天顔 以惟畢世”.

318) 서수난정(逝水難停): 흘러가는 물은 멈출 수 없다는 말이다. 서수를 서천(逝川)이라고도 한다. 곧 시냇물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 오지 못한다는 비유이니, 전하여 늙어진 몸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 비유한다. 왕포(王褒), 「위지강묘비尉遲綱墓碑」, “逝水詎停 光陰不借”; 증공(曾鞏), 「虞美人草詩」, “滔滔逝水流今古 漢楚興亡兩丘土”; 『논어』 「자한子罕」,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

319) 일운모의(日云暮矣): 해는 이미 저물었다는 뜻이다.

320) 상헌(象軒): 스님이 타고 가는 큰 수레, 즉 연(輦)이란 뜻이다.

321) 호석(虎錫): 해호석(解虎錫)의 준말. 육환장(六環杖)을 가리킨다. 제(齊)나라 때 승조(僧稠)스님이 육환장을 날려 호랑이의 싸움을 말린 데서 온 말이다. 「정진 대사원오답비문」 주89) 호석장虎錫杖 [고려편1] p.397.

322) 우이정란(于以停轡): 임금이 탄 난가(鸞駕)를 멈춘다는 뜻으로, 난이란 임금이 타는 수레인데 사마표(四馬鑣)와 팔란(八轡)으로 되어 있다. 곧 임금이 친히 스님을 잠깐 방문하려 왔다는 말이다.

323) 주궐(駐蹕): 주연(駐輦)·주가(駐駕)·주란(駐轡)·정가(停駕) 등과 같은 뜻으로,



을 올렸다.<sup>324)</sup> 뿐만 아니라 계속 안부를 묻는 사신<sup>325)</sup>을 보냈고, 자주 슬프고 연모하는 마음을 담은<sup>326)</sup>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sup>327)</sup> 스님들과 신도가 물결처럼 모여들었고<sup>328)</sup> 팔부신장(八部神將)과 호법영지(護法靈祇) 등이 항상 스님을 옹호하였다.<sup>329)</sup>

大師言, “宿締因緣, 今生國土, 荷皇王之恩重, 勝滄海之波深. 今歸故山, 得延<sup>330)</sup>餘喘, 卽望再赴雲闕, 更對天顏. 儻若逝水難停, 殘生莫駐, 卽願必當來世, 更作沙門, 益驗法緣, 仰禱, 王化. 日云暮矣.” 拜稽首泣別. 望象軒而目送, 想虎錫以心傾. 于以停鑾, 于以駐蹕, 繼降起居之星使, 頻傳愴戀之綸言, 自是, 黑白奔波, 神祇擁路.

행신(行辛)하는 도중에 어거(御車)를 정차하는 것. 또는 일시(一時) 정차하여 그 곳에 머무는 일을 말한다.

324) 계강기거지성사(繼降起居之星使): 계속해서 기거에 대한 문안을 하는 성사를 보낸다는 뜻이니, 기거란 거지(舉止)·동정(動靜)·거동(舉動) 등과 같은 뜻으로 안부를 말한다.

325) 성사(星使): 천자의 사자(使者) 또는 칙사(勅使). 옛날 천문가(天文家)들이 말하기를, ‘천상(天上)에 사성(使星)이란 별이 있어서 인간(人間) 천자의 사신을 주관한다.’고 하여 천자의 사자를 성사라고 하게 되었다고 한다.

326) 빈전창련지륜언(頻傳愴戀之綸言): 자주 창련한 마음을 알리는 윤언을 전한다는 뜻이다. 창련이란 슬프고 연모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327) 윤언(綸言): 윤음(綸音)과 같은 뜻으로, 곧 천자의 말을 가리킨다. 천자의 말은 입에서 처음 나올 때는 마치 실날같이 가늘지만, 한 번 출언(出言)된 말은 천하에 도달(到達)할 때까지 마치 밧줄과 같이 굵고 힘이 있어 끊어짐이 없어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328) 흑백분파(黑白奔波): 출가 제자인 스님(緇衣)과 재가 불자인 신도(白衣)가 마치 물결처럼 모여든다는 뜻이다.

329) 신기웅로(神祇擁路): 팔부신장(八部神將:天神)과 영기등중(靈祇等衆:地神)이 항상 스님의 길을 옹호한다는 뜻이다.

330) [苑] [總覽]에는 延, [全文]의 延은 延의 오자임.

우리러 마음을 기울여(傾心)의 공경을 이루었으니 어찌 포발(布髮)의 영접<sup>331)</sup>을 필요로 하겠는가. 스님의 일행이 가야산사<sup>332)</sup>에 당도하니, 그 절의 스님들이 부처님을 영접하듯 하였으며, 선악(仙樂)도 갖추었다. 이 때 번개<sup>333)</sup>가 구름처럼 날리고 발라<sup>334)</sup>는 우뢰와 같이 진동하였다. 선교승(禪敎僧) 1,000여명이 영접하여 절로 모셨다. 대사가 문인과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나는 곧 서거(逝去)할 것이니, 석실(石室)을 만들어 거기에 시신을 두되, 적당한 위치를 잡을 것이니,<sup>335)</sup> 내가 상용하던 의발(衣鉢)은 꼭 속에 넣어서 몸을 따르게 하고,<sup>336)</sup> 법구(法具)는 문도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

331) 포발지영(布髮之迎): 포발업니(布髮掩泥)라고도 한다. 머리카락을 풀어 진흙땅에 퍼서 부처님의 발이 흙에 묻지 않게 하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석존(釋尊)께서 과거 인행시(因行時), 유동(儒童)으로 보살행을 닦을 때, 정광불(錠光佛)을 위해 흙길위에 머리를 풀어 지려 밟게 하였던 일로 그 때 정광불은 유동에게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授記: 예언)를 주었다. 『수행본기경(修行本起經)』권상(대정장3, p.462b); 『육도집경(六度集經)』권8(86); 『유동수결경(儒童受決經)』(대정장3, p.47c)에 “昔者菩薩 生鉢摩國 時爲梵志 名曰儒童 爾當於彼 拯濟衆生 時獲度者 難爲等算 儒童心喜 踊在虛空 去地七仞 自空來下 以髮布地 令佛踏之 世尊跨畢 告諸比丘 有智之士 峙刹于茲 與受決同”이라고 하였으며, 『대지도론(大智度論)』(대정장25, p.87a)에는 “是中 菩薩 七枝青蓮華 供養燃燈佛 敷鹿皮衣 布髮掩泥 是時燃燈佛 便授其記 汝當來世作佛 名釋牟尼”라고 하였다.

332) 가야산사(迦耶山寺):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가야산 보원사.

333) 번개(幡蓋): 패번(掛幡)과 산개(傘蓋). 번은 패번이라고도 하는데, 삼신번(三身幡) 또는 오방번(五方幡)과도 같다. 종이나 비단에 부처님의 명호(名號) 또는 법구(法句)를 써서 법당이나 도량에 건다. 개란 산개(傘蓋)로써 뜨거운 태양볓을 가리는 것으로 양산 또는 차일(遮日)과 같다.

334) 발라(鉢螺): 나발과 소라. 불교 무용인 승무(僧舞)를 출 때 반조(伴助)하는 불교의 악기이다. 발은 발(鉢)이라고도 하는데 방울을 말하고, 나는 소라이니 산고동소리로서 바라[哼囉] 또는 법나(法螺) 등을 가리킨다. 『법화경(法華經)』, “云 若使人作樂 擊鼓吹角 貝 簫笛琴笙 篳篥琵琶 鐃銅鈸 如是衆妙音 盡持以供佛”.

335) 여조상기지(汝曹相其地): “너희들은 그 석실을 안치할 땅을 잡으라.”는 뜻이다. 상은 땅을 상본다는 것이니, 터를 선택한다는 뜻이다.

였다. 대왕이 이를 듣고 상의<sup>337)</sup>공봉시랑인 직문<sup>338)</sup>에게 명하기를, “특별히 유념하여 선약(仙藥)을 가지고 가서 곁에 있으면서 조석으로 간호하라.”고 하였다.

仰致傾心之敬, 何殊布髮之迎. 行至迦耶山寺, 其僧徒等, 如迎佛, 具仙藥. 於是, 幡盖雲飛, 鉢螺雷吼. 教禪一千餘人, 迎奉入寺. 大師, 乃命門弟子等曰, “吾當逝矣, 爲石室安厝之, 汝曹相其地, 便捨衣鉢隨身, 法具施與門徒等.” 大王, 命尚醫供奉侍郎直文, “別費仙藥, 晨夕侍護.”

대사가 시랑(侍郎)에게 이르기를, “노승(老僧)의 병에는 구제할 약(救藥)이 없으니, 청컨대 시랑은 곧 상궐<sup>339)</sup>로 돌아가서 용지<sup>340)</sup>를 잘 시호(侍護)할 것이지 어찌 노승을 위하여 오랫동안 머물러 있겠는가.” 하였다. 가히 유마거사의 병에는 동군<sup>341)</sup>의 약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 
- 336) 의발수신(衣鉢隨身): 가사와 바리때를 곁 속에 시신과 함께 넣어달라는 말이다.
- 337) 상의(尙醫): 상의서(尙醫署)는 봉의서(奉醫署)라고도 하는데, 고려 때의 관청이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약을 조제하는 일을 맡아 보았다. 목종(980~1009) 이래 상약국(尙藥局)이라고 하던 것을 충선왕 2년(1310)에 장의서(掌醫署)로 고쳤다가 얼마 후 봉의서로 개칭하였다. 1356년에 상의국(尙醫局)으로, 1362년에는 다시 봉의서로, 1369년에 다시 상의국으로, 1372년 또 다시 봉의서로 고쳤는데, 1391년에 이르러 전의시(典醫寺)와 병합되었다.
- 338) 직문(直文): 상의공봉시랑(尙醫供奉侍郎)의 이름이다.
- 339) 상궐(象闕): 상위(象魏)와 같다. 궁성의 문을 지칭한다.
- 340) 용지(龍墀): 궁중의 뜰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임금의 지칭한다. 지(墀)는 대궐뜰 지字이다.
- 341) 동군(桐君): 중국 황제(黃帝) 때의 사람이다. 일찍이 약을 캐면서 도를 구하였다. 항상 절강성(浙江省) 동려현(桐廬縣) 동쪽 산의 오동나무 곁에서 살았다고 하며, 어떤 사람이 그의 성(姓)을 물으면 그는 오동나무를 가리켜 보였으므로 세인(世人)들이 그를 동군이라고 하였다. 그 후부터 그 현을 동현(桐縣), 강을 동

大師曰, “老僧之病, 更無聖救<sup>342)</sup>藥, 請侍郎, 旋歸象闕, 好侍龍  
輝.” 何爲老僧, 久滯山寺, 可爲維摩之疾, 不假桐君之藥.

대사는 항상 마음을 몸의 주인으로 삼았고, 몸으로 마음의 스승을 삼았다. 음식은 여러 가지를 먹지 않았고 옷은 계절에 따라 바꾸어 입지 않았으니,<sup>343)</sup> 그의 60년 동안 살아온 자취가 이와 같았다. 태사대왕<sup>344)</sup>도 마땅히 우리 스님에게 예배(禮拜)하였으니, 어찌 저 부처님께 귀의함과 다르랴. 그러므로 예의가 돈후(頓厚)하고 은총(恩寵)이 숭우(崇優)하였다. 계급법의(闕錦法衣)를 보내 드리고 사륜<sup>345)</sup>선찰<sup>346)</sup>로 문의하였다. 공양하는 시물(施物)을 보내지 않는 달이 없었고,<sup>347)</sup> 붓으로 친히 써서 보내는 편지가 끊어지질 않았으니,<sup>348)</sup> 저 한(漢)나라 명제(明帝)가 마등(摩騰)스님을 존경하고<sup>349)</sup> 오(吳)나라 손권(孫權)이 강승회(康僧會)스님을 존중한 것을<sup>350)</sup> 가히

강(桐江), 계를 동계(桐溪), 영을 동령(桐嶺), 산을 동군산(桐君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그는 초목(草木)과 금석(金石)의 성미(性味)를 잘 알아 삼품약(三品藥)을 정하고, 『채약별록採藥別錄』을 지었다고 한다.

342) [總覽]에는 聖. [苑] [全文][拓本]에는 救이니 聖이 오자임.

343) 균복(均服): 한 벌의 옷 또는 단벌의 옷을 말한다.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다.

344) 태사대왕(太師大王): 광종대왕(949~975 재위).

345) 사륜(絲綸): 사언(絲言)이라고도 하며, 천자의 조서, 임금의 친서를 가리킨다. 임금의 말은 실과 같이 가늘지만, 신하(臣下)는 이를 거행(舉行)할 때 마치 굵은 끈처럼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다. 『예기』「치의縑衣」, “子曰 王言如絲 其出如綸 王言如綸 其出如紼”.

346) 선찰(仙札): 선찰이란 임금이 보내는 편지, 친서를 말한다.

347) 지무허월(贊無虛月): 임금이 사사공양(四事供養)에 대한 시물(施物)을 보내지 않는 달이 없었다는 말이다.

348) 필부절서(筆不絕書): 임금이 스님에게 문안의 편지를 끊이지 않게 하였다는 뜻이다.

동년의 선상에 놓고 말할 수 있겠는가!

大師, 心爲身主, 身作心師. 食不異糧, 衣必均服, 其六十餘年, 行事也如是. 太師大王, 必當禮足於吾師, 何異歸心於彼佛. 故乃禮之厚, 寵之優. 贈之以罽錦法衣, 問之以絲綸仙札.<sup>351)</sup> 贊無虛月, 筆不絕書, 彼漢帝之敬摩騰, 吳主之尊僧會, 不可同年而語哉.

개보 8년<sup>352)</sup> 용집(龍集) 을해(乙亥) 3월 29일, 대사께서 곧 열반에 들고 자 하여 목욕을 하고나서 대중을 모아 놓고 유훈을 내리시기를, “사람은 노소가 있으나 불법에는 선후가 없다. 부처님께서도 구시나가라 사라쌍수(娑羅雙樹) 밑에서 입멸을 고하셨으니,<sup>353)</sup> 만법(萬法)은 마침내 공(空)으로

349) 한제지경마등(漢帝之敬摩騰): 한나라 명제(明帝)가 불교를 들여오기 위해 처음으로 서역(西域)의 마등스님을 초빙하여 공경하였다는 말이다. 「지증대사적조답비문」 주21)한징패일漢徵佩日 [신라편] p.296, 주38)섭등동입葉騰東入 [신라편] p.298; 「진철대사보월승공답비문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文」 주116)마등선척한왕지전摩騰先陟漢王之殿 [고려편1] p.29; 「통진대사보운답비문」 주10)마등부한摩騰赴漢, 「원종대사혜진답비문」 주188)마등부한摩騰赴漢 본서 p.266 참조.

350) 오주지존승회(吳主之尊僧會): 오나라 임금인 손권(孫權)이 불교 전파를 위해 처음으로 입국한 강승회(康僧會)스님을 지극히 존경하였다는 말이다. 「지증대사적조답비문」 주40)강회남행康會南行 [신라편] p.298; 「진철대사보월승공답비문」 주117)강거승회시승오주지거康居僧會始昇吳主之拒 [고려편1] p.29; 「통진대사보운답비문」 주9)승회유오僧會遊吳 [고려편1] pp.349~350; 「원종대사혜진답비문」 주189)승회유오僧會遊吳 본서 p.266 참조; 대정장50, p.325a 등 참조.

351) [苑]에는 札, [全文]과 [總覽]에는 扎, 扎은 札의 속자(俗字)임.

352) 개보팔년(開寶八年): 개보는 송 태조 때의 연호. 개보 8년은 975년(광종 26).

353) 쌍수고멸(雙樹告滅):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 사쌍팔척(四雙八隻)으로 된 사라나무 사이에서 열반에 드신 것을 가리킨다. 곧 사라쌍수(娑羅雙樹) 사이에서 입멸(入滅)하셨다는 말이다. 「원종대사혜진답비문」 주229)학수鶴樹 본서(本書) p.271

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곧 먼 곳으로 떠나려 하니 너희들은 잘 지내면서 여래(如來)의 정계(正戒)를 잘 보호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라.”<sup>354)</sup> 고 말씀하신 후 방으로 들어가서 엄연(儼然)하게 가부좌를 맺고 당사(當寺) 법당(法堂)에서 입멸하였으니, 세수(世壽)는 76세요, 승랍은 61이었다. 이날 새벽 산빛은 성지(聖地)에 무너지고,<sup>355)</sup> 달은 법당 앞 향정(香庭)에 떨어졌다.<sup>356)</sup> 인령<sup>357)</sup>이 모두 애통해하고 송백(松栢)은 처참하였다. 문하의 스님들은 모두 위락(萎落)의 탄식을 일으켜<sup>358)</sup> 이젠 누구를 의지하라 하고 슬픔을 머금고<sup>359)</sup> 벽용<sup>360)</sup>하면서 통곡하니 그 울음소리가 암곡(巖谷)을 진동하였다. 신좌<sup>361)</sup>를 받들어 가야산(迦耶山) 서쪽 능선으로 옮겨서 우선 임시로 석호(石戶)를 만들어 봉폐(封閉)하였다. 빛은 금지(金地)를 참담하게 하였고<sup>362)</sup> 소리는 옥경(玉京)에까지 들렸다.<sup>363)</sup>

開寶八年，龍集乙亥，春三月，十九日，大師將化往，盥浴訖，

참조.

354) 호지육지재(護之屬之哉): “받은 바 부처님의 정계(正戒)를 잘 보호하고 더욱 힘써 지키라.”는 당부의 말이다.

355) 산퇴성지(山頽聖地): 산빛이 성지로 무너져 내렸다는 말이다.

356) 월추향정(月墮香庭): 달이 법당 앞 뜰인 향정에 떨어졌다는 말이다.

357) 인령(人靈): 사람과 그 외 모든 생령(生靈)들을 말한다.

358) 기기위지탄(起其萎之歎): 그 빛나던 위업이 사라졌음을 탄식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359) 함안앙지비(含安仰之悲): 이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머금는다는 말이다.

360) 벽용(擗踊):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슬퍼하는 것 또는 통곡하는 것을 말한다. 벽은 손으로 가슴을 때리는 것이고 용은 발로 땅을 치는 것이다. 『효경孝經』「상친장喪親章」, “擗踊哭泣 哀以送之”.

361) 신좌(神座): 시신을 담은 영구(靈柩)를 가리킨다.

362) 색참금지(色慘金地): 도량이 참담함을 말한다.

363) 성문옥경(聲聞玉京): 법민국사가 입멸소식이 옥경인 왕궁까지 전해졌다는 말이다.

房前命衆, 迺遺訓曰, “人有老少, 法無先後, 雙樹告滅, 萬法歸空, 吾將遠遊, 爾曹好住, 如來正戒, 護之勗之哉.” 言畢入房, 儼然跌<sup>364</sup>坐, 示滅于當寺法堂, 俗年七十六, 僧臘<sup>365</sup>六十一. 是晨也, 山頽聖地, 月墜香庭. 人靈, 於是哀哀, 松栢, 因而慘慘. 門下僧等, 起其萎之歎, 含安仰之悲, 擗踊慟哭, 聲振巖谷. 奉遷神座于迦耶山西崗, 權施石戶<sup>366</sup>封<sup>367</sup>閉.<sup>368</sup> 色慘金地, 聲聞玉京.

광종대왕(光宗大王)이 부음(訃音)을 듣고 크게 진도(震悼)하였으니, 깨달음의 꽃무리(覺花)가 앞서 떨어짐을 슬퍼하고 지혜의 달(慧月)이 일찍 빠짐을 개탄하였다. 편지로 조문하고<sup>369</sup> 곡물로 부의하여 조출한 공양(淨供)에 충당하여 현복(玄福)을 넉넉히 지었다.<sup>370</sup> 영정(影幀) 일정(一燈)을 조성하고 이어 국공(國工)으로 하여금 층층<sup>371</sup>을 세우도록 하니, 문인들이 호곡하면서 색신(色身)을 받들어 가야산 서쪽 등에 탑을 세웠으니 이는 상법(像法)을 준수한 것이다. 거기에 법을 전해 받은 큰 제자인 삼중대사(三重大師) 영찬(靈撰)과 일광(一光), 그리고 대사(大師)인 명회(明會)·병림(苙林)·윤경(倫慶)·언현(彦玄)·홍렴(弘廉)과 대덕(大德)인 현오(玄悟)·영원(靈遠)·현광(玄光)·진행(眞幸) 등은 모두 석문의 귀경(龜鏡)이

364) [苑]에는 跌, [全文] [總覽]의 跌은 跌의 오자임.

365) [苑] [總覽]에는 臘, [全文]의 臘은 臘의 오자이며, 납(臘)은 납(臘)과 같은 자임.

366) [苑] [總覽]에는 戶, [全文]의 戶는 戶의 오자임.

367) [苑] [總覽]에는 封, [全文]의 土는 封의 오자임.

368) [苑] [總覽]은 閉, [全文]은 閉, 閉는 閉의 속자임.

369) 조이서(吊以書): 왕이 친서를 보내어 조의(弔意)를 표하였다는 말이다.

370) 섬현복(贍玄福): 명복을 위해 넉넉히 도왔다는 뜻이다.

371) 층층(層層): 층으로 된 무덤이므로 사리탑(舍利塔)을 가리킨다.

며 범원<sup>372)</sup>의 경종<sup>373)</sup>으로 지거(智炬)의 여휘(餘輝)를 계승하고,<sup>374)</sup> 자헌(慈軒)의 왕철(往轍)을 종습하였다.<sup>375)</sup> 스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뼈 속 깊이 사무쳤으며<sup>376)</sup> 성화(聖化)에 귀의하여 항상 마음에 잊지 아니하였다.

光宗大王, 聞之震悼, 嗟覺花之先落, 慨慧月之早沉. 吊以書, 賻<sup>377)</sup>以穀, 所以, 資淨供, 瞻玄福, 敬造眞影壹竈, 仍令國工, 封層冢, 門人等, 號奉色身. 豎<sup>378)</sup>塔于迦耶山西崗, 遵像法矣. 厥有傳<sup>379)</sup>法大弟子三重大師靈撰, 一光, 大師明會, 芮林, 倫慶, 彦玄, 弘廉, 大德玄悟, 靈遠, 玄光<sup>380)</sup>, 眞幸等, 並釋門龜鏡, 法苑<sup>381)</sup>鯨鍾, 繼智炬之餘輝, 踵慈軒之往轍. 感師恩而篆骨, 歸聖化以懸心.

372) 범원(法苑): 범의정원(法義庭苑)의 준말. 일체세간(一切世間)의 진실과 의미인 범의(法義)가 망라되어 실려(叢在) 있으므로 범원(法苑)이라고 한다.

373) 경종(鯨鍾): 경음(鯨音)이라고도 하는데, 큰 종 또는 경종(警鐘)이므로, 곧 범종(梵鐘)을 지칭한다. 육유(陸游), 「옹희청궐노소雍熙請機老疏」, “鯨鐘鼙鼓 無非塗毒家風 蘿月谿雲 盡是放翁供養”. 「원종대사혜진답비문」 주253)경종鯨鍾 본서(本書) p.275 참조.

374) 계지거지여휘(繼智炬之餘輝): 「통진대사보운답비문」 주106)계지거지여휘繼智炬之餘輝 [고려편1] p.358; 「원종대사혜진답비문」 주255)계법거지여휘繼法炬之餘輝 본서(本書) p.275 참조.

375) 종자헌지왕철(踵慈軒之往轍): 「통진대사보운답비문」 주105)종자헌지왕철踵慈軒之往轍 [고려편1] p.358; 「원종대사혜진답비문」 주254)종자헌지왕철踵慈軒之往轍 본서(本書) p.275 참조.

376) 전골(篆骨): 마치 문신처럼 뼈 속 깊이 새겨 든다는 뜻이다.

377) [全文]에는 賻. [總覽] [苑] [拓本]에는 贈. 賻와 贈은 뜻으로는 상통하나 여기서는 賻가 더 적절한듯하다.

378) [苑] [全文]에는 豎. [總覽]의 豎은 竪의 오자임.

379) [全文]에는 傳자가 탈락됨.

380) [苑]에는 光, [全文] [總覽]에는 光. 光은 光의 本字이다.

381) [苑] [全文] [總覽]의 苑은 苑의 오자임.



지금의 임금<sup>382)</sup> 벽(壁)에 당하여<sup>383)</sup> 왕위를 계승하였다.<sup>384)</sup> 몽령<sup>385)</sup>의 나이에 보위(寶位)에 올라 인풍(仁風)을 드날려 세속을 제도하고 불일(佛日)을 도와 삼보(三寶)를 존숭하였다.<sup>386)</sup> 왕이 제지(制旨)를 내려 이르기  
를, “선조<sup>387)</sup>국사 고가야산 홍도대사는 취령(鷲嶺)의 현언(玄言)을 상고하  
며 용궁(龍宮)의 오지<sup>388)</sup>를 연구하였으며, 이에 불교를 중흥하고 그 빛으  
로 우리나라를 교화하였으므로 성고(聖考 : 光宗)께서 받들어 국사로 모시  
되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였다. 현화(玄化)는 널리 온 누리에 퍼져  
나갔고<sup>389)</sup> 자풍(慈風)은 그 빛 또한 온 천하<sup>390)</sup>에 입혔다. 나는 오히려 하늘

382) 금상(今上) : 제5대 경종 임금을 지칭한다.

383) 당벽(當壁) : 모든 왕자의 이름을 무작위로 쓴 구슬을 사직(社稷)의 제사하는 뜰  
에 묻어 놓고, 구슬 바로 위에 서서 질하는 왕자를 선택하여 왕위(王位)를 계승  
하게 하였다는 데서 온 고사이다. 「원종대사혜진탑비문」 주132) 당벽當壁 본서  
(本書) p.258 참조.

384) 승조(承祧) : 왕위를 계승하였다는 뜻. 조(祧)는 체천(遞遷)한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祠堂), 곧 천묘(遷廟)로써 태조로부터 체천한 7대를 봉안한 종묘이니, 원조  
(遠祖)를 함께 모신(合祀)한 사당이다. 천자는 7묘(廟)이니 삼소(三昭) 삼목(三  
穆)이고, 제후(諸侯)는 5묘이니 이소(二昭) 이목(二穆)이며, 대부(大夫)는 3묘이  
니 일소(一昭) 일목(一穆)이고, 하사(下士)는 1묘이다.

385) 몽령(夢齡) : 몽령(蒙齡)이라고도 하니, ‘나이 어린 때’라는 말이다. 금상 즉 경종  
이 955년에 탄생하여 976년에 즉위(即位)하였으므로, 21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말이다.

386) 휘불일이존승(擬佛日以尊僧) : 부처님의 광명인 불일(佛日)을 도우며, 스님들을  
존경하였다는 말이다.

387) 선조(先朝) : 태조, 혜종, 정종, 광종 등 4대를 지칭한다.

388) 용궁지오(龍宮之奧) : 용궁이란 용궁해장묘만법(龍宮海藏妙萬法)의 줄임말이다.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을 담고 있는 팔만대장경의 오지(奧旨)를 가리킨다.

389) 현화탄부어보솔(玄化誕敷於普率) : 현화가 크게 보솔에 퍼져 있다는 말이다. 보  
솔이란 보친솔토(普天率土)의 준말로써 온 누리를 뜻한다.

390) 환영(寶瀛) : 신선이 거주하는 곳, 또는 ‘깊은 산골과 바다 속의 작은 섬에 이르기  
까지’의 뜻이므로, 천하 방방곡곡을 가리킨다.

의 명을 받아(命勅) 스님으로 하여금 돌아가시지 않도록 간여하지 못하였으니, 중생들이 모두 배움의 길이 끊어졌음을 원망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선지(先志)를 계승하여 홀추<sup>391)</sup>하고, 숭덕(崇德)하는 원인을 나타내고자 멀리서 역명(易名)의 의전<sup>392)</sup>을 거행하였다. 그리하여 시호를 법인(法印), 탑명(塔名)을 보승(寶乘)이라 추증하였다.

伏遇今上，當璧承祧。夢齡襲美，扇仁風而濟俗，攝佛日以尊僧。制曰，“先朝國師故迦耶山弘道大師，考驚<sup>393)</sup>嶺之玄言，究龍宮之奧旨，聿興聖教，光化仁方故，乃聖考，奉以爲師，敬之如佛。玄化誕敷於普率，慈風光被於寰瀛。余尚慊天不慙遺，衆其絕學。”繼之先志，奉以適追，欲旌崇德之因，遠舉易名之典。故追諡曰，法印，塔名寶乘。

그 보여줌이 더욱 아름답고 그 전적(傳跡)이 찌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에 스님의 본말행적<sup>394)</sup>을 담은 비석을 세워 길이 송문(松門)을 빛나게 하려고 허락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문인과 제자들이 서로 경하해 하면서 멀리 선조 대대로 임금이 불교를 외호해 준 은혜에 감사하니 애(哀)와 영(榮)이 망극하고, 큰 은혜를 오늘에까지 입으니 충우(寵遇)가 매우 깊도다. 대왕의 은혜를 받들어<sup>395)</sup> 대사의 행장을 모아 올렸다. 임금이 이 행장<sup>396)</sup>

391) 홀추(通追): 선인(先人)의 뜻을 흠모하여 봉행하면서 따라간다는 뜻이다.

392) 역명지전(易名之典): 이름을 바꾸어 시호(諡號)를 부르게 하는 의식. 곧 왕이 죽은 이에게 시호를 추증하는 것을 말한다. 『예기』「단궁」‘하’, “公孫文子 卒 其子戊 請諡於君 曰 日月有時 將葬矣 請所以易其名者”.

393) [苑] [總覽]에는驚, [全文]의驚은驚의 오자임.

394) 본말(本末): 법인국사의 생(生)에서 사(死)에 이르기까지, 곧 종초지말(從初至末)의 행적을 가리킨다.

395) 감현조어선조(感玄造於先朝): 멀리 선조(先朝) 대대로 임금들이 불교를 외호(外

을 받아 정언(廷彦)에게 하조(下詔)하였으니, “경은 국사수찬관(國史修撰官)이 되어<sup>397)</sup> 직접 많은 전적<sup>398)</sup>을 보았을 것이니 국사의 비문을 짓도록 하라.”는 사륜(絲綸)이 드디어 나의 손까지 닿았다.<sup>399)</sup>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돌듯 마음을 다하라.<sup>400)</sup> 선왕께서 고명(顧命)하시어 학사(學士)를 더 하여 대우하였으니,<sup>401)</sup> 그대는 마땅히 국사의 비명을 지어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되, 큰 뜻을 잡아 행장을 적어서 비석<sup>402)</sup>에 새기고 스님의 도덕을 기록하라.”고 하셨다.

爲其示以彌芳，傳之不朽，乃許勒本末石，耀雲松<sup>403)</sup>門，乃門弟子等，相慶曰，“感玄造於先朝，哀榮罔極，沐鴻恩於今日，寵遇方深，奉大王恩，狀大師行進，上乃詔廷彦曰，“乃嘗爲國史，

護)해 준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이다.

396) 행진(行進) : 행장(行狀)을 지칭한다.

397) 상위국사(嘗爲國史) : 김정언(金廷彦)이 일찍이 감수국사관(監修國史官)을 역임한 바 있었다는 뜻이다.

398) 재적(載籍) : 서적 또는 도서관이란 뜻이다. 『후한서』 「반고班固」, “博貫載籍 九流百家之言 無不窮究”.

399) 사륜수장(絲綸遂掌) : 사륜은 윤음(綸音), 사음(絲音), 윤언(綸言) 등과 같은 말로써 왕의 조칙, 곧 임금의 친서를 말하므로, 왕의 조서를 맡아 처리하는 직책을 맡았다는 말이다. 『예기』 「치의」, “子曰 王言如絲 其出如綸 王言如綸 其出如紼”.

400) 규곽경심(葵藿傾心) : 규곽경양(葵藿傾陽) 또는 규경향일(葵傾向日)과 같은 말.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여 도는 것과 같이, 신하(臣下)가 임금을 향해 일편단심의 충성을 다한다는 말이다. 심약(沈約), 「수죽탄감초문修竹彈甘蕉文」, “非有松柏後凋之心 蓋闕葵傾陽之識”. 「원종대사혜진답비문」 주33) 규원저미葵園著美본서(本書) p.242 참조.

401) 고선왕가학사이대지(顧先王加學士以待之) : 돌아 보건대 선왕(先王)께서 경(卿)을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임명하여 우대하였다는 말이다.

402) 구민(龜珉) : 정민(貞珉)과 같은 말로, 비문이 새겨질 재료인 다듬어진 돌이다.

403) [苑] [全文]에는 松. [總覽]의 釋은 松의 오자임.

躬覽載籍.”絲綸遂掌.“葵藿傾心，顧先王加學士以待之，若宜銘國師以報之，提鴻筆以立言，勒龜珉而紀德。”

신이 사양하여 아뢰길, “전하(殿下)께서 다시 신에게 이르시기를, ‘자네는 내봉령(內奉令)으로 이 일이 직책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니,<sup>404)</sup> 제구<sup>405)</sup>의 명문(銘文)을 지으라는 것은 덕을 갚되 글로 하라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윽하고 깊음(玄)을 탐색하여 빼어남(茂)을 기록하려 하나, 신은 문사(文詞)가 황견(黃絹: 絶) 유부(幼婦: 妙)에 부끄럽고, 학문은 객아(客兒)에게 사양하여야<sup>406)</sup> 합니다. 친근(淺近)한 작은 재주로 현미(玄微)하고 아름다운 스님의 행적(行蹟)을 기록하는 것은 마치 약한 수레에 무거운 짐을 싣고<sup>407)</sup> 짧은 두레박 줄로 깊은 우물의 물을 길으려 하는 것<sup>408)</sup>과 다를

404) 채호비사(彩毫比事): 김정언이 궁내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전달하는 직책이 왕명을 기록(彩毫)하여 처리하는 것, 곧 ‘왕을 친근(親近)하게 모시는 신사(臣事: 比事)’라는 뜻이다. 『傳』, “使汝遠於惡俗 比近臣我宗 多爲順道”.

405) 제구(齋臼): 잘 다듬어진 문사(文辭)의 뜻이다. ‘황견유부의손제구黃絹幼婦外孫齋臼’의 은어인 ‘절묘호사絶妙好辭’의 사(辭)에 해당한다. 齋는 齧와 동자이다. 「낭해화상백월보광답비문」 주105) 제구齋臼 본서 p.129; 「승복사비문崇福寺碑文」 주269) 흑해팔자或解八字 [신라편] p.272; 「진궁대사탑비문眞空大師塔碑文」 주111) 제구齋臼 [고려편1] p.152; 「원종대사혜진답비문」 주258) 유부지문사幼婦之文辭 본서 p.275 참조.

406) 학사객아(學謝客兒): 객아에게 사양한다는 말이다. 객아란 남송조(南宋朝) 때 사령운(謝靈運)의 아이때 이름(小名)으로, 미리부터 양육시켜 기른 아들이란 뜻이다. 「종영시품鍾嶸詩品」에 처음에는 전당(錢唐)의 두명사(杜明師)가 야몽(夜夢)에 동남(東南)의 어떤 사람이 학관(學館)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는데, 그날 밤 사령운이 회계(會稽)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아버지인 사원(謝元)이 죽자 외아들의 장수(長壽)를 위하여 두치(杜治)에게 보내어 양육시켰으나, 15일 만에 또다시 서울로 옮겨오게 되자 세칭(世稱) 그를 객아라고 하였다고 한다.

407) 거지약야재중(車之弱也載重): 수레는 약한 데 무거운 짐을 싣었다는 뜻이다.

바 없습니다. 공연히 못난 여인이 미인이 되려고 쟁그리는 표정을 흉내내는 것<sup>409)</sup>과 같아서, 실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勇氣)를 끼쳐줄 능력이 없습니다.<sup>410)</sup>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손에 상처를 입힐까 부끄럽습니다.<sup>411)</sup>고 하였다.

臣, 謝曰, “殿下謂臣, ‘彩毫比事, 齎白屬辭, 俾報德以文.’ 探玄紀茂, 而臣, 詞慙幼婦, 學謝客兒. 以淺近之麼才, 記玄微之芳躅, 其猶車之弱也, 載重, 綆之短者, 汲深. 空有效顰,<sup>412)</sup>實<sup>413)</sup>無賈勇. 啓心雖切, 傷手是慙.”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sup>414)</sup> “그대는 이제 그만 사양하고 비문을 짓는데 힘써야 하니 물러 가서 깊이 생각하라.”<sup>415)</sup>하셨다. 대개는 이른바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고요함을 두들겨 소리를 구하니, 돌이 말을 가지고 있으나

408) 경지단자급심(綆之短者汲深): 짧은 두레박 줄로 깊은 샘의 물을 떠 올리려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409) 효빈(効顰): 쟁그리는 모습을 흉내내다의 뜻. 효빈(效顰) 또는 효빈(效顰)이라고도 한다. 「통진대사보운답비문」 주207) 효빈效顰 [고려편1] p.366.

410) 고용(賈勇): 남에게 끼칠 만한 도력(道力)이나 학력(學力)이 없다는 말이다. 「통진대사보운답비문」 주205) 고용지여賈勇之餘 [고려편1] p.366.

411) 상수시참(傷手是慙):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 주저한다는 뜻이다. 「지증대사적조답비문」 주404) 매우상수每憂傷手 [신라편] p.335; 「대경대사현기답비문大鏡大師玄機塔碑文」 주106) 상수지우傷手之憂 [고려편1] p.79 「통진대사보운답비문」 주208) 착우상수憂傷手 [고려편1] p.366 등 참조.

412) [苑] [總覽]의 顰과 [全文]의 顰은 같은 글자임.

413) [苑] [總覽]에는 實, [全文]의 卑는 實의 오자임.

414) 상왈유(上曰俞): 응답할 유(俞). 상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대로 그렇다고는 하나”라는 뜻이다.

415) 여면지퇴유지(汝勉之退惟之): “경(卿)은 마땅히 비문 찬술에 힘쓸 것이니 물러가서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다.

산이 빗남을 보지 않으며,<sup>416)</sup> 거북은 돌아보지 않으나 석간수(石澗水)의 부끄러워함은 듣는다.<sup>417)</sup> 감히 붓을 잡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공연히 도끼 자루를 베는데 부끄럽도다. 오히려 쫓는 듯 가는 듯하여 스스로 그 나가는 데로 적합하니, 설사 동쪽으로 봉도산(蓬嶋山)이 무너지고<sup>418)</sup> 서쪽으로는 개자성(芥子城)이 텅 비어지더라도<sup>419)</sup> 신묘한 행적은(妙蹟)은 그대로 남아 있기를 기대하며, 그윽한 공덕(玄功)은 더욱 오랫동안 전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감히 거듭 그 뜻을 펴고자 하여 드디어 명(銘)을 지어 이르노라.

上曰, “兪汝勉<sup>420)</sup>之, <sup>421)</sup>退惟之.” 盖所謂, 當無責有, 扣寂求音, 石有言而莫觀山輝, 龜無顧而唯聞澗婉. 敢言載筆, 空婉伐柯. 尚以如琢如磨, 自適其適, 設使東陟<sup>422)</sup>蓬嶋,<sup>423)</sup>西空芥城, 期妙蹟之猶存, 望玄功之可久曰<sup>424)</sup>敢重宣其義, 遂爲銘云.

416) 석유언이막도산휘(石有言而莫觀山輝): 비문에 새긴 글에 혹여 지혜의 안목이 없을까 염려하는 뜻이다.

417) 귀무고이유문간괴(龜無顧而唯聞澗婉): 비신(碑身)을 등에 업고 있는 귀부(龜扶)의 영형함마저 두려워 함이니, 글을 짓는 김정언에게 있어 유정무정(有情無情)이 모두 가외(可畏)의 대상임을 말한 것이다.

418) 동치봉오(東陟蓬嶋): ‘동쪽으로는 봉오산(蓬嶋山)이 무너지더라도’라는 뜻이다.

419) 서공개성(西空芥城): 서쪽으로는 개성의 개자(芥子)가 모두 사라졌다는 뜻이다. 개성(芥城)이란 개자겹(芥子劫)을 지칭하며,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시간을 뜻한다. 「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문 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文」 주181) 개성수진芥城雖盡 [고려편1] p.333; 「통진대사보운탑비문」 주222) 개성芥城 [고려편1] p.411 등 참조.

420) [全文]에는 勉字가 탈락됨.

421) [全文]에는 之字가 탈락됨.

422) [苑] [總覽]에는 陟은 陟과 같다. 산사태날 치. [全文]의 侈는 陟의 오자임.

423) [苑] [全文] [總覽]의 嶋는 島(섬 도字)와 같다.

424) [苑] [全文]에는 因. [總覽]의 因는 因의 속자임.

모래 수와 같은 천백억세계<sup>425)</sup>를 보라.  
 그 속에 천백억화신<sup>426)</sup>이 계신다.  
 인(仁)을 베푸신 그 공덕 헤아릴 수 없고,  
 팔만 사천 그 법문(法門), 변제(邊際)를 알 수 없다.  
 진제(眞諦)와 속제(俗諦)를 남김없이 총괄하여,  
 그 광명(光明) 인간(人間)과 천상(天上)에 두루 비추네.  
 자비로운 그 은혜 백억계(百億界)에 충만하고  
 삼천세계(三千世界) 중생들 모두 교화하셨네.

大觀沙界.  
 中有金僊.  
 施仁不測,  
 示教無邊.  
 括囊眞俗,  
 光被人天.  
 恩加百億.  
 化度三千.[其一]

진리가 어찌 먼 곳에 있다 하겠는가.<sup>427)</sup>  
 누구나 진실하면 곧 그 곳에 있는 것.  
 이러한 불법진리 아는 자 누구인가.

425) 사계(沙界): 갠지스강의 모래 수와 같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많은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지칭한다.

426) 금선(金僊): 부처님을 지칭한다.

427) 도기원이행지척시(道豈遠而行之則是): 도가 어찌 먼 곳에 있겠는가. 바르게 행하면 일상생활이 바로 도라는 말이다.

오직 우리 법인국사 그 스님 뿐 일세.  
 부처님은 이 도리를 전해 주셨고,  
 뒤를 이어 역대조사(歷代祖師) 상승(相承)하였네.  
 고요히 인산(仁山)에서 연좌<sup>428)</sup> 정진하고서는,  
 방방곡곡 다니면서 법수(法水)를 뿌렸네.

道豈遠而.  
 行之則是.  
 誰其識之.  
 唯我大士.  
 眞佛傳心,  
 覺賢襲美.  
 宴坐仁山,  
 優游法水.[其二]

일찍부터 심오한 불법 닦고 닦아서,  
 보리(菩提)에서 움 튼 싹 정성껏 길러내어,  
 스님의 도덕은 용수보다 더 높고,<sup>429)</sup>  
 넓고 트인 그 지혜 부처님과 통하였네.<sup>430)</sup>  
 사람을 지도하니 도리성혜(桃李成蹊) 이루고,<sup>431)</sup>

428) 연좌(宴坐): 좌선(坐禪)하기 위하여 고요한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며, 좌선과 같은 뜻이다.

429) 도고용수(道高龍樹): “스님의 도덕이 용수보살(龍樹菩薩)같이 높다.”는 말이다.

430) 식동불화(識洞佛華): “지식이 부처님과 같이 빛난다.”는 말이다.

431) 도리(桃李): 도리불언 하자성혜(桃李不言 下自成蹊)의 준말. 「대경대사현기탑비문」 주43) 도리성혜桃李成蹊 [고려편1] p.73; 「법경대사보조혜광탑비문」 주89) 도리성혜桃李成蹊 [고려편1] p.225; 「징효대사보인탑비문澄曉大師寶印塔碑文」



중생을 제도하니 도마죽위(稻麻竹葦) 같았네.<sup>432)</sup>

스님께선 왕사(王師)와 국사(國師) 두루 거쳐서,

항기로운 그 도덕(道德) 국민의 모범이라.

早修勝果,

益驗善芽,

道高龍樹,

識洞佛華.

誘人桃李,

濟衆稻麻.

爲師王國,

垂範邦家.[其三]

물 위에 활짝 핀 연꽃처럼 아름답고,

못 별중에 뛰어난 달처럼 비추었네.

저 많은 사부대중(四部大衆) 정성껏 귀의하니,

어찌 진흙에 포발(布髮)함과 다르려나.

지혜의 그 광명 온 누리에 비추었고,<sup>433)</sup>

덕(德)을 덮고 빛을 감춰 장량하지 않으냐,<sup>434)</sup>

주59)도리무언桃李無言 [고려편1] pp.246~247; 「정진대사원오답비문」 주148)

점성도리지혜漸成桃李之蹊 [고려편1] p.404 등 참조.

432) 도마(稻麻): 도마죽위(稻麻竹葦)의 준말로써 한량없이 많은 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법경대사보조혜광답비문」 주87)도마稻麻 [고려편1] p.225; 「통진대사보운답비문」 주220)도마稻麻 [고려편1] p.411 등 참조.

433) 원조부천(圓照溥天): 스님의 둥근광명이 널리 하늘까지 비춘다는 뜻이다.

434) 보광(葆光): 빛을 감추고 덕을 숨겨서 나타내지 않는 것.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 “注焉而不滿 酌焉而不竭 而不知其所由來 此之謂葆光”.

앙모하는 그 신심(信心)은 더 더욱 높았고,  
비취주는 그 법등(法燈) 등등(燈燈)이 무진했네.

水上之蓮,  
星中之月.  
凡有歸心,  
何殊布髮.  
圓照溥天,  
葆光如佛.  
仰之彌高,  
酌之不竭.[其四]

자재한 그 법력(法力) 용(龍)과 같이 변화하고,  
당당한 그 모습은 봉(鳳)과 같이 거룩했다.  
때로는 자상한 가르침의 아버지<sup>435)</sup>이고,  
때로는 방황하는 길손의 안내자가 되었다네.  
손도 천 개 눈도 천 개 두루 갖추신 분,  
관세음보살처럼 대자대비(大慈大悲)하시니,  
스님의 일거일동(一舉一動) 모두가 본받을 것,<sup>436)</sup>  
스님을 생각하면 기쁜 마음 가득했네.

如龍變化,

---

435) 교부(敎父) : 교화하는 아버지, 교육하는 아버지, 불교의 아버지 등의 뜻이다. 태(胎)·란(卵)·습(濕)·화(化) 즉 일체생명의 자비로운 아버지. 사생자부(四生慈父)와 같은 말이다.

436) 시척시효(是則是効) :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곧 본받아 실천한다는 뜻이다.

似鳳來儀.  
或爲教父,  
或作導師.  
千手千眼,  
大慈大悲,  
是則是効,  
念茲在茲.[其五]

이제야 비로소 법신(法身)이라 일컬었으니,  
다만 생사(生死)를 초월하여 상주하실 뿐.<sup>437)</sup>  
슬프다! 양영<sup>438)</sup>에 눕는 꿈을 꾸었고,  
이미 구시나가라성(拘尸那伽羅城) 쌍수(雙樹)에서 입멸(入滅)했도다.  
행적(行跡)을 새겨둔 비석<sup>439)</sup>만 남아 있을 뿐,  
자비하신 그 모습 언제 다시 만나리.<sup>440)</sup>  
슬피 우는 눈물은 비오듯 흐르는데,  
호천통곡(號天痛哭) 불러봐도 붙들 길 전혀 없네.  
方謂法身,

437) 상주(常住): 영원불멸의 법신(法身)을 가리킨다.

438) 양영(兩楹): 공자(孔子)가 자신의 죽음에 앞서 두 기둥 사이에 눕는 꿈을 꾸는 것을 말한다. 「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문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文」 주104) 양영지몽兩楹之夢 [신라편] p.360 ; 「광자대사비문廣慈大師碑文」 주144) 양영홀몽兩楹忽夢 [고려편1] p.303 등 참조.

439) 법갈(法碣): 법덕(法德)의 행적을 담은 비갈(碑碣)을 가리킨다. 비는 사각형이고, 갈은 타원형으로 된 비석이다.

440) 자안갈우(慈顏曷遇): “자비하신 스님의 모습을 어찌 다시 만날 수 있겠는가.”라는 뜻이다.

只期常住.  
傷哉兩楹,  
已矣雙樹.  
法碣唯銘,  
慈顏曷遇.  
泣雨空垂,  
號天莫駐.[其六]

태평흥국 3년<sup>441)</sup> 용집 섭제<sup>442)</sup> 4월 일 세우고,  
김승렴(金承廉)은 글자를 새기다.

太平興國三年, 龍集攝提, 四月日, 立,  
金承廉, 刻字.

[비신(碑身)의 높이(高)는 7척7촌(七尺七寸), 폭(幅)은 3척8촌(三尺八寸), 글자의 간격은 5분(五分)이며, 해서(楷書)이다. 제액(題額)의 글자 간격은 1촌3분(一寸三分)이며 전서(篆書)이다.]

[揭載]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上, pp.334~355.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上, pp.223~232.

『한국금석전문韓國金石全文』中世 上, pp.411~420.

441) 태평흥국삼년(太平興國三年): 태평흥국은 송 태조 때의 연호. 태평흥국 3년은 978년(경종 3).

442) 섭제(攝提): 문장이 탈락되었는데, 태평흥국 3년은 무인(戊寅)이므로, 고갑자(古甲子)에 의하면 무(戊)는 저옹(著雍)이고, 인(寅)은 섭제격(攝提格)이므로 마땅히 저옹섭제격이어야 한다.



原州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文

【07.원주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문】





## 07.원주법천사지광국사<sup>1)</sup>현묘탑비<sup>2)</sup>문

原州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文

있는 곳<sup>3)</sup>: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법천사지

세운 때<sup>4)</sup>: 고려 선종 2년 을축 (1085)

所在: 江原道 原州市 富論面 法泉里 法泉寺址

年時: 高麗 宣宗 2年 乙丑 (1085)

증시(贈諡) 지광국사(智光國師) 현묘지탑비명(玄妙之塔碑銘).[제액]

고려국(高麗國) 원주(原州) 법천사(法泉寺)<sup>5)</sup> 강진홍도(講眞弘道) 명료돈

- 1) 제액(題額): [苑]에는 「요고려지광국사탑명遼高麗智光國師塔銘」이라 하였으며, [總覽]상에는 「원주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原州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라 하였고, [全文]에는 「원성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라 하였으며,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에는 「법천사지광선사탑法泉寺智光禪師塔」이라 하였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46에는 「명봉산법천사지광탑비鳴鳳山法泉寺智光塔碑」라 하였다.
- 2) 국보지정: 탑비는 국보 제59호이며, 부도는 국보 제101호로 현존 부도 중에는 가장 정묘(精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3) 있는 곳: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법천사지에 있으며, 부도는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때 서울 경복궁으로 옮겼다.
- 4) 세운 때: 1085년(선종2).
- 5) 법천사(法泉寺): 여러 곳에 법천사가 있었으나, 여기의 법천사는 강원도 원주

오(明了頓悟) 계정고묘응각(戒正高妙應覺) 탐현도원(探玄道源) 통제연오법  
 동(通濟淵奧法棟) 구행료성도수(具行了性導首) 융소낭철(融炤朗徹) 증시지  
 광국사(贈諡智光國師) 현묘지탑비명(玄妙之塔碑銘)과 아울러 서문(序文)

贈諡智光國師, 玄妙之塔碑銘. [題額]

高麗國, 原州, 法泉寺, 講眞弘道, 明了頓悟, 戒正高妙應覺,  
 探玄道源, 通濟淵奧法棟, 具行了性導首, 融炤朗徹, 贈諡智光  
 國師玄妙之塔碑銘, 并敍.

중대부<sup>6)</sup> 문하시랑<sup>7)</sup> 동중서문하 평장사<sup>8)</sup> 판상서예형부사<sup>9)</sup> 감수국사<sup>10)</sup>

시 부른면 법천리 명봉산(鳴鳳山)에 있었던 사찰을 말한다. 조선조 초기 태재(泰齋) 유방선(柳方善: 1388~1443)이 이 절에서 강학(講學)하였는데, 권람(權攄: 1416)·한명회(韓明澮: 1415~1487)·강효문(康孝文: ?~1467)·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보흠(李甫欽: ?~1457) 등이 모두 이 절의 태재(泰齋)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6 「원주목原州牧」 ‘불우佛宇’ 참조.

- 6) 중대부(中大夫): 고려 때의 문산계(文散階). 문종(1046~1083) 때에 종4품하(從四品下)로 제정되었다. 1298년에 종4품으로 승격되었으며, 1308년에 폐지되었다가 1356년에 다시 종4품하로 제정되었다. 1362년에 없어졌다.
- 7) 문하시랑(門下侍郎): 고려 때의 관직.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2품 관직. 수상격인 종1품의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은 고위 재상직이다. 중서문하성에는 문하시랑평장사, 중서시랑평장사, 문하평장사, 중서평장사의 4인의 정2품 직책이 있었다.
- 8) 중서문하평장사(中書門下平章事): 고려 때의 관직. 문종 때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을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으로 개칭하면서 성종 이래의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郎平章事)를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로 고쳤는데, 정원은 1명, 품계는 정2품(正二品)이었다. 『고려사高麗史』 권2, 7, 8, 10 등 참조.
- 9) 판상서예형부사(判尙書禮刑部事): 고려 때의 관직. 상서성의 6부에 책임자로 상서(尙書, 정3품)를 두었으나 중서문하성의 재신(宰臣)들이 6부의 판사(判事)를 겸하도록 하였다. 정유산도 재신으로서 예부와 형부의 판사를 겸직하였음을 말해준다.



겸태자태부<sup>11)</sup> 상주국<sup>12)</sup> 신 정유산<sup>13)</sup>은 왕명을 받들어 비문을 짓고,

승봉랑<sup>14)</sup> 상서도관<sup>15)</sup>낭중<sup>16)</sup> 비어대를 하사받은 신 안민후<sup>17)</sup>는 칙선(勅宣)을 받들어 비문과 전액(篆額)을 쓰다.

- 10) 감수국사(監修國史). 고려 때 사관(史館)의 벼슬. 종 1품. 감수국사는 고려 춘추관(春秋館)의 최고 관직으로, 시중(侍中)이 겸임토록 하여 따로 임명하지 않았다. 1325년 영관사(領館事)·감관사(監館事)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나, 역시 수상(首相)인 시중이 겸하였다. 『고려사』 참조.
- 11) 태자태부(太子太傅): 태(太)는 태(太)의 오자. 태자태부는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태부는 삼사(三師) 중의 하나이니, 삼사관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를 말한다. 중국의 옛 제도를 모방하여 설치하였다. 삼공(三公)과 함께 임금의 고문 또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으로 실무에는 종사치 않고 책임자가 없으면 공석(空席)으로 두었다. 최초로 설치된 연대는 미상이나, 문종(1046~1083) 때 각 1명으로 정1품(正一品)이었고, 충렬왕 때 폐지되었다가 1356년에 다시 설치되었으며, 1362년에 폐지되었다. 『고려사』권1, 2, 6, 8, 10 등 참조.
- 12) 상주국(上柱國): 고려의 훈계(勳階). 문종 때 훈계를 정하여 상주국은 정2품, 주국(柱國)은 종2품(從二品)으로 하였는데, 충렬왕(1274~1308) 이후에 폐지되었다. 「혜조국사탑비문慧昭國師塔碑文」 주6) 주국柱國 [고려편2] p.307; 『고려사』권1, 2 참조.
- 13) 정유산(鄭惟産): ?~1091. 고려의 문신. 1062년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써 국자시(國子試)을 관장. 시권(試卷)에 봉미법(封彌法)을 처음으로 시행케 했다. 1072년 한림학사(翰林學士)·국자궐주(國子祭酒)가 되었고 이듬해 지공거(知貢舉)를 겸하고 섭형부상서(攝刑部尙書)·예부상서(部尙書)가 되었다. 1075년 참지정사감수국사(參知政事監修國史)·이부상서(吏部尙書), 1077년 판상서예부사(判尙書禮部事) 등을 역임하였다. 뒤에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이르렀다.
- 14) 승봉랑(承奉郎): 고려 때의 문산계(文散階). 문종 때 종8품상(從八品上)으로 제정. 1298년에 정6품(正六品)으로 개정, 1356년에 일시 폐지하였던 것을 1362년에 다시 두었다가 1369년에 폐지했다.
- 15) 상서도관(尙書都官): 고려 때 노비의 부적(簿籍) 및 소송을 맡은 관청. 초기에는 도관(都官)이라 하던 것을 995년에 상서도관으로 개칭. 1308년에는 헌부(獻部)에 병합시켰다가 소송 사건이 빈번하여지자 1310년 상서도관을 부활시켜 도관이라 하였다. 『고려사』권7 참조.
- 16) 낭중(郎中): 고려 때의 관직. 상서성과 상서6부 등에 설치되었던 정5품 관직.

中大夫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判尚書禮刑部事，監脩  
 圜<sup>18)</sup>史，兼太子太傅，上柱國，臣，鄭惟產，奉宣，撰。

承奉郎，尚書都官郎中，賜緋魚袋，臣，安民厚，奉宣，書，并  
 篆額。

신(臣)이 듣건대, 구담미<sup>19)</sup>께서 묘음(妙音)을 부연(敷演)하시니 삼마지<sup>20)</sup>  
 에 걸쳤으며, 소반도<sup>21)</sup>로써 고론(高論)을 성취하였다. 팔식<sup>22)</sup>의 근원을 궁

17) 안민후(安民厚) : 전기는 미상(未詳)이고, 『대동금석서』에는 그의 직책이 시중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18) [苑] [全文] [總覽]의 圜은 國의 고자(古字)임.

19) 구담미(瞿曇彌) : ㉠Gautama. 구역(舊譯)에는 구담(瞿曇) 또는 구담(具譚)이라  
 하고, 신역(新譯)에는 교담마(喬答摩)라고 음역하였는데, 석종(釋種)의 성(姓)으  
 로서 구담·감자(甘蔗)·일종(日種)·석가(釋迦)·사이(舍夷) 등 5가지로 일컫는  
 다. 부처님의 이모(姨母)를 구담미라 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부처님을 지칭한다.

20) 삼마지(三摩地) : ㉠samādhi. 삼매(三昧)·삼마제(三摩提) 등으로도 음역된다. 정  
 (定)·등지(等持)·일경성(一境性) 등으로 번역된다.

21) 소반도(蘇槃度) : 소반다(蘇槃多 ㉠Subanta)라고도 한다. 범어(梵語)문법에서 명  
 사형을 뜻하는 말로서 성(性)·수(數)·격(格)에 따라 어미가 변화하는 것을 말한  
 다. 소(sup)란 범어의 7격 가운데 마지막인 처격(處格)을 말하고, 반다(anta)는  
 ‘끝’을 의미하므로 즉 7격으로 끝나는 모든 형태의 어미변화를 뜻한다. 범어의  
 명사는 저마다 남(男)·녀(女)·중(中)의 성이 있는데 그것들은 단수(單數)·양수  
 (兩數)·복수(複數), 그리고 문장에서의 성격에 따라 어미가 변한다. 범어의 격을  
 7가지로 보면 모두 21가지 어미변화가 있고, 호격(呼格)을 포함해 8가지 격으로  
 보면 24가지 어미변화가 있다. 『유식추요상본唯識樞要上本』(대정장43, p.609a16)  
 에 “聲論辨此聲中 蘇字居後 槃度是後義 則是蘇字 居後聲也”라 하였고, 「남해기  
 귀전南海寄歸傳」4(대정장54, p.228b25)에 “言七例者 一切聲上 皆悉有之 一一聲  
 中 各分三節 謂一言 二言 多言 總成二十一言也 ……於七例外 更有呼召聲 便成  
 八例 初句既三 餘皆准之 恐繁不錄 名蘇槃多聲 總有三八二十四聲”이라 하였다.

22) 팔식(八識) : 통팔식(通八識)이니, 의식 또는 마음을 말한다. 제1 안식(眼識), 제2  
 이식(耳識), 제3 비식(鼻識), 제4 설식(舌識), 제5 신식(身識), 제6 의식(意識), 제7

구하고 알선하여 유식(唯識) 상응<sup>23)</sup>의 진종(眞宗)을 개창하였고, 점차 널리 정교(正敎)를 현양(顯揚)하였으니, 이는 아상(我相)과 인상(人相)을 별유<sup>24)</sup>에서 경계하고 주재<sup>25)</sup>와 궤지<sup>26)</sup>를 나타내었다. 비록 지극한 이치는 허현(虛玄)에 그 근본을 두었으니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나, 모든 근기(根機)가 영리하고 어리석은 것을 말미암아 깨달음에도 천심(淺深)이 있으니, 우미(愚迷)한 중생을 급인(汲引)함에 있어서는 권실(權實)의 교리<sup>27)</sup>를 지진(指陳)하였다. 점차 시간이 흘러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더욱 멀어져, [상법시대(像法時代)를 지나 말법기(末法期)에 접어들면서] 부처님께서 남기

말나식(末那識), 제8 아뢰야식(阿賴耶識) 전체를 포괄한다.

- 23) 상응(相應): 유가(瑜伽 Sūyoga)를 번역한 말. 상순일치(相順一致)하는 뜻으로 수행자의 마음과 경계(境界)가 상응융합(相應融合)함을 뜻하니, 이로 말미암아 정력(定力)이 자재(自在)하게 된다.
- 24) 별유(筏喻): 뗏목의 비유. 경전 속에 실려 있는 언어문자(言語文字)는 진리 그 자체가 아니므로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리는 것과 같이 문자로 말미암아 뜻을 터득한 후에는 설사 경전(經典)의 말에도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다. 『금강경金剛經』「정신희유분正信希有分」‘제육第六’(대정장8, p.749b)에 “……是諸衆生 若心取相 卽爲着我人衆生壽者 若取法相 卽着我人衆生壽者 何以故 若取非法相 卽着我人衆生壽者 是故 不應取法 不應取非法 以是義故 如來常說 汝等比丘 知我說法 如筏喻者 法尚應捨 何況非法”이라 하였다.
- 25) 주재(主宰): 생주이멸(生住異滅)하는 사물(事物)과 생로병사(生老病死)하는有情(有情)의 연속적인 활동을 담보하고 주재(主宰)하는 가아(假我)를 지칭한다.
- 26) 궤지(軌持): 법(法)에 대한 자의(字義)를 설명한 것. 법(法)에는 궤(軌)와 지(持)의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첫째 궤란 그 자체가 궤범(軌範)이 되어 사람들에게 이해심을 내게 하는 것이며, 둘째 지란 그 자체를 유지(維持)하여 타체(他體)와 혼란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임지자성(任持自性)하여 궤생물해(軌生物解)라 하여 따라서 법(法)이란 임시로 자성을 견지하고, 궤범을 세워 유평과 세간을 이해케하는 것이다. 『유식론술기唯識論述記』(대정장43, p.239c1), “軌謂軌範 可解物解 持謂任持 不捨自相”이라 하다.
- 27) 권실(權實): ‘권교(權敎)와 실교(實敎)’라는 뜻.

신 유문<sup>28)</sup>은 점점 무너졌다.

臣聞, 瞿曇彌, 敷演妙音, 亘<sup>29)</sup>三摩地, 蘇槃度, 製成高論. 窮八識源, 幹開相應之眞宗, 滌<sup>30)</sup>廣顯揚之正教, 斯所以誠我人於筏喻, 旌主<sup>31)</sup>宰與軌持. 雖至理本乎虛玄, 等無差別而諸根. 由乎利鈍, 悟有淺深, 然, 汲引於愚迷, 則指陳其權實, 暨乎去佛滋遠, 遺文漸墮.

이와 때를 같이 하여 현장법사(玄奘法師)와 같은 스님<sup>32)</sup>이 상속(相續)출세하여 아수라(阿修羅)의 굴<sup>33)</sup>에 뛰어들어 권권복옹<sup>34)</sup> 하였으며, 보승(寶乘)을 돈독히 신봉하여 칼날 같은 변재<sup>35)</sup>로 널리 홍포(弘布)하였다. 진(晉)나라 때 번역한<sup>36)</sup> 경전들의 내용을 승습(承襲)하여 그 오묘한 이치를

28) 유문(遺文): 부처님께서 남기신 글이란 말이니, 불교를 지칭한다.

29) [總覽]에는 互, [苑]의 互와 [全文]의 互은 互의 오자임.

30) [苑] [總覽] [拓本]에는 寢이고, [全文]에는 寢인데, 뜻으로는 상통하여 점차(漸次) 또는 차례(次第)의 뜻이다.

31)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에는 主임.

32) 현장지주(玄奘之儔): 현장법사(玄奘法師: 602~664)와 같이 고난을 무릅쓰고 인도에 가서 구법(求法)한 스님들이란 뜻이다.

33) 수라지굴(修羅之窟): 수라굴(修羅窟)이니, 아수라왕이 주(住)하는 석굴(石窟)로, 심산유곡(深山幽谷)에 있다.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의 곳곳에 이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마치 범의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불교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뜻이다.

34) 권권복옹(拳拳服膺): 권권은 정성껏 받드는 태도, 복옹은 심중(心中)에 깊이 새겨 존경하며 시봉(侍奉)하는 것을 말한다. 「통진대사비문(洞眞大師碑文)」주95) 권권拳拳 [고려편1] p.357 참조.

35) 봉변(鋒辯): 칼날과 같이 예리한 변재(辯才). 법(法)을 개설(開說)함에 막힘이 없이 자재(自在)함을 설통(說通)이라고도 한다.

36) 진번(晉翻): 진(晉)나라 때 번역된 경전들.

터득하고 아울러 무너진 강령<sup>37)</sup>을 떨쳤으며, 수역<sup>38)</sup>된 경전에 따라 그 심오(深奧)함을 끌어내었으니, 이는 다 함께 끊어진 단추를 다시 이은 것이다.<sup>39)</sup> 동쪽으로 전래된 법이 특이한 것이 아니니, 내향자의 마음이 그 마음 스스로 통달한 것 뿐이다. 그러므로 간간이<sup>40)</sup> 연결한 영운<sup>41)</sup>이 출세하여 선현(先賢)들의 자취를 밟아 그 위명(威名)을 현겁<sup>42)</sup>에 떨치고, 계정(戒定) 등의 삼학(三學)을 범제<sup>43)</sup>에서 연마하였다. 자씨(慈氏)의 분신이 양무제(梁武帝) 때 쌍림부대사(雙林傳大士)로 강림한 것을 본받았으며,<sup>44)</sup> 문수보살이 자취를 나투어<sup>45)</sup> 서주(西周) 목왕(穆王) 때 중국으로 불교를 전래한 것과 같다고<sup>46)</sup> 하겠다.

37) 퇴강(頽綱): 무너진 강령.

38) 수역(隋譯): 수(隋)나라 때 번역된 경전들.

39) 구유절뉴(俱維絕紐): 함께 끊어진 단추를 연결한다는 뜻이다.

40) 간출괴웅(間出魁雄): 오랜만에 간간이 출생(出生)하는 위인(偉人)을 가리킨다.

41) 영운(靈胤): 영납적운(靈納嫡胤)의 준말. 胤은 靈의 고자(古字)임.

42) 현겁(賢劫): 과거의 대겁(大劫)을 장엄겁(莊嚴劫), 현재의 대겁을 현겁, 미래의 대겁을 성수겁(星宿劫)이라고 한다.

43) 범제(梵題): 범어(梵語)로 된 경전.

44) 효자씨지분신강비양제(效慈氏之分身降毗梁帝): 자씨(慈氏: 미륵불)의 분신이 양나라 때 쌍림부대사(雙林傳大士)로 강림하였음을 본받았다는 말이니, 쌍림부대사는 곧 미륵불의 현신(顯身)이란 뜻이다. 예컨대 인도의 유마거사(維摩居士)는 금속여래(金粟如來)의 후신이고, 중국의 보지선사(寶誌禪師)는 관음불(觀音佛)의 응신(應身)이며, 쌍림부대사는 미륵불(彌勒佛)의 응신이다. 한국의 진묵대사(震默大師)는 석가여래응신(釋迦如來應身)으로 전한다. 한불전10, p.877 참조.

45) 문수현적(文殊現跡): 문수보살은 오직 호법(護法)을 위할 때마다 자취를 나타낸다. 『당화엄경唐華嚴經』「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대정장10, p.241b), “東北方有處名清涼山從昔已來諸佛菩薩於中止住現有菩薩文殊師利與其眷屬諸菩薩衆一萬人俱常在其中而演說法”.

46) 내응목왕(來應穆王): 서주(西周) 목왕(穆王: B.C.1001~B.C.947) 때 문수보살이 중

有如玄奘<sup>47)</sup>之儔, 念念相續, 探彼修羅之窟, 拳拳服膺, 崇信寶乘, 競騰鋒辯. 襲晉翻而觀奧, 竝振顏經,<sup>48)</sup> 沿隋譯以鉤深, 俱維絕紐. 東流之法, 法非異, 內向者心, 心自通. 茲故, 間出魁雄, 踵爲<sup>49)</sup>胤<sup>50)</sup>, 播威名於賢劫, 研戒定於梵題. 效慈氏之分身, 降毗梁帝, 軼文殊之現跡, 來應穆王.

널리 동국(東國)인 인□(仁□)을 교화하되 상·정시대<sup>51)</sup>의 법을 크게 흥포하고, 성조(聖祚)를 위해 정성껏 기도하며<sup>52)</sup> 임금을 도와 홍균<sup>53)</sup>을 이루게 한 스님은 오직 우리 국사 뿐이라 할 것이다. 스님의 휘는 해린(海麟), 자는 거룡(巨龍), 속성은 원씨(元氏), 어릴 때의 이름은 수몽(水夢)이었으며 원주(原州) 출신이다. 고조부와 증조부<sup>54)</sup> 때부터 선행을 쌓고 경사스러움을 행하였다. 희역(犧易)과 안정(安貞)의 인요(因繇)를 상고해 보건대,<sup>55)</sup> 길(吉)·흉(凶)·회(晦)·린(格) 중의 회로 말미암아 밝혔으며, 언승(彦升)

국에 불교를 전래(傳來)하였다는 말이다.

47) [苑] [總覽]에는 奘. [全文]의 奘은 奘의 오자임.

48) [苑] [總覽] [全文]에는 經. 經은 經의 오자이고, 經은 綱과 通字이다.

49) [苑] [總覽]의 踵과 [全文]의 踵은 모두 踵(靈의 古字)의 오자임.

50) [全文] [總覽]에는 胤. [苑]의 胤은 胤의 오자임.

51) 상정(象正): 불교가 흥성(興盛)하던 상법(像法)과 정법시대(正法時代)란 뜻.

52) 용기(願祈): 양기(仰祈), 즉 우러러 기도한다는 뜻. 정성껏 기도한다는 뜻이다.

53) 홍균(鴻均): 왕이 정치를 잘하여 그 덕화(德化)가 국민에게 골고루 미친다는 뜻. 즉, 임금의 교화가 순미(淳美)한 태평성세(太平盛世)를 말한다. 홍(鴻)은 태(太), 균(均)은 평(平)의 뜻으로써 태평성세를 지칭한다. 왕포(王褒), 『사자강덕론(四子講德論)』, “夫鴻均之世 何物不樂”.

54) 유고유증(惟高惟曾): 오직 고조부와 오직 증조부란 뜻이니, 곧 선조(先祖)들을 가리킨다.

55) 핵희역안정지요(嚴犧易安貞之繇): 희역과 안정의 인요(因由)를 상고해 보니, 보광(葆光)으로써 밝혔다는 뜻이다.

이 검소하며 절약하였던 가풍을 지키고<sup>56)</sup> 그 순박한 바탕을 깨뜨리지 아니하였다.<sup>57)</sup> 할아버지의 휘는 길견<sup>58)</sup>이니, 마음은 서수(筮首)로 점을 쳤으며,<sup>59)</sup> 음양(陰陽)을 연구하여 상징을 나타내었으니<sup>60)</sup> 어찌 운수가 불길하게 변하는 것을 보고 구차하게 그를 면하려고 하였겠는가!<sup>61)</sup> 찬구<sup>62)</sup>타와(打瓦)의 점을 쳐서 그로부터 얻은 조짐(兆朕)으로 의심하였던 운수(運數)

- 
- 56) 준언승검약지풍(遵彦升儉約之風): 언승이 검소하며 절약했던 풍도(風度)를 준수하였다는 뜻. 언승은 진(晉)나라 때 원양(袁羊)이니, 진군(陳郡) 출신으로, 자(字)는 언승이다. 청렴하고 검소하여 평생(平生)동안 검약(儉約)을 가풍(家風)으로 삼았던 사람이다. 『진서(晉書)』권75 참조.
- 57) 불회기박(不創其朴): 질박(質朴)한 바탕을 그대로 지키고 조금도 파괴하지 않았다는 뜻. 創은 찢을 회字. 끊다, 쪼개다 등의 뜻. [總覽] [苑]에는 剛字임.
- 58) 길견(吉肩): 지광국사의 할아버지 이름. 전기는 미상이다.
- 59) 심복서수(心卜筮首): 마음은 항상 서수로 점을 쳤다는 말. 서수란 서구(筮龜)와 같은 뜻으로, 거북으로 점치는 것을 복이라 하고, 시초(蓍草)로 점치는 것을 서라 한다. 시초는 갈대와 같은 풀로 주역(周易)의 괘(卦)를 뽑을 때 쓰는 풀이다. 뒤에는 대나무로 하였다.
- 60) 사음양저상(事陰陽著象): 사변(事邊)으로는 음양오행(陰陽五行)으로 역괘(易卦)를 풀어 상(象)을 나타냈다는 뜻이다.
- 61) 하우관변이앙옹(何虞觀變而仰膺): “어찌 운수(運數)가 불길(不吉)하게 변함을 보고, 이를 염려하여 그 불길한 재액(災厄)을 면하려 하였겠는가”라는 뜻이니, 낙천적으로 소요자재(逍遙自在)하였다는 말.
- 62) 찬구(鑽龜): 찬구타와(鑽龜打瓦)의 준말. 『장자(莊子)』「외물(外物)」에 있는 말. 찬구(鑽龜)란 송원군(宋元君)이 강에서 한 마리의 흰 거북을 낚았는데, 그 둘레가 5자이고 등에는 64문(紋)과 72지(痣 검은 사마귀)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를 가지고 길흉을 점치게 하였는데, 영애(靈艾)를 사마귀 위에 꽂고 불로 태우면 길할 경우에는 사마귀의 자국이 뽕쪽(凸) 튀어 오르고, 흉할 때에는 오목(凹)하여진다고 한다. 타와(打瓦)란 왼쪽으로 끈 새끼[左綱]로 한개의 기와장의 허리를 세 번 두르고 소원(所願)을 빈 다음, 땅바닥에 던져서 길하면 엎어지고, 흉하면 뒤집어진다고 한다. 또한 그 파편(破片)이 홀수이면 흉하고, 짝수이면 길한 것이라고 하였다. 『대혜서장대(大慧書狀)』「황문사장(黃門司狀)」(대정장47, p.940a)에 “若是聽卿之流 一任鑽龜打瓦”라 하였다.

를 예지(豫知)하여 세상일로 하여금 미혹함이 없었다.<sup>63)</sup>

普化仁□, 丕弘象正, 顓祈聖祚, 助致鴻均者, 唯我國師而已哉.

師諱海麟, 字巨龍, 俗姓元氏, 幼名水夢, 原州人也. 惟高惟曾, 積善積慶. 覈犧易安貞之繇, 用晦而明, 遵彥升儉約之風, 不創其朴. 祖諱吉肩, 心卜筮首, 事陰陽著象, 何虞觀變而仰膺. 軋<sup>64)</sup>顧<sup>65)</sup>鑽龜, 得兆決疑而無俾世迷.

아버지의 휘는 휴<sup>66)</sup>이니 관직은 아관<sup>67)</sup>에 이르렀는데,<sup>68)</sup> 모든 사람들이 선연(先掾)들보다 뛰어난 관리라고 칭송이 자자하였다.<sup>69)</sup> 일찍부터 훌륭한 상황(床惶)의 아들 낳기를 염원하여<sup>70)</sup> 항상 초연(椒衍)의 시 듣기를 원

63) 득조결의(得兆決疑) : 찬구의 점으로 나타나는 징조로 의심(疑心)나는 것을 해결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세상(世上) 일에 현혹되지 않고 현명(賢明)하게 처세(處世)하였다는 뜻이다.

64) [全文] [總覽]에는 軋. [施]의 軋은 軋의 오자고, 軋은 乾의 고자(古字)임.

65) [全文]에는 顧. [施] [總覽]의 顧는 顧의 속자임.

66) 휴(休) : 지광국사 아버지의 이름. 전기는 미상이다.

67) 아관(衙官) : ①자사(刺史)의 속관(屬官) ②관청이란 뜻. 『당서唐書』「백관지百官志」, “刺史領使則置副使·推官·衙官”.

68) 직추아관(職筵衙官) : 직책(職責)은 아관(衙官)에 버금하였다는 뜻. 軋은 職의 俗字. 筵는 버금 추字.

69) 예선연리(譽先掾吏) : 칭송함이 연리를 앞서갔다는 뜻. 掾은 아전 연字. 연리란 연속(掾屬)이라고 한다. 하급관리(下級官吏), 말단 관리란 뜻이다. 『후한서』「마원馬援」, “爲郡掾吏 守墳墓 鄉里稱善人.”

70) 사득상황지사(思得床惶之嗣) : 훌륭한 아들(嗣) 낳기를 염원한다는 뜻. 상황의 床은 牀과 같으니, 아기를 낳을 때 아이를 받아 눕히는 평상(平床)을 말하고, 황은 어린 아이가 크게 우는 것을 말한다. 곧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특이한 점이 많은 아이로서 장래가 크게 촉망되었다는 뜻. 「시詩」에 “其泣惶惶”이라 하



하였다.<sup>71)</sup> 어머니는 이씨(李氏)니 영리함은 제호<sup>72)</sup>에 계합하고 공손함은 거안<sup>73)</sup>보다 더 압전하였다. 끝없는 원력(願力)은 광목부인<sup>74)</sup>과 같고 용모의 아름다움<sup>75)</sup>은 묘안<sup>76)</sup>임을 알 수 있다. 일찍이 성선(聖善)의 태몽에 하해(河海)의 물이 맑게 범람(泛濫)하고 정천(井泉)에서는 물이 솟아 올랐다. 이로 인하여 임신하고는 일과로 탄기<sup>77)</sup>를 행하여 태아를 교육하였다. 이

고, 「단주段註」에 “啾 謂小兒小聲, 喑 謂小兒大聲也”라 하였다.

- 71) 애문초연지시(愛聞椒衍之詩): 초연의 시 듣기를 희망한다는 뜻. 초연이란 초료(椒聊)와 같은 뜻이니, 산초나무를 지칭한다. 산초의 열매는 그 수가 많으므로 자손이 번창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시경詩經』「당풍唐風」‘초료椒聊’, “椒聊之實蕃衍盈什 彼其之子 碩大無朋 椒聊且 遠條且”.
- 72) 제호(提壺): 동자가 술병을 들고 술을 따른다는 뜻. 『태현경太玄經』, “文人扶觚 豎子提壺”. 壺는 禮, 提는 用의 뜻으로 예의범절이란 말. 「원융국사비문圓融國師碑文」주92)제호提壺 [고려편2] p.279 참조.
- 73) 거안(學案): 거안제미(學案齊眉)의 준말로,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존경함을 이른다. 후한 양홍(梁鴻)의 처 맹광(孟光)이 남편에게 밥상을 올릴 때 눈높이까지 받쳐 들었다는 데서 온 말. 『후한서』「일민逸民」참조.
- 74) 광목부인(光目婦人): 광목녀(光目女)라고도 하니 지장보살의 전신(前身)이다. 지장보살이 구원겁전(久遠劫前)에 한 여자였는데 그 이름이 광목이었다. 그 때 광목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한 나한(羅漢)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악취(惡趣)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할 서원(誓願)을 세우기를, “나는 지금으로부터 일체중생(一切衆生)을 제도하여 모두 성불(成佛)한 다음에야 정각(正覺)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였다. 중생이 모두 성불하는 때는 기약이 없으니, 지장보살을 대비천제(大悲闍提)라 한다. 즉 일체중생이 성불하는 날까지 영원히 성불할 수 없는 불구(不具)의 보살이기 때문이다.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권상(대정장13, pp.780~781) 참조.
- 75) 주용(姝容): 아름다운 얼굴이니, 미인(美人)이란 뜻. 주희(姝姬)·주녀(姝女) 등과 같은 뜻이다.
- 76) 묘안(妙顏): 얼굴이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
- 77) 탄기(吞氣): 탄복하기(吞服霞氣)의 준말. 기(氣)를 들이키는 것. ①신선이 노을을 삼키고 천지(天地)의 기운을 들이키는 것 ②호흡을 조절하여 태아(胎兒)를 교육하는 것.

에 미루어 보면 어찌 발자취를 밟고<sup>78)</sup> 잉태하여 태어난 강원<sup>79)</sup>을 부러워하겠는가? 탁태(託胎)할 때에는 그윽히 왕소<sup>80)</sup>의 경우와 같았다. 이미 만삭이 되어서는 드디어 그 상서(祥瑞)를 발(發)하였다. 옹희 원년<sup>81)</sup> 세재 알봉군탄년<sup>82)</sup> 도월<sup>83)</sup> 그믐날 사제<sup>84)</sup>에서 탄생하였다.

父諱休，職蓬衙官，譽先掾<sup>85)</sup>吏。思得床蝗之嗣，愛聞椒衍之詩。  
母李氏，利契提壺，恭踰舉校。無邊善願，宛然光目婦人，最勝  
姝容，知是妙顏。聖善<sup>86)</sup>嘗<sup>87)</sup>夢，河海澄澈，井泉涌沛<sup>88)</sup>。因以有  
娠，甚於吞氣。履拇之跡，那羨於姜嫄。託胎之期，冥符於王劭。

78) 이무지적(履拇之跡) : 전인의 자취를 밟는 것. 낭야대취(琅耶代醉), 『이적履跡』, “姜嫄 履巨人跡而生棄”.

79) 강원(姜嫄) : 중국 상고(上古) 때 유태씨(有郃氏)의 딸. 제곡(帝嚳)의 비(妃)이다. 어느 날 거인(巨人)의 족적(足跡)을 보고 이를 밟은 다음 임신하여 드디어 후직(后稷)을 출생하였다고 한다. 일설에는 강원(姜原)이라고도 한다. 『열녀전烈女傳』 「모의친母儀傳」에 “棄母 姜嫄者 郃侯之女也”라 하였고, 『당강원신묘비唐姜嫄新廟碑』에 “姜嫄者 炎帝之後 有郃氏之女 姓姜 字嫄 帝嚳之元妃 后稷之母也”라 하였다. 「원공국사승묘탑비문圓空國師勝妙塔碑文」 주358) 비궁閣宮 [고려편 2] p.253 참조.

80) 왕소(王邵) : 소(邵)는 소(劭)의 오자이다. 왕소는 진(晉)나라 사람으로 왕도(王導)의 아들이며, 자(字)는 경륜(敬倫), 시호는 간(簡)이다. 풍조(風操)가 있고 호연지기가 강했다. 벼슬은 동양태수(東陽太守), 오국내사(吳國內史) 등을 역임했다. 『진서晉書』 권69 참조.

81) 옹희원년(雍熙元年) : 옹희는 송나라 태종 때의 연호. 옹희 원년은 고려 성종 3년(984).

82) 알봉군탄(闕逢涓灘) : 알봉은 고갑자의 천간(天干) 중 갑(甲)에 해당되고, 군탄은 고갑자의 지지(地支) 중 신(申)에 해당된다. 984년은 갑신년(甲申年)이다.

83) 도월(涂月) : 음력 12월의 이명(異名). 『이아爾雅』 「석천釋天」, “十二月 爲涂”. 涂는 除의 뜻. 음12월(陰十二月)을 계동(季冬) 또는 축월(丑月)이라고도 한다.

84) 사제(私第) : 사택(私宅)과 같은 뜻.

85) [全文][總覽]은 椽. [苑]에는 椽. 椽은 椽의 오자임.

86) [苑] [總覽] [全文]은 모두 결락이나, 문맥으로 보아善인 듯하다.

既彌厥月，爰發其祥。以雍熙元年，歲在闕逢涒灘，涂月，晦日，  
誕師於私第歟。

어릴 때의 이름은 수몽(水夢)이었다. 옛날 중국에서 주(周)나라 명왕(明王) 24년에 강하(江河)와 천지(泉池)가 홀연히 범람하였으니,<sup>89)</sup> 이것이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상서였는데, 이것을 우리 국사의 탄생과 비교하면 그 시종(始終)의 징조가 하나도 다름이 없다.<sup>90)</sup> 국사는 일자분정,<sup>91)</sup> 즉 태양의 정기를 타고 났으며, 연꽃과 같은 향기롭고 아름다운 성품을 받아 태어났다.<sup>92)</sup> 의지는 탐애(貪愛)를 단제(斷除)하는 데 예리하였고<sup>93)</sup> 마음은 색신(色身)과 명예(名譽)를 위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sup>94)</sup> 초년(韶年)의 나이에 이르러<sup>95)</sup> 이미 학문에 뜻을 두어 이수겸<sup>96)</sup>을 찾아가서 학업을 청하

8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없음.

88) [苑] [總覽] [全文]의 汜는 流의 고자(古字)임.

89) 명왕…홀연범창(明王…忽然汎漲) : 불타(佛陀)께서 탄생하신 상서이니, 북전설(北傳說)에 의하면 석가세존은 주(周)나라 소왕(昭王) 26년 갑인 4월 8일에 탄생하였으므로 명왕(明王) 즉위 24년은 주나라 24년을 지칭한다. 주소왕은 주나라 제4대의 왕이며 명은 하(夏)이고, 시호는 소(昭)이다. 명왕은 ①정사(政事)에 밝은 어진 군주 ②삼보(三寶)·국토·인민을 수호하는 신 ③신불(神佛)의 봉호(封號)이다.

90) 불생지서…일무이연(佛生之瑞…一無異焉) :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상서(祥瑞)와 우리 스님이 자시(資始)한 태몽을 비교하면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뜻.

91) 일자분정(日蔗分精) : 지광국사는 태양의 정기(精氣)를 타고 태어났다는 뜻.

92) 어린품성(淤蓮稟性) : 연꽃 같은 청정(淸淨)한 성품(性品)을 품수(稟受)하였다는 말.

93) 예의어단제탐애(銳意於斷除貪愛) : 뜻은 탐애를 단제하는데 예리하다는 뜻.

94) 비심호자익색신(非心乎資益色身) : 마음이 색신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말.

95) 보급초년(甫及韶年) : ‘비로소 초년에 이르러서’라는 뜻. 초년이란 초춘(韶齔)과 같은 말이니, 남자는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이가 나고 8살에 이를 갈며, 여자는

였다. 수겸(守謙)이 스님을 보고 특이한 그릇인줄 알고 말하기를, “나는 석학(碩學)이 될 기량<sup>97)</sup>을 지도할 능력이 없으니 너는 마땅히 밝은 스승을 찾도록 노력하라.” 하였다.

故童年號爲水夢也. 昔明王卽位二十四年, 江河泉池, 忽然汎漲, 是佛生之瑞, 比於吾師, 資始之徵, 一無異焉. 師<sup>98)</sup>日<sup>99)</sup>蔗分<sup>100)</sup>精, 淤蓮稟性. 銳意於斷除貪愛, 非心乎資益色身. 甫及韶季,<sup>101)</sup> 勤恁幼學, 謁李守謙, 請業. 謙見異之曰, “余則不知碩量, 爾宜務擇明師矣.”

어느 날 관상을 잘 보는 한 노인이 있어<sup>102)</sup> 스님의 손금을 보고<sup>103)</sup> 국사에게 이르기를, “네가 만약 출가하여 스님이 된다면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다. 앞으로 통인달사(通人達士)가 되리라는 말을 듣고<sup>104)</sup> 다만 도주(道籌)에 종사할 생각에만 골몰히 잠기

7개월 만에 이가 나고 7살에 이를 간다고 하여, 7, 8세의 어린아이를 지칭한다. 「보조선사창성탑비문普照禪師彰聖塔碑文」 주32) 초흔지세醞亂之歲 본서 p.61 참조.

- 96) 이수겸(李守謙): 전기 미상이다.
- 97) 석량(碩量): 석학기량(碩學器量)의 준말. ①큰 학자 ②큰 그릇 ③큰 인품. 『진서』 「민제기론愍帝紀論」, “宣帝 以雄才碩量 應時而仕”.
- 98) [全文] [總覽]에는 師. [苑]의 卅는 師의 오자임.
- 99) [苑] [總覽]에는 日. [全文]의 日은 日의 오자임.
- 100) [全文] [總覽]에는 分. [苑]의 兮는 分의 오자임.
- 101) [苑] [全文]에는 季. [總覽]에는 季. 季과 年은 동자이며, 季은 年의 본자이다.
- 102) 선상자(善相者): 관상가. 관상을 잘 보는 사람.
- 103) 견문재수(見文在手): ‘손바닥에 무늬가 있음을 보고’라는 뜻이니, 손금을 보았다는 뜻.
- 104) 달산(達算): 관상보는 사람으로부터 “만약 출가하여 스님이 되면 통인달사(通人達士)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뜻.

고,<sup>105)</sup>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장(老莊)의 개설(概說)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sup>106)</sup> 따라서 사대부들의 현면<sup>107)</sup>을 치수<sup>108)</sup>처럼 보고 고량진미(膏粱珍味)를 마치 강비<sup>109)</sup>와 같이 여겼다.

或有一老嫗，善相者，見文在手，謂師曰，“你若爲僧，必貴於世。”師泊聞達算，祇事道籌，不觀孔孟之方，尚鄙老莊之概。錙銖軒冕，糠粃膏粱。

급히 서둘러 법고사<sup>110)</sup>의 관웅대사(寬雄大師)의 처소로 가서 수학하던 중 관웅스님이 경화(京華)인 개성으로 떠나게 되었으므로 국사도 그 산중<sup>111)</sup>을 하직하고 떠나게 되었다. 관웅대사가 배를 타고<sup>112)</sup> 강을 건너 오운산<sup>113)</sup>을 벗어나자마자 스님은 곧 걸망을 잃어지고 따라갔다. 천리를 멀리 여기지 않고 함께 연하<sup>114)</sup>로 돌아갔다. 이어 곧 산의 서쪽을 점지하였는

105) 지사도주(祇事道壽): 다만 수도하려는 생각에만 골똘히 잠겼다는 뜻.

106) 상비로장지개(尙鄙老莊之概): 오히려 노자와 장자의 개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

107) 현면(軒冕): 현은 대부(大夫)들이 타는 수레. 면은 대부 이하(以下)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冠)을 가리킨다. 곧 사대부(士大夫)를 지칭한다.

108) 치수(錙銖): 저울 눈금이니, 6수가 1치이며 8냥이 1치이니, 지극히 적은 것을 비교하는 말이다. 미세(微細)하고 작은 것을 비유하는 것. 『예기』「유행(儒行), “雖分國如錙銖 不臣不仕 其規爲有如此者”. 즉, 신분이 낮은 사람을 가리킨다.

109) 강비(糠粃): 곡식의 쪽정어. 전하여 하찮은 물건이나 시시한 것을 가리킨다. 『진서』「손작전(孫綽傳), “箴之提之 糠粃在前”.

110) 법고사(法庫寺): 위치와 사적은 미상이다. 혹시 법천사(法泉寺)가 아닌가 한다.

111) 수석(水石): 깊은 산중을 가리킨다.

112) 부배(浮杯):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뜻.

113) 오운산(五雲山): 오색의 구름이 자욱히 덮인 산곡(山谷)이니, 법천사가 위치한 명봉산(鳴鳳山)을 가리킨다.

데<sup>115)</sup> 해안사<sup>116)</sup>와 선접(旋接)한 곳이었다. 준광방장<sup>117)</sup>에게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수도하면서 함장(函杖)에게 옥의(縹儀)를 펴고 시봉하기를 희망하며<sup>118)</sup> 정성을 다하여 표질(縹帙)을 관화(貫花)에서 연마하였다.<sup>119)</sup>

114) 연하(輦下): 서울을 가리키니, 개성을 뜻한다.

115) 즉점산서선접해안사(卽占山西旋接海安寺): 곧 바로 개성 봉명산(鳳鳴山) 서쪽으로, 해안사(海安寺)에 선접(旋接)해 있는 지역을 점유하였다는 뜻.

116) 해안사(海安寺): 경기도 개성군 봉명산에 있던 절. 고려 초부터 역대 왕의 진영(眞影)을 이 절에 봉안해 왔으나, 명종(明宗 1170~1197) 때 무신(武臣)들이 의논하기를, “의종(毅宗 1146~1170)께서는 무인(武人)을 원수처럼 여겼으니, 조종(祖宗)의 제왕진영(諸王眞影)을 무방(玄武; 北方의 神)에 모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성동(城東)에 있는 오미원(吳彌院)을 선효사(宣孝寺)로 이름을 고쳐 이곳으로 진영을 이안(移安)하였고, 해안사는 중방원당(重房願堂)으로 삼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 「개성부開城府」하「고적古跡」 참조.

117) 방장(方丈): 해안사 방장, 즉 조실스님이란 말.

118) 기전옥의어함장(蕡展縹儀於函杖): 함장에게 옥의 펴드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이니, 시봉(侍奉)하기를 원하는 것. 蕡는 바랄 기字. 옥의의 縹字는 縹이어야 하나 相通하는 字이고, 함장의 杖字는 丈이어야 하나, 이것 또한 상통하는 글자이다. 옥의란 옥의(縹儀)라고도 한다. 스승이나 또는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 침구를 펴 드리며, 청소 등을 시봉하는 것이니, 곧 스승을 모시고 불법(佛法)을 배운다는 뜻이다. 함장(函杖)이란 인장(仁丈)이라고도 한다. 스승을 지칭하니, 스승의 자리와 자기의 자리 사이에 일장(一丈; 10尺)의 거리를 둔다는 말이다. 함(函)은 용납(容納)의 뜻. 『예기』에 “席間函丈”이라 하였으니, 스승을 존경하는 태도를 말한다. 전하여 선생(先生) 또는 장자(長者)에게 드리는 편지에 받는 이의 성명 아래에 써서 존경하는 뜻을 나타낸다. 『예기』「곡례曲禮」‘상’에 “凡爲長者云云若非飲食之客 則布席 席間函丈”이라 하였다.

119) 관공표질어관화(款窮縹帙於貫花): 정성을 다하여 옥색(玉色)빛으로 책가위를 장식한 관화를 연공하였다는 말이니, 관화는 관천섭화(貫穿攝化)의 준말이므로 관화(貫化)로 기록되어야 한다. 표질이란 옥색으로 장식한 책가위. 전하여 경책(經冊; 書卷)을 지칭함. 질(帙)은 책가위. 『당태종제경唐太宗帝京』에 “韋編斷復續 縹帙舒還卷”이라 하였다. 관천섭화란 경율론 삼장(三藏) 중 수다라(Ṣūtra)를 번역하면 선(線)·조(條)·성경(聖經)·계경(契經) 등이라 하니, 계경(契經)이란 계리계기(契理契機)의 준말로써 진리에 계합하고 또한 중생들의 근기(根機)

위(魏)나라의 창서(蒼舒)가 코끼리의 무게를 작은 저울로 알아 내던 나이  
에<sup>120)</sup> 이미 불교를 전해 듣고 알았으며,<sup>121)</sup> 가위나국<sup>122)</sup> 구오사미의 유<sup>123)</sup>와

에도 부합한다는 말이며, 관천(貫穿)이란 불타(佛陀)의 법음을 결집(結集)한 것이 마치 흩어져 있는 꽃을 끈에 꿰어 두면 오래토록 완전하게 보존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섭화(攝化)란 이렇게 결집된 경전으로써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이다. 청량(淸涼), 『화엄경華嚴經』 「현담懸談」(대정장35, p.507a01) 참조.

- 120) 위창서칭상지년(魏蒼舒稱象之年) : 칭상지년(稱象之年)이란 코끼리의 무게를 헤아리는 방법을 알아낸 나이, 즉 5~6세 때를 말한다. 위나라 창서(倉舒)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큰 코끼리의 무게를 다루는 방법을 일러 주던 나이라는 말. 위나라 등애왕(鄧哀王) 충(沖)이 선상(船上)에 코끼리를 실어 물금(水痕)에 의하여 그 중량(重量)을 헤아리게 하였던 고사에서 온 말. 등애왕 충의 자는 창서이니,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달리 뛰어나 5~6세 때 이미 사물을 판단하는 지혜가 성인과 같았다. 그 때 왕인 손권(182~252)이 큰 코끼리 한 마리를 구하여 그의 무게를 알고자 군신(群臣)들에게 물었으나, 아무도 그 방법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5~6세 밖에 되지 않는 충이 “코끼리를 큰 배에 태워서 물금을 표시하고, 다시 다른 물건을 그만큼 실어서 비교하면 가(可)히 그 코끼리의 무게를 알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위지魏志』 「등애왕충전鄧哀王沖傳」, “字 倉舒 少聰察岐嶷 生五六歲 智意所及 有若成人之智 時孫權曾致巨象 太祖欲知其斤重 訪之群下 咸莫能出其理 沖曰 置象大船之上 而刻其水痕所至 稱物以載之 則校可知”.
- 121) 해전진제(解傳眞諦) : 5~6살 때부터 이미 진제(眞諦) 즉 불교를 전해 듣고 알았다는 말이다.
- 122) 가위국(迦衛國) : 가비라위(迦毘羅衛)의 준말이니 가비라바소도(迦毘羅婆蘇都 ㉟Kapilavastu)라고도 하는데, 싯달다태자가 태어난 가비라국(迦毘羅國)을 지칭한다.
- 123) 구오지류(驅烏之類) : 사원(寺院)의 음식물이나 곡식 등을 지키기 위하여 까마귀, 새, 쥐 등을 쫓는 일을 맡아 보는 어린 사미(沙彌)스님을 지칭한다. 사미는 크게 셋으로 구분하는데, 7살에서 13살까지를 구오사미(驅烏沙彌)라 하니, 어려서 다른 일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4살부터 19살까지를 응법사미(應法沙彌)라 하니, 모든 규칙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며, 20살부터 70살까지를 명자사미(名字沙彌)라 하니, 20살이 되면 비구계(比丘戒)를 받아 비구의 분한(分限)을 가지게 되므로 명자(名字)만이 사미이고 실은 비구이기 때문이다.

같은 어린 나이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김공<sup>124)</sup>이라 존칭하였다. 그는 기연을 검괄<sup>125)</sup>하여 중요<sup>126)</sup>를 격양(激揚)하되, 한 가지를 들으면 천 가지를 깨달아 진도의 결과가 그의 업사<sup>127)</sup>보다 배나 높았다.

遽就法阜寺, 大師寬雄處, 數學之次, 雄公適指京華, 俄辭水石, 彼則浮杯以渡, 纔出五雲, 我則負笈而追, 匪遙千里, 同歸輦<sup>128)</sup>下, 卽占山西, 旋接于海安寺. 俊光方丈, 剃髮毀容, 出家脩道, 輒展縛儀於函杖, 款窮縹帙於貫花. 魏蒼舒秤象之年, 解傳真諦, 迦衛國駟<sup>129)</sup>烏之類, 僉讓金公, 其於檢括機緣, 迺激揚宗要, 一聞千悟, 功倍於嚴師.

양지<sup>130)</sup>와 삼명<sup>131)</sup>으로 도덕이 높아 부처님의 혜명(慧命)을 계승하였

124) 김공(金公): 어려서 출가하여 사미(沙彌)가 된 지광국사를 지칭한다. 김공이란 높여서 존칭하는 말.

125) 검괄기연(檢括機緣): 기연을 온전히 들어 섭수함이니, 총괄(總括)한다는 것이다. 기연이란 기(機)와 연(緣)이니, ①기는 기회(機會). 연은 인연(因緣). 즉, 학인이 선지식의 교화를 받는 기회 ②기는 종지(宗旨)를 제시(提示)하는 종사(宗師). 연은 종지(宗旨)를 질문하는 학인(學人). 예컨대 달마와 양무제가 대화하였으나, 무제(武帝)가 달마의 뜻을 체득하지 못한 것을 기연불투(機緣不投)라 하고, 달마와 혜가(慧可)의 문답을 기연상투(機緣相投)라고 하는 따위이다.

126) 중요(宗要): 종지추요(宗旨樞要)의 준말이니, 최상승인 선(禪)의 종지를 일컫는다.

127) 업사(嚴師): 아버지를 엄부(嚴父)라고 하는 것과 같이 스승을 지칭한다.

128) [全文]에는輦.[苑][總覽]의輦는輦의 오자임.

129) [苑][總覽]에는駟.[全文]의駟는駟의 오자임.駟는驢와 同字이다.

130) 양지(兩智): 이지(二智)라고도 하니, 여러 가지가 있다. ①여리지(如理智)와 여량지(如量智) ②근본지(根本智)와 후득지(後得智) ③진지(眞智)와 실지(實智) ④무착지(無着智)와 무애지(無礙智) ⑤차별지(差別智)와 무차별지(無差別智) ⑥진지와 속지(俗智) ⑦권지(權智)와 실지(實智) 등이 있다.



다.<sup>132)</sup> 이와 같이 영특함을 알게 된 옹공<sup>133)</sup>은 기꺼워하면서 해린(海潐)이라 이름을 지어 주었다. 통화 17년<sup>134)</sup> 수하(首夏)의 달<sup>135)</sup>에 용흥사<sup>136)</sup> 관단(官壇)에서 구족계를 품수(稟受)하였다. 탐·진·치의 마음을 씻어 그 오염(汚染)을 여의었으니 마치 손으로 공중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았다. 29살 때 숭교사<sup>137)</sup>를 창건할 때 감독을 맡았던 은공으로 그 절의 초대 주지가 되었다.<sup>138)</sup> 자운사<sup>139)</sup>에서 거행하는 창살도랑에 나아가서<sup>140)</sup> 부처님께

- 
- 131) 삼명(三明): ①전생(前生)의 일을 밝게 아는 숙명명(宿命明) ②수천 수만리를 꿰뚫어보는 천안명(天眼明) ③모든 번뇌가 다한 누진명(漏盡明)을 가리킨다.
- 132) 소불(紹佛): 법력(法力)이 높아서 부처님의 혜명(慧命)을 이어받아 불교를 흥륭케하는 것을 말한다.
- 133) 옹공(雄公): 법고사(法臯寺)의 관웅대사(寬雄大師).
- 134) 통화십칠년(統和十七年): 요(遼) 성종(聖宗)때의 연호. 통화 17년은 999년으로 고려 목종(穆宗) 2년이다.
- 135) 수하지월(首夏之月): 여름이 시작되는 음력 4월.
- 136) 용흥사(龍興寺): 용흥사가 여러 개가 있어 어느 절인지 미상(未詳)이다.
- 137) 숭교사(崇敎寺): 경기도 개성 남쪽 환희방(歡喜坊)에 위치해 있던 절. 1000년(목종3)에 왕의 후원과 해린(海潐)스님의 감독으로 창건하였다. 현종(顯宗)이 어릴 때 대량원군(大良院君)에 봉해졌으나, 12세 때 금치양(金致陽)과 사통(私通)하여 태어난 아들을 목종의 후계자로 삼으려는 천추태후(千秋太后), 즉 경종비(景宗妃) 헌애왕후(獻哀王后)의 강요로 밀려나 숭교사에 와서 사발하고 스님으로 있다가, 1006년 삼각산 신흥사(神穴寺)로 옮겨져 신흥소군(神穴小君)으로 불리었다. 누차 태후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될 뻔 하였으나 1009년 마침내 강조(康兆)의 옹립으로 즉위(卽位)하였다. 『고려사』권1, 2, 3; 『신증동국여지승람』권5 「개성부開城府」하「고적古跡」 등 참조.
- 138) 초직위득명(初職爲得名): 지광국사(智光國師)가 숭교사(崇敎寺)의 초대주지(初代住持)가 되었다는 뜻.
- 139) 자운사(慈雲寺): 경기도 개성시 노운교(勞運橋) 곁 영평문(永平門) 밖에 위치. 919년(태조2) 창건.
- 140) 부자운사창살지랑(赴慈雲寺唱薩之場): 목종이 즉위(卽位)한 후 자운사에서 봉찬법회(奉讚法會)를 열고 스님들과 충신들의 격려와 위로를 위한 도랑(道場)에

향을 올려 기도하였다.<sup>141)</sup> 어느 날 관웅 스님이 법천사(法泉寺)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꿈에 새매 한 마리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왼쪽 손을 펴서 손바닥에 받들었다. 또 두 마리의 산군<sup>142)</sup>이 절 후원에 들어와서 서로 뛰고 놀다가 날이 밝아지자<sup>143)</sup> 떠나간 일도 있었다. 관웅 스님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기억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sup>144)</sup> 국사께서 본사를 찾아왔으니<sup>145)</sup> 이것이 바로 그 꿈의 감응인 것이다. 또 어느 날 꿈에 바닷가에 가서 손으로 직접 작은 고기를 잡아서 삼키고 꿈을 깨었는데, 해몽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어(魚)는 비늘(鱗)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린(潁)을 린(鱗)으로 고쳐 해린(海潁)을 해린(海鱗)으로 개명하고, 자를 거룡(巨龍)이라 하였던 것이다.

兩智三明, 道存於紹佛. 雄公, 悅而名之海潁. 以統和十七年, 首夏之月, 稟具於龍興寺之官壇. 洗心離<sup>146)</sup>染, 如手畫空矣. 時年二九, 例被崇教寺開牒之恩, 初職爲得名也. 仍赴慈雲寺唱薩之場, 焚脩向畢. 雄公, 於法泉寺, 安寢之頃間, 夢見一鷹飛到, 則伸左拳以捧之, 又兩山君, 來入於後園, 互相踊躍, 徹明

참석하였다는 뜻. 창살(唱薩)이란 범어이니, 파도(婆度 𑖦sadu)라고도 한다. 창살 또는 살(薩)이라고도 하니, 선재(善哉)·선성(善成)·호선(好善) 등으로 번역된다. 즉, 지극히 잘한 일에 대하여 “선재 선재.”라고 찬탄하는 말이다. 『현응음의玄應音義』권16에 “唱薩訛音 婆度正音”이라 하였다.

141) 분수(焚修): 불전에 향을 사르고 기도하는 것.

142) 산군(山君): 산신령이니, 호랑이를 지칭한다. 양산군(兩山君)은 두마리의 호랑이. 『설문說文』에 “虎 山獸之君也”라 하였다.

143) 철명(徹明): 철은 철야(徹夜)이니, 호랑이가 밤새도록 있다가 날이 밝은 다음에 야 돌아갔다는 말.

144) 익일(翌日): 翌은 翌과 통자(通字)로 다음날, 이튿날이라는 뜻이다.

145) 걸래(謁來): 알래(謁來)와 같은 뜻이니, 찾아왔다는 말. 또는 방문(訪問)의 뜻.

146) [苑] [全文]에는 離, [總覽]의 離는 離의 오자임.

而去. 雄公異而誌之, 翊日師謁<sup>147)</sup>來本寺, 此其應也<sup>148)</sup>. 師夢到海濱, 手捉小魚吞之, 覺而解之曰, “魚則鱗也.” 因以鱗爲名, 巨龍爲字矣.

나이 21세 때 왕륜사<sup>149)</sup> 대선<sup>150)</sup>장에 나아가서 담경(談經) 시험을 보았는데, 그의 말은 평범(平凡)하나 그 뜻은 매우 심오하였다.<sup>151)</sup> 시험의 문제는 같았으나 국사의 답안(答案)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이하였다.<sup>152)</sup> 저들 자신의 답안이 틀려서 자신의 소망(所望)에 어긋난 자들은<sup>153)</sup> 마치 소경이 촛불을 잡은 것과 같았으며, 혹은 시기하여 머트럽게 다투던 자들은 마치 함장<sup>154)</sup>한 것과 같이 입을 열지 못하였다. 마음에는 모든 반언을 쉬었으니

147) [苑]의 謁과 [總覽] [全文]의 謁은 같은 字로 알(謁)자임.

148) [全文] [總覽]에는 也, [苑]의 芝는 也의 오자임.

149) 왕륜사(王輪寺): 경기도 개성시 송악산 기슭에 있던 절. 919년(태조 2)에 법왕(法王)·자운(慈雲)·왕륜(王輪)·내제석(內帝釋)·사나(舍那)·천선원(天禪院)·신흥(新興)·문수(文殊)·원통(圓通)·지장사(地藏寺) 등 16사를 창건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4 「개성부」상 ‘불우佛宇’ 참조.

150) 대선(大選): 승과(僧科)에 합격한 스님에게 처음 제수되는 법계(法階)이다.

151) 언근의심(言近意深): 대선(大選法階)의 고시장에서 경을 담론함에 있어 말은 비록 비근(卑近)하나, 그 뜻은 매우 심오(深奧)하였다는 뜻.

152) 문동답이(問同答異): 시험의 문제는 같았으나, 스님의 답안(答案)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이(特異)하였다는 뜻.

153) 결망(缺望): 결망(缺望)과 같은 뜻. 기대에 어긋났다는 뜻으로, 소망(所望)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이다. 즉 자신들의 실력이 부족(不足)함을 한탄하는 뜻이다.

154) 함장(銜杖): 함장(銜杖)이라고도 하니, 입에 매(枚)를 물게 하는 것. 매는 젓가락과 같은 모양의 막대기. 양쪽에 끈을 묶어 입에 물게 하는 것이니, 옛날 행군(行軍)하다가 적을 습격할 때 사병(士兵)들로 하여금 각각 매를 입에 물게 하여 말을 못하도록 하는 것. “古行軍 襲敵時 令士卒 銜枚 枚狀如箸 橫銜口中 所以止誼譁也”. 『주례周禮』 「추관秋官」 「서언序言」 함매씨(銜枚氏)에 “銜枚 止言語譁也

감히 파도가 물에 의지한 것을 탄식할 것이며, 진여법(眞如法)은 모든 움직임을 여의었으니 마땅히 탁약<sup>155)</sup>의 가풍(假風)을 비웃을 수 있겠는가.<sup>156)</sup> 토의하는 광장(廣場)에서는 주위로부터 집중적인 공세를 받았으나 마치 교범파제<sup>157)</sup> 등의 호부장자(豪富長者)들로 구성된 그룹의 첩벽(疊壁)이 무너지고 모두 논리에 항복하여 부처님께로 귀화한 것과 같았으며<sup>158)</sup> 견고한 인육의 갑옷이여!<sup>159)</sup> 니건자(尼乾子)를 비롯한 외도(外道) 육사(六師)들의 일(一)·이(異)·유(有)·무(無) 등의 교란적인 주장이 부처님 사자후(獅子吼)의 일성(一聲)으로 말미암아 모두 사라진 것과 같았다.<sup>160)</sup>

枚狀如箸 橫衡之爲繡 結於項”이라 하였다.

- 155) 탁약(橐籥):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 대장장이가 사용하는 풀무. 탁은 외면(外面)의 함독(函櫝), 약은 내면(內面)의 풍관(風管)이니, 탁을 고동하는 것.
- 156) 응치(應嗤): 치(嗤)는 치(嗤)와 같은 자(字)이니, 조소(嘲笑)할 치자.
- 157) 교범파제(橋梵婆提): ㉠Gavāṃpati. 부처님의 제자. 사리물이 교도(敎導)하였다.
- 158) 해의위이교범루강(解議圍而橋梵壘降): 토론의 광장에서 사방(四方)으로부터 질문 공세가 집중적으로 위요(圍繞)하였으나, 그들을 설복시킴이 마치 바라나성(波羅奈城 ㉠varāṇāsi)의 많은 장자(長者)들 중 제1장자의 아들인 야사(耶舍 ㉠Yaśa)가 호부(豪富)한 가정을 버리고 출가입산(出家入山)함에 따라, 제2장자의 아들 부루나(富樓那 ㉠Pūrṇa), 제3장자의 아들 무구(無垢 ㉠Vimala), 제4장자의 아들 교범파제(橋梵婆提 ㉠Gavāṃpati), 제5장자의 아들 묘견(妙肩 ㉠Sudarśana) 등이 계속 뒤를 이어 50명이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이를 교범루강(橋梵壘降)이라 한다. 『유부비내야파승사有部毘奈耶破僧事』권6 참조. 누강(壘降)이란 호부장자(豪富長者)들로 형성된 그룹 누벽(疊壁)이 무너지고 모두 부처님께로 귀화(歸化)하였다는 뜻이다.
- 159) 인개(忍鎧): 인육(忍辱)의 갑옷이란 뜻이니, 인육은 일체의 외난(外難)을 막게 되므로 갑옷에 비유한 것. 『지도론智度論』권10(대정장25, p.133a)에 “忍鎧心堅固精進己力強 智慧利勁箭 破憍慢諸賊”이라 하였으니, 자실(慈實)에 상대하는 말이다.
- 160) 니건첩란(尼乾轍亂): 니건자(尼乾子)를 비롯한 외도육사(外道 六師)들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질문과 비방이 불타(佛陀)의 자비와 인육으로 말미암아 모두 사라진 것과 같다는 뜻이다. 마명보살(馬鳴菩薩)이 편집하고, 일칭(日稱) 등(等)이

春秋二十一，赴王輪寺大選，談經而言近意深。命侶而問同答異。彼缺望者，如盲之執燭，或醜爭者，止語於銜枚。心息諸緣，敢歎波濤之依水，法離群動，應嗤橐籥之假風。解議圍而憍梵壘降。峨忍鎧兮，尼軋<sup>161)</sup>轍亂。

국사께서 법상(法床)에 앉아 불자(拂子)를 잡고 좌우로 한번 휘두르니<sup>162)</sup> 가히 청중들이 많이 모여 앉은 걸상이 부러진 것과 같았다.<sup>163)</sup> 임금이 국사의 도덕을 찬양하고<sup>164)</sup> 대덕(大德)의 법계를 서증하였다.<sup>165)</sup> 이 때 스님께서 이르기를, “내가 의룡(義龍)과 서성(瑞聖)인 후배에게는 부끄럽지만<sup>166)</sup> 인수(仁獸) 보다는 앞서기를 기대하므로<sup>167)</sup> 린(麟)자로 린(麟)자를 고쳐 이

번역한 『니건자문무아의경尼乾子問無我義經』1권에 의하면 니건자 외도가 무아(無我)의 뜻을 질문하자 그에 대하여 계송(偈頌)으로 대답하였다. 니건자란 니건타약제자(尼乾陀若提子)의 준말이니, 니건타는 이름이고 약제자는 어머니의 이름이다. 인도 육사외도의 한 사람.

- 161) 니건(尼軋)은 尼乾이니, 軋은 乾의 고자(古字)이다.
- 162) 착주일추(捉塵一趨): 법상에 올라 앉아 불자(拂子)를 잡고 좌우(左右)로 한번 휘두른다는 뜻.
- 163) 시가절상지중(試可折床之衆): 가히 절상의 대중에 비교할만 하였다는 말. 절상지중이란 걸상[腰掛]이 부러질 정도로 많은 청중이 운집(雲集)함을 지칭한다. 「원공국사승묘탑비문」 주203) 절상이청折牀而聽 [고려편2] p.241 참조.
- 164) 허명양(許明揚): 지광국사의 법문에 대하여 대중이 모두 달마종지를 밝게 천양(闡揚)한다면서 칭송하였다는 말이다.
- 165) 서대덕(署大德): 왕으로부터 대덕(大德)이란 법계의 서명을 받았다는 말.
- 166) 분오참후어의룡서성(紛吾慙後於義龍瑞聖): 내가 의룡과 서성에 대하여는 부끄러움이 많다는 뜻. 의룡이란 교의(敎義)에 정통한 스님을 가리킨다. 서성은 부처님을 지칭한다.
- 167) 기선어인수(冀先於仁獸): 인수보다는 앞서기를 바란다는 뜻. 인수(仁獸)란 린수(麟獸)를 가리키니, 공자(孔子)를 뜻한다.

름하겠다.”고 하였다. 통화년중<sup>168)</sup>에 “강진홍도(講眞弘道)”란 법호를 받았으며, 28년<sup>169)</sup>에는 국사께서 법고사(法臯寺)로 돌아가는 길에 도강<sup>170)</sup>인 진조(眞肇) 스님을 만나 동행<sup>171)</sup>하였는데, 진조(眞肇) 스님이 역산<sup>172)</sup>하는 법을 잘 안다는 말을 듣고 국사께서 가르쳐 주기를 청하였다. 누구나 이를 취하려 하면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쉽고,<sup>173)</sup> 도모하여 옮기면 밝아서 소경이 눈을 뜬 것과 같이 여용<sup>174)</sup>을 보통 무리들에게나 끼쳐주며,<sup>175)</sup> 다능(多能)을 비루<sup>176)</sup>한 것을 연구함과 같았다. 통화 말년은 우리 성고<sup>177)</sup> 현종(顯宗)께서 보위에 오르신 지 5년째 되던 해이다.<sup>178)</sup> 특히 현종 임금으로부터 존

168) 통화년중(統和年中) : 통화는 요(遼)나라 성종(聖宗)때의 연호이니, 고려 983~1011년(성종2~현종2)이다.

169) 이십팔년(二十八年) : [全文]에는 이십팔년이니, 즉 통화 28년(현종1 ; 1010)을 가리킨다.

170) 도강(都講) : 주강(主講)이니, 강사주임(講師主任) 즉 강주(講主)와 같은 뜻이다.

171) 해행(偕行) : 함께 가는 것. 동행(同行).

172) 역산(曆算) : 역산(歷算)이라고도 하니, ①역에 관한 수리(數理) ②역술(曆術)의 방법(方法)을 말한다.

173) 이어반장(易於反掌) :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쉽다는 뜻.

174) 고여용(賈餘勇) : 자신이 변변치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붙여 넣어 줄 능력이 없다는 뜻이니, 「통진대사비문」 주205) 고용지여賈勇之餘 [고려편1] p.366 ; 「법인국사보승탑비문」 주299) 고용賈勇 [고려편2] p.113 등 참조.

175) 항류(恒流) : 보통의 무리. 일반 대중.

176) 비사(鄙事) : ①비근할 일 ②일반적인 상식(常識) ③비상(非常)하지 않고 심상(尋常)한 일.

177) 아성고(我聖考) : 아는 고려 제13대왕 선종(宣宗)의 자칭(自稱)이고, 성고는 조부(祖父)이니, 8대 현종(顯宗)을 지칭한다. 9대 덕종(德宗)은 현종의 장자(長子)이고, 10대 정종(靖宗)은 현종의 제2자이며, 11대 문종(文宗)은 현종의 제3자이고, 12대 순종(順宗)은 문종의 장자이며 13대 선종은 문종의 제2자이다.

178) 속통화말아성고현종어우제오년야(屬統和末考我聖考顯宗御宇第五年也) : ‘그때가 마침 통화말년이니, 상고해 보면 우리 성고인 현종이 즉위하여 어우(御宇)한

장(尊獎)하는 은총을 입어<sup>179)</sup> 대사(大師)의 법계를 받았다.

捉塵而一趨，試可折床之衆。許明揚仍署大德。于時師以謂曰，  
 “紛吾慙後於義龍瑞聖，冀<sup>180)</sup>先於仁獸故，象<sup>181)</sup>以麟改鱗爲名  
 也。”統和年中，受法號曰，“講真弘道”，二十八<sup>182)</sup>年<sup>183)</sup>，師將還  
 法臯寺，路值都<sup>184)</sup>講真肇，偕行次，聞肇公會<sup>185)</sup>曆算之法，師請  
 傳之。取則而易於反掌，移謀而明若發矇，賈餘勇於恒流，究多  
 能於鄙事者矣。屬統林<sup>186)</sup>末考<sup>187)</sup>，我聖考顯宗，御宇第五年也。  
 特蒙睿獎，加署大師。<sup>188)</sup>

대중상부 10년<sup>189)</sup>에는 ‘명료돈오(明了頓悟)’란 법호를 증사(贈賜)받았고,

지 5년째’라는 뜻이다. 그런데 현종 어우 5년은 1014년이니, 1014년은 개태(開  
 泰) 3년이고, 통화말년은 1011년이므로 현종 즉위 5년은 통화년간이 아니고 개  
 태년간(1012~1020)에 속한다.

179) 특몽예장(特蒙睿獎): ‘특히 현종 임금의 추장(推獎)함을 입어서’라는 뜻.

180) [苑] [總覽]에는 冀. [全文]의 奠은 冀의 오자임.

181) [全文]에는 탈락됨. [苑] [總覽]의 象는 象의 오자, 象는 暨의 고자(古字)이다.

182) [苑]은 결락이나, [總覽] [全文]에는 八임.

183)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에는 年임.

184) [苑] [總覽]에는 都. [全文]의 寒은 都의 오자임.

185) [苑] [總覽]에는 會. [全文]의 念은 會의 오자임.

186) [苑] [總覽] [全文] 모두 杯이니, 杯라고도 한다. 和와 같은 字이다.

187) [全文]에는 考가 있으나, [總覽] [苑]에는 考가 탈락됨.

188) 서대사(署大師): [總覽] [苑] [全文] 모두 3글자가 결락이나, 문맥으로 보아 ‘서대  
 사(署大師)’ 3자인 듯하다.

189) 대중상부십□(太中祥符十□): 태는 대(大)의 오자이며 □은 문맥으로 보아 년  
 (年)인 듯하다. 즉 대중상부십년(大中祥符十年)이니, 대중상부는 송나라 진종(眞  
 宗)때의 연호로 1008~1016년이다. 대중상부는 9년까지 밖에 없으며, 여기에서  
 의 대중상부 10년은 1017년(현종8)을 가리킨다.

천희 5년<sup>190)</sup> 호경<sup>191)</sup> 중흥사<sup>192)</sup>에서 여름 결제(結制) 중에 강경법회가 있었는데, 국사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법의 혜택이 화택 중생들에게 두루 미쳐 마치 새벽 기운처럼 청량하게 만들어 주었다.<sup>193)</sup> 자비의 등불을 혼구(昏衢)의 밤거리에 비추어 축건(竺乾)의 서래밀지(西來密旨)를 깨닫게 하였다.<sup>194)</sup> 국사가 매일 한 번씩 기자<sup>195)</sup>의 고도<sup>196)</sup>를 일컬으면 대중은 세 번씩 창송하였다. 그 후 기숙<sup>197)</sup>인 선공의 사회사소<sup>198)</sup>가 문리가 맞지 아니함을 보고 고쳐 지어주면서 [결략] 도(道). 지만적(枝蔓的)인 부사는 잘라 버렸

190) 천희오년(天禧五年): 천희는 송나라 진종(眞宗) 때의 연호. 천희 5년은 1021년 (현종 12).

191) 호경(鎬京): 중국의 무왕(武王)이 도읍하였던 곳. 전하여 서울이란 뜻으로 쓰인다. 여기서는 당시 서울인 개성을 가리킨다.

192) 중흥사(重興寺): 경기도 개성에 있던 절. 1053년 10월 19일에 문종(文宗)이 이 절에 행차(幸次)하였으며, 1087년 10월 5일 선종(宣宗)이, 1102년 8월 23일에는 숙종(肅宗)이 각각 이 절에 행행(行幸)하였다.

193) 태평화택이신량(潭伴火宅以晨涼): 법(法)의 혜택(惠澤)이 화택 중생들에게 두루 미쳐 마치 새벽 기운처럼 서늘하게 만들어 준다는 뜻.

194) 효축건서의(曉竺乾西意): 축건(竺乾: 인도)의 서래밀의(西來密意)인 선지(禪旨)를 깨닫게 한다는 말.

195) 기자(箕子): 중국 은(殷)나라 주(紂)의 친척. 『사기史記』와 『한서漢書』에 의하면 나라가 망하자 조선에 들어와서 예의·전잠(田蠶)·방직(紡織)과 팔조(八條)의 교(敎)를 가르쳤다고 한다. 그러나 진(晉)나라 두예(杜預)의 주(註)에는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 중엽에 평양에 기자묘(箕子墓)를 찾아 묘사(廟祠)를 세웠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이 때부터 기자에 대한 숭배사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평양에 기자릉·묘사·비석 등 유적이 있는데, 이는 모두 고려 및 조선 때 설치한 것이다.

196) 기자고도(箕子古都): 종래로 기자의 도읍지를 평양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학설은 없다. 항상 한번씩 기자 고도를 칭한 것은 한국의 초전불교지(初傳佛敎地)가 고구려이기 때문에 기자의 고도가 성지(聖地)이므로 매칭(每稱)한 것이 아닌가 한다.

197) 기숙(耆宿): 나이 많은 노인(老人).



다.<sup>199)</sup> 스님은 어떤 말을 하여도 곧 훌륭한 문장을 이루게 되었으니,<sup>200)</sup> 헤거<sup>201)</sup>의 문장력도 혼비백산하였고,<sup>202)</sup> 문장을 나누면 척척 음운에 부합하였으니<sup>203)</sup> 담빙<sup>204)</sup>의 음운학의 실력도 부끄러워할 정도였다.<sup>205)</sup> 뿐만 아니

198) 사회사소(社會詞疏): 사회절(社會節)의 행사 때 고(告)하는 축소(祝疏), 즉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를 지낼 때 고(告)하는 축원문이다. 사회(社會)란 사(社)가 회합(會合)한 집단체이니, 사일(社日)이나 절일(節日)이란 입춘(立春) 후(後)와 입추(立秋) 후(後)의 제5에 해당하는 술일(戌日)에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하는 날로써, 봄철에는 오곡(五穀)의 풍년(豐年)을 비는 것으로 춘사(春社)라 하고, 가을에 지내는 것은 추수(秋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 이를 추사(秋社)라 하였다.

199) 전절부사(翦截浮辭): 산만하고 허부(虛浮)한 언사들은 모두 전절(翦截)하거나 추고하였다는 뜻.

200) 출어성장(出語成章):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이 그대로 훌륭한 문장을 이룬다는 말.

201) 혜거(惠璩): 북송(北宋) 때 단양(丹陽) 사람. 와관사(瓦官寺)에 가서 출가하였고 경론(經論)과 사서(史書)를 두루 섭렵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창도(唱導: 梵唄)에 능통하였다. 말을 뱉으면 곧 문장(文章)이 이루어졌다(出語成章). 송의 태조 문황제(424~453)가 크게 존중하였으며, 초왕(譙王)이 형주(荊州)를 진압하려고 스님과 동행(同行)하여 양산(梁山)에서 법회(法會)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후 효무제(孝武帝 453~464)는 스님을 융숭히 대접하고 경읍(京邑)의 도유나(都維那)로 추대하였다. 대명(大明) 말년(457~464) 와관사에서 세수 72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양고승전梁高僧傳』권13 「석혜거전釋慧璩傳」(대정장50, p.416a).

202) 백치(魄穢): 치백(穢魄)이라고도 하니, ①깜짝 놀라게 하여 혼백(魂魄)을 뺏는 것 ②초월적(超越的)인 일을 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는 것 ③혼비백산케 하는 것. 『문선文選』 「장형張衡」 「동경부東京賦」에 “罔然若醒 朝疲夕倦 奪氣穢魄之爲者也 又若魂魄亡離其身”이라 하였다.

203) 분문족운(分文足韻): 문장을 나누면 음운(音韻)에 부합한다는 뜻. 문장과 음조(音調)에 뛰어났다는 뜻이다.

204) 담빙(曇憑): 속성(俗姓)은 양견씨(楊健氏). 남안(南安) 출신. 어려서 출가하여 서 울에서 경론을 배웠고 백마사(白馬寺)에 있었는데, 음조(音調)에 조예가 깊었으며, 규구(規矩) 즉 음규(音規)에 정통하였다. 뒤에 성악(聲樂)을 닦아 추종을 불허(不許)하였다. 용연사(龍淵寺)에 있으면서 음학(音學)을 지도하였다. 그리하

라 그의 주연<sup>206)</sup>하고 민첩함을 누가 능히 그를 적대할 수 있겠는가!<sup>207)</sup>

太中祥符十年<sup>208)</sup>賜法<sup>209)</sup>號爲‘明了頓悟’，天禧五年，於鎬京重興寺，爲夏講說，師談傾法，澤畔火宅以晨涼。炤徹慈燈底昏衢之夜，曉竺乾<sup>210)</sup>西意。師每一稱箕<sup>211)</sup>子古都。衆皆三讚。其後見耆宿先公，社會詞疏，文理不便，改而製之，□<sup>212)</sup>□□道，翦截浮辭。出語成章，惠璩以之魄褫，分文足韻，曇憑于以顏怩，其適妍敏捷之能，侯誰的對乎。

태평년중<sup>213)</sup>에 중대사의 법계를 진정(進呈)하고 아울러 ‘계정고묘응각(戒正高妙應覺)’이란 법호를 올리고는 수다사<sup>214)</sup>를 말도록 하였다. 태평 10

여 범음(梵音)을 한번 토(吐)하면 새와 말들이 슬피 울었다고 한다. 동경(銅鏡)을 만들어 팔음(八音)과 사변(四辯)을 지도하다가 백마사에서 입적하였다. 『양고승전』권13「석담빙전釋曇憑傳」(대정장50, p.414b).

205) 안니(顔愜): 愜는 愧이니, ①부끄러워할 니字 ②점연쩍어할 니字이니,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 ③참괴하는 얼굴.

206) 주연(適妍): 주(適)는 ①굿셀 주 ②아름다울 주字. 주연이란 주염(適鹽)·주경(適勁)·주려(適麗) 등과 같은 뜻으로, 서화(書畵), 문장(文章), 필법(筆法) 등에 정통함을 지칭한다.

207) 후수적대호(侯誰的對乎): “그의 주연하고 민첩함을 누가 능히 적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뜻.

208) [苑] [總覽] [全文] 모두 결락이나, 문맥으로 보아 年字인 듯하다.

209) 결락된 2字는 문맥으로 보아 賜法 2字인 듯하다.

210) □의 缺字는 문맥으로 보아 乾字인 듯하다.

211) [全文] [總覽]에는 箕. [苑]의 箕는 箕의 오자임.

212) [總覽]에는 결락이나 [苑]은 卜, [全文]에는 小임.

213) 태평년중(太平年中): 태평은 요(遼)나라 성종(成宗)의 연호이니, 1021~1030년(현종 12~21).

214) 수다사(水多寺): 강원도 명주에 있던 절. 신라 진덕여왕 말년(647~653)에 창건하였다. 『삼국유사』권4「자장정률慈藏定律」(대정장49, p.1005c).

년<sup>215)</sup>에 이르러 현종이 칙명(勅命)으로 해안사<sup>216)</sup>로 이주하도록 양청(仰請)하였다. 그 후 덕종<sup>217)</sup>이 즉위하여서는 보다 더욱 존중히 모시는 한편 특별히 삼중대사의 법호를 수정(授呈)하고 아울러 마납(磨納)으로 만든 법복 한 벌을 증사(贈賜)하였으며, ‘탐현도원(探玄道源)’이라는 법칭(法稱)을 첨가(添加)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않아 수좌의 법호를 올리고 겸하여 마납복전의<sup>218)</sup> 한 상자<sup>219)</sup>를 하사하였다. [결락] 자심하거늘<sup>220)</sup> 어찌 우물안개구리가 바다의 깊음을 측량할 수 있겠는가. 치류<sup>221)</sup>들이 환희심에 넘친 마음으로 경하하여<sup>222)</sup> 하연(廈燕)이 투서(投棲)함을 경멸히 여겼으니,<sup>223)</sup> 지광국사는 마치 각왕(覺王)의 출세가 아닌가 하여 의심할 정도였다.<sup>224)</sup> 다행히 인주<sup>225)</sup>와 동시에 출세하여 그의 법음은 마치 바다를 덮을 정도로

215) 십년(十季): 십년(十年)은 태평십년(太平十年)이니, 1030년(현종 21).

216) 해안사(海安寺): 본미문 주116)해안사海安寺 p.370 참조.

217) 덕종(惠宗): 惠은 德의 古字이니, 德宗이다. 고려 제9대 임금. 1031~1034년간 재위(在位).

218) 전의(田衣): 복전의(福田衣)의 준말이니, 가사(袈裟)를 지칭한다.

219) 일사(一筭): 한 상자, 곧 ‘가사(袈裟) 여러 벌을 담은 상자’라는 뜻.

220) □□□자심(□□□滋深): 3字의 결락 부분은 문맥으로 보아 대해수(大海水)인 듯하다.

221) 치류(縑流): 치문지류(縑門之流)의 준말이니, 스님들을 지칭한다.

222) 편하(翩賀): 대중스님들이 환희에 넘쳐 손뼉을 치고 빙빙 돌면서 경하(慶賀)하는 것.

223) 각경하연지투(却輕廈燕之投): 도리어 하연의 상하(相賀)를 경멸히 여긴다는 뜻. 즉 세상의 오욕락(五欲樂)을 초로와 같이 여긴다는 말이다. 하연이란 연작상하(燕雀相賀)의 준말이니, 연하(燕賀)라고도 한다. ①가옥을 신축하여 그 낙성을 축하하는 것 ②큰 집을 지으면 제비와 새들이 기꺼워한다는 뜻. 『회남자』「설림훈說林訓」, “大廈成而燕雀相賀”.

224) 의출세지각왕(疑出世之覺王): 지광국사는 마치 각왕 즉 부처님의 출세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위대함을 감탄하였다는 뜻. 각왕이란 부처님을 지칭한다.

225) 인주(仁主): 인자하고 위대한 임금. 덕종을 지칭한다.

해조음<sup>226)</sup>과 같았으며, 현하(懸河)와 같은 변재<sup>227)</sup>는 그 도도하며 민첩함을 이루 다 형언할 수가 없었다.

太平年中, 加重大師, 戒<sup>228)</sup>正高妙應覺爲號, 住持水多寺. 十季, 有勅移住海安寺. 迄于惠<sup>229)</sup>宗臨朝, 轉甚重之, 特授三重大師, 并賜磨衲法服一領, 加法稱曰, ‘探玄道源’. 未幾, 加授首座, 兼賜磨衲田衣一箇者. □□□滋深, 寧許井蛙之測. 緇流翮賀, 却輕厦燕之投, 疑出世之覺王. 幸同時於仁主, 盖海之聲無央數, 懸河之辯不盡言.

중희년중<sup>230)</sup>에 ‘통제연오법동(通濟淵奧法棟)’이라는 법호를 가상(加上)하였다. 갑자기 어느 날 선조(宣詔)를 보내 궁내로 초빙하여<sup>231)</sup>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연설토록 하였다.<sup>232)</sup> 국사는 궁중의 높은 섬돌<sup>233)</sup>을 밟고<sup>234)</sup> 예상(狎床)인 법상에 올라 앉아 법우를 내려주어 진리를 표하고 정

226) 개해지성무양수(盖海之聲無央數): 지광국사의 법음(法音)의 소리는 마치 바다를 뒤덮을 정도로 한량이 없어 해조음(海潮音)과 같다는 말.

227) 현하지변(懸河之辯): 마치 공중(空中)에 매달려 있는 폭포수의 거침없이 도도(滔滔)하게 흐르는 물과 같이 걸림이 없고 민첩한 변재(辯才). 『수서隋書』「유림전儒林傳」, “罄縣河之辯”.

228) [全文] [總覽]에는 戒. [苑]의 戒는 戒의 오자임.

229) [苑] [總覽] [全文] 모두 惠이니, 惠은 德의 고자(古字)임.

230) 중희년중(重熙季中): 熙는 熙와 같은 字이고, 季은 年의 古字이다. 중희는 요나라 흥종(興宗)때의 연호로 1032~1055년간을 말한다.

231) 선허입내(宣許入內): 정종(靖宗) 임금이 친서를 보내 궁내(宮內)로 초빙하였다는 뜻.

232) 비연연경(俚演蓮經): 지광국사로 하여금 연경(蓮經)을 강연토록 하였다는 말이니, 연경이란 『묘법연화경妙法蓮花經』의 준말이다.

233) 이폐(螭陛): 궁전의 섬돌. 또는 계단, 층층대. 궁중의 섬돌 등 석물(石物)에는 이룡(螭龍) 등 뿔이 없는 용을 새겨두기 때문이다.

법(正法)을 나타내었다.<sup>235)</sup> 우거(牛車)에 따른 오지(奧旨)의 관기(關筭)를 활짝 열어<sup>236)</sup> 무명(無明)인 혹(惑)을 전제(剪除)하고 의문(疑問)의 구름을 휘산(揮散)하였다.<sup>237)</sup> 맹구우목(盲龜遇木)<sup>238)</sup>과 같이 만나기 어려운 묘법을 들은 임금은 마음에 크게 감동하였으니,<sup>239)</sup> 어찌 귀중한 보배와 사사공양(四事供養)을 하사하는데 인색하였겠는가!<sup>240)</sup> 특별히 가는 실로 수를 놓은 당상복<sup>241)</sup> 두 벌을 하사하였다. 14년<sup>242)</sup>에는 발탁하여 승통(僧統)의 법계(法階)를 올렸다. 지금의 임금<sup>243)</sup>이신 문종이 즉위하여 하(夏)나라의 정

234) 섭운(蹶雲): 운(雲)은 높다는 뜻. 즉 궁전의 높은 계단을 밟고 설법장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235) 예상강우(狔床講雨): 예상은 사자좌(獅子座)이니, 법상 즉 법상에서 법을 강설하여 청중의 마음에 법우(法雨)를 내려 주었다는 말이다.

236) 기장(箕張): 마치 키처럼 펼쳐진다는 뜻. 빗장의 손잡이를 밀어 대문을 연다는 뜻이니, 우거지오지(牛車之奧旨), 즉 대승의 심오한 진리의 관기(關筭)를 활짝 연다는 말이다.

237) 전혹재의(剪惑裁疑): 무명의 혹을 잘라내고 번뇌의 의(疑)를 끊어버린다는 뜻.

238) 구목(龜木): 맹구부목(盲龜浮木) 또는 맹구우목(盲龜遇木)의 준말이니, 바다에 빠진 눈 먼 거북이가 떠다니는 부목을 만나는 일이니, 불법(佛法) 만나기가 극히 어려움을 비유하는 말. 『열반경涅槃經』권2(대정장12, p.372c8), “生世爲人難 值佛世亦難 猶如大海中 盲龜值浮木孔”.

239) 기해주청(暨諧駐聽): 임금이 법문을 듣고 마음에 크게 감동함에 이르렀다는 뜻. 주청이란 임금이 듣는다는 뜻이다. 주는 황(黃)의 뜻으로, 황(黃)은 오행(五行) 중 중앙의 황토(黃土)이니, 왕(王)을 가리킨다.

240) 해린진반(奚憐珍頒): “어찌 귀중한 보배와 사사공양(四事供養)을 하사하는데 인색하겠는가.”라는 뜻. 반(頒)은 사(賜)의 뜻이다.

241) 당상복(幢相服): 해탈당상의(解脫幢相衣)의 준말이니, 해탈복(解脫服)이라고도 한다. 즉 ①가사를 가리키니, 해탈을 구하기 위해 수도하는 스님네가 입는 옷 ②조엽(條葉)의 사위(四圍)모양이 마치 불탑(佛塔)의 당상(幢相)과 같기 때문. 현장(玄奘) 역(譯), 『대승대집지장십륜경大乘大集地藏十輪經』권4(대정장13, p.742c)에 “被菟伽沙佛 解脫幢相衣 於此起惡心 定墮無間獄”이라 하였다.

242) 십사년(十四年): 중희십사년(重熙十四年)이니, 1045년(靖宗 11).

통을 계승하여 국민에 임하였으며,<sup>244)</sup> 마치 주(周)나라의 무왕(武王)이 은(殷)나라의 폭군 주왕(紂王)을 견제(甄除)한 것과 같이 인정(仁政)을 펴서<sup>245)</sup> 홍업(洪業)은 이미 의삭<sup>246)</sup>에 이르렀으며, 약성<sup>247)</sup>은 나마<sup>248)</sup>에 간절하였다. 왕이 국사를 임궁<sup>249)</sup>으로 초빙하여 유심(唯心)에 대한 묘의<sup>250)</sup>를 강설케 하고는 마납(磨納) 비단으로 만든 승가리(僧伽梨) 한 벌을 하사하였다.

重熙季中，加號曰，‘通濟淵<sup>251)</sup>奧法棟’。忽一旦，宣許入內，俾演蓮經。師螭陞躡雲，猊<sup>252)</sup>床講雨，標真顯正。牛車之奧旨箕

243) 금상(今上) : 고려 제11대 문종.

244) 유하림민(有夏臨民) : 문종이 왕위에 올라 선정(善政)을 베푸는 것이 마치 주무왕(周武王)이 은(殷)의 주왕(紂王)을 멸하고 인정(仁政)을 행(行)한 것과 같다는 말이니, 하(夏)나라의 정통을 이어받은 주나라 무왕인 발(發)이 은나라 폭군 주왕을 멸하고 왕이 되어 호경(鎬京)에 도읍한 것에 비유한 말.

245) 견은포정(甄敷布政) : 문종이 즉위하여 선정을 행하는 것이 마치 주(周)의 무왕이 은(殷)의 주왕을 견제(甄除)하고 인정(仁政)을 편 것과 같다는 말.

246) 의삭(懿鑠) : 아름답고 왕성한 것이니, 정치를 잘하여 민심(民心)이 아름답고 국력(國力)이 왕성하게 빛난다는 뜻. 채옹(蔡邕), 「이태위비李太尉碑」, “懿鑠之美昭登於上”.

247) 약성(淪誠) : 깊고 돈독하고 맑은 정성.

248) 나마(那摩) : 나무(南無 𑖦namo)라고도 한다. 귀의(歸依)라 번역된다. 『구사론광기俱舍論光記』권5, “梵云 那摩 唐言 言名 是隨義 歸義 赴義 名義 謂隨音聲 歸赴於境 呼召色等 名能詮義”.

249) 임궁(琳宮) : 임우(琳宇)와 같음. 아름다운 옥으로 장식된 집. 도교(道教)의 수도 처인 도관(道觀) 또는 도원(道院)의 뜻이나, 여기서는 왕궁(王宮)을 지칭한다. 오균(吳筠), 「유선시遊仙詩」, “上元降玉闕 王母開琳宮”.

250) 유심묘의(唯心妙義) : 유심(唯心)을 종지(宗旨)로 하는 성종(性宗)에 속하는 종교(終敎) · 돈교(頓敎) · 원교(圓敎) 등 대승경전을 지칭한다.

251) [總覽] [全文]에는 淵. [苑]의 畵은 淵의 오자임.

252) [苑] [總覽]에는 猊. [全文]의 貌는 猊의 오자임.

張, 剪惑裁疑. 龜木之妙詮玉振, 暨諧<sup>253)</sup>聽, 奚悵<sup>254)</sup>珍頒. 別  
賜細繡幢相服二領. 十四年, 擢授僧統. 迨于今聖上, 育夏臨  
民, 甄殷布政, 洪業, 已臻於懿樂, 淪誠, 深<sup>255)</sup>切於那摩. 迺召  
師於琳宮, 講唯心妙義, 仍賜磨衲僧伽梨一領.

궁중<sup>256)</sup>의 구중<sup>257)</sup>에서 부의<sup>258)</sup>하고 있는 임금께서 친히 상보<sup>259)</sup>하는 용  
상대덕(龍象大德) 스님들을 영접한 백고좌(百高座)는 모두 용문(龍門)을  
뛰어넘어 오도견성(悟道見性)한 도인들이었다.<sup>260)</sup> 담수(曇邃) 스님은 북좌  
(北座)에서 정통(精通)하였음을 부끄러워 했고,<sup>261)</sup> 승철대사(僧徹大師)는

253) [苑] [總覽] [全文] 모두 鞋이니, 누를(黃色) 주字.

254) [苑]의 悵와 [總覽]의 悵는 같은 글자임. [全文]의 悵은 悵의 오자임.

255) [全文]에는 深. [苑] [總覽]의 采는 深의 오자임.

256) 한궐(漢闕): 한(漢)나라의 궁전이나, 여기서는 문종의 궁전(宮殿)을 지칭한다.

257) 구중(九重): ①궁중(宮中). 왕성(王城)의 문은 구중(九重)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②천자(天子)를 지칭한다. 『초사楚辭』「구변九辯」, “豈不鬱陶而思君兮 君之門以  
九重”. 『칭위록稱謂錄』, “天子古稱九重”. 「진공대사탑비문眞空大師塔碑文」 주  
126) 구중지궐九重之闕 [고려편1] p.154; 「광자대사비문廣慈大師碑文」 주94) 구  
중九重 [고려편1] p.297 등 참조.

258) 부의자(負戾者): 왕(王)을 가리키니, 왕은 의(戾)를 배면(背面)에 치고 남쪽을 향  
해 앉음을 말한다. 의(戾)는 ①용과 도끼 등의 수를 놓아 만든 도포 ②도끼와 용  
또는 봉황을 그린 병풍 따위.

259) 상보(象步): 코끼리와 같이 위엄있게 당당히 걸어가는 용상대덕(龍象大德), 즉  
중중존(衆中尊)인 고승대덕(高僧大德)을 가리킨다.

260) 투룡문(透龍門): 잉어가 상류(上流)하다가 폭류가 심하고 높은 곳을 뛰어 오르  
는 것을 뜻함이니, 이를 과거(科擧)에 급제함을 비유하였으나, 여기서는 세간(世  
間)을 역류(易流)하고 오도견성(悟道見性)한 도인을 가리킨다.

261) 수공참제북지정통(遂公慙在北之精通): 석담수(釋曇邃) 스님이 자신은 북좌(北  
座)에 있고, 제자는 남좌(南座)에서 정통하였음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정도라  
는 뜻. 『양고승전』 권12 「석담수전釋曇邃傳」(대정장50, p.406b)에 따르면 스님의

편독(篇牘)과 시부(詩賦)에 뛰어나 낙필성장(落筆成章)하는 문호이므로<sup>262)</sup> 많은 대덕들을 제치고 왕으로부터 총석<sup>263)</sup> 받은 것을 사양할 정도였다. 그리고 중희년중<sup>264)</sup>에 거듭 다시 ‘구행료성도수(具行了性導首)’라는 법호를 첨가받았다.<sup>265)</sup> 또 기원(祇園)의 적손(嫡孫)이니 이는 오직 불교가 중흥할

출생지는 알 수 없다. 어릴 때 출가하여 하음(河陰) 백마사에서 소식(蔬食)과 누더기로 『정법화경正法華經』을 하루에 한 편씩 독송하였다. 경지(經旨)를 깊이 통달한 후 사람들에게 설법해 주기도 했다. 어느 날 밤중에 누군가 홀연히 문을 두드리며, 90일 동안 설법을 해달라고 청법(請法)하였다. 스님은 굳게 거절하다가 부득이하여 나아갔지만, 실은 여전히 수면중에 있으면서 백마오(白馬塢)의 신사중(神祠中)에서 한 제자와 같이 있게 되었는데, 아무도 이를 알지 못했다. 그 후 한 스님이 신사 앞을 지나다가 두 고승(高僧)을 보았는데, 담수(曇邃)는 북쪽에 앉아 있고, 제자는 남쪽에 앉아 있었고(邃在北 弟子在南), 마치 강설(講說)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또한 기이(奇異)한 향내가 가득하였다고 하였다.

262) 승철양류중지총석(僧徹讓流中之寵錫): ‘승철 스님이 왕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제치고 총석을 받은 것을 지광국사에 비교하면 승철이 사양할 정도’라는 뜻이다. 『양고승전』권7「석승철전釋僧徹傳」(대정장50, p.370c)에 따르면 스님의 속성은 왕씨(王氏)이며, 태원(太原) 진양(晉陽) 출신인데,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16세 때 여산동림사(廬山東林寺)로 가서 혜원법사(慧遠法師)에게서 출가하였다. 그로부터 경론(經論)을 배우면서 틈이 날 때마다 편독(篇牘)과 시부(詩賦)에 뜻을 두어 그 방면에도 조예가 깊었다. 일부(一賦)와 일영(一詠)도 읊기만 하면 곧 낙필성장(落筆成章)하는 문호(文豪)가 되었다. 그러나 혜원으로부터 시문(詩文)은 사랑계교(思量計較)하는 것이므로 수도에 장애가 된다는 말을 듣고 중단하였다. 24세 때 『소품반야경小品般若經』을 강설하였고, 혜원법사가 입적(入寂)한 후에는 강릉성내(江陵城內)의 오층사(五層寺)에 주석하다가 만년에 비파사(琵琶寺)로 옮겼다. 팽성왕(彭城王) 의강(義康)이 스님에게 수계(受戒)하였고, 송 원가(元嘉) 29년(452) 세수 70세를 일기(一期)로 입적하였다.

263) 총석(寵錫): 총애하여 내리는 선물이니, 총황(寵貺) 또는 사물(賜物)이라고도 한다.

264) 기년중(其年中): 중희년중(重熙年中)이니 1032~1055년간이다.

265) 천가(薦加): 거듭 ‘구행료성도수(具行了性導首)’라는 법호를 첨가하였다는 뜻. 荐은 거듭 薦字.



인유(因由)인 것이다. 척리<sup>266)</sup>의 신동(神童)들이 예문(禮聞)을 거치지 아니하고 와서 수학하였다. 이로써 작고(作故)하신 수태사(守太師)의 문하시중(門下侍中)이며 중서령(中書令)을 추증받은 장화공(章和公) 이씨(李氏)의 휘는 자연<sup>267)</sup>이니, 드디어 다섯째 아들을 허락하여 그로 하여금 낙발<sup>268)</sup>하고 정성을 다하여 국사에게 구의하고<sup>269)</sup> 신족<sup>270)</sup>이 되어 복근(服勤)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국사가 직접 찾아가서 친견하고 찬양(讚仰)하였으니, 그 분이 누구인가? 지금의 금산사(金山寺) 주지로 있는 삼중대사인 소현<sup>271)</sup>이 바로 그 스님이다. 국사는 부모를 하직하고 속가를 떠나 입산하

266) 척리(戚里): ①친척들이 사는 마을, 곧 고향을 뜻함 ②천자의 외척(外戚), 곧 어머니의 친척이니, 외가(外家)를 지칭함 ③왕비(王妃)의 친정.

267) 이자연(李子淵): ?~1086. 고려 문신. 본관은 인주(仁川). 1024년(현종15) 문과에 급제하였고, 덕종 때 우보궐(右補闕), 이부랑중어사잡단우승선(吏部郎中御史雜端右承宣), 1047년(문종1)에 이부상서참지정사(吏部尙書參知政事), 1050년(문종4) 내사시랑평장사(內事侍郎平章事)에 올랐다. 딸 셋이 각각 인예태후(仁睿太后)·인경현비(仁敬賢妃)·인절현비(仁節賢妃) 등으로 모두 문종의 비가 됨으로써 세력을 장악했으며, 1052년(문종6) 수태위(守太尉)로 승진하였고, 이듬해인 1053년에는 문하시중판서이부사(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가 되었다. 이어 지공거(知貢舉)·개부의동삼사태사(開府儀同三司太師)·중서령감수국사상주국경원군개국공(中書令監修國史上柱國慶源郡開國公) 등을 역임하였다. 『고려사』권1, 7, 8, 10 등 참조.

268) 낙발(落髮): [總覽][苑][全文]에는 모두 髮 髮은 髮의 오자. 머리를 깎는 것. 삭발한다는 뜻이다. 「징효대사보인탑비문澄曉大師寶印塔碑文」 주20) 낙채落采 [고려편1] p.243 참조.

269) 저망구의(貯望握衣): 꾀웃하게 서서 옷자락을 여미며 지팡국사를 정성껏 모시기를 희망한다는 뜻.

270) 신족(神足): 제자(弟子)란 뜻.

271) 소현(韶顯): 1038~1096. 속성은 이씨, 이름은 민(民). 이자연의 다섯째 아들로 휘는 소현이고, 시호는 혜덕(慧德), 탑호는 진응(眞應). 스님의 비(碑)가 금산사(金山寺)에 있는데, 그 비의 제액(題額)은 '金溝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라 하였다.

였다.<sup>272)</sup> 음식을 항상 절제하여<sup>273)</sup> 묘제<sup>274)</sup>인 아침 공양만 먹었다. 초액<sup>275)</sup>의 후비를 살펴 보건대 모두가<sup>276)</sup> 동기이며,<sup>277)</sup> 악루<sup>278)</sup>의 형제들은 함께 외손인 것이다.

漢闕九重，負扈者，親迎象步，慧徒十百，升堂者，謂透龍門。遼公，慙在北之精通，僧徹，讓流中之寵錫。其年中，荐加‘具行了性導<sup>279)</sup>首’爲號，且或祇園釋胤，寔惟教所由興。咸里神童疇，不禮<sup>280)</sup>來學。是以故守大師，門下侍中，追贈中書令，章和公李，諱子淵，遂許第五男，謫令落髮，佇望摠衣，爲神足以服勤。謁法身而讚仰，何者，今金山寺住持三重大師，韶顯是也。大師辭親甲第。節食卯齋。想椒掖之后妃，悉云同氣，矧萼

272) 사친갑제(辭親甲第): 부모와 집을 하직하고 출가입산(出家入山)하였다는 말. 갑제란 제1의 저택, 훌륭한 가옥이니, 여기서는 부모가 살고 있는 속가(俗家)를 지칭한다. 『사기史記』「무제기武帝紀」, “賜列侯甲第”.

273) 절식(節食): “음식을 절제하거나 또는 적게 먹으라.”는 뜻.

274) 묘제(卯齋): 묘반(卯飯)과 같은 뜻. 묘는 묘시(卯時)로써 오전 5시부터 7시까지이니, 아침 밥을 지칭한다.

275) 초액(椒掖): 후궁(後宮)·초방(椒房)의 뜻. ①한기(寒氣)를 막고 향기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벽에 산초의 기름을 바르는 것 ②왕비(王妃)의 친정, 곧 왕의 처가(妻家)이니 외가를 뜻한다. 『진서』「유량등전론庾亮等傳論」, “外戚之家 連耀椒掖之內 進御以序”.

276) 후비실운동기(后妃悉云同氣): 문종의 후비 세사람이 모두 이자연의 딸이고, 소현대사(韶顯大師)도 또한 자연의 제5자이므로 동기(同氣)가 된다는 말.

277) 동기(同氣): 형제자매를 뜻함. 여기서는 문종의 후비와 소현대사가 남매간(男妹間)이라는 뜻.

278) 악루(莠樓): 왕자(王子)를 가리킨다. 사망에 연꽃 받침과 같이 둘러쌓여 있는 화려한 누각이니, 곧 왕자가 거(居)하는 처소(處所)를 지칭한다. 초액(椒掖)인 후궁과는 달리 전면(前面)에 나타나 있는 누관(東宮)이니 문종의 왕자를 가리킨다.

279) [總覽][苑][全文]에는 모두 藥 藥는 藥의 오자이고, 藥는 導와 同字이다.

280) [苑][總覽][全文] 모두 聳이나, 聳의 오자임. 聳은 聞의 고자(古字)임.

樓之兄弟，皆謂此甥。

이 사람은 도의 극치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sup>281)</sup> 유교와 불교를 두루 통달하여 그와 대등한 자가 없었다.<sup>282)</sup> 덕행과 문장이 노당<sup>283)</sup>의 십철<sup>284)</sup>을 크게 엄압(掩壓)하였고 자비와 지혜는 위사의 천승<sup>285)</sup>보다 훨씬 초월하였다. 자질은 현반(玄班)을 크게 높혔고,<sup>286)</sup> 법력은 온 세상의 중생을 부호(扶護)할 만 하였다.<sup>287)</sup> 국사의 문하가 왕성하고 장려(壯麗)함이 스님보다 더 큰 스

281) 이치기도(以致其道) : 致는 致의 俗字. 그 도의 극치를 터득하였다는 뜻이다. [全文]에는 致字가 없다.

282) 돈절등륜(頓節等倫) : 지광국사는 유교와 불교를 모두 통달하였으므로 절대적인 위치를 점유(占有)하여 등륜(상대)할 자가 없다는 뜻.

283) 형엄노당(復掩魯堂) : 멀리 노당을 엄압(掩壓)하였다는 말. 노당이란 공자를 칭하니, 노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284) 십철(十哲) : 공문십철(孔門十哲)의 준말. 공자의 제자가 3,000名인데, 이 중에서 칠십이제자(七十二弟子)와 십철 등의 구분이 있으니, 십철이란 안연(顏淵)·민자건(閔子騫)·염백우(冉伯牛)·중궁(仲弓)·재아(宰我)·자공(子貢)·염유(冉有)·계로(季路)·자유(子遊)·자하(子夏) 등이다.

285) 위사천승(魏寺千僧) : ①위나라 불교 전성기 때 천고좌(千高座)의 고승을 가리키니, 후위(後魏, 북위)의 태무제(太武帝)인 탁발도(拓跋燾 423~452)가 불교를 사테(沙汰)하여 절을 헐고 스님들을 죽였으나, 그의 손자이며 문성제(文成帝)인 탁발준(拓跋濬 452~465)이 즉위(即位)하여 다시 불교를 중흥하고, 1,000명의 고승을 선발하여 정성껏 받들면서 정신적 지주(支柱)로 삼았다. ②조송(趙宋, 宋太祖인 趙匡胤)의 신종(神宗) 원풍(元豐) 3년(1080) 1월 궁내(宮內)에 천승재(千僧齋)를 베풀고 공양을 올린 다음, 가사 천령(千領)과 『금강경』 1,000부를 시주하여 신종(神宗)의 비(妃)인 자성태후(慈聖太后)의 명복을 기원하였다. 『불조통기佛祖統紀』권45(대정장49, p.408c)에 “詔賜天台教文入藏 及賜白金百兩 飯靈山千衆”이라 하였다.

286) 자준현반(資峻玄班) : 자질은 현반을 크게 높힌다는 말이니,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큰 그릇이라는 뜻. 현반이란 ‘현묘(玄妙)한 진리’를 지칭한다.

287) 역부혁세(力扶井世) : 혁(井)은 赫의 略字. 즉 지광국사의 도력(道力)은 넓은 세

님은 없었다.<sup>288)</sup> 중희 23년<sup>289)</sup> 남려월<sup>290)</sup>에 성칙<sup>291)</sup>을 내려 현화사<sup>292)</sup>로 이석(移錫)케 하므로 국사는 고사하였으나 하는 수 없이 마침내 허락하였다. 임금께서 유마<sup>293)</sup> 일필을 이에 앞서 절에 희사(喜捨)하였다. 갑자기 한 비구가 와서 말을 희사한 데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는 잠시 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 간 곳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문수(文殊)의 화현(化現)인 성승<sup>294)</sup>의 영험인 것이다. 현화사(玄化寺)에 입사(入寺)한 후 어느 날 야분<sup>295)</sup> 혼허힐<sup>296)</sup> 무렵, 한 스님과 같이 있었는데, 그 곁에 신인(神人)이 서서 말하기를, “너는 국사이고,<sup>297)</sup> 저는 왕사이다.”라고 하였다.<sup>298)</sup> 잠을 깨었으나, 그가 말한 소리는 아직도 귀에 역력하였다.

상의 모든 중생을 이끌고 갈만하다는 말.

288) 막지여경호(莫之與京乎): 지광국사보다 더 위대하고 큰 스님은 없다는 뜻.

289) 중희이십삼년(重熙二十三年): 1054년(문종 8).

290) 남려월(南呂月): 음력 8월. 8월의 이명(異名)은 중추월(中秋月)·장월(壯月)·유월(西月)·관월(觀月)·남려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291) 성칙(聖勅): 성은 문종을 지칭한다.

292) 현화사(玄化寺):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현화리(玄化里)에 있던 절. 1011년(현종 2)에 창건. 『교감역주고려영추산대자은현화시창건비명』 『가산학보』 7호, 1998, pp.235~295 참조.

293) 유마(驪馬): 유구(驪駒)와 같은 뜻이니, 몸은 검고 붉은 털을 가진 말. 驪는 駢와 같은 字이다.

294) 성승(聖僧): 선원(禪院)의 승당(僧堂) 중앙에 모시는 성승상(聖僧像)을 말한다. 대승사원(大乘寺院)에서는 문수상(文殊像)을, 소승사원(小乘寺院)에서는 교진여, 빈두로, 마하가섭, 수보리 등의 상(像)을 주로 봉안하지만 일정하지는 않다. 『상기전象器箋』 권3 참조.

295) 야분(夜分): 새벽녘. 즉 오전 3시에서 5시 경.

296) 혼허(魂翊): 잠이 들려고 정신이 혼몽해질 때이니, ‘잠이 들자마자’라는 뜻. 가매(假寐)와 같은 말이다.

297) 이국사야(而國師也): ‘너는 국사’라고 지칭하는 말.

298) 피왕사야(彼王師也): ‘저는 왕사’라고 지적하는 말.

乃如之人，以致其道，併通儒釋，頓絕等倫。德行文章，曩掩魯堂十哲，慈悲智慧，全超魏寺千僧。資峻玄班，力扶赫世。其壯麗師門之盛，莫之與京乎。重熙二十三年，南呂月，有聖勅移住玄化寺，師固辭不得。迺捨騶<sup>299)</sup>馬一疋，先納于寺。俄有一比丘，來申賀謝，須臾不知所去，此則聖僧之靈驗也。入院後，夜分魂榻之際，與一僧同遊，則傍有神人，告曰，“而國師也，彼王師也。”<sup>300)</sup>寤則言猶在耳。

아름다운 징조이며<sup>301)</sup> 특별한 서록<sup>302)</sup>이라 칭송되어 길음<sup>303)</sup>이 환구(環區)인 온 세상에 가득하였거든,<sup>304)</sup> 하물며 국사가 어찌 내종<sup>305)</sup>에만 편국(偏局)하였겠는가! 또한 외전(外典)도 두루 겸통하였다.<sup>306)</sup> 날 때부터 이미 여러 가지 묘법(妙法)을 알았을 뿐 아니라,<sup>307)</sup> 숙령<sup>308)</sup>의 어린 나이에 주발<sup>309)</sup>과 같은 천재를 업신여길 정도의 재동이였다.<sup>310)</sup> 아주 많은 서적을 독

299) [苑] [總覽]에는 騶, [全文]의 驪는 騶의 오자임.

300) [總覽] [全文]에는 也, [苑]의 芒는 也의 오자임.

301) 가조(嘉兆): 아름다운 징조. 가조(佳兆)와 같은 말.

302) 서록(瑞錄): 위대한 업적으로 말미암아 감득한 상서로움을 기록한 것.

303) 길음(吉音): 칭찬하는 소리. 반가운 소리.

304) 길음누일어환구(吉音漏溢於環區): 칭송하는 음성(音聲)이 흘러퍼져 환구에 가득하다는 말. 환구란 온 세상, 천하(天下), 천지간(天地間) 등의 뜻이다.

305) 내종(內宗): 불교를 지칭한다.

306) 영호외전(贏乎外典): 외전에도 정통하였다는 뜻.

307) 생지중묘(生知衆妙): 날 때부터 이미 여러 가지 묘법(妙法)을 알았다는 말.

308) 숙령(夙齡): 어린 나이. 연소(年少)한 때.

309) 주발(朱勃): 후한(後漢) 때 부풍(扶風)사람. 자(字)는 숙양(叔陽). 벼슬은 운양령(雲陽令)에 이르렀고 마원(馬援: 茂陵사람. 字는 文淵, 諡는 忠誠. 武官)과 교우(交友)하였다. 『후한서』권54 참조.

파하였으므로<sup>311)</sup> 당시 사람들이 혜초(惠超) 스님을 능가하였다고 칭송이 자자하였다.<sup>312)</sup> 학사<sup>313)</sup> 뿐만 아니라,<sup>314)</sup> 사봉<sup>315)</sup>은 태양을 의지하며 필총<sup>316)</sup>

310) 숙령기주발재동(夙齡欺朱勃才童): 어릴 때부터 주발의 천재(天才)를 업신여길 정도의 재동이었던 말. 주발은 어려서부터 마원과 친했다. 그후 마원이 참소 당함에 발(勃)이 구명운동을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으므로 벼슬을 던져 버렸다. 그후 명제(明帝: 57~75)가 즉위하여 곡식 2,000섬을 하사하여 그의 충직함을 정선(旌善)하였다.

311) 강식군서(强識群書): 많은 서적을 두루 통달하였다는 뜻.

312) 예관혜초(譽冠惠超): 지광국사의 지혜와 덕이 혜초스님보다 더 높다는 뜻. 혜초란 『양고승전』권13「혜초전慧忍傳」(대정장50, p.414c)에 ‘齊代知名’이라 하였으나, 이는 아니고, 여기의 혜초(惠超, 慧超라고도 함)는 『속고승전續高僧傳』권28(대정장50, p.687b)에 나오는 석혜초(釋慧超)로, 속성은 범씨(汎氏 혹은 沈氏)로 단양(丹陽) 건원(建元) 사람이며, 천성(天性)이 온유인자(溫柔仁慈)하였고, 약령(弱齡) 때에 이미 발심출가하여 법화경(法華經)을 독송수도하였다. 그후 천태(天台)의 삼지삼관(三止三觀)을 수행하였으며, 여러 해 동안 도업(道業)을 닦아 행우지원(行優智遠)하며 덕관시현(德冠時賢)이라 칭송되었다. 어느날 병을 앓고 있었는데, 제자가 생사(生死)에 대한 소감을 물으니 스님이 대답하기를, “吾之常也 長生不欣 夕死不慙”이라 하고, 서쪽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서 “第一義空 清淨智觀”이라 하며 622년(武德5) 12월 6일에 마치 살아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았지만, 엄연(奄然)히 입적하였다. 춘추(春秋)는 77세였다.

313) 학사(學士): 학식 또는 학문, 학자(學者) 등의 뜻.

314) 지약(至若): 가지(加之)라고도 한다. 학사(學士)는 약(若)에 이르다는 뜻. ①그뿐만 아니라 ②그 위에 ③~에 이르러서는 ④~에까지 된다.

315) 사봉(詞鋒): 문장과 의론의 성세(盛勢)이니, 그 예리함이 마치 칼날과 같아서 누구도 그를 꺾지 못한다는 뜻. 유신(庾信), 「제왕헌신도비명齊王憲神道碑銘」, “水湧詞鋒 風飛文雅”.

316) 필총(筆塚): 필총(筆冢)과 같은 말. 붓을 묻어둔 무덤. 명필(名筆)인 지영(智永) 스님은 왕희지(王羲之)의 후예로 여러 해 동안 붓글씨를 썼는데, 글씨를 쓰다가 붓이 부러지면 큰 독에 담아 두었다가 많아지면 이를 땅에 묻었다는 데서 온 말이다. 『선화서보宣和書譜』, “智永所用筆退 卽投大甕中 歲久輒貯數甕 自爲銘以瘞之 當時詩人有筆冢對墨池”. 『국사보國史補』, “長沙僧 懷素 好草書 自言 得草聖三昧 棄筆堆積 埋于山下 號曰筆冢 筆冢低低高似山 墨池淺淺深如海”.

은 하늘을 받들었다. 경구(警句)를 독실하게 공부하여<sup>317)</sup> 거유(鉅儒)로써  
의 과문(寡聞)한 이에게 영향을 입혔다.<sup>318)</sup> 화탕<sup>319)</sup>한 개사<sup>320)</sup>가 벽운시<sup>321)</sup>  
의 아작(雅作)을 읊었으니, 이것이 어찌 괴기<sup>322)</sup>한 명문이 아니겠는가! 이  
에 비하면 이적선<sup>323)</sup>의 백설시<sup>324)</sup>의 청음(淸吟)도 진실로 쇠열<sup>325)</sup>한 졸작이  
라 할 것이다. 치소(縑素)의 무리들과 비교하더라도 또한 동년선상에 두

317) 유공(愈工): 더욱 돈독히 공부한다는 뜻.

318) 피거유지과(被鉅儒之寡): 거유의 과문(寡聞)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말. 孺는 儒  
의 誤字이니, 대학자(大學者)·석학(碩學)·대유(大儒) 등의 뜻이다. 『한서』「채의  
蔡義」, “鉅儒宿學 不能自解”.

319) 화탕(和湯): 화합탕탕(和合湯湯)의 준말이니, 육화합(六和合)으로 뭉쳐진 고승  
을 지칭한다.

320) 개사(開士): 보살(菩薩) 또는 대사(大士)란 뜻이니, 도덕이 고매한 스님을 지칭  
한다.

321) 벽운(碧雲): 시(詩)의 편명(篇名). 이백(李白), 「추사시秋思詩」, “海上碧雲斷 單于  
秋色來”.

322) 괴기(瑰奇): 瑰는 瑰와 同字이다. ①진귀(珍貴)하고 기이(奇異)한 것 ②귀중한  
것. 사랑스럽다. 귀엽다 등의 뜻.

323) 이적선(李適仙): 적선은 귀양온 신선이란 뜻. 중국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 이태  
백(李太白 701~762)을 가리킨다. 자는 태백, 이름은 백(白), 호는 청련거사(靑蓮  
居士). 사천(泗川)에서 소년 시기를 보내고, 그후 여러 지방을 유랑하며 호화로  
운 생활을 하고 명사(名士)와 교유(交遊)하였으며, 742년 한림(翰林)에 뽑혀 현  
종(玄宗)과 양귀비(楊貴妃)의 화려한 궁전에 드나들면서 시와 술로 이름이 높  
았다. 이윽고 실각(失脚)하여 강남각지(江南各地)를 떠돌다가 안록산(安祿山)의  
난(亂) 때는 현종의 아들 영왕(永王)의 모반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752년에 귀  
양가게 되었는데, 도중에 용서를 받았다. 대종(代宗) 때 습유(拾遺)라는 벼슬을  
받고, 그 해 채석강(采石江)에서 놀다가 익사하였다고 한다.

324) 백설(白雪): 백설곡(白雪曲)의 준말. 슬곡(瑟曲)의 이름. 백운양춘곡(白雲陽春  
曲)과 함께 초(楚)나라의 가곡으로 그 곡조가 고상하여 고래(古來)로부터 창화  
(唱和)하기가 매우 어려운 곡(曲)이라고 한다.

325) 쇠열(瑣劣): ①부서진 가는 가루 ②시시한 것 ③세소(細少)한 것. 「원진시元稹  
詩」, “詞旨瑣劣 冒瀆尊嚴”.

고 말할 수 없다. 혹은 유교와 불교를 기빙<sup>326)</sup>, 즉 비교해 보건대, 범복<sup>327)</sup>이 더욱 수승하였다.

嘉兆首稱於瑞錄, 吉音漏溢於環區矣, 況國師也, 何偏局乎內宗. 亦兼贏乎外典. 生知衆妙, 夙齡欺朱勃才童. 強識群書, 時譽冠惠超. 學士至若, 詞峯倚日, 筆塚擎天. 若警句之愈工被鉅儒<sup>328)</sup>之寡. 和湯開士, 碧雲雅作, 豈是瓊奇. 李謫仙白雪清吟, 誠爲瑣劣. 較於縑素之侶, 亦不可同年而語矣. 其或期憑, 梵福益盛.

신도<sup>329)</sup>께서 정재(淨財)를 기울여 현화사의 보수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sup>330)</sup> 그리고 개필<sup>331)</sup>을 불러 수용<sup>332)</sup>의 탕화를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종<sup>333)</sup>을 주조하며, 일체법구(一切法具)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보수한 보찰(寶刹)이 그 장려함이 마치 도사다<sup>334)</sup>의 천

326) 기빙(期憑): 유교(儒敎)와 불교를 비교해 보는 것. 불교 쪽인 지광국사와 유교 편인 거유(巨儒)들을 비교한다는 뜻.

327) 범복(梵福): 불교를 신봉하므로써 받는 복(福).

328) [全文]은 孺. [苑] [總覽]은 孺. 孺는 孺의 속자이고, 여기서 孺는 儒의 오자이다.

329) 신도(宸圖): 임금의 마음.

330) 천공의지가(藏工依之價): “현화사(玄化寺)의 보수공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라.”는 왕의 칙명(勅命).

331) 개필(攄筆): 명필, 국필이란 뜻. 攄는 앞서간다는 개字. 독보적인 존재.

332) 수용(肅容): 온화하고 윤택한 얼굴. 즉 온후(溫厚)하고 인자(仁慈)한 모습이니, 선풍도골인 도인(道人)의 얼굴을 가리킨다.

333) 부종(阜鐘): 종의 다른 이름. 주나라 때 부씨(阜氏)가 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부씨란 『주례』에 따르면 동관(冬官)에 속하는 관직으로 음악(音樂)과 종의 주조를 맡던 장인(匠人)이다. 『주례』 「고공기부씨考工記阜氏」, “爲鐘 栗氏爲量”.

334) 도사(觀史): 도술천(兜率天)으로, 삼계(三界) 이십팔천(二十八天) 중에, 육계육천(欲界六天)인 ①사천왕천(四天王天) ②도리천(忉利天) ③야마천(夜摩天) ④도



궁(天宮)을 옮겨 놓은 것과 같았다. 금언(金言)인 경전을 판각하여<sup>335)</sup> 명(名)·구(句)·문(文)인 구나<sup>336)</sup>의 용궁해장(龍宮海藏)을 담았으니 이것이 이른 바 시단<sup>337)</sup>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사홍서원(四弘誓願)을 일으켜 마침내 원만하게 성취하고,<sup>338)</sup> 임금이 지광국사(智光國師)를 스승으로 모시고 사자(師資)의 큰 인연(因緣)을 맺었다.<sup>339)</sup> 이와 같이 모든 악은 짓지 아니하는 한편 여러 가지의 선한 일을 봉행(諸善奉行)한 일들을 어찌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sup>340)</sup> 청녕 2년<sup>341)</sup> 1월 일에 임금께서 이르기를, “대봉새도 늙어지면<sup>342)</sup> 법이 아니고는 그 미혹(迷惑)함을 구제할 수 없고, 성스러

술천(兜率天) ⑤화락천(化樂天) ⑥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중 제4천(第四天)이다. 구역(舊譯)에는 도솔(兜率)·도솔타(兜率陀) 등으로, 신역(新譯)에는 도사다(都史多)·도사다(覩史多)·투슬치(鬪瑟哆) 등으로 음역(音譯)되었고, 한역(漢譯)으로는 지족(知足)·희족(喜足)·묘족(妙足) 등으로 번역되었다. 「송복사비문崇福寺碑文」 주28)도사다천都史多天 [신라편] p.244 참조.

- 335) 경조금언(敬造金言) : 금언은 부처님 말씀이니, 경전을 가리킨다. 즉 경전을 사경(寫經)하거나 판각(板刻)하여 유포한다는 뜻.
- 336) 구나(拘那) : 구나(求那 guṇa)와 같은 뜻이니, 사(事)와 물(物)의 바탕을 이루는 지수화풍 등의 실체(實體)와 색성향미(色聲香味) 등의 덕(德)을 포함하며, 덕·용(用)·질(質)·승(勝)·간(幹) 등으로 번역되며, 흔히 공덕(功德)으로 번역한다.
- 337) 시단(始檀) : 처음으로 단바라밀(檀波羅密)을 행하다. 단(檀)은 dāna의 음사로 서 보시(布施)의 뜻이다. 즉 보시를 행한다는 뜻.
- 338) 종원(終圓) : 현수(賢首)의 교판(敎判)인 오시교(五時敎) 중에 제3의 종교(終敎)와 제5의 대승원교(大乘圓敎)를 지칭한다.
- 339) 체대인연(締大因緣) : 문종 임금이 지광국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사자(師資)의 인연을 맺었다는 말.
- 340) 제선봉행지채(諸善奉行之采) : 모든 악을 짓지 않고, 여러 선행(善行)을 힘껏 행(行)한 일들을 뜻한다. 불교의 근본가르침인 칠불계(七佛偈)의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의 인용이다.
- 341) 청녕이년(淸寧二年) : 청녕은 요나라 도종(道宗) 때의 연호. 청녕 2년은 1056년(문종10).
- 342) 봉기(鵬耆) : 늙은 대봉새란 뜻이니, 미혹한 중생을 비유하는 말.

운 병아리<sup>343</sup>)라도 스승이 아니면 법익(法益)을 청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진실로 능히 법을 깨달은 이라야 가히 스승이 될 수 있다.

宸圖, 傾檀施之財, 藏<sup>344</sup> 工依之價. 爰徵愷筆<sup>345</sup>, 繪出睟容, 或鑄鳧鍾, 兼成法<sup>346</sup>具. 新營寶刹<sup>347</sup>, 移觀史之甦<sup>348</sup>宮. 敬造金言, 悉拘那之海藏, 斯所謂始檀<sup>349</sup>乎. 發弘誓願, 終圓乎締大因緣. 其諸善奉行之采, 豈可殫籌乎. 清寧二年, 十月日, 上謂之曰, “鵬者, 則非法無以救迷, 鰲聖則, 非師無以請益.” 苟能悟法者, 可以爲師乎.

특별히 국서<sup>350</sup>)를 보내 초청하였다. 드디어 공부시랑(工部侍郎) 장중영,<sup>351</sup> 상서좌승(尙書左丞) 유신<sup>352</sup>)과 예부시랑(禮部侍郎) 김양지<sup>353</sup>) 등을 보내되, 세 번이나 되풀이하는 삼반의 예<sup>354</sup>)를 갖추고는, 이어 다시 중추원

343) 구성(鰲聖): 병아리 성인이란 뜻이니, 초발심자(初發心者)를 지칭하는 말. [總覽][全文]에는 鰲. [苑]에는 鰲. 鰲와 鰲는 같은 글자이니, 새새끼 구자이다.

344) [苑] [總覽]에는 藏(신척할 천字). [全文]의 藏이 오자인 듯함.

345) [苑]은 筆, [全文]은 筆이나, [總覽]에는 탈락됨.

346) [總覽]에는 法. [苑]의 法과 [全文]의 法은 法의 오자임.

347) [苑]의 刹, [全文]의 刹, [總覽]의 刹이니, 모두 刹의 오자임.

348) [全文] [總覽]에는 天. [苑]의 甦은 甦의 오자, 甦은 天의 고자(古字)임.

349) [苑]에는 檀. [總覽] [全文]의 檀은 檀의 오자임.

350) 국서(國書): ①임금의 조칙 ②왕의 친서.

351) 장중영(張仲英): 고려의 문신. 1056년(문종10)에 공부시랑(工部侍郎)이 되었고, 1061년(문종15) 4월 공부상서(工部尙書)로 승진했었다. 『고려사』권1 참조.

352) 유신(柳紳): 전기 미상이다. 혹시 유신(柳伸)이 아닌가 한다.

353) 김량지(金良贄): 자세한 전기는 알 수 없으나, 1054년(문종8) 4월 급사중(給事中)의 신봉으로 거란(契丹)에 가서 태자책립(太子冊立)을 고하였고, 1058(문종12)년에는 예부시랑(禮部侍郎)에 올랐으며, 1061년(문종15)에는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승진하였다.

사(中樞院事) 이유충<sup>355)</sup>을 보내어 왕이 수결(手結)하고 압인(押印)한 편지와 함께 금계법복(錦闕法服)과 은(銀), 황유(黃鑰)로 만든 기물<sup>356)</sup>과 향천<sup>357)</sup> 등을 보냈다.

特降國書<sup>358)</sup> 諮請. 遂差<sup>359)</sup> 遣工部侍郎張仲英, 尚書左丞柳紳, 禮部侍郎金良贊等, 備行三反之禮, 續遣知中樞院事, 異惟忠, 押賜錦闕法服, 銀黃器用香薷等.

국사는 굳게 사양하였으나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sup>360)</sup> 그리하여 그 해 11월 4일 대가<sup>361)</sup>가 내제석원(內帝釋院)으로 행행<sup>362)</sup>하여 예배(禮拜)를 갖추어 왕사로 추대하였다. 그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가에

354) 삼반지례(三反之禮): 어떤 존경하는 사람을 초빙하기 위하여 세 차례 이상 왕복(往復)하면서 간청한다는 말이니, 삼고초려(三顧草廬)와 같은 뜻이다. 『사기』 「맹상군전孟嘗君傳」, “三反而不致一入”.

355) 이유충(異惟忠): 1057년(문종11)에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가 되었고, 1060년(문종14)에는 중추원사(中樞院事), 1061년(문종15) 1월 형부상서(刑部尙書)를, 동12월에는 참지정사주국(參知政事柱國)을, 1063년(문종17) 8월에는 판삼사사서북면중군마병사(判三司事西北面中軍馬兵使)를, 1071년(문종25) 1월에는 수사공(守司空)을 각각 역임하였다. 『고려사』권1 참조.

356) 은황기(銀黃器): 은기는 은으로 만든 그릇이고, 황기는 놋쇠로 만든 기물이다.

357) 향천(香薷): 향과 찻감. 薷이란 늦게 딴 차 천字이니, 만취다(晩取茶) 또는 노엽다(老葉茶). 『이아爾雅』 「식목주釋木註」에 “早采者爲茶 晩取者爲茗 一名薷”이라 하였다.

358) [苑] [總覽]에는 書. [全文]의 王은 書의 오자임.

359) [苑] [總覽]에는 差. [全文]의 措는 差의 오자임.

360) 사교양불획명(師膠讓不獲命): 스님께서 굳게 사양하였으나,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뜻.

361) 대가(大駕): 어가(御駕)이니, 임금의 타는 수레.

362) 행행(行幸): 임금의 거동. 왕의 행차(幸次).

동재<sup>363)</sup>하고 다녔으니, 마치 강승회(康僧會) 스님이 오왕(吳王) 손권(孫權)의 어가에 동승하고 다녔던 것<sup>364)</sup>과 같이하였으니, 이는 모두 스님의 하풍<sup>365)</sup>에 있었기 때문이다. 청녕 3년에 이르러 ‘융소(融炤)’라는 법칭(法稱)을 진정(進呈)하였다. 4년 5월 초하루에 임금께서 스님을 국사로 책봉코자 하여<sup>366)</sup> 친서를 보내 삼청(三請)하였다. 그리하여 그 달 19일 왕이 금가<sup>367)</sup>를 준비해 봉은사<sup>368)</sup>로 행행하여 우리 해린(海麟) 스님을 국사로 봉하고, 영통사(靈通寺)의 주승(主僧)인 난원(爛圓) 스님<sup>369)</sup>을 왕사(王叱)로 책봉하였다. 연진<sup>370)</sup>을 택하여 아울러 위대한 칭호<sup>371)</sup>인 법칭을 봉정하였으

363) 동재(同載) : 왕이 지광국사를 어가에 함께 태우고 다녔다는 말.

364) 오지동연(吳之同輦) : 오나라 임금 손권(孫權)이 강거국의 승회(僧會) 스님을 존경한 나머지 자신의 수레에 승회스님을 모시고 다녔다는 데서 온 말이니, 「지증대사적조답비문」 주40) 강회남행康會南行 [신라편] p.298 ; 「진철대사보월승공답비문」 주117) 강거승회시승오주지거康居僧會始昇吳主之車 [고려편1] p.29 ; 「요오화상진원탑비문은 悟和尚眞原塔碑文」 주50) 승회유오지일僧會遊吳之日 [고려편1] p.53 ; 「원종대사해진답비문」 주189) 승회유오僧會遊吳 p.266 ; 「법인국사보승답비문」 주252) 오주지존승회吳主之尊僧會 [고려편2] pp.108~109 ; 대정장50, p.325a 등 참조.

365) 하풍(下風) : 문종 임금이 지극히 지광스님을 존경하였으므로 스님의 도풍아래(道風下)에 있다는 말.

366) 상육봉위국사(上欲爲國師) : 임금께서 저 해린(海麟) 스님을 책봉하여 국사로 추대하였다는 뜻. 𡇗(古文의 𡇗)은 封의 古字이고 𡇗은 國의 古字이다.

367) 금가(金駕) : 금은으로 장식한 수레이니 임금이 타는 수레. 대가(大駕) 또는 어가(御駕)와 같은 뜻.

368) 봉은사(奉恩寺) : 개성 남쪽에 있던 절. 951년(광종 2)에 창건.

369) 난원(爛圓) : 문종 때 영통사(靈通寺)에 있었다. 속성은 김씨. 1058년(문종 12)에 왕사가 되었고 1065년(문종 19) 문종의 넷째 왕자 후(煦)를 그에게 맡겨 출가시키고 은사(恩師)가 되게 했다. 시호는 경덕(景德). 1066년(문종 20) 10월 8일 세수 68세, 법랍 57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경덕국사묘지명景德國師墓誌銘」 [고려편2] pp.336~340 참조.

370) 연진(涓辰) : 연일(涓日)과 같은 뜻이니, 길일(吉日)을 택하는 것. 날 받는 것. 涓

니, 양상<sup>372)</sup>이 부합되었다. 같은 날에 두 스님이 함께 지충<sup>373)</sup>을 받았으므로 이미<sup>374)</sup>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師膠讓不獲命. 卽以十一月四日, 大駕, 行幸于內帝釋院, 備禮拜爲王師. 彼其周之同載, 吳之同輦者, 共在下風矣. 三季, 進法稱曰, ‘融炤’. 四年五月初一日, 上, 欲豈爲堊師, 致書三請. 以是月十九日, 備金駕, 親幸奉恩寺, 封我所爲國師, 封靈通寺主僧統爛圓, 爲王叱<sup>375)</sup>者, 涓辰竝授於丕稱, 兩相合矣. 同日祇承於摯寵, 二美顯焉.

그 까닭을 살펴보니 미증유(未曾有)의 희유(希有)한 일이라고 찬탄하고도 남음이 있다. 전일의 꿈에 신인이 “너는 국사이고 저는 왕사이다.”라고 한 예언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때 꿈에 동유(同遊)하던 스님은 영통사의 주지<sup>376)</sup>인 난원 바로 그 스님이다. 5

은 가릴 연字. 『송사宋史』 「악지樂志」에 “宦容承祀 鍊時涓日”이라 하였다.

371) 비칭(丕稱): 위대한 칭호이니, 목종 때 받은 법호(法號)인 ‘강진홍도(講進弘道)’와 현종으로부터 받은 ‘명료돈오(明了頓悟)’, 태평년중(1021~1030) 역시 현종으로부터 받은 ‘계정고묘응각(戒正高妙應覺)’, 덕종으로부터 받은 ‘탐현도원(探玄道源)’, 정종으로부터 받은 ‘통제연오법동(通濟淵奧法棟)’, 문종으로부터 받은 ‘구행료성도수(具行了性導首)’, 또한 문종으로부터 받은 ‘용소(融炤)’, 1060년(문종14)에 역시 문종으로부터 ‘낭철朗徹’과, 1085년(선종2) 선종(宣宗)으로부터 받은 ‘지광(智光)’이란 시호와 탑호 ‘현묘(玄妙)’ 등을 가리킨다.

372) 양상(兩相): 연진(涓辰)과 비칭(丕稱).

373) 지충(摯寵): 왕의 지극한 총애.

374) 이미(二美): 왕이 길일(吉日)을 선택하여 난원스님은 왕사로, 해린대사(海麟大師)는 국사로 추대한 것을 뜻한다.

375) [苑] [總覽] [全文]의 畢는 師의 古字(古字)임.

376) 영통사주(靈通寺主): 경덕국사(景德國師) 난원스님을 지칭한다.

년<sup>377)</sup> 양월<sup>378)</sup> 8일 국사께서 왕궁 내전(內殿)에 나아가서 백고좌회<sup>379)</sup>의 제 일설법주<sup>380)</sup>가 되었다. 겨우 반계송(半偈頌)을 설하자마자<sup>381)</sup> 청법대중이 사방으로부터 거둑거둑 모여들어 큰 성왕(盛王)의 상서를 나타냈다.<sup>382)</sup> 왕이 다시 ‘낭철(朗徹)’이라는 법칭을 진정하였다.

觀其所由，歎未曾有。嚮所夢神人之吉語，必識此矣。同遊之僧，靈通寺主是也。五季陽月八日，師赴內殿，爲百座會，第一說主。才宣半偈，荐集丕休。累進法稱曰，朗徹。

함옹 3년<sup>383)</sup> 2월 일에 국사께서 법천사(法泉寺)에 돌아가 안주(安住)코 자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모치<sup>384)</sup>의 탄식을 일으키며, 누차 임금께 사퇴(辭退)할 것을 고진하였으며,<sup>385)</sup> 세 번이나 거둑 수두<sup>386)</sup>의 주청(奏請)을 올

377) 오년(五季): 청녕오년(淸寧五年)이니, 1059년(문종13).

378) 양월(陽月): 음력 10월의 다른 이름. 10월은 음(陰)이 다하는 달이므로 음이 극(極)하면 다시 양(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379) 백좌회(百座會): 백고좌회(百高座會)의 준말이니, 백명(百名)의 고승대덕을 초빙하여 모시고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면서 법회(法會)를 가지는 것.

380) 제일설주(第一說主): 백고좌회의 증명법주(證明法主)스님.

381) 재선반계(才宣半偈): ‘겨우 반계송(半偈頌)만 선설하였으나’라는 뜻.

382) 천집비휴(荐集丕休): 청법대중이 줄을 이어 거둑 몰려들어 큰 상서(祥瑞)를 나타내게 하였다는 말. 『목자墨子』「상동중尙同中」에 “飄風苦雨 荐臻而至者”라 하였다.

383) 함옹삼년(咸雍三年): 함옹은 요나라 도종(道宗) 때의 연호. 함옹 3년은 1067년(문종21).

384) 모치(暮齒): 나이 많은 노인(老人). 만년(晩年) 또는 모년(暮年)이라고도 한다. 일생(一生)의 기한이 저물었고, 또한 치아도 모두 빠졌다는 뜻.

385) 누진신퇴(縲陳身退): 스님께서 왕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임종지(臨終地)인 법천사(法泉寺)로 돌아가려고 간청하였다는 말.

386) 수두(需頭): 한대(漢代)에 있어 왕에게 청원하는 상주문(上奏文)의 서식(書式)이니, 그 서두(書頭)에 조지(詔旨)로 비답(批答)을 기입(記入)할 일폭(一幅)의

려 간절한 사의(辭意)가 확고함을 알렸다.<sup>387)</sup> 문중은 하는 수없이 윤희(允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해 9월 22일 왕이 현화사에 행행하여 합원승재<sup>388)</sup>를 베풀고 겸하여 국사를 석별하는 인전연<sup>389)</sup>도 마쳤다. 임금은 양반의 관솔(官率)을 거느리고 국사에게 하직 인사를 한 다음,<sup>390)</sup> 좌승선(左承宣)이며 중서사인(中書舍人)인 정유산<sup>391)</sup>을 파견하여 수결(手結)을 찍은 조서(調書)와 다(茶), 약(藥), 보화(瑤貨) 등을 정상하였는데,<sup>392)</sup> 그 이름과

여백(餘白)을 남겨 두고 진정할 때에만 사용하는 서식이나, 전(轉)하여 장주(章奏)·상주(上奏)·상소(上疏) 등의 뜻이다. 『독단獨斷』, “凡群臣 上書天子者四 一曰章 二曰奏 三曰表 四曰博議 凡章奏 皆需頭 稱稽首 表者 不需頭”. 需는 기다릴 수字이다.

- 387) 확집간사(確執辭謝): ‘본사로 돌아가려는 확고한 집념으로 하는 간절한 언사(言辭)’라는 뜻.
- 388) 합원승재(闔院僧齋): 합원이란 合院·全院·舉院 등의 뜻이니, 합원대중(合院大衆)을 말한다. 즉 전체 대중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다는 뜻.
- 389) 인전지연(寅餞之筵): 왕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전별연(餞別筵)을 베푸는 것. 진은 예물을 바쳐 진송하는 것. 인은 공경하는 뜻. 『서경書經』「효전堯典」에 “分命和仲 宅西曰 昧谷 寅餞納日”이라 하였다. [總覽] [苑]에는 筵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筵의 오자임.
- 390) 솔□반배사후(率□班拜辭後): ‘왕이 양반(兩班)을 거느리고 친히 나와 송별(送別)한 후’라는 말. □표시는 문맥으로 보아 兩字인 듯하다. 양반은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이다.
- 391) 정유산(鄭惟産): 1069년(문종23) 4월 상서좌승우간의대부(尙書左丞右諫議大夫)가 되었고, 1071년(문종25) 1월에는 한림학사국자좌주(翰林學士國子祭酒)가 되었으며, 1073년(문종27) 7월 지서북면추동번병마사(知西北面秋冬番兵馬事)가 되었다. 1074년(문종28) 2월 섭형부상서(攝刑部尙書)로 승진하였고, 그 해 12월 다시 예부상서(禮部尙書)가 되었으며, 1075년(문종29) 1월 참지정사감수국사(參知政事監修國史)에 임명되었고, 그 해 7월에 이부상서(吏部尙書), 1077년(문종31) 11월에는 판상서예부사(判尙書禮部事)를 거쳐 1079년(문종33)에 재상(宰相)이 되었다. 『고려사』권1, 7 등 참조.
- 392) 압상(押上): 왕이 수결(手結)을 하거나 옥새를 찍은 편지와 함께 높은 사람에게 선물을 올리는 것.

수가 너무 많아 삭제(刪除)하고 신지 않는다. 국사는 이 달 27일 출발하여 본산(本山)인 법천사로 떠났다.

咸雍三年二月日, 師欲歸安于法泉寺, 幾興暮齒之嗟, 縷陳身退, 三上需頭之奏, 確執懇辭. 上優詔從之. 以九月二十二日, 駕幸玄化寺, 特設闍院僧齋, 兼置寅餞之筵訖. 率□班拜辭後, 則遣左承宣中書舍人, 鄭惟產, 押上茶藥瑤貨等, 名數夥多, 刪煩不載. 叱<sup>393)</sup>取是月, 二十七日, 發行, 指本山.

임금이 태자에게 명하여 제왕백료(諸王百僚)를 거느리고 남교<sup>394)</sup>까지 가서 전별(錢別)케하고 특별히 도속(道俗)의 관원<sup>395)</sup>을 보내어 본사까지 호송(護送)토록 하였다. 국사께서 본산인 법천사에 돌아간 후, 3년 만인 중하지월<sup>396)</sup>에 성상<sup>397)</sup>이 연덕궁(延德宮)의 제6왕자<sup>398)</sup>를 체발(剃髮)하고 스님이 되어 현화사에 있게 하였다. 이전에는 봉천원(奉天院)에 주석하다가 특히 수좌(首座)의 법계를 증수(贈授)받았으니, 이는 국사의 주변에 있으면서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sup>399)</sup> 이 해 10월<sup>400)</sup> 23일 편안히<sup>401)</sup> 우

393) [苑] [總覽] [全文]의 辱는 師의 고자(古字)임.

394) 남교(南郊): 남쪽 교외(郊外). 남쪽 성밖.

395) 원료(員寮): 생원(生員)과 관료(官寮)이니, 특차사를 따라가는 모든 수행원.

396) 중하(仲夏): 음력 5월.

397) 성상(聖上): 고려 제11대 문종.

398) 제육왕자(第六王子): 왕자란 문종의 아들이고, 제6자는 도생승통(道生僧統) 정(鏡)을 말한다. 대각국사 의천은 문종의 제4자이다.

399) 변폭(邊幅): 포백(布帛)의 가장자리. 전하여 걸치레, 걸모양을 뜻한다.

400) 시세십월(是歲十月): 1070년(함옹 6, 문종24) 10월이다.

401) 안음(晏陰):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 청음(晴陰)과 같은 뜻이니, 안은 안(安)이요, 음은 도정(道靜)의 뜻이다.



협(右脇)으로 누워 취침하였다. 이날 밤에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렸다.<sup>402)</sup>

上命太子，率諸王百僚於南郊餞別，特差道俗員寮等，慰送于本寺也。師下山後，三<sup>403)</sup>□仲夏之月，聖上以延德宮，第六王子，許令剃髮，棲<sup>404)</sup>息于玄化寺。舊住奉天院，特授首座者，斯緣類肖國師之邊幅也。是歲十月，二十三日，晏陰右臥而寢，此夜，零雨其濛。

국사께서 잠을 깨어 가부좌(跏趺坐)를 맺고 앉아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결락] 바깥 날씨가 어떨가?”하니, 대답하기를,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서 곧 입적하였다. 옛적 추자<sup>405)</sup>가 입적함에 당하여 무색계(無色界)의 제천<sup>406)</sup>이 흘린 바 눈물이 마치 봄에 내리는 이슬비와 같았으니,<sup>407)</sup> 지금 국사께서 시화(示化)하던 오늘밤에 내린 비인들 어찌

402) 우기몽(雨其濛) :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것.

403)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에는 삼입.

404) [苑] [總覽] [全文] 모두棲이니,棲는棲 또는栖와 통한다.

405) 추자(鶻子) : 사리불(Śāriputra)을 번역한 말. 추로자(鶻鷲子) 또는 신자(身子)라고도 번역된다. 부처님의 십대제자(十大弟子) 중 지혜제일(智慧第一)에 속한다.

406) 무색제천(無色諸天) : 삼계(三界) 이십팔천(二十八天) 중 무색계(無色界)의 4천이니, ①공무변처천(空無邊處天) ②식무변처천(識無邊處天) ③무소유처천(無所有處天) ④비상비비상처천(非想非非想處天)이다.

407) 소읍지루여춘세우(所泣之淚如春細雨) : 슬피 흘린 눈물이 마치 봄철에 내린 가랑비와 같다는 뜻. ‘춘월세우(春月細雨)’는 부처님의 제1제자 사리불열반시에 내렸던 하늘의 눈물인데, 다음과 같다. 목견련(目犍連 ŚMaudgalyāyana)과 사리불(舍利弗 Śāriputra)은 함께 자연론자(自然論者)인 산사야비라지자(刪闍耶毘羅胝子 Śaṅjayī-vairāṭiputra)를 스승으로 섬기다가 뒤에 오비구(五比丘) 중의 한 스님인 마승비구(馬勝比丘 ŚAśvajit, 額輒)를 만나, 인연설(因緣說)을 듣고 발심하여 불교에 개종(改宗)하였다. 이후 그들은 불제자(佛弟子) 중 사리불은 제1의 제자, 목견련은 제2의 제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두 사람은 불교의 유행전도

제천이 흘린 눈물이 아니겠는가.

師寤而趺坐，謂弟子曰，兒<sup>408)</sup>□□□答曰，雨也。聞言則示化矣。昔鶩子入滅，無色諸天，所泣之淚，如春細雨，今之夜雨，豈非諸天之淚乎。

오호 애재(哀哉)라! 세수는 87세요, 승랍은 72세였다. 입적하던 전날 밤에<sup>409)</sup> 등불 만한 크기의 두개의 별이 나타났고,<sup>410)</sup> 또 두 줄기의 큰 무지개

(遊行傳道)에 전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외도(外道)들로부터 제거의 표적이 되었다. 어느 날 목건련이 나열성(羅闕城)에서 결식(乞食)하던 중 집장외도(執杖外道)들의 집단폭력으로 사방(四方)에서 돌을 던져 타살(打殺)당했다. 비록 죽기는 하였으나,神通력(神通力)으로 사리불에게 마지막 고별(告別)을 하려고 찾아가서 자신이 먼저 떠나게 된 것을 알렸다. 이 때 사리불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존자(尊者)는 어찌하여 신통력으로 난(難)을 피하지 않았는가.”라고 원망했다. 이에 대하여 목건련은, “이는 나의 숙업(宿業)인 것이므로 감수키로 결심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사리불은, “존자여!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먼저 열반(涅槃)에 들겠다.”라 하고 부처님께로 가서 목건련의 죽음을 고한 다음 자신이 먼저 멸도(滅度)하겠다고 고하였으나, 부처님은 묵연(默然)하시고 대답이 없었다. 사리불은 세존(世尊)께서도 멀지 않아 열반에 드실 것을 알고 이를 차마 볼 수 없어 자신이 먼저 열반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 때에도 부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 마침내 사리불이 열반하던 날 밤에 대지(大地)가 육종(六種; 동(動)·용(涌)·진(震)·격(擊)·후(吼)·폭(爆))으로 진동(震動)하고, 하늘의 음악이 들리며 꽃비가 내렸다. 뿐만 아니라 제천(諸天)들이 슬피 통곡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하여 육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 등 삼계(三界) 이십팔천이 함께 눈물을 흘렸으니, 마치 화창한 봄날씨에 가랑비(細雨)가 내리는 것과 같았다(虛空之中 欲天·色天·無色天 悉共墮淚·亦如春月細雨和暢). 이 소식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계송(偈頌)을 읊었다. 일절행무상(一切行無常) 생자당유사(生者當有死) 불생부복멸(不生不復滅) 차멸최제일(此滅最第一)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권18「사의단품四意斷品」(대정장2, pp.639~641); 『월인석보月印釋譜』권1 p.36b 참조.

408)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에는 兒인.

가 섰는데, 마치 두마리의 적룡(赤龍)이 나란히 누워 있는 것과 같았다. 이것은 [결락] 국사께서 입멸하실 조짐을 보인 것이다.<sup>411)</sup>

嗚呼哀哉, 報年八十七, 僧臘七十二. 卽世前夜, 有二星見, 其大如燈, 又有大虹二條, 如赤<sup>412)</sup>龍<sup>413)</sup>之雙臥. 此□□□示滅之兆也.

문인 수좌인 법령(法靈)과 삼중대사인 소현<sup>414)</sup> 등이 가슴을 치며 발을 구르면서 부음(訃音)을 동폐<sup>415)</sup>에 주문(奏聞)하였다. 부음을 들은 문종은 크게 진도(震悼)하시고 곧 좌가승록(左街僧錄)인 승연(崇演)과 보장정<sup>416)</sup>인 전삼린<sup>417)</sup> 등을 파견하여 장사(葬事)를 감호하도록 하였으며, 이어 전

409) 즉세전야(卽世前夜): 죽기 바로 전날 밤, 입적하기 전날 밤.

410) 유이성견(有二星見): 두 개의 별이 나타났다는 말.

411) 차□□□시멸지조야(此□□□示滅之兆也): 문맥으로 보아 빠진 3字는 즉대사(則大師)로 추정된다. 차즉대사시멸지조야(此則大師示滅之兆也), 즉 이는 곧 대사에서 입멸(入滅)을 예시한 징조였다는 말이다.

412) [苑] [總覽]에는 赤, [全文]의 赤은 赤의 오자임.

413)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龍임.

414) 소현(韶顯): 당시 현화사주(玄化寺主)이며 승통(僧統)이었던 스님. 본비문 주 271) 소현韶顯 p.389과 「혜덕왕사진응탑비문慧德王師眞應塔碑文」 [고려편]3 pp.20~69 등 참조.

415) 동폐(彤陛): 동정(彤庭)과 같은 뜻. 붉은 색으로 칠한 섬돌이니, 궁중(宮中)을 가리킨다. 전하여 임금의 지칭한다.

416) 보장정(保章正): 고려 초기 태사국(太史局)에는 영(令)·승(丞)·영대랑(靈臺郎)·보장정(保章正)·설호정(挈壺正)·사진(司辰)·사력(司曆)·감후(監候)가 있었다. 『고려사』권76 참조. 부석사(浮石寺) 원융국사(圓融國師)의 할아버지 벼슬이 장보(章保)였는데, 보장(保章)과 장보(章保)가 같은 뜻이 아닌가 한다. 「원융국사비문圓融國師碑文」 주69) 장보章保 [고려편2] p.278 참조.

417) 전삼린(全參蘭): 전기 미상이다.

개<sup>418</sup>인 특사를 보내서 빈당<sup>419</sup>에 가서 조문토록 하되, 정중한 탁제<sup>420</sup>를 치르도록 하는 한편, ‘지광(智光)’이라는 시호를 증정(贈呈)하고 아울러 다향(茶香)과 유촉(油燭)을 하사하였으며, 또 원주(原州) 창고에 있는 양곡으로써 발천위락<sup>421</sup>의 법요식(法要式)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1월 9일 법천사의 명봉산(鳴鳳山) 동쪽 승지(勝地)를 선택하여<sup>422</sup> 다비<sup>423</sup>의 예를 거행하였다. 이 때 인간과 영기(靈祇)가 비통하며 슬퍼하고, 천지가 캄캄하며 새·짐승들은 슬피 울고, 봉만(峰巒)은 처참하게 나열(羅列)되었으니, 유정(有情)과 무정(無情) 등이 모두 국사의 도덕이 끝남에 대하여 슬퍼한 것인저!<sup>424</sup>

門□<sup>425</sup>首座法靈, 三重大師韶顯等, 擗踊訃訖<sup>426</sup>於彤陛. 上則震悼, 尋遣左街僧錄崇演, 保章正全參蘭等, 監護葬事, 續差遣專介<sup>427</sup>, 往<sup>428</sup>彼殯堂, 致其卓祭, 贈諡曰智光, 併賜茶香油燭,

418) 전개(專介): 전개(專价)라고도 한다. 왕이 특별히 보내는 사자(使者). 介와 价는 같은 뜻이다. 「진경대사보월능공담비문」 주74)전개專介 [신라편] p.356 참조.

419) 빈당(殯堂): 빈소. 상가(喪家). 염하는 장소.

420) 탁제(卓祭): 장엄하고 정중한 장례식을 뜻한다.

421) 발천(拔薦): ①발고위락(拔苦爲樂)의 준말이니, 사망한 영가를 발제(拔濟)하여 극락세계로 천도(薦度)하는 것 ②많은 사람들 중에 선발하여 천거하는 것. 여기서 ①을 가리킨다.

422) 선승우법천사지산동(選勝于法泉寺之山東): [總覽][苑][全文] 모두 阜. 阜는 泉의 오자임. 법천사 동쪽 승지(勝地)를 선택하였다는 뜻.

423) 다비(荼毗): ㉠Jhāpita, 사비(闍毗)·사유(闍維)·사비다(闍鼻多) 등으로 음역. 범소(梵燒)라 번역되니, 화장(火葬)이란 뜻이다. 다비례란 장례식을 지칭한다.

424) 개감덕지종호(皆感德之終乎): 유정과 무정들 모두가 대덕(大德) 스님의 임종을 슬퍼하였다는 뜻.

425) [苑] [總覽] [全文] 모두 결락이나, 문맥으로 보아 人字인 듯하다.

426) [總覽][苑][全文] 모두 訖이나, 訖의 오자임. 訖은 聞의 古字임.

427) [苑]의 介와, [全文]의 不은 [總覽]의 介의 오자임.

及原州倉穀，以充拔薦之資。<sup>429)</sup>十一月九日，選勝于法泉寺之山東，茶毗禮也。是時，人祇慟慟，天地晦冥，鳥獸悲鳴，峯巒慘列，有情無情，皆感德之終乎。

임금께서 아름다운 궤범(軌範)을 추모하여 감히 제약을 표(標)하지는 못하지만, 황견유부<sup>430)</sup>인 절묘호사(絶妙好辭)의 명문(名文)을 새긴 정민<sup>431)</sup>을 세워 국사의 위적(偉跡)이 영원히 찌지 않게 함이다. 적자<sup>432)</sup>와 같은 위대한 행적을 빛나게 할 뿐 아니라 역대에 유전되어 영원히 남아 있게 하고자 하여, 이에 추유<sup>433)</sup>에게 명하시어 국사의 홍대(鴻大)하고 탁렬(卓烈)한 위업을 밝히라고 하셨다.<sup>434)</sup> 그러나 신의 식견(識見)은 우잡<sup>435)</sup>으로 토

428) [苑] [總覽]에는 往, [全文]의 任은 往의 오자임.

429) [苑] [全文]의 費와 [總覽]의 資는 어느 字가 옳은지 미상이나, 뜻으로는 무방하다.

430) 황견지사(黃絹之辭) : 황견유부외손제구(黃絹幼婦外孫孫白)의 어의(語意)를 전(轉)한 것이니, 절묘호사(絶妙好辭)한 명문장(名文章)을 가리킨다.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 주105)제구齋白 본서 p.129 ; 「승복사비문」 주269)호혜팔자或解八字 [신라편] p.272 ; 「진궁대사탑비문」 주111)제구齋白 [고려편1] p.152 ; 「법경대사자등탑비문法鏡大師慈燈塔碑文」 주218)영수제구令修齋白 본서 p.224 ; 「원종대사혜진탑비문」 주258)유부지문사幼婦之文辭 본서 p.275 ; 「범인국사보승탑비문」 주405)제구齋白 본서 p.344 등 참조.

431) 정민(貞珉) : 정석(貞石)·정엄(貞琰) 등과 같은 뜻이니, 비석이란 말. 「정효대사보인탑비문澄曉大師寶印塔碑文」 주119)정석貞石 [고려편1] p.253 참조.

432) 적자(赤髭) : 불타야사(佛陀耶舍 卽 Buddhayaśas)스님. 각명(覺明)이라 번역. 수염 빛이 붉다하여 시인(時人)들이 '적자비파사(赤髭毘婆沙)라는 별명을 남게 하였다. 「진감국사대공영탑비문眞鑑國師大空靈塔碑文」 주72)적자赤髭 본서 p.93 ; 「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문朗空大師白月瑞雲塔碑文」 주38)적자赤髭 [고려편1] pp.319 ; 『양고승전』권2(대정장50, p.333c) 등 참조.

433) 추유(鰓儒) : 송사리와 같은 번번치 않은 선비란 말이니, 정유산(鄭惟產)이 스스로 겸손하는 뜻. 소인(小人) 또는 말학(末學)을 지칭한다. 鰓은 송사리 추字.

434) 비견홍렬(俾甄鴻烈) : 왕이 나로 하여금 스님의 홍대(鴻大)하고 열렬(烈烈)한 위

해<sup>436</sup>의 물을 측량하는 것과 같아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양하였지만 어찌 할 수 없었다. 그릇 윤선을 받드는 것<sup>437</sup>은 도저히 더 이상 사양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sup>438</sup> 그러므로 국사의 가풍에 따라 그의 도덕을 기록하였다. 비록 견고하나 돌과 같이 궁구는 마음은 아니며<sup>439</sup> 학문은 부수(膚受)이고 재조(才操)는拙才(拙才)이다. 스스로 수중에는 한푼의 돈도 없음을 부끄러워 하면서도<sup>440</sup> 문득 광비<sup>441</sup>의 명문을 지으려고 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다. 삼가 이상의 탁적(卓跡)을 명으로 칭송(稱頌)하노라.

上追嘉軌範，敢弗標題，欲使刊黃絹之辭，樹貞珉而不朽。煥赤髭之躅，流歷代□長存，爰命鯁儒，俾甄鴻烈。臣，牛涔校量兇海，寡能謬奉綸宣，罔由綦讓。挹其風而紀其德，雖堅匪石之心，膚於學而拙於才。自愧無錢之手，輒將<sup>442</sup>狂斐。但螯<sup>443</sup>捧<sup>444</sup>

업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 435) 우잠(牛涔): 소의 발자국에 고인 물이니, 얇고 작으며 좁은 것에 비유한 것이다.
- 436) 토해(兇海): 토는 한사군(漢四郡) 중 현도군(玄兇郡)이니, 현도군은 우리나라 바다를 지칭한다.
- 437) 과능류봉륜선(寡能謬奉綸宣): 나는 능력이 없으면서 왕의 명(命)을 받들게 되었다는 뜻. 寡는 나 과字. 윤선(綸宣)이란 율은 윤음(綸音), 선은 선지(宣旨)이니, 모두 임금의 명령이다.
- 438) 망유기양(罔由綦讓): 어떤 방법으로도 사양할 길이 없었다는 말. 기(綦)는 극히, 대단히, 매우 등의 뜻. 또는 기(其)의 뜻이다.
- 439) 비석지심(匪石之心): 마치 돌과 같이 자유롭게 뒹굴지 않는 굳은 마음이란 뜻. 『시경』「패풍邶風」‘백주柏舟’, “我心匪石 不可轉也 我心匪席 不可卷也 石雖堅尙可轉 我心堅 不可轉也”.
- 440) 무전지수(無錢之手): 수중에 한 푼의 돈도 없다는 말이니, 지극히 가난하다는 뜻이다. 『논형論衡』「양지量知」, “手中無錢 而之市決貨 貨主必不與也 夫胸中無學 猶手中無錢也”. 즉, 학문이 없음을 부끄러워 하는 것이다.
- 441) 광비(狂斐): 진취적인 기백이 풍부한 문장으로 된 문구(文句)란 뜻. 매요신(梅堯臣)의 시(詩)에 “下言狂斐頗及古 陶韋比格吾不私”라 하였다.

培, 謹爲銘曰.

무상심심(無上甚深) 미묘법(微妙法)은 석가(釋迦)가 시조(始祖)!  
사십구년(四十九年) 고구정녕(苦口叮寧) 설(說)하신 내용,  
서건(西乾)에서 시작하여 천년후(千年後)에야,  
가섭축법(迦葉竺法) 두스님이 동전(東傳)하였네!  
일체법장(一切法藏) 진속(眞俗)으로 갈라졌으니,<sup>445)</sup>  
근기(根機)따라 설법하신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미(迷)한 중생(衆生) 제도코자 정법(正法)을 보여,  
실상법(實相法)을 기본(基本)하고 권법(權法) 설했네!

妙法奚自,  
能仁所宣,  
西乾<sup>446)</sup>首出,  
東震臚傳.  
諦分眞俗,  
理應機緣,  
導迷歸正,  
憑實假權. [其一]

442) [苑] [總覽]에는 將, [全文]에는 탈락됨.

443) [苑] [總覽]에는 罄, [全文]의 聲은罄의 오자임.

444) [總覽]에는 결락이나 [苑]의 捧과 [全文]의 奉은 같은 뜻이다.

445) 제분진속(諦分眞俗): 교리의 내용으로는 진제(眞諦)와 속제(俗諦)로 구분된다  
는 뜻.

446) [苑] [全文]에는 軋이고, [總覽]에는 軋이니, 軋은 軋의 오자이고, 軋은 乾의 古  
字이다.

무상대교(無上大敎) 그 진리(眞理)를 널리 펴시니,  
 십이부류(十二部類) 중생들이 서열<sup>447)</sup> 하도다.  
 자성천(自性天)의 혜일광명(慧日光明) 두루 비추니,  
 언덕마다 골짜기마다 밝아졌었네!  
 자비하신 구름으로 운택케 하되,  
 쭉과 난초(蘭草) 차별 없이 적셔주었다.<sup>448)</sup>  
 불타(佛陀)께서 열반하신 시대가 멀어,  
 남겨주신 그 유풍이 멸절(滅絶)해 가네!

大敎旣周,  
 群生胥悅.  
 惠日流光,  
 岸谷皆徹.  
 慈雲灑潤,  
 蒿蘭不別.  
 去聖逾遙,  
 遺風欲絶. [其二]

이심전심(以心傳心) 그 혜명(慧命)을 누가 이을까?  
 지광(智光)국사 스님 만이 감당할걸세.<sup>449)</sup>  
 여러 생애 혁기(赫氣)모아 태어났으니,<sup>450)</sup>

447) 서열(胥悅): 서로 서로 다함께 기꺼워한다는 말.

448) 호란불별(蒿蘭不別): 쭉과 난초와의 현격한 차이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평등(平等)하게 뿌려주었다는 뜻.

449) 유아시지(唯我尸之): ‘오직 우리 지광국사만이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 시는 말다, 주관한다는 말이다.



단적(端的)으로 밝은 시대 만났도다.<sup>451)</sup>

양친부모(兩親父母) 하직하고 애정(愛情)을 끊어,

속가(俗家)의 소의(素衣) 벗고 치의(緇衣)를 입다.

고상함은 석림중(釋林中)에 악봉(萼鳳)이시고,<sup>452)</sup>

신령(神靈)함은 상서(祥瑞)로운 시귀(蓍龜)와 같네!<sup>453)</sup>

其誰紹者.

唯我尸之.

誕鍾赤<sup>454)</sup>氣,

端<sup>455)</sup>明時.

辭親割愛,

捨素從緇.

釋林<sup>456)</sup>遷鳳,

譬罔蓍龜. [其三]

지극하신 정성으로 발심(發心)하였고,

입으로는 발원(發願)하고 반야(般若)를 닦았다.

450) 탄중혁기(誕鍾赤氣): 赤은 赫의 약자(略者). 크게 혁혁한 기운을 모았다는 뜻이다.

451) 단악명시(端闇明時): 단정히 밝은 시대를 만났다는 말. 還은 만날 斂字.

452) 석림악봉(釋林萼鳳): 석림이란 승가(僧伽)를 지칭하고, 악봉이란 위대하다 또는 출중하다는 뜻이니, 곧 고승(高僧)이란 말이다.

453) 영유시귀(罔蓍龜): [全文]의 罔은 罔의 오자이고, 蓍는 靈의 고자(古字)이다. 곧 신령스러운 동산에 나타난 시귀와 같이 귀중한 스님이란 뜻이다. 시귀(蓍龜)의 시(蓍)는 서(筮)라 하니, 시초로 치는 점을 말한다. 구는 복(卜)이라 하니, 거북의 등을 불태워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점을 치는 것을 복서(卜筮)라 한다.

454) [苑][總覽][拓本]은 赤. [全文]은 苜. 어느 字가 옳은지 未詳임.

455) [苑][全文]은 蓍. [總覽]은 萼. 蓍과 萼은 同字이다.

안으로는 팔만장경(八萬藏經) 연구하면서,<sup>456)</sup>  
 밖으로는 유교사상 공부하였다.<sup>457)</sup>  
 품계(品階)로는 삼현(三賢)아닌 십지(十地)이시고,<sup>458)</sup>  
 거룩하신 그 칭송은 천하에 떨쳐,  
 복과 지혜(智慧) 함께 구족(具足) 양족하시어,<sup>459)</sup>  
 일체세간(一切世間) 살펴봐도 견줄 자 없네!<sup>460)</sup>

懇發菩提,  
 口修般若.  
 內究空宗,  
 外工儒雅.  
 品匪地前,  
 譽翬天下,

456) 공종(空宗): 상종(相宗)을 상대한 공종(空宗)이 아니고, 여기서는 내교(內敎)인 불교를 지칭한다.

457) 유아(儒雅): 우아한 유학(儒學), 또는 훌륭한 유자(儒者)이니 유교를 가리킨다. 『한서』「공손홍전찬公孫弘傳贊」, “儒雅則公孫弘 董仲舒”.

458) 품비지전(品匪地前): 품위(品位)가 지전(地前)이 아니고 지상(地上)이란 뜻. 품(品)이란 수행지위(修行地位)를 뜻하니, 초발심(初發心)에서부터 성불(成佛)에 이르기까지 55위의 지위품계(地位品階)가 있다. 즉 10신(信)을 외현(外賢)이라 하고, 10주(住)·10행(行)·10회향(廻向) 등의 3현(賢)을 내현(內賢)이라 하며, 난위(煥位)·정위(頂位)·인위(忍位)·세제일위(世第一位) 등을 4가행(加行)이라 하고, 10지(地)를 성위(聖位)라 하며, 최후인 구경성불(究竟成佛)을 불위(佛位)라 한다. 따라서 지전(地前)이란 지광국사는 10지의 전인 현위(賢位)가 아니고, 10지의 이상인 성위(聖位)에 올랐다는 말이다.

459) 복지상엄(福智相嚴): 복과 지혜를 겸수(兼修)하여 복(福)과 지(智)가 양족(兩足)하다는 뜻이니, 부처님을 양족존(兩足尊)이라 한다.

460) 비륵개과(比倫蓋寡): 스님의 위대함과 비교할만한 대상은 거의 없다는 뜻. 비륵이란 비류(比類)와 같은 뜻으로, 비교하다 또는 대비(對比)한다는 말.

福智相嚴,  
比倫蓋寡. [其四]

계현논사<sup>461)</sup> 화현(化賢)으로 다시 오신 듯,  
무착보살<sup>462)</sup> 도생(度生)위(爲)해 거듭 나투다.  
반야덕(般若德)의 병(瓶) 속에는 진리 가득히,  
거울같이 밝은 마음 더욱 밝도다.  
모든 상문<sup>463)</sup> 수행자(修行者)엔 표본이 되고,  
예달<sup>464)</sup>까지 그 이름이 가득하였다.  
요황<sup>465)</sup>께서 초빙하여 법문(法門) 들었고,  
보세<sup>466)</sup>에는 수도대중(修道大衆) 번영하였다.  
戒賢再出,  
無着重生.

- 
- 461) 계현(戒賢): 시라발타라(尸羅跋陀羅 ㄱᄃŚīlabhadra)의 번역. 동인도 삼마달타국의 왕족(王族)으로, 젊었을 때 마갈타국의 나란타사(寺 ㄱᄃNālanda)에 들어가 호법(護法)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법상종(法相宗)인 유사상(有思想)을 배웠다. 636년 현장(玄奘)이 나란타사를 방문하였을 때, 106세의 고령으로 생존(生存)하였다 고 전한다.
- 462) 무착(無着): ㄱᄃAsaṅga의 번역. 불멸(佛滅) 후 1천년 경 스님. 복인도 건타라국 부루사부라성의 바라문 출신이다. 교시가(橋尸迦)의 아들이며, 세친(世親, 天親 ㄱᄃVasubandhu)의 형(兄)이다. 대승 법상종을 크게 천양하였다.
- 463) 상문(桑門): 사문(沙門 ㄱᄃśramaṇa)·식심(息心)·근식(勤息) 등으로 번역되니, 출가 수도하는 스님을 지칭한다.
- 464) 예달(藥闍): 예궁(藥宮)과 같은 뜻. 향초가 번창한 궁전(宮殿)의 문이니, 왕궁을 지칭한다.
- 465) 요황(瑤皇): 요는 요궁(瑤宮)이니, 아름다운 옥돌로 조성(造成)한 궁전에 있는 황제(皇帝), 즉 임금을 지칭한다.
- 466) 보세(寶世): 장엄한 세계 즉, 사원(寺院)을 지칭한다.

德瓶恒滿,  
 心鑑轉明.  
 桑<sup>467)</sup>門鍊行,  
 藥闡馳聲.  
 瑤皇請益,  
 實世飛<sup>468)</sup>榮. [其五]

스님께선 덕이 높아 국사(國師)되셨고,<sup>469)</sup>  
 모든 일은 평범하게 처리하였다.  
 자나깨나 국민 위한 일념 뿐이며,  
 영원토록 큰 원력(願力)을 굳게 가지다.  
 세상만사<sup>470)</sup> 모든 것은 점위<sup>471)</sup>한 것 뿐.  
 환봉(圓封)속에 갇히어서 이미 늙었네!<sup>472)</sup>  
 여산<sup>473)</sup>같은 본산으로 되돌아가서  
 정진하고 기도하여 고년(高年)을 바라네.

467) [全文]에는 桑. [苑] [總覽]의 桑은 桑의 속자임.

468) [苑] [總覽]은 結락이나, [全文]에는 飛임.

469) 만승사(萬乘師): 만승은 천자(天子)이니, 만승의 스승이란 국사(國師)가 되었다는 말이다.

470) 정세(崢嶸): 험난한 시대 또는 흉년(凶年)이라는 뜻.

471) 점위(陷危): 언덕이 곧 무너지려고 함과 같이 위험이 극에 달한 상태를 말한다. 『한서』「식화지」에 “安有爲天下陷危者 若是而上不驚者 世之有饑饉 天之行也 禹湯被之矣”라 하고, 그 주(註)에 “陷危 欲墜之意也”라 하였다.

472) 환봉고로(圓封告老): 환은 사망으로 둘러싸인 궁중을 뜻하고, 봉이란 그 속에 갇혀서 자유가 없이 이미 늙음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473) 여부(廬阜): 혜원법사가 있던 여산 동림사(廬山 東林寺)를 지칭한다. 「진공대사 보법담비문眞空大師普法塔碑文」 주134)여부廬阜 [고려편1] p.102 참조.

爲万乘師,  
合諸天道.  
普祐邦家,  
永堅懷抱.  
崢嶸貼危,  
圜封告老.  
廬阜于歸,  
高年是禱. [其六]

몸은 비록 건강하여 새지 않지만,<sup>474)</sup>  
이 생명(生命)은 멀지않아 끝날 것일새.  
아름다운 제호(醞醐) 맛도 맛을 잃었고,  
향기롭던 담복향(舊蔔香)도 향기가 없네!  
대소관원 전재<sup>475)</sup> 들은 여탄<sup>476)</sup> 하였고,  
오장육부(五臟六腑) 오려내듯 슬퍼하였다.  
여이<sup>477)</sup> 들도 너나 없이 애통함이어!<sup>478)</sup>

474) 불루(不漏): 누(漏)란 ①흐르는 오물(汚物)이니, 사람이 죽으면 육창문(六瘡門) 으로부터 오물이 새어 나온다는 말 ②각루자(穀漏子)의 준말이니, 육신인 겹질을 가리킨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탈각오음각루자(脫却五陰穀漏子)라고도 한다. 즉 오음(五陰)의 각루자(겹질)를 벗어 버렸다는 뜻이다.

475) 전재(筌宰): ①전재는 사대부(士大夫) 또는 대소관원(大小官員) 등 ② 사부대중(四部大衆)들. 전(筌)은 전(荃)과 통하니, 임금을 뜻한다.

476) 여탄(茹歎): 여통(茹痛)과 같은 뜻이니, 애통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뜻. 즉 애도(哀悼)하는 마음.

477) 이이(梨夷): 확실하지는 않으나, 이(梨)는 여(黎)의 오자가 아닌가 한다. 만약 여자(黎字)라면 여민(黎民) 또는 여서(黎庶)와 같은 말이니, 못사람, 서민, 백성 등의 뜻이다.

부모<sup>479)</sup> 잃은 아이처럼 통곡하도다.

身雖不漏,  
命也云亡,  
醞醕輟味,  
蒼筤歇香,  
筌宰茹歎,  
暗斷肺腸,  
黎夷軫慟,  
如喪爺孃. [其七]

슬퍼하는 제자<sup>480)</sup>들은 봉둔<sup>481)</sup>과 같고,  
그 유언에 감동함은 적자(赤子)와 같네!<sup>482)</sup>  
북수(北首)하고 입적(入寂)하니 세우(細雨) 내리고,<sup>483)</sup>  
남(南)을 향해 비를 세워 표본을 삼다.<sup>484)</sup>

478) 진통(軫慟): 진(軫)은 진(軫)의 속자(俗字)이다.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 통곡하는 것 등이다. 진은 은(隱)의 뜻. 즉 측은(惻隱)하고 애통(哀慟)하는 것을 말한다.

479) 야양(爺孃): 부모에 대한 속칭(俗稱). 야낭(爺娘)이라고도 한다.

480) 철제(哲弟): 훌륭한 제자란 뜻이니, 타인(他人)의 제자를 아칭(雅稱)하는 말.

481) 봉둔(蜂屯): 벌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 옛부터 왕벌이나 집주인이 죽으면 통안에 있는 벌 전체가 허리에 흰 띠를 두르고 한 곳으로 모인다고 한다. 여기서는 지광국사의 입적을 추모하는 모양. 한유(韓愈), 「송정상서서送鄭尙書序」, “蜂屯蟻聚 不可爬梳”.

482) 유묘(孺慕): 孺는 孺의 俗字이니, 마치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뜻.

483) 견북몰지선분(甄北沒之先芬): 지광국사가 1070년 10월 23일 북수우협(北首右脇)하며 동배서면(東背西面)의 상태로 누워 입적하기에 앞서 밤새도록 가랑비가 내리던 분향(芬香)스러운 상서(祥瑞)를 밝혔다는 뜻.

바닷물을 막으려는 짧은 지혜로,<sup>485)</sup>  
 새사람이 나타난들 고인(故人) 당할까?<sup>486)</sup>  
 맑은 덕과 그 웅명(雄名)은 위업(偉業) 보인 것<sup>487)</sup>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도록 영원(永遠)하소서.<sup>488)</sup>

吁哲弟之蜂屯，  
 感遺言而孺慕。  
 甄北沒之先芬，  
 勒南刊而後諭。  
 儻海塞以河堙，  
 或人新而代故。  
 庶淑德與雄名，  
 亘將來而有裕。[其八]

비서성<sup>489)</sup> 배용교위<sup>492)</sup> 신 이영보<sup>493)</sup>와 대장<sup>494)</sup> □ 장지춘<sup>495)</sup> 등은 왕명을

- 484) 능남간이후유(勒南刊而後諭): 왕이 “남쪽을 향하여 비(碑)를 세우도록 하라.”는 명령을 열반한 뒤에 내렸다는 말이니, 고래(古來)로 비를 세울 때에는 대개 남쪽을 향하여 세우게 되므로 남간(南刊)이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공국사비문圓空國師碑文」 끝에도 “甘同西笑 用效南刊”이란 말이 있다. [고려편2] p.220 참조.
- 485) 당해색이하인(儻海塞以河堙): 비재(非才) 천식인 정유산(鄭惟產) 자신이 고매하고 위대한 스님의 행적을 비문 속에 모두 나타내려는 것이, 마치 강물 속에 바다를 집어 넣으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는 말이다.
- 486) 흑인신이대고(或人新而代故): “흑 후인(後人)이 새롭게 나타나 이미 고인(故人)이 된 스님이 하시던 일을 대행(代行)할 수 있을는지.”라는 뜻이다.
- 487) 서숙덕여웅명(庶淑德與雄名): 아름다운 덕과 웅장한 그 이름은 스님의 위덕(偉德)을 표한 것이다.
- 488) 금장레이유유(亘將來而有裕):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도록 영원히 이 비가 남아 있어 스님의 유덕(裕德)이 빛나기를 바란다든 뜻.
- 489) 비서성(秘書省): 고려 때 축문(祝文)과 경적(經籍)을 맡아 본 관청. 995년(성종

받들어 비문을 새기다.

秘書省, 陪戎校尉, 臣, 李英輔, 大匠□, 張子春等, 奉宣, 刻字.

【이면裏面】<sup>494)</sup>

고(故) 법천사주(法泉寺主) 지광국사(智光國師)의 비명음기(碑銘陰記)  
는 좌(左)와 같다.

故法泉寺主, 智光國師, 碑銘陰記, 如左.

현화사주(玄化寺主)이며 승통(僧統)인 소현(韶顯)과 속리사주(俗離寺  
主)이며 왕자로써 승통(僧統)인 석정(釋鏡)<sup>495)</sup>과,

14)에 내서성(內書省)을 개칭한 것으로 1298년(충렬왕24, 충선왕즉위년)에 비서  
감(秘書監)으로, 1308년(충선왕복위년)에 전교시(典校署)로 예문관에 예속되  
었다가 다시 전교사(典校寺)로 독립되었다. 1356년(공민왕5)에 다시 비서감으  
로, 1362년(공민왕11)에는 전교시로, 1369년(공민왕18) 비서감으로 다시 고치고,  
1372년(공민왕21)에 또 다시 전교시가 되었다.

490) 배융교위(陪戎校尉) : 고려 때 정9품상(正九品上)인 무관. 995년(현종14)에 설치  
되었다. 배융부위(陪戎副尉)의 바로 위의 관직이다. 「혜소국사탑비문 慧炤國師  
塔碑文」 주321) 배융교위陪戎校尉 [고려편2] p.334 참조.

491) 이영보(李英輔) : 전기 미상이다.

492) 대장(大匠) : 탑비 공사의 석공(石工)의 총지휘를 맡은 대장쟁이, 즉 석공 도편  
수. 「혜소국사탑비문」 주323) 대장大匠 [고려편2] p.334 참조.

493) 장자춘(張子春) : 전기 미상이다.

494) [苑]에는 '碑陰記'라 하고, [全文]에는 '陰記', [總覽]에는 '裏面'이라고 각각 달리  
표현되어 있다.

495) 석정(釋鏡) : 문종(文宗)의 제6자로 제4자인 대각국사(大覺國師)의 아우. 생몰연  
대는 확실하지 않다. 1070년 개성 현화사(玄化寺)에서 혜덕왕사(慧德王師) 소현



수좌(首座)인 경현(慶玄)<sup>496</sup>과, 삼중대사(三重大師)인 석중(釋重)과,  
중대사(重大師)인 관운(灌雲)·홍제(弘諦)·점영(占穎)·융보(融保)·송  
간(嵩幹)·계상(繼相)·승개(僧鎧)·진소(眞召)·상현(尙賢)·승각(承覺)·동  
수(同壽)·우상(祐翔)·쌍소(雙炤)·수영(秀穎)·석칭(釋稱)·정신(定神)·각  
명(覺明)·관승(冠僧)·원약(元罄)<sup>497</sup>·우현(右賢)·정여(旣如)<sup>498</sup>·석상(釋  
翔)·각지(覺支)·상지(尙之)·석운(釋雲)·방란(邦蘭)·보현(甫賢)·석림(釋  
琳)·증상(證祥)·석인(釋因)·품종(稟宗)·우승(祐承)·진령(眞령)·진감(眞  
鑑)·세량(世梁) 등 103명과,

대사(大師)인 현개(賢盖)·충약(忠罄) 등 17명과,

대덕(大德)인 정지(定支)·진보(眞保) 등 22명은 가르침을 받아 계승한  
자들이다,

석□□ 승록(僧錄)인 선량(先亮)과 중대사(重大師)인 현점(玄占)·혜종(慧  
宗)·양제(梁濟)·광석(廣碩)·경충(慶忠)·염충(念忠)·심월(心月)·응서<sup>499</sup>·  
민성(敏成)·경조(慶調)·원숭(元崇)·원석(元釋) 등 28명과,

대사(大師)인 의운(義雲)·석승(釋升)·위호(爲顥) 등 23명과,

대덕(大德)인 숭기(崇器)·섬월(暹月)·홍학(弘學)·균선(均善) 등 25명  
은 직책(職責)에 따라 법계(法階)를 첨가(添加) 받은 자이다.

중직(重職)·혜등(惠燈)·홍범(弘範) 등 1,100여 명은 국사의 도덕을 흠  
모(欽慕)하여 귀화(歸化)한 자들이요.

---

(韶顯)을 은사로 하여 스님이 되었다. 속리산 법주사의 주지로 재임하면서 승통  
의 직을 받았다.

496) 경현(慶玄) : 전기 미상이다.

497) 원약(元罄) :罄은 날카로울, 예민할 약字. 약(略), 이(利), 예(銳) 등의 뜻.

498) 정여(旣如) :旣은 살필, 들을, 볼 정字.

499) 응서(應譚) :譚는 지혜란 뜻. 슬기로울 서字.

수좌(首座)인 석규(釋虬)·법령(法靈)과, 삼중대사(三重大師)는 점선(占先)·위현(爲現)·송광(宋光)과,

중대사(重大師)인 승소(昇炤)·성현(成現)·계언(繼言)·안예(安銳)·도생(道生)·강운(講雲)·이진(利眞)과,

대사(大師)인 심현(暹現)·주현(周現)·신창(神暢)·관성(貫成)과,

대덕(大德)인 주란(周蘭)·수기(秀岳)<sup>500)</sup>·단직(單職)·진약(眞契) 등 52명은 국사를 전후하여 입적한 자들이다.

玄化寺主僧統, 韶顯, 俗離寺主, 王子僧統, 釋疏,

首座慶玄, 三重大師, 釋重,

重<sup>501)</sup>大師, 灌雲, 弘諦, 占穎, 融保, 嵩幹, 繼相, 僧鎧, 眞召<sup>502)</sup>,

尙賢, 承覺, 同壽, 祐翔, 雙炤, 秀穎, 釋稱, 定神, 覺明, 冠僧,

元契, 右賢, 兢如, 釋翔, 覺支, 尙之, 釋雲, 邦蘭, 甫賢, 釋琳,

證祥, 釋因, 稟宗, 祐承, 眞領, 眞<sup>503)</sup>鑑, 世梁等, 一百三人,

大師, 賢蓋, 忠契等, 一十七人,

大德, 定支, 眞保等, 二十二人, 受教繼業者也.

石<sup>504)</sup>□□, 僧錄, 先亮, 重大師, 玄占, 慧宗, 梁濟, 廣碩, 慶忠,

念忠, 心月, 應諳, 敏成, 慶調, 元崇, 元釋等, 二十八人,

大師, 義雲, 釋升, 爲顗等, 二十三人, 大惠, 崇器, 暹月, 弘學,

均善等, 二十五人, 隨職加階者也.

500) 수기(秀岳): 岳은 岬와 같은 字이니, 민둥산 기字. 『전傳』에 “山無草木曰岳 山有草木曰岬”라 하였다.

501)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에는 重임.

502) [總覽]은 召이나 [苑] [全文]의 占이 옳은 듯함.

503) [苑] [總覽]에는 眞, [全文]의 眞은 眞의 오자임.

504)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에는 石임.

重臧, 惠燈, 弘範等, 一千一百餘人, 慕德歸化者也.  
 首座, 釋虬, 法靈,  
 三重大師, 占先, 爲現, 宋光,  
 重大師, 昇炤, 成現, 繼言, 安銳,<sup>505)</sup> 道生, 講雲, 利眞,  
 大師, 暹現, 周現, 神暢, 貫成, 大德, 周蘭, 秀岳, 單臧, 眞瓘  
 等, 五十二人, 先後師而沒世者也.

우견(右件) 문도(門徒)의 개좌(開座)와 직명(職名)을 새겨서 후세(後世)에 전하도록 한다.

右件 門徒<sup>506)</sup>, 開座職名, 彫錄施行,

승봉랑(承奉郎) 상서도관낭중(尙書都官郎中)이며 비어대(緋魚袋)를 하사받은 안민후(安民厚)는 글씨를 쓰고,

대안원년<sup>507)</sup> 세재(歲在) 을축년(乙丑年) 중추월<sup>508)</sup>일에 세웠으며,

신 이영보(李英輔)와 신 장자춘(張子春) 등은 글자를 새기다.

承奉郎, 尙書都官郎中, 賜緋魚袋, 臣, 安民厚, □□,

大安元年, 歲在乙丑, 仲秋月日, 樹,

臣, 李英輔, 臣, 張子□<sup>509)</sup> □.

[비신(碑身)의 높이(高)는 9척8촌(九尺八寸), 폭(幅)은 4척7촌(四尺七寸), 표면의 글자 간격

505) [苑]에는 銳이고, [全文]에는 銳이며, [總覽]에는 결락이니, 모두 銳의 오자임.

506) [苑] [總覽]은 徒이나, [全文]에는 탈락됨.

507) 대안원년(大安元年): 대안은 요나라 도종 때의 연호. 대안 원년은 1085년(宣宗 2).

508) 중추월(中秋月): 음력 8월.

509)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에는 春임.

은 7분(七分), 이면(裏面)의 글자 간격은 9분(九分)이며, 모두 해서(楷書)이다. 제액(題額)의 글자 간격은 3촌(三寸)이며 전서(篆書)이다.]

[掲載]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上, pp.419~435.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上, pp.283~291.

『한국금석전문韓國金石全文』中世 上, pp.517~526.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文

【08.개성영통사대각국사비문】





## 08. 개성영통사대각국사비문<sup>1)</sup>

開城靈通寺<sup>2)</sup>大覺國師碑文

있는 곳<sup>3)</sup>: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현화리 영통사 터

세운 때<sup>4)</sup>: 고려 인종 3년 을사 (1125)

- 
- 1) 이 비문은 [苑]과 [總覽]에는 결락이 너무 많아 [全文]을 저본으로 하고, 조명기(趙明基) 저(著), 『고려대각국사와 천태사상』에 실려 있는 비문을 [碑文]으로 표기하였다.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外集)권12에도 비문이 실려 있다.
  - 2) 영통사(靈通寺):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현화리 오관산(五冠山) 밑에 위치. 『범우고梵宇攷』에 의하면 개성군 영북면(嶺北面) 현화리(玄花里) 영통사는 동서로는 약 150칸, 남북으로는 약 80칸이나 되는 대규모 사찰이라 기록하고 있다. 고려 제10대 정종(靖宗) 2년(1036) 5월 14일 왕실에서는 왕자(王子)가 4인 이상이면 한 왕자의 출가를 허락하였다. 영통사·승법사(崇法寺)·보원사(普願寺)·동화사(桐華寺) 등에 계단(戒壇)을 설치하고, 경과 율을 시험보았다. 영통사에는 오층석탑(五層石塔) 1기와 삼층석탑(三層石塔) 2기 및 당간석주(幢竿石柱)가 남아 있다. 『대각국사문집』(외집)권12와 조명기 저, 『고려대각국사와 천태사상』 등에 비문(碑文)이 실려 있다.
  - 3) 소재(所在):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현화리 오관산(五冠山) 영통사 터에 있다.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에는 “靈通寺 大覺國師碑 在長湍 五冠山 工部侍郎 吳彦候 書 平章事 金富軾文”이라 하였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12 「장단도호부長湍都護府」 ‘불우佛宇’에는 “靈通寺 在五冠山下 洞府深邃 山勢周遭 流水廻廻 樹林蓊鬱 其西樓勝概 爲松都第一 寺有金富軾 所撰 義天塔銘 又有高麗文宗眞及洪自藩像”이라 하였다.
  - 4) 연대(年代): 대각국사(大覺國師)의 비(碑)는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현화리 오관

所在：京畿道 開豐郡 嶺南面 玄化里 靈通寺址

年代：高麗 仁宗 3年 (1125)

증시(贈諡) 대각국사(大覺國師) 비명(碑銘). [제액]

고려국(高麗國) 오관산<sup>5)</sup> 대화엄(大華嚴) 영통사(靈通寺) 증시(贈諡) 대각국사비명<sup>6)</sup>과 아울러 서문(序文).

贈諡大覺國師, 碑銘. [題額]

高麗國, 五冠山, 大華嚴靈通寺, 贈諡大覺國師, 碑銘, 竝序.

산 영통사와 경북 칠곡군 북삼면 송조리 남송산(南崇山) 선봉사(仙鳳寺)에 있다. 오관산비(五冠山碑)에는 ‘대화엄영통사(大華嚴靈通寺)’라 하고, 남송산비(南崇山碑)에서는 ‘해동천태시조(海東天台始祖)’라 제명(題名)하였다. 영통사는 의천(義天)이 입적한 후 25년(1125)에 세웠고, 선봉사비는 사후(死後) 31년(1132)만에 세워졌는데, 먼저 영통사비를 건립하고 그로부터 7년 후에 선봉사비가 세워진 셈이다. 미루어 보건대 영통사 비명은 대각국사가 화엄종(華嚴宗)에 있을 때의 제자들에 의하여 세워졌고, 선봉사비는 함께 입송구법(入宋求法)하여 천태종(天台宗)을 전래(傳來)한 문인들과 화엄종에서 천태종으로 따라간 제자들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5) 오관산(五冠山) : 전국(全國) 명산(名山) 중의 하나이니, 동(東)에는 치악산(雉岳山)으로 원주(原州)에 있고, 남(南)에는 계룡산(鷄龍山)으로 공주(公州)에 있으며, 죽령산(竹嶺山)은 단양(丹陽)에 있고, 우불산(弓佛山)은 울산(蔚山)에 있으며, 주흘산(主屹山)은 문경(聞慶)에 있고, 금성산(錦城山)은 나주(羅州)에 있으며, 중앙(中央)에는 목멱산(木覓山), 서(西)의 오관산은 장단(長湍)에 있고, 우이산(牛耳山)은 해주(海州)에 있으며, 북(北)의 감악산(紺岳山)은 적성(積城)에 있고, 의관산(義館山)은 회양(淮陽)에 있다.

6) 비의 보존상태 : 하반부가 파손되었고, 비신(碑身)의 높이는 9자 6치 5푼, 넓이는 5자 2치, 51행인데, 1행에 약 80여 자(字)이다. 뒷면 음기에는 사적기(寺蹟記)를 새겼는데, 15행으로 써 1행에 40~60여 자(字)이고, 중간에는 문도(門徒)와 직명(職名)이 새겨져 있다.



금자광록대부<sup>7)</sup> 검교<sup>8)</sup>태위(太尉)<sup>9)</sup> 사도<sup>10)</sup> 중서시랑과 중서문하<sup>11)</sup>평장사 판상서예부사<sup>12)</sup> 수국사(修國史) 상주국<sup>13)</sup> 신 김부식<sup>14)</sup>이 왕명(王命)을

- 7)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 고려 문산계(文散階)의 관계(官階) 중 하나 종3품(從三品)으로 문종 때 제정. 1275년(충렬왕1)부터 이 칭호가 없어졌다가 1356년(공민왕5)에 환원되어 종3품상으로 되었으며, 1362년(공민왕11)에 폐지되고, 1369년(공민왕18)에 정2품상(正二品上)으로 정하였다. 「원종대사혜진탑비문元宗大師惠眞塔碑文」 주4) 광록대부光祿大夫 본서 p.238 참조.
- 8) 검교(檢校) : 고려에서 조선까지의 정원(定員) 이상으로 벼슬 자리를 임시로 늘리거나, 공사(公事)를 맡기지 않고 이름만 갖게 할 경우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던 말. 예컨대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 검교정승(檢校政丞)과 같은 경우이다. 「대경대사현기탑비문大鏡大師玄機塔碑文」 주2) 검교檢校 [고려편1] p.69 등 참조.
- 9) 태위(太尉) : 고려시대의 관직. 정1품. 삼사(三師; 太師, 太傅, 太保)와 함께 최고 명예직이었던 삼공(三公; 太尉, 司徒, 司空)의 하나.
- 10) 사도(司徒) : 중국 주(周)나라 때 6경(卿)의 하나, 예교(禮敎)로써 국민을 개도하는 직책을 맡은 관직. 한대(漢代)에는 승상(丞相)을 대사도(大司徒)라 개칭(改稱)하였다. 고려 삼공(三公)의 하나임.
- 11) 중서문하평장사(中書門下平章事) : 고려 때의 관직. 문종 때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 문하평장사, 중서평장사를 각 1인씩 두었으나 실제로는 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와 중서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에서는 중서성과 문하성이 구분되지 않고 중서문하성으로서 운영되었고, 평장사 또한 동중서문하평장사로 겸직하는 경우도 많았다. 평장사는 중서성과 문하성의 구별을 초월하여 중서문하성의 재신(宰臣)으로서 함께 국사를 논의하였다.
- 12) 판상서예부사(判尙書禮部事) : 고려 때의 관직. 상서성에 육부를 두고 그 책임자로 육부상서(尙書: 정3품)를 두었으나, 중서문하성의 재신(宰臣)들이 6부의 판사를 겸하게 되어 수상은 이부, 아상(亞相)은 병부 등 서열대로 6부 상서의 위에서 직무를 감독, 지휘하도록 하였다. 김부식은 중서시랑으로서 판예부사를 겸직한 것이다. 상서는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조(工曹) 등 6부에 두었던 정3품(正三品) 관직으로서 이 상서(尙書) 위에 종1품(從一品)인 판사(判事)의 관직이 있어 재신(宰臣)이 겸임하고 있었으나, 실무를 맡는 것은 아니고, 다만 횡적(橫的)인 연락과 감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서가 실제 일을 맡

받들어 짓고,

조산랑<sup>15)</sup> 상서(尙書)공부시랑<sup>16)</sup>이며 자금어대<sup>17)</sup>를 하사 받은 신 오연

- 
- 아보는 장관(長官)이었다. 「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문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文」 주3)상서尙書 [고려편1] p.19 ; 「대경대사현기탑비문」 주3)상서尙書 [고려편1] p.69 ; 「선각대사편광탑비문先覺大師遍光塔碑文」 주2)상서尙書 [고려편1] p.271 ; 「원융국사비문圓融國師碑文」 주4)상서尙書 [고려편2] p.272 ; 「지광국사현묘탑비문智光國師玄妙塔碑文」 주9)판상서判尙書 [고려편2] p.359 ; 「원융국사비문」 주5)예부禮部 [고려편2] p.272 등 참조.
- 13) 상주국(上柱國) : 고려의 훈계(勳階). 문종 때 훈계를 정하여 상주국은 정2품으로 하였으나 충렬왕 이후에 폐지되었다. 「적연국사자광탑비문寂然國師慈光塔碑文」 주7)주국柱國 [고려편2] p.193 ; 「혜소국사탑비문慧炤國師塔碑文」 주6)주국柱國 [고려편2] p.307 등 참조.
- 14) 김부식(金富軾) : 1075~1151. 고려의 문신. 자(字)는 입지(立之). 호는 뇌천(雷川), 시호는 문열(文烈), 본관은 경주,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인 근(覲)의 셋째 아들. 장자(長子)는 부필(富弼), 차자(次子)는 부일(富侁), 삼자(三子)는 부식, 사자(四子)는 부의(富儀)이다. 4형제가 모두 당시 이름난 학자이나, 그 중 김부식이 더욱 유명하였다.
- 15) 조산랑(朝散郎) : 고려 때 문관의 품계. 문산계로 문종 때에 둔 종5품하로 1308년에 폐지하고, 1365년 종4품하로 올렸다가 1362년에 폐지, 1369년 종4품상으로 하였다. 『고려사』 권77 참조.
- 16) 공부시랑(工部侍郎) : 육조(六曹) 중 공조(工曹)의 차관. ①신라의 관직. ②고려의 관직. 국초부터 쓰기 시작하였으나, 문종 때의 관제를 보면 품계는 정4품(正四品)으로서 상서이부(尙書吏部), 상서호부, 상서병부, 상서형부, 상서예부, 상서공부의 6부에 각각 1명씩 두었는데, 각 부의 장관인 상서(尙書)의 다음가는 벼슬이었다. 말기에는 총랑(摠郎), 의랑(議郎) 등으로 개칭.
- 17) 자금어대(紫金魚袋) : 자색(紫色) 금어대이니, 당나라 관리들은 관품(官品)의 고하(高下)에 따라 관복의 색깔과 허리에 차고 다니던 어대의 종류가 달랐다. 3품 이상은 자색과 금어대, 4~5품은 비색(緋色)과 은어대(銀魚袋), 6~7품은 청색(靑色)과 동어대(銅魚袋), 8품 이하는 황색(黃色)의 관복을 입고 철어대(鐵魚袋)를 찼다. 「보조선사창성탑비문普照禪師彰聖塔碑文」 주6)비어대緋魚袋 본서 p.56 ; 「진감국사대공영탑비문眞鑑國師大空靈塔碑文」 주3)도통순관승무랑어사내공봉사자금어대都統巡官承務郎御史內供奉賜紫金魚袋 본서 p.81 ; 「원랑선사대보

후<sup>18)</sup>는 칙선(勅宣)에 의하여 비문을 쓰다.

金紫光祿大夫, 檢校太尉, 守<sup>19)</sup>司徒, 中書侍郎, 同中書門下平章事, 判尚書禮部事, 修國史, 上柱<sup>20)</sup>國, 臣, 金富<sup>21)</sup>軾,<sup>22)</sup> 奉宣, 撰.

朝散郎, 尚書, 工部侍郎, 賜紫金<sup>23)</sup>魚<sup>24)</sup>袋,<sup>25)</sup> 臣, 吳<sup>26)</sup>彦<sup>27)</sup>彥<sup>28)</sup>侯,<sup>29)</sup> 奉<sup>30)</sup>宣<sup>31)</sup>書,<sup>32)</sup> 竝篆額.<sup>33)</sup>

선광담비문圓郎禪師大寶禪光塔碑文」주8)사비어대賜緋魚袋 [신라편] p.217 ; 「법경대사자등담비문法鏡大師慈燈塔碑文」주15)비은어대緋銀魚袋 본서 p.189 등 참조.

- 18) 오언후(吳彦侯) : [苑]과 [總覽]에는 결락되었고, [全文]에는 오언수(吳彦修), [拓本]에는 오언후(吳彦侯), 『조선금석고朝鮮金石攷』에는 오언오(吳彦侶), 『대동금석서』에는 오언후(吳彦侯), 『한국금석총목록韓國金石總目錄』에도 후(侯)로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나, 오언수의 전기가 다른 자료에 보이지 않아 어느 자(字)가 옳은 지 알 수 없다. 그러나 [苑]권5 「영통사대각국사비문靈通寺大覺國師碑文」말(末) 유희해(劉喜海)의 「주註」에 “右碑 在朝鮮 京畿道 開城府 五冠山 金富軾撰 吳彦侯 書竝篆額”이라고 한 것에 의하면 오언후가 옳을 듯하다.
- 19) [苑][碑文]은 결락이나 [總覽]에는 守임. [總覽]의 守는 잘못 들어간 듯 하다.
- 20)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柱임.
- 21)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富임.
- 22)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軾임.
- 23) [苑]은 결락이나 [總覽] [全文] [碑文]에는 金임.
- 24) [苑]은 결락이나 [總覽] [全文] [碑文]에는 魚임.
- 25) [苑]은 결락이나 [總覽] [全文] [碑文]에는 袋임.
- 26) [苑]은 결락이나 [總覽] [全文] [碑文]에는 臣임.
- 27)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吳임.
- 28) [苑] [總覽] [碑文]은 모두 결락이나 [全文]에는 彦임.
- 29) [苑] [總覽] [碑文]은 모두 결락이나 [全文]에는 修임.
- 30) [苑] [總覽] [碑文]은 모두 탈락이나 [全文]에는 奉임.
- 31) [苑] [總覽] [碑文]은 모두 탈락이나 [全文]에는 宣임.

인종(仁宗) 임금께서 왕위를 이은 지 4년째인 을사년<sup>34)</sup> 가을 7월 경오일(庚午日)에 대각국사 문인인 도승통(都僧統) 징엄<sup>35)</sup> 등이 국사의 행장(行狀)을 임금께 올려 고하기를 “우리 선사(先師)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sup>36)</sup> 아직 비명이 저술되지 않아서 항상 그의 위대하신 덕업(德業)이 마멸된 바가 되어서 기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 두려워 하오니, 오직 임금께서는 이 일을 통찰하시어,<sup>37)</sup> 신으로 하여금 비문을 지어<sup>38)</sup> 미래(未來)에 구원(久遠)토록 전시(傳示)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건의하였다.

上, 嗣位之四年乙巳, 秋七月庚午, 大覺國師門人, 都僧統, 澄儼等, 具師之行事, 以聞曰, “吾先師, 卽世久矣, 而碑銘未著,

32) [苑] [總覽] [碑文]은 모두 탈락이나 [全文]에는書임.

33) [碑文]에는書字 아래에 并篆額이란 3字가 있으나, [苑] [總覽] [全文]에는 탈락됨.

34) 상사위지사년을사(上嗣位之四年乙巳): 상은 고려 제17대 인종(재위 1122~1146)을 지칭함이니, 곧 인종 임금이 보위(寶位)에 오른지 4년째라는 뜻. 을사(1125년)는 인종 3년이지만, 고려 시기에는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종이 즉위한 지는 4년째가 된다.

35) 징엄(澄儼): 정종(靖宗) 2년(1036) 5월 14일 앞으로 왕자(王子)가 4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한 왕자는 출가(出家)하여 복전(福田)이 되기를 허락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생겨남에 따라 문종(文宗)의 넷째 아들인 후(煦: 대각국사)와 숙종(肅宗)의 넷째 왕자인 징엄(澄儼: 원명국사) 등이 연이어 출가하였다. 징엄(澄儼: 1090~1141)은 숙종의 넷째 왕자(「고원명국사묘지故圓明國師墓誌」에는 넷째 왕자, 『고려사』에는 셋째 왕자로 표기하고 있다). 8세(1098) 때 숙종의 명에 의하여 홍왕사 대각국사를 은사로 하여 출가하였다. 불일사(佛日寺)에서 비구계(比丘戒)를 받고, 1105년 복세승통(福世僧統)이 되고, 인종 때 오교도승통(五敎都僧統)이 되었다. 시호는 원명국사(圓明國師)임.

36) 즉세구(卽世久矣): 세상을 떠난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뜻.

37) 상애련지(上哀憐之): 상은 인종을 지칭함. 즉 상께서 이를 애민히 여기시어 탑비(塔碑)세울 것을 허락하여 달라는 뜻. 임금께 상소하는 것을 말함.

38) 사지부찬(使之哀撰): 부찬이란 부집, 부회, 부철(哀綴) 등의 뜻이니, 편찬이란 말과 같다.

常懼其德業，有所磨滅而不記，惟上哀憐<sup>39)40)</sup>之，使之哀<sup>41)</sup>撰以示久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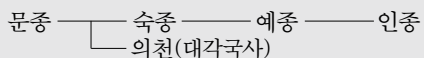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슬프도다. 국사는 나에게 종조부(從祖父)가 되  
신다.<sup>42)</sup> 유업(遺業)으로 남기신 공적의 여열<sup>43)</sup>에 대하여 감탄하지 않는 사  
람이 없으니, 그를 어찌 덮어 두고 나타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44)</sup>” 하시고,  
드디어 신 부식(富軾)에게 행장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그대가 비명을  
지으라”고 하시므로 신이 사양하다 못하여 물러나와 서술하되, 신이 보는  
바로는 국사는 성인(聖人)의 도에 있어서 천성적(天性的)으로 갖추어 태어  
날 뿐 아니라, 날 때부터 이미 아는 ‘생이지지자’였다.<sup>45)</sup> 무엇으로써 그러한  
줄 아느냐하면 어려서부터 배움에 뜻을 두었고 분잡하고 화려한 세속적

39)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哀憐임.

40) [苑] [總覽]에는 憐과 可의 兩字 사이에 26자가 탈락됨.

41) [苑] [總覽]은 결락이나, [碑文]에는 哀이고, [全文]에는 哀이니, 哀는 모을 부자  
임. 즉 부찬(袁裨)이란 부집(袁輯)과 같은 말임.

42) 사어여위종조(師於余爲從祖) : 고려 제17대 인종은 예종(睿宗)의 장자(長子)이  
고, 예종은 숙종(肅宗)의 장자이며, 숙종은 문종(文宗)의 제3자이므로 의천(義  
天)은 인종의 종조부(從祖父 : 할아버지와 형제간임)가 된다. 이를 대표하면 다음  
과 같다.



43) 유공여열병연가관(遺功餘烈炳然可觀) : 공적을 남긴 것이 너무나 위대하고 작렬  
(灼烈)하다는 뜻.

44) 기가개이불장호(其可蓋而不章乎) : ‘그 위대하신 업적을 덮어 두고 나타내지 않  
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 장(章)은 명(明) 또는 표(表)의 뜻.

45) 성득이생지자(性得而生知者) : 대각국사는 성인(聖人)의 도(道)에 대하여 천성적  
(天性的)으로 갖추고 태어났을 뿐 아니라, ‘날 때부터 이미 아는’ 선천적인 자질  
(資質)을 말한다.

(世俗的) 영광에 대해서는 마음에 조금도 유혹함이 없었기 때문이다.<sup>46)</sup>

上曰, “嗚呼, 師於余爲從祖, 而遺功餘烈, 炳然可觀, 其可蓋而不章乎.” 遂授臣富弼以行狀曰, “汝其銘之.” 臣讓不獲命, 退而叙曰, 以臣觀之, 師於聖人之道, 可謂性得而生知者也. 何以知其然哉,<sup>47)</sup> 自<sup>48)</sup> 少<sup>49)</sup> 知<sup>50)</sup> 學<sup>51)</sup> 不爲<sup>52)53)</sup> 紛華盛麗之所移.

출가함에 미쳐서 도덕은 쇠퇴하고 학문은 황폐(荒廢)한 때를 당하여, 국사만이 능히 시대적인 세태(世態)와 배치되는 길을 홀로 걸어가는 독보적인 개혁자(改革者)로써, 옛 성현(聖賢)의 자취를 따라 조술(祖述)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47세의 단명(短命)이었으나, 그의 세운 바 업적(業績)은 이와 같이 위대하였다. 자사(子思)가 말하기를, ‘스스로의 정성(精誠)으로 발명(發明)한 자’라 하였으니, 그와 같은 부류라고 하겠다.

及其出家, 當道衰學廢之時, 獨能背馳於時態, 追古聖賢而祖述之. 不幸短命, 而其所樹立如此. 子思有言, ‘自誠而明者’, 其是類乎.

국사의 휘는 석후(釋煦)이고, 속성은 왕씨(王氏)이며, 자는 의천(義天)

46) 불위분화성려지소이(不爲紛華盛麗之所移): 분잡하고 화려한 세속적(世俗的) 영광에는 마음에 움직임이 없었다는 말.

4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碑文]에는 哉임.

48)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自임.

49)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少임.

50)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知임.

51)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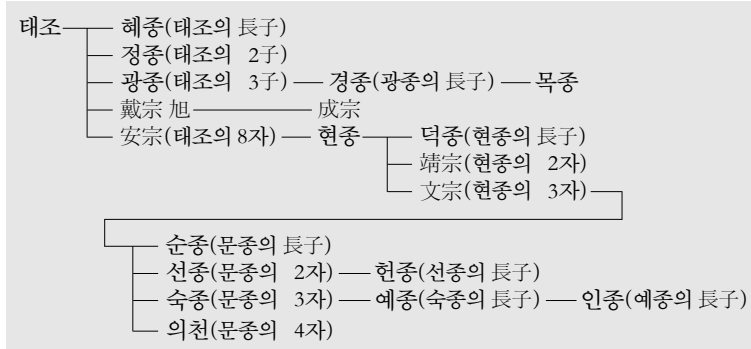
52)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爲임.

53) [苑] [總覽]에는 爲와 賢인 兩字 사이에 28자가 탈락됨.

이었으나, 그 후 이름이 송(宋)나라 철종(哲宗)의 휘(諱)와 같다하여 이름 대신 자(字)를 대행하였다.<sup>54)</sup> 국사는 우리 태조대왕의 4세손이며,<sup>55)</sup> 또한 문종 임금의 넷째 아들이다.<sup>56)</sup> 어머니는 인예태후<sup>57)</sup> 이씨니, 어느 날 밤 꿈에 용이 품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하였다.<sup>58)</sup> 을미년<sup>59)</sup> 9월 28일에

54) 명범철종휘(名犯哲宗諱) : 대각국사의 이름이 송(宋)나라 철종(哲宗)의 휘(諱)인 후(煦)를 피하며, 이름(名) 후(煦) 대신 자(字)인 의천(義天)을 사용하였다는 말. 철종은 송의 제7대 임금. 자는 빈육(賓育). 신종(神宗)의 여섯째 아들. 묘호(廟號)는 철종. 재위(在位) : 1085~1100) 15년. 즉위할 때 어렸으므로 태황태후(太皇太后) 고씨(高氏)가 청정(聽政)하였다. 『송사宋史』권17 참조.

55) 태조대왕사세손(太祖大王四世孫) : 대각국사는 고려 태조의 사세손이 된다는 말. 고려 제2대 혜종(惠宗)은 태조(太祖)의 장자(長子). 제3대 정종(定宗)은 태조의 제2자, 제4대 광종(光宗)은 태조의 제3자, 제5대 경종(景宗)은 광종의 장자, 제6대 성종(成宗)은 태조의 손자(孫子), 제7대 목종(穆宗)은 경종(景宗)의 자, 제8대 현종(顯宗)은 안종(安宗 : 태조의 제8자)의 자, 제9대 덕종(德宗)은 현종의 장자, 제10대 정종(靖宗)은 현종의 제2자, 제11대 문종(文宗)은 현종의 제3자이니,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6) 문종왕제사자(文宗王第四子) : 문종의 장자는 순종(順宗), 2자는 선종(宣宗), 3자는 숙종, 4자는 대각국사 의천(義天)이다.

57) 인예태후(仁睿太后) : 이자연(李子淵)의 딸. 문종의 비(妃), 대각국사의 어머니. 「대각국사묘지명大覺國師墓誌銘」 주11)인예태후仁睿太后 [고려편3] p.110 참조.

58) 유신언(有身焉) : 몸을 받음이니, 임신하게 되었다는 뜻.

이르러 궁중에서 탄생하였다. 그 때 향기가 궁 안에 가득하여 오랫동안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국사는 어릴 때부터 영특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글을 읽고 문장을 풀이하며 작문함에 있어서,<sup>60)</sup> 그 정민(精敏)함이 숙세(宿世)에 이미 익힌 것과 같았다. 국사의 다섯 형제가 모두 현명하였으나,<sup>61)</sup> 국사가 더욱 걸연(傑然)하고 봉영(鋒穎)이 빼어났다.

師諱釋煦，俗姓王氏，字義天，後以名犯哲宗諱，以字行。我太祖大王四世<sup>62)</sup>孫，<sup>63)</sup>而<sup>64)</sup><sup>65)</sup>文宗王第四子也。母仁睿太后李氏，夜夢，若有龍入懷，而有身焉。至乙未秋九月二十八日生，於宮中。時有香氣，郁然久而後歇。師少超悟，讀書屬辭精敏若宿習。兄弟皆有賢行，而師傑然出鋒穎。

어느 날 문종 임금께서 모든 왕자를 불러 놓고, “누가 능히 스님이 되어 복전(福田)으로 국조(國祚)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이 때 국사께서 일어나 여쭙기를, “신이 출가수도(出家修道)할 뜻을 가지고 있으니 오직 원하옵건대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sup>66)</sup> 임금이

59) 을미(乙未): 고려 문종 9년(1055).

60) 독서촉사(讀書屬辭): 글을 읽고 그 문장을 연결하여 유창하게 풀이하는 것. 촉(屬)은 연(連)의 뜻.

61) 형제개유현행(兄弟皆有賢行): 대각국사의 형제가 모두 총명하고 현명하였다는 뜻.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이다. 모두 5형제이니, 다음과 같다. 장자는 순종(順宗) → 2자는 선종(宣宗) → 3자는 숙종(肅宗) → 4자는 의천(義天) → 6자는 도생승통 정(道生僧統 諱) → 12자는 부여후(扶餘侯), 名은 濼(宣宗의 이복동생).

62)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世임.

63)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孫임.

64)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而임.

65) [苑] [總覽]에는 而와 至字사이에 25자가 탈락됨.

66) 유상소사(惟上所使): 오직 임금(上)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다는 뜻.



말하되, “좋다”고 윤허(允許)하였다. 어머니인 인예태후(仁睿太后)가 이 말을 듣고 태몽과 부합한다고 생각하나, 학업을 마친 다음 부왕의 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하였으나,<sup>67)</sup> 어찌할 수 없었다.<sup>68)</sup>

上一日, 謂諸子曰, “孰<sup>69)</sup>能<sup>70)</sup>爲<sup>71)</sup>僧<sup>72)73)</sup>作福田, 爲利益乎.” 師起曰, “臣有出世志, 惟上所使”, 上曰, “善.” 母后以前夢貴徵, 竊惜之而業已, 受君命, 巨如之何.

을사년 5월<sup>74)</sup> 14일 경덕국사<sup>75)</sup>를 내전(內殿)으로 초정하여 은사(恩師)가 되어 삭발 수계(受戒)토록 하였다. 이 때 문종이 재배(再拜)하고는 경덕국사를 따라 영통사에 머물도록 하였다. 그 해 10월 불일사<sup>76)</sup> 계단(戒壇)에 가서 구족(具足)을 받았으니 당시 나이 11살이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학문을 쉬지 아니하였다. 이미 성인이 된 후 어느 날 꿈에, 어떤 사람이 정

67) 절석지이업기수군명(竊惜之而業已受君命): 의천이 부왕(父王)의 뜻에 따라 출가(出家)하겠다는 말을 들은 인예태후(仁睿太后)는 그윽히 생각하되, 학업을 마친 다음 입금의 명(命)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하고 애석하게 여겼다는 말.

68) 파여지하(巨如之何): 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 즉 불가항력(不可抗力)이란 뜻.

69)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孰임.

70)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能임.

71)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爲임.

72)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僧임.

73) [苑] [總覽]에는 僧과 前字 사이에 25字가 탈락됨.

74) 을사오월(乙巳五月): 고려 문종 19년(1065).

75) 경덕국사(景德國師): 999~1066. 속성은 김씨. 휘는 난원(爛圓). 시호는 경덕. 현종의 장인인 김은부(金殷傳 ?~1017)의 둘째 아들. 대각국사의 은사(恩師)스님. 「경덕국사묘지명景德國師墓誌銘」 주6)경덕국사景德國師 [고려편2] p.338 참조.

76) 불일사(佛日寺): 경기도 장단군 서면 경릉리에 위치. 광종 2년(951)에 선비(先妃) 유씨(劉氏)의 원당(願堂)으로 창건하였다. 문종 11년(1057) 4월 10일 왕이 불일사에 가서 반승(飯僧)하였다. 『고려사』 참조.

관법사(澄觀法師)의 『화엄경소華嚴經疏』<sup>77)</sup>를 전해주는 것을 받았다. 이 때부터 국사의 혜해(慧解)가 날마다 증진하였다.

乙巳五月十四日, 徵景德國師於內殿, 剃髮. 上再拜之, 許隨師出, 居靈通寺. 冬十月, 就佛日<sup>78)</sup>寺<sup>79)</sup>戒壇<sup>80)</sup>受具, 時<sup>81)</sup>春<sup>82)</sup>秋<sup>83)</sup>十一歲. 而學問不息. 己能成人, 嘗夢人傳澄觀法師書, 自是, 慧解日進.

나이 장년에 이르러서부터<sup>85)</sup> 더욱 스스로 근고정진(勤苦精進)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굴굴<sup>86)</sup>하여 많은 책을 열람하고 힘써 기억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스승을 두지 않고 도덕이 높은 이가 있으면 지체없이 찾아가서 문학(問學)하였다. 현수교관<sup>87)</sup>으로부터 돈점(頓漸)과 대소승<sup>88)</sup>의

77) 정관법사서(澄觀法師書) : [全文]의 등(燈)은 정(澄)의 오자이다. 청량국사(淸涼國師)인 정관법사(澄觀法師 : 738~839)이니, 중국 당나라 때 스님. 화엄종 제4조. 자는 대휴(大休). 속성은 하후씨(夏侯氏). 9대 왕조에 걸쳐 6제(六帝 : 代宗, 德宗, 順宗, 穆宗, 敬宗, 文宗)의 국사(國師)였으며, 키는 9자 4치. 세수 102세를 살았다. 서(書)는 청량국사가 지은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지칭한다.

78)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碑文]에는 日임.

79) [苑] [總覽] [全文]에는 寺. [總覽]의 告는 寺의 오자임.

80)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壇임.

81)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時임.

82)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春임.

83)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秋임.

84) [苑] [總覽]에는 秋와 至字 사이에 27字가 탈락됨.

85) 지년보장(至年甫壯) : 나이 장년(壯年)에 이르러서라는 뜻. 장년은 장정(壯丁)이며, 일생에 가장 씩씩한 나이. 30~40대를 가리킴.

86) 굴굴(矻矻) : ①부지런히 노력하는 모양 ②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는 태도. 矻은 수고로울 굴字.

87) 현수교관(賢首教觀) : 현수법장(賢首法藏 : 643~712)의 교관. 그의 『오교장五教

경율론(經律論)에 따른 장소(章疏)에 이르기까지 탐색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리고 여력(餘力)으로 외학(外學)에 대해서도 건문이 연박<sup>89)</sup>하여 중니<sup>90)</sup>와 노답<sup>91)</sup>의 서적과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집록(集錄), 모든 사기에까지 미쳤다.<sup>92)</sup> 또한 일찍부터 그 청화<sup>93)</sup>함을 완미(玩味)하여 그 근저(根柢)를 찾아 냈으므로 의론(議論)이 종횡(縱橫)으로 치빙(馳騁)하고 곤곤<sup>94)</sup>하여 그 끝이 없었다. 비록 노사와 숙덕(宿德)이더라도 모두 스스로 따라갈 수 없다고 자인하였다. 칭송하는 그 명성이 온 천하에 널리 들려서, 당시

章』에서 팔만장경을 구분하되, 오교(五敎)로 교판(敎判)하였으니, 그 5교는 다음과 같다. ①소승교(小乘敎) ②대승시교(大乘始敎) ③대승종교(大乘終敎) ④돈교(頓敎) ⑤원교(圓敎) 『석씨계고략釋氏稽古略』권4「의천승통義天僧統」(대정장 49, p.876)에 “從晋水淨源問賢首宗承”이라 하였다.

88) 돈점대소(頓漸大小): 돈교, 점교(漸敎), 대승교, 소승교란 뜻이니, ①돈교란 청중을 고려하지 않고 최상승의 진리를 일시(一時)에 돈설한 내용이니, 『화엄경』을 지칭한다. ②점교란 청중의 근기(根機)에 맞추어 소승, 중승, 대승 등을 점차적으로 설하여 마침내 일승묘법(一乘妙法)을 설파한 교이니, 『법화경法華經』을 가리킨다. ③소승교(小乘敎)란 다만 아공(我空)만 설하고 법공(法空)은 밝히지 못했다. 오직 육식(六識)과 삼독(三毒)에 의하여 설한 내용이므로 법원(法源)을 극설(極說)하지 못한 내용. ④대승교(大乘敎)란 육바라밀(六波羅密)을 설하여 구경(究竟)의 목적을 성불에 두고 있는 교리이다.

89) 연박(淵博): 연박이란 깊고 넓다는 말이니, 건문지식(見聞知識)의 해박함을 가리킨다. 『위서魏書』「이충전李冲傳」에 “器懷淵博 經道明遠”이라 하였다.

90) 중니(仲尼): 공자(孔子)의 자(字).

91) 노답(老聃): 노자를 가리킨다.

92) 자사(子史): 자(子)는 제자백가(諸子百家)를 뜻하고, 사(史)는 역대의 사기(史記)를 말한다.

93) 청화(菁華): 물건이 아름다운 부분. 순수한 곳. 안연지(顔延之)「도장사뢰서陶徵士誄序」에 “至使菁華隱沒 芳流歇絕 不其惜乎”라 하였다.

94) 곤곤(滾滾): [苑][總覽][碑文]에는 衰衰. [全文]에는 洶洶. 衰衰과 洶洶 모두 滾滾의 오자이다. 곤곤(滾滾)이란 평평 솟아나오는 물이 세찬 모양이다. 두보(杜甫), 「등고시登高詩」, “無邊落木蕭蕭下 不盡長江滾滾來”.

사람들이 국사를 일컬어 불법문중(佛法門中)에 최고의 종장(宗匠)이라고 하였다.<sup>95)</sup>

至年甫<sup>96)</sup>壯, 益自勤苦, 早夜矻矻, 務博覽強記. 而無常師, 道之所存, 則從而學之. 自賢首教觀, 及頓漸大小乘經律論章疏, 無不探索. 又餘力外學, 見<sup>97)</sup>聞<sup>98)</sup>淵博, <sup>99)</sup>自<sup>100)</sup>仲<sup>101)</sup>尼<sup>102)</sup>老<sup>103)</sup>聃<sup>104)</sup>之書, 子史集錄, 百家之說, 亦嘗玩其菁華, 而尋其根柢, 故議論縱橫馳騁, 滾滾<sup>106)</sup>無津涯. 雖老師宿德, 皆自以爲不及. 聲名流聞, 時謂法門有宗匠矣.

정미년 7월<sup>107)</sup> 을유에 문종이 교서를 내려 포창하고 우세승통(祐世僧統)이란 승직(僧職)을 하사하였다. 국사는 일찍부터 송나라에 가서 불교를 문학(問學)하려는 뜻을 품고 있던 중,<sup>108)</sup> 진수(晉水)의 정원법사<sup>109)</sup>가 혜행

95) 시위법문유종장의(時謂法門有宗匠矣): 당시 사람들이 대각국사를 일컬어 ‘불법문중(佛法門中)에 최고의 종장(宗匠)’이라고 존경하였다는 말.

96) [碑文]에는 甫와 壯字 사이에 進字가 더 있으나, 필요 없는 듯함.

97) [苑] [總覽]에는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見으로 나타나 있음.

98) [苑] [全文]에는 聞, [總覽]에는 門. 門은 聞의 오자임.

99) [苑]에는 결락, [總覽]에는 源이며 [碑文]에는 博이고, [全文]에는 橫이니, 이는 [碑文]의 博字가 옳음.

100)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自임.

101)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仲임.

102)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尼임.

103)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老임.

104) [苑] [總覽]은 결락이나 [全文] [碑文]에는 聃임.

105) [苑] [總覽]에는 聃과 騁字의 사이에 27字가 탈락됨.

106) [苑] [總覽] [碑文]에는 滾滾. [全文]에는 滂滂는 滾滾의 오자임.

107) 정미칠월(丁未七月): 정미년은 고려 문종 21년(1067).

(慧行)을 겸비(兼備)한 뛰어난 학자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리하여 국사는 박사<sup>110)</sup>에 의탁하여 편지를 보내 예를 갖추었다. 원공(源公)이 편지를 받아 보고 국사가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고는 곧 답장을 써서 초청장을 보내왔다. 이로 말미암아 국사는 가고자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였다.

丁未七月乙酉, 敎書, 褒爲祐世僧統. 師嘗有<sup>111)</sup>志, 如宋問道, 聞<sup>112)</sup>晉水淨源法師, 以慧行爲學者. 師託舶買, 致書以修禮. 源公知師非常人, 卽復書相招. 由是欲往滋甚.

선종(宣宗)이 왕위에 오른지 2년째 되던 해인<sup>113)</sup> 송나라 원풍(元豐) 7년<sup>114)</sup> 정월 궁내에 들어가 입송구법(入宋求法)하고자 출국을 허락하여 달

108) 사상유지여송문도(師嘗有志如宋問道) : 스님은 일찍부터 송나라에 가서 불교를 묻고 배우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

109) 진수정원법사(晉水淨源法師) : 조송[朝宋; 北宋] 때 항주(杭州) 남산(南山) 혜은사(慧恩寺)의 스님. 이름은 정원(淨源). 속성은 진강양씨(晉江楊氏), 스님의 선대(先代)가 진수(晉水)에 살았으므로 학자들이 그를 진수법사(晉水法師)라 칭하기도 한다. 출가하여 비구계를 받은 후, 제방(諸方)으로 다니면서 『화엄경』은 오대산(五臺山)의 승천(承遷)에게, 『화엄합론華嚴合論』은 횡해(橫海)의 명담(明潭)에게서 수학하였다. 다시 남방(南方)으로 돌아와 능엄(楞嚴), 원각(圓覺), 기신(起信)을 장수법사(長水法師) 자선(子璿)으로부터 배웠다. 사방에서 그를 석학(碩學)으로 추존하여 의룡(義龍)이라 칭송하였다. 1086년 11월 세수 78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석씨계고략釋氏稽古略』권4「항주남산혜인사법사杭州南山慧因寺法師」(대정장49, p.877a).

110) 박사(舶賈) : 외국(外國)으로부터 입항(入港)한 상인(商人). 『당서唐書』「종실宗室」「회양왕전淮陽王傳」에 “敬宗侈宮室 舶賈獻池香亭材”라 하였다.

111)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碑文]에는 有임.

112) [苑] [總覽]에는 聞과 甚字 사이에 38字가 탈락됨.

113) 선왕재위제이년(宣王在位第二年) : 고려 선종(宣宗)이 왕위에 오른지 2년째라는 뜻이니, 즉위년 청원으로 헤아려 1084년을 가리킴.

114) 원풍칠년(元豐七年) : 원풍은 송(宋) 신종(神宗)의 연호. 원풍 7년은 고려 선종 1

라고 정성껏 간청하였다. 문종이 군신들을 모아 의논하였으나, 왕자의 신분으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허락을 받지 못한 국사께서는 어전(御前)에서 더불어 군신(群臣)들에게 말하되, “성현(聖賢)들은 신명(身命)을 망각하고 불도(佛道)를 흠모하였으니, 현장법사(玄奘法師)는 서역(西域)에 갔고, 의상조사(義相祖師)는 중국에 들어가 구법(求法)하였거늘 어찌 편안하게만 지내고 스승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출가한 본의가 아닙니다”라면서 고하는 말이 간절하여 말하는 동안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至宣王，在位第二年，是宋元豐七年春正月，入內誠請。上，會群臣議，皆以爲不可。師於上前，與群臣言，<sup>115)</sup> “聖賢，忘軀慕道，如玄奘往西域，義想入中國，苟安安而不務求師。非所以出家本意。”其言懇切，繼之以泣。

문종은 크게 감동하여 마음으로는 허락하였으나, 군신들의 결의는 확고하여 불허방침(不許方針)으로 끝났다. 다음해<sup>116)</sup> 4월 경오일(庚午日) 밤 왕과 태후에게 올리는 편지를 남겨놓고, 제자 수개(壽介)를 거느리고<sup>117)</sup> 미북<sup>118)</sup>으로 정주<sup>119)</sup>에 이르러 마침 상객선(商客船)의 출발함을 만났다. 문종

년(1084).

115) [苑] [總覽]에는 言과 意字 사이에 43字가 탈락됨.

116) 지명년(至明年): 그 다음해에 이르렀다는 뜻이니, 1085년을 말함.

117) 솔제자수개(率弟子壽介): 공식적인 허가를 얻지 못하고 제자인 수개(壽介)를 데리고 임의(任意)로 입송구법(入宋求法)의 길을 떠났다는 뜻. 이 때에 스님을 따라간 제자로는 낙진(樂眞; 원경왕사), 혜선(慧宣), 도린(道隣), 수개, 양변(良辯) 등 많은 제자들이 시종(侍從)하였다.

118) 미북(微服):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 의천이 태자의 신분으로 공식적인 유학이 아니고, 개인적인 평상인으로서 가게 되었으므로 미북이라고 함.

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관료와 제자인 낙진(樂眞), 혜선(慧宣), 도린(道隣) 등을 보내어 수종(隨從)케 하였다.

上感激意許之，而群臣議確，依違而罷。至明年四月庚午，夜留書上王，及太后，率弟子壽介，微服，至貞州，寓商客舩發。<sup>120)</sup>上聞之，驚差遣官僚與弟子，樂眞，慧宣，道隣，從之。

5월 갑오(甲午)에 대송 판교진<sup>121)</sup>에 이르렀다. 이 때 밀주<sup>122)</sup>지사(知事)인 조봉랑<sup>123)</sup> 범악<sup>124)</sup>이 영접하여 여행 중의 노고(路苦)를 위로하고, 철종에 표주(表奏)를 올려<sup>125)</sup> 국사가 송나라에 온 뜻을 구진(具陳)하였다. 황제<sup>126)</sup>가 주객원의외랑<sup>127)</sup>인 소주정<sup>128)</sup>에게 명하여 안내토록 하였다.

119) 정주(貞州) : 경기도 개풍군 대성면 풍덕리(豐德里)의 옛 이름. 옛 정주는 승천부 고지에 있으니, 지금 승천포 고성 북 2리에 있었다.

120) [苑] [總覽]에는 發과 以字 사이에 45자가 탈락됨.

121) 판교진(板橋鎭) : 지명(地名)이니, 하남성(河南省) 개봉부(開封府) 서쪽에 위치.

122) 밀주(密州) : 주명(州名)이니, 산둥성(山東省) 제성현(諸城縣), 본래 교주(膠州)였는데 개황(開皇) 5년(585)에 밀주로 고쳤다.

123) 조봉랑(朝奉郎) : 중국의 관직이름. 간관(諫官)의 하나. 사간(司諫)의 다른 이름. 『문헌통문獻通』 「송원풍기록宋元豐寄祿」에 “左右司諫爲朝奉郎 左右正言爲承議郎”이라 하였다.

124) 범악(范鏐) : 범악(范諤)이라고도 쓴다. 송대의 사람. 하도락서(河圖洛書)를 허견(許堅)에게 전수하였고, 견은 이를 이개(李溉)에게 교수(敎授)하였으며, 개는 진박(陳搏)에게 일러 주었다.

125) 영노즉부표(迎勞卽附表) : 조봉랑(朝奉郎)인 범악이 스님을 영접하여 멀리서 온 로고(勞苦)를 위로하고, 즉시 송의 철종(哲宗)에게 보고하는 표장(表狀)을 올렸다는 말이다.

126) 황제(皇帝) : 송의 철종황제이니, 1085년에서 1100년까지 재위. 송의 제7대 임금. 신종(神宗)의 여섯째 아들. 휘(諱)는 후(煦), 자(字)는 빈육(賓育), 묘호(廟號)는 철종. 본미문 주54)명명철종휘名犯哲宗諱 p.435 참조.

127) 주객원의외랑(主客員外郎) : 이 제도는 전국(戰國) 때 시작하였다. 한대(漢代)에는

五月甲午，至大宋板橋鎮。知密州朝奉郎，范鍔，迎勞卽附表，具陳所以來朝之意。皇帝命主客員外郎，蘇注廷導之。

7월 경사<sup>129)</sup>의 계성사<sup>130)</sup>에 들어갔다. 중서사인<sup>131)</sup> 범백록<sup>132)</sup>이 주관하여 수일 후 부름을 받아 수공전<sup>133)</sup>에서 철종을 배알하고 객례(客禮)로써 기다려 아름다운 의류, 요, 이불<sup>134)</sup> 등 몇 가지의 총품(寵品)을 받았다. 다음날 표장(表狀)을 올려 수업(受業)할 스승을 소개해 줄 것을 건의하였더니, 황제(皇帝)는 특조(特詔)를 내려 주선했다 주도록 하였다. 드디어 화엄종의 유성법사<sup>135)</sup>를 친견하게 되었다.

상서(尙書)에 객조(客曹)를 두어 외국(外國)의 이적(夷狄)들을 관장하였다. 그 후 남주객(南主客)과 북주객(北主客)의 이조(二曹)를 설치하였다가 진(晉)나라 때는 좌우남북(左右南北)의 사주객(四主客)을 두었다. 당송에 이르러서는 주객낭중외랑(主客郎中外郎)을 두어 예부(禮部)에 예속시키고, 주로 이왕(二王; 前職과 現職王)의 뒷바라지와 제번(諸蕃; 諸侯)의 조공(朝貢)과 접대(接待) 등의 일을 맡았다.

128) 소주정(蘇注廷): 전기 미상.

129) 경사(京師): 중국 북송의 태조(960~975)가 도읍한 변경(卞京)이니, 현재의 하남성(河南省) 개봉(開封)이 그 곳인데, 북송은 여기에 도읍하여 9대 166년간을 누렸다.

130) 계성사(啓聖寺): 위치와 사적 미상이다.

131) 중서사인(中書舍人): 위(魏)나라 때 설치한 관직의 이름. 조고(詔誥)와 제칙(制勅)을 맡은 벼슬. 중서성(中書省)에 예속되었다가 처음에는 통사(通事), 통사사인(通事舍人), 또는 사인통사(舍人通事) 등으로도 일컫다가 뒤에 중서사인으로 개칭.

132) 범백록(范百祿): 자는 자공(子功). 시호(諡號)는 문간(文簡). 진사(進士)가 되었고, 재식(才識)이 뛰어나 과거(科擧)에 급제, 철종을 위해 사정(邪正)을 분별하는 20여조목(餘條目)을 올렸다.

133) 수공전(垂拱殿): 철종의 궁중에 있었던 궁전의 이름.

134) 약옥(渥繻): 아름다운 물건. 철종 임금에 주는 선물. 즉 의류, 요, 이불 따위.

135) 유성법사(有誡法師): 중국 송나라 때 스님. 화엄종 스님이며, 대각국사가 만나



秋七月，入京師啓聖寺。以中書舍人，范百祿，爲主，數日<sup>136)</sup>見垂拱殿<sup>137)</sup>待以客禮，寵數渥縟。明日表乞，承師受業，優詔從之。遂見華嚴有誡法師。

이보다 앞서 황제(皇帝)께서 우세승통(祐世僧統)이 송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양가(兩街)에 명하여 미리 고재석학(高才碩學)을 선발하여 사범(師範)에 감당하도록 하였으므로 양가에서 유성법사(有誡法師)를 추천하였다. 승통이 그 곳에 이르러 법사의 하풍<sup>138)</sup>에 구의<sup>139)</sup>하고, 제자의 예를 행하려 했다. 그러나 유성법사는 세 번이나 사양하다가 받아들였다.

先此，皇帝，聞僧統之來，詔兩街預選高才碩學，堪爲師範者，兩街推薦誡師。至是，僧統捫衣下風，欲行弟子之禮。誡師三辭而後受之。

이에 국사께서 법사에게 여쭙되, “모갑(某甲)은 해외(海外)의 비속(鄙俗)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도를 구하였으나, 아직 얻은 바가 없으니, 원하옵건대 법사께서는 자민히 여기시어 저의 미혹한 무명의 구름을 흩어

불교 교리를 문답하였던 스님.

136) [苑] [總覽] [全文]에는 없으나, [碑文]에는 日과 見字 사이에 召字가 더 있음.

137) [苑] [總覽]에는 殿과 高字 사이에 42字가 탈락됨.

138) 하풍(下風): 상대방의 도덕을 지극히 높인다는 뜻으로 자신을 낮추어 그의 덕풍(德風) 밑에 있다는 뜻으로 일컫는 말.

139) 구의(捫衣): 옷 뒷자락을 약간 끌어 올리는 것이니, 옷깃을 여미며, 공손을 표하는 것. 「법경대사자등답비문」 주183) 구의捫衣 본서 p.216; 「법경대사보조혜광답비문」 주79) 구의지례捫衣之禮 [고려편1] p.224; 「정효대사보인답비문」 주44) 구의지례捫衣之禮 [고려편1] p.245; 「통진대사보운답비문」 주109) 구의捫衣 [고려편1] p.358 등 참조.

주소서”라 하였다. 법사가 대답하기를, “고불(古佛)들은 고심(割心)하여 법을 구하되 내지 일문(一文)과 일구(一句)를 구함에 있어서도 전륜성왕(轉輪聖王)의 자리까지 기꺼히 던져 버렸는데, 지금 상인<sup>140)</sup>이 능히 실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한다.”면서 감탄하였다. 법사가 말하되, “일승법(一乘法)에 뜻을 같이하며 함께 만행(萬行)을 닦아 화장세계(華藏世界)에 유희(遊戲)하려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했다. 이 때 승통이 일승의 법문을 청문(請問)하였다.<sup>141)</sup> 법사가 찬탄하여 말하기를, “승통은 말의 뜻이 아름답고 간절하여<sup>142)</sup> 심심미묘(甚深微妙)한 중관<sup>143)</sup>의 법을 잘 질문하니, 법왕<sup>144)</sup>의 진자(眞子)가 아니면 의상(義想)의 후신(後身)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조지(朝旨)를 받들어 주객원외랑(主客員外郎) 양걸<sup>145)</sup>과 함께 경사(京師)를 나와 변수<sup>146)</sup>를 따라 회사<sup>147)</sup>에 이르렀고 침심<sup>148)</sup>하여 여항<sup>149)</sup>에

140) 상인(上人) : 대각국사를 지칭.

141) 승통청문(僧統請問) : 승통은 대각국사 의천을 가리킨다.

142) 완절(婉切) : 아름답고 간절하다는 뜻.

143) 중관(重關) : 겹겹으로 된 문. 즉 진리의 관문을 가리킨다. 현관(玄關)과 같은 말.

144) 법왕(法王) : 부처님을 지칭.

145) 양걸(楊傑) : 『대각국사묘지명』 주27) 양걸楊傑 [고려편3] p.111 참조.

146) 변수(汴水) : 변하(汴河)라고도 부른다. 중국의 황하(黃河)와 회수(淮水)를 연결하는 운하(運河). 수나라 양제(楊帝) 때 개통하였다. 낙양(洛陽)과 개봉(開封)의 중간 지점인 허음(河陰)에서 황하로부터 갈라져 남동쪽으로 향하면서 개봉·상구(商邱) 등을 거쳐 회수와 합류한다.

147) 회사(淮泗) : 회수(淮水)와 사수(泗水)를 지칭함이니, 회수란 강의 이름(川名)인데, 그 근원은 하남성(河南省) 남부의 동백산(桐柏山)에서 동쪽으로 흘러 안휘성(安徽省) 북부를 지나 강소성(江小省)을 나와 대운하(大運河)와 합류한다. 그리고 사수란 사하(泗河)라고도 하니 노변현(魯卞縣) 북산으로부터 흐르기 시작하였다.

148) 침심(浸尋) : 차례차례로 나아가는 것, 점점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는 것. 침심(浸溇), 침염(浸染), 침심(侵尋) 등과 같은 뜻. 『사기』「봉선서封禪書」에 “天子始巡郡

있는 대중상부사<sup>150)</sup>를 찾아가서 정원법사<sup>151)</sup>를 친견하고 전일 유성법사<sup>152)</sup>를 만난 때와 같이 예를 올렸더니 원공(源公)이 엄연(儼然)히 앉았다.

乃進曰, “某<sup>153)</sup>甲, 海外之<sup>154)</sup>鄙人也, 虛襟求道之日, 又未有所得, 願師慈憫, 開我迷雲.” 答, “古佛剗心而爲法, 至有求一文一句, 而捨轉輪王位, 今上人能行之, 可謂難矣.” “願同志一乘, 同修萬行, 以遊華藏海者, 吾之願也.” 於是, 僧統請問云. 師<sup>155)</sup>嘆曰, “辭旨婉切, 善啓重關, 非法王<sup>156)</sup>眞子, 卽義想之後<sup>158)</sup>身.” 復承朝旨, 與主客員外郎楊傑, 出京師, 沿汴達淮泗, 浸尋以至<sup>159)</sup>餘杭, 詣大中祥符寺, 謁源公, 如見誠公之禮, 源公, 儼然而坐.

승통<sup>160)</sup>이 그의 앞에 나아가 여쭙되, “모감이 스님의 도덕을 앙모(仰慕)

縣 浸於泰山矣”라 하였다.

- 149) 여항(餘杭): ①현명(縣名)이니, 절강성(浙江省) 부양현(富陽縣)의 북쪽 지방 ②산명(山名)이니, 여항산(餘杭山). 여기서는 현명을 뜻함.
- 150) 대중상부사(大中祥符寺): 위치와 사적 미상.
- 151) 원공(源公): 진수(晉水)의 정원법사(淨源法師)를 지칭함. 본비문 주109)진수정원법사晉水淨源法師 p.441 참조.
- 152) 성공(誠公): 유성법사(有誠法師)를 말함이니, 본비문 주135)유성법사有誠法師 p.444 참조.
- 153) [全文]에는 某와 甲字 사이에 之가 더 있으니, 이는 삭제되어야 함.
- 154) [苑] [總覽]에는 之와 能字 사이에 46字가 탈락됨.
- 155) [苑] [總覽] [碑文]에는 없으나, [全文]에만 師가 더 있음.
- 156) [苑] [全文] [碑文]에는 王. [總覽]의 當은 王의 오자임.
- 157) [苑] [總覽]에는 王과 公字 사이에 43字가 탈락됨.
- 158) [苑] [總覽]은 결락이고 [全文]에는 後. [碑文]의 前은 後의 오자임.
- 159) [苑] [總覽]은 결락이고 [碑文]의 於와 [全文]의 至이니, 뜻으로는 모두 무방하나, [全文]의 至가 나은 듯함.

하여 하루를 1년으로 여기고 일체 험난함을 꺼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찾아왔사오니,<sup>161)</sup> 원하옵건대 금구(金口)의 옥음<sup>162)</sup>을 개시(開示)하여 마침내 깨닫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라 하였다. 원공(源公)이 이 르기를, “옛날 혜사대사<sup>163)</sup>가 한번 지의스님<sup>164)</sup>을 친견하고 곧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함께 지냈던 구면임을 알았으니,<sup>165)</sup> 지금 승통이 찾아옴도 어찌 숙연(夙緣)이 아니겠는가. 반드시 슬행<sup>166)</sup>하는 예의를 차릴 것 없이 듣고자함을 청문(請問)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정성이 도응(道應)에 투합(投合)한 것이<sup>167)</sup> 마치 개자(芥子)가 바늘 끝에 닿는 것과 같았다.<sup>168)</sup> 문

160) 승통(僧統): 대각국사를 지칭.

161) 백사래알(百舍來謁): 백 가지 천 가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정원(淨源)스님을 찾아와서 친견하였다는 말. 사(舍)는 사(捨)의 뜻.

162) 금구옥음(金口玉音): 금구에서 나온 옥 같은 말씀이란 뜻이니, 부처님의 말씀을 가리킴.

163) 혜사(慧思): 515~577. 천태종 제2조. 혜문(慧文)의 제자, 15세때 출가(出家) 하였으며, 『법화경』만을 전공하고 혜문(慧文)의 가르침을 받아 일심으로 정진하여 드디어 법화삼매를 얻었다.

164) 지의(智顗): 538~597. 천태종 제3조. 개종조(開宗祖)라 하나 실은 1조(祖)가 혜문. 2조는 혜사. 3조가 지의이다.

165) 일견지의즉지영산지구(一見智顗卽知靈山之舊): 혜사스님이 지의를 처음 보는 순간, 곧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만났던 구면(舊面)과 같이 느꼈다는 말. 『불조통기佛祖統紀』「혜사전혜思傳」(대정장49, p.180c27)에 “曰 昔日靈山同聽法華 宿緣所追今復來”라 하였다.

166) 슬행(膝行): 슬보(膝步)와 같은 말. 무릎을 땅에 대고 걷는 것. 심히 두려워함을 형용하는 뜻. 『장자莊子』「재유在宥」에 “廣成子 南首而卧 皇帝順下風 膝行而進”이라 하였다.

167) 성토도응(誠投道應): 스승인 정원(淨源)과 제자인 의천(義天)과의 정성이 서로 투합(投合)하여 도가 상응(相應)하였다는 뜻이니, 감응도교(感應道交)와 같은 말.

168) 여개취침(如芥就鍼): 침개상투(針芥相投)와 같은 말. 바늘을 땅에 꽂아 놓고 천상(天上)에서 개자를 던져 그 바늘끝에 적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이는 중생이 부처님의 출세시(出世時)를 만나기가 매우 어려움에 비유한 것. 「남본열

는 대로 걸림없이 척척 대답하여 그 용용<sup>169)</sup>을 다하였다.

僧統進曰, “某甲, 仰慕道誼, 以日爲歲, 不憚險難,<sup>170)</sup> 百舍來<sup>171)</sup> 謁, 願開金口玉音, 以來覺悟.” 源公曰,<sup>172)</sup> “昔慧思, 一見智顗, 卽知靈山之舊, 今僧統之來, 焉知非夙緣耶, 不須膝行爲禮, 請講以所聞.” 於是, 誠投道應, 如芥就鍼. 有問有答, 盡其春容.

원공(源公)이 지주(知州)인 포종맹<sup>173)</sup>의 초청으로 남산(南山) 혜인원(慧因院)에 입원(入院)하여 주역본(周譯本) 『화엄경華嚴經』<sup>174)</sup>을 개강(開講)

반순타품南本涅槃純陀品」(대정장12, p.372c8)에 “芥子投針鋒 佛出難於是”라 하였다.

- 169) 용용(春容): 종 소리가 울리는 모양. 대종(大鐘)을 치는 것. 학인 물음을 기다려 거침없이 대답하는 것이 마치 종이 침을 기다려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는 듯. 『예기』「학기學記」에 “善待問者如撞鐘 叩之以小者則小鳴 叩之以大者則大鳴 待其從容 然後盡其聲 不善答問者反此 此皆進學之道也”라 하고, 그 『소疏』에 “言鐘之爲體 必待其擊 每一春而爲一容 然後盡其聲 言善答者 亦待其問 然後一答”이라 하였다.
- 170) [苑] [總覽] [碑文]에는 艱이고, [全文]에는 難이니, 험간(險艱)은 고행, 즉 실천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험난(險難)은 험로(險路), 즉 찾아다니는 길이 어렵다는 뜻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양자(兩字) 함께 무방함.
- 171) [苑] [總覽] [全文]에는 來. [碑文]의 求는 來의 오자임.
- 172) [苑] [總覽]에는 曰과 就字 사이에 43字가 탈락되었음.
- 173) 포종맹(蒲宗孟): 송나라 때 신정(新井) 출신. 자는 전정(傳正). 휘는 종맹(宗孟). 황우년간(皇祐年間)에 진사(進士)에 급제하고 벼슬은 상서우승(尚書右丞)에 이르렀다. 성격이 사치하고 급하므로, 소식(蘇軾)이 편지를 보내 자비하여 검소하라고 권유하였다. 『송사宋史』권328 참조.
- 174) 주역경(周譯經): 삼역(三譯) 『화엄경華嚴經』 중 대주(大周) 측천무후(則天武后) 증성원년(證聖元年 695)에 번역한 80권 『화엄경』을 지칭함이니, 이를 『당화엄경唐華嚴經』이라고도 한다. 이 밖에 418년 양주(楊州) 사사공사(謝司空寺)에서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 ≡ Buddhahadra)가 번역한 60권본을 『진화엄경晉華嚴經』이라 하고, 796년 계빈국 삼장 반야다라(般若多羅 ≡ Prajñātara)가 번역한 40권

하게 되었다. 승통이 돈을 희사하여 큰 재(齎)를 베풀었는데 많은 학도(學徒)들이 모여 들었다. 원공이 전에 거주하던 세곳에 각각 현수(賢首)의 교장(敎藏)과 아울러 현수조사(賢首祖師)의 등상을 안치하고, 이를 다시 마련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양길<sup>175)</sup>이 그 뜻을 알고 포종맹지주(蒲宗孟知州)와 모든 관료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경영하였다. 승통도 많은 돈을 희사하고 교장 7,500여권을 안치하였다. 귀국한 후 또 금서(金書) 대경(大經) 삼역본(三譯本) 180권을 보내어 성수(聖壽)를 빌었다.<sup>176)</sup> 해인원이 본래는 선원(禪院)이었으나, 강원(講院)으로 고치고 조세(租稅)를 특면하였으니, 이는 본국(本國) 조정(朝廷)에서 국사를 위해서 경비를 뒷받침하였기 때문이다. 그 때 고려의 선종이 송의 철종에게 상표(上表)하여 국사를 귀국하도록 청하였다. 드디어 철종이 조칙(詔勅)으로 승통을 경사로 오게 하였는데 원공과 함께 오는 선상(船上)에서도 강학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源公，因知州蒲公宗孟之請，入南山慧因院，開講周譯經。僧統，施錢營齋，以延學<sup>177)178)</sup>徒甚衆。源公，於前所居三<sup>179)</sup>處，各置賢首敎藏，竝祖師像，至此，又欲辦焉而未能。楊公，知其意，與知州及諸僚，力營之。僧統，亦捨銀置敎藏七千五百餘

『화엄경』이 있다. 이치관,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p.285 참조.

175) 양공(楊公): 양길(楊傑)을 지칭한다.

176) 우이금서대경삼본귀지(又以金書大經三本歸之): 또 금(金)으로 쓴 『화엄경』(大經) 삼본(三本)을 송으로 보내주었다는 말. 『석씨계고략』권4(대정장49, p.877a)에 따르면 “以金書華嚴三譯本 一百八十卷 自高麗遣使遺師 建大闍安奉之 故俗呼慧因爲高麗寺”라 하였다.

17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碑文]에는學임.

178) [苑] [總覽]에는學과敎字 사이에 50字가 탈락됨.

179) [苑] [總覽]에는 결락이고 [碑文]에는三이고, [全文]에는之이니, 다음 문구인 ‘各置賢首敎藏’이란各字에 의하여三字가 옳다고 봄.

卷. 及<sup>180)</sup>還國, 又以金書大經三本歸之, 以祝聖壽. 慧因, 本禪院, 改爲講院, 特免租稅, 朝廷, 爲僧統故也. 會國王, 上表乞令歸國. 遂詔趣赴京, 請源公同舟, 講學不輟.

원우 원년<sup>181)</sup> 후 2월 13일 입경(入京)하여 황제를 재견(再見)하고 5일 동안 머무른 다음, 조정에서 황제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sup>182)</sup> 수주<sup>183)</sup> 진여사<sup>184)</sup>에 이르러 『능엄경楞嚴經』 소주<sup>185)</sup>인 장수자선선사(長水子璿禪師)의 탑정(塔亭)이 경비(傾圮)한 것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하여 희사금(喜捨金)을 사승(寺僧)에게 주어 보수토록 하였다.<sup>186)</sup> 양공(楊公)이 말하기를, “선공<sup>187)</sup>이 오늘에야 비로소 지음<sup>188)</sup>을 만났다”고 하였다. 오흥<sup>189)</sup>의 장형<sup>190)</sup>이 그

180) [苑] [全文] [碑文]에는 及字가 있으나, [總覽]은 탈락됨.

181) 원우원년(元祐元年): 원우는 송 철종(哲宗)의 연호. 고려 선종 3년(1086).

182) 조사(朝辭): 조정에서 철종황제에게 하직 인사를 하였다는 말.

183) 수주(秀州): 주(州)의 이름. 오대(五代) 때 오월(吳越)에 두었던 주명(州名). 송대에 와서 폐하였는데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가흥현(嘉興縣) 지역.

184) 진여사(眞如寺): 강서성(江西省)의 운거산(雲居山)에 있던 절. 별명(別名)은 비백사(飛白寺), 음창사(音昌寺)라고도 한다. 당의 원화년중(元和年中 806~820)에 건립(建立)하였고, 송의 상부년중(祥符年中 1008~1016)에 진여선원(眞如禪院)이라고 사액(賜額)하였다. 운거도옹(雲居道膺)이 개창한 절.

185) 능엄소주(楞嚴疏主): 장수자선(長水子璿) 선사가 천성(天聖) 8년(1030)에 『능엄경소楞嚴經疏義』 20권을 저술하였기에 능엄경의 소주(疏主)라고 일컫는다.

186) 이금속사승수증(以金屬寺僧修葺): 대각국사가 장수스님의 탑정(塔亭)이 퇴락한 것을 보고 그 절 스님에게 돈을 주어 보수토록 하였다는 말.

187) 선공(璿公): 장수자선스님. 화엄종. 수주 출신. 수주홍민(秀州洪敏)에게 『능엄경』을 배웠고, 낭당혜각(瑯瑯慧覺)을 뵈고 정법안장(正法眼藏)을 깨달았다. 『불조통기佛祖統紀』 권20(대정장49, p.293c);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권18(대정장49, p.663a).

188) 지음(知音): 소리를 잘 알아듣는다는 뜻.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즉 도반(道伴)을 일컫는 말.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를 잘 켰던 백아(伯牙)와 백아의 거문

사실을 기록하되, “승통은 참으로 독후(篤厚)한 호학군자(好學君子)라고 이를 만하다”고 하였다.

以元祐元年，後二月十三日，入京再見，淹五日，朝辭，至秀州眞如寺，見楞嚴疏主，塔亭傾圯，慨然歎之，以金屬寺僧修葺。楊公曰，“璿公，今日始遇知<sup>191)</sup>音。”吳興章衡，記其事云，“僧統，可謂篤厚好學君子矣。”

그 해 4월에 다시 해인원에 갔더니 원공이 도를 전하여 마치고 정좌(正坐)하여 분향하고 이르기를, “원컨대 승통은 귀국하여 광작불사(廣作佛事)하되, 한 등불을 전하므로부터 백천등(百千燈)으로 하여금 상속하여 무궁(無窮)토록 하라”하고, 드디어 경서(經書)와 향로와 불자<sup>192)</sup>를 전해 주므로써 표신(表信)을 삼았으니, 이는 특히 승통뿐만 아니라 원공에게도 도움이 되어 도가 더욱 증진되었다. 원공의 이름이 더욱 높아진 까닭은 승통이 더욱 발양(發揚)한 셈이 된다. 원법사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와 천태신<sup>193)</sup>에 이르러 정광불롱<sup>194)</sup>에 올라가서 지자대사(智者大師)의 영

고 소리를 잘 이해하던 친구 종자기(鍾子期)의 고사에서 나왔다. 『열자烈子』「탕문湯問」에 “伯牙善鼓琴 鍾子期善聽 伯牙鼓琴志在登高山 鍾子期曰 善哉 我我兮若泰山 志在流水 鍾子期曰 善哉 洋洋兮如江河 伯牙所念 鍾子期必得之”라고 하였으니, 즉 이심전심으로 의기가 상투함을 뜻한다.

189) 오흥(吳興): 군(郡)의 이름. 삼국시대 오(吳)의 지명. 현재의 절강성 오흥현(吳興縣).

190) 장형(章衡): 송나라 때 포성(浦城) 출신. 자는 자평(子平). 가우년간(嘉祐年間 1056~1063)에 진사제일(進士第一)에 급제. 관직은 집현학사(集賢學士)와 지영주(知潁州) 등을 역임하였고, 요(遼)에 사신으로 가서 공적을 남겼으며, 저서는 『편년통재編年通載』가 있다. 『송사』권347 참조.

191) [苑] [總覽]에는 知와 千字 사이에 51字가 탈락됨.

192) 노불(爐拂): 향로(香爐)와 불자(拂子)를 뜻함.



정(影幀) 앞에서 직접 동국(東國)에 천태종지(天台宗旨)를 전포(傳布)하려는 발원문을 지어 탑전(塔前)에서 서원(誓願)을 세웠다.<sup>195)</sup> 이 사실을 양걸이 기록하고<sup>196)</sup> 중립(中立)스님이 기적비(紀蹟碑)를 세웠다.<sup>197)</sup>

夏四月，復入慧因院，源公，傳道訖，正坐焚香云，“願僧統歸，廣作佛事，傳一燈，使百千燈，相續而無窮。”遂授經書爐拂，以爲信，非特僧統資源公，而道益進。源公名<sup>198)</sup>所以益高，以僧統揚之也。禮<sup>199)200)</sup>辭源公，行至天台，登定光佛隴，觀智者

- 
- 193) 천태(天台): 산(山)이름. 중국 절강성 태주(台州) 천태현(天台縣)에 위치. 팔창(括蒼), 안탕(雁蕩), 사명(四明), 금화(金華) 등 제산(諸山)과 연결(連接)해 있다. 한나라 때 유신(劉晨)과 원조(阮肇)가 이 산에서 약을 캐다가 두 여자를 만나 함께 반년(半年)을 함께 지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 이미 십세(十世)를 경과하였다는 전설이 얹힌 영산(靈山). 수나라 때, 지자대사(智者大師) 지의(智顗 538~597)가 이 산에서 법화사상에 의하여 일종(一宗)을 세웠으니, 곧 천태종(天台宗)이다.
- 194) 정광불룡(定光佛隴): 정광초수(定光招手)라고도 하니, 천태산 불룡에 한 선사가 있어 그 이름이 정광이었다. 천태 지자대사가 일찍이 몽중(夢中)에 정광이 손을 들어 자기를 부르는 꿈을 꾸었다. 불(佛)이란 선종(禪宗)에서 오도(悟道)한 사람을 부르는 통칭이다. 일설에는 정광불(錠光佛)로 보는 학자도 있다. 『조정사원祖庭事苑』권5에 “智者顗禪師 年十五時 禮佛像 悅然如夢 見大山臨海際 峰頂有僧 招手接入伽藍 汝當居此 汝當修終此 天台佛隴 有定光禪師 先居此峰 謂弟子曰 不久 當有善知識 領徒至此 俄爾智者至 光曰 還憶曩昔舉手招引時否”라 하였다. 『속장경續藏經』제113권66장 p.1032 좌면하(左面下) 참조.
- 195) 서전교우동토(誓傳教于東土): 대각국사가 정광불룡의 지의의 탑전에서 천태교리(天台教理)를 동토에 전하여 홍포(弘布)하겠다고 서원을 세웠다는 말이다.
- 196) 양공지지(楊公志之): 대각국사가 정광불룡에서 몽중에 수기(授記)를 받은 사실을 기록하였다는 뜻. 지(志)는 지(誌)와 통한다.
- 197) 사문중립입석(沙門中立立石): 사문중에 중립(中立)이라는 스님이 양공이 기록한 사실을 돌에 새겨 기념비(紀念碑)를 세웠다는 뜻이다.
- 198) [苑] [總覽] [碑文]에는 없으나, [全文]에만 之字가 더 있음.
- 199)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碑文]에는 禮字가 있음.

塔,<sup>201)</sup> 親筆願文, 禮於塔前. 誓傳教于東土, 楊公志之, 沙門中立, 立石.

밀주(密州)에서 출발하여 개봉을 거쳐 오월(吳越)로 왕래하는 동안에 무려 14개월이 걸렸다. 이르는 곳마다 명산(名山)과 승경(勝境), 그리고 모든 성적(聖跡)이 있는 곳에는 참배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친견하여 법요(法要)를 청문(請問)한 고승(高僧)이 50여명이나 되었다. 그 중에서 정원법사(淨源法師)와 같이 있었던 시간은 59일이나 되었다. [결락] 혜림<sup>202)</sup>과 선연<sup>203)</sup>이고, 계율(戒律)에 대하여 자문한 스님은 택기(擇基)와 원조<sup>204)</sup> 스님이며, 범학(梵學)은 인도로부터 중국에 와서 흥국사(興國寺)에 있던 서천삼장(西天三藏)인 천길상<sup>205)</sup>과 소덕<sup>206)</sup>이었으니, 이들은 모두 탁연(卓然)하여 존경할만한 스님들이므로 그들은 모두 나름대로 장점을 길러 일가를 이룩한 선(禪)과 강(講)의 종사로써<sup>207)</sup> 각기 대중을 거느리

200) [苑] [總覽]에는 禮와 凡字 사이에 50字가 탈락됨.

201) [苑] [總覽] [全文]에는 없으나, [碑文]에는 者와 親字 사이에 塔字가 더 있음.

202) 혜림(慧林): 전기 미상.

203) 선연(善淵): 전기 미상.

204) 원조(元照): ? ~1116. 항주(杭州) 영지사(靈芝寺) 스님. 휘는 원조. 자는 담연(湛然), 시호는 대지(大智). 동장(東藏)의 혜감선사(慧鑑禪師)에게 계율(戒律)을 배웠고, 그 후 신오선사(神悟禪師)로부터 천태교관(天台教觀)을 들었으며, 광자사 혜재(慧才)로부터 보살계와 비구계를 받았다. 남산(南山) 율종(律宗)을 깊이 연구하면서 생전(生前)에는 율범(律範)을 넓히고, 사후(死後)에는 극락세계에 왕생하려고 염불업(念佛業)을 닦았다. 1116년 9월 1일 세수 69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불조통기』권26; 『석씨계고략』권3 참조.

205) 천길상(天吉祥): 인도에서 중국에 온 삼장법사(三藏法師)이나 전기 미상. 본비문 주367)시라박자 尸羅磧底 p.477 참조.

206) 소덕(紹德): 전기 미상.

207) 선강종사(禪講宗師): 선지(禪旨)와 강설(講說)에 뛰어난 그 당시 송나라의 중

고 있었다. [결락]

始自密至<sup>208)</sup>京, 以及吳越, 往來, 凡十有四月. 所至名山勝境, 諸有聖跡, 無不瞻禮. 所遇高僧, 五十餘人, 亦皆咨問法要. 若源公, 雅所望, 以爲五<sup>209)210)</sup>十. [五十字缺], 慧林, 善淵, 戒律則擇基元照, 梵學則天吉祥, 紹德, 此皆卓然可尚故, 資其所長者, 已及將歸, 禪講宗師, 各率徒衆, [四八字缺].

승통은 삼장과 모든 학문을 두루 검비하였으니, 참으로 이는 중법대보살(重法大菩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승통은 시학(始學)이 아니었으니, 자기의 소견(所見)과 모든 스님들과의 서로 시론(試論)해 보려고 송나라에 온 것이라고 모든 스님들이 입을 모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승통에게 준 시<sup>211)</sup>에 “우세승통(祐世僧統)과 같은 스님이 또 누구이겠는가”라고 하였다.<sup>212)</sup> [결락]

學之悉備, 此眞重法大菩薩者也. 然非是始學, 欲以己所得, 與諸師相試故來耳. 故其所贈詩, ‘有孰若祐世師.’ [五十九字缺].

삼한<sup>213)</sup>의 왕자<sup>214)</sup>가 서쪽으로 와서 법을 구하니 “마치 습착치<sup>215)</sup>와 미천

---

사(宗師)들.

208) [苑] [總覽]은 결락, [碑文]에는 至. [全文]의 室은 至의 오자임.

209) [苑] [總覽]은 결락, [全文] [碑文]에는 五로 나타나 있음.

210) [苑] [總覽]에는 五와 慧字 사이에 50字가 탈락됨.

211) 기소증시(其所贈詩): 대각국사가 송으로부터 귀국하려할 때, 그곳 대덕(大德)스님들이 의천에게 준 송별시(送別詩)에란 뜻.

212) 유약우세사(有若祐世師): ‘그 누가 복국우세승통(福國祐世僧統: 義天)만한 스님이 있겠느냐’라는 말.

213) 삼한(三韓): 진한, 변한, 마한. 즉 해동(海東)을 뜻하나, 여기서는 고려를 지칭.

석도안(彌天釋道安)이 서로 대적함과 같아서 당시의 현인들로부터 추존(推尊)하는 바가 되었다”라고 한 것이 이와 같은 유이다. 5월 20일 본국의 조하사<sup>216)</sup>가 돌아오는 편을 따라 배를 타고 29일 [결락] 임금을 비롯하여 좌우신하가<sup>217)</sup>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송의 황제<sup>218)</sup>가 기증한 금사(金絲)로 짠 비단과 국왕태후<sup>219)</sup>가 기송(寄送)한 재보(財寶)가 수만량에 달한 거금이었다.<sup>220)</sup> 이 모두를 사원도량(寺院道場)과 법문을 청해 들었던 여러

214) 왕자(王子) : 대각국사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뜻.

215) 착치미천(鑿齒彌天) : 습착치(習鑿齒)와 미천(彌天)이니, 진(晉)나라 때 양양(襄陽)출신, 자는 언위(彦威). 박학다문하여 당시 뛰어난 문장가(文章家)였다. 자만(自慢)에 가득찬 습착치가 도안(道安)스님의 고명(高名)을 듣고 편지를 보내 친교하고자 하였다. 그 후 도안이 육혼산(陸渾山)으로부터 단계사(檀溪寺)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첫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이 때 습착치는 자칭 “나는 사해(四海)의 습착치라 하오(사해에 자기의 이름이 가득하다는 뜻)”라 하자 초면(初面)에 무례하다고 느낀 도안은 서슴치 않고 “나는 미천(彌天) 석도안(釋道安)이다(나는 하늘에까지 이름이 꽉 찼다는 뜻)”라고 한 수를 더떠서 응수했다. 이 때부터 서로 친해진 두 사람이 어느 날 함께 길을 가게 되었는데, 도안은 앞서고 습착치는 뒤를 따르게 되었다. 습착치가 조롱하는 듯으로 “箕而簸之하니 糟糠이先去로다”하니, 도안이 즉시 응대하기를 “淘而汰之하니 沙石이 後來”라고 하여 그를 굴복시킨데서 온 말. 『고승전』권5「석도안전釋道安傳」(대정장50, p.352c) ; 「진감국사대공영탑비문」 주88)미천彌天 본서 p.95 ; 「원랑선사대보선광탑비문」 주57)미천彌天 [신라편] p.222 등 참조.

216) 조하(朝賀) : ① 조정에 제신(諸臣)들이 모여 왕에게 인사하는 것. ② 중국에 가서 공물(貢物)을 바치고 황제에게 하례(賀禮)하는 것. 옛날에는 10월 초하룻 날에 하다가 후대에 와서는 정월 초하루에 세배, 즉 하례로 행하였다. 여기서는 후자(後者)에 해당함.

217) 상급좌우(上及左右) : 고려의 선종(宣宗)과 각급 대신들.

218) 황제(皇帝) : 송의 철종황제.

219) 국왕태후(國王太后) : 송 철종의 조모(祖母)인 태황태후(太皇太后) 고씨(高氏)를 지칭함. 태황태후는 황제의 조모(祖母)를 뜻함.

220) 거만계(巨萬計) : 수만량이란 뜻. 또는 거금(巨金)이라는 말.

스님들에게 베풀어 주었다. 무소(無少) [결락]

三韓王子西求法, “鑿齒彌天兩勅<sup>221)</sup>敵, 其爲時賢<sup>222)</sup>推尊.” 類皆然也. 夏五月二十日, 遂本國朝賀回使, 放洋二十九日, [四十八字缺], 上及左右, 無不感動. 皇帝所贈金繒<sup>223)</sup>, 國王太后, 寄送財寶, 以巨萬計. 舉施諸道場, 及所聞法諸師, 無少[五十一字缺].

국사는 탄생한 이후 일찍부터 그 기본이 이미 노성(老成)한 사람과 같았다. 여러 해를 지나면서 국가가 항상 큰 스님을 구하였으나, 그러한 인물을 얻지 못하였다가 이 때에 이르러 교리를 선양하여 묘리(妙理)를 터득하고 신비(神秘)를 궁진(窮盡)하여 학인이 바다처럼 모여들었으니 아직까지 이와 같이 왕성(旺盛)한 회상(會上)이 없었다. 임금과 군신들이 [결락] 태불강고(怠不講故)로 관저(官褚)와 사저<sup>224)</sup>를 모두 털어서 재차에 걸쳐 중국, 거란(契丹), 일본 등지로부터 경서를 구입하였다.

師誕生, 肇基旣成. 多歷年, 國家每議其主, 而難其人, 至是宣演教理, 盡妙窮神, 學者海會, 得未曾有. 上及群臣, [四十八字缺], 怠不講故, 官勝<sup>225)</sup>私褚<sup>226)</sup>, 亡散幾盡, 遂重購求書於<sup>227)</sup>中

221) [苑] [總覽] [碑文]은 勅, [全文]은 勅. 勅이 옳음.

222) [苑] [總覽] [碑文]에는 없으나, [全文]에만 所字가 더 있음.

223) [苑] [總覽] [碑文]에는 繒, [全文]의 繪는 繒의 오자임.

224) 관등사저(官勝私褚): 등(勝)은 등(勝)의 오자이고, 저(褚)는 저(褚)의 오자이다. 관등(官勝)은 관청의 주머니이니, 국가의 공금(公金)을 말하고, 사저는 개인의 재산을 말한다. 즉, 나라돈과 개인주머니를 모두 털어서 중국, 거란, 일본으로부터 재차(再次) 장경을 구입하였다는 말.

225) [苑] [總覽]에는 勝, [碑文]의 勝과 [全文]의 勝은 勝의 오자임.

226) [苑] [總覽]에는 褚, [全文] [碑文]의 褚는 褚의 오자임.

國, 以及契丹日本.

또 신미년<sup>228)</sup> 봄 남방으로 다니면서 수색(搜索)하여 얻은 책이 무려 4,000권에 달하였으나, 대부분 먼지로 얼룩져서 글자가 희미하거나, 종이 먹어<sup>229)</sup> 백공천창(百孔千瘡)일 뿐 아니라<sup>230)</sup> 책장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고 단괴되어<sup>231)</sup> 어그러진 것들이다. 이를 모두 수합하여 궤중(軌中)에 담아가지고<sup>232)</sup> 개성으로 돌아와서 홍왕사<sup>233)</sup>에 교장사<sup>234)</sup>를 설치하고 탁월한 학자들(名流)을 소집하여 유결(謬缺)부분을 교정 보완하고, 그를 모두 연찰<sup>235)</sup>하여 몇 년 만에 문적(文籍)이 크게 갖추어졌으므로 학자들이 기꺼이 의지하였다.

又於辛未春, 南遊搜索, 所得書, 無慮四千卷, 皆塵<sup>236)237)</sup> 昏蟬<sup>238)</sup>

227) [苑] [總覽] [全文]에는 於이나, [碑文]에는 于로 나타나 있으나, 뜻으로는 무방함.

228) 신미(辛未): 고려 선종 8년(1091).

229) 담단(蟬斷): 담단이란 책이 종이 먹어 끊어지거나 헤어진 것을 일컫음.

230) 편간(編簡): 서적, 책, 도서 등의 뜻. 한유(韓愈), 「상병부이시랑서上兵部李侍郎書」에 “自唐虞已來 編簡新存”이라 하였다.

231) 괴천(壞舛): 책이 파괴되어 책장이 앞 뒤로 뒤 바뀐 것. 『당서』「육귀몽전陸龜蒙傳」에 “借人書 篇帙壞舛”이라 하였다.

232) 포괘(包匭): 보자기에 싸서 상자 속에 넣는 것. 포장한 상자. 포는 끈으로 묶거나 보자기에 싸는 것. 궤는 갑(匣)이니, 엮어매어 포장하는 것. 『서경書經』「우공禹貢」에 “包匭菁茅 厥篚玄纁璣組”라 하였다.

233) 홍왕사(興王寺): 경기도 개성시 덕적산 남쪽에 있던 절. 문종 10년(1056)에 창건하여 12년 동안에 걸쳐 무려 2천 8백간이나 되는 대가람을 이루하였다.

234) 교장사(敎藏司): 장경도감(藏經都監). 또는 대장도감(大藏都監)과 같은 직책이니, 장경을 판각(板刻)하여 간행함을 맡은 부서.

235) 연찰(鉛槧): 문자(文字)를 도말(塗抹, 먹)하는데 사용하는 분말(粉抹)과 문자를 쓰는 판(板). 전하여 문필(文筆)을 말함. 강총(江總), 「황태자태학강비皇太子太學講碑」, “靡不飾以鉛槧 彫以細素 此文教之脩也”.

236)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碑文]에 모두 塵임.

237) [苑] [總覽]에는 塵과 忻字 사이에 46자가 탈락되었음.

斷，編簡壞<sup>239)</sup>舛。俱收竝<sup>240)</sup>拾，包匭以歸，請置教藏司於興王寺，召名流，校<sup>241)</sup>定謬缺，使上之鉛槧，不幾稔閒，文籍大備，學者忻賴。

갑술년<sup>242)</sup> 2월 초에 홍원사<sup>243)</sup>로 옮겼으나, 그의 교학진작은 옛과 같았다. 홍왕사에 주석하던 초기에 만형인 순종<sup>244)</sup>이 병세가 위독하여지므로 국사를 불러 이르기를, “과인이 일찍부터 대가람을 창건하여 사액을 홍원사로 하기를 발원하였으나, 지금 나의 병세가 위독하여 이를 성취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니, 만약 내가 죽고 차자인 운(運: 宣宗)이 왕위를 계승하거든 나의 소원을 잊지 말고 승통도 동심협력(同心協力)하여 이 불사를 회향(回向)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순종으로부터 당부를 받은 국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감히 심력(心力)을 다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였다. 그 후 홍원사가 낙성(落成)됨에 국사를 주지로 임명하였다.

甲戌春二月初，入洪圓寺，其教學如故。居興王初，順王寢病，召師言，“寡人，嘗願作大伽藍，額號洪圓，今病篤，<sup>245)246)</sup>想<sup>247)</sup>

238) [苑] [總覽]에는 결락, [碑文]에는 蟬, [全文]의 蟬은 蟬의 오자임.

239) [苑] [總覽]에는 결락, [碑文]에는 壞, [全文]의 壞은 壞의 오자임.

240) [苑] [總覽]에는 결락, [碑文]에는 益이고, [全文]에는 竝이니, 뜻으로는 서로 무방함.

241) [苑] [總覽]에는 결락, [全文]에는 校, [碑文]의 刊는 校의 오자임.

242) 갑술(甲戌): 고려 제13대 선종 11년(1094).

243) 홍원사(洪圓寺): 경기도 개성에 있던 절. 문종 2년(1048)에 창건.

244) 순왕(順王): 고려 제12대 순종이니, 문종의 장자이며 의천의 친형.

245) [苑] [全文] [碑文]에는 篤이고, [總覽]에는 결락 표시로 나타나 있음.

246) [苑] [總覽]에는 篤과 海字 사이에 45字가 탈락됨.

不自濟，若嗣君不相忘，師其同心，以終吾願。”師涕泣曰，“臣，敢盡心力，死生不易。”至於旣成，乃命住持焉。

40세 때인 1094년 5월 복잡한 개경(開京)을 벗어나 해인사로 퇴거하여 계산(溪山)과 더불어 자적하였다. 호연한 기백으로 지내면서 여기서 이 세상을 마치려는 ‘중언지지(終焉之志)’를 가졌다. 조카인 헌종<sup>248)</sup>이 두 차례에 걸쳐 개성으로 되돌아 오도록 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夏五月，退居海印寺，溪山自適。浩然有終焉之志。獻王再徵，不能致。

을해년 10월 8일 셋째 형인 숙종(肅宗)이 즉위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친서를 보내 개경으로 돌아오도록 하였으나 굳게 사양하였다. 그러나 또 교서를 보내 이르기를, “스님께서 왕도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불곡<sup>249)</sup>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간절합니다. 오직 고산(高山)의 경행(景行)과 오매(寤寐)의 증상(增想)일 뿐 아니라 척령<sup>250)</sup> 재원<sup>251)</sup>과 같이 의리를 존중하

247) [苑] [總覽]에는 결락, [碑文]에는 殆이고, [全文]에는 想이니, 뜻으로는 모두 무방함.

248) 헌왕(獻王): 고려 제14대 헌종이니, 선종의 원자(元子).

249) 불곡(不穀): 일종의 자칭 대명사. 스스로를 겸손하게 말하는 것, 불선(不善)의 뜻. 곡은 선(善)의 뜻. ①제후(諸侯)의 자칭(自稱). 『좌전』「희공(僖公) 4」에 “齊侯曰 豈不穀是爲”라 하고, 그 「주注」에 “孤寡不穀諸侯謙稱也”라 하였으며, 『노자』39장에는 “貴以賤爲本 高必以下爲基 是以 侯王自謂孤寡不穀”이라 하였다. ②왕이 스스로 낮추어 일컫는 말. 불곡은 불록(不祿)의 뜻.

250) 척령(鵲鴝): [全文]의 겹합(鵲鴝)은 척령(鵲鴝)의 오자이다. 척령이란 할미새이니, 모양은 제비와 비슷하고 회색 빛을 띠고 있는데, 복부(腹部)는 희고 목 부분에는 검은 반점이 있는 작은 새. 척령(脊令), 서령(鵲鴝), 서거(鵲鴝) 등으로도 적는다. 이 새는 날아가면서 우는 소리가 서로 상응(相應)하여 친압(親押)하므로



는 것이지 다른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과인이 직접 가서 뵙지는 못하고 여러 번 성청(誠請)하여 고적(高跡)에 불의<sup>252)</sup> 하였으나 일찍부터 과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옛 성인들은 비이비혜<sup>253)</sup> 하고 시속(時俗)과 더불어 권서<sup>254)</sup>가 무애(無礙)하였으니, 바라건대 한 번 와서 나의 뜻에 부합(副合)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었다. 국사는 이 교서를 보고 번연히 이르기를, “정중한 예를 갖추어 후사(厚辭)함에는 그 의리를 거역할 수 없다”하고, 곧 바로 개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흥왕사(興王寺)에 주석하면서 교학진흥(敎學振興)은 여전히 계속하였다.

乙亥冬十月, 八日, 肅祖卽位, 數遣近臣, 齋書迎之, 固<sup>255)</sup>辭. 又敎曰, “不穀之望, 師可謂切矣. 非高山景行, 寤寐增想, 而鵲鶴在原, 義重匪他. 雖不能往, 屢以誠請, 拂衣高跡, 曾不我顧. 古之達者, 非夷非惠, 與時卷舒, 冀或一來, 副我意焉.” 師翻然曰, “備禮厚辭, 義不可拒.” 乃赴都, 復居興王寺, 敎學<sup>256)257)</sup>如初.

형제간의 우애를 비유한다.

- 251) 척령재원(鵲鶴在原) : 척령재원(脊令在原)이라고도 함. 형제가 서로 위급함을 구제하여 주는 것에 비유한 말. 『시경詩經』, “脊令 邕鳥渠也 飛則鳴 行則搖 不能自舍耳 言兄弟之相救於急難”이라 하고, 그 전(箋)에 “邕鳥渠水鳥 而今在原 朱其常處則飛則鳴 求其類 天性也 猶兄弟之於急難”라 하였다.
- 252) 불의(拂衣) : ①옷 소매를 떨치는 것. ②어떤 결심을 굳히고 태연히 일어나는 모양. 또는 은둔자를 찾아가 의지하는 것.
- 253) 비이비혜(非夷非惠) : 백이(伯夷)와 같이 결벽(潔癖)함도 없으며, 유하혜(柳下惠)와 같은 관용(寬容)도 없고 중용(中庸)의 도(道)를 지키는 것. 법언(法言), 『연건淵鶩』에 “不夷不惠 司否之間也”라 하였고, 『맹자孟子』「공손추公孫丑」'상'에 “孟子曰 伯夷隘 柳下惠不恭 隘與不恭 君子不由也”라 하였다.
- 254) 권서(卷舒) : 말았다 폈다하는 것. 굴신(屈伸)과 같은 뜻. 즉 재덕(才德)을 감추었다 나타냈다하는 것이니, 자유자재(自由自在)하다는 말. 강엄(江淹), 『잡체雜體』「사복사훈유현시謝僕射混遊賢詩」에 “卷舒雖萬緒 動復歸有靜”이라 하였다.
- 255) [苑] [總覽]에는 固와 不字 사이에 44字가 탈락됨.

정축년 5월<sup>258)</sup> 국청사<sup>259)</sup> 주지에 취임하여 최초로 천태교학(天台敎學)을 강설하였으나, 이 종파(宗派)가 과거에 이미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지만 중간에 폐멸(廢滅)되었다. 그리하여 국사께서 스스로 전당<sup>260)</sup>에 가서 도를 문학하고 천태불롱(天台佛隴)에서 천태종지를 전래하여 중흥하기로 서원을 세운 이후로는 하루도 이 맹서를 마음에 잊은 적이 없다.<sup>261)</sup> 인예태후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기꺼워하여 이 절을 경영하기 시작하였고, 숙종이 즉위하여 이 창건 불사(佛事)를 계속하여 낙성하였다.<sup>262)</sup> 국사는 이 때에 천태교문(天台敎文)에 의하여 교리를 나타내며, 그 교리를 연구하여 모두 깨닫게 하였다. 그러므로 삼지(三止)와 삼관(三觀)이 원명(圓明)하고 언어와 묵언(默言)이 자재하여 경서만 믿고 고수하려는 집유(執有)의 생각을 발진(拔盡)하고 악견(惡見)으로 공(空)을 취하는 집착을 파(破)하는 중도(中道)를 제시하였다.<sup>263)</sup> 그리하여 일시에 학자가 국사의 성애(聖涯)를 첨앙하여 옛 것을 버리고 스스로 천태종(天台宗)으로 찾아오는 스님이

256)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碑文]에는學임.

257) [苑] [總覽]에는學과一字 사이에 46字가 탈락됨.

258) 정축하오월(丁丑夏五月): 고려 숙종 2년(1097).

259) 국청사(國淸寺): 경기도 개풍군 중서면 여릉리 국청동에 있던 절. 선종 6년(1089)에 왕태후(王太后)가 창건하였다.

260) 전당(錢塘): 전당(錢唐)으로도 적음. 현(縣)의 이름. 진(秦)나라 때 두었는데, 당나라 때 이르러 국호(國號)를 피하기 위해 토(土)를 첨가하여 당(塘)으로 개칭하였다. 지금의 절강성 항현(杭縣) 지역.

261) 사유이진기지(思有以振起之): 대각국사가 지자탑(智者塔) 앞에서 해동(海東)에 천태교를 다시 떨침이 있기를 서원[思]하였다는 뜻.

262) 숙조계지(肅祖繼之): 숙조(肅祖)가 공사(工事)를 계속하였다는 말. 숙조는 고려 제15대 숙종(1095~1105 재위).

263) 파악취공지집(破惡取空之執): 악견(惡見, 邪見)으로 공을 취한 국집을 파한다는 뜻이니, 단견(斷見)을 여의게 하는 것을 말함.

1,000명이나 되었다.<sup>264)</sup> 왕성한 지라! 세상에서 천태종을 논하는 자들이 국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백세(百世)에 불천(不遷)하는 종지(宗旨)라 하였으니 어찌 신행(信行)하지 않겠는가”라 하였다.

丁丑夏五月, 住持國清寺, 初講天台教, 是教, 舊已東漸, 而中廢. 師自問道於錢塘, 立盟於佛隴, 思有以振起之, 未曾一日忘於心.<sup>265)</sup> 仁睿太后, 聞而悅之, 經始此寺, 肅祖繼之, 以畢厥功. 師於此之時, 依文而顯理, 究理而盡心. 止觀圖<sup>266)</sup>明, 語默自在, 拔盡信書之守, 破惡取空之執, 一時學者, 瞻望聖涯, 捨舊而自來, 幾一千人<sup>267)</sup>. 盛矣哉, 世之議台宗者謂<sup>268)</sup>師, ‘百世不遷之宗, 渠不信哉.’

무인 4월<sup>269)</sup> 경인(庚寅)에 숙종 임금이 다섯째<sup>270)</sup> 왕자에게 명하여<sup>271)</sup> 국사를 시봉(侍奉)토록 하고 손수 머리를 깎아 주었으니, 지금의 도승통인 정엄(澄嚴)이 바로 이 스님이다. 신사년 2월<sup>272)</sup>에 숙종 임금이 흥원사<sup>273)</sup>에

264) 사구이자래(捨舊而自來): 옛 것을 버리고 스스로 새것으로 찾아 온다는 말이다. 이전에 의지(依支)하였던 화엄종을 버리고, 새로운 종지(宗旨)인 천태종(天台宗)으로 돌아 온다는 뜻.

265) [苑]은 결락, [總覽] [碑文]에는 心. [全文]의 悟는 心の 오자임.

266) [苑] [總覽]에는 결락, [碑文]에는 圓. [全文]의 圓은 圓의 오자임.

267) [苑] [總覽]에는 결락, [碑文]에는 人. [全文]의 之는 人の 오자임.

268) [苑] [總覽]에는 결락, [碑文]에는 謂이고, [全文]에는 爲이니, 이는 [全文]의 爲가 오자임.

269) 무인하사월(戊寅夏四月): 고려 숙종 3년(1098).

270) 제5자(第五子): 숙종의 다섯째 아들. 이름은 정엄(澄嚴). 8살 때인 1098년에 삼촌인 대각국사를 은사로 하여 출가하였다. 뒤에 승통이 되었고, 입적한 후 원명국사(圓明國師)란 시호를 추증하였다. 본비문 주35) 정엄澄嚴 p.432 참조.

271) 상명(上命): 상은 숙종 임금을 지칭.

구조당(九祖堂)을 낙성하므로써 국사를 청하여 중수(重修)하고 영정(影幀)을 봉안하였는데, 전대로부터 화엄종(華嚴宗)의 조보(祖譜)는 여러 갈래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제 여기서는 마명,<sup>274)</sup> → 용수,<sup>275)</sup> → 천친,<sup>276)</sup> → 불타,<sup>277)</sup> → 광통,<sup>278)</sup> → 제심,<sup>279)</sup> → 운화,<sup>280)</sup> → 현수,<sup>281)</sup> → 청량<sup>282)</sup> 등으로 구조(九祖)를 삼았으니, 이것은 국사가 배정(配定)한 바이다.

272) 신사춘이월(辛巳春二月): 고려 숙종 5년(1101) 2월.

273) 홍원사(洪圓寺): 경기도 개성에 있던 절. 문종 2년(1048)에 시작되었으나, 순종의 유촉에 의하여 대각국사가 주선하여 낙성을 보게 하고, 왕명에 의하여 주지(住持)가 되었다.

274) 마명(馬鳴): ㉔ Āśvaghosa, 1~2세기 마명보살을 지칭.

275) 용수(龍樹): ㉔ Nāgārjuna, 2~3세기 용수보살을 가리킨.

276) 천친(天親): ㉔ Vasubandhu, 4세기 세친(世親)이라고도 하니, 무착보살의 속제(俗弟). 천친보살을 지칭.

277) 불타(佛陀): ㉔ Budhabhadara. 359~429.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 각현(覺賢)이라 번역. 『양고승전』권2(대정장50, p.334b).

278) 광통(光統): 북제(北齊)때 업성(鄴城) 대각사(大覺寺)의 혜광율사(慧光律師), 지론(地論)의 대가(大家)이다. 업성(鄴城)에 들어가 국통(國統)의 자리에 추대되었으므로 광통율사(光統律師)라고도 한다. 『당고승전』권21(대정장50, p.607b).

279) 제심(帝心): 두순(杜順: 557~640). 중국 화엄종의 초조(初祖). 속성은 두씨(杜氏). 이름은 법순(法順). 당나라 태종이 지성으로 귀의하여(640) 제심존자(帝心尊者)라는 호를 주었다. 정관(貞觀) 14년 11월 15일 입적하였다. 『불조통기』권29「법사두순전法師杜順傳」(대정장49, p.292c).

280) 운화(雲華): 600~668. 중국 화엄종의 제2조. 속성은 조씨(趙氏). 이름은 지엄(智嚴). 호는 운화. 천수(天水) 출신. 두순의 제자.

281) 현수(賢首): 643~712. 중국 화엄종의 제3조. 그의 조상은 강거국(康居國) 사람. 이름은 법장(法藏). 자는 현수(賢首). 실차난타, 의정(義淨), 복예(復禮) 등과 함께 신화엄경(新華嚴經) 등을 번역하다. 『송고승전』권5「석법장전釋法藏傳」(대정장50, p.732a).

282) 청량(淸涼): 738~839. 중국 화엄종의 제4조. 자는 대휴(大休). 명은 정관(澄觀). 호는 청량. 속성은 하후씨(夏侯氏). 키가 9자 4치, 9조(朝)에 걸쳐 7제(帝)의 국사(國師)가 되었다. 『송고승전』권5「석정관전釋澄觀傳」(대정장50, p.737a).

戊寅夏四月庚寅，上命第五子，侍之，師手落其髮，今都僧統是也。辛巳春二月，<sup>283)</sup>上，以洪圖寺九祖堂成，請師重<sup>284)</sup>修而落之，前世爲祖譜不一，今以馬鳴，龍樹，天親，佛陀，光統，帝心，雲華，賢首，清涼，爲九祖，師所定也。

8월에 이르러 병을 만나 궤상(几床)에 편안히 기대고 앉아 관심(觀心)을 하고 때로는 지경(持經)도 하였으니, 피로하다고 하여 스스로를 멈추어 쉬지 않았다. 문인들이 불사를 하겠다고 요청하면 말하되, “부처님을 섬긴지 이미 오래 되었다”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중사<sup>285)</sup>를 시켜 법체(法體)의 안후(安候)를 문안하고<sup>286)</sup> 명의(名醫)와 처방(處方)을 보내어 보의(寶衣)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sup>287)</sup> 모든 사찰(寺刹)로 하여금 국사의 건강회복을<sup>288)</sup> 위한 기도를 하게 하였다. 왕이 직접 찾아와서 위문하여 이르되, “불가휘<sup>289)</sup>의 일이 있을까 두려우니 원컨대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고 하였다.

283) [苑] [總覽]에는 月과 師字 사이에 46字가 탈락됨.

284) [苑] [總覽]에는 결락, [全文]에는 重, [碑文]의 熏은 重의 오자임.

285) 중사(中使): 국내의 일로 왕명을 전달하는 사신.

286) 문체(問體): 체도(體度)를 묻는 것이니, 문병함을 뜻함.

287) 표보의명(表寶衣名): 보의(寶衣)의 이름을 표(表)한다는 말이니, 스님의 병세를 널리 알린다는 뜻. 보의는 스님들이 입는 옷을 가리킨다.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대정장15, p.681a2), “各脫寶衣”.

288) 질극(疾革): 병이 위급하다는 뜻. 革은 병급할 革字, 亟(亟)과 통한다. 『예기』「단궁檀弓」‘상’에 “夫子之疾革矣”라 하였다.

289) 불가휘(不可諱): 죽음을 뜻하니, 죽음이란 모든 사람들이 기피(忌避)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휘지변(不諱之變)이라고도 한다. 『자치통감資治通鑑』「주기周紀」‘현왕팔년顯王八年’에 “公叔病 如有不可諱 將奈社稷何”라 하고, 그 「주」에 “不可諱 謂死也 俗語有之 人不諱死”라 하였다.

秋八月，遘疾隱几而坐，或觀心，或持經，不以疲憊自止。門人請修佛事，曰“事佛久矣。”上，遣中使，問體<sup>290)</sup>名醫處方，依寶衣名，令於諸寺，爲之請福疾革。親來慰問曰，“恐有不可諱，願聞其所欲言者。”

국사가 이르기를, “나의 소원은 정도(正道)를 중흥하는 것이나 병이 나의 뜻을 뺏어 갔으니 없드려 바라는 바는 왕께서는 지성으로 불교를 외호하여 여래의 유교에 부합하면, 이는 죽어도 썩지 않는 불멸의 공덕이라”하고, 10월 5일 임진(壬辰)에 우협으로 누워 입적하시니 세수는 47이요, 승랍은 36세였다.

曰, “所願重興正道, 而病奪其志, 伏望, 至誠外護, 以副如來遺教, 則死且不朽.” 冬十月, 五日, 壬辰, 右脇而化, 享年, 四十七, 僧臘, 三十六.

이에 앞서 어느 날 보당<sup>291)</sup>이 땅에서 무너지면서 꺾어지는 꿈을 꾸기도 했다. 임금께서 부음을 듣고 통곡하시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부의를 보내게 하는 한편, 국사를 책봉하고 시호를 대각이라 추증하고는, 16일 계묘(癸卯)에 다비(荼毘)하여 유골(遺骨)을 수습(收拾)하고, 11월 4일 신유(辛酉)에 오관산(五冠山) 영통사(靈通寺)의 진방<sup>292)</sup>에 안조(安厝)하였으니,

290) [苑] [總覽]에는 體와 其字 사이에 45자가 탈락됨.

291) 보당(寶幢): 당(幢)이란 범어로 타박약(駄縛若 ㄱdhvaja) 또는 계도(計都 ㄱketu)에 해당하며, 높이 간주(竿柱)를 세우고 가지각색의 실과 비단으로 장엄한 것. 중생을 휘도(麾導)하고 마구니들을 제압(制壓)하는 표시로 불전(佛前)에 세운다. 혹은 당상(幢上)에 여의보주(如意寶珠)를 두되, 이를 여원인(與願印)이라 이름하여 보생여래(寶生如來)나 지장보살의 삼昧야형(三昧耶形)으로 나타냄.

292) 진방(震方): 팔방(八方)에서 동방(東方)에 해당함. 『주역周易』에 의하면 건(乾

이는 본교(本敎)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

是前或夢,<sup>293)</sup> 寶幢崩推于地. 上聞之慟, 命有司贈賻, 有加冊爲國師, 諡曰大覺, 十六日癸卯, 茶毘收遺骨, 以十一月四日辛酉, 安厝<sup>294)</sup> 於五冠山, 靈通寺之震方, 從本敎也.

불법이 양(梁)나라 대통 원년<sup>295)</sup> 정미(丁未)에 비로소 신라에 전래되었다.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원효와 의상이 중흥하였으니, 이 두 스님은 십지(十地)인 성종성<sup>296)</sup>이며 대종사(太宗師)이다. 말광<sup>297)</sup>으로 비추는 바이며, 여파<sup>298)</sup>로 가피(加被)하는 바이나 모두가 담암<sup>299)</sup>에서 벗어나와 그 고명(高明)한 위치에 이르렀다.<sup>300)</sup> 부처님과 상거(相距)가 점점 멀어짐에 미쳐서는 불법도 따라서 해이(解弛)하여졌다. 세상에서 이르는 바 명사란 마음은 명예를 쫓아 분주하고,<sup>301)</sup> 지혜는 이권에 눈이 어두워졌으며,<sup>302)</sup> 학

≡은 서북방(西北方)에, 태(兌≡)는 서방(西方), 리(離≡)는 남방(南方), 진(震≡)은 동방(東方), 손(巽≡)은 동남(東南), 감(坎≡)은 북방(北方), 간(艮≡)은 동북(東北), 곤(坤≡)은 서남방(西南方)에 각각 배치한다.

293) [苑] [總覽]에는 夢과 於字 사이에 45字가 탈락됨.

294) [苑] [總覽]에는 결락, [碑文]에는 厝, [全文]의 備는 厝의 오자임. 厝은 둘 조字이니, 棺을 가매장소(假埋葬所)에 안치하는 것을 말함.

295) 대통원년(大通元年): 양(梁)의 무제대(武帝代)의 연호. 신라 법흥왕 14년(527).

296) 성종성(聖種性): 보살의 십지(十地)를 지칭함.

297) 말광(末光): ①광명이 흘러 마지막의 광명, 즉 말대(末代)의 광명(光明) ②미물(微物)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혜택(惠澤). 『사기』「소상국세가찬蕭相國世家贊」에 “及漢興 依日月之末光”이라 하였다.

298) 여파(餘波): ①나머지의 물결. 말류(末流)란 뜻. ②유풍(遺風)이니, 오랜 세월을 지난 후의 명망(名望) 또는 그의 영향을 말함.

299) 담암(黳闇): 어두컴컴한 상태. 매우 희미하여 짐작도 할수 없는 모양.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에 “我與若 不能相知也 則人固受其黳闇”이라 하였다.

300) 조기고명(造其高明): 그의 도덕이 높고 밝은 경지에까지 나아갔다는 뜻.

문은 부천(浮淺)함만 더하고, 많은 서적을 섭렵하나 문구만 책열<sup>303)</sup>하여 치아간(齒牙間)에 끼워놓고,<sup>304)</sup> 노노<sup>305)</sup>하게 횡설수설하며 스스로 좋아하며 착각에 빠져있다.

佛法, 以梁大通元年丁未, 肇入新羅後. 一百餘年, 義想元曉作, 是二師者, 以聖種<sup>306)</sup>性, 爲大宗師. 末光所燭, 餘波所加, 皆得以出其黷闇, 而造其高明. 及去聖云遠, 法隨而弛. 世所謂名士者, 心蕩乎名, 智昏乎利, 學益浮淺, 涉獵典籍, 磔烈文句, 置之齒牙間, 呶呶以自好.

후학(後學)들이 오류(誤謬)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건(邪見)으로만 치닫고 반성(反省)하지 못하고 있다. 국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습속(習俗)의 폐몽(蔽蒙)과 도덕(道德)의 울체(鬱滯)함을 개탄하고 감정이 격발하여 크게 분발하며 전력을 다해서 도를 밝히고 폐단을 구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삼았다. 그리하여 국사는 잘못된 전학(典學)을 모조리 물리치고<sup>307)</sup>

301) 심탕호명(心蕩乎名): 마음은 명예를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한다는 말.

302) 지혼호리(智昏乎利): 지혜는 이권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

303) 책열(磔裂):磔은 찢을 책字. 온전하지 못한 것. 양웅(楊雄), 「장양부長楊賦」에 “分勞單于 磔裂屬國”이라 하였다.

304) 치지치아간(置之齒牙間): 보고 들은 말들을 치아간에 담아 놓고 이야기거리를 삼는다는 뜻. 『사기』「숙손통전叔孫通傳」에 “此特群盜鼠竊拘盜耳 何足置之齒牙間”이라 하였다.

305) 노노(呶呶): 쓸데없는 말을 횡설수설하여 그칠 줄 모르는 태도. 유종원(柳宗元), 「담위중입론사도서答韋中立論師道書」에 “漸不喜聞豈可使呶呶者 早暮拂吾耳 騷吾心”이라 하였다.

306) [苑] [總覽]에는 種과 乎字 사이에 46字가 결락되었음.

307) 출기전학(黜其典學): 승오습류(承誤襲謬)한 자들이 주장한 전적(典籍)과 소견(所見)을 모조리 배척하였다는 말.



묘온(妙蘊), 즉 묘법을 개시하며 유복(幽覆)한 것들을 부발(剖發)하고 유타<sup>308)</sup>한 자를 부기하였다. 그리고 뇌정(雷霆)으로써 진동하고 우로(雨露)로써 널리 뿌리는 중간에 비록 심복(心服)하여 기꺼이 따르는 자가 있는 반면, 많은 사건자(邪見者)들이 정견자(正見者)를 질투하여 훼방(毀謗)하는 소리가 비등하였으니, 이를 도로써 자처하여 염연히 마음에 조금도 동요함이 없었다. 학자들이 흡연<sup>309)</sup>히 모여들어 고질적인 사건의 병이 정견으로 돌아갔으며,<sup>310)</sup> 점차로 벽견(僻見)과 망집(妄執)한 자들이 얼굴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근본적인 학문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일찍이 선가(禪家)에서 이른바 전제<sup>311)</sup>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하는 이는 상상근지자(上上根智者)라고 한다. 그러나 만약 하사(下士)일 경우에는 구이(口耳)의 학으로써<sup>312)</sup> 일법만 터득하면 스스로 만족히 여기고 있다. 그리하여 선종(禪宗)에서는 삼장(三藏) 십이분교<sup>313)</sup>를 추구<sup>314)</sup> 또는 조

308) 유타(蘊捨): 유타란 해이하며 나태하다는 말. 蘊는 게으름 怠字. 『상자(商子)』「간령(堊令)」에 “農無得糴 則蘊惰之農勉疾”이라 하였다.

309) 흡연(翕然): 한 곳으로 모아 드는 모양. 뜻이 하나가 되어 화합하는 것. 『사기』「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天下翕然 大安殷富”라 하였다.

310) 침변어정(寢變於正): 고질적인 사건(邪見)의 병이 마침내 정견(正見)으로 변하였다는 말.

311) 전제(筌蹄): 원래 물고기를 잡는 통발과 짐승을 잡는 울가미를 일컫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의 비유다. 여기에서는 언어, 문화를 가리키니, 이들은 진리 그 자체(自體)가 아니고 다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뜻. 「적인선사조윤청정탑비문(寂忍禪師照輪清淨塔碑文)」주33) 전제筌蹄 [신라편] p.84 참조.

312) 구이지학(口耳之學): 입으로 설(說)하고 귀로 청법하는 학문이니, 교학(敎學)을 지칭.

313) 십이분교(十二分敎): 팔만대장경을 12가지로 그 내용을 구분한 것. 십이부경(十二部經) 또는 십이분경(十二分經)이라고도 함.

314) 추구(芻狗): 추구(菟狗)라고도 한다. 추초(芻草: 소먹이 풀, 풀추)와 개. 일설(一

박<sup>315)</sup>이라고 천칭(賤稱)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족하다고 관찰하는 자가 또한 어찌 오견(誤見)이 아니겠는가.

後來者, 承誤襲謬, 往而不返. 師於是, 疾習俗之蔽蒙也<sup>316)</sup>, 道德之鬱滯也, 激昂奮勵, 以明道求弊, 爲己任. 黜其典學, 示之妙蘊, 剖發幽<sup>317)</sup>覆, 扶起窳<sup>318)</sup>惰.<sup>319)</sup> 雷霆而震動之, 雨露以溥灌之閒, 雖有心服, 而悅隨者, 而群邪嫉正, 謗毀沸騰, 以道自處, 恬不動心. 終而翕然, 寢變於正, 異時, 僻見妄執者, 革面遷慮, 務爲根本之學. 亦嘗言曰, 禪家所謂, 不藉筌蹄, 以心傳心, 則上上根智者也. 脫或下士, 以口耳之學, 認得一法. 自以<sup>320)</sup>爲足, 指, 三藏十二分教, 芻狗也, 糟粕也, 又烏足觀者, 不亦誤乎.

그러므로 『능가경(楞伽經)』과 『기신론(起信論)』 등을 배우도록 권하였으며, 또 천성(天性)이 지극히 효도하며 부모를 극진히 봉양(奉養)하여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신즉 정성을 다하여 천도공덕을 짓되, 내지 스스로 팔을 태우며 부모가 돌아가신 기일(忌日)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 또 감식(鑒識)이 통연(洞然)하여 선행(善行) 닦기를 게을리하지 아니

說)에는 풀을 묶어 만든 개. 제사지낼 때 사용하는데 제사가 끝나면 버리기 때문에 용처가 있으면 사용하고 쓸 데가 없으면 버리는 것에 비유하는 것. 『노자』5에 “天地不仁 以萬物 爲芻狗 聖人不仁 以百姓 爲芻狗”라 하였다.

315) 조박(糟粕): 술 지게미 또는 깨묵 따위. 필요가 없는 천한 물건을 뜻함.

316) [苑] [總覽]에는 也와 閒字 사이에 46字가 결락되었음.

317) [苑] [總覽]에는 결락, [全文]에는 幽, [碑文]의 延은 幽의 오자임.

318) [苑] [總覽]에는 결락, [全文]에는 窳, [碑文]의 翕은 窳의 오자임.

319) [苑] [總覽]에는 결락, [全文] [碑文]의 情은 惰의 오자임.

320) [苑] [總覽]에는 결락, [碑文]에는 以, [全文]의 次는 以의 오자임.

하였다. 항상 진신<sup>321)</sup>을 띤 선생과 더불어 마주앉아 응대(應對)하되, 그 언론(言論)이 성인(聖人)의 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또 그 문사(文辭)가 평범하고 담담하나 깊은 뜻이 있으므로 사대부들이 그의 도풍(道風)을 받아 피미<sup>322)</sup>하고 점점 인위적인 조탁<sup>323)</sup>함을 싫어하고 아정(雅正)한 데로 나아갔다. 심지어 속이<sup>324)</sup>와 호신<sup>325)</sup>은 문학으로써 스스로 업을 삼지 아니하였으며, 환도<sup>326)</sup>와 이술(異術)은 마치 원수와 같아서 한번 그 모양을 보거나 그의 말을 들으면 송연하여 스스로 승복(承服)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서로 만남이 너무 늦었음을 한탄하였다. 그 후 예고<sup>327)</sup>께서 국사의 화상(畵像)을 보고<sup>328)</sup> 배회(徘徊)하면서 감모(感慕)하여 친히 200자나 되는 영찬(影讚)을 지었다.<sup>329)</sup>

321) 진신(縉紳): 예장(禮裝)할 때 홀(笏)을 큰 띠에 꿰는 것. 전(轉)하여 관직과 신분이 높은 사람. 또는 선비나 사대부.

322) 피미(披靡): 초목이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모양. 즉 사대부들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언복(偃伏)한다는 뜻. 사마상여(司馬相如), 「상림부(上林賦)에 “應風披靡 吐芳揚烈”이라 하였다.

323) 조탁(彫琢): 옥돌을 다듬는 것. 전(轉)하여 자구(字句)나 행동을 다듬고 꾸미는 것.

324) 속이(俗夷): 문신(文臣)을 지칭.

325) 호신(虎臣): 좌우(左右)에서 호위하는 신하, 즉 무신(武臣)을 가리킴.

326) 환도(宦道): 관도(官途)라고도 함. ①관리들이 차례대로 승급하는 길 ② 관직의 길이나 관직에 봉사하는 것.

327) 예고(睿考): 고려 제16대 예종(1105~1122)을 지칭함.

328) 도화상(觀畵像): ‘예종이 대각국사의 영상(影像)을 보고’라는 말.

329) 친제찬사이백자(親制讚詞二百字): 국사의 족하(足下)이고 숙종의 태자인 예종이 국사의 영정(影幀)에 참배하고 배회(徘徊)하면서 감모(感慕)하여 사언률(四言律) 사십팔구(四十八句) 192자(字)로 된 영찬(影讚)을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化身返本 遺教流東 間生覺智 弘闡宗風 義想始祖 元曉同時 今繼芳躅 其惟國師  
割愛王宮 專精佛道 幼學生知 上乘超悟 壯慕先哲 遠遊中華 輕涉滄海 歷參作家  
賢首智者 因明律鈔 求索諸宗 密傳衆妙 星霜換律 瓶錫登途 天子送勞 國人迎蘇  
慧炬重明 願輪載轄 大心丈夫 弘法菩薩 機鋒不露 徵應難藏 身生玉粒 口出火光

乃勸學楞伽，起信等經論，又天性至孝，善父母不怠，及其亡則，窮<sup>330)</sup>思畢情以營功德，至自燒臂，後值諱日，亦如之又。<sup>331)</sup>鑑識洞然，樂善不倦。每與縉紳先生，燕見應對，其言論，不出聖人之道。又其文辭，平澹而有味，故士大夫，承風而披靡，稍厭彫琢，而趣雅正焉。至於俗吏，虎臣，不以文學自業，及它<sup>332)</sup>道異術，相背如<sup>333)334)</sup>仇讐者，一見其貌，聞其言則，莫不悚然自服，恨相值之晚。後睿考，觀畫像，徘徊感慕，親製讚詞二百字。

국사가 송나라에 갔을 때, 사수가<sup>335)</sup>에 있는 승가대사탑<sup>336)</sup>에 예배를 드

法堂動搖 神物來護 衆皆讚揚 師不廻顧 遼皇施信 倭國寄經 人天蒙福 遐迹歸誠 圓宗類聚 釋宛詞編 後生模範 歷代流傳 繪事雖工 靈臺莫狀 略記聲熏 但伸鑽仰”。『대각국사문집』(外集)1권「본국에왕어제진찬本國睿王御製眞讚」;『한국불교전서』권4, p.567c3 참조.

330) [苑] [總覽]에는 窮과 之字 사이에 결락, 44字가 탈락됨.

331) [苑] [總覽]에는 결락, [碑文]에는 又. [全文]의 持는 又의 오자임.

332) [全文]에는 他, [總覽]에는 它, 它是 他的 古字. [苑] [全文]의 畱은 它的 오자임.

333) [苑] [總覽]에는 결락, [全文] [碑文]에는 如임.

334) [苑] [總覽]에는 如와 適字 사이에 40字가 탈락됨.

335) 사상(泗上): 사수(泗水)의 상류(上流)이나, 여기서는 사주(泗州)라는 지명으로 강소성(江蘇省) 숙천현(宿遷縣)의 동남 지방. 지금은 안휘성(安徽省) 사현(泗縣)에 속함.

336) 승가탑(僧伽塔): 사주탑(泗州塔)이라고도 함. 이 탑 밑에 관세음보살의 진신(眞身)을 안장(安藏)하고 그 위에 비를 세우고 비각을 짓고 다시 승가상(僧伽像)을 봉안하였다. 이 승가대사(僧伽大師)를 사주화상(泗州和尚)이라고도 일컫는다. 당나라 중종(中宗: 684~709) 때 서역(西域)에서 온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가 곧 승가대사이다. 사주 임회현(臨淮縣)에 절을 짓고 주석하였으므로 사주화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신승전神僧傳』권7(대정장50, p.99b21), “僧伽大師 西域人 俗姓何氏 唐龍朔初(661~663) 遊中國 隸名於楚州龍興寺 後於泗州臨淮縣之地 建伽藍 掘得古香積寺名記 竝金像一軀 上有普照王佛字 中宗聞名 遣使迎入內道域 居

릴 적에는 등불과 같은 광명이 나타났고, 천축사<sup>337)</sup>에서 관세음보살님께 절을 함에는 혁혁(赫赫)한 흰 광명이 방광(放光)하였다. 또 해인사(海印寺)에서 『화엄경華嚴經』을 강설(講說)할 때는<sup>338)</sup> 당우(堂宇)가 홀연히 진동하여 경기(警起)하는 상서(祥瑞)가 나타났었고, 예고(睿考)께서 아직 동궁에 있을 때<sup>339)</sup> 병에 걸렸다. 국사를 청하여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독송케 하였으니, 을야<sup>340)</sup>에 이르러 광명이 입으로부터 흘러나와 방 안을 흰히 비추었다. 고승전<sup>341)</sup>에 이른 바 신이감통(神異感通)이란 것이 어찌 이러한

薦福寺 常獨處一室 頂上有一穴 以絮塞之 夜即去絮 香從穴出 非常芬馥 嘗濯足人取其水飲之 痼疾皆愈 景龍四年(710) 端座而終 中宗問萬回(萬廻라고도 함), 『전등록傳燈錄』(대정장50, p.992a)에 “姓張 一日 往返萬里(故因號萬里) 曰 僧伽是何人 曰 觀音化身也”이라 하였다.

- 337) 천축사(天竺寺): 중국 절강성 항현(杭縣)에 삼사(三寺)가 있었는데, 한곳은 비래봉(飛來峰)의 남쪽에 있는 하천축사(下天竺寺), 또 한곳은 계류봉(稽留峰)의 북쪽에 있는 중천축사(中天竺寺), 다음 한곳은 북고봉(北高峰)의 기슭에 있는 상천축사(上天竺寺)라 한다. 여기의 천축사는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관세음보살상에 예배하였다는 것에 상천축사로 추측된다. 『절강통지浙江通志』에 따르면 “도익(道翼)이란 스님이 이곳에 암자를 맺고 수도하던 중, 산중에서 기이하게 생긴 나무를 얻어 그를 깎아 관음보살상을 조성하였다. 건우년간(乾祐年間 948~950)에는 숭훈(崇勳)이란 스님이 낙양(洛陽)으로부터 고불사리(古佛舍利)를 모시고 와서 정중(頂中)에 봉안하였다. 그후로는 더욱 영험이 있어 기도할 때마다 종종 방광(放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 338) 재해인사강경(在海印寺講經): 대각국사가 해인사에 주석한 시기는 1094년에 와서 1096년 또는 1097년에 떠나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게 본다면 약 3~4년간으로 생각된다.
- 339) 예고재동(睿考在東): 예종이 동궁(東宮)에 있을 때라는 말.
- 340) 을야(乙夜): 오후(午後) 10시이고, 오야(五夜)의 하나. 갑시(甲時)는 오전 8시, 을시(乙時)는 오후 10시, 병시(丙時)는 오후 12시, 정시(丁時)는 오전 2시. 무시(戊時)는 오전 4시이다. 이를 오야라고 한다. 을야람(乙夜覽)이란 말이 있는데, 천자가 을야경(乙夜頃 오후 10시) 정무(政務)를 마치고, 취침전에 책을 보는 것을 말한다.
- 341) 고승전(高僧傳): 찬녕(贊寧)이 지은 『송고승전』을 가리킨다.

것을 이름이 아니겠는가! 또 국태민안을 위하여 흥복사<sup>342)</sup>를 창건하는 일을 잊지 아니하였으며, 혹은 국가의 전로(前路)가 영원히 새로워지기를 기고하였으니,<sup>343)</sup> 이곳은 백군(百郡)이 출입교차하는 요충지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국태민안을 위한 기도처(祈禱處)인 관(館)과 원<sup>344)</sup>이 있었으나, 괴망(壞亡)하였다면서 문인들에게 지시하여指南館)과 겸제원(兼濟院)을 중창복구(重創復舊)하였다. 예고께서 많은 토지를 이 절에 헌납하였으니,<sup>345)</sup> 이는 오로지 국사의 공로(功勞)에 속한다. 태후(太后)가 이르기를, “나의 소원은 흥왕사 안에 따로 일원(一院)을 개창(開創)하려는 것이니, 국사가 이일(異日)에 행도(行道)하는 장소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을 보내와서 터를 잡고<sup>346)</sup> 그 후 건축을 마치고는 액호(額號)를 천복원(薦福院)이라 하였다. 기타 부속공사와 기물, 불상, 경문 등은 일일이 모두 기록할 수 없다.

師適宋時，泗上禮僧伽塔，上有光明如燈火，天竺寺禮觀音，放素光赫赫然。又在海印寺講經，堂宇忽動，有驚起者，審考，在東宮，<sup>347)</sup>被疾，請<sup>348)</sup>師爲讀金剛般若經，至乙夜，光自口出，燭

342) 흥복(興福): ①나라가 부흥하고 국민이 복되게 하려는 염원 ②나라가 태평하기 위해 예종 6년(1111)에 흥복사(興福寺)를 창건하였다는 뜻. 흥복사는 경기도 개성에 있던 절. 여기서는 ①흥복(興福)을 기원하며 ②흥복사를 창건한 것을 가리킴.

343) 고영신전로(告永新前路): 국가가 영원히 앞으로 나아가는 전로(前路)에 있어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며, 또한 국태민안을 위한 호국기도를 봉행하는 곳.

344) 관원(館院): 관(館)과 원(院)이니,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장소, 또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

345) 예고석이토전(睿考錫以土田): 예종이 관원(館院)에 토지(土地)를 하사하였다는 말. 錫은 줄 석字.

346) 팽래복지(倂來卜地): 인예태후(仁睿太后)가 흥왕사 안에 별원(別院)을 두고자 사람을 의천에게 보내어 오게 하여 터를 정하였다는 말.

於戶牖。傳所謂神異感通者，豈是歟。又不忘興<sup>349)</sup>福，或告永新前路，是百郡之所出入。舊有館院而壞亡，卽指授門人，作新之。名館曰，指南院，曰兼濟，至睿考，錫以土田，始師之幼。<sup>350)</sup>太<sup>351)</sup>后謂言，“吾願於興王寺內，別開一院，爲若異日行道之所。”<sup>352)</sup>倅來卜地，至後營構，號之薦福，其他所成佛像經文，亦不能盡書。

국사는 이미 일국의 존친(尊親)이 되었으므로<sup>353)</sup> 큰 정사가 있을 때마다, 관밀<sup>354)</sup>히 자문하였으므로, 임금과 더불어 나라의 대사를 논의하는 경우가 심히 많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끼친 음덕(陰德)이 많았으나, 또한 후세 사람들은 일일이 다 알지 못하고 있다. 국사께서 입언(立言)함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역대(代)의 화엄종인(華嚴宗人)이 남긴 군언(群言)이 한만<sup>355)</sup>한 가운데서 그 정요만을 활약(撮略)하여 종류별(種類別)로 분류해서 『원종문류(圓宗文類)<sup>356)</sup>』라 이름하였다. 고금의 문장 중에 교

347) [苑] [總覽]에는 宮과 新字 사이에 41字가 탈락됨.

348) [苑] [總覽]에는 결락, [全文]에는 請. [碑文]의 詣는 請의 오자임.

349) [苑] [總覽]에는 결락, [碑文]에는 興. [全文]의 興는 興의 오자임.

350) [總覽] [全文] [碑文] 에는 幼. [苑]의 功은 幼의 오자인 듯함.

351) [苑] [總覽]에는 太와 亦字 사이에 42字가 탈락됨.

352) [苑] [總覽]에는 결락, [碑文]에는 倅. [全文]의 倅은 倅의 오자임.

353) 일국존친(一國尊親): 대각국사는 나라의 높은 왕족(王族)이라는 뜻.

354) 관밀(款密): 정성스럽고 은밀(隱密)하게라는 뜻.

355) 한만(汗漫): 멀고 넓어 광막한 모양. 호한(浩瀚)과 같은 뜻. 『금사金史』「고여려전高汝礪傳」에 “比應詔言事者 不啻千數 俱不達各司利害 汗漫陳設 莫能詳盡”라 하였다.

356) 원종문류(圓宗文類): 22권 화엄종에 속하는 문헌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역대 화엄종 저술을 모아 놓은 책. 현존하는 것은 제1권, 제14권, 제22권 등 3권 뿐

(敎)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을 회통(會通)하여 『석원사림釋苑詞林』<sup>357)</sup>을 만들다가 애석하게도 완성하지 못하였다. 입적한 후, 문인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편집상에 있어 산거(刪去)하고 취입(取入)하는 과정에서 마땅함을 놓친 부분이 많았다. 문인들이 소집(所集)한 국사의 시문, 잔편(殘編), 단고(斷藁) 등은 거의 주차<sup>358)</sup>가 없이 엮어 20권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대개 술이(率爾)하게 낙필(落筆)한 것이므로 후세에 끼칠만한 것이 못 되었다. 그러므로 생전에 그 글 중에 필사(筆寫)한 책과 각판(刻板)한 판목(板木), 그리고 모든 원고를 소각(燒却)해 버렸다.

師既爲一國尊親，有大政事，必款密諮決故，所與上，論列國家事甚多。而有陰德於人民，亦厚世莫得而盡知。師欲<sup>359)360)</sup>立言以垂不朽，而志莫之遂。嘗以群言汗漫，撮其精要，類別部分，名曰圓宗文類。又欲會古今文章，有補於敎，以爲釋苑詞林，而未及參定。至後乃成故，去取失當。門人集所著，詩文殘編，斷藁存者，無幾紬次，爲二十卷，此皆率爾落筆，非將<sup>361)362)</sup>以貽後也，故於生前有以其文寫而刻之者，取其板焚之。

이다.

357) 석원사림(釋苑詞林): 250권이니, 고금(古今)의 문장들 중에 교리에 도움될 만한 것을 모아 놓은 것. 이는 대각국사가 완성하지 못하고 입적한 후, 문인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재는 제191권부터 제195권까지 5권을 합한 1책(冊)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358) 주차(紬次): 권질(卷帙) 또는 순서, 차례 등의 뜻.

359) [苑] [總覽]에는 결락, [全文] [碑文]에는 欲임.

360) [苑] [總覽]에는 欲과 於字 사이에 40字가 탈락됨.

361)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碑文]에는 以임.

362) [苑] [總覽]에는 以와 疎字 사이에 37字가 탈락되어 있음.



당시 북요(北遼)의 천우황제<sup>363)</sup>가 국사의 이름을 듣고 대장경(大藏經)과 제종(諸宗)의 소초(疏鈔) 6,900여권을 보내왔으며, 그 밖에도 문서, 약물, 금백(金帛) 등은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다. 연경<sup>364)</sup>에 있는 운서법사<sup>365)</sup>와 고창국<sup>366)</sup>의 시라박저,<sup>367)</sup> 아사리(阿闍梨) 등도 모두 국사를 지극히 존경하여 책서(策書)와 법복(法服)을 보내어 문안하였으며, 요나라에서 온 사신들도 모두 친견하기를 희망하여 토산물<sup>368)</sup>로써 선사하고 적수<sup>369)</sup>로써 예배하면서, “우리나라 사신들이<sup>370)</sup> 요에 들어오면 그때 반드시 국사의 안부를 묻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최후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문서를 구하는 목록(目錄) 중에 대각국사의 비명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국사의 이름이 사방(四方)으로 나타나 이국(異國)에서까지 존경하는 바가 되었다.

當時北遼天祐帝，聞其名，送大藏及諸宗疏抄六千<sup>371)</sup>九百餘卷，

363) 천우제(天祐帝) : [碑文]에는 우(佑)이나, 이는 오자인 듯하다. 연표(年表)에 의한 요의 천조제(天祚帝 1101~1125)가 아닌가 한다.

364) 연경(燕京) : 현재의 북경(北京)을 말함.

365) 운서(雲誦) : 전기 미상.

366) 고창국(高昌國) : 한의 제후국(諸侯國). 차사전국(車師前國;西域이니, 『서역전西域傳』에 이르되 ‘超에다 都護府를 두고, 龜茲國과 連接’이라 하였다)이니, 서역삼십육국중(西域三十六國中)의 하나. 일명 고사(姑師)인데, 지금은 신강성(新疆省) 토로번현(吐魯番縣)의 일대(一帶). 여기에는 차사전국과 차사후국(車師後國)이 있다.

367) 시라박저(尸羅磧底) : 다른 자료에서도 전기가 보이지 않으나 『대각국사문집』(外集) 권8(한불전4, p.581c)에 국사에게 보내온 서한 이수(二首)의 편지가 있는데, 그 제목(題目)에 ‘高昌國 幻釋 尸羅磧底書二首’라 하였으니, 시라박저(尸羅磧底)는 환석(幻釋)으로 번역되는 듯하다.

368) 토물(土物) : 토산품(土產品).

369) 지수(藉手) : 손을 펴는 것. 『서언고사書言故事』「신체설류身體說類」, “特物惠人曰藉手”.

370) 오사(吾使) : 우리나라, 즉 고려의 사신(使臣)이란 말.

其餘文書，藥物金帛，至不可勝計。燕京法師雲誦，高昌國阿闍梨，尸羅嚩<sup>372)</sup>底，亦皆尊嚮，以策書法服爲問，遼人來使<sup>373)</sup>者，皆請見以土物，藉<sup>374)</sup>手以拜，“吾使入遼則必問師之安否。”最後日本人，求文書於我，其目有大覺國師碑誌，其名顯四方，爲異國所尊。

또 이와 같은 일도 있었다. 국사가 어느 때 신의 선형(先兄)인 석현담<sup>375)</sup>을 불러 함께 학문을 논하며 서로 절친한 교분(交分)이 마치 종자기(鍾子期)와 백아(伯牙)의 사이와 같았다.<sup>376)</sup> 이로 말미암아 신이 단 한 번 국사를 배알(拜謁)한 적이 있었는데, 용색(容色)이 수청<sup>377)</sup>하여 마치 청천백일(靑天白日)을 보는 것과 같아서 같이 앉아 이야기하는 것이 국사를 욕(辱)되게 하였다. 낮에서부터 밤이 다할 때까지<sup>378)</sup> 『주역』과 『노자』, 『장자』 등에 대하여 일, 이의 대의를 시문(試問)하므로 신이 우연히 능히 대답하게

371) [苑] [總覽] [碑文]에는 千, [全文]의 百은 千의 오자임.

372) [苑] [總覽] [碑文]에는 嚩, [全文]에는 탈락되어 있음.

373) [苑] [總覽]에는 使와 碑字 사이에 39字가 탈락됨.

374) [苑] [總覽]에는 結략, [碑文]에는 藉, [全文]의 籍은 藉의 오자임.

375) 석현담(釋玄湛): 김부식(金富軾)의 친형(親兄)인데, 출가하여 법명(法名)을 현담(玄湛)이라 하였다. 김부식은 김근(金覲)의 셋째 아들. 장자는 부필(富弼), 차자는 부일(富侗). 삼자는 부식. 사자는 부의(富儀)이다. 부식의 선형(先兄)이 출가하여 그 법명이 현담이라 하였으니, 사료(史料)컨대 장자 부필은 가문상속상(家門相續上) 아닐 것이고, 차형(次兄)인 부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376) 비시기아(非甞期牙): 대각국사와 김부식의 친형(親兄)인 석현담(釋玄湛)과의 교분(交分)은 종자기(鍾子期)와 백아(伯牙)와의 지음(知音)에 비할 바 아니라는 말. 본비문 주188)지음知音 p.451 참조.

377) 수청(睟淸): 얼굴 빛이 윤택하며 맑다는 말.

378) 자주궁야(自晝窮夜): 낮에서부터 밤이 다할 때까지라는 뜻이다.

되었다. 후일 자주 칭찬하기를, “담사(湛師)의 동생도 재사(才士)이다”라고 하였다. 그 후 얼마되지 않아<sup>379)</sup> 국사께서 입적하였다.

又如此，師嘗召臣，先兄釋玄湛，與之遊，甚歡相知之分，非<sup>380)</sup>  
 常期牙。臣，由是，得以一謁，容色睟清，若觀青天<sup>381)</sup>白日，辱  
 賜之坐語。自晝窮夜，試問易老莊，一二大義，臣偶能言之。他  
 日數稱之曰，“湛師弟，亦才士也。”居無何 師入滅。

슬프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에게 등용되므로 가사(假使) 죽는  
 한이 있어도 가히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비록 포발<sup>382)</sup>하여 발에 흙이 묻  
 지 않도록 도우며,<sup>383)</sup> 또한 혼연(欣然)한 마음으로 흠모(欽慕)함이어든, 하  
 물며 문자로써 이름을 비석의 끝에 걸게된 것이<sup>384)</sup> 어찌 영광스러움이 아  
 니겠는가! 그러나 학술은 완고하며 비루하고 말 솜씨는 삼눌(澁訥)하여  
 능히 국사의 깊은 덕에 잠겨있는 큰 광명을 개발하여 내예<sup>385)</sup>들에게 제대  
 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의 한탄하는 바이다. 이상의 홍대(弘大)  
 한 업적(業跡)을 찬송(讚頌)으로 명(銘)하여 읊노라.

噫，士爲知己者用，假令死而可作。雖布髮而籍足，亦所欣慕

379) 거무하(居無何): ‘얼마되지 않아서 그 후’, ‘곧 이어서’라는 뜻.

380) [苑] [總覽] [碑文]에는 暫, [全文]에는 탈락되어 있음.

381) [苑] [總覽]에는 天과 無字 사이에 39字가 탈락되어 있음.

382) 포발(布髮): 석가세존의 전생사(前生事)로서 연등불(燃燈佛)의 행차에 머리를  
 풀어 지나가게 한 고사(古事). 「법인국사보승탑비문法印國師寶乘塔碑文」 주  
 331)포발지영布髮之迎 본서 p.334; 대정장3, p.47c 등 참조.

383) 자족(籍足): 머리카락으로 진흙이 발에 묻지 않도록 발 밑 땅 바닥에 깔았다는 말.

384) 괘명어비석지하(掛名於碑石之下): 비문을 지은 자인 김부식 자신의 이름이 비  
 석의 끝에 기록된다는 뜻.

385) 내예(來裔): 후래(後來), 후배, 후손 등의 뜻.

焉, 況以文字, 掛名於碑石之下, 豈不爲榮<sup>386)</sup> 幸也哉. 而學術固陋,<sup>387)</sup> 辭語澁<sup>389)</sup> 訥,<sup>390)</sup> 不能發幽德之潛光, 以示<sup>391)</sup> 來裔. 是所恨焉, 其銘曰.

신라의 의상조사 중국에 유학하여,<sup>392)</sup>

화엄을 연구하고 그 원음(圓音) 전해왔네.

불교를 회통(會通)하신 원효는 독학이나,<sup>393)</sup>

유치(幽致)를 궁진(窮盡)하고 심묘(深妙)를 극달(極達)하다.

義想西學,

傳<sup>394)</sup> 佛圓音.

元曉獨見,

窮<sup>395)</sup> 幽極深.

국내서 연구하든 국외에 유학했든,

386) [苑] [總覽] [全文]에는 榮. [碑文]의 樂은 榮의 오자임.

387) [總覽]은 결락이나 [苑] [碑文]에는 陋. [全文]의 隨는 陋의 오자임.

388) [苑] [總覽]에는 隨와 義字 사이에 23字가 탈락되어 있음.

389) [總覽]은 결락, [苑]의 澁과 [全文] [碑文]의 澁은 같은 글자임.

390) [總覽]은 결락, [苑] [碑文]의 訥과 [全文]의 訥은 같은 글자임.

391) [苑] [總覽]에는 결락, [碑文]에는 示. [全文]의 宗은 示의 오자임.

392) 의상서학(義想西學) : 의상(625~702)스님은 650년 당나라에 가서 지엄(智儼)스님 회상(會上)에서 화엄학을 연구하고, 670년에 귀국하였다. 입당유학(入唐遊學)을 서학(西學)이라 하였다.

393) 원효독견(元曉獨見) : 원효는 해외(海外)에 가서 유학하지 않고, 국내에서 혼자 연구하였으므로 독견(獨見)이라 한 것.

394) [苑] [總覽] [碑文]에는 傳. [全文]의 侮는 傳의 오자임.

395) [苑] [總覽] [碑文]에는 窮. [全文]의 或은 窮의 오자임.

일승(一乘)을 향한 마음 홀연히 하나였네.  
 심향(心香)을 훈수(熏修)하고 법우(法雨)로 윤택하며,  
 학인(學人)은 책을 지고 숲처럼 찾아오네.

或出或處,  
 脞<sup>396)</sup>然同心.  
 香薰霧潤,  
 學者林林.

불교도 세상따라 쇠퇴를 거듭하고,  
 일월(日月)은 쉬지 않고 허공(虛空)을 지나는데.  
 사견(邪見)은 광자(狂者)처럼 동(東)으로 달아나고,  
 무지한 망견자는 북으로 치닫는다.

道<sup>397)</sup>與世喪,<sup>398)399)</sup>  
 日薄月儉.  
 有狂東<sup>400)</sup>走,  
 無知北遊.

미(迷)한 자 우매하여 회복(回復) 길 찾지 않고,  
 방일(放逸)한 그 마음은 찾을 줄 모르는데.<sup>401)</sup>

396) [苑] [總覽] [碑文]에는 脞. [全文]의 沕은 脞의 오자임.

39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碑文]에는 道.

398) [苑] [總覽]에는 결락, [全文] [碑文]에는 喪임.

399) [苑] [總覽]에는 喪과 不字 사이에 24字가 탈락됨.

400) [苑] [總覽]에는 결락, [全文]에는 東. [碑文]의 束은 東의 오자임.

401) 방불지구(放不知求): 방일(放逸)한 자는 도를 구할 줄 알지 못한다는 말.

사심(邪心)이 치성(熾盛)하니 정법(正法)은 멸망하고,  
막힘도 본래없고 흐름도 아니로다.

迷不知復,  
放不知求.  
邪熾正滅,  
不塞不流.

그 마음 매각(昧却)하면 마침내 방황하고,  
왕자로 태어나니<sup>402)</sup> 그 인물 특이하네.<sup>403)</sup>  
고귀한 부귀영화 아랑곳 전혀 없고,  
불법을 배우려고 고명한 스승 찾다.

否終則傾,  
異人挺生.  
不留富貴,  
而<sup>404)</sup>趣高明.

서송(西宋)을 멀다 앓고 비밀리 떠나가서,<sup>405)</sup>  
창파(滄波)에 몸을 실고 송국(宋國)에 건너갔네.<sup>406)</sup>  
곳곳에 찾아가서 지식(知識)을 친견하고,<sup>407)</sup>

402) 이인(異人): 특이한 사람. 위대한 사람.

403) 정생(挺生): ①출생하는 것 ②걸출한 사람.

404) [總覽]은 결락, [全文] [碑文]에는 而, [苑]의 天은 而의 오자임.

405) 수위송원(誰謂宋遠): 누가 송나라를 멀다 말하는가. 즉 불원천리(不遠千里)하고  
위법망구(爲法忘軀)하였다는 뜻이다.

406) 목도(木道): 목은 수(水)의 오자이다. 수도(水道)란 ①물이 흐르는 길 ②개천과  
같은 것 ③배가 통하는 길 ④바다. 수로(水路)를 지칭.

지극한 마음으로 각종을 묻고 닦다.

誰謂宋遠,

木<sup>408)</sup>道乃行.

索焉而獲,

爲焉而成.<sup>409)410)</sup>

이변(理邊)을 통달하니 현상계(現象界) 따로 없고,  
사변(事邊)을 터득하니 본체(本體)가 현상(現象)일세.  
견해(見解)가 자재하니 이사(理事)가 둘 아니며,  
호한(浩瀚)한 그 진리는 말로서 알 수 없네.

理無不盡,

事無不融.

遊觀自在,

浩不可窮.

세계를 총섭(總攝)하여 하나로 만들어서,  
일모(一毛)에 집어 넣어 시방(十方)이 따로 없네.<sup>411)</sup>  
당체(當體)서 한걸음도 떠나지 아니하고,  
시방을 주행(周行)하되 걸림이 전혀 없네.

407) 색언이획(索焉而獲): 찾아서 얻는다는 말.

408) [苑] [總覽] [全文]에는 木, [碑文]의 水는 木의 오자임.

409) [總覽]은 결락이나 [苑] [碑文] [全文]에는 成.

410) [苑] [總覽]에는 成과 不字 사이에 24字가 탈락됨.

411) 섭제찰해어일모중(攝諸刹海於一毛中): 시방(十方)의 모든 국토를 뽇뽇 뽇쳐 일모중에 집어 넣는다는 뜻이니, 일미진중합시방(一微塵中含十方)과 같은 말.

攝諸刹海,  
 於一毛中.  
 不動一步,  
 周行虛空.

화엄(華嚴)의 깊은 진리(眞理) 횡류(橫流)로 탕탕하니,<sup>412)</sup>

국사가 그 진리를 혼자서 지녔도다.

근본은 하나지만 지말(枝末)은 백파(百派)일세,

이 범이 동점(東漸)하여 동국(東國)에 유입(流入)했네.

橫流湯湯,<sup>413)</sup>

獨爲之防.

道<sup>414)</sup>其百派,<sup>415)</sup>

東至于洋.

처음엔 한 사람도 믿는 이 있지 않아,

소귀에 경 읽듯이 은은<sup>416)</sup>히 불신하나,

정녕(叮嚀)히 타이르니 마침내 돌아와서,

결국엔 같고 닮아 큰 광명 발하였다.<sup>417)</sup>

412) 탕탕(湯湯): 물이 팔팔 흐르는 모양. 파도가 구비치는 모양. 『시경』 「대아大雅」 「강한江漢」, “江漢湯湯 武夫洸洸”이라 하였다. “浩浩湯湯 橫無際涯”라는 뜻도 있다.

413) [苑] [總覽] [碑文]에는 湯湯. [全文]의 浪浪은 湯湯의 오자임.

414) [苑] [總覽]에는 結略, [全文] [碑文]에는 道임.

415) [總覽]은 結略이나 [苑] [全文] [碑文]에는 派임.

416) 은은(猓猓): 개가 짖는 소리. 개가 짖는 모양. 개가 짖는 소리 은字이다. 『초사楚辭』 「구변九辯」에 “猛犬猓猓而迎吠兮”라 하였고, 「집주集注」에 은은 “犬爭吠聲”이라 하였다.



始則不信,  
 信信衆狂,  
 終隨而革,<sup>418)419)</sup>  
 磨淬發光.

뛰어난 현인이며 훌륭한 철인이요,  
 그 인품 존귀하여 인천(人天)의 스승일세.  
 누구나 찾아가서 진리를 문학과,  
 국가의 중대사는 언제나 자문했네.<sup>420)</sup>

惟君之哲,  
 其尊其師.  
 問道之要,  
 謀事之疑.

그윽히 도와주고 비밀리 협찬하며,<sup>421)</sup>  
 타고난 그 바탕은 지극히 청아하다.<sup>422)</sup>

417) 마취(磨淬): ①불무간에서 낫을 담구어서 두들겨 단련할 때, 수시로 적시는 물을 담는 그릇임. ②갈고 닦는다는 말.

418)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碑文]에는 革임.

419) [苑] [總覽]에는 革과 幾字 사이에 24字가 탈락됨.

420) 모사지의(謀事之疑):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국가의 존친(尊親)의 위치에 있으므로 반드시 대각국사를 비밀리 찾아와서 자문을 받았다는 말. 비문 중에 “師既爲一國尊親 有大政事 必款密諮決”이란 부분을 명(銘)한 것.

421) 음비밀찬(陰毘密贊): 국가의 중대한 일에 대한 자문이 있을 때는 남들이 모르게 돕고 비밀히 조언한다는 뜻.

422) 기격(幾格): 타고난 본 바탕. 선천적인 본성.

표연(飄然)히 이 세상을 떠나려 하시므로,<sup>423)</sup>

미혹한 사부대중(四部大衆) 울면서 만류하다.<sup>424)</sup>

陰毘密贊,

幾格清夷.

飄然遠舉,

則挽留之.

불법(佛法)의 그 진리는 깊고도 광대(廣大)하여,

그 높음 하늘같고 넓기는 땅과 같네.

진리의 그 당체(當體)는 찾을 길 아득하여,

말로도 알 수 없고 글로도 볼 수 없네.

其道之大,

如天如地.

淵源之深,

固不敢<sup>425)</sup>議.

당체가 수연(隨緣)하여 공(空)에서 성사했고,<sup>426)</sup>

나타난 현상계(現象界)는 무심(無心)한 토저(土苴)일 뿐.<sup>427)</sup>

---

423) 표연원거(飄然遠舉): 표연히 멀리 떠난다는 말이니, 열반에 들어감을 지칭.

424) 만류지(挽留之): 오래토록 이 세상에 계시면서, 미혹한 중생을 제도해 달라고 만류하였다는 뜻이다.

425) [苑] [總覽] [碑文]에는 敢, [全文]의 聽은 敢의 오자임.

426) 기출어시(其出於時): 스님께선 때가 아닌 때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고, 반드시 시(時)와 기(機)에 맞추어 법을 일러주나 이는 스님의 가진 법력 중에 가장 작은 일부분이란 말.

427) 토자(土苴): 토(土)는 와력(瓦礫; 돌자갈), 자(苴 두엄풀 자; 和糞草土)는 초괴

묘함은 피부(皮膚) 같고 윤택은 구름 같아,  
그 혜택 두루하여 만방에 가득하네.

其出於時，  
土苴而已。<sup>428)</sup>  
如膚<sup>429)</sup>寸雲，  
澤彌萬里。

망조(罔措)한 제자들은 수비(樹碑)를 간청했고,<sup>430)</sup>  
머리를 조아려서 소원(所願)을 피억(披臆)하니,  
비명을 세우려고 비문을 쓰게 하여,  
위대한 그 업적을 영원히 선양하다.<sup>431)</sup>

厥徒叩闕，  
稽首敷臆，  
冀書之碑，  
以揚宏則。

(草蒔; 두엄풀) 분초(糞草), 토개(土芥). 일설에는 무심한 모양. 『장자』 「양왕讓王」에 “道之眞以治身 其緒餘以爲國家 其土苴以治天下”라 하였고, 원호문(元好問)의 「신재부新齋賦」에는 “孰糟粕之弗醇 孰土苴弗眞”이라 하였다. 즉 도로변 풀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말함.

428) [苑] [總覽]에는 己와 上字 사이에 24字가 탈락됨.

429) [總覽]은 결락, [碑文]에는 膚. [苑] [全文]의 𤑔는 膚의 오자인 듯함.

430) 고훈(叩闕): 궁궐에 가서 스스로 원죄(冤罪)를 호소하는 것. 현관(玄關: 진리)의 문을 두들기는 것. 선지식(善知識)을 방문하여 법문을 청하는 일을 일컫는다.

431) 홍칙(宏則): 홍칙이라 음독(音讀)하니, 크고 넓은 도덕을 가리킨다. 「대각국사묘실급비명안립사적기大覺國師墓室及碑銘安立事跡記」.

상(上)께서 주청(奏請)받고 기꺼히 윤회하여,  
 국학을 찾던 중에 신에게 명하므로,  
 임금께 배알(拜謁)하고 사서(辭書)를 올리어서,  
 필력(筆力)이 부족타고 망극(罔極)을 개진(開陳)하다.

上曰其然,  
 乃命臣軾,  
 臣拜獻辭,  
 貽<sup>432)</sup>厥罔極.

# 【陰記】

대각국사(大覺國師)의 묘실<sup>433)</sup>과 비명 건립에 대한 사적기(事蹟記)  
 [박호 지음]

大覺國師墓室, 及碑銘安立, 事跡記. [朴浩撰]

국사의 묘실(墓室)은 영통사 동북쪽에 있는데, 태사령<sup>434)</sup> 최자호<sup>435)</sup>와 춘  
 관<sup>436)</sup> 정 진간<sup>437)</sup>이 숙종<sup>438)</sup>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터를 점복(占卜)하고, 원

432) [苑] [總覽] [全文]의 貽와 [碑文]의 詒는 같은 글자임.

433) 묘실(墓室): 분묘(墳墓)란 뜻이니, 대각국사가 입적한 후, 화장을 하고 나서 유  
 골을 수습하여 분묘를 둔 것은 왕손(王孫)이라 하여 능(陵) 대신 매장하여 묘분  
 과 제당을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434) 태사령(太史令): 태사국(太史局)의 영(令)이니, 천문(天文), 역수(曆數), 측후(測  
 候), 각루(刻漏) 등을 맡은 관청.

435) 최자호(崔資顥): 숙종 6년(1101) 9월 추관정(秋官正)의 관직에 있으면서 왕의 명  
 을 받아 남경(南京)의 지세(地勢)를 보게 했다. 『고려사』권11 참조.

외랑<sup>439)</sup> 박호<sup>440)</sup>는 왕명(王命)을 받들어 묘지명<sup>441)</sup>을 찬술하였다. 삼중대사(三重大師)인 보자(普滋), 익현(翼玄)과 중대사(重大師)인 융개(融介), 첨현(暹顯), 낭기(朗機), 도(都) [결락] 등 300인이 작업하고,<sup>442)</sup> 귀법사<sup>443)</sup>의 중대사(重大師)인 묘열(妙悅), 충현(忠現) 등 500인이 대석(大石)을 운반하여<sup>444)</sup> 돌을 깎아 묘(墓)를 덮었으니 모두 삼중대사(三重大師)였다. 익현(翼玄)은 감독하였다.<sup>445)</sup> 그로부터 얼마를 지난 후<sup>446)</sup> 제당(祭堂) 삼간(三間)을 묘의 남쪽 영통사에 건축하였는데, 중대사(重大師)인 득엄(得嚴)과 법선(法善) 등 50인이 작업하였다. 또 영통사 스님 450명도 함께 역사(役事)하였다. [결락] 항식(恒式)을 삼았다. 또 묘하(墓下)에 묘지기가 있을 집을 짓고<sup>447)</sup> 백정<sup>448)</sup> 4명을 불러 살게 하고는 의식(衣食)을 공급해 주면서 묘를

436) 춘관(春官): 예조(禮曹)의 다른 이름. 반면에 추관(秋官)은 형조(刑曹)를 가리킨다.

437) 전간(全幹): 전기 미상.

438) 숙묘(肅廟): 고려 제15대 숙종 임금을 지칭.

439) 원외랑(員外郎): 주객원의외랑(主客員外郎)의 준말이니, 본비문 주127)주객원의외랑主客員外郎 p.443 참조.

440) 박호(朴浩): 숙종 5년(1100) 10월에 박호를 요(遼)에 보내어 천안절(天安節)을 축하하게 하였다. 『고려사』권11; 「대각국사묘지명大覺國師墓誌銘」 주7)박호朴浩 [고려편3] p.109 참조.

441) 묘지(墓誌): 장례식을 거행할 때 돌이나 전석(塼石)에 망자(亡者)의 전기를 간략하게 적어 묘속에 넣어 두는 기록.

442) 삼백인작지(三百人作之): 묘실(墓室)을 건축하는데 소요인원이 300명이나 되었다는 말.

443) 귀법사(歸法寺): 개성시 탄현문(炭峴門) 밖 송악산에 있던 절. 고려 광종 14년(963)에 균여(均如)스님과 인연이 깊었던 대성대왕(大成大王, 광종)이 균여를 위해 창건하였다.

444) 수대석(輸大石): 묘지에 사용되는 대석(大石)을 운반하였다는 말.

445) 독시지(督視之): 공사 현장을 감독하며 보살핀다는 말.

446) 기이(既而): 얼마 후 조금 지난 뒤.

수호(守護)토록 하였다.

國師墓室，在靈通寺東北隅，太史令，崔資顥，春官正全幹，奉肅廟聖旨，卜定其地，員外郎，朴浩，奉<sup>449)</sup>宣，述<sup>450)</sup>墓記。<sup>451)</sup>三<sup>452)</sup>重普滋，翼玄，重大師，融介，暹顯，朗機，都，[以下缺]，三百人，作之，歸法寺重大師，妙悅，忠現等 五百人，輸大石，覆其墓，皆三重。翼玄，督視之。旣而，營祭堂三間于墓南，靈通寺重大師，得<sup>453)</sup>嚴，法<sup>454)455)</sup>善等，五十人，作之。又役靈通寺僧，四百五十人，[以下缺]，恒式。又造家墓下，引<sup>456)</sup>白丁四人，居之，給衣食，使守墓。

임오년 5월<sup>457)</sup>에 지주사<sup>458)</sup>인 윤관<sup>459)</sup>이 성지(聖旨)를 받들어 국사의 비

447) 조가묘하(造家墓下) : 묘지기가 살 집을 묘하에 지었다는 말.

448) 백정(白丁) : 무위무관(無位無官)의 평민(平民). 백민(白民)이라고도 한다.

449)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奉임.

450)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述임.

451) [苑] [全文]에는誌, [總覽]에는記임.

452) [苑] [總覽]에는三과三字 사이에 15字 탈락됨.

453) [苑] [全文]의得과 [總覽]의佛은 어느字가 옳은지 미상임.

454)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法]임.

455) [苑] [總覽]에는法과恒字 사이에 18字가 탈락됨.

456)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引임.

457) 임오오월(壬午五月) : 고려 숙종 7년이니, 대각국사의 임적 다음 해인 1102년.

458) 지주사(知奏事)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의 정3품(正三品) 벼슬. 문종 때 제정. 정원은 1명.

459) 윤관(尹瓘) : ?~1111. 자는 동현(同玄). 본관은 파평(坡平).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추충좌리평응척지진국공신문하시중판상서이부사지군국중사(推忠佐理平戎拓地鎮國功臣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知軍國重事)가 되었다가 수태보문하시중판병부사상주국감수국사(守太保門下侍中判兵部事上柱國監修國史)에 올랐다.

(碑)를 영통사에 세우도록 허락을 받았다. 갑신년<sup>460)</sup>에 이르러 숙종이 경선원<sup>461)</sup>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태사령(太史令)인 최자호(崔資顥)와 춘관정(春官正) 전간(全幹)에게 명하여 터를 잡았다. [결락] 보자(普滋)[영녕원<sup>462)</sup>주], 삼중익현(三重翼玄)[중각원<sup>463)</sup>주], 중대사덕자(重大師德滋)[향해원<sup>464)</sup>주], 중대사진개(重大師眞介)[기방<sup>465)</sup>주] 등이 역사를 도맡아 관리하며 감독하였다.<sup>466)</sup> 중대사득묘(重大師得妙)[비라방<sup>467)</sup>주]는 식량을 주관하였고,<sup>468)</sup> 중대사승류(重大師勝流)[진관사<sup>469)</sup>]는 목재(木材)를 주선했으며, 중대사용개(重大師融介)[천태원<sup>470)</sup>]는 석재(石材)를 담당하였고, 단현(鍛賢)은 집사(執事)를 맡았으며, 품(稟) [결락] 정공(定宏) 등은 조수(助手)였고, 역승(役僧) 25명은 흥왕사의 중대사였다.

壬午五月日, 知奏事尹瓘, 奉聖旨, 許立國師碑靈通寺, 至<sup>471)</sup>

甲<sup>472)</sup>申<sup>473)</sup>年,<sup>474)</sup> 經始敬先院,<sup>475)</sup> 宣命大史令崔資顥, 春官正全

460) 갑신년(甲申年): 숙종 9년(1104)

461) 경선원(敬先院): 숙종이 선왕(先王)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영통사에 한 법당을 짓고 선경원(先敬院)이라 이름하였다.

462) 영녕원(永寧院): 영통사에 있는 일원(一院)인 듯함.

463) 중각원(重閣院): 영통사에 있는 일원인데 2층 건물인 듯함.

464) 향해원(香海院): 영통사에 있는 일원인 듯함.

465) 기방(岐房): 영통사에 있는 일원인데, 마치 아자방(亞字房)과 같이 Y字처럼 생긴 듯함.

466) 도관구역사(都管勾役事): 역사(役事)를 도맡아 관리 감독하는 소임이니, 현재의 도감(都監)과 같다.

467) 비라방(毘羅房): 영통사에 있는 일원인 듯하다.

468) 주곡(主穀): 묘지 축조를 하는 동안 대중의 양식을 주관하는 소임.

469) 진관사(眞觀寺): 경기도 개성군 용수산(龍首山) 기슭에 있던 절이니, 목종 2년(999) 태후(太后)의 원찰(願刹)로 창건하였다.

470) 천태원(天台院): 영통사에 있던 일원인 듯함.

471)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至임.

幹, 卜地, [以下缺], 普滋[永寧<sup>476)</sup>院主], 三重翼玄[重閣院主], 重大師德滋[香海院主], 重大師眞介[崎<sup>477)</sup>房主]等, 都管勾役事, 重大師得妙[毘<sup>478)</sup>羅<sup>479)</sup>房主], 主穀,<sup>480)</sup> 重大師勝流[眞<sup>481)</sup>觀<sup>482)</sup>寺], 主材,<sup>483)</sup> 重大師融介[天台院主], 石主鍛, 賢善, 爲執事, 稟, [以下缺], 定宏等, 助手役僧, 二十五人, 興王寺, 重大師.

석종(碩從)은 석공(石工)의 수장(首長)이며, 대사(大師)인 유영(有英), 신묘(神妙), 진헌(眞憲), 덕보(德甫) 등은 조수이고, 역승 25명과, 성(成)과 찬(贊), 김(金) 등 3인<sup>484)</sup>은 불무간에서 도구(道具) 단련(鍛鍊)을 맡았다.<sup>485)</sup> 그리하여 계사년<sup>486)</sup> 11월 일에 경선원(敬先院)이 낙성되었다.<sup>487)</sup> 청석(靑

472)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甲임.

473)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申임.

474)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年임.

475) [總覽]에는 院과 普字 사이에 15字가 탈락됨.

476)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寧임.

47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崎임.

478)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毘임.

479)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房임.

480)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穀임.

481)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眞임.

482)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觀임.

483) [總覽]에는 材와 定字 사이에 15字가 탈락됨.

484) 성찬가김삼인(成贊加金三人) : 성찬(成贊)과 가(加)와 김(金) 등의 3인인 듯함.

485) 석주단(石主鍛) : 돌을 다듬는데 필요한 불무, 숯불 등의 뒷바라지를 주관하는 소임.

486) 계사(癸巳) : 예종 8년(1113).

487) 경선원성(敬先院成) : 숙종 9년(1104)에 시작하여 9년만인 예종 8년(1113)에 낙성(落成)하였다.



石)은 몰돈산<sup>488)</sup>에서 채벌(採伐)하였고, 삼중인 익(翼) [결락] 단사<sup>489)</sup>와 석공(石工)을 겸하였으며, 중대사인 석종은 역사를 조역(助役)하였다. 귀법사(歸法寺)의 스님 35명이 이미 채벌한 청석을 하산(下山)하였으니, 이 35명과 홍왕사 천복원<sup>490)</sup>의 백정(白丁) 40명, 그리고 소 33두를 동원하여 석재를 제위보<sup>491)</sup>로 운반하였다. 귀법사 주지이며 수좌(首座)인 응선(應先)이 대중 500명을 거느리고 나와 조역하였다. [결락]

碩從<sup>492)</sup>与<sup>493)</sup>石工, 首大師, 有英, 神妙, 眞憲, 德甫等, 助手, 役僧二十五人, 成贊加金三<sup>494)</sup>人, 作鍛也. 至癸巳<sup>495)496)</sup>年, 十一月日, 敬先院成. 伐青石于沒頓山, 三重, 翼, [以下缺], 兼鍛事, 與石工, 重大師, 碩從助之役. 歸法寺僧, 三十五人, 既伐石下山, 此<sup>497)</sup>三十五人, 及興王寺, 薦福院,<sup>498)</sup> 白丁四十人, 並用牛三<sup>499)</sup>十三<sup>500)</sup>首, 輸石<sup>501)</sup>到濟危寶. 歸法寺主, 首座應先, 領衆

488) 몰돈산(沒頓山): 위치 미상이다. 혹시 무등산이 아닌가 함.

489) 단사(鍛事): 석공의 도구를 베푸는 야공(冶工).

490) 천복원(薦福院): 예종의 태후(太后)가 홍왕사내(興王寺內)에 한 별원(別院)을 짓고, 대각국사에게 수도하도록 부탁하였다.

491) 제위보(濟危寶): 이재민을 구제하는 계(契)이니, 불교의 민생복지 단체. 보(寶)는 계이니, 점찰보(占察寶), 대비보(大悲寶), 천복원, 자비원(慈悲院) 따위가 모두 민생구제를 위한 기구 공간이다.

492)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從임.

493) [苑] [全文]에는 爲, [總覽]에는 与로, 与는 與의 略字임.

494)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三임.

495) [苑] [全文]에는 巳, [總覽]에는 丑임.

496) [總覽]에는 巳와 兼字 사이에 19字 탈락됨.

49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此임.

498)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院임.

499) [苑] [全文]에는 三임.

500) [苑] [全文]에는 三, [總覽]에는 二임.

五百餘人, 出助, [以下缺].

이 비의 좌측(左側)에는 미륵당(彌勒堂)이 있다. 귀법사 대중은 모두 돌아갔다. 다음 날 영통사 대중 500여명이 경선원(敬先院) 동각(東閣)인 보광원(普光院) 전중(田中)에 있는 돌을 전외(田外)로 운반하였다. 석공은 중대사인 석종이고, 석장(石匠)은 해(該) [결락] 마음으로 용려(勇勵)를 수집(收集)하였다. 17일 동안 구형(龜形)을 조각하여 경선원의 동각에 안치하였다. 8년을 지난 이후 신묘년<sup>502)</sup>에 이르러 성주<sup>503)</sup>하되, “대각국사의 비가 영통사 서북쪽 근맥(根脈)에 있는데 지세가 불편하니 마땅히 다른 곳으로” [결락] 원충(元忠) 춘관정(春官正)인 전간(全幹)이 영통사에 와서 문도인 명공(名公)과 더불어 터를 잡아 식당(食堂)을 지었으니, 남랑외(南廊外)의 평지가 바로 이 지대이다.

此碑之左方, 彌勒堂, 遣歸法寺衆, 還之. 翌日, 以靈通寺衆五百餘人, 輸置敬先院東閣,<sup>504)</sup> 普光院田中, 有石, 半入于地. 石工, 重大師<sup>505)</sup>碩從, 石匠, 該, [以下缺], 心收集勇勵也. 一七日間, 問<sup>506)</sup>斲作龜形, 安置敬先院東閣. 踰八歲, 至辛卯年, 省奏, “大覺國師碑在寺, 西北根脈, 於勢不<sup>507)</sup>便宜, 更.” [以下缺], 元忠, 春官正全幹, 到寺, 與門徒名公, 卜擇, 得食堂, 南

501) [總覽]에는 石과 彌字 사이에 26자가 탈락됨.

502) 신묘년(辛卯年): 예종 6년(1111).

503) 성주(省奏): 왕에게 건의서를 올리는 것.

504) [苑] [全文]에는 閣, [總覽]에는 閣임.

505) [總覽]에는 師와 心字 사이에 5자가 탈락되었다.

506) [苑] [全文]에는 없고, [總覽]에만 있으니, 이는 삭제되어야 함.

507) [總覽]에는 不과 元字 사이에 5자가 탈락됨.

廊外平地, 卽今此地是也.

명년<sup>508)</sup> 2월에 이 홍왕사 대중 1,670명이 [결락] 혜선(慧宣)[靈通寺 善昭院과 興王寺 正覺院主]과 흥복사(興福寺) 주지며 승통인 익현(翼玄)[靈通寺 重覺院과 興王寺 無相院主]과 승선사<sup>509)</sup> [주지 수좌] 몽영(夢英)과 단향사<sup>510)</sup> 주지 [결락] 와 홍왕사 중대사인 세현(世賢), 신현(神現), 석중(碩從), 현한(玄漢) 등과 그리고 영통사 중대사인 점혜(占惠), 홍혜(洪惠), 지일(志一), 유충(惟沖), 석진(碩珍), 홍현(弘賢), 낭충(朗沖), 선선(善鮮), 진현(眞憲), 덕보(德甫), 위개(爲介), 묘현(妙賢), 행조(幸照), 현람(賢覽) [결락] 화사(畫師) 박근(朴瑾)은 비석의 사방곽연(四方廓緣)에 문양(紋樣)을 그리고,<sup>511)</sup> 석장은 교위<sup>512)</sup>인 임단<sup>513)</sup>이 새겨서 12월 20일에 완공하였다. 중대사인 세

508) 명년이월(明年二月): 예종 7년(1112).

509) 승선사(崇善寺): 경기도 개성에 있었는데, 광종 5년(954)에 승선사를 창건하여 선비(先妃)의 명복을 추도하였다. 『고려사』권2 참조.

510) 단향사(檀香寺): 개성에 있었는데 위치는 미상.

511) 화기연(畫其緣): 묘석(墓石)의 사방변단(四方邊端)에 장엄으로 새길 그림을 그렸다는 말. 예컨대 당초문(唐草文) 같은 것. 반야사(般若寺) 「원경왕사비문 元景王師碑」[『고려편3』 화보 pp.3~6 참조]에도 화려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512) 교위(校尉): 무산계(武散階)에 정6품상은 요무장군(耀武將軍), 하는 요무부위(耀武副尉). 중6품상은 진위교위(振威校尉), 하는 진무부위(振武副尉). 정7품상은 치과교위(致果校尉), 하는 치과부위(致果副尉). 중7품상은 익위교위(翊威校尉), 하는 익위부위(翊威副尉). 정8품상은 선절교위(宣折校尉), 하는 선절부위(宣折副尉). 중8품상은 어모교위(禦侮校尉), 하는 어모부위(禦侮副尉). 정9품상은 인용교위(仁勇校尉), 하는 인용부위(仁勇副尉). 중9품상은 배용교위(部戎校尉), 하는 배용부위(部戎副尉)임. 「혜소국사탑비문 慧昭國師塔碑文」 주321) 배용교위陪戎校尉 [『고려편2』 p.334; 「지광국사현묘탑비문」 주415) 배용교위陪戎校尉 [『고려편2』 p.394 등 참조.

513) 임단(林旦): 전기 미상.

현(世賢), 석종(碩從), 신중(申從), 신현(申現) 등은 공사를 지도하였다. 영통사 대중 450명 [결락] 문인 사자사<sup>514)</sup> 주지. 오(悟) [결락]

明年二月, 此興王寺衆, 一千六百七十人,<sup>515)</sup> [以下缺], 慧宣[靈通寺善炤院興王寺正覺院主], 福興寺住持, 僧統翼玄[靈通寺重閣院興王寺無相], 崇善寺[住持首座], 夢英, 檀<sup>516)</sup>香寺住持, [以下缺], 興王寺重大師, 世賢, 神現, 碩從, 玄漢, 靈通寺重大師, 占惠, 洪惠, 志一, 性沖, 碩珍, 弘現, 朗沖, 善解, 眞憲, 德甫, 爲介, 妙賢, 幸照, 賢覽,<sup>517)</sup> [以下缺], 朴瑾, 畫其緣, 石匠, 校尉林旦, 刻之 等刻字 畫士, 至十二月, 二十日, 畢工. 重大師, 世賢, 碩從, 申從, 指事. 以靈通寺衆,<sup>518)</sup> 四百五十<sup>519)</sup> 人,<sup>520)521)</sup> [以下缺], 門人, 師子寺, 住<sup>522)</sup>持, 悟<sup>523)</sup> [以下缺]

514) 사자사(師子寺): 사자갑사(獅子岬寺)라고도 하니, 경기도 개성 남쪽 사자산에 있던 절.

515)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人임.

516)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檀임.

517) [苑] [全文]에는 覽, [總覽]에는 탈락됨.

518) [苑]에는 탈락, [總覽]은 결락이며, [全文]에는 衆임.

519) [苑] [總覽]에는 탈락, [全文]에는 十임.

520) [苑] [總覽]에는 탈락, [全文]에는 人임.

521) [苑] [總覽]에는 ‘朴瑾畫緣 校尉林旦刻之’라 10자가 있으나, 이는 삭제하여야 함.

522)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住임.

523)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悟임.

【음기곽외陰記廓外】

대각국사 문도의 직명(職名)과 개좌(開坐), 그리고 비음(碑陰)은 좌와 같다.

문인 건불사<sup>524</sup> 주지 사문(沙門) 혜소<sup>525</sup>가 왕명을 받들어 쓰다.

大覺國師門徒，職名，開坐，碑陰，如左。

門人，見佛寺住持，沙門，慧<sup>526</sup>素，奉宣，書。

승통(僧統)

창원(昶元)[본래는 경덕국사(景德國師)의 문인이었으나, 국사가 젊었을 때 수학(受學)하였던 스님이며, 홍호사<sup>527</sup> 제1대 주지(住持)였다], 칭도(稱道)[본래는 경덕국사의 문인이었다], 이기(理琦)[본래는 경덕국사의 문인으로 국사가 젊었을 때 수학하였다], 사소(俟韶), 홍천(弘闡), 낙진<sup>528</sup>[본래는 경덕국사<sup>529</sup>

524) 건불사(見佛寺) : 운허(耘虛), 『불교사전佛敎辭典』에는 서호(西湖)의 건불사라 하였으나 건불사가 여러 곳에 있어서 어느 절인지 확실치 않다.

525) 혜소(慧素) : 대각국사의 제자. 내외(內外)의 모든 경전에 정통. 특히 시와 글씨에 조예가 깊었다. 대각국사가 입적한 뒤에 『행록行錄』10권을 엮었다. 서호의 건불사에 있을 때에는 방장실(方丈室)에 아무것도 없고, 다만 돛자리 같이 생긴 청석(靑石) 한 장을 두고 때때로 글씨를 썼다. 김부식이 벼슬을 그만 둔 뒤에 자주 찾아와서 도담(道談)을 나누었다. 왕이 그 이름을 듣고 내도량(內道場)으로 칭하여 『화엄경』을 강하게 하고, 백금(白金)을 많이 보냈다. 스님이 서호의 시를 짓고 부식이 이에 화운(和韻)하니, 듣는 이가 모두 화답하여 1천여 편이 되었다 한다. 영통사 대각국사비 음기(陰記)를 썼다. 『파한집破閑集』 참조.

526)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혜임.

527) 홍호사(弘護寺) : 경기도 개성 동쪽 영수산(靈秀山)에 있던 절.

528) 낙진(樂眞) : 반야사(般若寺) 원경왕사(元景王師)의 이름. 자는 자정(子正). 대각국사가 입송구법할 때 따라 갔던 제자 중 한 사람. 그의 행적비(行蹟碑)가 해인사(海印寺)에 있다.

의 문인이었으나, 국사가 입송구법(入宋求法)할 때 시종(侍從)하였으며, 예종 때 왕사에 책봉되었다, 기영(器英), 청서(聽諳), 선혜(宣慧). [이하 결락]

僧統<sup>530)</sup>

昶元[本是景德門人 師少時所咨 稟者 爲弘護寺 第一<sup>531)</sup>代主], 稱道  
[本景德門人], 理琦[本景德門人師少時所承受<sup>532)</sup>者], 俟韶, 弘<sup>533)</sup>闡,  
樂眞[本是景德門人 從<sup>534)</sup>師入宋求法至睿考時 封爲王師], <sup>535)</sup> 器英,  
聽諳, 宣慧, [以下缺].

수좌(首座)

학연(學淵), 인윤(仁允), 상영(爽英), 영선(靈善), 남효(南曉), 영헌(靈憲),  
창지(昶之), 융서(融諳), 현심(顯深), [이하 결락] 강명(講明), 숙견(宿堅), 고  
선(古先), 충세(充世), 신오(神悟), 보자(普滋), [이하 결락] 승조(承照), 몽영  
(夢英), 유엄(惟嚴), 언충(彦沖), 영법(靈法), 상지(相智), 현웅(顯雄), 처상  
(處常), 도린(道隣)[스승을 시봉하여 입송한자], 대진(代眞), 칙유(則由), 승  
관(承冠), 현준(賢濬), 혜온(慧溫).

首座.

學淵, 仁允, 爽英, 靈善, 南曉, 靈憲, 昶之, 融諳, 顯深, [以下

529) 경덕(景德): 대각국사의 은사(恩師). 속성은 김씨. 휘는 난원(爛圓). 김은부(金殷傳)의 아들. 시호는 경덕국사(景德國師). 1066년 10월 8일 세수 68세를 일기로 입적하였음.

530) [苑] [總覽]에는 統. [全文]의 就는 統의 오자임.

531)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一임.

532)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受임.

533) [苑] [總覽]에는 결락이나, [全文]에는 弘임.

534) 從이하 '師入宋求法至睿考封爲王師' 12자가 있음.

535) [總覽]에는 器와 以字의 사이에 6자가 탈락됨.

缺] 講明, 宿堅,<sup>536)</sup> 古先, 充世, 神悟, 普滋, [以下缺] 承照, 夢英, 惟儼, 彥沖, 靈法, 相智, 顯雄, 處常, 道隣<sup>537)</sup> [從師入宋者], 代眞,<sup>538)</sup> 則由, 承冠, 賢濬, 慧溫.

### 삼중대사(三重大師)

영현(令玄), 선기(善機), 간영(幹英), 교영(教英), 영천(英闡), 광자(廣慈) [이상은 본래 경덕국사의 문인이었다], 방고(芳古), 홍열(洪悅), 도진(道眞), 선엄(善嚴), 수개(壽介) [국사가 입송구법(入宋求法)할 때 시종(侍從)하였던 제자이다], 응선(應宣), 성준(成俊), [결락] 원련(圓璉), 신이(神珥), 이승(利崇), 유간(裕幹), 연현(挺賢), 영인(靈印), 청혜(淸慧), 계부(戒膚), 유청(惟淸), 창균(昶均), 정현(正玄), 담주(曇柱), 덕칭(德稱), 자수(資守), 혜시(慧示). [이하 결락]

### 三重大師.

令玄, 善機, 幹英, 教英, 英闡, 廣慈 [己上本景德門人], 芳古, 洪悅, 道眞, 善嚴, 壽<sup>539)540)</sup> 介 [從師入宋者], 應宣, 成俊, [以下缺] 圓璉, 神珥,<sup>541)</sup> 利崇, 裕幹, 挺賢, 靈印, 淸慧, 戒膚,<sup>542)</sup> 惟淸, 昶均, 正玄,<sup>543)</sup> 曇柱, 德稱, 資守, 慧示. [以下缺]

536) [總覽]에는 堅과 承字의 사이에 8字가 탈락됨.

537) [苑] [全文]에는 隣. [總覽]의 隣은 隣의 오자임.

538) [總覽]에는 眞과 令字의 사이에 8字가 탈락됨.

539) [總覽]은 結락이나 [苑] [全文]에는 壽임.

540) [總覽]에는 壽와 以字 사이에 7字가 탈락됨.

541) [苑] [總覽]의 景과 [全文]의 珥는 어느 字가 옳은지 미상임.

542) [苑] [總覽]에는 膚. [全文]의 膚는 膺의 오자임.

543) [總覽]에는 玄과 以字 사이에 8字가 탈락됨.

## 중대사(重大師)

응주(應周), 향현(向玄), 응수(應守), 충지(聰智), 소여(紹餘), 교침(敎琛), 고충(古沖), 명서(明誥), 계풍(戒豐), 계명(繼明), 조진(照眞), 순명(順明), 수명(守明), 재종(在宗), 종해(從海), [이하 결락] [이상 본래는 경덕국사의 문인이었다], 상기(上機), 일자(日滋), 선기(先器), 강진(講眞), 응성(應成), 준신(俊神), 점승(占崇), 양□(亮□), 유철(惟哲), 성서(成誥), 지명(志明), 영관(英冠), 법연(法緣), 응충(應沖), 서자(誥資), 융현(融現), 수남(守南), 현서(玄誥), 응청(應淸), 수천(壽千), 적지(迪之), 의자(義滋), 연영(挺英), 처영(處英), 의지(義持), 진서(珍誥), 인현(仁賢), 성유(成裕), 행□(幸□), [이하 결락] 혜충(慧沖), 치수(縑秀), 득기(得機), 염진(念眞), 묘자(妙慈), 영치(靈致), 혜고(慧高), 홍기(洪機), 유오(猶吾), 현(玄), [이하 결락] 파(派), [이하 결락] 경성(經成), 양변(良辯)[국사가 임송구법할 때 시종하였던 제자], 혜방(慧芳), [이하 결락] 유정(裕貞), 주관(周冠), 광현(廣賢), 성영(性英), 서정(誥貞), 법상(法常), 법창(法暢), 숭서(崇誥), 순웅(順雄), 유순(惟順), 융개(融介), 섬현(暹現), 법오(法悟), 개□(介□), [이하 결락] 경유(景猷), 성련(成璉), 승유(勝流), 석운(釋雲), 인준(因俊), 도운(道雲), 진감(珍鑑), 복원(復元), 유승(惟勝), 원량(元亮), 종감(宗鑑), 칭현(稱現), [이하 결락] 혜소(慧素), 혜겸(慧謙), 관선(觀宣), 혜당(慧幢), 혜관(慧觀), 혜묘(慧妙), 혜남(慧南), 혜오(慧悟), 준린(俊隣), 언각(彦覺), 법□(法□), 성조(性照), 해경(海瓊), [이하 결락] 혜엄(慧嚴), 명개(明介), 변진(辯眞), 주민(周敏), 주윤(周潤), 교진(敎珍), 정소(定韶), 성관(性觀), 회원(懷遠), 혜진(慧璫), 소근(笑瑾), 영□(英□), 계현(繼玄), [이하 결락] 혜인(慧仁), 선련(善連), 정진(正眞), 성진(性眞), 계웅(戒雄), 웅조(雄照), 계호(戒瑚), 혜경(慧敬), 혜량(慧良), 혜약(慧約), 계여(戒如), 도종(道宗), 상선(尙先), 성신(成信), 예관(銳觀), 현오(玄悟), 영기(穎機), 혜심(慧深), 경순(景純), 숭묘(崇妙), 증현



(證玄), 석진(釋銓).

重大師.

應周, 向玄, 應守, 聰智, 紹餘, 教琛, 占<sup>544)</sup>沖,<sup>545)</sup>明諤, 戒豐, 繼明, 照眞, 順明, 守明,<sup>546)</sup>在宗, 從海, [以下缺] [已上本景德門人], 上機, 日滋, 先器, 講眞, 應成, 俊神, 占崇, 亮<sup>547)</sup>□,<sup>548)549)</sup>惟哲, 成諤, 志明, 英冠, 法緣, 應沖, 諤資, 融現, 守南玄諤, 應清, 壽千, 迪之, 義滋, 挺英,<sup>550)</sup>處英, 義持, 珍諤, 仁賢, 成裕, 幸□, [以下缺] 慧沖, 緇秀, 得機, 念眞, 妙慈, 靈致, 慧高, 洪機, 猶吾<sup>551)</sup>玄, [以下缺] 派, 經成, 良辯[從師入宋者], 慧芳, [以下缺] 裕貞, 周冠, 廣賢, 性英, 諤貞, 法常, 法暢, 崇諤, 順雄, 惟<sup>552)</sup>順, 融介, 暹現, 法悟, 介□, [以下缺] 景<sup>553)</sup>猷, 潤諤, 成璉, 勝流, 釋雲, 因俊, 道雲, 珍<sup>554)</sup>鑑, 復元, 惟勝,<sup>555)</sup>元亮, 宗鑑, 稱現, [以下缺] 慧素, 慧謙, 觀宣, 慧幢, 慧觀, 慧妙, 慧南, 慧悟, 俊隣, 彥覺,<sup>556)</sup>法□, 性照, 海瓊, [以下缺] 慧嚴, 明介, 辯眞,

544) [苑] [總覽]에는 占, [全文]의 古는 占의 오자임.

545) [苑] [總覽]의 沖과 [全文]의 沖은 같은 글자임.

546) [總覽]에는 明과 以字 사이에 10字가 탈락됨.

54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에는 亮임.

548) [苑] [總覽] [全文] 등에 모두 결락으로 표시되었음.

549) [總覽]에는 口와 諤字 사이에 12字가 탈락됨.

550) [總覽]에는 英과 以字 사이에 12字가 탈락됨.

551) [總覽]에는 吾와 裕字 사이에 10字가 탈락됨.

552) [總覽]에는 惟와 以字 사이에 9字가 탈락됨.

553) [苑] [全文]에는 景, [總覽]에는 是임.

554) [苑] [總覽]의 眞과 [全文]의 珍은 뜻으로는 무방하나, [全文]의 珍이 나올 듯함.

555) [總覽]에는 勝과 以字 사이에 6字가 탈락됨.

556) [總覽]에는 覺과 以字 사이에 6字가 탈락됨.

周敏, 周潤, 教珍, 定韶, 性觀, 懷遠, 慧臻,<sup>557)</sup> 笑瑾, 英□, 繼玄, [以下缺] 慧仁, 善連, 正眞, 性眞, 戒雄, 雄照, 戒瑚, 慧敬, 慧良, 慧約,<sup>558)</sup> 戒如, [以下缺] 道宗, 尚先, 成信, 銳觀, 玄悟, 穎機, 慧深, 景純, 崇妙, 證玄,<sup>559)</sup> 釋詮. [以下缺]

#### 대사(大師)

사준(思俊), 창영(唱英), 이영(利英), 담영(湛靈), 연성(挺成), 경융(慶融), 청련(淸璉), 혜선(慧先), 종철(宗哲), 의굉(義宏), 자강(自強), 혜□(慧□), 이선(利宣), 혜천(慧千), 교원(敎元), 조상(照常), [이하 결락]

#### 大師.

思俊, 唱英, 利英, 湛靈, 挺成, 慶融, 淸璉, 慧先, 宗哲, 義宏,<sup>560)</sup> 自強, 慧□, 利宣, 慧千, 敎元, 照常, [以下缺]

#### 대덕(大德)

자녕(自寧), 혜준(慧俊), 혜균(慧均), 성여(性如), 관규(冠規), 인영(仁永), 유백(惟白), 혜선(慧善), 정단(正端), 지원(志圓), 점상(占常), 법규(法規), [이하 결락]

#### 大德.

自寧, 慧俊, 慧均, 性如, 冠規, 仁永, 惟白, 慧善, 正端, 志圓,<sup>561)</sup> 占常, 法規, [以下缺]

557) [總覽]에는臻과以字 사이에 6자가 탈락됨.

558) [總覽]에는約과以字 사이에 2자가 탈락됨.

559) [總覽]에는玄과以字 사이에 2자가 탈락됨.

560) [總覽]에는宏과利字 사이에 4자가 탈락됨.

561) [總覽]에는圓과以字 사이에 4자가 탈락됨.

이상의 문도명단(門徒名單)은 성지(聖旨)를 받들어 시행(施行)한 것이다.

右, 奉聖旨, 施行.

[비신(碑身)의 높이(高)는 9척6촌5분(九尺六寸五分), 폭(幅)은 5척2촌(五尺二寸), 표면(表面)과 이면(裏面)의 글자 간격은 6분(六分), 이면 광내(郭內)의 글자 간격은 8분(八分), 모두 해서(楷書)이다. 제액(題額)의 글자 간격은 3촌(三寸)이며 전서(篆書)이다.]

[揭載]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上, pp.362~385.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上, pp.305~316.

『한국금석전문韓國金石全文』中世上, pp.574~587.

조명기(趙明基) 저(著), 『고려대각국사와 천태사상』





順天松廣寺佛日普照國師碑文

【09.순천송광사불일보조국사비문】





## 09. 순천 송광사불일보조국사비문\*

順天松廣寺佛日普照國師碑文

있는 곳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송광사

세운 때 : 고려 강종 2년 계유(1213)

所在 : 全羅南道 順川市 松光面 新坪里 松廣寺

年代 : 高麗 康宗 2年 癸酉(1213)

\* 이 비문은 지눌(知訥)이 1210년(희종6) 3월 27일 세수 53세를 일기로 입적(入寂)함에 따라 사법제자(嗣法弟子)인 혜심(慧諶) 등이 스님의 행장(行狀)을 갖추어 임금께 주문(奏聞)하였다. 희종 임금은 학사장사랑(學士將仕郎) 예부상서(禮部尙書) 김군수(金君綏)에게 명하여 비문을 짓게 하는 한편, 문림랑(文林郎) 유신(柳伸)으로 하여금 글씨를 쓰게 하여 입적 다음해인 1211년 12월에 비석을 세웠다. 이에 따라 입비총감독(立碑總監督)은 내시창락궁록사(內侍昌樂宮錄事) 김진(金振)이며, 각자(刻字)는 전전(殿前)인 보창(寶昌)이 맡았다. 이와 같이 세워진 비가 임진왜란 때 병화(兵火)로 귀부(龜趺)만 남고 모두 파괴되었다. 이에 1678년(숙종 4) 다시 비를 세우게 된다. 성충(性聰: 1631~1700)이 김군수가 지은 비문(碑文)에 약간의 필삭(筆削)을 가한 산거약간본(刪去若干本)을 대본으로 하여, 비음(碑陰)은 묘현(妙玄)스님이 짓고, 최치웅(崔致翁)이 쓰고, 이우(李俱: 1637~1693)가 전액(篆額)을 썼다. 수초(守初: 1590~1668)·처능(處能: 1617~1680) 등의 도움을 받아 설명(雪明)의 총감독으로 이시석(李時碩)·유일(唯一) 등이 새겨서[刻字]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 본편에서는 [通史]에 실려 있는 김군수의 원비문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하고, 필요에 따라 [總覽]과 비교하여 교감하였다.

승평부(昇平府)<sup>1)</sup> 조계산(曹溪山) 송광사(松廣寺) 불일보조<sup>2)</sup> 국사(國師)  
비명과 아울러 서문.

昇平府, 曹溪山, 松廣寺, 佛日普照國師, 碑銘, 并序.

지공주사<sup>3)</sup> 부사<sup>4)</sup> 겸 권농사<sup>5)</sup> 관구<sup>6)</sup> 학사<sup>7)</sup> 장사랑<sup>8)</sup> 겸예부<sup>9)</sup> 상서(尙書)이

- 1) 승평부(昇平府): 전라남도 순천시의 옛 이름.
- 2) 불일보조(佛日普照): 1158~1210. 휘는 지눌(知訥). 호는 목우자(牧牛子). 시호는 불일보조. 탑호(塔號)는 감로탑(甘露塔). 속성은 정씨(鄭氏). 동주(洞州: 黃海道 瑞興郡) 출신.
- 3) 지공주사(知公州事): 공주군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임무(任務)이니, 곧 군수(郡守)라는 뜻.
- 4) 부사(副使): 일반적으로 사(使) 다음가던 관직. 고려 때 광흥창(廣興倉)·연경궁(延慶宮)·영조국(營造局)·요물고(料物庫)·자섬사(資贍司)·자운방(紫雲坊)·잡작국(雜作局)·제용사(濟用司)·염직국(染織局)·태상부(太常府)·풍저창(豐儲倉) 등에 소속된 관직. 품계(品階)는 5~6품(品)의 사이였다. 지공주사부사(知公州事副使)란 관주부군수라는 말이다.
- 5) 권농사(勸農使): 고려 때 지방에 파견하던 임시 관직. 이들은 지방의 특산물을 받아서 개경(開京)에 있는 대관(大官)들에게 보내어 벼슬이 잘 올라갔으므로, 권농사가 되려는 사람이 많았으며, 또한 이들의 폐해가 매우 심하기도 했다. 또 권농사는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의창(義倉)의 쌀과 소금을 나누어 난민을 구하거나, 곡식을 나누어서 경작하게 하도록 하는 일도 하였다. 조선조에 와서는 권농관(勸農官)으로 개칭되었다.
- 6) 관구(管勾): 관구(管勾)와 같은 말이니, 구(勾)는 구(句)와 같은 자(字)이다. 관직의 이름. 곧 관리구계(管理勾稽)의 준말로써, 주어진 공무(公務)를 맡아 주관(主管)하여 처리한다는 뜻.
- 7) 학사(學士): 고려 때의 관직. 제관전(諸館殿)에 속해 있었으며, 문신(文臣) 중에서 뛰어난 학자(學者)들이 뽑혀 왕을 시종(侍從)하는 일을 하였다.
- 8) 장사랑(將仕郎): 고려 때의 문산계(文散階). 문종(文宗: 1046~1083)의 관계 개혁 때 제정된 것으로 품계는 종9품하였다.
- 9) 예부(禮部): 고려 때의 관청. 제향(祭享)·조회(朝會)·학교(學校)·교빙(交聘)·과거(科擧)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관원(官員)으로는 상서(尙書), 시랑(侍



며 자금어대<sup>10)</sup>를 하사받은 신 김군수<sup>11)</sup>가 왕명(王命)을 받들어 비문을 짓고,

문림랑<sup>12)</sup>이며 신호위<sup>13)</sup>장인 신 유신<sup>14)</sup>은 왕명을 받들어 비문을 쓰다.

知公州事副使, 兼勸農使管勾, 學士將仕郎, 兼禮部尚書, 賜紫金魚袋, 臣, 金君綏, 奉宣, 撰,  
文林郎, 神號衛長, 臣, 柳伸, 奉宣, 書.

선나학<sup>15)</sup>의 근원은 가섭존자<sup>16)</sup>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인도의 제28

郎), 낭중(郎中), 원외랑(員外郎) 등을 두었다. 1356년에 의조(義曹)로 개칭, 1389년에 예조(禮曹)로 개칭하였다.

- 10) 자금어대(紫金魚袋): 「대각국사비문大覺國師碑文」 주17) 자금어대紫金魚袋 본서 p.430 참조.
- 11) 김군수(金君綏): 고려의 문신(文臣). 호는 설당(雪堂). 본관은 경주(慶州). 부식(富弼 1075~1151)의 손자. 돈중(敦中 ?~1170)의 아들. 글도 잘했고, 죽화(竹畵)를 잘 쳤다.
- 12) 문림랑(文林郎): 고려 때의 문산계(文散階). 문종 때 29품계 중 종9품상을 문림랑으로 정했다. 1298년에는 9품을 통사랑(通仕郎)으로 개칭했다.
- 13) 신호위(神號衛): 신호위(神虎衛)라고도 한다. 고려 때 국방을 담당한 육위(六衛) 중의 하나. 보승(保勝)의 오령(五領; 1령의 正規軍은 千名)과 정용(精勇)의 이령(二領)으로 조직, 상장군(上將軍; 正3品) 1인, 대장군(大將軍; 從3品) 1인, 장군(將軍; 正4品) 7인, 중랑장(中郎將; 正5品) 14인, 낭장(郎將; 正6品) 35인, 별장(別將; 正7品) 35인, 산원(散員; 正8品) 35인, 위(尉; 正9品) 140인, 대정(隊正; 從9品) 280인 등이 배속되었다.
- 14) 유신(柳伸): ?~1104. 고려 문신. 서예가. 초명(初名)은 인(仁). 특히 행서(行書)·초서(草書)를 잘 써서 신라의 김생(金生: 711~791)·고려의 탄연(坦然: 1070~1159)·최우(崔瑀: ?~1249)에 이어 넷째가는 명필로 꼽혔다.
- 15) 선나지학(禪那之學): 선학(禪學)이라는 뜻.
- 16) 가섭파(迦葉波): ㉠ Kāśyapa, ㉡ Kassapa. 일반적으로 가섭(迦葉)이라 약칭함. 부처님으로부터 정법안장(正法眼藏)을 전해 받은 수제자(首弟子)이며, 인도에서의 28조 중 제1조. 음광(飲光)이라 번역됨.

조인 달마대사가 이어받아 와서 진단<sup>17)</sup>을 교화하였다. 이를 전해 받은 자들은 전하는 바 없이(不傳)으로써 전(傳)하였으며, 이를 닦는 사람들은 닦음이 없는 것(無修)으로써 닦아 엽엽(葉葉)이 상승(相承)하며 등등(燈燈)이 함께 비추었으니, 참으로 어찌 그리 기이(奇異)한 것인가!<sup>18)</sup> 부처님께서 열반하신지 더욱 오래되어 불법(佛法)도 따라서 해이하여져서 학자들이 말로 베푼 것(陳言)<sup>19)</sup>만을 고수하여 밀지(密旨)를 망각할 뿐 아니라, 근본(根本)은 버리고 지말(枝末)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관찰(觀察)하여 깨달아 들어가는(悟入) 길이 막히고<sup>20)</sup> 문자로 희론(戲論)하는 발단(發端)이 봉기(鋒起)함으로써 정법안장(正法眼藏)은 거의 땅에 떨어졌다.

禪那之學源，出於迦葉波。達磨得之，來化震旦。傳之者，以不傳而傳。修之者，以無修而修，葉葉相承，燈燈并耀，一何奇也。暨乎去聖彌遠，法隨而弛，學者，守陳言，迷密旨，棄本而逐末。於是乎，觀察悟入之路茅塞，文字戲論之端鋒起，而正法眼藏，幾墜乎地。

17) 진단(震旦) : 인도에 있어 고대(古代) 중국(中國)을 일컫는 말(Chinistan). 진단(眞丹)·진단(震丹)·진단(振旦) 등으로도 칭함. 진(震)은 팔괘(八卦) 중 동방에 해당함. 해가 뜨는 쪽에 있다 하여 서축(西竺)인 인도에서 동토(東土) 곧 중국을 가리키는 말. 중국을 지나(支那)라고 한 것도 이 진단에서 유래(由來)된 것이다. 또는 진(震)은 진(秦)의 음(音)이 전(轉)한 것이라고도 한다.

18) 일하기야(一何奇也) : ‘참으로 어찌 그리 기이(奇異)한가.’라는 뜻이다.

19) 진언(陳言) : 오래된 낡은 말, 새로운 말이 아니고 묵은 말, 뜻을 반조(返照)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늘어 놓는 것이니, 여기서는 경전(經典)의 언어에만 국집한다는 것이다.

20) 모색(茅塞) : 때가 우거져 황무지가 되어 길을 막듯이, 사람의 마음이 사욕(私慾) 때문에 가리워짐을 말함.

이러한 때에 한 스님이 있어, 홀로 부위(浮僞)한 세속을 등지고 바르고 참된 종(宗)을 흠모하였으니, 언전(言詮)을 연마하여<sup>21)</sup> 진리에로 나아가는 데에서 시작하여 선정(禪定)을 닦아 지혜를 발명(發明)하는 것으로 마치고, 이러한 경지를 체득한 다음에는 이타(利他)인 법시(法施)에 전력하는 한편, 침체된 선풍(禪風)을 다시 진작(振作)하여 어두워진 조월(祖月)을 거듭 밝게 하였다. 만일 그러한 자 있다면 참으로 가섭(迦葉)의 적손(嫡孫)이며 또한 달마(達磨)의 종자(宗子)로서 잘 이어받고 훌륭하게 조술(祖述)한 사람이라 할 만하다. 우리 스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 하겠다.

於此，有人焉，獨能背浮僞之俗，慕正真之宗，始於尋詮而詣理，終於修定以發慧，既得乎己兼施諸人，使禪風寢而復振，祖月晦而更明。若然者，可不謂迦葉之嫡孫，達磨之宗子，善繼善述者乎，繫我國師是已。

스님의 휘(諱)는 지눌(知訥)이니 경서<sup>22)</sup>의 동주<sup>23)</sup> 출신이다. 자호(自號)는 목우자(牧牛子)이며, 속성은 정씨(鄭氏)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광우(光遇)이니 국학<sup>24)</sup> 학정<sup>25)</sup>을 역임하였으며, 어머니는 조씨(趙氏)이니 개흥군<sup>26)</sup>

21) 심전(尋詮) : 말의 뜻을 탐구함이니, 능전교체(能詮教體)인 경전의 문자(文字)를 탐구하여 진리의 내면세계(內面世界)로 나아가간다는 뜻.

22) 경서(京西) : 개성의 서쪽이란 뜻이니, 황해도 서흥군(瑞興郡)을 지칭함.

23) 동주(洞州) : 황해도 서흥(瑞興).

24) 국학(國學) : ①신라시대에 비롯된 교육 기관으로 고려시대에는 국자감(國子監)이라 하였으며 고려후기에는 성균관(成均館)이라 하였다. ②자기 나라의 전통적인 경학(經學)·사학(史學)·어문학(語文學)·불교학(佛敎學)·고고학(考古學)·지지(地志)·풍속(風俗) 등을 연구하는 학문.

25) 학정(學正)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의 정9품 관직. 정원(定員)은 2명으로 문종 때 설치되었다.

26) 개흥군(開興郡) :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온정면(배천)의 옛 이름.

부인이다. 스님은 날 때부터 병이 많아 백약(百藥)이 무효였다.<sup>27)</sup> 그리하여 아버지가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만약 병을 낫게 하여 주시면 출가시켜 부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서원을 세우자마자 병이 곧 완쾌되었다.

師諱知訥, 京西洞州[今瑞典郡]人也. 嘗自號爲牧牛子, 俗姓鄭氏. 考光遇, 國學學正, 妣趙氏, 開興郡夫人. 生而多病, 醫理不效. 考迺禱佛, 誓以出家疾尋癒.

8살 때에 조계종(曹溪宗)의 운손<sup>28)</sup>인 종휘선사<sup>29)</sup>를 은사로 하여 삭발하고 스님이 되었다. 이어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다음, 불교를 수학(受學)하되 일정한 스승을 두지 않고, 오직 도덕이 높은 스님이면 곧 찾아가서 배웠다. 지조가 고매(高邁)하여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sup>30)</sup>

年甫八歲, 投曹溪雲孫宗暉禪師, 祝髮受具戒, 學無常師, 唯道

27) 의리(醫理): 의사의 치료 또는 의료행위라는 뜻.

28) 운손(雲孫): 조계운손(曹溪雲孫)이란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강원도 명주군 구정면(邱井面) 학산리(鶴山里) 사굴산의 굴산사(崛山寺) 개산조인 범일국사(梵日國師)의 팔대법손(八代法孫)이라는 말이다. 자기(自己)로부터 8대손(代孫)의 법손(法孫; 自己·子·孫·曾孫·玄孫·來孫·昆孫·仍孫·雲孫)이니, 일대왈자(一代曰子), 이대왈손(二代曰孫), 삼대왈증손(三代曰曾孫), 사대왈현손(四代曰玄孫), 오대왈래손(五代曰來孫), 육대왈곤손(六代曰昆孫), 칠대왈잉손(七代曰仍孫), 팔대왈운손(八代曰雲孫)이다. 또 운손이 6대손이란 설도 있으니, 『변아駢雅』, 「석명칭釋名稱」에 손(孫)의 자(子)가 일세(一世)이니 증손(曾孫), 이세(二世)는 현손(玄孫), 삼세(三世)는 내손(來孫; 一曰耳孫), 사세(四世)는 곤손(昆孫), 오세(五世)는 잉손(仍孫), 육세(六世)는 운손(雲孫)이라 하였다.

29) 종휘선사(宗暉禪師): 보조국사 지눌(知訥)의 은사스님이나, 전기는 미상이다.

30) 헌헌(軒軒): 헌헌하거(軒軒霞舉)의 준말. 노을 속에서 천봉(天棚)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모양. 곧 자득(自得)하며 자적(自適)함이 군중(群衆)에서 빼어난 모습. 『세설신어世說新語』「용지容止」에 “諸公每朝 朝堂猶暗 惟會稽王 來軒軒如朝霞舉”라 하다.

之從。志操超邁，軒軒如也。

25살 때인<sup>31)</sup> 대정 22년<sup>32)</sup> 임인(壬寅)에 대선고시(大選考試)에 합격하였다.<sup>33)</sup> 그 후 얼마되지 않아 남방(南方)으로 유행(遊行)하다가 창평<sup>34)</sup> 청원사<sup>35)</sup>에 이르러 주석하였다. 우연히 어느 날 학료(學寮)에서 『육조단경六祖壇經』<sup>36)</sup>을 보다가 정혜일체(定慧一體) 제삼과(第三科)에 이르러 “진여자성

- 31) 이십오(二十五) : 지눌(知訥)이 25살 때란 말이니, 지눌의 출생 연대는 1158년으로 25세 때는 곧 1182년. 고려 명종 12년에 해당된다.
- 32) 대정이십이년(大定二十二年) : 대정은 금(金)나라 세종 연호이고, 대정 22년은 고려 제19대 명종 12년(1182)에 해당된다.
- 33) 거승선중지(學僧選中之) : 거국적(舉國的)으로 승가(僧伽)에게 보게 하는 대선고시(大選考試)에 합격하였다는 말. 전국의 스님들이 개성 보제사(普濟寺)에 모여서 보는 대선고시에 합격하였다는 뜻이다.
- 34) 창평(昌平) : ①평안북도 삭주군(朔州郡) 동남쪽 90리 지점에 위치하다 ②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이다. 그러나 청원사(淸源寺)가 경기도 양성(陽城 현제의 安城郡)에 있었던 절이므로, 안성 지방에 있던 지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위치는 확실치 않다.
- 35) 청원사(淸源寺) : 청원사(靑原寺)이니 사적은 미상하고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10 「양성현陽城縣」 ‘불우佛宇’에 따르면 청원사는 천덕산(天德山)에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 천덕산은 양성현(陽城縣) 서쪽 2리, 진위현(振威縣)의 동쪽 5리 지점에 위치한 양성의 진산(鎭山)이라 하였다.
- 36) 육조단경운운(六祖壇經云云) : 지눌(知訥)이 1185년 승선(僧選)에 급제한 다음 창평(昌平) 청원사에 주석하면서 어느 날 학료(學寮)에서 『육조단경六祖壇經』을 보다가 정혜일체(定慧一體) 제삼과(第三科) 중에 “…… 善知識 無者 無何事 念者 念何物 無者 無二相 無諸塵勞之心 念者 念眞如本性 眞如 卽是念之體 念卽是眞如之用 眞如自性 起念 非眼耳鼻舌 能念眞如自性 所以起念 眞如若無 眼耳鼻色聲 當時卽壞 善知識 眞如自性 起念 六根 雖有見聞覺知 不染萬境 而眞性常自在 故 經云 能善分別諸法相 於第一義而不動”이란 句節에 이르러 미증유(未曾有)의 경지(境地)를 얻었다. 「진각국사대각원조담비문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文」주42)보조국사사대감선사普照國師師大鑑禪師 [고려편4] p.500 ; 『육조단경』「정혜일체定慧一體」‘제삼과第三科’(대정장48, p.353a~b) 등 참조.

(眞如自性)이 기념(起念)하여 육근(六根)이 비록 견문각지(見聞覺知)하나 삼라만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진여의 성은 항상 자재(自在)하다”는 구절에 이르러 깜짝 놀라 크게 기꺼워하였으니 미증유(未曾有)의 경지를 얻었다. 곧 일어나 불전(佛殿)을 돌아다니면서 외우고 생각하니 스스로 체험한 바가 컸다. 이 때부터 마음은 명리(名利)를 싫어하고 항상 깊은 산중에 숨어 각고정진(刻苦精進)하면서 도를 닦되, 조차<sup>37)</sup>의 위급한 경우에도 구도(求道)의 정신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二十五, 以大定二十二年壬寅, 舉僧選中之. 未幾南遊, 抵昌平清源寺, 住錫焉. 偶一日, 於學寮, 開六祖壇經, 至曰“眞如自性起念, 六根雖見聞覺知, 不染萬像, 而眞性常自在.” 乃驚喜, 得未曾有. 起繞佛殿, 頌而思之, 意自得也. 自是, 心厭名利, 每欲棲遁林壑, 艱恬以求其道, 造次必於是.

대정 25년<sup>38)</sup> 을사년에 이르러 하가산<sup>39)</sup> 보문사<sup>40)</sup>로 옮겨 주석하던 중, 대장경(大藏經)을 열람하다가, 이장자(李長者)가 지은 『화엄경합론華嚴經合』

37) 조차(造次): 조차전패(造次顛沛)의 준말. ①창졸간 ②별안간 ③눈 깜짝할 사이 ④발을 헛딛고 아차 넘어지는 사이에라는 뜻. 『논어論語』「이인리仁」에 “君子 無終食之間 違仁, 造次 必於是, 顛沛 必於是”라 하다.

38) 대정이십오년(大定二十五年): 대정은 금(金)나라 세종대의 연호. 25년은 고려 명종 15년(1185).

39) 하가산(下柯山): 하가산(下駕山) 또는 학가산(鶴駕山)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24 「예천군體泉郡」‘산천山川’에 하가산은 예천읍 동쪽 31리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40) 보문사(普門寺):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普門面) 수계리(首溪里) 학가산에 자리하고 있는 절. 677년(문무왕 17)에 의상조사(義湘祖師)가 창건하고, 1184년에 보조국사 지눌(知訥)이 중창하였으며, 조선조 태종 7년 정해(1407)에 교종(敎宗)에 예속되었고, 1926년에 최성환(崔成煥) 주지가 중수하였다.

論』<sup>41)</sup>을 보다가 거듭 신심(信心)을 일으켜 화엄경의 오묘한 이치를 찾아내고,<sup>42)</sup> 깊이 숨어 있는 난해한 뜻을 드러내어<sup>43)</sup> 제가(諸家)의 설(說)과 비교하여 더욱 정통하였다.<sup>44)</sup> 이에 따라 전해(前解)가 점점 밝아져<sup>45)</sup> 항상 마음을 원돈관문(圓頓觀門)에 두었으며, 또한 말학<sup>46)</sup>들의 미몽(迷蒙)을 인도

- 41) 이장자화엄론(李長者華嚴論) : 이장자는 이통현장자(李通玄長者)이니 조백대사(栢樹大士)라 한다. 당나라 개원년간(開元年間, 713~741)의 거사(居士)로서 당조(唐朝)의 왕족(王族)이라 하나, 어느 왕손(王孫)인지는 확실치 않다. 신장(身長)은 7척여(尺餘)이고 눈썹이 눈을 덮었고 허리에는 띠를 띠지 않았으며, 발에는 신을 신지 아니하였다. 고금(古今)의 일에 해박(該博)하고, 유석(儒釋)에 두루 정통하였다. 719년(개원 7)에 『신화엄경新華嚴經』 80권을 가지고 부우현(部孟縣) 서남쪽 대현촌(大賢村)의 고산노가(高山奴家)에 이르러 편방(偏房)에서 『합론습論』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3년간 문밖을 나오지 않았으므로 고산노와 이웃 사람들이 괴이불측(怪而不測)하였다. 매일(每日) 대추(棗) 10과(顆)와 백엽병(栢葉餅) 1매(枚)만을 먹고, 다른 것은 일절(一切) 먹지 아니하였다. 그 후 다시 남곡(南谷) 마가(馬家)의 고불당(古佛堂) 곁으로 옮겨 작은 토옥(土屋)을 지으니, 고씨(高氏)가 대추와 백엽병(栢葉餅)을 계속 공양하였다. 일찍이 그 논(論)과 경(經)을 가지고 한씨(韓氏)의 장원(莊園)으로 옮겼는데, 그곳은 곧 관개촌(冠蓋村)이었다. 중로(中路)에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는데, 통현(通玄)이 그를 보고 호랑이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등에 짊어진 경론(經論)을 호랑이의 등에 싣고 토굴(土窟) 속으로 들어가니, 그 호랑이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또한 그곳에 머물렀으나 먹을 만한 샘이 없었다. 갑자기 폭우가 내려 노송(老松)이 뿔히더니 백여척(百餘尺) 켜 되는 연못이 생겼다. 그 깊이가 약 한 길 남짓 되었는데, 그 물 맛이 향기가 있고 감미(甘味)로워 지금까지도 그를 장자천(長者泉)이라 부르고 있다. 『합론』을 짓는 동안 방(房)에 지촉(脂燭)이 오재(五載)밖에 없었으나, 지묵(紙墨)에 이르기까지 한씨가 계속 송정(送呈)하다가 『합론』이 완성된 뒤에야 없어졌다. 40권이였다. 730년(개원 18) 3월 28일 96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송고승전宋高僧傳』권22「법원전말法圓傳末」(대정장50, p.853c~p.854a) 참조.

42) 수결(搜抉) : 오묘한 교리를 찾아서 뽑아낸다는 뜻.

43) 색은(索隱) : 경의 숨은 이치를 찾아냈다는 뜻.

44) 제유(嘖嘖) : 嘖는 맛볼 제字, 嘖는 많은 말 유字이니, 곧 제가(諸家)들이 남겨 놓은 제설(諸說)을 두루 연마하여(嘖) 그 뜻에 정통(精通)하였다는 뜻.

45) 전해전명(前解轉明) : 지해(知解)가 전증(前增)하여 점점 밝아졌다는 말.

하여 못과 켜기를 뽑아주고자<sup>47)</sup> 노력하였다. 그 때 마침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득재<sup>48)</sup>라는 선로(禪老)가 팔공산<sup>49)</sup> 거조사<sup>50)</sup>에 주석하고 있으면서 함께 정진하자고 간절히 초청하므로, 드디어 그곳으로 가서 머물렀다. 널리 여러 종파의 세상 명리를 포기한 고사(高士)들을 맞아들여 힘써<sup>51)</sup> 습정균혜<sup>52)</sup>를 닦도록 간청하여 밤낮으로<sup>53)</sup> 게을리하지 않음이<sup>54)</sup> 여러 해였다.<sup>55)</sup>

越大定二十五季乙巳, 遊下柯山, 寓普門寺, 因讀大藏, 得李長者華嚴論, 重發信心, 搜抉而索隱, 嘯嘯而味情.<sup>56)</sup> 前解轉明, 迺潛心圓頓觀門, 亦欲導末學之迷, 爲之去釘拔楔. 適有舊識禪老得才者, 住公山居祖寺, 邀請懇至, 遂往居焉. 廣延諸宗,

46) 말학(末學): 초학(初學)·신학(新學)·후학(後學) 등의 뜻.

47) 거정발설(去釘拔楔): 미혹한 중생들이 깊이 가상(假相)인 현상(現相)에 집착하는 바 고정(固定)된 집념(釘)을 제거하고, 오욕(五欲)에 얽혀 있는 애착(愛着, 楔: 켜기)을 뽑아준다라는 말.

48) 득재(得才): 지눌(知訥)보다 연장(年長)인 지눌과 친한 선객(禪客)이었으나, 전기는 다른 자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49) 공산(公山): 대구 팔공산(八公山).

50) 거조사(居祖寺): 거조암(居祖庵)이라고도 한다. 경상북도 영천군 청통면 신원리 팔공산 동쪽 기슭에 있는 절. 738년(효성왕 2) 원감조사가 창건. 은해사(銀海寺) 거조암 영산전(靈山殿)은 국보 제14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22 「영천군 永川郡」 불우(佛宇)에도 거조사·은해성(銀海城)·원명사(圓明寺)·안흥사(安興寺)·상원사(上元寺) 등은 모두 팔공산에 있다고 전한다.

51) 각의(刻意): ①간절한 뜻 ②고심(苦心)함 ③애씀.

52) 습정균혜(習定均慧): 선정(禪定)을 닦되 지혜(智慧)와 균등하게 닦는다는 뜻이니, 정혜쌍수(定慧雙修) 또는 정혜등지(定慧等持)와 같은 말.

53) 숙야(夙夜): ①밤낮 ②주야간의 24시간.

54) 무두(無數): ①게을리함이 없다 ②중단(中斷)함이 없다 ③패(敗)하지 않는다 ④계속한다 등의 뜻이다. 數는 패할 卽字.

55) 누임(累稔): 여러 해 동안. 다년간(多年間). 오랫동안. 稔은 해 卽字.

56) [總覽]에는 精, [通史]의 情은 精의 오자임.



拋名高士輩, 刻意勸請, 習定均慧, 夙夜無斁者, 累稔矣.

승안 3년<sup>57)</sup> 무오년 봄에 몇 사람의 선려(禪侶)와 함께 삼의(三衣) 일鉢(一鉢)만 갖고 지리산(智異山)을 찾아가 상무주암<sup>58)</sup>에 은거(隱居)하였으니, 경치가 그윽하고 고요하여 천하에 제일이며 참으로 선객(禪客)이 거주할 만한 곳이었다. 스님은 여기서 모든 외연(外緣)을 물리치고 오로지 내관(內觀)에만 전념하였다. 갈고 닦아 예리한 지혜를 발하며, 깊이 깊이 잠심(潛心)하여 궁극의 근원(根源)까지 궁구하였다. 그 동안 득법(得法)할 때마다 나타났던 몇가지의 서상(瑞相)에 대하여는, 말이 너무 번다(繁多)하여 비에는 실지 않는다.

至承安三年戊午春, 與禪侶數子一鉢, 尋智異山, 隱居上無住庵, 境致幽寂, 甲天下, 眞安禪之住所也. 於是, 屏黜外緣, 專精內觀. 磨淬發銳, 沿尋窮源. 時有得法瑞相數事, 語繁不載.

스님께서 일찍이 말씀하되 “내가 보문사(普門寺)에서 지낸 이후 10여년이 경과하였다. 비록 뜻을 얻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허송한 적이 없으나, 아직 정견(情見)이 사라지지 아니하여, 마치 어떤 물건이 가슴에 걸려 있어 원수와 함께 있는 것과 같아서 항상 꺼림직 하였다. 지리산 상무주암(上無住庵)에 주석하면서 정진하는 여가에 대혜보각선사(大慧普覺禪師)의 어록<sup>59)</sup>을 보다가 ‘…… 선불재정처(禪不在靜處)하며 역부재(亦不在) 요처

57) 승안삼년(承安三年): 승안은 금(金) 장종(章宗)의 연호. [通史]에는 承安二年. [總覽]에는 承安三年. 무오(戊午)년은 승안2년이 아니고 승안3년이므로 [總覽]이 옳다. 승안3년 무오는 1198년으로 고려 신종(神宗) 1년에 해당한다.

58) 상무주암(上無住庵):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지리산에 있는 절. 영원사에 소속된 산내(山內) 암자(庵子)이니, 합천 해인사의 말사(末寺)이다.

(鬧處)하고 부재일용응연처(不在日用應緣處)하며 부재사랑분별처(不在思量分別處)니라. 연(然)이나 제일의 부득사각정처(不得捨却靜處)와 요처와 일용응연처와 사랑분별처하고 참(參)하여야만 홀연히 눈이 열려서 바야흐로 이것이 바로 옥리사<sup>60)</sup>임을 알 수 있느니라'라는 구절에 이르러 뜻이 딱 들어맞아 마음에 깨달으니, 자연히 가슴이 후련하며, 원수와 멀리한 것 같아서 곧 마음이 편안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혜해(慧解)가 점차로 높아져서 대중(大衆)들의 종앙(宗仰)하는 바가 되었다.

師嘗言, “予自普門已來, 十餘年矣. 雖得意勤修, 無虛廢時, 情見未忘, 有物碍膺, 如讐同所, 至居智異. 得大慧普覺禪師語錄云, ‘禪不在靜處, 亦不在處, 不在日用應緣處, 不在思量分別處, 然, 第一不得捨却靜處, 處, 日用應緣處, 思量分別處參, 忽然眼開, 方知是屋裏事.’ 予於此契會, 自然不礙膺, 讐不同

59) 대혜보각선사어록(大慧普覺禪師語錄) : 대혜보각(1088~1163)은 중국 송나라 때의 종고(宗杲) 스님. 보조국사 지눌이 창평 청원사(淸源寺)에 있다가 1185년 예천 하가산 보문사를 거쳐 팔공산 거조사에서 정진하다가 1198년 몇 명의 도반(道伴)들과 함께 지리산 상무주암(上無住庵)으로 가서 참선하는 여가에 『대혜보각선사어록大慧普覺禪師語錄』을 열람하다가 “…… 禪不在靜處 不在鬧處 不在思量分別處 不在日用應緣處 然 第一 不得捨却靜處 鬧處 日用應緣處 思量分別處 參 忽然眼開 都是自家屋裏事 今時士大夫 學道 多是半進半退 於世事上 不如意則 火急要參禪 忽然世事遂意 則便罷參 爲無決定信故也 禪乃般若之異名 梵語般若 此云智慧 當人 若無決定信 又無智慧 欲出生死 無有是處”(대정장47, pp.893c~894a)라는 구절에 이르러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한다.

60) 옥리사(屋裏事) : 자가옥리(自家屋裏)의 준말. 가리사(家裏事)라고도 한다. 상대어는 도중사(道中事)이다. 자기자신(自己自身), 자기본분(自己本分), 자기본구(自己本具)의 불성(佛性)이란 뜻. 또는 자신의 본분가옥(本分家屋)의 안. 옥리노야(屋裏老爺), 옥리보신불(屋裏報身佛), 옥리주인공(屋裏主人公) 등의 말도 있다. 어떤 스님이 본정선사(本淨禪師)에게 묻기를 “여기후견기특언어여하(汝已後見奇特言語如何)”하니, 정왈(淨曰), “무일념심애(無一念心愛)”라 하니 사왈(師曰), “시여옥리사(是汝屋裏事)”라 하다.

所, 當下安樂耳. 由是, 慧解增高, 衆所宗仰.

5년 경신<sup>61)</sup>에 송광산(松廣山) 길상사<sup>62)</sup>로 옮겨서 11년간 대중을 지도하되, 혹은 담도(談道), 혹은 수선(修禪), 안거(安居), 두타(頭陀) 등을 함에 있어 한결같이 율장(律藏)에 의거하였다. 사방(四方)으로부터 스님과 신도들이 스님의 고매한 명성(名聲)을 듣고 찾아와 수많은 대중이 운집하였다. 심지어 명예와 벼슬과 처자를 버리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sup>63)</sup> 함께 오기도 하고 입사(入社) 수도(修道)하겠다는 왕공(王公)·사서(士庶)들도 수백명에 이르렀다. 스님은 수도에만 자임(自任)할 뿐,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비방하는 것에는 전혀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또한 자비와 인욕으로 후배를 제접(提接)하였다. 비록 대중 중에 무례(無禮)하게 뜻을 거역하는 자라도 오히려 능히 자비로 섭호(攝護)하고 항상 정(情)으로 통솔하되,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귀여워하는 것과 같이 하였다.

五年庚申, 移居松廣山吉祥寺, 領徒作法, 十有一年, 或談道, 或修禪, 安居頭陀, 一依佛律. 四方緇白, 聞風輻湊, 蔚爲盛集. 至有捨名爵捐妻子, 毀服壞形, 命侶而偕來者, 王公士庶, 投名入社, 亦數百人. 師以道自任, 不以人之譽非, 動其心性. 且慈忍善接後流. 雖或悖謬迂意, 猶能憫念攝護, 情不理止, 若慈母之於嬌子然.

그리고 대중에게 송지(誦持)하기를 권함에는 항상 『금강경金剛經』으로

61) 오년경신(五年庚申): 승안(承安) 5년이니 1200년.

62) 길상사(吉祥寺): 순천 송광사의 옛이름.

63) 훼손괴형(毀服壞形): 속복(俗服)을 벗어 버리고 삭발하여, 일상 형상을 무너뜨리는 것이니,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는 뜻.

써 법을 삼도록 하고, 교의(敎義)를 연설함에는 『육조단경(六祖壇經)』을 강설하며, 통현장자(通玄長者)의 『화엄론(華嚴論)』으로써 주장을 펴고, 『대혜어록(大慧語錄)』으로써 함께 우익(羽翼)을 삼았다. 삼종문(三種門)을 열었는데, 성적등지문,<sup>64)</sup> 원돈신해문,<sup>65)</sup> 경절문<sup>66)</sup>이니, 이 3문에 따라 수행하며 신입(信入)하는 자가 많았다. 그리하여 선학(禪學)의 왕성함은 근고(近古)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

其勸人誦持，常以金剛經立法，演義則意必六祖壇經，申以華嚴李論，大慧語錄，相羽翼。開門有三種，曰惺寂等持門，曰圓頓信解門，曰徑<sup>67)</sup>截門，依而修行，信入者多焉。禪學之盛，近古莫比。

스님은 또한 위의(威儀)가 엄숙하여 소의 걸음에 범의 눈길이었으며, 연거<sup>68)</sup>할 때에도 태도가 근엄하여 몸가짐이 해이함이 없었고, 대중이 운력할 때에도 빠지는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항상 술선수범하였다. 억보산<sup>69)</sup>의 백운정사(白雲精舍), 적취암,<sup>70)</sup> 서석산<sup>71)</sup>의 규봉난야,<sup>72)</sup> 조월암<sup>73)</sup> 등은

64) 성적등지문(惺寂等持門) : 성성(惺惺)하고 고요함(寂寂)을 함께 하는 문이니, 『금강경』 사상에 의하여 세운 문이다.

65)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 : 통현장자(通玄長者)의 『화엄론』의 종지(宗旨)에 따라 세운 문이다.

66) 경절문(徑截門) : 차례(次第)를 거침이 없이 단박에 이르는 문이니, 『대혜어록(大慧語錄)』의 간화선(看話禪)의 취지(趣旨)에 의하여 세워진 문이다.

67) [總覽] [通史] 모두 經이나, 이는 徑의 오자임.

68) 연거(燕居) : 고요한 곳에서 참선하는 것이니, 안거(安居) 또는 연좌(燕坐)라고도 한다.

69) 억보산(億寶山) : 억불산(億佛山)이라고도 하니, 전라남도 장흥읍(長興邑) 동쪽 7리 지점에 있는 산.

70) 적취암(積翠庵) : 소재지와 사적(寺蹟)은 미상함.

모두 스님께서 창건하고 왕래하면서 정진하던 곳이다. 희종 임금께서 동궁에 있을 때부터<sup>74)</sup> 스님의 명성을 듣고 흠모해 오다가, 보위(寶位)에 오른 후<sup>75)</sup> 왕명으로 송광산 길상사를 조계산(曹溪山) 수선사(修禪社)로 고치고<sup>76)</sup> 어필(御筆)로 편액을 써서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만수가사(滿繡袈裟) 한 벌을 하사하여 존경을 표하였으니, 스님을 광호(光護)하는 돈독한 정성은 다른 어떤 왕과도 견줄 데 없었다.

師又善攝威儀，牛行虎視，燕居謹飭，無情容止，至於執勞任力，恒在衆先。億寶山之白雲精舍，積翠庵，瑞石山之圭峯蘭若，祖月庵，皆師之所作，而往來修禪者也。上自潛邸，素重其名，及卽位，命號改爲曹溪山修禪社，御親書題榜。旣又就錫滿繡袈裟一領，以褒異之，篤敬光護之誠，他無等夷。

- 
- 71) 서석산(瑞石山): 일명 무등산(無等山)이니 전라남도 화순읍 북쪽 15리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72) 규봉난야(圭峯蘭若): 규봉사(圭峰寺)라고도 함. 서석산(瑞石山) 중턱에 은신대(隱身臺)가 있는데,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이 대위에 앉아 정진하다가 절을 짓고 규봉사라 이름하였다. 그 후 폐사가 되었던 것을 지눌이 중창하고 규봉난야라 이름하였다. 권극화(權克和)[조선 文臣. 자는 庸夫. 호는 習齋. 1411년에 生員이 되고, 1414년에는 謁聖文科에 급제하다]의 「중건기(重建記)」에 따르면 “光之鎮山曰無等 一名瑞石 其勢雄盤 非諸山所可擬 山之東 有菴曰圭峰 傍有瑞石簇立 有仰者 俯者 臥者 起者 成叢者 獨立者 高可數百尺 四面如削玉然 其曰瑞石圭峰”이라 하다.
- 73) 조월암(祖月庵): 위치와 사적(寺蹟)은 미상함.
- 74) 상자잠저(上自潛邸): 희종임금께서 잠저(潛邸; 동궁)에 있을 때부터라는 말이니, 왕위(王位)에 오르기 이전이란 말.
- 75) 급즉위(及卽位): 고려 제21대 희종이 즉위하던 해란 말이니, 희종이 즉위한 해는 1205년이다.
- 76) 명호개위조계산수선사(命號改爲曹溪山修禪社): 희종임금의 명(命)으로 송광산 정혜사를 조계산(曹溪山) 수선사(修禪社)로 개칭하였다는 말.

처음으로 스님이 남유(南遊)하면서 수행의 길에 오르고자 할 때, 동학도반(同學道伴)과 함께 약속하되, “나는 지금부터 깊은 곳에 숨어 향사<sup>77)</sup>를 맺고 전적으로 정혜(定慧)를 닦고자 하니,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 하니, 대중이 말하기를 “지금은 말법(末法)이므로 그렇게 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 말을 들은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르기를 “시기는 변천(變遷)하지만 심성(心性)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교법(敎法)이 흥왕하거나 쇠퇴한다고 보는 것은 삼승(三乘)인 권학(權學)의 견해(見解)일 뿐이어늘, 지자(智者)가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대중들은 모두 복종(服從)하면서 “옳은 말씀입니다. 뒷날 함께 결사(結社)를 맺으면 반드시 정혜결사(定慧結社)라 이름합시다”라고 하였다. 거조사(居祖寺)에 있을 때 과연 정혜사를 세우고 곧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sup>78)</sup>을 지었으니, 이는 초치(初志)를 이룬 것이다. 그 후 송광사로 옮겨 결사를 맺고도 역시 정혜결사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sup>79)</sup>

77) 향사(香社): 수선사와 같은 뜻.

78)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 보조국사 지눌이 33살 때인 1190년 팔공산 거조사에서 정혜결사를 맺고, 이를 위해 저술하여 유포하였던 「수행동맹문修行同盟文」이다. 무려 9,490자(字)나 되는 방대한 양인데, 그 내용은 정(定)과 혜(慧)를 균등(均等)하게 닦아야하는 연유를 자세히 논(論)하고 있다. 정혜사(定慧社)가 1200년 거조사에서 송광산 길상사로 옮길 때 이미 이 결사문(結社文)이 각판(刻板) 유통(流通)되었다. 따라서 이는 지눌의 최초 저술일 뿐아니라 동시에 그의 사상적(思想的) 근저(根底)를 이루는 작품(作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教全書』권4, pp.698~707 참조.

79) 이사송광역순기명(移社松廣亦循其名): 팔공산 거조사 정혜사에서 지은 「권수정혜결사문」을 순천 송광산 수선사로 옮겨서도 수선결사문(修禪結社文)이라 하지 않고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이라 칭한 것은 1200년(承安 5)에 지눌이 송광산으로 이석(移錫)하여 송광산 길상사를 왕명에 따라 수선사로 개칭하게 된 때에 이미 이 결사문이 각판(刻板)되어 유포되었으므로 부득이 옛 이름인 정혜결사문

初師之來南遊也，與同學諸子，約曰，“吾欲逃名，結香山社，以定慧爲事，於子等何如。”曰，“末法恐非其時。”師乃慨然長歎曰，“時却可遷，心性不變，教法興衰，乃三乘權學之見耳，智者應如是乎。”衆皆服曰，“然，他日結同社，必號定慧。”及在居祖寺，果立定慧社，仍述勸修定慧結社文，償初志也。移社松廣，亦循其名。

그러나 얼마를 지난 후 멀지 않은 곳에 같은 이름이 있으므로<sup>80)</sup>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왕명을 받아 조계산 수선사라 개칭하였으니, 이름은 비록 다르나 뜻은 다르지 않다. 스님이 한결 같이 정혜(定慧)에 뜻을 두었던 것이 이와 같았다.

後以隣寺，有同稱者，因受朝旨易焉，所謂修禪社也，名雖異而義則同也，師之志，在定慧如此。

대안 2년<sup>81)</sup> 봄 2월에 국사께서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하여<sup>82)</sup> 수순<sup>83)</sup> 동안 법회를 열었다. 이때 결사 대중에게 이르기를 “나는 이제 세상에 있으면서 설법할 시기가<sup>84)</sup>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중은 각각 정진에 노력하라”고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뜻.

80) 인사유동칭자(隣寺有同稱者): 지눌 이전의 송광산 길상사를 지눌 스님이 정혜(定慧)로 이름하고자 하였으나, 그 근처(近處)에 같은 이름의 절이 있었으므로 혼돈을 막기 위해 회종의 명으로 조계산 수선사(修禪寺)라 개칭(改稱)하였다는 말.

81) 대안이년(大安二年): 대안은 금(金)나라 영제대(永濟代)의 연호. 2년은 고려 제 21대 희종 6년(1210).

82) 천모(薦母): 보조국사 지눌의 생모(生母)인 조씨부인(趙氏夫人)의 천도제를 지냈다는 뜻.

83) 수순(數旬): 수십일(數十日)이라는 뜻.

당부하였다. 얼마 후<sup>85)</sup> 3월 20일에 발병(發病)하여 8일만에 입적하였으니, 스님은 가실 때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었다. 시자(侍者)가 스님이 임종할 것을 알아차리고 임종계(臨終偈)를 청하는 한편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더니 스님은 중용(從容)히 대답하였다. 야애<sup>86)</sup>에 이르러 방장실(方丈室)로 들어갔는데 문답이 처음과 같이 계속되었다. 새벽에 이르러 물으시기를 “오늘이 며칠인가?” 하므로 대답하되 “3월 27일입니다”라 하였다. 스님께서 범복을 입고 세수와 양치질을 한 다음, “이 눈은 조사의 눈이 아니고, 이 코도 조사의 코가 아니며, 이 입은 어머니가 낳아주신 입이 아니고, 이 혀도 어머니가 낳아 준 혀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법고(法鼓)를 쳐서 대중을 모이게 하고 육환장<sup>87)</sup>을 짊고 선법당(善法堂)으로 걸어 올라가서 축향<sup>88)</sup>하고 법상에 올라 앉아 설법하는 것이<sup>89)</sup> 평상시와 같았다.

大安二年春二月，因薦母，設法筵數旬。時謂社衆曰，“吾住世語法不久，宜各努力。”俄，三月二十日示疾，凡八日而終，預

84) 주세어법(住世語法) : 세상에 있으면서 중생들에게 불법(佛法)을 일러준다는 말.

85) 아(俄) : ①갑자기 ②얼마 후의 뜻.

86) 야애(夜艾) :艾는 쭉 애字이니, 어둡다는 뜻으로 야애는 초야(初夜)를 지나 밤이 깊어진 때라는 말.

87) 육환석장(六環錫杖) : 우리나라에서는 육환장이라 하고, 극기라(隙棄羅 ㄱ khakkhara)라 음역하고, 성장(聲杖)·지장(智杖)이라 번역한다. 스님들이 짊는 지팡이. 상부(上部)는 주석, 중부(中部)는 나무, 하부(下部)는 뿔 또는 상 등을 사용하여 만든다. 탑 모양에 육바라밀(六婆羅密)을 상징한 6개의 고리를 양쪽에 달아 행각(行脚)할 때 소리를 내게 하니, 이는 짐승과 벌레 따위를 일깨우는 것. 또는 탁발·걸식 등으로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자기가 온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흔들기도 하는 스님들의 지팡이.

88) 축향(祝香) : 향을 피우고 예배하는 것.

89) 승좌(昇座) : 법상에 올라 앉아 설법하는 것.



知也. 前一夕, 就浴室沐浴, 侍者請偈, 因設問, 師從容答話. 夜艾, 迺入方丈, 問答如初. 將曉, 問, “今是何日.” 曰, “三月二十七日也.” 師具法服盥漱云, “這個眼不是祖眼, 這個鼻不是祖鼻, 這個口不是孃生口, 這個舌不是孃生舌.” 令擊法鼓集衆, 策六環錫杖, 步至善法堂, 祝香昇座如常儀.

육환장을 떨치고 전날 밤 방장실 중에서 문답한 어구(語句)를 그대로 들고 이르되, “선법의 영험(靈驗)이 불가사의(不可思議)함을 오늘 이 자리에서 대중에게 설파(說破)코자 한다. 대중들은 매(昧)하지 아니한 일착자<sup>90)</sup>를 질문하라. 노한(老漢)도 또한 매하지 아니한 일착자로 대답하리라” 하고, 좌우를 돌아보고 손으로 육환장을 만지면서 이르기를 “산승의 명근(命根)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있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일임한다”라 하고, 육환장을 횡으로 잡고 거꾸로 끌었다.<sup>91)</sup> “근골(筋骨)이 있는 자는 앞에 나오라” 하고 문득 발을 뺀어 법상(法床)에 걸터앉아 묻는대로 대답하되, 말소리가 또렷또렷하고 그 뜻도 자상하며<sup>92)</sup> 언변(言辯)이 조금도 걸림이 없었으니, 구족(具足)한 사실은 임종기(臨終記)의 내용과 같다.<sup>93)</sup>

迺振錫, 舉前夕方丈中, 問答語句因緣云, “禪法靈驗, 不可思議. 今日來到這裏, 欲爲大眾說破去也, 爾等不昧一着子問來.

90) 일착자(一着子): 바둑의 돌을 한 수 둔다는 뜻이나, 전(轉)하여 선사(禪師)가 제자에게 향상(向上)의 일구(一句)를 들어보이는 것. 본분(本分) 또는 청정본연(淸淨本然)한 자성(自性)을 현시하는 것.

91) 횡타도예(橫拖倒曳): 육환장을 잡고 횡(橫)으로 끌어 당겼다가 다시 거꾸로 끌어 당겼다는 뜻.

92) 언체의상(言諦義詳): 질문에 답하는 말소리가 또렷 또렷하며 그 뜻 또한 자상하였다는 뜻.

93) 임종기(臨終記): 보조국사 지눌의 임종 전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책.

老漢亦不昧一着子答去。”顧視左右，以手摩之，曰，“山僧命根，盡在諸人手裏，一任諸人。”橫拖倒曳。“有筋骨底出來。”便伸足踞于床，隨問而答，言諦義詳，言辯無礙，具如臨終記。

마지막으로 어떤 스님이 묻기를 “옛날 유마거사가 비아리성(毘耶離城)에서 시질(示疾)한 것과, 오늘 조계산에서 목우자(牧牛子)가 작병(作病)한 것이 같은가? 다른가?” 하니, 스님께서 이르되 “너희들은 같은지 다른지를 배워라” 하고, 주장자(拄杖子)를 잡고 몇 번 내리치고 말하되 “천가지 만가지가 모두 이 속에 있느니라” 하고, 주장자를 잡고 법상에 걸터앉아 부동 자세로 고요히 입적하였다. [스님은 고려 의종 12년 무인년(1158)에 태어났으니, 즉 송의 고종 소흥 28년이며, 금의 해능왕 정릉2년이다]

最後有僧問，“昔日毘耶，淨名示疾，今日曹溪牧牛作病，未審，是同是別。”師云，“爾學同別來。”迺拈拄杖數下云，“千種萬般，揔在這裏。”因執杖，踞床不動，泊然而逝。[師生於高麗毅宗十二年戊寅，即宋高宗紹興二十八年，金海陵王正隆二年]

문도들이 향등(香燈)을 베풀고 7일간 공양을 올렸다. 얼굴 빛은 생시와 같았으며, 수발(鬚髮)은 계속 자랐다. 다비(茶毘) 후 유골을 수습하니 오색(五色)이 찬란하였다. 사리(舍利)가 출현하였는데 큰 것이 30과이고, 적은 것은 무수하였으므로 수선사의 북쪽 기슭에 사리부도(舍利浮屠)를 세웠다. 임금께서 부음(訃音)을 들으시고 크게 진도(震悼)하면서 시호를 불일보조국사(佛日普照國師), 탐호를 감로(甘露)라 하였다. 세수는 53세요, 법랍은 36하였다. 저술로는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상당록上堂錄」·「법어法語」·「가송歌頌」 각(各) 1권이니, 종지(宗旨)를 밝게 발양(發揚)한 내용들이므로 모두 가히 읽을 만한 책들이다.

門徒設香燈，供養七日。顏色如生，鬚髮漸長。茶毘拾遺骨，骨皆五色。得舍利大者三十粒，其小者無數，浮屠于社之北麓。上，聞之慟，諡曰，佛日普照國師，塔曰甘露。閱世五十三齡。受臘三十有六年。生平所著，如結社文，上堂錄，法語，歌頌，各一卷，發指宗旨，咸有可觀。

혹자는 말하기를 “스님께서 돌아가시니, 더욱 크게 돋보인다”라고 하였다. 스님은 능히 목숨을 버리고 열반에 드시어<sup>94)</sup> 적멸세계(寂滅世界)에 우유하고<sup>95)</sup> 자재(自在)하시니, 이는 반드시 몰량대인(沒量大人)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지도(至道)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다지 위대(偉大)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왜 그런고 하니 노자(老子)는 학식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 드문 것을 귀하게 여겼으며,<sup>96)</sup> 장자(莊子)는 살아감에 있어 다른

94) 위명승화(委命乘化): 목숨을 던져 버리고 죽음(化)을 맞이한다라는 뜻.

95) 자사(自肆): 자자(自恣)와 같은 뜻이니, 생사(生死)에 대하여 자유(自由)·자재(自在)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또는 구애됨이 없다는 말.

96) 노자귀지아자희(老子貴知我者希): 노자는 학식(學識)보다 지아(知我)를 귀중(貴重)하게 여겼다는 뜻이니, 『노자』56장에 “知者不言 言者不知”라 하였으니, 진실하게 사물(事物)을 아는[知] 자는 심중(心中)에 깊이 감추어 둘 뿐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노자』81장에는 “信言不美 美言不信 善者不辯 辯者不善 知者不博 博者不知”라 하였는데, 참되게 아는 자는 잡다(雜多)한 지식(知識)은 가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아자희(知我者希)란 『노자』에 “知我者希則我者貴”라 하였으니, 아(我)가 본시 희이(希夷)한 줄 알면 곧 아가 귀하다는 말. 『노자도덕경』14장에 “視之不見 名曰夷 聽之不聞 名曰希 搏之不得 名曰微 此三者 不可致詰 故混而爲一”이라 하였다. 불교에서 이르는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멸(心行處滅)’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도(道)란 형체가 없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므로 『금강경』「화무소화분화無所化分」제25’에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라 하고, 득통기화(得通己和 1376~1433)는 그의 『설의說誼』에서 “無聲曰希 無色曰夷”라 하였다.

사람보다 특별히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sup>97)</sup> 옛날 도를 닦은 사람들은 모두 일반 사람과 같이 평범함을 보였다. 그들이 어찌 스스로 궤이<sup>98)</sup>하며 기위(奇偉)한 자취를 자랑하여 남들이 알아주기를 희망하였겠는가? 세존(世尊)을 법중왕(法中王)이라 존칭하며,神通작용(神通作用)으로 유희자재(遊戲自在)하지만 마지막으로 구시나가라 쌍림(雙林)에서 입적하실 무렵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제 등이 매우 아프니 곧 열반에 들 것이다”라 하시고,

97) 장주육행불애이(莊周欲行不崖異): 장주(莊周: 莊子)는 살아감[行]에 있어 애이(崖異)치 않으려고 노력하였다는 말. 애이란 까다롭고 괴벽한 성격으로서 고독(孤獨)하게 살고 세상(世上) 사람들과 더불어 교류(交流)하지 않는다는 뜻. 또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괴리되어 화합(和合)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이니, 이에 반하여 “欲行不崖異”란 살아감에 있어 애이 곧 편협하지 않고 양극(兩極: 崖)이나 유별(有別)함이 없는 것을 말하니, 항상 심평기화(心平氣和)하여 원만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라는 말이다. 『장자』 「천지天地」에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도(道)란 만물(萬物)을 덮어주고[天] 실어주나니[地] 한없이 크도다. 군자는 마땅히 마음을 닦지 않으면 안되나니, 다시 말하면 무위(無爲)이면서 작위(作爲)하는 것을 하늘(天)이라 하고, 무위(無爲)이면서 말하는 것을 덕(德)이라 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물(物; 他)를 이롭게 하는 것을 인(仁)이라 하며, 같지 않는 차별현상(差別現相; 不同)을 무차별(無差別; 同)로 보는 것을 대(大)라 하며, 행(行)함에 다르지도 않고 또한 자취도 보이지 않음을 관용(寬容)이라 하고, 천차만별(千差萬別)의 같지 않음을 부(富)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천덕(天德)을 지키는 것을 강기(剛紀)라 하며, 천덕이 이루어지는 것을 입(立)이라 하고, 도를 따라 순리(順理)로움을 완비(完備)라 하며, 물질(物質)로 인하여 심지(心志)가 좌절(挫折; 유흥)되지 않으면 완전(完全)한 인격자인 것이다. 군자(君子)가 이 열 가지의 이치를 밝히면 자신의 빛을 도광(道光)하여 마음이 크고 깊어 모든 것을 포용하여 만물에 은혜를 베풀되, 마치 패연(沛然)히 쏟아 붓는 소낙비와 같다. 夫子曰 夫道 覆載萬物者也 洋洋乎 大哉 君子 不可以不刳心焉 無爲爲之之謂天 無爲言之之謂德 愛人利物之謂仁 不同同之之謂大 行不崖異之謂寬 有萬不同之謂富 故執德之謂紀 德成之謂立 循於道之謂備 不以物挫志之謂完 君子 明於此十者則韜乎其事心之大也 沛乎其爲萬物逝也”라 하다.

98) 궤이(詭異): 궤이(乖異)·괴이(怪異) 등과 같은 뜻. 궤이하거나 이상하다는 뜻. 보편적이 아니고 비상(非常)하다는 말.

드디어 오른쪽 허리를 땅에 붙이고 발을 포갠 다음 입적하였다. 또 당나라 등은봉선사(鄧隱峯禪師)는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열반하였는데,<sup>99)</sup> 비구니(比丘尼)가 된 누이동생이 와서 원망하기를 “노형<sup>100)</sup>은 평생 동안 법률(法律)을 따르지 않더니, 죽어서도 사람들을 현혹한다”라면서 혀를 찼다.

99) 당은봉선사도립이화(唐隱峯禪師倒立而化) : 당나라 때 등은봉선사(鄧隱峯禪師)는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입적하였다는 말. 등은봉선님은 중국 복건현(福建縣) 소무(邵武) 출신. 속성이 등씨(鄧氏)이므로 세인(世人)들이 등은봉이라 일컬었다. 처음 마조도일(馬祖道一)의 회하(會下)에 있었으나 밀지(密旨)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석두처(石頭處)를 찾아갔으나 기연(機緣)이 계합(契合)하지 않았다. 그 후 다시 마조를 참방(參訪)하여 그의 언하(言下)에 대오(大悟)하였다. 어느 날 스님이 토거(土車)를 끌고 가던 중 마조가 노상(路上)에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다. 스님께서 발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마조는 ‘이미 편 것은 거둘 수 없다(已展不收)’라면서 거절했다. 따라서 스님 역시 나도 또한 ‘이미 나아간 것은 물러날 수 없다(已進不退)’라면서 수레를 밀고 지나갔고, 마조는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때 마조는 곧 사원(寺院)으로 돌아가 도끼를 들고 나와 ‘나의 다리에 상처를 입힌 놈은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스님은 곧 마조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목을 도끼 밑에 들이댔다. 이를 본 마조 또한 도끼를 던져 버렸다. 이후 오대산(五臺山)에 들어가 금강굴(金剛窟) 앞에서 입적코자 하여 대중에게 묻기를 “종래(從來) 제방(諸方)에서 입적한 스님들 중에 누워서 갔거나 앉아서 죽은 스님은 내가 많이 보고 들었지만 서서 죽은 스님이 있었느냐?” 하니, 대중이 대답하되 “있었습니다” 하였다. “그렇다면 거꾸로 서서(倒立) 죽은 스님도 있었느냐?” 하니, 대중이 대답하되 “아직 있었다는 사실(事實)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스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곧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입적하였으나, 정정연(亭亭然)하여 옷자락이 아래로 드리워지지 아니하였다. 법구를 매고 다비장(茶毗場)으로 갔으나 홀연부동(屹然不動)하였다. 이때 비구니가 된 누이동생이 이를 보고 시체를 눕히면서 원망하기를 “노형(老兄; 오빠)은 생전(生前)에도 법률(法律)을 지키지 않더니, 죽어서까지 사람을 현혹한다”면서 손으로 시체를 슬쩍 미니까 분연(憤然)히 쓰러졌다고 전한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권8「오대산은봉선사장五臺山隱峯禪師狀」(대정장50, p.259b) · 『송고승전』 권21(대정장50, p.847a) · 『조당집祖堂集』 권15 등 참조.

100) 노형(老兄) : 오빠를 말한다.

或曰, “死可大故也.” 師能委命乘化, 優遊自肆, 是其中, 必有大過人者也. 然, 語之至道則未也. 何以言之, 蓋老子貴知<sup>101)</sup> 我者<sup>102)</sup> 希, 莊周欲行, 不崖異. 古之爲道者, 與人同耳. 其肯自爲詭異奇偉之迹, 以取人知耶. 至如世尊, 號法中王, 神通作用, 遊戲自在, 及其雙林宴寂, 則曰, “吾今背痛, 將入涅槃.” 遂右脇<sup>103)</sup> 累足而化. 又唐隱峯禪師, 倒立而化, 妹有爲尼, 咄曰, “老兄平生, 不循法律, 死便熒惑於人.”

이제 스님께서는 생전에 개당(開堂)하여 많은 법문을 보여주었거늘, 죽는 날에까지 다시 법고를 쳐서 대중을 운집하고 법상에 올라 설법한 다음, 법상에 걸터앉아 입적하였으니, 이것이 도에서 본다면 군더더기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대저 도의 작용은 방소(方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행함이 같지 않으므로, “천하(天下)에 일리(一理)뿐이지만 백려(百慮)의 차별이 있고, 지방에서 출발하는 길은 다르지만 서울에 도착함은 같은 것이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또 역대로 선문(禪門)의 많은 조사들이 임종할 때 법을 부촉(付囑)함에 있어 반드시 신이(神異)를 나타내었으니, 승사<sup>104)</sup>에 자세히 실려 있다. 과거 많은 스님들 중에 법상에 올라 앉아 설법(上堂說法)하고 입적한 스님으로 흥선사<sup>105)</sup>의 유관<sup>106)</sup>은 상당(上堂)하여 임종계

101) [通史]에는 知와 我 사이에 如가 있으나 [總覽]에는 없다. 문맥으로 보아 [通史]의 如는 삭제하여야 한다.

102) [總覽]에는 者자가 있으나, [通史]에서는 탈락되었다. 『노자』 원문에 의하면 [總覽]이 옳다.

103) [總覽]의 脇과 [通史]의 膝은 모두 脇의 오자임.

104) 승사(僧史): 고승전(高僧傳) 및 기타 사전(史傳)을 말함.

105) 흥선사(興善寺): 중국 서안부(西安府: 陝西省) 함녕현(咸寧縣)의 남쪽에 위치한

[遺偈]를 설하고 편안히 앉아 입멸하였고, 수산성념선사<sup>107)</sup>는 임종계를 남긴 다음 온종일 상당하여 설법하고 편안히 앉아 장왕(長往)하였으며, 서봉<sup>108)</sup>의 지단선사<sup>109)</sup>는 삭발 목욕하고 법상에 올라 앉아 대중들에게 하직하고 편안히 앉아 천화(遷化)하였고, 대령<sup>110)</sup>의 은미선사<sup>111)</sup>는 상당하여 임

절. 수(隋)나라 문제(文帝)가 도읍을 옮기고 창건하였을 때에는 준선사(遵善寺)라 칭하다가 얼마 후 대흥선사(大興善寺)라 개칭하였다. 당대에 이르러서는 흥선사로 부르게 되었다. 마조도일의 제자인 유관(惟寬) 등이 주석하던 절이다. 그리하여 마조의 선풍(禪風)은 흥선사의 유관과 장경사(章敬寺)의 회휘(懷暉)에 의해서 장안(長安)에 널리 진작(振作)되었다. 『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권180.

106) 유관(惟寬) : 755~817. 남악하(南岳下) 구주(衢州;浙江省) 신안(信安) 출신. 속성은 축씨(祝氏). 13살 때 출가하여 율장(律藏)과 천태지관(天台止觀)을 배운 후, 마조대적(馬祖大寂)을 참방하여 선법(禪法)을 받았다. 원화(元和) 12년(817) 2월 그믐날 법상에 올라 앉아 설법을 마치고 입적(入寂)하니 세수는 63세, 법랍은 39하였다. 파릉(潞陵) 서쪽 언덕에 장사지냈고, 당의 헌종(憲宗)이 시호를 대철선사(大徹禪師), 탑호를 원화정진지탑(元和正眞之塔)이라고 하사하였다. 『송고승전』권10·『경덕전등록』권7·『전당문全唐文』권678「서경흥선사전법당비명병서西京興善寺傳法堂碑銘並序」 등 참조.

107) 수산성념(首山省念) : 926~993. 임제종(臨濟宗) 풍혈연소(風穴延沼)의 제자. 내주(萊州;山東省掖縣) 출신. 속성은 적씨(狄氏). 순화(淳化) 4년 12월 4일 상당(上堂)하여 설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대중에 하직하고 “白銀世界金色身 情與非情共一眞 明暗盡時俱不照 日輪午後見全身”이라는 임종계를 설하여 마치고 편안히 앉아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와 함께 조용히 입적하니 세수는 68세였다. 『경덕전등록』권13(대정장51, p.304a).

108) 서봉(瑞峯) : 중국 복주(福州;福建省) 임양산(林陽山) 서봉원(瑞峰院)이니, 사적(寺蹟)은 다른 자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109) 지단(志端) : 892~969. 설봉하(雪峰下)의 문인(門人). 복주(福州) 출신. 속성은 유씨(兪氏). 복주 남간사(南澗寺)에 가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고, 24살 때 안국사(安國寺) 홍도명진대사(弘昭明眞大師)로부터 법을 이어받고 제자가 되었다. 서봉원에 주석하면서 선풍(禪風)을 크게 떨쳤다. 969년(개보 2) 1월 25일 자시(子時)에 삭발 목욕하고 대중을 모아 하직하고 박연(泊然)히 입적하였다. 『경덕전등록』권22(대정장51, p.381b~c).

중계를 설한 다음 탈화(脫化)한 사실들을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비방할 수 있겠는가?

今師之開堂，示衆已多矣，死之日，而遇，復更鳴鼓集衆，升座說法，踞床告滅，其於道不爲疣贅乎。答不然。夫道之用無方，而人之行不同，故曰，“天下一致而百慮，殊途而同歸。”若所云者，知其一，未知其二也。且歷代禪門諸祖，臨終囑法，必顯神異，僧史載之詳矣。至於後之諸師，升堂說法而就化，若興善寺之惟寬，上堂說偈安坐而化，若首山省念，遺偈，剋日上堂說法，安坐長往，若瑞峯之志端，剃髮澡身，升堂辭衆，安坐而化，若大寧之隱微，上堂說偈而化，皆可譏耶。

슬프다! 상계<sup>112)</sup>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의심은 많고 신심(信心)은

110) 대령(大寧): 대령원(大寧院;江西省)이니 위치와 사적이 다른 자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111) 은미(隱微): 886~961. 청원하(靑原下)의 문인. 예장(豫章) 신감(新淦;江西省) 출신. 속성은 양씨(楊氏). 7살 때 홍주(洪州) 석두원(石頭院) 도견선사(道堅禪師)를 은사로 스님이 되었다. 20살 적에 개원사(開元寺) 지칭율사(智稱律師)로부터 구족계(具足戒)를 받았고, 나산(羅山)의 법보대사(法寶大師) 도한(道閑)의 법을 이어받고 제자가 되었다. 그 후 십선도량(十善道場)·용광선원(龍光禪院) 등을 거쳐 961년(건隆 2) 강남(江南)의 이씨(李氏)의 청(請)을 받아 홍주 강서성(江西省)의 대령정사(大寧精舍)로 옮겨 주석하다가, 그 해 10월 27일 삭발 목욕하고 법상(法床)에 올라 대중(大眾)에게 마지막의 하직을 하고 편안히 앉아 세수 76세, 법랍 56하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송의 태조가 시호를 현적선사(玄寂禪師; 一說覺寂), 탑호를 상적(常寂)이라 추증하였다. 『경덕전등록』권23(대정장51, p.392a); 『조당집』권12 등 참조.

112) 상계(像季): 상법(像法)과 말법시대(末法時代)란 뜻. 불법(佛法) 유통의 시대적 구분으로, 정법(正法)·상법·계법(季法, 末法)시대로 구분하는데, 불멸(佛滅)로부터 1천년까지를 정법시대(正法時代), 1천년에서부터 2천년까지를 상법시대(像法時代), 2천년부터 1만 2천년까지를 계법 곧 말법시대라고 하는 데에서 온 말.



적어서, 선각자(先覺者)들이 자비(慈悲)의 선교방편(善巧方便)으로써 개시(開示)하거나 지도하여도 흠모(欽慕)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비록 성도(聖道)로 나아가고자 하더라도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스님의 마음을 짐작해 보건대 이것 역시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일단임을 알 수 있다.

嗟乎，像季之人，多疑而少信，非有先覺之士，以善巧方便，開示勸導，生欽慕心，雖欲發趣聖道，斯亦難矣。觀師之心，亦接機利物之一端也。

스님께서 입적하신 이듬 해에<sup>113)</sup> 사법제자인<sup>114)</sup> 혜심<sup>115)</sup> 등이 스님의 행장을 갖추어 임금께 올리고, “원하옵건대 스님의 행적을 후세에 길이 전시킬 수 있도록 입비(立碑)를 윤허해 주소서”라고 간청하였다. 임금께서 이 주청을 받아들여 윤허하시고,<sup>116)</sup> 소신 군수(君綏)에게 비문을 지으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신이 유교(儒敎)를 수학하였으나 유학에도 변변치 못한데 하물며 불심(佛心)과 조인<sup>117)</sup>인 방외(方外)의 논리<sup>118)</sup>에 있어서랴? 그러나 강박한 명명<sup>119)</sup>을 사양할 도리가 없었다. 이에 소문<sup>120)</sup>한 천식(淺

- 
- 113) 사물지명년(師歿之明年): 보조국사 지눌이 입적한 다음 해란 말이니, 1211년임.  
 114) 사법사문(嗣法沙門): 보조국사의 법을 이은 스님이니,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 1178~1234)을 지칭함.  
 115) 혜심(惠諶): 혜심(慧諶)이라고도 함. 무의자(無衣子). 자는 영을(永乙). 속성은 최씨(崔氏). 전남 화순(和順) 출신. 보조국사 지눌의 제자이며 송광사 16국사(國師) 중 제2세임.  
 116) 상왈유(上曰兪): 고려의 희종 임금이 1211년 입비주청(立碑奏請)을 받고 윤허(允許)하였다는 뜻. 兪는 ‘그렇게 하라’고 승낙할 유자임.  
 117) 불심조인(佛心祖印): 불심(佛心)은 교종(敎宗), 조인(祖印)은 선종(禪宗)을 가리킴.  
 118) 방외지담(方外之談): 유교에서 자신의 규모(方) 밖에 있는 논리(論理)를 말함이니, 불교와 도교 등을 일컫는 말.

識)을 모두 동원하여 감히 스님의 성미<sup>121)</sup>를 비면에 나타내려고 한다. 명하여 이르기를,

師歿之明年，嗣法沙門惠謹等，具師之行狀以聞，“願賜所以示後世者。”上曰，“俞.”乃命小臣文其碑. 臣，業儒而未至者也，而況於佛心祖印，方外之談乎. 但迫明命，無由以辭. 茲扣竭於謏聞，敢形容於盛美. 其銘曰，

손을 들어 아이에게 달을 가리키지만,<sup>122)</sup>

달은 본시 손가락 끝에 있지 않는 것을.

언어로써 고구정녕(苦口叮嚀) 알려주려 하여도,

오묘한 그 진리는 언어 속에 없는 것을.

指以標<sup>123)</sup>月兮，

月不在指.

言以說法兮，

- 
- 119) 명명(明命): 임금이 김군수(金君綏)에게 비문을 지으라고 내린 명령(命令)이다.
- 120) 소문(謏聞): 소문(小聞) 또는 과문(寡聞)과 같은 뜻이니, 자신의 짧고 열은 식견(識見)을 모두 동원(扣竭)하였다는 말. 소(謏)는 소(小)이고 문(聞)은 성문(聲聞)의 뜻이다.
- 121) 성미(盛美): 보조국사의 왕성하고 아름다운 업적(業跡)이란 말이니, 감히 자신의 얇은 식견으로 스님이 쌓은 성미의 도덕(道德)을 비문에 형용(形容)하였다는 뜻이다.
- 122) 표월(標月): 표(標)는 표(表)이니, 경문(經文)을 달을 가리켜 표시(表示)하는 손가락에 비유하여 표월(標月) 또는 이정표(里程標)라고 한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청정혜보살장淸淨慧菩薩章」(대정장17, p.917a)에 “……譬如有人 自斷其首 首已斷故 無能斷者 則以礙心 自滅諸礙 礙已斷滅 無滅礙者 修多羅教 如標月指 若復見月 了知所標 畢竟非月 一切如來 種種言說 開示菩薩 亦復如是 此名菩薩 已入地者 隨順覺性”이라 하다.
- 123) [總覽]에는 標. [通史]의 標는 標의 오자임.

法不在言.

사십구년<sup>124)</sup> 설법하신 팔만대장경이여!<sup>125)</sup>

중생들의 근기 따라 팔만문(八萬門)이 열렸네!

맹팔랑(孟八郎)이 망치 들고 조관(祖關)을 분쇄하고,<sup>126)</sup>

오직 하나뿐인 최후관문(最後關門) 통과하였다.

三乘諸部分,

隨機差別.

徑截直入兮,

唯有一門.

영산회상(靈山會上) 설법 때 천파화(天波花)를 거시하니,<sup>127)</sup>

백만대중(百萬大衆) 운집 중에 가섭(迦葉)만 미소(微笑)하다.

달마대사(達磨大師) 소림굴(少林窟)에 앉아 면벽(面壁)할 적에,<sup>128)</sup>

- 
- 124) 삼승(三乘): 소승(小乘, 四聖諦) · 중승(中乘, 十二因緣) · 대승(大乘, 六波羅密) 등을 가리킴.
- 125) 제부(諸部): 십이부경(十二部經) · 십이분경(十二分經) · 십이분교(十二分教) 등. 부처님의 일대(一代) 교설(敎說).
- 126) 경절(徑截): 경절문(徑截門)의 줄임말이니, 선종(禪宗)의 참선문을 지칭함.
- 127) 모니시화(牟尼示花):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靈鷲山)에서 설법하기에 앞서 천파화(天波花)를 들어 보였으나, 백만(百萬) 대중(大衆) 중에 이 뜻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오직 가섭존자(迦葉尊者)만이 빙그레 웃었던 것이다. 이를 일러 염화미소(拈花微笑) 또는 파안미소(破顏微笑)라고 한다. 부처님의 삼처전심(三處傳心) 중의 하나이다.
- 128) 달마면벽(達摩面壁): 달마대사가 숭산(崇山) 소림굴(少林窟)에서 9년간 벽을 향해 앉아 참선하였던 것을 지칭한다. 달마대사가 520년(一說에는 527년) 중국에 와서 양무제(梁武帝)를 만나 대화하였으나, 기연(機緣)이 맞지 아니하여 다시 그 해 11월 23일(北魏 孝明帝 正光 1년) 모든 것을 단념하고 숭산 소림굴로 들어

영특한 혜가대사(慧可大師) 팔을 베어 바쳤도다.<sup>129)</sup>

牟尼示花兮,  
迦葉破顏.  
達摩面壁兮,  
慧可斷臂.

열반(涅槃) 묘심(妙心) 나의 법등(法燈) 너에게 전하노니,  
유(有)도 무(無)도 일(一)도 이(二)도 아닌 그 마음이어!  
일법(一法)과 다법(多法) 세간법(世間法)과 출세간법(出世間法)들이,  
천차(千差)요 만별(萬別)이나 그 모양은 둘 아닐세.

---

가 면벽(面壁)하고 앉아 중일토록 묵연(默然)하였다. 이를 본 사람들은 벽관과 라문(壁觀婆羅門)이라 칭하였다. 『경덕전등록』권3「보리달마장菩提達磨狀」(대정장51, p.219a~b).

- 129) 혜가단비(慧可斷臂): 달마대사가 소림굴에 있을 때 신광(神光: 혜가)이 세속(世俗)에서 공로(孔老)의 학(學)과 장역(莊易) 등 제자백가(諸子百家)에 정통하였으나 이 모두가 묘리(妙理)에 미진(未盡)하였음을 알고 있던 중, 소림굴로 찾아가 달마에게 지도(指導)를 구하였으나 면벽한 달마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신광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옛 사람은 구도(求道)함에 있어 고골취수(敲骨取髓), 자혈제기(刺血濟饑), 포발염니(布髮掩泥), 투애사호(投崖飼虎) 등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난들 어찌 그렇게 앓을 수 있으랴!” 하고, 520년 12월 9일 밤 뜰 앞에 서 있는데 눈이 내려 무릎에까지 쌓였다. 이를 불쌍히 여긴 달마는 돌아보면서 “너는 오래도록 설중(雪中)에 서서 무엇을 구하기 위함인가?” 하니, 신광이 이도(利刀)로서 스스로 왼쪽 팔을 잘라 스님 앞에 바쳤다. 달마는 이를 보고 법기(法器)로 여겨 혜가(慧可)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신광이 말하기를 “제불법인(諸佛法印)을 가득문호(可得聞乎)니까?” 하니, 사왈(師曰), “제불법인(諸佛法印)은 비종인득(匪從人得)이니라.” 광왈(光曰), “아심미녕(我心未寧)하오니 걸사여안(乞師與安)하소서.” 사왈, “장심래(將心來)하라. 여여안(與汝安)하리라.” 광왈, “먹심료불가득(覓心了不可得)이니다.” 사왈, “아여여안심경(我與汝安心竟)이라.”하다. 『경덕전등록』권3(대정장51, p.219b).

心傳心兮,  
不二.  
法與<sup>130)</sup> 法兮,  
齊致.

청풍불(淸風拂) 명월조(明月照)에 무한한 그 풍경(風景)을,  
모든 중생 수용해도 무진(無盡)한 보고(寶庫)일세.  
과거 현재 미래 세상 위인이 나타나서,  
위법망구(爲法忘軀) 고해정진 혜명(慧命)을 이었도다.

眞風兮,  
未殄.  
何代兮,  
乏人.

생사를 초월하여 열반세계 우유(優游)하니,  
마치 농중(籠中)에 갇힌 새가 벗어남과 같네!  
거울같이 맑고 밝은 스님의 정신세계,  
청정무구(淸淨無垢) 티가 없이 법계(法界)에 두루하네!

師之身兮,  
鶴出籠.  
師之心兮,  
鏡無塵.

---

130) [通史]에는 與, [總覽]의 興은 與의 오자임.

경상북도 예천군의 하가산(下柯山) 보문사(普門寺)에서,  
 통현장자(通玄長者) 화엄론(華嚴論)을 자세히 열람하다.<sup>131)</sup>  
 전라남도 순천군의 조계산(曹溪山) 수선사(修禪社)에서,  
 법문을 마치시고 법상(法床)에서 입적하다.<sup>132)</sup>

柯山兮,  
 啓途.  
 松社兮,  
 蛻駕.

일생동안 갈고 닦아 맑고 깊은 선정수(禪定水),  
 모든 번뇌 사라지고 담적(湛寂)한 해인삼매(海印三昧).  
 혁혁한 지혜 광명 그 햇불을 높이 드니,  
 그 광명(光明)十方세계(十方世界) 골고루 비추시도다.<sup>133)</sup>

定水淡兮,  
 湛無波.  
 慧炬光兮,  
 光不夜.

131) 가산혜계도(柯山兮啓途) : 1185년(대정25)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수계리(首溪里) 하가산(下柯山; 鶴駕山)에 있으면서, 통현장자(通玄長者)의 『화엄론華嚴論』을 보다가 크게 깨닫고, 전해전명(前解轉明)하고 원돈관문(圓頓觀門)에 마음을 두었으며, 또한 말학(末學)의 미망(迷妄)을 깨우쳐 주고자 한 것이 곧 계도(啓途)인 것이다.

132) 송사혜세가(松社兮蛻駕) : 보조국사 지눌이 송광산 수선사에서 세가(蛻駕) 즉 입적하였다는 뜻. 세가(蛻駕)는 탈각(脫殼)과 같은 말.

133) 광불야(光不夜) : 빛이 계속 말하여 불야성(不夜城)과 같아 어두운 때가 없다는 말.

달마(達磨)가 동토(東土)를 찾아온 뜻을 물음 대해,<sup>134)</sup>  
 조주(趙州)는 그 물음에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라 했네.  
 연꽃처럼 맑고 밝아 향기로운 그 법력,<sup>135)</sup>  
 걸림없는 사변재(四辯才)로 진종(眞宗)을 연설하다.

庭栢兮,  
 答祖意.  
 池蓮兮,  
 演眞宗.

사방(四方)에서 구름처럼 모여든 치백(縑白) 중에는,  
 수백명 왕공사서(王公士庶) 수선사(修禪社)에 입사(入社)했네!  
 현하(懸河)같은 변재(辯才)로써 종지(宗旨)를 천양하니,  
 일음(一音)으로 용용<sup>136)</sup>한 그 모습 부루나(富樓那) 같네!

四衆繞兮,  
 雜沓.  
 一音暢兮,  
 春春容.<sup>137)</sup>

- 
- 134) 정백(庭栢):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의 줄임말. 조주(趙州) 종심선사(從諗禪師)가 한 스님으로부터 달마대사(達磨大師)가 서천(西天)에서 동토(東土)로 온 뜻을 물음에 대답한 말이다. 『무문관無門關』37화(話)(대정장48, p.297c)에 “趙州因僧問 如何是祖師西來意 州云 庭前栢樹子”라 하다.
- 135) 지연혜(池蓮兮): 보조국사의 고매한 도덕이 마치 연못의 연꽃처럼 맑고 향기롭다는 말.
- 136) 용용(春容): 침착하고 조용한 모양.
- 137) [總覽] [通史] 모두 춘은 춘의 오자임.

나고 죽는 인생살이 자세히 살펴보니,  
유여몽환포영(猶如夢幻泡影)이며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일세.  
진(眞)과 망(妄)이 어찌 다르랴! 망이 곧 진이니,  
손등과 손바닥이 둘이 아닌 것과 같네!

觀死生兮,  
如幻.  
豈眞妄兮,  
殊科.

슬프도다! 법상(法床)에서 석장(錫杖)을 떨치시니,  
이 세상의 삼라만상 모두가 하나로다.  
훈훈한 봄바람은 버들가지 위에 불고,<sup>138)</sup>  
쏟아지는 소낙비는 배꽃을 강타(强打)하다.

噫, 師之振錫兮,  
萬<sup>139)</sup>像都融.  
風吹柳絮兮,  
雨打梨花.

대금(大金) 대안 3년<sup>140)</sup> 신미 12월 일에 전전<sup>141)</sup> 보창<sup>142)</sup>은 비문을 새기고,

138) 유서(柳絮): 버들강아지.

139) [總覽]에는 萬. [通史]의 邁는 萬의 오자임.

140) 대안삼년(大安三年): 대안은 금(金)나라 영제대의 연호. 3년은 고려 제21대 희종 7년(1211).

141) 전전(殿前): 어전(御前)에서 일하는 벼슬인 듯하나 자세히 알 수 없다.

142) 보창(寶昌): 보조국사의 비문을 각자(刻字)한 스님이나, 전기는 다른 자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대금 승경 2년<sup>143)</sup> 계유 4월 일에 내시<sup>144)</sup> 창락궁<sup>145)</sup> 녹사<sup>146)</sup> 신 김진<sup>147)</sup>은  
왕명을 받들어 비석을 세우다.

大金, 大安三年, 辛未十二月日, 殿前, 寶昌, 刊,  
大金, 崇慶二年, 癸酉四月日, 內侍, 昌樂宮錄事, 臣, 金振,  
奉宣, 立石.

[揭載]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下, pp.949~953.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下, pp.337~342.

- 
- 143) 승경이년(崇慶二年): 승경은 금나라 영제대의 연호. 2년은 고려 제22대 강종 2년(1213).
- 144) 내시(內侍): 고려 때 숙위(宿衛) 및 근시(近侍)의 일을 맡아 보던 관원(官員).
- 145) 창락궁(昌樂宮): 강종대(康宗代)에 궁중에 있는 궁명(宮名).
- 146) 녹사(錄事): 창락궁(昌樂宮)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행사(行事)를 기록하는 직책.
- 147) 김진(金振): 전기가 다른 자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軍威麟角寺普覺國尊靜照塔碑文

【10. 군위인각사보각국존정조탑비문】





# 군위인각사<sup>1)</sup> 보각<sup>2)</sup>국존정조<sup>3)</sup> 탑비문

軍威<sup>4)</sup>麟角寺普覺國尊靜照塔碑文

있는 곳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수동 인각사

세운 때 : 고려 충렬왕 21년 (1295)

1] 인각사(麟角寺) 보각국존비(普覺國尊碑)에 대하여 : 보각국존(普覺國尊) 일연(一然)스님의 비가 높은 평가(評價)를 받고 있는 것은, 주인공인 일연스님이 일백여권의 저서(著書)를 남긴 고승(高僧)이지만, 특히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저자라는 점이며, 또한 이 비문이 중국의 서성(書聖) 왕희지(王羲之 307~365)의 글씨를 집각(集刻)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금석문(金石文) 중 왕희지의 글씨를 집각한 것은 이외에도 「경주무장사아미타여래조상사적비문慶州鑒藏寺阿彌陀如來造像事蹟碑文」과 「양양사립사홍각선사비문襄陽沙林寺弘覺禪師碑文」 등이 있다.

2] 탑비(塔碑)의 수난(受難)에 얽힌 일화: 1295년에 이 탑비가 세워진 이후, 본비(本碑) 음기중(陰記中)에 ‘오리허 유임록 기복은약고봉 시진길상지지(五里許有林麓起伏隱若古塚是真吉祥之地)’라는 국존의 유언(遺言)에 의거해 이 터가 명당(明堂)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후 조선 중기 인근(隣近)의 황보씨(皇甫氏)가 세력을 믿고 임의로 탑비를 계곡으로 밀어버리고 묘(墓)를 썼으나, 당시 주지(住持)가 그 묘를 파한 일도 있다. 그 후 달성서씨(達城徐氏)일가의 삼기(三基)의 묘(墓)가 자리하였고, 그리고 본래 탑이 있었던 일대의 임야도 서씨 후손(后孫)의 명의로 되어 있다. 따라서 탑과 비는 인각사(麟角寺) 범당 겔으로 옮기게 되었다. 참고로 묘의 면석문(面石文)을 적어둔다. [處士達城徐公諱載佑之墓 配孺人鄭氏 公諱 庚坐 子錫珠 乙丑九月 日 處士達城徐諱錫珠之墓 配孺人 坡平尹氏 雙墳. 세례명 父아은스당. 母에리자벨. 西紀一九八六年 四月二九日 卒. 子 聖濟,

所在：慶尙北道 軍<sup>5)</sup>威郡 古老面 華水洞 麟角寺

年代：高麗 忠烈王 21年 (1295)

翊濟, 慶濟, 賢濟, 昌濟, 丙寅 三月 日. 聖徒達城徐公賢濟之墓. 配聖徒 晉州姜氏. 子 庚植, 康喜. 一九九四年 四月 日]

- 3] 비문(碑文)이 전무상태(全無狀態)로 파손(破損)된 연유: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인각사 부근 사람들이 벼루를 만들려고 깨뜨려 가져갔다는 설, 옛날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비석의 글자를 갈아 마시면 과거에 급제한다는 미신 때문에 파손을 거듭했다는 설, 임진왜란 때 왜구(倭寇)들이 왕희지의 진적(眞蹟)을 탐하여 겨울철에 서로 다투어 탁본을 하였기에 비석이 얼어 파편이 되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라는 설, 중국에서 온 사신들 중, 대다수가 이 비의 탁본을 요구하므로, 중앙(中央)으로부터 하명(下命)을 받은 지방 관리들이 빈번한 고역(苦役)을 피하기 위하여 비석을 파손하여 땅에 묻었다는 설이 전한다.
- 4] 이 비석(碑石)을 소개(紹介)하고 있는 전적(典籍)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27 『의흥현義興縣』 ‘불우佛宇’(1486), 『대동금석첩大東金石帖』(李侯 1637~1693·王孫), 『이계집耳溪集』(洪良浩 1724~1802),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又云 『林園十六志』, 徐有渠 著, 1764~1845), 『이운지怡雲志』(卷5~6. 徐有渠纂, 徐宇輔 校. 國立中央圖書館 古405~1), 『해동금석존고海東金石存攷』, 『범우고梵宇考』(正祖(1176~1800)의 命으로 지은 듯함),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下(1918: 李能和 著),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上(1919: 朝鮮總督府 編), 『한국금석전문韓國金石全文』中世上(1984: 許興植 編), 『인각사보각국사비첩麟角寺普覺國師碑帖』(中央僧伽大學 佛教史學研究所 編).
- 5] 보각국존비(普覺國尊碑) 음기(陰記)에 대한 복원(復元) 및 중요 논문: 今西龍, 「高麗普覺國尊一然に就きて」『高麗及李朝史研究』, 1918, 蔡尙植, 「普覺國尊一然에 대한 研究」『韓國史研究』26, 1979; 「麟角寺普覺國尊一然碑 陰記에 대하여」『詩文研究』25·26, 1980, 朴永淳, 「高麗麟角寺普覺國尊碑銘」『古書研究』86, 1986, 「麟角寺普覺國尊碑陰記」『書通』7·8: 『비블리오피리BIBLIOPHILY』3(이보다 앞서 1985년 『月刊文化財』93호에 1차 복원발표한 것도 있다), 金相鉉, 「麟角寺普覺國尊碑陰記 再考」『韓國學報』62, 1991.
- 6] 보각국존비명(普覺國尊碑銘) 및 음기(陰記)의 소장처(所藏處): 『동문선東文選』권118, 대동금석첩(大東金石帖)(1637~1693), 김혜월필사본(金慧月筆寫本; 月精寺 소장), 규장각(奎章閣) 소장, 고려대도서관화산문고(高麗大圖書館華山文庫) 소장, 영남대 동빈문고(嶺南大東濱文庫) 소장,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보각국사비명(普覺國師碑銘) [제액]

普覺國師碑銘<sup>6)</sup> [題額<sup>7)</sup>]

고려국(高麗國) 화산<sup>8)</sup> 조계종<sup>9)</sup> 인각사(麟角寺) 가지산<sup>10)</sup>하 보각국존비

上』소재, 『조선불교통사하편朝鮮佛教通史下編』소재,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研究院) 소장,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소장, 박영돈복원본(朴永淳復元本) 소장본, 김보삼(金寶三) 소장본, 황수영(黃壽永) 소장본.

- 1) 인각사(麟角寺):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古老面) 화수동(華水洞)에 자리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27 「의흥현」 ‘불우’에 따르면, 화산(華山) 동구(洞口)에 층암절벽이 있는데, 옛날 기린(麒麟)이 뿔을 그 절벽에 걸고 있었다 하여 인각사라 이름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절은 643년(선덕여왕 12) 원효(元曉)가 창건하였고, 1287년(충렬왕13) 보각국존(普覺國尊)이 중창하였다.
- 2) 보각(普覺): 충렬왕이 추증(追贈)한 시호(諡號)이다.
- 3) 정조(靜照): 충렬왕이 추증(追贈)한 탑호(塔號)이다.
- 4) [總覽]에는 義興이고, [全文]에는 軍威이니, 의흥(義興)은 옛 이름이고, 군위(軍威)는 1914년 일제(日帝) 때 개칭한 것이다.
- 5) [全文]에는 軍字 앞에 通字가 있으니, 이는 삭제하여야 한다.
- 6) 普以下銘까지 6字는 [全文]에는 있으나, [朝鮮佛教通史](以下 通史라 한다)와 [總覽]에는 탈락됨.
- 7) [全文]에는 있으나, [通史]와 [總覽]에는 탈락됨.
- 8) 화산(華山): 경상북도 군위에서 동쪽 약 12km 지점에 있는 산 이름.
- 9) 조계종(曹溪宗): 조계종이란 육조(六祖) 혜능대사가 조계산(曹溪山) 보림사(寶林寺)에서 종풍(宗風)을 진작하였으므로, 이후 선종(禪宗)의 대명사로 일컬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선종을 지칭함이었으나, 현재에는 통불교(通佛教)전통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宗團)의 이름이다.
- 10) 가지산(迦智山): 도의국사(道義國師)인 명적(明寂)은 북한군(北漢郡: 서울) 출신으로, 784년에 입당구법(入唐求法)하고, 37년만인 821년에 귀국하여 설악산 진전사(陳田寺)에서 약 40년간 주석하였다. 기연(機緣)이 맞지 않아 마침내 제자 염거(廉居)에게 법을 전하고 입적하였다. 이후 염거는 다시 보조체징(普照體澄)에게 전법(傳法)하였다. 법을 전해 받은 체징은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有治

명(普覺國尊碑銘)과 아울러 서(序)

高麗國,<sup>11)</sup> 華山, 曹溪宗, 麟角寺, 迦智山下, 普覺國尊碑銘,  
并序.

원(元)나라 세조(世祖)로부터 조열대부<sup>12)</sup>와 한림<sup>13)</sup>직학사<sup>14)</sup>의 직(職)을  
받았고,<sup>15)</sup> 본조(本朝)로부터 정헌대부<sup>16)</sup> 밀직사<sup>17)</sup> 좌승지<sup>18)</sup> 국학<sup>19)</sup> 대사성<sup>20)</sup>

---

面) 봉덕리(鳳德里) 가지산으로 가서 보림사를 창건하고, 비로소 도의(道義)의  
종풍(宗風)을 진작하였다. 청도 운문사와 의흥 인각사 등이 모두 가지산파(迦智  
山派)에 속했던 사찰이었다.

- 11) [通史]와 [總覽]에는 國과 華字 사이에 義興이란 二字가 있으나 [全文]에는 탈락됨.
- 12) 조열대부(朝列大夫): 고려 때의 품계(品階). 문산계(文散階)로 1369년에 종4품하로 두었다.
- 13) 한림직학사(翰林直學士): 고려 때 한림원에 소속된 정4품의 관직. 정원(定員)은 2명이었다.
- 14) 직학(直學): 고려 때의 관직. 문종(文宗) 때 처음으로 국자감(國子監)에 둔 종9품 관으로서 정원은 2명이었다.
- 15) 선수(宣授): 임금의 명(命; 宣)에 의하여 관직이나 법계(法階)·시호(諡號)·포상(褒賞) 등을 준다는 말이나, 여기서는 원나라 세조를 지칭함이니, 충선왕이 세자 때 그를 따라 원에 가서 세조로부터 조열대부 한림직학사란 벼슬을 받은 것을 지칭한다.
- 16) 정헌대부(正憲大夫): 정2품의 문무관 품계로 종친(宗親)에 대한 의빈(儀賓)을 관장하는 관직이다.
- 17) 밀직사(密直司): 고려 때 왕명(王命)의 출납·궁중의 숙위(宿衛)·군기(軍機) 등을 맡아 보던 관청. 991년에 설치된 중추원(中樞院)이 1095년에 추밀원(樞密院)으로 바뀌었다가 원 간섭기인 1275년에 밀직사로 바뀌었다. 전기에 중추원에서 맡던 의례와 궁중서무 대신 군기지정(軍機之政)을 관장하여 첨의부(僉議府)와 함께 양부(兩府)라 불렸다.
- 18) 좌승지(左承旨): 밀직사에 두었던 관리. 사(使, 종2품), 부사(副使, 종2품), 지신사(知申使, 정3품) 좌우승지(정3품) 각 1인을 두었다.



- 19) 국학(國學): 국가의 교육기관. 김춘추(金春秋)가 당의 국학에 나아가 석전(釋奠)을 보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석전의 예가 있음을 알았다 하고, 682년 6월 서울에 최초의 국학을 세웠다. 747년 국학에 제업박사(諸業博士)와 조교(助教)를 두었으며, 그 명칭도 태학감(太學監)으로 개칭하였다. 교재(教材)는 주로 『주역周易』·『상서尙書』·『모시毛詩』·『예기禮記』·『춘추春秋』·『좌씨전左氏傳』·『문선文選』·『논어論語』·『효경孝經』 등을 가르쳤다.
- 20) 대사성(大司成): 성균관(成均館)의 최고관으로, 유학(儒學)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만큼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하였으나, 대제학(大提學)이 겸직하는 일이 많았다.
- 21) 문한(文翰): 문한서(文翰署)의 준말. 고려 때 왕의 명령을 글로 기초하던 관청. 원래 태조대에는 사(詞)와 명(命)을 제찬(製撰)하던 곳으로, 태봉(泰封)의 뒤를 이어 원봉성(元鳳省)을 두었다가 뒤에 학사원(學士院)으로 개칭(改稱)하였다. 현종 때에 한림원(翰林院)이라 불러오다가 원의 지배를 받게 된 후, 원의 강요에 의하여 1275년에 문한서로 그 이름을 고쳤으며, 1298년 사립원(詞林院)으로, 1308년에는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등으로 개칭하였다.
- 22) 시강(侍講): 시강관(侍講官)의 준말. 임금에게 경서(經書)를 강의하는 직책을 가진 정4품의 벼슬이다. 『대전회통大典會通』 참조.
- 23) 학사(學士): 고려 때의 관직. 제관전(諸館殿)에 속하여 있었으며, 문신 중에 뛰어난 학자로 뽑혀서 왕에게 시종(侍從)하였던 자를 지칭한다.
- 24) 충사관(充史館): 고려 때의 관청. 초기에 설치된 것으로 왕의 언행·정치(政治)·백관(百官)의 행적(行蹟) 등 모든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 보았다. 감수국사(監修國史)는 시중(侍中)이, 수국사(修國史)와 동수국사(同修國史)는 2품관이, 수찬관(修撰官)은 한림원의 3품관이하가 각각 겸임(兼任)하였다.
- 25) 수찬관(修撰官): 고려 때 사관(史館)의 관직. 한림원의 3품 이하가 겸직토록 했다. 『고려사』 참조.
- 26) 지제고(知制誥): 고려 때의 관직. 조서(詔書)·교서(敎書) 등의 글을 지어 바치던 일을 맡아 보았다. 한림원·보문각(寶文閣)의 관원이 이를 겸직했을 경우에는 내지제고(內知制誥), 다른 관청의 관원이 이를 겸직했을 경우에는 외지제고(外知制誥)라 하였다. 『광자대사비문廣慈大師碑文』 주3) 지제고知制誥 [고려편1] p.289, 『원융국사비문順興浮石寺圓融國師碑文』 주7) 지제고知制誥 [고려편2] pp.272~273 등 참조.

유선<sup>29)</sup> 대부<sup>30)</sup> 사자금어대<sup>31)</sup> 등직을 역임한 신(臣) 민지<sup>32)</sup>가 왕명(王命)을

- 27) 판도사(版圖司) : 호조(戶曹)와 같은 말이니, 고려(高麗) 때 육조(六曹)의 하나.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糧)의 정무(政務)를 맡아 보던 중앙 관청. 1275년에 판도사로 고치고 상서(尙書)를 판사(判事), 시랑(侍郎)을 총랑(摠郎), 낭중(郎中)을 정랑(正郎), 원외랑(員外郎)을 좌랑(佐郎)이라 하였다.
- 28) 사세자(事世子) : 세자에게 글과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 29) 우유선(右諭善) : 유선(諭善)이라고도 하니,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주재관(主宰官)으로 당하3에서 종2품에 이르는 관원 중에서 등용하였다. 정원은 좌유선(左諭善)·우유선(右諭善)에 각 1명씩이다. 『대전회통大典會通』.
- 30) 대부(大夫) : 관품(官品)의 하나. 주(周)나라 때 천자(天子)나 제후(諸侯)의 신하들을 경(卿)·대부(大夫)·사(士) 등의 3등급으로 나눈 것의 하나였는데, 진(秦)·한(漢) 이래에도 어사대부(御史大夫)·광록대부(光祿大夫)·대중대부(大中大夫) 등 여러 명칭을 썼으나, 주대에 와서는 달리 관직이 아니라 관품의 명칭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처음으로 이런 중국의 제도(制度)를 모방하여 대부의 명칭이 쓰이게 되었다. 995년 문무관계(文武官階)를 나눌 때, 문산계(文散階)의 종2품에서 종5품하까지의 ○○대부(○○大夫), 그 아래는 ○○랑(○○郎)이라 하였다.
- 31) 자금어대(紫金魚袋) : 「원랑선사대보선광탑비문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文」 주8) 비어대緋魚袋 [신라편] p.217 ; 「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문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文」 주4) 자금어대紫金魚袋 [신라편] p.347 ; 「적연국사자광탑비문寂然國師慈光塔碑文」 주8) 금어대金魚袋 [고려편2] p.193 ; 「원융국사비문圓融國師碑文」 주8) 자금어대紫金魚袋 [고려편2] p.273 등 참조.
- 32) 민지(閔漬) : 1248~1326. 고려 문신. 자는 상정(祥正) 또는 용연(龍涎). 호는 묵헌(默軒). 시호는 문인(文仁). 본관은 여흥(驪興). 영모(令謨)의 5대손. 원종 때 문과(文科)에 장원. 충렬왕 때 전중부(殿中夫)를 거쳐 예빈윤(禮賓尹)이 되고, 1290년 11월 충선왕(忠宣王)이 세자 때 그를 따라 정당문학(政堂文學) 정가신(鄭可臣)과 함께 종행(從行)하여 원나라에 가서 원왕실로부터 한림직학사 조열대부의 벼슬을 받았다. 1285년 원이 앞서 두 번이나 실패한 일본정벌을 다시 결행하려고 1279년 고려에 전함(戰艦) 구백척(九百隻)을 만들게 하자 좌부승선(左副承宣)으로 왕을 따라 원나라에 가서 동정(東征)의 불필요를 건의(建議)하여 전함건조를 중지케 했다. 집현전(集賢殿) 대학사(大學士) 첨광정원사(僉光政院事)가 되고, 충선왕 초에 첨의정승(僉議政丞)에 이르러 벼슬에서 물러났다. 1321년에 다시 수정승(守政丞)이 되고, 여흥군(驪興君)에 봉해졌다. 정가신(鄭可臣) : ?~1298)이 지은 『천추금경록千秋金鏡錄』을 권부(權溥)와 증수하여 『세대편년』

받들어 비문을 짓고, [문인 죽허(竹虛)는 교칙(敎勅)에 의하여 왕희지(王羲之)의 글씨를 집자(集字)하여 새기다.]

宣授朝列大<sup>33)</sup> 夫, 選<sup>34)</sup> 授翰林直學士, 正憲<sup>35)</sup> 大<sup>36)</sup> 夫, 密直司, 左承旨, 國學, 大<sup>37)</sup> 司成, 文翰, 侍講, 學士, 充史館, 修撰官, 知制誥, 知版圖司, 事世子, 右諭善, 大夫, 賜紫金魚袋, 臣, 閔漬, 奉勅, 撰.

대저 맑은 거울과 탁금<sup>38)</sup>이 원래 이물(二物)이 아니요, 혼파<sup>39)</sup>와 담수<sup>40)</sup>가 그 근원에서는 똑같은 물이다. 그러나 그 근본은 같지만, 지말(枝末)에 있어 다른 것은 닦고 닦지 않음과, 요동(搖動)하고 요동하지 않음에 있을 뿐이다. 제불(諸佛)과 중생(衆生)의 불성(佛性)도 또한 거울과 물의 경우와 같아서, 다만 미(迷)하고 오(悟)한 차별일 뿐이니, 누가 감히 우치하고 슬기로움이 따로히 종자(種子)가 있다고<sup>41)</sup>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현

절요世代編年節要』를 만들고, 또 『본국편년강목本國編年綱目』을 편찬했으나, 모두 전하지 않는다. 저서는 『묵헌문집默軒文集』이 있다. 『고려사』권107「열전列傳」20.

33) [總覽]에는 大. [全文]의 太는 大의 오자임.

34) [總覽]에는 選. [全文]의 遙는 選의 오자임.

35) [總覽] [全文]에 모두 獻이나, 이는 憲이어야 한다.

36) [總覽]에는 大. [全文]의 太는 大의 오자임.

37) [總覽]에는 大. [全文]의 太는 大의 오자임.

38) 탁금(濁金): 정출(精出)되지 않고 아직 광석(鑛石) 중에 섞여 있는 금. 아직 정련(精練)되지 아니한 혼금(渾金) 또는 금박(金璞).

39) 혼파(渾波): 혼수(渾水) · 탁수(濁水) · 혼혼(渾渾) 등과 같은 뜻이니, 파문(波文)이 겹겹이 연결되어 물 속이 보이지 않는 상태.

40) 담수(湛水): 고요하고 맑은 물.

41) 우지유종(愚智有種): ‘우둔하고 지혜로움이 불성(佛性)의 미오(迷悟)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이지, 어찌 그 종자(種子)가 따로 있겠는가?’라는 말이다.

실에 있어서는 지우<sup>42)</sup>인 중생으로써 대각<sup>43)</sup>인 세존(世尊)과 비교하면 소양<sup>44)</sup>보다 더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한 생각을 돌이켜 전미개오(轉迷開悟)하면 곧 본각(本覺)인 부처님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가섭(迦葉)이 미소<sup>45)</sup>함으로써 달마대사(達磨大師)가 서천(西天)에서 중국으로 온 이후, 법등(法燈)과 법등이 상속(相續)하여 지금까지 이르러 온 것은, 모두 이러한 함에 의한 것이다. 스승이 그의 마음을 전함에, 제자는 그 골수(骨髓)를 얻음이다.<sup>46)</sup>

42) 지우(至愚): 지극히 어리석은 자이니, 중생(衆生)을 지칭함이다.

43) 대각(大覺): 크게 깨치신 분이니, 부처님을 가리킴이다.

44) 소양(霄壤): 하늘과 땅. 전(轉)하여 천지(天地)가 현격(懸隔)한 만큼 큰 차이가 있음을 비유(譬喻)한 말. 장양호(張養浩), 「得子強也詩書以答之」에 “細思霄壤間實與逆旅均”이라 하다.

45) 가섭미소(迦葉微笑): 가섭파안미소(迦葉破顏微笑)의 준말이니, 염화미소(拈花微笑)라고도 한다. 부처님께서 어느날 영추산 법상(法床)에 앉아 설법하기 직전, 야마천왕(夜摩天王)이 신심(信心)을 일으켜 천화일지(天花一枝)를 바쳤다. 부처님은 이를 받아 대중들에게 높이 들어 보였다. 이때 백만(百萬)의 청법대중 중에 아무도 이 뜻을 알지 못하여 쳐다만 보고 있을 때, 오직 두타제일(頭陀第一)가섭존자(迦葉尊者)만이 빙그레 웃었다[破顏微笑]. 세존(世尊)께서 가섭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 열반묘심(涅槃妙心)이 있는데, 이제 이를 너에게 전해 준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최초로 불타(佛陀)의 법통(法統)을 가섭이 전해 받은 것이다. 「진감국사대공영탑비문眞鑒國師大空靈塔碑文」 주35) 밀전가섭密傳迦葉 본서 p.87 참조.

46) 득기수(得其髓): 스승으로부터 법(法)을 전(傳)해 받을 때, 피부(皮)와 살결(肉)과 뼈(骨)를 지나 가장 깊은 골수(骨髓)까지를 얻어 받았다는 말. 달마대사(達磨大師)가 소림굴(小林窟)에서 9년간 면벽(面壁)하고, 수제자(首弟子)를 선택하여 전법하고 천축(天竺)으로 돌아가고자 문인들을 모아놓고 각기 터득한 바의 경지(境地)를 순회(述懷)하라고 했다. 이때 맨 먼저 도부(道副)가, ‘不執文字 不離文字 以爲道用’ 한데, 달마왈, ‘汝得吾皮’라 하였고, 다음 총지비구니(摠持比丘尼)가 왈, ‘我今所解 如慶喜見阿閼佛國 一見 不再見’ 하니, 왈, ‘汝得吾肉’이라 하였으며, 이어 도육(道育)이 왈, ‘以我見處 無一法可得’이니다 한데, 왈, ‘汝

夫淸鏡濁金，元非二物。渾波湛水，同出一源。其本同而末異者，在乎磨與<sup>47)</sup>不磨，動與不動耳。<sup>48)</sup> 諸佛衆生，性亦如是，但以迷悟爲別，孰云，愚智有種。以至愚望大覺，勢絕霄壤，及乎一迴機，便同本覺。自迦葉微笑，達磨西來，燈燈相續，直<sup>49)</sup>至于今者，皆以此也。傳其心，得其髓。

이로부터 혜일(慧日)을 우연<sup>50)</sup>에서 회전(廻轉)하여 그 신광<sup>51)</sup>을 상역<sup>52)</sup>에 비추게 한 분은 오직 우리 보각국존(普覺國尊)뿐이라 할 것이다. 국존의

得吾骨'이라 하였고, 최후(最後)에 혜가(慧可)는 '出禮三拜 依位而立'이어늘 왈, '汝得吾髓'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권12(대정장51, p.299a23) 참조.

47) [總覽]과 [通史]에는 與, [全文]은 与. 与는 與의 略字이다.

48) [通史]와 [全文]에는 耳이나, [總覽]에는 耳략됨.

49) [總覽]은 直략이나 [通史]와 [全文]에는 直임.

50) 우연(虞淵): 옛 사람들이 태양(太陽)이 빠지는 곳이라고 상상하던 장소. 해가 지는 곳. 전하여 사양(斜陽) 또는 황혼(黃昏)이란 뜻이다. 『삼보구사三輔舊事』에 “日出暘谷 浴於咸池 至於虞淵即暮”라 하다.

51) 신광(神光): 불광(佛光)이란 뜻이니, 부처님의 광명(光明)은 신변불측(神變不測)하므로 신광이라 한다. 「찬아미타불게贊阿彌陀佛偈」에 “神光離相不可名 故佛名號無稱光”이라 하다.

52) 상역(桑域): 상재(桑梓)와 같은 말. 곧 뽕나무와 가래나무를 심은 곳을 가리킴이니, 고향(故鄉)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국존의 고국(故國)인 우리나라를 지칭한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담장 주변에 상과 재를 심어서 자손(子孫)에게 물려 주어 자신(自身)이 죽은 후, 생계(生計)의 자본(資本)이 되게 하였다. 부모(父母)가 죽은 뒤, 자손(子孫)들이 이를 보면 부모의 유물(遺物)이란 생각으로 검소(儉素)해질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효심이 더욱 돈독하여진다 여겨, 전하여 경로(敬老)의 뜻으로도 쓰였으며, 후한(後漢) 이후부터는 향리(鄉里) 곧 고향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야객총서野客叢書』, “詩意謂桑梓人賴其用 猶不敢殘毀 寓恭敬之意 而況父子相與 非直桑梓而已 非謂桑梓爲鄉里也 然自東漢以來 乃以桑梓爲鄉里用矣”.

휘는 건명(見明)이요, 자는 회연(晦然)이었으나, 뒤에 일연(一然)으로 바꾸었다. 속성은 김씨(金氏)요, 경주(慶州) 장산<sup>53)</sup> 군 출신이다. 아버지의 휘는 언필<sup>54)</sup>이니, 벼슬은 하지 않고 교사(敎師)로써만 일생을 살았으므로,<sup>55)</sup> 죽은 후에 좌복야<sup>56)</sup> 직을 추증(追贈)받았고, 어머니는 이씨(李氏)니, 낙랑<sup>57)</sup> 군부인으로 봉(封)하였다.

迴慧日於虞淵，曜神光於桑域者，惟我國尊有焉。國尊，諱見明，字晦然，後易名一然。俗姓金氏，慶州章山郡人也，考諱彦弼，<sup>58)</sup> 不仕以師故，贈左僕射，妣李氏，封樂浪郡夫人。

어느 날 어머니의 꿈에 태양이 방안에 들어와 그 빛이 복부(腹部)에 비추기를 사흘 밤을 계속하는 태몽을 꾸고 임신하여 태화(泰和) 병인년<sup>59)</sup> 6

53) 장산(章山) : 경산(慶山)의 옛 이름. 『신증동국여지승람』권27 「경산현慶山縣」 「건치연혁建置沿革」에 따르면, 신라 경덕왕 때 압량(押梁)이던 것을 장산(獐山)으로 개칭(改稱)하였고, 고려 초에 이르러 장산으로 고쳤다고 하였다.

54) 언필(彦弼) : 일연(一然)의 부명(父名)이니, 다른 자료에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

55) 불사이사(不仕以師) : 벼슬살이에는 종사하지 아니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敎師)를 천직(天職)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56) 복야(僕射) : 음(音)으로는 복야. 관명(官名)이니 좌우복야(左右僕射)가 있는데, 상서성의 정2품(正二品) 벼슬로 상서령(尙書令) 다음이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선발하여 이 자리에 임용하기도 했고, 항상 왕의 좌우에 있었으므로 경호실장과 같은 소임이었으나, 당송이후(唐宋以後)에는 재상(宰相)의 직(職)으로써 천자(天子)를 보좌하여 국정(國政)을 의논하는 주재자(主宰者)였다. 「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문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文」 주4)복야僕射 [고려편1] p.19 참조.

57) 낙랑(樂浪) : 평양(平壤)의 옛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51 「평양부平壤府」 「군명郡名」 참조.

58) [通史]와 [全文]에는 弼. [總覽]의 鼎은 弼의 오자임.

59) 태화병인(泰和丙寅) : 금(金)의 장종(章宗) 연호이니, 고려 제21대 희종(熙宗) 2년(1206).

월 신유일에 탄생하였다. 날 적부터 준매(俊邁)하여 의표(儀表)가 단정하고, 풍준<sup>60)</sup>한 몸매에 입은 방구<sup>61)</sup>이며, 걸음은 우행<sup>62)</sup>이고, 살핍은 호시<sup>63)</sup>와 같았다.

初母夢，日輪入屋，光射于腹者，凡三夜，因而有娠，泰和丙寅，六月辛酉，誕焉。生而俊邁，儀表端嚴，豐準方口，牛行虎視。

어릴 적부터 세진(世塵)을 벗어나려는 뜻이 있어 나이 즉 연보<sup>64)</sup>가 9살 때 해양<sup>65)</sup> 무량사<sup>66)</sup>로 가서 취학(就學)하여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그 총명<sup>67)</sup>함이 비길 자가 없었다. 유시(有時)에는 밤이 새도록<sup>68)</sup> 마치 말뚝처럼 위

- 
- 60) 풍준(豐準): 얼굴이 야위지 않고, 풍미(豐美)하며 이(耳)·목(目)·구(口)·비(鼻) 등의 균형이 잘 잡힌 표준형(標準型)이라는 뜻 또는 몸매나 체중이나 신장(身長)이 모두 균형이 잘 잡혀 풍대(豐大)하고 표준적(標準的)이라는 말이다.
- 61) 방구(方口): 입이 반월(半月)인 궁형(弓型)이 아니고, 방정(方正)하고 단정하다는 말이니, 항상 입을 꼭 다물고 필요한 말 이외는 하지 않는 묵언형(默言型)이라는 말이다. 『후한서後漢書』「명덕마황후기明德馬皇后紀」에는 “方口美髮”이라 하였고, 『당서唐書』「누사덕전婁師德傳」(字는 宗仁, 시호는 貞, 『당서』권108 참조)에는 “師德長八尺 方口博唇 深沉有度量”이라 하다.
- 62) 우행(牛行): 걸음걸이를 마치 소와 같이 두뼘두뼘 둔중(鈍重)하게 걷는다는 말이니, 여우나 토끼처럼 경망스럽지 않고, 우아하고 무게 있게 걸어간다는 뜻이다.
- 63) 호시(虎視): 호시탐탐(虎視眈眈)의 준말. 호랑이가 예리한 눈으로 사방(四方)을 살피는 뜻이다. 전하여 웅지(雄志)를 품고 주의깊게 세간을 살핀다는 뜻이다. 『후한서』「장홍臧洪」에 “今王室將危 賊臣虎視”라 하다.
- 64) 연보(年甫): 나이, 연령, 연세 등의 뜻.
- 65) 해양(海陽): 고려 성종(成宗 981~997)대, 광주(光州)를 해양으로 개칭하였다.
- 66) 무량사(無量寺): 전라남도 광주시 무등산(無等山)에 있었던 절.
- 67) 총경(聰警): 총명기경(聰明機警)의 준말. 총찰(聰察), 총민(聰敏), 총명(聰明)과 같은 뜻으로, 총명함이 뛰어나 사람들을 깜짝 깜짝 놀라게 한다는 말. 똑똑하고 민첩하다는 뜻. 『남사南史』「강천전江蓠傳」에 “幼聰警 讀書過口便誦”이라 하다.

좌<sup>69)</sup>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특이하게 여겼다.

小有出塵志, 年<sup>70)</sup>甫九歲, 往依海陽無量寺, 始就學而聰警絕倫. 有時, 危坐盡夕, 人異之.

흥정 기묘년<sup>71)</sup>에 진전사<sup>72)</sup>의 대웅<sup>73)</sup>장로를 은사로 하여 득도(得度)한 다음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이로부터 선방<sup>74)</sup>으로 다니면서 참선하여 명성이 점점 높아져서<sup>75)</sup> 당시 사람들이<sup>76)</sup> 추대하여 구산<sup>77)</sup> 중 사선<sup>78)</sup>의 주장

68) 진석(盡夕): 밤을 꼬박 새우다, 철야(徹夜), 밤새도록 등의 뜻이다.

69) 위좌(危坐): 정좌(正坐), 궤좌(跪坐)와 같은 뜻. 똑바로 앉음. 단정(端正)히 앉음. 위(危)는 고(高) 또는 정(正)의 뜻으로, 자세(姿勢)를 높고 바르게 하는 것이다.

70) [通史]와 [全文]에는 年. [總覽]의 家는 年의 오자임.

71) 흥정기묘(興定己卯): 흥정은 금나라 선종(宣宗) 연호. 기묘(己卯)는 흥정 3년이니, 고려 고종(高宗) 6년(1219).

72) 진전(陳田): 강원도 양양군(지금은 속초시) 설악산(雪嶽山)에 있던 절 이름인 듯하다.

73) 대웅(大雄): 진전장로(陳田長老)의 법명(法名)이니, 다른 자료에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

74) 선사(禪肆): 선방(禪房) 또는 선원(禪院)이란 뜻이다.

75) 자심(藉甚): 이름이나 소문이 매우 높다는 말. 덕망(德望)이 심히 높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자자(藉藉)하다는 뜻.

76) 시배(時輩): 그 당시 사람들. 그 때 일연(一然)스님의 이름을 들었거나, 존경하던 사람들.

77) 구산(九山): 신라 말 선문(禪門)의 구산.

78) 사선(四選): 일반적으로는 고려시대 법계(法階)에 있어서 선종(禪宗)에는 대덕(大德) → 대사(大師) → 중대사(重大師) → 삼중대사(三重大師) → 선사(禪師) → 대선사(大禪師)의 순이고, 교종(敎宗)에서는 대덕(大德) → 대사(大師) → 중대사(重大師) → 삼중대사(三重大師) → 수좌(首座) → 승통(僧統)의 순이었다. 본비(本碑) 음기(陰記)의 문도질(門徒秩)에는 입선(入選) → 대덕(大德) → 대사(大師) → 중대사(重大師) → 삼중대사(三重大師) → 선사(禪師) → 대선사(大禪師)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연 당시의 법계순으로 본다면, 사선 법계를 입선(入



으로 삼았다.

興定己卯, 就陳田長老雄, 剃度受具. 於是, 遊歷禪肆, 聲價藉甚, 時輩, 推爲九山四選之首.

정해년<sup>79)</sup> 겨울 선불장(選佛場)에 나아가 승과(僧科)에 응시하여 상상과<sup>80)</sup>에 합격하였다. 그 후 포산<sup>81)</sup> 보당암<sup>82)</sup>에 주석하면서 마음에 간절히 선관(禪觀)을 닦았다.

丁亥冬, 赴選佛場, 登上上科. 厥後, 寄錫于包山寶幢庵, 心存禪觀.

選) → 대덕(大德) → 대사(大師) → 중대사(重大師)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 이유인 즉 국존(國尊)의 비문에 의하면, 1219년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다음, 두루 제방(諸方)의 선사(禪肆)를 유력(遊歷)하고, 점점 덕망이 높아짐에 따라, 당시 스님들이 일연을 구산선문(九山禪門)에서 모두 사선법계(四選法階)의 수위(首位)로 존경하였던 것이다. 살펴 보건대 1227년(丁亥) 겨울 선불장(選佛場)에 나아가 상상과(上上科)에 합격하였다 하니, 이 상상과가 곧 중대사의 법계이며, 그 후 1237년 여름 영천(永川) 포산(包山) 묘문암(妙門庵)에 있을 때, 삼중대사의 법계를 받았으므로, 1227년 상상과에 합격하기 이전(以前)의 4단계(段階), 즉 사선법계는 곧 중대사 이전인 입선(入選) → 대덕(大德) → 대사(大師) → 대사(大師)로 보아야 할 것이다.

79) 정해(丁亥): 고려 고종 14년(1227).

80) 상상과(上上科): 법계 고시(考試) 수험생 중에 최상(最上)의 점수로 합격하였다는 말이다.

81) 포산(包山): 포산(苞山)이라고도 한다. 일명(一名) 비슬산(琵琶山). 경상북도(慶尙北道) 달성군(達城郡)과 청도군(淸道郡) 사이에 있는 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27「현풍현玄風縣」; 『한국사찰전서韓國寺刹全書』상권「보당암寶幢庵」등 참조.

82) 보당암(寶幢庵): 경상북도 달성군(玄風) 포산에 있었던 절. 신라 때 관기(觀機)와 도성(道成)이 포산에 은거(隱居)하여 수도(修道)하였다. 『한국사찰전서』상권「현풍도성사적玄風道成寺蹟」참조.

병신년 가을<sup>83)</sup>에 병란<sup>84)</sup>이 있어 스님께서 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곧 문수(文殊)의 오자주<sup>85)</sup>를 염(念)하면서 감응(感應)을 기약하였더니, 홀연히 벽간(壁間)으로부터 문수보살이 현신(現身)하여 이르시기를 “무주난야(無住蘭若)에 주석하라”고<sup>86)</sup> 계시하였다.

丙申秋，有兵亂，師欲避地，因念文殊五字<sup>87)</sup>呪，以期感應，忽於壁間，文殊現身曰，“無住居。”<sup>88)</sup>

83) 병신추(丙申秋) : 고려 고종 23년(1236)이니, 국보 [고려팔만대장경판]을 조조(彫造)하기 시작하던 해이다.

84) 병란(兵亂) : 고종 18년인 1231년 8월에 몽고(蒙古) 원수(元帥) 살례담(撒禮塔)이 내침(來侵)하여 철주(鐵州)를 함락하고, 귀주(龜州)를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1232년 6월에는 마침내 강화(江華)로 천도(遷都)하였고, 이어 1235년 7월에는 몽고 원수인 당고(唐古)의 선봉(先鋒)으로 안변(安邊), 용강(龍岡), 함종(咸從), 삼등(三登) 등지를 함락, 1236년에는 몽고병(蒙古兵)이 다시 압록강을 건너 서북계(西北界)의 제성(諸城)에 분둔(分屯)하다가 황주(黃州), 신주(信州), 안주(安州)를 거쳐 남하(南下)하여 남경(南京), 평택(平澤), 아주(牙州) 등지에 주둔(駐屯)한 난(亂)을 지칭함이다.

85) 문수오자주(文殊五字呪) : 『금강정경유가문수사리보살법金剛頂經瑜伽文殊師利菩薩法』에 ‘아라파사나(阿囉跛捨那)’ 오자(五字)로 구성된 밀주. 오자문수(五字文殊) 또는 오계문수(五髻文殊)라고도 한다. 오자주(五字呪)는 다음과 같다. 아(阿 : 𑖀𑖳a)란 깨달음을 추구(追求)한다는 뜻. 라(囉 : 𑖀𑖳ra)란 개개인인(個個人人)이 모두 평등(平等)하게 구유(具有)하고 있다는 뜻. 파(跋 : 𑖀𑖳pa)란 진실여여(眞實如如)한 불성(佛性)을 말함. 사(捨 : 𑖀𑖳ca)란 심심미묘(甚深微妙)한 법(法)을 수행한다는 뜻. 나(那 : 𑖀𑖳na)란 만법(萬法)은 모두 연기(緣起)에 의하여 성립(成立)된다는 뜻이다. 불공(不空) 번역, 『만수실리동자보살오자유가법曼殊室利童子菩薩五字瑜伽法』(대정장20, p.723b) 참조.

86) 무주거(無住居) : 포산(包山) 묘문암(妙門庵) 북쪽에 있는 무주난야(無住蘭若)에서 주석하라고 계시하였다는 뜻이다. 무주암(無住庵)은 경상북도 현풍(달성군) 포산(琵琶山)에 있었던 암자이다.

87) [總覽] [全文]에는 字이나, [通史]에는 탈락됨.

88) [通史]와 [總覽]에는 居. [全文]의 北은 居의 오자임.

그 다음해 여름<sup>89)</sup> 다시 이 포산(包山) 묘문암<sup>90)</sup>에 거주(居住)하였으니, 암자 북쪽에 난야(蘭若)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주(無住)이므로, 곧 전 일 문수보살이 현신하여 기별(記莚)함을 깨닫게 되었다.<sup>91)</sup> 이 암자(庵子)에 주석하면서 항상 생계(生界)가 불감(不減)하고, 불계(佛界)가 불증<sup>92)</sup>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참구(參究)하다가 어느 날 홀연히 활연대오(豁然大悟)하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금일에야 비로소 삼계가 환몽(幻夢)임을

89) 명년하(明年夏) : 고려 고종 24년(1237).

90) 묘문암(妙門庵) : 경상북도 현풍(달성군) 포산(琵琶山)에 있었던 절이다.

91) 전기(前記) : 1236년 가을 보당암(寶幢庵)에 있을 때, 문수의 오자주(五字呪)를 외우면서 기도하던 중, 문수보살이 나타나 계시(啓示 : 記莚)하였던 감응(感應)을 가리킨.

92) 생계불감불계불증(生界不減佛界不增) : 생불일여(生佛一如) 또는 생불불이(生佛不二)라고도 한다. 생이란 미혹한 중생(衆生)이고, 불이란 깨달은 불타(佛陀)이며, 일여(一如)란 차별이 없다는 뜻으로서, 범부(凡夫)와 성인(聖人)이 동일(同一)하며, 혼미하고 깨달음이 둘이 아니란 말이다. 곧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요, 생사즉열반(生死卽涅槃)이란 뜻이다. 중생(衆生)이 일여하므로 법계(法界)의 중생이 모두 성불(成佛)하더라도, 중생 세계가 감소(減少)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세계(佛世界)도 또한 증대(增大)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면 생불이계(生佛二界)가 함께 무량무변(無量無邊)하기 때문이다. 중생세계가 무변하므로 중생이 성불하여도 중생의 수가 줄지 아니하고, 따라서 불세계가 광대무변(廣大無邊)한 탓으로 중생이 깨달아 불세계에 들어가더라도 불세계가 증대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컨대 『보적경寶積經』에 “文殊舍利 答善住意天子 天子當知 一切諸法 悉無住處 而言住者 是謂如來 爲諸衆生 作如是說 所以者何 如佛所說 如來住彼如如法中 一切衆生 亦復如是 住於如如 初不移動 衆生如卽如來如 如來如卽衆生如 衆生如來無二無別”이라 하였고, (대정장11 p.589b~c) 『부증불감경不增不減經』에는 “……是故 舍利弗 不離衆生界有法身 衆生界卽法身 法身卽衆生界 舍利弗 此二法者 義一名異”라 하였으며, (대정장16 p.467b) 『화엄경華嚴經』 권10「아마천공계관품夜摩天宮偈讚品」에서는 “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 心如工畫師 畫種種五陰 一切世界中 無法而不造 如心佛亦爾 如佛衆生然”(대정장9, p.465c)이라 한 등의 뜻이다.

알고 보니, 진대지(盡大地)가 섬호(纖豪)만치도 장애(障礙)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明年夏, 復居是山妙門庵, 庵之北, 有蘭若, 曰無住, 師乃悟前記, 住是庵時, 常以生界不減, 佛界不增之語, 叅究之, 忽<sup>93)</sup>一日, 豁然有悟, 謂人曰, “吾今日, 乃知三界如幻夢, 見大<sup>94)</sup>地無纖毫<sup>95)</sup>礙.”

이 해에 삼중대사(三重大師)의 법계를 비수<sup>96)</sup>받았으며, 병오년<sup>97)</sup>에는 이 어 선사(禪師)의 법계를 받았다. 기유년<sup>98)</sup>에 정상국(鄭相國)인 안<sup>99)</sup>이 남해(南海)에 있는 사제<sup>100)</sup>를 희사하여 절을 만들어<sup>101)</sup> 정림사(定林社)라 이

93) [總覽] [全文]에는 忽이나, [通史]에는 탈락됨.

94) [通史]와 [總覽]에는 大. [全文]의 太는 大의 오자임.

95) [通史]와 [總覽]에는 毫. [全文]의 豪는 毫의 오자임.

96) 비수(批授) : 비준(批准) · 비답(批答) · 비령(批令) 등과 같은 뜻. 비는 왕에게 표주(表奏)한 건의서(建議書)에 대하여 왕이 그 표주의 말미(末尾)에 기록한 척답(勅答)을 지칭한 것이다. 곧 임금의 허가를 받아 삼중대사의 법계를 주었다는 말.

97) 병오(丙午) : 고려 고종 33년(1246).

98) 기유(己酉) : 고려 고종 36년(1249).

99) 정상국안(鄭相國晏) : 당시 상국(相國; 宰相)이었던 정안(鄭晏 : ?~1251)이니, 문신. 초명(初名)은 분(奮). 자는 화경(和卿). 본관은 하동(河東). 숙첨(叔瞻)의 아들. 최우(崔瑀)의 생질. 하동 출신. 음양(陰陽) · 산술(算術) · 의약(醫藥) · 음율(音律) 등에 정통했으며, 진양수령(晉陽首領), 국자궐주(國子祭酒), 동지공거(同知貢舉) 등을 역임했다. 최우의 전권(專權)이 날로 심해지자 화가 두려워 남해(南海)로 은퇴, 불교를 독신하여 사재(私財)를 희사, 당시 간행(刊行)되고 있던 대장경(大藏經)의 일부(一部)를 맡아 간행하기도 하였다. 최항(崔沆)이 정권을 잡은 뒤, 술자리에서 최항이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고 비방함으로 인하여 백령도(白翎島)로 유배(流配)되어 살해당했다.

100) 사제(私第) : 사가(私家) 또는 사택(私宅).

101) 위사(爲社) : 사(社)는 사(寺)와 같은 뜻이니, 정안이 사가를 희사하여 절로 만들

름하고, 스님을 청(請)하여 주지로 추대하였으며, 기미년<sup>102)</sup>에 이르러서는 대선사(大禪師)의 법계를 받았다.

是年批授三重大師, 丙午<sup>103)</sup>加禪師. 己酉鄭相國晏, 捨南海私第, 爲社, 曰定林, 請師主之, 己未加大<sup>104)</sup>禪師.

중통 신유년<sup>105)</sup>에 왕명을 받들어 개경(開京)으로 가서 선월사<sup>106)</sup>에 주석하면서 개당<sup>107)</sup>하고 목우화상<sup>108)</sup> 지눌(知訥)의 법통을 요사<sup>109)</sup>하였다.

中統辛酉, 承詔赴京, 住禪月社開堂, 遂<sup>110)</sup>嗣牧牛和尚.

지원 원년<sup>111)</sup> 가을에 이르러 여러 차례 남환(南還)을 요청받고, 오어사<sup>112)</sup>

고 정림사(定林社)라 이름하였다.

102) 기미(己未): 고려 고종 46년(1259).

103) [總覽] [全文]에는 午. [通史]의 辰은 午의 오자임.

104) [通史]와 [總覽]에는 大. [全文]의 太는 大의 오자임.

105) 중통신유(中統辛酉): 중통은 원의 세조 연호. 신유(辛酉)는 세조 2년이며, 고려 원종(元宗) 2년(1261).

106) 선월사(禪月社): 『한국사찰전서』하권에 이 비문을 그대로 이재(移載)하였을 뿐, 다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107) 개당(開堂): 처음으로 주지나 조실(祖室)이 되어, 그 절에 진산(晉山)하여 처음으로 여는 법회(法會).

108) 목우화상(牧牛和尚): 1158~1210. 보조국사 지눌을 지칭함.

109) 요사(遙嗣): 요사란 동시대(同時代)에 선후배(先後輩)가 되어 스승과 제자가 마주 대하여 거양(擧揚)하고 면전수수(面前授受)함이 아니고, 자기 당시에는 법(法)을 받을 만한 명안종사(明眼宗師)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멀리 소급하여 모(某)스님을 법사(法師)로 자정(自定)하고 법을 이어받는 것이니, 원사(遠嗣)라고도 한다. 중통신유(中統辛酉)는 1261년이고, 목우화상(牧牛和尚) 지눌은 1210년에 입적하였으니, 입적 후 51년이 지났으므로 요사라 한다.

110) [全文]에는 遙. [通史] [總覽]의 遙는 遙의 오자임.

111) 지원원년(至元元年): 지원은 원나라 세조의 연호이고, 지원원년은 고려 원종 5

에 우거(寓居)하였다. 그 후 얼마되지 않아 인흥사<sup>113)</sup> 주지 만회<sup>114)</sup>가 일연에게 주석(主席)을 넘겨 주었는데, 학려(學侶)가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

至至元元<sup>115)</sup>年秋, 累請南還, 寓居<sup>116)</sup>吾魚社.<sup>117)</sup> 未幾, 仁弘社主, 萬恢, 讓師主席, 學侶<sup>118)</sup>雲臻.

무진년<sup>119)</sup> 여름 왕명에 의하여 이름이 높은 선사와 강사 등 1백 명을 초

년(1264).

112) 오어사(吾魚社): 오어사(吾魚寺)이니, 경상북도 영일군 오천면(烏川面) 향사동(恒沙洞) 운제산(雲梯山)에 있는 절이니, 신라 때 혜공(惠空)이 창건하였다. 본비문 주489)오어사吾魚社 p.617 참조.

113) 인흥사(仁弘社): 인흥사(仁興寺)의 전신(前身)이니, 경상북도 성주군 비슬산에 있었던 절. 본래는 인흥사(仁弘寺)였는데, 뒤에 인흥사(仁興寺)로 바뀌었다. 이 절은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지었던 곳이다. 최근에 발견된 인흥사간(仁興寺刊) 『삼국유사』『역대연표歷代年表』에 따르면 1261년(원종2) 원종의 명(命)으로 일연이 강화도(江華島) 선월사(禪月寺)로 갔다가, 그 후 오어사를 거쳐 비슬산(毘瑟山) 인흥사주지(仁弘寺住持)로 있을 때 집필(執筆)하였다고 전한다.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730번지 일대로서 남평 문씨(南平文氏)의 세거지(世居地)로 건물(建物) 모두가 문화재(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는데, 본체는 수봉정사(壽峯精舍)란 편액이 붙어 있고, 전면(前面) 수천평(數千坪)의 밭은 모두 대추나무등 과원(菓園)으로 꽉 차 있으며, 한 복판에는 파손(破損)된 자그마한 석탑(石塔)만 남아 있을 뿐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 28 『성주목星州牧』‘불우’에 의하면, “仁興寺 在毘瑟山北 高麗恭愍王題額 李崇仁詩에 ‘興仁寺在苞山麓 我昔曾遊伴雪螢 檀越有時來禮佛 閨梨清晝坐談經 立庭一塔亭亭白 夾道長松箇箇青 最憶黃金天上筆 祇今光焰射華星’”이라 하다.

114) 만회(萬恢): 인흥사의 주지였으나, 다른 자료에도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

115) [全文]에는 元字 한 글자가 탈락됨.

116) [全文]에는 居字가 탈락됨.

117) [總覽] [全文]에는 社이고, [通史]에는 寺이니, 社가 옳으나 뜻으로는 相通한다.

118) [總覽] [全文]에는 侶이고, [通史]에는 麗이니, 뜻으로는 相通하나 侶가 옳다.

119) 무진(戊辰): 고려 원종 9년(1268).

청하여 대장경(大藏經) 조조(彫造) 낙성법회<sup>120)</sup>를 운해사<sup>121)</sup>에 개설하고, 스님을 청하여 주맹<sup>122)</sup>으로 모시고, 낮에는 금문<sup>123)</sup>을 독송하고, 밤에는 종취<sup>124)</sup>를 담론(談論)하였다. 제가(諸家)들이 의심하던 바를 스님께서 모두 해박하게 부석(剖釋)하였으니, 마치 흐르는 물과 같이 유연하여 핵심적인 뜻이 귀에 속속 들어와서 경복(敬服)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戊辰夏, 有朝旨, 集禪教名德一百員, 設大藏落成會於雲海寺,  
請師<sup>125)</sup>主盟, 晝讀金文, 夜談宗趣. 諸家所疑, 師皆剖釋如流,  
精義入神, 故無不敬服.

스님께서 인홍사(仁弘社)에 주석한 지 11년 만에 이 절이 창건한 지 이미

- 
- 120) 대장낙성회(大藏落成會) : 고려대장경판(再彫版)은 1236년 각판(刻板)을 시작하여 1251년 9월에 조조불사(彫造佛事)를 마쳤으나, 당시 시국상황이 복잡하여 곧 바로 낙성법회(落成法會)를 열지 못하고, 17년이나 지난 후 1268년에 이르러 비로소 '대장경판 조조불사 회향법회(大藏經板彫造佛事回向法會)'를 가졌던 것이다.
- 121) 운해사(雲海寺) : 다른 자료에서도 사적(寺蹟)이 보이지 않으나, 선교(禪敎)의 명덕(名德) 일백명(一百名)을 한 곳에 초청하여 대장경판 조조불사의 회향법회를 가졌으니, 사찰의 규모도 크려니와 그 위치(位置)도 왕성(王城)과 멀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개성 부근에 있었던 절로 추정해 본다.
- 122) 주맹(主盟) : 맹주(盟主)라고도 하는데, 법회를 주도하는 법주(法主) 또는 증명법사(證明法師)이다.
- 123) 금문(金文) : ①금구소설문(金口所說文)이니 불경(佛經) ②금니(金泥)로 쓴 문자(文字)이니 왕의 조서(詔書) ③금석문(金石文)이니 금석(金石)에 새겨진 문자(文字) 등이다. 여기서는 자마금신(紫磨金身)인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문자화(文字化)한 것이니, 경전을 지칭한다. 주독금문(晝讀金文)이란 주간에는 독경(讀經)을 강설하거나 읽는다는 말이다. 교종(敎宗)을 선양함.
- 124) 종취(宗趣) : ①경전(經典) 속에 담고 있는 진리(眞理) ②선종(禪宗)의 종취(宗趣)인 정법안장(正法眼藏) 열반묘심(涅槃妙心) 즉 내면세계(內面世界)인 진여(眞如)이다. 선지(禪旨)를 논함.
- 125) [總覽]에는 師字가 탈락됨.

오래되어 전당(殿堂)이 퇴락할 뿐아니라, 또 추애<sup>126)</sup> 즉 지반이 내려 앉고, 너무 비좁아서 중수하거나 신건하여<sup>127)</sup> 회곽<sup>128)</sup>하게 확장하고는 조정(朝廷)에 주청하여 인흥사를 고쳐 인흥사(仁興寺)라 이름하고, 어필(御筆)로 제액(題額)을 하사받았다.<sup>129)</sup> 또 포산(包山)의 동쪽 기슭에 있는 용천사<sup>130)</sup>를 중수하여 불일사<sup>131)</sup>로 개칭하였다.

師住仁弘十一年，是社創構既遠，殿宇皆頽圯，又且湫隘，師並重新，恢廓之，仍奏于朝，改號仁興，宸書題額以賜之。又於包山東麓，重葺涌泉寺，爲佛日社。

충렬왕이 즉조(卽祚)한 지 4년<sup>132)</sup> 정축에는 임금이 운문사<sup>133)</sup> 주지(住持)로 추대하여 현풍(玄風)을 크게 천양(闡揚)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임금께

126) 추애(湫隘): 건물의 지반(地盤)이 가라앉고, 또한 습기(濕氣)가 많은 늪 지대(地帶)라는 뜻. 추(湫)는 하(下), 애(隘)는 소(小)의 뜻.

127) 중신(重新): 중건(重建)과 신건(新建)이라는 뜻이다.

128) 회곽(恢廓): 건물을 확장하여 우뚝하다는 뜻.

129) 신서제액이사지(宸書題額以賜之): 어필(御筆)로 제액(題額)인 인흥사(仁興寺)라 써서 하사(下賜)하였다는 말. 『신증동국여지승람』권28 「성주목」 ‘불우’에는 공민왕(恭愍王)이 제액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연대상(年代上)으로 맞지 않으므로 충렬왕(忠烈王)의 오식(誤植)으로 보인다.

130) 용천사(涌泉寺): 『신증동국여지승람』권26 「밀양도호부密陽都護府」 ‘불우’에 “용천사는 재비슬산(在琵琶山)”이라 하였으니, 아래 각주의 불일사 전신이다. 湧과 湧은 같은 字이다.

131) 불일사(佛日社): 포산 동쪽 기슭에 있던 퇴락한 용천사(湧泉寺 또는 涌泉寺)를 중수한 다음, 불일사로 개칭(改稱)하였는데, 경상북도 밀양군 비슬산에 있었던 절이다.

132) 상즉조사년(上卽祚四年): 상은 고려 제25대 충렬왕을 지칭함이고, 즉조사년은 충렬왕 즉위 4년이니, 1277년이다.

133) 운문사(雲門寺):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호거산(虎踞山)에 있는 절이다.



서는 스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날로 깊어져 다음과 같은 찬시(讚詩)를 지어 보냈다.

上, 卽祚四年丁丑, 詔住雲門寺, 大闡玄風. 上, 日深傾注, 以詩寄云.

밀전(密傳)함에 어찌 구의(袈衣)<sup>134</sup>를 필요로 하라?

금지(金地)<sup>135</sup>서 서로 만남 기이할 뿐일세.

연공(璉公)<sup>136</sup>도 왕청(王淸) 받아 꺾내로 갔거늘

스님은 어찌 백운(白雲)<sup>137</sup>만 그리십니까?

密傳何必更摳衣,

金地逢招<sup>138</sup>亦是奇.

134) 구의(袈衣): 「장흥보림사보조선사비문」 주36) 구의摳衣 본서 p.62; 「징효대사보인탑비문澄曉大師寶印塔碑文」 주44) 구의지례摳衣之禮 [고려편1] p.245; 「원융국사비문圓融國師碑文」 주151) 구의摳衣 [고려편2] p.283 등 참조.

135) 금지(金地): 사원을 지칭함이니, 급고독 장자(給孤獨長子)가 기원정사(祇洹精捨)를 건립코자 기타태자(祇陀太子)의 소유인 임원(林園)을 구입할 때, 금을 땅에 흩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었던 데에서 온 말이다.

136) 연공(璉公): 1009~1090. 송나라 때 운문종(雲門宗) 스님. 이름은 회련(懷璉). 자는 기지(器之). 호는 대각선사(大覺禪師). 속성은 진씨(陳氏). 어머니가 사주(泗州)의 승가상(僧伽像: 觀音菩薩)에 기도하여 출생하였으므로 어릴 때의 이름으로 사주라고 했다. 명주(明州: 浙江省) 육왕산(育王山)에 주석하였으며, 장주(漳州) 출신. 늑담회징(潑潭懷澄)의 제자. 황우(皇祐) 2년(1050) 1월 인종의 부름을 받아 경사(京師)의 지방정인선원(十方淨因禪院)에 주석하던 중, 그 해 2월 19일 인종이 화성전(化成殿)으로 초청하여 불교의 대의(大義)를 듣고 크게 기뻐하여 대각선사라는 호를 하사하였다. 『속전등록續傳燈錄』 권5(대정장51, p.494b17) 『선림승보전禪林僧寶傳』 권18 「대각연선사장대覺璉禪師狀」(근속장137, p.514a), 및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권27 「대각회련선사大覺懷璉禪師」(근속장132, p.646c) 등 참조.

137) 백운지(白雲枝): 흰 구름이 깊은 산중의 나뭇가지에 덮여 있는 모양.

欲乞璉公邀闕下，  
師何長戀白雲枝。

신사년<sup>139)</sup> 여름 왕이 동정<sup>140)</sup>으로 인하여 동도<sup>141)</sup>로 행차하여 스님께 부  
행<sup>142)</sup>하기를 청하였으니, 주중(駐中)에서 법문을 듣고, 크게 존경심(尊敬  
心)을 일으켜 불일사에서 결사하게 된 그 결사문<sup>143)</sup>에 제압<sup>144)</sup>하여 불일사  
에 보관토록 하였다.

辛巳夏，因東征，駕幸東都，詔師赴行在，及至<sup>145)</sup>疏<sup>146)</sup>請陞座，  
倍生崇敬，因取師佛日結社文，題押入社。

138) [總覽] [全文]에는 招. [通史]의 抬는 招의 오자임.

139) 신사(辛巳) : 고려 충렬왕 7년(1281).

140) 동정(東征) : 1277년 12월 원나라에서 홍다구(洪茶丘)를 정동도원수(征東都元帥)  
로 하고, 1279년에는 원이 고려에 전함(戰艦) 구백척(九百隻)을 만들도록 요청  
하였으며, 1280년 8월 왕이 원으로 가서 정일본방략(征日本方略)을 조진(條陳)  
하였고, 마침내 그 해 11월에는 조인규(趙仁規) 등을 원에 보내어 동정준비(東征  
準備)의 완료(完了)를 보고했다. 1281년(辛巳) 3월 원수(元帥) 김방경(金方慶) 등  
이 합포(合浦 : 昌原)로 향발(向發)하였고, 따라서 4월에는 충렬왕도 합포로 행행  
(幸行)하였다. 5월에는 혼도(析都)·홍다구 및 김방경 등이 해군(舟師)을 거느리  
고 일본을 정벌(征伐)하다가 8월에 동정군(東征軍)들은 패배하고 합포로 귀환  
하였는데, 당시 돌아오지 못한 자가 무려 십만여명(十萬餘名)이나 되었다.

141) 동도(東都) : 고려시대 경주(慶州)를 지칭했던 말이다.

142) 부행재(赴行在) : 동행(同行)이란 뜻.

143) 불일결사문(佛日結社文) : 일연이 불일사에서 결사할 때의 「결사취지문結社趣  
旨文」이다.

144) 제압(題押) : 왕이 ‘불일결사’란 제액을 쓰고 압인(押印 : 署名捺印)하였다는 말  
이다.

145) [總覽]은 결락이나 [通史]와 [全文]에는 至임.

146) [通史]에는 路, [全文]에는 疏, [總覽]에는 탈락됨.

다음해 가을<sup>147)</sup> 근시 장작윤<sup>148)</sup> 김군<sup>149)</sup>을 보내서 조서(詔書)를 보내고<sup>150)</sup> 궐하(闕下)에서 맞이하여 대전(大殿)에서 선법문(禪法門)을 청해 들었으니, 용안(龍顔)에 기꺼움이 가득하였다. 이어 왕명으로 유사<sup>151)</sup>에게 시켜 광명사<sup>152)</sup>내에 원관<sup>153)</sup>을 짓게 하여 스님으로 하여금 입원(入院)케 한 날 밤중에, 어떤 사람이 방장실(方丈室) 밖에<sup>154)</sup> 서서 이르기를 “저 왔습니다.”라고 세 번이나 하므로, 문을 열고<sup>155)</sup> 살펴 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sup>156)</sup> 거

147) 명년추(明年秋) : 1282년 가을.

148) 근시장(近侍將) : 궁중에서 왕의 곁에서 시위(侍衛)하는 경호원.

149) 김군(金君) : 김군은 이 때는 장작윤이었으나 입비(立碑) 당시에는 상장군(上將軍)이었다. 김군은 1281년(충렬왕 7)에 안동부사직(安東府使職)에 있었다. 『고려사』 권29「세가世家」29 등 참조.

150) 뇌조(寶詔) : 임금의 조서(詔書)를 주어 스님을 영접하여 대궐(大闕)로 모셨다는 말. 寶는 줄 뇌字. 사야(賜也).

151) 유사(有司) : 해당 관청의 담당관. 관리(官吏). 말단 공무원.

152) 광명사(廣明寺) : 경기도 개성 연경궁(延慶宮) 북쪽 송악산(松嶽山) 기슭에 있었던 절로서, 고려 태조가 구택(舊宅)을 회사(喜捨)하여 절을 만든 것이다. 예컨대 원효(元曉)는 본가(本家)를 회사하여 초개사(初開寺)를 열었고, 자장(慈藏)의 사가위원녕사(捨家爲元寧寺), 명랑(明朗)의 사가위금광사(捨家爲金光寺), 정안(鄭晏)의 사가위정림사(捨家爲定林寺) 등 모두 사가(捨家)를 회사하여 절이 된 경우다.

153) 관(館) : 별관(別館)이라는 뜻이니, 광명사 내에 별관을 마련하여 스님을 모셨다는 말이다.

154) 방장외(方丈外) : 방장실(方丈室 ; 祖室 또는 拈花室) 문밖에라는 뜻이다.

155) 선래자삼(善來者三) : ‘왔습시다’라고 세 번 아뢰는 말. ①부처님 당시에는 출가(出家)하여 스님이 되고자 하는 행자(行者)가 정사(精舍)로 찾아오면, 부처님께 서나 또는 스님이 ‘잘 왔느냐. 비구여! 善來比丘’ 하고, 곧 삭발하여 가사를 입혀 주어 스님이 되게 하였으니, 이를 ‘선래비구계법’이라 한다. ②스승이 그의 제자의 환영을 일컫는 말. ③객(客)스님이 문전(門前)에 와서 ‘객 문안(問安) 드립니다’라면서 세 번 거듭 아뢴다는 말이니, 여기서는 ③의 뜻이다.

156) 시지무유야(視之無有也) : 문을 열고 바깥을 살펴 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는 말

을 12월에는 충렬왕이 수레를 타고 친히 스님을 방문하여 법문을 들었다.<sup>157)</sup>

明年秋，遣近侍將作尹金頤，賚詔迎至闕下，請於大殿說<sup>158)</sup>  
禪，<sup>159)</sup> 喜溢龍顏。勅有司館于廣明寺，入院日夜半，有人，立方  
丈外曰，“善來者三”，視之無有也，冬十二月，乘輿親訪，<sup>160)</sup> 咨  
問法要。

다음해 봄<sup>161)</sup> 임금께서 군신들에게 이르기를<sup>162)</sup> “나의 선왕들은 모두  
석문(釋門) 중에 덕이 높은 스님은 왕사(王師)로 모시고, 또 더 큰 스님은  
국사(國師)로 추대하였거늘, 부덕만이<sup>163)</sup> 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  
찌 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운문화상<sup>164)</sup>은 도가 높고, 덕이 커서 모  
든 국민이 함께 숭앙(崇仰)하거늘, 어찌 과인이 스님의 자택(慈澤)을 크게  
입었음이라! 마땅히 모든 국민들과 함께 존송하리라.” 하였다.

이다.

157) 승여친방(乘輿親訪): 충렬왕이 수레를 타고 친히 스님을 방문하여 법문을 들었  
다는 말이다.

158) [總覽] [全文]에는 說이나, [通史]에는 탈락됨

159) [總覽] [全文]에는 禪이나, [通史]에는 탈락됨

160) [總覽] [全文]에는 訪, [通史]의 望은 訪의 오자임.

161) 명년춘(明年春): 충렬왕 9년(1283) 봄.

162) 상위군신(上謂羣臣): 상은 고려 제25대 충렬왕을 지칭한다.

163) 재부덕(在否德): 부덕은 과인(寡人) 또는 우(愚)와 같은 뜻이니, 왕이 자신을 겸  
칭(謙稱)하는 말이다. 곧 부덕 즉 ‘나의 입장에 있어서만(나만이) 그렇게 함이 없  
다면 가(可)하다 할 수 있겠는가’라는 뜻이다.

164) 운문화상(雲門和尚): 일연스님을 지칭하는 말이니, 충렬왕 4년(1278) 왕명(王  
命)으로 청도 운문사(雲門寺)에 주지(住持)토록 하였기 때문이다. 본비문 중 ‘상  
즉조사년 조주운문사上卽祚四年詔住雲門寺’ 참고.

明年春，上謂羣臣曰，“我先王，皆得釋門德大者，爲王師，德又大者，爲國師，在否德，獨無可乎，今雲門和尚，道尊德盛，人所共仰，豈宜寡人，獨蒙慈澤，當與一國共之。”

그리하여 우승지<sup>165)</sup>인 염승익<sup>166)</sup>을 보내서 윤지<sup>167)</sup>를 받들어 청하여 합국<sup>168)</sup> 존사의 예를 행하려 하였으나, 스님은 표장(表狀)을 올려 굳게 사양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사신을 보내서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간청하여 마침내 허락을 받고, 상장군<sup>169)</sup> 나유<sup>170)</sup> 등을 보내어 책봉하여 국존<sup>171)</sup>으로 삼

165) 우승지(右承旨) : 밀직사(密直司)에 사(使), 부사(副使), 지신사(知申事) 그리고 좌승지(左承旨)와 우승지를 두었다. 밀직사는 왕명의 출납·궁중의 숙위(宿衛)·군기(軍機) 등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166) 염승익(廉承益) : ?~1302. 고려 문신. 초명은 유직(惟直). 본관은 서원(瑞原). 시호는 충정(忠靖). 악질(惡疾)을 불공(佛供)으로 고친 후부터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祈禱)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지저(李之氏)의 천거로 충렬왕의 충신이 되었다. 1278년 박항(朴恒) 등과 함께 필도치(必闇赤)가 되었고, 1281년 승지물학조교(承旨律學助教)로서 권세를 부렸다. 큰 저택을 지어 거기에 대장사 경소(大藏寫經所)로 삼았다. 『고려사』권29, 30, 31, 32, 33, 104, 105, 106, 107, 123, 130 등 참조.

167) 윤지(綸旨) : 왕의 명령. 조칙(詔勅).

168) 합국(闔國) : 거국(擧國)·전국(全國)과 같은 뜻이니, 온 나라 또는 온 국민이라는 말. 闔은 모두 합字 또는 하늘문 합字이다. 나무로 만든 대문을 합이라 하고, 죽위(竹葦)로 제작(製作)한 문을 선(扇)이라 한다. 『예기』「월령月令」에 “用木闔, 用竹葦曰扇”이라 하다. “行闔國尊師之禮”란 온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 일연스님을 국존(國尊)으로 모시는 예식(禮式)을 행한다는 말이다.

169) 상장군(上將軍) : 신라 때는 대장군(大將軍)의 다음이며, 하장군(下將軍)의 위였다. 고려 때의 무관직. 정3품으로 각 군영(軍營)의 으뜸가는 벼슬이며, 이군(二軍)·육위(六衛)에 1명씩 두었다. 공민왕(1351~1374) 때 상호군(上護軍)으로 개칭하였다.

170) 나유(羅裕) : ?~1292. 고려 충렬왕 때의 무장(武將). 나주(羅州) 출신. 득황(得璜)의 아들. 원수(元帥) 김방경(1212~1300)을 따라 삼별초(三別抄 : 夜別抄·左別抄·

고, 호를 원경충조<sup>172)</sup>라 하였다.

於是，遣右承旨廉承益，奉綸旨，請行闔國尊師之禮，師，上表  
固讓，上復遣使，牢請至三，仍命上將軍羅裕等，冊爲國尊，號  
圓徑冲照，冊訖。

4월<sup>173)</sup> 신묘일에 대내<sup>174)</sup>로 맞이하고, 왕이 몸소 백료(百僚)를 거느리고  
구의(摠衣)의 예를 행한 다음, 국사를 고쳐 국존(國尊)이라 하게 된 것은,  
대조(大朝 : 元)의 제도인 국사란 칭호를 피하기 위해서이다.<sup>175)</sup> 스님은 평

右別抄)를 진도(珍島)에서 진압하여 공(功)을 세웠다. 김방경이 탐라(耽羅)를 정  
벌할 때 대장군으로 종군(從軍), 원나라 장군 홀돈(忽敦)을 따라 일본을 치고 돌  
아와 응양대호군(鷹揚大護軍)이 된 후, 합포(合浦)에 주둔하였다가 예(禮)에 밝  
다 하여 1287년에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가 되었다. 1290년에 합단(哈丹 ;  
元나라의 叛賊)이 동북 변경(邊境)을 침범하자 여러 번 이겨서 지밀직사사(知密  
直司事)에 오르고 원나라로부터 회원대장군직(懷遠大將軍職)을 받았다. 1292년  
6월에 죽었는데, 전기는 『고려사』권104「列傳」17에 실려 있다.

171) 국존(國尊) : 함국존사(闔國尊師)의 준말. 국사(國師)와 같은 격이나, 당시 원나  
라에서도 국사라고 하는 칭호를 피하여 국존이라 하게 되었다.

172) 원경충조(圓徑冲照) : 이는 일연의 국존호(國尊號)인데, 경자(徑字)가 『삼국유  
사』권1 첫머리에는 “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鏡冲照大禪師一然 撰”이  
라 하여, 원경(圓鏡) 즉 경(徑)자 아닌 경(鏡) 자를 쓰고 있다. 이는 가차음(假借  
音)으로서 자의(字義)는 다르나, 음동(音同)이므로 통용(通用)한 것이다. 예컨대  
「고달원원종대사비高達院元宗大師碑」에 광종(光宗)이 하사한 탑명(塔名) ‘혜진  
惠眞’을 ‘혜진慧眞’으로, 또 『고려사』「지리지」에도 신라의 ‘양주良州’를 ‘양주梁  
州’로 기록한 등이다.

173) 사월(四月) : 1283년 4월이다.

174) 대내(大內) : 대궐(大闕) 내(內)이니, 궁중(宮中)이라는 뜻이다.

175) 위피대조국사지호야(爲避大朝國師之號也) : 충렬왕의 본뜻은 국사(國師)로 책봉  
하러 하였으나, 국존(國尊)으로 칭하게 된 것은, 당시 원나라에서 사용한 국사란  
칭호를 피(避)하기 위해서라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상현은 「인각사보각국사비  
음기 제고」(『韓國學報』62, 1991)의 주1)에서 “원의 간섭으로 인해 국사를 국존으

소에 경연<sup>176)</sup>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또 노모(老母)를 곁에서 모시기 위해 구산<sup>177)</sup>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비는 그 사의(辭意)가 심히 간절하여, 임금께서 거듭 그 뜻을 어기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마침내 윤허하시고, 근시<sup>178)</sup>좌랑<sup>179)</sup> 황수명<sup>180)</sup>에 명해서 귀산(歸山)을 호행(護行)하여 영친<sup>181)</sup>토록 하였으니, 조야(朝野)가 모두 출가자(出家者)로써 희유(希有)한 효심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 다음해에<sup>182)</sup> 노모께서 96세로 별세하였다.

로 칭하게 되었다”라 하였고, 갈성말치(葛城末治)의 『조선금석고朝鮮金石攷』에 서는 국사를 고쳐 국존으로 한 것은, 원의 국사호칭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라고 하였다.

- 176) 경연(京輦) : 경사(京師)와 같은 말. ①경은 대(大), 사는 중(衆). 곧 대중(大衆)이 많이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궁성(宮城)이 있는 곳이다. ②경은 다(多), 른(輦)은 연곡(輦轂)의 뜻이니, 사방(四方)으로부터 많은 수레가 폭주하여 모여 든다는 뜻이다.
- 177) 구산(舊山) : 옛날에 주석하던 곳으로, 노모(老母)가 있는 포산 불일사(雲門寺 부근에 위치)를 지칭함.
- 178) 근시(近侍) : ①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 승지(承旨)·사관(史官). ②근시위(近侍衛)의 준말이니, 화아지(火兒赤)의 고친 말인데, 홀지(忽只) 또는 홀치(忽赤)라고도 함. 고제(古制) 위사(衛士)를 일컫는 몽고(蒙古) 말. 고려 충렬왕이 태자로서 원나라에 가 있을 때, 뿌루화[禿魯花]가 되었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붙여진 이름인데, 그 후 충렬왕이 즉위하여 번(番)을 짜서 숙위(宿衛)케 하였다.
- 179) 좌랑(佐郎) : 고려 육부(六部)를 충렬왕 1년(1275)에 고친 사사(四司; 典理司·軍簿司·版圖司·典法司), 공민왕 11년(1362)에 고친 육사(六司; 典理司·軍簿司·版圖司·典法司·禮儀司·典工司), 공양왕 1년(1389)에 고친 육조(六曹)의 정5품 벼슬이다.
- 180) 황수명(黃守命) : 다른 자료에도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
- 181) 영친(寧親) : 귀성(歸省)과 같은 말. 곧 부모(父母)와 멀리 떨어진 객지(客地)에 있는 자식(子息)이 귀향(歸鄉)하여 부모를 찾아 뵙고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 부모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린다는 뜻이다. 『법언法言』 「효지서孝至序」에 “孝莫大於寧親”이라 하다.
- 182) 명년(明年) : 고려 제25대 충렬왕 10년(1284)이니, 일연이 입적하기 5년전에 해당한다.

四月辛卯, 迎入大內, 躬率百僚, 行摠衣禮, 改國師爲國尊者, 爲避大朝國師之號也. 師, 素不樂京輦, 又以母老, 乞還舊山, 辭意甚切, 上重違其志, 而允之, 命近侍佐郎, 黃守命, 護行, 下山寧親, 朝野嘆其希有. 明年母卒, 年九十六.

그 해에 바로 조정에서는 인간사로써 스님의 하안지지<sup>183)</sup>로 삼고, 근시 김용검<sup>184)</sup>에게 명하여 절을 수즙<sup>185)</sup>케 하고, 또 토지 백여경<sup>186)</sup>을 헌납하여 상주<sup>187)</sup>를 갖추도록 하였다. 스님께서 이 절에서 구산문(九山門)의 도회

- 
- 183) 하안지지(下安之地): 임종지지(臨終之地)와 같은 말로서, 말년(末年) 조용한 곳에 결망과 석장(錫杖)을 내려놓고 편안히 지내다가 입적할 곳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 184) 김용검(金龍劍): 고려의 낭장(郎將). 1291년 합단의 입구(入寇)로 병화에 지친 백성의 원성이 심할 때, 경상·전라·충청도 소복별감(蘇復別監)이 되어 관리의 선악(善惡)을 안문(按問)했다. 『고려사』권30 참조.
- 185) 수즙(修葺): 인간사를 중수케 하였다는 말.
- 186) 경(頃): 토지(土地)의 면적을 측량하는 단위(單位). 결(結)과 같은 면적(面積). 사마척법(司馬尺法)에 따르면 육척(尺)이 일보(步), 백보가 일무(畝), 백무가 일경(頃; 結)이라 하였고, 주대(周代)에는 오궁(弓)이 일결, 사주(肘)가 일궁(弓), 일궁팔촌(一弓八寸)이 일주(一肘)라 하였는데, 현재에는 팔척을 일궁이라 한다. 『지도론智度論』에는 이척이 일주, 사주가 일척, 삼백척이 일리(里)라 하였다. 「왕형공시王荊公詩」에 “와점관오궁(臥占寬五弓)”이라 하였으니, 오궁은 사방(四方) 약(約) 오, 육척 정도인 듯하다. 그러나 일본(日本)에서는 육척으로 보았으나, 현재에는 오척을 일궁이라 하고 있다.
- 187) 상주(常住): 사중승물(四種僧物) 또는 사중상주물(四種常住物)의 준말. 사찰(寺刹) 운영(運營)에 필요한 물건(物件)이니, 여기에 4가지 상주물이 있다. ①상주상주물(常住常住物)이니, 사중(寺中)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공동의 물건과 건물(建物), 기물(器物), 불상(佛像), 화과(華果), 수림(樹林), 전원(田園) 등 ②시방상주물(十方常住物)이니, 날마다 대중이 수용(受用)하는 공양구(供養具) 등이니, 이는 시방승가(十方僧伽)에 공속(共屬)된 물건이기 때문이다. ③현전상주물(現前常住物)이니, 각기 대중이 가지고 있는 사유물(私有物) ④시방현전상주물(十



(都會)를 개설하니, 총림의 성황(盛況)이 근고(近古)에 비길데 없었다.

是年朝廷, 以麟角寺, 爲下安之地,<sup>188)</sup> 勅近侍金龍劔,<sup>189)</sup> 修葺之, 又納土田百餘頃, 以貲常住. 師入麟角, 再闢九山門都會, 叢林之盛, 近古未曾有也.

기축년<sup>190)</sup> 6월 병(病)이 일어났고, 7월 7일에 이르러 손수 대내(大內)에 올릴 편지를 쓰고,<sup>191)</sup> 또 시자(侍者)를 시켜 편지를 써서 상국(相國)인 염승익<sup>192)</sup>에게 보내어 장왕<sup>193)</sup>을 알리도록 하고는, 모든 선로(禪老)들과 더불어 날이 저물도록<sup>194)</sup> 문답하였다. 이날 밤 한척이나 되는<sup>195)</sup> 큰 별이 방장실 후원에<sup>196)</sup> 떨어지는 징후가 있었다. 다음 날 을유일 새벽 일찍이 일어

方現前常住物)이니, 사망(死亡)한 스님의 유물(遺物)인 안경, 바리때, 법기(法器) 등 경미(輕微)한 물건들이니, 이는 시방승(十方僧)에게 분여(分與)하는 물건(物件)이기 때문이다. 도선(道宣)의 『사분율행사초四分律行事鈔』 참조.

188) [總覽] [全文]에는 地이고, [通史]에는 寺이니, 뜻으로는 무방하나, [總覽]의 地가 옳다.

189) [總覽]에는 劍. [通史]에는 儉. [全文]에는 劔이니 儉과 劔은 모두 劔의 오자이며 劍은 劔의 同字이다.

190) 기축(己丑): 고려 제25대 충렬왕 15년(1289).

191) 대내서(大內書): 궁내(宮內)의 임금께 마지막으로 바치는 하직인사편지 곧 사세서(辭世書)이다.

192) 상국염공(相國廉公): 상국인 염승익(廉承益)을 지칭함이니, 본비문 주166)염승익廉承益 p.569 참조.

193) 장왕(長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영원(永遠)히 떠나간다는 말이다.

194) 이귀(移晷): 이경(移景), 이일(移日), 이영(移影) 등과 같은 말. 또는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뜻. 시간이 흘러 이미 해 그림자가 서산(西山)에 걸렸다는 말로써, 하루가 지났다는 뜻이다.

195) 대척위(大尺圍): 별의 크기가 한 자의 둘레 만큼이나 되었다는 말이니, 직경(直徑)이 일척 정도라는 뜻이다.

196) 방장후(方丈後): 방장실(方丈室: 祖室) 뒤쪽이라는 말.

나 목욕하고 단정히 앉아 대중에 이르기를, 내가 오늘 떠나려 하는데, 혹시 중일<sup>197)</sup>이 아닌지? 하고 물었다. 시자가 대답하되 중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다 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법고<sup>198)</sup>를 치게 하고 스님께서는 선법당<sup>199)</sup> 앞에 이르러 선상(禪床)에 걸터 앉아 인보<sup>200)</sup>를 봉함하여 장선별감<sup>201)</sup>

- 197) 중일(重日) : ①교단(敎團)의 사대명절(四大明節)·삼장(三長)·육제일(六齋日)·관음제일(觀音齋日)·지장제일(地藏齋日) 등은 불교에서 중요한 일진(日辰)으로 여기는 날이다. 이런 날 입적하면 대중들의 기도와 공불(供佛)에 지장을 주므로 이를 죄송하게 여겨 이와 같이 중요(重要)한 날을 피하여 입적하려는 뜻이다. ②음양가(陰陽家)에서 기피하는 흉일(凶日)이니, 음력 기해일(己亥日)은 흉사(凶事)에 적용되며, 또한 재앙(災殃)이 닥쳐온다고 하여 사람들이 싫어하는 날이다. 『태정관식太政官式』에 “御本命日及朔日復日 亦不申凶事”라 하다. 『역림문답曆林問答』하「석복일釋復日」에 “木與木 火與火 土與土 金與金 水與水 相重 故名復日也”라 하다.
- 198) 법고(法鼓) : ①부처님의 법문(法門)을 법고(法鼓)라 하며 ②설법하는 것을 법고를 울린다고 한다. 이는 교법(敎法)이 널리 세간(世間)에 퍼지는 것을 북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는데 비유한 것. ③사찰의 사물(四物) 중의 하나인 북을 지칭함이니, 홍고(洪鼓)라고도 한다. 『묘법연화경妙法蓮花經』「서품序品」(대정장, p.3c) ‘제일第一’에 “……爾時 文殊師利 語彌勒菩薩摩訶薩及諸大士 善男子等 如我惟付 今佛世尊 欲說大法 雨大法雨 吹大法螺 擊大法鼓 演大法義 諸善男子 我於過去諸佛 曾見此瑞 放斯光已 卽說大法 是故當知 今佛現光 亦復如是 欲令衆生 咸得聞知一切世間 難信之法 故現斯瑞”라 하다. 여기서는 ③의 뜻이다.
- 199) 선법당(善法堂) : 여기서는 스님의 열반이전 인연처이다. 선법당을 상고해 보면 도리천(忉利天)의 중앙(中央)에 제석천왕(帝釋天王)이 있는 곳이다. 수미산정(須彌山頂)에 위치한 도리천에는 한 복판에 선법당천(禪法堂天)이 있고, 거기에 제석천왕이 거(居)하며, 이를 중심으로 사방(四方)에 팔천(八天)씩이 있어 모두 32천(天)이다. 여기에 선법당천을 합하면 33천(三十三天)이 된다. 그러므로 도리(忉利)는 33천(三十三天)이라 번역된다. 『열반경涅槃經』권12(대정장12, p.439a)에 “是善法堂 忉利諸天 常集其中 論人天事 於是天主 釋提桓因 知頂生王已來 在外卽出迎逆 見已 執手昇善法堂 分座而坐”라 하다.
- 200) 인보(印寶) : 총렬왕으로부터 받은 국존이라는 직인(職印)이니, 마지막으로 입적하기 전 왕에게 반납(返納)하기 위해 봉함(封緘)하였다는 말이다.
- 201) 장선별감(掌選別監) : 선별(選別)을 맡은 별감이니, 궁중에 도착하는 우편물이나

인 김성고<sup>202)</sup>에 명하여 다시 거듭 봉필(封畢)하고, 천사<sup>203)</sup>가 오거든 노승<sup>204)</sup>의 말후사<sup>205)</sup>를 알리라 하였다.

越己丑六月, 示疾, 至七月七日, 手寫上大<sup>206)</sup>內書, 又命侍者作書, 寄相國廉公, 告以長往, 因與諸禪老, 問答移晷. 是夜, 有長星, 大尺圍, 隕于方丈後. 翌日乙酉晨起, 盥浴而坐, 謂衆曰, “今日, 吾當行矣, 不是重日<sup>207)</sup>耶.” 云<sup>208)</sup> “不是.” 曰, “然則可矣.” 令僧撾法鼓, 師至善<sup>209)</sup>法堂前, 踞禪床, 封印寶, 命掌選別監金成固, 重封畢, 謂曰, 適值天使來, 見老僧末<sup>210)</sup>後事.

어떤 스님이 국존의 앞에 나타나 묻기를 “석존(釋尊)께서는 학림<sup>211)</sup>에서 열반에 드셨고, 화상(和尚)은 인령<sup>212)</sup>에서 입적하시니, 그 상거(相去)<sup>213)</sup>가

기타(其他) 물품(物品)을 받아 왕에게 올려야 할 것을 선별하는 벼슬.

202) 김성고(金成固): 다른 자료에서도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

203) 천사(天使): 천자의 사신(使臣), 황제(皇帝)의 사자(使者), 칙사(勅使) 등의 뜻이니, 임금의 보낸 사신을 말한다.

204) 노승(老僧): 일연스님 자칭(自稱).

205) 말후사(末後事): 말기(末期) 또는 납월(臘月) 삼십일(三十日) 등과 같은 뜻이니,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을 지칭한 것이다.

206) [通史]와 [總覽]에는 大이고, [全文]의 太는 大의 오자임.

207) [通史]와 [總覽]에는 日이고, [全文]의 曰은 日의 오자임.

208) [總覽]은 결락이나 [通史]와 [全文]에는 云임.

209) [總覽] [全文]에는 善. [通史]의 差는 善의 오자임.

210) [通史]와 [總覽]에는 末. [全文]의 末는 末의 오자임.

211) 학림(鶴林): 인도 구시나갈(拘尸那迦 𑀧𑀺𑀓𑁆𑀭 Kuśinagara) 성이니, 부처님께서 이곳에 되나벌저(尸賴拏伐底) 하반(河畔)의 사라림(沙羅林)에서 열반하셨는데, 이 숲의 나무가 학색(鶴色)처럼 하얗게 변하였으므로 학림 또는 학수(鶴樹)라고 한다. 「진경대사보월능공담비문」 주105)쌍림雙林 [신라편] p.360, 주130)학수鶴樹 [신라편] p.363; 「원종대사혜진담비문」 주229)학수鶴樹 본서 p.271 등 참조.

얼마나 되는지<sup>214)</sup> 알 수 없나이다.” 하니, 스님께서 주장자를 잡고 한 번 내리치고 이르되,<sup>215)</sup> “상거가 얼마나?”고 반문하였다. 나아가 이르되 “그렇다면 금(今)과 고(古)가 마땅히 변천함이 없어 분명하게 목전(目前)에 있나이다.” 하니, 스님께서 또 주장자(拄杖子)를 잡고 한 번 내리치고 이르되, “분명히 목전에 있다.”라고 하였다. 나아가 이르되, “뿔을 세 개 가진 기린이 바다에 들어가고, 공여<sup>216)</sup>에 달린 조각달이 물속에서 나오다.” 하니, 스님께서 이르되 “훗날 다시 돌아오면 상인(上人)과 더불어 거듭 한 바탕 놀자.”고 하였다.

有僧出問, “釋尊示滅於鶴林, 和尚歸眞於麟嶺, 未審, 相去多少.” 師拈拄杖, 卓一下云, “相去多少.” 進云, “伊麼則, 今古應無墜,<sup>217)</sup> 分明在目前.” 師又卓一下云, “分明在目前.” 進云, “三角麒麟入海中, 空餘片月波心出.” 師云, “他日歸來, 且與上人, 重弄一場.”

또 어떤 스님이 묻기를, “화상께서 백년후에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니, 스님께서 이르되 “다만 일상생활 이것 뿐이라.”고<sup>218)</sup> 하였다. 나아가

212) 인령(麟嶺): 인각사를 지칭함이다.

213) 상거(相去): 차이를 말한다.

214) 상거다소(相去多少): ①서로와의 거리(距里)가 얼마나 되느냐? ②석존이 학림에서 멸도(滅度; 열반)하신 것과, 일연화상이 인각사에서 입적함이 그 차이(差異)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묻는 말.

215) 탁일하(卓一下): 주장자(拄杖子)를 높이 들어 한 번 법상(法床)을 내리친다는 말이다.

216) 공여(空餘): 공중(空中)과 같은 뜻.

217) [總覽] [全文]에는 墜이고 [通史]에는 墮이니, 뜻으로는 같으나 [總覽]의 墜가 옳은 듯하다.

218) 지저개(只這箇): 다만 현실 그대로일 뿐, 특별히 따로 구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이르되 “군왕과 더불어 일개(一箇) 무봉탑<sup>219)</sup>을 조성하더라도 무방(無妨) 하겠습니까.” 하니, 스님께서 이르기를 “어느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가?”<sup>220)</sup> 하였다. 나아가 이르되, “법을 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니, 스님께서 이르시길 “이 일은 모두 아는 사실이니, 더 이상 묻지 말라.” 하였다.

又有僧問, “和尚百年後, 所須何物.” 師云, “只這箇.” 進云, “重與君王造箇無<sup>221)</sup>縫<sup>222)</sup>塔樣, 又且何妨.” 師云, “甚麼處去來.” 進云, “也須問過.” 師云, “知是般事便休.”

또 어떤 스님이 화상에게 묻기를 “스님은 세상에 살아 있는 것이, 마치 세상에 없는 것과 같으며, 몸을 보되 또한 몸이 없는 것과 같으니, 더 오래 도록 세상에 살아 계시면서, 대법륜(大法輪)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 스님께서 이르되, “이 세상에 있거나, 저 제상에 있거나, 가는 곳마다 불사(佛事)를 하고 있느니라.” 하였다.

又有僧問, “和尚, 在世如無世, 視身如無身, 何妨住世, 轉大

[總覽]에는 只遮箇. [通史]에는 只遮個. [全文]에는 只這箇. 모두 상통한다.

219) 무봉탑(無縫塔) : 일반적으로 탑(塔)을 건립(建立)함에는 목(木)·석(石)·벽돌(磚材) 등으로 봉합(縫合)과 층급(層級)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께맨 자옥이 없는 한 덩어리의 탑(塔)을 무봉탑(無縫塔)이라 한다. 세상(世上)에서는 이를 난탑(卵塔)이라고 한다. 전(轉)하여 작위(作爲)없는 무위(無爲)의 공덕을 말한다. 무봉탑의 연유(緣由)는 남양혜충국사(南陽慧忠國師)와 당(唐)의 대종(代宗)과의 대화에서 비롯되었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권5「서경광택사남양혜충국사西京光宅寺南陽慧忠國師」(대정장51, p.245a)에 “師以化緣 將畢 涅槃時至 乃辭代宗 代宗曰 師滅度後 弟子 將何所記 師曰 告檀越 造取一所無縫塔 曰 就師請取塔樣 師良久曰 會麼 曰 不會 師曰 貧道去後 有侍者應眞 却知此事”라 하다.

220) 심마처(甚麼處) : 어느 곳. 어디로의 뜻.

221) [全文]에는 無이나, [通史]와 [總覽]에는 탈락됨.

222) [全文]에는 縫이나, [通史]와 [總覽]에는 탈락됨.

法輪.” 師云, “隨處作佛事.”

이와 같이 문답이 끝난 다음, 스님께서 모든 선덕(禪德)에게 이르시되, “날마다 공부하는 경지(境地)를 보고하라. 가려운 통양저<sup>223)</sup>[有念]와 가렵지 않은 불통양저(不痛痒底)[無念]가 모호<sup>224)</sup>하여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고는 주장자를 들어 한 번 내리치고 이르되, “이것이 곧 통저(痛底)라.” 하고, 또 한 번 내리치고 이르되, “이것은 불통저(不痛底)라.” 하며, 세 번째 내리치고는 “이것은 통저냐? 불통저냐? 시험삼아 자세히 살펴보라.”<sup>225)</sup> 하고는, 법상에서 내려와 방장실로 돌아가서 조그마한 선상(禪床)에 앉아서 담소함이 평소와 같았다. 잠시 후<sup>226)</sup> 손으로 금강인<sup>227)</sup>을 맺고 조용히 입적하시니, 오색 광명이 방장실 뒤쪽에서 일어났는데, 곧기가 당간<sup>228)</sup>과 같고,

223) 통양저(痛痒底): 아프거나 가려움. 주편사(週徧事)가 신변(身邊)에 미치는 영향. 『경덕전등록』권17「담주용복산화상潭州龍伏山和尚」(대정장51, p.343a)에 “……問 如何是祖師西來意 師曰 你得怎麼不識痛痒”이라 하다.

224) 모호(模糊): 애매모호(曖昧模糊)의 준말. ①분명하지 아니한 모양 ②흐리터분하여 뚜렷하지 아니한 모양.

225) 시변간(試辨看): 시험삼아 살펴 보아라. 또는 아무렇게나 자의(自意)대로 생각해 보라는 명령사(命令詞)이다.

226) 아경(俄頃): 잠깐 동안. 잠시의 뜻.

227) 금강인(金剛印): 금강권인(金剛拳印)의 준말. 왼손이 오른손의 인지(人指)를 잡고 가슴에 닿게 하는 수인(手印)이니,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이 취(取)하는 결인(結印)이다.

228) 당(幢): 범어(梵語)에 태박야(駄縛若 𑖇Dhvaja) 또는 계도(計都 𑖇Ketu)이며, 당간(幢竿)·찰간(刹竿)·간주(竿柱) 등으로 번역된다. 국기계양대와 같은 높은 장대 끝에 용두(龍頭)의 모양을 만들고 깃발을 달아 드리운 것. 불(佛)·보살(菩薩)의 위신과 공덕(功德)을 표시한 장엄구(莊嚴具). 불전(佛殿)이나 불상 앞에 세우며, 혹은 중생을 지휘하고, 마군(魔軍)을 굴복시키는 표지이며, 또는 사찰마다 종파(宗派)의 표시로도 세워졌다.

그 단엄하고 옥옥(煜煜)함은 불꽃과 같으며, 화염상(火炎上)에는 백운(白雲)이 일산(日傘)과 같이 덮인 속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떠나갔다. 때는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問答罷，師云，諸禪德，“日日報之，痛痒底，<sup>229)</sup> 不痛痒底，模糊未辨。”乃拈拄杖，卓一下云，“這箇是痛底。”又卓一下云，“這箇是不痛底。”又卓一下云，“這箇是痛底，<sup>230)</sup> 是不痛底，試辨看。”便下座，歸方丈，又坐小禪床，言笑自若。俄頃，手結金剛<sup>231)</sup>印，泊然示滅，有五色光，起方丈後，直如幢，其端煜煜如炎火，上有白雲如蓋，指天而去。時秋暑方熾。

얼굴 모양은 생전과 같이 선백(鮮白)하고 지체(支體)는 윤택하며, 굴신(屈伸) 작용은 생시와 같이 유연하였다. 원근으로부터 참관(參觀)하러 찾아온 사람이 운집하여 마치 담장처럼 주변을 가득 채웠다.<sup>232)</sup> 정해일에 사유<sup>233)</sup>하고 영골<sup>234)</sup>을 수습하여 선실(禪室) 중에 안치하고, 문인이 유장(遺狀)과 인보(印寶)를 가지고<sup>235)</sup> 역마를 타고 화급히 임금께 주문하였

229) [通史]와 [全文]에는 底. [總覽]의 之는 底의 오자임.

230) [總覽]에는 底와 是字 사이에 ‘又卓一下云這箇’란 七字가 있으나, [通史]와 [全文]에는 탈락됨.

231) [通史]와 [總覽]에는 剛. [全文]의 剛은 剛의 오자임.

232) 관자여도(觀者如堵): 스님의 신비스러운 열반(涅槃)의 모습을 친견(親見)하고 자, 원근(遠近)에서 모여든 사람이 마치 담장처럼 주변을 가득히 둘러쌌다는 말이다.

233) 사유(闇維): ㉠Jhāpita, 다비(荼毗)라고도 함. 불에 태운다는 뜻으로 화장(火葬)을 지칭함이다.

234) 영골(靈骨): ①사리(舍利) ②유골(遺骨).

235) 유장인보(遺狀印寶): 임금께 올리는 사세서(辭世書)와 국존의 직인(職印)이다. 본비문 주191)대내서大內書 p.573; 주200)인보印寶 p.574 참조.

다.<sup>236)</sup> 부음을 접한 임금은 크게 진도(震悼)하시고, 판관후서사<sup>237)</sup>를 보내어 척연<sup>238)</sup>하게 식종(飾終)의 예식<sup>239)</sup>을 거행토록 하고, 또 안렴사<sup>240)</sup>에 명하여 장례를 감호(監護)케 하고는,<sup>241)</sup> 이어 제조(制詔)를 내려 시호를 보각(普覺), 답호를 정조(靜照)라 하였다.

236) 승전이문(乘傳以聞): 부고를 빨리 전하기 위하여 역마(驛馬)를 타고 왕(王)에게 주문(奏聞)하였다는 말. 『한서漢書』「고제기高帝記」에 “乘傳詣雒陽”이라 하고, 如淳傳에 “曰 四馬高足 爲置傳 四馬中足 爲馳傳 四馬下足 爲乘傳 一馬二馬 爲軺傳 急者 乘一乘傳”이라 하다.

237) 관후서(觀候署): 서운관(書雲觀)이라고도 하는데, 고려 때 천문(天文)·역수(曆數)·측후(測候)·각루(刻漏)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국초에는 태복감(太卜監)과 태사국(太司局)으로 분치(分置). 1023년에 태복감(太卜監)을 사천대(司天臺)로 고치고, 1116년에 사천감(司天監)으로 다시 개칭. 1275년에 관후서로 불렀다가 다시 사천감으로 하였다. 1308년 태사국을 병합하여 서운관으로 개칭했다. 1356년에 다시 사천감으로 복구. 이때 태사국은 분립. 1362년에 태사국을 병합하여 서운관으로 개칭하였다. 『고려사』권28, 79 참조.

238) 척(偶): 척연(偶然)의 준말. 스님의 장례식을 높이 들어 엄숙하고 화려하게 거행(舉行)한다는 말이다.

239) 식종지례(飾終之禮): 사자(死者)의 최후를 장식하는 것이니, 장례식의 장엄을 뜻함이다. 「정진대사원오탑비문靜眞大師圓悟塔碑文」 주374) 식종지례飾終之禮 [고려편1] p.424; 「진관선사오공탑비문眞觀禪師悟空塔碑文」 [고려편2] p.150 주 209) 식종飾終 등 참조.

240) 안렴사(按廉使): 고려 때의 지방 장관. 초기에는 절도사(節度使)가 있었는데, 1012년에 이를 없애고 안렴사를 두었으며, 1064년 도부서(都部署)로 개칭. 1113년에는 다시 안찰로 환원했다. 1276년 안찰사를 안렴사로 고치고, 1298년 경상·전라·충청의 삼도(三道)는 지역이 넓어서 일이 많으므로 이곳에 안렴부사(按廉副使)를 두고, 동계(東界)의 안렴사를 없애고 교주(交州)의 안렴사가 겸하게 했다. 1389년에 안렴사의 관등이 낮으므로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고치고, 대신이 겸하였다. 1390년에는 각도(各道)에 관찰사(觀察使)·경력사(經歷使)를 두었는데, 1392년에 관찰사를 폐지하고 다시 안렴사를 두었다. 『고려사』 참조.

241) 감호상사(監護喪事): 장사지내는 행사를 감독하는 호상(護喪)을 말함이다.



顏貌鮮白，支體瑩澤，屈伸如生。遠近觀者如堵。丁亥闍維，拾靈骨，置于禪室中，門人，賁遺狀印寶，乘傳以聞。上，震悼，遣判觀候署事令<sup>242)</sup>倜，展飾終之禮，又命按廉使，監護喪事，仍降制諡曰，普覺，塔曰靜照。

10월 신유일에 탑을 인각사의 동쪽 산등성이에 세웠는데, 세수는 84이고, 법랍은 71세였다. 스님은 사람 됨됨이가 말할 때에는 농담하는 일이 없고, 천성(天性)은 가식(假飾)하는 일이 없다.<sup>243)</sup> 항상 진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많은 대중과 같이 있으나, 마치 홀로 있는 것과 같이 조용하였다.<sup>244)</sup> 국존의 위치에 있으나, 항상 자신을 낮추었으며, 배움에 있어서는 스승으로부터 수학(受學)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통달(通達)하였다.

十月辛酉，塔于寺之東崗，享年八十四，臘七十一。師爲人，言無戲謔，性無緣飾。以真情遇物，處衆若獨。居尊若卑，於學，不由師訓，自然通曉。

이미 도를 깨닫고는 온실<sup>245)</sup>하고 자유자재하여 무애변재(無礙辯才)를 갖추어 고인들의 기연어구<sup>246)</sup>가 반근<sup>247)</sup>과 착절<sup>248)</sup>처럼 얹히고 설키며, 와

242) [總覽]은 결락이나 [通史]와 [全文]에는 없음.

243) 성무연식(性無緣飾): 성품은 인위적(人爲的)으로 꾸미거나 사치함이 없고, 탈속(脫俗)·소박(素朴)·천진(天真)하다는 말이다.

244) 처중약독(處衆若獨): 많은 대중(大衆)과 함께 있으나, 마치 홀로 있는 것과 같이 항상 조용하고 과묵(寡默)하다는 말이다.

245) 온실(穩實): ①틀림없다. ②믿을 수 있다. ③확실(確實)하다. ④온화(穩和)한 진면목(眞面目) ⑤무애자재(無礙自在)하여 마음 내키는대로 경계(境界)를 따라가도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

246) 기연어구(機緣語句): 종사(宗師)와 학인(學人)이 문답한 법어(法語) 곧 조사어록

선<sup>249)</sup>과 파협<sup>250)</sup>같이 복잡한 부분을 해박하게 결척<sup>251)</sup>하여 막힌 부분을 소통케 하므로서 마치 거울처럼 훤히 보게 하여<sup>252)</sup> 주시니, 그 회회언<sup>253)</sup>하며 유인유여<sup>254)</sup>한 숨씨를 탄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또 참선하는 여가(餘

(祖師語錄). 기연(機緣)이란 스승과 제자가 법연(法緣)에 투합하여 서로 만나는 계기.

247) 반근(盤根): 고목(古木)의 뿌리가 이리저리 사방(四方)으로 얹히고 설켜서 복잡하다는 뜻이니, 사건(事件)이나 문장(文章)이 번잡하여 해결(解結)하기 어려운 것에 비유한 말이다. 『문심조룡文心彫龍』 「총술總術」에 “夫不截盤根 無以驗利器 不剖文奧 無以辯通才”라 하다.

248) 착절(錯節): 나무의 가지와 넝쿨끼리 교착(交錯)하여 마치 얹힌 실타래와 가시밭처럼 얹히고 복잡하여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에 비유한 뜻이다. 『후한서』 「우후虞詡」에 “詡謂朝歌長 笑曰 不遇盤根錯節 何以別利器乎”라 하다.

249) 와선(渦旋): 선와(旋渦)·반와(盤渦)·회선(回旋)·와반(渦盤) 등과 같은 뜻. 소용돌이 치며 흘러가는 물결 가운데라는 말. 전하여 복잡한 사건(事件)이나 문장(文章)을 가리킴. 『유환기문游宦紀聞』 「칠七」에 “大洋海中 有渦旋處 龍在其下 湧出其涎”이라 하다.

250) 파협(波險): 험한 파도. 굽이쳐 흐르는 폭류로 물결이 심히 위험(危險)한 곳. 전하여 복잡하게 꼬인 사건이나 매우 해석(解釋)하기 어려운 문장을 지칭함.

251) 결척(抉剔): 척결(剔抉)과 같은 뜻. 얹히고 설킨 부분(部分)을 갈아내고 발라내어 핵심(核心)을 적나라(赤裸裸)하게 들어낸다는 말이다. 소식(蘇軾), 「기유효숙시寄劉孝叔詩」에 “爾來手實降新書 抉剔根株窮脉縷”라 하였고, 한유(韓愈), 「진학해進學解」에는 “爬羅剔抉 刮垢磨光”이라 하다.

252) 소감(疏鑒): 막힌 부분을 소통(疏通)하여 마치 거울처럼 훤히 보게 한다는 말. 명석(明哲)하다는 뜻.

253) 회회언(恢恢焉): 광대(廣大)한 모양. 넓고 커서 모든 것을 포용(包容)하는 모양. 『노자』 73장에 “天網恢恢 疏而不失”이라 하다.

254) 유인유여(游刃有餘): 유인유여지(游刃有餘地)의 준말. 백정이 도도(屠刀)를 사용함에 있어 소를 잡아 고기를 베어낼 때, 정육(精肉)과 뼈와의 사이에는 밀착(密着)된 부위(部位)에 간격이 있는데, 백정은 자유(自由)롭게 칼을 사용(使用)하되 칼날이 뼈에 단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하여 어려운 사건을 처리(處理)함에 있어 중용(從容)하여 여유(餘裕)가 있는 것에 비유하는 말이다. 『장자』 「양생주養生主」에 “庖丁爲文惠君解牛 … 文惠君曰 諱 善哉 技蓋至此乎 庖丁釋刀對曰

暇)에는 다시 장경을 열람하여 제가(諸家)의 장소(章疏)를 연구하고, 곁으로 유서(儒書)를 섭렵하는 한편, 백가제서(百家諸書)를 겸수(兼修)하여 곳에 따라 중생을 이롭게 하되, 그 연마한 묘용(妙用)이 종횡무애(縱橫無礙)하였다. 무려 50년 동안 닦은 법도(法道)가 고매하여 있는 곳마다 서로 다투어 경모<sup>255)</sup>하였다.

既入道穩實而縱之，以無礙辯，至古人之機緣語句，盤根錯節，  
 渦<sup>256)</sup>旋<sup>257)</sup>波<sup>258)</sup>險處，扶<sup>259)</sup>剔<sup>260)</sup>疏<sup>261)</sup>鑿<sup>261)</sup>，恢恢焉，游刃有<sup>262)</sup>餘<sup>263)</sup>。  
 又於禪悅之餘，再閱藏經，窮究諸家章疏，旁涉儒書，兼貫百家，而隨方利物，妙用縱橫。凡五十年間，爲法道稱首，隨所住處，皆爭景慕。

그리하여 많은 사대부(士大夫)들이 스님의 당하<sup>264)</sup>를 참방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며, 비록 저마다 괴결<sup>265)</sup>이라 자부(自負)하던 자라도,

… 彼節者有間 而刀刃者無厚 以無厚 入有間 恢恢乎 其於游刃 必有餘地矣 是以十九年而刀刃 若新發於硎”이라 하다.

255) 경모(景慕) : 경앙(景仰) 또는 앙모(仰慕)와 같은 뜻. 크게 사모하는 것. 크게 존경한다는 말.

256) [總覽]은 결락, [全文]에는渦, [通史]의 渦은渦의 오자임.

257) [總覽]은 결락, [全文]에는旋, [通史]의 施는旋의 오자임.

258) [全文]에는波, [通史] [總覽]의 陂는波의 오자임.

259) [全文] [總覽]에는扶, [通史]의 扶는扶의 오자임.

260) [通史] [全文] [總覽]의 疏는疏의 同字임.

261) [通史]와 [總覽]에는鑿, [全文]의 鑿은鑿의 오자임.

262) [總覽] [全文]에는有이나, [通史]에는탈락됨.

263) [總覽] [全文]에는餘이나, [通史]에는탈락됨.

264) 당하(堂下) : 좌하(座下) · 귀하(貴下) · 각하(閣下) 등과 같이 상대를 지극히 높혀서 일컫는 존칭사(尊稱辭)이다.

다만 스님의 유방여운<sup>266)</sup> 곧 범문을 들으면, 모두 심취(心醉)하여 망연자실<sup>267)</sup>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어머니를 봉양하는 지극한 효심(孝心)은 목주(睦州) 진존숙<sup>268)</sup>의 가풍을 흠모한 것이다.<sup>269)</sup> 자호(自號)를 목암(睦庵)

265) 괴걸(魁傑) : 괴웅(魁雄)·괴위(瑰偉) 등과 같은 뜻. ①현걸 찬 영웅 ②위대한 인물(人物) ③영걸(英傑)하고 절수(絶秀)한 사람이다. 「원융국사비문圓融國師碑文」 주86)괴위魁偉, 주87)걸절傑絶 [고려편2] p.279; 「지광국사현묘탑비문智光國師玄妙塔碑文」 주37)괴웅魁雄 [고려편2] p.361 등 참조.

266) 유방여운(遺芳餘潤) : 일연스님이 남긴 빛나는 여운 곧 범문(法門)을 가리키는 말이다.

267) 자실(自失) : 망연자실(茫然自失)의 준말. 깜짝 놀라 정신을 잃어 어리둥절하는 모양. 또는 깜짝 놀라 미처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탄복하는 말이다.

268) 진존숙(陳尊宿) : 황벽희운(黃檗希運 : ?~855년경)의 제자. 휘는 도명(道明) 또는 도종(道蹤). 호는 목주(睦州). 속성은 진씨(陳氏). 강남(江南) 출신. 목주(睦州 : 浙江省) 용흥사(龍興寺)의 조실(祖室)로 있으면서 백여명(百餘名)의 대종을 모아놓고 문풍(門風)을 진작(振作)하였으므로 세인(世人)들이 진존숙이라 일컬었다. 항상 자신(自身)을 감추어 방(房) 안에서 포혜(蒲鞋 : 짚신)를 삼아 노모(老母)를 봉양(奉養)하는 등 효심(孝心)이 지극하였다. 『경덕전등록』권12「진존숙陳尊宿」에서는 항상 짚신을 삼아 비밀(秘密)히 노상(路上)에 두어 행인(行人)들에게 보시(布施)했다라고 하였으니, 진포혜(陳蒲鞋)라 부르기도 하였다. 어느 날 운문문언선사(雲門文偃禪師 : 864~949)가 찾아와서 고문(扣門)하거늘 존숙이 묻되 누구냐고 하니, ‘문언(文偃)입니다’라 한데, 존숙이 ‘진시알력찬(秦時轆轤鑽)’이라고 평가한 말은 매우 유명하다. 건부연중(乾符年中 : 874~879)에 세수(世壽) 98, 법랍 76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조당집』19; 『경덕전등록』12; 『석씨계고략』3 등 참조.

269) 목주진존숙지풍(睦州陳尊宿之風) : 일연스님이 효심이 지극하여 목주의 진존숙이 지극한 효심으로 노모를 봉양(奉養)한 것을 흠모(欽慕)하여라는 뜻이다. 일연선사가 말년 인각사 근처에 노모를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매 그 부근에 장사 지냈는데, 모묘(母墓)와 탑비(塔碑)와 인각사가 삼각(三角)의 위치에 있다. 그 묘의 위치는 인각사에서 북쪽 약5리 지점, 화북삼리(華北三里)에서 약10리 즈음에 가천골(加川谷) 또는 능골(陵谷)이라고도 하는 골짜기 중봉정두(中峰頂頭)에 위치하고 있다. 전좌우삼면(前左右三面)에 자연석 축석이 둘러져 있다. 부근(附近) 주민(住民)의 전설(傳說)에 따르면, 셋달 그믐날이면 스님의 탑



게 한 것으로 관(觀)하건대, 김용검(金龍劍)의 꿈이 허황되지 않음을 알겠  
 도다. 그 나머지 이적과 기몽(奇夢)이 매우 많으나, 어괴<sup>274)</sup>하다고 여길까  
 염려되어 이들은 모두 생략하는 바이다.

初龍劍之來也, 馬山驛吏, 夢人曰, “明日當有天使, 修曇無竭  
 菩薩住處<sup>275)</sup>行過此.” 明日果至, 以師之行, 己利人觀之, 是夢  
 豈虛也哉. 其餘異跡奇夢頗多, 恐涉語怪, 故略之.

저서는 『어록語錄』2권<sup>276)</sup> · 『계송잡저偈頌雜著』3권<sup>277)</sup>이 있고, 그 편수  
 한 바로는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2권<sup>278)</sup> · 『조파도祖派圖』2권<sup>279)</sup> · 『대  
 장수지록大藏須知錄』3권<sup>280)</sup> · 『제승법수諸乘法數』7권<sup>281)</sup> · 『조정사원祖庭事  
 苑』30권<sup>282)</sup> · 『선문념송사원禪門拈頌事苑』30권<sup>283)</sup> 등 백여 권이 세상에 유

274) 어괴(語怪): 이상(以上)의 이적(異跡)과 기몽(奇夢)들이 모두 괴이(怪異)한 말이  
 라 하여 미신(迷信)으로 취급(取扱)될까 염려되어 생략하고 기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275) [通史]와 [總覽]에는 없으나, [全文]에는 住와 行字 사이에 處가 더 있다.

276) 어록이권(語錄二卷): 일실(逸失)되고 없음.

277) 계송잡저삼권(偈頌雜著三卷): 일실되고 없음.

278) 중편조동오위이권(重編曹洞五位二卷): 회연보(晦然補),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  
 五位』. 현존(現存)함. 선종(禪宗)의 오종(五宗) 중 조동종(曹洞宗)의 오위설(五位  
 說)에 대하여 일연이 주(註)를 보완(補完)해서 엮은 책이다. 조동오위설이란 동  
 산양개(洞山良介 807~869)가 제창(提唱)한 오위편정(五位偏正; 正中偏·偏中正·  
 正中來·偏中至·兼中到)설에 조산본적(曹山本寂)이 주를 가(加)하여 선양(宣揚)  
 하므로서 조동종의 중심사상이 된 것이니, 편(偏)은 신(臣)이고, 정(正)은 군(君)  
 에 배대하고 있다. 한불전6, pp.216b~244b 참조.

279) 조파도이권(祖派圖二卷): 일실되고 없음.

280) 대장수지록삼권(大藏須知錄三卷): 일실되고 없음.

281) 제승법수칠권(諸乘法數七卷): 일실되고 없음.

282) 조정사원삼십권(祖庭事苑三十卷): 일실되고 없음.

행하고 있다. 문인 운문사 주지 대선사(大禪師) 청분<sup>284)</sup>이 스님의 행장을 엮어 임금께 주문하였다.<sup>285)</sup> 행장을 전해 받은 임금께서 저로 하여금 비문을 지으라고 명하시었으나,<sup>286)</sup> 신은 학식이 황천하여<sup>287)</sup> 스님의 지극한 도덕을<sup>288)</sup> 제대로 드날릴 수 없어 미정 미정 미루어 수년이 지났지만,<sup>289)</sup> 문도의 간청이 계속될 뿐아니라, 왕명 또한 끝까지 거역하기 어려워서<sup>290)</sup> 부득이하여 삼가 비문을 짓고 송명(頌銘)하여 가로되,

師之所著, 有語<sup>291)</sup>錄二卷,<sup>292)</sup> 偈頌雜著三卷, 其所編修, 有重編曹洞五位二卷, 祖派<sup>293)</sup>圖二卷, 大藏須知錄三卷, 諸乘法數七卷, 祖庭事苑三十卷, 禪門拈頌事苑三十卷等, 百餘卷, 行

283) 선문염송사원삼십권(禪門拈頌事苑三十卷): 일실되고 없음.

284) 청분(淸琬): 당시 운문사(雲門寺)의 주지(住持)며 일연의 문인(門人)이었으나, 전기는 미상하다. 『동문선東文選』제4 p.285(1975) 「자씨산형원사보감국사비문 慈氏山瑩源寺寶鑑國師碑文」(木版本 118권 제20장 左面) 참조. 자씨산은 밀양읍(密陽邑) 동쪽 약 6km지점.

285) 장사지행(狀師之行): 일연스님의 행장(行狀)을 수집 기록하여야라는 뜻이다.

286) 상령찬사(上令撰辭): 충렬왕이 민지(閔漬)로 하여금 비문(碑文)을 지으라고 명하였다는 뜻이다.

287) 학식황천(學識荒淺): 민지 자신은 학식이 황당하고 천박하다는 뜻이다. 이덕유, 「진유주기성공비문進幽州紀聖功碑文」에 “臣學藝荒淺 久病衰殘”이라 하다.

288) 지덕(至德): 일연스님의 지극히 고매(高邁)한 덕망(德望)을 지칭함이다.

289) 과연수년(過延數年): 왕으로부터 비문을 지으라는 명을 받고 수년(數年)이 경과하였다는 말이니, 스님의 입적은 1289년이고, 입비(立碑)는 1295년이므로 적후(寂後) 6년만에 비를 세운 셈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명을 받고 3·4년이 지난 후에 비문을 지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90) 명역난오(命亦難忤): 왕의 명을 또한 거역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291) [通史] [全文]에는 語, [總覽]의 語는 語의 오자임.

292) [通史]에는 卷과 偈字 사이에 偈頌雜著三卷 其所編修 有重編曹洞五位二卷 등 19字가 脫落되었다.

293) [全文]에는 派字가 있으나, [通史]와 [總覽]에는 탈락됨.

于世. 門人, 雲門寺住持大禪師清玢,<sup>294)</sup> 狀師之行, 聞于上. 上,  
令臣撰辭, 臣, 學識荒淺, 不足以光揚至德, 故過延數年, 請旣  
不已, 命亦難忤, 謹爲之序而銘之, 曰,

서천에서 깃발을 높이 세우고,<sup>295)</sup>

대천세계(大千世界) 두루한 광장설이여!<sup>296)</sup>

제법(諸法) 중에 으뜸인 심인법이여,<sup>297)</sup>

이심전심(以心傳心) 비밀(秘密)히 단전<sup>298)</sup> 하였네!

294) [全文]에는 玢, [通史] [總覽]의 珍은 玢의 오자임.

295) 승번(勝幡): ①수승(殊勝)한 깃발 ②뛰어난 주창(主唱) ③월등한 사상(思想) 등  
의 뜻이니, 불교의 남상(濫觴)을 지칭함.

296) 설복대천(舌覆大千): ‘출광장설상(出廣長舌相) 변복삼천대천세계(徧覆三千大千  
世界)’의 준말. 부처님께서 광장설(廣長舌)로써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어서 설  
법하셨다는 말. 곧 불타(佛陀)의 진실불허(眞實不虛)한 진리(眞理)의 말씀이 3천  
대천세계의 곳곳에 유포(流布)되리라는 것을 뜻한다. 인도의 옛 풍속에 어른이  
나, 높은 사람에게 고(告)할 때, 마치 선서(宣誓)와 같이 자신이 하는 말이 사실  
(事實) 그대로라는 뜻으로 혀를 내밀어 윗 입술을 덮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출  
광장설상 변복삼천대천세계란 내가 하는 말은 모두가 진실여여(眞實如如)한 말  
임을 보여준 것이다. 『아미타경阿彌陀經』(대정장12, p.347b)에 “……舍利弗 如我  
今者 讚歎阿彌陀佛 不可思議功德 東方亦有阿閼鞞佛 須彌相佛 大須彌佛 須彌光  
佛 妙音佛 如是等 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 出廣長舌相 徧覆三千大千世界 說誠  
實言 汝等衆生 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 一切諸佛所護念經”이라 하다.

297) 유시법인(唯是法印): 팔만대장경밖에 오직 이심전심(以心傳心)한 정법안장(正  
法眼藏)의 법인(法印)만이라는 뜻. 법통(法統)·법맥(法脈).

298) 단전(單傳): 단(單)은 단독(單獨), 전(傳)은 상전(相傳)이니, 제1조 가섭존자로부터  
계속 겸전(兼傳)하다가 제24조인 사자존자(師子尊者) 때 이르러 계빈국(闍賓  
國 ㉔ Kāśmīra) 왕의 횡난(橫難)을 만난 후부터, 종래(從來)에 선(禪)과 경율(經  
律)을 함께 겸전하던 것을 선장(禪藏)은 남천축(南天竺)에, 경율(經律)은 북천축  
(北天竺)으로 각각 분리(分離) 전수(傳授)하였다. 이후 조조(祖祖)가 전법할 때,  
정법안장(正法眼藏)으로 선법(禪法)만 단전(單傳)하게 되었다. 계빈국왕난(闍賓



勝幡西振,  
舌覆大千.  
唯是法印,<sup>299)</sup>  
密付單傳.

축건<sup>300)</sup>엔 이십팔수 별과 같으며,<sup>301)</sup>

國王難이란 사자존자가 계빈국에 있을 때(景帝 永安 2년; 259) 마목다(摩目多)와 도락차(都落遮)라는 두 사람이 환법(幻法; 신통)을 배우다가 공모(共謀)하여 승가(僧伽)의 복색(服色)으로 가장하여 왕을 암살하려고 왕궁에 잠입하였다가 거사를 성공하지 못하고 붙잡혔다. 이때 왕이 “내가 삼보(三寶)를 독신하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대노(大怒)하여 국내의 모든 사원은 하나도 남김 없이 철거하고, 석승(釋僧)은 모조리 죽이라고 명하고, 자신(自身)은 칼을 들고 당시 교단의 대표(代表)인 사자존자(師子尊者)를 찾아가서 “오온(五蘊)이 공(空)한 경지(境地)를 얻었느냐?”하니, “이미 얻은지 오래입니다.”하였다니, “그렇다면 생사(生死)를 초월하였느냐?”, “이미 초월하였습니다.” “이미 생사를 초월하였다면 스님의 목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하였다. 존자 이르기를 몸이 내가 아니거늘, 어찌 목을 내어놓는데 인석(吝惜)하겠습니까? 하는 순간, 왕이 칼로 스님의 목을 쳤다. 이때 스님의 목에서 흰 젖(白乳)이 수척(數尺)이나 솟아 오르고, 왕의 오른 팔도 동시에 땅에 떨어졌으며, 따라서 왕도 마침내 7일 후에 죽었다. 이 일을 계빈국왕난이라 한다.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권5「사자비구전師子比丘傳」(대정장49, p.516b) 참조.

- 299) [通史]와 [全文]에는 印이고, [總覽]에는 輪이니, [全文]의 印이 옳은 듯하다.
- 300) 축건(竺乾): 천축(天竺)과 같은 말. 인도의 옛 이름. 중국의 곡적(曲籍)에 보이는 최고의 기록으로는 『사기』「대완전大宛傳」에는 신독(身毒), 다음 『한서』「서역西域」상에는 읍독(扈毒), 그리고 『후한서』「서역」에는 천축이라 하였고, 그 밖에 신독(申毒)·신도(信度)·신두(辛頭)·신두(身豆)·진정(眞定)·희도(呬度)·수두(豎豆)·건독(乾篤)·천독(天毒)·천독(天督)·천두(天豆)·천정(天定)·인토(印土) 등의 칭호가 있다.
- 301) 열수(列宿): 이십팔수(二十八宿)를 지칭함. 옛날 천문학(天文學)에서 하늘을 사궁(四宮; 東·西·南·北)과 사신(四神: 靑龍·白虎·朱雀·玄武)으로 나누고, 다시 각궁마다 일곱 성수(星宿)로 나눈 것의 일컬음. 곧 동방에는 각(角)·원(元)·저

중하<sup>302)</sup>엔 오조<sup>303)</sup>까지 전하였으니,  
 시간은 전후이나 사람은 같아,  
 법등의 그 광명은 상접하였다.

竺乾列宿,  
 中夏五葉,  
 世隔人同,<sup>304)</sup>  
 光光相接.

육조의 가풍이신 조계일파가,<sup>305)</sup>  
 동쪽나라 부상<sup>306)</sup>에 유입한 이후,

(氏)·방(房)·심(心)·미(尾)·기(箕) 등 칠성수(七星宿)이고, 서방에는 규(奎)·루(婁)·위(胃)·묘(昴)·필(畢)·자(觜)·참(參) 등 칠성수이며, 남방에는 정(井)·귀(鬼)·류(柳)·성(星)·장(張)·익(翼)·진(軫) 등 칠성수이고, 북방에는 두(斗)·우(牛)·여(女)·허(虛)·위(危)·실(室)·벽(壁) 등 칠성수이다.

302) 중하(中夏): 당나라 곧 중국을 지칭함.

303) 오엽(五葉): 한 송이의 꽃 밑에 다섯 잎사귀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로, 곧 오대(五代)란 뜻이니, 선종(禪宗)의 초조(初祖)인 달마대사(達磨大師)를 일화(一花)로 보고, 이조 혜가(慧可), 삼조 승찬(僧璨), 사조 도신(道信), 오조 홍인(弘忍), 육조 혜능(慧能) 등을 오엽이라 한다. 달마의 전법게(傳法偈)에 “吾本來茲土 傳法救迷情 一花開五葉 結果自然成”이라 하였고(『경덕전등록』권3; 대정장51, p.219c), 『경덕전등록』「양역서楊億序」(대정장51, p.196b)에 “雙林入滅 獨顧於飲光 屈晦相傳 首從於達磨 不立文字 直指心源 不踐階梯 徑登佛地 逮五葉而始盛 今千燈而益繁 達寶所者 蓋多 轉法輪者非一 蓋大雄付囑之旨 正眼流通之道 教外別行 不可思議者也”라 하다.

304) [通史]에는 소이고, [全文]에는 同이며, [總覽]에는 匹이니, 소과 同은 같은 字이고, [總覽]의 匹은 同의 오자임.

305) 조계일파(曹溪一派): 육조 혜능의 선종을 말함.

306) 부상(扶桑): 해가 뜨는 장소에 있으므로 동쪽을 가리킴이니, 곧 동국(東國) 즉 신라를 지칭함. 「신행선사비문信行禪師碑文」 주39) 부상扶桑 [신라편]

혁혁한 지일<sup>307)</sup> 성천에 떠오르니,

우리 스님 그 광명 융창시켰네!

曹溪一派,

東浸<sup>308)</sup>扶桑,

孕生智日,

我師克昌.

불타께서 열반한 말법세상에,

각박(刻薄)한 세상인심 흉악만 하니,

덕 높으신 지인<sup>309)</sup>이 있지 않으면,

불쌍한 중생들 의지할 곳 없다.<sup>310)</sup>

---

pp.64~65; 「통진대사보운탑비문」 주114)부상扶桑 [고려편1] p.359; 「원종대사  
혜진탑비문」 주16)부상扶桑 [고려편2] p.29 등 참조.

307) 지일(智日): 불교 또는 선종을 지칭함이니, 지혜(智慧)의 광명(光明)이란 뜻.

308) [總覽] [全文]에는 浸이고, [通史]의 侵은 浸의 오자임.

309) 지인(至人): 노장가(老莊家)에서 도를 닦아 지극(至極)의 경지(境地)에 도달한  
사람. 전하여 불교에서 도를 닦아 견성오도(見性悟道)한 사람을 지칭함. 『장자』  
「소요유逍遙游」에 “至人無己 神人無功 聖人無名”이라 하였고, 『경덕전등록』권3  
「보리달마菩提達磨」(대정장51, p.219b)에 “達磨 後魏 孝明 太和 十年(正光 元年이  
어야 함. 520) 十一月 二十三日 寓止于嵩山少林寺 面壁而坐 終日默然 人莫之測  
謂之壁觀婆羅門 時有僧神光者 曠達之士也 久居伊洛 博覽群書 善談玄理 每歎曰  
孔老之教 禮術風規 莊易之書 未盡妙理 近聞 達磨大士 住止少林 至人不遙 當造  
玄境 乃往彼晨夕參承 師常端坐面牆 莫聞誨勸 光自惟曰 昔人求道 敲骨取髓 刺  
血濟饑 布髮掩泥 投崖餉虎 古尚若此 我今何人 其年十二月 九日 夜天大雨雪 光  
堅立不動 遲明 積雪過膝 師憫而問曰 汝久立雪中 當求何事 光悲淚曰云云”이라  
하다.

310) 안앙(安仰): 누구를 의지할 수 있으랴? 의지할 자 누구이겠는가?라고 허탈한 심  
정을 표현.

去聖逾遠,  
世道交喪,  
不有至人,  
羣生安仰.

국존께서 세상에 출현한 것은,  
서원(誓願)코 모든 중생 구함이었네!  
학문은 깊고 깊어 백가(百家)에 정통(精通),  
만차(萬差)의 방편(方便)으로 제도(濟渡)했도다.

惟師之出,  
本爲利他.  
學窮內外,  
機應萬差.

남김없이 섭렵(涉獵)한 제자 백가의,  
현묘(玄妙)한 그 진리(眞理)를 탐구하여서,  
반근착절(盤根錯節) 그 의심(疑心) 풀어주시니,  
밝은 거울 비추듯 명식(明皙)하도다.

曉了諸家,  
搜玄索妙,  
剖釋衆疑,  
如鏡斯照.

선림<sup>311)</sup>에선 그 조령(祖令) 호소(虎嘯)와 같고,  
교해<sup>312)</sup>에는 그 변재(辯才) 용음(龍吟)과 같네!

갑자기 일어나는 구름과 같이,<sup>313)</sup>  
학인(學人)들은 침침<sup>314)</sup>히 모여들도다.

禪林虎嘯,  
教海龍吟.  
颺<sup>315)</sup>起雲合,  
學侶<sup>316)</sup>駸駸.

고해(苦海) 중생 모두를 구제하시니,<sup>317)</sup>  
빛나는 그 공덕은 영원하리라.<sup>318)</sup>  
오십년간<sup>319)</sup> 온 국민의 추앙을 받아,  
국존으로 불교 위상 크게 높였네!  
拔<sup>320)</sup>陷拯淪,

311) 선림(禪林): 선종을 지칭함.

312) 교해(教海): 교종을 가리킴.

313) 표기운합(颺起雲合): 맑은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일어나 허공을 가득히 채우듯, 이와 같이 학인(學人)이 운집(雲集)하였다는 말.

314) 침침(駸駸): 말이 질주(疾走)하는 모양, 말발굽 소리가 뚜벅뚜벅하는 형용, 점점 간단없이 모여드는 모양. 駸은 말몰아달릴 침字.

315) [全文] [總覽]의 颺과 [通史]의 颺는 뜻으로는 같다.

316) [全文] [總覽]의 侶와 [通史]의 儷는 뜻으로는 相通하나, [總覽]의 侶가 옳은 듯하다.

317) 발함중륜(拔陷拯淪): 함정(육지)에 떨어진 사람을 끌어 올리고, 물(바다)에 빠진 이를 건짐.

318) 개대(蓋代): 위대한 공적(功績)을 찬양하는 소리가 일대(一代)를 덮었다는 말. 온 나라에 청송하는 소리가 가득하다는 뜻.

319) 오십년간(五十年間): 1236년 포산(包山) 보당암(寶幢庵)에서 몽고의 난을 물리치기 위해, 문수오자진언(文殊五字眞言) 기도를 하다가 감응을 입은 후, 중대사(重大師)의 법계를 품수(稟受)한 때로부터 1289년 입적(入寂)할 때까지의 53년간을 지칭함이다.

玄功蓋代.  
五十年間,  
被人推戴.

임금께서 정성껏 법을 청하니,  
백성들도 모두가 뜻이 같도다.  
여러 차례 청하여 국존이 되니,  
높고 높은<sup>321)</sup> 그 도덕 국중에 제일.

上將請益,  
思共元元.  
冊爲國尊,  
尊中又尊.

개발한 귀한 보물<sup>322)</sup> 높이 쳐들고,  
자향(慈航)으로 고해 중생 건지시도다.  
방황하는 궁자(窮子) 고향을 찾게 하니,<sup>323)</sup>

320) [通史]와 [總覽]에는 抜이고, [全文]의 拔은 拔의 오자임.

321) 원원(元元): 원원본본(元元本本)의 준말. 원원이란 백성(百姓), 여서(黎庶) 등의 뜻. 사공원원(思共元元)은 임금의 생각과 모든 백성들이 스님을 존경하는 뜻을 모아서라는 말.

322) 보장(寶藏): 귀중한 보물을 쌓아 놓은 고장(庫藏)이니, 부처님의 묘법장(妙法藏)으로 능히 중생(衆生)의 고액(苦厄)을 구제하는 것에 비유한 말. 『법화경』제2권 「신해품信解品」(대정장9, p.17b)에 “……是時 窮子 聞父此言 卽大歡喜 得未曾有 而作是念 我本無心 有所希求 今此寶藏 自然而至”라 하였고, 『무량수경無量壽經』(대정장12, p.269c)에는 “……法藏比丘 棄國捐王 絕去財色 自行六婆羅密 敎人 令行 無央無數劫 積功果德 隨其生處 在意所欲 無量寶藏 自然發應 敎化安立無數衆生 住於無上 正眞之道”라 하다.

미(迷)한 길 어찌 다시 걸어 가리요!

寶藏當街,  
慈航當渡.  
窮子始歸,  
迷津爭赴.

고요한 한 밤중 방장실 뒤편에,  
떨어진 별의 크기 한 자나 되고,  
웅장(雄壯)한 큰 법당(法堂)이 무너지시니,  
오고 감에 자유(自由)한 스님의 경지!

長星忽墜,<sup>324)</sup>  
法棟已摧,

323) 궁자시귀(窮子始歸): 까닭없이 가출(家出)한 못난 아들이 50년 동안의 거지 생활을 마치고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이니, 『법화경』의 일곱가지 비유(七喻) 중의 하나이다. 삼계육도(三界六途)로 윤회하는 중생들은 공덕(功德)의 법재(法財)가 궁핍(窮乏)하므로 집을 나간 궁자(窮子)에 비유하였다. 『법화경』제2권「신해품」(대장경9, pp.16~17)에 따르면 어떤 큰 부자집 아들이 어릴 때 까닭없이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 50년 동안 타국(他國)으로 돌아다니면서 거지 생활을 하였다. 정처(定處)없이 돌아다니다가 본인도 모르는 생가(生家)의 근처(近處)에까지 오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는 아들을 맞아 들이려 하였으나, 근기(根機)가 매우 하열(下劣)한지라, 아버지의 저택(邸宅)을 왕궁(王宮)인 줄로 알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왕으로 오인(誤認)하여 겹을 집어 먹고 다시 달아났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방편(方便)을 동원하여 거지로 변장(變裝)한 종으로 하여금 동사섭(同事攝)하게 하여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게 한 후, 그 많은 재산(財産)과 가업(家業)을 그에게 양도(讓渡)해 주었다는 내용이다. 중생(衆生)들의 근기가 순숙(純熟)해지면 부처님께서 그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의 심인보고(心印寶庫)를 전해주는 것에 비유한 고사이다.

324) [通史]와 [總覽]에는 墜이고, [全文]에는 墮이니, 뜻으로는 같으나, [總覽]의 墜가 옳은 듯하다.

去來由己,  
其去何催.

진공이란 그 공(空)은 공이 아니고,  
묘유(妙有)라는 그 유(有)는 유가 아닐새.  
자취와 명상(名相) 모두 없어지고야,  
영원(永遠)한 열반상(涅槃床)에 오를 수 있네!

眞空不空,  
妙有非有.  
絕跡離名,  
然後可久.

박촉(迫促)하신 왕명은 갈수록 지엄(至嚴),  
신하된 입장에서 피할 길 없어,  
마지 못해 귀모필<sup>325)</sup> 손에 잡고서,  
무형(無形)의 몰자비문<sup>326)</sup> 쓰게 되었다.

上命既迫,  
臣無以辭,  
把龜毛筆,  
書沒字碑.

---

325) 귀모필(龜毛筆) : 거북털로 만들어진 붓이나, 거북의 털은 본래 없는 것이므로 지필(紙筆)로 이루어진 비문이 아니고 곧 묘음(妙音)에서 유출(流出)된 선자(善字)라는 말. 예컨대 「청법계(淸法偈)」에 “我有一卷經 不因紙墨成 展開無一字 常放大光明”이란 말과 같음.

326) 몰자비(沒字碑) : 글자가 없이 이루어진 비문으로서 지필로 쓴 것이 아닌 스님의 정신세계(精神世界)를 묘사한 것이니, 일연의 심인(心印)을 지칭하는 말이다.



괴겁(壞劫)의 맹화<sup>327)</sup>가大千界(大千界)를 태워,  
 산하대지(山河大地) 모두가 소진(燒盡)하여도,  
 위대(偉大)한 이 비석(碑石)만 홀로 남아서,  
 이 비문(碑文)도 영원(永遠)히 남아지어다.

劫火洞燒,<sup>328)</sup>  
 山河皆燼,  
 此碑獨存,  
 斯文不磷.

원정 원년<sup>329)</sup> 을미(乙未) 8월 일에 문인 사문(沙門) 죽허<sup>330)</sup>가 왕명을 받  
 들어 진<sup>331)</sup>의 우군<sup>332)</sup>이었던 왕희지<sup>333)</sup>의 글씨를 집자(集字)하고, 문인 내

327) 겁화(劫火): 불교의 우주관(宇宙觀)은 성(成)·주(住)·괴(壞)·공(空)의 4단계를  
 한번씩 거치며 반복(返復)된다고 하니, 곧 생성기(生成期: 20소겁 동안) 유지기  
 (維持期: 20소겁 동안) 파괴기(破壞期: 20소겁 동안) 공무기(空無期: 20소겁 동안)  
 등이다. 세계가 파괴되기 시작하여 완전히 파괴되는 괴겁기간(壞劫期間)이 20  
 소겁 동안인데, 1소겁이 1천 6백 80만년이므로 20소겁은 3억 3천 6백만인 셈이  
 다. 괴겁(壞劫) 때 욕계(欲界) 및 초선천(初禪天) 이하는 화재(火災)로 파괴되고,  
 이선천(二禪天)은 수재(水災)로, 삼선천(三禪天)은 풍재(風災)로 각각 파괴하르  
 로, 사선천(四禪天) 이상은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욕  
 계(欲界)에 속하므로 화재로 파괴되기 때문에 겁화(劫火)라고 한다. 『광자대사  
 비문廣慈大師碑文』 주149) 겁화분신劫火焚薪 [고려편1] p.304; 이지관, 『능엄경  
 약해楞嚴經略解』 상권p.344 「세계기시世界起始」(1994) 등 참조.

328) [通史]에는 燒, [總覽] [全文]의 燒는 燒의 오자임.

329) 원정 원년(元貞元年): 원정은 원나라 성종(成宗) 연호. 원년은 고려 충렬왕 21년  
 (1295).

330) 죽허(竹虛): 일연의 문인이거나, 전기는 다른 자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본  
 비(本碑)의 음기(陰記) 문도열중(門徒列中) 참사질(參事秩)에 담겨 있다.

331) 진(晉): 진나라라 함은 진·동진(東晉)·서진(西晉) 등이 있다. ①진은 (266~316  
 년까지 4대 52년간) 주(周)와 동성(同姓)인 성왕(成王)이 제(弟)인 숙우(叔虞)를

원당<sup>334)</sup> 겸 주지 통오(通奧) 진정대선사<sup>335)</sup> 청분은 비석을 세우다.

元貞元年，乙未八月日，門人，沙門竹虛，奉勅，集晉右將軍，  
王羲之書，門人，內願堂兼住持，通奧眞靜大<sup>336)</sup>禪師，清<sup>337)</sup>  
玢，<sup>338)</sup>立石。

진수(晉水)의 변지(邊地)며 요(堯)의 고허(故墟) 즉 당(唐)에 봉(封)하여 건국(建國)한 나라로서, 그 후 아들 섭부(燮父) 때 진으로 옮기고 진국(晉國)이라 하였다. ②서진(西晉)은 사마염(司馬炎)이 위(魏)의 선(禪)을 받아 세운 나라. 처음에는 낙양(洛陽)에 도읍하였다가 민제(愍帝) 때 장안(長安)으로 이도(移都)하였던 4주(主) 52년 만에 전조(前趙)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③(317~418년까지 11대 103년간) 동진(東晉)은 사마의(司馬懿)의 증손(曾孫)인 예(睿)가 서진을 계승하여 세운 나라. 건강(建康)에 도읍한 후 11대(代) 103년만에 한(漢)의 유요(劉曜)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④(936~946년까지 2대 11년간) 후진(後晉)은 석경당(石敬瑭)이 후당(後唐)을 멸하고 세운 나라. 낙양에 도읍하여 2제(帝) 11년에 후한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여기에서는 ③동진을 가리킨다.

332) 우군(右軍) : 천자(天子)가 거느리는 삼군(三軍) 중의 우군을 말함. 또는 우익(右翼)의 군대. 진나라 때, 왕희지(王羲之: 307~365)가 우군장군(右軍將軍)이었으므로 왕희지를 왕우군(王右軍)이라고도 부른다.

333) 왕희지(王羲之) : 중국 진나라 때의 서성(書聖; 名筆). 자는 일소(逸少). 이름은 희지. 우군장군(右軍將軍)을 역임하였고, 회계내사(會稽內史)가 되었다.

334) 내원당(內願堂) : 왕이 성외(城外) 근처(近處)에 외원당(外願堂)을 정(定)하고, 중요한 때에만 가끔 행행(幸行)하였고, 궁내(宮內)에는 내원당 곧 법당을 설치하여 내원당주(內願堂主)인 분수승(焚修僧)을 두어, 항상 왕과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였다.

335) 통오진정대선사청분(通奧眞靜大禪師清玢) : 이자현(李資賢)이 지은 조계종자씨산영원사보감국사비명(曹溪宗慈氏山瑩源寺寶鑑國師碑銘)에 따르면, 휘는 혼구(混丘), 자는 구을(丘乙), 구명(舊名)은 청분(淸玢), 속성은 김씨(金氏). 1250년(고종 37) 7월 27일 충청북도 제원군 청풍면(淸風面, 堤川郡)에서 탄생. 보각국존 일연의 법을 계승하였고, 1322년(至治 2년, 충숙왕 9) 10월 30일 세수 73, 법랍 63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동문선東文選』권118; 『조선불교통사』하편p.364 「보각국사비명寶鑑國師碑銘」 참조.

336) [通史]와 [總覽]에는 大. [全文]의 太는 大의 오자임.

【보각국존비음기普覺國尊碑陰記】<sup>339)</sup>

[이지관의 「교감수정보완본」(『고려편4』 pp.204~217)을 [底本]으로 하여 번역하고, 문도질(門徒秩)은 [復元本]을 대고하여 수정보완하였음]<sup>340)</sup>

보경사주지(寶鏡寺住持) 통오진정대선사(通奧眞靜大禪師) 산립(山立)<sup>341)</sup>

337) [全文] [總覽]에는 淸. [通史]의 法은 淸의 오자임.

338) [通史] [全文] [總覽] 등에 모두 珍이나, 이는 玠의 오자임.

339) 보각국사비음기(普覺國師碑陰記)에 대하여 : 이 비의 주인공(主人公)이 위대할 뿐 아니라, 비문 또한 왕희지의 글씨를 집자(集字)한 것이어서 그간 무려 700여 년 동안 국내외(國內外)에 있어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특히 음기 또한 거의 파손되어 산일(散逸)한 잔재(殘在)만 남아 그간 문장판독(文章判讀)과 기문복원(記文復元)에 심혈(心血)을 기울여 왔으나, 완전무결한 정본을 회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代表的)인 복원작업자로는 ①박영돈씨(朴永蔭氏)가 약 20여년 동안 나라 안팎으로 두루 망라하여 수집한 것을 1·2·3호에 걸쳐 발표하였으니, 채상식(蔡尙植)교수가 구하여 보내준 일본 천리대(天理大) 박물관장 금서룡(金西龍) 소장의 정덕(正德 1506~1522) 완본(完本)의 미공개(未公開) 탁본(托本), 고대(高大) 소장 탁본 2부, 여승구사장 소장본 1부, 전보삼(全寶三) 소장 탁본 2부 등 6부의 탁본을 수집 연구하였다. ②김상현교수는 상계론(上揭論)에서 월정사(月精寺) 김혜월사(金慧月師)가 1836년경 인각사에서 작업한 필사본(筆寫本), 대동금석첩(大東金石帖) 소재(所載) 탁본(199字),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研究院本), 박영돈본 1·2號(949字), 규장각본(碑銘 232字와 陰記 700字), 영남대동민문고본(嶺南大東濱文庫本; 碑文 212字, 陰記 442字, 合 654字), 황수영본(黃壽永本; 碑文 233字, 陰記 740字, 合 973字), 국사편찬위원회본(國史編纂委員會本; 陰記 295字), 고대도서관화산문고본(高大圖書館華山文庫本; 碑帖文 396字 中 60餘字는 碑正文이다), 전보삼본(全寶三)本 1·2號(1,339字 中 碑正文이 271字, 陰記가 1,068字이다) 등을 연구소개하였다. ③2004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인각사보각국사비재현’사업이 수행되었고, 정병삼(鄭炳三)교수가 중심이 된 연구팀에 의하여, 비문의 복원본이 다시 정리되고 비석 또한 새로이 건립되었다.

340) 2004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관한 ‘인각사보각국사비재현사업’으로 정병삼(鄭炳三)교수가 중심이 되어 복원한 자료이다. 이하 [復元本]이라 한다.

이 짓고,

寶鏡寺住持, 通奧眞靜大禪師, 山立, 述.

341) 산립(山立)과 청분(淸玢): 산립은 보경사 주지를 역임하였지만, 다른 자료에서도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청분은 본비문말(本碑文末) 입석기(立石記)에 문인(門人) ‘내원당겸주지(內願堂兼住持) 통오진정대선사(通奧眞靜大禪師) 청분(淸玢)’이라 하였고, 산립도 음기(陰記) 술제(述題)에 ‘보경사주지(寶鏡寺住持) 통오진정대선사 산립 술(述)’이라 하였다. 양처(兩處)에 “통오진정”이란 4자가 같다는 점을 들어 청분과 산립을 동명동인(同名同人)이나? 아니면 동명이인(同名異人)이나?라는 양론(兩論)이 있다. 그 양론이란 ① ‘위패대조국사지호야爲避大朝國師之號也’를 인용한 김상현 논문에서는 보각비문 말(末)에 ‘雲門寺住持大禪師 淸玢 狀師之行 聞于上 上令撰辭’라 한 것과 비문 말(末) 입석기(立石記)에 ‘門人 內願堂兼住持 通奧眞靜大禪師 淸玢 立石’이라 한 문장 그리고 이제현(李齊賢)이 지은 ‘영원사보감국사비문瑩源寺寶鑑國師碑文’에 근거하며, 일연이 은사인 무위사(無爲寺) 천경선사(天鏡禪師)를 떠나 보각국사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사석개당(嗣席開堂)하였다는 등을 들어 청분이 일연의 제자임이 분명하고, 산립은 그가 지은 보각국사비(普覺國師碑)의 음기(陰記)에서 인연(因緣)이 어긋나 스님의 문도열(門徒列)에 끼지 못한 것을 항상 한탄(恨歎)하였다는 점을 들어 일연의 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이에 반하여 종래(從來)의 일부 학자들은 ‘내원당겸주지 통오진정대선사 청분’이라는 입석기(立石記)와 음기(陰記) 술제(述題)에 ‘보경사주지 통오진정대선사 산립 술(述)’이라한 양처(兩處)에 근거하여 “통오진정”이란 4자가 같다 하여 청분과 산립은 동명동인(同名同人)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통오진정’이란 4자로 본다면 동인(同人)으로 볼 수도 있으나, “山立 以因緣差奪 未獲詣門徒之列 常以爲恨”이란 18자로 살펴보면, 곧 인연이 닿지 아니하여 문도(門徒)의 행렬(行列)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항상 한탄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일연의 제자인 청분과 동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필자의 견해도 김상현 교수의 주장과 같다. 다시 말하면 비문을 세운 연대(年代)는 1295년이고, 일연의 입멸이 1289년이므로 음기를 찬술한 때는 “先師入滅 忽忽六七年”이라 하였으니, 입멸 후 6·7년이 되는 1295년이나, 1296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다면 1295년에 비(碑)를 세우고, 다음해인 1296년에 음기를 찬술한 셈이므로, 청분과 산립이 같은 시대의 인물임은 틀림이 없다. 두 사람이 함께 “통오진정”이란 법칭(法稱)이 같다고 하여 동인이라고는 고집할 수 만은 없다. 뿐만 아니라 산립은 스스로 ‘인연이 어긋나 일연의 문도열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항상 한탄’하였지만, 스님의 비음기(碑陰記)를 지으라는 불후(不

신천자<sup>342)</sup>가 즉위한 원년 을미 초여름 4월 초에, 인각장로<sup>343)</sup>가 나를 찾아와 부탁하기를, 선사<sup>344)</sup>께서 열반하신 지 홀연히 이미 6·7년이 지났습니다.<sup>345)</sup> 그러나 국조의 은례(恩禮)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서<sup>346)</sup> 중신<sup>347)</sup>에게 명하여 일연 선사의 비문을 지어 완염<sup>348)</sup>에 새겨 본원<sup>349)</sup>에 세우고, 또한 칙조(勅詔)하여 문도들이 체대<sup>350)</sup>로 사자상승(師資相承)하여 향사(香祀)를 받들게 하는 것으로 식종(飾終)의 예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스님의 공도(公徒)를 비의 음면(陰面)에 열거하여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낙송(絡誦)과

朽)의 승연(勝緣)이 될 부탁을 받았고, 이 인연을 이어 ‘당래(當來)에 스님께 반부(攀附)할 인연이 맺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산립은 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분과 동일인도 아님을 알 수 있다.

342) 신천자즉조원년(新天子卽祚元年) : 신천자(新天子)는 원나라 제2대 황제(1294~130 재위) 성종(成宗)을 지칭한다. 성종이 황제로 즉위한 것은 1294년이 아니라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에 의해 성종 즉위원년은 1295년이 된다.

343) 인각장로(麟角長老) : 일연의 문인으로 입비(立碑)의 일을 주관하였으나, 전기는 다른 자료에도 보이지 않는다.

344) 선사(先師) : 보각국사 일연을 지칭함.

345) 홀홀육칠년(忽忽六七年) : 보각국사가 입적한지 홀연히 이미 6·7년이 지났다는 말이니, 국사의 입적 연대가 1289년이므로 그로부터 6·7년이라면 1295년이나 1296년에 해당된다.

346) 불투(不渝) : 임금은 비록 바뀌었으나, 스님을 존경하는 은례(恩禮)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

347) 중신(重臣) : 중진(重鎭)의 신하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민지(閔漬)를 지칭함.

348) 완염(琬琰) : ①완규(琬圭)와 염규(琰圭)이니, 아름다운 옥(玉)의 이름 ②완과 염은 걸왕(槀王)이 사랑했던 두 여자의 이름이었으나, 여기서는 돌로 된 비석(碑石)을 가리킴이다.

349) 본원(本院) : 본사(本寺)란 뜻이니, 인각사를 지칭함.

350) 체대(替代) : 교대(交代) · 대대(代代) · 역대(歷代) · 대체(代替) 등의 뜻. 곧 대대로 스님의 문도로써 주지로 임명하여 향사(香祀)를 받들도록 왕이 명하였다는 말이다.

부목<sup>351)</sup>이 원래로 그 유서(由緒)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오니, 이 일은 오직 스님만이<sup>352)</sup> 오배<sup>353)</sup>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하면서 기록하여 주기를 청하므로, 나는 이를 “좋다”하고<sup>354)</sup> 받아들였다.<sup>355)</sup>

新天子, 卽祚元年, 乙未夏, 四月初, 麟角長老, 遇<sup>356)</sup>余曰,  
“先<sup>357)</sup>師入滅, 忽忽六七年矣. 國朝恩禮, 不渝, 命重臣撰碑, 勒  
諸琬琰, 樹于本院, 仍勅門徒, 替<sup>358)</sup>代相承, 以奉香祀, 飾<sup>359)</sup>終

351) 낙송부목(絡誦副墨) : [全文]에는 낙제부목(絡諸副墨)으로 되었는데, 낙제는 낙송(絡誦)의 오자이다. 즉 낙송은 암송(暗誦)이고, 부목은 문자(글)란 뜻이다. 『장자』 「대종자大宗師」에 “그대는 어디서 이 송(誦)을 얻었는가? 부목(副墨)의 자에게 즉 글에서 해득하고, 그 다음 낙송의 손(孫) 즉 말로 연구하고, 그 다음 첨명(瞻明)에게 즉 눈으로 도의 근원을 바로 보고, 그 다음 섭허(聶許)에게 즉 이해하고, 그 다음 수역(需役)에게 즉 실천으로 맛을 얻고, 그 다음 어구(於誦)에게 즉 시(詩)와 노래로 나타내고, 그 다음 현명(玄冥)에게 즉 심경(心境)이 적막(寂寞)하여 자취없이 현묘(玄妙)하여 즉 측량(測量)할 수 없는 상태에 들고, 그 다음 참요(參寥)에게 즉 심경에 텅 빈 경험(經驗)을 가지고, 다음 의시(疑始)에게 즉 시작(始作)인가 의아(疑訝)하는 심경에 도달하니, 이것은 도(道)에 이르러 우주(宇宙) 본체(本體)와 합(合)하여 하나가 되는 경지(境地)이다. 南伯葵曰 子獨惡乎聞之 曰聞諸副墨之子. 副墨之子 聞諸洛誦之孫 洛誦之孫 聞之瞻明 瞻明 聞之聶許 聶許 聞之需役 需役 聞之於誦 於誦 聞之玄冥 玄冥 聞之參寥 參寥 聞之疑始”라고 하고, 그 「주註」에 “呂吉甫曰 洛誦 謂綿洛貫穿而誦之 又云 臨本謂之副墨 背文謂之洛誦 反復讀之也”라 하였다. 낙(絡)은 낙(洛)이라고도 한다.

352) 자능(子能) : 자능이란 자(子)는 부자(夫子), 공자(孔子), 맹자(孟子) 등과 같이 상대를 존칭(尊稱)하는 말이니, 선생(先生)이란 뜻이나, 여기서는 비문(碑文)을 청(請)하는 인각장로(麟角長老)가 산립을 지칭하는 말.

353) 오배(吾輩) : 보각국사 일연의 문도들을 지칭함이다.

354) 함지(領之) : 점두함지(點頭領之)의 준말. 함수(領首)와 같은 뜻. 머리를 끄덕여 허락하는 뜻을 보이는 것. 領은 머리 끄덕거릴 함字.

355) 선(善) : ‘좋습니다’라면서 허락하는 것.

356) [復元本]에는 過이나, 뜻으로는 상통함.

357) 선사입멸(先師入滅)이란 선자(先字) 앞에 [朴永弼本](以下 [朴氏本]이라 한다)에는 “新天子 卽祚元年 乙未夏 四月初 麟角長老 過余曰”이란 20자가 더 있다.

之禮, 畢<sup>360)</sup>矣. 列公徒于碑之陰, 使後世, 知絡誦<sup>361)</sup>副墨, 元有  
由緒, 子能爲吾輩, 記之乎.” 余頷<sup>362)</sup>之曰, “善.”

국존께서 살아 계실 때, 산립(山立)은 인연(因緣)이 차탈<sup>363)</sup>하여 스님의 문도열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항상 회한하였는데, 다행히 불후(不朽)의 부촉<sup>364)</sup>을 받았으니, 또한 당래에 반부<sup>365)</sup>할 인연이 맺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터라,<sup>366)</sup> 어찌 감히 하명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삼가 계수<sup>367)</sup>하여 배수<sup>368)</sup>하고 이르되, 화상(和尚)의 문풍(門風)이 광대(廣大)하여

358) [朴氏本]에는 替. [全文]의 潛은 替의 오자임.

359) [朴氏本]에는 飾. [全文]의 飾는 飾의 오자임.

360) 矣와 陰字 사이에 [朴氏本]에는 있으나, [全文]에는 “列公徒于碑之”란 6자가 없다.

361) [朴氏本]에는 誦. [全文]의 詣는 誦의 오자임.

362) [全文]에는 頷이고, [朴氏本]에는 頷이니, 뜻으로는 상통하나, [全文]의 頷이 옳다.

363) 차탈(差奪): 조건 또는 인연(因緣)이 어긋나서 희망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말. 또는 기회를 잃었다는 뜻.

364) 불후지촉(不朽之觸): 영원히 남아 있는 일의 부탁을 받았다는 말이니, 비문을 비석(碑石)에 새겨두면 영원(永遠)히 찌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이다.

365) 반부(攀附): 반연하여 의부(依附)하려는 것. ①높은 나무나 험한 절벽에 오르는 사람이 손으로 붙잡고, 발로 디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신을 집중하여 올라가는 것. ②힘이나 도덕이 높은 사람을 만나 의지하는 것. ③어떤 흠모(欽慕)하는 사람을 의지하여 뒤쫓아가는 것. ④정신적 의지처 곧 신앙(信仰)의 대상을 가리킴이다. 『안씨가훈顔氏家訓』「모현慕賢」에 “安可不攀附景仰之乎”라 하다.

366) 서불(庶不): 불자(不字)는 문맥(文脈)으로 보아 역자(亦字)인 듯하다. 서(庶)는 바란다. 희망하다 등의 뜻이다.

367) 계수(稽首): 계상(稽顙)·돈수(頓首) 등과 같은 뜻이니, 이마를 땅에 대어 하는 절. 중국에서 가장 정중한 절. 계수배(稽首拜)·계상배(稽顙拜)·돈수배(頓首拜)라고도 한다. 「혜초국사탑비문慧超國師塔碑文」 주304)계상稽顙 [고려편2]

모든 것을 갖추어 어떠한 말과 생각으로도 사의(思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언이폐지<sup>369)</sup>하고 나라가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추앙한다고 함이 가할 것이다. 그러나 존경하고 추앙하는 그 인유를 살펴보면, 마치 바구미가 해해<sup>370)</sup>의 냄새를 인하지 않고는 모여드는 자가 없는 것과 같다.<sup>371)</sup> 그 중요한 원인은 스님께서 상구보제인 실천 수행의 도덕이 고매하여<sup>372)</sup> 생사거래(生死去來)가 마치 몽환(夢幻)과 같음을 증득한 후, 하화 중생인 지·비·행·원<sup>373)</sup>으로 감득한 결과인 것이다.

國尊在世時，山立，以因緣差奪，未獲詣門徒之列，常以爲恨，幸託不朽之囑，庶亦結<sup>374)</sup>當來攀附之，<sup>375)</sup>敢<sup>376)</sup>不承命，謹稽首拜手，再拜而言曰，和尚門風，廣大悉備，不可得而思議也。則

p.332 참조.

- 368) 배수(拜手) : 배수(拜首)와 같은 뜻. 머리를 손 있는 데까지 숙여서 하는 절.
- 369) 칙지왈(則止曰) : 사의(思議)할 수 없는 스님의 위대(偉大)한 문풍(門風)은 일언이폐지(一言以廢之)하고라는 말.
- 370) 해해(醃醃) : 젓갈이나 식혜에 파리나 개미떼가 모여든다는 말이니, 학덕이나 도덕이 높으면 사방(四方)으로부터 학인(學人)이 모여든다는 비유이다.
- 371) 예취(蛭聚) : 젓갈이나 노린내 나는 고기가 있으면 개미나 바구미 등이 모여든다는 말이니, 덕망(德望)이 높으면 부르지 아니하여도 많은 사람이 찾아드는 것에 비유하는 뜻이다.
- 372) 이천(履踐) : ①실천수행 ②술선수범 ③언행일치(言行一致) 등의 뜻임.
- 373) 지비행원(智悲行願) : 대지(大智) · 대비(大悲) · 대행(大行) · 대원(大願) 등 대심(大心)보살의 대도(大道)이다. 대지는 대지문수(大智文殊), 대비는 대비관음(大悲觀音), 대행은 대행보현(大行普賢), 대원은 대원지장보살(大願地藏菩薩)을 지칭함이니, 이것이 불교의 상징이다.
- 374) [全文]에는 結이고, [朴氏本]에는 結이니, 어느 字가 옳은지 확실히 判斷할 수 없으나, 結字가 나온 듯하다.
- 375) 之와 稽字 사이에 [朴氏本]에는 “不承命謹”이란 4字가 있으나, [全文]에는 없다.
- 376) [復元本]에는 因이다.



止曰,<sup>377)</sup>一國<sup>378)</sup>尊之,衆人師之,可也,然,尊之焉,師之焉,未必不由醯醢而蚋聚.要其所自<sup>379)</sup>來,但履踐篤實,一去來覺<sup>380)</sup>夢等,彼已,智悲行願,喜有所<sup>381)</sup>感而致之耳.

국존의 행장을 살펴보니 그가 임종할 때, 대중을 모아 놓고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sup>382)</sup> 기도 다 끊어지고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sup>383)</sup> 선원 정스님<sup>384)</sup>이 어찌할 바를 몰라 실성<sup>385)</sup>하여 울부짖으면서 황망 중에 입탑할 장소<sup>386)</sup>를 물어볼 겨를도 없이<sup>387)</sup> 이미 입적하시었으니, 후회막급이라면서 대중과 함께 탄식하였다. 이때 스님께서 적정 삼매<sup>388)</sup>로부터 조용히 깨어나, 대중을 돌아보고 이르되, “여기서 동남쪽으로 약 4·5리(2km) 쯤 지나서 임록(林麓)이 있는데, 지형의 기복(起伏)이 청룡과 백호 등이 제대로 짜이고 안은한 곳이 있는데,<sup>389)</sup> 마치 고총(高塚)과 같다. 이곳은 길상자인 명당

377) [朴氏本]에는 曰. [全文]의 日은 曰의 오자인 듯함.

378) [朴氏本]에는 日과 國字 사이에 一字가 있으나, [全文]에는 탈락됨.

379) [復元本]에는 所自 2字가 삭제됨.

380) [復元本]에는 同字임.

381) [全文]에는 所이고 [朴氏本]에는 聯이니, [全文]의 所가 옳은 듯하다.

382) 감목(歛目): 눈을 감다. 눈을 감추다. 歛은 斂과 같은 字이다. 혜홍(惠洪)의 석대야좌시(石臺夜坐時)에 “歛目舊遊眞可數 蓋棺前車向難知”라 하다.

383) 기절이구(氣絕已久): 기가 끊어진지 이미 오래되다. 죽은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다.

384) 선원정공(禪源頂公): 선원사(禪源寺)의 정(頂)스님으로 일연스님의 문도인 듯하다. 전기는 다른 자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385) 실성(失聲): ①미친 듯이 놀라는 모양. ②다시 만날 수 없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태도.

386) 입탑지소(立塔之所): 탑(塔)과 비(碑)를 세울 장소.

387) 미가자품(未暇諮稟): 황망 중에 물어볼 겨를이 없었다는 말.

388) 적정중(寂定中): 입적 상태(狀態)의 선정(禪定) 중이라는 말.

이니,<sup>390)</sup> 탑을 세우기에 적합한 곳이다.”라고 하고는,<sup>391)</sup> 다시 처음과 같이 눈을 감았다.<sup>392)</sup> 제자들이 곁에 가서 흔들어 보니 이미 서거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후세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길까 생각되어<sup>393)</sup> 비문에는 생략하였다.

今案行狀，於其終也，辭衆斂目，氣絕已久，今禪源頂公，失聲曰，立塔之所，<sup>394)</sup> 未暇諮稟，悔將何及，衆辭皆同。師從寂定中，安詳而起，<sup>395)</sup> 顧謂衆曰，“此去東南，行四五許里，有林麓，起伏隱處，<sup>396)</sup> 若古塚，是真吉祥之地，可安置也。”復斂目如初。撼之已逝矣，事涉怪<sup>397)</sup>異，碑文略之。

옛날 광복 선이라는 스님<sup>398)</sup>이 있었는데, 입적하여 다비(荼毗)를 하기 위해 영구(靈柩)를 화장 쉼나무인 시봉상<sup>399)</sup>에 놓고 거화(擧火)를 하려는

389) 기복은(起伏隱): 높고 낮으며, 안은(安隱)한 것이 마치 옛 무덤의 터와 같다는 말.

390) 길상지지(吉祥之地): ①좋은 터 ②명당(明堂).

391) 가안치야(可安置也): 답비를 안치(安置)하기에 가장 좋은 터라는 말이다.

392) 복감목여초(復斂目如初): 다시 눈을 감으니, 처음 입적한 때와 같았다.

393) 사섭괴이(事涉怪異):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탑(塔) 세울 장소를 일러주었다는 사실(事實)이 너무 괴이한 것 같아서라는 말.

394) [全文]에는 所이고 [朴氏本]에는 聯이니, [全文]의 所가 옳은 듯하다.

395) [朴氏本]에는 起와 五字 사이에 “顧謂衆曰此去東南行四”라는 10자가 더 있으나, [全文]에는 없다.

396) [復元本]에는 處字가 삭제됨.

397) [復元本]에는 恠이다.

398) 광복선자(廣福禪者): 광복스님이나, 다른 자료에서도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

399) 시봉(柴棚): 다비(荼毗)를 하기 위해 화장목(柴)을 쌓아놓은 화장대(火葬臺). 봉은 시렁이니, 화장대 밑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장대(長臺)를 걸쳐놓은 긴 나무. 오늘날에는 나무 대신 굵은 철근을 사용(使用)하고 있다.

순간, 곁을 뚫고 다시 일어나 유나(維那)에게 당부하되, 남행자(藍行者)로 하여금 남겨 둔 쌀과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이와 같은 신비와 이적을 어찌 감히 의심할 수 있겠는가? 다비를 마치고 장차 입탑(入塔)하려는 때, 운흥사 인공<sup>400)</sup>이 암자에 있을 적에 마침 꿈에 일연스님이 찾아옴을 보고,<sup>401)</sup> 맞아들여 묻기를, “다비를 하려는 순간 다시 일어났으니, 이는 무슨 도리입니까?” 스님이 대답하되, “죽지 아니한 이치이니라.” 또 묻되<sup>402)</sup> “그렇다면<sup>403)</sup>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는 것입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느니라.” 또 묻되, “그러시다면<sup>404)</sup> 명일에 탑을 세우는데, 스님께서 다시 들어가시겠습니까?” “다시 들어갈 것이니라.” “그러시다면 탑이 문득 스님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기록하지 않는다. 또 묻기를 “그렇다면 꿈과 생시가 같은 동열<sup>405)</sup>인 것입니까?” 대답하되 “같은 것이라.” 하였다. 운흥사 인공이 꿈을 깨어나, 이상하게 여겨 말하되, “다비한 다음 다시 탑을 세움(出沒)에 곧 탑 속으로 들

400) 운흥인공(雲興印公): 운흥사(雲興寺)의 인(印)스님이니, 전기는 다른 자료에서 도 보이지 않는다.

401) 적몽사지(適夢師至): 때 마침 꿈에 스님께서 내방(來訪)함을 보았다는 말. 스님은 일연스님을 지칭함.

402) 진운(進云): ①높은 이에게 질문할 때, 본위치(本位置)에서 약간 앞으로 나아가서라는 말. ②고(告)하여 이르되 ③나외여 이르되 등의 뜻임.

403) 임마칙(恁麼則): 여마(與麼)·이마(伊麼)·즈마(怎麼)·임마(任麼)·이몰(異沒) 등과 같은 뜻. 이렇다면, 그렇다면,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지금 화제(話題)에 올라 있는 사물의 상태를 들어 근칭(近稱)하는 지시사(指示詞). 예컨대 임마시(恁麼時)·임마물(恁麼物)·임마인(恁麼人) 따위. 『경덕전등록』권5 「남악회양南嶽懷讓」에 “慧能問什麼處來 曰 崇山來 祖曰 什麼物 怎麼來 曰 說似一物 卽不中”이니라 하다.

404) 여마(與麼): 임마(恁麼)와 같은 뜻.

405) 교몽동렬(覺夢同列): 동렬은 같다는 뜻이니, 몽과 교(생시)가 둘이 아니고, 동렬 즉 같다는 말이다.

어간 것이 마치 청풍(淸風)이 소요하게 거래(去來)하고, 백운(白雲)이 자재히 출몰하는 것과 같으니, 그 어찌 지인(至人)의 경지가 아니겠는가?” 하고, 곧 찬사를 지어 스님을 추경하였다.

昔有廣福禪者，臨茶毗於柴棚<sup>406)</sup>上，復起，囑維那，藍行者，米錢。史傳稱<sup>407)</sup>又何疑也，又茶毗，將入塔，今雲興印公，住庵時，適夢師至迎勞問所曰，“茶毗而復起，此理如何。”師云，“不死故。”進云，“慙<sup>408)</sup>麼則，火不能燒。”師云，“如<sup>409)</sup>是如是。”又問，“明日立塔，未審，師還入也無。”師云“入。”進云，“與<sup>410)</sup>麼則，塔却活和尚也。”答<sup>411)</sup>語<sup>412)</sup>不<sup>413)</sup>記<sup>414)</sup>。又問，□□□□<sup>415)</sup>“覺<sup>415)</sup>夢同列”，答<sup>416)</sup>云“同。”雲興印公，<sup>417)</sup>覺而異<sup>418)</sup>之曰，

406) [朴氏本]에는 棚과 又字 사이에 “上復起 囑維那 藍行者 米錢 史傳稱又何疑也”라는 18자가 있으나, [全文]에는 없다.

407) [復元本]에는 稱之임.

408) [全文]에는 怎이고, [朴氏本]에는 慙이니, 怎麼나 慙麼(그렇다면)가 뜻은 같으나, 慙이 옳은 듯하다.

409) [朴氏本]에는 如와 入字 사이에 “是如是 又問明日 立塔 未審 師還無 師云”이라는 16자가 더 있으나, [全文]에는 없다.

410) [全文]에는 與이고, [朴氏本]에는 慙이니, 與麼나 慙麼가 뜻은 같으나, 慙이 옳은 듯하다.

411) [朴氏本]에는 答. [全文]의 塔은 答의 오자임.

412) [全文]은 結략이나 [朴氏本]에는 語임.

413) [全文]은 結략이나 [朴氏本]에는 不임.

414) [朴氏本]에는 不와 夢字 사이에 “記又問”이라는 三字가 있으나, [全文]에는 없다.

415) [復元本]에는 □□□□覺 5자가 삭제됨.

416) [全文]에는 塔이고, [朴氏本]에는 答이니, [全文]의 塔은 答의 오자임.

417) [復元本]에는 印公 2字임.

418) [朴氏本]에는 異와 塔字 사이에 “之曰茶毗還立”이라는 6자가 있으나, [全文]에는 없다.

“茶毘還立<sup>419)</sup>塔, 卽<sup>420)</sup>入, 清風去來, 白雲出沒, 其惟至人乎,<sup>421)</sup>  
乃<sup>422)</sup>作<sup>423)</sup>讚以追敬之.

또 산립(山立)이 일연(一然)이 학인(學人)을 제접(提接)한 기연<sup>425)</sup>이 자  
못 기이한 점을 보고, 범부의 위치에서는 도저히 이러한 이적을 나타낼 수  
없으니, 그는 55위 중 어느 위치에 이르렀는가 하고, 항상 의심이 풀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꿈에 한 고찰(古刹)에 이르니, 당시 그  
절에 보련화좌(寶蓮花座)를 베풀고 스님께서 그 위에 앉아 있다가 잠시  
후 하좌(下座)하여 늦은 걸음으로 주변을 지제<sup>426)</sup>하므로, 산립이 인흥사  
(仁興寺)의 선린(禪麟)스님<sup>427)</sup>과 함께 뒤를 따랐다. 이때 인흥이 나에게 이  
르기를, “스님은 우리스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이미 성과<sup>428)</sup>를 증득한 까닭

419) [復元本]에는 起立 2字임.

420) [全文]에는 中이고, [朴氏本]에는 卽이니, [全文]의 中은 卽의 오자임.

421) [全文]은 결락이나 [朴氏本]에는 乎임.

422) [全文]은 결락이나 [朴氏本]에는 乃임.

423) [全文]은 결락이나 [朴氏本]에는 作임.

424) [朴氏本]에는 作과 是字 사이에 “讚以追敬之 又山立 伏觀機緣 頗異尋常 以爲凡  
夫地上 必不能至是 他是何等位中人耶 常自懷疑曰 夢至古刹 常時 設寶蓮花座  
師坐於其上 似若休息頃之 下座 徐步庭際 山立 與仁興麟公 隨之 仁興謂余曰 你  
看我和尚 已證聖果故”라는 92자가 더 있으나, [全文]에는 없다.

425) 기연(機緣): 기는 조령(祖令)을 제시(提示)하는 종사(宗師). 연은 스승을 반연하  
여 찾아온 제자이니,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묻고 답하는 것. 본비문 주246)기연  
어구機緣語句 p.581 참조.

426) 지제(遲際): 뜰·정원(庭園)·주변. 거닌다. 산책한다.

427) 인흥인공(仁興麟公): 인흥사(仁興寺)에 있었던 선린(禪麟)스님이니, 일연의 제  
자이나, 다른 자료에서도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 인흥사는 본비문 주113)인흥사  
仁弘社 p.562 참조.

428) 성과(聖果): ①도를 깨달았다. ②오십오위(五十五位) 중 십지(十地)의 제1법운

에, 맨발로 칼을 밟고 지나가도 발바닥이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sup>429)</sup> 산립(山立)이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돈독하여지고, 전에 가졌던 모든 의심이 마치 얼음 녹듯 풀렸다.

又山立, 伏觀機緣, 頗異尋常, 以爲凡夫地上, 必不能至是,<sup>430)</sup> 他是何等位中人耶, 常自懷疑. 一日, 夢至古刹, 當時,<sup>431)</sup> 設寶蓮花座, 師坐於<sup>432)</sup> 其上, 似若休息頃之, 下座, 徐步遲<sup>433)</sup> 際, 山立, 與仁興麟公, 隨之. 仁興, 謂<sup>434)</sup> 余曰, “你看我和尚, 已證聖果故, 跣<sup>435)</sup> 足<sup>436)</sup> 不穿.” 山立, 心敬<sup>437)</sup> 之, 前疑氷<sup>438)</sup> 釋.

이상과 같은 몇 가지의 일화와 최후 입적할 때의 인연<sup>439)</sup>에 의거하건대,

---

지(第一法雲地) 이상에 올랐다는 말. ③아라과(阿羅果)를 증득하였다는 뜻이니 여기서는 ①의 뜻임.

429) 선족(跣足): 맨발. 『오대사五代史』 「사절死節」, 『왕언장전王彦章傳』에 “能跣足履棘行百步”라 하다.

430) [復元本]에는 是知 2字임.

431) [復元本]에는 陽임.

432) [復元本]에는 於字가 삭제됨.

433) [復元本]에는 庭字임.

434) [復元本]에는 謂字가 삭제됨.

435) [朴氏本]에는 跣. [全文]의 是는 跣의 오자임.

436) [朴氏本]에는 足. [全文]의 之는 足의 오자임.

437) [朴氏本]에는 敬. [全文]의 教는 敬의 오자임.

438) [朴氏本]에는 氷. [全文]의 似는 氷의 오자임.

439) 최후인연(最後因緣): 마지막 입적할 대의 인연이니, 예컨대 눈을 감고 입적하였다가, 다시 깨어나 탑비(塔碑) 세울 장소를 지정해 준 것과, 다비(荼毗)할 때 거화(擧火)하기 직전 시봉상(柴棚上)에서 절로 가는 유나(維那)에게 쌀과 돈을 부탁한 것과, 화장 후 영골(靈骨)을 입탑(入塔)할 때 청풍(淸風)이 불고 백운(白雲)이 나는 등과 같은 일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비록 부자(夫子)의 원장(垣牆)이 높아 몇 길이나 되더라도,<sup>440)</sup> 그 집안의 상황을 거의 엿볼 수 있다는 말에 비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한번 왔다 가는 것이 마치 꿈꾸고 깨어남(夢覺)과 같다’고 하였다.

據此數段，最後因緣，雖曰，夫子之牆，<sup>441)</sup>數仞，亦可<sup>442)</sup>窺其髣髴矣。所以云，‘一去來同覺夢’。

또한 신장이 부병<sup>443)</sup>이라 자칭하고 스님을 맞이하여 호위(護衛)하고, 산령(山靈)이 신도에게 현몽하여 스님에게 식량을 보내도록 한 것과, 화장할 때 시봉상(柴棚上)에 앉아 있으니, 화염(火焰)이 반대쪽으로 붙었고, 임종(臨終)할 때 오색 광명의 줄기가 금당<sup>444)</sup>과 같이 솟았다가 스러진 등등 이러한 영종(靈蹤)과 이서(異瑞)는 모두 성인의 분상(分上)에는 쓸데없는 말변사(末邊事)에 속하는 것이므로,<sup>445)</sup> 이들은 모두 구인(具引)하지 아니

440) 부자지장수인(夫子之牆數仞) : 부자(공자)의 담장이 높아 몇 길이나 된다는 말. 곧 일연전사의 도덕은 높고 또한 넓어 범부(凡夫)로서는 헤아릴 수 없다는 뜻. 『논어』「자장子張」에 “叔孫武叔 語大夫於朝曰 子貢 賢於仲尼 子服景伯 以告子貢 子貢曰 譬之宮牆 賜之牆也及肩 窺見室家之好 夫子之牆 數仞 不得其門而入 不見宗廟之美 百官之富 得其門者 或寡矣 夫子之云 不亦宜乎”라 하다.

441) [復元本]에는 牆字임..

442) [朴氏本]에는 司와 神字 사이에 “窺基 髣髴矣 所以 云一去來 覺夢 智悲行願 喜有所感 而致之耳”라는 25字가 더 있으나, [全文]에는 없다.

443) 부병(府兵) : 조정(朝廷)에 소속된 병력. 수(隋)나라와 당(唐)나라 때 유사시에는 종군(從軍)하고, 무사한 때에는 여러 주(州)에 분산하여 경작하며, 그 중에서 선발하여 수도(首都)의 위병(衛兵)으로 번을 들게 하던 군사.

444) 금당(金幢) : 쇠로 만들어 세운 당간(幢竿)이니, 본미문 주228)당幢 p.578 참조.

445) 개성말변사(皆聖末邊事) : 이상(以上)에 열거한 영종(靈蹤)과 이서(異瑞)들은 성인(聖人)의 분상에 있어서는 모두 쓸데없는 말변사(末邊事)라는 뜻. 다시 말하면 신통이나 기적들은 보편적인 진리(眞理)가 못된다는 말이다. 진묵조사(震默祖師)가 나한들의 논간을 당하여 힐책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天台山上五百

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위의 수단인연(數段因緣)은 모두 세상 사람을 현혹시키는 일이라고 부정하였다. 어떤 때는 위의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혼요한 꿈속의 일이라 하고, 혹은 불자(拂子)를 흔들고, 방(棒)과 할(喝)을 하면서는 ‘그렇지 않다. 혼요한 일상이다.’라 하였다. 스님은 보통 50일간 꿈에 있다가 한 번씩 깨어난다고 하여<sup>446)</sup> 교시(覺時)로써 허(虛)를 삼고, 몽시(夢時)를 실(實)이라 하였은 즉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 교시와 몽시가 뒤바뀐 허와 실도 또한 가히 정한 바가 없다.

神人，稱符兵而迎衛，<sup>447)</sup> 山靈，告檀越而輸糧，端坐而火燄，逆吹，臨去而金幢，倒地，如斯靈蹤異瑞，皆聖<sup>448)</sup>末邊事，此不具引。或曰，如上數事，是皆昏擾夢，<sup>449)</sup> 想惑<sup>450)</sup>或拂棒喝之曰，不然，或<sup>451)</sup>昏擾平界，<sup>452)</sup> 常夢五十日，一覺，以覺時爲虛，夢時爲實則，此覺夢虛實，亦未可定。

또 우리 국존께서는 삼세(三世)가 환몽(幻夢)과 같은 경지를 증득(證得)하여 출생과 입사(出生入死)에 항상 몽환불사(夢幻佛事)를 시행하였으니,<sup>453)</sup> 이 또한 스님께서 자비로 몽환중생(夢幻衆生)을 교화한 것이니, 어

鬼 乞飯取食幾百年 神通變化吾不及 大道應問老比丘”하라 하였다.

446) 상몽오십일일교(常夢五十日一覺) : 한 번 꿈을 꾸면 50일이 지나서야 깨어난다는 말.

447) [朴氏本]에는 衛. [全文]의 德은 衛의 오자임.

448) [朴氏本]에는 聖. [全文]의 空은 聖의 오자임.

449) “是皆昏拂界”라고 하였던 것을 [復元本]에 의해 “是皆昏擾夢”으로 교체함.

450) [復元本]에 想惑 2자가 있으나 뜻으로는 모호함.

451) [復元本]에 의해 或以下 12字를 추가하였음.

452) [朴氏本]에는 畺과 界字 사이에 “或拂棒喝之曰 不然 或<sup>畺</sup>拂□□□□□”이라는 16字가 더 있으나, [全文]에는 없다.



찌 감히 그에 대하여 회의하고 그 사이에서 의심하겠는가. 이러한 스님의 분상에 있어, 국존의 도덕의 고매함을 애모(愛慕)하여 흑백<sup>454)</sup>인 많은 승속들이 귀부<sup>455)</sup>하는 것이니, 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구책<sup>456)</sup>하더라도 능히 막을 수가 없다. 항상 스님을 따르고 친부(親附)하여 피부(皮膚)를 얻거나, 골수(骨髓)를 얻었으며,<sup>457)</sup> 종지(宗旨)의 천양(闡揚)을 도운 모든 스님과<sup>458)</sup> 외호의 일을 맡은 재가 제자,<sup>459)</sup> 그리고 스님의 법유<sup>460)</sup>를 받은 경사<sup>461)</sup>와 대부 등을 모두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又我國尊，親證三世如幻夢，出生入死，常行夢幻佛事，此亦，  
師之慈化<sup>462)</sup>夢幻衆生也，有能至是，何等懷疑，<sup>463)</sup>何致疑於其

453) 상행몽환불사(常行夢幻佛事) : 모든 법이 환몽과 같은 이치를 깨달은 이는 성시(醒時)나 몽시(夢時)를 가리지 않고, 항상 몽환불사를 행한다는 말. 허응당(虛應堂) 나암(懶菴)이 지은 「수월도량공화불사여환빈주몽중문답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問答」이 있다. 한불전7, p.595c 참조.

454) 흑백(黑白) : 흑은 먹물 옷(緇衣)을 뜻함이니, 스님을 지칭함이고, 백은 백의(白衣)를 입은 사람을 말함이니, 신도(信徒)를 가리킴이다.

455) 귀부(歸附) : 귀의(歸依)와 같은 말. 의지하고 따른다는 뜻.

456) 구책(驅策) : ①사람을 사역(使役)하는 채찍 ②채찍질을 당하여 몰림 ③마치 우마와 같이 구사(驅使)당하는 것.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억제하는 것.

457) 득피득수(得皮得髓) : 진리를 깨달은 깊이의 척도(尺度)를 말함이니, 본비문 주 46)득기수得其髓 p.552 참조.

458) 부법제덕(副法諸德) : ①아직 스님으로부터 법을 이어받지는 못하였으나, 스님의 회상운영(會上運營)을 도우면서 수학(受學)하는 자. ②소임자(所任者).

459) 집사제자(執事弟子) : 스님의 재가제자(在家弟子)로서 절 일을 맡아보며 외호(外護)하는 우바세와 우바이. 정인(淨人)과 같은 신도인데 청신사(淸信士)와 청신녀(淸信女).

460) 법유(法乳) : 법의 젖. 정법(正法)의 자양으로써 제자의 법신(法身)을 장양(長養)함이 마치 어머니의 젖으로 유아(幼兒)를 양육(養育)함에 비유한 것. 『열반경』에 “飲我法乳 長養法身”이라 하다.

461) 경사대부(卿士大夫) : 경대부사(卿大夫士)라고도 하니, 경과 대부와 사 등의 관직.

間乎. 斯皆黑白, 所以, 愛慕歸附, 如有驅策, 而不能以己者也.<sup>464)</sup> 其常隨親附, 得皮<sup>465)</sup>得髓, 副法諸德, 執事弟子, 并受法乳, 卿士大夫, 具列如後.<sup>466)</sup>

## 대선사

영각사의    굉훈,  
보경사의    신가,  
가지사<sup>467)</sup>의    혜림,  
마곡사의    수예,  
법흥사<sup>468)</sup>의    한운,  
인흥사<sup>469)</sup>의    선린,  
가지사의    월장,  
운흥사<sup>470)</sup>의    동우,  
주륙사<sup>471)</sup>의    영이,

462) [朴氏本]에는 化와 何字 사이에 16字의 결락 표시가 나타나 있으나, [全文]에는 없다.

463) [復元本]을 참고하여 下段 其常 이전의 8字를 옮겨왔음.

464) [復元本]을 참고하여 也字以下 ‘或拂棒喝之曰不然或昏擾平’ 12字를 앞의 擾夢以下로 옮겼음.

465) [朴氏本]에는 皮. [全文]의 故는 皮의 오자임.

466) [朴氏本]에는 如와 大字 사이에 後字가 있으나, [全文]에는 탈락됨.

467) 가지사(迦智寺): 전라북도 장흥군 유치면 가지산에 위치한 보림사의 옛 이름.

468) 법흥사(法興寺):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면 신세동(新世洞)에 있던 절.

469) 인흥사(仁興社): 경상북도 성주군 비슬산(琵琶山)에 있던 인흥사(仁弘寺)의 전신(前身).

470) 운흥사(雲興社): 운흥사가 여러 곳에 있어 어느 운흥사인지는 알 수 없다.

471) 주륙사(朱勒寺): 경상북도 선산군 냉산(冷山; 善山)에서 동쪽으로 약 6km 지점)

용암사<sup>472)</sup>의 연여,  
 화장사<sup>473)</sup>의 육장,  
 무위사<sup>474)</sup>의 수정,  
 보제사<sup>475)</sup>의 법류,  
 해룡사<sup>476)</sup>의 경분,  
 천룡사<sup>477)</sup>의 곡지,  
 인각사의 청분(立碑를 주선 감독한 스님),  
 성주사<sup>478)</sup>의 해여.

# 大禪師

靈覺寺 宏訓,  
 寶鏡寺 神可,  
 迦智寺 慧林,  
 麻谷社 守倪,  
 法興寺 旱<sup>479)</sup>雲,  
 仁興社 禪麟,

서쪽에 있었던 절이니, 고려 때 안진(安震 ?~1360. 호는 常軒)이 지은 혜각대사(慧覺大師)의 비가 있다.

472) 용암사(龍巖寺): 용암사가 여러 곳에 있어서 어느 용암사인지 알 수 없다.

473) 화장사(花藏社): 경상북도 문경군 문경면 화장리(花藏里)에 있었던 절.

474) 무위사(無爲寺):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月下里) 월출산(月出山)에 있는 절.

475) 보제사(普濟寺): 경기도 개성시 한천동에 있었던 고려시대의 사찰.

476) 해룡사(海龍寺): 경기도 포천군 해룡면(海龍面) 해룡감지(海龍鑑池) 곁에 있었던 절인 듯하다.

477) 천룡사(天龍社): 경상북도 영주군 영주읍 북쪽 약 3km 지점에 있던 절.

478) 성주사(聖住寺):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에 있었던 절.

479) [朴氏本]에는 旱이니, [全文]의 무는 旱의 오자임.

迦智寺 月藏,  
 雲興社 洞愚,  
 朱勒寺 永怡,  
 龍巖寺 淵如,  
 花藏社 六藏,  
 無爲寺 守精,  
 普濟寺 法流,  
 海龍寺 勁芬,  
 天龍社 谷之,  
 麟角寺 清玢,  
 聖住寺 惠如.

## 선사

견암사<sup>480)</sup>의 각령,  
 도원사<sup>481)</sup>의 자일,  
 조암사<sup>482)</sup>의 지순,  
 등억사<sup>483)</sup>의 대인,  
 묘덕사<sup>484)</sup>의 선연,  
 재악사<sup>485)</sup>의 선염,

480) 견암사(見巖社):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구룡산(九龍山) 현암사(懸巖寺)로 추측, 확실히 알 수 없다.

481) 도원사(桃源社): 어디에 있었던 절인지 알 수 없다.

482) 조암사(祖巖社): 어디에 있었던 절인지 알 수 없다.

483) 등억사(登億寺): 어디에 있었던 절인지 알 수 없다.

484) 묘덕사(妙德寺): 평양시에 있었던 절. 『고려사』권53 참조.

485) 재악사(載岳社): 알 수 없다. 후시 밀양군 단장면 재악산(載藥山) 표충사(表忠

월성사<sup>486)</sup>의 입기,  
 향산사<sup>487)</sup>의 천이,  
 용화사<sup>488)</sup>의 여환,  
 오어사<sup>489)</sup>의 계잠,  
 도봉사<sup>490)</sup>의 수침,  
 중령사<sup>491)</sup>의 충오,  
 사자원의 지우,  
 심산사의 충연,

---

寺)가 아닌가 한다.

486) 월성사(月星寺): 어디에 있었던 절인지 알 수 없다.

487) 향산사(香山寺): 평안남도 자주현(慈州縣:慈山郡)에 있었던 절이다. 『고려사』권 100「박제검전朴齊儉傳」에 조위충(趙位寵)이 패(敗)하고, 그의 잔당(殘黨)이 여러 주(州)의 산곡(山谷)에 산거(散居)하여 시종(始終) 겁략(劫掠)을 자행하매 크게 민환(民患)이 되어 자(慈)·숙(肅) 이주(二州)를 불태우고, 묘덕(妙德)과 향산(香山) 등 제사(諸寺)를 파괴하므로 왕이 병사(兵士)를 보내어 토벌하였으나 불리(不利)하였다.

488) 용화사(龍華寺): 용화가 여러 곳에 있으므로 어느 곳의 용화사인지 알 수 없다.

489) 오어사(吾魚社): 경상북도 영일군 오천면 향사리(恒沙里) 운제산(雲梯山)에 있는 절. 오어사라고 이름하게 된 까닭은 신라 때 원호(元曉); 『삼국유사』에는 惠宿이라 하다)와 혜공(惠空) 두 스님이 함께 이 절 앞에 있는 호수(湖水) 중에 놀고 있는 고기(魚蝦)를 잡아먹고 함께 수중(水中)에 뒤를 보았는데, 신비하게도 그 배설물 중 일부는 산 고기가 되어 물속에서 활발(活潑)히 놀았다. 이를 본 두 스님은 물속에 살아 있는 고기를 가리키면서 서로 주장하기를 “여시오어(汝尿吾魚)” 곧 너가 눈 것은 똥이고, 내가 눈 것은 고기라고 주장한 데에서 기인(起因)되었다. 『삼국유사』권4「이혜동진二惠同塵」(대정장49, p.1004b); 『신증동국여지승람』권23「영일현迎日縣」‘불우’; 『한국사찰전서』하권 p.851a 등 참조.

490) 도봉사(道峯寺):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郡西面) 죽정리(竹亭里)에 있었던 절인데, 지금도 그 유지에는 석탑(石塔) 2좌가 있다.

491) 중령사(中嶺寺): 어디에 있었던 절인지 알 수 없다.

경암사<sup>492)</sup>의 수연,  
 형암사<sup>493)</sup>의 자인,  
 청원사<sup>494)</sup>의 인응,  
 형원사의 친구,  
 보문사<sup>495)</sup>의 회회,  
 거조사<sup>496)</sup>의 친고,  
 인각사의 정생,  
 지론사<sup>497)</sup>의 현안,  
 운주사의 청원,  
 불일사<sup>498)</sup>의 영숙.

禪師

見巖社 覺靈,  
 桃源社 慈一,  
 祖嵒社 之純,  
 登億寺 大因,  
 妙德寺 禪演,

492) 경암사(瓊嵒寺): 어디에 있었던 절인지 알 수 없다.

493) 형암사(兄巖寺): 어디에 있었던 절인지 알 수 없다.

494) 청원사(淸源寺): 어디에 있었던 절인지 알 수 없다.

495) 보문사(普門社): 보문사가 여러 곳에 있으므로 어느 보문사인지를 알 수 없다.

496) 거조사(居祖社): 거조암(居祖庵)과 같은 절이니, 경상북도 영천군 청통면 신원동 팔공산(八公山)에 있는 절로써, 738년(효성왕 2)에 원종(元宗)이 창건. 영산전(靈山殿)은 국보 14호인데, 오백나한상(五百羅漢像)을 봉안하고 있다. 갓춘 국보 명칭은 은해사거조암영산전(銀海寺居祖庵靈山殿)이다.

497) 지론사(智論寺): 어디에 있었던 절인지 알 수 없다.

498) 불일사(佛日社): 경상북도 밀양군 비슬산에 있던 용천사(湧泉寺)인데, 고려 원종(1259~1274) 때 보각국존 일연이 왕명을 받아 중수하고 불일사로 개칭하였다.

載岳社 禪燄,  
 月星寺 立其,  
 香山寺 天怡,  
 龍華寺 呂桓,<sup>499)</sup>  
 吾魚社 戒岑,  
 道峯寺 守琛,  
 中嶺寺 冲悟,  
 師子院 志于,  
 深山寺 冲淵,  
 瓊崑寺 守淵,  
 兄巖寺 慈忍,  
 清源寺 仁應,  
 瑩原寺 信丘,  
 普門社 灰喜,  
 居祖社 天杲,  
 麟角寺 定生,  
 智論寺 玄安,  
 雲住寺 清遠,  
 佛日社 英淑.

수좌

홍화사<sup>500)</sup>의 선인,

499) [全文]에는 垣이고, [朴氏本]에는 桓이니, 어느 字가 옳은지 알 수 없다.

500) 홍화사(弘化寺): 경기도 장단군 소남면 홍화사이니, 고려의 승왕(僧王)이 창건. 일설에는 968년(광종 19)에 광종이 창건하였다고도 한다.

법연사<sup>501)</sup>의 인서.

首座

弘化寺 宣印,

法緣寺 印西.

산림<sup>502)</sup>

원응, 심분, 선량, 천박,

시수, 지회, 행이, 가월,

선련, 대미, 문일, 송지,

조남, 인조, 열여, 계승,

운기, 지인, 자신, 선식,

형기, 심찬, 육환, 신한,

몽현, 원희, 환운, 선홍,

조한, 평지, 홍령, 유이,

가항, 죽허, 태의, 신일,

천굉, 일비, 영인, 마가.

山林

元應, 心貴, 禪朗,<sup>503)</sup> 天朴,

時守, 知恢, 行伊, 可月,

---

501) 법연사(法緣寺): 어디에 있었던 절인지 알 수 없다.

502) 산림(山林): 불교의 4대 명절 또는 화엄산림(華嚴山林)·법화산림(法華山林) 등과 같은 대규모의 법요행사를 지칭함. 이와 같이 중요한 행사를 거행할 때, 편성된 소임명단(所任名單). 전하여 사찰의 운영(山林)을 맡은 종무직원(宗務職員) 스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503) [朴氏本]에는 朗이니, [全文]의 郎은 朗의 오자임.



禪璉, 大迷,<sup>504)</sup> 聞一, 松智,  
 祖南, 仁照, 悅如, 戒崇,  
 雲<sup>505)</sup> 其, 志因, 孜信, 旋息,  
 瑩其, 心贊, 肉幻, 神閑,  
 夢玄, 元希, 幻雲, 宣弘,  
 祖閑, 宏智, 弘令, 由已,  
 可恒, 竹虛, 兌宜, 神日,  
 天宏, 日卑, 英印, 摩<sup>506)</sup>訶.

### 삼중<sup>507)</sup>

심문, 지자, 유장, 신영,  
 서거, 경이, 효충, 가천,  
 대휴, 성현, 담지, 자송,  
 태인, 자려, 인정, 찬영,  
 양지, 몽유, 월주, 대진,  
 종자, 조선.

### 三重

心聞, 智慈, 由壯, 神英,  
 西去, 景伊, 曉聰, 可千,  
 大休, 性賢, 湛之, 自松,  
 太印, 自侶, 仁正, 贊<sup>508)</sup>英,

504) [全文]에는 逸이고, [朴氏本]에는 迷이니, [朴氏本]의 迷가 옳은 듯하다.

505) [全文]에는 雲이고, [朴氏本]에는 雪이다.

506) [全文]에는 摩이고, [朴氏本]에는 麼이니, 梵語의 音寫이므로 兩字 모두 무방하다.

507) 삼중(三重): 삼중대사(三重大師)의 준말.

良之, 夢由, 月珠, 大眞,  
宗資, 祖宣.

## 대선

현지, 덕수, 신령, 도한,  
홍눌, 조운, 중계, 탄홍,  
녹지, 성이, 지환, 조송,  
일환.

## 大選

玄智, 德守, 信令, 道閑,  
弘訥, 祖云, 中契, 坦弘,  
鹿之, 性邇, 智桓, 祖松,  
日桓.

## 입선<sup>509)</sup>

홍민, 가관, 가열, 가안,  
굉우, 법상, 지영, 조순,  
영월, 신재, 영세, 각생,  
지현, 승원.

## 入選

弘敏, 可觀, 可悅, 可安,  
宏右, 法常, 知永, 祖詢,

508) [全文]에는 贊이고, [朴氏本]에는 替이니, [朴氏本]의 替가 오자인 듯하다.

509) 입선(入選): 고려 때, 승과(僧科)의 등급 중 초급 승과이니, 최초로 응시하는 고시과목(考試科目)이다.

令月, 信在, 令世, 覺生,  
智玄, 昇遠.

#### 참학

일회, 죽지, 지온, 가흥,  
성회, 인소, 익현, 백여,  
신찬, 각현, 수눌, 영규,  
인환, 한세, 효대, 회정,  
선평, 명계, 도연, 영인,  
신여, 현조, 인원, 학산,  
지안, 원선, 법기, 중세,  
혜건, 진안.

#### 參學

日廻, 竹之, 志溫, 可弘,  
性廻, 印昭, 益玄, 白如,  
神贊, 覺<sup>510)</sup>玄, 守訥, 令規,  
仁渙, 閑世, 孝大, 廻正,  
善平, 明戒, 道淵, 令印,  
信如, 玄照, 仁元, 學山,  
志安, 遠宣, 法奇, 中世,  
惠見, 眞眼.

510) [朴氏本]에는 覺이니, [底本]의 夢은 覺의 오자임.

## 일품

문하시랑 판한림원사 이장용,<sup>511)</sup>

첨의중찬 상장군 홍자번,<sup>512)</sup>

첨의중찬 판전리사 원부,<sup>513)</sup>

첨의중찬 상장군 송송례.<sup>514)</sup>

一品.

門下侍郎 判翰林院事 李藏用,

僉議中贊 上將軍 洪子藩,

僉議中贊 判典理司 元傳,

僉議中贊 上將軍 宋松禮.

## 이품

첨의찬성사 수문전<sup>515)</sup> 대학사<sup>516)</sup> 임익,

511) 이장용(李藏用): 1201~1272. 고려 문신. 초명은 인기(仁祺). 자는 현보(顯甫). 본관은 인천(仁川). 시호는 문진(文眞). 경전(經典)도 깊이 연구하여 불심(佛心)이 돈독하였다. 저서(著書)는 『신가종고도禪家宗派圖』를 지었고, 『화엄추동기華嚴錐洞記』도 윤색하였다. 「진각국사원소탑비문眞覺國師圓炤塔碑文」 주189)이장용李壯用 [고려편4] pp.159; 『고려사』권102「열전」15 참조.

512) 홍자번(洪子藩): 1237~1306. 고려 문신(文臣). 자는 운지(雲之). 본관은 남양(南陽). 시호는 충정(忠正). 충청(忠淸)·경상(慶尙)·전라도(全羅道)의 안찰사(按察使), 호부시랑(戶部侍郎), 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 세자사(世子師), 좌복야(左僕射), 참지광정원사(參知光政院事)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고려사』권105「열전」권18 참조.

513) 원부(元傳): ?~1287. 고려 문신. 본관은 원주(原州). 시호는 문순(文純). 충렬왕초에 판군부사사(判軍簿司事)가 되었다.

514) 송송례(宋松禮): ?~1289. 고려 문신. 본관은 여산(礪山). 시호는 정렬(貞烈). 『고려사』.

515) 수문전(修文殿): 문덕전(文德殿)을 고친 이름. 고려 학자들이 왕에게 강의하던

침의찬성사 수문전 대학사 상장군 정가신,<sup>517)</sup>

문하시랑평장사 보문각 대학사 김구,<sup>518)</sup>

침의찬성사 집현전 대학사 박항,<sup>519)</sup>

대광 침의찬성사 상장군 염승익,<sup>520)</sup>

침의시랑 찬성사 김련,<sup>521)</sup>

참지정사 상장군 이응소,

참지정사<sup>522)</sup> 상장군 박송비,<sup>523)</sup>

지침의사<sup>524)</sup> 대학사 상장군 김주정,<sup>525)</sup>

---

곳. 국초에 설치, 1136년에 수문전으로 개칭, 1308년에는 우문관(右文館)으로 고치고, 1356년에 다시 수문전으로 고쳤다. 『고려사』「백관지百官志」.

516) 대학사(大學士): 대학박사(大學博士)의 준말. 고려 성종 때 국자감(國子監)을 설치하고 두었던 관직.

517) 정가신(鄭可臣): ?~1289. 초명은 흥(興). 자는 헌지(獻之). 본관은 나주(羅州). 시호는 문정(文靖). 『고려사』권105「열전」권18 참조.

518) 김구(金丘): 1211~1278. 고려 학자. 초명은 백일(百鑑). 자는 차산(次山). 호는 지포(止浦). 본관은 부령(富寧). 1274년에 참문학사(參文學士) 판판도사사(判版圖司事)가 되었다. 저서는 『지포집止浦集』 『북정록北征錄』이 있다. 『고려사』권106「열전列傳」권19 참조.

519) 박항(朴恒): 1227~1281. 고려 문신. 춘천박씨(春川朴氏)의 시조. 초명은 동보(東甫). 자는 혁지(革之). 시호는 문의(文懿). 『고려사』.

520) 염승익(廉承益): 본비문 주166)염승익廉承益 p.569; 『고려사』권124「염승익전廉承益傳」 등 참조.

521) 김련(金璉): 1255년(고종 42) 12월에 신희(辛喜)와 함께 시어사(侍御史)가 되었다. 『고려사』권24.

522) 참지정사(參知政事): 고려 때 중서문하(中書門下)의 중2품 벼슬. 뒤에 침의평리(僉議評理)로 개칭하였다.

523) 박송비(朴松庇): ?~1278. 고려 때 장군. 덕원(경북 寧海)의 향리(鄉吏)에서 출발하여 참지정사에 이르렀다. 『고려사』권24.

524) 침의사(僉議事): 침의찬성사(僉議贊成事)의 준말. 고려 때 침의부(僉議府)에 좌

지첨의사 보문서 대학사 장일,  
 지첨의사 보문서 대학사 주열,  
 지밀직사 좌상시 상장군 최유엄,  
 부지밀직사사 상장군 박지량,  
 부지밀직사사 상장군 나유,<sup>526)</sup>  
 부지밀직사 감찰대부 민훤,<sup>527)</sup>  
 부지밀직사사 상장군 김군,<sup>528)</sup>  
 부지밀직사 상장군 이덕손.<sup>529)</sup>

## 二品

僉議贊成事 修文殿 大學士 任翺,  
 僉議贊成事 修文殿 大學士 上將軍 鄭可臣,  
 門下侍郎平章事 寶文閣 大學士 金垵,  
 僉議贊成事 集賢殿 大學士 朴恒,  
 大匡 僉議贊成事 上將軍 廉承益,

우첨의찬중찬(左右僉議贊中贊)·첨의시랑찬성사(僉議侍郎贊成事)·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첨의참리(僉議參理)·참문학사(參文學士)·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 등이 있었다.

525) 김주정(金周鼎): 1216년 김군수(金君綏)·이종규(李宗揆)·송안국(宋安國) 등 11명과 함께 찰방사(察訪使)로써 민생(民生)과 이도(吏道)를 살피기 위하여 각도(各道)에 분견(分遣)하였으나, 거란(契丹)의 침입으로 소임을 정밀히 수행하지 못하여 좌천, 그 후 시어사(侍御史)·분대록사(分臺錄事)·형부낭중(刑部郎中) 등을 역임하였다. 『고려사』권104「열전」권17 참조.

526) 나유(羅裕): 본비문 주170)나유羅裕 p.569; 『고려사』권104「나유(익희)전羅裕(益禧)傳」 참조.

527) 민훤(閔萱): ?~1310. 시호는 양경(良敬).

528) 김군(金頤): 본비문 주149)장작윤김군將作尹金頤 p.567 참조.

529) 이덕손(李德孫): ?~1301. 고려의 폐신(嬖臣). 본관은 함천(陝川). 시호는 장숙(莊淑).

僉議侍郎贊成事 金璉,  
 參知政事 上將軍 李應韶,  
 參知政事 上將軍 朴松庇,  
 知僉議事 大學士 上將軍 金周鼎,  
 知僉議事 實文署 大學士 張鎰,  
 知僉議事 實文署 大學士 朱悅,  
 知密直事 左常侍 上將軍 崔有滄,  
 副知密直司事 上將軍 朴之亮,  
 副知密直司事 上將軍 羅裕,  
 副知密直事 監察大夫 閔萱,  
 副知密直司事 上將軍 金頴,  
 副知密直事 上將軍 李德孫.

삼품<sup>530)</sup>

판비서 보문서<sup>531)</sup> 학사 공문백<sup>532)</sup>

530) 삼품(三品) : 삼품에는 정(正)3품과 종(從)3품이 있는데, 정3에는 정3품상(上)과 하(下)가 있고, 종3품에도 종3품상과 하가 있다. ①정3품은 고려 때의 품계의 하나. 문산계(文散階)로 문종 때에 둔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1275년의 중봉(中奉), 1298년의 정의대부(正議大夫), 1308년의 (상)정순대부(正順大夫)·(하)봉순대부(奉順大夫), 1356년의 (상)정의대부(正議大夫)·(하)통의대부(通議大夫), 1362년에 (상)정순대부(正順大夫)·(하)봉순대부(奉順大夫) 등이고, 무산계(武散階)로는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 등이다. 『고려사』. ②종3품은 고려 때의 문무관(文武官). 문종 때 제정한 문산계의 광록대부(光祿大夫), 1298년에 고친 통의대부(通議大夫), 1308년에 고친 (상)중정대부(中正大夫)·(하)중현대부(中顯大夫), 1356년에 (상)대중대부(大中大夫)·(하)중대부(中大夫), 1362년에 (상)중정대부(中正大夫)·(하)중현대부(中顯大夫), 1369년에 (상)대중대부(大中大夫)·(하)중정대부(中正大夫) 등이고, 무산계로는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 등이다. 『고려사』.

상장군 오예,<sup>533)</sup>

상장군 정수기,<sup>534)</sup>

상장군 이영주,<sup>535)</sup>

보문각 학사 김지,<sup>536)537)</sup>

국자좨주<sup>538)</sup> 지제고 최령,<sup>539)</sup>

위위윤<sup>540)</sup> 최자혁,<sup>541)</sup>

- 
- 531) 보문서(寶文署) : 보문각(寶文閣)이라고도 함. 고려 때 경연(經筵)과 장서(藏書)를 맡은 관청.
- 532) 공문백(貢文伯) : 다른 자료에도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
- 533) 오예(吳睿) : 다른 자료에서도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
- 534) 정수기(鄭守棋) : 1316년(충숙왕 3)에 향인(鄉人)이었고, 1329년(충숙왕 16) 중군만호(中軍萬戶)가 되었고, 그 후 방수만호(防守萬戶)가 되었다. 『고려사』권29, 30, 57, 82, 104 등 참조.
- 535) 이영주(李英柱) : 고려 폐신. 응공(應公)의 아들. 1300년 정조사(正朝使)로 원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 536) 김지(金祗) : 다른 자료에서도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
- 537) [全文]에는 賜字가 있으나, [朴氏本]에는 없으니, 이는 賜字가 있는 [全文]이 옳다.
- 538) 국자좨주(國子祭酒) : 고려 때의 교육기관. 태조 때에는 경학(京學)이라 하다가, 성종(981~997) 때 국자감(國子監)으로 개편하고, 많은 부서(部署)를 두었다. 문종(1046~1083) 때 이르러 국자감에 제거(提舉)·동제거(同提舉) 각 1명, 판사(判事) 1명, 좨주(祭酒)-종3품 등 많은 직원을 두었었다.
- 539) 최령(崔寧) : 1259년(고종 46) 4월 왕이 불예(不豫)하므로 중외(中外)의 이죄(二罪) 이하의 죄수(罪囚)를 사면하고, 또 최령(崔寧)과 허홍(許洪)을 보내어 바다를 따라 생어(生魚)를 놓아 주었다. 『고려사』권24「세가世家」권24 참조.
- 540) 위위윤(衛尉尹) : 고려 때 의장(儀仗)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 태조 때에는 내군(內軍)이라 칭하다가, 960년 장위부(掌衛府)라 하고, 다시 사위시(司衛寺)라 하였다가 995년에 위위시(衛尉寺)로 개칭하였다. 문종(1046~1083) 때 관원(官員)을 확정하여 판사-정3품·경(卿)-종3품·소경(少卿)-종4품 각 1명, 승(丞)-종6품에 2명, 주부(主簿)-종7품에 2명, 이속(吏屬)으로 서리(書吏)에 6명, 기관(記官) 등을 두었으며, 1298년 판사(判事)를 폐지, 윤(尹)을 두어 으뜸 벼슬로 하다



비서윤 지제고 오한경,  
사재윤 유거.

三品

判秘書寶文署學士 貢文伯,  
上將軍 吳睿,  
上將軍 鄭守棋,  
上將軍 李英柱,  
寶文覺學士 金砥,  
國子祭酒 知制誥 崔寧,  
衛尉尹 崔資奕,  
秘書尹 知制誥 吳漢卿,  
司宰尹 柳琚.

사품<sup>542)</sup>

금오위장군 박,  
전리총랑 김원구,  
근시증랑장 김용검,  
낭장 최유,  
좌랑 이세기,

---

가 1308년 이부(吏部)에 병합시켰다. 1331년에 독립하여 관원을 정비, 판사·영(令)-종3품·소윤(少尹)-종4품·승·주부-종7품 등을 두었으나, 그 후 영과 소윤은 경과 소경으로 대치. 여러차례 반복하다가 1389년 위위시(衛尉寺)를 중방(重房)에 통합시켰다. 『고려사』.

541) 최자혁(崔資奕) : 다른 자료에서도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

542) 사품(四品) : 고려 때의 품계의 하나. 이 사품에는 정4품상(上)과 하(下), 종4품상과 하가 있다. 문종(1046~1083) 때에 둔 문산계의 (상)정의대부(正義大夫)·(하)

지후 윤혁,  
박사 김원상,  
한림 김,  
조봉량 김태.

四品

金吾衛將軍 朴,  
典理摠郎 金元具,  
近侍中郎將 金龍劔,  
郎將 崔有,  
佐郎 李世祺,  
祗候 尹奕,  
搏士 金元祥,  
翰林 金,  
朝奉郎 金台.

원정 원년<sup>543)</sup> 을미 8월 일에 쓰다.

元貞元年, 乙未八月日, 書字.

[비신(碑身)의 높이(高)는 6척(六尺), 폭(幅)은 3척5촌(三尺五寸), 글자의 간격은 6분(六分)이며, 행서(行書)이다. 진(晉) 왕희지의 글씨를 집각(集刻)하였다.]

통의대부(通議大夫), 1298년의 대중대부(大中大夫), 1308년의 봉상대부(奉常大夫), 1356년의 중산대부(中散大夫), 1362년의 봉상대부, 1369년의 (상)중산대부 · (하)중의대부(中議大夫)와 무산계(武散階)의 (상)중무장군(中武將軍) · (하)장무장군(將武將軍) 등이다. 『고려사』.

543) 원정원년(元貞元年): 1295년이니, 본비문 주328)원정원년元貞元年 참조.

[揭載]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上, pp.467~473.

『한국금석전문韓國金石全文』中世 下, pp.1067~1077.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下, pp.358~364.

『역대고승비문歷代高僧碑文』高麗篇 4, pp.204~217.(李智冠 校勘 修正補完本)

정병삼 外, 『2004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 '인각사보각국사비재현'사업 복원본』





楊州太古寺圓證國師塔碑文

【11. 양주태고사원증국사탑비문】





## 11. 양주태고사원증국사탑비문

楊州太古寺圓證國師塔碑文

있는 곳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태고사

세운 때 : 고려 우왕 11년 (1385)

所在 : 京畿道 高陽市 德陽區 北漢洞 太古寺

年代 : 高麗<sup>1)</sup> 禑王 11年 (1385)

원증국사탑명(圓證國師塔銘) [전액]

圓證國師塔銘 [篆額]

고려국(高麗國) 국사(國師) 대조계사조<sup>2)</sup> 전불심인(傳佛心印) 행해묘엄  
(行解妙嚴) 비지원융(悲智圓融) 찬리왕화(贊理王化) 부종수교(扶宗樹敎)  
대원보제(大願普濟) 일국대종사(一國大宗師) 마가<sup>3)</sup>실다라<sup>4)</sup> 이웅존자(利雄  
尊者) 시(諡) 원증탑명(圓證塔銘)과 아울러 서문(序文)

- 1) 여(麗)와 십자(十字) 사이에 [全文]에는 禑王이라 하였고, [總覽]에는 廢王禑라 고 되어 있다.
- 2) 사조(嗣祖) : 사승(嗣承) 또는 사법(嗣法)과 같은 말이니,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교법(敎法) 또는 선법(禪法)을 전해받는 것.
- 3) 마가(摩訶) : ①Mahā, 대(大)라 번역하며, 크다는 뜻이다.
- 4) 실다라(悉多羅) : ①Siddhārtha, 실달다(悉達多)라고도 음사(音寫)함. 일체의성(一切義成)이라 번역하니, 모든 지혜 또는 뜻(一切智)을 이룬자의 뜻이다.

高麗國，國師，大曹溪嗣祖，傳佛心印，行解妙嚴，悲智圓融，  
贊理王化，扶宗樹教，大願普濟，一國大宗師，摩訶悉多羅，利  
雄尊者，諡圓證塔銘，并序.

추충보절(推忠保節) 동덕찬화공신(同德贊化功臣) 삼중대광(三重大匡)  
한산부원군(韓山府院君) 영예문춘추관사(領藝文春秋館事)인 신(臣) 이색  
(李穡)이 교지(教旨)를 받들어 비문을 짓고,

전봉익대부<sup>5)</sup> 판전교시사<sup>6)</sup> 진현관<sup>7)</sup> 제학(提學)인 신(臣) 권주<sup>8)</sup>는 왕명에  
의하여 비문과 아울러 붉은 전액을 쓰다.<sup>9)</sup>

- 
- 5) 봉익대부(奉翊大夫): 고려 때 문관(文官)의 중2품의 품계. 「지공나옹사리석종비  
문指空懶翁舍利石鐘碑文」 주4) 봉익대부奉翊大夫 [고려편4] p.417 참조.
- 6) 전교시(典校寺): 고려 때 경적(經籍)과 축소(祝疏)를 관장하던 관청. 내서성(內  
書省)·비서성(秘書省)·비서감(秘書監) 등으로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었다. 전  
교시의 우두머리인 판사(判事)는 정3품 벼슬.
- 7) 진현관(進賢館): 고려 때의 관청. 재능이 있는 문신들을 뽑아 임금을 시종케 하  
던 관전(館殿) 중의 하나로서 충렬왕(1274~1308) 때 설치되었다. 진현관의 제학  
(提學)은 중2품인 대제학(大提學) 바로 밑의 벼슬이었다.
- 8) 권주(權鑄):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지(子止), 호는 춘수당(春睡堂)·모명재  
(慕明齋)이다. 원복군(元福君) 권렴(權廉)의 아들이다. 1361년(공민왕10) 홍건적  
이 침입하여 공민왕이 남쪽으로 몽진할 때, 전법총랑(典法摠郎)으로서 왕을 호  
종하였다. 이 공을 인정받아 1363년(공민왕12)에 신축호종2등공신(辛丑扈從二等  
功臣)으로 봉해졌다. 그러나 1374년 조카 진(瑄)이 홍륜(洪倫)·최만생(崔萬生)  
과 더불어 공민왕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그 후  
풀려나 1386년(우왕12) 전공판서(典工判書), 1389년(창왕 1) 지신사(知申事)를  
거쳐 밀직제학(密直提學)에 올랐다. 서예에 능하여 「신록사대장각기비神勒寺大  
藏閣記碑」, 「태고사원증국사탑비太古寺圓證國師塔碑」 등의 비문이 전한다. 「지  
공나옹사리석종비문」 주6) 권주權鑄 [고려편4] pp.417~418 참조.
- 9) 단병전액(丹井篆額): 단사(丹砂)를 먹물에 섞어서 전액을 썼다는 뜻이다. 「선각  
왕사비문禪覺王師碑文」 주21) 서단병전액書丹井篆額 [고려편4] p.356 참조.



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三重大匡，韓山府院君，領藝文春秋館事，臣，李穡，奉教，撰，  
前奉翊大夫，判典校寺事，進賢館，提學，臣，權鑄，奉教，書，  
丹并篆額.

상(上)이 즉위(卽位)하신지 11년이 되는 해<sup>10)</sup> 1월 10일, 좌대언<sup>11)</sup>인 신(臣) 중용<sup>12)</sup>이 교지(教旨)를 전하여 이르기를,<sup>13)</sup> 태고국사(太古國師)의 사리탑비문(舍利塔碑文)을 경이 지으라고 명(命)하였다. 그리하여 신이 삼가 고찰하여 보니, 국사의 휘는 보우(普愚)요 호는 태고(太古)이며 속성은 홍씨(洪氏)이니 충남 홍주<sup>14)</sup> 출신이다. 아버지의 휘는 연<sup>15)</sup>이니, 개부의동삼사<sup>16)</sup> 상주국(上柱國) 문하시중(門下侍中) 판이병부사(判吏兵部事) 홍양

- 10) 상지십일년(上之十一年) : 상은 고려 제32대 우왕(禑王). 우왕 11년은 을축(乙丑)이니 1385년이다.
- 11) 좌대언(左代言) : 고려 때의 밀직사(密直司)에 소속되어 있던 정3품의 벼슬. 1310년에 좌승선(左承宣)의 후신인 좌승지(左承旨)를 고친 이름으로 1356년에 다시 좌승선으로 고쳤다가 1362년에 좌대언(左代言)으로 개칭하였다.
- 12) 중용(仲容) : 박중용(朴仲容)을 말하는 뜻함. 『고려사』권126「임견미전林堅味傳」에 우왕(禑王) 14년(1388) 1월 임견미(林堅味) 세력이 제거될 때 밀직제학(密直提學)인 박중용 등 50여인(餘人)이 참수당하고 박중용의 아버지인 박형(朴形)도 장형(杖刑)을 받고 유배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 13) 약왈(若曰) : 약은 위(謂)의 뜻. 또는 구말(句末)의 어조사(語助辭). 곧 교지(教旨)를 전하여 일러 가로되라 새긴다.
- 14) 홍주(洪州)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지명.
- 15) 홍연(洪延) : 태고국사의 아버지의 이름. 호는 홍양공(洪陽公)이나 전기는 다른 자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 16)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 고려 문산계. 중국에서는 위(魏)·진(晉) 시대부터 시작된 관계(官階)인데, 우리나라에서는 995년에 전의대광(典義大匡)을 개부의동삼사라고 불렀다. 1298년 승록대부(崇祿大夫)로 개칭. 1356년에 다시 개부의동삼사라 하다가 1362년에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으로 고쳤다.

공(洪陽公)에 추증(追贈)되었고, 어머니는 정씨(鄭氏)이니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에 추증되었다.

上之十一年，正月，十日，左代言，臣，仲容，傳旨，若曰，“國師太<sup>17)</sup>古浮圖，<sup>18)</sup>汝其銘之。”臣，謹案，國師諱普愚，號太<sup>19)</sup>古，俗姓洪氏，洪州人也。考諱延，贈開府儀同三司，上柱國，門下侍中，判吏兵部事，洪陽公，妣鄭氏，贈三韓國大夫人。

부인(夫人)이 어느 날 밤 태양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태몽(胎夢)을 꾸고 임신하여 대덕 5년<sup>20)</sup> 신축(辛丑) 9월 21일에 스님을 낳았다. 스님은 성동<sup>21)</sup>의 나이에도 영오<sup>22)</sup>함이 남달리 뛰어났다. 13살 때 회암사 광지선사<sup>23)</sup>를 은사로 하여 스님이 되었다. 19살 적부터 만법귀일이언만 일귀하처화<sup>24)</sup>를

17) [全文]과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教全書』(이하 [全書]라고 한다)에는 태이고, [總覽] [苑]에는 대이니, 뜻으로는 같으나 태가 옳음.

18) [苑] [總覽] [全書] [拓本]에는 圖이고, [全文]에는 屠이나, 이는 梵語의 Buddha(Stūpa)의 音寫이므로 모두 통용됨.

19) [全文] [全書]에는 태이고, [總覽] [苑]에는 대이니, 뜻으로는 같으나 태가 옳음.

20) 대덕오년(大德五年): 대덕은 원나라 성종대(成宗代)의 연호. 5년은 고려 충렬왕 27년(1301).

21) 성동(成童): ①8살 이상의 소년 ②15살 이상의 소년.

22) 영오(穎悟): 뛰어나게 총명함. 『북사北史』「예술藝術」‘유수재전庾秀才傳’에 “秀才幼穎悟 八歲誦尚書”라 하다.

23) 광지선사(廣智禪師): 전기가 다른 자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24) 만법귀일화(萬法歸一話): 만법일여(萬法一如)와 같은 뜻이니, 갖가지 차별적인 현상(現象)이 곧 평등(平等)한 이체(理體)임을 보인 것. 승조(僧肇)의 『보장론寶藏論』(대정장47, p.793b24)에 있는 구절(句節)로서, 차별적(差別的)인 만법이 평등일미(平等一味)의 이체(理體)로 귀입(歸入)함을 말함. “어떤 스님이 조주(趙州)에게 묻기를 ‘萬法歸一 一歸何處’라고 하니, 조주가 대답하기를 ‘내가 청주(靑州)에 있을 때 한 벌의 삼베 장삼(長衫)을 만들었더니 그 무게가 7근(斤)이었다.’라고 하였

들어 참선(參禪)하였다.

夫人夢，日輪入懷，既而有娠，以大德五年辛丑，九月，二十一日，生師，師成童，穎悟絕倫。十三，投檜巖廣智禪師出家，十九，叅萬法歸一話。

원통 계유년<sup>25)</sup>에 성서(城西)의 감로사<sup>26)</sup>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만법귀일에 대한 의단<sup>27)</sup>이 박락(剝落)하고 팔구(八句)의 송(頌)을 지었으니,<sup>28)</sup> “불조(佛祖)가 산하(山河)와 더불어 입이 없지만 모두 삼켜 버렸다” 함이 그 결구(結句)이다. 그 후 후지원 정축년<sup>29)</sup>에 스님의 나이 37세 되던 해 거

---

다. 僧問趙州 萬法歸一 一歸何處 州云 我在青州 作一領長衫 重七斤”.

- 25) 원통계유(元統癸酉): 원통은 원나라 영종(寧宗) 연호. 원통 계유년은 고려 충숙왕 2년(1333).
- 26) 감로사(甘露寺): 감로사가 전국에 걸쳐 여러 곳에 있으므로 어느 곳의 감로사인 지 알 수 없으나, 개성(開城)에 있었던 감로사로 짐작되는데, 감로사는 조선초에도 200결의 토지를 소유하며 사세(寺勢)를 유지하였다.
- 27) 의단(疑團): 공안(公案)인 화두(話頭)를 드는 것이 곧 의심하는 것이므로 참선하는 것을 의단(疑團)이라고 한다.
- 28) 작송팔구(作頌八句): 홀연히 깨달은 바가 있어 팔구의 송(頌)을 지었다는 말이니, 곧 1333년 가을 성서(城西)의 감로사(甘露寺) 승당(僧堂)에서 지낼 때, 아직 생사대사(生死大事)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개탄하면서 분연히 만법귀일화(萬法歸一話)로 7일간 용맹정진하여 끝나는 날 밤에 두 청의동자(青衣童子)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백비탕(白沸湯)이 담긴 병(瓶)을 들었고, 다른 한 동자는 잔을 들어 백비탕을 받아 권하므로, 스님은 이를 받아 마시고 홀연히 성오(省悟)함을 얻고는 다음과 같은 팔구(八句)의 송(頌)을 지었다. “一亦不得處 踏破家中石 回看沒破跡 看者亦已寂 了了圓陀陀 玄玄光燦燦 佛祖與山河 無口悉吞卻”(한불전6, p.696a20).
- 29) 후지원정축(後至元丁丑): 지원(至元)이란 연호는 원나라 세조대(1264~1294)와 순제대(1335~1340) 두 번 사용되었기 때문에 순제대에 사용된 지원 연호를 일반적으로 후지원(後至元)이라 한다. 후지원 정축년(丁丑年)은 고려 충숙왕 복위

울에 전단원<sup>30)</sup>에서 안거(安居)하는 동안에는 조주(趙州)의 무자화두(無字話頭)를 참구하였다. 이듬해 1월 7일 5경<sup>31)</sup>에 활연대오(豁然大悟)하고 팔구(八句)의 송(頌)을 지었으니 “굳은 조사관을 타파(打破)하고 나니, 청풍(淸風)이 태고(太古)에서 불어오더라”는 것이 그 결구(結句)이다. 3월에 양근<sup>32)</sup> 초당(草堂)으로 돌아와서 부모를 시양(侍養)하였다.

元統癸酉，寓城西甘露寺，一日，疑團剝落，作頌八句，“佛祖與山河，無口悉吞却。”其結句也。後至元丁丑，師年三十七冬，寓梅檀園，參無字話。明年正月，初七日，五更，豁然大悟，作頌八句，“打破牢關後，淸風吹太<sup>33)</sup>古。”其結句也。三月，還楊根草堂，侍親也。

스님은 일찍이 공안(公案) 일천칠백칙(一千七百則)을 보다가 암두스님<sup>34)</sup>

(復位) 6년(1337)이다. 이 해 가을 불각사(佛脚寺)에서 『원각경』「보현보살장품 普賢菩薩章」을 보다가 “一切盡滅 …… 名爲不動”이란 대목에 이르러 이미 얻었던 모든 지견(知見)이 박락(剝落)하고는 “靜也千般現 動也一物無 無無是什麼 霜後菊花稠”(한불전6, p.696a24)라는 송을 읊었다. 이로부터 스님은 무자화두(無字話頭)를 거각(覺)하였다.

30) 전단원운운(梅檀園云云) : 1337년 10월 채중암(蔡中庵) : 자는 無悶, 휘는 洪哲, 호는 中庵 : 1262~1340)이 그의 집 북쪽 전단원(梅檀園) 중에 선실(禪室)을 만들고 스님을 청하여 그곳에서 동안거(冬安居)를 하게 했다. 그리하여 다음 해인 1338년(戊寅) 1월 7일 오경(五更)에 이르러 활연대오(豁然大悟)하고 다음과 같은 팔구(八句)의 오도송(悟道頌)을 지었다. “趙州古佛老 坐斷千聖路 吹毛覷面提 通身無孔覷 狐兔絕潛蹤 翻身師子露 打破牢關後 淸風吹太古”(한불전6, p.696b07).

31) 오경(五更) : 새벽 03시부터 05시 사이를 가리킨다.

32) 양근(楊根) : 양근현(楊根縣)의 줄임말이니,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의 옛 이름.

33) [全文] [全書]의 태와 [總覽] [苑]의 대는 뜻으로는 같으나 태가 옳음.

34) 암두(巖頭) : 828~887. 청원계(靑原系). 휘는 전할(全割), 호는 암두. 천주(泉州 ; 福建省) 남안현(南安縣) 출신. 속성은 가씨(柯氏). 영천사(靈泉寺) 의공(義公)

의 밀계처(密啓處)에 이르러 꼭 막혀서 통과하지 못하였다. 얼마 후 홀연히 깨닫고는 암두(巖頭)를 비웃으면서 “암두(巖頭)가 비록 활을 잘 쏘기는 하나, 이슬에 옷이 젖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평(評)하였다.

師嘗看千七百則，至巖<sup>35)</sup>頭密啓處，過不得。良久，忽然捉敗，冷笑一聲云，“巖<sup>36)</sup>頭，雖善射，不覺露濕衣。”

신사년<sup>37)</sup> 봄에 한양(漢陽) 삼각산(三角山) 중흥사<sup>38)</sup>에 주석하게 되었는데, 동봉(東峯)에 자그마한 암자를 짓고는 편액(扁額)을 태고암<sup>39)</sup>이라 하고, 그곳에서 영가(永嘉)스님의 증도가(證道歌)를 본받아<sup>40)</sup> 태고암가(太古庵歌) 한 편을 지었다.

辛巳春，住漢陽三角山重興寺，卓庵於東峯，扁曰太<sup>41)</sup>古，倣永

을 은사로 하여 스님이 되었고, 교리(敎理)를 연구하다가 덕산선감(德山宣鑑：780~865)의 법을 이어받아 제자가 되었다. 동정호반(洞庭湖畔) 와룡사(臥龍寺)에서 종풍(宗風)을 진작하였다. 광개(光啓) 3년 4월 8일(『조당집祖堂集』7에는 中和 5년(885) 4월 4일) 밤에 침입한 도적이 칼을 들고 가해(加害)하려 하므로 태연자약하게 수도하는 토굴(土窟)에 무슨 물건(物件)이 있겠는가? 하면서 대규일성(大叫一聲)하고 조용히 입적하였다. 시호는 청엄대사(淸嚴大師)이다. 『송고승전宋高僧傳』23; 『조당집』7;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16 (대정장51, p.326a10)등 참조.

35) [全文] [全書]의 巖과 [總覽] [苑]의 巖은 같은 字이다.

36) [全文] [全書]의 巖과 [總覽] [苑]의 巖은 같은 字이다.

37) 신사(辛巳)：고려 충혜왕 복위 2년(1341).

38) 중흥사(重興寺)：서울 삼각산 노적봉 남쪽 군창지 맞은 편에 있었던 절. 1915년에 폐사(廢寺)가 되었다. 조선 숙종 때 북한산성을 쌓고 북한산성 도총섭(都摠攝)의 지휘 아래 많은 스님들이 산성을 지킬 무렵 도총섭이 있던 큰 절로서 중흥사라고도 한다.

39) 태고(太古)：태고사(太古寺)이니 중흥사 서쪽에 있었던 절이다.

40) 영가체(永嘉體)：영가현각(永嘉玄覺：647~713)스님이 지은 증도가(證道歌；7言 및 6言으로 된 266句)의 체제를 본받아 태고암가(太古庵歌) 일편(7言 및 6言으로 된 84句)을 지은 것을 지칭함.

嘉體, 作歌一篇.

지정 병술년<sup>42)</sup>에 스님의 나이 46세 때 원(元)나라 연도<sup>43)</sup>로 입원유학(入元遊學)하였다. 축원(竺源) 영성선사<sup>44)</sup>의 고명함을 듣고 남소<sup>45)</sup>로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입적(入寂)한 후였다.<sup>46)</sup> 그리하여 다시 방향을 바꾸어 호주<sup>47)</sup>에 있는 하무산<sup>48)</sup>으로 가서 석옥 청공선사<sup>49)</sup>를 친견하고, 자신이 얻은

41) [全文] [全書]의 太와 [總覽] [苑]의 大는 뜻으로는 같으나 太가 옳음.

42) 지정병술운운(至正丙戌云云): 지정은 원나라 순제대의 연호. 병술은 지정 6년이며 고려 제29대 충목왕 2년(1346). 이 해 봄에 연도(燕都)에 들어가 대관사(大觀寺)에 우거(寓居)하게 되었다.

43) 연도(燕都): 연경(燕京)이니 당시 원나라의 왕도이며 지금의 북경(北京)이다.

44) 축원성선사(竺源盛禪師): 1276~1347. 천녕무능교(天寧無能敎: 道翁圓의 弟子)의 제자이니, 호는 축원, 휘는 영성(永盛) 또는 수성(水盛). 속성은 범(范)씨. 시호는 묘과(妙果). 卍속장138, p.927b.

45) 남소(南巢): 지명(地名)이니, ①안휘성(安徽省) 소현(巢縣)의 동북 지방. 거소(居巢)의 고성(故城). 주(周)의 소백국(巢伯國)이었다. ②안휘성 동성현(桐城縣)의 남쪽 지방임.

46) 이서의(已逝矣): 태고국사가 축원영성(竺源永盛)스님을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1347년에 서거(逝去)하였더라는 말이니, 연대상(年代上)에 문제가 없지 않다. 곧 태고가 1346년에 입원(入元)하였고, 축원은 1347년에 입적하였으며, 1348년에 귀국한 것에 미루어 본다면 귀국 1년 전에 입적한 셈이다.

47) 호주(湖州): 지명(地名). 절강성(浙江省) 오흥현(吳興縣) 지방.

48) 하무산(霞霧山): 중국 절강성 오흥현에 있는 산 이름. 1347년 7월 하무산 천호암(天湖庵)에 도착하여 석옥화상(石屋和尚)을 친견하였다.

49) 석옥공선사(石屋珙禪師): 1272~1352. 임제종(臨濟宗) 호구파(虎丘派). 호는 석옥, 휘는 청공(淸珙). 시호는 불자혜조선사(佛慈慧照禪師). 속성은 온씨(溫氏). 어머니는 유씨(劉氏). 소주(蘇州: 江蘇省) 상숙(常熟) 출신. 은사(恩師)는 영유(永惟). 급암종신(及庵宗信)의 법을 이어받아 제자가 되었다. 1352년 7월 23일 세수 81세, 법랍 54하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석씨계고략속집釋氏稽古略續集』권1(대정장49, p916b); 『보속고승전補續高僧傳』권13(卍속장134, p231b).

바를 낚낚이 아뢰고 아울러 태고암가(太古庵歌)를 바쳤더니, 석옥(石屋)이 이를 보고 크게 감탄하면서 큰 법기(法器)로 여겼다. 이어 일용사<sup>50)</sup>를 묻는 데 대하여 스님은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또 여쭙기를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이외에 더 알려주실 말씀이 있나이까?” 하니, 석옥이 이르기를 “노승(老僧)도 이와 같고 삼세제불(三世諸佛)도 또한 이와 같을 뿐 아니라” 하면서, 드디어 신표(信表)로서 가사(袈裟)를 전해주고는 이르기를 “노승이 이제 다리를 뺀고 편안히 잠잘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석옥은 임제(臨濟)의 18대 법손이다.<sup>51)</sup>

至正丙戌，師年四十六，遊燕都。聞竺源盛禪師，在南巢，往見之，則已逝矣。至湖州霞霧山，見石屋珙禪師，具陳所得，且獻太<sup>52)</sup>古庵歌，石屋深器之。問日用事，師答訖，徐又啓曰，“未

50) 일용사(日用事): 날마다 되풀이 하는 일과(日課). 곧 직업 또는 본분사(本分事)를 말하는 것이니, 선사(禪師)에게는 공안참구(公案參究)의 참선을 일컫는 말이다. 『벽암록碧岩錄』권42(대정장48, p179b26)에 방거사(龐居士)가 석두희천(石頭希遷)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日用事無別 唯吾自偶諧 頭頭非取捨 處處沒張乖 朱紫誰爲號 青山絕點埃 神通並妙用 運水及搬柴”라는 오도송을 지었다.

51) 옥임제십팔대손(屋臨濟十八代孫): 석옥이 임제의현(臨濟義玄)의 제18대 법손(法孫)이라는 말이니, 그 조보(祖譜)는 다음과 같다. 28조 달마(達摩) → 29조 혜가(慧可) → 30조 승찬(僧璨) → 31조 도신(道信) → 32조 홍인(弘忍) → 33조 대감혜능(大鑑慧能) → 34조 남악회양(南嶽懷讓) → 35조 마조도일(馬祖道一) → 36조 백장회해(百丈懷海) → 37조 황벽희운(黃檗希運) → 38조 임제의현(臨濟義玄) → 39조 흥화존장(興化存獎) → 40조 남원혜우(南院慧隅) → 41조 풍혈연소(風穴延沼) → 42조 수산성념(首山省念) → 43조 분양선소(汾陽善昭) → 44조 석상초원(石霜楚圓) → 45조 양기방회(楊岐方會) → 46조 백운수단(白雲守端) → 47조 오조법연(五祖法演) → 48조 원오극근(圓悟克勤) → 49조 호구소룡(虎丘紹隆) → 50조 응암담화(應庵曇華) → 51조 밀암함걸(密庵咸傑) → 52조 파암조선(破岩祖善) → 53조 무준사범(無準師範) → 54조 설암조흥(雪岩祖欽) → 55조 금암종신(庵宗信) → 56조 석옥청공(石屋淸珙) → 57조 평산처림(平山處林) → 58조 태고보우(太古普愚).

審, 此外, 還更有事否.” 石屋云, “老僧亦如是, 三世佛祖, 亦如是.” 遂以袈裟表信曰, “老僧, 今日展睡腳矣.” 屋臨濟十八代孫也.

스님이 그곳에서 보름 쯤 있다가 떠나올 때 주장자(拄杖子)를 주면서 “길 조심하여 잘 가라”고 당부하므로<sup>53)</sup> 스님은 주장자를 받고 하직 인사를 하고 다시 연도(燕都)로 돌아오니, 스님의 도덕에 대한 명성이 널리 전파되어 있었다. 천자가 이 소문을 듣고는<sup>54)</sup> 영녕사<sup>55)</sup>에서 수법(受法)한 개당 법회(開堂法會)를 열기를 청하였다. 이 때 순제(順帝)임금은 금란가사(金欄袈裟)와 침향목(沈香木)으로 만든 불자(拂子)를 하사하였고, 황후(皇后)와 황태자(皇太子)는 향(香)과 폐물을 바쳤으며, 왕공(王公)과 사녀(士女)들도 앞을 다투어 찾아와 예배(禮拜)를 올렸다.

留師半月, 臨別, 贈以拄杖曰, “善路善<sup>56)</sup>路.”<sup>57)</sup> 師拜受, 迴至燕都, 道譽騰播. 天子聞之, 請開堂于永寧寺. 賜金欄袈裟, 沉香拂子, 皇后, 皇太子, 降香幣, 王公, 士女, 奔走禮拜.

52) [全文] [全書]의 태와 [總覽] [苑]의 大는 뜻으로는 같으나 태가 옳음.

53) 선로선로(善路善路): 청공(淸珙)이 태고(太古)로부터 귀국인사(歸國人事)를 받고 부디 길 조심하여 잘 가라고 부탁하는 말이다.

54) 천자문지(天子聞之): 원의 순제 임금을 지칭함.

55) 영녕사(永寧寺): 1347년 7월 하무산 천호암(天湖庵)에서 석옥을 친견하여 수법(受法)하고 8월 3일 그곳을 출발, 같은 달 17일 연도(燕都) 영녕사에 이르러 순제의 명에 의하여 이 절에서 석옥으로부터 수법(受法)한 개당법회(開堂法會)를 가졌다.

56) [全文] [全書] [總覽]에는 善, [苑]의 二는 善의 오자임.

57) [全文] [全書] [總覽]에는 路, [苑]의 二는 路의 오자임.



무자년(戊子年) 봄<sup>58)</sup> 귀국하여 미원현(迷源縣)의 소설산(小雪山)에 들어가 직접 경작하면서 4년간 부모를 시양(侍養)하였다.

戊子春, 東歸, 入迷源小雪山, 躬耕以養者四年.

임진년<sup>59)</sup> 여름 현릉<sup>60)</sup>에서 스님을 왕도(王都)로 맞이하여 모시려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재차 사신을 보내오므로 스님은 하는 수 없이 나아가서 잠시 있다가 그 해 가을 고사(固辭)하고 산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 조일신(趙日新)의 난이 일어났다.<sup>61)</sup>

歲壬辰夏, 玄陵邀師, 不應, 再遣使, 請益勤, 師乃至秋, 力辭還山, 未幾, 日新亂作.

병신년<sup>62)</sup> 3월 나라에서 스님을 청하여 봉은사<sup>63)</sup>에서 법회(法會)를 열었

58) 무자춘(戊子春): 태고(太古)스님이 1348년 봄 원나라로부터 귀국하여 중흥사(重興寺)에서 여름 안거(安居)를 마치고 미원(迷原)으로 가서 토굴을 짓고 소설암(小雪庵)이라 이름하여 그곳에서 주석하였다.

59) 임진(壬辰): 고려 공민왕 1년(1352).

60) 현릉(玄陵): 고려 공민왕(恭愍王)을 지칭함.

61) 일신난(日新亂): 고려 공민왕 1년(1352)에 조일신(趙日新: ?~1352, 고려시대의 逆臣, 본관은 平壤, 初名은 興門, 仁規의 손자, 璋의 子)이 일으킨 반란을 가리킨다. 조일신은 공민왕이 세자이던 때 원나라에서 숙위한 공으로 공민왕 즉위 후 1등공신에 책봉되었다. 그 후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야심에서 공민왕 1년 9월에 난을 일으켜 왕을 꺾박하여 우정승(右政丞)에 올랐으며, 반란의 책임을 자신의 무리들에게 돌려 살해하거나 투옥시키고는 그 공으로 좌정승(左政丞)이 되었다. 이후 방자하게 행동하다가 마침내 왕명에 의해 주살(誅殺)되어 조일신의 난은 6일 만에 평정되었다.

62) 병신(丙申): 고려 공민왕 5년(1356).

63) 봉은사(奉恩寺): 고려 광종 2년(950)에 개성의 성남(城南)에 창건한 절로써 태조 왕건의 원당(願堂)이 있어서 고려시대에 왕의 행차가 가장 빈번하였던 절이며

는 바, 진국의 선사(禪師)와 강사(講師)가 함께 수없이 모였다. 현릉(玄陵)도 친히 법회에 임석하여 만수가사(滿綉袈裟)와 수정염주(水精念珠)와 기타 복용물(服用物) 등을 헌납하였고,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 앉아 종지(宗旨)를 천양하였다. 이에 천자(天子)께서 잡색(雜色) 비단으로 가사 3백 벌을 만들어 이 날 법회에 참석한 선교(禪敎) 대덕(大德)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때에 가진 법회의 성대함은 미증유(未曾有)의 법연(法筵)이었다.

丙申三月, 請師說法于奉恩寺, 禪敎俱集. 玄陵親臨, 獻滿綉袈裟, 水精念珠, 及餘服用, 師陞座, 闡揚宗旨. 天子, 賜雜色段疋袈裟, 三百領, 是日, 分賜禪敎碩<sup>64</sup>德. 法筵之盛, 古所未有.

스님께서 산중(山中)으로 돌아가려 하므로 현릉(玄陵)이 이르시기를, “스님께서 나의 불교 중흥의 뜻을 유보(留保)치 않도록 힘이 되어 달라”고 청했다.<sup>65)</sup> 4월 24일 왕사(王師)로 책봉하고 광명사<sup>66)</sup>에 원융부<sup>67)</sup>를 설치하여 정3품직(正三品職) 장관(長官)을 두어 선문구산(禪門九山)을 일종(一宗)으로 통합하려 하였으니, 스님을 존숭(尊崇)함이 지극함을 보인 것이다. 광명사에 있다가 이듬해에 왕사직(王師職)을 사양하였으나, 왕

연동회도 주로 이 절에서 열렸고, 국사와 왕사의 책봉의식도 주로 이곳에서 행해졌다.

64) [苑] [總覽] [全書]에는 碩, [全文]의 須는 碩의 오자임.

65) 사불류아배도의(師不留我倍道矣): 현릉(玄陵)이 스님께서 나의 불도중흥(佛道中興)의 배가(倍加)코자 하는 이 신심(信心)을 보류(保留)케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였다는 것.

66) 광명사(廣明寺): 경기도 개성시 만월동에 있었던 절로 고려 태조 왕건이 옛 집을 회사하여 절로 만든 것으로 선종(禪宗)의 승과(僧科)가 이곳에서 실시되기도 하였고, 충숙왕(忠肅王)의 진전(眞殿)이 있던 절이었다.

67) 원융부(圓融府): 구산선문(九山禪門) 오교각종(五敎各宗)을 통할하기 위한 기구이니, 광명사에 두었다.

이 윤희(允許)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스님은 밤을 이용하여 왕성(王城)을 빠져나와 산중으로 은둔하였다. 현릉이 스님의 확고한 뜻을 움직일 수 없음을 알고 법복(法服)·인장(印章) 등을 모두 스님의 처소로 되돌려 보냈다.

師請還山，玄陵曰，“師不留我倍道矣。”四月，二十四日，封爲王師，立府曰圓融，置僚屬長官正三品，尊崇之至也。留居廣明寺，明年，辭位不允。師夜遁，玄陵，知師志不可奪，悉送法服印章于師所。

임인년<sup>68)</sup> 가을 양산사<sup>69)</sup>에 주지하도록 청하였으며, 계묘년<sup>70)</sup> 봄에는 가지사<sup>71)</sup>의 주지를 맡도록 청하므로, 스님은 모두 왕명에 따랐다. 병오년<sup>72)</sup> 10월에 또 왕사직의 사임서를 인장과 함께 보내면서 깊은 산중에서 임성양진(任性養眞)하도록 허락을 간청하였다. 현릉이 윤희하였으니 이는 신돈(辛旽)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렸기 때문이었다.

壬寅秋，請住陽山寺，癸卯春，請住迦智寺，師皆應命。丙午十月，辭位，封還印章，仍乞任性養眞。玄陵從之，辛旽用事故也。

이보다 앞서 스님이 왕에게 신돈을 논박(論駁)하는 상소문(上疏文)을 올려 말하기를 “국가가 잘 다스려지려면 진승(眞僧)이 그 뜻을 펴야 되고,

68) 임인(壬寅): 고려 공민왕 11년(1362).

69) 양산사(陽山寺):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면 원북리(院北里) 회양산(曦陽山)에 있는 봉암사(鳳巖寺)의 다른 이름이니, 산 이름을 취해서 절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70) 계묘(癸卯): 고려 공민왕 12년(1363).

71) 가지사(迦智寺): 선문(禪門) 구산(九山) 중의 하나인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가지산(迦智山)에 있는 보림사(寶林寺)이다.

72) 병오(丙午): 고려 공민왕 15년(1366).

나라가 위태로워지려면 사승(邪僧)이 그 기회를 편승하게 되오니, 원하옵건대 폐하(陛下)께서는 이를 살피 신돈을 멀리하신다면 종사(宗社)가 심히 다행(多幸)한 줄로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先是師上書論晦曰, “國之治, 眞僧得其志, 國之危, 邪僧逢其時, 願, 上, 察之, 遠之, 宗社幸甚.”

무신년<sup>73)</sup> 봄 운수행각(雲水行脚)하다가 전주(全州) 보광사<sup>74)</sup>에 잠시 우거(寓居)하였다. 신돈은 보우가 마치 눈엣가시와 같아 그를 사지(死地)로 몰아 넣으려고 백계(百計)를 꾸몄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스님이 강절<sup>75)</sup> 지방인 해외(海外)로 가서 유학코자 하니, 신돈이 현릉에게 고하기를 “태고(太古)는 폐하의 총은(寵恩)을 입음이 지극하옵니다. 앞으로 편안하고 조용하게 노기(老期)를 보내는 것이 그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제 멀리 해외로 유학(遊學)하려 함은 반드시 다른 의도(意圖)가 있어서이니 청하옵건대 폐하께서는 통찰하여 주십시오” 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위급하게 느껴져서 현릉은 하는 수 없이 따랐다. 그리하여 신돈은 그 일을 형조에 내려 추문(推問)하여 신문토록 하여 스님의 좌우에 있는 이들을 무복(誣服)케 하고는 스님을 속리사(俗離寺)에 금고시켰다.<sup>76)</sup>

73) 무신(戊申): 고려 공민왕 17년(1368).

74) 보광사(普光寺): 전라북도 전주군 고덕산에 있었던 절로 백제 때 창건. 고려 때 고용봉(高龍鳳)이 중수하였고, 조선조 때 모악산(母岳山)으로 옮겨 지었다.

75) 강절(江浙): 중국 절강성(浙江省) 지방. 원의 연도(燕都) 지방.

76) 고우속리사(錮于俗離寺): 보우(普愚)와 그의 좌우(左右)들을 속리사에 금고(禁錮)시켰다는 말이니, 1368년(戊申) 신돈(辛屯)이 가일층 보우를 포함하여 사지(死地)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그리하여 현릉(玄陵)은 신돈의 상소(上疏)를 받아들여 보우를 속리사(俗離寺)에 금고시켰다. 스님은 속리산에 금고되어 있으면서 채근(菜根)과 목과(木果)로 연명(延命)하면서도 전혀 신돈을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돈은 참으로 불쌍한 자이

戊申春, 寓全州普光寺, 昫必欲置師死地, 百計莫能中. 後以師將遊江浙, 白玄陵曰, “太古蒙恩至矣, 安居送老, 是渠職也, 今欲遠遊, 必有異圖, 請上加察.” 其言甚急, 玄陵不得已從之. 昫下其事, 雜訊之, 誣服師之左右, 錮于俗離寺.

기유년<sup>77)</sup> 3월에 이르러 현릉이 스님을 금고(禁錮)한 것을 후회하고 소설암(小雪庵)으로 돌아오도록 청하였다.

己酉三月, 玄陵悔之, 請還小雪.

신해년<sup>78)</sup> 7월 신돈을 주살(誅殺)하고, 현릉은 사신을 보내어 예(禮)를 갖추어 스님을 국사(國師)로 책봉하고 영원사<sup>79)</sup>에 주지(住持)하도록 청하였으나, 스님은 병을 핑계로 사양하였다. 그러나 왕의 명령으로 멀리서 7년간 일을 맡아보던 중 무오년<sup>80)</sup> 겨울 지금의 폐하이신 우왕(禰王)의 명을 받아 비로소 취임하여 1년 쯤 영원사에 주석(住錫)하다가 돌아갔다.

辛亥七月, 昫誅, 玄陵, 遣使備禮, 進封國師, 請住瑩源寺, 師以疾辭. 有旨遂領寺事凡七年, 戊午冬, 被今上命, 始至寺, 居

다”라고 말하였다. 다음 해인 1369년(己酉) 3월 현릉이 보우를 금고시킨 것을 후회하고 승록사원(僧錄司員) 혜기(惠琪)를 보내어 소설암(小雪庵)으로 돌아오도록 명(命)하였다. 그리하여 1371년(辛亥) 7월 마침내 신돈은 사형당했다.

77) 기유(己酉): 고려 공민왕 18년(1369).

78) 신해(辛亥): 고려 공민왕 20년(1371). 이 해 7월 신돈의 일당인 기현(奇顯)·최사원(崔思遠) 등을 죽이고, 신돈은 수원(水原)에 유배 후 처형했다.

79) 영원사(瑩源寺): 경상남도 밀양군 자씨산(慈氏山)에 위치. 이제현(李齊賢)이 지은 보감국사(寶鑑國師) 혼구(混丘)의 비(碑)가 있다. 운문사(雲門寺)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6 「밀양도호부密陽都護府」 「고적古跡」 참조. 源은 原字가 옳음.

80) 무오(戊午): 고려 우왕 4년(1378).

一年而還.

신유년<sup>81)</sup> 겨울 양산사(陽山寺)로 옮겨 입원(入院)하는 날에 우왕이 다시 국사(國師)로 책봉하였으니, 선군(先君)의 뜻을 따른 것이다.<sup>82)</sup> 임술년<sup>83)</sup> 여름 소설암으로 돌아와 그 해 12월 17일 미질(微疾)을 느끼게 되었다. 23일에 이르러 문인(門人)을 불러 앉히고 이르기를, “내일 유시<sup>84)</sup>에 나는 떠날 것이니 지군<sup>85)</sup>에게 청하여 국사의 인장(印章)과 구점<sup>86)</sup>으로 남긴 사세장(辭世狀) 수통<sup>87)</sup> 등을 봉하여 임금께 전달하라”고 당부하였다. 때가 다가옴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은 다음 단정히 앉아 임종계 사구<sup>88)</sup>를 설치고,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입적하였다. 부음을 우왕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이 심히 진도(震悼)하였다.

辛酉冬, 移陽山寺, 入院之日, 上, 再封國師, 先君之思也. 壬戌夏, 還小雪, 冬十二月, 十七日, 感微疾. 二十三日, 召門人曰,<sup>89)</sup> “明日酉時, 吾當去矣, 可請知郡, 封印口占辭世狀數通.” 時至, 沐浴更衣, 端坐說四句偈, 聲盡而逝. 訃聞于上, 上, 甚悼.

81) 신유(辛酉): 고려 우왕 7년(1381).

82) 선군지사야(先君之思也): 선군이란 우왕(禑王)의 아버지인 공민왕을 지칭함.

83) 임술(壬戌): 고려 우왕 8년(1382).

84) 유시(酉時): 17시부터 19시까지의 시간.

85) 지군(知郡): 군수(郡守)와 같은 뜻. 양근군수(楊根郡守)를 불렀다는 말이니, 당시 양근군수는 이양생(李陽生)이었다.

86) 구점(口占): 자필로 쓴 것이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것을 받아서 적은 것.

87) 수통(數通): 당시 스님은 구점사세장(口占辭世狀) 6통(通)을 남겼다.

88) 사구계(四句偈): 국사의 임종계(臨終偈)이니 다음과 같다. “人生命若水泡空 八十餘年春夢中 臨終如今放皮俗 一輪紅日下西峰”이라 하다. 세수는 82세요, 법랍은 69하였다.

89) [總攬]은 결락이나 [苑] [全文] [全書]에는 曰임.

계해년<sup>90)</sup> 1월 12일 향목(香木)을 하사하여 화장하였다. 그 날 밤 광명이 하늘에 뻗쳤고 사리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 중 100과를 내전(內殿)의 임금에게 올리니,<sup>91)</sup> 이로 말미암아 임금은 더욱 경중(敬重)하시고, 유사<sup>92)</sup>에 명하여 시호를 원증(圓證)이라 하고 탑을 중흥사(重興寺)의 동쪽 봉우리에 세우니, 보월승공탑(寶月昇空塔)이라 이름하였다. 석중(石鍾)을 만들어 사리를 진장(鎭藏)한 것이 무려 세 곳이니,<sup>93)</sup> 가은(加恩)의 양산사<sup>94)</sup>와 양근(楊根)의 사나사<sup>95)</sup>와 이 절 부도(浮圖) 옆에 서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석탑(石塔)으로 만들어 조장(厝藏)한 곳은 미원현(迷源縣)의 소설암<sup>96)</sup>이다.

癸亥正月，十二日，降香茶毗。其夜，光明屬天，舍利無筭。進百枚于內，上益敬重焉，命攸司，諡曰圓證，樹塔于重興寺之東峯，曰寶月昇<sup>97)</sup>空。作石鍾，藏舍利者，凡三所加恩陽山楊根舍那，是寺浮圖之傍。所立是，已作石塔，以藏之者，迷源小雪也。

90) 계해(癸亥): 고려 우왕 9년(1383).

91) 진백매우내(進百枚于內): 무수(無數)한 사리 중 100과를 임금께 올렸다는 말.

92) 유사(攸司): 받은 바 책임자라는 뜻이니, 해당 관청(僧錄)의 관원(官員)이라는 말.

93) 장사리자범삼소(藏舍利者凡三所): 석중탑(石鍾塔)을 만들어 사리(舍利)를 조장(厝藏)한 곳이 세 군데란 말이다. 그러나 그후 스님의 사리를 모신 탑비(塔碑)는 5개소에 건립되었다. ①희양산(曦陽山) 봉암사(鳳巖寺) ②양근현(楊根縣) 사나사(舍那寺) ③명주군(溟州郡) 청송사(靑松寺) ④미원현(迷源縣) 소설암(小雪庵) ⑤삼각산(三角山) 태고사(太古寺) 등이다.

94) 가은양산(加恩陽山): 경상북도 가은면(加恩面) 원북리(院北里) 희양산 봉암사(鳳巖寺)를 지칭함.

95) 양근사나(楊根舍那):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楊根) 용문면(龍門面) 연수리(延壽里) 사나사(舍那寺)를 가리킴.

96) 미원소설(迷源小雪): 미원(迷源)이니,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雪岳面) 창의리(蒼宜里: 一本에는 蒼宜里)에 위치하고 있는데, 양근읍 북쪽 약 60리(24km) 지점이다.

97)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全書]에는昇임.

신(臣) 색(穡)이 었드려 조용히 생각하여 본 즉 선왕<sup>98)</sup>께서 석교<sup>99)</sup>를 돈독히 신봉하여 가히 지극하였으나, 그 간에 참소가 횡행하였고, 생전에 태고(太古)가 부종(扶宗) 수교(樹敎)함도 가히 지극하다 하겠으나, 환난(患難)과 모함 등이 그의 몸에 미친 까닭은 인연(因緣)의 과보(果報)인 것이니, 비록 성인(聖人)이라도 정업(定業)은 능히 면할 수 없는 것인저. 심지어 칭송하는 명성<sup>100)</sup>이 화하<sup>101)</sup>에까지 가득하며 사리(舍利)의 광명이 고금에 빛났으니 그것이 어찌 자주 볼 수 있는 일이겠는가?<sup>102)</sup> 신 색이 재배(再拜)하고 머리를 조아려 삼가 명(銘)을 지어 이르니,

臣, 穡, 竊伏惟念, 先王, 崇信釋敎, 可謂極矣, 而讒說行乎其間, 太<sup>103)</sup>古, 扶持宗教, 亦可謂至矣, 而患難及于其躬, 此所以因緣果報, 雖聖人, 有所不能免也歟. 至於聲名, 洋溢華夏, 舍<sup>104)</sup>利, 照耀古今代, 豈多見哉. 臣, 穡, 再拜稽首, 而銘曰,

홍대(弘大)하고 거룩하신 스님의 마음은,  
바다같이 깊고 넓어<sup>105)</sup> 하늘을 능가!<sup>106)</sup>

98) 선왕(先王): 공민왕을 지칭함.

99) 석교(釋敎): 석가(釋迦)의 교(敎)이니, 불교를 지칭함.

100) 성명(聲名): 명성(名聲). 좋은 평판. 멀리 퍼진 칭송(稱頌).

101) 화하(華夏): 화는 화려함. 하는 하나라 곧 대국(大國)이라는 뜻으로 중국 본토(本土)의 과칭(誇稱).

102) 기다견재(豈多見哉): 스님과 같이 위대(偉大)한 업적과 신비(神秘)함을 자주 볼 수 있겠는가라고 감탄하는 말이다.

103) [全文] [全書]의 태와 [總覽] [苑]의 대는 뜻으로는 같으나 태가 옳음.

104)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全書]에는舍임.

105) 해활(海濶): 스님의 도덕과 이기(理氣)가 바다와 같이 깊고 넓고 맑다는 말.

106) 천림(天臨): ①하늘이 지상(地上)을 조림(照臨)하는 것 ②마치 하늘이 만물(萬物)을 두루 보살피듯 스님께서 일체중생(一切衆生)을 차별없이 제도함에 비유



동분서주 월새 없는 스님의 자취는,  
 바다 건너<sup>107)</sup> 석장(錫杖) 짚고<sup>108)</sup> 구법(求法)하셨네!

惟師之心,  
 海濶天臨.  
 惟師之跡,  
 浮杯飛錫.

하는 뜻. 안연지(顔延之)의 「웅조연곡수작시應詔譙曲水作詩」에 “太上正位 天臨海鏡”이라 하다.

- 107) 부배(浮杯): ①유상곡수(流觴曲水) 또는 곡수유상(曲水流觴)의 줄임말이니, 음력 3월 3일 곡수에 잔을 띄우고 그 잔이 자기의 앞에 왔을 때 시(詩)를 지었던 고사(故事). ②배를 타고 강(江)을 건너거나 바다를 넘어 해외(海外)에 유학(遊學)한다는 뜻. 「지광국사현묘탑비문智光國師玄妙塔碑文」 주112)부배浮杯 본서 p.369 참조. ③승명(僧名)이니 배도화상(杯度和尙)은 기주(冀州)에서 다년간(多年間) 주석하였다. 하나의 목배(木杯)를 타고 다니다가 강물을 만나면 그 목배를 물에 띄워 타고 물을 건넜으므로 배도화상이란 이름이 붙여졌다(대정장50, p.390b). “杯度者 不知姓名云云”; 「지증대사적조탑비문」 주104)촉견하전觸鷺河筌 [신라편] p.305 등 참조. 여기서는 ②와 ③의 뜻이 모두 통한다.
- 108) 비석(飛錫): 신통으로 석장(錫杖: 六環杖)을 날려 수도처(修道處)를 점복(占卜)한 것과 호랑이의 싸움을 말린 데에서 온 고사(故事)이다. ①서주(舒州)의 잠산(潛山)은 중국에서 가장 절경(絶景)이며 또한 명산(名山)이다. 도사(道士)인 백학도인(白鶴道人)과 보지공(寶誌公: 중국 梁 武帝 때) 스님이 서로 거주권(居住權)을 다투다가 이를 양 무제에게 공주(共奏)하였는데, 무제는 두 사람에게 물 건으로써 던져 먼저 닿는 자가 갖도록 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도인(道人)은 먼저 백학을 날렸고, 지공(誌公)은 다음으로 석장(錫杖)을 날렸는데, 지공의 석장이 먼저 날아가 탁립(卓立)하매, 그 꽃힌 자리에서 감천(甘泉)이 솟아 올랐으므로 마침내 지공이 암자(庵子)를 짓고 안거(安居)하였다. ②제(齊)나라 때 혜조(慧稠)스님이 회주(懷州) 왕악산(王岳山)에서 수도하다가 암전(岩前)에서 싸우는 호랑이를 보고 석장을 그들의 머리 위에 날려 빙빙 돌게 하여 싸움을 말리고 나서 다음의 계송(偈頌)을 지었다. “本自不求名 剛被名求我 岩前解兩虎 障却第三果”라 하다. 『속고승전續高僧傳』권16「석승조전釋僧稠傳」(대정장50, p.553c~p.554a) 참조. ③담순화상(曇詢和尙)은 승조(僧稠)의 제자이다. 속성은 양

귀국(歸國)해선 공민왕의 귀의(歸依)를 받아,<sup>109)</sup>

임금의 정신적(精神的)인 지주(支柱)가 되다.<sup>110)</sup>

소설암(小雪庵)에 들어가서 발을 갈으니,<sup>111)</sup>

은(隱)과 현(現)을 때에 따라 자적(自適)하시다.<sup>112)</sup>

歸而遇知,

王者之師.

躬耕小雪,

隱現維時.

씨(楊氏). 홍농(弘農) 화음(華陰) 출신. 어느 날 산길을 가다가 양호(兩虎)가 여러 시간 동안 싸움이 그치지 아니함을 보고 담순(曇詢)이 석장으로써 갈라놓고 몸으로써 막으면서 이끄기를 “同居林藪 計無大乖 幸各分路 虎低頭受命 便飲氣而散”이라 하여 호랑이의 싸움을 석장으로 말렸다. 그 후 곰과 호랑이의 싸움을 만나서도 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속고승전』권16「석담알전釋曇謁傳」(대정장50, p.559a~b) 참조.

- 109) 우지(遇知): ①지음자(知音者)를 만나다 ②지기자(知己者)를 만나다 등의 뜻이니, 곧 왕신(王臣)들의 호법자(護法者)를 만났다는 말이다.
- 110) 왕자지사(王者之師): 1356년에 공민왕이 광명사(廣明寺)에 원융부(圓融府)를 두고 보우(普愚)를 왕사(王師)로 추대하였다는 말.
- 111) 궁경소설(躬耕小雪): 보우가 1348년 봄 원나라로부터 돌아와 그 해 여름 안거(安居)를 삼각산(三角山) 중흥사(重興寺)에서 마치고 미원현(迷原縣) 미지산(彌智山)으로 들어가 소설암(小雪庵)을 짓고 선농일치(禪農一致)로 수년간 발을 갈면서 정진하였다는 뜻.
- 112) 은현유시(隱現維時): 숨어서 정진하거나 사회에 나타나 활동하는 것이 때에 따라 적의(適宜)하게 하였다는 말이니, 예컨대 왕실과 국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원나라에 가서 구법(求法)하고 귀국하여 봉은사(奉恩寺)에서 대법회(大法會)를 가진 것 등은 현시(現時)에 속하고 전주(全州) 보광사(普光寺)와 미원(迷原) 소설암(小雪庵) 등에서 연좌정진(宴坐精進)하는 것 등은 은시(隱時)에 속하는 것이다.

나라 위한 호국심(護國心)은 한결 같으나,<sup>113)</sup>  
 신돈승(辛屯僧)이 시기하여 참소(讒訴)했지만,<sup>114)</sup>  
 구름 속에 덮인 태양 컴컴하다고,  
 광명(光明)이야 조금인들 손상(損傷)있으랴!

時維鷺城，  
 竊弄刑名，  
 如雲蔽日，  
 何損於明.<sup>115)</sup>

서산(西山)으로 넘어가는 새벽달이여!<sup>116)</sup>  
 달 진다고 달빛까지 사라질건가!  
 수정(水晶)같이 맑게 비친 사리(舍利) 광명(光明)이,  
 임금 계신 옥문(玉門)<sup>117)</sup>까지 비추었도다!

月墜崑崙，  
 餘光之存.

113) 시유취성(時維鷺城): 항상 깊은 산중(山中: 鷺城)에서 수도하거나 아니면 호국(護國)을 위해 정진한 것 뿐이라는 말.

114) 절룡형명(竊弄刑名): 보우는 오로지 불교(佛教)와 국가를 위하여 수행(修行)하고 직언(直言)할 뿐, 아무런 사심(私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돈(辛屯)이 자신의 횡행(橫行)에 적대자(敵對者)가 오직 보우밖에 없으므로 보우를 음해(陰害)하여 근거없는 갖가지 형명(刑名)을 절룡(竊弄)하여 마침내 일시나마 속리산에 금고(禁錮)시킨 것을 말함.

115) [總覽]은 결락이나 [苑] [全文] [全書]에는 明임.

116) 곤륜(崑崙): 산 이름. 중국 강소성(江蘇省) 송강현(松江縣)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117) 옥문(玉門): 원문(原文)에는 왕문(王門)이라 되어 있는데 王은 玉의 오자임. 옥문은 궁궐(宮闕)을 지칭함이고, 왕문이란 왕궁(王宮)의 문을 가리킴이다.

舍利晶瑩,  
照耀玉<sup>118)</sup>門.

삼각산중(三角山中) 중흥사(重興寺)의 동쪽 능선의,  
나무 끝에 구름들이 덮이어 있네!  
그 봉(峰) 밑에 사리탑(舍利塔)이 세워졌으니,  
영원(永遠)토록 나라 운명 공고(鞏固)하소서!

惟三角山,  
翠倚雲端.  
樹塔其下,  
與國恒安.

고매하신 스님 가풍(家風) 차별이 없어,  
고려(高麗) 나라 동국(東國) 땅에 두루 불도다!  
재배(再拜)하고 둔필(鈍筆)로서 명(銘)을 지으니,  
바라건대 영원(永遠)토록 전(傳)하지이다!<sup>119)</sup>

惟師之風,  
播于大東.  
臣拜作銘,  
庶傳無窮.

118) [苑] [全文]의 王과 [總覽] [全書]의 玉은 뜻으로는 무방하나 玉이 옳음. 옥문은 궁궐이고 왕문은 왕궁의 문이다.

119) 서전무궁(庶傳無窮): 지금 세운 이 탑비(塔碑)가 영원무궁(永遠無窮)토록 전시(傳示)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홍무(洪武) 18년<sup>120)</sup> 을축(乙丑) 9월 11일.

문인(門人) 전송광사(前松廣寺) 주지(住持) 대선사(大禪師) 석굉(釋宏)<sup>121)</sup>이 비석을 세우다.

洪武十八年, 乙丑九月十一日.

門人, 前松廣寺住持, 大禪師, 釋宏, 立石.

【비음碑<sup>122)</sup>陰<sup>123)</sup>】

문도

국사 지웅존자<sup>124)</sup> 혼수,<sup>125)</sup>

왕사 원응존자<sup>126)</sup> 찬영,<sup>127)</sup>

120) 홍무십팔년(洪武十八年): 홍무(洪武)는 명(明)나라 태조(太祖)의 연호. 18년은 고려 우왕 11년(1385).

121) 석굉(釋宏): 나옹스님의 문인(門人)으로 순천 송광사 주지를 역임하였고, 나옹의 행장(行狀)을 기록하였으나, 자세한 전기는 다른 자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122) [苑]에는 碑, [總覽]의 裏와 [全文]의 陰은 뜻으로는 모두 무방하나 [苑]의 碑가 옳음.

123) [苑]에는 陰, [總覽]의 面과 [全文]의 記는 뜻으로는 모두 무방하나 [苑]의 陰이 옳음.

124) 지웅존자(智雄尊者): 1383년에 우왕(禡王)이 혼수(混脩)를 국사로 책봉하고 호(號)를 “大曹溪宗師 禪敎都摠攝 悟佛心宗 興慈運悲 福國利生 妙化無窮 都大禪師 正遍 智雄尊者”라고 했다.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응탑비靑龍寺普覺國師定慧圓融塔碑」[總覽]下 p.721.

125) 혼수(混脩): 1320~1392. 호는 환암(幻庵). 자는 무작(無作). 속성은 조씨(趙氏)이다. 나옹의 법을 이어받았으며 보우의 제자이기도 하다. 우왕 때 국사(國師)로 책봉되었다.

126) 원응존자(圓應尊者): 찬영(粲英 1328~1390)의 왕사호(王師號)이니, 갓춘 이름은

내원당<sup>128)</sup> 묘엄존자 조이,<sup>129)</sup>

내원당 국일도대선사 원규,<sup>130)</sup>

도대선사 광화군 현엄.<sup>131)</sup>

門徒

國師 智雄尊者 混脩,

王師 圓應尊者 粲英,

內願堂 妙嚴尊者 祖異,

內願堂 國一都大禪師 元珪,

都大禪師 廣化君 玄叢嚴.<sup>132)</sup>

대조계종사 선교도총섭 원명불일 명변대지 우세이생 보제무애 도대선사 묘변 지원웅존자(大曹溪宗師禪敎都摠攝圓明佛日明辯大智祐世利生普濟無礙都大禪師妙辯智圓應尊者)이다.

127) 찬영(粲英): 1328~1390. 고려 스님. 호는 목암(木庵). 자는 고저(古槿). 시호는 대지국사(大智國師). 탑호는 지감원명(智鑑圓明). 속성은 한씨(韓氏). 원증국사(圓證國師) 보우(普愚)의 법을 이어받았다.

128) 내원당(內願堂): 고려 말 조선조 초기시대에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 등 궁내의 식구들이 개인적으로 불교(佛敎)를 신행(信行)하던 불당(佛堂)이니, 내불당(內佛堂)이라고도 한다. 이 법당의 책임을 맡은 스님을 내원당(內願堂) 또는 분수승(焚修僧)이라 한다.

129) 신이(神異): 호는 묘엄존자(妙嚴尊者).

130) 원규(元珪): 호는 국일도대선사(國一都大禪師)이나, 전기는 다른 자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131) 현엄(玄嚴): 전기가 다른 자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132) [總覽]은 결략, [苑]은 叢, [全文]은 叢嚴, [全書]는 嚴. 嚴이 옳다. [苑][全文]의 叢은 隣의 古字이나, 여기서는 嚴(叢)의 略字로 쓰인 것이 아닌가 한다.

【우제1열右第一列】

대선사

수서, 조굉, 자소, 선진,  
일녕, 정유, 상충, 혜렴,  
혜심, 경돈 등 구십인.

大禪師

守西, 祖<sup>133)</sup>宏, 慈紹, 旋軫,  
一寧, 定柔, 尙聰, 惠廉,  
慧深, 慶敦 等 九十人.

선사

신규, 참교, 덕제, 의경,  
수윤, 내유, 내규, 성잠,  
천궁, 유창 등 백칠인.

禪師

信規, 昂<sup>134)</sup>皎, 德齊, 義瓊,  
壽允, 乃由, 乃圭, 省岑,  
天亘, 惟昌 等 百七人.

운수<sup>135)</sup>

법공, 정유, 환여, 달생,

133) [苑]의 祖(縣의 이름 조字)와 [全文]의 袒(옷벗어맬 단字)는 [總覽] [全書]의 祖의 오자임.

134) [苑] [總覽] [全文] [全書] 모두 昂(비칠 감字)이나, 晶으로 된 곳도 있다.

성명, 중철, 복남, 정일,  
 조행, 성인, 법자, 법순,  
 달심, 성여, 희엄, 명회,  
 각환, 선견, 희오, 가신,  
 가생, 지천, 설잉, 선정,  
 가운, 가인, 설상, 설강,  
 설사, 설서, 요환, 설진,  
 가송, 가순, 내령, 약무 등 천삼인.

# 雲水

法空, 定乳, 幻如, 達生,  
 省明, 中哲, 卜南, 定一,  
 祖行, 省因, 法慈, 法淳,  
 達心, 省如, 希儼, 明會,  
 覺田,<sup>136)</sup> 善見, 希悟, 可信,  
 可生, 止川, 雪<sup>137)</sup> 仍, 宣正,  
 可雲, 可印, 雪祥, 雪岡,  
 雪思, 雪栖, 了幻, 雪珍,  
 可松, 可淳, 乃寧, 若无<sup>138)</sup> 等千<sup>139)</sup> 三人.

135) 운수(雲水): 운수납자(雲水衲子)의 줄임말. 운납(雲衲)이라고도 한다. 특히 선객(禪客) 중에 동·하안거(冬·夏安居)를 마치고, 해제 철에는 나는 구름과 흐르는 물처럼 소요자재(逍遙自在)히 행각(行脚)하면서 심사방도(尋師訪道)하는 일반적인 스님을 일컫는 말.

136) [苑] [總覽]의 田과 [全文] [全書]의 明은 뜻으로는 같으나 어느 字가 옳은지 알 수 없다.

137) [苑] [總覽] [全文]에는 雪, [全書]의 雲은 雪의 오자임.



칠원부<sup>140)</sup> 원군 윤환,<sup>141)</sup>

영삼사<sup>142)</sup>사 이인임,<sup>143)</sup>

관문하 최영,<sup>144)</sup>

- 138) [苑] [總覽] [全文]에는 无(無의 古字), [全書]에는 無, 无는 無의 古字이므로 같은 글자임.
- 139) [總覽] [全文] [全書]에는 千, [苑]의 十은 千의 오자임.
- 140) 칠원(漆原) : 칠원현(漆原縣)이니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을 가리킴.
- 141) 윤환(尹桓) : ?~1386. 고려 재상(宰相). 본관은 칠원(漆原). 수(秀)의 손자. 시호는 충효(忠孝). 충숙왕(忠肅王) 때 호군(護軍)이 되었고 충혜왕(忠惠王) 때 대언(代言)이었으며, 이후 찬성사(贊成事)를 역임하였다. 공민왕 때에 판삼사사(判三司事), 좌정승(左政丞), 문하시중(門下侍中), 평장사(平章事) 등의 벼슬을 하였다. 다섯 임금을 섬기고 세 번 영상을 지냈다.
- 142) 삼사(三司) : 고려 때의 행정관청. 국가의 전곡(錢穀)의 출납(出納) 및 회계(會計)를 맡아보았다. 「지공나옹사리석종비문」 주133) 삼사三司 [고려편4] p.430 참조.
- 143) 이인임(李仁任) : ?~1388. 고려의 권신(權臣). 본관은 성주(星州). 1369년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이 되고, 다시 서북면도통사(西北面都統使)가 되어 원나라의 동녕부(東寧府)를 토벌한 공로로 광평부원군(廣平府院君)이 되었다. 공민왕 사후 우왕(禑王)을 추대하고 정권을 잡았다. 친원정책을 취하여 친명파를 추방하고 전횡을 일삼았다. 그 횡포에 격노한 최영(崔瑩) · 이성계(李成桂) 등에 의해 1388년 성주에 안치(安置)되었다가 곧 사망하였다. 「지공나옹사리석종비문」 주121) 이인임李仁任 [고려편4] pp.429~430 참조.
- 144) 최영(崔瑩) : 1316~1388. 고려의 명장(名將). 제주목호(濟州牧胡)의 난이 일어나자 양광·전라·경상도의 도통사(都統使)로 난을 평정하고, 판삼사사(判三司事)가 되었다. 1376년 왜구가 삼남지방을 휩쓸자, 출정을 자원하여 홍산(鴻山) 싸움에서 적을 크게 무찔러 그 공으로 칠원부원군(鐵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388년 명(明)이 북변(北邊) 일대를 요동(遼東)에 귀속시키려 하자, 우왕(禑王)은 최영을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 조민수(曹敏修)를 좌군도통사(左軍都統使), 이성계(李成桂)를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로 하여 요동을 정벌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군사를 동원하여 왕과 함께 평양에 가서 군사를 독려하였으나, 이성계 등이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함으로써, 요동정벌은 좌절되었다. 이성계군대가 개경에 난입하자, 소수의 군사로 이를 맞아 싸우다가 체포되어 고봉(高峰)·합포(合浦) 등지로 유배되었다가 공료죄(攻遼罪)로 개경에서 참형당했다. 「보계선사사

문하시중 임견미,<sup>145)</sup>  
수문하시중 이성림,<sup>146)</sup>  
판삼사사 이성계,  
철성<sup>147)</sup>부원군 이림,  
삼사좌사 엄홍방,<sup>148)</sup>  
찬성사 우인열,<sup>149)</sup>

리석종비문普濟禪師舍利石鐘碑文」 주98)최영崔瑩 [고려편4] p.392 참조.

- 145) 임견미(林堅味) : ?~1388. 문신(文臣). 본관은 평택(平澤). 언수(彦修)의 아들. 중랑장(中郎將)이 되어 홍건적의 난 때 왕을 호종했고 원나라 동녕부 토벌, 제주 목호의 난, 왜구 침입 때 출전했다. 1380년 경복흥(慶復興)과 그 일당을 숙청하고 1384년 문하시중(門下侍中)이 되어 전횡을 일삼다가 1388년 최영(崔瑩) · 이성계(李成桂)에게 살해되었다. 「지공나옹사리석종비문」 주131)임견미林堅味 [고려편4] p.430 참조.
- 146) 이성림(李成林) : ?~1391. 또는 이림(李琳). 본관은 고성(固城). 교(嶠)의 아들.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의 지위에 있을 때, 딸을 우왕의 비(妃)로 보내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으로 봉해졌다. 이성림은 문하시중의 지위에서 김저(金佇)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었지만 창왕의 외조부(外祖父)였으므로 극형은 모면하고 철원(鐵原)에 유배되었다. 1390년(공양왕 2) 이초(彝初)의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이성계 등이 포함하여 다시 충주(忠州)로 유배되었고, 결국 유배지에서 병으로 죽었다. 「지공나옹사리석종비문」 주135)이성림李成林 [고려편4] p.431 참조.
- 147) 철성(鐵城) : 경상남도 고성군의 옛 이름. 이림(李琳)의 본관이 고성이다.
- 148) 엄홍방(廉興邦) : ?~1388. 고려 말기의 권신. 자는 중창(仲昌). 호는 동정(東亭). 본관은 서원(瑞原). 공민왕 때 지신사로 홍건적을 대파하여 제학에 올랐고 도병마사로서 탐라(耽羅) · 목호(牧胡)의 난을 진압하였다. 매관매직을 자행하고 토지와 노비를 강탈하는 등의 행패로 이성계 등에 의해 처형되었다. 「지공나옹사리석종비문」 주139)엄홍방廉興邦 [고려편4] p.431 참조.
- 149) 우인열(禹仁烈) : 1337~1403. 고려 말 · 조선 초의 권신. 사불랑(沙弗郎) 등에 침입한 왜구를 격파하였다. 1389년 전대호군 김저(前大護軍 金佇) · 예의판서 광충보(禮儀判書 郭忠輔) · 이색(李穡) ·王安덕(王安德) 등 고려조 권신들과 함께 이성계를 살해하고 폐왕(廢王) 우(禡)를 복위시키려 하다가 김저의 배신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귀양 갔다. 「지공나옹사리석종비문」 주138)우인열禹仁烈 [고려

연흥 <sup>150)</sup> 군	박형, <sup>151)</sup>
개성군	왕복명, <sup>152)</sup>
상당 <sup>153)</sup> 군	한천, <sup>154)</sup>
문하평리 <sup>155)</sup>	반익순, <sup>156)</sup>
정당문학	이인민, <sup>157)</sup>

편4] p.431 참조.

- 150) 연흥(延興) : 연창(延昌)이니 충청북도 죽산현(竹山縣; 竹州)의 옛 이름.
- 151) 박형(朴形) : ?~1398, 고려·조선조의 문신(文臣). 본관은 죽주(竹州). 덕룡(德龍)의 아들. 시호는 정강(靖康). 우왕 원년(1375)에 이인임(李仁任)을 해치려고 모의했다 하여 귀양을 갔으며, 같은 왕 14년(1388) 최영(崔瑩) 등이 이인임을 제거할 때 전 찬성사(前 贊成事)였던 박형(朴形)도 각산술(角山戍)로 귀양갔다.
- 152) 왕복명(王福命) : 고려 무신(武臣). 홍건적(紅巾賊) 격파에 공을 세워 1363년 판사(判事)로써 2등공신이 되고 1365년 좌부대언(左副代言)이 되었다. 우왕(禔王) 즉위 후 개성군(開城君)에 봉해지고 1378년 평리(評理)로써 양광(楊廣) 전라(全羅) 경상도원수(慶尙道元帥)가 되어 장단(長端)에서 왜구(倭寇)를 격파했다. 시호는 충정(忠靖).
- 153) 상당(上黨) : 충청북도 청주시의 옛 이름.
- 154) 한천(韓臧) :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文臣)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악(渥)의 손자요 대순(大淳)의 아들이다. 1371년(공민왕 20)에 경상도도순문사(慶尙道都巡問使), 1391년(공양왕 3)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를 거쳐 이듬해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 이성계(李成桂)에 의해 유배되었다. 조선 개국 후 태조에 의해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되고 1400년(정종 2)에 판삼사사(判三司事)로 치사(致仕)하였다.
- 155) 문하평리(門下評理) : 고려 문하부(門下府)의 종2품(從二品)의 관직. 목종 때에는 첨지정사(僉知政事), 1061년(문종 15)에는 참지정사(參知政事)로 개칭하였으며, 공민왕 11년(1362)에는 첨의평리(僉議評理)라 개칭하였다.
- 156) 반익순(潘益淳) : 우왕(禔王)의 충애를 받아 왕씨성(王氏姓)을 하사받고 왕의 아들이 된 반복해(潘福海)의 아버지. 아들이 공신호(功臣號)를 받으면서 아버지인 익순(益淳)도 문하평리(門下評理)에서 우시중(右侍中)으로 승진하였다. 『고려사高麗史』권124「반복해전潘福海傳」.
- 157) 이인민(李仁敏) : 고려 문신. 본관은 성주(星州). 포(褒)의 아들, 인임(仁任)의 아

김해군	김사행, <sup>158)</sup>
밀산 <sup>59)</sup> 군	박성량, <sup>160)</sup>
지신사 <sup>161)</sup>	염정수, <sup>162)</sup>
전공판서	최경만, <sup>163)</sup>
김해부사	이희계, <sup>164)</sup>

우. 1383년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되어 과시(科試)를 관장. 1390년에 이초(彝初)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이색(李穡)·권근(權近)·이숭인(李崇仁) 등과 청주옥(淸州獄)에 갇혔다가 이듬해 국대비(國大妃) 왕씨(王氏)의 생일날에 특사(特赦)되었다.

- 158) 김사행(金師幸) : 고려말·조선초의 환관(宦官). 초명(初名)은 광대(廣大). 공민왕의 충애를 받아 판내부사(判內府事)가 되었고, 정릉(正陵)의 공역(工役)을 사치스럽게 한 죄로 공민왕 사후(死後) 익주관노(益州官奴)가 되었다가 우왕 때에 사면되었다. 공양왕 때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가 되어 왕을 경연(經筵)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불교(佛敎)를 믿게 하였다. 1398년 제1차 왕자(王子)의 난(亂) 때 주살(誅殺), 효수(梟首)되었다. 『고려사高麗史』권122「김사행전金師幸傳」 참조.
- 159) 밀산(密山) : 경상남도 밀양의 옛 이름.
- 160) 박성량(朴成亮) : 1352년 3월 전왕(忠定王)이 강화(江華)에서 짐독(鴆毒)을 받고 죽었는데, 전왕이 강화로 쫓겨갈 때 박성량이 박사신(朴思愼)과 함께 가다가 모두 순군(巡軍)에 추격되고, 박사신만 따라가도록 허락하였다. 우왕 3년(1377) 2월에 북원(北元)의 봉책사(封冊使)가 올 때에 전 밀직부사(密直副使) 박성량이 우왕에게 편복(便服) 차림으로 행성(行省)에 나아가 지(旨)를 듣도록 상소한 바 있다. 「보제선사사리석종비문普濟禪師舍利石鐘碑文」 주108)박성량朴成亮 [고려편4] p.393, 「지공나옹사리석종비문」 주144)박성량朴成亮 [고려편4] p.432 등 참조.
- 161) 지신사(知申事)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의 정3품 벼슬. 충렬왕 때 첨원사(僉院使; 정3품)를 지신사(知申事)로 개칭한 바 있고, 공민왕 11년(1362)에 지주사(知奏事)를 지신사(知申事)로 고쳐 불렀다.
- 162) 염정수(廉廷秀) : 1377년(우왕 3)에 지신사가 되었다. 「지공나옹사리석종비문」 주148)염정수廉廷秀 [고려편4] p.432 참조.
- 163) 최경만(崔敬萬) : 전기가 다른 자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 164) 이희계(李希桂) : 전기가 다른 자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삼한국대부인 이씨,  
비구니 묘안,  
전공판서 김인귀.

漆原府院君 尹桓,  
領三司事 李仁任,  
判門下 崔瑩,  
門下侍中 林堅味,  
守門下侍中 李成林,  
判三司事 李成桂,  
鐵城府院君 李琳,  
三司左使 廉興邦,  
贊成事 禹仁烈,  
延興君 朴形,  
開城郡 王福命,  
上黨君 韓蕝,<sup>165)</sup>  
門下評理 潘益淳,  
政堂文學 李仁敏,  
金海君 金師幸,  
密山君 朴成亮,  
知申事 廉廷秀,  
典工判書 崔敬萬,  
金海府使 李希桂,  
三韓國大夫人 李氏,

165) [苑]에는 탈락, [全書]에는 蕝. [總覽]의 藏과 [全文]의 蕝은 [全書]의 蕝의 오자임.

比丘尼            妙安,  
典工判書        金仁貴.

[비신(碑身)의 높이(高)는 7척5촌(七尺五寸), 폭(幅)은 3척5촌5분(三尺五寸五分), 글자의 간격은 9분(九分)이며, 해서(楷書)이다. 전제(篆題)의 글자 간격은 3촌2분(三寸二分)이다.]

[掲載]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上 pp.570~582.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上 pp.525~529.

『한국금석전문韓國金石全文』中世下 pp.1229~1234.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教全書』第6冊 pp.700~702.



淮陽表訓寺白華庵清虛堂休靜大師碑文

◀12. 회양표훈사백화암청허당휴정대사비문▶







## 12. 회양표훈사백화암청허당휴정대사비문\*

淮陽表訓寺白華庵清虛堂休靜大師碑文

있는 곳 : 강원도 회양군 장양면 장연리 표훈사 백화암

세운 때 : 조선 인조 8년 경오(1630)에 세웠다가 1632년에 다시 세웠다

所在 : 江原道 淮陽郡 長楊面 長淵里 表訓寺 白華庵

年代 : 朝鮮 仁祖 8年 庚午(1630) 立, 10年 壬申(1632) 改立

국일도대선사(國一都大禪師)를 하사받은 청허당(淸虛堂)의 비명 [전제]

賜國一都大禪師淸虛堂碑銘 [篆題]

명(明) 조선국(朝鮮國)의 국일도대선사 선교도총섭 부종수교 보제등계  
존자<sup>1)</sup>를 하사받은 서산청허당휴정대사의 비명과 아울러 서(序).

---

\* 이 비문은 [總覽]·『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유점사본말사지楡岾寺本末寺誌』 삼본(三本)을 대조교감(對照校勘)하였다.

- 1) 국일도대선사선교도총섭부종수교보제등계존자(國一都大禪師禪敎都摠攝扶宗樹敎普濟登階尊者) : 1592년 4월 왜적의 침입으로 다음 달인 5월에 선조(宣祖)가 용만(龍灣)으로 피난갔다가 관군(官軍)·의승병(義僧兵)·명군(明軍) 등의 합동작전(合同作戰)으로 1593년 5월 삼경(三京)을 수복하고, 그 해 10월에 선조가 서울로 환도(還都)할 때 휴정대사가 선조를 호종(扈從)하였다. 그 후, 8도 도총섭직을 사명(四溟)에게 넘겨주고 묘향산(妙香山)으로 돌아갈 적에 왕으로부터 ‘국일도대선

有明朝鮮國，賜國一都大禪師，禪教都摠攝，扶宗樹教，普濟登階尊者，西山清虛堂休靜大師，碑銘并序。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좌의정(左議政) 겸 영경연사감(領經筵事監) 춘추관사(春秋館事) 세자부(世子傳) 이정귀<sup>2)</sup>가 짓고,

승덕대부<sup>3)</sup> 동양위<sup>4)</sup> 신익성<sup>5)</sup>이 비문과 전제를 쓰다.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李廷龜，撰，  
崇德大夫，東陽尉，申翊聖，書并篆。

사 선교도총섭 부종수교 보계등계존자'라는 찬호(讚號)를 하사받았다. 등계존자(登階尊者)는 교단(敎團)이나 국가(國家)에 대해 공훈이 있는 스님에게만 붙여지는 존호(尊號)로서 품계(品階) 즉 찬호(讚號)인 법계(法階)를 받은 스님에 한한다.

2) 이정귀(李廷龜) : 1564~1635. 조선 문신·학자. 자는 성정(聖徵), 호는 월사(月沙)·보만당(保晩堂)·응암(凝菴). 본관은 연안(延安) : 계(略)의 아들. 벼슬은 좌의정(左議政)에까지 이르렀으며, 한문학(漢文學)의 대가로 신희(申欽)·장유(張維)·이식(李植)과 함께 조선 중기(中期)의 사대(四大) 문장가(文章家)로 일컬어진다.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3) 승덕대부(崇德大夫) : 조선조의 관계(官階). 의빈(儀賓)에게 주던 종1품의 관계로서 중기(中期)에는 명덕대부(明德大夫)로 개칭하였으나, 후기(後期)에는 폐지되고 동반(東班 ; 文官)의 종1품 관계 명칭을 그대로 쓰게 되었다.

4) 동양위(東陽尉) : 신익성(申翊聖)이 평산(平山) 신씨(申氏)이므로 동양위(東陽尉)에 봉하여졌는데, 동양은 황해도 평산(平山)의 옛 이름이다.

5) 신익성(申翊聖) : 1588~1644. 조선 선조대왕(宣祖大王)의 사위. 척화(斥和) 오신(五臣)의 한 사람. 자는 군석(君奭), 호는 악전당(樂全堂)·동회거사(東淮居士). 본관은 평산. 흠(欽)의 아들. 12살 때 선조의 딸 정숙옹주(貞淑翁主)와 결혼하여 동양위에 봉해졌다. 척화 오신 중 한 사람으로 1643년 심양(瀋陽)으로 붙잡혀갔다. 후에 시주(詩酒)로 세월을 보냈다.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났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나는 불교의 교리<sup>6)</sup>를 알지 못하므로 평생에 걸쳐 불교에 대한 해석<sup>7)</sup>을 피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고의로 배불<sup>8)</sup>에 뜻을 두었던 것은 아니다. 돌아 보건대 문자로써 헛된 명성을 도둑질하여<sup>9)</sup> 소단<sup>10)</sup>을 주맹(主盟)하여 온 지도 벌써 3십여 년<sup>11)</sup>이 지났다. 그리하여 스님들이 나의 이름을 좇아 시를 구하고자<sup>12)</sup> 찾아오는 이가 날마다 문앞에 줄을 이었으므로, 마치 스님들이 백일장(白日場)을 열고 시를 짓고 운석(韻釋)하는 것과 같이<sup>13)</sup> 혼연(欣然)히 그들을 응접(應接)하였지만, 이것 역시 내가 뜻을 두어 깊이 탐닉(耽溺)한 것도 아니었다.

余不識釋家津筏故，平生不喜談釋，非故有意於排釋也。顧以文字，竊虛聲，主盟騷壇，三十餘年矣。釋子之逐名求詩者，日踵門，如遇開僧韻釋，輒欣然應之，亦非故有意於耽釋也。

내가 아직 나이 젊었을 때 휴정(休靜)스님의 이름을 들었는데 시의 품

- 
- 6) 진벌(津筏) : 강을 건너는 뗏목. 곧 중생(衆生)들을 차안(此岸)으로부터 피안(彼岸)에 건너가게 제도(濟度)하는 불교의 교리(敎理)를 일컫는 말이다.
  - 7) 담석(談釋) : 불교의 교리를 논평(論評)한다는 뜻이다.
  - 8) 배석(排釋) : 석교(釋敎) 곧 불교를 배척(排斥)한다는 말이다.
  - 9) 고이문자절허성(顧以文字竊虛聲) : 월사(月沙) 자신을 회고해 보니, 문자로써 헛된 명성(名聲)을 도둑질하였다고 스스로 반성(反省)하는 말이다.
  - 10) 소단(騷壇) : 소인묵객(騷人墨客)이 모이는 문단(文壇), 곧 문예계(文藝界)를 말한다.
  - 11) 삼십여년(三十餘年) : 이 비문을 지을 때, 월사의 나이가 66세였으므로 그간 소단생활을 30년 이상하였다는 뜻이다.
  - 12) 석자지축명구시자(釋子之逐名求詩者) : 스님들이 자기의 명망을 듣고 시(詩)를 구하거나, 시론(詩論)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가 날로 이어졌다는 말이다.
  - 13) 여우개승운석운운(如遇開僧韻釋云云) : 마치 스님들이 백일장(白日場)을 열고 시를 운석하는 것과 같아서 그들을 혼연(欣然)히 응접(應接)하였으나 이 또한 깊이 불교에 탐닉(耽溺)한 것도 아니었다는 뜻이다.

조(品藻)가 뛰어나 세상에 널리 전승(傳誦)되고 있었으므로 항상 한 번 뵈기를 희망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다. 송운유정(松雲惟政)<sup>14)</sup>은 곧 서산(西山)스님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은 스님이다. 스님이 강화사(講和使)로 일본에 가게 되었을 때,<sup>15)</sup> 여러 번 경성(京城)으로 와서 나를 찾아 온 적이 있었다. 또 내가 연산<sup>6)</sup>으로 갔었는데, 청천강<sup>17)</sup>에서 만나 시를 지어 주었다. 그 때 사명스님은 정성스럽게<sup>18)</sup> 서산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밤이 다하도록 하면서도 전혀 피로한 기색이 없었다. 이때는 이미 서산스님이 입적한 수년 후였다.<sup>19)</sup> 나는 서산스님에 대한<sup>20)</sup> 청분(淸芬)을 흠모하였던<sup>21)</sup> 감

- 
- 14) 송운유정(松雲惟政) : 조선(朝鮮) 선조(宣祖) 때의 고승. 속성은 임(任). 자는 이환(離幻), 호는 송운(松雲)·사명(四溟). 승명은 유정(惟政). 본은 풍천(豐川). 경상남도(慶尙南道) 밀양에서 태어났다. 명종(明宗) 16년(1561)에 선과(禪科)에 장원급제하고, 서산(西山) 대사의 법을 이어받아 도를 닦았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승병을 모집하여, 서산대사의 휘하에서 활약하다가 그의 뒤를 이어 승군 도총섭(都摠攝)이 되어 많은 전공을 세웠다. 선조 37년(1604) 국서(國書)를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강화 조약을 맺고 잡혀갔던 포로 3500명을 데리고 돌아와 가의대부의 벼슬을 받았다.
- 15) 기도일본야(其渡日本也) : 사명스님이 강화사(講和使)로 일본(日本)에 건너갈 적에라는 뜻이니 1604년 4월에 부산항을 출발하여 8개월만인 그 해 11월에 귀국하였다.
- 16) 연산(燕山) : 지명(地名)이니 ①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의 옛 이름, ②충청남도 연기군의 옛 이름, ③충청남도 온양시(溫陽市)의 옛 이름이나, 여기서의 연산은 어디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 17) 청천강(淸川江) : 평안남도 북부(北部)인 안주군(安州郡)에 있는 강(江) 이름이다.
- 18) 미미(暮暮) : 정성을 다하여 노력(勞力)하고 게을리하지 않는 모양. 효성스럽게 서산스님의 생전(生前)에 대한 이야기로 밤이 다하도록 못내 아쉬워하였다는 뜻이다.
- 19) 시시사지망이수년의(是時師之亡已數年矣) : 이 때는 이미 서산대사가 입적한 지 수년이 지났다.
- 20) 면읍(緬摠) : 면사(緬思)와 같은 뜻이니, 이미 죽고 없는 은인(恩人)이나 또는 흠모(欽慕)의 대상을 추상(追想)하는 마음이다.

회(感懷)가 지금도 심중(心中)에 교차하고 있다.

余年尚<sup>22)</sup>少, 己<sup>23)</sup>聞休靜師之名, 其詩多傳誦人間, 恒願一見而不可得. 松雲惟政, 卽師之傳法沙門也. 其渡日本也, 數訪我於京城. 我之赴燕山也, 贈詩於清川江上, 疊疊說師, 窮日夜不倦. 是時, 師之亡, 已數年矣. 緬挹清芬時, 往來于懷.

어느 날 공청(公廳)에서 퇴근하여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sup>24)</sup> 문밖에서 세 분 스님이<sup>25)</sup> 서서 하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바로 스님의 제자인 보진(葆眞)·언기(彦機)·쌍홀(雙僖)이었다. 책 상자에서 책을 꺼내 보이면서 “이것이 청허당(淸虛堂)의 유고(遺稿)입니다.”라고 하고 손을 모아 절을 한 다음, 말하기를 “우리 스님의 도업(道業)은 족히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이나, 첩첩 산중에 방치되어 있으니, 오래되면 더욱 민민<sup>26)</sup>될까 두려워서 감히 문도들이 기재(紀載)하여 오랫동안 묶어 두었던 것을<sup>27)</sup>

- 
- 21) 청분(淸芬): 청덕(淸德)과 같은 뜻이니, 맑은 향기. 맑고 아름다움. 곧 맑고 향기로운 스님의 덕행(德行)을 말함이니, 스님의 생전의 아름다운 도덕(道德)을 추모(追慕)하는 감회가 마음에 여러 갈래로 떠 올랐다는 말이다.
- 22) [總覽]에는 尙. 『유점사본말사지楡岾寺本末寺誌』(以下 [楡誌]라 略稱한다)의 己는 [總覽]의 尙의 오자임.
- 23) [總覽]에는 己. [楡誌]에는 尙은 己의 오자임.
- 24) 일일공퇴독좌(一日公退獨坐): 월사(月沙)가 어느 날 공무를 보고 퇴청(退廳)하여 홀로 앉아 있었다는 뜻이다.
- 25) 삼승(三僧): 서산스님의 제자인 보진(葆眞)·언기(彦機)·쌍홀(雙僖) 세 스님을 지칭한다.
- 26) 민민(泯泯): 두 민자(泯字) 중 한자는 부연(附衍)인 듯하므로 아래의 민자는 삭제(削除)하여야 할 듯하다.
- 27) 숙재(宿齋): 숙계(宿戒)와 같은 뜻이니, 어떤 일을 당하여 미리 며칠 동안 그 일에 대하여 정재(整齋)하는 것.

불원천리(不遠千里)하고 선생님을 찾아 왔으니, 원컨대 상공의 비문을 받아 비석에 새겨 우리 스님의 행적(行蹟)이 후멸(朽滅)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였다.

一日, 公退獨坐, 聞有三僧, 拱立於外, 呼使前, 乃師之弟子. 葆眞, 彦機, 雙仇也, 出示笈中書云, “是清虛堂遺稿.” 仍叉手而拜曰, “吾師道業, 有足傳後, 而雲山深寂, 恐久益泯泯, 敢以門徒所紀載者, 爲狀, 宿齋緘封, 千里來獻, 願得相公一言, 鑱之于石, 以不朽吾師.”

내가 이르기를 “그대 스님의 도(道)는 무(無)로써 유(有)를 삼고,<sup>28)</sup> 허(虛)로써 실(實)을 삼았으므로 존재(存在)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존재하지도 않으며 또한 인멸(湮滅)할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인멸하는 것도 아니거늘, 누가 감히 후멸시키며, 또 누가 능히 후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단 말인가! 부자<sup>29)</sup>께서 이르시기를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함께 도모(圖謀)할 수 없다고 하였거늘,<sup>30)</sup> 스님의 도에 대하여 내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余曰, “爾師之道, 以無爲有, 以虛爲實, 不待存而存, 不待滅而滅, 誰得而朽, 誰得而不朽. 吾夫子曰, 道不同, 不相爲謀, 於師之道, 吾何言哉.”

28) 이사지도이무위유(爾師之道以無爲有): 그대들의 스님인 서산대사의 도는 무(無)로써 유(有)를 삼는다는 말이다.

29) 부자(夫子): 공자(孔子)를 지칭하는 말이다.

30) 도불동불상위모(道不同不相爲謀):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나오는 말로, 도가 같은 길이 아니면 서로 더불어 도모(圖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을 들은 세 스님이 다시 절을 하고 말하기를, “도가 본래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같으면서 다르기도 하고 다르면서 같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섭(迦葉)이 전한 정전법통(正傳法統)은 홀로 천양(闡揚)한 종풍(宗風)으로, 이는 참으로 같으면서 다른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효도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어찌 다르면서 같은 것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상공께서는 그 다른 것을 다르게 하고, 또한 같은 것을 같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님께서도<sup>31)</sup> 항상 상공의 학풍(學風)을 흠모하였으니, 대개 서로 묵계(默契)하여 명감(冥感)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컨대 상공께서 우리 스님에 대한 마지막의 혜택(惠澤)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sup>32)</sup>라 하면서, 극성스러운 정도로<sup>33)</sup> 허락하여 주지 않으면 이 해가 다 지나가도 물러가지 않겠다고 하였다.<sup>34)</sup> 나는 그 정성에 감탄(感歎)하여 이르기를 “불교인(佛敎人)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전력(專力)을 다하는 것이 이렇게 장하구나.”라 하였다.

三僧，起而對曰，“道本不同，<sup>35)</sup> 然有同而異者，異而同者，伽葉正傳，獨闡宗風者，是固同而異者矣。 厓<sup>36)</sup> 家爲孝，出世爲忠，豈非異而同者乎。唯相公之異其異，而同其同者焉，吾師常慕相公之風，盖有默契而冥感者。願相公之終惠也。”僕僕起<sup>37)</sup> 拜，

31) 오사(吾師): 우리 스님이니, 서산스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32) 원상공지종혜야(願相公之終惠也): 원하옵건대 상공(相公)께서 저희들 스님의 비문(碑文)을 지어 주심으로 마지막 은혜(恩惠)를 베풀어 달라는 간청이다.

33) 복복(僕僕): ①번잡한 모양, ②귀찮은 모양, ③극성스러운 모양.

34) 경세불거(經歲不去): 상공께서 비문을 지어 주겠다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해가 지나가도 저희들은 물러가지 않겠다고라는 말이다.

35) [楡誌]에는 同과 然字 사이에 “非敢爲同”이라는 4字가 있으나 [總覽]에는 탈락됨.

36) [楡誌]에는 居, [總覽]에는 厓. 厓는 居의 古字이므로 같은 字이나 비문에 厓이므로 厓字가 옳다.

經歲不去. 余嘉其誠而歎曰, “釋教之專心所事, 乃如是夫.”

행장(行狀)을 상고해 보니 스님의 법명(法名)은 휴정(休靜)이요, 자호(自號)는 청허자(淸虛子)이며, 묘향산(妙香山)에 오랫동안 주석하였으므로 서산(西山)이라고도 호한다. 속성은 완산(完山) 최씨(崔氏)며, 이름은 여신(汝信)이고, 자는 현응(玄應)이다. 외조부 김우(金禹)가 연산군(燕山君) 때 현윤<sup>38)</sup>으로 있으면서 나라에 죄를 짓고 안릉(安陵)<sup>39)</sup>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으므로<sup>40)</sup> 드디어 안주(安州)<sup>41)</sup> 사람이 되었다.

按狀, 師法名休靜, 自號淸虛子, 以多在香山故, 又號西山. 俗姓完山崔氏, 名汝信, 字玄應, 外祖縣尹金禹, 得罪燕山朝, 謫居安陵, 遂爲安州人.

아버지의 이름은 세창(世昌)이니, 지방에서 기자전<sup>42)</sup> 참봉<sup>43)</sup>으로 추천하였으나 취임(就任)하지 않고, 항상 시와 술로써 스스로 낙을 삼았다. 어머

37) [總覽]에는 起. [楡誌]의 跪는 起의 오자임.

38) 현윤(縣尹): 군윤(郡尹)과 같은 뜻이니 지금의 군수(郡守)와 같은 직책이다.

39) 안릉(安陵): ①나주(羅州) 장산현(長山縣; 지금의 광주광역시 서구 주월동), ②평안남도 안주군의 옛 이름, ③황해도 재녕(載寧)의 옛 이름이니 여기서의 안릉(安陵)은 ②의 평안남도 안주(安州)이다.

40) 적거(謫居): 적거(謫居)이니, 귀양살이. 扃는 居의 古字이다.

41) 안주(安州): 평안남도 북서부 청천강 남안(南岸)에 위치하고 있는 고을 이름.

42) 기자전(箕子殿): 기자사(箕子祠)라고도 한다. 기자의 위패(位牌)를 모신 사당. 1102년(숙종7)에 건립. 평양시 기림리(箕林里) 기자묘(箕子墓) 앞에 있다. 조선조 광해군(光海君) 4년(1612) 4월 27일 숭인전(崇仁殿)이라 이름한 것을 기자전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참으로 기자묘이냐에 대해서는 시비양론(是非兩論)이 있다.

43) 참봉(參奉): 조선시대의 관직. 원(園)·능(陵)·사옹원(司饔院)·군기시(軍器寺)·사직서(社稷署) 등 많은 관서(官署)에 두었던 중9품의 벼슬이다.



나는 김씨(金氏)이니 늦게까지 아들이 없었다. 어느날 꿈에 한 노파(老婆)가 와서 말하기를 “지금 배 속에 있는 아이가<sup>44)</sup> 대장부<sup>45)</sup>이므로 어머님<sup>46)</sup>께 경하(慶賀)를 하기 위하여 왔습니다.”라고 하는 태몽을 꾸었다.

父世昌, 鄉舉爲箕子殿參奉, 不就, 詩酒自娛. 母金氏, 老無子. 一日夢, 一婆來曰, “胚胎丈夫子, 故爲嬰, 來賀云.”

그 다음해인 경진년<sup>47)</sup> 3월에 스님이 탄생하였다. 3살 되던 때 어느날 저녁 아버지가 등불을 켜 놓고 술에 취해서 누워 있었는데, 한 노인이 와서 이르기를 “어린 스님<sup>48)</sup>을 만나보러 왔습니다.”라면서<sup>49)</sup> 두 손으로 아이를 들고 주문(呪文)을 몇 마디 외운 다음, 아이의 이마를 만지고 난 후, “이 아이의 이름을 운학(雲鶴)이라고 하십시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문밖으로 나갔는데 따라 나가 보았으나, 간 곳이 없었다.<sup>50)</sup> 그리하여 어릴 때의 자를 운학이라 하였다. 아이들과 놀 때에는 혹은 돌을 세워 불상(佛像)으로 모시고, 혹은 흙을 모아 탑을 만들기도 하였다.

明年庚辰三月, 果誕師. 三歲父於燈夕, 醉臥, 有老翁來謂曰, “委訪小沙門耳.” 遂以兩手舉兒, 呪數聲, 摩其頂曰, “以雲鶴名此兒.” 言訖出門, 莫之所之. 以故, 小字稱雲鶴. 與羣兒游戲, 或立石爲佛, 或聚沙成塔.

44) 배태(胚胎): 잉태(孕胎)와 같은 뜻이니, 곧 아이를 배다라는 말이다.

45) 장부자(丈夫子): ①아들, ②대장부(大丈夫), ③위대(偉大)한 사람.

46) 아미(嬰嬰): 어머니란 말.

47) 경진년(庚辰年): 조선 중종 15년(1520).

48) 소사문(小沙門): 어린 스님. 아기 스님이란 말이다.

49) 위방(委訪): ①찾아 뵈는 것, ②방문하는 것, ③인사드리는 것 등의 뜻이다.

50) 막지소지(莫之所之): 간 곳이 없다는 뜻이다. 인홀불견야(因忽不見也).

점점 자라나면서 풍모(風貌)와 정신<sup>51)</sup>이 영특하게 뻗어나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게을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효심이 지극하여 그 고을 주수<sup>52)</sup>가 매우 사랑하였다. 9살 때 어머니가 죽고, 10살 적에는 아버지마저 돌아가고 영정<sup>53)</sup>하는 고아가 되었다. 주수가 데리고 서울로 가서 반재<sup>54)</sup>에 입학시켜 주었으나, 스님은 올적하여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sup>55)</sup> 마침내 몇 사람의 동학(同學)과 함께 남쪽 지리산(智異山)으로 내려가서 두루 승지(勝地)를 순방하고,<sup>56)</sup> 많은 경전(經典)을 탐구하였다. 그러나 항상 조실부모(早失父母)한 슬픔에 잠겨 생사에 대한 문제에 더욱 회의를 품게 되었다.

稍長風神英秀，力學不懈。事親至孝，主倅愛之。九歲母亡，十歲父歿，伶仃無所依。主倅携至京，就學於泮齋，鬱鬱不適意。

51) 풍신(風神): 풍격(風格)과 정신(精神).

52) 주수(主倅): 현령(縣令)·주목(州牧)·군수(郡守)를 지칭함. 대흥사(大興寺)에 있는 계곡 장유가 지은 서산대사비에 주목(州牧)이라 하였으니 주(州)의 목사(牧使)라는 뜻이다.

53) 영정(伶仃): 영정(伶仃)과 같은 뜻이니, 독행령정(獨行伶仃)의 줄임말로써 혼자 비틀거리며 외롭게 사는 모양. 곧 고독한 생활.

54) 반재(泮齋): 대신(大臣)이나 귀족(貴族)들의 자제들이 배우는 특수한 학당(學堂)이다.

55) 우울부적의(鬱鬱不適意): 군수의 도움을 받아 서울로 와서 고관(高官)과 사대부들이 공부하는 반재(泮齋)에 입학하여 공부하였으나, 항상 마음이 우울하여 공부(工夫)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다가, 마침내 남방(南方)으로 내려와 지리산(智異山)에 들어가 경전(經典)을 열람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계곡 장유가 지은 대흥사 서산대사비에는 반재에서 공부하여 여러번 과거(科擧)에 응시하였으나, 낙방(落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실부모(早失父母)한 슬픔까지 겹쳐서 인간무상(人間無常)을 느껴 공부를 중단(中斷)하고, 남(南)쪽으로 내려와 두류산(頭流山)에 들어 갔다라고 되어 있다.

56) 형승(形勝): 명승지(名勝地)·고적지(古蹟地)·성지(聖地)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與同學數人，南游智異山，窮覽形勝，探蹟諸經。每愴早失怙恃，益感死生之義。

그러던 중 홀연히 선가(禪家)의 돈오법(頓悟法)을 얻어 듣게 되었다. 마침내 부용영관<sup>57)</sup> 스님을 찾아가 법문을 듣고, 발심(發心)하여 승인장로<sup>58)</sup>를 은사로 하여 스님이 되었다. 그로부터 7·8년간 여러 산을 두루 다니면서 정진하다가 30세 때 선과(禪科)에 합격하여 대선(大選)으로부터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에 올랐다. 그러나 어느날 탄식(歎息)하기를 “내가 출가(出家)한 본의(本意)가 어찌 여기에 있겠는가!” 하고, 곧 인수(印綬)를 풀어 던져 버리고,<sup>59)</sup> 지팡이를 짚고<sup>60)</sup> 금강산(金剛山)으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삼몽<sup>61)</sup>사를 지었다.

忽得禪家頓悟法。遂聽法於靈觀大師，剃髮於崇仁長老。七八年間，遍踏山，年三十，中禪科，自大選，陞至禪敎兩宗判事。一日歎曰，“吾出家本意，豈在此乎。”卽解綬，以一筇，還金剛，作三夢詞曰，

57) 영관대사(靈觀大師) : 1485~1571. 휘는 영관. 호는 부용(芙蓉)·은암(隱庵)·연선도인(蓮船道人). 명(名)은 구언(九彦). 1485년(성종 16) 7월 7일 경상남도 삼천포(三千浦)에서 출생하였고, 14세 때 출가 하였다. 1571년(선조 4) 4월 14일 세수 87세, 법랍 73하(夏)를 일기(一期)로 지리산 연곡사(燕谷寺)에서 입적하였다.

58) 승인장로(崇仁長老) : 청허스님의 은사(恩師)이나 전기는 다른 자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59) 해수(解綬) : “禪敎兩宗判事職”에 대한 사직서와 인수(印綬, 官帶)를 풀어서 함께 반납하였다는 말이다.

60) 일공(一筇) : 한 개의 대나무 지팡이. 석장(錫杖)을 지칭하기도 함.

61) 삼몽(三夢) : 주인몽(主人夢)·여객몽(旅客夢)·청몽자(聽夢者) 삼자(三者)를 말함.

여관주인(旅館主人) 꿈꾼 것을 객(客)에 말하고,  
 객의 꿈을 주인에게 설명하도다.  
 주객들이 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두가 몽중에서 헤매고 있네!

主人夢說客,  
 客夢說主人.  
 今說二夢客,  
 亦是夢中人.

향로봉<sup>62)</sup>에 올라가서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登香鑪<sup>63)</sup>峰, 作詩曰.

모든 나라 장안길은 개미줄<sup>64)</sup> 같고,  
 모든 영웅(英雄) 호걸(豪傑)들은 하루살이<sup>65)</sup>네!  
 창(窓)에 비친 밝은 달은 청허(淸虛)의 베개,  
 불어오는 솔바람은 곡조(曲調)가 없네!

萬國都城如蟻垤,<sup>66)</sup>  
 千家豪傑若醯鷄.

62) 향로봉(香鑪峰): 묘향산(妙香山)의 주봉(主峰)이니, 법왕봉(法王峰)이라고도 한다.

63) [總覽]의 鑪와 [楡誌]의 爐는 相通하는 글자임.

64) 의질(蟻垤): 도성(都城)인 서울을 내려다 보니, 마치 개미가 지나가는 것과 같이 꼬불꼬불하게 보인다는 말이다.

65) 헤계(醯鷄): 헤계(醯雞)라고도 쓴다. 술이나 식혜 속에서 생기는 작은 벌레. 하루살이(蟻蠓).

66) [楡誌]에는 垤. [總覽]의 蛭은 垤의 오자임.

一窓明月清虛枕,  
無限松風韻不齊.

이로부터 세상의 영광(榮光)과 명리(名利)를 피하여<sup>67)</sup> 산문(山門)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나 도를 물으러 찾아오는 사람이 날로 많아졌다. 기축년 정여립(鄭汝立)의 모반(謀叛)에 연루되어<sup>68)</sup> 요승(妖僧) 무업(無業)의 무고로 체포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무혐의 호소로<sup>69)</sup> 선조<sup>70)</sup>가 그 억울함을 알고 곧 석방하였다.<sup>71)</sup> 선조는 스님의 시고(詩稿)를 가져오게 하여 읽어보고 감탄해<sup>72)</sup> 마지 않았다. 그리하여 묵죽(墨竹) 한 폭을 그려 주면서<sup>73)</sup> 시를 한 수 지으라고 명하므로 스님은 곧 절구(絶句)를 지어 바쳤다.

67) 도광산채(簫光鏤彩): 영광을 피하고 명예(名譽)를 숨기는 것. 곧 세상의 영광(榮光)과 명리(名利)를 피하고 수도(修道)에만 전심 몰두한다는 뜻이다.

68) 기축지옥(己丑之獄): 선조 22년(1589)에, 당시 정여립(鄭汝立: 1546~1589)의 모반(謀叛)에 연루되었다고 요승(妖僧) 무업(無業)의 무고로 체포되었으나 무죄(無罪)로 곧 풀려났으며, 이로 말미암아 기축사화(己丑士禍: 당시 집권세력인 東人이 몰락하고 西人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가 일어났다. 이 모반 사건에 의연(義衍)이라는 요승도 참여했다. 「사명대사석장비문四溟大師石藏碑文」 주89)기축년己丑年, 주92)오괘역옥誤紐逆獄 [조선편] p.121 참조.

69) 공사명개(供辭明割): 원래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당의 범위를 넓히고자 비중(比重)이 있는 스님들을 끌어 넣기 위한 무고라는 명백한 자료를 갖추어 옥관(獄官)에게 제공하였다는 뜻이다. 장유가 지은 대홍사 비문에는 “對獄明暢”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70) 선묘(宣廟): 선조대왕(宣祖大王)을 지칭함.

71) 입석지(立釋之): 곧 석방 하였다는 말이다. 立은 卽의 뜻임.

72) 징시고람지가탄(徵詩稿覽之嘉歎): 선조대왕께서 서산스님의 시고(詩稿)를 가져 오도록 하여 읽어보고 감탄하였다는 말이다.

73) 어화묵죽사지(御畵墨竹賜之): 선조대왕이 스님의 시고를 보고 감탄하고는 묵죽(墨竹) 한 폭(幅)을 그려주면서 이 묵죽에 대하여 시를 한 수(首) 짓도록 명(命)하였다. 스님은 왕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곧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바쳤으니,

선조도 또한 일절을 지어 주면서 후한 상을 주고 위로하면서 환산(還山)케 하였다.

自此韜光鏤彩, 不出山門, 問道者日益衆. 己丑之獄, 妖僧無業, 誣引, 師被逮, 供辭明割, 宣廟, 知其寃, 立釋之. 徵詩稿, 覽之嘉歎. 御畫墨竹賜之, 命賦詩以進, 師卽進絕句. 宣廟, 亦賜御製一絕, 賞賚甚厚, 慰遣還山.

임진년<sup>74)</sup> 왜란(倭亂)으로 선조<sup>75)</sup>는 서쪽 용만(龍灣)으로 피난을 갔다.<sup>76)</sup> 이 때 스님은 칼을 차고 찾아가 배알(拜謁)하였다. 선조는 스님에게 이르기를 “국난(國難)이 이와 같으니, 스님은 나라를 널리 제도할 수 없겠는가?”<sup>77)</sup>라 하였다. 스님은 울면서 절하고 청하되 “국내에 있는 스님들 중 늙고 병들어 항오<sup>78)</sup>의 대열(隊列)에 감임(堪任)할 수 없는 이는 현지 사찰에

---

“瀟湘一枝竹 聖主筆端生 山僧香爇處 葉葉帶秋聲”이라 하였다. 이를 본 선조도 또한 “葉自毫端出 根非地面生 月來無見影 風動不聞聲”이라는 일절(一絶)을 지어 하사하는 한편, 후한 상(賞)도 주어 위로하면서 산사(山寺)로 돌려보냈다. 본 비문 주130)어필시화지사御筆詩畫之賜 p.692 참조.

- 74) 임진년(壬辰年) :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던 해이다.  
 75) 대가(大駕) : 임금이 타는 수레.  
 76) 서행(西行) : 왕이 서도(西道)로 행차(幸次)하였다는 뜻이니 1592년 4월 14일 왜병이 부산포(釜山浦)에 상륙한 이후, 4월 30일 선조는 서울을 떠났으며 5월 30일에 서울이 함락되었다. 선조가 서쪽 용만(龍灣:義州)으로 피난을 갔다는 말이다.  
 77) 이가홍제야(爾可弘濟耶) : ①그대가 가히 나라와 민족(民族)을 구제할 길이 없겠는가? ②스님이 이 국난(國難)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78) 항오자(行伍者) : 고대(古代) 중국의 군제(軍制)로서 5명(名)을 1오(伍), 25명을 1항(行)이라 하였으니, 5오가 일항인 셈이다. 다시 말하면 주(周)나라 때에는 5인이 1오, 5오가 1양(兩:25명), 4양이 1졸(卒:100명), 5졸이 1려(旅:500명), 5려가 1사(師:5,000명), 5사가 1군(軍:25,000명)으로 편성되었다.

서 왜병 퇴치를 위한 호국기도를 하여<sup>79)</sup> 불신(佛神)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그 외의 젊은 스님은 신이 모두 통솔하고 군전<sup>80)</sup>에 나아가 충적<sup>81)</sup>을 다 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선조는 이를 충의롭게 여기고 팔도십육종<sup>82)</sup> 도총섭(都摠攝)으로 임명하고 유시(諭示)로 방백(方伯)을 보내어 예의를 갖추어 대우하였다.

壬辰, 大駕, 西幸龍灣. 師卽杖鉞進謁. 宣廟敎曰, “世難如此, 爾可弘濟耶.” 師泣而拜命, 請曰, “國內緇徒之老病, 不任行伍者, 臣令在地焚修, 以祈神助, 其餘, 臣皆統率, 悉赴軍前.” 以效忠赤, 宣廟義之, 命爲八道十六宗都摠攝, 諭方伯,<sup>83)</sup> 禮遇之.

이에 송운<sup>84)</sup>은 7백 의승병(義僧兵)을 거느리고 관동(關東)에서 쫓기하였고, 처영<sup>85)</sup>은 2천여 의승병을 거느리고 호남(湖南)에서 쫓기하였으며,

79) 재지분수(在地焚修): 나이 많고 병이 있는 스님들은 현지(現地)에서 왜병(倭兵) 퇴치를 위한 호국기도(護國祈禱)를 하게 한다는 뜻이다.

80) 군전(軍前): 적군(敵軍) 앞에 나아가 그들과 싸우겠다는 말이다.

81) 충적(忠赤): 충렬(忠烈)·충절(忠節)·충심(忠心) 등과 같은 뜻이니, 나라를 위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을 일컫는 말. 赤은 丹(붉은 단字)과 같은 뜻임.

82) 팔도십육종(八道十六宗): 8도에 각각 선교(禪敎) 양종(兩宗)이 있으므로 16종이라 한다.

83) [楡誌]에는 伯, [總覽]의 岳은 伯의 오자임.

84) 송운(松雲): 사명스님의 휘(諱)이다. 호는 사명(四溟) 또는 송운이다.

85) 처영(處英): 서산스님의 제자. 휘는 처영(處英)이고 호는 뇌묵(雷默)이다. 승병장(僧兵將)으로 호남지방(湖南地方)에서 2천여명의 승병을 모아 권율과 함께 금산(金山) 배고지 전투에서 크게 전공(戰功)을 세우고, 1573년 2월 권율의 군사와 함께 북상(北上), 수원 독왕산성(禿旺山城)에서 왜적(倭賊) 우키다(守喜多秀家)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리고 권율(權慄)과 함께 행주산성(幸州山城)에서 7백의 승병(僧兵)을 이끌고 적병(賊兵) 3만과 대전(對戰)하여 2만 4천 명의 사상자(死傷者)를 내어 임진왜란 중 가장 큰 승첩(勝捷)을 거두었다. 이 공훈으로 나라에

서산스님은 문도와 스스로 모집한 의승병이 1천 5백명이었으니, 모두 5천여 명이나 되었다. 순안 법흥사<sup>86)</sup>에 모여 천병<sup>87)</sup>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여<sup>88)</sup> 서로 도와 충천(衝天)의 세력으로 평양 목단봉에서<sup>89)</sup> 싸워 적을 참획(斬獲)함이 매우 많았다. 드디어 명(明)의 원군(援軍)이 평양을 탈환하고,<sup>90)</sup> 송도(松都)를 수복(收復)하자, 경성의 적들은 야음(夜陰)을 틈타 도망을 갔다.<sup>91)</sup>

於是，松雲，率七百餘僧，起關東，處英，率二<sup>92)</sup>千餘僧，起湖南，師率門徒及自募僧一千五百，合五千餘名。會于順安法興寺，與天兵，爲後先，以助聲勢，戰牧丹峰，斬獲甚多。天兵，遂克平壤，復松都，京城賊宵遁。

서 절충장군(折衝將軍)이라는 직함을 내렸다. 평양과 개성 전투에서도 큰 공을 세웠다.

86) 순안법흥사(順安法興寺) : 평안남도 평원군 궁덕면 법흥리(法弘里) 법흥산(法弘山)에 있었던 절.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가 의승병을 모아 훈련시키던 곳이기도 하다. 「사명대사석장비문」 주113)순안順安 [조선편1] p.123 참조.

87) 천병(天兵) : 명(明)나라 천자(天子)인 신종(神宗)이 보내준 응원병으로 총병(總兵) 유정(劉綎)이 이끌고 왔다.

88) 위후선(爲後先) : 위후위선(爲後爲先)의 줄임말이니, 관동(關東)의 송운병(松雲兵)과 호남(湖南)의 처영병(處英兵; 雷默兵)과 서도(西道)의 서산병(西山兵) 그리고 응원군(應援軍)인 명(明)나라의 유정병(劉綎兵) 등이 서로 앞서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하였다는 말이다.

89) 전목단봉(戰牧丹峰) : 당시 평양 목단봉 전투를 말함.

90) 천병수극평양(天兵遂克平壤) : 천병이 평양을 탈환하였다는 뜻이다.

91) 소둔(宵遁) : 전쟁으로 점령(點領)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가, 다시 상대방의 반격(反擊)으로 전세가 불리해질 경우, 밤 중 야음(夜陰; 宵)을 타고 도망가는 것이다.

92) [總覽]에는 二, [楡誌]에는 一. 비문 중에 의승병이 오천여명이란 구절로 보아 二字가 옳다.



스님은 용사(勇士) 백명(百名)과 함께 대가(大駕)를 맞이하여 서울로 환도<sup>93)</sup>하였다. 명나라에서<sup>94)</sup> 보내온 원군의 제독<sup>95)</sup>인 이여송<sup>96)</sup>이 편지를 보내어 칭송(稱頌)하되 나라를 위하여 적(賊)을 토벌함에 있어 충성(忠誠)이 태양을 관통하였으므로<sup>97)</sup> 존경해 마지않는다는 말과 다음과 같은 시(詩)를 지어 진하였다.

師以勇士百人，迎大駕還京都。天朝提督李如松，送帖嘉獎，有爲國討賊，忠誠貫日，不勝敬仰之語，題詩贈之曰。

본래(本來)부터 공리(功利)에는 무심(無心)하여서,  
오롯하온 마음으로 선(禪)을 닦다가,  
나라 사정 알아서만 볼 수가 없어,  
총섭(摠攝)으로 구국(救國) 위해 하산(下山)하였네!

93) 경도(京都): 한성(漢城)인 서울을 가리키는 말이다.

94) 천조(天朝): 명나라를 지칭함.

95) 제독(提督): 관명(官名), 무관직(武官職)의 최고위(最高位). 명나라 때 제독경영융정제직(提督京營戎政諸職)이 있었는데, 대개 훈척대신(勳戚大臣)이나 대감(大監)으로 이 자리에 임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령관(司令官)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예컨대 해군제독(海軍提督) 따위.

96) 이여송(李如松): 1549~1598. 중국 명(明)의 장수로서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명의 2차 원병(援兵)을 이끌고 참전하였다. 자(字)는 자무(子茂), 호(號)는 앙성(仰城)이며 철령(鐵嶺, 지금의遼寧省 鐵嶺) 출신이다. 조선 출신인 이영(李英)의 후손(後孫)이며, 요동총병(遼東總兵)으로 요동지역의 방위에 큰 공을 세운 이성량(李成梁, 1526~1615)의 장자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방해어왜총병관(防海禦倭總兵官)으로 임명되어 조선(朝鮮)으로 파병되었다. 「사명대사기적비문泗溟大師紀蹟碑文」 주18)이여송李如松 [조선편1] p.170 참조.

97) 충성관일(忠誠貫日): 명장(明將) 이여송이 서산스님의 구국 충정에 감탄하여 편지를 보내어 칭찬하는 말이니, 곧 나라를 위하여 적(賊)을 토벌하는 충성(忠誠)이 태양을 관통하였다는 뜻으로서 충성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말이다.

無意圖功利,  
專心學道禪,  
今聞王事急,  
摠攝下山巔.

그리고 모든 장수와 고관(高官)들이 앞을 다투어 위로의 편지를 보내왔다. 왜적(倭賊)이 모두 물러간 다음, 스님은 장계(狀啓)를 올려 고(告)하되, “신(臣)의 나이 80을 바라보고 있으며 근력(筋力) 또한 쇠진하였으니, 청하옵건대 군사(軍事)는 제자(弟子)인 유정(惟政)과 처영(處英)에게 맡겨 주시고, 신(臣)의 도총섭 사직서를 받아주시어 묘향산(妙香山)의 옛날에 서거(棲居)하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다.

諸將官，爭先送帖贈遺。賊退，師啓曰，“臣年垂八十，筋力盡矣，請以軍事，屬於弟子惟政，及處英，臣願納摠攝印，還香山舊棲。”

선조(宣祖)는 그 뜻을 가상하게 여기고 그 늙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국일도대선사(國一都大禪師) 선교도총섭(禪敎都摠攝) 부종수교(扶宗樹敎) 보제등계존자(普濟登階尊者)라는 호를 주었다. 이로부터 의(義)가 더욱 높아지고, 이름이 더욱 무거워졌으며, 도(道)는 더욱 높아졌다. 자유로운 몸이 되어 두류<sup>98)</sup>·풍악<sup>99)</sup>·묘향산(妙香山) 등으로 왕래(往來)하였다. 천여명

98) 두류(頭流) : 두류산(頭流山)이니 지리산(智異山)의 다른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9 「남원도호부南原都護府」 「산천山川」 중 지리산(智異山) 「주註」에 “在府東 六十里 山勢 高大雄據 數百里 女眞白頭山之脉 流至于此故 又名頭流 或云 其脉 至海而窮 停留于此故 流作留爲是”라 하였다. 이 밖에도 지리산을 지리(地理)·방장(方丈)·남악산(南岳山) 등으로도 일컫는다.

(千餘名)의 제자 중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가 70여 명이었다.

宣廟嘉其志，憫其老，賜號國一都大禪師禪教都摠攝扶宗樹教  
普濟登階尊者。自是，義益高，名益重，道益尊。往<sup>100)</sup>來於頭流，  
楓岳，紗香諸山，<sup>101)</sup>弟子千餘人，名可名者，七十餘人。

갑진년<sup>102)</sup> 정월 23일 제자를 묘향산 원적암<sup>103)</sup>에 모아 분향하고 설법을  
마친 다음, 자신의 영정(影幀) 뒷면에 “80년 전에는 그대가 바로 나였는데,  
80년 후에는 내가 곧 그대일세.”라는 영송(影頌)을 쓴 다음, 이어 송운(松  
雲)에게 주는 편지를 쓰자마자<sup>104)</sup> 곧 가부좌(跏趺坐)를 맺고 입적하였으니  
세수는 85세요, 법랍은 64하였다.<sup>105)</sup>

甲辰正月，二十三日，會弟子於紗香圓寂菴，焚香說法，取自家

- 
- 99) 풍악(楓岳) : 금강산(金剛山)을 가을철에 부르는 이름이다. 「사명대사석장비문  
四溟大師石藏碑文」 주75) 풍악楓岳 [조선편1] p.120 참조.
- 100) [總覽]에는 遄, [楡誌]에는 往, [總覽]의 遄은 逄(往의 古字)의 오자이다.
- 101) [楡誌]에는 山과 弟字 사이에 常隨라는 二字가 있으나 [總覽]에는 탈락됨.
- 102) 갑진년(甲辰年) : 조선 선조 37년(1604).
- 103) 원적암(圓寂菴) : 평안북도 영변군 북신현면(北薪峴面) 하행동(下杏洞) 묘향산  
(妙香山)에 있었던 암자(庵子)이다.
- 104) 작서부송운훈(作書附松雲訖) : 서산스님이 입적하기 직전에 자신의 영정(影  
幀) 후면(後面)에 영제(影題)를 쓴 다음, 편지를 써서 송운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끝  
나자마자 입적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장유가 지은 대홍사비문과 이연귀가  
지은 1630년 비문 등에는 “우기서결유정처영이문인훈(又寄書訣惟政處英二門人  
訖)”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송운유정뿐만 아니라 처영에게도 편지를 남  
긴 것이다. 두 제자에게 마지막 결별(訣別) 편지까지 따로 남긴 것을 보면 유정  
과 처영은 휴정이 가장 아끼는 수제자(首弟子)였음을 알 수 있다.
- 105) 연팔십오법랍육십사(年八十五法臘六十四) : 서산스님의 세수는 85세이고, 법랍  
은 64하(夏)라는 말인데, 생존연대가 1520~1604이니 세수가 85세임은 이설(異  
說)의 여지가 없으나, 다만 법랍에 대하여는 여러 설이 있다. 이연귀 찬 표훈사  
백화암비(1630)에는 세수 85세, 법랍 64하(夏)이고, 이연귀 찬 백화암에 다시 고

影幀, 書于其背曰, “八十年前渠是我, 八十年後我是渠.” 作書附<sup>106)</sup>松雲<sup>107)</sup>訖, 趺坐而逝, 年八十五, 法臘六十四.

특이한 향기(香氣)가 방안에 가득하였는데, 3·7일 지난 후에야 비로소 사라졌다. 제자인 원준<sup>108)</sup>과 인영<sup>109)</sup> 등이 화장한 다음, 영골(靈骨) 일편(一片)과 사리(舍利) 삼과(三顆)를 얻어 보현사(普賢寺)와 안심사(安心寺)에

쳐 세운 비(1632)에는 세수 85세, 법랍 67하이며, 장유 찬 해남 대흥사비(1361)에는 세수 85세, 전랍 65하이로, 이우신(李雨臣) 찬 밀양군(密陽郡) 무안면(武安面) 흥제사(弘濟寺)에 세운 비(1742)에는 세수 85세, 법랍 65하이로, 서유린(徐有鄰) 찬 해남 대흥사에 세운 기적비(1791)에는 세수 85세, 법랍 65하이로, 운허용하(耘虛龍夏)의 『불교사전』에는 세수 85세, 법랍 67하이로, 보련각판(寶蓮閣版) 불교사전에도 세수 85세, 법랍 67하이로, 유독 『한국불교인명사전韓國佛教人名辭典』에는 세수 85세, 법랍 70하로 전하고 있어 법랍설이 일정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스님의 법랍은 65하, 67하, 70하 등 3가지 설이 있다. 계곡 장유가 지은 「해남대흥사비문」에 따르면 “師年二十一歲 投崇仁長老落髮 從一禪和尚受戒 時嘉靖庚子(1540) 師年二十一歲矣”라 하였으므로 세수 85세, 법랍 65하설이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106) [總覽]에는 附이고 [楡誌]에는 付이니, 이는 相通하는 字이므로 兩字 모두 무방하나 비문에 附이므로 附字가 옳다.
- 107) [楡誌]에는 雲과 訖字 사이에 處英이라는 二字가 있으나 [總覽]에는 탈락됨.
- 108) 원준(圓峻) : 峻은 俊으로도 씀. 1530~1619. 휘는 원준(圓俊), 호는 완허(玩虛), 속성은 표씨(表氏). 홍원(洪原, 함경남도 중앙에 위치한 洪原郡. 1914년에는 홍성군이라 하였다) 구월산(九月山)에 가서 스님이 되었다. 그 후 휴정의 문하(門下)에서 10여년간 배우고 그의 법을 이어 받았는데 한불전7, p.653c에 따르면 휴정으로부터 받은 전법계(傳法偈)는 다음과 같다. “法本無法 無法法亦法 今付無法法 令法永不絕”이라 하였다. 휴정스님이 입적한 후, 그의 뒤를 이어 학인(學人)을 지도하다가, 1619년 보현사(普賢寺)에서 입적하였다. 화장 후 사리를 거두어 사리석종비(舍利石鍾碑)를 보현사에 세웠다. 『청허집淸虛集』권3(全書)제7책 p.702a)에 휴정스님이 조사심요(祖師心要)를 원준대사에게 준 「조사심요증원준대사祖師心要贈圓俊大師」라는 글이 실려있다.
- 109) 인영(印英) : 편양언기(鞭羊彦機)의 비구계사(比丘戒師)이며, 서산스님의 제자.

부도를 세우고 봉안(奉安)하였고, 또 영골 일편은 제자인 유정(惟政)과 자휴<sup>110)</sup> 등이 봉래산(蓬萊山)으로 모시고 가서 기도 끝에 신주(神珠) 수과(數顆)를 감득하여,<sup>111)</sup> 유점사 북쪽 백화암<sup>112)</sup>에 석종(石鐘)을 세우고 안치(安置)하였다.

異香滿室，三七日後始歇。弟子圓峻，印英等，闍維，奉靈骨一片，舍利三枚，樹浮圖於普賢，安心寺，又一片，弟子惟政，自休等，奉來蓬山，得神珠數枚，寔石于楡岾寺之北。

우리 동방의 태고화상<sup>113)</sup>이 중국 하무산<sup>114)</sup>에 들어가 석옥청공<sup>115)</sup>으로부

『청허집』권3([全書]제7책, p.702a)에 인영대사(印英大師)에게 지어 준 다음과 같은 선계(禪偈)가 있다. 증인영대사(贈印英大師) “西來這一曲 千古沒人知 韻出青霄外 風雲作子期”라 하였다. 채영(采永)이 지은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한불전10, p.104c)에 의하면 청허휴정(淸虛休靜)의 법사(法嗣)로 현빈인영(玄賓印英)이 완허원준(玩虛圓俊)·송운유정(松雲惟政)과 나란히 거명(擧命)되어 있고 인영의 제자로는 원응석언(圓應釋彦)이 있었다고 한다.

- 110) 자휴(自休) : 서산스님의 제자 천여명(千餘名) 중 명가명자(名可名者)인 칠십여인(七十餘人) 중의 한 사람. 채영(采永)의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한불전10, p.105a)에 청허 휴정의 제자로 청련자휴(靑蓮自休)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으나 자세한 전기는 알 수 없다.
- 111) 득신주수매(得神珠數枚) : 유정·자휴 등이 스님의 유골 일편(一片)을 얻어 금강산으로 와서 기도(祈禱) 끝에 다시 신주(神珠·舍利) 수과(數顆)가 출현(出現)하였으므로 유점사(楡岾寺)의 북쪽 백화암(白華庵)에 봉안하였다.
- 112) 유점사지북(楡岾寺之北) : 표훈사의 소속인 백화암을 지칭함.
- 113) 태고(太古) : 보우(普愚)의 호이다.
- 114) 하무산(霞霧山) : 중국 절강성(浙江省) 오흥현에 있는 산 이름. 1347년 7월 태고보우스님이 하무산 천호암(天湖庵)에서 석옥청공(石屋淸珙)스님을 친견하고 그의 법(法)을 이어 받았다.
- 115) 석옥(石屋) : 석옥청공선사(石屋淸珙禪師)이니, 「원증국사비문(圓證國師碑文)」주 49) 석옥공선사石屋珙禪師 본서 p.642 참조.

터 법을 이어받아 귀국한 후, 환암혼수<sup>116)</sup>에게 전수하였고, 환암은 귀곡각운<sup>117)</sup>에게 전해 주었으며, 귀곡은 벽계정심<sup>118)</sup>에게 전수하였고, 정심은 벽송지엄<sup>119)</sup>에게 전하였으며, 지엄은 부용영관(芙蓉靈觀)에게 전하였고, 영관은 서산에게 전하였으니, 이것이 실로 임제종(臨濟宗)의 정파(正派)인 것이다. 그러므로 서산스님만이 오직 홀로 그 종맥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스님의 저서<sup>120)</sup>로는 『선가귀감禪家龜鑑』, 『선교석禪教釋』, 『운수단雲水壇』 각 일권(一卷)과 『청허당집淸虛堂集』 팔권 등이 세상에 유행(流行)하고 있다.

吾東方太古和尚，入中國霞霧山，嗣石屋而傳之幻庵，幻庵傳之龜谷，龜谷傳之正心，正心傳之智嚴，智<sup>121)</sup>嚴傳之靈觀，靈觀傳之西山，此實臨濟之正派。而惟西山獨得其宗云。所著，禪家龜鑑，禪教釋，雲水壇，各一卷，淸虛堂集八卷，行于世。

슬프다! 스님의 도에 대하여는 내가 비록 그 천심(淺深)을 자세히 알지

116) 환암(幻庵): 혼수(混修)의 호이다. 혼수 참조.

117) 귀곡(龜谷): 각운(覺雲)의 법호이니, 각운 참조.

118) 정심(正心): 호는 벽계(碧溪). 휘는 정심, 속성은 최씨(崔氏), 김산(金山) 출신. 명 나라에 들어가서 임제종 총통화상(總統和尚)의 법을 받고 귀국한 후 불교의 탄압으로 황악산(黃岳山) 고자동에서 은거하고 있다가 벽송지엄(碧松智嚴)에게 법을 전해 주어 법통을 계승시켰다.

119) 지엄(智嚴): 지엄(智嚴)이니 벽송의 법호이다.

120) 소저(所著): 휴정의 저술로는 ①선가귀감(禪家龜鑑), ②삼가귀감(三家龜鑑), ③선교석(禪教釋), ④선교결(禪教訣), ⑤운수단(雲水壇), ⑥설선의(說禪儀), ⑦조사심요(祖師心要), ⑧벽송행략(碧松行略), ⑨심법요초(心法要抄), ⑩회심곡(回心曲), ⑪서산대사비결(西山大師秘訣), ⑫청허당집(淸虛堂集) 등이 있다.

121) [檢誌]와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以下 [史料]라 略稱한다)에는 智. [總覽]의 知는 智의 오자임.

못하지만, 스님의 유고(遺稿)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완미(玩味)하고 또한 읽어 보았다. 시를 읽어 보았으므로 족히 스님께서 자득(自得)한 취지(趣旨)를 알 수 있으며, 글을 읽어 보았으므로 넉넉히 스님의 조예(造詣)의 경지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문장 중 어세(語勢)가 간혹 아순(雅馴)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sup>122)</sup> 언언(言言)이 모두 살아 있으며, 구구(句句)가 날아 움직이고 있어, 마치 고검(古劒)이 칼집에서 나온 것과 같고, 상풍(霜風)이 횡횡 불어오매 왕왕(往往) 살결을 오려 내는 듯 혹독한 추위와 같음을 느낀다.

噫，師之道，余雖未詳其淺深，師之稿，余既玩繹而卒業矣。觀乎詩，足以知師自得之趣，觀乎文，足以知師造詣之高。雖其語，或不雅馴，言言皆活，句句飛動，有似古劒出匣，霜風颯然，逞逞酷似。

개원<sup>123)</sup> 과 대력<sup>124)</sup> 년간에 저 혜휴법사<sup>125)</sup> 와 도림선사<sup>126)</sup> 가 하산하여 호국

122) 불아순(不雅馴): 서산스님의 시(詩)는 대개 선시(禪詩)가 많으므로, 그 어세(語勢)가 강하고 파격적(破格的)이어서 우아하거나 순화(順和)하지 않다는 뜻이다.

123) 개원(開元): 개원년간이니, 개원은 당나라 현종대(玄宗代)의 연호로서 713~741년 사이.

124) 대력(大曆): 대력년간이니, 대력은 당나라 대종대(代宗代)의 연호로서 766~779년 사이.

125) 혜휴(惠休): 혜휴(慧休)법사(法師)이니, 생몰연대(生沒年代)는 알 수 없다. 속성은 악씨(樂氏). 16살 때 옥율사(勗律師)를 은사로 하여 스님이 되었다. 계행(戒行)이 청정(淸淨)하고 경율(經律)에 정통하였을 뿐 아니라, 수행도 철저하여 항상 두타행(頭陀行)으로 미투리 한 켤레로 30년을 신었다고 한다(著一麻鞋 經三十年 遇軟地則赤脚 人間之故 答曰 信施難消). 무덕년간(武德年間 618~626)에 유달(劉闡)이 반역(叛逆)함에 대소관민(大小官民)은 성(城)을 버리고 도망갔으나, 혜휴스님만은 제자와 학사(學士)를 모아 사수(死守)하였다. … 그리고 적진(賊陳) 중에 혼자 가서 조공(曹公)과 서세적(徐世勣) 장군(將軍) 등을 설득하여 난

(護國)하였던 사실은 논하지 않더라도, 스님은 국난을 만나 승가(僧伽)로서 지켜야 할 직분을 잃지 않고, 전국 모든 스님들을 결집시켰다.<sup>127)</sup> 주상(主上)께서 스님이 유설 중<sup>128)</sup>에 있는 줄 아시고, 스님의 원고(原稿)를 가져오게 하여 시를 한 수 지어서 보이라는 영광된 어명(御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sup>129)</sup> 선조대왕이 시와 묵화(墨畵)를 하사하였으니,<sup>130)</sup> 이는 참으로 천고(千古)에 없는 특수(特殊)한 권애(眷愛)라 하지 않을 수 없다.

(亂)을 평정(平靖)하였다. … 정관(貞觀)9년(635)에 당태종(唐太宗)이 여러 차례 궁중(宮中)으로 불렀으나, 끝내 병(病)을 핑계하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정관 19년(645)에 입적하니 세수가 98세였다. 그러나 혜휴는 개원년간의 스님이 아니고, 무덕년간에 활동한 스님이다. 『속고승전』권15(대정장50, pp.544b~545b).

- 126) 도림(道林): 진(晉)의 스님. 휘는 지둔(支遁). 자는 도림. 속성은 관(關)씨. 진유(陳留) 사람. 혹은 하동임려(河東林慮) 출신이라고도 한다. 지형산(支硎山)에서 은수(隱修)하였으므로 세인(世人)들이 지림공(支林公)·지형(支硎)이라고 일컬었다. 여항산(餘杭山)에 은거(隱居)하였고 애제(哀帝) 때 낙양(洛陽) 동안사(東安寺)에서 지내다가 동진(東晉)의 태화원년(太和元年:366) 윤(閏) 4월 4일 요오산(姚烏山)에서 세수 53세로 입적하였다. 그러나 도림전사는 대력연대(大曆年代:766~779)의 스님이 아니고, 태화년간(太和年間:366~370)에 활동한 스님이다. 『고승전高僧傳』권4(대정장50, pp.348b~349c).
- 127) 불실기수내능결(不失其守乃能結): 국난(國難)을 당하여 승가(僧伽)로서 지켜야 할 수도(修道)의 직분을 지키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능(能)히 의승병(義僧兵)을 결집(結集)하였다는 말이다.
- 128) 유설지중(縹緲之中): 유설(縹緲)과 같은 말. 유는 죄인(罪人)을 결박하는 흑색(黑色)으로 된 포승(捕繩) 줄. 설은 소나 말을 잡아 매는 것. 마우(馬牛)의 고삐 설자이다. 서산스님이 기축년(己丑年)의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謀叛事件)에 연루되어 체포되어 있었으므로 유설지중이라 하였다.
- 129) 명제지영(命製之榮): 선조대왕이 스님의 시고(詩稿)를 살펴보고, 재주가 뛰어난 천재(天才)이므로 어떤 영광(榮光)을 주기 위하여 시(詩)를 짓도록 명(命)하였다는 뜻이다.
- 130) 어필시화지사(御筆詩畵之賜): 선조대왕께서 친히 시와 묵죽(墨竹)을 그려서 하사(賜)하였다는 말이니, 본비문 주73) 어화묵죽사지御畵墨竹賜之 p.681 참조.



開元大曆，渠家惠休道林，不論也，況也遇患難，不失其守，乃能結。主，知於縲紲之中，徵稿，命製之榮，御筆詩畫之錫，誠千古所未有之殊眷。

그 후 국난을 당해서는<sup>131)</sup> 의승병<sup>132)</sup>을 규합하여 명군<sup>133)</sup>을 도와 삼도<sup>134)</sup>를 수복하고, 대가(大駕)를 모시고 서울로 환도케 한 다음,<sup>135)</sup> 곧 도총섭의 수인을 반납하고 옷소매를 떨치며 산으로 돌아갔으니, 스님께서 가졌던 그 충절은 고인(古人)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귀감(龜鑑)이다.

而逮乎國難，糾<sup>136)</sup>義旅，<sup>137)</sup>助天兵，收復三都，迎還大駕，便納賜印，拂衣還山，其出處之節，無愧古人。

대저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들 시기를 만나 임금의 부름을 받아 공명(功名)을 세워 널리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지 않으리오마는,<sup>138)</sup> 재주와 역량(力量)을 가지고도 그것을 펴지 못하고, 죽은 후 아무런

131) 체호국난(逮乎國難): 국난을 당함에 있어서라는 뜻이니,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했다는 말이다.

132) 의려(義旅): 정규군(正規軍)이 아니고, 자발적(自發的) 의거(義舉)로 집합한 군사이니, 곧 의승병을 지칭함.

133) 천병(天兵): 명나라의 천자가 보내온 응원병(應援兵)을 말한다.

134) 삼도(三都): 평양(平壤; 西京), 개성(開城; 開京), 한성(漢城; 京城)을 지칭함.

135) 영환대가(迎還大駕): 선조대왕을 호종(扈從)하여 서울로 환도(還都)하였다는 뜻이다.

136) [楡誌]에는 糾, [總覽]의 糾는 糾의 오자임.

137) [總覽]에는 旅와 收字 사이에 助天兵이라는 三字가 있으나, [楡誌]에는 없으니 [楡誌]에는 故意로 탈락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138) 숙불욕우지(孰不欲遇知): 이 세상에 누구인들 임금의 총애(寵愛)를 받고, 자신의 공훈(功勳)을 세상에 크게 알리고자 하지 않으리오라는 뜻이다.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자에게 어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겠는가! 이제 산중의 한 스님으로 능히 그 이름이 구중<sup>139)</sup> 궁궐에만 들렸을 뿐 아니라 멀리 후세에까지 그 명성이 떨치게 되었으니, 누가 선문<sup>140)</sup>의 일개 스님으로서 능히 이같은 위업(偉業)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비명의 내용이 이와 같으니<sup>141)</sup> 비문을 쓰는 나의 붓이 부끄럽지 않겠는가. 명하여 이르되,

夫士生斯世，孰不欲遇知於時君，立功名以自顯，然而抱才不售，沒世無聞者，何限。今以山中一緇衣，乃能名達九重，聲施後世，孰謂禪門，能辦此功業歟，銘如是，不媿<sup>142)</sup> 吾筆歟，其銘曰，

우리나라 서쪽 지방 청천강(淸川江) 상류,<sup>143)</sup>  
 험준(險峻)하고 공기(空氣)맑은 살수의 곁에,<sup>144)</sup>  
 천지간의 맑고 맑은<sup>145)</sup> 기운이 보여,<sup>146)</sup>

139) 구중(九重): 구중궁궐(九重宮闕)의 줄임말이니, 왕궁을 가리킨다.

140) 선문(禪門): 불문(佛門)과 같은 말이니, 스님이라는 뜻이다.

141) 명여시(銘如是): 비명에 담긴 업적이 이와 같이 위대(偉大)하다는 말이다.

142) [總覽]의 媿와 [楡誌]의 愧는 같은 字이다.

143) 금천(金天): 위치를 알 수 없다. 혹시 김천(金川)이 아닌가 싶다. 김천은 평안남도 순천군 자산면 덕반리(현재의 평양시 자모리)이니 여기가 서산스님의 고향(故鄉)이다.

144) 살수(薩水): 평안남북도의 경계(境界)를 흐르는 지금의 청천강으로 짐작되는데, 612년 수(隋) 양제(楊帝)의 침입군을 을지문덕(乙支文德)이 살수에서 격퇴시켰던 적이 있다.

145) 숙기(淑氣): 선(善)한 기운. 봄날의 화창한 기운. 봄의 맑은 기운이니 곧 정기(精氣)를 말한다.

146) 정독(亭毒): 정독(亭篤)과 같은 뜻이니 정육(亭育)이라고도 한다. 독은 독(篤)의

나라 위해 무위진인<sup>147)</sup> 탄생하였네!

金天之西,  
薩水之濱,  
淑氣亭毒,  
乃降真人.

어떤 노파 주문외고 이마만졌고,<sup>148)</sup>

노스님은 운학이라 이름지었다.<sup>149)</sup>

하늘 열려 보배 광명 뻗치었으며,<sup>150)</sup>

천제(天帝)께선 난세(難世) 구할 인물내셨네!<sup>151)</sup>

차자(借字)이다. 형화(形化)하여 기르는 것. 화육(化育)한다는 말이니, 정은 형(形)을 주어 구별하는 것. 독은 질체(質體)를 이루는 것이다. 또 정은 평(平)이고, 독은 독(篤)이니, 평은 성장(成長)하는 것이며, 독은 성숙(成熟)하는 것을 말한다. 『노자』 51장에 “故道生之 德畜之 長之育之 亭之毒之 養之覆之”라 하였다.

147) 진인(真人): 무위진인(無爲真人)의 줄임말이니, 여기서는 서산(西山)스님을 지칭함.

148) 선과포송(仙婆抱送): 스님의 모친(母親) 김씨(金氏)가 늦게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어느 날 밤 꿈에 배태(胚胎)한 아이가 장부(丈夫)이므로 어머니를 위하여 축하(祝賀)하러 왔다고 하는 태몽을 말한다.

149) 석노제휴(釋老提携): 서산스님이 3살 때, 한 노스님이 와서 소사문(小沙門)을 만나러 왔다면서, 두 손으로 아이를 들고 주문(呪文)을 읽어주고는 이마를 만진 다음, 이 아이의 이름을 운학(雲鶴)이라고 하라는데서 온 말이다.

150) 보광(寶光): 도가(道家)에서 천상(天上)에는 있는 광명(光明)을 말하는데, 『운급칠첩雲笈七籤』 “清上境 妙化難思 九色寶光 不假日月 無有晝夜 亦無去來”라 하였다.

151) 금비(金鰲): 금비팔목(金鰲刮目)의 줄임말. 금으로 만든 작은 칼. 안질환자(眼疾患者)의 안막(眼膜)을 끌어 내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구 곧 도규(刀圭)이다. 『북사北史』 「장원전張元傳」에 따르면 “元有孝行 其祖喪明 請七僧 然七燈 七日七夜 言元爲孫不孝 使祖喪明 今以燈光 普照法界 願祖見明 元求代闇 經七日 其夜夢 一

仙婆抱送,  
釋老提携.  
天開寶光,  
帝借金鏡.

숙세(宿世)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깊어<sup>152)</sup>

몸과 마음 비범(非凡)하게 뛰어났도다.<sup>153)</sup>

명석(明皙)하신 그 재조(才操)는 진주(眞珠)와 같고,<sup>154)</sup>

영웅적(英雄的)인 그 기백(氣魄)은 추상(秋霜)과 같네!<sup>155)</sup>

靈符紗契,  
秀骨超凡.  
蚌珠出海,  
龍鏡發函.

老翁 以金鏡 療其祖目 目果明”이라 하였고, 40卷本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권 8(대정장12, p.411c20)에는 “佛言 善男子 如百盲人 爲治目故 造詣良醫 是時良醫 卽以金鉈 決其眼膜 以一指示 問言見不 盲人答言 我猶未見 復以二指 三指示之 乃小見 善男子 是大涅槃微妙經典 如來未說 亦復如是”라 하였다. 40권본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권35(대정장10, p.825c17)에 “菩提心者 猶如金鉈”라 하였다. 여기서의 금비는 서산스님의 법력을 상징(象徵)하는 주장자(柱杖子)를 가리킨 듯하다.

152) 영부묘계(靈符妙契): 선천적(先天的)으로 타고난 재주가 뛰어났다는 말이다.

153) 수골초범(秀骨超凡): 골격(骨格)과 생김새가 특출하여 범부(凡夫)와 달랐다는 뜻이다.

154) 방주(蚌珠): 조개로부터 추출되는 구슬이니 진주(眞珠)를 말하는데 스님의 출생(出生)을 경하(慶賀)하는 말이다.

155) 용경(龍鏡): 용(龍)의 여의주(如意珠)로 만들어진 거울이니, 맑고 투명하게 비추는 이상적인 거울이다.

조실부모한 다음에 고아가 되어,<sup>156)</sup>

상경(上京)하여 반재에서 공부를 하다.<sup>157)</sup>

제자백가 빠짐없이 통달하였고,<sup>158)</sup>

참선(參禪)하여 탁연(卓然)하게 자립하였네!

失怙無依,

千里負笈.

淹貫諸家,

卓然自立.

용맹정진(勇猛精進) 수행하여 깨닫고 나서,<sup>159)</sup>

법상(法床)위에 높이 앉아 설법하도다.

제불제조(諸佛諸祖) 마음달을 거듭 비추어,

중생들의 번뇌망상 녹여주셨네!<sup>160)</sup>

乃超覺路,

遂登法席.

祖月重輝,

156) 실호무의(失怙無依): 서산스님이 9살에 어머니가 죽고,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 영정무소의(伶仃無所依)하여 고애자(孤哀子)가 되었다는 말이다.

157) 천리부급(千里負笈): 서산스님 고향인 고을 수령(倅令)의 주선으로 그를 따라 서울로 가서 반재(泮齋)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158) 엄관제가(淹貫諸家): 엄관이란 그 책의 내용(內容)에 탐닉(耽溺)하여 그 뜻을 관통하였다는 말이니, 불교는 물론 제자백가서에도 깊이 통달하였다는 말이다.

159) 내초각로(乃超覺路): 깨달음의 길을 뛰어넘었다는 말이니, 견성오도(見性悟道)를 하였다는 뜻이다.

160) 군혼일획(群昏一廓): 군생(群生)들의 혼매(昏昧)한 무명을 모두 확연(廓然)히 녹여 주었다는 말이다.

羣昏一廓.

참선하는 여가시간(餘暇時間) 선시(禪詩)를 읊어,

시의 명성(名聲) 널리 퍼져 왕께 들렸네!<sup>161)</sup>

선조대왕 시를 보고 감탄하고서,<sup>162)</sup>

내려주신 그 은총(恩寵)은 길이 빛나다.<sup>163)</sup>

餘事詩聲,

上徹楓宸.

殊恩異渥,

榮耀千春.

몸은 비록 산중에서 수도(修道)하지만,

충성심은 임금결을 떠난 적이 없네!

국난당해 선조왕의 부름을 받고,<sup>164)</sup>

의승병은 구름처럼 모여들었네!

身雖巖穴,

忠不忘君.

---

161) 풍신(楓宸): 천자가 거(居)하는 곳. 곧 조정(朝廷)·궁전(宮殿)·어전(御殿) 등을 지칭함이니, 한(漢)나라 때 궁전(宮殿) 중에 단풍나무를 심은 데서 온 말이다.宸은 대궐 신字이다.

162) 수은(殊恩): 임금의 특별한 은총(恩寵).

163) 이악(異渥): 다른 어떤 공신(功臣)보다도 선조의 은총이 특이(特異)하게 윤택하고 많았다는 말이다.

164) 우난일호의려여운(遇難一呼義旅如雲): 국난을 만나 선조대왕의 부탁을 받고 격문을 전국(全國) 스님들에게 돌렸는데, 의승병이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는 뜻이다.

遇難一呼,  
義旅如雲.

젊은이는 출전(出戰)하여 적과 싸우고,<sup>165)</sup>  
노승들은 기도하여 불력(佛力)을 빌다.<sup>166)</sup>  
오물(汚物)같은 왜적들을 소탕하고서,<sup>167)</sup>  
국가민족(國家民族) 편안하고 복되게 하다.

協助天戈,  
憑伏靈佑.  
驅除腥穢,  
福我寰宇.

산을 나와 이 민족을 구제하시니,<sup>168)</sup>  
그 이름이 국내외에 진동하도다.<sup>169)</sup>

- 
- 165) 천과(天戈): 천병(天兵)이란 말로서, 명나라 천자인 신종이 보내온 응원군을 지칭함이니 본비문 주133)천병天兵 p.693 참조.
- 166) 병복영우(憑伏靈佑): 불신(佛神)의 호조(護助)를 받도록 기도하겠다는 말. 임진왜란 때, 선조가 서쪽 용만(龍灣)으로 피난갔을 때, 서산스님은 칼을 쥐고 진알(進謁)하였다. 이 때 선조는 감격하여 스님에게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도울 수 없겠느냐? 하고 부탁하자, 스님이 전국(全國)스님들 중에 늙고 병들어서 항오(行伍)의 대열(隊列)에 감내하지 못할 스님은 현지(現地)에 있으면서 기도하여 삼보(三寶)의 가호(加護)와 신령(神靈)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테서 온 말이다.
- 167) 성예(腥穢): 성오(腥汚)와 같은 말이니, 누린내 나고 더러운 것. 악취가 진동하는 더러운 오물(汚物)이니, 왜적(倭賊)을 지칭하는 말이다. 「표충사서산대사비문表忠祠西山大師碑文」 주107)예성穢腥 [조선편1] p.278 참조.
- 168) 환우(寰宇): 세계(世界)·천하(天下)·우내(宇內)·우주(宇宙) 등의 뜻이나, 여기서 복아우내(福我宇內) 곧 우리 나라를 복되게 하였다는 뜻이므로 국가 또는 국내라는 뜻이다.

산에 들어 문을 닫고 수도함에는,  
정법안장(正法眼藏) 천양(闡揚)하는 종사(宗師)이시다.

出而濟世,  
名動華夷.  
入而修定,  
法闡宗師.

손바닥에 놓여 있는 밝은 구슬은,<sup>170)</sup>  
허명하고 영롱(玲瓏)하여 아름답도다.  
굴욕이건 영광이건 그 모든 것은,  
한결같이 허무(虛無)하여 몽환(夢幻)인 것을!

在掌明珠,  
虛明自玩.  
儻來榮辱,  
如夢一幻.

묘향산(妙香山)을 바라보고 옛 일을 추억(追憶),  
금강산(金剛山)과 두류산(頭流山)을 두루 밟았네.  
곳곳마다 편안하여 자심(自心)이 정토(淨土),  
우리 법왕(法王) 안 계신곳 전혀 없도다.<sup>171)</sup>

169) 화이(華夷): ①화는 중국, 이는 사방(四方)의 외국(外國). ②화는 중국, 이는 동(東)쪽인 일본(日本). ③화는 국내의 중앙이니 서울, 이는 각지방(各地方)을 말한다.

170) 재장명주허명자완(在掌明珠虛明自玩): 지장보살의 장상명주(掌上明珠)와 같이, 스님의 손에 있는 밝은 구슬은 맑고 밝아 스스로 완상(玩賞)한다는 말이니, 스님이 수도(修道)하여 얻은 자재무애한 법력(法力)을 가리킨다.



瞻彼紗香,  
與夫金剛.  
寔惟淨界,  
宜我法王.

제천(諸天)으로 왕래하는 스님의 경지,  
팔부신장(八部神將) 호위(護衛)하여 걸림이 없네!  
이 세상의 인연(因緣)다해 돌아가시니,<sup>172)</sup>  
원적(圓寂)하온 열반세계(涅槃世界) 거래(去來)가 없네!<sup>173)</sup>

來往諸天,  
百靈護持.  
乘化返眞,  
去又何之.

구국(救國)하신 그 공적(功績)은 인간에 두고,<sup>174)</sup>  
수도하던 그 자취는 산중에 있네!<sup>175)</sup>  
한 조각의 돌을 갈아 비를 세우니,<sup>176)</sup>

- 
- 171) 아법왕(我法王): 우리 법왕이란 말로, 서산스님을 지칭한다.  
172) 승화반진(乘化反眞): 대화(大化)를 타고 진적(眞寂)의 세계로 돌아 갔다는 뜻이니, 열반에 들어갔다[入寂]는 말이다.  
173) 거우하지(去又何之): 스님이 가시면 또 어느 곳으로 가십니까?라는 뜻이니 생사(生死)를 초월한 열반의 경지는 가고 오는 왕래의 자취가 없다는 말이다. 곧 내무소종(來無所從)이요 거무소거(去無所去)라는 말이다.  
174) 공기인간(功紀人間): 공훈(功勳)은 세상에 남겼다는 뜻이다.  
175) 도재산중(道在山中): 도는 산중에서 얻었다는 말이다.  
176) 정민(貞珉): 곧고 아름다운 돌이니, 이러한 돌은 비석(碑石)의 재료(材料)로 쓰

천만년(千萬年)이 지나도록 우뚝 하소서!

功紀人間,  
道在山中.  
一片貞珉,  
萬古英風.

황명<sup>177)</sup> 숭정 5년<sup>178)</sup> 3월 10일 언기(彦機)와 쌍홀(雙仵)이 세우다.

皇明, 崇禎五年, 三月十日, 彦機, 雙仵, 立.

[以下 陰記는 『유점사본말사지楡岾寺本末寺誌』에 의하여 補入]

#### 【음기陰記】

余嘗讀清虛遺稿 粗窺其聲響而與爲序引 今年遊楓岳 循覽遺蹟 其徒弟諸禪宿 往往仍守師乘 傳誦緒言 便覺老師高風逸韻 而不離溪聲山色之中 爲之爽然者屢矣 及其見月沙相公所撰 序銘 發揮老師平素 與其功烈 及於國家者至詳備 不但光耀禪門 爲鎮山寶而已 始師住此山最久 內外伽藍 法席殆遍 今碑在

---

이게 되므로 비석을 정민이라고도 한다. 「사명대사석장비문」 주266) 완엽사전琬琰斯鐫 [조선편1] p.137 참조.

177) 황명(皇明): 명나라 의종황제(毅宗皇帝)를 지칭함.

178) 숭정오년(崇禎五年): 숭정은 명나라 의종대(毅宗代)의 연호이고, 5년은 조선 인조(仁祖) 10년(1632)으로서, 본지 서산스님 비(碑)를 1630년에 세웠으나, 2년 후에 다시 비문을 보완(補完)하여 1632년에 세웠다.

表訓寺之南若干步 乃此山第一洞門也 沙門彦機葆真雙仵等  
 方議建影堂于寺側 爲晨夕頂禮之所 又樹碑香山 并刻相公文  
 及梓其集 傳諸世 皆由機等唱率 訖功而意猶未已 噫 吾黨之士  
 平日挾策 從賢師友遊 非不盛 及其死而遂泯其跡 有愧于此沙  
 門者 亦多矣 寧可以異學 別歧而少之哉

崇禎壬申 庚夏 旬日

德水 李植 謹識

문정.

유정, 처영, 원준, 일선,  
 법용, 일학, 영지, 행주,  
 일휴, 해일, 회감, 선수,  
 경헌, 인영, 태성, 보명,  
 보원, 행순, 경천, 혜조,  
 혜은, 의영, 영주, 선록,  
 영준, 고운, 혜근, 설잠,  
 보운, 영잠, 천규, 담언,  
 성정, 태능, 태호, 계훈,  
 충휘, 각성, 수일, 혜구,  
 흥신, 쌍인, 쌍운, 희옥,  
 법견, 해안, 응상, 보진,  
 언기, 육허, 쌍흠, 보희,  
 수덕.

門庭.

惟政, 處英, 圓峻, 一禪,

法融, 一學, 靈芝, 行珠,  
 日休, 海日, 熙鑑, 善修,  
 敬軒, 印英, 太成, 普明,  
 普願, 行淳, 敬天, 惠照,  
 惠峇, 儀瑩, 靈珠, 禪勒,  
 英俊, 孤雲, 惠斤, 雪岑,  
 普雲, 靈岑, 天奎, 曇彦,  
 性正, 太能, 太湖, 戒熏,  
 冲暉, 覺性, 守一, 慧球,  
 弘信, 雙印, 雙運, 熙玉,  
 法堅, 海眼, 應祥, 葆眞,  
 彦機, 六虛, 雙仵, 寶希,  
 修德.

#### 문조.

송계, 유제, 영숙, 의심,  
 이름, 경운, 학눌, 지명,  
 도일, 성인, 태엄, 석민,  
 홍민, 의성, 수감, 영운,  
 천은, 언이, 승우, 의영,  
 계휘, 단려, 보경, 유현,  
 성웅, 설청, 천일, 자수,  
 보정, 계진, 태인, 책준,  
 쌍채, 혜당, 신혈, 각상,  
 신연, 신변, 의휴, 지엄,

밀운, 현중, 담원, 영일,  
상은, 지휘, 모하, 희인,  
혜능, 법진, 혜인, 묘엄,  
득일, 일암, 경잠.

門助.

松桂, 惟齊, 靈淑, 儀謹,  
頤凜, 敬允, 學訥, 智明,  
道一, 性仁, 太嚴, 釋敏,  
弘敏, 儀誠, 守鑑, 靈運,  
天隱, 彦怡, 勝佑, 儀英,  
戒暉, 端慮, 寶瓊, 惟獻,  
性應, 說清, 天日, 自修,  
普正, 契眞, 太仁, 策俊,  
雙諦, 惠塘, 神歇, 覺祥,  
信衍, 信卞, 儀休, 智嚴,  
密雲, 玄宗, 淡元, 英一,  
尙崙, 智暉, 暮霞, 熙印,  
慧能, 法眞, 慧仁, 妙嚴,  
得一, 一庵, 敬岑.

시주질.

생원 이준구,  
절충장군용양위부호군 장홍익 외,  
경기 각월등 155인,  
황해 조대군등 66인,

강원 윤응운등 38인,  
 함경 조용수등 19인,  
 합도 임오용등 18인,  
 변수 법륜, 일선, 쌍호, 인기,  
 설의, 안규,  
 각수 이성민, 김득선,  
 별좌 묘암, 영일,  
 화주 혜통, 쌍희, 인현,  
 주지 만우,  
 문인 상징, 근서.

施主秩.

生員 李俊者,  
 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 張弘翼 外,  
 京畿 覺月等 百五十五人,  
 黃海 趙大君等 六十六人,  
 江原 尹應雲等 三十八人,  
 咸鏡 趙龍水等 十九人,  
 合道 林五龍等 十八人,  
 邊手 法輪, 一禪, 雙湖, 印機,  
 雪宜, 案珪,  
 刻手 李聖民, 金得先,  
 別坐 妙岩, 靈一,  
 化主 慧通, 雙熙, 印玄,  
 住持 萬雨,  
 門人 尚澄, 謹書,

비동측.

영감등 137인,

평안 이억용등 81인,

황해 박미생등 82인,

신목, 덕희, 태순, 의일,

성목, 보해, 승우, 학연,

옥련, 태균, 정호, 혜원,

혜기.

碑東側.

靈甘等 百三十七人,

平安 李億龍等 八十一人,

黃海 朴美生等 八十二人,

信默, 德熙, 太淳, 儀日,

性默, 普海, 崇祐, 學衍,

玉鍊, 太均, 正浩, 惠元,

惠機.

비서측.

청허당부도 후록 대시주 평양 김희신등 46인,

중화 오년금등 19인,

황주 한득남등 56인,

경성 심씨등 22인,

곡산 강대해등 3인.

碑西側

淸虛堂浮屠 後錄 大施主 平壤 金希神等 四十六人,

中和 吳年金等 十九人,  
黃州 韓得男等 五十六人,  
京城 沈氏等 二十二入,  
谷山 姜大海等 三人.

[揭載]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下, pp.852~855.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下, pp.255~261.

『유점사본말사지楡岾寺本末寺誌』(亞細亞文化社版), pp.505~511.





## 附錄 부록





## 01.고성신계사비구니낙암당사신비문

高城神溪寺比丘尼洛庵堂思信碑文

(1664~1765)

있는 곳 :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 창대리 금강산 신계사

세운 때 : 조선 영조 43년 정해(1767)

所在 : 江原道 高城郡 新北面 倉垈里 金剛山 神溪寺<sup>1)</sup>

年代 : 朝鮮 英祖 四十三年 丁亥(1767)

낙암당 비구니 수좌 사신의 부도비[비양]<sup>2)</sup>

洛庵堂尼首座思信之浮屠碑 [碑陽]

【碑陰】

스님은 경성<sup>3)</sup>사람으로, 속성은 강(姜)씨이며 □□□의 딸이다. 강희갑

\* 『유점사본말사지楡岾寺本末寺誌』에 게재된 [비문]을 저본(底本)으로 함.

\* 찬자(撰者) : 전하지 않는다.

1) 신계사(神溪寺) : 금강산 외금강에 있다. 신라 법흥왕 6년(519) 보문(普門)이 창건하고, 진덕여왕 7년(653) 김유신이 중수했다. 최근 대한불교조계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이 협력하여 복원불사를 마쳤다.

2) 비양(碑陽) : 비의 전면(前面)을 말한다. 본 비문의 경우, 비의 전면에 비문의 제목인 제액(題額)이 쓰여 있고, 뒷면(後面)에 비문의 전문(全文)이 새겨진 경우이다.

술년<sup>4)</sup>에 태어났는데, 약관(弱冠)에 이미 일찍부터 세속에는 뜻이 없었다. 이에 스스로 발심하고 서울 외곽의 종남산<sup>5)</sup> 미타암<sup>6)</sup>을 찾아가 법찬(法贊) 스님을 은사로 하여 스님이 되었다. 법찬은 교동인씨<sup>7)</sup>의 후손이다.

師京城人. 俗姓姜氏, □□□之女也. 師生于康熙甲戌, 而年至弱冠, 早有厭世之志. 而自投於京外終南山彌陀庵, 法贊尼師處, 削髮爲師. 法贊, 乃仁氏之後裔也.

스님의 나이와 뜻이 이미 어른이 되었으니, 뜻을 세운 장년의 나이에 염불과 독경을 부지런히 수행하였음은 물론 항상 베푸는 것(捨施)으로 공부를 삼았다. 부처님의 궁전을 고치는 불사에도 큰 공을 남겼다. 비록 비구니라 하지만, 장부의 사문(丈夫沙門)이라 함에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가벼운 병을 앓더니, 건륭을유년<sup>8)</sup> 6월 10일에 고요히 적멸의 세

3) 경성(京城): 서울을 말한다.

4) 강희갑술(康熙甲戌): 강희는 청나라 성조(聖祖: 재위 1661~1722)를 말한다. 강희갑술년은 조선의 숙종 20년(1694)이다.

5) 종남산(終南山): 서울 남산의 옛이름이다.

6) 미타암(彌陀庵): 현재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두무개)에 소재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미타사를 말한다. 888년(신라 진성여왕2) 대원(大原)이 창건하였고, 1115년(고려 예종10) 비구니 봉적(奉寂)과 만보(萬寶)스님이 금호동 골짜기에서 종남산으로 사찰을 옮기고 극락전을 세웠다. 1827년(순조7) 환신(幻身)이 무량수전(無量壽殿)을 세웠으며, 1862년(철종13) 인허(印虛)스님이 조대비(趙大妃)의 조력에 힘입어 극락전을 중창했다. 서울의 사대문 밖 비구니 사대승방(四尼寺) 중에 하나이다. 사대승방은 현 보문동의 탑골승방(普門寺), 숭인동의 새절승방(현 청룡사 靑龍寺), 석관동의 돌곶이승방(현 淸涼寺)과 두무개승방(현 彌陀寺)이다. 이 절들 중에 청룡사는 왕실의 여인들과 인연깊은 사찰이며, 단종이 유배시에 정순왕후와 이별한 곳이며 이후 궁녀들이 출가하여 딸날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지금도 비구니대중의 수행도량으로 정갈하게 전승되고 있다.

7) 교동(喬桐): 강화도의 서북 염주(鹽州)의 남쪽.

계에 돌아왔다.

師年志旣長，勤于念誦，捨施爲工，亦有佛殿改建之功。雖曰尼師，何愧於丈夫沙門也。乾隆乙酉六月十日，示微疾，因以歸寂。

문하 제자로 태희(太熙)·대은(大兪) 등의 제자들이 불교의 사문법<sup>9)</sup>에 따라 미타사의 동쪽 산기슭에서 다비(茶毗)<sup>10)</sup>하였는데, 이날 밤 산중(山中)에서 서광이 비쳐서 기이한 향기(異香)가 진동하므로 대중들이 이를 보고 경탄해 마지않았다. 화장 후 바위 사이의 소나무 가지에서 영골(靈骨)사리 일과를 얻었다. 문인들이 외금강산(外金剛山) 동쪽 신계사(神溪寺)의 아래쪽에 돌을 가려내어 부도를 세우고 사리를 봉안하였다. 건륭32년<sup>11)</sup> 정해 9월에 세웠다.

門弟子太熙大兪等，依沙門法，茶毗于終南之東嶺，是日夜，山中瑞□□，有異香，衆人驚異之。收得一枚靈骨於岩松上。門人，乃建浮屠，藏骨於金剛之東神溪寺之下，而伐石，略記其顛末云爾。乾隆三十二年丁亥九月日立。

[揭載 및 對校文獻] 『楡岾寺本末寺誌』 pp.257~258(亞細亞文化社刊, 1977).

- 8) 건륭을유(乾隆乙酉): 건륭은 청나라 고종(高宗: 재위 1735~1795)을 말하며, 을유는 조선의 영조41년(1765)이다.
- 9) 사문법(沙門法): 불교의 스님들이 행하는 다비의례(茶毗儀禮)를 말한다.
- 10) 다비(茶毗): 荼jhāpita, 사비(閼毗)·사유(闍維) 등으로 음사(音寫)하고, 화장(火葬)·분소(焚燒)·연소(燃燒) 등으로 한역(漢譯)한다.
- 11) 건륭삼십(乾隆三十二): 건륭은 청나라 고종(高宗: 재위 1736~1795)을 말하며, 30년은 조선의 정조 43년(1767)이다.



## 02.영변보현사비구니정유여대사비문

寧邊普賢寺比丘尼定有女大師碑文

(1717~1782)

있는 곳 : 평안북도 영변군 북신현면 묘향산 보현사 칠성암(법왕대)

세운 때 : 미상(조선 정조 6년 임인(1782) 이후로 추정됨)

所在 : 平安北道 寧邊郡 北新峴面 妙香山 普賢寺 七星庵(法王臺)

年代 : 未詳(朝鮮 正祖 六年 壬寅(1782) 以後로 推定됨)

여대사정유의 부도비명과 서

女大師定有浮屠碑銘 并序

정유스님의 속성은 강(姜)씨이니 평양의 양반집 딸이다. 성품이 고결하여 세상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다. 어릴 적부터 불교에 귀의하여 어육과 오신채는 입에 대지 않았다. 항상 낭랑한 목소리로 경전을 수지 독송하되 밤낮으로 쉬지 않았다. 항상 마음에 명산 대찰을 찾아 다니기를 마치 자기 집 문지방 드나들 듯 하였다. 그러나 밤이면 반드시 뜰에 나와 북두칠성을 향해 예배를 올리고 방에 들어가서는 벽을 향해 고요히 앉아 정진하였으니, 마치 잠자는 듯하였지만 실은 선정에 들어 성성적적(惺惺寂寂)하였다.

大師俗姓姜，平壤良家女也。性恬淨，無人欲。自少，歸心佛祖，口不近葷血，喃喃誦貝葉書，以忘晨夕。意至行來名山水，若踰關，然夜分必庭拜北斗，入室面壁，寂然若坐睡，實非睡也。

영조을미년<sup>1)</sup> 내가 관서(평안도)의 절도사에서 물러나 종남산<sup>2)</sup> 옛 집에 돌아와 있었다. 어느 날 정유스님이 찾아 왔거늘 내가 말하되,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것이며 어디에 사시느냐”고 물었다. 정유스님이 대답하되 “관서지방 사람들이 절도사의 은택을 입지 않은 이가 없어 모두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어찌 한번 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英宗乙未，余納關西節，歸終南舊第。一日師請謁。余問曰，“遠來良苦意，何居。”師曰，“關西民被老爺恩澤，無終極。身雖女人乎，安得不一來謝。”

이에 나는 집 사람인 정경부인(貞敬夫人)과 함께 나의 집에서 같이 지내도록 하였다. 몇 달이 지나가고 일년이 지나고 또 일년이 지나도 한결 같았으니, 조금도 권태로운 빛이 없었다. 나 또한 일찍이 머무는 바에 정성을 다했다.

仍侍吾室貞敬夫人，留數月以去，明年如之，又明年又如之，其容不少倦，余嘗盡室居。

마침 명덕산(明德山)<sup>3)</sup>에서 어떤 젊은 비구니 스님이 찾아왔는데 이름

1) 영조을미(英宗乙未): 1775년(영조51)

2) 종남산(終南山): 서울 남산(南山)의 옛이름.

3) 명덕산(明德山): 1780년(정조4)에 사도세자의 신원을 주장하다 물러나 1788년



은 쾌호(快浩)였다. 강씨와 모자의 인연을 맺어 주었으니 늙어 의탁할 곳이 생겼다. 춘성당(春星堂)을 청소하여 쾌호스님으로 하여 정유스님과 함께 머물게 했다. 날마다 고요하고 깊은 밤이 되면 지팡이를 짚고 광영지(光影池)<sup>4)</sup>에 서서 바라보니, 울창한 숲속 멀리 대사의 방에는 환한 등불이 창문을 비추었고, 독경하는 소리의 높고 낮음에 따라 솔바람과 흐르는 물소리마저 서로 응답하였다. 늦은 밤까지 잠에 들지 않고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문득 기꺼워 하였으니, ‘이 산 중에 기이한 일이 머무는가’ 기뻐하였다.

明德山中師來言, 以僧快浩者. 結爲母子, 老身庶可有托. 仍以快浩見余掃春星堂, 使師與快浩者留. 每夜深, 倚杖光影池, 上望見萬木叢翳中, 孤燈炯然照窓, 經聲或高或低, 與松風澗響相答應, 可知師不眠也. 余輒喜曰, ‘此山居奇事’.

얼마 되지 않아, 스님은 행장을 꾸리며 “스님이 되기 위해 장단의 화장암<sup>5)</sup>으로 떠납니다.”하며 하직인사를 하였다. 이 때, 스님의 나이는 이미 육십여 세였다. 그 때 내가 위로하되 “어찌 그리 스스로 어려운 길(苦行)을 가려고 하느냐”고 하니, 강씨가 말하기를 “앞으로 죽음이 멀지 않았습니니다. 지극한 원을 세워 열반에 이르고자합니다. 스님이 되지 않고서는 이 소원을 성취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고는 눈물을 흘리었으니, “후

(정조12) 우의정에 오르기까지 변암이 8년간 은거하던 곳이다. 「명덕덕기明德德記」(『변암집』권34, [한국문집총간]권236 p.106상).

4) 광영지(光影池): 명덕동 시절 채제공이 가꾸던 연못.

5) 화장암(華藏菴):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대원리 보봉산에 위치한 화장사로, 고려조에 창건되었으며 대웅전, 명부전, 나한전 등의 전각이 보전되었으며, 지공화상탑(指空和尚塔)이 있다.

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 매우 슬프다”고 하였다.

未幾，師俶裝曰，“將歸長湍之華藏菴，祝髮爲僧。”從此辭時，師年已六十餘。余慰之曰，“何自苦乃爾。”師曰，“死不遠，至願往涅槃，不祝髮恐不得如願。仍泣下曰，後期有無，以是悲耳。”

그 후 몇 달이 지나 화장사로부터 한 장의 편지가 왔는데 ‘저는 모일(某日)에 삭발하고 스님이 되었으며 법명은 정유이고 은사스님은 율암의 식활’이라고 하였다. 그후 임인년<sup>6)</sup> 11월 15일에 입적하였으니 세수는 66세였다. 화장한 후 사리가 출현하였다. 쾌호스님이 묘향산 보현사 칠성암<sup>7)</sup>에 탑과 비를 세우고자 한다면서 나에게 글을 청하니, 옛일들을 생각하여 기록하였다.

後數月往華藏菴，有書曰，‘已於某日祝髮，法名曰定有，大法師曰 律菴食活云’。壬寅十一月十五日，師化去，臘六十六。及涅槃，舍利珠跳出，快浩將安塔於關西之七星菴，乞余文以記其事念。

지난 무술년<sup>8)</sup> 여름 연경(燕京)으로 사신갔다가 돌아오는 날 밤에 청천강(淸川江)<sup>9)</sup>을 건넜는데, 평양으로부터 이백여의 먼길을 도보로 와 배에서 내리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 반갑게 만나 수박(西瓜)을 잘라

6) 임인년(壬寅年) : 1782년(정조6)을 말한다.

7) 칠성암(七星菴) :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에 위치한 묘향산 보현사의 산내 암자이다.

8) 무술년(戊戌年) : 1778년(정조2)을 말한다.

9) 청천강(淸川江) : 평안북도 적유령(狄踰嶺)에서 시작하여 희천(熙川)·영변(寧邊)·정주(定州)·박천(博川)·안주(安州) 등을 거쳐 황해(黃海)로 흐르는 강. 고구려(高句麗) 때의 이름은 살수(薩水).

서로 나누어 먹었다.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 후 모든 재앙을 물리치는 양재(禳災)기도를 위해 깊은 산에 들어가 목욕재계하고 백일 간에 걸쳐 철야하며 기도해주신 그 은혜 또한 잊을 수 없다. 아! 금생에 있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으랴! 나는 궤호스님의 수양어머니 스님을 위한 간곡한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붓을 잡아 기록한다. 명하여 가로되,

余戊戌夏，使燕還夜，渡清川江，師自平壤徒步二百里，待我於舟中。相見喜甚，剖西瓜，以進其意，何可忘也。後又爲余禳災，入深山齋沐，達曙禱神，盡百日乃止，觀其意事可以益，余死亦無辭。嗚呼。於今世，何可復得也。余不忍負師強疾，而爲之銘。銘曰，

이 세상은 어찌 고해(苦海)라 하며,  
저 서방은 어찌 극락(極樂)이라 하는가.  
관에 들음 어찌 싫어하고,  
화장은 왜 하려 하는가.

此界何苦，  
西方何樂。  
棺槨何厭，  
茶毘何欲。

꼭에 들어가건 화장하건 할 것 없이,  
마침내는 모두가 무로 돌아간다네.  
필경에는 어느 틈에 머무는가,  
나는 말하겠네.

無問棺槨與茶毘，

歸於無.  
畢竟奚間,  
吾故曰.

하늘과 땅에 가득한 백천만가지 세상사,  
바랄 것도 바라지 않을 것도 없다네.  
돌아가서 석가모니부처님 뵈옵거든,  
내 말이 어떠한지 여쭙어 주시길.

盈天地百千萬事,  
無可願亦無不可願.  
歸謁釋迦牟尼,  
試以吾言問之.

[揭載 및 對校文獻] 蔡濟恭, 『樊巖集』57, 「碑」(韓國文集叢刊235, 筆寫本1824).

### 03. 정읍내장사비 구니세만공덕기념비문

井邑內藏寺比丘尼世萬功德記念碑文

(1847~1932)

있는 곳 :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내장산 내장사

세운 때 : 일제 강점기 기묘(1939)

所在 : 全羅北道 井邑市 內藏洞 內藏山 內藏寺

年代 : 日帝強占期 己卯(1939)

내장산 비구니 세만 공덕기념비와 서

內藏山比丘尼世萬功德記念碑 并序

당나라 때 신주<sup>1)</sup>의 노행자<sup>2)</sup>가 황매산<sup>3)</sup> 오조 홍인대사(弘忍大師)<sup>4)</sup>로부

---

1) 신주(新州): 6조 혜능의 출생지. 신주는 당나라 때 영남도(嶺南道)에 속한, 일대를 관할하던 주(州) 이름으로 지금의 광동성 신흥현(新興縣)이다. 『진법정종정조도傳法正宗定祖圖』 권6(대정장51, p.772a28) “第三十三祖慧能 新州新興人姓盧氏”.

2) 노행자(盧行者): 선종의 6조 혜능(慧能)을 말한다. ‘노’는 혜능의 속성. ‘행자’란 스님이 되기 전 절에서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면서 수행을 하는 예비수행자를 말한다. 5조 홍인(弘忍)의 문하에서 행자로 있었기 때문에 노행자라고 불리었다. 『종경록宗鏡錄』(대정장48, p.444c13) “黃梅門下有五百人 為甚麼 盧行者獨得衣鉢 師云 只為四百九十九人 皆解佛法 只有盧行者一人 不解佛法 只會其道 所以得衣鉢”.

터 의법(衣法)을 전해 받은 후<sup>5)</sup> 대유령(大庾嶺)을 넘어 조계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유지략(劉志略)<sup>6)</sup>의 고모인 무진장비구니스님이 있었다. 노행자에게 『열반경涅槃經』에 대한 뜻을 물었다. 이에 비구니는 노행자가 비범(非凡)한 사람인 줄 알아차리고 백부(伯父)에게 부탁하여 보림사(寶林寺)<sup>7)</sup>를 중수하여 노행자를 그 곳에 머물도록 하였다.<sup>8)</sup>

- 3) 황매산(黃梅山): 홍인대사가 주석하던 보림사가 있던 도량. 지금의 중국 호북성(湖北省) 동부의 기주(夔州)에 위치한다.
- 4) 홍인대사(弘忍大師): 중국 선종(禪宗)의 제 5조로 호북성 황매현 출신이다. 스승이며 제4조인 도신(道信)을 만나 7세때 출가하여 51세에 대사(大師)가 되었다. 제6조인 혜능(慧能)의 법기(法器)를 알아보고 의발(衣鉢)을 전수하였다.
- 5) 황매의발(黃梅衣鉢): 황매산(黃梅山) 홍인(弘忍)의 옷과 발우이니, 선종(禪宗)에서는 전법(傳法)의 표시로 스승의 법의(法衣)와 발우(鉢盂)를 제자에게 전한다. 5조 홍인대사 문하에 있던 신수(神秀)스님이 수법(受法)하리라는 대중의 믿음을 깨고 뜻밖에 노행자가 홍인의 의발(衣鉢)을 전해 받아 제6조가 되었다. 이에 신수지지자들의 반발을 염려한 오조홍인은 노행자의 야만주행을 두려하였고 그는 피신하였다.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대정장48, p.355a14) “黃梅門下有五百人 為甚麼 盧行者獨得衣鉢”. 『송고승전宋高僧傳』(대정장50, p.754a14) “釋弘忍 姓周氏 家寓淮左潯陽 一云黃梅人也”.
- 6) 유지략(劉志略): 당시 덕망이 높았던 거사(居士).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대정장48, p.355a14) “有儒士劉志略 禮遇甚厚 志略有姑為尼 名無盡藏”.
- 7) 보림사(寶林寺): 중국 광둥성(廣東省) 곡강현(曲江縣)에서 남쪽으로 35km 지점의 조계산(曹溪山)에 위치한 절. 지금은 남화사(南華寺), 남화선사(南華禪寺)라고 한다. 502년 인도의 지약(智藥)스님이 창건했다. 677년(의봉2)에 육조혜능이 호북의 황매산(黃梅山)에서 오조홍인으로부터 법을 받고 이곳에 와서 주석한 이후, 남종선풍(南宗禪風)의 근거지가 되었다. 육조스님과 관련된 성보유적이 남아있다.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대정장48, p.347c).
- 8) 무진장비구니스님이 『열반경』을 독송하고 있다가 노행자에게 『열반경』의 뜻을 물었다. 노행자가 ‘나는 글을 알지 못하니 뜻만 물어보라’고 말했다. 비구니스님이 이상하게 여겨 ‘글을 모르는데 어찌 뜻을 알 수 있습니까?’라고 하자, 노행자가 말하기를 ‘부처님의 요묘한 뜻은 문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비구니는 노행자가 비범(非凡)한 사람인 줄 알아차리고, 백부에

在唐之新州盧行者，得黃梅衣鉢，踰嶺至曹溪，有無盡藏比丘尼。問涅槃經義，而知其非凡流，乃白其父兄，重脩寶林寺，而延居之。

머문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자리를 피하기 위해 회주<sup>9)</sup>와 집주<sup>10)</sup>의 중간(會集間)에 숨는 등 옮겨다니다가 법성사<sup>11)</sup>에 이르렀으며,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의 법담(法談)<sup>12)</sup>을 인연한 후 드디어 스님이 되었다.<sup>13)</sup> 마침내

게 청하여 그 노행자를 보림사에서 머물게 했다. 『사법보단경(師法寶壇經)』(대정장48, p.355a12) “師自黃梅得法 回至韶州曹侯村 人無知者 有儒士劉志略 禮遇甚厚 志略有姑為尼 名無盡藏”,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대정장51, p.235b10) “尼無盡藏者 即志略之姑也 常讀涅槃經 師暫聽之即為解說其義 尼遂執卷問字 師曰 字即不識 義即請問 尼曰 字尚不識 曷能會義 師曰 諸佛妙理非關文字 尼驚異之 遍告里中耆德云 此是有道之士 宜請供養 有魏(魏一作晉)武侯玄孫曹叔良及居民 競來瞻禮 時寶林古寺 自隋末兵火已廢 遂於故基重建梵宇 延師居之”.

- 9) 회주(會洲): 사천성(四川省) 무현(茂縣)에 있었던 지명.
- 10) 집주(集洲): 사천성(四川省) 남강현(南江縣)에 있었던 지명.
- 11) 법성사(法性寺): 육조혜능스님이 득도한 곳. 중국 광주(廣州:廣東省) 북서부에 있는 절, 담마야사(曇摩耶舍), 구나발다라(求那跋陀羅), 달마(達磨)에서 육조혜능까지 유명한 고승들이 자취를 남긴 도량이다. 705년에는 반야밀제(般若密諦) 삼장이 역주(譯主)가 되어 『능엄경(楞嚴經)』을 한역한 도량이며, 이어 진제(眞諦), 혜개(慧愷) 등이 주석하며 역경사업을 벌인 도량이다. 676년(의봉1)에 인종법사(印宗法師)가 『열반경』을 강할 때, 6조혜능이 행자의 신분으로 법을 받은 이후 이곳에 들러 풍번(風幡)의 일화를 남겼다. 지금은 광효사(光孝寺)라 불리우며, 노행자 혜능이 득도할 때 깎은 머리카락을 넣은 예발탑(髮髮塔), 육조전(六祖殿) 등이 남아 전한다.
- 12) 풍번법담(風幡法談): 노행자가 법성사에 머물 때, 대중 가운데 두 스님이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며 논쟁하였다.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幡動)’하였고, 또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風動)’라고 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육조스님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自心動)’이라 하여 대중을 놀라게 하였고, 이후 이곳에서 득도하였다는 고사이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대정장51,

조계산으로 돌아와 보림사에서 법(法)을 열어 종풍을 크게 진작하니 드디어 제6조<sup>14)</sup>라 부르게 되었다. 대개 이러했으니 무진장비구니와의 인연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居無何, 行者遂避難于懷集間, 轉到法性寺, 因談風幡話已, 遂爲僧. 而復回曹溪, 開法於寶林, 號爲六祖, 蓋有無盡藏尼之緣因, 亦爲不淺矣.

기묘년 3월<sup>15)</sup>에 내장사 주지 매곡(梅谷)스님<sup>16)</sup>이 내가 있는 화순(和順)동림사(東林寺)<sup>17)</sup>로 나를 찾았다. 내장사<sup>18)</sup> 영은암<sup>19)</sup>에 주석하다가 입적

---

p.235c3)\*暮夜風颺剎幡 聞二僧對論 一云幡動 一云風動 往復酬答未曾契理 師曰 可容俗流輒預高論否 直以風幡非動動自心耳 印宗竊聆此語竦然異之 翌日邀師入室 徵風幡之義 師具以理告 印宗不覺起立云 行者定非常人師爲是誰. 師更無所隱直敘得法因由 於是印宗執弟子之禮請受禪要 乃告四眾曰 印宗具足凡夫 今遇肉身菩薩即指坐 下廬居士云 即此是也”.

13) 혜능스님으로 득도한 날은 2월8일 열반재일이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대정장51, p.235c11)\*“即此是也 因請出所傳信衣悉令瞻禮 至正月十五日 會諸名德爲之剃髮 二月八日就法性寺智光律師受滿分戒 其戒壇即宋朝求那跋陀三藏之所置也”.

14) 육조(六祖): 달마(達摩)를 제1로 하여 동토(東土)의 제육조(六祖)이니, 서천(西天: 인도 印度)으로 기원하면 삼십삼조(三十三祖)가 된다.

15) 기묘삼월(己卯三月): 1939년 3월을 말한다.

16) 매곡(梅谷)스님: 학명스님의 제자로 1934년 학명스님의 부도를 조성하였으며, 시왕전을 중건하였다. 1955년에는 내장사에 매곡스님의 부도가 세워졌다.

17) 동림사(東林寺): 전라남도 오성현(烏城縣: 지금의 화순) 북쪽 5리 지점에 있는 절. 이 절은 또한 정약용(丁若鏞, 1762 ~ 1836)이 그의 아버지가 오성현감으로 재임 중이던 겨울, 형 정약전과 함께 40여 일 정도 독서하였는데, 이때 『동림사독서기東林寺讀書記』를 남겼다.

18) 내장사(內藏寺):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내장산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禪雲寺)의 말사이다. 창건기록은 뒤의 ‘주) 영은암’과 같



한 세만비구니스님이 영은암을 중흥한 공덕을 추모하여 공덕비를 세우려 하니 비문을 지어달라는 청탁이었다. 부탁을 받고 그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니, 세만비구니스님은 현종정미년에<sup>20)</sup> 광주 금당리(金塘里)<sup>21)</sup>에서 태어났다. 파평윤씨의 가문으로 아버지의 휘는 대흥(大興)이고 어머니는 김씨 부인이다.

若己卯三月日, 內藏寺住持, 梅谷上人, 訪鎬於東林道, 其內藏山靈隱庵, 故比丘尼世萬, 有中興功德, 因請碑記. 謹按, 比丘尼世萬, 憲宗丁未, 生于光州金塘里. 世族坡平尹氏, 考諱大興, 妣金氏.

고종계유<sup>22)</sup>에 내장산 영은암으로 찾아가 영학(永學)비구니스님을 은사

다. 1539년 조선왕실에 의해 강제소각되기 전부터 내장산 내 암자를 거느린 중심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557년 희묵대사(希默大師)가 새로이 전각을 짓고 사찰명을 복원했다. 1923년 서래봉 중턱의 백련암에 내장사가 소재하였다가, 1938년부터는 영은암으로 내장사의 사명을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비문에서도 1923년 영은암과 별도로 백련암에 소재했던 내장사 중창불사에 영은암에 주석하고 있던 세만비구니스님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듯이, 세만비구니스님의 입적(入寂) 전까지는 내장사에 소속된 산내암자로 영은암은 별도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스님 입적(1983년) 후인 1954년 옛 영은암 터에 향적원을 건립하였다고 전하고 있으나 현재 내장사 경내에 있다.

- 19) 영은암(靈隱庵) : 현재 내장사(內藏寺)가 소재한 터에 있었던 암자이름. 636년(무왕37) 영은조사(靈隱祖師)에 의해 창건된 영은사를 창건기원으로 하지만, 내장산내의 내장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조선조이후에는 영은사를 내장사의 창건기원으로 전한다. 전후사를 미루어 보건데, 본 비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1896년~1898년 세만비구니스님이 주석하며 영은암을 중창하던 당시에는 내장사내 암자를 거느리던 수사찰(首寺刹) 내장사와는 별도로 비구니스님수행처로서의 영은암이 독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0) 현종정미(憲宗丁未) : 1847년(현종13).

- 21) 금당리(金塘里) : 전남 광주시 규단리.

- 22) 고종계유(高宗癸酉) : 1973년(고종10) 스님이 27살 되던 때.

로 하고 연곡화상(連谷和尚)을 계사로 하여 스님이 되었으니 세수 이십 칠세였다. 그로부터 스님은 계율을 엄하고 정결히 지켜 대중의 모범이 되었다.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되 육시(六時)<sup>23)</sup>로 정진하나 조금도 피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친절집이 넉넉한 편이어서 항상 베풀기를 좋아하였고 여러 사찰과 세상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모습이 당당하고 강직하지만, 사람을 대하여 대화할 때는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온화(和易)하여 대인군자(大人君子)의 기상(氣象)을 지녔다.

高宗癸酉，出家于內藏山靈隱庵，以永學比丘尼爲恩師，受戒法于蓮谷和尚。時年二十七。自是以後，嚴潔持律，爲範於衆。念誦佛號，六時無倦容，且以經紀有度。家頗不貧，故樂施周窮，山野多頌聲。望其儀貌偉駸駸，卽之，語言和易，可有大人君子氣象。

고종무자년<sup>24)</sup> 봄 영은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암자 전체가 소실되고 말았다. 몇 년이 지나 병신년<sup>25)</sup> 가을에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3년만인 무술년<sup>26)</sup>에 준공과 아울러 전요(殿寮) 20여칸도 함께 계획하였다. 총공사비 3천여량금(三千餘金)의 거액이었으나 단원들로부터의 모금은 하지 않고 오로지 자부담으로 건물이 윤환<sup>27)</sup>함을 나타내어 본래의 것보다 더욱 장관이었다.

高宗戊子春，本庵不戒火化灰土，經年所，及丙申秋，經始重

23) 육시(六時): 하루를 12時로 하니, 하루 낮 즉, 12시간이다.

24) 고종무자(高宗戊子): 1888년(고종25)을 말한다.

25) 병신년(丙申年): 1896년(고종33)을 말한다.

26) 무술년(戊戌年): 1898년을 말한다.

27) 윤환(輪奐): 장대하고 미려함(狀大美麗)을 말한다.

造, 越明年戊戌, 告功並計殿寮二十餘架, 總費三千餘金, 儘不扣檀扉, 專傾自橐, 以見輪奐, 興復舊觀.

계해갑자년<sup>28)</sup> 사이에는 학명(鶴鳴)선사<sup>29)</sup>가 행각을 멈추고 내장사 주지로 있으면서 벽련전(碧蓮殿)인 염불당의 중창과 소림선실(少林禪室)을 창건하였는데, 이 때도 세만비구니스님은 5백량이나 되는 거액을 단독으로 시주하여 마침내 불사를 원만히 성취할 수 있었다.

又屆癸亥甲子間, 鶴鳴禪師, 行脚已, 住持是寺, 出定暇日, 重築碧蓮之古法殿, 新構少林禪室, 乃勉山中尼師 助緣 獨捨五百餘金, 竟共成之.

젊어서는 자순(慈諄)하고 늙을수록 더욱 건건(乾乾)<sup>30)</sup>하였다. 비록 비구니의 처소이지만 오히려 옛 총림의 법도가 생생히 살아 있었다. 임신년<sup>31)</sup> 11월 11일 가벼운 병을 앓다가 입적하니 세수는 86세요, 법랍은 69하(夏)였다. 입적한지 8년이 지난 후 스님의 상좌인 정택(正澤)과 덕문(德文) 등이 스님의 유업을 길이 전하고자 행적비를 세우고자 하였다.

率春慈諄, 老愈乾乾. 雖尼寺, 猶多古叢林風. 及夫壬申十一月

28) 계해갑자간(癸亥甲子間): 1923~1924년을 말한다.

29) 학명(鶴鳴): 계종(啓宗)스님(1867~1929)의 호. 속명은 백씨이다. 전라남도 영광 출생으로 전라북도 순창 구암사에서 설두화상(雪頭和尚)의 강경(講經)하는 모습을 보고 출가하기로 결심하고, 영광 불갑사(佛岬寺)로 가서 금화장로(錦華長老)를 은사로 하여 스님이 되었다. 1900년에 선운사 강사로 취임하였으며, 1923년 이후 내장사 주지로 있으면서 당우를 일신하였다. 1929년 3월 27일 세수 63, 법랍 43으로 입적하였다.

30) 건건(乾乾): 쉬지 않고 정진함(勉力不息).

31) 임신년(壬申年): 1932년을 말한다.

十一日，示微疾，歸寂，世壽八十六。沒后八年，其上佐尼正澤德文等，爲其師，樹石紀功，圖不泯云爾。

아! 나는 일찍이 내장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석하였으므로 세만스님의 은혜로운 덕풍(德風)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니 참으로 존경해 마지않는 바이다. 이제 매곡스님으로부터 세만스님의 은혜로운 가풍을 들은 대로 기록하였다. 비록 말세의 오탁악세에 처하고 있지만 자못 진인(眞人)의 아류(亞流)가 될 만하니 어찌 조계산의 무진장비구니가 육조스님을 위해 행한 보림사의 기연만 못하리오! 이렇듯 세만비구니는 스스로 영은암을 중창하여 법문을 널리 열어 선양하였고, 학명선사 또한 벽련선실을 창건하여 종풍을 크게 떨쳤다. 이어 매곡주지가 새롭게 도량을 개척하고 전료(殿寮)를 창건하였으니, 호남의 선풍을 증흥시킨 이분들의 공로를 어찌 널리 알리지 않으랴? 이에 그 전말을 적어 비석에 새기는 바이다.

嗚呼。鎬曾住不遠山，聞萬老之惠風，靡不尚矣。得今梅谷上人  
臺臺說陳，乃盡其眞詳。雖處濁世近日，殆古眞人流亞，豈有遜  
于曹溪無盡藏比丘尼，重修寶林之機緣，寔自萬老，重造靈隱  
后，法門啓運，鶴鳴禪伯，勅碧蓮禪室，以昌大之。繼有梅谷住  
持，拓新道場，開造殿寮，南中禪風 且未艾，寧可不知其所自  
與，於是乎書。

1939년 4월 일 석전정호 지음.

己卯四月日，石顥鼎鎬，撰。

[掲載 및 對校文獻] : 鼎鎬, 『石顥文鈔』 「石林草」(pp.25~26(法寶院刊, 1962))



## 索引 찾아보기





가비라국(迦毘羅國) 371  
가사(袈裟) 299, 383  
가사(假肆) 117, 118  
가산혜계도(柯山兮啓途) 538  
가섭(迦葉) 87, 172, 195, 196, 249, 265,  
281, 313, 411, 509, 511, 535, 675  
가섭미소(迦葉微笑) 552, 553  
가섭존자(迦葉尊者) 282, 535, 552, 588  
가섭지비종(迦葉之秘宗) 251  
가섭파(迦葉波) 509, 510  
가섭파안미소(迦葉破顏微笑) 552  
가송(歌頌) 526, 527  
가야가섭(伽耶迦葉) 76  
가야산(迦耶山) 293, 294, 295, 338, 339,  
340, 342  
가야산사(伽倻山寺) 203, 334  
가양협산(加良峽山) 62, 63  
가위국(迦衛國) 371, 372  
가은양산(加恩陽山) 651  
가지사(迦智寺) 614, 647  
가지산(迦智山) 55, 56, 547, 548, 647  
가지산사(迦智山寺) 36, 68  
가지산파(迦智山派) 55, 64, 94  
각박(却剝) 206, 207  
각수(覺樹) 306  
각수일우난통삼반(各守一隅難通三返)  
194  
각제(覺帝) 258, 295, 296  
각현(覺賢) 304  
간극(豳棘) 90, 91  
간출괴웅(間出魁雄) 361, 362

감로(甘露) 526, 527  
감로사(甘露寺) 639, 640  
감로탑(甘露塔) 508  
감목(歛目) 605, 606  
감수국사(監修國史) 238, 239, 356, 357  
감실(龜室) 272, 317  
감천(甘泉) 214  
감호상사(監護喪事) 580, 581  
갑인복주의(甲仁復胃義) 182  
강성(康成) 72  
강승회(康僧會) 336, 400  
강원(姜嫫) 366  
강좌(江左) 250  
강주(康州) 96, 97, 251  
강화사(講和使) 672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637, 638  
개사(開士) 395  
개자성공(芥子城空) 262  
개제(介弟) 161, 162  
개중(介衆) 170  
개천산(開天山) 187, 188, 222, 226, 231  
개필(攄筆) 396, 398  
개흥군(開興郡) 511, 512  
거만계(巨萬計) 456  
거명백종(遽命伯宗) 153  
거익실(居翊室) 158  
거정발설(去釘拔楔) 516  
거조사(居祖寺) 43, 516, 522, 523  
거조사(居祖社) 618  
거조암(居祖庵) 618  
건부제석명지세(乾符帝錫命之歲) 160,  
162  
검괄기연(檢括機緣) 372

검교(檢校) 188, 190, 429, 431  
 검산도(劍山島) 140  
 겁신류치금전반회(劫燼流菑金田半灰)  
 149  
 겁화(劫火) 597  
 계송잡저(偈頌雜著) 586, 587  
 견뢰(堅牢) 70  
 견문재수(見文在手) 368  
 견북몰지선분(甄北沒之先芬) 418, 419  
 견불사(見佛寺) 497  
 견성오도(見性悟道) 591  
 견암사(見巖社) 616  
 견은포정(甄殷布政) 386  
 결계지월(結戒之月) 67, 69  
 결망(缺望) 375, 377  
 결사문(結社文) 527  
 결사불교(結社佛教) 43  
 결사취지문(結社趣旨文) 566  
 결척(抉剔) 582, 583  
 결하(結夏) 96, 97  
 경개(傾盖) 202  
 경덕국사(景德國師) 42, 401, 437, 498  
 경선원(敬先院) 491, 492, 494  
 경수당격(更手撞擊) 156  
 경암사(瓊嶠寺) 618  
 경연(京輦) 571, 572  
 경음(鯨音) 275  
 경절문(徑截門) 520  
 경조금언(敬造金言) 397  
 경중(鯨鍾) 275, 276, 340  
 경지단자급심(經之短者汲深) 345  
 경행(景行) 277, 278

경행(經行) 221  
 계금가사(闕錦袈裟) 320, 321, 323, 324  
 계금법의(闕錦法衣) 336  
 계법거지여휘(繼法炬之餘輝) 275  
 계빈국(闕賓國) 57, 93, 449, 588, 589  
 계생인초(戒生忍草) 246  
 계성(啓聖) 252  
 계성사(啓聖寺) 444, 445  
 계수(稽首) 603  
 계원필경(桂苑筆耕) 82  
 계원행인(桂苑行人) 121  
 계족산(雞足山) 184, 282  
 계족잠휘(雞足潛輝) 282  
 계종(啓宗)스님 727  
 계지거지여휘(繼智炬之餘輝) 340  
 계포여형(桂飽餘馨) 123, 124  
 계행(戒行) 229  
 계현(戒賢) 415  
 고결재과(告訣裁罷) 170  
 고달산(高達山) 280  
 고달선원(高達禪院) 238, 245  
 고달원(高達院) 40, 237, 238, 271, 284  
 고달원원종대사비(高達院元宗大師碑)  
 570  
 고목후주(枯木朽株) 102  
 고병(高駢) 81, 82  
 고성신계사비구니낙암당사신비문(高城  
 神溪寺比丘尼洛庵堂思信碑文) 47, 711  
 고승전(高僧傳) 95, 304, 473, 530, 692  
 고여용(賈餘勇) 378  
 고영신전로(告永新前路) 474, 475  
 고요배지비(顚坳盃之譬) 139, 140  
 고용(賈勇) 345



고우속리사(錮于俗離寺) 648, 649  
 고창국(高昌國) 477, 478  
 고창법연(高敞法筵) 264  
 고행무급자(苦行無及者) 179  
 고흔(叩閭) 487  
 곡두서(鵠頭書) 153  
 곡부현(曲阜縣) 84  
 곡서(鵠書) 273  
 곡수승하(鵠樹昇遐) 295, 296  
 곡탑(鵠塔) 183  
 곡하(穀下) 154, 155  
 곤구(崑丘) 83  
 곤미현(昆湄縣) 56  
 공기인간(功紀人間) 701  
 공동지청(崆峒之請) 166, 167, 322  
 공루난분(空縷難分) 137, 138, 277, 278  
 공문백(貢文伯) 628  
 공부시랑(工部侍郎) 398, 399, 427, 430, 431  
 공사명개(供辭明割) 681, 682  
 공자(孔子) 84, 85, 86, 136, 164, 166, 192, 194, 197, 216, 227, 313, 351, 369, 377, 391, 439, 602, 611, 674  
 과능류몽륜선(寡能謬奉綸宣) 410  
 과연수년(過延數年) 587, 588  
 과일성종(跨一星終) 136  
 관개산동(冠蓋山東) 87, 88  
 관구(管句) 508, 509  
 관궁표질어관화(款窮縹帙於貫花) 370, 372  
 관등사저(官勝私楮) 457  
 관목부경진(竅木浮鯨津) 179  
 관물발심(觀物發心) 220

관욕(盥浴) 117  
 관웅(寬雄) 41  
 관원(館院) 474, 474  
 관자여도(觀者如堵) 579, 581  
 관천섭화(貫穿攝化) 370  
 관해옥심(觀海沃心) 323  
 관화(貫化) 370  
 관화(貫花) 318, 319  
 관후서(觀候署) 580, 581  
 광노태여(狂奴態餘) 130, 131  
 광록대부(光祿大夫) 238, 239, 294, 295, 429, 431, 550, 627  
 광명사(廣明寺) 567, 568, 646, 647, 654  
 광목녀(光目女) 365  
 광목부인(光目婦人) 365, 366  
 광복선자(廣福禪者) 606  
 광비(狂斐) 410  
 광영지(光影池) 717  
 광예(光父) 38, 231  
 광장설(廣長舌) 588  
 광지선사(廣智禪師) 45, 638, 639  
 광통(光統) 464, 465  
 광효사(光孝寺) 723  
 괘명어비석지하(掛名於碑石之下) 479, 480  
 괴걸(魁傑) 583, 584, 585  
 교동(喬桐) 712  
 교몽동렬(覺夢同列) 607, 608  
 교범파제(橋梵婆提) 376  
 교부(敎父) 350  
 교시(覺時) 612  
 교양(膠讓) 126  
 교위(校尉) 495

교장사(敎藏司) 458, 459  
교지주환(交趾珠還) 211, 213  
교해(敎海) 592, 593  
구고(九阜) 306, 307  
구나(拘那) 397, 398  
구나발다라(求那跋陀羅) 723  
구담미(瞿曇彌) 358  
구룡산사(九龍山寺) 40, 310, 314  
구류(九流) 136  
구마라타(鳩摩羅駄) 199, 201  
구목(龜木) 385, 387  
구무선고(龜無善顧) 124  
구민(龜珉) 343, 343  
구봉도건(九峰道虔) 38  
구산문(九山門) 572, 573  
구성(驚聖) 398  
구시나가라(拘尸那伽羅) 271, 295, 337, 351, 528  
구시나갈(拘尸那竭) 575  
구오지류(驅烏之類) 371, 372  
구유절뉴(俱維絕紐) 361, 362  
구의(握衣) 62, 63, 216, 445, 565, 570, 572  
구이지학(口耳之學) 469, 470  
구점(口占) 650  
구점사세장(口占辭世狀) 650  
구정상약(口精嘗藥) 137, 138  
구조당(九祖堂) 464  
구족계(具足戒) 62, 93, 100, 117, 126, 129, 203, 246, 305, 373, 437, 512, 532, 556, 557  
구족달(仇足達) 38, 190  
구족달(具足達) 189, 190  
구준(衢樽) 106  
구중(九重) 213, 214, 242, 243, 387, 390, 694  
구중향일(九重向日) 242, 243  
구참(鈎識) 144, 145  
구학(口學) 125, 126  
국일도대선사선교도총섭부종수교보제  
등계존자(國一都大禪師禪敎都摠攝扶  
宗樹敎普濟登階尊者) 669, 670, 686, 687  
국자궤주(國子祭酒) 357, 403, 560, 628, 629,  
국주추□봉전(國主追□鳳篆) 225  
국청사(國淸寺) 42, 462, 463  
국학(國學) 511, 512, 549, 551  
군려(群黎) 206, 207  
군부경(軍部卿) 239  
군혼일확(羣昏一廓) 697, 698  
굴굴(屹屹) 438, 440  
궁경소설(躬耕小雪) 654  
궁리세삼(窮理在三) 204  
궁자시귀(窮子始歸) 595  
권권복옹(拳拳服膺) 360  
권농사(勸農使) 508, 509  
권서(卷舒) 461  
권속식신하(勸俗飾身何) 182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 522, 523  
권주(權鑄) 45, 636, 637  
궐리(闕里) 84  
궐중제제(厥衆濟濟) 173  
레이(詭異) 528  
궤지(軌持) 359, 360  
귀경(龜鏡) 339, 340  
귀곡각운(龜谷覺雲) 690  
귀법사(歸法寺) 40, 319, 320, 327, 489,

490, 493, 494,  
귀법의승(歸法依僧) 310  
규경향일(葵傾向日) 242, 343  
규곽경심(葵藿傾心) 343, 344  
규곽경양(葵藿傾陽) 343  
규보(跬步) 89, 254  
규봉난야(圭峯蘭若) 520, 521  
규원저미(葵園著美) 242, 243  
규합옹방(糾合龍邦) 311, 312  
균복(均服) 336, 367  
금강경(金剛經) 83, 159, 519, 520  
금강산(金剛山) 46, 679, 687, 700, 711  
금강인(金剛印) 578, 579  
금계(金界) 300  
금계법복(錦闍法服) 399  
금구옥음(金口玉音) 448, 449  
금구자발(金鉤瓷鉢) 263  
금당(金幢) 611  
금란가사(金襴袈裟) 261, 644  
금마(金馬) 88  
금문(金文) 563  
금비(金鑊) 695, 696  
금산사(金山寺) 389, 390  
금생국토(今生國土) 331  
금선(金僊) 347  
금성탕지(金城湯池) 219  
금수약인(今授若印) 143, 145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429, 431  
금전(金田) 149  
금지(金地) 319, 565  
금탕기수(金湯祇樹) 219, 220  
금호(金虎) 205

금호사방(金虎司方) 205, 206  
금고독장자(給孤獨長者) 300, 565  
급사중(給事中) 398  
급암종신(及庵宗信) 643  
기국(杞國) 255  
기기간수(祇期覺樹) 244, 245  
기방(岐房) 491, 492  
기빙(期憑) 396  
기상시(騎常侍) 160, 162  
기수(琪樹) 121  
기연(機緣) 609  
기연어구(機緣語句) 581, 583  
기원정사(祇園精舍) 149, 172, 300  
기원정사(祇洹精捨) 565  
기유삼언(既有三言) 159, 160  
기인우천(杞人憂天) 255  
기자(箕子) 380  
기자고도(箕子古都) 380, 382  
기자전(箕子殿) 676  
기축지옥(己丑之獄) 681, 682  
기출어시(其出於時) 486  
기춘(既訖) 89, 90  
기타태자(祇陀太子) 149, 300, 565  
기해주청(暨諧駐聽) 385, 387  
길상사(吉祥寺) 43, 519, 521  
김관유(金寬柔) 118  
김구(金丘) 625, 626  
김균(金韻) 567, 568, 626, 627  
김군수(金君綏) 43, 507, 509, 534, 626  
김량지(金良贇) 398, 399  
김련(金璉) 625  
김범청(金範淸) 134

김부식(金富弼) 42, 429, 430, 431, 478, 479, 497  
 김사행(金師幸) 664, 665  
 김수종(金遂宗) 67  
 김승렴(金承廉) 40  
 김언경(金彦卿) 35, 36, 67, 69, 70, 76  
 김영(金穎) 35, 56  
 김영웅(金英雄) 118  
 김용검(金龍劍) 572, 573, 586, 629  
 김원(金蓮) 35, 36, 57  
 김일(金鎰) 118  
 김입지(金立之) 127  
 김정언(金廷彦) 39, 40, 238, 239, 276, 277, 294, 295, 343, 344, 346  
 김주정(金周鼎) 626  
 김지(金砥) 628  
 김진(金振) 507, 541  
 김함웅(金咸雄) 118  
 김흔(金昕) 127, 141, 151

낙진(樂眞) 442, 443, 497, 498  
 낙채(落采) 389  
 난도대기(難逃大期) 170  
 난야(蘭若) 97  
 난원(爛圓) 400, 401  
 남간사(南澗寺) 261, 531  
 남궁상(南宮相) 161, 162  
 남북상(南北相) 152  
 남북종(南北宗) 228  
 남수중월(覽水中月) 178, 179  
 남악회양(南嶽懷讓) 133, 196, 607, 643  
 남원혜우(南院慧隅) 643  
 남종선(南宗禪) 36  
 남종선풍(南宗禪風) 48  
 남천저본색(藍茜沮本色) 139, 140  
 남화사(南華寺) 722  
 납자(衲子) 228  
 낭괄(囊括) 88  
 낭중(郎中) 242, 357, 358  
 낭철(朗徹) 356, 402  
 내공봉(內供奉) 81, 82, 104, 115, 116, 430  
 내봉령(內奉令) 238, 239, 294  
 내시(內侍) 507, 541  
 내원당(內願堂) 598, 658  
 내의승지사인(內議承旨舍人) 239  
 내장사(內藏寺) 48, 721, 724, 727, 728  
 내장산(內藏山) 721  
 내제석원(內帝釋院) 399, 401  
 내종(內宗) 393, 396  
 내초각로(乃超覺路) 697  
 노노(叟叟) 468  
 노담(老聃) 192, 439, 440

나계수자(螺髻殊姿) 301, 302  
 나마(那摩) 386, 387  
 나무(南無) 209, 386  
 나부산(羅浮山) 92  
 나유(羅裕) 569, 570, 626  
 나제가섭(那提迦葉) 76  
 나한(羅漢) 326, 365  
 낙랑(樂浪) 554  
 낙발(落髮) 389, 390  
 낙송부묵(絡誦副墨) 602

노불(爐拂) 452, 453  
 노서군영(鷺序群英) 260, 261  
 노자(老子) 192, 194, 197, 198, 369, 439,  
 460, 478, 527, 530  
 노자귀지아자희(老子貴知我者希) 527  
 노자도덕경(老子道德經) 90, 172, 198, 527  
 노행자(盧行者) 721, 723  
 녹사(錄事) 541  
 녹승사(祿僧使) 287  
 논어(論語) 72, 83, 86, 90, 130, 139, 152,  
 161, 164, 175, 197, 252, 274, 275, 313,  
 514, 611, 674  
 농맹호지자(聾盲乎智者) 175, 176  
 농장지경(弄璋之慶) 61  
 뇌조(寶詔) 567, 568  
 누갈피자(縷褐被者) 172  
 누진신퇴(縷陳身退) 402  
 늑남간이후유(勒南刊而後諭) 419  
 능가(楞伽) 224, 472  
 능가경(楞伽經) 83, 159, 224, 470  
 능가문(驤伽門) 137, 138  
 능관인(能官人) 159, 160  
 능엄경(楞嚴經) 83, 159, 451  
 능엄경약해(楞嚴經略解) 597  
 능엄소주(楞嚴疏主) 451, 452  
 니건철란(尼軋轍亂) 376, 377

다비(茶毘) 526, 719  
 단경급심(短綆汲深) 123, 124  
 단병전액(丹井篆額) 636, 637  
 단사(鍛事) 493  
 단악명시(端遼明時) 413  
 단연폐일(檀煙蔽日) 266, 267  
 단요(丹徼) 269, 270  
 단원(丹愿) 315  
 단월(檀越) 30, 151, 152  
 단월질(檀越秩) 33  
 단전(單傳) 588, 589  
 단향사(檀香寺) 495  
 단현(鍛賢) 491  
 단혈(丹穴) 241, 243  
 달마(達摩) 64, 72, 265, 724, 535, 536,  
 달마(達磨) 93, 96, 133, 195, 196, 265, 510,  
 511, 539, 552, 553, 590, 643, 723  
 달마면벽(達摩面壁) 133, 535, 536, 552,  
 591  
 달마불우양무(達摩不遇梁武) 64  
 달산(牽產) 308  
 담단(蟬斷) 458  
 담마류지(曇摩流支) 85  
 담마야사(曇摩耶舍) 723  
 담무갈보살(曇無竭菩薩) 585, 586  
 담빙(曇憑) 381, 382  
 담석(談釋) 671  
 담암(黠闇) 467, 468  
 담연(譚筵) 315  
 담좌(譚座) 251, 252  
 당(幢) 578, 579  
 당벽(當壁) 258, 341, 342  
 당상복(幢相服) 385, 387

다기망양(多岐亡羊) 191  
 다몰려맥(多沒驪陌) 88  
 다비(茶毗) 408, 409, 606, 607, 608, 713

ㄷ

당은봉선사도립이화(唐隱峯禪師倒立而化) 529, 530  
 당해색이하인(儻海塞以河湮) 419  
 대각(大覺) 552, 553  
 대각국사(大覺國師) 42, 404, 420, 427, 428, 431, 432, 433, 435, 436, 440, 446, 448, 451, 453, 455, 456, 473, 475, 478, 487, 488, 494, 497, 498, 509  
 대각선사(大覺禪師) 565  
 대감혜능(大鑑慧能) 643  
 대낭혜(大朗慧) 115, 122, 123  
 대내서(大內書) 573, 575  
 대덕(大德) 119, 120, 121, 502  
 대만선사(大滿禪師) 57  
 대반야경(大般若經) 83, 159, 314  
 대방광(大方廣) 138, 312  
 대배(擡拜) 166, 167  
 대법륜(大法輪) 577  
 대부(大夫) 189, 341, 369, 550, 551  
 대비관음(大悲觀音) 604  
 대사성(大司成) 549, 551  
 대선(大選) 375, 662  
 대선사(大禪師) 614, 615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 75  
 대우지거(大牛之車) 58  
 대웅(大雄) 44, 556, 557  
 대원지장보살(大願地藏菩薩) 604  
 대일경(大日經) 96  
 대일경소(大日經疏) 96  
 대장경판조조불사회향법회(大藏經板彫造佛事回向法會) 563  
 대장낙성회(大藏落成會) 563  
 대장수지록(大藏須知錄) 586, 587  
 대지도론요약(大智度論要約) 85

대지문수(大智文殊) 604  
 대척위(大尺圍) 573, 575  
 대행보현(大行普賢) 604  
 대혜보각선사어록(大慧普覺禪師語錄) 518  
 대혜어록(大慧語錄) 43, 520  
 대황룡사(大皇龍寺) 98  
 대흥륜사(大興輪寺) 150, 151  
 대흥사(大興寺) 678  
 덕문(德文) 727  
 도강(都講) 378  
 도건(道乾) 209, 210, 227  
 도고용수(道高龍樹) 348  
 도관구역사(都管勾役事) 491, 492  
 도광산채(鎬光鎗彩) 681, 682  
 도덕경(道德經) 57, 59, 107, 192  
 도독부(都督府) 60, 65  
 도리(桃李) 348, 349  
 도리성혜(桃李成蹊) 348  
 도리지행(勿利之行) 158, 160  
 도리지혜(桃李之蹊) 259  
 도리천(勿利天) 158, 199  
 도림(道林) 691, 692, 693  
 도마(稻麻) 349  
 도마죽위(稻麻竹葦) 215, 349  
 도불원인(道不遠人) 82, 83  
 도사(叢史) 396, 398  
 도생승통(道生僧統) 404, 436  
 도속이관(道俗二官) 231  
 도솔천(兜率天) 396, 397  
 도수협소부(渡水陝巢父) 181  
 도신(道信) 57, 133, 196, 590, 643  
 도안법사(道安法師) 92

도야(桃野) 180  
 도연명(陶淵明) 85  
 도원사(桃源社) 616  
 도유나승(都維那僧) 234  
 도의(道義) 36, 63, 65, 72, 94  
 도의국사(道義國師) 547  
 도주(道籌) 368, 369  
 도총섭(都摠攝) 641, 658, 669, 670, 672, 686, 693  
 독룡(毒龍) 76  
 독서촉사(讀書屬辭) 436  
 독초(毒草) 214  
 돈오법(頓悟法) 679  
 돈장(敦莊) 271, 272  
 돈절등륜(頓節等倫) 391, 393  
 돈점(頓漸) 438  
 돈점대소(頓漸大小) 439, 440  
 동교(東郊) 330  
 동군(桐君) 335, 336  
 동귀지묘연(東歸之妙緣) 251  
 동도(東都) 566  
 동동지촉(憧憧之躅) 150  
 동류지설(東流之說) 143, 145  
 동림(東林) 260, 261  
 동림사(東林寺) 85, 99, 260, 724  
 동면도통순관(東面都統巡官) 115  
 동산지법(東山之法) 202  
 동양위(東陽尉) 670  
 동정(東征) 550, 566  
 동주(洞州) 508, 511, 512  
 동폐(彤陛) 407  
 동해엄서하(東海掩西河) 173  
 동화사(桐華寺) 427

두류산(頭流山) 686, 700  
 두순(杜順) 464  
 득기수(得其髓) 552, 553  
 득난(得難) 134, 135  
 득불시연후행(得不時然後行) 245, 246  
 득연여천(得延餘喘) 331  
 득재(得才) 516  
 득피득수(得皮得髓) 613  
 등분(騰芬) 242, 243  
 등억사(登億寺) 616, 618

## ㄱ

리왈(離曰) 190, 192

## ㄴ

마곡(麻谷) 202  
 마곡보철(麻谷寶徹) 38, 133, 142, 144, 145, 179  
 마곡사(麻谷寺) 142  
 마곡회상(麻谷會上) 179  
 마납(磨納) 383, 384  
 마납가사(磨納袈裟) 263, 320, 319  
 마납법의(磨納法衣) 257  
 마납오(磨納襖) 263  
 마니(摩尼) 250, 327  
 마등부한(摩騰赴漢) 266, 267  
 마등(摩騰)스님 336  
 마륵(摩勒) 212, 213  
 마명(馬鳴) 376, 464, 465

마조(馬祖) 142, 143, 174, 227  
 마조도일(馬祖道一) 64, 91, 133, 142, 202, 529, 643  
 마하가섭(摩訶迦葉) 144, 392  
 막배방반(膜拜方半) 209  
 막지여경(莫之與京) 176  
 만류지(挽留之) 486  
 만법귀일(萬法歸一) 45  
 만법귀일화(萬法歸一話) 638, 639  
 만법일여(萬法一如) 638  
 만수가사(滿繡袈裟) 521  
 만수가사(滿繡袈裟) 646  
 만승사(萬乘師) 416  
 만전(蠻戔) 160, 162  
 만행개공(萬行皆空) 217, 218  
 만회(萬恢) 562  
 말니(末尼) 162, 327  
 말법지세(末法之世) 58, 59  
 말후사(末後事) 575  
 망상(罔象) 191, 192  
 망상지역(罔象之域) 58  
 망수택(望水宅) 69  
 망양(亡羊) 191, 192  
 망유기양(罔由基讓) 410  
 망진(望塵) 209, 210  
 매곡(梅谷)스님 724, 728  
 매채(買采) 130, 131  
 맹구부목(盲龜浮木) 385  
 맹구우목(盲龜遇木) 385  
 맹자(孟子) 138, 197, 369, 602  
 면복(冕服) 154, 155  
 면읍(緇挹) 672, 673  
 명덕산(明德山) 716, 717  
 명랑(明朗) 567  
 명료돈오(明了頓悟) 355, 379, 356, 382, 401  
 명발(茗醇) 152, 256  
 명범철종휘(名犯哲宗諱) 435, 436, 443  
 명제지영(命製之榮) 692, 693  
 명학재음(鳴鶴在陰) 198, 199  
 명황(螟蝗) 313, 314  
 모기(耄期) 585  
 모니시화(牟尼示花) 535, 536  
 모덕귀화자(慕德歸化者) 41  
 모사지의(謀事之疑) 485  
 모쇠포류(貌衰蒲柳) 312, 313  
 모의부유(母儀富有) 243, 244, 298  
 목우자(牧牛子) 508, 511, 512, 526  
 목우화상(牧牛和尚) 561  
 목주진존숙지풍(睦州陳尊宿之風) 584, 585  
 몰돈산(沒頓山) 493  
 몰자비(沒字碑) 596  
 몽령(夢齡) 341, 342  
 몽시(夢時) 612, 613  
 몽영(夢英) 495, 496, 498, 499  
 몽환불사(夢幻佛事) 612, 613  
 묘각(妙覺) 263, 264, 278, 279, 305  
 묘감기사어수유(妙感祈禪於垂裕) 309, 310  
 묘덕사(妙德寺) 616, 618  
 묘문암(妙門庵) 559, 560  
 묘법장(妙法藏) 594  
 묘연(妙緣) 243, 244  
 묘재(卯齋) 390  
 묘재(妙齋) 326



묘향산(妙香山) 46, 47, 669, 676, 680, 686, 687, 700  
묘현(妙玄) 507  
무고(無固) 164, 165  
무곡(霧穀) 330  
무량사(無量寺) 44, 555, 556  
무봉탑(無縫塔) 577  
무산계(武散階) 495, 627, 630  
무색제천(無色諸天) 405, 406  
무열대왕(武烈大王) 135, 174, 176  
무염(無染) 37, 115, 127, 133, 137, 143, 144, 148, 150, 154, 156, 157, 158, 169, 171, 178, 179, 181, 184  
무염국사(無染國師) 116  
무염회상(無染會上) 203  
무위비중(無爲秘宗) 123, 124  
무위사(無爲寺) 600, 615, 616  
무위임운지종(無爲任運之宗) 64  
무자화두(無字話頭) 640  
무전지수(無錢之手) 410  
무주(武州) 55, 56, 57, 66, 67, 206, 207  
무주난야(無住蘭若) 558  
무주도독(武州都督) 118, 120  
무주암(無住庵) 44, 558  
무준사범(無準師範) 643  
무진장비구니(無盡藏比丘尼) 48, 722, 724, 728  
무착(無着) 415  
무하(無何) 242, 243  
무한경행(無限景行) 123, 124  
무혈유(無孑遺) 304, 305  
문도질(門徒秩) 33, 556, 559  
문라법의(紋羅法衣) 256  
문림랑(文林郎) 507, 509  
문산계(文散階) 238, 239, 294, 356, 357, 429, 548, 637  
문성대왕(文聖大王) 150, 151  
문성후(文成侯) 177, 178  
문수(文殊) 204, 249, 559  
문수보살(文殊菩薩) 87, 313, 361, 558, 559  
문수오자주(文殊五字呪) 558  
문수오자진언(文殊五字眞言) 593  
문수현적(文殊現跡) 361, 362  
문심조룡(文心雕龍) 155  
문정(門庭) 703  
문조(門助) 704, 705  
문하성(門下省) 70, 188  
문하시랑(門下侍郎) 356, 358, 624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357, 429, 626  
문하시중(門下侍中) 356, 389, 390, 429, 637, 638, 661, 662, 665  
문하평리(門下評理) 663, 665  
문한(文翰) 104, 189, 549, 551  
물태(物泰) 314  
미가자품(未暇諮稟) 605, 606  
미간백호(眉間白毫) 249, 308, 328  
미래제(未來際) 225, 419  
미손이시(糜殮二時) 169  
미암면(美巖面) 56  
미원소설(迷源小雪) 651  
미원현(迷源縣) 645  
미지산(彌智山) 654  
미천(彌天) 95, 456, 457  
미타암(彌陀庵) 47, 712  
민지(閔漬) 44, 550, 551

민훤(閔萱) 626, 627  
 민흥(閔凶) 159, 160  
 밀암함걸(密庵咸傑) 643  
 밀주(密州) 443, 444, 454  
 밀직사(密直司) 551, 548, 569, 637, 664

방불지구(放不知求) 481  
 방서(芳序) 190, 192  
 방외지담(方外之談) 533, 534  
 방장(方丈) 95, 97, 370, 372, 525, 568, 573, 579  
 방천(芳筵) 269, 270  
 방편(方便) 68, 180, 193, 226, 592, 533, 595  
 방포(方袍) 299, 300  
 배석(排釋) 671  
 배용교위(陪戎校尉) 420, 495  
 배화교도(拜火教徒) 76  
 백고좌회(百高座會) 402  
 백구서곡(白駒棲谷) 198  
 백규지점(白珪之玷) 105, 106  
 백련결사(白蓮結社) 260  
 백련사(白蓮社) 85  
 백마노염주(白碼礪念珠) 319, 320  
 백마사(白馬寺) 381  
 백사래알(百舍來謁) 448, 449  
 백상서낙천(白尙書樂天) 142  
 백설(白雪) 395, 396  
 백암성충(栢庵性聰) 43  
 백운수단(白雲守端) 643  
 백운정사(白雲精舍) 520, 521  
 백운지(白雲枝) 565  
 백월보광(白月葆光) 122, 123  
 백육(百六) 205, 206  
 백육양구(百六陽九) 205  
 백장회해(百丈懷海) 643  
 백좌회(百座會) 402  
 백특(百賻) 314  
 백학도인(白鶴道人) 653  
 백홍(白虹) 241, 243

ㄴ

박가(舶賈) 441  
 박성량(朴成亮) 664  
 박송비(朴松庇) 625  
 박항(朴恒) 625  
 박형(朴形) 663  
 박호(朴浩) 489, 490  
 반근(盤根) 582, 583, 592  
 반남군(潘南郡) 56  
 반도(盤桃) 274  
 반도산(蟠桃山) 296  
 반부(攀附) 601, 603, 604  
 반야(般若) 75, 155  
 반야사(般若寺) 497  
 반열반(般涅槃) 128  
 반익순(潘益淳) 663  
 반재(泮齋) 678, 697  
 발견군룡(鉢遣群龍) 76  
 발나(鉢螺) 334  
 발천(拔薦) 408  
 발타(勃陀) 154, 155  
 발함중륜(拔陷拯淪) 593  
 방구(方口) 555  
 방내지담(方內之譚) 192, 193

백화암(白華庵) 46, 669, 689  
 번개(幡盖) 334, 335  
 번암집(樊巖集) 47  
 벌유(筏喻) 359, 360  
 범백록(范百祿) 444, 445  
 범복(梵福) 396  
 범악(范鑠) 443, 444  
 범왕가(梵王家) 133  
 범패(梵唄) 103, 381  
 범패(梵施) 298, 299  
 법갈(法碣) 351  
 법경대사(法鏡大師) 38, 199, 202, 222, 223, 226  
 법고(法鼓) 574, 575  
 법고사(法臯寺) 369, 373, 378  
 법등(法燈) 96, 112, 221, 350, 536, 552  
 법랍(法臘) 100, 117, 271, 526, 584, 650, 687, 688  
 법령(法靈) 407, 408, 422, 423  
 법상종(法相宗) 41, 120, 415  
 법성론(法性論) 85  
 법성사(法性寺) 723, 724  
 법성(法性)선사 38, 137, 138  
 법어(法語) 526, 527  
 법연사(法緣寺) 620  
 법왕대(法王臺) 715  
 법왕봉(法王峰) 680  
 법우(法宇) 317  
 법운비모(法雲丕冒) 281, 282  
 법원(法苑) 274, 276, 340  
 법원주립(法苑珠林) 103  
 법유(法乳) 613, 614  
 법유국흥(法由國興) 219, 220  
 법인국사(法印國師) 40, 62, 305, 314, 338, 342, 348  
 법장(法藏) 82, 135, 136, 293, 438, 464  
 법천사(法泉寺) 41, 355, 369, 374, 402, 404, 408, 409  
 법흥사(法興寺) 614, 615, 684  
 벽계정심(碧溪正心) 690  
 벽련선실(碧蓮禪室) 728  
 벽련전(碧蓮殿) 727  
 벽송지엄(碧松智嚴) 690  
 벽안(碧眼) 93  
 벽용(擗踴) 272, 338, 339  
 벽해건상(碧海褰裳) 278  
 변각대사(辨覺大師) 85  
 변수(汴水) 446  
 별가(別駕) 119, 121  
 병란(兵亂) 558  
 병부시랑(兵部侍郎) 76, 189, 190  
 보각(普覺) 547  
 보각국사(普覺國師) 44, 601, 602  
 보감국사(寶鑑國師) 649  
 보계(寶偈) 314, 315  
 보경사(寶鏡寺) 599, 600  
 보계현(寶鷄縣) 62  
 보광(寶光) 695, 696  
 보광사(普光寺) 648, 654  
 보급초년(甫及韶年) 367, 368  
 보기(寶基) 258  
 보당(寶幢) 466, 467  
 보당암(寶幢庵) 44, 557, 559, 593  
 보리달마(菩提達磨) 536, 591  
 보림사(寶林寺) 35, 36, 48, 55, 56, 58, 67, 68, 69, 100, 547, 647, 722, 728

보문각(寶文閣) 549, 626, 628  
 보문사(普門寺) 514, 516, 517, 538, 618  
 보문서(寶文署) 627, 628, 629  
 보살계(菩薩戒) 118, 120, 306  
 보세(寶世) 415, 416  
 보승(寶乘) 295, 342, 360, 362  
 보신(普愼) 173  
 보우(普愚) 637, 638, 648, 654, 655, 657, 658, 689  
 보원사(普願寺) 40, 62, 293, 294, 295, 324, 328, 427  
 보월승공탑(寶月昇空塔) 651  
 보장(寶藏) 594, 595  
 보장론(寶藏論) 638  
 보장정(保章正) 407  
 보적경(寶積經) 559  
 보제사(普濟寺) 513, 615  
 보조국사(普照國師) 43, 508, 512, 525, 526, 527, 533, 561  
 보조선사(普照禪師) 36, 55, 56, 94  
 보조체징(普照體澄) 55, 547  
 보지공(寶誌公) 653  
 보진(葆眞) 673, 674  
 보창(寶昌) 43, 507, 540, 541  
 보철(寶徹) 142, 227  
 보현사(普賢寺) 46, 47, 688, 715, 718  
 복감목여초(復歛目如初) 606  
 복난온분(服煖緇贗) 230  
 복면(服冕) 262, 263, 329  
 복서계(服西戒) 117, 118, 271, 272  
 복야(僕射) 188, 554  
 복전(福田) 61, 331, 432, 436, 437  
 복전의(福田衣) 383  
 복지상엄(福智相嚴) 414, 415  
 봉각(蓬閣) 175, 176  
 봉둔(蜂屯) 418, 419  
 봉래궁(蓬萊宮) 121  
 봉력(鳳曆) 319, 320  
 봉림(鳳林) 251  
 봉모(鳳毛) 301, 302  
 봉선서(封禪書) 62, 446  
 봉암사(鳳巖寺) 283, 647, 651  
 봉은사(奉恩寺) 45, 400, 645, 654  
 봉의랑(奉議郎) 239  
 봉익대부(奉翊大夫) 636, 637  
 봉제(奉制) 239, 295  
 봉조(鳳祚) 329  
 봉천원(奉天院) 404, 405  
 부도(浮圖) 154, 638, 651, 689  
 부동사원(不動寺院) 40  
 부루나(富樓那) 376, 539  
 부배(浮杯) 369, 653  
 부상(扶桑) 240, 590, 591  
 부석사(浮石寺) 38, 141, 407  
 부승람취고자(膚僧濫吹高藉) 151  
 부열(傳說) 216  
 부용영관(芙蓉靈觀) 46, 679, 690  
 부의자(負戾者) 387, 390  
 부자지장수인(夫子之牆數仞) 611  
 부종(甕鐘) 396, 398  
 부찬(哀撰) 432, 433  
 부촉(付囑) 154, 155  
 부행재(赴行在) 566  
 복원적영(北轅適郢) 107  
 분수(焚修) 374

분양선소(汾陽善昭) 643  
 분욕지우(分蓐之憂) 61  
 분파(奔波) 268, 269  
 불가휘(不可諱) 465, 466  
 불곡(不穀) 460, 461  
 불광사(佛光寺) 38, 142  
 불귀척벽중춘음(不貴尺壁重寸陰) 191  
 불도징(佛圖澄) 92  
 불루(不漏) 417, 418  
 불법동류(佛法東流) 144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76  
 불상조성경(佛像造成經) 100  
 불심조인(佛心祖印) 533, 534  
 불의(拂衣) 461, 693  
 불일결사문(佛日結社文) 566  
 불일사(佛日社) 437, 564, 566, 618, 619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 304, 449, 464  
 불타야사(佛陀耶舍) 93, 409  
 불통양저(不痛痒底) 578, 579  
 불통저(不痛底) 578, 579  
 불화(佛華) 304, 305  
 불회기박(不創其朴) 363, 364  
 불후지촉(不朽之觸) 603  
 봉래성도리지혜(朋來成桃李之蹊) 259  
 봉현(鵬顯) 127, 128  
 비덕주사(閼德柱史) 197, 198  
 비라방(毘羅房) 491, 492  
 비륜개과(比倫蓋寡) 414  
 비미(秘微) 193  
 비서성(秘書省) 420  
 비석(飛錫) 653  
 비석지심(匪石之心) 410

비성(鼻聲) 103  
 비수(批授) 560, 561  
 비슬산(琵琶山) 557, 558, 559, 562, 564, 614  
 비시기아(非齊期牙) 478, 479  
 비심호자익색신(非心乎資益色身) 367, 368  
 비아리성(毘耶離城) 68, 526  
 비어대(緋魚袋) 56, 57, 357, 358, 423, 430, 431  
 비연연경(俚演蓮經) 384, 386  
 비유품(譬喻品) 75  
 비은어대(緋銀魚袋) 189, 190  
 비이비혜(非夷非惠) 461  
 비인변외식(俚人變外飾) 176  
 비지(閣旨) 227  
 비착비조(匪蹻匪彫) 230  
 빈공과(賓貢科) 56, 67, 82, 127  
 빙복영우(憑伏靈佑) 699



사가(婆迦) 70  
 사가위금광사(捨家爲金光寺) 567  
 사가위원녕사(捨家爲元寧寺) 567  
 사가위정림사(捨家爲定林寺) 567  
 사구계(四句偈) 650  
 사구이자래(捨舊而自來) 463  
 사나사(舍那寺) 260, 651  
 사나사에 석종 45  
 사나원(舍那院) 260, 261  
 사남남종(司南南宗) 156

사도(司徒) 429, 431  
 사득상황지사(思得床惶之嗣) 364, 366  
 사라쌍수(娑羅雙樹) 337  
 사륜(絲綸) 336, 337, 343  
 사륜수장(絲綸遂掌) 343, 344  
 사리부도(舍利浮屠) 526  
 사리불(舍利弗) 172, 405  
 사림원(詞林院) 549  
 사명(四溟) 46, 669, 672, 683  
 사문단복론(沙門袒服論) 85  
 사문법(沙門法) 713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 85  
 사방함빈(四方咸賓) 266, 267  
 사법사문(嗣法沙門) 533  
 사법요(四法要) 103  
 사분지율(四分之律) 204  
 사사공양(四事供養) 224  
 사산비명(四山碑銘) 82  
 사상(泗上) 472  
 사선(四選) 556, 557  
 사세자(事世子) 550, 551  
 사슬지현(捨瑟之賢) 166, 167  
 사신비구니(思信比丘尼) 47  
 사염금귀(絲染錦歸) 122, 123  
 사원참척(四遠參覈) 211, 213  
 사유(閭維) 408, 579, 581, 689  
 사일(師逸) 304, 305  
 사자존자(師子尊者) 57, 588, 589  
 사조(嗣祖) 635, 636  
 사주안지현조(謝鑄顏之玄造) 247  
 사지부태지(沙之復汰之) 179, 180  
 사찬(沙餐) 189, 190  
 사천대(司天臺) 294, 580  
 사천대박사(司天臺博士) 294, 295  
 사천왕사(四天王寺) 120, 121  
 사친갑제(辭親甲第) 390  
 사품(四品) 629  
 사회사소(社會詞疏) 381, 382  
 삭염(削染) 92  
 산림(山林) 620  
 산립(山立) 44, 599, 600, 603, 609, 610  
 산중재상(山中宰相) 148, 149  
 산휘천미(山輝川媚) 124  
 살수(薩水) 694, 695  
 삼강전(三剛典) 286  
 삼계(三界) 65, 201, 396, 559, 560  
 삼고(三顧) 180, 181, 399  
 삼광(三光) 191, 192  
 삼귀의(三歸依) 161, 162, 262, 315  
 삼도(三都) 693  
 삼등(三等) 213, 214  
 삼랑사(三郎寺) 39, 245, 246, 251, 253  
 삼마지(三摩地) 358, 360  
 삼매(三昧) 193, 280, 358, 394, 538  
 삼명(三明) 373, 374  
 삼몽(三夢) 679  
 삼반지례(三反之禮) 399  
 삼법도론(三法度論) 85  
 삼법화상(三法和尙) 96, 97  
 삼별초(三別抄) 569  
 삼보(三寶) 61, 98, 161, 284, 310, 341, 367, 589, 699  
 삼사(三司) 661  
 삼승(三僧) 673  
 삼오주(三五州) 65, 66

삼외(三畏) 161, 162  
 삼이(三異) 297, 299  
 삼장(三藏) 204, 205, 296, 341, 370, 469, 470  
 삼장법사(三藏法師) 207, 208, 454  
 삼제지비수(三際之非殊) 193  
 삼존(三尊) 317, 319  
 삼중(三重) 621  
 삼중대사(三重大師) 40, 41, 213, 274, 275, 276, 293, 294, 295, 323, 339, 340, 383, 384, 389, 390, 407, 499, 560, 561, 621  
 삼중익현(三重翼玄) 491, 492  
 삼처(三處) 283, 284  
 삼처전심(三處傳心) 87, 535  
 삼품(三品) 627, 629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638, 665  
 상계(像季) 532, 533  
 상교(像敎) 59  
 상교(象敎) 311, 312  
 상국염공(相國廉公) 573, 575  
 상궐(象闕) 335, 336  
 상당록(上堂錄) 526, 527  
 상도(上都) 219, 220  
 상령찬사(上令撰辭) 587  
 상말(像末) 196  
 상무주암(上無住庵) 517, 518  
 상문(桑門) 300, 415, 416  
 상보(象步) 387, 390  
 상사(上士) 59, 60, 111, 164, 165, 197  
 상산사호(商山四皓) 163  
 상상과(上上科) 557  
 상서도관(尙書都官) 357, 358  
 상서도관낭중(尙書都官郎中) 423  
 상서좌승(尙書左丞) 398, 399  
 상설법연(像設法筵) 314, 315  
 상수시참(傷手是慙) 345  
 상어사노인(商於四老人) 163  
 상역(桑域) 553, 554  
 상위(象魏) 139, 140  
 상응(相應) 359, 360  
 상의(尙醫) 335  
 상의공봉시랑(尙醫供奉侍郎) 335  
 상자잠저(上自潛邸) 521  
 상장군(上將軍) 509, 567, 569, 570, 624, 626, 627, 629  
 상전(像殿) 126, 128, 320, 325  
 상정(象正) 362, 364  
 상족(上足) 128, 131  
 상주(常住) 572, 573  
 상주국(上柱國) 357, 358, 430, 431, 638  
 상행몽환불사(常行夢幻佛事) 613  
 상현(象軒) 267, 332, 333  
 색언이획(索焉而獲) 483  
 색은(索隱) 515, 516  
 색참금지(色慘金地) 338, 339  
 생계불감불계불증(生界不減佛界不增) 559  
 생멸문(生滅門) 268  
 생지(生知) 203, 205, 393, 396, 433, 434  
 서계(西戒) 117, 118, 271, 272  
 서공개성(西空芥城) 346  
 서국(西國) 81, 82  
 서당(西堂) 63, 64, 94  
 서래밀지(西來密旨) 227, 380  
 서련(瑞蓮) 178, 179  
 서록(瑞錄) 393, 396

서발한(舒發韓) 151, 152  
 서방지법(西訪之法) 251  
 서산(西山) 672, 674, 676, 688, 695, 696  
 서산청허당휴정대사(西山淸虛堂休靜大師) 669, 670  
 서석산(瑞石山) 520, 521  
 서수난정(逝水難停) 332, 333  
 서숙덕여웅명(庶淑德與雄名) 419  
 서신(書紳) 329  
 성운삼천(聖運\$三千) 205, 206  
 서천(西天) 57, 58, 144, 199, 265, 454, 539, 552  
 서하지도(西河之徒) 105, 106  
 서학(西學) 125, 126, 480  
 서한서(西漢書) 131, 133  
 서행(西行) 682  
 서환(西宦) 122, 123  
 석공(釋宏) 657  
 석노제휴(釋老提携) 695, 696  
 석두산(石頭山) 249  
 석등(釋燈) 138, 140  
 석량(碩量) 368  
 석림악봉(釋林鸞鳳) 413  
 석목지진(析木之津) 66, 67  
 석상초원(石霜楚圓) 643  
 석신부(釋愼符) 120, 121  
 석옥공선사(石屋琤禪師) 642, 643, 689  
 석옥청공(石屋淸琇) 45, 643, 689  
 석유이언(石有異言) 124  
 석장(石匠) 288, 494, 496  
 석장(錫杖) 524, 525, 540, 572, 653, 679  
 석전문초(石顛文鈔) 48, 728  
 석전정호(石顛鼎鑪) 48, 728  
 석정(釋竄) 420, 421  
 석통현(釋通賢) 119, 121  
 석현담(釋玄湛) 478, 479  
 석현창(釋賢暢) 76  
 석호(石戶) 272, 273, 338, 339  
 선가귀감(禪家龜鑑) 690  
 선공(禿公) 451, 452  
 선교석(禪敎釋) 690  
 선교성(宣敎省) 69, 70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 46, 679  
 선교일치(禪敎一致) 46  
 선근(善根) 244  
 선나지학(禪那之學) 509, 510  
 선난후획(先難後獲) 83, 215  
 선래자삼(善來者三) 567, 568  
 선린(禪麟)스님 609  
 선림(禪林) 592, 593  
 선무외삼장(善無畏三藏) 96, 97  
 선문(禪門) 64, 143, 145, 152, 179, 275, 276, 530, 532, 556, 587, 646, 647, 694, 702  
 선문구산(禪門九山) 646, 647  
 선문념송사원(禪門拈頌事苑) 586, 587  
 선문종가(禪門宗家) 36  
 선백(禪伯) 211, 213, 251, 253  
 선법당(善法堂) 574, 575  
 선봉사비(仙鳳寺碑) 42, 428  
 선상(禪牀) 221  
 선서(善逝) 87, 203, 204, 249, 250  
 선수(宣授) 548, 551  
 선승우법천사지산동(選勝于法泉寺之山東) 408, 409  
 선시(善始) 255, 256



선아(仙娥) 56  
 선아상조(善芽尙早) 244  
 선원사(禪源寺) 605  
 선원정궁(禪源頂宮) 605, 606  
 선월사(禪月社) 44, 561  
 선조성(宣詔省) 70  
 선족(跣足) 610  
 선찰(仙札) 336, 337  
 선파포송(仙婆抱送) 695, 696  
 선한(仙翰) 267  
 선화상(禪和尚) 116, 118, 245, 246  
 설미(雪眉) 260, 261  
 설복대천(舌覆大千) 588, 589  
 설산(雪山) 65, 138  
 설암조흠(雪岩祖欮) 643  
 섬궁(蟾宮) 277, 278  
 섭재(攝齋) 152  
 섭재자(攝齋者) 270  
 섭제찰해어일모중(攝諸刹海於一毛中)  
 483, 484  
 성가(聲價) 127, 128  
 성과(聖果) 609, 610  
 성무연식(性無緣飾) 581  
 성문옥경(聲聞玉京) 338, 339  
 성보(聖譜) 134  
 성사(星使) 98, 273, 333  
 성선(聖善) 93, 201, 298, 299, 365, 366  
 성수겁(星宿劫) 361  
 성승(聖僧) 392, 393  
 성운삼천(聖運三千) 205  
 성적등지문(惺寂等持門) 520  
 성조(聖朝) 220, 229, 258  
 성종성(聖種性) 467, 468

성주무염(聖住無染) 133  
 성주사(聖住寺) 38, 115, 129, 150, 160,  
 168, 203, 615  
 성주사비(聖住寺碑) 38, 127, 128  
 성주원(聖住院) 325  
 성충(性聰) 507  
 성투도응(誠投道應) 448, 449  
 세만(世萬)비구니스님 48, 725, 727, 728  
 소단(騷壇) 671  
 소둔(宵遁) 684  
 소릉(紹隆) 228  
 소릉황제(昭陵皇帝) 174, 176  
 소림굴(小林窟) 552, 535, 536  
 소림사(少林寺) 93, 133  
 소림선실(少林禪室) 727  
 소만다(蘇槃多) 358  
 소만도(蘇槃度) 358  
 소불(紹佛) 373, 374  
 소상고사(蕭湘故事) 148, 149  
 소설산(小雪山) 45, 645  
 소설암(小雪庵) 45, 650, 649, 651, 654  
 소승법(所乘法) 83  
 소양(霄壤) 552, 553  
 소읍지루여춘세우(所泣之淚如春細雨)  
 405  
 소판(蘇判) 118, 120  
 소현(韶顯) 119, 389, 407, 421  
 속리사(俗離寺) 420, 648  
 속요부비(粟饒浮毗) 123, 124  
 솔도파(窄婆娑) 128  
 송계선원(松溪禪院) 39, 246  
 송광사(松廣寺) 43, 508, 522  
 송광산(松廣山) 519, 522

송문(松門) 112, 180, 210, 213, 266, 267, 342  
 송사혜세가(松社兮蛻駕) 538  
 송송례(宋松禮) 624  
 송운(松雲) 683, 684, 687, 688  
 송운유정(松雲惟政) 672, 673, 689  
 수개(壽介) 442, 443  
 수결(手結) 157, 399, 403, 579  
 수결(搜抉) 515, 516  
 수계(受戒) 271, 305, 306, 388, 437  
 수골초범(秀骨超凡) 696  
 수공참재북지정통(遂公慙在北之精通) 387, 390  
 수교계업자(受敎繼業者) 41  
 수다사(水多寺) 382  
 수두(需頭) 402  
 수라지굴(修羅之窟) 360  
 수비사(修碑使) 287  
 수비천(修臂天) 135, 178  
 수산성념(首山省念) 531, 532, 643  
 수선사(修禪社) 538, 539, 521, 523  
 수역(壽域) 204, 206  
 수연부감(隨緣赴感) 261, 325  
 수용(睟容) 316, 396, 398  
 수의(垂衣) 258  
 수재(守宰) 126, 128  
 수정염주(水精念珠) 263, 646  
 수좌(首座) 498, 619, 620  
 수주대토(守株待兎) 301, 302  
 수즙(修葺) 572  
 수지유가부수의무현금(誰持有柯斧誰倚無絃琴) 184  
 수직가계자(隨職加階者) 41

수찬관(修撰官) 549  
 수창부시랑(守倉部侍郎) 56  
 수철화상(秀澈和尚) 56  
 수초(守初) 507  
 숙계(宿戒) 673  
 숙기(淑氣) 694, 695  
 숙령(夙齡) 393  
 숙령기주발재동(夙齡欺朱勃才童) 394, 396  
 숙재(宿齋) 673, 674  
 순안법흥사(順安法興寺) 684  
 순예(詢父) 117, 118, 165, 173, 174  
 승교사(崇敎寺) 373, 374  
 승덕대부(崇德大夫) 670  
 승록대부(崇祿大夫) 637, 670  
 승문대(崇文臺) 104  
 승법사(崇法寺) 427  
 승산(崇山) 535  
 승선사(崇善寺) 495  
 승엄(崇嚴) 202, 203  
 승연(崇演) 407, 408  
 승인(崇仁) 46, 679  
 습정균혜(習定均慧) 516, 517  
 습착치(習鑿齒) 95, 456  
 승가탑(僧伽塔) 472, 474  
 승가파제(僧伽婆提) 85  
 승랍(僧臘) 71, 221, 222, 271, 338, 407, 466  
 승량(僧亮) 173  
 승록사원(僧錄司員) 649  
 승무랑(承務郎) 115  
 승번(勝幡) 588, 589  
 승봉랑(承奉郎) 357, 358, 423  
 승여친방(乘輿親訪) 568

승유(僧維) 330  
 승전이문(乘傳以聞) 580, 581  
 승조(承祧) 341, 342  
 승조(僧肇) 638  
 승조법사(僧稠法師) 98  
 승좌(昇座) 524, 525  
 승좌(繩座) 117, 118  
 승지진자필방(僧之眞者必訪) 302, 303  
 승찬(僧璨) 133, 196, 590, 643  
 승천대사(僧泉大師) 316  
 승철양류중지총석(僧徹讓流中之寵錫)  
 388, 390  
 승통(僧統) 407, 420, 421, 446, 447, 448,  
 449, 452, 455, 465, 497, 498  
 승평부(昇平府) 508  
 승화반진(乘化反眞) 701  
 승회유오(僧會遊吳) 266, 267  
 시가절상지중(試可折床之衆) 377  
 시강(侍講) 549, 551  
 시단(始壇) 397, 398  
 시라박지(尸羅磧底) 454, 477, 478  
 시랑(豺狼) 207  
 시멸(示滅) 117  
 시무십여조(時務十餘條) 82  
 시변간(試辨看) 578, 579  
 시봉(柴棚) 606  
 시어사(侍御史) 115  
 시위법문유종장의(時謂法門有宗匠矣)  
 440  
 시유취성(時維鷺城) 655  
 시주질(施主秩) 705, 706  
 시척시효(是則是効) 350  
 식동불화(識洞佛華) 348  
 식양선덕(式揚禪德) 225  
 식종지례(飾終之禮) 580, 581  
 신감대사(神鑑大師) 37, 91, 92  
 신계사(神溪寺) 47, 711, 713  
 신광(神光) 553, 554  
 신근(信根) 221  
 신독(身毒) 84  
 신돈(辛旽) 45, 647, 648, 655  
 신돈승(辛旽僧) 655  
 신서제액이사지(宸書題額以賜之) 564  
 신엄(信嚴) 40  
 신익성(申翊聖) 46, 670  
 신좌(神座) 272  
 신주(新州) 721, 723  
 신호위(神號衛) 509  
 실노아심(實勞我心) 203  
 실다라(悉多羅) 635  
 심광(心光) 173  
 심광대사(深光大師) 38, 202, 203  
 심묘사(深妙寺) 38, 157, 158  
 심묘사비(深妙寺碑) 127, 128  
 심성(心聲) 161, 162  
 심약(沈約) 86  
 심왕지묘결(心王之妙訣) 258  
 심원(心猿) 74, 75  
 심이계어망전(心已契於忘筌) 90, 91  
 심전(尋詮) 511  
 심참원공(深慙遠公) 154, 155  
 심학(心學) 125, 126  
 심희(審希) 39, 245, 246  
 십경괴율(十經槐律) 210, 213  
 십만잡화(十萬雜華) 326

십선행(十善行) 315  
 십송율(十誦律) 85, 261  
 십이분교(十二分敎) 469, 470  
 십이승(十二乘) 162, 163  
 십철(十哲) 391, 393  
 십팔공(十八空) 71, 72  
 쌍계사(雙谿寺) 36, 81, 105  
 쌍림(雙林) 528, 530, 575  
 쌍수(雙樹) 351  
 쌍수고멸(雙樹告滅) 337, 339  
 쌍홀(雙仵) 673, 674, 702, 703, 704

암두(巖頭) 640, 641  
 압상(押上) 403, 404  
 야승이혹(夜繩易惑) 137, 138, 277, 278  
 야운비구(野雲比丘) 82  
 양가승통(兩街僧統) 274  
 양곡(陽谷) 105, 106, 117  
 양근사나(楊根舍那) 651  
 양기방회(楊岐方會) 643  
 양산사(陽山寺) 45, 647, 650, 651  
 양역(兩役) 107  
 양영(兩楹) 351, 352  
 양조국사(兩朝國師) 115, 116  
 양존(兩存) 204, 205  
 양지(兩智) 372, 374

어괴(語怪) 586  
 어니(淤泥) 214, 215  
 어련품성(淤蓮索性) 367, 368  
 어록(語錄) 586, 587  
 어비연목가구(魚非緣木可求) 138  
 어사대부(御史大夫) 398, 550  
 어산(魚山) 103, 104  
 어제병서온탕진사이비(御製并書溫湯晉祠二碑) 175, 176  
 어토(於菟) 96, 97  
 어필시화지사(御筆詩畫之賜) 682, 692  
 억보산(億寶山) 520, 521  
 억불산(億佛山) 520  
 억성사(億聖寺) 36, 65  
 언기(彦機) 673, 674, 702  
 언양간간(言懷懇懇) 328  
 언천(言泉) 214  
 언체의상(言諦義詳) 525, 526  
 엄관제가(淹貫諸家) 697

아경혜구(俄頃惠構) 282  
 아고번노중(俄苦樊籠中) 157  
 아농원유(我儂遠遊) 170  
 아미(阿彌) 88, 89, 199, 201  
 아미(嬰嬰) 677  
 아미타경(阿彌陀經) 588  
 아비담심론(阿毘曇心論) 85  
 아사리(阿闍梨) 477, 478  
 아심비석(我心匪石) 140, 306, 410  
 아찬(阿浪) 82, 118, 134  
 악포(握褒) 252, 253  
 안렴사(按廉使) 580, 581  
 안릉(安陵) 676  
 안민후(安民厚) 41  
 안심사(安心寺) 46, 688  
 안주(安州) 676  
 안찰(鴈利) 267

여경(餘慶) 133  
 여만(如滿) 38, 142  
 여부(廬阜) 416  
 여산(驪山) 175  
 여산(廬山) 154, 416  
 여산동림사(廬山東林寺) 85, 99, 260, 271, 388, 416  
 여산혜원(廬山慧遠) 85  
 여주고달원(驪山高達院) 283  
 여탄(茹歎) 417, 418  
 여학(驪壑) 83  
 여해탐주(驪海探珠) 277, 278  
 역명지전(易名之典) 342  
 역중지교(域中之教) 192, 193  
 연거(宴居) 320, 321  
 연거(燕居) 520, 521  
 연곡사(燕谷寺) 679  
 연곡화상(連谷和尚) 726  
 연공(璉公) 565  
 연달람지비종(演咀纜之秘宗) 321, 322  
 연덕궁(延德宮) 404, 405  
 연라(煙蘿) 270, 329  
 연목(蓮目) 249  
 연목구어(緣木求魚) 138, 302  
 연박상유(年迫桑榆) 266, 267, 312, 313  
 연보(蓮步) 328  
 연산(燕山) 672  
 연성벽(連城壁) 146, 147  
 연안(蓮眼) 262  
 연우(蓮宇) 203  
 연옹(憐鷹) 227  
 연제령(延帝齡) 317  
 연좌(宴坐) 221, 253, 348  
 연참(鉛槧) 458, 459  
 연훈법사(連訓法師) 68, 69  
 열수(列宿) 589, 590  
 염거(廉居) 36, 64, 94, 547  
 염거선사(廉居禪師) 64, 65, 72  
 염백이주(鹽白二州) 313  
 염수(炎水) 226  
 염승익(廉承益) 569, 570, 573, 625  
 염정수(廉廷秀) 664  
 염화미소(拈花微笑) 535, 552  
 염홍방(廉興邦) 662  
 영가체(永嘉體) 641  
 영가현각(永嘉玄覺) 641  
 영각산사(靈覺山寺) 38, 202  
 영경연사감(領經筵事監) 670  
 영골(靈骨) 579, 581  
 영공(郢工) 288  
 영관대사(靈觀大師) 679  
 영납적윤(靈衲嫡胤) 361  
 영녕사(永寧寺) 644  
 영녕원(永寧院) 491, 492  
 영당(影堂) 100, 126, 128, 703  
 영대(靈臺) 204  
 영대랑(靈臺郎) 294, 407  
 영부묘계(靈符妙契) 696  
 영산회상(靈山會上) 87, 448, 535  
 영수제구(令修齋臼) 224  
 영약(靈藥) 214  
 영염(零染) 137, 138  
 영예문춘추관사(領藝文春秋館事) 636  
 영원사(瑩源寺) 649  
 영유시구(罍囿著龜) 413

영윤(潁胤) 361, 362  
 영은암(靈隱庵) 48, 724, 725, 726, 728  
 영자(靈姿) 326  
 영친(寧親) 571, 572  
 영통사(靈通寺) 42, 400, 401, 427, 428, 466, 467, 490, 494, 496  
 영통사주(靈通寺主) 401  
 영학(永學)비구니스님 725  
 영환대가(迎還大駕) 693  
 예관혜초(譽冠惠超) 394, 396  
 예궁(藥宮) 329, 415  
 예달(藥闌) 415, 416  
 예부상서(禮部尙書) 403, 507, 509  
 예부시랑(禮部侍郎) 398, 399  
 예상강우(猊床講雨) 385, 386  
 예선연리(譽先掾吏) 364, 366  
 예의어단제탐애(銳意於斷除貪愛) 367, 368  
 예취(訥聚) 604, 605  
 오계(五戒) 161, 162  
 오관산(五冠山) 428  
 오기포과(吾豈匏瓜) 90, 91, 252  
 오능(五能) 107, 108  
 오탁(五濁) 72  
 오방번(五方幡) 298  
 오백나한(五百羅漢) 324, 325, 326  
 오백년택지(五百年擇地) 179  
 오부율(五部律) 204  
 오불능(五不能) 107  
 오산(龍山) 66, 200  
 오상(五常) 161, 162  
 오선(悟禪) 126  
 오승(五乘) 83  
 오어사(吾魚社) 44, 561, 562, 617  
 오언후(吳彦侯) 42, 431  
 오엽(五葉) 590  
 오예(吳睿) 628, 629  
 오운산(五雲山) 369  
 오자주(五字呪) 558, 559  
 오정(烏程) 269, 270  
 오조(五朝) 110  
 오조법연(五祖法演) 643  
 오종섭동(吾縱葉瞳) 244, 245  
 오지동연(吳之同輦) 400  
 오체투지(五體投地) 91  
 오탁(五濁) 71  
 오토일변지어노(吾土一變至於魯) 175, 176  
 오학(鰲壑) 66, 200  
 오합사(烏合寺) 150  
 옥계(玉偈) 316  
 옥경(玉京) 253  
 옥리사(屋裏事) 518  
 옥문(玉門) 655  
 옥임제십팔대손(屋臨濟十八代孫) 643, 644  
 옥천사(玉泉寺) 37  
 옥호(玉毫) 249, 328  
 온분(緇賸) 230  
 온실(穩實) 581, 583  
 온저(緇著) 230  
 웅취자(擁毳者) 270  
 와선(渦旋) 582, 583  
 완벽이환(完璧而還) 212  
 완염(琬琰) 601, 602  
 왕내배상즉례이방난(王乃杯觴則禮以防

亂) 175, 176  
 왕륜사(王輪寺) 375, 377  
 왕복명(王福命) 663, 665  
 왕소(王邵) 366  
 왕토(王土) 102  
 왕희지(王羲之) 44, 545, 597, 598  
 요도(瑤圖) 324, 325  
 요사(遙嗣) 561  
 요와(澆訛) 196, 197  
 요지(瑤墀) 121, 122  
 요황(瑤皇) 415, 416  
 욕표인연(欲表因緣) 255, 256  
 용경(龍鏡) 696  
 용방지속(龍邦之俗) 258  
 용사활(龍蛇活) 168  
 용상대덕(龍象大德) 387  
 용수(龍樹) 57, 58, 304, 305, 348, 349, 465, 464  
 용수을찬(龍樹乙粲) 148, 149  
 용암사(龍巖寺) 615, 616  
 용용진성(春容盡聲) 156  
 용지(龍墀) 335, 336  
 용지성(龍之聖) 197  
 용집(龍集) 244, 283  
 용천사(涌泉寺) 564  
 용화사(龍華寺) 617  
 우담(優曇) 147, 213  
 우담발라화(優曇跋羅華) 147, 212  
 우세승통(祐世僧統) 440, 441, 445, 455  
 우연(虞淵) 553, 554  
 우유선(右諭善) 550, 551  
 우이금서대경삼본귀지(又以金書大經三本歸之) 450, 451

우인열(禹仁烈) 662  
 우잠(牛潒) 200, 201, 409, 410  
 우지유종(愚智有種) 551, 553  
 우천(虞泉) 255, 256  
 우행(牛行) 521, 555  
 운궐(雲闕) 331, 332, 333  
 운납(雲衲) 660  
 운납가사(雲衲袈裟) 257  
 운명(雲茗) 330  
 운문문언선사(雲門文偃禪師) 584  
 운문사(雲門寺) 44, 564, 568, 587, 588, 649  
 운문종(雲門宗) 565  
 운문화상(雲門和尚) 568, 569  
 운손(雲孫) 512  
 운수(雲水) 660  
 운수납자(雲水衲子) 660  
 운수단(雲水壇) 690  
 운주(運州) 294, 295  
 운학(雲鶴) 677, 695  
 운해사(雲海寺) 563  
 운화(雲華) 464, 465  
 운흥사(雲興社) 607, 614  
 운흥인공(雲興印公) 607, 608  
 울울부적의(鬱鬱不適意) 678  
 원각경(圓覺經) 83, 159  
 원각대사(圓覺大師) 195, 196  
 원각조사(圓覺祖師) 133, 135, 195  
 원경왕사(元景王師) 497  
 원경충조(圓徑冲照) 570  
 원규(元珪) 658  
 원돈관문(圓頓觀門) 515, 516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 520

원부(元傳) 624  
 원시요종(原始要終) 130, 131  
 원오극근(圓悟克勤) 643  
 원오대사(圓悟大師) 85  
 원외랑(員外郎) 489, 490  
 원융부(圓融府) 646  
 원응존자(圓應尊者) 657  
 원장(圓藏) 165  
 원적암(圓寂菴) 687  
 원조(元照) 454, 455  
 원조부천(圓照溥天) 349  
 원종대사(元宗大師) 39, 40, 237, 238, 245,  
 251, 255, 260, 264, 271, 273, 280  
 원종문류(圓宗文類) 42, 475, 476  
 원준(圓峻) 688  
 원증국사(圓證國師) 45, 635, 651, 658  
 원표대덕(元表大德) 68, 69  
 원표대덕선사(元表大德禪師) 56  
 원효(元曉) 467, 468, 480, 547, 567, 617  
 원효독견(元曉獨見) 480  
 원효보살(元曉菩薩) 302, 303  
 월결(月缺) 27, 2721  
 월사(月沙) 670, 671, 673, 702  
 월성사(月星寺) 617, 619  
 월추향정(月墜香庭) 338, 339  
 위릉(威陵) 274  
 위명승화(委命乘化) 527, 530  
 위빈노옹(渭濱老翁) 166, 167  
 위사천승(魏寺千僧) 391, 393  
 위위윤(衛尉尹) 628, 629  
 위좌(危坐) 91, 556  
 위중심(慰衆心) 92, 93  
 위창서칭상지년(魏蒼舒秤象之年) 371,

372  
 위폐대조국사지호야(爲避大朝國師之號  
 也) 570, 572, 600  
 위흔(魏昕) 151, 152  
 유계(遺誡) 221, 222  
 유고유증(惟高惟曾) 362, 364  
 유관(惟寬) 531, 532  
 유구(駒駒) 392  
 유동(儒童) 334  
 유동보살(儒童菩薩) 313  
 유림랑(儒林郎) 294, 295  
 유마(騶馬) 392  
 유마거사(維摩居士) 68, 86, 87, 313, 335,  
 361, 526  
 유마경(維摩經) 83, 159  
 유발미견(油盞彌堅) 203  
 유방여윤(遺芳餘潤) 584, 585  
 유부(幼婦) 129, 344, 345  
 유부지문사(幼婦之文辭) 275, 276  
 유설지중(縲紲之中) 692, 693  
 유성(維城) 119, 121  
 유성법사(有誠法師) 444, 445, 447  
 유시법인(唯是法印) 588, 589  
 유신(柳伸) 43, 507, 509  
 유심묘의(唯心妙義) 386  
 유아(儒雅) 414  
 유옹지길(維熊之吉) 308, 309  
 유위요세(有爲澆世) 123, 124  
 유인유여(游刃有餘) 582, 583  
 유인유여지(游刃有餘地) 582  
 유일(唯一) 507  
 유장인보(遺狀印寶) 579, 581  
 유점사(楡岾寺) 689



- 유정(惟政) 672, 686, 689, 703  
 유지략(劉志略) 722  
 유한마재(有限麼才) 123, 124  
 유협(劉鋹) 155, 156  
 육도(六度) 215  
 육두품(六頭品) 134, 136  
 육마적(六魔賊) 176  
 육수정(陸修靜) 85  
 육의(六義) 164, 296  
 육적(六籍) 83, 159, 160  
 육정(六情) 59  
 육조(六祖) 48, 64, 68, 69, 100, 143, 156, 196, 547, 724, 728  
 육조단경(六祖壇經) 43, 513, 514, 520  
 육종경(六種經) 83  
 육종신통(六種神通) 193  
 육하림민(育夏臨民) 386  
 육환석장(六環錫杖) 524, 525  
 육환장(六環杖) 211, 247, 332, 524, 525  
 윤관(尹瓘) 42, 490  
 윤언(綸言) 102, 333  
 윤지(綸旨) 569, 570  
 윤협(允叶) 90, 91  
 윤협복응(允叶服膺) 246  
 윤환(尹桓) 661  
 율암식활(律菴食活) 718  
 융소(融炤) 400, 401  
 융제선사(融諦禪師) 39, 245  
 은구(銀鉤) 168  
 은미(隱微) 532  
 은현유시(隱現維時) 654  
 을지문덕(乙支文德) 694  
 을찬(乙粦) 174, 176  
 음계장포자양밀격내목옹이명철(陰戒掌枹者陽密擊乃目牖而命撤) 169, 170  
 음기(陰記) 33, 39, 40, 41, 42, 44, 45, 231, 420, 488, 545, 546, 556, 597, 599, 600, 702  
 음기곽외(陰記廓外) 497  
 음비밀찬(陰毘密贊) 485, 486  
 응기(膺期) 252, 253  
 응동신(應東身) 271, 272  
 응봉(應奉) 251, 253  
 응선(應先) 493  
 응암담화(應庵曇華) 643  
 응진보살(應眞菩薩) 195, 196  
 의거(義車) 72  
 의기일만기이재(倚其一慢其二哉) 163  
 의단(疑團) 639, 640  
 의마석진(衣磨石盡) 262, 263  
 의문지념(倚門之念) 147, 301, 302  
 의발수신(衣鉢隨身) 335  
 의삭(懿鑠) 386, 387  
 의상(義相) 442, 446, 447, 467, 468, 480  
 의상대덕(義相大德) 302  
 의승병(義僧兵) 683, 692, 693, 698  
 의천(義天) 42, 257, 404, 428, 433, 434, 435, 436, 439, 446, 448, 455  
 의출세지각왕(疑出世之覺王) 383, 384  
 이과중수(已過中壽) 170  
 이귀(移晷) 573, 575  
 이기(二氣) 191, 192  
 이남택(里南宅) 69  
 이덕손(李德孫) 626  
 이묘사간(理妙詞簡) 215  
 이무지적(履拇之跡) 366

이문(二門) 268, 269  
 이벌찬(伊伐漣) 151  
 이사지(頤使之) 177, 178  
 이사해지(以辭害志) 84  
 이상유자(垠上儒子) 166, 167  
 이상지회(垠上之會) 166  
 이색(李穡) 45, 636, 637, 662, 664  
 이성림(李成林) 662, 665  
 이시석(李時碩) 507  
 이심전심(以心傳心) 87, 279, 280, 412, 470, 588  
 이십팔수(二十八宿) 190, 589  
 이여송(李如松) 685  
 이영보(李英輔) 41  
 이영주(李英柱) 628  
 이우(李俔) 507  
 이유헌(利有攸往) 245  
 이유훈(異惟忠) 399  
 이인민(李仁敏) 663  
 이인임(李仁任) 661  
 이자연(李子淵) 389  
 이장용(李藏用) 624  
 이장자화엄론(李長者華嚴論) 515, 516  
 이적선(李適仙) 395  
 이정귀(李廷龜) 46, 670  
 이정순(李貞順) 39  
 이제현(李齊賢) 649  
 이직지심(易直之心) 210  
 이찬(伊漣) 152, 174  
 이품(二品) 624, 626  
 이희계(李希桂) 664  
 익현(翼玄) 495  
 익현성공(益顯聖功) 258  
 인각사(麟角寺) 44, 62, 545, 546, 547, 548, 570, 572, 573, 585, 601, 616, 619  
 인각장로(麟角長老) 601, 602  
 인개(忍鎧) 376, 377  
 인령(麟嶺) 575, 576  
 인보(印寶) 574, 575  
 인사(麟史) 174, 176  
 인수과규무옥(麟叟罷窺廡玉) 157  
 인식종지현로(引飭終之玄路) 256  
 인영(印英) 688, 689, 704  
 인견지연(寅餞之筵) 403, 404  
 인초(忍草) 246, 247  
 인홍사(仁弘社) 44, 562, 563  
 인환(人寶) 257, 258  
 인흥사(仁興寺) 562, 564, 609  
 인흥사(仁興社) 614, 615  
 일각기자(日角奇姿) 308, 309  
 일궁(一筮) 679  
 일국존친(一國尊親) 475, 476  
 일길간(一吉干) 104  
 일신난(日新亂) 645  
 일언이폐지(一言以廢之) 604  
 일연(一然) 44, 545, 546, 554, 556, 566, 568, 584, 587, 596, 597, 609  
 일연선사(一然禪師) 585, 611  
 일용사(日用事) 643  
 일자분정(日蔗分精) 367, 368  
 일지위심(一之謂甚) 158, 160  
 일착자(一着子) 525, 526  
 일탁송문(一託松門) 210, 213  
 일품(一品) 624  
 임견미(林堅味) 637, 662, 665

임제의현(臨濟義玄) 643  
 임제종(臨濟宗) 531, 642, 690  
 임종개(臨終偈) 524, 531, 650  
 임종기(臨終記) 525, 526  
 임진왜란(壬辰倭亂) 682, 693  
 임참간괴(林慙澗愧) 124  
 임해공(臨海公) 148, 149  
 입곡초낭공(入谷超朗公) 181  
 입선(入選) 567, 622  
 입실(入室) 119, 121  
 입조사(入朝使) 76

ㅈ

자가옥리(自家屋裏) 518  
 자각(紫閣) 94  
 자경문(自警文) 82  
 자금어대(紫金魚袋) 76, 81, 116, 184, 189,  
 430, 431, 509, 550, 551  
 자등지탑(慈燈之塔) 222, 223  
 자라법의(紫羅法衣) 329, 330  
 자수(藉手) 477, 478  
 자심(藉甚) 556, 557  
 자운사(慈雲寺) 373, 374  
 자장(慈藏) 567  
 자적기적(自適其適) 128, 131, 346  
 자족(藉足) 479  
 자준현반(資峻玄班) 391, 393  
 자휴(自休) 689  
 작서부송운홍(作書附松雲詒) 687  
 작송팔구(作頌八句) 639, 640  
 잡계(箴戒) 158, 160  
 잡화(雜華) 139, 141, 303, 305, 313, 326  
 장관승전(壯觀僧田) 331  
 장단열(張端說) 39, 239  
 장백사(長柏寺) 37, 95  
 장사랑(將仕郎) 508  
 장사현(長沙縣) 67, 69, 242, 243  
 장산(章山) 554  
 장생표(長生標) 68, 69  
 장선별감(掌選別監) 574, 575  
 장수자선(長水子璿) 451  
 장엄겁(莊嚴劫) 361  
 장의사(莊義寺) 303, 307  
 장의산사(莊義山寺) 305  
 장자(莊子) 90, 127, 128, 139, 166, 170,  
 191, 192, 194, 250, 278, 349, 363, 369,  
 478, 487, 527, 528, 582, 591  
 장지춘(張子春) 41, 420, 423  
 장주욕행불애이(莊周欲行不崖異) 528  
 장중영(張仲英) 398, 399  
 장차(掌次) 165  
 장참법성(牆湮法城) 219, 220  
 장초(壯超) 38, 231  
 재부덕(在否德) 568, 569  
 재삼지의(在參之義) 120  
 재삼지절(在三之節) 120  
 재악사(載岳社) 616  
 재장명주허명자완(在掌明珠虛明自玩)  
 700  
 재주흥출일지방(載周興出日之邦) 252  
 재지분수(在地焚修) 683  
 재해인사강경(在海印寺講經) 473, 474  
 재휘주미(纔髦塵尾) 264  
 저군(儲君) 295, 296

저군미륵용화사위지전(諸君彌勒龍華嗣位之前) 295

저망구의(佇望羈衣) 389, 390

적선여경(積善餘慶) 133

적자(赤髭) 93, 409, 410

적정중(寂定中) 605, 606

적주산(寂住山) 248, 249

적취암(積翠庵) 520, 521

적하(積夏) 100, 101

전간(全幹) 489, 490, 491, 494

전개(專介) 408

전골(篆骨) 340

전교시(典校寺) 636, 637

전단원(梅檀園) 640

전당(錢塘) 462, 463

전목단봉(戰牧丹峰) 684

전법계(傳法偈) 590

전삼린(全參蔭) 407

전의(田衣) 383

전자(鐫字) 231

전재(筌宰) 417, 418

전전(殿前) 540, 541

전절부사(翦截浮辭) 381, 382

전제(筌蹄) 469, 470

전중대감(殿中大監) 76

전해전명(前解轉明) 515, 516

전혹재의(剪惑裁疑) 385, 387

절룡형명(竊弄刑名) 655

절묘호사(絶妙好辭) 129, 409, 344

점두함지(點頭領之) 602

점위(點危) 204, 206, 416, 417

점해파식(漸海波息) 211

정가신(鄭可臣) 550, 625, 626

정각(正覺) 58, 192, 193, 365, 495, 496

정공(淨供) 117, 118, 339, 340

정광불(錠光佛) 334, 453

정광불롱(定光佛隴) 452, 453

정력(定力) 105, 106, 359

정림사(定林社) 44, 560, 561

정명(淨名) 68, 69, 87, 249, 250, 313, 526

정무복비자(靜無腹非者) 177, 178

정민(貞珉) 343, 409, 701

정백(庭柏) 539

정법안장(正法眼藏) 108, 200, 509, 510

정변부사마(定邊府司馬) 56, 57

정상국안(鄭相國晏) 560, 561

정석(貞石) 76, 409

정수기(鄭守棋) 628, 629

정수무파(定水無波) 273, 274

정안(鄭晏) 560, 567

정여립(鄭汝立) 681, 692

정원법사(淨源法師) 440, 441

정원(淨源)스님 448

정유대사(定有大師) 47, 715, 716, 717, 718

정유산(鄭惟産) 41, 403, 404, 409

정육(貞育) 65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 539

정조(靜照) 545, 547, 580, 581

정주(貞州) 443

정택(正澤) 727, 728

정토난야(淨土蘭若) 214

정토사(淨土寺) 187, 188

정헌대부(正憲大夫) 548, 551

정혜결사(定慧結社) 43, 522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522, 523, 526

정혜사(定慧社) 521, 522  
 정혜쌍수(定慧雙修) 43, 516  
 제구(蟹白) 129, 131, 224, 276, 344, 345  
 제당전란(帝唐擗亂) 116, 118  
 제독(提督) 685  
 제번왕자(諸蕃王子) 174, 176  
 제분진속(諦分眞俗) 411  
 제석천왕(帝釋天王) 199, 574  
 제선봉행지채(諸善奉行之采) 397, 398  
 제승법수(諸乘法數) 586, 587  
 제심(帝心) 464, 465  
 제압(題押) 566  
 제위보(濟危寶) 493  
 제유(嘒嘒) 515, 516  
 제호(提壺) 365, 366  
 제호(醍醐) 58, 223  
 조계(曹溪) 99, 100, 202, 203, 512, 636  
 조계산(曹溪山) 58, 100, 508, 521, 526, 538, 547, 722, 728  
 조계일파(曹溪一派) 590, 591  
 조계종(曹溪宗) 512, 547, 548  
 조기고명(造其高明) 467, 478  
 조당집(祖堂集) 94, 63, 641  
 조방벽반(趙邦璧返) 212, 213  
 조백대사(棗栢大士) 515  
 조봉랑(朝奉郎) 443, 444, 630  
 조사상답니(祖師嘗踏泥) 172, 173  
 조사선(祖師禪) 144  
 조산랑(朝散郎) 430, 431  
 조석(祖席) 330  
 조심지단(棗心之丹) 308, 309  
 조암사(祖巖社) 616, 618  
 조열대부(朝列大夫) 548, 551  
 조월암(祖月庵) 520, 521  
 조일신(趙日新) 645  
 조정(朝正) 141, 142  
 조정사원(祖庭事苑) 586, 587  
 조주(趙州) 248, 539, 638, 640  
 조주무자(趙州無字) 45  
 조청대부(朝請大夫) 184  
 조청랑(朝請郎) 56, 57  
 조파도(祖派圖) 586, 587  
 존신지법(存神之法) 64  
 종남산(終南山) 94, 712, 716  
 중요(宗要) 372  
 종원(終圓) 397, 398  
 종자현지왕철(踵慈軒之往轍) 275, 276, 340  
 종취(宗趣) 563  
 종휘선사(宗暉禪師) 43, 512  
 좌가승록(左街僧錄) 407  
 좌구(座具) 255, 256, 263  
 좌대언(左代言) 637, 638  
 좌랑(佐郎) 550, 571, 572, 630  
 좌승지(左承旨) 548, 551, 569, 637  
 주객원외랑(主客員外郎) 443, 444, 446, 447, 489  
 주곡(主穀) 491, 492  
 주근(周勤) 195  
 주련(珠聯) 260, 261  
 주륙사(朱勒寺) 614, 616  
 주미(塵尾) 214, 264  
 주발(朱勃) 393, 394, 396  
 주세어법(住世語法) 524  
 주장자(拄杖子) 526, 576, 644, 696  
 주재(主宰) 359, 360

주풍대노공지어(周豐對魯公之語) 153, 155  
 주필(駐蹕) 332, 333  
 죽허(竹虛) 44, 597, 598  
 준광(俊光) 41, 370, 372  
 중각원(重閣院) 491, 492  
 중니(仲尼) 439, 440  
 중대부(中大夫) 356, 358, 627  
 중대사(重大師) 41, 275, 285, 421, 422, 423, 489, 490, 492, 494, 496, 500, 501, 556, 557, 593  
 중대사득묘(重大師得妙) 491, 492  
 중대사승류(重大師勝流) 491, 492  
 중대사용개(重大師融介) 491, 492  
 중대사진개(重大師眞介) 491, 492  
 중령사(中嶺寺) 617, 619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238, 356  
 중서문하평장사(中書門下平章事) 356, 358, 429, 431  
 중서사인(中書舍人) 357, 403, 404, 444, 445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 356, 429  
 중연(中涓) 125  
 중용(仲容) 637, 638  
 중원부(中原府) 231  
 중일(重日) 574, 575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586, 587  
 중화(中和) 209, 210  
 중화서수지년추(中和西狩之年秋) 162, 163  
 중흥사(重興寺) 45, 380, 382, 641, 651, 654, 656  
 증구마라타지상(證鳩摩羅駄之祥) 199  
 증도가(證道歌) 641

증조(蒸棗) 295, 296  
 증진대사(證眞大師) 259  
 지검(芝檢) 157, 259, 319, 320  
 지견(知見) 94  
 지공주사(知公州事) 508, 509  
 지광(智光) 408  
 지광국사(智光國師) 41, 355, 372, 373, 383, 384, 391, 392, 397, 412, 418, 420  
 지눌(知訥) 43, 507, 508, 511, 512, 513, 514, 516, 523, 561  
 지니(芝泥) 224, 225, 259  
 지단(志端) 531, 532  
 지득위학배상(止得爲鶴背上) 177, 178  
 지론사(智論寺) 618  
 지리산(智異山) 46, 81, 517, 678, 679, 686  
 지무허월(贄無虛月) 336, 337  
 지부산(之罘山) 141, 142  
 지비행원(智悲行願) 604, 605  
 지상사(至相寺) 141  
 지신사(知申事) 664  
 지엄(智儼)스님 480  
 지엄화상보은사회원문(智儼和尚報恩社會願文) 82  
 지웅존자(智雄尊者) 657, 658  
 지음(知音) 451, 452, 478, 654  
 지의(智顗) 448, 449, 453  
 지일(智日) 591  
 지장선사(智藏禪師) 64, 94  
 지제고(知制誥) 549, 551, 629  
 지주사(知奏事) 490, 491, 664  
 직문(直文) 335  
 직추아관(職筵衙官) 364, 366  
 직학(直學) 548

진감선사(眞鑑禪師) 36, 81, 102, 103, 104, 110

진경대사(眞鏡大師) 245, 246

진골(眞骨) 134, 135

진관사(眞觀寺) 491, 492

진단(震旦) 58, 510

진로(振鷺) 164, 165

진묵조사(震默祖師) 611

진방(震方) 466, 467

진벌(津筏) 671

진사비(晉祠碑) 175

진상종지아운(振霜鐘之雅韻) 241, 243

진서(眞書) 288

진성왕(眞聖王) 153

진신(縉紳) 471, 472

진언(陳言) 510

진여문(眞如門) 268

진여사(眞如寺) 451, 452

진전사(陳田寺) 44, 64, 94, 547, 556, 557

진존숙(陳尊宿) 584, 585

진종(眞宗) 59, 72, 73, 227, 278, 279, 359, 360

진창(陳倉) 62, 63

진창북관성(陳倉北阪城) 62

진풍(眞風) 257

진현관(進賢館) 636, 637

집사시랑(執事侍郎) 118, 121

집사제자(執事弟子) 613

정관법사(澄觀法師) 438

정시고람지가탄(徵詩稿覽之嘉歎) 681

정엄(澄儼) 432, 463

차마(磋磨) 164, 165

차탈(差奪) 603, 604

착절(錯節) 582, 583, 592

착주일추(捉塵一趨) 377

착치미천(鑿齒彌天) 456

찬구(鑽龜) 363, 364

찬구타와(鑽龜打瓦) 363

찬영(榮英) 657, 658

찬유(噪幽) 39, 241, 243, 245, 249

찬후(鄭侯) 163

참봉(參奉) 676, 677

참지정사(參知政事) 238, 239, 625

참학(參學) 623

창락궁(昌樂宮) 541

창부(倉部) 241, 243

창천의저(蒼天倚杵) 278

채란(采蘭) 90, 91

채제공(蔡濟恭) 47, 720

채호비사(彩毫比事) 344, 345

처능(處能) 507

처영(處英) 683, 686, 687

처중약독(處衆若獨) 581

척령재원(鵲鴿在原) 460, 461

척벽(尺壁) 191, 192

천강람청(茜絳藍靑) 93

천교(天敎) 318, 319

천길상(天吉祥) 454, 455

천덕전(天德殿) 264

천룡사(天龍社) 615

천림(天臨) 652, 653

천병(天兵) 684, 693  
 천복원(薦福院) 493  
 천붕기국(天崩杞國) 255, 256  
 천붕지탁(天崩地塌) 255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 288, 298  
 천승주(千乘主) 177, 178  
 천시(天時) 89  
 천안(千眼) 263, 264, 351  
 천안(天顔) 308, 309, 332, 333  
 천왕사(天王寺) 253  
 천의(遷儀) 195  
 천의불석(天衣拂石) 112  
 천조(踐阼) 256, 315  
 천집비휴(荐集丕休) 402  
 천초상로(穿草上露) 178, 179  
 천축(天竺) 84, 240, 552, 589  
 천축사(天竺寺) 473, 474  
 천친(天親) 464, 465  
 천태불롱(天台佛隴) 453, 462  
 천태원(天台院) 491, 492  
 천태종(天台宗) 42, 428, 448, 453, 462, 463  
 천파화(天波花) 535  
 천향(天香) 330  
 철숙지자(啜菽之資) 90, 91  
 첨의사(僉議事) 625, 627  
 첨의평리(僉議評理) 238, 625, 663  
 첨피석지자(忝避席之子) 166, 167  
 청량(淸凉) 464, 465  
 청려(靑藜) 253  
 청분(淸芬) 672, 673  
 청분(淸玢) 587, 588, 600  
 청신녀(淸信女) 118, 272, 613  
 청신사(淸信士) 118, 272, 613  
 청안(靑眼) 93  
 청원사(淸源寺) 513, 514, 618  
 청원행사(淸原行思) 196, 249  
 청천강(淸川江) 672, 718  
 청허당(淸虛堂) 669, 670, 673, 674, 707  
 청허당집(淸虛堂集) 690  
 청허(淸虛) 46, 679, 680, 689,  
 청허자(淸虛子) 676  
 청허집(淸虛集) 688  
 청환(淸奩) 71  
 청훈(靑量) 190, 192  
 체대인연(締大因緣) 397, 398  
 체원함일(體元含式) 204, 206  
 체징(體澄) 35, 55, 60, 64, 65, 72, 94  
 초개사(初開寺) 567  
 초계비구(草繫比丘) 310, 311  
 초계지심(草繫之心) 311, 312  
 초액(椒掖) 390  
 초용검지래(初龍劍之來) 585, 586  
 초제(招提) 105, 106  
 초제사(招提寺) 105  
 초제승방(招提僧坊) 105  
 초촌(鹵飢) 367  
 초촌지세(鹵飢之歲) 61, 62, 368  
 초투제사(招鬪提舍) 105  
 총경(聰警) 555, 556  
 총섭(摠攝) 685, 686  
 최경만(崔敬萬) 664  
 최령(崔寧) 628, 629  
 최언위(崔彦爲) 38, 189, 190  
 최영(崔瑩) 661, 662, 663, 665  
 최인연(崔仁澆) 37, 189  
 최자혁(崔資奕) 629



최자호(崔資顙) 488, 490, 491  
 최치옹(崔致翁) 507  
 최치원(崔致遠) 36, 37, 38, 81, 82, 107,  
 115, 116, 121, 122, 123, 126, 131, 161,  
 198, 293, 294  
 추구(蜀狗) 469, 470  
 추애(湫隘) 564  
 추유(鰥儒) 409  
 추자(鷲子) 405, 406  
 추향(鄒鄉) 197  
 축건(竺乾) 589, 590  
 축담유(竺曇猷) 96, 97  
 축원성선사(竺源盛禪師) 642, 643  
 춘성당(春星堂) 717  
 춘추관(春秋館) 238  
 춘추관사(春秋館事) 670  
 출기전학(黜其典學) 468, 470  
 출어성장(出語成章) 381, 382  
 출진량(出塵涼) 268, 269  
 충사관(充史館) 549, 551  
 충성관일(忠誠貫日) 685  
 취령지풍(鷲嶺之風) 258, 259  
 취미무학대사(翠微無學大師) 249  
 취염(趣炎) 194  
 취형(聚螢) 225  
 치경겸겸(致敬慊慊) 328  
 치류(緇流) 383, 384  
 치쇠포류(齒衰蒲柳) 266, 267  
 치수(鎚銖) 369  
 치치지속(蚩蚩之俗) 150  
 친제찬사이백자(親制讚詞二百字) 471,  
 472  
 칠성암(七星菴) 47, 715, 718

칠처가람(七處伽藍) 76  
 침석수류(枕石漱流) 269  
 침수(枕漱) 269, 270

쾌호(快浩) 717, 718, 719

탁금(濁金) 551, 553  
 탁약(索筊) 376, 377  
 탁일하(卓一下) 576, 579  
 탁재지인(倬哉至人) 227  
 탁제(卓祭) 408  
 탄기(呑氣) 365, 366  
 탄문(坦文) 40, 62, 297, 299, 305  
 탄봉(歎鳳) 197  
 탄조(呑鳥) 225  
 탄중혁기(誕鍾氣) 413  
 탈사(脫屣) 257  
 탈서소자(脫西笑者) 130, 131  
 태고(太古) 637, 638, 641, 644, 645, 648,  
 649, 652, 689, 690  
 태고국사(太古國師) 637, 641  
 태고보우(太古普愚) 45, 643  
 태고암가(太古庵歌) 45, 641, 643  
 태부왕(太傅王) 161, 162  
 태사령(太史令) 488, 490, 491  
 태상(太相) 188, 190  
 태승(太丞) 238, 239, 294, 295

태위(太尉) 429, 431  
 태위대왕(太尉大王) 168  
 태제상국(太弟相國) 154, 155  
 태조신성대왕(太祖神聖大王) 252, 253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134, 135, 148, 176  
 토비수주가득(兎非守株可得) 138  
 토한(兔翰) 131  
 토해(兎海) 410  
 통승보업(統承寶業) 257  
 통양저(痛痒底) 578, 579  
 통오진정대선사(通奧眞靜大禪師) 598, 599, 600  
 통저(痛底) 578, 579  
 통현장자(通玄長者) 538  
 투룡문(透龍門) 387, 390  
 투자대동(投子大同) 39, 249  
 투자선화상(投子禪和尚) 248, 249  
 투체(投體) 91, 92  
 특추선경(特趨禪境) 216

## 고

파번뇌(破煩惱) 129  
 파악취공지집(破惡取空之執) 462, 463  
 파안미소(破顏微笑) 87, 535, 552  
 파초(芭蕉) 57, 58  
 파험(波險) 582, 583  
 판교진(板橋鎮) 443, 444  
 판도사(版圖司) 550, 551  
 판상서예부사(判尙書禮部事) 429  
 판상서예형부사(判尙書禮刑部事) 356,

358  
 관이병부사(判吏兵部事) 637, 638  
 팔공산(八公山) 516, 522, 618  
 팔굉(八紘) 132, 133  
 팔도십육종(八道十六宗) 683  
 팔부신장(八部神將) 314, 333, 701  
 팔식(八識) 358, 360  
 패강도호(溟江都護) 118, 121  
 패강서인(佩江西印) 142  
 패왕지도(霸王之道) 62, 63  
 팽래복지(倂來卜地) 474, 475  
 편간(編簡) 458, 459  
 편단우견(偏袒右肩) 62  
 편점(編苫) 130, 131  
 편하(駢賀) 383, 384  
 평노사(平盧使) 66  
 평산처림(平山處林) 643  
 포발(布髮) 349, 350, 479  
 포발엄니(布髮掩泥) 334, 536  
 포발지영(布髮之迎) 334, 335  
 포산(包山) 44, 557, 558, 559, 593  
 표곡지성(臈谷之聲) 261  
 표기운합(臈起雲合) 593  
 표방생장계(標放生場界) 168  
 표보의명(表寶衣名) 465, 466  
 표연원거(飄然遠舉) 486  
 표월(標月) 534  
 표하건나(驃訶健拏) 138, 140  
 품비지전(品匪地前) 414  
 풍번법담(風幡法談) 723  
 풍악(楓岳) 687  
 풍우여회(風雨如晦) 111

풍준(豐準) 555  
 풍혈연소(風穴延沼) 643  
 피갈회옥(被褐懷玉) 172  
 피무지시(披霧之時) 213, 214  
 피미(披靡) 471, 472  
 피안불요 하필회토(彼岸不遙何必懷土)  
 139, 140  
 필총(筆塚) 394, 396  
 필추(苾芻) 129, 131

## 응

하가산(下柯山) 514, 516, 538  
 하관이경(夏官二卿) 121  
 하남의(霞衲衣) 255, 256  
 하무산(霞霧山) 642, 689  
 하상지(何尙之) 161, 162  
 하안지(下安之地) 572, 573  
 하정사(賀正使) 56  
 학귀(鶴歸) 127, 128  
 학금(鶴禁) 309  
 학륵나존자(鶴勒那尊者) 57, 200  
 학륵야나(鶴勒夜那) 200, 201  
 학림(鶴林) 575, 576  
 학명선사(鶴鳴禪師) 727, 728  
 학사(學士) 508, 549, 551  
 학사객아(學謝客兒) 344, 345  
 학수(鶴樹) 271, 575  
 학식황천(學識荒淺) 587, 588  
 학정(學正) 511, 512  
 한림대(翰林臺) 127, 189  
 한림랑(翰林郎) 127, 128, 189

한림원(翰林院) 189, 190, 238, 239, 549  
 한림직학사(翰林直學士) 548, 551  
 한림학사(翰林學士) 238, 239, 276, 294,  
 295  
 한상자손지극(韓相子孫之極) 177, 178  
 한서(漢書) 131, 132, 205, 254, 257, 274,  
 380, 580, 589  
 한윤(韓允) 40, 294, 295  
 한찬(韓縵) 134, 135  
 한천(韓藏) 663, 665  
 함장(函杖) 370, 372  
 함장(銜杖) 375,  
 함장(嚙杖) 375  
 함지(頷之) 602  
 함지(咸池) 117, 118  
 함국(闔國) 569, 570  
 함국존사(闔國尊師) 570  
 함원승재(闔院僧齋) 403, 404  
 합포주환(合浦珠還) 211  
 항오자(行伍者) 682, 683  
 항하사겁(恒河沙劫) 73  
 해동금상인(海東金上人) 178, 179  
 해룡사(海龍寺) 615, 616  
 해안사(海安寺) 41, 370, 372, 383, 384  
 해약(海若) 141, 142  
 해양(海陽) 555, 556  
 해우(槩隅) 295, 296  
 해의위이교범루강(解議圍而橋梵壘降)  
 376, 377  
 해인사(海印寺) 42, 82, 203, 460, 473, 474,  
 497  
 해조음(海潮音) 384  
 해좌해우(海左海隅) 203

해향(海鄉) 268  
 해해(醢醢) 604, 605  
 해호석(解虎錫) 332  
 해활(海濶) 652, 653  
 해회(海會) 307, 309  
 행각(行脚) 245, 248  
 행엽(行葉) 306  
 행초(行超) 38  
 행충(幸聰) 38  
 행춘지화(行春之花) 242, 243  
 향로봉(香鑪峰) 680  
 향사(香社) 522, 523  
 향산사(香山寺) 617, 619  
 향상일로(向上一路) 264, 265  
 향해원(香海院) 491, 492  
 향화인연(香火因緣) 158, 160  
 허원(虛源) 165, 167  
 허회(虛懷) 65  
 현면(軒冕) 369  
 현상(軒裳) 60  
 현안대왕(憲安大王) 151, 152, 153  
 헌제(獻替) 161, 162  
 현현(軒軒) 512, 513  
 협도도사(險道道師) 321, 322  
 혁하수고지명(革夏受顧之命) 252  
 현거(懸車) 147  
 현겁(賢劫) 361, 362  
 현공찬지어계명(玄功薦社於繼明) 309, 310  
 현기(玄基) 303  
 현무(玄霧) 190, 192  
 현복(玄福) 118, 339, 340  
 현수(賢首) 397, 450, 464, 465  
 현수교관(賢首教觀) 438, 440  
 현수법장(賢首法藏) 438  
 현엄(玄嚴) 658  
 현영(玄影) 165  
 현자(玄慈) 97  
 현장(玄奘) 362, 415  
 현장법사(玄奘法師) 207, 360, 442  
 현장삼장포서역지위생(玄奘三藏拋西域之爲牲) 207, 208  
 현종(玄宗) 193, 194  
 현창(賢暢) 35  
 현하지변(懸河之辯) 384  
 현허(玄虛) 192  
 현현시화(玄玄示化) 279  
 현화(玄化) 341, 342  
 현화사(玄化寺) 41, 392, 393, 396, 403, 404, 407, 420, 421  
 현휘(玄暉) 38, 209  
 혈유(牙遺) 137, 138  
 형암사(兄巖寺) 618  
 형엄노당(復掩魯堂) 391, 393  
 혜가(慧可) 133, 196, 265, 372, 536, 553, 590, 643  
 혜가단비(慧可斷臂) 211, 536  
 혜가(惠柯) 244, 245  
 혜가(慧柯) 306  
 혜거(惠據) 381, 382  
 혜광율사(慧光律師) 464  
 혜기(惠琪) 649  
 혜능(慧能) 57, 58, 68, 100, 133, 196, 590, 722, 723  
 혜덕왕사(慧德王師) 389, 420  
 혜목대사(慧目大師) 276, 277

혜목산(慧目山) 39, 238, 245, 246, 260, 271, 272  
 혜사(慧思) 448, 449  
 혜선(慧宣) 442, 443, 495, 496  
 혜성대왕(惠成大王) 154  
 혜소(慧昭) 36, 87, 88, 97, 98  
 혜소(慧素) 497, 500, 501  
 혜심(惠諶) 533, 534  
 혜심(慧諶) 507, 533  
 혜원(慧遠) 85, 92, 99, 154  
 혜원법사(慧遠法師) 154, 260, 388, 416  
 혜조(慧稠) 스님 653  
 혜종대왕(惠宗大王) 256  
 혜철(惠哲) 64  
 혜초(惠超) 스님 394  
 혜충국사(慧忠國師) 208  
 혜충대사면남양지우화(慧忠大師免南陽之遇禍) 208  
 혜필선사(惠弼禪師) 316  
 혜필지동용이(惠弼之動龍頤) 316  
 혜휴(惠休) 691  
 호경(鎬京) 380, 382  
 호계(虎溪) 260, 261, 271, 272  
 호계삼소(虎溪三笑) 85  
 호구소룡(虎丘紹隆) 643  
 호국삼부경(護國三部經) 316  
 호란불별(蒿蘭不別) 412  
 호법영지(護法靈祇) 333  
 호법천(護法天) 135  
 호석(虎錫) 332, 333  
 호시(虎視) 555  
 호양(好讓) 125  
 혼교(魂交) 135

혼수(混脩) 657  
 혼옥(昏旭) 202  
 홀우녹림(忽遇綠林) 206, 207  
 홍균(鴻均) 362  
 홍도(鴻圖) 309, 310  
 홍양공(洪陽公) 637, 638  
 홍연(洪延) 637  
 홍원사(洪圓寺) 42, 459, 463, 464, 465  
 홍인(弘忍) 57, 58, 133, 196, 590, 643, 722  
 홍인대사(弘忍大師) 721, 722  
 홍자번(洪子蕃) 624  
 홍척(洪陟) 64  
 홍칙(宏則) 487  
 홍필(鴻筆) 276, 277  
 홍호사(弘護寺) 497  
 홍화사(弘化寺) 619  
 화광(和光) 268  
 화광동진(和光同塵) 268  
 화기연(畫其緣) 495, 496  
 화산(花山) 62  
 화산(華山) 547, 548  
 화성(化城) 226, 320  
 화언(華言) 166, 167  
 화엄종(華嚴宗) 120, 311, 428, 475  
 화엄경(華嚴經) 138, 248, 303, 304, 324, 325, 371, 449, 464, 473, 559  
 화엄론(華嚴論) 515, 516, 520, 538  
 화엄십찰(華嚴十刹) 293  
 화자관(華資官) 175, 176  
 화장사(花藏社) 615, 616  
 화장사(華藏寺) 47, 717, 718  
 화진(火辰) 205, 206  
 화택(火宅) 75

화현(花縣) 242, 243, 298, 299  
 확집간사(確執懇辭) 403, 404  
 환봉고로(圓封告老) 416  
 환암혼수(幻庵混修) 690  
 환앙(環仰) 260, 261  
 환영(奂榮) 36, 112  
 환영(寶瀛) 341, 342  
 환조방예(圓鑿方枘) 84  
 활감(滑甘) 90, 91  
 황견유부의손제구(黃絹幼婦外孫璽臼)  
 224, 275, 344, 409  
 황견지사(黃絹之辭) 409  
 황금방(黃金榜) 125  
 황두계옥(蝗蠹桂玉) 159, 160  
 황매산(黃梅山) 722  
 황매의발(黃梅衣鉢) 722  
 황벽희운(黃巖希運) 584, 643  
 황소(黃巢) 116, 162  
 황학난야(黃壑蘭若) 36  
 황흑마노염주(黃黑碼瑙念珠) 323, 324  
 회두(懷斗) 252  
 회사(淮泗) 446, 447  
 회상(會上) 224  
 회심목설(灰心木舌) 120  
 회하(會下) 203  
 횡타도예(橫拖倒曳) 525  
 효빈(效顰) 345  
 효축건서의(曉竺乾西意) 380  
 후지원정축(後至元丁丑) 639, 640  
 후호이관자(猴虎而冠者) 152, 153  
 훈영(勛榮) 159, 160  
 훈지상응(塤簨相應) 105, 106  
 훼손괴형(毀服壞形) 519  
 휘불일이존승(攝佛日以尊僧) 341  
 휴정(休靜) 46, 671, 673, 676, 688  
 흘추(通追) 342  
 흑두타(黑頭陟) 92, 93  
 흑백분파(黑白奔波) 333  
 흑산도(黑山島) 140, 179  
 흑의이결(黑衣二傑) 95  
 흡연(翕然) 469, 470  
 흥륜사(興輪寺) 76, 150, 151  
 흥문감경(興文監卿) 189, 190  
 흥복사(興福寺) 474, 495  
 흥선사(興善寺) 530, 532  
 흥왕사(興王寺) 42, 458, 459, 461, 475,  
 491, 492, 493, 495, 496  
 흥화존장(興化存獎) 643  
 희미(希微) 90, 91  
 희양산(曦陽山) 647, 651  
 희양원(曦陽院) 40, 237, 284  
 희이(希夷) 57, 58, 193, 194



## 譯注者 역주자

● 伽山智冠 가산지관...1932년 慶北 迎日郡 淸河面 柳溪里에서 出生, 1947년 慶南 陝川 海印寺에서 慈雲스님을 恩師로 하여 得度하였다. 1955년 海印寺講院 耘虛스님 講下에서 大敎科를 卒業하고, 1960년부터 1970년까지 海印講院 講主로 있으면서 後學을 養成하였다. 이어 海印寺 住持를 歷任하였으며, 曹溪宗 宗會副議長, 東國學園 監事, 東國學園 理事, 그리고 東國大學校 敎授로 在職하면서 正覺院長, 佛敎大學長, 敎育大學院長 등을 거쳐 제11대 東國大學校 總長을 歷任하였다. 大韓佛敎曹溪宗 元老會議 議員과 제32대 總務院長을 역임하고, 현재는 東國大學校 名譽敎授, 社團法人 伽山佛敎文化研究院 理事長 겸 院長으로서 韓國佛敎의 中興과 學術文化振興에 힘쓰며 著述活動에 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伽山佛敎大辭林』(권1~12)·『緇門私記』·『楞嚴經略解』·『韓國佛敎所依經典研究』·『南北傳六部律藏比較研究』·『伽椰山海印寺誌』·『比丘尼戒律研究』·『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新羅篇·高麗篇1~4·朝鮮篇1)·『韓國高僧碑文總集』(朝鮮朝·近現代)·『韓國佛敎戒律傳統』 등 다수가 있고, 논문 수십 편이 있다.









# 韓國傳統思想書刊行委員會 한국전통사상서간행위원회

## • 간행위원회 위원장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海峰 慈乘

##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影潭 · 기획실장 圓潭 · 재무부장 性月

문화부장 曉吞 · 사회부장 慧耕 ·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圓徹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正滿 · 불교신문사장 修弗 · 기획국장 釋然

## • 간행위원회 간행위원 •

제1팀… 海住 동국대학교 교수

제2팀… 金榮郁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제3팀… 鄭炳三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제4팀… 李晉晝 부산대학교 교수

제5팀… 圓徹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제6팀… 古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실장

제7팀… 彌山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正德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선임연구원… 金宰晟 · 金鐘仁 · 李洪九

연구원… 權奇燦 · 金惠珍

편집·제작… 尙賢淑 · 朴鍾壹







## 韓國傳統思想叢書 한국전통사상총서

韓國人の 歴史와 그 文化의 最古層에 穩연히 자리하고 있는 韓國의 傳統佛敎思想은 우리 精神史의 原型이며 韓民族 數千年 知性史의 基軸이다. 일천칠백여 년간 韓國인 그리고 韓國 내에서 유구히 傳承·축적된 韓國의 불교문화와 사상을 代表하는 작품들을 精選하고 한글과 영문으로 주석·번역하여 “한국전통사상총서[불교편]”으로 엮었다. 韓國의 불교문화와 사상을 國內·外에 널리 刊行·流通시킴을 目標로 대한불교조계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海住	精選 元曉 … 晉譯華嚴經疏序·無量壽經宗要 등 17篇
海住	精選 知訥 … 勸修定慧結社文·修心訣·圓頓成佛論 등 7篇
金榮郁	精選 休靜 … 淸虛堂行狀·禪家龜鑑·禪教訣 등 5篇
海住	精選 華嚴 I … 華嚴一乘法界圖·法性偈 주석 모음 등 7篇
鄭炳三	精選 華嚴 II … 海印三昧論·大覺國師文集 등 4篇
鄭炳三	精選 諸敎學 … 三彌勒經疏·成唯識論學記(選) 등 6篇
金榮郁	精選 公案集 I … 禪門拈頌說話(選)
金榮郁	精選 公案集 II … 禪門拈頌說話(選)
金榮郁	精選 禪語錄 … 眞覺語錄·白雲語錄 등 4篇
李晉吾	精選 詩選集 … 無衣子詩集·湖山錄 등 26篇
鄭炳三	精選 文化 … 往五天竺國傳·三國遺事(選)
圓徹	精選 戒律 … 梵網經古迹記·菩薩戒本宗要并序
智冠	精選 韓國高僧碑文 … 韓國高僧碑銘 15基



